瑞山民俗誌

慶熙大學校 民俗學研究所 編

（下）

題　字：鄭憲時
題　號：金顯龜

瑞山民俗誌

慶熙大學校 民俗學研究所 編

(下)

瑞山文化院

차 례

Ⅳ. 言語傳承 ..... 崔雲植 · 金昌辰 15

一. 概 觀 15

二. 方 言 ..... 金昌辰 20

1. 瑞山邑 德之川里 23
2. 高北面 長要里 42
3. 音岩面 遊溪里 48
4. 海美面 多岩里 62
5. 雲山面 餘美里 76
6. 聖淵面 鳴川里 81
7. 地谷面 中旺里 85
8. 浮石面 倉里 94
9. 仁旨面 野堂里 95
10. 近興面 程竹里 96
11. 泰安邑 平川里 97
12. 八峰面 陽吉里 97
13. 所遠面 波濟里 98
14. 古南面 古南里 99
15. 南面 夢山里 101
16. 기타 方言(特殊用語) 103

三. 地名 · 俗談 · 수수께끼 · 기타 111

1. 瑞山邑 德之川里 111
2. 高北面 長要里 114
3. 音岩面 遊溪里 115
4. 海美面 多岩里 118
5. 雲山面 餘美里 121
6. 聖淵面 鳴川里 123
7. 地谷面 中旺里 125

8. 浮石面 倉里……127
9. 古南面 古南里……128
10. 安眠邑 黃島里……130
11. 遠北面 梨谷里……130
12. 南面 夢山里……131
13. 大山面 獨串里……133
14. 仁旨面 野堂里……133
15. 近興面 程竹里……134
16. 泰安邑 平川里……136
17. 八峰面 陽吉里……136
18. 所遠面 波濤里……138
19. 梨園面 蒲地里……139
四. 說 話……崔雲植……141
가. 傳 說……141
1. 소탄산 밑의 연못배미……141
2. 강당리 절의 스님과 에밀레종……142
3. 선녀가 데려간 아기장수……146
4. 아기장수와 용마……147
5. 장요리의 형제 고목나무……148
6. 지먹 놀은 집터……149
7. 삼진산의 쌀바위(1) ……150
8. 삼진산의 쌀바위(2) ……151
9. 가야산의 문다래미와 성재골……152
10. 용바위와 샘물……152
11. 절 골……153
12. 불여우 고개……153
13. 한다리의 유래(1) ……154
14. 한다리의 유래(2) ……156
15. 한다리의 유래(3) ……157
16. 용유대와 단고대……157
17. 용바위 ……158
18. 개바위(1)……159
19. 개바위(2)……159
20. 梅花落地에 자리한 서산 상수도……161

21. 죽개 바위……162
22. 안국사지 아래의 배(船)바위……163
23. 여미리의 미륵불상……164
24. 渴馬飮水形의 쉰 길 바위……166
25. 부자를 망하게 한 둑과 연못……167
26.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1)……168
27. 말채찍으로 판 샘……169
28. 土亭을 살린 산신령……170
29. 전라도에서 세금을 받아가던 전라산……172
30. 개성에 간 김삿갓……172
31. 황금산 앞바다의 조기떼를 몰고간 황룡……173
32. 황금산의 두 굴과 용못……175
33. 마고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1)……175
34. 浮石과 부석사 샘물……176
3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2)……177
36. 무학대사와 간월도 무당사……179
37. 토끼섬과 무학대사……181
38. 해인사의 불을 끈 무학대사……182
39. 무학대사와 한양성(1)……182
40. 무학대사가 잡아 준 묘자리……184
41. 뱀신을 물리치고 망한 허씨……185
42. 조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임장군……187
43. 팔봉산의 명당자리……188
44. 팔봉산이 여덟봉이 된 까닭……189
4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3)……189
46. 무학대사와 한양성(2)……190
47. 빈대 때문에 망한 절……192
48. 人糞으로 맥질한 절……192
49. 용난 굴……193
50. 효자 金玉鉉……194
51. 쌀 위에 있는 浮石……195
52.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4)……195
53.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1)……196
54. 오현봉과 북정산……198

55. 손님 싫어하다 망한 집……198
56. 백화산의 永思臺……199
57. 文氏孝子 ……201
58. 池氏孝子門 ……201
59. 한 봉이 우는 팔봉산……202
60. 팔봉산의 친제터와 굴……203
61. 팔봉산 계곡의 은어……204
62. 한 봉이 없어진 팔봉산……205
63. 팔봉산의 젓가락봉우리……206
64. 제물을 훔친 사람을 벌한 산신……206
65. 波濤里의 유래……208
66. 용 난 굴……209
67. 공사여와 제비랭이……209
68. 아기장수와 용마……210
69. 무학대사와 한양성(3) ……211
70. 쌀나오는 구멍……213
71. 賈誼島의 유래……213
72. 왕등도의 전씨……214
73.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215
74. 대문을 달지 않은 한동 이씨네 집……216
75. 마고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2)……221
76. 말섬, 길마섬 할미바위……222
77. 衣店의 유래……223
78. 노루망 ……224
79.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5)……224
80. 해적을 쫓은 양반……225
81. 황촌리 당재와 서낭당……226
82. 斷脂한 효자……227
83. 자를 때 피가 난 산……228
84. 피가 흐르던 참개……229
8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6)……230
86. 무학대사와 한양성(4) ……230
87. 대문을 달지 않은 한동 이씨네 집(2)……232
88. 외적을 물리친 칠뱅이와 가시내……234

89. 중국에서 떠 들어 온 선접산……235
90. 강태공 낚시질 하던 산부리……236
91. 대방이섬의 샘물……236
92. 저승에 갖다 온 노인……237
93. 용 난 굴과 학바위(1)……238
94. 용 난 굴과 학바위(2)……239
95. 각씨바위 ……240
96. 피가 나서 못 자른 목말……241
97. 황촌리 서낭당……242
98. 구렁이가 많이 나온 집터……243
99. 梨遠面의 유래……244
100. 蒲地里의 유래……245
101. 만대와 수억말……245
102. 辭職 고개……246
103. 官里의 유래……246
104. 면 소재지가 될 것을 예고한 地師……247
105. 가랫장부가 군수 알아 보나?……248
106. 피가 흐른 굴향천……249
107. 고기를 훔쳐 가는 도깨비……249
108. 마고할미 속곳 말린 바위……250
109. 호랑이가 아껴 준 마을……251
110. 살고지의 유래……252
111. 雲井里의 유래……252
112. 세사람을 죽일 바위……253
113. 居兒島와 望美……253
114. 거아도의 탑 할머니 ……255
115. 남면의 賈氏……256
116. 삼도의 묘……257
117. 삼도와 지치도 사이의 바닷길……257
118. 浮石과 浮石寺……258
119.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3)……260
120. 운하 공사와 신털이봉……260
121. 학이 날개로 보호한 아이와 간월도……262
122. 간월도의 쌀 나오는 구멍……263

123. 몽산리 문씨……264
124. 떡바위(1)……265
125. 떡바위(2)……266
126. 夢 坐……267
127. 夢坐遺蹟碑 ……268
128. 빈대 떼문에 망한 죽절……268
129. 장구벌의 망부석……269
130. 마침재와 말미당굴……269
131. 적돌의 돌무덤……270
132. 양잠리의 제방……270
133. 남면의 신털이봉……271
134. 각시바위 ……272
135. 할미바위와 할아비바위……273
나. 民 譚……275
1. 사위들의 글짓기 자랑……275
2. 저승가는 길에 연애한 총각과 처녀……277
3. 장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사위……280
4. 제사 시간에 늦은 영혼의 傳言……284
5. 소금장수와 불여우……285
6. 연과 姦夫……287
7. 묵 빼앗아 먹고 할머니까지 잡아 먹은 호랑이……288
8. 사람에게 잡아 먹힐 뻔한 여인……290
9. 소금 기둥이 된 며느리……291
10.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효자……293
11. 정성껏 빌어 아버지 병을 고친 효녀……294
12. 우렁이 색씨를 찾다가 죽은 총각……296
13. 선녀와 나뭇꾼……298
14. 여우에게 홀려 죽을 뻔한 남자……300
15. 해와 달이 된 오누이……301
16. 어머니를 살린 효녀……304
17. 구렁덩덩 신선비……306
18. 콩쥐 팥쥐……308
19. 은도끼와 금도끼……312
20. 조마귀 ……313

21. 개구리가 가져다 준 복……315
22. 수수깡이 빨간 이유……318
23. 정성껏 하는 대접은 고맙게 받아라……322
24. 부모의 영혼이 가르쳐 준 약……323
25. 아버지가 물려준 채권을 포기한 아들……325
26. 방갓이 아니라 뱅갓이다……327
27. 살인범은 柳孔葉이다……328
28. 까마귀의 말을 알아 듣는 사람……331
29. 피로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친 아들……332
30. 지드란 개가 지드란 깽깽했다……334
31. 지렁이 고기 먹고 눈 뜬 시어머니……335
32. 귀먹어 3년, 눈멀어 3년, 벙어리 3년……336
33. 가재에게 눈을 빼앗긴 지렁이……338
34. 달라지 고개……339
35. 중들의 의지력 시험……340
36. 갈매기가 된 여동생(1)……341
37. 황새가 우렁이 잡은 이야기에 놀란 도둑……342
38. 배서방과 공서방……343
39. 나비가 된 처녀와 총각……344
40. 끝이 없는 이야기……345
41. 방귀 잘 뀌는 여자……347
42. 아버지의 거짓 죽음과 딸의 울음……349
43. 나뭇군과 동자삼……350
44. 벼룩 잡으려고 집에다 불을 놓은 사람……351
45. 어리굴젓도 젓이다……352
46. 광문 앞에 매달린 양 의달이……353
47. 두 남편……354
48. 중이 주고 간 선물……356
49. 해인사의 불을 끈 김 복선……358
50. 상전의 말을 팔아 먹은 김 복선……359
51. 살인을 막아준 점괘……360
52. 굴에 코를 빠뜨린 김 복선……361
53. 車 福……362
54. 즉시 발복하는 묘자리……364

55.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1)……369
56.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2)……370
57. 손님 대접을 잘하여 부자된 사람……371
58. 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가?……372
59.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라(1)……373
60.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라(2)……374
61. 겉멋만 아는 며느리……375
62. 촐싹대는 며느리……377
63. 훼절한 과부를 벌한 박 문수……378
64. 바위를 찌르는 사람과 산적……379
65. 죽을 수는 독 안에서도 못 피한다(1)……381
66. 出天之孝子 황 필도……382
67. 합천 해인사를 털은 홍길동……384
68. 먼 산불에 김을 굽는 며느리……385
69. 정성스런 제사……386
70. 맹정승을 몰라 본 군수의 아들……388
71. 중을 구해 주고 얻은 묘자리……390
72. 호랑이가 된 황 필도……391
73. 한 겨울에 죽순을 얻은 효자……392
74. 삼정승이 나는 묘자리……392
75. 代命에 죽은 점장이 곽박……394
76. 不笑 정승……395
77. 아내의 정절 시험……399
78. 문자 쓰다가 장인 죽게한 사위……402
79. 멱보와 중국 사신……403
80. 갈매기가 된 여동생(2)……406
81. 꿩의 울음소리……407
82. 뻐꾹새의 울음소리……408
83. 불알 보고 홍시라고 한다……408
84. 죽을 수는 독 안에서도 못 피한다(2)……411
85.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3)……412
86. 짚신을 오래 신는 비결……413
87. 과부 후려 장가들기……414
88. 아버지를 장가들인 꼬마 아들……415

89. 과부를 시집 보낸 거짓말……416
90. 사나운 여자 길들이기……418
91. 여자의 속옷 벗기기……419
92. 양가집 처녀와 결혼한 머슴……422
93. 신부의 신랑 고르기……424
94. 진실한 친구……426
95. 地術로 얻은 평양감사……429
96. 할았다는 증거……431
97. 부모님의 재혼……432
98. 八文章을 누른 무식장이……435
99. 잘못 붙인 중의 입술……437
100. 단간방에 사는 부부……438
101. '응'하려다 망한 대감……439
102. 학질 잘 떼는 총각……441
103. 누룽지 잘 긁어주는 엄마……442
104. 불알 발린 호랑이……443
105. 꼽 장사인데 왜 안 넣어?……445
106. 장님과 벙어리의 대화……447
107. 적덕한 사람이 받은 보응……448
108. 도깨비가 준 복……452
109. 도깨비가 준 명당자리……455
110. 용의 보은……456
111. 집안 우애는 안에서 잘해야……459
112. 신통한 꼬챙이……460
113. 장사와 늑대……466
114. 축은 아들에게서 손자 보는 묘자리……467
115. 암행어사의 아우……471
116. 죽은 남편의 현몽……474
117. 호랑이를 죽여 원수 갚은 아들……477
118. 유골을 묻어 준 어부……478
119. 도깨비 덕으로 부자된 심씨……479
120. 저승에 갔다 온 사람……482
121.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483
122. 떡보 사신……485

123. 강도를 감동시켜 부자 된 사람……486
124. 돌로 만든 말과 모래줄……489
125. 은가위 ……491
126.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아라……497
127. 조 한 이삭 ……498
128. 고양이가 된 등짐장수……501
129. 쫓겨난 딸……503
130. 아버지의 원수……504
131. 우물 속의 송아지……509
132. 서모와 퉁소……510
133. 구렁덩덩 신선비……513
134. 정신을 차려야 산다……518
135. 소가 된 욕심장이……519
136. 바보 신랑……522
137. 단 방귀 장수……524
138. 연과 간부……526
139.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528
140. 대호의 병을 고친 포수……532
141.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할아버지……535
142. 개와 고양이와 연적……537
143. 다시 살아난 신랑……540
五. 民　謠 ……崔雲植……544
1. 상여 노래……544
2. 논매기 노래(얼카멩이)……544
3. 숫자풀이 노래……545
4. 아 리 랑……546
5. 노랫가락 ……546
6. 시집살이 노래……547
7. 노랫가락 ……547
8. 청춘가 ……548
9. 창부타령 ……548
10. 아리랑 ……549
11. 그네 노래……550
12. 아리랑 ……550

13. 꼬대 각씨 ····· 551
14. 창부타령 ····· 551
15. 노랫가락 ····· 552
16. 상여 노래 ····· 552
17. 사랑가 ····· 553
18. 창부타령 ····· 554
19. 청춘가 ····· 555
20. 노랫가락 ····· 555
21. 노랫가락 ····· 556
22. 노랫가락 ····· 557
23. 물레 노래 ····· 557
24. 방아 노래 ····· 558
25. 왕굴자리 노래 ····· 558
26. 모심기 노래 ····· 559
27. 쾌지나칭칭나네 ····· 560
28. 뱃노래 ····· 560
29. 창부타령 ····· 561
30. 청춘가 ····· 561
31. 노랫가락 ····· 562
32. 딱다구리 타령 ····· 562
33. 모찌는 노래 ····· 563
34. 도사리 노래 ····· 564
35. 모심기 노래 ····· 564
36. 논매기 노래 ····· 565
37. 만되기 노래 ····· 566
38. 노랫가락 ····· 567
39. 노랫가락 ····· 567
40. 노랫가락 ····· 568
41. 논매기 노래 ····· 568
42. 모 찌는 노래 ····· 571
43. 모심기 노래 ····· 572
44. 벼 베는 노래 ····· 572
45. 자리개질 노래 ····· 573
46. 말되기 노래 ····· 573

47. 상여 노래……574
48. 논매기 노래……575
六. 俗　談……崔雲植……576
속담(1)……576
속담(2)……577
속담(3)……578
七. 수수께끼……崔雲植……579
수수께끼(1)……579
수수께끼(2)……580

Ⅶ. 藝能과 競技傳承……張長植……583

一. 概　觀……583
二. 각 마을의 民俗놀이……584
1. 瑞山邑 德之川里……584
2. 高北面 長要里……593
3. 音岩面 遊溪里……606
4. 海美面 名岩里……614
5. 雲山面 餘美里……630
6. 聖淵面 鳴川里……646
7. 地谷面 中旺里……651
8. 大山面 獨串里……670
9. 浮石面 倉里……683
10. 仁旨面 野堂里……696
11. 近興面 程竹里……707
12. 泰安面 平川里……714
13. 八峰面 陽吉里……723
14. 古南面 古南里……732
15. 安眠邑 黃島里……739
16. 遠北面 梨谷里……751
17. 梨園面 蒲地里……763
18. 南面 夢山里……772
・瑞山民俗月曆……779
・瑞山民俗關係文獻目錄……780
・瑞山民俗地圖……781

Ⅵ. 言語傳承

崔 雲 植·金 昌 辰

一. 概　　觀

언어전승으로는 방언, 지명, 설화, 민요, 속담, 수수께끼 등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이것들은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자료조사의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자료의 양도 대단히 많은 것이어서, 두 사람이 분담하여 조사하였다. 방언 및 지명은 김창진이, 설화(전설·민담)·민요·속담·수수께끼는 최운식이 맡아서 조사하였다. 이들의 조사 방법 및 자료의 특성을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언, 지명

가. 방언

이번 서산 지역 방언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방언 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종합적 민속 조사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제보자를 만나서 적어도 일주일여의 시간을 갖고 방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없었다. 민속 조사를 하루에 한 마을 또는 두 마을을 하였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였다. 정신 문화 연구원에서 나온 〈방언 조사 설문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연적인 발화를 통한 조사도 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의 제1~3권까지는 거의 다루었고, 두 번 이상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항목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

서산 지역 방언의 음운적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그 하나는 쉽게 발음하려

는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경제성이 다른 성질보다도 가장 세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음의 일곱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구개음화(口蓋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연구개음(軟口蓋音)인 /ㄱ/이 /ㅣ/모음의 영향으로 경구개음(硬口蓋音)인 /ㅈ/으로 바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길>질, 기름>지름, 길다>질다, 김(海苔)>짐, 기둥>지둥, 一끼리>一찌리, 끼다<찌다」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약간 변형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다. 「겨드랑<저드랑, 가깝다>가찹다, 도끼>도치, 키>치, 계시다>지시다」 등이 그것이다.

두째, ㅣ모음 역행 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한 품사 안에서 일어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방망이>방맹이, 참빗>챔빗, 종일>쫑일, 호랑이>호랭이, 남비>냄비, 모자(母子)>모재, 가리다>개리다, 죽이다>쥑이다」. 다른 품사와 결합하면서 일어나는 예는 다음과 같다. 「복(福)이여>뵉이여, 영감이>영갬이, 장(場)이>쟁이, 이장(里長)이>이쟁이, 기억이>기엑이, 반갑기도>반갭기두」.

세째, 축약(縮約) 현상이 나타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마을>말, 고을>골, 주인>전, 눌은밥>눈밥, 세우기>세기, 귀여운>귀연, 때문에>때미, 거기로>그루, 모여>뫼, 몰라유>몰류, 들어와요>들와유」.

네째, 음성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어요/>/-이유/에 의한 충청도식 어투와 요왕(龍王)>유왕 등의 예는 /요/>/유/의 변화를 보여준다. /아/>/어/의 예는 「나물>너물, 남>넘, 하다>허다, 까불다>꺼불다, 하여간>허여간」 등이다. 또, 「오>우」의 예는 「못>뭇, 저고리>저구리, 조왕>주왕, 호랑이>후랭이」 등이 있다.

다섯째, ㅣ모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ㅣ모음은 혀앞소리(前舌母音)이며 고모음(高母音)이기 때문에 가장 발음하기 쉬운 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기 어려운 다른 위치의 음들을 서산 지역의 언중(言衆)들은 가장 손쉬운 ㅣ모음으로 대체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아/, /-어/>/-이/의 예로는 「같아요>같이유, 했어요>했이유, 있을거요>있을끼유, 구렁이>구링이, 저>지, 너>니」 등이 있다. 또, /-우/>/-이/의 예로는 「메뚜기>메띠기, 죽이다>직이다」 등이 있다. 그리고, /-에/>/-이/의 예로는 「세살>시살, 네살>니살, 소제>소지, 세수>시수, 그런데>그런디, 할 텐데>할 틴디, 집에>집이」 등과 「폐백>피백」의 유사한 예도 나타난다. 또, /-으/>/-이/의 예는 「드리다>디리다, 들여주다>딜여주다, 구슬>구실」 등이 있고, /-의/>/-이/의 경우는 「의견>이견, 탐의 똥>달기 똥, 이웃의 노인>이우지 노인」 등이 있다. 또한, /위/>/이/의 경우도 있는데, 「뒤주>디지, 벳쥐>베찌」 등이다.

여섯째, 전설모음화(前舌母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아/>/애/의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상여>생여, 아명>애명, 바다>바대, 초당>초댕, 삿갓>샛갓, 담벼락>댐뿌락, 만들다>맨들다」 등이 그 예이다. /어/>/에/의 경우도 나타나는데, 「저자>제자, 청어>청에, 덩이>댕이」 등이다.

일곱째, /어/>/으/의 고모음화(高母音化) 현상이 나타난다. /으/는 /어/보다 입을 적게 벌리고 발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그짓말, 없다>읎다, 석줄>슥줄, 서숙>스숙, 어사>으사, 성인>승인, 건너>근너, 거들다>그들다」 등이 그 예이다.

서산 지역 방언의 두번째 음운적 특징은 고형(古形)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개(犬)/를 /가이, 가히/라고 하는데, 이는 조선 시대의 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다른 지방에서는 가히>가이>개로 변해버렸지만, 서산 지역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뱀/을 /비얌/, /게(蟹)/를 /그이/라고 발음하고 있는 것도 같은 경우이다. 그밖에도 /샘(泉)/을 /사암/으로, /돼지/를 /돼야지/로, /새끼/를 /사내끼/로, /소경(盲人)/을 /소이경/으로 발음하는 것도 같은 현상으로 생각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묘(墓)/를 서산의 동부 내륙 지방에서는 /모이/로, 서부 해안 지방에서는 /무이, 무요/로 발음하고 있는 현상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요/가 옛날에는 /오이/의 2중 모음으로 발음되었으리라는 점이다. 위의 /소경/은 고어가/쇼경/이므로, /쇼경/>/소이경/>/소경/의 변천을 겪었다고 보여지는데, 서산은 아직/소이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이/와 /무이/에서 /묘/에 가까운 원형은 /모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동부 내륙 지방이 더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서부 해안 지방이 모이>무이의 음성 모음화의 변화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가새(剪)/, /무수/, 갓(邊)/ 등에서 ㅅ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특수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언들의 경우가 있다. 「모르다>물르다」는 유추(類推) 현상을 보여준다. /모르/의 고형은 /모르/이므로 /물르/는 고형도 아니다. 그렇다면, /물르다/는 그 부사형인 /물러/에서 「ㄹ>ㄹㄹ」로 유추한 현상이 아닐까 한다. 또한 이 현상은 ㄹ음의 역행 동화로도 볼 수도 있다. 즉, /르/의 ㄹ음이 앞의 /모/에 영향을 주어 발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첨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날아오다>널러 오다」의 경우는 ㄹ음의 순행 동화로 볼 수 있다. 발음도 더 편하며, 또 강한 효과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다르다>달브다」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확실한 원인을 알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서산 지역의 방언은 발음 시간이 타지역보다 길며, 어감이 부드러운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으로 요약된다. 특히, 조사(助詞)나 어미(語尾)가 정감이 넘치는 부드러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그러한 느낌을 준다. 즉, 「했디유, 했디여, 했디야, 하니께, 해봉께, 했남?, 했다나?, 않남이요?, 뭇히여, 물류, —부텀, —까정, 있이유」 등등이 그 일부의 예이다.

나. 지명

서산 지역의 지명을 조사한 결과, 우선 드러나는 특징은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지명은

고유어가 많고, 공식적 행정구역 명칭은 한자어라는 점이다.

고유어로 된 지명들은 세가지 점에서 좋은 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그 지명이 가리키는 곳의 지형적 특징을 알기 쉽다는 점이다. 즉, 「웃말, 아랫말, 앞굴, 뒷굴, 큰말, 작은말, 샘골, 양지뜸」 등등은 흔히 나타나는 지명인데, 그 마을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두째는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창말'이나 '구창터' 등도 많이 나타나는 지명인데, 여기는 옛날에 창고가 있던 곳들이다. 따라서 옛날에 교통상으로나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말우리', '말둥구리' 라는 지명도 있는데, 말이 울고 말이 뒹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해 본 결과, 여기는 조선 시대에 창고가 있어서 말들이 세미(稅米)를 운반했던 곳임을 알게 되었다. '요왕배미, 유왕배미'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용왕굿을 지냈던 곳이다. '배다리'라는 곳은 배가 닿았던 다리가 있는 곳이며, '빗돌머리'는 비석이 있던 곳이다. 세째는 한자어보다 정감이 있다는 점이다. '鳴川(명천)'보다는 '우르내'가, '冷川(냉천)'보다는 '찬샘'이, 井筏(정벌) 보다는 '샘벌'이, '項村(항촌)' 보다는 '목말'이 뜻도 알기 쉬울 뿐더러 우리에게 더 정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식적 행정구역 명칭들은 무조건 한자어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명들은 정감이 부족한 것은 물론, 뜻마저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이북면(梨北面)의 경우에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이원(梨園)과 북일(北一)이 합쳐지면서 각각 한 자씩을 따서 이북면이 되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한자를 조합해 놓았기 때문에, 글을 보지 않고 말만 들었을 때에는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해하기 십상이다. 결국은 이 폐단때문에 1987년 1월부로 이원면(梨園面)으로 돌아 가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은 오해는 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로만 들어서 뜻을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 다른 한 예를 들면, 야당리(野堂里)라는 마을이 있다. 한자를 보기 전에는 이 마을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도 야촌(野村)과 원당(元堂)이 조합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행정구역 명칭은 통폐합 때 이런 식으로 조합되었는데, 본지역 주민들마저도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구역 명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리하게라도 꼭 한자어를 써야만 하는지는 재고해야 될 문제라고 느꼈다.

지명 조사에서 두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주민들 중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그 지명에 대한 지식의 전승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 자신들도 알고는 싶지만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더 늦기 전에 향토사가들에 의해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느꼈다.

세번째의 특징은 두번째와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고유한 지명이 점차로 잊혀져 가고 있거나, 왜곡 변화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자어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자가 〈전국 지명 총람〉에서 조사한 지명을 질문하였을 때, 모르겠다는 주민도 있었고, 오랫만에 들어본다는 주민도 있었다. 또, 음운이 바뀌어가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분홍재'가 '부흥

재'로, 또 '서낭재'가 '사낭재'로 바뀌어 뜻이 바뀌어 버리는 예도 있다. 도비산도 되비산, 뒷박산 등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원이름인지 알 수 없다. '한다리'나 '전라산' 등의 경우에는 그 뜻에 대한 해석이 여러가지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름답고 정겨운 고유어로 된 지명이 한자어지명보다 많으며 그 원형을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내려갈수록 전승에 무관심해져서 원형이 왜곡되고, 나아가 지명 자체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다가, 행정구역상의 지명들은 전부 한자어인데, 조합된 경우가 많아서 재고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화, 민요, 속담, 수수께끼

조사자는 선정된 마을의 노인회관이나,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고, 그러한 장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호별 방문을 하여 지역 주민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만났다. 조사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화, 전설, 민담, 민요, 속담, 수수께끼의 중요성을 먼저 설명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구연을 부탁하여 녹음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먼저, 설화의 경우를 적어 보겠다. 조사자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연자에게 구연을 부탁하였다. 구연자가 구연할 의사를 표시하면, 성명과 연령을 물은 다음, 구연하게 하고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원음 그대로 적었다. 그런데, 서로 마주 앉아 주고 받던 전설이나 민담을 글로 옮김에 따라 현장성이 사라졌고, 구연 내용도 구연자 특유의 말씨·사투리·문장감각 때문에 이해에 어려움이 없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앞에 줄거리를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자료의 끝에는 구연자의 인적사항, 만나게 된 경위와 채록 상황, 청중 반응 등을 적어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설화를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구연 경력 등을 적어 그 자료의 전승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설화 자료 중 구전신화(口傳神話)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 홍수에 관한 것들이 더러 채록되기는 했으나 전설적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전설로 정리하였다.

전설의 경우를 보면, 지명전설(地名傳說)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였다. 해안 쪽에서는 용바위(龍岩), 용난 굴(龍窟) 전설과 같은 용과 관련된 전설과 섬 이름에 관한 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그리고, 가야산에 가까운 내륙지방에서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 풍수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인물전설로는 〈학이 날개로 보호한 아이〉, 〈무학대사와 한양성〉과 같은 무학대사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채록되었다. 그리고, 이인(異人) '김 북선', '토정'의 이야기도 더러 채록되었다.

이 지역에는, 배가 왕래하기에 편하도록 운하공사를 했었다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

에는 그곳의 지맥(地脈)을 끊으려고 땅을 파니, 피가 흘러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민담은 흥미와 교훈성은 강조되지만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역 민담의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른 지방에서 전파·전승되고 있는 민담들이 이 지역에서도 전파·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설화 구연자 중 성연면 명천리 195에 사시는 이 억룡(남, 71 세, 농업, 한문 수학) 씨와 인지면 야당리 2구 250에 사시는 이 봉율(남, 75 세, 농업, 국문 해득) 씨 등은 매우 유능한 구연자였다. 이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록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낀다.

민요의 채록은 설화를 채록한 뒤에 하였다. 설화를 채록하는 동안에 어색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채록하였다.

채록된 자료는 노동요, 의식요와 비기능요이다. 어른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화를 채록한 뒤에 그들을 대상으로 민요를 채록하였으므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이 불려질 것으로 생각되는 유희요는 채록하지 못했다. 노동요는 농업노동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식요는 상여노래가 많았다. 비기능요로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등이 많이 채록되었다.

민요는 농사 방법의 개량, 라디오나 텔레비젼의 보급 등 생활 양식이 바뀜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채록된 자료의 양과 질이 미미한 편이다.

속담과 수수께끼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약간의 자료를 수집했으므로, 두드러진 특징을 찾을 수는 없다.

二. 方　　言

崔　昌　辰

(일러두기)

1. 이 조사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체계적인 조사로서, 한국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 방언 조사 질문지》에 의하였다. 다른 하나는 자연적인 조사로서, 다른 분야의 조사 중에서나 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방언을 수집하였다.

2. 체계적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제보자를 밝히고, 앞의 책의 순서에 따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조사는 가능한 한 제보자를 밝히되 불가능한 경우는 생략하였으며, 그 기록도 시간적인 순서에 따랐다.

3. 조사된 방언의 기록은 표준어를 표제어로 하여 앞쪽에 적고, 현지 방언은 뒷쪽에 적었다. 방언의 표기는 한글과 발음기호의 두 가지로 하되, 한글을 앞에 적고 발음기호를 뒤에 적었다.

보기 (1) 쎠레 (Ⅰ.015) : 쓰레 s'i:-re

4. 방언의 표기에 쓰는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적되, 어법을 고려하였다.
5. 방언의 표기에 쓰는 발음기호는 국제음성부호(I. P. A)의 간이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일하였다.

아 [a]	애 [ɛ]	야 [ja]	얘 [jɛ]	어 [ə]	에 [e]	여 [jə]	예 [je]
오 [o]	와 [wa]	왜 [wɛ]	외 [ø]	요 [jo]	우 [u]	워 [wə]	웨 [we]
위 [y]	유 [ju]	으 [ɨ]	의 [ɨj]	이 [i]			
ㄱ [k, g]	ㄲ [k']	ㄴ [n]	ㄷ [t, d]	ㄸ [t']	ㄹ [l, r]	ㅁ [m]	ㅂ [p, b]
ㅃ [p']	ㅅ [s]	ㅆ [s']	ㅇ [ŋ]	ㅈ [tʃ, dʒ]	ㅉ [tʃ']	ㅊ [tʃʰ]	ㅋ [kʰ]
ㅌ [tʰ]	ㅍ [pʰ]	ㅎ [h]					

6. 방언의 표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호를 사용하는데, 그 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지역에는 조사항목이 지시하는 대상이 없어서 방언형을 조사하지 못했을 때 × 표를 한다. 단, 지금은 지시 대상이 없으나 그 명칭만은 남아 있을 경우에는 ×표를 한 뒤에 그것을 기록한다.

보기 (2) 디딜방아 (I. 040) : ×지질방아 [tʃi-dʒil-p'aŋ-a]

△ 지시대상은 있으나 그 명칭이 없을 때 △표를 한다. 단, 그 명칭이 방언형으로 어휘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대상을 풀이했을 경우에는 ( ) 안에 그것을 기록한다.

보기 (3) 확 (Ⅰ.042) : △(절구안 [tʃəl-gu-an])

? ① 지시 대상과 명칭은 모두 있으나 제보자의 응답을 얻지 못하였을 때 ?표를 한다. 단, 응답은 얻었으나 제보자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표 다음에 그 응답형을 기록한다.

보기 (4) 여물광 (Ⅰ.459.1) : ?

② 제보자의 응답에 대하여 조사자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응답형 뒤에 ? 표를 한다.

보기 (5) 부지깽이 : 불자락 막대? [pul-tʃ'a-rak-mak-t'ɛ]

◎ 미심쩍은 방언형에 대하여 재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때 ◎표를 한다.

보기 (6) 바구니 (Ⅰ.035) : ◎전라도 바구리 [tʃəl-la-do-ba-gu-ri]

※ 자연발화에서 얻어진 형태가 조사에 의한 응답형과 다를 때는 ※표를 하고, 그 뒤에

기록한다.

보기 (7) 벼 (Ⅰ.001) : 벼 [pjə] ※ 베 [pe]

+ 제보자가 아닌 협조자로부터 얻어진 방언형 앞에는 +표를 한다. 또, 제 2 의 협조자로부터 얻어진 방언형 앞에는 ++표를 한다.

보기 (8) 기와집 (Ⅰ.138) :
개와집 [kɛ-wa-dʒip] +기와집 [ki-wa-dʒip] ++지와집 [tʃi-wa-dʒip]

A>B 한 조사항목에 대하여 A(舊形), B(新形)의 두 방언형이 쓰일 경우 >표를 써서 그 관계를 나타낸다.

보기 (9) 엉덩이 (Ⅰ.242) : 궁댕이 [ku:ŋ-dɛŋ-i] > 웅댕이 [i:ŋ-dɛŋ-i]

A(B) 두 방언형이 쓰이지만 A가 B보다 좀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A는 밖에 놓고 B는 ( ) 안에 넣는다.

보기 (10) 고삐 (Ⅰ.452) : 괴뺑이 [kø-p'ɛŋ-i] (괴삐 [kø-p'i])

A, B ← A, B가 모두 쓰이나, B는 다른 방언으로부터의 차용이라고 제보자가 밝혀줄 경우에 ←표를 하여 그 지역을 적는다.

보기 (11) 반찬 (Ⅰ.074) :
반찬 [pan-tʃʰan] 건건이 [kən-gə-ni]←경상도

卑, 敬 조사된 방언형이 卑稱일 경우에는 卑, 敬稱일 경우에는 敬으로 뒤에 표시한다. 平稱은 이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보기 (12) 어머니 : 어머님 敬 [ə-mə-nim]

標, 方 표준말과 방언의 예를 각기 들어야 할 경우에 표시한다.

보기 (13) 標있어요 方있이유 [i-s'i-ju]

7. 조사항목에 붙여서 응답한 助詞나 語尾는 音의 辨別에 필요할 경우에만 기록하였다.

보기 (14) 집 (Ⅰ.027) : 집(으로) [tʃi-bi-ro]

8. ① 방언 기록의 번호는 서산군 전역을 통해 1, 2, 3……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그

뒤에 읍, 면, 리 등의 지명을 적는다. 그 아랫줄에는 마을 안의 제보자가 바뀜에 따라 Ⅰ, Ⅱ, Ⅲ……식으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방언 개별 항목의 번호는 한 마을 안에서는 제보자에 관계없이 (1), (2), (3)……식으로 일련번호로 붙이고, 새로운 마을에서는 새로이 일련번호를 붙여 나간다.

9. 특별한 전문적인 일에 관계되는 전문용어는 일반 방언들과 분리시켜 따로 독립시켰다. 곧, 염전 용어, 길쌈 용어, 김 양식 용어, 물때 용어가 이에 해당한다.

1. 瑞山邑 德之川里의 方言

Ⅰ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홍승표(여, 7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는 다른 조사 단원들과 함께 제보자의 집을 찾아갔다. 제보자는 이장으로부터 소개받았다. 제보자되는 홍승표 할머니는 4대째 이 마을에 살아오는 토박이로서 이곳에서 나서 본동으로 시집은 분이다. 건강상태가 좋아 농사와 집안일을 손수하였다. 성품은 순박하며 점잖으나 정성껏 조사에 응해 주었다. 조사는 마루에서 함께 앉아 하였는데, 조사지에 딸린 그림책을 보며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되는 도중, 제보자가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사가 중단되었다.
조사내용 : (1)~(145)

(1) 벼 (Ⅰ.001) : 벼 [pjə] ※ 베 [pe]
(2) 깽과리 (Ⅰ.009) : 깽그리 [k'ɛŋ-gi-ri]
(3) 농악놀이 : 법구놀이 [pə-k'u-no-ri]
(4) 상모 돌리다 : 돌무 돌리다 [tol-mu dol-li-da]
(5) 쟁기 (Ⅰ.010) : 쟁기 [tʃɛŋ-gi]
(6) 보습 (Ⅰ.011) : 보십 [po-sip]
(7) 써레 (Ⅰ.015) : 쓰레 [s'i-:re]
(8) 가마니틀 : 가마니틀 [ka-ma-ni-tɨl]
(9) 낫 : 낫 [nat]
(10) 호미 (Ⅰ.017) : 호미 [ho-mi]
(11) 괭이 (Ⅰ.019) : 갱이 [kɛŋ-i]

(12) 쇠스랑 (Ⅰ.020) : 소시랑 [so-si-raŋ]

(13) 삽 (Ⅰ.021) : 삽 [ʂap]

(14) 벗가리 (Ⅰ.024) :

벗누리 [pjən-nu-ri] ＋벗짚단 [pjə-tʃ'ip-t'an] ≒벳누리 [pen-nu-ri]

(15) 벼이삭 (Ⅰ.001.1) : 벼이삭 [pjə-i-sak]

(16) 벼훑이 (Ⅰ.025) :

그네? [ki-ne] ＋훌태 [hul-tʰɛ] ≒대막대기 젓가락 [tɛ-mak-t'ɛ-gi dʒə-k'a-rak]

(17) 그네 (Ⅰ.025.1) :

천치도끼 [tʃʰən-tʃʰi-do-k'i] (※ 千齒稻穀機〔천치도곡기〕의 음이 변한 것으로 추정됨)

(18) 수수 (Ⅰ.053) : 서수 [sə:su] ＋스수 [si:su]

(19) 새끼 꼬다 (Ⅰ.029) : 새끼 꼬다 [sɛ-k'i k'o-da]

(20) 도리깨 (Ⅰ.031) : 도리채 [to-ri-tʃʰɛ]

도리채질헌다 [to-ri-tʃʰɛ-dʒil-hən-da]

(21) 멍석 : 돗자리? [to-tʃ'a-ri]

(22) 시루밑(Ⅰ.096.1) : 시루밑 [si-ru-mit] 시루밑일세 [si-ru-mi-sil-se]

(23) 광주리 (Ⅰ.034) : 광우리 [kwaŋ-u-ri] (광주리 [kwaŋ-dʒu-ri])

(24) 바구니 (Ⅰ.035) : ＋전라도 바구리 [tʃəl-la-do ba-gu-ri]

(25) 멱둥구미 (Ⅰ.036) : 댕댕이 바구리 [tɛŋ-deŋ-i ba-gu-ri]

(26) 삼태기 :

삼태미 [sam-tʰɛ-mi] (※ 짚으로 안 만들고 댕댕이 넝쿨로 만듬)

(27) 짚 (Ⅰ.027) : 집(으로) [tʃi-bi-ro]

(28) 절구 (Ⅰ.038) : 절구 [tʃəl-gu]

(29) 기름틀 : 지름틀 [tʃi-rim-til]

(30) 써어요 :

써이유 [s'-i-ju] 標있어요 方있이유 [i-s'i-ju]

(31) 디딜방아 (Ⅰ.040) :

지질방아 [tʃi-dʒil-p'aŋ-a] (디딜방아 [ti-dil-p'aŋ-a])

(32) 키 (Ⅰ.046) :

치 [tʃʰi] 치질헌다 [tʃʰi-dʒil-hən-da] (Ⅰ.046.1)

(33) 어레미 :

얼맹이 [əl-mɛŋ-i] (※ 바닥의 구멍이 굵은 체)

(34) 보리 (Ⅰ.048) :

보리 [po-ri] 보릿이삭 [po-rin-ni-sak]

(35) 밀(少麥) (Ⅲ.02) : 밀 [mi:l]

(36) 깜부기 (Ⅰ.049) :

깜부기 [k'am-bu-gi] +깜무기 [k'am-mu-gi]

(37) 발 (Ⅰ.050) :

발 [pat] 標발이라 해 方밧이라 해 [pa-si-ra hɛ]

발둑 [pa-t'uk] (Ⅰ.050.1) 발두둑 [pa-t'u-duk] (Ⅰ.050.2)

(38) 발고랑 (Ⅰ.050.3) : 발골 [pat-k'ol] (고랑 [ko-raŋ])

(39) 발이랑 (Ⅰ.050.4) :

발이랑 [pan-ni-raŋ] (※ 발골과 발이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

(40) 조 (Ⅰ.052) : 조 [tʃo]

(41) 조이삭 (Ⅰ.052.1) : +서슥이삭 [sə:-siŋ-ni-sak]

(42) 수수 (Ⅰ.053) : 옥수수 [ok-s'u-su]

(43) 파 (Ⅰ.062) : 파 [pʰa]

(44) 고구마 (Ⅰ.063) : 고구마 [ko:-gu-ma]

(45) 감자 (Ⅰ.063.1) :

감자 [kam-dʒa] +마령석 [ma:-rjəŋ-sək] +보리감자 [po-ri-k'am-dʒa]

(46) 가지 (Ⅰ.064) : 가지 [ka:-dʒi]

(47) 콩나물 (Ⅰ.069) : 콩나물 [kʰoŋ-na-mul]

(48) 오이 (Ⅰ.071) : 오이 [0-i]

(49) 솥 (Ⅰ.076) : 솥 [sot] 標솥이라 方솟이라 [so-si-ra]

(50) 가마 (Ⅰ.076.1) :

가마솥 [ka-ma-sot] (큰솥 [kɨn-sot]) +가마 [ka-ma]

(51) 소댕 : 소당 [so-daŋ] (소당 뚜껑 [so-daŋ-t'u-k'əŋ]) (※ 솥을 덮는 뚜껑)

(52) 함지박 :

나무함주 [na:-mu-ham-dʒu] +함주박 [ham-dʒu-bak]

(53) 조리 (Ⅰ.078) : 조리 [tʃo:-ri]

(54) 이남박 (Ⅰ.077) : 이남박 [i-nam-bak]

(55) 주걱 (Ⅰ.079) : 주걱 [tʃu-gək] +밥주걱 [pap-tʃ'u-gək]

(56) 밥그릇 (Ⅰ.095) : 밥그륵 [pap-k'i-rɨk]

(57) 장독 : 장독 [tʃa:ŋ-t'ok]

(58) 장독뚜껑 (Ⅰ.097.3) : 장뚜께 [tʃa:ŋ-t'u-k'e]

(59) 남비 : 냄비 [nɛm-bi]

(60) 뚜껑 (Ⅰ.097) :

뚜께 [t'u-k'e] 께 [k'e] 따깡 [t'a-k'aŋ]

(61) 항아리 뚜껑 (Ⅰ.097-4) : 독뚜껑 [tok-t'u-k'əŋ]

(62) 뚝배기 (Ⅰ.098) : 뚝배기 [t'uk-p'ɛ-gi]

(63) 부엌 (Ⅰ.100) : 부억(이지) [pu-ə-g-i-dʒi]

(64) 아궁이 (Ⅰ.101) :

부락쟁이 [pu-rak-tʃ'ɛŋ-i] > 아궁이 [a-guŋ-i]

(65) 석쇠 (Ⅰ.110) : 적쇠 [tʃək-s'ø]

(66) 고기 (Ⅰ.403) : 개기 [kɛ-gi]

(67) 살강 (Ⅰ.117) : 살강 [sal-gaŋ]

(68) 선반 (Ⅰ.119) : 선반 [sən-ban]

(69) 화로 (Ⅰ.107) : 화로 [hwa:-ro]

(70) 부젓가락 (Ⅰ.108) : 불젓가락 [pul-dʒə-k'a-rak]

(71) 고무래 (Ⅰ.104) :

고무래 [ko-mu-rɛ] 부엌고무래 [pu-ək-k'o-mu-rɛ]

(72) 부지깽이 (Ⅰ.103) :

불자락막대 [pul-tʃ'ak-mak-t'ɛ] +부주뗑이 [pu-dʒu-t'ɛŋ-i]

(74) 솔가리 (Ⅰ.530) : 솔걸 [sol-k'əl] 솔가지 [sol-k'a-dʒi]

(75) 소나무 : 솔나무 [sol-na-mu]

(76) 담뱃대 (Ⅰ.111) :

담뱃대 [tam-bʒɛ-t'ɛ] 장죽 [tʃaŋ-dʒuk]

(77) 물부리 (Ⅰ.111.1) : 물추리 [mul-tʃʰu-ri]

(78) 담배설대 (Ⅰ.111.3) : 대꼭지 [tɛ-k'ok-dʒi]

(79) 굴뚝 (Ⅰ.114) : 굴뚝 [ku:l-t'uk]

(80) 광 : 광 [kwa:ŋ]

(81) 뒤주 : 디지 [ti-dʒi]

(82) 헛청 :

헛창 [hə:-tʃʰaŋ] (※ 문 안 단 창고)

(83) 사랑방 : 사랑방 [sa-raŋ-p'aŋ]

(84) 안방 : 안방 [an-p'aŋ] (Ⅲ.18,3)

(85) 웃방 : 웃방 [ut-p'aŋ]

(86) 마루 (Ⅰ.127) :

대청 [tɛ:-tʃʰəŋ] 말레 [mal-le] (마루 [ma-ru])

(87) 누마루 :

누말래 [nu-mal-lɛ] 누다락 [nu-da-rak] +노말래 [no-mal-lɛ]

(88) 베개 (Ⅰ.124) : 벼개 [pjə:-gɛ]

(89) 퇴침 (Ⅰ.125.1) : +퇴침 [tʰø-tʃʰim]

(90) 마루 밑 : 말루 밑 [mal-lu-mit] 말루 밑이라고 [mal-lu-mi-tʰi-ra-go]

(91) 흙손 (Ⅰ.132) :

+흙손? [hɨ-s'on] (※ 흙칼 밑에 받치는 판을 말한다고 함)

(92) 흙손 (Ⅰ.132) :

흙칼? [hɨk-kʰal] (※ 흔히 흙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킴)

(93) 풀비 (Ⅰ.133.1) : 풀비 [pʰul-p'i]

(94) 기와집 (Ⅰ.138) :

개와집 [kɛ-wa-dʒip] +기와집 [ki-wa-dʒip] 지와집 [tʃi-wa-dʒip]

(95) 지붕 (Ⅰ.136) : 지붕 [tʃi-buŋ]

(96) 사닥다리 (Ⅰ.137) : 사다리 [sa-da-ri] 사닥다리 [sa-dak-t'a-ri]

(97) 초가집 (Ⅰ.139) : 초가집 [tʃʰo-ga-dʒip]

(98) 용마름 (Ⅰ.143) : 용구새 튼다 [joŋ-gu-sɛ tʰɨn-da] (Ⅰ.143-1)

(99) 이엉 (Ⅰ.140) : 나래 [na:-rɛ] (이엉 [i-əŋ])

(100) 엮다 (Ⅰ.141) : 나래 엮다 [na:-rɛ jək-t'a]

(101) 울타리 (Ⅰ.151) : 울타리 [ul-tʰa-ri]

(102) 담 (Ⅰ.152) : 담 [tam]

(103) 장독대 (Ⅰ.155) : 장꽝 [tʃa:ŋ-k'waŋ]

(104) 샘 (Ⅰ.157) : 사암 [sa-am]

(105) 두레박 (Ⅰ.159) : 타래박 [tʰa-rɛ-bak]

(106) 먹이다 (Ⅰ.626.1) : +멕이다 [me-gi-da]

(107) 다듬잇돌 (Ⅰ.168) : 다듬잇돌 [ta-dɨ-mi-t'ol]

(108) 방망이 : 방맹이 [paŋ-mɛŋ-i] +방망이 [paŋ-maŋ-i]

(109) 다리미 (Ⅰ.169)‥대리미 [tɛ-ri-mi]

(110) 인두 (Ⅰ.170) : 인두 [in-du]

(111) 허리띠 (Ⅰ.171) :

허리띠 [hə-ri-t'i] 각띠 [kak-t'i]

(112) 홍두깨 : 홍두깨 [hoŋ-du-k'ɛ]

(113) 두루마기 (Ⅰ.172) : 두루매기 [tu-ru-mɛ-gi]

(114) 저고리 : 저구리 [tʃə-gu-ri]

(115) 주머니 (Ⅰ.173.3) : 주머니 [tʃu-mə-ni]

(116) 고쟁이 (Ⅰ.174) :

고쟁이 [ko-dʒɛŋ-i] 단속곳 [tan-so-k'ot] 속바지 [so:k-p'a-dʒi]

(※ 세 가지를 구별하지 않음)

(117) 깁다 (Ⅰ.184) : 집다 [tʃip-t'a]

(118) 누더기 (Ⅰ.177) : 누데기 [nu-de-gi]

(119) 기름불 : 지름불 [tʃi-rim-p'ul] 등잔불 [tiŋ-dʒan-p'ul]

(118) 버선 (Ⅰ.178) : [pə-sən]

(119) 대님 (Ⅰ.179) :

재님 [tʃɛ-nim] 재님 친다 [tʃɛ-nim tʃʰin-da] (Ⅰ.179.1)

(120) 나막신 (Ⅰ.181) :

목신 [mok-s'in]] +나목신 [na-mok-s'in]

(121) 재봉틀 (Ⅰ.185) : 재방 [tʃɛ-baŋ]

(122) 골무 (Ⅰ.186) : 골무 [kol-mu]

(123) 가위 (Ⅰ.187) : 가이 [ka-i]

(124) 목화 (Ⅰ.192) : 목화 [mo-kʰwa]

(125) 씨아 : 씨아시 [s'i-a-si]

(126) 누에 (Ⅰ.194) : 누에 [nu-e]

(127) 고치 (Ⅰ.194.1) : 누에 고추 [nu-e go-tʃʰu]

(128) 누에나방 (Ⅰ.195.1) :

나비 [na:-bi] 나방 [na-baŋ]

(129) 뽕나무 : 뽕나무 [p'oŋ-na-mu]

(130) 세수대야 (Ⅰ.225) :

시숫대 [si:-su-t'ɛ] +시숫대야 [si:-su-t'ɛ-ya]

(131) 비누 (Ⅰ.226) : 비누 [pi-nu]

(132) 빗 (Ⅰ.229) : 빗 [pit]

(133) 얼레빗 (Ⅰ.229.1) : 어림빗 [ə-rim-bit]

(134) 참빗 (Ⅰ.229.2) : 참빗 [tʃʰam-bit]

(134) 공기 (Ⅰ.298) : 공기 [koŋ-gi]

(135) 공기놀이 :

공기집기 [koŋ-gi-dʒip-k'i] > 공기놀이 [koŋ-gi-no-ri]

(136) 고누 (Ⅰ.299) :

고니 [ko-ni] 사발고니 [sa-bal-go-ni]

고넬 고니 [ko-nil-go-ni] 고니 둔다 [ko-ni dun-da]

(137) 목말 (Ⅰ.303) : 목마 탄다 [moŋ-ma tʰan-da]

(138) 자치기 (Ⅰ.304) :

메떠기 [me-t'i-gi] 메떠기채 [me-t'i-gi-tʃʰɛ]

(139) 제기 (Ⅰ.305) : 제기 [tʃe:-gi]

(140) 윷 (Ⅰ.308) : 윷 [jut] 윷을 [ju-sil]

돼야지 [twɛ-ja-dʒi] 돼지 [twɛ-dʒi] (Ⅰ.308.1) 개 [kɛ] (Ⅰ.308.2)

걸 [kəl] (Ⅰ.308.3) 사짜 [sa-tʃ'a] (Ⅰ.308.4) 모 [mo] (Ⅰ.308.5)

(141) 그네 (Ⅰ.309) :

그니 [ki:-ni] 그니 띤다 [ki:-ni t'in-da]

(142) 썰매 (Ⅰ.311) :

△얼음 탄다 [ə-rim-t^{h}an-da] (Ⅰ.311 보충)

(143) 팽이 (Ⅰ.312) : 뺑이 [p'ɛŋ-i]

(144) 굴렁쇠 (Ⅰ.314) :

+통테이 바쿠 [t^{h}oŋ-t^{h}e-i ba-k^{h}u] 통데 [t^{h}oŋ-t^{h}e] 둥글 바쿠 [tuŋ-gil ba-k^{h}u]

보충 데 돌린다 [t^{h}e dol-lin-da]

(145) 대장간 (Ⅰ.347) : +대장간 [tɛ:-dʒaŋ-k'an]

Ⅱ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林淳模(남, 58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 마을 144번지

조사상황 : 전 제보자 홍승표 할머니가 자리를 뜬 후, 그전부터 옆에서 도움말을 주던 임 순모씨가 제보자가 되어 주었다. 이 분은 증조부 때부터 이곳에 살아온 토박이로서, 군대 3년간을 빼고는 줄곧 이 마을에서 사신 분이다. 성품이 적극적이어서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응해 주었다. 그러나, 방송을 즐겨 듣는다고 하므로 표준말을 많이 익혔을 가능성이 짙으므로 썩 좋은 제보자라고는 볼 수 없었다.

조사내용 : (146)~(239)

(146) 꾸러미 (Ⅰ.362) : ? 보충 개란줄 [kɛ-ran-tʃ'ul]

(147) 병 (Ⅰ.365) : 병 [pjəŋ]

(148) 낚시 : 낚시 [nak-s'i]

낚싯줄 [nak-s'i-tʃ'ul] 납뽕 [nap-p'oŋ]

(149) 미끼 (Ⅰ.404) :

이깝 [i-k'ap] 이깝 준다 [i-k'ap dʒun-da]

(150) 지느러미 (Ⅰ.405) :

지르러미 [tʃi-ri-rə-mi] +기시러미 [ki-si-rə-mi]

(151) 꼬리 :

꽁지 [k'o:ŋ-dʒi] (※ 물고기의 꼬리 지느러미를 말함)

(152) 아가미 (Ⅰ.406) : 아갈빼기 [a-gal-p'e-gi]

(153) 고기(魚) (Ⅰ.403) : 괴기 [kø-gi]

(154) 창자 (Ⅰ.407) : 창자 [tʃʰaŋ-dʒa] 창사 [tʃʰaŋ-sa]

(155) 미꾸라지 (Ⅰ.408) : 미꾸라지 [mi-k'u-ra-dʒi]

(156) 송사리 (Ⅰ.409) : 송사리 [soŋ-sa-ri]

(157) 피라미 (Ⅰ.411) : 피래미 [pʰi-rɛ-mi]

(158) 올챙이 (Ⅰ.412) : 올챙이 [ol-tʃʰɛŋ-i]

(159) 개구리 (Ⅰ.413) : 개구리 [kɛ-gu-ri]

(160) 두꺼비 (Ⅰ.414) : 두께비 [tu-k'e-bi]

(161) 갈치 (Ⅰ.417) : 갈치 [kal-tʃʰi]

(162) 가오리 (Ⅰ.418) : 가오리 [ka-o-ri]

(163) 게 (Ⅰ.419)그이 [ki-i]

(164) 참게 : 참게 [tʃʰam-ge] 물그이 [mu-k'i-i]

(165) 새우 (Ⅰ.420) : 새우 [sɛ-u]

(166) 다슬기 (Ⅰ.421) : ? 고둥 [ko-diŋ]

(167) 외양간 (Ⅰ.455) : 소오양간 [so-o-jaŋ-k'an]

(168) 소 (Ⅰ.451) : 소 [so]

(169) 코뚜레 : 코뚜레 [kʰo-t'u-re]

(170) 구유 (Ⅰ.458) : 소구수 [so-gu-su]

(171) 염소 (Ⅰ.461) : 염소 [jəm-so]

(172) 말 (Ⅰ.462) : 말 [mal]

(173) 망아지 (Ⅰ.462.1) : 말새끼 [mal-sɛ-k'i]

(174) 개 (Ⅰ.463) : 가이 [ka-i] > 개 [kɛ]

(175) 개집 :

가이집 [ka-i-dʒip] +개집 [kɛ:-dʒip]

(176) 고양이 (Ⅰ.464) : 고양이 [ko-jaŋ-i]

(177) 탉 (Ⅰ.465) :

탉 [tak] 수탉 [su-tʰak] (Ⅰ.465.1)

암탉 [am-tʰak] (Ⅰ.465.2) 병아리 [pjəŋ-a-ri] (Ⅰ.465.3)

(178) 탉의 어리 (Ⅰ.465.5) :

△(병아리 가두는 디 [pjəŋ-a-ri ga-du-nin di])

(179) 거위 (Ⅰ.469) : 떼쪼 [t'e-k'jo]

(180) 돼지 (Ⅰ.470) : 돼야지 [twɛ-ja-dʒi]

돼야지 우리 [twɛ-ja-dʒi u-ri] (Ⅰ.470.Ⅰ)

(181) 여우 (Ⅰ.472) : 여우 [jə-u]

(182) 사슴 (Ⅰ.473 ﹅﹅) : 새슴 [sɛ-sim]

(183) 토끼 (Ⅰ.474) : 토끼 [tʰo-k'i]

보충 ① 산토끼 [san-tʰo-k'i] 보충 ② 집토끼 [tʃip-tʰo-k'i]

(184) 올가미 (Ⅰ.476) : 올개미 [ol-gɛ-mi]

(185) 쥐 (Ⅰ.478) : 쥐 [tʃy]

(186) 박쥐 (Ⅰ.479) : 박쥐 [pak-tʃ'y]

(187) 다람쥐 (Ⅰ.480) : 다람쥐 [ta-ram-tʃ'y]

(188) 두더지 (Ⅰ.481) : 두더지 [tu-də-dʒi]

(189) 새 (Ⅰ.482) : 새 [sɛ:]

(190) 매 (Ⅰ.484) : 매 [mɛ:]

(191) 솔개 (Ⅰ.485) : 소루개 [so-ru-gɛ]

(192) 까치 (Ⅰ.486) : 까치 [k'a-tʃʰi]

(193) 질그릇 : 자박지 [tʃa:-bak-tʃ'i]

(194) 제삿상 : 상모상 [saŋ-mo-saŋ]

(195) 소댕 :

소두방 [so-du-baŋ] (※ 솥을 덮는 뚜껑)

(196) 솥뚜껑 (Ⅰ.097.1) :

소따깽이 [so-t'a-k'ɛŋ-i] 소당깨 [so-daŋ-k'ɛ]

(197) 뻐꾸기 (Ⅰ.487) : 뻐국새 [p'ə-k'uk-sɛ]

(198) 뜸부기 (Ⅰ.488) : 뜸비기 [t'im-bi-gi]

(199) 딱다구리 (Ⅰ.489) : 따짜구리 [t'a-tʃ'a-gu-ɾi]

(200) 구멍 (Ⅰ.166) : 구녁 [ku-njək]

(201) 꽹 (Ⅰ.490) : 꽹 [k'wəŋ]

깨투리 [k'ɛ-tʰu-ri] (Ⅰ.490.1) 쟁끼 [tʃɛŋ-k'i] (Ⅰ.490.2)

(202) 꽃 (Ⅰ.491) : 꽃 [k'ot]

(203) 봉선화 (Ⅰ.493) : 봉숭아 [po:ŋ-suŋ-a]

(204) 해바라기 (Ⅰ.494) : 해바라기 [hɛ-ba-ra-gi]

(205) 꽈리 (Ⅰ.495) : 꽈루 [k'wa:-ru]

(206) 도깨비바늘 (Ⅰ.497) : 개바늘나무 [kɛ:-ba-nɨl-na-mu]

(207) 냉이 (Ⅰ.500) : 냉이 [nɛŋ-i]

(208) 질경이 (Ⅰ.501) : 질경이 [tʃil-gjəŋ-i]

(209) 달래 (Ⅰ.502) : 산달래 [san-t'al-lɛ]

(210) 씀바귀 (Ⅰ.503) : 씀바구이 [s'im-ba-gu-i]

(211) 고들빼기 (Ⅰ.504) : 고들빼기 [ko-dil-p'ɛ-gi]

(212) 사과 (Ⅰ.514) : 사과 [sa-gwa]

(213) 배 (Ⅰ.515) : 배 [pɛ]

(214) 껍질 (Ⅰ.516) : 껍질 [k'əp-tʃ'il]

(215) 복숭아 (Ⅰ.517) : 복숭아 [pok-s'uŋ-a]

(216) 자두 (Ⅰ.520) : 자두 [tʃa:-du]

(217) 호두 (Ⅰ.521) : 호두 [ho:-du]

(218) 가래 (Ⅰ.522) : 뽀루수? [p'o-ru-su]

(219) 개암 (Ⅰ.508) : 개금 [kɛ-gɨm]

(220) 도토리 (Ⅰ.523) : 도루리 [to-tʰu-ri]

(221) 상수리 (Ⅰ.524) : 상수리 [saŋ-su-ri]

(222) 뿌리 (Ⅰ.525) : 뿌리 [p'u-ri]

(223) 갈퀴 (Ⅰ.531) : 갈키 [kal-kʰi]

(224) 도끼 (Ⅰ.532) : 도치 [to-tʃʰi]

(225) 산마루 (Ⅰ.533) : 산꼭대기 [san-k'ok-t'ɛ-gi]

(226) 기슭 (Ⅰ.534) : △산밑 [san-mit]

(227) 묘 (Ⅰ.535) : 모이 [mo-i]

(228) 언덕 (Ⅰ.536) : 야산 [ya:-san]

(229) 비탈 (Ⅰ.537) :

비얄 [pi-jal] 비얄산 [pi-jal-san]

(230) 벼랑 (Ⅰ.538) : 낭떠러지 [naŋ-t'ə-rə-dʒi]

(231) 바위 (Ⅰ.540) : 바우이 [pa-u-i]

(232) 돌 (Ⅰ.541) : 돌 [to:l]

(233) 자갈 (Ⅰ.542) : 자갈 [tʃa-gal]

(234) 소나기 (Ⅰ.562) : 쏘낙비 [s'o-nak-p'i]

(235) 홍수 (Ⅰ.566) :

큰물 [kʰin-mul] 큰물 간다 [kʰin-mul gan-da]

(236) 회오리바람 (Ⅰ.570) : 몽댕이바람 [moŋ-dɛŋ-i-ba-ram]

(237) 구석 (Ⅰ.573) : 구탱이 [ku-tʰɛŋ-i]

(238) 산길 : 산질 [san-tʃ'il]

(239) 모퉁이 (Ⅰ.579) : 모퉁이 [mo-tʰuŋ-i]

Ⅲ

조사일자 : 1986. 12. 21.
제보자 : 홍승표(방언 Ⅰ과 같음)
조사상황 : 방언 Ⅰ의 제보자였던 홍 승표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나와서 조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240) 구러미 (Ⅰ.362) :
개란줄 [kɛ-ran-tʃ'ul] 개란꾸러미 [kɛ-ran-k'u-rə-mi]
(241) 고기(魚) (Ⅰ.403) : 개기 [kɛ-gi])고기 [ko-gi])
(242) 낚시 : 낚시 [nak-s'i]
(243) 주둥이 :
주댕이 [tʃu-dɛŋ-i] (※ 고기 입을 가리킴)
(244) 아가미 (Ⅰ.406) :
아구널개미 [a-gu-nəl-gɛ-mi] 널개미 [nəl-gɛ-mi]
(245) 미꾸라지 (Ⅰ.408) : 미꾸리 [mi-k'u-ri]
(246) 올챙이 (Ⅰ.412) : 올챙이 [ol-tʃ^{h}ɛŋ-i]
(247) 개구리 (Ⅰ.413) : 깨구리 [k'ɛ-gu-ri]
(248) 두꺼비 (Ⅰ.414) : 두께비 [tu-k'e-bi]
(249) 갈치 (Ⅰ.417) : 갈치 [kal-tʃ^{h}i]
(250) 가오리 (Ⅰ.418) : 가오리 [ka-o-ri]
(251) 게 (Ⅰ.419) : 그이 [ki-i]
(252) 새우 (Ⅰ.420) : 새우 [sɛ-u]
(253) 다슬기 : ×
(254) 우렁이 (Ⅰ.422) : 우렁 [u-rəŋ]
(255) 벼룩 (Ⅰ.425) : +베룩 [pe-ruk]
(256) 방아깨비 (Ⅰ.443) : 땅개비 [t'aŋ-gɛ-bi]
(257) 모기 (Ⅰ.426) : 모기 [mo:-gi]
(258) 파리 (Ⅰ.427) : 파리 [p^{h}a-ri]
(259) 쉬 (Ⅰ.428) : 쉬 [sy]
(260) 쉬슬다 (Ⅰ.428.1) : 쉬 깔끼다 [sy k'al-gi-da」
(261) 구더기 (Ⅰ.430) :
구데기 [ku-de-gi] +고다리 [ko-da-ri]
(262) 그리마 (Ⅰ.437) : 여든바리 [jə-din-ba-ri]

(263) 거미 (Ⅰ.441) : 거미 [kə-mi]

(264) 여치 (Ⅰ.444) : 유치 [ju-tʃʰi]

(265) 버마재비 (Ⅰ.445) : 사마기 [sa:-ma-gi]

(266) 사마귀(黑子) : 사막 [sa:-mak]

(267) 소금쟁이 (Ⅰ.446) :

소금쟁이 [so-gim-dʒɛŋ-i] 소금살이 [so-gim-sa-ri]

(268) 방개 (Ⅰ.447) : 방개 [paŋ-gɛ]

(269) 반딧불 (Ⅰ.448) : 개똥벌레 [kɛ:-t'oŋ-bəl-le]

(270) 벌 (Ⅰ.449) : 벌 [pə:l]

(271) 땅벌 (Ⅰ.449.1) : 웃바시 [ot-p'a-si]

(272) 소 (Ⅰ.451) :

소 [so] 송아지 [soŋ-a-dʒi]

(273) 외양간 (Ⅰ.455) : 소오양간 [so-o-jaŋ-k'an]

Ⅳ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성낙순(여, 56세, 농업)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제 보 자 : 박상희(여, 55세, 상업)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조사상황 : 조사자는 홍승표 할머니 집에서 조사를 마치고 가게인 이장 집으로 왔다. 이장 부인인 박상희씨가 가게를 보고 있어서 조사를 하려 했으나 소극적이었다. 이때 박상희씨의 친구인 성 낙순씨가 찾아왔다. 성낙순씨는 적극적이며 기억력도 좋아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두 분은 다 이웃 면에서 나서 이 마을로 시집온 분들이다. 방언 Ⅲ까지의 조사는 그림책 위주로 하였었다. 이번 조사는 조사자가 질문지를 보고 말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제보자들은 처음에는 대개 표준말로 응답하다가, 홍성이 고향인 최운식 교수가 방언을 유도하면서부터 방언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면서, 집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표준말을 배우게 되어 점차로 방언을 쓰지 않게 되어 간다고 하였다.
조사내용 : (274)~(489)

(274) 뉘 (Ⅰ.002) :

니 [ni] 보충 니 골른다 [ni gol-lin-da]

(275) 볍씨 (Ⅰ.003) :

숫베 [su-p'e] 종잣베 [tʃoŋ-dʒa-p'e]

(276) 못자리 (Ⅰ.004) : 못자리 [mo-tʃ'a-ri]

(277) 김매다 (Ⅰ.005) : 피매다 [pʰi-mɛ-da]

(278) 애벌매다 (Ⅰ.005.1) :

아시매다 [a-si-mɛ-da] (※ 논 맬 때 하는 말이라고 함)

(279) 두벌매다 (Ⅰ.005.2) :

두불매다 [tu:-bul-mɛ-da] 두벌매다 [tu:-bəl-mɛ-da]

(280) 놉 (Ⅰ.006) : ×

(281) 곁두리 (Ⅰ.007) :

새참 [sɛ:-tʃʰam] 참 [tʃʰam] (아침참 [a-tʃʰim-tʃʰam])

보충 새참 [sɛ:-tʃʰam] 참 [tʃʰam] (저녁참 [tʃə-njək-tʃʰam])

(282) 점심 : 점슴 [tʃə:m-sim]

(283) 종일 : 칭일 [tʃøŋ-il]

(284) 삯메기 : 삯메기 [saŋ-me-gi]

(285) 고지 :

고지 [ko-dʒi] (※ 품삯과 아침과 점심, 두 끼를 제공받으며, 정해진 구역을 맡아 일하는 것)

(286) 날일 :

날일 [nal-nil] (※ 하루종일 식사 제공받으며 품삯을 받고 일하는 것)

(287) 얻다 : 은다 [ɨ-t'a]

(288) 볏가리 (Ⅰ.024) : 벳가래 [pe-k'a-rɛ]

벳가래 센다 [pe-k'a-rɛ sen-da] (※ '센다'는 '세운다'의 축약형)

(289) 가래 : 가래 [ka:-rɛ] (※ 농기구)

(290) 소나무 :

솔나무 [sol-na-mu] 소나무 [so-na-mu]

(291) 두드리다 : 뚜디리다 [t'u-di-ri-da]

(292) 농악놀이하다 : 풍장치다 [pʰuŋ-dʒaŋ-tʃʰi-da]

(293) —까지 : —까정 [-k'a-dʒəŋ]

(294) 호미 (Ⅰ.017) : 호미 [ho-mi]

(295) 자루(柄) (Ⅰ.018) : 자루 [tʃa-ru]

(296) 괭이 (Ⅰ.019) : 괭이 [kwɛŋ-i]

(297) 쇠스랑 (Ⅰ.020) : 소시랑 [so-si-raŋ]

(298) 농기구 (Ⅰ.022) : 농기구 [noŋ-gi-gu]

(299) 볏가리 (Ⅰ.024) :

노적누리 [no-dʒəŋ-nu-ri] > 벳누리 [pen-nu-ri]

(300) 벼훑이 (Ⅰ.025) : △

(301) 그네 (Ⅰ.025.1) :

천치도끼 [tʃʰən-tʃʰi-do-k'i] 천치 [tʃʰən-tʃʰi]

(302) 개상 (Ⅰ.026) :

개상 [kɛ-saŋ] 보충 자리개 [tʃa-ri-gɛ]

(303) 짚 (Ⅰ.027) :

짚 [tʃip] 볏짚(이) [pe-tʃ'i-bi]

(304) 볏단 (Ⅰ.023) : 벳단 [pe-t'an]

(305) 새끼기 (Ⅰ.028) : △

(306) 새끼 (Ⅰ.029) :

새끼 [sɛ-k'i] 새끼 꼬다 [sɛ-k'i k'o-da] (Ⅰ.029.1)

(307) 도리깨 (Ⅰ.031) :

도리채 [to-ri-tʃʰɛ] (도리캐 [to-ri-kʰɛ])

(308) 멍석 (Ⅰ.032) : 멍석 [məŋ-sək]

(309) 방석 (Ⅰ.033) : 방석 [paŋ-sək]

(310) 시루밑 (Ⅰ.096.1) : 시루밑 [si-ru-mit]

(311) 꺼치(標 미상) :

꺼치 [k'ə:-tʃʰi] (※ 짚으로 만들어서 네모지게 튼 것으로 솥에다 덮는 것)

(312) 드트레(標 미상) :

드트레 [ti-tʰi-re] (※ 짚으로 동그랗게 싸서 만든 것. 떡 찔 때 시루에다 덮는 것)

(313) 만들다 (Ⅰ.668) : 맨들다 [mɛn-dɨl-ta]

(314) 맷방석 : 맷방석 [mɛ-p'aŋ-sək] (※ 맷돌 아래에 까는 방석)

(315) 바구니 (Ⅰ.035) :

전라도 바구리 [tʃəl-la-do ba-gu-ri] 대바구리 [tɛ-ba-gu-ri]

(316) 멱둥구미 (Ⅰ.036) :

멱구리 [mjə-k'u-ri] +멧구리 [me-k'u-ri]

(317) 삼태기 (Ⅰ.037) :

삼태미 [sam-tʰɛ-mi] 소쿠리 [so-kʰu-ri] (※ 삼태미는 짚으로 엮은 것이고, 소쿠리는 대나무나 철사로 엮은 것이다)

(318) 절구 (Ⅰ.038) : 절구 [tʃəl-gu]

(319) 디딜방아 (Ⅰ.040) : ×디딜방아 [ti-dil-p'aŋ-a]

(320) 기름틀 : ×지름틀 [tʃi-rɨm-tʰɨl] (※ 옛날에 기름을 짜던 틀)

(321) 맷돌 (Ⅰ.043) : 매 [mɛ]

독매 [tok-mɛ] (※ 돌로 만든 매) 나무매 [na:-mu-mɛ] (※ 나무로 만든 매)

(322) 맷손 :

맷손 [mɛ-s'on] (※ 매의 손잡이)

(323) 암쇠 숫쇠 (Ⅰ.043.1) :

암세 [am-se] 숨세 [sum-s'e]

(324) 쐐기 (Ⅰ.044) : △

(325) 빔 (Ⅰ.044.1) : △

(326) 져 (Ⅰ.045) : 저 [tʃə] > 져 [kjə]

(327) 왕져 (Ⅰ.045.1) : 왱져 [wɛ:ŋ-gjə]

(328) 키(箕) (Ⅰ.046) : 치 [tʃʰi]

(329) 어레미 (Ⅰ.047) : 얼맹이 [əl-mɛŋ-i]

(330) 보리 (Ⅰ.048) : 보리 [po-ri]

(331) 깜부기 (Ⅰ.049) :

깜배기 [k'am-bɛ-gi] 보충 보리 깜배기 [po-ri k'am-bɛ-gi]

(332) 옥수수 깜부기 (Ⅰ.049. 주의) : ×

(333) 밭 (Ⅰ.050) : 밭 [pat]

밭둑 [pa-t'uk] (Ⅰ.050.1) 밭두둑 [pa-t'u-duk] (Ⅰ.050.2)

(334) 밭고랑 (Ⅰ.050.3) : 밭골망 [pa-k'ol-maŋ]

(335) 밭이랑 (Ⅰ.050.4) :

밭골망 [pa-k'ol-maŋ] > 밭이랑 [pan-ni-raŋ] (※ '논이랑'은 그전부터 있던 말이나, 거기에 대응되는 말은 '밭골망'이었고, '밭이랑'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말이라고 함)

(336) 팥 (Ⅰ.051) : 팥 [pʰat]

(337) 조 (Ⅰ.052) : 서슥 [sə:-sɨk] +스슥 [si:-sɨk]

(338) 조이삭 (Ⅰ.052.1) : 서슥이삭 [sə:-sɨŋ-ni-sak]

(339) 조밥 (Ⅰ.052. 보충 ①) :

서슥밥 [sə:-sɨk-p'ap] 스슥밥 [si:-sɨk-p'ap]

(340) 좁쌀 (Ⅰ.052. 보충 ②) :

좀쌀 [tʃom-s'al] 좁쌀 [tʃop-s'al]

(341) 차조 메조 (Ⅰ.052. 보충 ③, ④) :

차조 [tʃʰa-dʒɔ] 메조 [me-dʒo]

(342) 수수 (Ⅰ.053) :

수수 [su-su] 수수 잎파리 [su-su i-pʰa-ri] (Ⅰ.053.1)

(343) 가(邊) : 가맹이 [ka:-t'ɛŋ-i]

(345) 깨 (Ⅰ.054) : 꽤 [k'wɛ]

1. 참깨 [tʃʰam-k'wɛ] 2. 들깨 [tɨl-k'wɛ]

(346) (곡식)사다 (Ⅰ.055) :

쌀 돈 산다 [s'a:l don san-da]

깨 돈 산다 [k'wɛ don san-da] (※ '돈 산다'는 말은 곡식에 두루 쓰임)

(347) (곡식)팔다 (Ⅰ.055.1) : 쌀 팔어 온다 [s'a:l pʰa-rə on-da]

(348) 옥수수 (Ⅰ.056) : 옥수수 [ok-s'u-su]

(349) 무우 (Ⅰ.057) : 무수 [mu-su] 보충 무숫닢 [mu-sun-nip]

(350) 우리들은 : 우덜은 [u-də-rɨn]

(351) 무우말랭이 (Ⅰ.057.1) : 무우말랭이 [mu-u-mal-rɛŋ-i]

(352) 조선 무우 :

조선 무이 [tʃo-sən mu-i] 조선 무수이 [tʃo-sən mu-su-i]

보충 왜 무수이 [wɛ mu-su-i]

(353) 무우 꼬리 : 무우 꽁댕이 [mu-u k'oŋ-dɛŋ-i]

(354) 시래기 (Ⅰ.058) : 시락지 [si-rak-tʃ'i]

(355) 채소 (Ⅰ.059) : 무우 배차? [mu-u bɛ:-tʃʰa]

(356) 나물 (Ⅰ.060) : 너물 [nə mul]

(357) 배추 : 배차 [pɛ:-tʃʰa]

(358) 고갱이 (Ⅰ.061) :

속고뱅이 [so-k'o-bɛŋ-i] 배차속 [pɛ-tʃʰa-s'ok]

(359) 달래(野蒜) (Ⅰ.502) : 달리 [tal-li]

(360) 냉이 (Ⅰ.500) : 나승개 [na-siŋ-gɛ]

(361) 미나리 : 미나리 [mi-na-ri]

(362) 씀바귀 (Ⅰ.503) : 씀바구이 [s'ɨm-ba-gu-i]

(363) 도라지 : 도라지 [to-ra-dʒi]

(364) 잔대 : 잔대 [tʃa:n-dɛ] (※ 초롱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

(365) 종자 : 종패 [tʃoŋ-pʰɛ]

(366) 파 (Ⅰ.062) : 파 [pʰa]

(367) 파씨 (Ⅰ.062.1) :

파꽁 [pʰa-k'oŋ] 마늘꽁 [ma-nɨl-k'oŋ]

(368) 공다리 : 공다리 [koŋ-da-ri] (※ 무우, 배추 등의 씨를 멸고 남은 장다리)

(369) 고구마 (Ⅰ.063) :

고구마 [ko:-gu-ma] 감자? [kam-dʒa]

보충 감자 심는다 > 감자 놓는다

마늘 심는다 보리 씨 뿌린다 보리 간다

(370) 가지(茄子) (Ⅰ.064) : 가지 [ka:-dʒi]

(371) 짐치 (Ⅰ.065) : 짐치 [tʃim-tʃʰi]

배차짐치 [pɛ:-tʃʰa-dʒim-tʃʰi] 무수짐치 [mu-su-dʒim-tʃʰi]

(372) 깍두기 (Ⅰ.066) :

깍대기 [k'ak-t'ɛ-gi] > 깍두기 [k'ak-t'u-gi]

(373) 간장 (Ⅰ.067) : 간장 [kan-dʒaŋ]

(374) 두부 (Ⅰ.068) :

두부 [tu-bu] 콩 불리다 [kʰoŋ bul-ri-da] (Ⅰ.068.1)

(375) 콩나물 (Ⅰ.069) : 콩너물 [kʰoŋ-nə-mul]

(376) 상추 (Ⅰ.070) :

부르쌈 [pu-ri-s'am] > 상추 [saŋ-tʃʰu] 부르씨 [pu-ri-s'i] (※ 부르쌈의 씨)

(377) 오이 (Ⅰ.071) : 오이 [o-i]

오이통지 [o-i-tʰoŋ-dʒi] (Ⅰ.071.1) 오이지 [o-i-dʒi] (Ⅰ.071.2)

(378) 부추 (Ⅰ.072) :

졸 [tʃo:l] (정구지 [tʃəŋ-gu-dʒi]←전라도)

(379) 김 (Ⅰ.073) :

짐 [tʃi:m] 짐쌈 [tʃim-s'am]

(380) 반찬 (Ⅰ.074) :

반찬 [pan-tʃʰan] 보충 '건건이'는 안 씀.

(381) 국물 (Ⅰ.075) : 국물 [kuŋ-mul]

(382) 국건더기 : 국건데기 [ku-k'ən-de-gi]

(383) 솥 (Ⅰ.076) : 솥 [sot]

가마솥 [ka-ma-sot] 대짜솥 [tɛ-tʃ'a-sot] (Ⅰ.076.1)

(384) 이남박 (Ⅰ.077) :

함박 [ham-bak] 나무함지 [na:-mu-ham-tʃi]

(385) 조리 (Ⅰ.078) : 조랭이 [tʃo-rɛŋ-i]

(386) 주걱 (Ⅰ.079) :

주걱 [tʃu-gək] 보충 주걱으로 밥 푼다

(387) 누룽지 (Ⅰ.080) :

누룽갱이 [nu-ruŋ-gɛŋ-i] 누룬지 [nu-run-dʒi] 누른밥 [nu-rin-bap] (Ⅰ.080.1)

(388) 숭늉 (Ⅰ.081) : 숭닝 [suŋ-nim]

(389) 가루 (Ⅰ.082) : 가루 [ka-ru]

V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김낙춘(남, 59세, 농업)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이 방언 V의 기록은 다른 조사자의 조사가 진행될 때, 본조사자가 옆에서 듣고 자연스레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적은 김 낙춘씨 이외에 여러분의 제보자가 있으나, 그러한 제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도 대개 이곳 토박이이며 나이도 김낙춘씨 또래이거나 그 이상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사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의도적인 조사보다 더 현지음에 충실한 방언을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조사내용 : (390)~(426)

●

(390) 자치기 (Ⅰ.304)

메뚜기 친다 [me-t'i-gi tʃʰin-da] 땡공치기 [t'ɛŋ-goŋ-tʃʰ-gi]

(391) 막대기 (Ⅰ.457.1 보충) : 막디기 [mak-t'i-gi]

(392) 그런데 : 그런디 [ki-rən-di]

(393) 위(上)로 (Ⅰ.574) : 우루 [u:-ru]

(394) 밑으로 (※ Ⅰ.575.1) : 밑으루 [mi-tʰi-ru]

(395) 날아 간다 : 널러 간다 [nəl-lə gan-da]

(396) 에돌아가다 :

에돌라 간다 [e-dol-la gan-da]

(397) 불바치(標 미상) :

불바치 [pul-ba-tʃʰi] (※ 뒷뜰에서 지신에게 불 켜놓고 비는 것)

(398) 무리떡 : 무리떡 [mu-ri-t'ək] (※ 무리로 만든 떡)

(399) 지팡이 : 지팽이 [tʃi:-pʰɛŋ-i]

(400) 금줄치다 : 금줄 띠다 [kim-tʃ'ul t'i-da]

(401) 어렵다 (Ⅰ.595) : 게피스럽다 [ke:-pʰi-si-rəp-t'a]

(402) 장작 : 장적 [tʃaŋ-dʒək]

(403) 아궁이 (Ⅰ.101) : 구락지 [ku-rak-tʃ'i]

(404) 메공이 : 메갱이 [me-gɛŋ-i] (※ 메처럼 된 절굿공이)

(405) 매통 :

매탱이 [mɛ-tʰɛŋ-i] (※ 벼를 갈아 겉겨를 벗기는 나무 배)

(406) 누다락 : 유다락 [u-da-rak] (※ 높은 대청)

(407) 기둥 (Ⅰ.144) :

지둥 [tʃi-duŋ] 상지둥 [sa:ŋ-dʒi-duŋ] (가운뎃 기둥)

(408) 벗가리 (Ⅰ.024) : 벳가리 [pe-k'a-ri]

벳짚가리 쳤다 [pe-tʃ'ip-k'a-ri tʃ'jət-t'a] (※ 벗가리를 쌓아놓는 것)

(409) 종자 : 종패 [tʃoŋ-pʰɛ]

(410) 가을벗기(標 미상) :

가을벳끼 [ka-il-be-k'i] (※ 추수 끝낸 뒤 이웃에게 한턱 내는 것)

(411) 떡메 : 떡메 [t'əŋ-me] (※ 흰떡을 만들 때 치는 메)

(412) 떡판 : 앵번 [ɛŋ-bjən]

(413) 모여 앉다 : 뫼 앉다 [mø: an-t'a]

(414) 그네(Ⅰ.026.1) : 그낫대 [ki-na-t'ɛ]

(415) 절구공이 (Ⅰ.039) : 절굿대 [tʃəl-gu-t'ɛ]

(416) 찌껭이(標 미상) :

찌껭이 [tʃ''i-geŋ-i] (※ 덜 읽은 벼를 솥에 찐 것)

(417) 저희 : 즈이 [tʃi-i]

(418) 솥뚜껑 (Ⅰ.097.1) : 솥뚜까리 [so-t'u-k'a-ri]

(419) 써레 (Ⅰ.015) : 쓰레 [s'i:-re]

(420) 오쟁이 : 오쟁이 [o-dʒɛŋ-i] (※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섬)

(421) 예순(60세) : 여순 [jə-sun]

(422) —하지요 :

標못하지요 方못허지유 [mo-tʰə-dʒi-ju]

(423) —아요/—어요 :

標—같아요 方—같이유 [ka-tʰi-ju]

標—있어요 方—있이유 [it-s'i-ju]

標몰라요 方몰류우 [mol-lju-u]

(424) —거예요 :

標될 거예요 方될 끼유 [tøl-k'i-ju](※ 웃사람에게) 될끼여 [tøl-k'i-jə](※ 아랫사람에게) 될끼요 [tʒl-k'i-jo](※ 동년배에게)

(425) 들어 와요 : 들 와유 [ti-rwa-ju]

(426) —답니까? :

標얻었답니까? 方얻었디유? [ə-də-t'i-ju] (※ 웃사람에게)

얻었디여? [ə-də-t'i-jə] (※ 동년배에게)

얻었디야? [ə-də-t'i-ja] (※ 아랫사람에게)

2. 高北面 長要里의 方言

I

조사일자 : 1986. 12. 22.
제 보 자 : 김상진(남, 7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주 소 : 위와 같음
제 보 자 : 이춘섭(남, 63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단이 찾아간 곳은 가게와 경노당을 겸한 집이었다. 마침 노인 세 분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다. 본조사자는 이 상황에서는 자연적인 조사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눌이 조사자인 張長植 조사원과 함께 농악놀이에 대해 조사하면서 방언조사를 곁들여 하였다. 조사하는 도중 두 분이 더 오셨으나, 본조사에 주로 응한 분은 위에 적은 두 분이다. 김상진 옹은 고령이라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고, 따라서 그 망각한 부분을 임기응변으로 때우려는 경향이 조금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이춘섭 옹이 지적하기도 하고, 또 조사자가 재확인하기도 해서 바로 잡고 넘어갔다. 이 마을은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전날 조사했던 덕지천리보다 대체로 古形의 방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조사내용 : (1)~(49)

(1) 오래(久) : 오라 [o-ra]
(2) 세배 : 시배 [si:-bɛ]
(3) 다르다(異) (Ⅰ.620) : 달브다 [tal-bi-da]
(4) 깽가리 (Ⅰ.009) : 깽가리 [k'ɛŋ-ga-ri]
(5) 징 : 징 [tʃi:ŋ]
(6) 장구 : 장구 [tʃaŋ-gu]
(7) 북 : 북 [puk]
(8) 상모 : 돌무 [tol-mu]
(9) 예순 일곱 (※ Ⅰ.381) : 예순 일굽 [ye-sun nil-gup]
(10) 예순 넷 (※ Ⅰ.381) : 예순 닛 [ye-sun nit]
(11) 징잡이 : 징수 [tʃi:ŋ-su]
(12) 북잡이 : 북잽이 [puk-tʃ'ɛ-bi]
(13) 장구잡이 : 장구잽이 [tʃaŋ-gu-dʒɛ-bi]
(14) 법고잡이 : 법구잽이 [pə-k'u-dʒɛ-bi]

(15) 상모꾼 : 돌무잽이 [tol-mu-dʒɛ-bi]

(16) 상쇠 : 상세 [sa:ŋ-se]

(17) 뒷쇠 : 뒷세 [ty:-s'e] 부세 [pu:-se]

(18) 쾌자 : 쾌재 [kʰwɛ-dʒɛ]

(19) 고깔 : 꼬깔 [k'ø-k'al]

(20) 세개 (Ⅰ.368) : 시개 [si: gɛ]

(21) 꽃 (Ⅰ.491) : 꽃 [k'ot] 꽃은 [k'o-sin] 꽃이 [k'o-tʃʰi]

(22) 송아리 : 송아리 [soŋ-a-ri]

(23) 용대기(龍大旗) : 용대깃대 [joŋ-dɛ-gi-t'ɛ] (농악놀이할 때 앞세우는 기)

(24) 용포(龍布) : 용포 [joŋ-pʰo] (※ 용대기에 매다는 옷감)

(25) 여덟자 (Ⅰ.373) : 여들 자 [jə-dɨl-tʃ'a]

(26) 버겁다 : 버기다 [pə-gi-da] (※ 좀 벅차다)

(27) 가로(橫) : 가루 [ka-ru]

(28) 길다(長) (Ⅰ.585) : 질다 [tʃi:l-da]

(29) 길이 (Ⅰ.586 보충) :
기래기 [ki-rɛ-gi] 기럭지 [kɨ-rək-tʃ'i]

(30) 모양 : 모냥 [mo-njaŋ]

(31) 검정 : 거뭇구 [kə-mu-k'u] (※ 검정색 염료)

(32) 형 (Ⅰ.319) : 성 [səŋ]

(33) 아우 (Ⅰ.320) : 아우 [a-u]

(34) 기력(氣力) : 글력 [kɨl-rjək]

(35) 너 (Ⅱ.04) : 니 [ni]

(36) 꽹장목 : 꽁장목 [k'oŋ-dʒaŋ-mok] (※ 용대기에 꽂는 꽹의 꽁지깃)

(37) 바깥 : 배깥 [pɛ-k'at] 배깥에 [pɜ-k'a-tʰe]

(38) 세다(强) : 시다 [si:-da]

(39) 가(邊) : 갓 [kat] 갓으로 [ka:-sɨ-ro] 標가에 方갓에 [ka:-se]

(40) 뒷풍물 : 뒷풀물 [ty-pʰul-mul] (※ 상쇠를 따라다니는 무리)

(41) 당기다 : 댕기다 [tɛŋ-gi-da]

(42) 못하다 (Ⅰ.709) : 못히여 [mo-tʰi-jə] 못허게 [mo-tʰə-ge]

(43) 모르다 (Ⅲ.08) : 물러 [mu:l-lə] 물르여 [mu:l-li-jə]

(44) 보기(見)(Ⅰ.692 보충) : 뵈기 [pø-gi]

(45) 그러니까 : 그러니께 [kɨ-rə-ni-k'e]

(46) —부터 : —부텀 [—bu-tʰəm]

(47) —에서 : —이서 [—i-sə] 方밑이서 [mi-tʰi-sə]

(48) 一으면 : 一으믄 [-i-min] 方같으믄 [ka-tʰi-min]

(49) 이렇게 : 이렇기 [i-rə-kʰi]

Ⅱ

조사일자 : 1986. 12. 22.

제 보 자 : 이춘섭(앞 2—Ⅰ과 같음)
강기준(남, 69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바로 앞과 같은 장소에서 농악놀이 조사가 끝나자, 본격적인 방언 조사를 하였다. 앞의 조사에서 이춘섭 옹이 기억력도 가장 뛰어나며 음성도 맑아서 주제보자로 삼았다. 강기준옹은 뒤에 왔는데 흥미를 가지고 옆에서 잘 거들어 주었다.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 : (50)～(100)

(50) 머리 (Ⅰ.198) : 머리 [mə-ri]

(51) 대가리 (Ⅰ.198.1) : 뾰대거리 [tɛ-gə-ri]

(52) 머리카락 (Ⅰ.199) : 머리카락 [mə-ri-kʰa-rak] (머리털 [mə-ri-tʰəl])

(53) 가마(旋毛) (Ⅰ.200) : 가마 [ka:-ma]

(54) 가르마 (Ⅰ.201) :

가름박 [ka-rim-bak] 가름배 타다 [ka-rim-bɛ tʰa-da]

(55) 비듬 (Ⅰ.202) :

소이딱지 [so-i-t'ak-tʃ'i] 비듬 [pi-dim]

소이딱지 오르다 [so-i-t'ak-tʃ'i o-ri-da]

(56) 턱 (Ⅰ.203) : 턱 [tʰək] 뾰턱배기 [tʰək-p'ɛ-gi]

(57) 수염 (Ⅰ.204) : 시염 [si-jəm]

(58) 턱수염 (Ⅰ.204.1) :

턱시염 [tʰək-s'i-jəm] 뾰턱배기시염 [tʰək-p'ɛ-gi-si-jəm]

(59) 목 (Ⅰ.205) :

목 [mok] 모가지 [mo-ga-dʒi] (Ⅰ.205.1)

(60) 얼굴 (Ⅰ.206) : 얼굴 [əl-gul]

보충 ① 너 왜 시수 않했니?

⑥ 저 사람 낯짝 좋아 [na-tʃ'ak]

⑦ 무슨 낯 들고 댕여? [nat]

⑨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들게 내가 잘못했다

(61) 뺨 (Ⅰ.207) :

뺨 때리다 [p'jam] (※ 이 경우 외에는 거의 '볼'을 쓴다고 함)

(62) 볼 (I.208) : 볼 [pol] 뾰볼때기 [pol-t'ɛ-gi]

(63) 볼멘소리를 한다 (I.208 보충 ②)

벗 먹은 소리한다 [pən mə-gin so-ri-han-da]

(64) 볼거리 (I.208.2) : △

(65) 주름살 (I.209) : 주름살 [tʃu-rim-s'al] (주름 [tʃu-rim]) (※ 이마와 눈 옆에 생기는 주름살을 서로 구분하는 말이 없음)

(66) 눈 (I.210) : 눈 [nun]

거먹챙이 [kə-mək-tʃʰɛŋ-i] (I.210.1)

혼창 [hin-tʃʰaŋ] (I.210.2) (※ '흰창'이 변함)

(67) 눈두덩 (I.211) : 눈갓 [nun-k'at]

눈이 짐벙짐벙해지다 (※ 울고 나면)

(68) 눈썹 (I.212) :

눈썹 [nun-s'əp] 보충 속눈썹 [soŋ-nun-s'əp]

(69) 눈꼽 (I.213) : 눈꼽 [nun-k'op]

(70) 다래끼 (I.214) : 안질 [an-dʒil]

(※ 눈 윗 부분, 아랫 부분에 각각 나는 것을 서로 구분하는 말이 없음)

(71) 소경 (I.215) : 소이경 [so-i-gjəŋ] (봉세 [po:ŋ-se])

(72) 애꾸 (I.216) :

외톨백이 [ɸ-tʰol-bɛ-gi] +사팔때기? [sa-pʰal-t'ɛ-gi]

(73) 코 (I.217) : 코 [kʰo]

보충 ① 콧구녕 [kʰo-k'u-njəŋ]

② 콧시염 [kʰo-s'i-jəm] (※ '코털'은 안씀)

(74) 입술 (I.218) : 입술 [ip-s'ul]

(75) 혀 (I.219) : 섯바닥 [sə-p'a-dak] (※ '혀'의 통칭)

(76) 벙어리 (I.220) : 벙어리 [pəŋ-ə-ri]

(77) 말더듬이 (I.220.1) : △

(78) 귀 (I.221) : 귀 [ky]

(79) 귓불 (I.222) : 귀부랄 [ky-bu-ral]

(80) 귀머거리 (I.224) :

귀머거리 [ky-mə-gə-ri] 귀먹다 [ky-mək-t'a]

(81) 목욕 (I.227) : 목간 간다 [mo-k'an gan-da]

(82) 목물 (I.227.1) : 등물 [tiŋ-mul]

(83) 거울 (I.228) : 색경 [sɛ-k'jəŋ] (※ '거울'의 통칭)

(84) 빗 (Ⅰ.229) : 빗 [pit]

(85) 얼레빗 (Ⅰ.229.1) : 어리빗 [ə-ri-bit]

(86) 참빗 (Ⅰ.229.2) : 챔빗 [tʃʰɛm-bit]

(87) 다리 (Ⅰ.230) : 다리 [ta-ri]

(88) 손(手) (Ⅰ.231) : 손 [son]

(89) 왼손 (Ⅰ.232) : 왼손 [ɸ:n-son] 바른손 [pa-rɨn-son] (Ⅰ.232.1)

(90) 손바닥 (Ⅰ.233) : 손바닥 [son-p'a-ɗak]

(91) 손가락 (Ⅰ.234) : 손꾸락 [son-k'u-rak]

① 엄지 [əm-či] ('손꾸락'을 붙이기도 함. 이하 같음)

② △ ③ 장지 [tʃaŋ-dʒi]

④ 약지 [jak-tʃ'i] ⑤ 새끼 손꾸락 [sɛ-k'i son-k'u-rak]

(92) 마디 (Ⅰ.235) : 마디 [ma-di]

(93) 젖 (Ⅰ.237) : 젖 [tʃət] 젓을 [tʃə-sɨl]

(94) 배꼽 (Ⅰ.238) : 배꼽 [pɛ-k'op]

(95) 허리 (Ⅰ.239) : 허리 [hə-ri]

(96) 다리(脚) (Ⅰ.240) : 다리 [ta-ri]

(97) 가부좌(跏趺坐) (Ⅰ.241) :

젓끼구 앉는다 [tʃə-k'i-gu an-nɨn-da] (※ '접치고 앉는다'에서 온 말로 보임)

(98) 엉덩이 (Ⅰ.242) : 엉덩이 [ə:ŋ-dəŋ-i]

보충 방치 [paŋ-tʃʰi] 방굴 [paŋ-gul] (※ 개나 소의 엉덩이를 말함)

(99) 날아 오다 : 널러 오다 [nəl-lə o-da]

(100) 맞다리(標 미상) :

맞다리 [ma-t'a-ri] (※ 놀이에서 이긴 편에 끼워주는 하나 남은 사람)

Ⅲ

조사일자 : 1986. 12. 22.

제 보 자 : 이창순(여, 6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조사상황 : 가게에서 조사를 끝낸 뒤에 본조사자는 설화를 조사하는 崔雲植 교수와 함께 정덕순(여, 60세)씨 집으로 갔다. 이 분은 이야기를 잘 하였는데, 고향이 경상도이기 때문에 방언은 수집하지 않았다. 그러는 도중에 위에 적은 제보자가 이야기 1편을 하였다. 이분은 충남 예산이 고향이나 이곳으로 시집은 지 40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이야기 중에 나오는 방언을 자연스럽게 조사하여 적었다.

조사내용 : (101)~(131)

(101) 지붕 (Ⅰ.136) : 지벙 [tʃi-bəŋ]

(102)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103) 부지깽이 (Ⅰ.103) :

부지깽이 [pu-dʒi-k'ɛŋ-i] 부지땡이 [pu-dʒi-t'ɛŋ-i]

(104) 새벽 (Ⅰ.547) : 새북 [sɛ-buk]

(105) 길 : 질 [tʃi:l]

(106) 계(契) : 지 [tʃi:] 찌 [tʃ'i:] 기 [ki:]

(107) 계원(契員) : 지원 [tʃi:-wən]

(108) 쌀계(米契) : 쌀찌 [s'al-tʃ'i] 쌀끼 [s'al-k'i]

(109) 만들다 (Ⅰ.668) : 맨들다 [mɛn-dil-da]

(110) 먹이다 (Ⅰ.626.1) : 멕이다 [me-gi-da]

(111) 넘기다 : 넹기다 [neŋ-gi-da]

(112) —에 : —이 [-i] 標엣날에 方엣날이 [jen-na-ri]

(113) —에다가 :

—이다가 [-i-da-ga] 標강에다가 方강이다가

(114) —잖아요? (反問) : —잖이유? [-tʃa-ni-ju] 方했잖이유 [hɛ-tʃ'a-ni-ju]

(115) —더래요 :

—드래유 [-ti-rɛ-ju] 標왔더래요 方왔드래유 [wa-t'i-rɛ-ju]

(116) —니까 :

—니께 [-ni-k'e] 標가니까 方가니께

(117) 모양으로 :

맨이로 [mɛ-ni-ro] 標지붕 모양으로 方지벙 맨이로

(118) —는데 :

—는디 [-nin-di] 標하는데 方하는디

(119) 쇠스랑 (Ⅰ.020) : 소스랑 [so-si-raŋ]

(120) 수의(壽衣) : 주게미 [tʃu-ge-mi]

(121) 산등성이 : 산등셍이[san-diŋ-seŋ-i]

(122) 정수리 : 정수박이 [tʃəŋ-su-ba-gi]

(123) 치마 : 초마 [tʃʰo-ma]

(124) 다리미 (Ⅰ.169) : 대리미 [tɛ-ri-mi]

(125) 하면 : 허믄 [hə-min] 標하기만 하면 方허기만 허믄

(126) 부침개 : 부치개 [pu-tʃʰi-gɛ]

(127) 조금 : 쬐끔 [tʃ'ø-k'im]

(128) 엔간하다 : 엔간하다 [en-gan-ha-da]

(129) 뚜껑 (Ⅰ.097) : 뚜개 [t'u-k'ɛ] 따갱이 [t'a-gɛŋ-i]

(130) 살강 (Ⅰ.117) : 살강 [sal-gaŋ]

(131) 선반 (Ⅰ.119) : 등두네 [tiŋ-du-ne]

3. 音岩面 遊溪里의 方言

Ⅰ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김경호(여, 67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제 보 자 : 김연분(여, 73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서상황 : 조사단이 이 마을 강영모 이장(남, 세) 집을 찾아갔다. 그 전날 미리 연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장은 할머니 세 분을 안방에 모셔 놓았다. 조사자는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여, 세 분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방언을 가려 적었다.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린 뒤에 조사자는 음식 항목으로부터 질문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세 분 중 김경호 할머니는 생활이 제일 넉넉해 보였으며 이야기도 여유있게 거의 혼자 이끌어 나갔다. 김연분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다 하였으나, 호의적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거들었다. 다른 한 분은 거의 듣기만 하였다.

조사내용 : (1)~(208)

(1) 두루마기 (Ⅰ.172) : 두루매기 [tu-ru-mɛ-gi]

(2) 누룽지 (Ⅰ.080) : 누룽갱이 [nu-riŋ-gɛŋ-i]

(3) 자치기 (Ⅰ.304) : 메떼기 치다 [me-t'e-gi tʃʰi-da]

(4) 뒤꼍 (Ⅰ.154) : 뒤란 [ty:-ran]

(5) 장독대 (Ⅰ.155) : 장광 [tʃa:ŋ-k'waŋ]

(6) 돌(石) (Ⅰ.541) : 돌팍 [to:l-pʰak

(7) 얼마 (Ⅰ.342) : 월마 [wə:l-ma]

(8) 여태 : 연태 [jən-tʰɛ]

(9) 돌다리 : 독다리 [tok-t'a-ri]

(10) 가(邊) : 갓 [kat] 標냇가로 方냇갓으로 [nɛ-k'a-si-ro]

(11) 만지다 : 맨지다 [mɛn-dʒi-da] 만지다 [man-dʒi-da]

(12) 죽인다 (Ⅰ.591. Ⅰ 보충) : 직인다 [tʃi-gin-da]

(13)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14) 쫓겨나다 (Ⅲ. 19. 5 보충 ③) : 쬦겨나다 [tʃ'ø-k'jə-na-da]

(15) 뉘우치다 : 느치다 [ni:-tʃʰi-da]

(16) 깔보다 : 깐보다 [k'a:n-bo-da]

(17) —먼가 봐요 :

—든 기비여 [-din gi-bi-jə] 標했먼가 봐요 方했든 기비여 [hɛ-t'in gi-bi-jə]

(18) —대 : —디야 [-di-ja] 標했대 方했디야 [hɛ-t'i-ja]

(19) 어떤 : 워뜬 [wə:-t'in]

(20) 모르다 (Ⅲ. 08) : 물르다 [mu:l-li-da]

(21) (음식이) 쉬다 : 시다 [si:-da]

(22) 건너다 : 근느다 [ki:n-ni-da]

(23) —로다가 : —루다가 [-ru-da-ga] 標뒤로다가 方뒤루다가

(24) —르니까 : ㄹ르니께-[-l-li-ni-k'e] 標찌르니까 方찔르니께 [tʃ'il-li-ni-k'e]

(25) ㄷ걸랑 :

ㄹ으걸랑 [-l-i-gəl-laŋ] 標걷걸랑 方걸으걸랑 [kə-ri-gəl-raŋ]

(26) 하더래요 :

디래야 [-di-rɛ-ja] 標뭐냐고 하더래요 方뭐냐고 디래야 (※ 이 경우는 '하' 탈락의 특수한 경우이다)

(27) —뵀지요 :

—지유 [-dʒi-ju] 標오래뵀지요 方오라지유 (※ 이 경우는 '뵀' 탈락의 특수한 경우이다)

(28) 뜸부기 (Ⅰ. 488) : 뜸배기 [t'im-bɛ-gi]

(29) 귀뚜라미 : 귀따래미 [ky-t'a-rɛ-mi]

(30) 숭늉 (Ⅰ. 081) : 숭님 [suŋ-nim]

(31) 흉 : 숭 [suŋ]

(32) 잡히다(피동) (Ⅲ. 19. 3) : 잽히다 [tʃɛ-pʰi-da]

(33) 송편 : 생편 [sɛŋ-pʰjən]

(34) 천자 뒷풀이 :

천자(千字)풀림 [tʃʰən-dʒa-pʰul-lim] 천자(千字)뒷풀이 [tʃʰən-dʒa-dy-pʰu-ri]

(35) 길 : 질 [tʃil]

(36) 나물 (Ⅰ. 060) : 너물 [nə-mul]

(37) 말 잔등 : 말 잔댕이 [mal dʒan-dɛŋ-i]

(38) 우리들 : 우덜 [u:-dəl]

(39) 자그맣다 :

째끄맣다 [tʃ'ɛ-k'i-ma-tʰa] 쬐끄맣다 [tʃ'ø-k'i-ma-tʰa]

(40) 미끄럼 : 미끄름 [mi-k'i-rim]

(41) 학교 : 핵교 [hɛ-k'jo]

(42) 도련님 (Ⅰ.329.2) : 데련님 [te-rjən-nim]

(43) 없다 (Ⅰ.591) : 읎다 [i:p-t'a]

(44) 귀리 : 구리 [ku:-ri]

(45) 살 빠지다 : 국 빠지다 [kuk p'a-dʒi-da]

(46) 극노인(標 미상) :

극노인(極老人) [kiŋ-no-in] (※ 노인 중의 노인)

(47) 며느리 (Ⅰ.322) : 메누리 [me-nu-ri]

(48) 어째 : 워째 [wə-tʃ'ɛ]

(49) 고생 : 고상 [ko-saŋ]

(50) 하다(爲) : 허다 [hə-da]

(51) —꺼여 :

—께여 [-k'e-jə] 標을꺼여 方을께여

(52) 죽다 : 망허다 [maŋ-hə-da]

(53) 메밀 : 메밀 [me-mil]

(54) 쌀장수 : 싸장사 [s'a:-dʒaŋ-sa]

(55) 도깨비 : 도깨비 [to-k'ɛ-bi]

(56) 빗자루 : 빗자리 [pi-tʃ'a-ri]

(57) 개(犬) (Ⅰ.463) : 가이 [ka-i]

(58) 묘 (Ⅰ.535) : 모이 [mo-i]

(59) 전부 : 전수이 [tʃən-su-i]

(60) 형제 : 성제 [səŋ-dʒe]

(61) 인제 : 인저 [in-dʒə]

(62) 어디 (Ⅰ.581) : 워디 [wə-di]

(63) 작은아버지 : 작은아배 [tʃa-gi-na-be]

(64) 마루(Ⅰ.127) : 말리 [mal-li]

(65) 조왕(竈王) : 주왕 [tʃu-waŋ]

(66) 성주 : 성주 [sə:ŋ-dʒu] (※ 집 지키는 신)

(67) 괭이 (Ⅰ.019) : 쾡이 [kʰwɛŋ-i]

(68) 병신 : 빙신 [pi:ŋ-sin]

(69) 소경 (Ⅰ.215) : 소이경 [so-i-gjəŋ]

(70) 구수하게 : 구숫허니 [ku-su-tʰə-ni]

(71) 잔디 : 잔대미 [tʃan-dɛ-mi]

(72) 상(上)기둥 : 상지둥 [sa:ŋ-dʒi-duŋ]

(73) 만들다 (Ⅰ.668) : 맹길다 [mɛŋ-gil-da]

(74) 삭인다(消化) (Ⅲ.19.3 보충 ③) : 색힌다 [sɛ-kʰin-da]

(75) 다리다 (Ⅰ.170.1) : 대리다 [tɛ-ri-da]

(76) 수수엿 : 쑤수엿 [s'u-su-jət]

(77)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78) 맵쌀 : 뱁쌀 [mɛp-s'al]

(79) 질그릇 : 자박지 [tʃa:-bak-tʃ'i] (※ 바탕이 노란 질그릇)

(80) 이웃 : 이웃 [i-ut] 標이웃의 方이웃이 [i-u-dʒi]

(81) 건건이 (Ⅰ.074 보충) :

건건이 [kən-gə-ni] (※ '간 들인 반찬'이라는 뜻으로 자연스럽게 썼음. 서산읍 덕지천리에서는 쓰지 않았음)

(82) 오늘 아침 : 온 아침 [on a-tʃʰim] (※ 축약형임)

(83) 세수 (※ Ⅰ.225) : 시수 [si-su]

(84) 옴팍하다 : 오물딱하다 [o-mul-t'a-kʷa-da]

(85) 다르다 (Ⅰ.620) :

달브다 [tal-bi-da] 標달라 方달버 [dal-bə]

(86) 수리치 : 수리치 [su-ri-tʃʰi] (※ 풀 이름)

(87) 야산(野山) :

개산 [kɛ:-san] (※ 보통의 산, 즉 野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

(88) 남새 : 너무새 [nə-mu-sɛ]

(89) 쌀뒤주 : 쌀두지 [s'a:l-t'u-dʒi]

(90) 쾌자 : 쾌재 [kʰwɛ-dʒɛ]

(91) 족두리 : 쪽두리 [tʃ'ok-t'u-ri]

(92) 폐백 : 피백 [pʰi:-bɛk]

(93) —만큼 : —만치 [man-tʃʰi]

(94) 남 (Ⅰ.338) :

넘 [nəm] 標남의 집 方넘이 집 [nə-mi dʒip]

(95) 묶다 (Ⅰ.664) : 댕이다 [tɛŋ-i-da]

(96) 미투리 (Ⅰ.180.1) : 미투리 [mi-tʰu-ri]

(97) 짚신 (Ⅰ.180) :

ㅉ신? [tʃəp-s'in]

(98) 사람 (Ⅲ.07.2) : 새람? [sɛ-ram]

(99) 바람벽 (Ⅰ.130 보충 ①) : 바람박 [pa-ram-p'ak]

(100) 자전거 : 자징게 [tʃa-dʒiŋ-ge]

(101) 들여주다 (Ⅲ. 19. 1) : 덜여주다 [ti-rjə-dʒu-da]

(102) 무섭다 (Ⅰ. 617) : 미섭다 [mi-səp-t'a]

(103) 바탕 : 바탱 [pa-tʰɛŋ]

(104) 一며는 :

一머는 [-mə-nin] 標받으며는 方받으머는 [pa-di-mə-nin]

(105) 一나? :

一남? [-nam] 標알기나 했나? 方알기나 했남? [-hɛn-nam]

(106) 새끼(藁繩) (Ⅰ. 029) : 사내끼 [sa-nɛ-k'i]

(107) 웅덩이 : 둠벙 [tum-bəŋ]

(108) 기와집 (Ⅰ. 138) : 개와집 [kɛ-wa-dʒip]

(109) 몇 : 멫 [met] 標 몇이 方 메치 [me-tʃʰi]

(110) 벼끝(標 미상) :

벼끝 [pjə-k'il] (※ 벼 베고 남은 것)

(111) 때문에 (Ⅱ. 55 보충 ①, ②) :

때미 [t'ɛ-mi] (※ 때문에>때문이>때미)

(112) 一끼리 : 一찌리 [-tʃ'i-ri]

(113) 주걱 (Ⅰ. 079) : 주걱 [tʃu-gək]

(114) 흰떡 (Ⅰ. 083) :

시루떡 [si-ru-t'ək] 가래떡 [ka-rɛ-t'ək] (Ⅰ. 083. 1)

(115) 백설기 (Ⅰ. 084) : 백설기 [pɛk-s'əl-gi]

(116) 밀기울 (Ⅰ. 085) : △

(117) 고명 (Ⅰ. 087) : △

(118) 꾸미 (Ⅰ. 087. 1) : 국수 꿰미 [kuk-s'u k'we-mi]

(119) 새알심 (Ⅰ. 088) : 새알심 [sɛ:-al-sim]

(120) 수제비 (Ⅰ. 089) : 수제비 [su-dʒe-bi]

(121) 과줄 (Ⅰ. 090) : 과줄 [kwa:-dʒul]

(122) 튀밥 (Ⅰ. 091) : 튀밥 [tʰy-bap]

(123) 엿기름 (Ⅰ. 092) : 엿지름 [jə-tʃ'i-rim]

(124) 식혜 (Ⅰ. 093) :

식혜 [si-kʰe] 감주 [kam-dʒu] (※ '식혜'와 '감주'를 구별하지 않음)

(125) 식해 (Ⅰ. 094) : ×

(126) 뚜껑 (Ⅰ. 097) : 소당 [so-daŋ] 소당께 [so-daŋ-k'e]

나무소당 [na:-mu-so-daŋ (Ⅰ. 097. 2) 장독뚜께 [tʃa:ŋ-t'ok-t'u-k'e] (Ⅰ. 097. 3)

사발뚜께 [sa-bal-t'u-k'e] (Ⅰ.097.5) 주발뚜께 [tʃu-bal-t'u-k'e] (Ⅰ.097.6)

(127) 뚝배기 (Ⅰ.098) : 뚝배기 [t'uk-p'ɛ-gi] ※ 투가리 [tʰu-ga-ri]

(128) 바가지 (Ⅰ.099) : 바가지 [pa-ga-dʒi] 좃박? [tʃo-p'ak]

(129) 부엌 (Ⅰ.100) : 부엌 [pu-ək]

(130) 아궁이 (Ⅰ.101) : 아궁지 [a-guŋ-dʒi]

(131) 부뚜막 (Ⅰ.102) : 부뚜막 [pu-t'u-mak]

(132) 부지깽이 (Ⅰ.103) : 부지깽이 [pu-dʒi-k'ɛŋ-i]

(133) 고무래 (Ⅰ.104) : 고무래 [ko-mu-rɛ]

(134) 부삽 (Ⅰ.105) : 불샙 [pul-sɛp] 부삽 [pu-sap]

(135) 숯 (Ⅰ.106) :

숯 [sutʰ] 참숯 (Ⅰ.106,1) [tʃʰam-sut]

(136) 뜬숯 (Ⅰ.106.2) : 잡숯 [tʃap-sut]

(137) 화로 (Ⅰ.107) :

화루 [hwa:-ru] 화롯불 [hwa-ro-p'ul]

(138) 부젓가락 (Ⅰ.108) : 불젓가락 [pul-dʒə-k'a-rak]

(139) 다리쇠 (Ⅰ.109) : △

(140) 석쇠 (Ⅰ.110) : 석쇠 [sək-s'ø] 적쇠 [tʃək-s'ø]

(141) 부손 : 불손 [pul-s'on] (※ 화로에 꽂아 두고 쓰는 작은 부삽)

(142) 장작 : 등껄 [tiŋ-k'əl] > 장적 [tʃaŋ-dʒək]

(143) 솔가리 (Ⅰ.530) : 솔껄 [sol-k'əl]

(144) 고들빼기 (Ⅰ.504) : 고짜배기 [ko-tʃ'a-bɛ-gi]

(145) 담뱃대 (Ⅰ.111) : 담봇대 [tam-bo-t'ɛ]

(146) 물부리 (Ⅰ.111.1) : 물추리 [mul-tʃʰu-ri]

(147) 담배통 (Ⅰ.111.2) : 꼭지? [k'ok-tʃ'i]

(148) 담배설대 (Ⅰ.111.3) : 담배설대 [tam-bɛ-səl-t'ɛ]

(149) 성냥 (Ⅰ.112) : 성냥 [sə:ŋ-njaŋ]

(150) 부시 (Ⅰ.113) :

부시 [pu-si] 보충 ① 부싯돌 [pu-si-t'ol]

(151) 굴뚝 (Ⅰ.114) : 굴뚝 [kul-t'uk]

(152) 방고래 : 방고래 [paŋ-k'o-rɛ]

(153) 그을음 (Ⅰ.115) : 고랫재 [ko-rɛ-tʃ'ɛ]

(154) 거멍 (Ⅰ.115 보충) : 검벵이 [kəm-beŋ-i]

(155) 중거름 : 중거름 [tʃuŋ-gə-rim] (※ =웃거름)

(156) 냅다 (Ⅰ.116) : 매웁다 [mɛ-up-t'a]

(157) 모으다 : 메다 [me:-da] (※ 축약형)

(158) 연기 나다 : 굴 나오다 [ku:l na-o-da]

(159) 살강 (Ⅰ.117) : 살강 [sal-gaŋ]

(160) 시렁 (Ⅰ.118) : 실경 [sil-gəŋ]

(161) 선반 (Ⅰ.119) : 선반 [sən-ban]

(161) 서랍 (Ⅰ.120) :

서랍 [sə-rap] 보충 ②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162) 궤 (Ⅰ.121) : 구에 [ku-e]

(163) 자물쇠 (Ⅰ.122) :

자물통 [tʃa-mul-tʰoŋ] 보충 ① 자물통 채다

(164) 열쇠 (Ⅰ.123) : 열대 [jə:l-tʼɛ]

(165) 베개 (Ⅰ.124) : 버개 [pə:-gɛ]

(166) 초립 : 초럽 [tʃʰo-rəp]

(167) 쾌자 : 꽤자 [kʼwɛ-dʒa]

(168) 목침 (Ⅰ.125) : △

(169) 퇴침 (Ⅰ.125.1) :

토침 [tʰo-tʃʰim] 토침 비다 [tʰo-tʃʰim bi-da]

(170) 누비이불 (Ⅰ.126) : 니비이불 [ni-bi-i-bul]

보충 ① 홑이불 겹이불 [hon-ni-bul kjəm-ni-bul] ② 솜이불 [so:m-ni-bul] ③ 웃이 [jon-ni] ④ 요 시친다 ⑤ 이불 꽨다 ⑥ 요 깐다 ⑦ 이불·요 갠다

(171) 차렵이불 : 차럼이불 [tʃʰa-rjəm-ni-bul]

(172) 타래버선 : 타래버선 [tʰa-rɛ-bə-sən]

(173) 귀주머니 : 귀주머니 [ky-dʒu-mə-ni]

(174) 마루 (Ⅰ.127) : 말래 [mal-lɛ]

(175) 토방 : 토뱅이 [tʰo-bɛŋ-i]

(176) 미닫이 (Ⅰ.128) :

영창문 [jə:ŋ-tʃʰaŋ-mun] 밑창문 [mi:l-tʃʰaŋ-mun]

(177) 여닫이 (Ⅰ.128.1) : △(문)

(178) 돌쩌귀 (Ⅰ.129) : 돌쩟 [tol-tʃət] 돌결 [tol-gjət]

(179) 벽 (Ⅰ.130) : 벽 [pjək]

보충 ① 바람박 [pa-ram-pʼak] ② 담쭉 [tam-tʃʼuk]

(180) 굽도리 (Ⅰ.131) : △

(181) 흙손 (Ⅰ.132) : 흙칼 [hi-kʰal]

(182) 뒤주 : 디지 [ti-dʒi]

(183) 키(箕) (Ⅰ.046) : 치 [tʃʰi:]

(184) 지붕 (Ⅰ.136) : 지벵 [tʃi-beŋ]

(185) 하나 (Ⅰ.366) : 하나 [ha-na] 한 개 [han gɛ]

(186) 둘 (Ⅰ.367) : 둘 [tu:l] 두 개 [tu: gɛ]

(187) 셋 (Ⅰ.368) : 싯 [si:t] 시 개 [si: gɛ]

(188) 넷 (Ⅰ.369) : 닛 [ni:t] 니 개 [ni: gɛ]

(189) 다섯 (Ⅰ.370) : 다섯 [ta-sət] 다섯 개 [ta-sə k'ɛ]

(190) 여섯 (Ⅰ.371) : 여섯 [jə-sət] 엿 마지기 [jən ma-dʒi-gi]

(191) 일곱 (Ⅰ.372) : 일굽 [il-gup] 일굽 개 [il-gup k'ɛ]

(192) 여덟 (Ⅰ.373) : 여들 [jə-dɨl] 여들 개 [jə-dɨl k'ɛ]

(193) 아홉 (Ⅰ.374) : 아홉 [a-hop] 아홉 개 [a-hop k'ɛ]

(194) 열 (Ⅰ.375) : 열 [jə:l] 열 개 [jə:l k'ɛ]

(195) 세다 (Ⅰ.376) : 시다 [si:-da]

(196) 스물 (Ⅰ.377) : 스물 [sɨ-mul]

(197) 설흔 (Ⅰ.378) : 서른 [sə-rɨn]

(198) 마흔 (Ⅰ.379) : 마흔 [ma-hɨn]

(199) 쉰 (Ⅰ.380) : 쉬훈 [sy-hun]

(200) 예순 (Ⅰ.381) : 예순 [je-sun]

(201) 일흔 (Ⅰ.382) : 이른 [i-rɨn]

(202) 여든 (Ⅰ.383) : 여든 [jə-dɨn]

(203) 아흔 (Ⅰ.384) : 아흔 [a-hɨn]

(204) 마을 가다 : 마실 가다 [ma-sil ga-da]

(205) 뜸 :

뜸 [t':ɨm] 아랫뜸 [a-rɛ-t'ɨm] 웃뜸 [y:-t'ɨm]

(206) 오쟁이 : 오장이 [o-dʒaŋ-i] (※ 작게 만든 섬)

(207) 찌다 (Ⅲ.16.1) :

찌다 [tʃ'i:-da] 標반지해 껐네 方반지해 껐네 [-tʃ'ən-ne]

(208) 중동 끊다 : 중등 내다 [tʃuŋ-dɨŋ nɛ-da] (※ 가운데를 끊다)

Ⅱ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최창수(남, 64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이장집 안방에서 조사를 마치고 사랑으로 나오자 마침 최창수 옹이 찾아왔다. 이 분은 마을의 지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조사자는 자연스럽게 방언을 기록하였다. 옆에는 이장과 설화 조사자인 최운식 교수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조사내용 : (209)～(220)

(209) 이야기 (Ⅰ.340.1) : 이여기 [i-jə:-gi]
(210) 묘 (Ⅰ.535) : 모이 [mo-i]
(211) 제일 : 질 [tʃi:l] (※ 제일>지일>질)
(212) 어디 (Ⅰ.581) : 워디 [wə:-di]
(213) 다니다 : 댕기다 [tɛŋ-gi-da]
(214) 그런데 : 근디 [kin-di] 그런디 [ki-rən-di]
(215) 인제 : 인저 [in-dʒə] (인자 [in-dʒa])
(216) 베다 : 비다 [pi:-da]
(217) 남기다 : 냄기다 [nɛm-gi-da]
(218) 어째서 : 워째서 [wə:-tʃ'ɛ-sə]
(219) 노루 (Ⅰ.473) : 노리 [no-ri] 노루 [no-ru]
(220) 쫓기다 :
쫓기다 [tʃ'ø-k'i-da]

Ⅲ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강영모(남, 53 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최창수 옹이 곧 이야기를 끝내자 강영모 이장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 분은 자신 있는 태도로 좀 빠른 속도로 말하였으나, 목소리가 또렷하여 듣기에는 지장이 없었다.
조사내용 : (221)～(233)

(221) 모양 : 모냥 [mo-njaŋ]
(222) 묘 (Ⅰ.535) : 모이 [mo-i]
(223) 가(邊) :
갓 [kat] 標가에 方갓이 [ka-si]
(224) 없다 (Ⅰ.591) : 읎다 [i:p-t'a]
(225) 것이다 :

기다 [ki-da] 標했다는 것이야 方했다는 기야

(226) 나무 :

남기 [nam-gi] 標나무를 方남기를

(227) 살창(窓) : 살짱 [sal-tʃ'aŋ]

(228) 연습 : 연십 [jə:n-sip]

(229) 종일 : 칭일 [tʃø:ŋ-il]

(230) 삼태기 : 삼태미 [sam-t^{h}ɛ-mi]

(231) 수수깡 :

수숫댕이 [su-su-t'ɛŋ-i] 수수깽이 [su-su-k'ɛŋ-i]

(232) 벗가리 (Ⅰ.024) : 벳가레누리 [pe-k'a-re-nu-ri]

(233) 짚가리 (Ⅰ.024 보충) : 짚누리 [tʃim-nu-ri]

Ⅳ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김우순(여,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조사상황 : 본조사자는 이장집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이장에게 설화 제보자를 다시 추천받았다. 최운식 교수와 함께 그 집을 찾았는데 그분은 마침 출타 중이었다. 그런데, 그 집의 부인이 바로 앞집에 이야기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고 하여 소개하였는데, 위에 적은 김우순 할머니이다. 이 분은 고령이시나, 나이에 비해 건강하였고 말씀도 부드럽게 잘 해주셨다. 조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녹음을 틀면서 확인하였다.

조사내용 : (234)~(287)

(234) 거짓말 : 그짓말 [ki:-dʒin-mal]

(235) 어떤 : 워떤 [wə:-t'ən] 워뜬 [wə:-i'in]

(236) —니까 :

—니께 [-ni-k'e] —ㅇ께 [-ŋ-k'e] 標가니까 方가니께 [ka-ni-k'e] 강께 [kaŋ-k'e]

(237) 구렁이 : 구랭이 [ku-rɛŋ-i]

(238) 엎드리다 : 엎디리다 [əp-t'i-ri-da]

(239) 간신히 : 갠신히 [kɛ:n-si-ni]

(240) 무섭다 (Ⅰ.617) : 미섭다 [mi-səp-t'a]

(241) 뭐 :

뭬 [mwe] 標뭐라고 方뭬라구

(242) 건너다 :

근느다 [ki:n-ni-da] 근너다 [ki:n-nə-da] 그늘다 [ki-nɨl-da]

(243) —까지 : —까정 [k'a-dʒəŋ]

(244) 쪽 :

짝 [tʃ'ak] 標양쪽 方양짝

(245) 아무 것 : 앙 껏 [a:ŋ-k'ət]

(246) 몇 : 멫 [met]

(247) 효녀 : 소너 [so:-njə]

(248) 삼(3) :

샘 [sɛm] 標삼 형제 方샘 형제

(249) 어린애 (Ⅰ.278) : 애린애 [ɛ-ri-nɛ]

(250) 아기 : 애기 [ɛ-gi]

(251) 샛갓 : 샛갓 [sɛ-k'at]

(252) 모퉁이 (Ⅰ.579) : 모탱이 [mo-t^{h}ɛŋ-i]

(253) 어쨌어요? : 워쨌시유? [wə:-tʃ'ɛ-s'i-ju]

(254) 구유 (Ⅰ.458) : 구수 [ku-su]

(255) 데우다 : 데브다 [te-bɨ-da]

(256) 제사 (※Ⅲ.05-9) : 지사 [tʃi:-sa]

(257) 부러워서 (Ⅰ.607) :

불거서 [pul-gə-sə] (※ 기본형을 추정하기 어려움)

(258) 시샘나다 :

시사나다 [si-sa-na-da] 시새나다 [si-sɛ-na-da]

(259) 벼슬 : 베슬 [pe-sɨl]

(260) 요술 : 요실 [jo:-sil]

(261) 못하다 (Ⅰ.709) : 뭇허다 [mu:-t^{h}ə-da]

(262) 엄마 (Ⅰ.315.1) : 어마(가) [ə-ma(-ga)] 어매(하고) [ə-mɛ(-ha-go])

(263) 옛날 : 잇날 [i:n-nal]

(264) 저희 : 즈이 [tʃɨ-i]

(265) 언제 : 원제 [wə:n-dʒe]

(266) 동서(同棲) : 동세 [toŋ-se]

(267) 세상 : 시상 [si:-saŋ]

(268) 꽃당혜(唐鞋) : 꽃댕여 [k'o-t'ɛŋ-jə]

(269) 놈 : 눔 [num] 標 그 놈 方 그 눔

(270) 곰보 (Ⅰ.261) : 얼거빽이 [əl-gə-p'ɛ-gi]

(271) 만들다 (Ⅰ.668) : 맹글다 [mɛŋ-gɨl-da]

(272) 어떻게 : 워찌게 [wə:-tʃ'i-ge] 워뜨케 [wə:-t'i-k^{h}e]

(273) 남편 : 냄편 [nɛm-p^{h}jən]

(274) 별스럽다 : 벨스럽다 [pel-si-rup-t'a]

(275) 꽃 (Ⅰ.491) :

꼿 [k'ot] 標꽃이 方꼿이 [k'o-si] 標꽃을 方꼿을 [k'o-sil]

(276) 구슬 : 구실 [ku-sil]

(277) 인도환생(引導還生) : 인도환상 [in-do-hwan-saŋ]

(278) 그전에 : 기전에 [ki-dʒə-ne]

(279) 즉살(即殺)로 : 직살로 [tʃik-s'al-lo]

(280) 도끼 (Ⅰ.532) : 두치 [tu-tʃ^{h}i] (금)두끼 [(kim)-du-k'i]

(281) 계집 : 지집 [tʃi:-dʒip]

(282) 쫓겨나다 (Ⅲ.19.5 보충 ③) :

쨋겨나다 [tʃ'ɛ-k'jə-na-da] 쬦겨나다 [tʃ'ø-k'jə-na-da]

(283) 그네 (Ⅰ.309) : 그느 [ki:-ni] +그니 [ki:-ni]

(284) 얼씬 못하다 : 얼찐 뭇하다 [əl-tʃ'in mu-t^{h}a-da]

(285) 고들빼기 (Ⅰ.504) : 고짜배기 [ko-tʃ'a-bɛ-gi]

(286) 무슨 : 무신 [mu-sin]

(287) 저(我) (Ⅱ.03.1) : 지 [tʃi:]

Ⅴ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남정희(여, 5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사상황 : 앞 Ⅳ와 똑같은 상황에서 제보자만 바뀌었다. 이 분은 전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자기도 하나 하겠다고 해서 노래 하나와 설화 하나를 하였다. 이 분은 본군 성연면이 고향인데, 이곳에 시집와서 줄곧 이 마을에서 사신 분이다.

조사내용 : (288)~(310)

(288) 모으다 : 뫼다 [mø:-da]

(289) 썩이다 : 쎅이다 [s'e-gi-da]

(290) 길쌈 : 질쌈 [tʃil-s'am]

(291) 동티잡이(標 미상) : 동투잽이 [to:ŋ-t^{h}u-dʒɛ-bi]

(292) 까마귀 (Ⅰ.486.1) : 까그매 [k'a-gi-mɛ]

(293) 개구리 (Ⅰ.413) : 깨구리 [k'ɛ-gu-ri] 개고리 [kɛ-go-ri] 개구리 [kɛ-gu-ri]
標개구리야 方개골아 [kɛ-go-ra]

(294) 낫으니까(癒) (Ⅲ.13.4) : 낫으니께 [na-si-ni-k'e]

(295) 뒤껻 (Ⅰ.154) : 뒤란 [ty:-ran]

(296) 칙사(勅使) : 축사 [tʃʰuk-s'a]

(297) 돈(錢)벌다, 돈 만들다 : 돈하다 [to:n-ha-da]

(298) 어슴푸레하다 : 어슬멍하다 [ə-sil-məŋ-ha-da]

(299) 아주 : 아조 [a-dʒo]

(300) 동티 : 동티 [to:ŋ-tʰi]

(301) 모서리 : 모사레 [mo-sa-re]

(302) 삼을 삼다 : 삼을 쌔다 [sa-mil s'ɛ-da]

(303) 배우다 : 배다 [pɛ:-da]

(304) 호랑이 : 호랭이 [ho:-rɛŋ-i]

(305) 기름 : 지름 [tʃi-rim]

(306) 참기름 : 챔기름 [tʃʰɛm-gi-rim]

(307) 도끼 (Ⅰ.532) : 도치 [to-tʃʰi]

(308) 一쯤 : 一쩜 [tʃ'im] 標반쯤 方반쩜

(309) 무섭다 (Ⅰ.617) : 미섭다 [mi-səp-t'a]

(310) 뚱구멍 : 똥구녕 [t'oŋ-k'u-njəŋ]

Ⅵ

조사일자 : 986. 12. 23.
제 보 자 : 남효순(여, 7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대호지면 도린리(1957년 행행구역 개편시 당진군으로 넘어감)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사상황 : 앞 Ⅴ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 분은 남정희씨와 같이 찾아 왔다가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되었다. 나이에 비해 젊고, 발음도 또렷하였다. 이 분도 이 마을로 시집와서 이곳에서 계속 사신 분이다.
조사내용 : (311)~(332)

(311) 모시장수 : 모새쟁시 [mo-sɛ-dʒɛŋ-si]

(312) 꾸중듣다 : 지천 먹다 [tʃi-tʃʰən mək-t'a]

(313) 며칠 : 메칠 [me-tʃʰil]

(314) 어머니 (Ⅰ.315) : 어매 [ə-mɛ]

(315) 야산(野山) : 개산 [kɛ:-san]

(316) 솥이 (Ⅰ.076) : 솟이 [so-si]

(317) 따뜻하다 : 따땃하다 [t'a-t'a-tʰa-da]

(318) 장작 : 장적 [tʃaŋ-dʒək]

(319) 뚜껑 (Ⅰ.097) : 소당 [so-daŋ]

(320) 두멍 : 두멍 [tu-məŋ] [※ 큰 가마]

(321) 송아지 (Ⅰ.451.3) : 송아치 [soŋ-a-tʃʰi]

(322) 키(箕) (Ⅰ.046) : 치 [tʃʰi:]

(323) 세 번 : 시 번 [si bən:]

(324) 어느 : 워니 [wə-ni] 標어느 날 方 워니 날

(325) 놈 : 늼 nym 標그 놈이 方그 늼이 [ki ny-mi]

(326) 덩이 : 뎅이 [teŋ-i]

(327) 범벅 : 범벅 [pəm-bək]

(328) 모퉁이 (Ⅰ.579) : 모랭이 [mo-reŋ-i]

(329) 목숨 : 목심 [mok-s'im]

(330) 아우성치다 : 아우성놓다 [a-u-səŋ-no-tʰa]

(331) 야단치다 : 야단놓다 [ja-dan-no-tʰa]

(332) 약올리다 : 골리다 [kol-li-da]

Ⅶ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김재숙(여, 6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산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사상황 : 앞 Ⅵ에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이다. 위에 적은 제보자는 원래 조사원들을 이 집으로 안내했던 분이다. 성격이 조용하여 내내 듣고만 있었는데, 앞 제보자인 남 효순 씨의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하여 보충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앞 제보자와 공통되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도 한 마을의 올바른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중복되더라도 다시 적었다.

조사내용 : (333)~(352)

(333) 나무 :

낭구 [naŋ-gu] (※ 남 효순 씨는 '나무'라고 하였음)

(334) 미류나무 : 미루나무 [mi-ru-na-mu]

(335) 동아줄 : 동아줄 [toŋ-a-tʃ'ul]]

(336) 샘(泉) (Ⅰ.157) : 샘 [sɛ:m]

(337) 어머니 (Ⅰ.315) : 어머니 [ə-mə-ni]

(338) 없다 (Ⅰ.591) :

읎다 [i:p-t'a] 標없어서 方읎어서 [i:p-s'ə-sə]

(339) —이더래요 :

—일러래유 [il-lə-rɛ-ju] 標손이더래요 方손일러래유 [so-nil-lə-rɛ-ju]

(340) 어떻게 : 워치 [wə-tʃʰi]

(341) 미끄러지다 : 미끼러지다 [mi-k'i-rə-dʒi-da]

(342) 죽인다 (Ⅰ.591 보충) : 쥑인다 [tʃy-gin-da]

(343) 호랑이 : 호랭이 [ho-rɛŋ-i]

(344) 모퉁이 (Ⅰ.579) : 모랭이 [mo-rɛŋ-i]

(345) 똥구멍 : 똥꾸녕 [t'oŋ-k'u-njəŋ]

(346) 삽태기 (Ⅰ.037) : 삽태미 [sam-:ʰ-mi]

(347) 범벅 : 범벅 [pum-bək]

(348) 참기름 (Ⅰ.054.1 보충 ①) : 챔기름 [tʃʰɛm-gi-rim]

(349) 도끼 (Ⅰ.532) : 도끼 [to-k'i]

(350) 빛(光) :

빗 [pit] 標달빛이 方달빗이 [tal-bi-si]

(351) 무섭다 (Ⅰ.617) : 무섭다 [mu-səp-t'a]

(352) 수수깡 : 수숫댕이 [su-su-t'ɛŋ-i]

(353) 빨리빨리 : 싸게싸게 [s'a-ge-s'a-ge]

4. 海美面 冬岩里의 方言

Ⅰ

조사일자 : 1986. . 12. 24.

제 보 자 : 오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단이 윤상석 이장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출타 중이었으므로, 그 부인에게 부탁하여 아주머니 두 분을 모셨다. 안방에서 설화 조사자인 최운식 교수와 본조사자가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권하여 들었다. 조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런 상태서 나오는 방언을 기록하였다. 뒤에 녹음기를 틀면서 확인하였다. 위에 적은 제보자인 오영렬 할머니는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 시집왔으므로, 제보자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목소리도 또렷하고 속도도 알맞았다.

조사내용 : (1)～(53)

(1) 뱀 : 비얌 [pi-jam]
(2) 가위 (Ⅰ.187) : 가새 [ka-sɛ]
(3) 수수께끼 : 말저르미 [ma:l-dʒə-ri-mi]
(4) 새끼(藁繩) (Ⅰ.029) : 샌네끼 [sɛn-ne-k'i]
(5) 좁쌀 (Ⅰ.052 보충 ②) : 서슥쌀 [sə-sik-s'al]
(6) 묘 (Ⅰ.535) : 모이 [mo-i]
(7) 말씀 : 말씸 [ma:l-s'im]
(8)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9) 조금 : 쪠끔 [tʃ'ɛ:-k'im]
(10) 너머 : 너무 [nə-mu]
(11) 아궁이 : 아궁지 [a-guŋ-dʒi]
(12) 세상 : 시상 [si:-saŋ]
(13) 조상신 : 혼신(魂神) [hon-sin]
(14) 어째서 : 워찌서 [wə:-tʃ'i-sə]
(15) 머리카락 (Ⅰ.199) : 머리카락 [mə-ri-k^{h}a-rak]
(16) 구렁이 : 구렝이 [ku-reŋ-i]
(17) 현몽(現夢) : 선몽 [sə:n-moŋ]
(18) 대야 : 소락지 [so-rak-tʃ'i]
(19) 흙 (Ⅰ.544) :
흑 [hik] 흑(을) [hi(-gil)] 흑(이) [hi(-gi)]
(20) 기름 : 지름 [tʃi-rim]
(21) 놈 : 눔 [num]
(22) 화덕 : 화닥 [hwa:-dak]
(23) 데(所) : 디 [ti]
(24) 체 : 체 [tʃ^{h}e] 체로 찌치다 [tʃ^{h}e-ro tʃ'i-tʃ^{h}i-da]
(25) 뭣 : 멋 [mə:t]
(26) 쪽지게 : 쪽지게 [tʃ'ok-tʃi-ge] (※ 조그마한 지게)
(27) 어떻게 하다 : 어찍하다 [ə-tʃ'i-k^{h}a-da]
(28) 도끼 (Ⅰ.532) : 도치 [to-tʃ^{h}i]
(29) 인도환생 : 인도환상 [in-do-hwan-saŋ]
(30) 길 : 질 [tʃil]
(31) 계시다 : 기시다 [ki:-si-da]

(32) 빚(債) : 빗 [pit] 빗(을) [pi(-sɨl)] 빗(이) [pi(-si)]

(33) 모르다 (Ⅲ. 08) : 물르다 [mu:l-li-da]

(34) 마련하다 : 매련허다 [mɛ-rjən-hə-da]

(35) 저희들 : 주덜 [tʃu:-dəl]

(36) 어떡하면 : 워쩌문 [wə:-tʃ'ə-mun]

(37) 남 (Ⅰ. 338) : 넘 [nəm]

(38) 무우 (Ⅰ. 057) : 무수 [mu-su]

(39) —에 : —이 [-i] 標산골에 方산골이 [san-k'o-ri]

(40) —의 : —이 [-i] 標남의 것 方넘이 것 [nə-mi-]

(41) 다랑이 : 다랭이 [ta-rɛŋ-i] (※ 좁고 작은 논배미)

(42) 모양 : 모냥 [mo-njaŋ]

(43) —가 봐 : —기여 [-gi-jə] 標그런가 봐 方그런 기여

(44) 기스락 (Ⅰ. 149. 1 참고) : 꾸스락 [k'u-sɨ-rak]

(45) 소리개 : 소루개 [so-ru-gɛ]

(46) 날아 가다 : 널러 가다 [nəl-lə-ga-da]

(47) —대 :

—디야 [-di-ja] 標했대 方했디야 [hɛ-t'i-ja]

(48) 서다(立) (※ Ⅲ. 177) : 스다 [sɨ-da]

(49) 바깥 : 배깥 [pɛ-k'att^h]

(50) 울타리 (Ⅰ. 151) : 울타리 [ul-t^{h}a-ri]

(51) 할머니 (Ⅰ. 317) : 할무니 [hal-mu-ni]

(52) —한테 : —한티 [-han-t^{h}i]

(53) —ㄴ 모양이드만 :

—ㄴ 갤럼이드먼 [-n kɛl-lə-mi-dɨ-mən] 標도와준 모양이드만 方도와준 갤럼이드먼

Ⅱ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오수본(남, 75세, 농업, 한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앞 Ⅰ에서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영렬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본 제보자가 오셨다. 이 분도 이곳 토박이인데, 漢學을 배우시고 또 가르치기도 하신 분이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며 음성도 맑았다. 앞 제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방언을 자연스럽게 기록하였

다.

조사내용 : (54)~(84)

(54) 마울 (Ⅰ.340) : 말 [ma:l]

(55) 다니다 : 대니다 [tɛ-ni-da]

(56) 얌전하다 : 얌잔하다 [ja:m-dʒa-na-da]

(57) 하니까 : 허니께 [hə-ni-k'e]

(58) 초당(草堂) : 초댕 [tʃʰo-dɛŋ]

(59) 살그마니 : 살그마치 [sal-gi-ma:-tʃʰi]

(60) 살짝 열다 : 바스리 열다 [pa-si-ri jəl-da]

(61) —니까 : —ㅇ께 [-ŋ-k'e] 標가니까 方강께 [ka:ŋ-k'e]

(62) 무섭다 (Ⅰ.617) : 미섭다 [mi-səp-t'a]

(63) 누명 쓰다 : 몽덕 쓰다 [mo:ŋ-dək s'i-da]

(64) 벼락 : 베락 [pe-rak]

(65) 어른 : 으른 [i:-rin]

(66) 가까이 (※ Ⅰ.623) : 가께 [ka-k'e]

(67) 때문에 (Ⅱ.55 보충 ①, ②) : 때미 [t'ɛ-mi]

(68) 인제 : 인저 [in-dʒə] 인제 [in-dʒe]

(69) 세수대야 (Ⅰ.225) : 시숫대 [si-su-t'ɛ]

(70) 그런데 : 근디 [kin-di]

(71)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72) 까마귀 (Ⅰ.486.1) : 까그매 [k'a-gi-mɛ]

(73) 호랑이 : 호랭이 [ho:-rɛŋ-i]

(74) 기막히다 : 기맥히다 [ki-mɛ-kʰi-da]

(75) 흰떡 (Ⅰ.083) : 흔떡 [hin-t'ək]

(76) 산골짜기 : 산꼴째기 [san-k'ol-tʃ'ɛ-gi]

(77) 메공이 : 메갱이 [me-gɛŋ-i] (※ 메처럼 된 돌 절굿공이)

(78) 메뚜기 (Ⅰ.442) : 메띠기 [me-t'i-gi]

(79) 나무 : 낭구 [naŋ-gu]

(80) 우리들 : 우덜 [u:-dəl]

(81) 병풍 : 평풍 [pʰjəŋ-pʰuŋ]

(82) 불알 : 부랄 [pu-ral]

(83) 재물을 인색하게 쌓아 두다 : 꼽질러 놓다 [k'op-tʃil-lə no-tʰa]

Ⅲ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김정애(여,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대전시 선화동
주 소 : 충남 해미면 동암리
조사상황 : 앞 Ⅰ에서부터 계속되는 상황으로 맨끝 부분이다. 본 제보자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끝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였다. 이 분은 대전이 고향인데, 이곳으로 시집와서 40여년 가까이 되신 분으로, 목소리가 고왔다.
조사내용 : (84)～(100)

(84) 할머니 (Ⅰ.317 보충 ②) : 할멈 [hal-məm] (※ 평칭임)
(85) 홀아비 : 홀애비 [ho-rɛ-bi]
(86) 엄마 (Ⅰ.315.1) : 엄마 [əm-ma]
(87) 등성이 : 등셍이 [tiŋ-seŋ-i]
(88) 죽인다 (Ⅰ.591.1 보충) : 직인다 [tʃi-gin-da]
(89) 줍다 (Ⅰ.642) :
줏다 [tʃu:-t'a] 標주워서 方줏어서 [tʃu-sə-sə]
(90) 돌(石) : 돌팍 [to:l-pʰak]
(91) 에돌다 : 에돌다 [e-dol-da] (※ 피하여 돌다)
(92) 셈 : 십 [si:m]
(93) 의견 : 이견 [i:-gjən]
(94) 의논 : 이논 [i:-non]
(95) 너희들 : 느덜 [ni:-dəl]
(96) 어디 (Ⅰ.581) : 워디 [wə:-di]
(97) 실속있다 : 곰지다 [ko:m-dʒi-da]
(98) 무릎 (Ⅰ.244 및 보충) : 무르팍 [mu-ri-pʰak]
(99) 빈다 (Ⅰ.124 보충 ①) : 빈다 [pi:n-da]
(100) 과부 (Ⅲ.03.9) : 팟댁 [kwa:-t'ɛk]

Ⅳ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오영렬(Ⅰ과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방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오영렬 할머니가 부엌이나 창고에서 여러 가지

농기구를 보여 주며 설명해 주었다. 그 분 외에도 다른 분들도 살림살이들의 이름을 말해 주었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표준말을 밝히지 못한 것도 있다.

조사내용 : (101)~(144)

(101) 벼 (Ⅰ.001) : 베 [pe]

(102) 맷돌 (Ⅰ.043) : 매 [mɛ]

(103) 절구 (Ⅰ.038) : 절구통 [tʃəl-gu-tʰoŋ 절구 [tʃəl-gu]

(104) 절구공이 (Ⅰ.039) : 절굿대 [tʃəl-gu-t'ɛ] 도굿대 [to-gu-t'ɛ]

(105) 어디 (Ⅰ.581) : 워디 [wə:-di]

(106) 위짝 : 위짝 [y:-tʃ'ak]

(107) 아랫짝 : 밑이짝 [mi-tʰi-tʃ'ak]

(108) 메뚜깃대 : 메뚜깃대 [me-t'u-gi-t'ɛ] (※ '매꾸리'에 달린 부속품의 하나)

(109) 매꾸리(標 미상) :

매꾸리 [mɛ-k'u-ri] (※ 벼를 넣어서 껍질을 까는 기구로서 나무로 만들었으며, 위, 아래 짝이 있으며 높이는 1m가 넘음)

(110)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111) 등겨 (Ⅰ.045.2) : 등저 [tiŋ-dʒə]

(112) 족자리 : 조자리 [tʃo:-dʒa-ri (※ 매통의 손잡이)

(113) 손잡이 : 손잽이 [son-dʒɛ-bi]

(114) 놈 : 눔 [num]

(115) 키(箕) (Ⅰ.046) : 치 [tʃʰi:]

(116) 매조미쌀 :

메지미 [mɛ-dʒi-mi] (※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아니한 쌀)

(117) 벼(열매) (Ⅰ.001.2) :

통베 [tʰoŋ-be] 나락 [na-rak] (※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

(118) 소복하다 : 소부작하다 [so-bu-dʒa:k-ha-

(119) 뒤적거리는 일 : 뒨장질 [tyn-dʒaŋ-dʒil]

(120) 고무래 (Ⅰ.104) : 고무래 [ko-mu-rɛ]

(121) 누다락 : 유다락 [ju:-da-rak] 누다락 [nu:-da-rak]

(122) 메공이 :

매갱이 [mɛ-gɛŋ-i] 독매갱이 [tok-mɛ-gɛŋ-i] (※ 돌 절굿공이)

(123) 도리깨(Ⅰ.031) : 도리깽이 [to-ri-k'ɛŋ-i]

매탱이 [mɛ-tʰɛŋ-i]

(124) 작두 : 작두 [tʃak-t'u]

(125) 도투마리 : 도투마리 [to-tʰu-ma-ri]

(126) 밀방석)標 미상) :

밀방석 [mil-baŋ-sək] (※ 밀짚으로 만든 방석)

(127) 삼씨 : 열씨 [jəl-s'i]

(128) 꿀 : 꿀 [k'ol] (※ 논 1마지기당 나오는 쌀 가마니 수)

(129) 가마 (Ⅰ.076.1) : 가마솥 [ka-ma-sot]

(130) 아궁이 (Ⅰ.101) : 아궁지 [a-kuŋ-dʒi]

(131) 손다락(標 미상) :

작은다락 [tʃa-gin-da-rak] 손다락 [son-t'a-rak] (※ 누다락보다 작은 다락)

(132) 주발 : 주발 [tʃu-bal]

(133) 사발 : 사발 [sa-bal]

(134) 사발뚜껑 (Ⅰ.097.5) : 꾀 [k'ø]

(135) 매통 :

통매 [tʰoŋ-mɛ] 나무매 [na-mu-mɛ] 매통 [mɛ-tʰoŋ] 매탱이 [mɛ-tʰɛŋ-i]

(136) 주걱 (Ⅰ.079) : 주걱 [tʃu-gək]

(137) 남비 : 냄비 [nɛm-bi]

(138) 도리깨 (Ⅰ.031) : 도지깨 [to-dʒi-k'ɛ]

(139) 다르다 (Ⅰ.620) :

달브다 [tal-bi-da] 標달라요 方달버유 [tal-bə-ju]

(140) 남들 (Ⅰ.338) : 넘덜 [nəm-dəl]

(141) 외할머니 : 오할머니 [o-hal-mə-ni]

(142) 번소 (Ⅰ.156) : 동티깐 [toŋ:-tʰi-k'an]

(143) 눌은밥 (Ⅰ.080.1) : 눈밥 [nu:n-bap]

(144) 기생(妓生) : 기상 [ki:-saŋ]

Ⅴ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윤병석(남, 56세, 국교 교사, 초대졸)

본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앞 Ⅳ의 조사를 하고 있을 때, 이장 집에 마을 남자분들이 찾아왔다. 위에 적은 윤병석 씨와 그분의 동생, 그리고 친구분이었다. 조사자가 체계적인 방언 조사를 하려고 하였을 때, 이분들이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서도 윤병석 씨가 결정적인 제보자였다. 원칙적으로는 이 분은 방언 조사하기에는 연령도 부족한 편이며, 학력도 너무 높으

며, 또 외지에 나가 학교다닌 것과 군복무 등으로 부적합한 제보자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분은 좋은 제보자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표준말과 방언을 명확히 구분하여 두 가지를 함께 알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습득한 능력이라고 하였다. 두째는 방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점이다.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표준말화되지 않은 방언으로 대답해 주었다. 세째는 기억력과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났던 점이다. 이런 점으로 해서, 이 분을 제보자로 삼아 질문법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분이 막히거나 틀릴 때는 옆의 분들이 도와 주었다.

조사내용 : (145)~(341)

(145) 담벼락 (Ⅰ.130. 보충 ②) : 담쭉 [tam- tʃ'uk]

(146) 굽도리 (Ⅰ.131) : △

(147) 흙손 (Ⅰ.132) : 흙칼 [hi-kʰal]

(148) 귀얄 (Ⅰ.133) : △

(149) 풀비 (Ⅰ.133.1) : 풀비 [pʰul-p'i]

(150) 종이 (Ⅰ.134) : 종이 [tʃoŋ-i]

(151) 구겨지다 (Ⅰ.135) :

구겨지다 [ku-gjɛ-dʒi-da]구기다 [ku-gi-da] (Ⅰ.135.1)

(152) 지붕 (Ⅰ.136) : 지벙 [tʃi-bəŋ]

(153) 사닥다리 (Ⅰ.137) : 사닥다리 [sa-dak-t'a-ri]

(154) 기와집 (Ⅰ.138) : 지와집 [tʃi-wa-dʒip] (개와집 [kɛ-wa-dʒip])

(155) 초가집 (Ⅰ.139) : 초가집 [tʃʰo-ga-dʒip]

(156) 이엉 (Ⅰ.140) : 나래 [na:-rɛ]

(157) 엮다 (Ⅰ.141) : 엮다 [jək-t'a]

(158) 이다 (Ⅰ.142) : (지붕을) 해 이다 [hɛ i-da]

(159) 용마름 (Ⅰ.143) :

용구새 [joŋ-gu-sɛ] 틀다 [tʰil-da] (Ⅰ.143.1)

(160) 기둥 (Ⅰ.144) : 지둥 [tʃi-duŋ]

(161) 주춧돌 (Ⅰ.145) : 주춧돌 [tʃu-tʃʰu-t'ol]

(162) 서까래 (Ⅰ.146) : 연재까락 [jən-dʒɛ-k'a-rak]

(163) 처마 (Ⅰ.147) : ?

(164) 추녀 (Ⅰ.148) : 추녀 [tʃʰu-njə]

(165) 낙숫물 (Ⅰ.149) : 낙숫물 [nak-sun-mul]

(166) 기스락물 (Ⅰ.149.1) : 전지락물 [tʃən-dʒi-aŋ-mul]

(167) 고드름 (Ⅰ.150) : 고드름 [ko-di-rim]

(168) 상량(上梁) : 상낭 [saŋ-naŋ] 상낭보 [saŋ-naŋ-p'o]

(169) 울타리 (Ⅰ.151) : 울타리 [ul-tʰa-ri]

(170) 담 (Ⅰ.152) : 담쭉 [tam-tʃ'uk]

(171) 뜰 (Ⅰ.153) : 안마당 [an-ma-daŋ]

보충 토방 [tʰo-baŋ] (안방 문 앞, 그 아래) 봉당 [po:ŋ-daŋ] : 임시집

(172) 뒤껻 (Ⅰ.154) : 뒤란 [ty:-ran]

(173) 장독대 (Ⅰ.155) : 장광 [tʃa:ŋ-k'waŋ]

(174) 변소 (Ⅰ.156) : 뒷간 [ty:-k'an]

(175) 데(所) : 디 [ti]

(176) 샘 (Ⅰ.157) : 사암 [sa-am]

(177) 우물 (Ⅰ.158) : 사암물 [sa-am-mul]

(178) 두레박 (Ⅰ.159) :

타레박 [tʰa-re-bak] 보충 타레박 사암 (※ 두레박이 달린 샘)

(179) 또아리 (Ⅰ.160) : 똥아리 [t'oŋ-a-ri]

(180) 도랑 (Ⅰ.161) : 또랑 [t'o-raŋ]

(181) 봇도랑 (Ⅰ.161. Ⅰ) : 봇뚤 [po-t'ol]

(182) 개울 (Ⅰ.162) : 냇깔? [nɛ-k'al]

(183) 수렁 (Ⅰ.163) : 수렁 [su-rəŋ]

(184) 거품 (Ⅰ.164) : 거큼 [kə-kʰɨm]

(185) 수채 (Ⅰ.165) : 수채 [su-tʃʰɛ] (보충 시궁창과는 다름)

(186)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187) 머리 (Ⅰ.198) : 머리 [mə-ri]

(188) 대가리 (Ⅰ.198.1) : 대갈 [tɛ-kal] 대갈통 [tɛ-kal-tʰoŋ]

(189) 돼지머리 (Ⅰ.198.2) : 도야지머리 [to-ja-dʒi-mə-ri]

보충 i ② 소대가리 [so-dɛ-ga-ri]

보충 ii ① 콩나물 대가리 [kʰoŋ-na-mul dɛ-ga-ri]

(190) 베갯머리 (Ⅰ.198.2. 보충 ii ②) : ? (※ '버개' 밖에 모름)

(191) 머리카락 (Ⅰ.199) : 머리카락 [mə-ri-kʰa-rak]

(192) 가마(旋毛)(Ⅰ.200) : 가마 [ka:-ma]

(193) 가르마 (Ⅰ.201) : 가름자 [ka-rɨm-dʒa] (가름자) 타다 [tʰa-da]

(194) 비듬 (Ⅰ.202) : 비눌 [pi-nul]

(195) 턱 (Ⅰ.203) : 턱빼기 [tʰək-p'ɛ-gi] (※ 옛날의 平稱임)

(196) 수염 (Ⅰ.204) : 시염 [si-jəm] 턱시염 [tʰək-s'i-jəm] (Ⅰ.204.1)

콧시염 [kʰo-s'i-jəm] (Ⅰ.204.2) 구렛나루 [ku-ren-na-ru] (Ⅰ.204.3)

(197) 목 (Ⅰ.205) : 모가지 [mo-ga-dʒi] (※ 옛날의 平稱임)

(198) 얼굴 (Ⅰ.206) : 얼굴 [əl-gul]

보충 ① 얼굴 시수헌다 ③ 낯짝 아프다

③ 낯짝 값도 뭇헌다 ⑥ 낯짝이 양판 같다 ⑨ 낯짝에다 똥 바른다

(199) 뺨 (Ⅰ.207) : 볼때기 [pol-t'ɛ-gi]

보충 구쎄대기 (때린다) [ku-s'ɛ-dɛ-gi]

(200) 볼 (Ⅰ.208) :

볼때기 [po:l-t'ɛ-gi] (볼따군지 [po:l-t'a-gun-dʒi]) (※ '뺨'과 '볼'의 구별이 없음)

(201) 보조개 (Ⅰ.208.1) : 보조개 [po-dʒo-gɛ]

(202) 볼거리 (Ⅰ.208.2) : △ (꽃 난다 [k'on nan-da]

(203) 주름살 (Ⅰ.209) :

주름쌀 [tʃu-rim-s'al] 이마 주름쌀 [i-ma-tʃu-rim-s'al] (Ⅰ.209.1)

(204) 눈옆 주름살 (Ⅰ.209.2) : △

(205) 눈(眼) (Ⅰ.210) : 눈깔 [nun-k'al] (※ 卑稱임)

(206) 눈썹 (Ⅰ.212) :

눈썹 [nun-s'əp] 보충 속눈썹 [soŋ-nun-s'əp]

(207) 눈곱 (Ⅰ.213) :

눈꼽 [nun-k'op] 보충 눈꼽만치 주다

(208) 다래끼 (Ⅰ.214) :

다락지 [ta-rak-tʃ'i] (※ 위, 아래 난 다래끼의 통칭. 구분 없음)

(209) 소경 (Ⅰ.215) : 소이경 [so-i-kjəŋ]

(210) 애꾸 (Ⅰ.216) : 애꾸 [ɛ-k'u]

(211) 코 (Ⅰ.217) : 코 [kʰo]

(212) 입술 (Ⅰ.218) : 입술 [ip-s'ul]

우잇 입술 [u-in nip-s'ul] (Ⅰ.218.1) 아랫 입술 [a-rɛn nip-s'ul] (Ⅰ.218.2)

(213) 혀 (Ⅰ.219) : 섯바닥 [sə-p'a-dak]

보충 ② 섯바늘 [sə-p'a-nil] ③ 혀끝 [hjə-k'it]

(214) 벙어리 (Ⅰ.220) : 벙어리 [pəŋ-ə-ri]

(215) 말더듬이 (Ⅰ.220.1) : △

(216) 귀 (Ⅰ.221) : 귀빠귀 [ky-p'a-ky]

(217) 귓불 (Ⅰ.222) : 귀부랄 [ky-bu-ral]

(218) 귀에지 (Ⅰ.223) : 귓속 [ky-s'ok]

(219) 귀머거리 (Ⅰ.224) :

귀머거리 [ky-mə-gə-ri] 귀먹다 [ky-mək-t'a]

(220) 세수대야 (Ⅰ.225) : 시숫대 [si-su-t'ɛ]

(221) 얼굴 씻다 (Ⅰ.225.1) : 시수헌다 [si:-su-hən da]

(222) 비누 (Ⅰ.226) :

비누 [pi-nu] 보충 ① 빨랫비누 [p'al-lɛ-p'i-nu]

② 시숫비누 [si:-su-p'i-nu] ③ 가리비누 [ka-ri-bi-nu]

(223) 목욕 (Ⅰ.227) :

목간 [mo-k'an] 보충 목간 간다(※ 목욕한다)

(224) 목물 (Ⅰ.227.1) : 등막한다 [tiŋ-ma-kʰan-da]

(225) 거울 (Ⅰ.228) : 색경 [sɛ-k'jəŋ]

(226) 빗 (Ⅰ.229) : 빗 [pit]

(227) 얼레빗 (Ⅰ.229.1) : 어린빗 [ə-rin-bit]

(228) 참빗 (Ⅰ.229.2) : 챔빗 [tʃʰɛm-bit]

(229) 다리 (Ⅰ.230) : 다리 [ta-ri]

(230) 손 (Ⅰ.231) : 손 [son]

(231) 왼손 (Ⅰ.232) : 오요손 [o-jo-son] 바른손 [pa-rin-son] (Ⅰ.232.1)

보충 오요편, 바루편 오요편쪽 눈, 바루편쪽 눈

(232) 손바닥 (Ⅰ.233) : 손바닥 [son-p'a-dak]

(233) 손가락 (Ⅰ.234) : 손꾸락 [son-k'u-rak]

보충 ① 엄지 손꾸락 [əm-dʒi son-k'u-rak ② 집을 손꾸락 [tʃi-bil son-k'u-rak]

③ 장(長) 손꾸락 [tʃa:ŋ son-k'u-rak ④ ? ⑤ 새끼 손꾸락 [sɛ-k'i son-k'u-rak]

(※ ①과 ②를 합하여 '오할머니 젓가락'이라고 부름)

(234) 마디 (Ⅰ.235) : 마디 [ma-di] 대마디 [tɛ-ma-di] (Ⅰ.235.1)

(235) 겨드랑 (Ⅰ.236) : 저드랑 [tʃə-di-raŋ]

(236) 젖 (Ⅰ.237)··

젓 [tʃət] 젓(을) [tʃə-sil] 젓(에) [tʃə-se]

(237) 배꼽 (Ⅰ.238) : 배꼽 [pɛ-k'op]

(238) 허리 (Ⅰ.239) : 허리 [hə-ri]

(239) 다리(脚) (Ⅰ.240) : 다리 [ta-ri]

(240) 가부좌(跏趺坐) (Ⅰ.241) :

다리 젓깨고 앉는다 [ta-ri dʒə-k'ɛ-go an-nin-da]

(241) 엉덩이 (Ⅰ.242) :

궁댕이 [ku:ŋ-dɛŋ-i] > (응댕이 [iŋ-dɛŋ-i])

보충 ① 강아지 궁댕이 ② 소 궁댕이 ③ 응댕이에 뿔났다

④ 처녀 방댕이 ⑤ 간난애 궁댕이 ⑥ 웅덩방아 찐다

(242) 넓적다리 (Ⅰ.243) : 허박지 [hə-bak-tʃ'i]

(243) 무릎 (Ⅰ.244) : 무르팍 [mu-ri-pʰak]

무르팍을 다쳤다 무르팍에 앉히다 보충 무르팍을 꿇다

(244) 오금 (Ⅰ.245) : 오금 [o-kɨm]

(245) 저리다 (Ⅰ.246) : 오금다리 아프다 [o-kɨm-da-ri a-pʰi-da]

(246) 정강이 (Ⅰ.247) : 정갱이 [tʃəŋ-gɛŋ-i]

(247) 뼈 (Ⅰ.248) : 뻑대기 [p'ək-t'ɛ-gi]

(248) 복사뼈 (Ⅰ.249) : 복숭아뼈 [pok-s'uŋ-a-p'jə]

(249) 부스럼 (Ⅰ.250) : 꼬무라지 [k'o-mu-ra-dʒi]

(250) 고름 (Ⅰ.251) : 고룸 [ko-rum]

보충 ① 고룸을 짜다 ② 고룸이 굉겼다

(251) 사마귀 (Ⅰ.252) : 사막 [sa:-mak]

보충 ① 꺼먹 사막 ② △ (※ '흰 사마귀'는 명칭 따로 없음)

(252) 두드러기 (Ⅰ.253) : 두드레기 [tu-dɨ-re-gi]

(253) 땀띠 (Ⅰ.254) : 땀때기 [t'a:m-t'ɛ-gi]

(254) 버짐 (Ⅰ.255) : 버듬 [pə-dɨm] 버듬 생기다

보충 ① 마른버듬 ② 진버듬 기계총 [ki-gje-tʃʰoŋ] (Ⅰ.255.1)

(255) 주근깨 (Ⅰ.256) : 주근깨 [tʃu-gɨn-k'ɛ]

(256) 기미 (Ⅰ.257) : 지미 [tʃi-mi] 보충 지미 찐다

(257) 여드름 (Ⅰ.258) : 여드름 [j:ə-dɨ-rɨm]

보충 ① (남자한테 나는) 여드름 ② (여자한테 나는) 남드름?

(258) 멍 (Ⅰ.259) : 먹 찌다 [mək tʃ'i-da]

(259) 언청이 (Ⅰ.260) : 엇챙이 [ə-tʃʰɛŋ-i]

입술 찌둥그러지다 [ip-s'ul tʃ'i-duŋ-gi-rə-dʒi-da]

(260) 곰보 (Ⅰ.261) : 얼거뺌기 [əl-gə-p'ɛ-gi]

(261) 천연두 (Ⅰ.262) : 손님 [son-nim] 손님뻥 [son-nin-p'jəŋ]

(262) 학질 (Ⅰ.263) : 한전 [ha:n-dʒən]

(263) 홍역 (Ⅰ.264) : 호녁 [ho-njək]

보충 ① 상꽃 났다, 열꽃 났다 ② 꽃 난 것 긁지 말라

(264) 감기 (Ⅰ.265) : 고뿔 [ko-p'ul] 고뿔 걸리다

(265) 딸꾹질 (Ⅰ.266) :

멷꺽헌다 [t'əl-k'ə-kʰənd-a] 멷께기헌다 [t'əl-k'e-gi-hən-da]

(266) 사레 (Ⅰ.267) : 사레 [sa-re] 보충 사레 들렸다

(267) 트림 (Ⅰ.268) : 개트름 [kɛ:-tʰi-rɨm]

(268) 재채기 (Ⅰ.269) : 재치기 [tʃɛ-tʃʰi-gi]

(269) 하품 (2.270) : 하품 [ha-pʰum]

(270) 기지개 (Ⅰ.271) : 기지개 [ki-dʒi-gɛ] 보충 기지개 쓴다

(271) 졸음 (Ⅰ.272) : ?

(272) 졸다 (Ⅰ.272.1) : 졸다 [tʃo:l-da]

(273) 졸리다 (Ⅰ.272.2) : 졸리다 [tʃol-li-da]

(274) 방귀 (Ⅰ.273) : 방기 [pa:ŋ-gi] 방기 끼다 [pa:ŋ-gi k'i-da] (Ⅰ.273.1)

(275) 구린내 (Ⅰ.274) : 구린내 [ku-rin-nɛ]

(276) 구리다 (Ⅰ.274. 보충) : ?

(277) 고린내 (Ⅰ.275) : 고린내 [ko-rin-nɛ]

(278) 고리다 (Ⅰ.275. 보충) : ?

(279) 공기 (Ⅰ.298) : 공기 [koŋ-gi]

(280) 고누 (Ⅰ.299) : 고니 [ko-ni]

(281) 사금파리 (Ⅰ.300) : 사금파리 [sa-gim-pʰa-ri]

(282) 소꿉질 (Ⅰ.301) : 소꿉장난 [so-k'op-tʃ'aŋ-nan]

(283) 숨바꼭질 (Ⅰ.302) : 감추기장난 [kam-tʃʰu-gi-dʒaŋ-nan]

(284) 목말 (Ⅰ.303) : 꽃내비 슨다 [k'on-nɛ-bi sin-da]

(285) 자치기 (Ⅰ.304) :

메때기치기 [me-t'ɛ-gi-tʃʰi-gi] 메떠기치기 [me-t'i-gi-tʃʰi-gi]

땡공치기 [t'ɛŋ-goŋ-tʃʰi-gi] 얼러꽁 [əl-lə-k'oŋ] 얼러깽이 [əl-lə-k'ɛŋ-i]

작은막대 [tʃa-gin-mak-t'ɛ] (Ⅰ.304.1) 큰대 [kʰin-dɛ] (Ⅰ.304.2)

(286) 제기 (Ⅰ.305) : 제기 [tʃe:-gi]

(287) 망월(望月) (Ⅰ.306) : 달맞이 [tal-ma-dʒi]

(288) 쥐불놓이 (Ⅰ.307) : 쥐불 놓는다 [tʃy-bul non-nin-da]

(289) 윷 (Ⅰ.308) :

윳 [jut] 윳(이) [yu-si] 윳(을) [ju-sil]

(290) 도 개 걸 윷 모 (Ⅰ.308.1~5) :

도야지 [to-ja-dʒi] 개 [kɛ] 걸 [kəl] 사짜 [sa-tʃ'a] 모 [mo]

보충 ① 둑 복는다, 석 복는다, 막 복는다

② 둑 간다, 석 간다, 막 간다

(291) 가게 (Ⅰ.341) : 가게 [ka:-ge]

구멍가게 [ku-məŋ-k'a-ge] (Ⅰ.341.1) 잡하상 [tʃa-pʰa-saŋ] (Ⅰ.341.2)

(292) 잔돈 (Ⅰ.343) : 잔돈 [tʃan-don]

퇴 받는다 [tʰø:-ban-nin-da] (Ⅰ.343.1) 거스름돈 △ (Ⅰ.343.2)

(293) 우수리 (Ⅰ.344) : ?

(294) 에누리 (Ⅰ.345) : △ (깎어 달라 [k'a-k'ə dal-la]

(295) 덤 (Ⅰ.346) : 돔 [to:m]

(296) 풀무 (Ⅰ.348) : 불무 [pul-mu]

(297) 모루 (Ⅰ.349) : 뫼루똑 [mø-ru-t'ok]

뫼 [mø] (Ⅰ.349.1) 베리다 [pe-ri-da] (Ⅰ.349.2)

(298) 바퀴 (Ⅰ.350) : 바쿠이 [pa-k^{h}u-i]

(299) 마지기 (Ⅰ.351) : 마지기 [ma-dʒi-gi] (200평)

(300) 마리 (Ⅰ.352) : 마리 [ma-ri]

(301) 쌍 (Ⅰ.353) : 쌍 [s'aŋ]

보충 암눔 [am-num] 숫눔 [sun-num]

(302) 켤레 (Ⅰ.354) : 커리 [k^{h}ə-ri]

보충 ① 양말 한 커리 ② 장갑 한 커리

(303) 그루 (Ⅰ.355) : 개 [kɛ]?

(304) 포기 (Ⅰ.356) : 포기 [p^{h}o-gi]

보충 ① 무수 한 포기 ② 배차 한 포기

(305) 뼘 (Ⅰ.357) : 뼘 [p'jəm]

(306) 자루 (Ⅰ.358) : 자루 [tʃa-ru]

(307) 두름 (Ⅰ.359) : 두름 [tu-rɨm]

(308) 축 (Ⅰ.360) : 권 [kwən]

(309) 뭇 (Ⅰ.361) : 뭇 [mut]

(310) 꾸러미 (Ⅰ.362) : 줄 [tʃul] 보충 개란 한 줄

(311) 접 (Ⅰ.363) : 접 [tʃəp]

보충 ① 배차 한 접 ② 무수 한 접 ③ 오이 한 접

(312) 필 (Ⅰ.364) : 필 [p^{h}il]

(313) 병 (Ⅰ.365) : 병 [pjəŋ]

보충 ① 한 병, 두 병, …… ② 호로병?

(314) 스무 살 (Ⅰ.385) :

스무 살 [sɨ-mu sal] 스무 개 [sɨ-mu gɛ] (Ⅰ.385.1)

스무 되 [sɨ-mu dø] (Ⅰ.385.2) 스무 말 [sɨ-mu mal] (Ⅰ.385.3)

(315) 마흔 살 (Ⅰ.386) :

마은 살 [ma-ɨn sal] 마은 개 [ma-ɨn gɛ] (Ⅰ.386.1)

마은 되 [ma-ɨn dø] (Ⅰ.386.2) 마은 말 [ma-ɨn mal] (Ⅰ.386.3)

(316) 설흔 아홉 (Ⅰ.387) : 서른 아홉 [sə-rɨn a-hop]

서른 아홉 살 [sə-rɨn a-hop s'al] (Ⅰ.387.1)

(317) 마흔 아홉(Ⅰ.388) : 마은 아홉 [ma-in a-hop]
마은 아홉 살 [ma-in a-hop s'al] (Ⅰ.388.1)
(318) 쉰 하나 (Ⅰ.389) : 쉬훈 하나 [sy-hun ha-na]
쉬훈 한 살 [sy-hun han sal] (Ⅰ.389.1)
(319) 예순 셋 (Ⅰ.390) : 예순 셋 [je-sun set]
예순 세 살 [je-sun se: sal] (Ⅰ.390.1)
(320) 일흔 아홉 (Ⅰ.391) : 이른 아홉 [i-rin a-hop]
이른 아홉 살 [i-rin a-hop s'al] (Ⅰ.391.1)
(321) 곱하다 (Ⅰ.392) : 곱하다 [ko-pʰa-da]
(322) 하루 (Ⅰ.393) : 하루 [ha-ru]
(323) 이틀 (Ⅰ.394) : 이틀 [i-tʰɨl]
(324) 사흘 (Ⅰ.395) : 사흘 [sa-hɨl]
(325) 나흘 (Ⅰ.396) : 나흘 [na-ɨl]
(326) 닷새 (Ⅰ.397) : 닷새 [ta-s'ɛ]
(327) 엿새 (Ⅰ.398) : 엿새 [jə-s'ɛ]
(328) 이레 (Ⅰ.399) : 이레 [i-re]
(329) 여드레 (Ⅰ.400) : 여드레 [jə-dɨ-re]
(330) 아흐레 (Ⅰ.401) : 아레 [a-re]
(331) 열흘 (Ⅰ.402) : 여를 [jə-rɨl]
(332) 가깝다 : 가찹다 [ka-tʃʰap-t'a]
(333) 두드리다 : 뚜디리다 [t'u-di-ri-da]
(334) 산골짜기 : 산꼬랑이 [san-k'o-raŋ-i]
(335) 미끈거리다 : 미껀거리다 [mi-k'in-gə-ri-da]
(336) 제비(燕) : 지비 [tʃi:-bi]
(337) 무당 : 선거리 [sə:n-gə-ri]
(338) 一한테 : 一헌테 [hən-tʰe]
(339) 고을 : 골 [ko:l] 굴 [ku:l]
(340) 내(川) (Ⅰ.162 보충 ③) : 내 [nɛ]
(341) 끼얹다 : 찌얹다 [tʃ'i-ən-t'a]

5. 雲山面 余美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유각무(남, 68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주 소 : 위와 같음
제 보 자 : 한승우(남, 6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조사상황 : 본 조사단은 미리 연락을 해두고 이 마을을 찾아갔다. 그래서, 약속한 마을회관으로 가니 이미 와 계신 할아버지들도 있고, 또 이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다. 본 조사는 그분들 중에서 유각무 할아버지를 주제보자로 삼았다. 이 분은 5대째 이곳에 사시는 토박이로서, 건강이 좋으시고 목소리도 맑아서 가장 적합한 분으로 보였다. 한승우 할아버지는 당진에서 16,7년 전 이곳으로 오신 분인데, 옆에서 거들어 주었다. 조사는 처음에는 제보자들에게 命名法을 물어 보다가 친숙해진 뒤에 체계적인 방언조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 : (1)~(121)

(1) 아명(兒名) : 애명 [ɛ:-mjəŋ]
(2) 길다 (Ⅰ.585) : 질다 [tʃi:l-da]
(3) 멧쥐 : 묏쥐 [mø-tʃ'y]
(4) 막둥이 : 막둥이 [mak-t'uŋ-i]
(5) 서캐 (Ⅰ.424) : 서캐 [sə-k^{h}ɛ]
(6) 벼룩 (Ⅰ.425) : 벼룩 [pjə-ruk]
(7) 모기 (Ⅰ.426) : 모기 [mo:-gi]
(8) 장구벌레 (Ⅰ.426.1) : 곤두벌레 [kon-du-bəl-le]
(9) 파리 (Ⅰ.427) : 파리 [p^{h}a-ri]
(10) 쉬 (Ⅰ.428) : ? (※ '쉬파리'라는 말은 있음)
(11) 쉬슬다 (Ⅰ.428.1) : 쉬깔기다 [sy:-k'al-gi-da]
(12) 가시 (Ⅰ.429) : 가시 [ka-si]
(13) 구더기 (Ⅰ.430) : 구데기 [ku-de-gi]
(14) 지렁이 (Ⅰ.431) : 지렝이 [tʃi-reŋ-i]
(15) 회충 (Ⅰ.432) : 회 [hø]
(16) 거머리 (Ⅰ.433) : 그머리 [ki:-mə-ri]
(17) 벌레 (Ⅰ.434) : 벌레 [pəl-le]
보충 쌀버레 [s'al-bə-re]
(18) 날벌레 (Ⅰ.434.1) : ?
(19) 바구미 (Ⅰ.435) :
바그미 [pa-gi-mi] 광챙이 [kwa:ŋ-tʃ^{h}ɛŋ-i] 바게미 [pa-ge-mi]
(20) 굼벵이 (Ⅰ.436) : 굼벵이 [ku:m-beŋ-i]

(21) 그리마 (Ⅰ.437) :

쉬흔바리 [sy-hin-ba-ri] (지네발 [tʃi-ne-bal])

(22) 노래기 (Ⅰ.438) : 노래기 [no-rɛ-gi]

(23) 진딧물 (Ⅰ.439) :

진디 [tʃin-di] (진딧물 [tʃin-din-mul]) 보충 진디 붙었다

(24) 하루살이 (Ⅰ.440) : 하루살이[ha-ru-sa-ri]] 날파리 [nal-pʰa-ri]

(25) 거미 (Ⅰ.441) : 거미 [kə:-mi]

(26) 메뚜기 (Ⅰ.442) : 메뚜기 [me-t'i-gi]

(27) 방아깨비 (Ⅰ.443) : 땅개비 [t'aŋ-gɛ-bi]

(28) 여치 (Ⅰ.444) : 유치 [ju:-tʃʰi]

(29) 버마재비 (Ⅰ.445) : 버미땅개비 [pə-mi-t'aŋ-gɛ-bi]

(30) 사마귀(母斑) (Ⅰ.445※) : 사막 [sa:-mak]

(31) 소금쟁이 (Ⅰ.446) : 소금쟁이 [so-gim-dʒɛŋ-i]

(32) 물장군 (Ⅰ.446 보충) :

물무당 [mul-mu-daŋ] 물짱구 [mul-tʃ'aŋ-gu]

(33) 물땅땅이 (Ⅰ.446 보충) : ?

(34) 방개 (Ⅰ.447) : 방개 [pa:ŋ-gɛ]

(35) 반딧불 (Ⅰ.448) : 개똥벌레 [kɛ:-t'oŋ-bəl-le]

(36) 벌 (Ⅰ.449) : 벌 [pə:l]

(37) 땅벌 (Ⅰ.449.1) : 옷바시 [o-p'a-si]

(38) 진드기 (Ⅰ.450) : 진디 ? [tʃin-di]

(39) 티끌 : 탑새끼 [tʰap-sɛ-k'i]

(40) 꺼럭 : 꺼럭 [k'ə-rək]

(41) 꼴겨(標 미상) : 꼴껴 [k'ol-k'jə] (※ 보리 꺼럭)

(42) 이 : 이 [i:]

(43) 빈대 : 빈대 [pin-dɛ]

(44) 물것 : 물컷 [mul-kʰət] 물껏 [mul-k'ət]

(45) 잠자리 : 자메리 [tʃa:-me-ri] 자마리 [tʃa:-ma-ri]

(46) 엔간하다 : 엔간하다[en-gaha-da]

(47) 노래기 : 노래기 [no-rɛ-gi]

(48) 각다귀 : 깍다귀 [k'a:k-t'a-gy]

(49) 깉이 : 지럭찌 [tʃi-ruk-tʃ'i]

(50) 지붕(I.136) : 지벙 [tʃi-bəŋ]

(51) 짚가리 : 짚누리 [tʃim-nu-ri]

(52) 퇴빗가리 : 퇴빗누리 [tʰø-bin-nu-ri]

(53) 도토리 : 도투리 [to-tʰu-ri]

(54) 천연두 (Ⅰ.262) : 손님 [son-nim]

(55) 학질(隔日) (Ⅰ.263.2) : 하루걸이 [ha-ru-gə-ri]

(56) 홍역 (Ⅰ.264) : 호녁 [ho-njək]

(57)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58) 소 (Ⅰ.451) : 소 [so]

1. 황소 [hwaŋ-so] (숨소 [sum-so]) 2. 암소 [am-so]

(59) 송아지 (Ⅰ.451.3) : 송아치 [soŋ-a-tʃʰi] (목매기 [moŋ-mɛ-gi)]

보충 ① 소고기 ② 소꼬리 ③ 쇠뿔은 단짐에 빼라 ④ 소이굽

(60) 고삐 (Ⅰ.452) :

괴뺑이 [kø-p'ɛŋ-i] (괴삐 [kø-p'i]) 1. 끌다 [k'i:l-da]

(61) 멍에 (Ⅰ.453) : 멍에 [məŋ-e] 보질 [po-dʒil]

(62) 소입막이 (Ⅰ.454) : 소이망 [so-i-maŋ]

(63) 외양간 (Ⅰ.455) : 오양 [o-jaŋ] (오양깐 [o-jaŋ-k'an])

(64) 두엄 (Ⅰ.456) : 두엄 [tu-əm]

(65) 발채 (Ⅰ.457) : 바지게 [pa-dʒi-ge]

1. 작대기 [tʃak-t'ɛ-gi] 보충 ① 자치기는 막대기로 만든다 [mak-t'ɛ-gi]

(66) 구유 (Ⅰ.458) : 구수 [ku-su] 구유 [ku-ju]

(67) 여물 (Ⅰ.459) :

여물 [jə-mul] (※ '쇠죽'은 겨를 썰어서 데운 것으로서 '여물'과 다름)

(68) 여물광 (Ⅰ.459.1) : ?

(69) 쇠죽 (Ⅰ.460) :

쇠죽 [sø-dʒuk] 1. 쇠죽바가지 [sø-dʒuk-ba-ga-dʒi]

(70) 염소 (Ⅰ.461) : 염생이[jəm-sɛŋ-i] > 염소 [jəm-so]

(71) 말 (Ⅰ.462) : 말 [mal]

1. 망아지 [maŋ-a-dʒi] 2. 마부깐 [ma-bu-k'an] 3. 달리다 [tal-li-da]

(72) 개 (Ⅰ.463) : 가이 [ka-i] 가히 [ka-hi] > 개[kɛ:]

1. 숫캐 [su-kʰɛ] 2. 암캐 [am-kʰɛ] 3. 강아지 [kaŋ-a-dʒi] 개새끼 [kɛ:sɛ-k'i]

보충 나 개새끼 한나 줄라? (이런 경우에 '개새끼'는 욕설이 아님)

(73) 고양이 (Ⅰ.464) : 고앵이 [ko-ɛŋ-i] (괭이 [kwɛ:ŋ-i])

1. 암코이 [am-kʰo-i] 2. 숫코이 [su-kʰo-i]

보충 ① 야웅야웅 [ja:uŋ ja:-uŋ] ② 도둑고이 [to-dok-k'o-i]

(74) 탉 (Ⅰ.465)‥탉 [tak] 닥(이) [ta(-gi)] 닥을 [ta(-gil)]

1. 수탉 [su-tʰak] (장수탉 [tʃaŋ-su-tʰak])

2. 암탉 [am-tʰak] 암탁(이) [am-ta(-gi)]

(75) 탉똥 (Ⅰ.467.1) : 달기 똥 [tal-gi t'oŋ(※ 닭의 똥)

(76) 자치기 (Ⅰ.304) 퇴끼치기 [tʰø-k'i-tʃʰi-gi]

(77) 겨 (Ⅰ.045) : 저 [tʃə]

(78) 고기(魚) (Ⅰ.403) : 괴기 [kø-gi]

(79) 넘밥(標 미상) :

넘뱁 [nəm-bɛp] (※ 목이 넘게 많이 먹는 밥)

(80) 산부리 : 산뿌리쟁이 [san-p'u-ri-dʒɛŋ-i]

(81) 가운데 : 중침 [tʃuŋ-tʃʰim]

(82) 소복하다 : 사부장하다 [sa-bu-dʒaŋ-ha-da]

(83) 토끼 (Ⅰ.474) : 퇴끼 [tʰø-k'i]

(84) 모양 : 모냥 [mo-njaŋ]

(85) 게(蟹) (Ⅰ.419) : 그이 [kɨ-i]

(86) 가깝다 (Ⅰ.623) : 가찹다 [ka-tʃʰap-t'a]

(87) 일부러 : 역부러 [jək-p'u-rə]

(88) 별묘(別廟) :

별무채 [pyəl-mu-čʰɛ] (※ 신주를 모신 사당을 말함)

(89) 드리다 : 디리다 [ti-ri-da]

(90) 취미 : 추미 [tʃʰu:mi]

(91) 간장 (Ⅰ.067) : 지랑 [tʃi-raŋ]

(92) 도리어 : 댑쎄 [tɛp-s'e]

(93) 소(牛)시장 : 수이전 [su-i-dʒən] 소이전 [so-i-dʒən]

(94) 조금 : 쬐낌 [tʃ'ø:-k'im]

(95) 파다 : 으이다 [ɨ-i-da] 標팠다 方으였다 [ɨ-jə-t'a]

(96) 벗가리 (Ⅰ.024) : 벳가레 [pe-k'a-re]

(97) —텐데 :

—틴디 [-tʰin-di] 標할텐데 方할틴디 [hal-tʰin-di]

(98) 도리깨 (Ⅰ.031) :

도리깽이 [to-ri-k'ɛŋ-i]

(99) 잎사귀 : 잎새기 [ip-s'ɛ-gi]

(100) 단김에 : 단짐에 [tan-dʒi-me]

(101) 보질꾼(標 미상) : 보질꾼 [po:-dʒil-k'un] (※ 쟁기질을 할 때 보잡이 옆에서 거드는 사람)

(102) 머슴 : 머섬 [mə-səm]

(103) 보잡이(標 미상) : 보잽이 [po:-dʒɛ-bi] (※ 쟁기질을 할 때 쟁기를 잡는 사람)

(104) 장치꾼(標 미상) : 장치꾼 [tʃaŋ-čʰi-k'un] (※ 도리깨를 잡고 일하는 사람)

(105) 오래됐네? : 오라? [o-ra]

(106) 당기다 : 댕기다 [tɛŋ-gi-da]

(107) 어레미 (Ⅰ.047) : 얼맹이 [əl-mɛŋ-i]

(108) 없다 (Ⅰ.591) : 읎다 [i:p-t'a]

(109) 구변(口辯) : 귀변 [ky:-bjən]

(110) 도르래 : 도충태 [to-tʃʰuŋ-tʰɛ]

(111) 외양간 (Ⅰ.455) : 오양깐 [o-jaŋ-k'an]

(112) 새끼(藁繩) (Ⅰ.029) : 사내끼 [sa-nɛ-k'i]

(113) 숭늉 (Ⅰ.081)숭님 [suŋ-nim]

(114) 돌(石) : 독 [tok]

(115) 티끌 : 탑새기 [tʰap-sɛ-gi]

(116) 두레박 (Ⅰ.159) : 타레박 [tʰa-re-bak]

(117) 병풍 : 평풍 [pʰjəŋ-pʰuŋ]

(118)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119) 예순 (Ⅰ.381) : 여순 [jə-sun]

(120) 써레 (Ⅰ.015) : 쓰레 [s'i:-re]

(121) 선반 (Ⅰ.119) : 등두네 [tiŋ-du-ne]

6. 聖淵面 鳴川里의 方言

Ⅰ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이억용(남, 71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조사상황 : 설화 조사자인 최운식 교수와 함께 마을의 노인회관을 찾았을 때, 마침 노인 7, 8분이 모여 있었다. 먼저 지명 조사로 시작하여 분위기를 만든 뒤에 설화조사를 하였다. 방언 조사는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제보자인 이억용 할아버지는 매우 기억력이 뛰어나 혼자 이야기를 20편이 넘게 하였다. 건강하며 음성도 명확하였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분이 본래 인지면 출신인 점이다. 그래서, 이 기록은 성연면 방언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되나, 다만 서산군 전체의 방언기록으로

본다면 그 한 부분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조사내용 : (1)～(97)

(1) 모으다 : 뫼다 [mø:-da]

(2) 게 (Ⅰ.419)그이 [ki-i]

(3) 때문에 (Ⅱ.55 보충 ①, ②) : 때미니 [t'ɛ-mi-ni] 때미 [t'ɛ-mi]

(4) 벼룩 (Ⅰ.425) : 베룩 [pe-ruk]

(5) 그 양반 : 그 냥반 [ki njyaŋ-ban]

(6) 참게 : 뭇그이 [mu-k'i-i]

(7) 솔밭 : 솔틉 [sol-t^{h}ip]

(8) 벌묘 : 벌메 [pəl-me]

(9) 없다 (Ⅰ.591) : 읎다 [i:p-t'a]

(10) 길쌈 : 질쌈 [tʃil-s'am]

(11) 얻다 : 읃다 [i:t'a]

(12) 나중에 (Ⅱ.72) : 야중에 [ja-dʒuŋ-e]

(13) 종지 : 종주 [tʃoŋ-dʒu]

(14) 까닭 :

깨댉 [k'ɛ-dɛk] 標까닭이 方깨댉이 [k'ɛ-dɛl-gi]

(15) 어떤 : 워떤 [wə-t'ən]

(16) 반갑다 : 반갭다 [pan-gɛp-t'a] 標반갑기도 方반갭기두 [pan-gɛp-k'i-du]

(17) 쌀통 : 동작 그릇 [toŋ-dʒak gi-rit]

(18) 고삐 (Ⅰ.452) : 고뺑이 [ko-p'ɛŋ-i]

(19) 되 갚음 : 도갚음 [to:-ga-p^{h}im]

(20) 소나기 (Ⅰ.562) : 소내기 [so-nɛ-gi]

(21) 석(3) (※ Ⅰ.368) : 슥 [sik] 標석 줄 方슥 줄 [sik tʃ'ul]

(22) 구변[口辯] : 구이변 [ku-i-bjən]

(23) 죽인다 (Ⅰ.591.1 보충) : 직인다 [tʃi-gin-da]

(24) 담벼락 (Ⅰ.130 보충 ②) : 댐뿌락 [tɛm-p'u-rak]

(25) 덩이 : 댕이 [tɛŋ-i]

(26) 갯반디 : 갯반뗑이 [kɛ-p'an-t'ɛŋ-i]

(27) 삽태기 (Ⅰ.037) : 삽태미 [sam-t^{h}ɛ-mi]

(28) 헛청(虛廳) : 허창 [hə-tʃ^{h}aŋ]

(29) 강원도 : 강안도 [kaŋ-an-do]

(30) 구중중하다 : 구주주허다 [ku-dʒu-dʒu-hə-da]

(31) 유독히 : 유독새로 [ju-dok-s'ɛ-ro]

(32) 모자(母子) : 모재 [mo:-dʒɛ]

(33) 극노인(標 미상) : 극노인 [kiŋ-no-in] (※ 나이가 많은 노인)

(34) 혼자 : 혼저 [hon-dʒə]

(35) 상여 : 생여 [sɛŋ-jə]

(36) 묘 (Ⅰ.535) : 모이 [mo-i]

(37) 낀다(반지) (Ⅰ.186 보충) : 찐다 [tʃ'i:n-da]

(38) 겸상 : 점상 [tʃəm-saŋ]

(39) 솥 : 솟 [sot] 標솥을 方솟을 [so-sil]

(40) 돌(石) : 돌팍 [to:l-pʰak]

(41) 구덩이 : 구뎅이 [ku-deŋ-i]

(42) 종일 : 죙일 [tʃøŋ-il]

(43) 배짱 : 보짱 [po-tʃ'aŋ]

(44) 몇 : 멫 [met]

(45) 짚 (Ⅰ.027) : 집 [tʃip] 標짚으로 方집으루 [tʃi-bi-ru]

(46) 며둥구미 : 멱꾸리 [mjə-k'u-ri]

(47) 저 (Ⅱ.03.1) : 지 [tʃi]

(48) 가(邊) : 갓 [kat] 標가에다 方갓이다 [ka-si-da]

(49) 전답 : 전이답 [tʃə-ni-dap]

(50) 며느리 (Ⅰ.322) : 메누리 [me-nu-ri]

(51) 소제 : 쓰서리 [s'i-sə-ri] 소지 [so:-dʒi]

(52) 괴춤 : 괴침 [kø:-tʃim]

(53) 촐싹거리다 : 치썩거리다 [tʃʰi-s'ək-k'ə-ri-da]

(54) 가정(家庭) : 가장 [ka-dʒaŋ]

(55) 의견 : 이견 [i:-gjən]

(56) 과부 (Ⅲ.03.9) : 과땍 [kwa-t'ɛk] (※ 寡宅)

(57) 어사(御史) : 으사 [i:-sa]

(58) 돌부처 : 독부처 [to:k-bu-tʃʰə]

(59) 거들다 (※ Ⅲ.17.6) : 그들다 [ki:-dil-da]

(60) 숯 : 숫 [sut] 標숯을 方숫을 [su-sil]

(61) 뚜껑 (Ⅰ.097) : 따개 [t'a:-k'ɛ]

(62) 천벌 : 천불 [tʃʰən-bəl]

(63) 무엇이라고 : 뭬라구 [mwe-ra-gu]

(64) 체신이 없다 : 체산이가 읎다 [tʃʰe-sa-ni-ga i:p-t'a]

(65) 길마 : 질마 [tʃil-ma]

(66) 전부 : 전곡이 [tʃən-go-gi]

(67) 개(犬) (Ⅰ.463) : 가이 [ka-i]

(68) 게 : 게 [ke] ('거기'의 축약형)

(69) 오래 됐어요 : 오랐시유 [o-ra-s'i-ju]

(70) 다르다 (Ⅰ.620) :

달브다 [tal-bi-da] 標다르니까 方달브니께 [tal-bi-ni-k'e]

(71) 경찰서 : 깅찰서 [ki:ŋ-tʃʰal-sə]

(72) 거기루 : 그루 [ki:-ru]

(73) 놈 : 넴[nem] 標한 놈이 方한 넴이 [han ne-mi]

(74) 나중에 (Ⅱ.72) : 양중에 [ja:ŋ-dʒuŋ-e]

(75) 건드리다 : 건다리다 [kən-da-ri-da]

(76) 시아버지 : 시아버니 [si-a-bə-ni] 敬시아버님

(77) 아버지 (Ⅰ.316) : 아버니 [a-bə-ni]

(78) 무어 : 메 [me:]

(79) 그 이듬해 : 그듬해 [ki-tim-hɛ]

(80) 백사(百事) : 백새일 [pɛk-s'ɛ-il]

(81) 전폐(全廢)하다 : 전패하다 [tʃən-pʰɛ-ha-da]

(82) 김(海苔) (Ⅰ.073) : 해이 [hɛ-i]

(83) 저희들 : 즈덜 [tʃi:dəl]

(84) 초가집(Ⅰ.139) : 초집 [tʃʰo-dʒip]

(85) 용마름(Ⅰ.143) : 용새 [joŋ-sɛ]

(86) 계시다 : 지시다 [tʃi:si-da]

(87) 도랑 : 또랑 [t'o-raŋ]

(88)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89) 도둑놈 : 도딕놈 [to-diŋ-nom]

(90) 막히다 : 맥히다 [mɛ-kʰi-da]

(91) 겪다 : 적다 [tʃək-t'a]

(92) 성인(聖人) : 승인 [si:ŋ-in]

(93) 샷갓 : 샛갓 [sɛ-k'at]

(94) 좁쌀 (Ⅰ.052 보충 ②) : 서슥쌀 [sə-sik-s'al]

(95) 법(法) : 벱 [pep] 標법이야 方벱이여 [pe-bi-jə]

(96) 벼 (Ⅰ.001) : 베 [pe]

(97) 구유 (Ⅰ.458) : 구수 [ku-su]

7. 地谷面 中旺里의 方言

I

조사일자 : 1986. 12. 26.
제 보 자 : 김옥희(여, 5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새마을 지도자의 집을 찾아 갔는데 마침 출타 중이었다. 그래서, 온 목적을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지도자의 모친과 부인과 옆집 부인이 있었다. 조사자는 먼저, 마을의 내력과 지명을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나서 체계적인 방언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손님이 오는 바람에 곧 끝내고 말았다. 위에 적은 제보자는 옆집 부인인데,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 시집온 본토박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대해 잘 알므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었다. 다른 두 분은 거드는 정도였으므로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
조사내용 : (1)~(68)

(1) 햅쌀 : 햇쌀 [hɛ-s'al]
(2) 주낙질 : 주낫질 [tʃu-na-tʃ'il]
(3) 많다 (Ⅰ.592) : 쌓다 [s'ɛ-tʰa]
(4) 김(海苔) (Ⅰ.073) : 짐 [tʃi:m]
(5) 어느워니 [wə-ni] 워먼 [wə:-t'ən]
(6) 건너 : 근너 [ki:n-nə]
(7) 이장(里長) : 이쟁 [i:-dʒɛŋ]
(8) 효자(Ⅰ.333) : 소자 [so:-dʒa]
(9) 무당 : 굿쟁이 [ku-tʃ'ɛŋ-i] 선거리 [sə:n-gə-ri]
(10) 깨끗하게 (Ⅱ.68) : 깨깟하게 [k'ɛ-k'a-tʰa-ge]
(11) 감기 (Ⅰ.265) : 고뿔 [ko-p'ul]
(12) 바지락 : 바드락 [pa-di-rak] (바르락 [pa-ri-rak])
(13) 긁다 (Ⅰ.711) : 글다 [ki:l-da] 標긁으러 方글러 [ki:l-lə]
(14)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15) 잿경이(標 미상) : 잿경이 [tʃɛ-k'jəŋ-i] (※ 재〔고개〕의 경계)
(16) 전부 : 전수이 [tʃən-su-i]
(17) 탄생 : 탄상 [tʰa:n-saŋ]

(18) 본토박이 : 본타백이 [pon-tʰa-bɛ-gi]

(19) 폐지(廢止) : 피지 [pʰi:-dʒi]

(20) 오래 : 오라 [o-ra]

(21) 아버지 (Ⅰ.316) :

아배 [a-bɛ] (※ 동네 남자를 말할 때 아이 이름 뒤에 '아배'를 붙임)

(22) 남 (Ⅰ.338) : 넘 [nəm]

(23) 어디 (Ⅰ.581) : 워디 [wə-di]

(24) —에서도 :

—이서두 [-i-sə-du] 標집에서도 方집이서두 [tʃi-bi-sə-du]

(25) 나무 : 낭구 [naŋ-gu] > 나무 [na:-mu]

(26) 돌(石) : 독 [tok]

(27) 비행기 : 비양기 [pi-jaŋ-gi]

(28) 못하다 (Ⅰ.709) : 뭇하다 [mu-tʰa-da]

(29) 어째서 : 워찌서 [wə-tʃ'i-sə 어찌서 [ə-tʃ'i-sə]

(30) 둑 : 원 [wən] 원뚝 [wən-t'uk]

(31) 논을 풀다 : 논을 뜨다 [no-nil t'i-da]

(32) 쪽 : 짝 [tʃ'a:k] 標이 쪽 方이 짝 [i tʃ'ak]

(33) 숭어 : 숭아 [su:ŋ-a] 숭애 [su:ŋ-ɛ]

(34) 망둥이 : 망댕이 [ma:ŋ-dɛŋ-i]

(35) 고기(魚) (Ⅰ.403) : 괴기 [kø-gi]

생선 [sɛŋ-sən] (Ⅰ.403.1) 육괴기 [ju-k'ø-gi] (Ⅰ.403.3)

(36) 민물고기 (Ⅰ.403.2) : △

(37) 미끼 (Ⅰ.404) : △

(38) 지느러미 (Ⅰ.405) : 날개미 [nal-gɛ-mi]

(39) 아가미 (Ⅰ.406) :

구시미 [ku-si-mi] 괴기주댕이 [kø-gi-dʒu-dɛŋ-i]

(40) 창자 (Ⅰ.407) : 창새기 [tʃʰaŋ-sɛ-gi]

(41) 미꾸라지 (Ⅰ.408) :

미끄라지 [mi-k'i-ra-gi] 미꾸리 [mi-k'u-ri] 미꾸락지 [mi-k'u-rak-tʃ'i]

(42) 송사리 (Ⅰ.409) : 숭사리 [suŋ-sa-ri]

(43) 중고기 (Ⅰ.410) : ?

(44) 피라미 (Ⅰ.411) : ?

(45) 올챙이 (Ⅰ.412) : 올창이 [ol-tʃʰaŋ-i]

(46) 개구리 (Ⅰ.413) : 깨구락지 [k'ɛ-gu-rak-tʃ'i] (깨구리 [k'ɛ-gu-ri])

(47) 두꺼비 (Ⅰ.414) : 두께비 [tu-k'e-bi]

(48) 멸치 (Ⅰ.415) : 메르치 [me-ri-tʃʰi]

(49) 젓 (Ⅰ.416) : 젓 [tʃət] 젓(에) [tʃə(-se)] 젓깔 [tʃə-k'al]

(50) 갈치 (Ⅰ.417) : 갈치 [kal-tʃʰi]

(51) 가오리 (Ⅰ.418) : 가오리 [ka-o-ri]

(52) 게 (Ⅰ.419) : 그이 [kɨ-i]

(53) 새우 (Ⅰ.420) : 새우 [sɛ-u]

(54) 다슬기 (Ⅰ.421) : △

(55) 우렁이 (Ⅰ.422) : 우렁 [u-rəŋ]

(56) 저수지 : 포강 [pʰo:-gaŋ] (※ 인위적으로 판 큰 연못)

(57) 달팽이 (Ⅰ.423) : 달팽이 [ta:l-pʰɛŋ-i]

(58) 바다 : 바대 [pa-dɛ]

(59) 보(洑) :

보감 [po:gam] (※ 둑을 크게 쌓아 물 저장하는 곳)

(60) 어머니 (Ⅰ.315) :

어매 [ə-mɛ] (※ 동네 여자를 말할 때 '누구 어매' 식으로 부름)

(61) 흉 : 숭 [suŋ]

(62)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63) 김치 (Ⅰ.065) : 짐치 [tʃim-tʃʰi]

(64) 다리미 (Ⅰ.169) : 대리미 [tɛ-ri-mi]

(65) 길쌈 : 질쌈 [tʃil-s'am]

(66) 바구니 (Ⅰ.035) : 바구리 [pa-gu-ri] 바구미 [pa-gu-mi]

(67) 간수하다 : 갠수하다 [kɛn-su-ha-da]

(68) 맞이 : 맞이 [ma-dʒi] (※ 神께 바치는 제사)

Ⅱ

조사일자 : 1986. 12. 26.

제 보 자 : 윤희(남, 5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위와 같음

제 보 자 : 윤양모(남, 4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새마을 지도자의 집에서 나와서 마을회관 앞으로 가니, 40~60대의 분들이 윷

놀이를 하고 있었다. 조사자는 이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였는데, 위에 적은 두 분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두 분은 다 이곳이 고향으로 군대 복무를 빼고는 죽 이 곳에서 산 분들이다. 또한 이 분들은 본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숨김없이 그들의 방언을 말해 주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두 분이 방언 제보자로서는 나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방언형은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반면에 기억력은 좋은 장점도 있었다.

조사내용 : (69)~

(69) 닭 (Ⅰ.465) : 닭 [tak] 닭(이) [tal(-gi)]

(70) 병아리 (Ⅰ.465.3) : 병아리 [pjəŋ-a-ri]

(71) 닭털 (Ⅰ.465.4) : 달기털 [tal-gi-tʰəl] 닭털 [tak-tʰəl]

(72) 닭의 어리 (Ⅰ.465.5) : ?

(73) 벼슬 (Ⅰ.466) : 베슬 [pe-sɨl]

(74) 모이 (Ⅰ.467) : 멕이 [me-gi] (모이 [mo-i])

보충 닭이 모이를 찍어 먹는다

1. 달기똥 [tal-gi-t'oŋ] 2. 닭장 [tak-tʃ'aŋ]

(75) 달걀 (Ⅰ.468) : 닥알 [ta-gal] (달걀 [tal-gjal])

1. 노린재 [no-rin-dʒɛ] 2. 흰자 [hin-dʒa] 횐재 [hin-dʒe]

보충 ① 닥알 한 줄 ② 닥알 껍질 ③ 닫걀 찌개

④ 닥알을 낳았다 ⑤ 닥알을 젇는다

(76) 거위 (Ⅰ.469) : 메깨우 [t'e-k'ɛ-u]

(77) 돼지 (Ⅰ.470) : 돼야지 [twɛ-ja-dʒi]

1. 돼야지 울깐 [twɛ-ja-dʒi ul-k'an]

2. 오래오래 [o-rɛ-o-rɛ] 보충 꾸룩꾸룩

(78) 먹이다 : 멕이다 [me-gi-da]

(79) 산돼지 (Ⅰ.471) : 산돼야지 [san-t'wɛ-ja-dʒi]

(80) 주둥이 : 뿌주댕이 [tʃu-tɛŋ-i] (※ 짐승의 입)

(81) 엉덩이 :

웅댕이 [i:ŋ-dɛŋ-i] (※ 사람, 짐승 공통) 방생이 [pa:ŋ-sɛŋ-i] (※ 죽은 소의 엉덩이)

(82) 꼬리 : 꼬랑지 [k'o-raŋ-dʒi] (꼬랑댕이 [k'o-raŋ-dɛŋ-i])

(83) 배 : 뿌배때기 [pɛ-t'ɛ-gi] (※ 짐승의 배) 업진 [əp-tʃ'in] (※ 죽은 소의 배)

(84) 목 :

모가지 [mo-ga-dʒi] (※ 사람, 짐승 공통) 항정 [ha:ŋ-dʒəŋ] (※ 죽은 소의 목)

(85) 대가리 : 뿌대갈빼기 [tɛ-gal-p'ɛ-gi] (※ 짐승의 머리)

(86) 중두리(標 미상) : 중두리 [tʃuŋ-du-ri] (※ 짚으로 만들어서 닭이 알 낳는 곳)

(87) 여우 (Ⅰ.472) : 여수 [jə-su]

보충 백너수에 사람들이 홀린다 [pɛŋ-njə-su]

(88) 노루 (Ⅰ.483) : 노루 [no-ru]

(89) 토끼 (Ⅰ.474)태끼 [tʰɛ-k'i]

보충 ① 산태끼 ② 집태끼 ③ 태끼풀 ④ 태끼집 ⑤ 태끼띠

(90) 덫 (Ⅰ.475) : 꽁차이 ? [k'oŋ-tʃʰa-i]

(91) 올가미 (Ⅰ.476) : 올무 [ol-mu]

(92) 삵괭이 (Ⅰ.477) : 살가지 [sal-ga-dʒi]

(93) 쥐 (Ⅰ.478) : 쥐 [tʃy]

보충 새옹지 [sɛ-oŋ-dʒi] 들쥐 [til-tʃ'y] 달바찌(※ 산쥐) [tal-ba-tʃ'i]

(94) 박쥐 (Ⅰ.479) : 바악쥐 [pa-ak-tʃ'y]

(95) 다람쥐 (Ⅰ.480) : 다람쥐 [ta-ram-dʒy]

보충 다람쥐 제 바쿠 돈다

(96) 두더지 (Ⅰ.481) : 두제기 [tu-dʒe-gi]

(97) 쓰다(使) : 쓰다 [s'i-da] 標써야 方쓰야 [s'i-ja] (※ 기본형은 표준말과 같으나 활용에서 달라지는 경우임)

(98) 몽둥이 : 몽댕이 [moŋ-dɛŋ-i]

(99) 도깨비 : 돗깨비 [tot-k'ɛ-bi]

(100) 사슴 (Ⅰ.473 보충) : 사슴 [sa-sim]

(101) 자치기 (Ⅰ.304) : 때끼치기 [t'ɛ-k'i-tʃʰi-gi]

(102) 시래기 (Ⅰ.058) : 시락지 [si-rak-tʃ'i]

(103) 고삐 (Ⅰ.452) : 개삐 [kɛ-p'i]

(104) 목사리 : 목사리 [mok-s'a-ri]

(105) 송아지 (Ⅰ.451.3) : 송아치 [soŋ-a-tʃʰi]

(106) 제비 : 지비 [tʃi:-bi]

(107) 고양이 (Ⅰ.464) : 괭이 [kwɛŋ-i] 보충 ② 도둑괭이 [to-duk-kwɛŋ-i]

(108) 새 (Ⅰ.482) : 사이 [sa-i]

(109) 깃 (Ⅰ.483) : 날개털 [nal-kɛ-tʰəl]

(110) 매 (Ⅰ.484) : 매 [mɛ:]

(111) 솔개 (Ⅰ.485) : 소루개 [so-ru-gɛ]

(112) 까치 (Ⅰ.486) : 까치 [k'a:-tʃʰi]

(113) 까마귀 (Ⅰ.486.1) : 까그매 [k'a-ki-mɛ]

(114) 뻐꾸기 (Ⅰ.487) : 뻐꿍새 [p'ə-k'uŋ-sɛ] 보충 뻐꿍뻐꿍

(115) 뜸부기 (Ⅰ.488) : 뜸배기 [t'im-bɛ-gi]

(116) 딱다구리 (Ⅰ.489) : 딱따구리 [t'ak-t'a-gu-ri]

(117) 꿩 (Ⅰ.490) : 꽁 [k'o:ŋ]

1. 꾀투리 [k'ø-tʰu-ri] 2. 쟁끼 [tʃɛ:ŋ-k'i]

(118) 길다 : 질다 [tʃil-da]

(119) 쪼다 : 쫏다 [tʃ'ot-t'a] 標쪼는 方쫏는 [tʃ'on-nin],

標쪼아서 方쪼사서 [tʃ'o-sa-sə]

(120) 산마루 (Ⅰ.533) : 산꼭대기 [san-k'ok-t'ɛ-gi] (산등생이 [sa:n-diŋ-sɛŋ-i])

(121) 기슭 (Ⅰ.534) : 산밑이 [san-mi-tʰi]

(122) 묘 (Ⅰ.535) :

무이 [mu-i] 무잇자리 [mu-i-tʃ'a-ri] (Ⅰ.535.1)

(123) 언덕 (Ⅰ.536) :

언덕빼기 [ən-dək-p'ɛ-gi] (※ 집 있는 언덕) 잿빼기 [tʃɛt-p'ɛ-gi] (※ 집 없는 언덕)

(124) 비탈 (Ⅰ.537) : 비얄 [pi-jal]

(125) 벼랑 (Ⅰ.538) : 낭떠러지 [naŋ-t'ə-rə-dʒi]

(126) 메아리 (Ⅰ.539) : △ (산이울린다)

(127) 장벌 : 장벌 [tʃaŋ-bəl] (※ 산과 바다의 경계되는 곳)

(128) 바위 (Ⅰ.540) : 바우이 [pa-u-i]

(129) 돌(石) (Ⅰ.541) : 돌팍 [to:l-pʰak]

(130) 자갈 (Ⅰ.542) : 자갈 [tʃa-gal]

보충 말에게 자갈 멕인다 [tʃa-gal me-gin-da]

(131) 모래 (Ⅰ.543) : 모새 [mo-sɛ]

보충 ① 모새땅 ② 모새밭

(132) 흙 (Ⅰ.544) : 흑 [hik] 흑(이) [hi(-gi)] 흑(을) [hi(-gil)]

보충 ① 흑메미 [hik-t'e-mi] ② 흑벽 [hik-p'jək]

③ 흑탕물 [hik-tʰaŋ-mul] ④ 흑댕이 [hik-t'ɛŋ-i]

(133) 이끼 (Ⅰ.545) :

도롯? [to-rot] (※ 물에 끼는 이끼는 '물에 이끼'라고 함)

1. 一끼다 [-k'i-da]

(134) 손자 : 손주 [son-dʒu]

(135) 심부름 : 십바람 [si-m-ba-ram]

(136) 너희 (Ⅱ.04.1) : 느이 [ni-i]

(137) 효자 (Ⅰ.333) : 소자 [so:-dʒa]

(138) 아버지 (Ⅰ.316) :

아배 [a-bɛ] (※ 아이에게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말할 때 '느이 아배'라 함)

(139) 갓난아이 (Ⅰ.276) : 깟난쟁이 [k'an-nan-dʒɛŋ-i]

※ (백일 안에라도 이름 지으면 '애기'라고 부름)

(140) 돐 (Ⅰ.277) : 돌 [tol]

(141) 어린애 (Ⅰ.278) : 어린애 [ə-ri-nɛ]

(142) 여자아이 (Ⅰ.278.1) : 지지배 [tʃi-dʒi-be] > 가시내 [ka-si-nɛ]

(143) 남자아이 (Ⅰ.278.2) : 머스매 [mə-si-mɛ]

(144) 기저귀 (Ⅰ.279) : 걸래 [kəl-lɛ] > 지제기 [tʃi-dʒe-gi]

(145) 똥 (Ⅰ.280) : 똥 [t'o:ŋ] 오줌 [o-dʒum] (Ⅰ.280.1)

(146) 마렵다 (Ⅰ.281) : 매렵다 [mɛ-rjəp-t'a]

(147) 누다 (Ⅰ.282) : 누다 [nu-da] 니다 [ni-da] (Ⅰ.282.1)

(148) 싸다 (Ⅰ.283) : 싸다 [s'a:-da]

(149) 가리다 : 개리다 [kɛ-ri-da]

(150) 채우다 : 채다 [tʃʰɛ:-da] 標채워라 方채라 [tʃhɛ:-ra]

(151) 一처럼 : 一차람 [tʃʰa-ram]

(152) 마루 (Ⅰ.127) : 말레 [mal-le]

(153) 길이 (Ⅰ.586 보충) : 지럭지 [tʃi-ruk-tʃ'i]

(154) 재롱떨다 (Ⅰ.286) : 재롱 부리다 [tʃɛ-roŋ bu-ri-da]

(155) 죄암죄암 (Ⅰ.287) : 지암지암 [tʃì-am-dʒi-am]

(156) 곤지곤지 (Ⅰ.288) : 곤지곤지 [kon-dʒi-gon-dʒi]

(157) 도리도리 (1.289) : 도리도리 [to-ri-do-ri]

(158) 짝짜꿍 : 짝짜꿍 [tʃ'ak-tʃ'a-k'uŋ]

(159) 따로따로 (Ⅰ.291) : 따로따로 [t'a-ro-t'a-ro]

(160) 아장아장 (Ⅰ.292) : 아장아장 [a-dʒaŋ-a-dʒaŋ] 보충 어정어정

(161) 부라부라 (Ⅰ.293) : 부라부라 [pu-ra-bu-ra]

(162) 안다 (Ⅰ.294) : 안다 [an-t'a] 앤기다 [ɛn-gi-da] (Ⅰ.294.1)

(163) 버릇 (Ⅰ.295) : 뿌버르장머리 [pə-ri-dʒaŋ-mə-ri] (※ 平稱도 됨)

버르장머리 고치다 (Ⅰ.295.1)

(164) 엄살 (Ⅰ.296) : △ (깨빙헌다 [k'ɛ-biŋ-hən-da])

(165) 새암 (Ⅰ.297) : 새암 [sɛ-am]

(166) 달강달강 : 달강달강 [tal-gaŋ-dal-gaŋ] (※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부르는 소리)

(167) 손가락 (Ⅰ.234) : 손꾸락 [son-k'u-rak]

(168) 못하다 (Ⅰ.709) : 뭇허다 [mu-tʰə-da]

(169) 그네 (Ⅰ.309) : 그늘 [ki-nil] 보충 그늘 탄다

(170) 밑신개 (Ⅰ.310) : 앉을깨 [an-dʒiɪ-k'ɛ] 보충 발로 굴러야

(171) 썰매 (Ⅰ.311) :

△ (앉음뱅이 쓰께또 [an-dʒim-bɛŋ-i s'i-k'e-t'o]) 보충 얼음 탄다

(172) 팽이 (Ⅰ.312) : 뺑이 [p'ɛŋ-i]

(173) 얼레 (Ⅰ.313) : 연자세 [jə:n-dʒa-se]

(174) 굴렁쇠 (Ⅰ.314) :

△ (구르마 바쿠 ku-rɨ-ma ba-k^{h}u) 보충 구루마 바쿠 돌린다

(175) 어머니 (Ⅰ.315)어머니 [ə-mə-ni] 1. 엄마 [əm-ma] 2. 애기 [ɛ-gi]

(176) 아버지 (Ⅰ.316) : 아버지 [a-pə-dʒi] 1. 아빠 [a-p'a] 2. 아배 [a-bɛ]

(177) 할머니 (Ⅰ.317) : 할머니 [ha:l-mə-ni]

보충 ① 뿌저 눔의 할매 [ha:l-mɛ] ② 동네 할머니

(178) 할아버지 (Ⅰ.318) : 할아버지 [ha-ra-bə-dʒi]

(179) 형 (Ⅰ.319) : 성 [səŋ]

1. 성님 (※ 결혼한 뒤) [səŋ-nim]

2. 누님 [nu-nim] 3. 오빠 [o-p'a] 오라배(결혼한 뒤) [o-ra-bɛ]

(180) 아우 (Ⅰ.320) :

내 동생 [nɛ doŋ-sɛŋ] 즈이 동생(※ 웃사람에게) [tʃɨ-i doŋ-sɛŋ]

보충 동생(소개의 경우) 1. 동생보다 [toŋ-sɛŋ-bo-da] 2. 아수타다 [a-su-t^{h}a-da]

(181) 결혼 (Ⅰ.321) :

장가가다 [tʃa:ŋ-ga-ga-da] 1. 대사 지내다 [tɛ:-sa dʒi-nɛ-da]

(182) 며느리 (Ⅰ.322) : 메느리 [me-nɨ-ri]

(183) 처녀 (Ⅰ.323) :

처녀 [tʃ^{h}ə:-njə] 새악씨 [sɛ-ak-s'i] (※ '아가씨'라는 말은 없었음)

(184) 새색시 (Ⅰ.324) : 새메느리 [sɛ-me-nɨ-ri]

(185) 사위 (Ⅰ.325) : 사우이 [sa-u-i]

(186) 올캐 (Ⅰ.326) :

(오빠 부인) 올캐 [ol-k^{h}ɛ] (남동생 부인) 동생이댁 [toŋ-sɛŋ-i-t'ɛk]

(187) 시누이 (Ⅰ.327) : 애기씨 [ɛ-gi-s'i]

(188) 매형 (Ⅰ.328) : 매양 [mɛ-yaŋ] 성부(※ 언니 남편) [səŋ-bu]

1. 매제 [mɛ-dʒe] 2. 통틀어 말하는 명칭 없음

(189) 시숙 (Ⅰ.329) : 시아주버니 [si-a-dʒu-bə-ni]

1. '시동생'은 안 씀 2. 데린님 [te:-rin-nim] 3. 서방님 [sə-baŋ-nim]

(190) 홀아비 (Ⅰ.330) : 홀애비 [ho-rɛ-bi]

(191) 홀어미 (Ⅰ.331) : 과부 [kwa:-bu]

(192) 환갑 (Ⅰ.332) : 한갑 [ha:n-gap]

1. 한갑잔치 [ha:n-gap-dʒan-tʃʰi]

(193) 효자 (Ⅰ.333) : 소자 [so:-dʒa] (※ 불효자는 '부랑자'라고 함)

(194) 백부 (Ⅰ.334) : 큰 큰아버지 [kʰin ki-na-bə-dʒi]

(195) 중부 (Ⅰ.335) : 두째 큰아버지 [tu:-tʃ'ɛ ki-na-bə-dʒi]

(196) 숙부 (Ⅰ.336) : 작은 아버지 [tʃa-gin a-bə-dʒi]

1. 삼춘 [sam-tʃʰun] 보충 오삼춘 [o-sam-tʃʰun]

2. 조카 [tʃo-kʰa] 3. 조카딸 [tʃo-kʰa-t'al]

(197) 이모 (Ⅰ.337) : 이모 [i-mo] 1. 고무 [ko-mu]

(198) 남 (Ⅰ.338) : 넘 [nəm]

보충 ① 넘넘이 ② 넘이야 ③ 넘이 ④ 넘이 말 ⑤ 머섬살이 간다 ⑥ 넘 부끄럽다

(199) 머슴 : 머섬 [mə-səm]

(200) 하루 (Ⅰ.393) : 하루 [ha-ru]

(201) 이틀 (Ⅰ.394) : 이틀 [i-tʰil]

(202) 사흘 (Ⅰ.395) : 사흘 [sa-hil]

(203) 나흘 (Ⅰ.396) : 나을 [na-il]

(204) 닷새 (Ⅰ.397) : 닷새 [ta-s'ɛ]

(205) 엿새 (Ⅰ.398)엿새 [jə-s'ɛ]

(206) 이레 (Ⅰ.399) : 이레 [i-re]

(207) 여드레 (Ⅰ.400) : 여드레 [jə-di-re]

(208) 아흐레 (Ⅰ.401) : 아레 [a-re]

(209) 열흘 (Ⅰ.402) : 여를 [jə-ril]

보충 ① 하루가 ② 하루를 ③ 하루에 ④ 하룻동안 ⑤ 초하루 ⑤ 초이틀 ⑦ 초사흘 ⑧ 초여를 [tʃʰo-jə-ril]

(210) 어디 (Ⅰ.581) : 워디 [wə-di]

(211) —려는 : —르라는 [-l-la-nin] 標오려는 方올라는 [ol-la-nin]

(212) 모양이다 :

개비다 [-gɛ-bi-da] 標비가 오려는 모양이다 方비가 올라는 개비다

(212) —부터 : —부텀 [-bu-tʰəm]

(213) 갈매기 : 깔매기 [k'al-mɛ-gi]

(214) 밀물 : 들물 [til-mul]

(215) —에 : —이 [-i]

(216) 그러니까 : 그러니께 [ki-rə-ni-k'e] 그렇께 [ki-rəŋ-k'e]

(217) —으로 : —이루 [-i-ru] 標넋으로 方 넋이루 [nək-s'i-ru]

(218) —하고 : —허고 [-hə-go] 標남편하고 方남편허고 [nam-pʰjə-nə-go]

(219) 저 (Ⅱ.03.1) : 지 [tʃi:]

(220)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221) 두레박 : 타레박 [tʰa-re-bak]

(222) 어레미 (Ⅰ.047) : 어랭이 [ə-rɛŋ-i]

(223) 헛청(虛廳) : 헛창 [hə-tʃaŋ]

(224) 시렁 (Ⅰ.118) : 실경 [sil-gəŋ]

(225) 뒤주 : 뒤지 [ty-dʒi]

(226) 당기다 : 뎅기다 [t'ɛŋ-gi-da]

(227) 지붕 (Ⅰ.136) : 지벙 [tʃi-bəŋ]

8. 浮石面 倉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7.

제 보 자 : 김교환(남, 36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본조사자는 지금까지 방언조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 그렇게 해서 《한국 방언 설문지》의 제1~3권은 거의 조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다른 분야의 조사에 중점을 두면서, 방언 조사는 부수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런 첫번째 작업으로서 이 마을 김교환 이장을 만나 마을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방언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 (1)~(34)

(1) 이음매 : 이스매 [i-si-mɛ]

(2) 학교 : 핵교 [hɛ-k'jo]

(3) 억새 : 왁새 [wak-s'ɛ] 달새 [tal-s'ɛ]

(4) 깔보다 : 깐보다 [k'an-bo-da]

(5) 시래기 (Ⅰ.058) : 시락지 [si-rak-tʃ'i]

(6) 흐르다 : 흘르다 [hil-li-da]

(7) 담벼락 (Ⅰ.130 보충 ②) : 담빼락 [tam-p'e-rak]

(8) 아침 (Ⅰ.546) : 아침 [a-tʃʰim] 1. 아침밥 [a-tʃʰim-p'ap]

(9) 새벽 (Ⅰ.547) : 새벽 [sɛ-bjək] 1. 새벽밥 [sɛ-bjək-p'ap]

(10) 낮 (Ⅰ.548) : 낮 [nat]

(11) 저녁 (Ⅰ.549) : 저녁 [tʃə-njək] 1. 저녁밥 [tʃə-njək-p'ap]

(12) 새참 : 실참 [si:l-tʃʰam]

(13) 노을 (Ⅰ.550) : 노울 [no-ɨl]

(14) 해거름 (Ⅰ.551) : △ 보충 땅거미 지다

(15) 별 (Ⅰ.552) : 빌 [pi:l] 1. 은하수 [ɨ-n-asu]

(16) 달무리 (Ⅰ.553) : 달무리 [tal-mu-ri] 1. 해무리 [hɛ-mu-ri]

(17) 내일 (Ⅰ.554) : 니열 [ni-jəl]

(18) 글피 (Ⅰ.555) : 글피 [kɨl-pʰi] 1. 그글피 [kɨ-gɨl-pʰi]

(19) 어제 (Ⅰ.556) : 어저끼 [ə-dʒə-k'i]

1. 그저끼 [kɨ-dʒə-k'i] 2. 그끄저끼 [kɨ-k'ɨ-dʒə-k'i]

(20) 요즈음 (Ⅰ.557) : 요새 [jo-sɛ]

(21) 섣달 그믐날 (Ⅰ.558) : 슬달 그믐날 [sɨ-t'al gɨ-mim-nal]

1. 작은설 [tʃa-gɨn-səl] 2. ? 3. ?

(22) 는개 (Ⅰ.559) : ?

(23) 이슬비 (Ⅰ.560) : 이슬캥이 [i-sɨl-kʰɛŋ-i]

(24) 가랑비 (Ⅰ.561) : ?

(25) 소나기 (Ⅰ.562) : 쏘내기 [s'o-nɛ-gi]

(26) 번개 (Ⅰ.563) : 번개 [pən-gɛ]

(27) 파리 : 퍼리 [pʰə:-ri]

(28) 돌(石) : 돌팍 [to:l-pʰak] 돌맹이 [to:l-maŋ-i]

(29) 먼지 : 먼데미 [mən-de-mi]

(30) 반공일(半空日) : 반갱일 [pa:n-gɛŋ-il]

(31) 온공일(온空日) : 엔공일 [e:n-kog-il]

(32) 눌은밥 (Ⅰ.080.1) : 눙캥이 [nuŋ-kʰɛŋ-i]

(33) 되게 : 대개 [t:ɛ-gɛ] (※ '몹시')

(34) 머리 (Ⅰ.198) : 뵉대가리 [tɛ-ga-ri] (※ 平稱으로도 쓰임)

9. 仁旨面 野堂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7.

제 보 자 : 유병설(남, 48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이 마을에 가서 지명을 조사했는데, 위에 적은 유병설 씨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 중에서 나오는 방언을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13)

(1) 마지기 : 마지기 [ma-dʒi-gi]
(2) 논배미 : 논빼미 [non-p'ɛ-mi] 보충 한 배미 [han bɛ-mi]
(3) 새벽 (Ⅰ.547) : 사복 [sa-bok]
(4) 바람개비 : 파람개비 [pʰa-ram-gɛ-bi]
(5) 어떻게 : 워뜨게 [wə-t'i-ge]
(6) —도록 : —디락 [-di-rak] 標오도록 方오디락 [o-di-rak]
(7) —까지 : —까장 [-k'a-dʒaŋ]
(8) 데(所) : 디 [ti]
(9) 뒤져거리다 : 디져거리다 [ti-dʒək-k'ə-ri-da]
(10) 기와집 (Ⅰ.138) : 개와집 [kɛ-wa-dʒip]
(11) 우리들 : 우덜 [u:-dəl]
(12) 치다 : 치다 [tʃʰi-da] 標쳐야 方치야 [tʃʰi-ja]
(13) 뒤주 : 뒤지 [ty-dʒi]

10. 近興面 程竹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8.
제 보 자 : 설봉영(남, 53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民具를 조사하는 李相彦 연구원이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8)

(1) 뒤껼 (Ⅰ.154)뒤란 [ty:-ran]
(2) 타작 : 바슴 [pa-sim] 바심 [pa-sim]
(3) 뿌린다(播種) (Ⅰ.063 보충) : 삔다 [p'i:n-da]
(4)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 사마사마하다 [sa-ma-sa-ma-ha-da]
(5) 지금 : 이끔 [i-k'im]
(6) 송아지 (Ⅰ.451.3) : 쇠아치 [sø-a-tʃʰi]
(7) 구멍 (Ⅰ.166) : 구녕 [ku-njəŋ]
(8) 안흥(安興) : 안항 [an-haŋ] (※ 지명)

11. 泰安邑 平川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8.
제 보 자 : 최병환(남,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평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民具를 조사하는 李相彦 연구원이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7)

(1) 누다락 : 유다락 [yu-da-rak]
(2) 실경 : 실경 [sil-gəŋ]
(3) 조리 (Ⅰ.078) : 조랭이 [tʃo-rɛŋ-i]
(4) 까불다 : 꺼불다 [k'ə:-bul-da]
(5) 있나? : 있다나? [i-t'a-na]
(6) 않아요? : 않남이요? [an-na-mi-jo] 標어렵지 않아요? 方 어렵지 않남이요?
(7) 않나? : 않남? [an-nam]

12. 八峯面 陽吉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정정영(남, 4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조사자가 이장 집을 찾았는데, 그 방 안에 남자 몇 분이 있었다. 조사자가 지명에 대해 물으니 위에 적은 제보자가 이야기해 주었다. 거기에서 나온 방언을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22)

(1) 뱀 : 배암 [pɛ-am]
(2) 개구리 (Ⅰ.413) : 개구리 [kɛ-gu-ri]
(3) 一데一디 [-di]
標있는데 方있는디 [ɪn-nin-di], 標그랬는데 方그랬는디 [ki-rɛn-nin-di]
(4) 들여다 보다 : 딜여다 보다 [ti-rjə-da bo-da]
(5) 그냥 : 기양 [ki-jaŋ]
(6) 다리밋돌 : 다리밋독 [ta-ri-mi-t'ok]

(7) 죽인다 (Ⅰ.591.1 보충) : 직인다 [tʃi-gin-da]

(8) 나중에 (Ⅱ.72) : 야중에 [ja:-dʒuŋ-e]

(9) 고목나무 : 고묵나무 [ko-muŋ-na-mu]

(10) 날다 : 널다 [nə:l-da] 標날았다 方널렀다 [nəl-lə-t'a]

(11) 박이다 : 백이다 [pɛ-gi-da]

(12) —어요 : —이유 [-i-ju] 標있어요 方있이유 [i-s'i-ju]

(13) 비스듬하다 : 비저듯허다 [pi-dʒə-dit-hə-da]

(14) 조리 (Ⅰ.078) : 조랭이 [tʃo-rɛŋ-i]

(15) 배추 : 배차 [pɛ:-tʃʰa]

(16) 김치 (Ⅰ.065) : 짐치 [tʃim-tʃʰi]

(17) 간장 (Ⅰ.067) : 장물 [tʃaŋ-mul]

(18) 국물 (Ⅰ.075) : 멀국 [məl-guk]

(19) 경장이 : 정쟁이 [tʃəŋ-dʒɛŋ-i] (※ 經 읽는 사람)

(20) 길 : 질 [tʃil] (※ 길이의 단위)

(21) 길(道) : 질 [tʃil]

(22) 바람개비 : 파랑개비 [pʰa-raŋ-gɛ-bi]

13. 所遠面 波濤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7. 1. 5.
제 보 자 : 이홍돈(남, 51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民具를 조사하는 이상언 연구원이 제보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5)

(1) 바지락 : 반지락 [pan-dʒi-rak]

(2) 멱판 : 앵번[ɛŋ-bjən]

(3) 도리깨 (Ⅰ.031) : 도르깨 [to-ri-k'ɛ]

(4) 쇠스랑 (Ⅰ.020) : 소스랑 [so-si-raŋ]

(5) 거멍 : 거먹 [kə-mək]

14. 古南面 古南里의 方言

I

조사일자 : 1987. 1. 6.
제 보 자 : 이순근(남, 49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주 수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고남리가 면소재지이므로 면사무소에 가서 부탁하여 마을 내력을 잘 아는 위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이분이 마을 지명 등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방언을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1)~(30)

(1) 저희 : 즈이 [tʃi-i]
(2) 그런데 : 근디 [kɨn-di] 근데 [kɨn-de] 그런디 [kɨ-rən-di]
(3) 때에 : 때게 [t'ɛ-ge] 標올라올 때에 方올라올 때게
(4) 있는데 : 있는디 [in-nɨn-di]
(5) 없다 (Ⅰ.591) : 읎다 [ɨp-t'a]
(6) —까지 : —까정 [k'a-dʒəŋ]
(7) 섣달 : 슬달 [si:-t'al]
(8) 어린애 (Ⅰ.278) : 어른애 [ə-rɨ-ne]
(9) 가지고 : 가지구 [ka-dʒi-gu]
(10) 못하다 (Ⅰ.709) : 뭇허다 [mu-t^{h}ə-da]
(11) 나누다 : 논따 [non-t'a]
(12) 올라가다 : 올러가다 [ol-lə-ga-da]
(13) —에 : —이 [-i] 標저녁에 方저녁이 [tʃə-njə-gi]
(14) 쇠머리 : 쇠머리 [sø-mə-ri]
(15) 농악놀이하다 : 풍장치다 [p^{h}uŋ-dʒaŋ-tʃ^{h}i-da]
(16) 기분(氣分) : 지분 [tʃi-bun]
(17) 군데 : 간디 [kan-di] 標한 군데 方한 간디 [han gan-di]
(18) 상쇠 : 상새 [sa:ŋ-sɛ]
(19) 부쇠 : 부새[pu:-sɛ]
(20) 꽹가리 : 깽과리 [k'ɛŋ-gwa-ri]
(21) 저 (Ⅱ.03.1) : 지 [tʃi]
(22) 몇 : 멫 [met]

(23) 마련 : 매련 [mɛ-rjən]

(24) 거의 : 거이 [kə-i]

(25) 그러하고 : 그러커고 [ki-rə-k^{h}ə-go]

(26) 부러뜨리다 : 분지르다 [pun-dʒi-ri-da]

(27) 돌아다니다 : 돌어다니다 [to-rə-da-ni-da]

(28) 나무 : 낭구 [naŋ-gu]

(29) 펄 : 뻘 [p'əl]

(30) 뭣 : 멋 [mə:t]

Ⅱ

조사일자 : 1987. 1. 6.
제 보 자 : 이상춘(남, 57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이분에게서 우연히 마을 풍속에 대해 들었다. 거기에서 방언을 가려 기록하였다.
조사내용 : (31)～(74)

(31) 어레미 (Ⅰ.047) : 얼맹이 [əl-mɛŋ-i]

(32) 대청 : 대창 [tɛ:-tʃ^{h}aŋ]

(33) 도루레 : 도룽테 [to-ruŋ-t^{h}e]

(34) 애경사(哀慶事) : 아경사 [a:-gjəŋ-sa]

(35) 가리다 : 개리다 [kɛ-ri-da]

(36) 제사 (※ Ⅲ.05.9) : 지사 [tʃi:-sa]

(37) 모르다 (Ⅲ.08) : 물르다 [mul-ri-da] 標몰라요 方물러유 [mul-lə-ju]

(38) 미꾸라지 : 미꾸리 [mi-k'u-ri]

(39) 먹다 : 묵다 [muk-t'a]

(40) 명절 : 맹절 [mɛŋ-dʒəl]

(41) 제주(祭酒) : 지주 [tʃi:-dʒu]

(42) 새벽 (Ⅰ.547) : 새복 [sɛ-bok]

(43) 가을 (Ⅰ.567) : 가리 [ka-ri]

(44) 저고리 : 저구리 [tʃə-gu-ri]

(45) 그릇 (Ⅰ.095) : 그륵 [ki-rik]

(46) 총회(總會) : 총헤 [tʃ^{h}o:ŋ-he]

(47) 고사(告祀) : 구세 [ku:-se]

(48) 만지다 : 맨지다 [mɛn-dʒi-da]

(49) 하여간 : 허야간 [hə-ja-gan]

(50) 홧대 : 홧대 [hwa:-t'ɛ]

(51) 대막대 : 다막대 [ta-mak-t'ɛ]

(52) 내외간 : 내우간 [nɛ:-u-gan]

(53) 一도 : 一두 [-du] 標그것도 方그것두 [ki-gə-t'u]

(54) 두루마기 : 두루매기 [tu-ru-mɛ-gi]

(55) 책임 : 책음 [tʃʰɛ-gim]

(56) 깨끗하다 : 깨깟하다 [k'ɛ-k'a-tʰa-da]

(57) 언제든지 : 원제든지 [wən-dʒe-din-dʒi]

(58) 없다 (Ⅰ.591) : 읎다 [ip-t'a] 옶다 [up-t'a]

(59) 제수(祭需) : 지숙 [tʃi-suk]

(60) 때문에((Ⅱ.55 보충 ①, ②) : 때미 [t'ɛ-mi]

(61) 길마 : 질마 [tʃil-ma]

(62) 저자 : 제자 [tʃe-dʒa] (※ 시장)

(63) 저자거리 : 제자거리 [tʃə-dʒa-k'ə-ri] 제잣걸 [tʃe-dʒa-k'əl]

(64) 청어 : 청에 [tʃʰəŋ-e]

(65) 고기(魚)(Ⅰ.403) : 개기 [kɛ-gi]

(66) 一에다 : 一이다 [-i-da] 標산에다 方산이다 [sa-ni-da]

(67) 하고서 : 허구서 [hə-gu-sə]

(68) 길다 (Ⅰ.585) : 질다 [tʃi:l-da]

(69) 별로 : 벨루 [pel-lu]

(70) 깨 (Ⅰ.054) : 꽤 [k'wɛ]

(71) 바다 : 바대 [pa-dɛ]

(72) 구렁이 : 진대 [tʃin-dɛ]

(73) 꺾이다 : 찌이다 [k'e-k'i-da]

(74) 벼 (Ⅰ.001) : 베 [pe]

15. 南面 夢山里의 方言

조사일자 : 1987. 1. 8.

제보자 : 심 연순(여, 68세, 국문 해독)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111
조사상황 : 면사무소 직원인 문병욱 씨의 안내를 받아 이장집을 찾았다. 이장은 마침 출타 중이어서 이장의 어머니인 위 제보자에게 마을의 내력을 물었다. 거기에서 나온 방언을 기록한 것이다.
조사내용 : (1)~(32)

(1) 기와집 (Ⅰ.138) : 개와집 [kɛ-wa-dʒip]
(2) 명절 : 맹절 [mɛŋ-dʒəl]
(3) 상쇠 : 상새 [sa:ŋ-sɛ]
(4) —잡이 : —잽이 [-dʒɛ-bi]
(5) —부터 : —부텀 [-bu-tʰəm]
(6) 장구 : 장구 [tʃaŋ-gu]
(7) 북 : 북 [puk]
(8) 상모 : 돌무 [tol-mu]
(9) 쾌자 : 쾌재 [kʰɛ-dʒɛ]
(10) 먼저 : 머첨 [mə-tʃʰəm]
(11) 꽹과리 : 꽹매기 [k'wɛŋ-mɛ-gi] +꽹맹이 [k'wɛŋ-mɛŋ-i]
(12) 법고 : 법구 [pə-k'u]
(13) 징 : 증 [tʃi:ŋ]
(14) 호적(胡笛) :
채납 [tʃʰɛ:-nap] +깨납 [p'ɛ:-nap]
(15) 꽃 (Ⅰ.491) : 꽃 [k'otʰ]
(16) 고깔 : 깨깔 [k'ɛ-k'al] +꼬깔 [k'o-k'al]
(17) 학교 : : 핵교 [hɛ-k'jo]
(18) 지금 : 이끔 [i-k'im]
(19) 장벌 : 장벌 [tʃaŋ-bəl]
(20) 뚜드리다 : 뚜디리다 [t'u-di-ri-da]
(21) 공연히 : 고연히 [ko-jən-hi]
(22) 소주 : 쇠주 [sø-dʒu]
(23) 먹이다 (Ⅰ.626.1) : 벡이다 [me-gi-da]
(24) 걸립(乞粒) : 글립 [kɨl-lip]
(25) 용왕제 : 요왕제 [jo-waŋ-dʒe]
(26) 우습다 : 우섭다 [u-səp-t'a]

(27) 一에는 : 一이는 [-i-nin] 標전에는 方전이는 [tʃə-ni-nin]

(28) 나누다 : 노누다 [no-nu-da] 標나눠서 方노눠서 [no-nwə-sə]

(29) 올라가다 : 올러가다 [ol-lə-ga-da]

(30) 하고서 : 허구서 [hə-gu-sə]

(31) 고기(魚) (Ⅰ.403) : 괴기 [kø-gi]

(32) 몰라? : 몰를래 [mol-lil-rɛ]

16. 기타 方言 (特殊 用語)

Ⅰ. 염전 용어 ①

조사일자 : 1987. 1. 5
제 보 자 : 김석범(남, 67세, 염전업, 한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1구 (40여년간 거주)
조사상황 : 생업 조사자인 이백희 연구원이 제보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기록하였다. 정리는 (1) 재료 및 생산물, (2) 작업장, (3) 작업자, (4) 기구, (5) 작업의 순으로 하였다.

(1) 재료 및 생산물

간수 : 소금이 습기를 만나 저절로 녹아 흐르는 물

갯물 : 염전에 처음 가두는 바닷물

흙염 : 활염(活鹽)

(2) 작업장

난치 : 제 1 증발지

느테 : 제 2 증발지

배미 : 염전 1칸

염점 : 염전(鹽田)

(3) 작업자

난치빠또 : 제 1 증발지 관리자

상염부(上鹽夫) : 염부 중에서 경력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

염부장(鹽夫長) : 염전의 총지휘자

판빠또 : 제 1 증발지 관리자

하염부(下鹽夫) : 보통 염부=벌염부

호장 : 작업 조장

(4) 기구

목도, 목도채 : 소금광우리를 매는 막대기

물자새 : 물을 퍼올리는 水車

뽀미 : 염도계

소금광우리 : 소금을 실어 나르는 광주리

(5) 작업

발바리하다 : 염전 흙바닥(土板)에 새 흙을 넣고 다지다

소금긁다 : 結晶된 소금을 모으다

소금오다 : 소금이 결정되다

조금보다 : 활염을 만들다

염전 용어 ②

조사일자 : 1987. 1. 7

제 보 자 : 김길호(남, 64세, 염전업, 한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주 소 : 위의 곳 1구 230

조사상황 : 생업 조사자인 이택희 연구원이 제보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기록하였다. 정리는 파도리의 경우와 같이 (1) 재료 및 생산물, (2) 작업장, (3) 작업자, (4) 기구, (5) 작업의 순으로 하였다. 다만, 파도리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나 다른 것만 새로 기록하였다.

(1) 재료 및 생산물

감탕 : 물에 가라앉은 물찌꺼기

깍대기 : 배미의 바닥에 이끼, 찌꺼기 등 불순물이 덮어서 말라붙은 것.

더깨 : 소금이 결정되기 시작하여 수면을 하얗게 덮은 것

덧물 : 採鹽한 뒤에 결정지에 대어주는 바닷물

흥덩물 : 불순물이 섞인 더러운 물

(2) 작업장

깡파리판 : 염전판에 사기그릇 깨진 것을 깐 판

비니루판 : 염전판에 비닐을 깐 판

타이루판 : 염전판에 타일을 깐 판

토판(土板) : 자연 그대로의 흙바닥인 염전판

(3) 작업자

날일꾼 : 날낮(日當)을 받고 일하는 염부

(4) 기구

갈통 : 바다에서 간수를 만드는 통

깔꾸리 : 물꼬망치를 찍어내는 도구

뙤미 : 송진으로 만든 재래식 염도계

무지게 : 물지게

물꼬망치 : 배미와 배미 사이를 흐르는 물구멍을 막는 기구

버굿 : 육지에다 간수를 저장하는 통

벗 : 간수를 붓고 불을 때서 활염을 만드는 가마

탈 : 간수를 버굿에서 벗으로 넣을 때 쓰는 박으로 만든 기구

(5) 작업

가녘젖기 : 염판 둘레에 끼는 감탕을 삽으로 깎아내는 일

감내기 : 소금을 앉히는 일

곰배하다, 긁어뫼다 : 소금을 긁어 모으다

구미야개 : 물자새로 물을 퍼 올리는 일

나라시 : 흙을 고르는 일

나래질 : 나무판을 댄 써래를 움직여서 흙덩이를 운반하는 일

다대기 : 바닥을 다지는 일

덧물주다 : 채염한 뒤에 결정지에 새 바닷물을 넣어주다.

물까다 : 물을 퍼다

물시다 : 물이 새다(漏水)

물앉히다 : 물을 담다

물잡다 : 물을 대다

벗질하다 : 벗에 간수를 붓고 불을 때서 활염을 만들다

비설겆이 : 비가 올 때 소금을 치우는 일

소금발이 올라오다 : 소금 결정이 되어가다

판고치다, 판돋우다 : 토판에 새 흙을 부어 넣어 정리하다

Ⅱ. 길쌈 용어 ①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김경호(여, 67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제 보 자 : 김연분(여, 73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사상황 : 방언조사를 하는 가운데 자연히 이루어졌는데, 길쌈하는 도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가락 :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을 감는 쇠꼬챙이
나무지질갑지 : 장작이 아닌 찌끄러기 떨감나무인데, 이것으로 불을 넣어 삼베에 풀 먹인 것을 말림.
눈썹너리 : 베틀에서 눈썹대의 끝 부분. 표준말은 '눈썹노리'임.
눈썹대 : 베를 용두머리 두 끝에 앞으로 내뻗친 가는 막대기
눈썹줄 : 눈썹대 끝에 잉앗대를 거는 줄
눌리깃대 : 잉아 뒤에 있어 베날을 누르는 막대. 표준말은 '눌림대'임.
눌리깃줄 : 눌리깃대에 걸어 베틀다리에 매는 끈
대롱 : 물레로 자은 삼실을 담는 실패
도투마리 : 베를 짤 때, 날을 감는 틀
돌겻 : +자형 연자새 모양으로 된 실감는 틀
물레 : 솜이나 털 따위의 올실을 자아 실을 만드는 틀.
물레바퀴 : 물레에 달린 바퀴인데, 이것이 돎에 따라 가락이 돌면서 실을 감음.
물렛돌 : 물레가 움직이지 않도록 물레 바닥의 가로장 나무를 누르는 넓적한 돌
물렛줄 : 물레의 몸과 가락에 걸쳐 감은 줄인데, 물레를 돌리는 대로 가락을 돌게 함.
바디 : 베실을 낱낱이 꿰어 차게 하는 기구
바디집 : 바디를 끼게 홈이 패이고, 두 짝으로 된 바디의 테
베틀 : 명주·무명·삼베 등의 피륙을 짜는 틀
베틀다리 : 베틀을 받치는 아랫 부분
베틀신 : 베틀의 용두머리를 잡아 돌리기 위하여 베틀신끈에 잡아맨 신
베틀신끈 : 베틀 신대의 끝과 베틀신과를 연결한 끈
베틀신대 : 베틀의 용두머리 중간에 박아 뒤로 내뻗친 조금 굽은 막대
뱃댕이 : 베를 짤 때 날이 서로 붙지 못하게 사이사이 지르는 가는 막대. 표준말은 '뱁댕이'임.
북 : 베날의 틈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씨를 풀어주며 베를 짜는 기구
비경이 : 눌리깃대 위에서 베 날 사이를 벌려 주는 얼레 비슷한 기구
사침대 : 비경이 옆에서 날 사이를 띄어 주는 대
삼구시 : 대마 껍질을 벗기기 위해 삼는 솥인데, 밑은 철판이고 둘레는 나무로 되어 있음 길이 3~3.5m, 폭 60~70cm.
솥 : 풀칠을 한 삼실끼리 붙지 않게 빗어주는 기구
앉을께 : 베틀에 사람이 앉는 자리

앞다리 : 베틀 앞에 높게 세운 나무

용두머리 : 베틀 앞다리 끝에 얹는 나무

잉아 : 베틀의 날실을 끌어 올리도록 맨 굵은 줄

잉앗대 : 뒤로 눈썹줄에 대어 아래로 잉아를 걸어놓은 나무

쳇똥 : 베틀에서 삼베가 구김살지거나 너비가 들락날락하지 않게 양쪽으로 버티는 기구. 표준말은 '쳇발'임.

길쌈 용어 ②

조사일자 : 1987. 1. 7

제 보 자 : 송무자(여, 45세, 농업, 국회)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주 소 : 위의 곳 2구 산 55

조사상황 : 생업 조사자인 이택희 조사원이 제보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기록하였다. 유계리에서는 길쌈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그것은 빼고 (1) 재료 및 생산물, (2) 작업의 순으로 기록하였다.

(1) 재료 및 생산물

껼 : 삼실을 잘못 이어서 꺼시랭이가 일어난 것

날줄 : 삼베를 짤 때, 위에서 아래로 늘여진 고정된 줄

대갈 : 삼실의 첫머리

밥 : 삼실의 부피

삼 : 삼베 길쌈의 원료가 되는 식물

삼똥 : 삼실에 남아 있는 삼껍질

삼베 : 삼실로 짠 베

삼실 : 삼을 물레에 자아서 뽑아낸 실

씨줄 : 삼베를 짤 때, 가로로 한 줄 한 줄 짜여지는 줄

(2) 작업

간초롱이 목집다 : 삼 끝을 가지런히 맞추어 추리다.

나르다 : 베틀에다가 베를 짜기 위하여 날줄을 감다.

놀놀하다 : 삼실이 누렇게 바래다.

대롱에다 올리다 : 물레의 대롱에다 삼은 실을 감다.

들쑥날쑥하다 : 베틀의 북이 왔다갔다하다. 들쑥은 잉앗대를 미는 상태이고, 날쑥은 잉앗대를 당기는 상태이다.

물레 잣다 : 물레를 돌려 삼실을 뽑아내다.

바들바들해지다 : 잿물을 넣은 삼실을 쌀뜨물이나 쌀겨물에 담궈 중화시켜서 삼실이 부드

러워지다.

벙으러지다 : 북이 왔다갔다할 때, 씨줄과 날줄 사이가 벌어지다.

삼을 삼다 : 삼 껍질을 서로 잇다.

서리다 : 삼실을 엉키지 않게 차곡차곡 놓다.

솔로 빗기다 : 삼실에 풀칠을 한 다음에 실끼리 붙지 않도록 솔질을 하다.

어싯마지러지다, 가새 사옥지다 : ×자 모양으로 되게 하다.

잿물 죽여주다 : 삼실을 잿물에 넣어 바들바들하게 해주다.

째다 : 삼껍질을 가늘게 찢다.

질쌈하다 : 삼껍질에서 삼실을 뽑아서 삼베를 짜내기까지의 모든 일(길쌈, 질쌈)을 하다.

톱는다 : 삼껍질을 서로 잇기 위해서 가늘게 펴다.

Ⅲ. 김 양식 용어

조사일자 : 1987. 1. 6

제 보 자 : 김순태(남, 54세, 김양식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고남리

주 소 : 위의 곳 1구 1241—1

조사상황 : 생업 조사자인 이택희 조사원이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며 기록하였다. 그후, 파도리에서 몇 개의 보충조사를 하였는데, ( )안에 밝혔다. (1) 재료 및 생산물, (2) 작업장, (3) 기구, (4) 작업의 순으로 정리하였다.

(1) 재료 및 생산물

돌김 : 바닷물 속의 돌에 뿌리박고 자란 김. =石苔

생짐 : 바다에서 갓 따온 상태의 김. =생(生)김

짐 : 김(海苔)

포자 : 김의 원료

※ 김을 세는 단위

1장 : 1장(고남리, 파도리 공통)

10장 : 1첩(고남), 1무시(파도)

100장 : 1속(고남), 1톳(파도)

1000장 : 1동(고남), 1푸대(파도)

(2) 작업장

건조실 : 건조시설을 갖추어 김을 말리는 실내 건조 작업장

건조장 : 햇빛을 이용하여 야외에서 김을 말리는 건조 작업장

※ 김 양식장의 단위

1책 : (파도리) 1.5m×40m

1책 : (정죽리) 1.5m×40m

(3) 기구

김틀 : 김을 떠서 김 모양을 만드는 틀

때 : 김 양식 기구의 단위의 하나로서, 500쪽이 1때임.

받침발이 : 김을 뜰 때, 발장을 받쳐놓는 대

발장 : 김을 1장씩 떠서 말리는 발

보죽대 : 긴 대나무로서, 그물이 떠 있을 수 있도록 2m 간격으로 매달아 놓은 것.

삼발이 : 김을 뜬 발장을 탈수기에 넣어 탈수시킬 수 있도록 150장 단위로 쌓아놓는 틀

삼장 : 햇볕에서 김을 건조시킬 때, 세로 6줄, 가로 3줄씩 김발장을 걸어서 말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무틀

우케 : 김을 바다에서 따서 담아 오는 대그릇

쪽 : 김 양식 기구의 단위의 하나. 대나무 쪼갠 것을 500개 엮어서 여섯자 반(약 2m) 쯤 길이가 되는 것

탈수기 : 바다에서 갓 따온 생김에서 물을 빼내는 기계

항목 : 쪽을 매어 놓는 높은 대

훑치 : 김 수확을 마지막으로 할 때, 뿌리까지 훑어내는 도구인데, 밧줄을 20cm쯤 자른 것임.

(4) 작업

가호질하다 : 김을 바다에서 채취할 때, 붙어 있는 김을 잘라내다.

김 뜨다 : 김을 김틀에서 1장씩 1장씩 만들어 내다.

무질러 나가다 : 김이 병이 나거나 수온이 너무 높았을 때, 뿌리 부분은 자라면서 끝부분은 썩어 문드러지다.

훑다 : 바다에서 훑치를 가지고 김을 뿌리 부분까지 긁어 내다.

Ⅳ. 물 때 용 어

조사일자 : 1987. 1. 6

제 보 자 : 강 찬식(남, 53세, 어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생업 조사자인 이 백희 연구원이 제보자와 물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쓰는 날짜는 음력이다.

(1) 한매 :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날. 사리가 시작되는 날. '한 매듭만큼 들어온다'에서 '한매'가 생긴 것으로 추정됨. 음력 초열흘, 스무 닷새

(2) 두매 : 한매보다 시간은 1시간 더 늦게 들어오면서 물은 더 살아난다. 음력 열하루, 스무 엿새

(3) 세매 : 두매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됨. 음력 열이틀, 스무 이레

(4) 네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열사흘, 스무 여드레

(5) 다섯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열나흘, 스무 아흐레

(6) 여섯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보름, 그믐

(7) 일굽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초하루, 열엿새

(8) 여덟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초이틀, 열이레

(9) 아홉매 : 위와 같이 계속 진행되어 나감. 음력 초사흘, 열여드레

(10) 열매 :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날. 사리의 마지막 날. 몽산리에서는 '막사리'라고 함. 음력 초나흘, 열아흐레

(11) 한께끼 : 물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날. '깎이다'에서 '게끼'가 온 것으로 추정됨. 조금이 시작되는 날. 음력 초닷새, 스무날

(12) 데께끼 : 물이 한께끼보다 더 줄어드는 날. '더 깎이다'에서 '데께끼'가 온 것으로 추정됨. 음력 초엿새, 스무하루

(13) 아침조금 : 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조금'이라 함. 음력 초이레, 스무이틀

(14) 한조금 : 조금이 정식으로 된 날. '한 조금'은 '큰 조금'이란 뜻임. 음력 초여드레, 스무사흘

(15) 무시 : 물이 더 줄어들지 않는 날. 음력 초아흐레, 스무나흘

(16) 사리 : 음력 초열흘에서 열아흐레까지의 기간과 스무닷새에서 초나흘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사리라 한다. '사리'라는 말은 '물이 살다[늘어나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됨.

(17) 조금 : 음력 닷새에서 아흐레까지의 기간과 스무날에서 스무나흘까지의 기간을 통틀어 조금이라 한다. '조금'이라는 말은 '졸금거리다[액체가 조금씩 나오다 멎다 하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됨. 즉, '졸금거리다.'에서 '졸금'이 나왔는데, '졸금'에서 '졸'의 ㄹ음이 탈락하여 '조금'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三. 地名·俗談·수수께끼·기타

(地名의 일러 두기)

1. 지명을 적는 순서는 마을 이름을 맨앞으로 하고, 그 뒤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2. 현지 발음을 표제어로 하였다. 그리고, 그 원형으로 생각되는 한자어는 ( ) 안에 적었다.
3. 한글 학회에서 발행한 《전국 지명 총람》을 참고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인정한 지명만을 원칙적으로 기록의 대상으로 하였다.
4. 지명의 풀이는 현지인의 설명을 기본으로 하여 적었다. 다만, 현지인의 설명과 《전국 지명 총람》의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먼저 ㉮이라는 부호 뒤에 현지인의 설명을 적고, ㉯라는 부호 뒤에 《전국지명 총람》의 설명을 적었다.
5. 지명의 풀이는 요약하여 적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다.

1. 瑞山邑 德之川里의 地名·人事法·命名法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이장 이낙환(남, 56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이장을 비롯한 여러 분들에게 물어서 종합하였다.
조사내용 : 덕지천리~찬샘마을

덕지천리(德之川里) : ㉯본래 서산군 오산면의 지역이었는데, 마을 옆에 덕지내(德之川)가 흐르므로 덕지내 또는 덕지천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령면(지금의 서산읍)에 편입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되었다.

덕지내 : 마을 옆을 흐르는 내

동 쪽 : 덕지천리 안에서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

뒷 굴 : 덕지천리 안에서 뒷쪽에 자리잡은 마을

배다리 : 찬샘 옆에 있는 다리인데, 200여년 전까지 배가 닿았다고 함.

산지당(山祭堂) : 산제사를 지내던 자리

서 쪽 : 덕지천리 안에서 서쪽에 자리잡은 마을

안사암 : 덕지천리 가운데에 자리잡은 샘으로 역사가 오래됐음.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서 근방 사람들이 모두 이 샘 신세를 진 것을 마을 사람들이 자랑하는 샘이다.

앞 굴 : 덕지천리 안에서 가장 앞에 자리잡은 마을

억지내 : "우리 동네 보구 '억지내'라구 그리여. 우리 동네 보구 '억지내'라구. 왜 그리냐며는 여기가 옛날에 양반두 살구 권세두 많이…… 병사 이 참판, 이 병사두 살구 박한 웅이두 살구 권세가…… 이 이 병사라고 하면 지끔 말하자면 사단장쯤 되는 모양이여. 안흥 참사도 하구 이 병사두 있구 하지. 그 권세로다가 그래서 션찮은 사람들은 여길 뭇지나 갔다는 기여. 말타고 지나가머는 농군들이 끌어내려서 논 한참 매서 내보냈다는 기여. 그리서 '억지내'라 그리여. 그래 갖구 양반들이 몇 번 당하고 나니께 여길 지나갈려면 벌벌 떨디여. 저기 뚝 막은 디 저리로 돌아갔다는 기여. (청자 : 에둘러서 갔지) 응 에둘러서 간 기여."

오푼강 : 덕지내를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요왕배미(龍王—) : 앞굴 남쪽에 있는 논인데, 60여년 전까지 용왕제를 지냈던 자리임.

장벌앞 : '장벌밭'의 앞

장벌밭 : 지금은 밭인데, 옛날 오산면 시절에 장이 서던 자리임.

죽터 : 덕지천리 안에서 뒤쪽으로 고개 너머 있는 마을. ㉮대나무가 많아서 竹터임. ㉯전에 둑이 있었던 '둑터'가 변한 말임.

찬샘마을 : 죽터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찬 샘이 있음.

2. 人事法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김낙춘(남, 59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방언 조사하던 홍승표 할머니 집에서 위 제보자를 만나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 (1)~(4)

(1) 아침에 웃어른을 만났을 때

"아저씨, 진지 잡쉈어요? 워디 가십니까?"

"아무개 아버지, 워디 가세요? 진지 잡쉈어요?"

(2) 아침에 동년배를 만났을 때

"워디 가나? 밥 먹었나?"

(3) 아침에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아침 자셨나?" "아침 먹었나?"

(4) 아침에 아이를 만났을 때

"밥 먹었니? 아가"

3. 命名法

조사일자 : 1986. 12. 21.
제 보 자 : 김낙춘(남, 59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위 제보자에게 인사법을 조사하면서 함께 명명법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 : 개 이름, 고양이 이름

(1) 개 이름

거맥이 : 털색이 검은 개에게 붙임.

노란댕이 : 털색이 노란 개에게 붙임.

누랭이 : 털색이 누런 개에게 붙임.

댕갱이 : 꼬리가 짧은 개에게 붙임. 꼬리가 '댕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부름.

버들이 :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음.

덕 구 : 그 집 아이 이름을 따서 지음.

검둥이 : 털색이 검은 개에 붙임.

바둑이 : 얼룩 무늬가 있는 개에게 붙임.

(2) 고양이 이름

'나비'가 대표적 이름이며, 그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아예 이름을 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高北面 長要里의 地名·수수께끼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2
제보자 : 김 광조(남, 46세,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초록리 29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지포리 90~10
조사상황 : 조사단이 고북면 사무소에 가서 협조를 구하였더니 위에 적은 제보자가 개똥바위로 안내해 주었다. 그 자리에서 보이는 곳의 지명을 설명해 주었다. 그 뒤, 마을에 들어가서 또 조사하였다. 이 둘을 합친 것이다.
조사내용 : 쟁요리~코생이

쟁요리(長要里) : ㊎본래 해미군 상도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산직리, 신선리, 신리, 양지리와 연하리, 장선리의 일부를 합하여 서산군 고북면의 한 里가 되었다. 里의 이름은 장선리의 '長'과 연하리(교요골)의 '要'를 합쳐서 만들었다.

가잘미 : 장요리 2구의 뒤편 오른쪽에 자리잡은 마을

각시바위 : "연암산 저 산 밑이루 내려와 가지구 각시바위가 있는데, 그 각시바위가 파손이 된다든지 어떻게 쓰러진다든지 하면 그 밑이 동네에서 또 재앙을 입는다고 해서 지난여름에는 草綠里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올라 가지구 쓰러진 걸 다시 복구해서 다시 세워논 일이 있읍니다."

교욧골 : 장요리 2구 전체를 말함. ㊎① 삼면이 삼준산, 연암산으로 둘러싸여서 난세에도 '고요'하다고 함. ② 지형이 연꽃(교요)처럼 생겼다고 함.

광대갈 : 장요리 2구의 뒤편 왼쪽에 자리잡은 마을

뒷박산 : "여기가 자연부락 이름으로 가구전인데 저기 저게 딴봉이라고 그리고, 이 시골에서는 쉽게 불를 수 있는 이름으로 뒷박산이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이 뒷박산이 가야산, 연암산, 삼진산하고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일정 때 이제 일본사람들이 여기 이 산맥 지형을 보구서 '이 주위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 나타나겠다' 그래 가지구서, '이 산맥을 끊어 노와야 된다' 해 가지구서, 저 산을 끊어 가지구서 별도의 산이 된 겁니다. 별도로 산이 됐고, 거기에는 도로가 나 있어 가지구, 좀 험헌 곳을 뚫었기 때문에 아주 낮에두 지금두 좀 으스슥헌 기분이 들구 좀 다니기 험합니다."

딴봉 : 뒷박산을 달리 부르는 말인데, 원래의 산에서 '따로' 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부름.

삼진산 : 원명이 '삼준산'으로 면에서 가장 높은 산

양지뜸 : 장요리 2구의 앞편 왼쪽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마을

연암산 : 고욧골의 마을 뒷산

연쟁이고개 : 연암산 옆에 있는 고개

장군바위 : "저 전면에 보이는 산이 거개 연암산인대, 참 가야산 분맥이로다가 고북면이 그 지세를 좌우할 수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 장군바위가 있는데, 장군바위는 바위 형태에 사람이 누웠든 그 등어리 모양허구 발꿈치 모양허구 주먹 짚었든 주먹 모양이 나타나 있읍니다."

칠성바위 : 장요리 입구에 있는 바위

코생이 : 연암산에 있는 바위인데, 사람의 코처럼 생겼음.

2. 수수께끼

조사일자 : 1986. 12. 22
제 보 자 : 이창순(여, 6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예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조사상황 : 정덕순 할머니 집을 찾아가 설화 조사를 했다. 이때 위 제보자가 자진하여 수수께끼를 내었다.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하고 놀았다고 한다.
조사내용 : (1)~(7)

(문 1) 밥두 밥두 못 먹는 밥은 뭐냐? (답) 톱밥
(문 2) 장두 장두 못 먹는 장은 뭐냐? (답) 송장
(문 3) 아침에는 열냥, 저녁에는 닷냥은? (답) 門
(문 4) 늙어가면서 살찌는 것은 뭐냐? (답) 담뿌락
(문 5) 쪼끔 나왔으면서 쑥 나왔다고 하는 것이 뭐냐? (답) 쑥
(문 6) 먼 산 보고 절하는 것은 뭐냐? (답) 방아찧는 것
(문 7) 손주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할아버지는 손주방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답) 종재기

3. 音岩面 遊溪里의 地名·俗談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최창수(남, 64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주 소 : 위와 같음
제 보 자 : 강영모(남, 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최운식 교수와 함께 이장 집을 찾아가서, 위의 두 제보자에게 지명에 대해 물어서 조사하였다. 강영모 씨가 도비산과 海花落地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최창수 씨가 이야기하였다.
조사내용 : 유계리~한다리

유계리(遊溪里) : ㊎본래 서산군 동암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유산리, 명계리, 대교리, 기촌리 일부를 병합하여 한 里를 이루고 음암면에 편입되었다. 이때 유산리의 '遊'와 명계리의 '溪'를 합하여 遊溪里라 이름하였다.

개바위 : "경주 김씨 조상의 윗대 산소가 형상이 호랑이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했어요. 복희형(伏虎形)이라고. 그래서, 지관이 잡긴 잡었는디, '복희형은 개바위가 있어야 한다. 개가. 밥이.'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옛날부터 개라고 하잖았어유? 그래서 지관이 아주 찾어댕겼다는 기여. 근디 저 위에 애들이 인제 "야! 개바위로 올라가자. 나무가자고." '아따 있긴 여기 있는 게구나. 개바위가.' 인자 지관이 생각하구서 살금살금 인저 그놈들 나무하는 놈들하고 좇아갔지. 가 보니께, "야, 여기서 나무하자." 하고 척척 나무허드리야. 그래서 돌아다녀 보니께 바위가 있드래야. 지끔도 있긴 있어. 개바위. (청자 : 있지) 거긴 솔도 안 비여. 지금두 개 은신하라구. 인제 범이 잡으러 오먼은 은신할 데가 읎이면 잽히니께. 그런 식이로다가 냄긴 거여. 지금도 있어. 그런 얘기가 있드그만. 거기가 운단면 거석리라는 멘데 거기가. 개바위가. 그러니께 경주 김씨네 산소이서 내려다보면 뻔이 보이지. 개바위가. 그래니께, 호랭이 형국이니께, '개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번창을 허구 괜찮았다' 이렇게 말이 있지요."

노르미 : 명계 북쪽에 있는 마을. "워째서 노르미냐 허면 그 범헌티 노리가 쫓기는 형이라는 거여. 잡어먹을라니까 노루가 쫓길 거 아니여? 그래서, 노루미라구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구만."

개청이샘 : 유계리에서 으뜸가는 샘

단구대(丹丘臺) : ㊐선녀들이 놀던 곳. '단고대'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흙으로 묻혔음. ㊎한다리 냇가에 있는 바위. 조선 광해군 때 察訪 金積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살면서 호를 丹丘子라 하고 낚시질로 세월을 보내던 곳임.

대교천(大橋川) : 한 다리가 있는 내

도비산 : "여기 남서부로 내려가서 도비산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에 들은 말로 의하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옛날 홍수 때 다 물이 찬 것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 바다였다는데, 인저 옛날에 천지개벽을 해 가지고 바다였는디, 되비산은 됫박만큼, 됫박을 하나 엎어놓은 만

큼 남어서 여기가 육지가 됐었다, 그래서 되비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망찌고개 : 강도가 많아서 망헌(죽은) 사람(亡者)이 많았다고 한 고개

매화낙지(梅花落地) : "인제 梅林洞, 梅洞이라고 그 동네가 있이유. 그런디, 매림동이라고 하는디 梅花落地라고 해서, 거기가 대지가 있다고 해서므니, 地師 지관이 그 지리학 박사들이 수백 명이 계속 그 거길 찾을라고 왔다는디, 거기를 찾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인저 그 梅花니께 매화꽃이 피는 것 아닙니까? 꽃은 갓이 피기 마련인디 꽃은 속이 있고, 그런디, 그 꽃 속이 첫째지, 그 落地, 떨어진 디는 소용없다는 거여. 근디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그 곳을 못 찾았는데 우연히 서산에 인제 도시계획이 되 가지고 물이 주절버서 식수난이로 허덕이는 찰나에 우리 유계리 2구 참 대교천에서 서산 상수도를 놓게 됐어요. 그래서 인저 거기 그 매림동이 그 이왕조의 씨족들이 전주 이씨들의 씨족턴디, 장군석도 많이 서 있고, 서산이서 상수도를 설치할라고 보니까 남이 중터기 때문에 그 상수도 물탱크 자리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참 누차에 고심허든 끝에, 그 때 어느 군수님이 그랬드라, 참 이씨네 종손 원종손 되시는 분들 중에 서산읍 水石里 4구에 즈이들 친군데 이경주라고 그 사람이 종손판데 수석 4구 새마을 지도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정부에서는 나날이 발전돼나가고 서산읍을 도시계획에 들어가지고 발전시킬라고 하는디, 물루 허덕여 가지고 물이 읎이 가지구서 도시가 안 된다는 것은 안되겠다' 해 가지구 그 사람이 종중 허락도 없이 쾌히 자기가 참 도장을 도용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승낙을 해 가지고 상수도 자리를 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상수도를 앉혔어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앉히고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전주가 몇 대 거기 서 가지고서 불이 거기 열 여덟 댄가 열 아홉 개가 뻥 둘러 가지구 훤하게 켜져 밤이면은 불이 여기까지 훤해요. 낮이는, 낮에도 그 인저 똥그란 둥이 가로등이 서 있으니께 뭐 그래서 이것이 꽃들 이파리가 아닙니까? 그 가운데는 상수도가 들어 앉었다 이 말이여. 인저 근년에 와, 즈이들로서는 '매화꽃 피었다', 그래, 명당을 서산군 상수도가 차지했다는 기여. 그러면, 5만 시민이 됐든 10만 시민이 됐든 서산이 도시계획이 들어서 갔구 발전돼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여기 상수도에가 들었답니다."

면횃들 : 베틀말 서남쪽에 있는 들인데, 면화가 잘 되었다고 함.

명계(明溪) : 한다리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 앞에 맑은 내가 있음.

문다래미 : 개화산에 있는 고개. 옛날 이 근방이 다 바다였을 때, 배가 넘나들던 곳.

밤벌 : 한다리 동쪽에 있는 들인데, 밤나무가 많음.

방주굴 : 한다리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방죽이 있음.

베틀말 : "베틀말이라는 데는 우리가 들건대 말이여 잉, 그 베틀형이 있다는 말이여. (청자 : 모이 쓰는 데요?) 잉. 모이같은 것 쓰든지 집을 짓든지 베틀형이다 쓸라머는 워따 써야 질 좋으냐며는 앉을께이다 써야 좋다. 그런데, 인제까지두 베틀형이라고만 있지 찾들 못했디야. 지끔 베틀말이 그 베틀형은 베틀형인디 워디가 앉을껜지 무르지. 아직도 모른다이라지요."

산뱅이 : 베틀말 서쪽에 있는 마을

성동 : 베틀말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한다리 김씨네 시제청이 있음.

소탄산 : "그 옛날에 천지개벽을 해 가지고 이 일대가 다 바다였는데, 인제 시대가 변천되고 수천 년 내려오다 보니까, 소탄산은 소가 하나 탄이만 해서, 그만큼 육지가 남아서 소탄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용유대(龍遊臺) : 龍川에 있는 바위인데, 조선 광해군 때 김적이 살았다고 함. '용후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음.

용천(龍川) :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내

한다리〔마을〕: 유계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길가에 있음.

한다리〔다리〕: 한다리 마을과 해미면과의 면계에 있는 다리로서 길이 48m임. ㉮① 외다리 골, '한 다리'만 가진 봉이 날아온 데서 유래. 음암면 유계리 설화 참조. ② 다리가 하나라서 '한 다리'임.

2. 俗 談

조사일자 : 1986. 12. 23
제 보 자 : 김연분(여, 73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조사내용 :

◦살림살이하고 아이들은 주접에 쌓인다 (뜻) 잔 속 썩인다.
◦한다리 김씨는 도깨비다 (뜻) '알 수가 없다'는 뜻.

4. 海美面 多岩里의 地名·俗談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① 윤병석(남, 56세, 교사, 초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국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② 윤홍규(남, 45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동암리~창굴째

동암리(冬岩里) : ㊎본래는 백제 때 夢熊鄕이었는데, 고려로부터 조선 말에 이르기까지 몽웅역이 있었으므로 역말, 역촌 또는 몽웅역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역말의 이름을 피하여 동암리라 이름짓고 해미면에 편입함. ㊍제보자① "이 마을이 원래는 역말이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여기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허고 이름을 질 때, '멀로 지어야 될 꺼냐' 이렇게 생각하는디, 이 뒷산을 바라보니께 맨 바위만 있거든. "에이 이거는 아주 겨울(冬) 바위(岩)다." 이래서 冬岩里라고 이름진 것 같애요. (조사자 : 겨울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바위만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사방이 국가적으로 몇 차례 했어요. 세 차례 했어요. 여기,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푸래졌는데, 원칙은 여기 다 전부 바위여. 그러니까 겨울이지유."

가랫굴, 가랫골 : 소생잇굴 서쪽에 있는 마을. 제보자② 옥녀가 머리를 '가렸다'(긁었다)고 해서 가랫굴이라 함.

감동밭 : 독가문논 동북쪽에 있는데, 걸고 곡식이 잘되는 밭임.

건탕바위 : 범덩굴 북쪽에 있는 바위인데, 모양이 사람 머리에 쓰는 건탕같이 생겼음.

고등굴, 고등골 : ㊍제보자① 역말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모양이 '고동'같이 오무라졌음. ㊎곧은 골짜기

내앙전 사암, 냉전(冷泉) : 제보자① "냉전이라고들 하는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요 냉천이래야 돼지. 일년 열두달 찬 물이 나가지구 삼복더위에도 거기 가서 찬물을 가슴에다 제대로 찌얹지를 못해요. 저 위에, 저 산 고랑이에 있지요."

당산성 : 마을 뒷산에 있는 돌성

독가문논 : 벌산배미 북쪽에 있는 논

목탁바위 : 제보자① "저 옥녀봉에 목탁바위라고 있는데요, 뚜들면요 목탁소리가 나요. 바위는 요렇게 두 쪼각이 합해졌는데요. 목탁두 이렇게 가운데가 짤러졌잖이유? 고길 뚜디리면 목탁소리가 나요."

방앗다리 : ㊍제보자① "그 다리가 방아같이 생기들 안했는디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 오대유." ㊎사랑재 동쪽에 있는 논인데, 지형이 방아의 다리 같음.

벌산배미 : ㊎방앗다리 동북쪽에 있는 논.

범덩굴, 범채덩굴, 부채덩굴 : ㊍제보자① "범덩굴이라는 건 범이 살고 있는 디 까시덤풀 같은 게 덩굴이 말하자먼 범덩굴인디, 옛날에 거기가 호랑이가 살던 숲이라고. 지금도 반양리 저짝에 가면 있어요." ㊎옥녀봉 동쪽에 있는 바위. 호랑이굴이 있음.

분홍째, 분홍치, 부홍째 : ㊍제보자① "부홍째 이야기를 옛날 어른들이, 자세헌 얘기란

들르겄는디 "여기가 '부흥'이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을로서 이렇게 어른들께서 전해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제보자② "분흥째라는 뜻은 요 옥녀가 분단장을 했다구 하대유. 그런 전설이지유." ㉮역말 북쪽에 있는 고개. 흥천리 분흥으로 넘어가므로 분흥재라 함.

사작째 : ㉯제보자① "사작째라구 허는디요, 사실은 그것이 사직째지유. 그 하늘 제사지내는 디지요. (조사자 : 보셨나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전해 듣기만 헌 거에요. 할아버지들두 못 봤대유. 그런데, 지금도 터가 있어유. 그 집터가 있어요. 그 건물은 허물어졌는디, 그 기왓장이 있구 다 있어요." ㉮고등굴 남쪽에 있는 고개로 해미현의 사직단이 있었음.

삼냇골 : 제보자① "저쪽에 내가 하나 있고, 이쪽에 내가 있고, 저쪽에 해서 내가 셋이 저 앞에서 합한다고 해서 삼냇골이지요. 골은 고을이지요."

사랑째, 서낭째 : 제보자① "그 고개를 지금은 사랑째라구 그런디 원체로 그것이 사랑째가 아니라 서낭당째여. 그 당제사가 없어진 이유가, 새 길을 내다가 그 괴목이 枯死하게 되니께 않게 됐지요. 한 근 이십 년 되지요."

산째 : 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새울치 : 반양리로 넘어가는 고개

소생잇굴 : 부엉째 서쪽에 있는 골.

역말 : 제보자① "이 옛날이는 우리 마을을 역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조선시댄데. 그런디, 지끔도 스산이나 뭐 이런 디 나가면 동암리 산다고 하면 역말 사람이라고 깔보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구 이러는디. 사실은 그거는 근거가 읎시유. 지끔 우리가 역말하고 무신 관계가 있시유? 사실 옛날이는 이 마을이 다른 마을 사람들헌티 무시당허는 이유가 있긴 있었지유. 첫째는 역말 관리가 하급 관리니께 무시를 했고, 두째는 여기 관찰사나 뭐 그런 높은 분이 와서 묵으면 그날은 여깃 사람들이 그 평소에 나쁘게 대하든 다른 마을 사람을 잡어와서 혼을 내줬다구 그래요. 그 높은 분의 권세를 믿구서. 그러면 그 혼난 사람은 돌아가면 또 욕을 허구 더 미워허구. 또 세째로는 지끔두 그렇지만, 역 근방에는 주막이나 노는 여자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니께, 사람들이 술 먹고 놀라머는 역말로 와서 놀았었는디, 사실 그거는 여기 사람들이 아니지유. 다른 디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지유. 아, 그런디, 지끔은 우리 동암리가 그때 그 사람들허고 아무 상관두 읎는디 지끔두 역말이라구, 역말 사람이라구 하시할라는 거는 말이 안되지유. 지끔 우리가 무신 나쁜 짓 하는 것이 있이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역말이라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께, 우멀은 역말이라 하지 않고 동암리라고 허지유."

옥녀봉(玉女峰) : ㉯제보자② "옥녀가 그 선녀가 살았다구 어른들헌테 들었지요." ㉮역말 북쪽에 있는 산으로 玉女彈琴形이라 함.

제비굴, 지비굴 : ㉮옥녀봉 동쪽에 있는 굴로서 제비가 집을 지음.

즘말(店村) : ㊎역말 남쪽에 있는 마을. 전에 그릇점이 있어서 '점말'이었는데 음이 변함

창굴째 : ㊐제보자① "우리 마을에 여기 창굴이라고 하는 디가 있는데요. 거기는 창은 가늘고 길기 땜에 그 골이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창굴째라구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드라구요." ㊎참굴재 : 역말 서쪽에 있는 고개.

2. 俗 談

조사일자 : 1986. 12. 24
제 보 자 : 오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속담 (1)~(4)

◦말을 평풍이 모가 둥글듯이 한다. (뜻) 우스운 이야기를 한다.
◦샌님이 범이 장다리여. (뜻) 성질이 무섭다.
◦물레 고장은 피머리서 난다. (뜻) 엉뚱한 데서 일이 난다.
◦가랑잎이 멀쩡허게 솔잎더러 버시락거린다고 허네. 지가 버시럭 거리면서.
(뜻) 제 큰 흠은 모르고 남의 작은 흠을 나무란다.

5. 雲山面 余美里의 地名·命名法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한필수(남, 37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상황 : 책은 참고하지 않고, 현지 조사에만 의하였다.
조사내용 : 여미리~큰말

여미리(余美里) : 본래 당진군 정미면 여미리였는데, 1967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로 편입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예미'라고 부른다.

개바위 : "이 마을이 옛날에 도둑을 아주 많이 맞었드래요. 그래, 도둑을 정 맞으니까요, 어떤 대사가 지나가시다가 개 형상을 바위루 만들어서, 저 근너 운산 수당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하나 박어 놓고 여기다 하나 개를 해 놓으며는 도둑을 안맞을 꺼라고, 그렇

게 해서 개를 형상을 맹글어서 바위를 두 개를 박었어요. 그래서 개바위예유. 그래서 그런 뒤로 도둑을 안 맞었다는 거예요."

굿터 : 터가 좋은 곳

도당굴 : ① 도를 닦던 곳. ② 서당이 있던 마을

묘정 : 묘를 지키는 정자가 있던 곳

배지월 : 배가 다니던 곳

생교굴, 생저굴(鄕校—) : 향교가 있던 마을

아랫장터, 장터 : 윤씨네가 세운 운산장터를 말함

오그네벌판 : 옥과 은이 들었던 벌판

옥탁틀 : 옥이 나오던 곳

윗장터 : "이 예미장터를 말하는디, 그 옛날이는 여기가 원님이 있던 자리예요. 이곳이 그래서, 그때는 전주 이씨네가 이 근방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주 이씨네가 예미장터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랬는디, 전주 이씨네가 망허기 시작허면서, 저 아랫마을에 윤씨네가 새로 장을 세웠어요. 그 뒤에 여기는 아주 쇠해져 가지구 없어졌어요. 그런디, 지끔도 거기 파면 개와짱이 나와요. 그래, 그때 예미장터가 워찌나 컸던지 '예미장터 파하듯 헌다'라는 속담두 있지요."

육굴 : 마을 이름인데 뜻은 모름.

이문안(里門—) : 예미리의 안쪽 마을로서 이문이라는 문이 있던 곳.

절라산 : "지가 들은 절라산의 유래는 으른들한테서 전해들은 얘긴디요. 전라도에서 과거에 떠내려 와 가지구 정착됐다. (조사자 : 언제요?) 천지개벽할 때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지세를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거기서 밭 田짜 우렁 螺짜 하고. 그 우렁처럼 이렇게 똥그랗게 생겼거든요, 산이. 그래서 '밭으로 우렁이 내려오는 형국이다' 이런 식이로 해서 절라산이다. 그런 얘기두 있고 그래요. (조사자 : 그런 지형이 좋대요?) 그게 운산면 전역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산 밑이로 통해서 당진바다로 내려가거든요. 고 수구에 딱 맥혀 가지구선, 이 근방에서 과거에는 많이 거기가 사람들도 눌구 거기가 큰 묘가 있지요. 그 묘가 여기 계신 청장님(과거에 지방 국세청장을 지내신 분) 그 양반네 산소요. (조사자 : 이분네가 잘 사십니까?) 잘 사시지요. (조사자 : 묘 덕택이랍니까?) 그 묘는 청장님 선친이 거기다 모셨거든요. 그 이하루 자손들이 다 출세허구 잘 사는디 어려움 없이 잘 살지유. 그건 묘 덕택이라고도 하고, 그 집도 집터가 이 여미리에서 큰 기와집인데 집터도 좋고 묘터도 좋고 해서 그래두 이 근방에서는 제일 낫다고 그렇게 얘기들 허지요."

초막굴, 초막골(草幕—) : ① 초가집이 있는 마을. ② 병객 수용했던 마을.

큰말 : 여미리에서 제일 큰 마을

2. 命名法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유각무(남, 68세, 농업, 무학)
　　한승우(남, 68세, 농업, 무학)
　　이재희(남, 64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주　소 : 위와 같음(세 분 공통)
조사내용 : 사람의 이름 짓는 법

(1) 이름의 종류

① 애명(兒名) : 갓난애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임시로 애명을 지어준다. 특히,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명이 기라고 천한 이름으로 애명을 짓는다. 그리고, 관명을 지어 준 다음에도 집안에서는 흔히 애명을 부른다. 그런 천한 이름으로 열살이 넘도록 애명을 부르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기도 한다. 제보자의 한 사람은 어렸을 적에 이름이 '개뗑이'인 이웃집 외아들을 "새 눈 깜깜 개뗑이 눈 한 짝"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② 관명(官名) : 갓난애에게 일단 임시로 애명을 지어준 다음에 집안 어른들은 관명을 새로 짓는다. 이 관명은 자기 집안의 항렬에 맞추어 돌림자를 넣어서 짓는다. 한학을 하는 집에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직접 짓기도 하고, 또는 종중 어른들이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네의 유식한 분에게 부탁하여 짓기도 한다. 근년에는 작명가에게 지어오는 경우도 많다. 족보와 호적에는 반드시 관명을 올린다.

(2) 兒名의 例

① 사내애의 경우 : 괴뗑이, 개뗑이, 소이뗑이, 돼야지, 뫼찌, 돼야지, 막동이

② 계집애의 경우 : 똥쟁이, 똥네, 깐난이, 갑네, 말랭이〔아들 바랄 때〕, 암피〔암컷을 피한다. 즉 아들 바람〕

6. 聖淵面 鳴川里의 地名·俗談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김종철(남, 6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명천리~피논뜰

명천리(鳴川里) : ㊎본래 서산군 성연면의 지역으로서 앞내가 여울이 져서 늘 물소리가 나므로 울내, 우르내 또는 명천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명리와 동음암면의 문기리 일부를 폐합하여 명천리라 하였다.

갓굴째 : 갓굴 남쪽에 있는 고개
낙마루 모탱이 : 관리가 말에서 떨어진 모퉁이
느리실 : 말우리 남쪽에 있는 마을
대뱅이(大芳里) : 말우리 서쪽에 있는 마을
등구미 : 명천 서쪽에 있는 마을
뒷굴 : 말우리 서쪽에 있는 마을
마명교(馬鳴橋) : 말이 뒹굴어 운 곳에 세운 다리
말등구리 : 말우리 서쪽에 있는 모퉁이인데, 말이 뒹군 자리라 함.
말바위 : 말우리 동쪽 문길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인데, 모양이 말같이 생겼음.
말우리, 마명(馬鳴) : 명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인데, 말우리째가 있음.
말우리째 : 말이 뒹굴어서 운 고개
매봉산 : ㊎명천 남쪽에 있는 산인데, 봉우리가 매처럼 생겼음.
명천교 : 명천리에 있는 다리
명천 배턱 : 명천리에 배가 닿았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막아서 없어졌음.
모과울 : 모과나무가 많은 마을
모사리굴 : 등구미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쪽 저쪽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
모사리째 : 모사리굴에 있는 고개
문구리보 : 문길산 앞에 보 막은 곳.
밭논뜰 : ㊎논은 논인데 말이 말라서 밭 같으니까 이렇게 부름. ㊎말우리 서쪽에 있는 들
배신골 : 배나무가 많은 마을.
배터 : 광복 전까지 배를 타고 인천, 서울 등지를 다니던 배 닿았던 터
삼거리 : 느리실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세 갈래 길이 있음.
상마리, 상말 : 말우리 북쪽에 있는 마을
서낭당 : 말우리재에 서낭당이 있던 자리
승전굴 : 勝戰을 했다는 마을
신발뿌리 : 조개, 게, 낙지 잡으로 펄로 들어가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 놓고 가는 부리
아홉모랭이 : 말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돌아가는 모퉁이가 아홉임.

우르내(鳴川) : 여울이 져서 늘 물소리를 울리는 내

장배미 : 아주 긴(長) 논배미로 삼거리 서쪽에 있음.

창말(倉—) : 조선 때 창고가 있던 마을

창마루(倉—) : 조선 때 창고가 있던 마루턱

창째(倉—) : 조선 때 원님이 구실을 받아서 모아다가 배에 실어서 바치던 창고가 있던 고개.

피논뜰 : 말등구리 서쪽에 있는 들인데, 피가 많이 나는 논이 있음.

2. 俗 談

조서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이억용(남, 71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창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조사내용 : 속담 (1)~(7)

◦두 말 자루에다 서 말 넣고 치썩거린다. (뜻) 자기 분수도 모르고 너무 까분다.

◦不可圖命이는 독 안에서도 못 피헌다. (뜻)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

※ 不可圖命 : 가히 목숨을 꾀할 수 없다. 즉, 죽을 목숨이다.

◦물른 감도 눌러 가면서 먹는다. (뜻) 매사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

◦십년 이방 부려도 안 보고 쳑을 짓느냐? (뜻) 사람을 첫 눈에는 알 수 없고 사귀어 보아야 안다

◦사람은 죽으면 입이 맥혀서 죽고, 귀신은 죽으면 정문이 맥혀서 죽는다.
(뜻) 어떤 경우에도 변명할 구실은 있다.

◦서슥쌀 집어 먹었남? (뜻) 잔소리를 잘한다.

◦베(벼)는 고물이 찰수록 머리를 숙인다. (뜻) 학문과 인격이 높을수록 사람은 겸잖아진다.

7. 地谷面 中旺里의 地名·信仰語

1. 地 名

조사일자 : 1986. 12. 26
제 보 자 : 유순환(여, 41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로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조사내용 : 중왕리~팔봉산

중왕리(中旺里) : ㊎본래 서산군 지곡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리와 왕산리를 합하여 새 里를 만들었다. 이름은 중리의 中과 왕산리의 旺을 따서 지었다.

개풍농장 : 원 막아서 농사짓고 있는 농장

그물아래 : 마을 주변 바다의 한 구역

농바위 : 바닷가에 있는 바위

당봉(堂峰) : 왕산리 북쪽에 있는 산인데, 당이 있음.

당째(堂—) : 당이 있는 고개

대비뚝 : 염전 막은 뚝

도마펄 : 마을 주변 바다의 한 구역

둥굿째 : 큰말 옆의 고개

뒷개 : 마을의 뒤에 자리잡은 개펄

마성개 : 새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개가 있음. '연개'라고도 함.

말리 : 마을 주변 바다의 한 구역

망울산 : 중왕리에 있는 산

뱃말 : 배가 닿는 마을

붕말 : 큰말 북쪽에 있는 마을

빈탑 : 왕산이 서쪽에 있는 마을

새섬 : 왕산이 서쪽에 있는 섬

안섬 : 뱃말 건너 있는 섬

앞창 : 마을 주변 바다의 한 구역

어림두리 : 왕산이 북쪽 바닷가에 있는 마을

에엄다리 : 어림두리 북쪽에 있는 마을

여우섬 : ㊎안섬 남쪽에 있는 섬인데, 모양이 여우같이 생겼음.

왕산이(旺山里) : 큰말 서쪽에 있는 마을

왕산이 배터(旺山里—) : 왕산이에 있는데, 인천 등지로 가는 배가 닿던 곳

왕산염전(旺山鹽田) : 왕산이 동쪽에 있는 염전

용모루 : 큰말 남쪽에 있는 마을

작은뚜지 : 큰 뚜지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

재섬 : 중왕리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딱 한 집이 살고 있음.

개섬앞 : 마을 주변 바다의 한 구역

창리(倉里) : 창고가 있던 마을

큰뚜지 : 개풍농장 북쪽에 있는 큰 마을

큰말 : 중왕리에서 가장 큰 마을

팔봉산 : 제보자 (윤덕구, 9세) "팔봉산은유, 그 옛날은유 구봉산이었는데유, 봉우리 하나에 새가 앉아 있었는데유, 그 새가 울어서 하늘에서 번개가 쳤대유. 기래서, 그 새하구요 봉우리가요 죽어 읎어졌대유. 그래서 팔봉산이 됐대유. 빈탑에 사는 내 친구한티 들었는대유 걔는 할아버지한티 들었대유."

2. 民間信仰語

조사일자 : 1986. 12. 25
제 보 자 : 윤양모(남, 4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민간신앙어 (1)~(7)

◦까그매가 울면, 어린애도 낳고 사람도 죽는다.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비 오다가 뻐꾹새가 울면, 비가 그친다.
◦귀부랄이 늘어져야 잘 산다.
◦귀문이 넓어야 돈 잘 쓴다.
◦足大쟁이는 도덕놈이다.
◦사람은 자기 태성(胎生)대로 산다.

8. 浮石面 倉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7
제 보 자 : 김교환(남, 38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창리~토끼섬

창리(倉里) : ㉮본래 서산군 회변면의 지역이었는데, 조선 때 丹師倉이 있었으므로 창말 또는 창촌이라 하였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창리라 하여 부석면에 편입되었다.

구장터(舊倉—) : 창말 북쪽에 있는 창고터

닭섬(鳥島) : 아니배 동쪽에 있는 섬.

대섬(竹島) : 창말 동쪽에 있는 섬. 대나무가 많음.

딘저굴 : 마을의 이름인데, 뜻은 모름.

목말(項村) : 창말 북쪽에 있는 마을

목쟁이 : 창말에서 목말로 넘어가는 잘룩하게 들어간 지역

벗굴 : 마을의 이름인데 뜻은 모름.

상고개 : 원래 '삼(3)고개'로 목쟁이에 있는 고개인데, 세 번의 굴곡이 있음.

시루섬 : ㊎시루처럼 물이 잘 빠지는 섬. ㊏창말 남쪽에 있는 마을. 지형이 시루처럼 생겼다 함.

아니배 : 창말 남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검조도'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육지와 연결되었음.

원저굴 : 마을의 이름인데, 뜻은 모름.

창리 염전터(倉里 鹽田—) : ㊏못말 남쪽에 있는 들. 전에 염전이 있었음.

창말(倉—) : 창리의 대표적 마을. '倉村'이라고도 함.

토끼섬 : 창말 남동쪽에 있는 섬. 모양이 토끼같이 생겼음.

9. 古南面 古南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7. 1. 6
제 보 자 : 이순근(남, 49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주 소 : 위와 같은 곳 1구 1239—5
조사내용 : 고남리~큰고장

고남리(古南面) : ㊏본래 서산군의 지역이었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태안군 안하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의점리, 영항리와 고장리, 누동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고남리라 하여 서산군 안면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4월 행정구역 일부 개정에 따라 고남면에 편입되었다.

감나무굴, 감나무골 : 고남리 안에서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인데, 감나무가 많았음. '柿木(시목)'이라고도 함.

고매 : 고남리 안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

노루땅 : "옛날이 거기 노루가 못자리를 잡아 주었다는 디가 바로 고 누루땅인데, 바로 그 산소가 있는 곳은 (조사자 : 누구네 산소요?) 그 편씨네 산소지요. 여기 안면도는 편씨가 유명헙니다. 바로 그 산소가 있는 곳은 바로 우리 고남 1구 땅입니다. 그 너머는 장곡

2굽니다."

삣떡골(碑石—) : "삣떡골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저기 작은고장의 꼭대긴데, 옛날에 이 옷점에 수군절도사 그 양반이 여기를 지나가셨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비를 수군절도사의 비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현재 즈이가 커서까정도 그 비가 있었읍니다마는, 중간에 6·25사변 후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장난을 치다가 그 비를 분지렀어요. 그래서 지가 아는 걸로는 현재 일부는 돌어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없어졌읍니다."

안면도(安眼島) : "여기 안면도가 왜 섬이 됐느냐 하며는, 그 조선 인조 11년인가에 끊은 거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옛날 선조님들이 계속 말씀을 허셔서 전해 내려왔고, 현재도 즈이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군청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끊은 것은 왜 끊었느냐며는, 지금 현재 저 아래 호남지대에서 정부루 바치는 곡물을 순전히 오늘날과 같이 육지를 통해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구 운반을 못했으니까 전부 배를 이용해 가지구 마포루 이렇게 들어 갔다고 해요. 그랬는데, 여기 우리 안면도에 이 요 밖이 나가면 장곡리 3구에 고 앞바가 굉장히 바다가 거칠어요. 거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닷속이 암반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구 배가 왕래하는데 물이 소용돌이치고 뭐허기 때문에 배가 파손이 잘 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교것을 저 아래에서 곡물을 실고 올라올 때게 거기에서 배가 복선이 돼가지구 가라안치구 좌초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 우리 천수만, 안면도 허구 육지허고 고 사이에 이렇게 천수만이 있어유. 그 천수만으로 돌어서 올러가머는 무난히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구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진 거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 당시 소요된 인원이 6,000명인가 얼마 된다고 해요. (조사자 : 듣기로는 이여송이 끊었단 말도 있고, 일본놈이 끊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아니예요, 그것은 전설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니고 조선 시대에 완전히 끊었든 거라고 헙니다.

근데, 인제 즈이가 어려서 들은 얘기루는 이런 전설적인 얘기두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하면, 가등청정이 와가지고 여기에 안면도로 지리적으로 볼 때 안면도를 끊지 않어가지고는 안면도에서 큰 장수가 나가지고 앞으로 일본이 즈이 일허는 데 지장을 준다 해가지구, 참 가등청정이가 끊으라고 해가지고 끊었다는 그런 전설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끊고 나서 뭐 그 바닷물이 핏빛으로 번했었다고 허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디,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조사자 : 그것은 누구한테 들으셨읍니까?) 옛날 노인들한테 들었지요."

옷점 : 옛날 이 근방에 청어가 많이 잡혔을 때, 이곳에 시장이 서서 어부들의 필요한 옷을 파는 상점이 있었던 마을

움골 : 고남리에 있는 마을

작은고장 : "요 넘어 현재는 작은고장이란 디가 큰고장보다 마을이 훨씬 큽니다. 근데, 옛날에 지가 어렸을 적이만 해도 큰고장이 훨씬 컸었읍니다. 워뜬 도사가 '앞이로는 작은고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세를 봐가지구 했다는디. 그래서 그런지, 작은고장이 도

로를 찌고 보니까 집이 전부 도로 주변으로 짓게 매련이드구만이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고장이 더 큽니다."

젓개 : 고남리 안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

큰고장 : "근디, 오늘날 큰고장은 지가 어렸을 때나 오늘날이나 집 호수가 늘지를 안했읍니다."

10. 安眠邑 黃島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 6
제 보 사 : 강한식(남, 51세, 상업,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주 소 : 위와 같은 곳 28번지
조사내용 : 황도리~황도

황도리(黃島里) : ㉮본래는 서산군 안면소의 지역으로 황도라 하였는데, 조선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태안읍 안상면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도리라 하여 서산군 안면면에 편입되었다. 뒤에 안면면이 안면읍으로 승격되었는데, 계속 그 관내에 있다.

솔섬, 松島 : 황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소나무가 많았고 6·25 전까지 왜가리가 살았음. 그러나, 왜가리 똥이 독해서 소나무가 죽어 버렸음.

옥섬 : 황도 앞바다에 있는 섬

은거지 : 황도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해가 늦게 뜨는 응달임.

죽도 : 황도 앞바다에 있는 섬

집너머 : 큰말 너머 있는 마을

큰말 : 황도에서 가장 큰 마을

황도(黃島) : 논이 없고 밭만 있는데, 보리가 익으면 누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부름. 1981년 連陸橋가 생겨서 육지와 연결됨.

11. 遠北面 梨谷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 7
제 보 자 : 김강수(남, 43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주 소 : 위와 같은 곳 2구 709
조사내용 : 이곡리~황새머리

이곡리(梨谷里) : ㉮본래는 태안군 북이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연곡리, 송곡리, 산이리를 병합하여 새로 里를 이루었다. 이름은 산이의 梨와 송곡의 谷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거칠이 : 주막께 동북쪽에 있는 마을
고랑축 : 거칠이 너머 북동쪽에 있는 마을
대섬(竹島) : 이곡리 앞바다에 있는 섬
민어도 : 이곡리 앞바다에 있는 섬
버깥골, 바깥골 : 주막께의 남쪽에 있는 마을
소릿굴, 소롯굴 : 주막께 서쪽에 있는 마을
송곡(松谷) : 옛날에 여기가 송곡리였으므로, 이곡리 근방을 통틀어 부르는 말
수청골 수청굴 : ㉯물(水)이 맑은(淸) 골짜기. ㉮ '水晶谷'이 원명임.
시거리 : 세 갈래 길이 있는 자리
연골 : 예전에 연곡리였던 자리
웃말 : 지형이 높은 곳에 자리잡은 마을
잿말 : 주막께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낮은 재가 있음.
주막께 : 주막이 있었다는 마을
중간말 : 웃말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로 웃말과 평지와의 중간이 됨.
짚은굴, 짚은개 : 수청굴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골짜기가 깊음.
한째 : 산에 있는 큰 고개
황새머리 : 산의 지형이 황새머리처럼 생긴 곳.

12. 南面 夢山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 8
제 보 자 : 문병욱(남, 30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주 소 : 위의 곳 1구 304
조사내용 : 몽산리~큰말

몽산리(蒙山里) : ㉮본래는 태안군 남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산리와 몽대리, 신월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서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몽대리의

蒙과 동산리의 山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개천 : 바닷가 염전했던 자리로서, 지금은 논임.

광대미 : 개천 가는 길목에 있는 산인데, 자갈이 많음.

구렬 : 윗말 남쪽에 있는 포구

굴뚝바위 : ㊎구렬 옆 바닷가에 있는 바위인데, 굴 붙으라고 굴뚝박을 놓아서 굴뚝바위가 됨. ㊍굴뚝처럼 생겼음.

덕바위 : 안목 남쪽 바다 속에 있는 바위. 옛날에 중국하고 교역할 때 바위에서 떡을 팔던 할머니가 있었으므로 '떡바위'였었는데, 변하여 '덕바위'가 됨.

동산(東山) : 몽산 1구 전체를 일컫는 이름

마침쩨(馬寢—) : "여기 동네 들어오는 고개가 마침쩨라는 딘디유. 그것이 옛날에 일본 군들이 주둔할 때 말이 잠자던 자리, 그래서 말 馬짜, 잘 寢짜, 마침쩨라고 헌다고 그러대요."

말미당굴 : ㊎"그리구 그 아래가 말미당굴인디, 언젠가 들어 보니께 아마도 '말무덤굴'이 변한 것이 아니겄느냐고들 허드만요." ㊍큰말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원명이 '望美'임.

몽대(蒙垈) : 몽산 2구 전체를 일컫는 이름. 조선 영조 때 고씨 할머니가 꿈(蒙)에 지시를 받고 몽대 문씨의 조상이 되는 아이를 업고 이곳으로 피난와서 터(垈)를 잡았다는 데서 유래함.

배다리 : 중촌말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논이지만 1937년까지는 배가 드나들었음.

석장구지 : ㊎배다리 밑부분으로 뚝을 막아서 새로 논을 만들었음. ㊍원명은 '석장곶'임.

소못골 : ㊍중촌말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소나무가 많았음. 원래 '松木골'임.

신장 : 큰길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신작로'에서 온 말로 생각됨(조사자).

안목 : 몽산포 서남쪽에 있는 목으로 작은 섬이 둘 있음. 썰물 때는 걸어갈 수 있음.

안산말 : 큰말 건너편에 있는 마을인데, 안산에 자리잡고 있음.

어통(漁—) : 고기잡으러 나가는 포구

열녀문(烈女門) : 이 마을에서 나온 열녀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문인데, 지금은 신장 쪽으로 옮겨져 있음.

원안 : 중촌말 서북쪽에 있는 넓은 논인데, 염전하기 위하여 원을 막은 안쪽임.

윗말 : 중촌말 위에 있는 마을

절터 : ㊍큰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절이 있었음.

죽뿌리 : 작은말 동남쪽에 있는 마을

큰말 : 몽산리 1구에서 가장 큰 마을

13. 大山面 獨串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6
조사내용 : 지명의 풀이는 주로 〈전국 지명 총람〉에 의하였다.

독꼿리(獨串里) : ㉮본래 서산군 대산면의 지역으로서 외따로 바다 속에 곶이를 이루었으므로 獨串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꼿리라 하였다.

논골 : 독꼿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논이 많음. '畓谷(답곡)'이라고도 함.

당뽕(堂峯) : 황금산의 북쪽 봉우리인데, 임경업의 초상화를 모신 사당이 있었음.

목벗 : 독꼿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형이 목 또는 벌로 되었음. '項筏(항벌)'이라고도 함.

샘벌 : 독꼿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샘이 있음.

용못 : 황금들 가운데에 있는 못으로 매우 깊어 용이 있다 함.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냈던 곳임.

황금굴(黃金窟) : 당뽕 북쪽 산기슭에 있는 굴인데, 예전에는 금을 파냈다고 함.

황금들(黃金—) : 황금산 밑에 있는 들.

황금사장(黃金沙場) : 황금들 동쪽에 있는 모래톱

황금산(黃金山) : 논골 서북쪽에 있는 작은 산

후망봉(候望峯) : 황금사장 앞바다 속에 솟은 작은 섬인데 경치가 좋기로 유명함.

14. 仁旨面 野堂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7
조사내용 : 지명의 풀이는 주로 〈전국 지명 총람〉에 의하였다.

야당리(野堂里) : ㉮본래 서산군 인정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야촌, 원당리와 둔산리, 당산리, 육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인지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야촌의 野와 원당의 堂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가운데말 : 윗말 남쪽에 있는 마을. '中村'이라고도 함.

개답 : 야당리에 있는 논인데, 새로 개간한 畓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름.

고래 : 원댕이 북쪽에 있는 들인데, 물이 좋아서 매우 검.

공장굴 : 들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구례논 : 소보 서남쪽에 있는 들인데, 매우 검.

농장촌 : 들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농장이 있음.

두내바지 : 들말 남쪽에 있는 내인데, 두 내가 합치는 곳임.

들말 : 야당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인데, '野村'이라고도 함.

뭉지터 : 원댕이 북쪽에 있는 마을

새말 : 들말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新村'이라고도 함.

서해 : 원댕이 북쪽에 있는 마을

성째 : 원댕이 북서쪽에 있는 고개

소보(小洑) : 새말 동쪽에 있는 보

아랫말 : 가운데말 아래쪽에 있는 마을

양지말 : 아랫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바른 곳인데, '陽地村'이라고도 함.

여수배기 : 장승배기 서남쪽에 있는 바위인데, 여수(여우)가 살았다 함.

여투내 : 원댕이 남쪽에 있는 내인데 얕다고 해서 이렇게 부름. 그리고, 그 근방의 들도 여투내라 함.

연양굴 : 원댕이 서남쪽에 있는 마을

영내 : '小洑'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내인데, '소보내'라고도 함.

원갯들 : 원댕이 동남쪽에 있는 들인데, 원래는 갯바닥이었다고 함.

원댕이(元堂里) : 들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에 원님이 당을 세우고 지냈다고 해서 이렇게 부름.

윗말 : 들말 위쪽에 있는 마을인데, '上村'이라고도 함.

장승배기 : 야당리에 있는 산인데, 장승이 서 있던 곳임.

저탈 : 고래 위쪽에 있는 들

항개 : 야당리, 모월리, 산동리와 서산읍 양대리에 걸쳐 있는 들인데, 개를 막아서 만들었음.

15. 近興面 程竹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8

조사내용 : 지명의 풀이는 주로 〈전국 지명 총람〉에 의하였다.

정죽리(程竹里) : ㉮본래는 태안군 안흥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산리, 신기리, 죽림리, 성동리, 성남리를 병합하여 서산군 근흥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정산리의 程과 죽림리의 竹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가래미 : 죽림 서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 난리 때 한 사람이 갈대 속에 피신했는데 적병이 갈대 소리만 난다고 돌아 가버렸다는 데서 유래됨. '갈음', '노음(蘆音)'이라고도 함.

갈미봉 : 가래미 서쪽에 있는 산인데, 갈모처럼 생겼다고 함.

갈음이뿌리 : 가래미 서쪽에 있는 부리

갈음이 앞개 : 가래미 앞에 있는 개

구억말(九億村) : 죽림 동남쪽 구석진 곳에 있는 마을

남문밖 : 안흥산성 남문 밖에 있는 마을인데, '城南'이라고도 함.

납탁굴 : 죽림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납(원숭이)이 살았다 함. 또는 납 모양의 탑이 있었다 함. '鉛塔谷(연탑곡)' '申基' '黃谷'이라고도 함.

대숫구주 : 안흥산성 동문 밖에 있는 마을인데, 대가 많음. '城東'이라고도 함.

돌삼재 : 샛굴에서 대숫구지로 넘어가는 고개, 또는 그 고개 밑에 있는 마을

밧가래미 : 가래미 바깥 쪽에 있는 마을

산지당(山祭堂) : 정산포 동북쪽에 있는 산제당

샛굴 : 중림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성동과 죽림 사이에 있음.

성동산(城東山) : 성동 뒤에 있는 산

성안(城內) : 안흥산성 안쪽에 있는 마을

쉰질바위 : 지령산 남쪽 봉우리에 있는 바위인데, 높이가 쉰 길이나 된다고 함.

안가래미 : 가래미 안쪽에 있는 마을

안개 : 안가래미 북쪽에 있는 개인데, '內浦'라고도 함.

안항, 안흥(安興) : 정죽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안흥목 : 안흥항에서 신진도로 가는 목. 원래는 물길이 아주 험해서 '難行목'이라 하였는데, 이름이 좋지 않다 하여 안전(安)하게 일어나라(興)는 뜻으로 '安興'으로 고쳤다 함.

안흥산성(安興山城) : 안흥 북쪽 뒷산에 있는 돌성인데, '安興鎭城'이라고도 함.

안흥항(安興港) : 안흥 앞에 있는 항구

오리정터(五里亭—) : 안흥 동쪽 5리에 있었던 정자의 터

외정산(外定山) : 정산포 서남쪽 밖에 있는 마을터

용난 구녕 : 남문밖 북쪽에 있는 굴인데, 용이 나왔다 함.

장서(長嶼) : 남문밖 동남쪽에 길게 떨쳐있는 섬

장서 서낭당(長嶼—) : 장서에 있는 서낭당

정산포(定山浦) : 죽림 북쪽에 있는 포구 마을

정산포뿌리 : 정산포 서쪽에 있는 부리
죽림(竹林) : 안흥 동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대나무가 무성함.
지령산(芝靈山, 智靈山) : 죽림, 납탑굴, 정산포, 가래미 사이에 걸려 있는 산
태국사(泰國寺) : 성동산에 있는 절
황도(黃島) : 가래미에서 600m 북쪽에 있는 작은 섬

16. 泰安邑 平川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8
제 보 자 : 손정환(남, 45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평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조사내용 : 평천리~황정말

평천리(平川里) : ㉮본래 태안군 군내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천월리 일부와 동이면의 평촌리, 천월리와 평신리, 옥항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한 里를 이루어 서산군·태안면(읍)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평신리의 平과 천월리의 川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그막촌 : 바닷가에 자리잡은 마을
내월 : 안말 서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인데, '川月, 川越'이라고도 함.
동쪽말 : 안말의 동쪽에 있는 마을
뒷골말 : 안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서쪽말 : 안말의 서쪽에 있는 마을
안말 : 평천리 3구에서 으뜸가는 마을
작은내 : 평천리의 서쪽에서 뒤로 돌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내
큰내 : 평천리의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내
황정말 : 뒷골말의 북쪽에 있는 마을

17. 八峰面 陽吉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6. 12. 29
제 보 자 : 양근모(남, 4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의 곳 2구 680
제 보 자 : 정정영(남, 4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주 소 : 위와 같은 곳 2구 478
조사상황 : 전반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양근모씨가 많이 협조해 주었는데, '장군대지'에 대해서는 정정영씨가 이야기해 주었다.
조사내용 : 양길리~한째밀

양길리(陽吉里) : ㉮본래 서산군 문현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양리와 우길리, 방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한 里를 이루어 팔봉면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사양리의 陽과 우길리의 吉을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가래기 : 왜양말 남쪽에 있는 마을

되챙이 : 벌말 동쪽에 있는 마을

두멍굴 : 왜양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모양이 두멍처럼 생겼음.

둥멩이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

매봉째 : 매봉으로 넘어가는 고개

바위배미 : 장뻘뽀 남쪽에 있는 논인데, 논 가운데 바위가 박혀 있음.

방굴 : 왜양말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밤이 많음. 원래는 '밤굴'임.

발전모랭이 : 양지편 북쪽에 있는 모퉁이인데, 밭 옆으로 돌아감.

벌말 : 왜양말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

벽시 : 도챙이 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질그릇 굽던 곳임.

빗돌머리 : 두멍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빗돌(군수 송덕비)이 서 있음.

새양골 : 양길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인데, 좋은 샘이 있어서 원래는 '샘골, 사암골'로 불렸음. '샘골'말이라고도 함.

산밀 : 왜양말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팔봉산 밑에 자리잡고 있음.

산밀내 : 산밀으로 흐르는 내

삼형제배미 : 세 논배미가 나란히 이웃하고 있는데, 생김새도 똑같고, 마지기수도 똑같아서 이렇게 부름.

솔따배기 : 매봉째 너머의 마을

아홉마지기 : 둥멩이 동쪽에 있는 논인데, 한 논이 아홉마지기 크기나 되며 땅도 걸어서 근방에서 가장 좋은 논임.

양지편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음.

옻나무골 : 산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옻나무가 많았음.

왜양말 : 새양골 서쪽에 있는 마을

잘뫼 : 왜양말 서쪽에 있는 마을

장군대지(將軍垈地山) : 가래기 남쪽에 있는 산. "저짝으로 가면 거기에 장군 대지라고 있는디, 장군이 났었대요. 그랬는디, 어머니가 빨래를 허구서 방을 딜여다보니께 어린애가 천장에 붙었다가 방바닥으로 내려가구 해서 이거 접난다구 기양 (조사자 : 애기가 날개가 달렸나요?) 날개가 달린 게 아니구 어린애가 뭐, 다리가 한 짝 없고 팔이 한짝 없는 장군을 났었다구 그래서요. (조사자 : 힘이 좋았나요?) 힘이 존 건 없는디 천장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께 접난다구 이 다리미독으로 눌러서 직였는데, 야중에 알어보니께 장군을 직였다고 그래서 장군대지라고 그런대요. (조사자 : 그 근방에 말이 났었나요?) 말이라는 건 몰르구 저 용마바위가 있어요. 저 양길리 3구 가면 거기가 그 말발짝이 백였다고 용마바위란 게 있이유. 그런데, 그게 그 장군이 탈라구 그게 용마 말발짝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지유. (조사자 : 그 용마가 그 바위를 밟고 갔답니까?) 예, 그 용마가 밟구 갔다구 해서 용마바위라구 지금도 바위가 있이유. (조사자 : 용마가 그 산에서 났나요?) 아니 그 건너 산이쥬. 바로 그 건너 산의 용마바위가 있이유."

장뻘냇갈 : 장뻘 옆으로 흐르는 내

큰골 : 풍륜산에서 제일 깊고 큰 골

평밭 : 양길리에 있는 밭인데, 평평하고 너름.

풍륜산 : 마을 앞산으로, 팔봉산의 한 줄기임.

한째 : 양지말 서쪽에 있는 큰 고개

한째밑 : 한째 밑에 있는 마을

18. 所遠面 波濤里의 地名

조사일자 : 1987. 1. 5

조사내용 : 지명의 풀이는 주로 〈전국 지명 총람〉에 의하였다.

파도리(波濤里) : 본래 태안군 원일면의 지역이었는데, 삼면이 바다이어서 늘 파도소리가 나므로 파도리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금, 웅치, 강촌을 병합하여 새로 한 里를 이루어 서산군 소원면에 편입되었다.

곰섬(熊島) : 샘너머 북쪽에 있는 작은 섬

구버배, 구버바위 : 파도리에 있는 마을인데, 굽은 바위가 있음.

꼬챙이뿌리 : 쉬우치 서쪽에 있는 부리인데, 모양이 꼬챙이처럼 생겼음.

꼬챙이섬 : 꼬챙이뿌리 서쪽에 있는 섬

노가닛벌나루 : 샘너머 동쪽에 있는 나루터인데, 노나주나무가 많이 있었음.

당째(堂—) : 웟말 남쪽에 있는 산인데, 당이 있어서 제사를 지냄
대푸너 : 아치내 남쪽에 있는 섬
동산(東山) : 파도리 동쪽에 있는 산
망산(望山) : 웟말 북쪽에 있는 산
범동굴 : 중원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샘너머 : 생끼미 너머에 있는 마을
생끼미 : 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인데, 큰 샘이 있음.
쉬우치 : 큰아치내 서쪽에 있는 산
아랫말 : 파도리 아랫쪽에 있는 마을
아치내 : 큰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형이 장끼처럼 생겼음. '雄雉(웅치)'라고도 함.
아치내들 : 아치내 동쪽에 있는 들
웟말 : 파도 위쪽 어귀에 있는 마을
작은 아치내 : 아치내의 작은 마을
중원말 : 아랫말 동쪽에 있는 마을
초평(草坪) : 아치내 동쪽에 있는 들. 전에는 풀갓이었으나 지금은 논이 됨.
큰말 : 파도리에서 가장 큰 마을
큰 아치내 : 아치내의 큰 마을
화섬 : 웟말 동쪽에 있는 작은 섬
화섬나무 : 화섬 서쪽에 있는 나루터

19. 梨園面 蒲地里의 地名

1. 地 名

조사일자 : 1987. 1. 7
제 보 자 : 이능진(남, 5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반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464
조사내용 : 지명의 풀이는 주로 〈전국 지명 총람〉에 의하였다.

포지리(蒲地里) : ㉮조선 때는 태안군 북일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굴향리, 내포리, 외포리와 이원면의 분지리를 병합하여 한 里를 이루어 서산군 이원면(梨北面에서 1987년 1월자로 개명)에 편입되었다. 이름은 포리의 蒲와 분지리의 地를 따서 합하여 만들었다.

가제산 : 분지 남쪽에 있는 산인데, 모양이 가제 같음.

구랭이, 구룡리 : 자리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지형이 구렁이 같음. '掘香(굴향)'이라고도 부름.

구랭이뿌리 : 구랭이 동쪽에 있는 부리

대섬(竹島) : 구랭이 북쪽에 있는 섬인데, 대나무가 많음.

돌뿌리 : 분지와 바깥자리골 사이에 있는 모퉁이

막은개 : 분지 서쪽에 있는 개인데, 막아서 뚝을 만들었음.

말새기재 : 바깥자리골에서 사창리로 가는 고개

바깥자리골(外蒲洞, 外蒲里) : 자리골 바깥쪽에 있는 마을

분지(分地) : 자리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

분지앞뜰 : 분지 앞에 있는 들

분지장 : 분지에 있는 시장터

속샛들 : 포지리에 있는 들

아갈바위 : 가제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인데, 모양이 아가리처럼 벌어졌음.

안자리골(內蒲洞, 內蒲里) : 자리골 안쪽에 있는 마을

양방골 : 자리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

원골 : 원청이 남쪽에 있는 마을

원청이 : 자이골 남쪽에 있는 마을

자리골(蒲洞) : 포지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인데, 자리를 많이 생산하였음.

장방골 : 막은개 옆에 있는 골짜기

장승재 : 쪽다리골에서 당산리로 가는 고개인데, 장승이 있었음.

지승골 : 자리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

지암재 : 분지에서 바깥자리골로 가는 고개

쪽다리골 : 분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쪽다리가 있었음.

차독재 : 구랭이에서 원북면 이곡리로 가는 고개인데, 차돌이 많음.

포동앞들 : 포동 앞에 있는 들

四. 說　話

崔　雲　植

가. 傳　說

1. 소탄산 밑의 연못배미

T 서산읍 덕지천리 ①—A면

***줄거리**

충남 서산군 서산읍 수성리에 소탄산이 있는데, 전에는 그 아래에는 큰 연못(약 400평)이 있었다. 전주 이씨 한 사람이 지관에게 부탁하여 소탄산에 좋은 묘자리를 잡은 후에 묘를 쓰고는, 지관에게 약속한 수고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지관은 그 이씨에게 산밑에 있는 연못을 메우면 금방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소금을 넣고 연못을 메우자 용이 죽었다. 후에 그 집안은 망했다.

소탄산 밑에 연못이, 연못 배미가 있어. 내가 사서 추수까지 받아 먹었어. 구루배 이씨네가 망허니께 논을 해서 팔아 먹었어.

그전에, 구루배 이씨네 한 사람이 지관을 시켜서 보니께, 소탄산 밑의 꼭두쟁이(각설이패)네 집 뒷머리가 모이자리가 참 좋거든. 그래, 거기다가 모이를 써야것는디, 집안에서 하 야단을 헤서 쓸 수는 없구 허니께, 몰래 거기다 모이를 썼단 말여. 그런디, 지관이 피백(폐백, 사례비)를 달라구 허니께, 30원을 작정했는디, '지가 모이를 파가랴'허구 안줬어. 시번(세번)을 달라구헤두 안 주니께, 지관이 '야, 이눔 좀 망허게 헤야것다!' 허구서 그집으루 갔어.

"야, 누이 집이 대번 불같이 일어나게 헐 재료가 있다. 너, 그때도 돈 안 주면 안된다."

"아, 드리구 말구유."

"너 방죽을 메라(메워라). 메는디, 그 방죽에 용이 들었어. 용이 들었는디, 그걸 인력으루 멜라구 허다가는 사람이 많이 다친다. 그러니께 유리, ——지금으루 말허면 사기지. ——사기를 잔뜩 깨뜨려서 그늠을 갖다가 느면서, 소금을 멫 백 가마를 갖다가 메라."

아, 쬐끄만 방죽이다가 소금 멫 백 가마니 풀구, 자갈, 유리 깨진 걸 전부 갖다가 풀었단 말여. 그러구, 거기다 들구 흙을 져다 부니 워터져. 아, 용이, 그 유리서 몸이 전부 벼

지지, 민물에서 누웠던 용이 짠물이 들어오니 구찮지. 그러니께 용이 냅다 뒤틀구. 그래서, 용을 잡았다는 겨. 용이 죽으니께, 그 지관이 가면서,

"누이(너희)가 인저 망했으니께 그런 줄 알아라 "

그랬다.

그러구서, 그 모이가 절손(絕孫)이 되었어.

채록 일시 : 1986. 12. 21. 낮 12 : 45—50
구 연 자 : 김 정헌(남, 80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157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덕지천리 이장의 안내로 구연자 김씨의 집을 찾아가 그 집 안방에서 마을 노인 3명, 이장, 조사반원 2명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이 지역의 전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물은 다음, 소탄산 및 가야산의 전설을 알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장이 권면하여 꺼낸 이야기이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구연자는 이 마을에서 4 대째 사는 노인인데,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다 함.
선 화 력 : 가끔 하였음.

2. 강당리 절의 스님과 에밀레종

T 서산읍 덕지천리 ①—A면

***줄거리**

충남 서산군 운산면 강당리의 가야산 중턱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옛날, 그 절의 주지스님이 매우 욕심이 많아서 많은 사전(私田)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얻어 먹으려 다니는 소년이 꽃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상좌로 삼았다. 주지가 죽자, 그 절의 중들은 주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상좌를 구박하였다. 상좌는 그 절을 떠났다가 주지의 제삿날에 다시 돌아왔다.

상좌가 팥죽 한 동이를 마루 밑에 가져다 놓고,

"스님, 나오셔서 이것을 잡수십시오."

하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 팥죽 한 동이를 다 먹었다. 상좌는 그 구렁이를 메리고 건너편 산에 있는 쉰길바위 위로 올라가 아래로 떨어뜨려 죽였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거두어 어떤 집의 아들로 태어나게 했다.

그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부처님께 바쳐 종을 만들 때 그 속에 넣어 만들게 했다. 그 종이 에밀레종이다.

서산군 운산면에 강댕이(강당리)라구 있어. 강댕이, 강댕이절이라구 있었댜. 그런디, 거기가 그전에 중이 월마나 살었던지, 쌀 씻는 물이 30 리에 흘렀댜. 지금두 거기 가면 절터가 있다는디, 난 아직두 강댕이는 못 가봤구먼. 운산면 강댕이, 개십사 뒤쪽이여. 그 절이 말이여, 강댕이 절이 수십년, 수백년을 되는 절이여. 그래서, 그저 뭐이가 많이 네려가는디, 거기서, 그 중이 하나 있었는디, 한 천 석 했어. 중이. 추수하는 게. 저, 절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사사로이 받는 게.

그런디, 상좌를, 상좌라는 것은 순전히 양아들이라는 거야. 우리 사가로 따지면 양아들이라는 건데, 상좌를 두어야 할 텐데, 당체 둘 놈이 없어. 그런디, 하루는 절 배깥에 나가니께 웬 비렁거지애가, 한 열 댓 살 먹은 애가 꽃을 들여다 보고 섰단 말여.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보니께, 저눔이 꽃만 그냥 들여다 보지, 자기가 가는 것도 물르거든. 그레서,

"얘야!"

"왜 그러세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세요, 스님?"

"너 왜 꽃을 들여다 보구 섰니?"

"꽃이라는 건 참선 아닙니까?"

참선이라는 건 불도에서 자기 정신 모은단 소리지.

"그려, 너 배고프지 않으냐? 시장하지 않으냐?"

"아뇨."

"너 시장하것다.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절에 데리구 가서, 밥을 해 먹이구, 중의 장삼으루 다 싹 입혀 놓으니께, 아 중새낀디, 특별한 중 새끼란 말여. 그래서, 걔를 상좌를 삼았어.

"내가 재산이 잔뜩 있으니께, 너 먹구 사는 건 일 없다. 그러니께, 여기 있거라."

그래서, 절에 데리구 있는디, 그 스님이 월마 안 가서 작고 하셨단 말여. 작고헤서, 중들이 저 놈이 아니면 그 중의 재산이 절 재산이 될 텐디, 저눔 때미 당체 안 되것거든. 그게 상속자란 말여. 그레서 구박을 하니께,

"야, 이늠의 절에서 구박을 받을 거 없시 나간다."

하구, 얼마큼 나갔던지 나가서 참선을 헤서 도통을 했어.

자기 스님 죽은 날짜가 되니, 절에 가서 우리 스님 제사나 지낸다구 가니께, 그날 지사 준비는 하는디, 중들이 보니껜 그 상좌가 온단 말여.

"저눔 새끼 살았네. 죽은 지 알았더니, 저눔 때미 큰일났네. 그런디, 저눔 워떻게든지 우리 학대허세."

"야 이눔아, 너 요녀석 불기(佛器) 닦어."

불기, 산같이 쌓아 놓은 불기를 닦으라니, 닦을 재주가 있나, 혼자서.

"닦을 테니 걱정 마슈."

"야 이눔아, 시간 되고, 임마 불기 닦어."

"닦을 테니 걱정 마슈."

그런디, 이제 제사 지낼 때가 됐는디, 아 바지게하구, 소스랑허구 떡 지고 오더니만, 불기광을 떡 열드니, 소스랑으루 불기를 콱콱 찍어서 바지게에다 담어. 그런디, 콱콱 찍히는디, 불기구녕은 안 져. 그런디, 들고 찍어서 한바지게 져다 방죽에다 와르르 붓고 오고, 오고, 이렇게〔손짓〕 많은 불기를 다 찍어다가, 지게로 져다가 방죽에다 붓는단 말여. 그래서 중들이

"너 불기를 갖다가 방죽에다 부었으니 워치게 헐 테냐? 지금 불기를 올려야 헐 텐디."

"걱정 마쇼."

가서 소스랑으루 위적뒤적 드리밀으니 닦어지는디, 아주 참 기기묘묘, 사람도 미치게 닦어 졌어.

도로 져다 놔서, 그걸로 지사를 지냈는디,

"너 왜 지(祭) 참례 않니?"

"나 지 참례하게 팥죽 한 동이 쒀 주쇼."

팥죽 한 동이 쒀 주니께,

"너 뭣 헐려구 그러니?"

"내 걱정 말구 팥죽 한 동이 쒀 주쇼."

팥죽 한 동이 쒀 주니께, 이눔이 떡 들고 가더니, 그 절 부처님 모신 말레(마루), 큰 대청 밑에다 떡 놓더니,

"스님, 나오쇼 나오쇼."

자꾸 그러거든.

"저런 미친 놈 봐. 왜 대청 밑에다 대구 스님 나오시라구 그러냐."

그런디, 결국 가만히 두고 보니께, 나오는데, 큰 구렁이가 나온단 말여. 나오더니, 팥죽을 뜰뜰 먹는단 말여. 후룩후룩 들구 만신단 말여. 그래, 워째서 그러나니께, 그 스님이 천 석이나, 중으루서, 산골서, 삼백 석이나 오백 석을 받자면 여간헤서 받것느냐. 그 너무, 중의 행동을 떠나서 사욕을 취했다는 거지. 시주허는 사람들 돈 뺏고, 거짓말 허구서 돈 뺏구서 재산 모든 거니께, 구렁이가 됐어. 죽어서 구렁이가 돼서 말레 구녕, 대청 구녕서 을어 먹지두 못허구 있어. 그래서, 팥죽 한 동이 먹으니까, 구렁이 배가 팥죽 한 동이 만하지.

그러더니, 호차리를 딱 꺾어 갖구 오더니, 구렝이를 떡 대리더니,

"갑시다. 스님은 갈 데가 있으니, 가시요, 가쇼."

그래서, 몰고 나가더니 쉰 길 바위, 쉰 길 바위 있지 않은가베. 쉰 길 바위 꼭대기.

"스님, 일루 올라가쇼. 올라가쇼."

올라가 엎드렸지. 허라는 대루. 그러니께, 그늠이라 발길루 툭 차서 쉰 길 바위 밑에 떨어졌거든. 팥죽을 한 동이 먹었으니께 배가 툭 터져 죽었단 말야. 구렁이가 죽었는디, 혼을 뺏었어 그늠이라. 도통한 놈이니께. 뺏어 갖구 가서, 그 어느 집에, 동네 들어가더니만,

"스님일랑 이집으루 들어가슈."

들어가서 보니께, 그 집이 아들이 읎어서 밤낮 절에 다니면서 위했는디, 아들을 못 낳는디, 거기다 넣어 줬단 말여. 그러니께 아들을 낳았어. 이제 그 달부터 태 있어 아들을 낳았는디, 그 아들을 워치게 됐나 하고 이눔이 가봤단 말여. 한 삼 년 뒤 가니께, 자박자박 걸어다니거든.

"얘 나 주쇼."

"여보시오, 나두 말년에 그 아들 하나 난 걸 당신 주다니 어림없는 소리 마쇼. 안된다구."

"여보, 쓸데없는 소리 말구, 나 주지 않으면, 나 가서 십리도 못 가서 이애 죽어. 그러니께 나 주쇼."

그러니께 주는디,

"그러면, 당신 돈을 내쇼."

"예, 돈을 주리다. 청구허쇼. 월마나?"

그레, 월마라구 허니께 흐랑(호주머니)에서 돈을, 그 사람들, 도통한 놈이야 자갈로도 돈을 맨들 테지. 한 주먹 꿰 줬단 말여. 그러니께, 아일 바꿨어. 아일 바꿔서, 그렇게 해서 바꿔 가지고 가는디, 오메가 쫓아오노. 쫓아와서 붙들고 놓아야지.

"당신 돈 줬는디 왜 안 놓느냐?"

그러니께,

"절대로, 생각해 보니께 안 되것다구. 애 아버지 오거든, 후제(훗날) 오쇼."

그래서 도로 뺏어갔단 말여.

뺐어 갔는디, 강댕이 절을 수축해야 할 텐디, 새로 고쳐야 할 텐디, 재산이 읎어. 그 증들이 시주를 하러 다니는디, 시주를 모시러 다니는디, 그 집에 갔던 모양이지.

"여보쇼, 당신 숟가락도 좋구, 거 암거나 쇠붙이 있걸랑 시주 좀 하쇼."

하니께,

"암 것도 없구"

촛삭촛삭 그 어린애를 안고 흔들면서,

"나 우리 아들밖에 읎수다."

"그럼 그 애기 주쇼."

그래서, 그 아들 주니께 갖구 왔단 말여. 그래서, 에밀레종이라는 것이, 그 시주주가 종을 맹글 적에, 그앨 넣구서 과서 종을 맨들어서, 오머니 탓이어서 '에밀레 에밀레' 하는디, 즈이 오머니가 잘못해서 했다는 겨. 그래서, 강댕이 절이 유래가 그 거였다는 거여.

〔채록자 : 그 에밀레종은 어떤 에밀레종인가요? 강당리절에 에밀레종이 있었단 말인가요?〕 아녀, 그 뭣이 이름난 종 있잖어. 〔채록자 : 경주 박물관에 있는 그 에밀레 종말인가요?〕 잉, 그려.

채록 일시 : 1986. 12. 21. 낮 12 : 50—54
구 연 자 : 김 정헌(남, 80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먹지천리 157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3. 선녀가 데려간 아기장수

T 서산읍 먹지천리 ①—A면

***줄거리**

오남리에 사는 박씨부인이 산월에 꿈을 꾸었는데, 선녀가 나타나 아기를 가져가겠다고 하였다. 꿈을 깨어 보니, 배가 홀쭉 해졌는데, 아기는 간곳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 아이는 장수인데, 십 오 년 후엔 나타나 큰 일을 할 것이다."고 하며 장수의 출현을 기다렸으나 아직 소식이 없다.

서산읍 오남리에 장수 난 집이 있는디, 우덜이 걸립 다닐 때 그 집을 써억 들어갔거든유. 그러니께, "이 집이 그 집이라구 조심해서 허라구." 그러유. 들어가서 보니께, 안이서 얼굴이 야위어서 볼 수가 읍시유.

그런디, 원군(워낙) 슨연 선연 하대유. 애기를 낳은 것은 슨연허대유. 그런디, 이적지까장(지금까지) 무슨 소리가 업시유. 우리 형님두 가끔 그 애기를 허는디, "그 양반이 십 오 세 되며는 한국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디, 여태까지 참았어두, 아마 한 삼십 년, 사십 년두 넘었을 거여. 〔옆의 김 정헌 노인이〕 그게 박씨여. 〔채록자 : 그 애기를 좀 더 자세히 해 주시지요.〕

성씨가 박씨인디, 그이가 애기 낳을 달이 됐는디, 꿈을 꾸니께 워떤 선녀가

"네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

그러더래유. 그레, 꿈을 깨구나니께, 배가 홀쭉허더래유.

그래가꾸선, 그 때, 그 집이서는,

"이거 참 기묘헌 일이다. 장수가 태어난 것이다. 이 애기가 십 오 세만 되면은 우리 나라에 장수가 태어나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디, 우리덜두 지켜 보는디, 아무 일도 읍시유. 선녀가 산모에게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구 했는디, 그 말을 해서 그렇대유.

조사 일시 : 1986. 12. 21. 낮 12 : 55—58
제 보 자 : 김 황윤(남, 68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같은 마을의 김 정헌씨 댁 안방
채록 상황 : 덕지천리 이장의 안내로 같은 마을의 김 정헌씨댁을 찾아가니, 구연자와 김 정헌(80세)씨, 김 용탁(70세)씨 등이 담소하고 있었다. 김 정헌씨의 전설을 채록한 다음, 조사자가 아기장수와 용마 전설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구연자가 자청해서 구술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위 세 사람 외에 이장, 조사반원 2명, 동행학생 2명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들은 것이다.
설 화 력 : 이 이야기는 구연자가 젊어서 마을 사람들과 농악을 울리면서 걸립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며, 가끔 이야기했다고 함.

4. 아기장수와 용마

T 서산읍 덕지천리 ①—A면

***줄거리**

오남리의 박씨부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비범한 아이였다. 그런데, 용마 한 마리가 와서 "그 아이를 내가 데려간다." 하고는 데려가려고 하므로, 아이의 엄마가 안된다고 하니까, "15년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는 데려갔다. 그러나 아직 소식이 없다.

고방다리 건너 박씨부인이 역태산해서 아이를 낳는디, 아이 낳을 시간에 용마가 와서 막 울고 그래더래야. 그러면서, "아이를 내가 데려간다."고 하더랴.

아이가 안 나오구 해서, 산모가 죽게 됐는디, 어린애를 낳아 놓구 보니께 역태산을 했어. 그런디, 아이가 이상해서 낳아서 다듬이돌루 눌러서 웃목에다 눌러 놨는디, 아이두 웁서지구, 용마두 웁서지구 그랬는디, 오메가 아이를 안 줄려구 허니께,

"15 년 후에 만나자."

구 그러더랴. 그래서, 해방 후에는 만날 줄 알았지, 8.15 후에는. 여기 사람덜은 다 그렇게 기대했다구. 그런디, 아무 소식이 웁서.

채록일자 : 1986. 12. 21. 낮 12 : 59—13 : 01
구 연 자 : 김 정헌(남, 80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덕지천리 157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채록 상황 : 위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앞의 김 황윤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한 것임. 그런데, 구연자는 이 때 술이 취하였으므로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5. 장요리의 형제 고목나무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에는 고목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위에 있는 나무를 형, 아래에 있는 나무를 아우라고 한다.

전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형나무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아우나무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고목나무에 잎이 필 때, 잎이 위에서부터 피면 상답(上畓)부터 모를 심었고, 아래부터 잎이 피면 하답(下畓)부터 모를 심었다고 한다. 그리고 위와 아래 똑같이 잎이 피면은, 그 해에는 물이 넉넉하여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이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동티가 난다고 하여 다치지 않고 있으며, 나뭇 가지가 말라서 고목이 되어도 베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한다.

장요리에는 고목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유, 형제가 있는디, 그런께 인저, 제사를 잡술 적에 형버텀 대접을 허고, 그 다음에 아우를 대접했다는 전설이 있읍니다.

그 나무는 일년 연간에 풍작을 이루고, 비가 올 때, 잎이 필 때, 밑에서 먼저 피면은 하답부터, 밑의 논부터 모를 심고, 위부터 피면은 상답부터 심고, 다같이, 똑같이 피면은 동일하게 물이 풍작이어서 풍년으로, 이렇게 부락에서 알고 있읍니다.

〔조사자 : 어느 것이 형 나무인가요?〕〔위쪽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위에 것이 형나무이고, 아래 것이 아우입니다.

〔조사자 : 요 두 나무 사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백 미터 쯤 될 것입니다.

〔조사자 : 제사는 안 지내나요?〕 제사는 옛날에는 모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니하고 있읍니다.

〔조사자 : 이 나무를 베어다가 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나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이 나무를 베어서 쓰면은 동투가 생기고, 화가 있다고 해서, 이 나무를 다치지 않고, 썩어도 그대로 둡니다.

〔조사자 : 썩은 나뭇 가지로 갖다가 때면 안 되나요?〕 예,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부락에서는 나무를 안 베구, 가지두 고목이 되어두 그 나무를 안 갖다 때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 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의 형제고목나무 아래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고북면사무소에 들러 박 동원 부면장, 총무계장과 장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총무 계장의 소개로 그 때 마침 면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와 있던 전 이장인 구연자 명씨를 만났다. 명씨의 안내로 장요리에 와서, 형제고목나무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청 중 : 동행한 김 태곤교수와 함께 들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6. 지덕 놀은 집터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에는 200여 년 묵은 기와집이 있다.

예전에 그 집에는 밤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그 집을 다 부수는 소리를 내는 등 장난이 심하여 그 집의 주인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곤 하였다고 한다. 대가 센 사람 하나가 이 집에 들어와 산 다음부터는 도깨비들의 장난도 없어졌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그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

〔오래된 기와집을 가리키며〕 저 집은 옛날에 지덕 놀았다는 집입니다.

옛날에 사랑에서 뭘 헐라고 하면요, 바깥에서 막 굿을 허구 그래가꾸서, 사람이 잘 살 수가 없었대유. 그래서, 주인이, 전네가 대가 센 사람이래야 그 집을 지켜나갔다는 얘기지유. 그래서, 이 집터가 그런 전설이 있어유.

〔조사자 : '지덕 놀았다.' 지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덕이란 것은 옛날에 도깨비덜이 와 가지구서는 집을 막 때려 부수는 것 같았대유. 그래 가지구서, 이 집의 터가, 말허자면, 쎄다는 얘기지유. 그래 가지구서, 그 집 주인이 강한 분이 와야 이 집을 지켜 나갔다는 얘기지유. 그래서, 딴 분이 와 가지구서, 이 집을 지켜 나가 가지구서 부자가 됐지유, 이 집이. 현실에, 지금 우리두 아는 얘기지유.

〔조사자 : 지덕은 밤에만 놀았나요?〕 밤에만 논대유.

〔조사자 : 이 집이 비어 있은 적도 있나요?〕 집이 비어 있은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못 살았대유.

〔조사자 : 지금 사는 사람은 잘 사나요?〕 잘 살지유.

〔조사자 : 오래 되었나요?〕 오래 됐지유. 이 동내에서, 한 200 년 되었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 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의 지덕 놀은 집 앞에서
만나게 된 경위, 청중, 처음 들은 때, 처음 들려 준 사람 : 위 이야기와 같음.
채록 상황 : 구연자와 함께 형제 고목나무를 둘러보고, 예전에 지덕 놀았다는 집 앞을 지나면서 이야기를 들었음.

7. 삼진산의 쌀바위 (1)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앞에 있는 삼진산의 한 암자 뒤에는 바위틈에서 쌀이 나오는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에서는 그 암자에 있는 사람이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왔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암자에 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 늘었는 데도 쌀이 더 나오지 않으므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쌀을 더 얻을 욕심으로 부지깽이로 그 구멍을 쑤셨더니 피가 흘렀다고 한다. 그 후로 그 구멍에서는 물이 흘러 지금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쌀바위라는 유래를 말씀 드리면은요, 〔조사자 : 어디에 있는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해발 1500미터 지점에 조그만한 암자가 있었어요. 그런디, 암자에서, 쌀바위 틈에서 쌀이 나왔는데요, 식구가 한 식구 더 느니까, 한 식구에 대한 식량이 부족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참 부지뗑이루 그 바위를 쑤시니까, 피가 나왔다는 얘기지유. 그래서, 그 피가 나온 후로, 지금도 보면은 바위 틈에서 물이 나와유. 그 자그만한 암자였는데, 그 암자에서 식용으로 물을 받아 쓰고 있는디, 지금으로부터 한 천년 전의 얘기라구 그래유.

〔조사자 : 그러면, 삼진산 절 밑에 있는 바위인가요?〕 절 뒤에가 있지요. 그 절은 앞에가 있고, 그 뒤에 있는디, 참 그 바위가 벼락바위유. 벼락바위인디, 그 사이에서 물이 나와유. 지금도 물이 나와유.

옛날에는 그 앞에 탑이 있었는데, 쌀이 안 나오구 그래서, 절이 망했는디, 오층탑으로 되어 있었는디, 그 탑을 천장사로 이관했다고 해요. 그 탑을 져다가 천장사 대웅전 앞에다 보관하고 있지요, 그 탑을.

채록 일시 : 1986.12.22.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형제고목나무 앞에 서서.
만나게 된 경위, 청중, 처음 들은 때, 처음 들려준 사람, 채록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 경력 : 가끔 이야기 하였음.

8. 삼진산의 쌀바위 (2)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지가 어렸을 때, 삼진절을 갔는디, 바위가, 이런 지붕매루 크데유. 그런디, 인저, 그 밑이가 당구매루(물 탱크 모양으로) 이렇게 있구, 거기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더먼 그류. 그래서, 워째 저렇게 물이 떨어졌느냐구 허니께, 거기서 옛날에 쌀이 하나씩 떨어졌대유.

쌀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손님이 와서 밥을 헐라니께, 쌀이 적지 않어유? 인저, 부족이니께, 불 때던 막대기루 쌀 좀 많이 나오라구 찔러 봤대유. 그러니께, 쌀이 안 나오구 피가 나왔대유. 피가 나오다가 다음에는 인저, 물이 나와서, 그 물이 약수로 시방 사용하구 있대유.

그런디, 인저, 내가 나물을 뜯으러 갔는디, 거기서 인저, 조끄만 애기가, 말못허는 애기가 있는디, 거기 와서 약수를 먹고 고친다구, 그 물을 먹이구,

"만세 불러 봐라."

하는 거를 보고 왔이유.

〔조사자 : 그래서, 만세를 불렀어요? 말을 하던가요?〕 그냥 손만 이렇게 〔두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들데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7시 50분—52분
구 연 자 : 이 채순(여, 6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장요리 이장집에서 잠시 만났다가 헤어진 후에 조사자가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 만났다. 구연자는 저녁 식사를 막 마친 후였는데, 반가이 맞으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이 고장의 전설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부탁하니,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조사자는 낮에 이 마을의 명 창동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삼진산에 쌀 나오는 바위가 있었다는데, 알면 해 달라고 하니, 구술을 시작하였다.
청 중 : 구연자의 남편과 함께 들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13세 때, 동네 어른들을 따라 삼진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갔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구연 경력 :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오늘 처음 구연하였다고 함.

9. 가야산의 문다래미와 성재골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남매를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성문을 구해다가 달라 하고, 딸에게는 성을 쌓으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만 살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딸의 편을 들어 아들을 죽게 하였다. 지금도 가야산에는 성을 쌓은 성터가 200여 미터쯤 남아 있고, 성문을 달았던 곳이 있다고 한다.

개산(가야산)의 문다래미하고, 제비산의 성재골이라고 하는 디가 있는디, 지금도 한 200미터 쯤 성이 쌓여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디, 인저 그, 남매가 성을 쌓는데, 이기는 자를 살린다는 어머니 말씀에, 남매가 성을 쌓다가, 아들은 성문을 허구, 딸은 성을 쌓는디, 어머니가 딸을 더 사랑했지요. 그러니께, 인저, 그 어머니가 딸을 편을 들어 가지구, 그 딸이 이겼대유. 아들이 져 가지구 문을 달지 못했대유. 거기에 가 보면 문짝도 있대유. 그래서 손(孫)이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두 있어유.

〔조사자 : 손이 막혔다는 말은 누구의 손이 막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들이 졌으니까 죽었을 거 아니것이유? 그러니께 손이 막혔지유.

채록 일자 : 1986. 12. 22. 오후 4시 45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7)와 같음.

10. 용바위와 샘물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줄거리

장요리 2구에 용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는 큰 샘이 있다. 그런데, 그 샘에서 빨래를 하면 용이 꼬

리로 샘물을 흐리게 하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 묘를 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용바위는 장요리 2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바위에 모이(墓)를 약식으로 썼는데유, 그 바위 아래에서 빨래를 헌다든가 허먼유 그 용의 꽁지(꼬리)라 후덩물쳐서 못먹구 그랬대유.

그런디, 그 위에다가 모이를 쓴 후에는 그런 증세가 웁다구 해유.

〔조사자 : 지금도 물이 있나요?〕 예, 물이 있구요, 그 샘에다 제를 지내구, 지금도 관리하느라구 허구 있는 데유, 그 분이 딴 디로 이사허기 때미 딴 분이 그 샘을 관리허구 있는디, 그 샘은 현재 그냥 이끼 찌구 있어유. 전에는, 그 분이 헐 때는 맑은 물이 나왔었이유. 그것만 봐두 참 이상헌 일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4시 48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채록 장소, 채록 상황 및 기타 사항 : 앞 이야기와 같음.

11. 절 골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장요리 1구에 절터가 있고, 담이 쌓여 있어서 절골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수 천 년 전 이야기일 테지유. 그런디, 그 절에 빈대가 하두 많아서 절이 운영을 못 했다구 허는 전설이 있거든유.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겄네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4시 50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채록 장소, 채록 상황 및 기타 사항 : 앞 이야기와 같음.

12. 불여우 고개

T 고북면 장요리 ①—A면

우리 동네 등너머에 산이 우거졌었는디유, 여수가 나타나유. 하얀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여자한티 남욕을 당해가지구서, 〔조사자 : 예?〕 홀려 가지구서 정신까지 잃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도 있었대유. 〔조사자 : 그래서, 그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하나요?〕 예, 여수고개라고도 하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4시 55분경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채록 장소, 채록 상황, 기타 사항 : 앞 이야기와 같음.

13. 한다리의 유래 (1)

T 음암면 유계리 ①—A면

*줄거리

이조 중엽에 신장리의 전주 이씨 집에에 종노릇을 하던 김씨가 종 노릇을 면하려고 애를 썼으나 면할 도리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 때, 한 중이 와서 소탄산 밑의 연못에 소금 천가마를 넣고 메워서 연못의 이무기를 잡고, 그 앞에 있는 거울 바위를 깨뜨려야만 종노릇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김씨는 주인 영감에게 그렇게 하면 이씨네가 더욱 등양할 것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

이씨가 그의 말대로 소금 천 가마를 연못에 넣고, 메우니 천년 묵은 이무기가 나왔다. 그리고, 거울 바위를 깨뜨리니, 그 속에 있던 학이 다리 하나가 부러진 채, 이곳 유계리로 날아왔다. 학이 한쪽 다리를 부러뜨리고, 한쪽 다리로 이곳으로 날아왔다 하여 이곳 이름을 '한다리'라 하였다. 그 후로 이씨네는 집안이 망했고, 김씨는 종의 신세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하여 그 후손 중에서 부원군이 나기도 하였다. 그가 한다리 김씨의 선조이다.

'한다리'라고 하는 유래가, 이조 중엽에, 신장리에 이왕조의 왕족들이 사는데, 그 집에 한 종이 살고 있는데, 그 종이 종노릇을 면할라니께, 도저히 면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스님이 오셔 가지구 말하길,

"당신은 여기서 종 노릇을 면하자면,"

그 앞에는 지금 서산 상수도 있는 소탄산이라구 있어요. 그 앞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는 천년 묵은 이무기가 있는디, 그걸 잡어야 당신이 종 노릇을 면하게 된다. 단, 그 면하게 되는 디는, 그 용을 잡자마자 소금을, 간기 있는 소금을 천 가마를 갖다가 이 토강(연못)에다, 연못에다 넣어야만이 이무기가 죽어 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이씨들이 망하니께 당신이 종노릇도 면할 수 있고 그런디,"

고 앞에 가면은 거울바위라고 차돌로 바위마냥 형이 생긴 게 있어유. 지금도 있어유. 있는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구 그 거울바위를 깨쳐 버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당신이 종 노릇을 면할 수 있으니께,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 나중에 바깥나리 오시거든 그렇게 말씀 드리라."

구 그러니께, 가만히 생각하니께, 종이 참 자기 종 노릇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님이 일러 주고 간 말대로 바깥나리가 오니께, 그런 이야길 했어요.

"여기 이씨네들이 더 등냥(騰揚)하고, 잘 되자면은 여기 이 연못 속에는 이무기가 들어 가지고는 심술을 놔서 이씨들이 더 잘 되지 않는다니까, 이 이무기를 잡아내야 되고, 저 앞에 있는 거울바위를 깨쳐야만이 이씨네들이 더 훌륭히 잘 된다고 그러드라. 그랬으니, 이렇게 해라."

그러니께, 참 양반이구, 인저 부자구, 그 이왕의 족들이니까, 그렇게 하라구 해서, 당장, 참 인제, 지시를 해 가지구, 소금 천 가마를 갖다가 그 연못에다가 넣으니까, 그 인제, 천 년 묵은 구렁이가 말이죠, 소금물이 짜니까 추워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답니다. 나오고, 인저 주민들을 풀어서 그 거울바위를 깨치라고 그러니까, 참 더 잘 되기 우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 인제, 그 이 지방 주민들을 전부 풀어 가지구서, 인저 옛날에 그 철망탱이 견로하고, 그놈을 가지구서 거울 바위를 깨치니까, 그 바위 속에서, 깨치며 동시에 봉이 한 쌍 나왔는데, 그 봉이 바위 깨치느라고 두들겨 패는 순간에, 다리가 한짝 부러져 가지구, 널러오기를 워디를 온고 허니, 여기 저 유계리 2구 한다리로 널러 왔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거기서 쳐다보니께, 일루 다리가 부러져 가지구, 봉이 한 쌍 널러와서 여기서 쓰러지니께, 그래서, 여기 한다리라는 별명이, 외짝다리로 널러왔다. 그래서, 이씨네 종중서 애기허기를 거기서 다리 한 짝은 부러져 가지구서 한 짝으로 널러왔으니께 '한다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그 때부텀 그 이씨네들은 망하고, 그 봉이 널러 날아왔고, 그 앞 연못에다 그 소금 천 가마를 풀어 가지구 그 천년 묵은, 용될 거라고 그러는 이무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씨네들이 망하니까, 그 종은 자기가 거기서 종살이 면하고 풀려나고, 이씨네들은 망하고, 한다리로 날아와서, 경주 김씨네들이 부원군을 낳아 가지고 양반 행세를 하고 해서, 여기서는 경주김씨를 한다리 김씨라고 여기서는 그래요. 그래서, 인저 그동안 주욱 인제 양반 행세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한다리라고 하는 유래가 이렇게 이름지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 즈이 부락에는 경주 김씨, 한다리 김씨네 종손이 차지하고 있는 집이, 한 몇 백년 된 가옥이 있어요. 요 건너 가면 어마어마한 집이, 민속촌에 갈만한 집이 있어요. 문화공보부에서 지정한 집이 있어, 정부에서 수리단계로, 이렇게 아흔 아홉 간 집이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2. 낮 12시 20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한문 수학, 유계리 2구 이장)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서산지역 민속조사단원 7명과 함께 유계리 2구 이장인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고, 유계리 2구를 '한다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자 이 이야기를 하였음.
청 중 : 조사단원 5명 및 동행 학생 2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신장리에 사는 이 병사(兵使)라고 하는 어른으로부터 들었음. 이 병사는 전주 이씨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 하는 내력담으로 이 이야기를 하여 주었음.
구연 경력 : 전에 더러 한 적이 있음. 이 이야기는 이 동네의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함.

14. 한다리의 유래 (2)

T 음암면 유계리 ②—B면

옛날에 양반이 길을 다닐 적에, 서산에 역말이 있고, 해미 역말이 있어요. 그런디, 서산 역말에서 말을 타고서 해미 역말에 가야 말이 쉬는디, 그 당시에 '한다리'라는 다리는 돌다리로 놓아서, 그 다리를 건너서 말하자면 역전이지, 역말이라는 게. 쉬는 디니까.

그러니께, 서산 역말에서 타면은 도중에 내리는 법이 없어요. 별일이 있더라도 해미 역말에 가야 내리는 거지유. 거기서 내려서 쉬어 가지구서 인저, 역산 역말이라는 데가 있어유. 역산 역말을 가야 내리는 거지유. 그래서 '한다리'라고 했대유.

〔조사자 : 다리가 크다고 '한다리'라고 한 게 아닌가요?〕 아니지유. 독다리(獨다리)로 놔서, 그루 다니기 때미 한다리라구 헌다구, 지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구 있유.

〔조사자 : 그러면 '한다리'라는 말은 다리가 하나라는 뜻이군요?〕 그렇지유. 다리가 하나여서 한다리라고 하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9 : 50—51
구 연 자 : 윤 상룡(남, 52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305
채록 장소 : 같은 마을의 강영모 이장댁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 전날 음암면 유계리 1구 이장 강 영모씨를 만나 몇 가지 전설을 채록하고, 이날 다시 오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조사자의 부탁을 받은 강씨는 마을 사람 몇 명을 이장집으로 오도록 했다. 그래서, 이장집 사랑방에서 구연자와 만났다. 이 이야기는 한다리의 유래를 말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을 받고 구술한 것이다.
구연자는 26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이곳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15. 한다리의 유래 (3)

조사자 : 한다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김 상홍 : 대교라구 하지유.

조사자 : 큰 대(大)자, 다리 교(橋)자 대교인가요?

김 상홍 : 아니유. 큰 대(大)자가 아니지요. 하나라는 뜻이유.

조사자 : 그럼, 뭐가 하나라는 말인가요.

김 상홍 :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한다리 김씨'라고 하거든요. 내 비족입니다만서두. "한다리 김씨는 도끼비다." 하구 농할려면 그렇게들 하거든유.

조사자 : 왜들 그렇게 말합니까?

김 상홍 :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라구. 그러니께, 큰 대(大)자가 아니구, 단, 뭐 하나라든지, 뭐 이런 뜻의 한이지. 그게 다 엉터리지.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5시경
구 연 자 : 김 상홍(남, 60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5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채록 상황 : 김씨 댁 안방에서, 그 지방 지명의 유래를 물어서 들은 것임.
한다리의 유래를 '대교(大橋), 즉 큰 다리가 있어서 한다리'라고 한다는 사람도 있기에 조사자가 다시 물은 것이다.

16. 용유대와 단고대

T 음암면 유계리 ①—A면, B면

***줄거리**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에는 전에 용이 올라갔다고 하는 용유대(龍遊臺)가 있다. 그곳에는 바윗돌이 몇 갈래로 갈라진 큰 바위가 있고, 그 밑에는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의 깊이는 명주실 몇 꾸리를 풀어 넣어도 바닥이 닿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용유대 밑에는 선녀들이 놀던 터라고 하는 단고대가 있는데, 단고대라고 새겨 놓은 글자가 있었다고 한다. 단고대의 물은 수질이 좋아서 서산의 원님들이 사람을 시켜 이곳의 물을 길어다 먹었다고 한다.

용유대라고 하면 옛날에 인저, 용이 올라갔다 해서 용유대라는 전설이 그렇게 있는데, 전설보다도 지금 용유대라는 데 가 보면, 그, 여기 하천 정리가 되어서 그 어귀를 다 메웠읍니다마는, 명지꾸리 하면 그 꾸리 한 타래면 굉장히 긴 거 아니겠어요? 명지꾸리 시 개가 들어가야, 이렇게 밑바닥에 닿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디, 전설보다도 즈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보건대, 참 워낙에 깊어 가지고, 거기 가면 시퍼렇게 물이 괴어 있고, 줄을 몇 십 발로 넣어도 끝이 안 닿고 그랬는디, 근자에 와 가지고 사방이 개간이 되고, 여러 모로 얕아졌읍니다마는, 하천 가운데에 바윗돌이 몇 가지로 갈라져서 있읍니다. 지금 용유대라고 가보면 그렇게 용이 올라갔다 해서 용유대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저, 용유대 밑에는 단고대라고 있는데, 어느 분이 새겨 놨는지 '단고대'라고, 이렇게 새겨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디, 하천 정리, 84년도 하천정리 작업에 의해서 그게 다 없어졌읍니다. 단고대라고 하는 디는 워티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선녀들이 놀던 터라고 그래유.

전에는 서산 고을의 원님들이 오시면은 서산물은 토질이 끼어 가지고 물이 나쁘다 해서라미 이 용유대 물을 길어다가 서산에서 자셨답니다. 이 단고대 물을. 이 단고대 물을 질어 오라고 부하들을 시키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오기 어려우니까, 즈이 부락에 요기, '개챙이'라고 하는 디가 있어유. 개챙이샘이라구 물이 참 잘 나는 디가 있는디, 부하들이 그 샘물을 길어다가 "용유대물을 가져왔읍니다."하고 쐬여(속여) 먹었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낮 12시 30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한문 수학,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청중 : 위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17. 용 바 위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음암면 유계리에 용바위가 있는디, 바위가 여러 가지가 있었이유. 그런디, 요새는 농로 공사 하느라구 많이 없앴지유. 거기에 큰 구녕이 있는디, 용 나온 구녕이라구 어른들이 허더먼 그류. 그 구녕에서 메기두 나오구, 자라두 나오구 헤서 거기서, 잡구 이랬었시유.

용이 워치게 나왔느냐구 허니께, 큰 구렁이가 나와서는 꼬리치구 올라가는디, 어린애 밴 여자가 봐 가지구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구 떨어져서는, 그 용구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허더먼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11시 52분경
구 연 자 : 강 항덕(남,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채록상황 : 강 영모 이장의 연락으로 이장집 사랑방으로 찾아온 강씨를 만났다. 이곳의 전설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이 이야기를 자청해서 했다.

18. 개 바 위 (1)

T 음암면 유계리 ②—B면

***줄거리**

음암면 유계리 1구에 경주 김씨네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의 형국은 호랑이가 새끼를 품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 산소 아래쪽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풍수지리설로 보아 호랑이가 좋아하는 것이 개이므로 그 바위를 '개바위'라 하였다.

유계리 1구에 '개바위'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유. 그 위가 경주 김씨네 산소유. 그런디, 그 산소의 형상이 호랑이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구 했어유. 그래서,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옛날부터 개라고 하지 않았시유? 그래서 앞산에 바위가 있거든유. 그래서, 그 바위를 갖다가 호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개거든유. 개니까 '개바위'라고 했이유. 거기가 개니까. 거기다(풍수지리설)에다 맞춰 가지구 개바위라구. 이름이 거기서 유래됐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9시 53분경
구 연 자 : 김 택원(남, 33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주 소 : 위와 같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듣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선조들로부터 들었다 함. 구연자는 경주 김씨로 그 산소는 선대의 산소라고 한다.

19. 개 바 위 (2)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조사자 : 개바위는 어디인가요? 왜 개바위라고 했나요?
최 창수 : 옛날에 지관이 모이자리를 잡는디, 그 복호형(伏虎形) 있지 않은가, 자네가 알

지?

강 영모 : 그렇지유.

최 창수 : 복호형을 지관이 잡았는디, 복호형을 잡긴 잡았는디, 복호형은 개바위가 있어야 한단 말여. 개가, 밥이. 복호형을 잡긴 잡았는디, 개바위 옵스면, 거기다 쓰면 죽는메유. 개가 있어야지.

강 영모 : 범의 형국이라구 해 가지구, 그래서 인저, 범의 밥은 개가 되기 때문에, 개가 옵스면 죽는다고 해서.

최 창수 : 지관이 잡긴 잡았는디, 개바위를 찾을 수가 있어야지. 찝찝했대유, 솔밭이. 거기가.

강 영모 : 그랬대유.

최 창수 : 그런디, 저 위에서 애덜이 "야, 개바위루 올라가자. 나무 가자." 나무 가자니까, '아따, 여기에 개바위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지관이 그렇게 생각하구서는 누구한테 물을 것 없이 살곰살곰 그늠들 나무 하러 가는 것만 쫓아갔지. 가보니께는, "야, 여기서 나무하자." 하고는 흩어져서 나무허더랴. 그래서, "이게 개바위냐?" "예, 개바위유." 거기 가보니께 바위가 있더래유. 지금두 바위가 았어유. 거기는 솔두 안 비유. 지금두유.

강 영모 : 있지, 있어. 개바위가 있어요.

조사자 : 노르미는 어딘가요?

최 창수 : 요 위 동네인데유. 노르미는 범한티 노루가 쫓기는 형국이래유. 그래서, 노루미라구 헌대유.

강 영모 : 실제로 개바위라구 있어요. 개바위는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 있어유. 범의 형국에다 쓴 경주 김씨네 산소에서 건너다 보면은 개바위가 빤히 보이지유. 그래서, 호랑이 형국에 개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손(孫)들이 번창을 하고 괜찮았다 이렇게 전해 오는 말이 있어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11시 50분경

구 연 자 : 최 창수(남, 60 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 세, 농업, 중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유계리 2구 이장인 강씨의 연락으로 이장집 사랑으로 온 최씨를 만나 이 지역의 전설 및 지명의 유래를 들었다.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없을 때 들은 김 창원씨의 개바위 전설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20. 매화낙지(梅花落地)에 자리한 서산 상수도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줄거리**

서산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소탄산이 있고, 그 옆으로 도비산이 있다.

옛날에는 이 산 주위가 모두 바다였는데, 소 한마리가 앉을 만큼 물위로 보이던 산이 소탄산이고 되박 하나 엎어 놓을 만큼 물위로 보이던 산이 되박산이다. 이 되박산은 그 이름이 차츰 변하여 지금은 도비산이라고 한다.

소탄산 아래에는 옛날부터 풍수지리상 매화낙지(梅花落地)의 명당 자리가 있다고 전해왔다. 그래서 수 백년 동안 많은 지사(地師)들이 그 자리를 찾을려고 애를 썼으나 찾지 못했다고 한다.

최근 서산읍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했는데, 물은 유계리에서 끌어가고, 급수시설은 음암면 신장리 2구 매림동과 서산읍 수석리 4구에 하게 되었다. 급수시설 둘레에는 전주를 세우고 전등을 달아 밤에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 매화꽃이 피어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이것을 보고, 구학문을 한 사람들은 여기가 바로 매화낙지라고 하며 수백년 동안 찾던 명당자리인 매화낙지를 서산의 상수도가 차지했다고 한다.

이 지방에 전설이 있는디, 즈이 선산군에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구서, 가야산이 667 고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야산 넘어에는 예산군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엔 홍성군이 있고, 또, 저쪽으로는, 동북쪽으로는 당진군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저 가야산 안에서도 가장 서산읍쪽으로 있는 산이 소탄산이라구, 서산, 태안 가운데에, 들판 가운데 서 있는 소탄산이 있어요. 그리고 남서부로 가서는 도비산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은 전설에 의하면, 도비산은 되박을 하나 엎어 놓을 만해서 도비산이라고 했고, 소탄산은 소가 하나 서니 만해서 소탄산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유.

그런디, 인저, 그 전날에는, 여기두 전부 바다였답니다. 저, 개산에 가면은, 문다래미라구 있어유. 저두 그전에 문다래미 꼭대기를 올라가 봤는데. 그 문다래미루 배가 이렇게 넘나들었답니다. 전설의 얘깁니다. 그런 반면에 도비산에 가보면은 그게 화산 지대였던 것이 눈으로 봐도 명백히 표가 나유. 옛날에 돌이 폭발해 가지구 쏟아진 형이 있고, 그스름 자죽이 있어유. 새까맣게.

소탄산 아래에는 매림동, 매동이라구 하는 그, 신장리의 동네가 있는데, 여기서 한 700 미터 쯤 되지유. 매림동이라구 하는 데는 대지(大地)가 있다고 해서 지사, 지관, 지리학자들이 그 명당자리를 찾을려구, 매화낙지(梅花落地) 지형을 찾을려고, 수십년 지리학자들이 왔다가도 찾지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근년에 와서, '매화(梅花)' 하니까 꽃이 피는 거 아닙니까. 꽃은 가운데가 빵둘러가며 피게 마련 아닙니까? 가운데에는 속이 있고, 그 꽃 쏙이 칫째지, 꽃이 떨어지는 데는 소용이 없다 그말여. 그 속이 원 진짜 아닙니까? 그

런데, 근년에 오너서 듣기로는, 수백년 두고도 그곳을 못 찾았는데, 우연히 서산에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구서, 물이 적어서 식수난에 허덕이는 찰나에, 우리 유계리 2구 여기 대지호천에 서산 상수도를 들여 오게 되었어요.

여기는 이왕의 전주 이씨들의 종터인데, 서산에서 상수도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남의 종터이기 때문에 상수도 물탱크 할 자리가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무척 고심하던 끝에, 이씨네 종손 되는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를 할 때, 서산이 도시계획을 세워서 나날이 발전되려고 하는데, 물이 없어서 허덕인대서야 말이 되겠느냐 해서, 지도자로서 쾌히 승락을 했어요. 그래서, 상수도 자리를 군에서 사들여 가지구 상수도를 놨어요. 그래서, 상수도 탱크 자리를 앉히고, 물은 즈이 부락에서 가져 가거든요. 아주 중요 요지가 되는 게 아니겠읍니까. 그러다 보면, 전주가 몇 개 서 가지구서 밤이면 전등이 빵 둘러가며 환하게 켜지지요. 낮에는 전주와 전등이 주욱 둘러 있구요. 이렇게 되니까 매화꽃이 피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래서 매화낙지의 명당 자리는 서산의 상수도가 차지했다는 것이지요.

〔조사자 :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어떠게 되나요?〕 서산읍 수석리(水石里) 4구지요. 그래서, 매화낙지를 상수도가 차지했다는 것이지유. 이것이 인구가 5만이 될지, 10만이 될지 모르게 나날이 발전하는 서산 시민의 생명이 여기에 들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구학(舊學)을 많이 한 분들이 이야기 하기를 수백년 동안 내려 오면서 찾을려고 애를 썼는디, 상수도 물탱크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낮 12시 30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한문 수학,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 전날에 이어 다시 찾아와 만났다. 전날에 몇 가지 전설을 이야기하고, 앞에서 개바위 전설을 이야기 하였다. 이 이야기는 조사자의 권면을 받고, 구연한 것이다. 조사자 일행 4명은 구연자의 집에서 점심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 후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구술하였다.
청 중 : 조사자 일행 2명과 동행 학생 2명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서당에 다녔는데, 그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구연 경력 : 가끔 하였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1. 죽개 바위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의 앞 동네에인 갈산리와 수당리에 죽개바위가 있다.

옛날 어느 대사가 그곳을 지나다가 도둑이 많다는 말을 듣고, 개 모양의 바위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갈산리에, 또 하나는 수당리에 세워 놓았다.
그 후로는 도둑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 어떤 대사가 지나가다가 개형상의 바위를 만들어서, 저— 건너 운산면 수당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하나 박아 놓고, 여기(갈산리)다 하나 개를 해 놓으면은 도둑을 안 맞을 게라구 해서, 개 형상을 두 개 만들어서 박었어유. 그래서, 즉개바위라구 해유.

그런 뒤로 도둑을 안 맞았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9시 45분경
구 연 자 : 한 정수(남, 40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9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여미리 마을 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여미리의 새마을지도자로 조사단 일행이 간다는 연락을 받고, 마을회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마을의 유 기상(남, 73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졸)씨, 유 정로(남, 68세, 전 유성고등학교장, 대졸)씨 등과 함께 앉아 이 마을의 유래와 전설을 들었다.
청 중 : 마을 사람 5명, 동행한 김 태곤 교수, 김 창진 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22. 안국사지 아래의 배(船)바위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운산면 여미리에서 약 3km 쯤 떨어진 곳에 안국사 절터가 있다. 그 아래에 배(船)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는 국보급의 유물이 있다고 전한다.
그 바위에 와서 아들 낳기를 빌고, 그 아래에 있는 돌미륵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미륵의 머리 위에 올라 앉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여기 (여미리 마을회관)서부터 약 3km 다 못가서 안국사라는 절터가 있어. 그거를 한번 개발해 봄직한 데인데요.

전설에는 거기 밑에 바위가 있는디, 그 바위 밑에는 국가에 그 무슨, 그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가 간직되어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디, 정확한 거

는 모르것습니다.

〔조사자가 "그 밑에 뭐가 있다구요?" 하고 묻자 한 정수씨가 그 뒤를 이었다.〕

배바위가 있어요. 배(船)허구 똑같이 생겼다구 해서 배바위가 있는데, 그전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구, 그러는 바윈데, 그 말하자면, 미륵불상이 관가여래상허구, 미륵불상하구 세 분이 서 있어유.

거기에서 기원을 하면은, 무자손(無子孫)이면 생자(生子)를 허고, 그런 유래가 있고, 그 배바위 아래에, 원체 바위가 커서 들어내질 못하니까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보급의 유물이 감춰져 있네, 어쨌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유. 그런데, 그건 믿지 못하는 얘기고.

〔조사자 : 그 바위에 빌어서 아들 낳았다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그 바위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무자하면 생자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돌을 집어던지며는 그 미륵불상 머리에 돌이 올라앉으면 생자를 허고, 올라 앉지 않으면 생자를 못헌다 하는 유래도 있어서, 거기 가면 그 바위에 올라서서 돌을 던져 올라앉나 안 앉나 던져 보고 그래요.

〔조사자 : 그 바위하고 불상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크기는요?〕 거리는 한 5,6m 떨어져 있지요. 크기는 사람의 약 3배 정도 되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0시경
구 연 자 : 유 기상(남, 73 세, 전 서울지방 국세청장, 대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03—1
구 연 자 : 한 정수(남, 40 세, 농업, 중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9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 앞 이야기와 같음.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야기의 처음부분은 유 기상씨가 구술했고, 뒷부분은 한 정수씨가 구술하였음.

23. 여미리의 미륵불상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운산면 여미리의 뫼부리에는 최근에 세운 미륵불상이 있다. 이 불상은 20여 년 전에 몸통이 발견되고, 그 후에 머리부분이 발견되어 세운 것이다. 이 미륵불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후로 이 동네에는 궂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요 위에 가면 미륵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홍수 때 냇바닥에서 떠올라 오셨다느먼 그류.

그런디, 떠올라 오셨을 때는 머리가 없었다구 그랬는디, 나중에 머리를 찾아서 이어서 이 앞에다 모시구 있어요.

그 미륵불상을 즈이 동네에다 모신 것은 한 5년 쯤 되어유. 한 5,6년 됐는데, 그 전에, 전라산(田螺山)이라구 있어유. 그 모양이 소라 모양으루 생겼다 해서 전라산인디, 고 아래에서 그전에, 그, 여기서 약 5km 정도 가면요, 마애삼존불상이 있어요. 국보. 그 마애삼존불상에 올라 갈라면은 미륵불상이 한 분 계셔요. 그게 수호신이고, 또 가야산 줄기의 물이 전부 요기 와서 합쳐유. 합쳐서 요기와서 전라산 밑으루 흘러 내리는디, 거기 워디 그 전에, 스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수호불이 하나 있었다구 그랬어유. 이 안창(안쪽)이 전부 수호국이어서. 그랬는디, 그것이 워느 때, 워트게 해서 옮어어졌는지 옮어졌다구. 그 옮어진 불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구 그래유.

그런데, 좌우지간 한 15년 전에, 그 불상 몸통 자체가 발견이 됐어유. 그 인저, 내깥 정화사업 하느라구, 개천 정화사업을 하느라구 포크레인으로 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몸통만 발견이 됐거든요. 그것을, 그냥 돌에 불과하니까, 갖다가 요 수당리 사람들이 다리를 놨었어요. 몸통을. 쪼끄만 돌(도랑의) 다리를 놨었는데, 그것이 발견된 건 근 20년 되었을 거유.

그 머리를 발견 못해 가지고 그랬는디, 나중에 안호리 공사, 모래·자갈 채취하는 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발견이 됐대유.

그런디, 젊은 분들이 죽구, 자살도 많이 하구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지사에 불상이 생긴 뒤로 그렇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유. 거기에서 노인양반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아마, 추렴을 하여 가지고, 스님 모셔다가 재를 올리지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그 뒤로 초상이 한 번도 안 났어요.

〔조사자 : 머리 부분을 찾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찾아 가지구요 우선 군 공보실에 신고가 들어갔었이유. 그래서, 군에서 군비로, 재정사업으로, 세울 데로 마땅치 않아서, 민속보존마을인 여미리가 합당치 않느냐 해서 여기다 세웠지유. 자리도 참 좋아요. 큰 노송 밑에다가 세우고, 화단 조성까지 해 놨지유.

〔조사자 : 몸통과 머리 부분은 딱 맞나요?〕 예, 제것으로 딱 맞지요.

〔조사자 : 그럼, 어떻게 해서 떨어져 있었을까요?〕 아마 홍수 바람에 워치게 하다가 부러졌던 모양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0시 5분경
구 연 자 : 유 기상(남, 73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대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03—1
구 연 자 : 한 정수(남, 40세, 농업, 중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95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이야기의 처음 부분은 유 기상씨가 구술했고, 뒷부분은 한 정수씨가 구연했음.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기타 사항 : 앞 이야기와 같음.

24.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쉰 길 바위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에는 전에 용이 나왔다고 하는 깊은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갈마음수형(渴馬飮水形)의 쉰길 바위가 있다. 그런데, 그곳에 용이 나타나면 장마지고, 홍수가 났다고 한다.

쉰 길 바위산에는 큰 지네가 살고, 마주 보이는 전라산에는 큰 구렁이가 사는데, 가끔씩 이 둘이 나타나 싸움을 한다고 한다. 싸움에 지는 쪽의 산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무너진 흔적이 남아 있다.

여기서 좀 가면은 용현리라구 있어요, 용현리. 그 용현이 어떡해서 나왔느냐면은 지금두 가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새파란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내깥, 폭포 밑에가 그랬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못이 있는데, 그, 왕년에 그, 용이 거기에서 나와 가지구서 가야산 줄기 한바탕 돌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 용이 나타났다하면.

여기에 가면 〈갈마음수〉라는 쉰 길 바위 산이 있어요. 풍수지리설루, 목마를 갈(渴)자, 말 마(馬)자, 마실 음(飮)자, 물 수(水)자 해서 갈마음수(渴馬飮水), 목마른 말이 물 마시는 형상이다 해서 산소자리 이름인데, 그게 쉰 길 바위 산이예요. 그 산에는 오십 길 정도의 벼랑이 있어요. 바위로 형성되서, 그렇게 큰 막이 쳐졌는데, 거기에 용이 나타나면, 꼭 장마가 지고 하는데, 그 큰 물이 가면은 장마가 져서, 가야산 골짜기에 큰 물이 가게 되면, 여기에 그, 지네와, 쉰 길 바위에 큰 지네가 살고, 전라산(田螺山)에는 큰 구렁이가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용이 나타남으로 해서, 둘이가 싸워 가지고, 지는 산이, 지는 편이, 지네가 지면, 쉰 길 바위산이 무너지고, 구렁이가 지면은 전라산이 무너지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터가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요것만한 조약돌로 되어 있는데, 그 무너지는 디가, 그 큰 물이 가면은 그 산이 무너지든 이 산이 무너지든, 한 번씩 무너져서 이렇게 막 베껴내리는 그런 유래의 전설이 있어요.

〔조사자 :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 갈마음수 자리에 저수지가 막혀 홍수가 없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0시 15분경

구 연 자 : 한 정수(남, 40 세, 농업, 중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29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25. 부자를 망하게 한 둑과 연못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한 부자가 중을 학대하고, 검불을 시주 자루에 넣어 주었다. 중은 그 부자에게 더 잘 살고 싶으면, 집앞에 둑을 쌓고, 연못에는 소금을 넣고 메우라고 하였다.

부자는 먼저 바다쪽에다 둑을 쌓았다. 그 둑이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에 있다. 또, 집앞의 연못에 소금을 넣고 메우니, 그 연못의 용이 나와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죽었다. 그 용이 머리둔 곳을 '청룡골' 이라 하고, 꼬리 둔 곳을 '알미'라고 한다.

그 후, 그 부자는 완전히 망해 버렸다.

그 옛날 지곡면 대요리에 진씨들이 살았는디유, 굉장히 부자였대요. 중 한 분이 와서 시주를 하라구 그러니까, 잘 안 해 주더래요. 그런디, 그 중은 그걸 안 해 주니까, 심술로 그랬는지는 물르유. 가다가 도루 돌아서 가지구, 또 좀 해달라구 그러니까, 뭐 마당 탑세기(검불 부스러기, 먼지 등), 뭐 이렇게 비슷한 것 좀 해 준 모양이유. 쌀을 준 게 아니구. 그러니까,

"지금두 부자로 살지만 앞으로도 부자로 살자고 보면은,"

인제 그, 그 집에서 보면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쪽이 있슈.

"거기다가 둑을 쌓구, 이 앞에는 방죽이 있는디,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 방죽을 메꾸면은 더 부자가 되겠다."

구 그럭해서 정말로 둑을 쌓았대유. 그래서, 둑을 싼 터가 그냥 있어유, 지금두. 그런데, 지금은 도로 내느라구 둑을 쪼금 깎아 가지구 뚝이 쪼금 얕지유 뚝이. 방죽은 멘 자리가 논인디유. 그 한 10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전부 걸쳐 놓구 다니며 모 심었시요. 그렇지 않으면 모 못심으니까, 빠져 가지구.

거기다가 메꾸는데 소금을 또 놓구 메꾸라 해 가지구 소금을 넣었는데, 용이 나왔다구 그러는데, 그건 뭐 용이 나왔는지는 몰르고. 용이 나와서, 나오다가 죽었는디, 먼저, 머리는 동쪽으로 두구 죽구, 꼬리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청룡골이라구 지금 있구. 거기는 산소도 많이 썼슈, 거기는. 거기가 산소가 좋다구 그래 가지구, 옛날에 서산 원이 넘의 산소 위다가 산소를 썼었대유. 강제로 와 가지구. 그런디 쓰구 얼마 안있다가 망해 가지구 도루

파갔다 그러데유. 그 진씨는 그래 가지고 망했대유. 그리고, 이쪽에서는 꼬리를 둔 쪽으로는 '알미'라구 그러구, 이름을. 머리를 둔 곳은 '청룡'골이라구 그러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이 상업(남, 43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136
채록 장소 : 여미리 마을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여미리 마을회관 앞 방앗간으로 방아를 찧으러 왔다가 마을회관에서 노인들과 조사단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채록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채록자는 구연자를 마을회관 뒷쪽으로 데리고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전설이나 민담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다. 구연자는 1980 년에 주소지로 이사왔기 때문에 여미리 지역의 전설은 모른다고 하면서 본적지인 지곡면 대요리 진씨네 망한 이야기를 구연했다.
청 중 : 채록자와 단둘이서 이야기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고향인 지곡면 대요리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26.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 (1)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부석면 간월도(看月島)에서 서산장으로 굴을 팔러 오던 여자가 인지면(仁旨面)의 목장 근처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갓난아기를 가랑잎으로 덮어 놓고는 서산장으로 가서 굴을 팔고 왔다. 와서 보니, 학이 날개로 어린아이를 품고 있었다. 엄마가 오자 학은 날아가며, '무학'하고 소리쳤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아기의 이름을 '무학'이라 하였다.

이 이가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한 무학대사이다.

그 전에 간월도에서 어리젓장사가 하나가요 이 서산 장에루 왔읍니다. 그 때, 부석이 지금은 장이 있는디, 그 때는 장이 없었꺼든요. 어리젓을 팔려 오는디, 태중이유. 그래두 없으니께 워칙합니까. 그래, 인저, 금방 낳을 줄은 몰르구서, 어리젓을 팔러 오다가, 양을 산재하는 디가 있어유, 인지면에. 거기를 오다가 금방 배가 아프고 어린애를 낳게 되니께, 어떡해유. 어리젓을 내려 놓구서, 검불을, 가랑잎새를 이렇게 긁어 놓구, 덤불 속에서 임산을 했네유.

그러구서, 장을, 서산장을 보러 왔시유. 가랑잎새에다 덮어 놓구서.

아, 어리젓을 팔아 가꾸 가서 어린애 있는 데를 떡— 가니께, 무슨 짐승이 이럭허구〔두 팔을 벌려 품는 시늉을 하면서〕 앉아 있거든요.

"웁세 저거 짐승이라 침노했구나."

아, 그러구서 어리젓 팔던 그릇을 다 내려 놓구서, 가 보니께, 훌쩍 널르는데, 어린애게서 김이 무럭무럭 나더래유. 그 짐승이가 털로 다 그렇게 깔구 앉아서. 그러니, 반갑기두 하구 허니께,

"아이구, 이걸 이름을 뭐라구 지어야 옳은가?"

그 짐승이 이렇게 널러서, 휘휘 돌더니, '무학' 이랬거든요. 없던 학이 왔다는 그 소리유.

'아, 무학이라구 이름을 지어야겠구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 이씨조의 한양터를 잡지 않았읍니까 무학이가. 그래서, 잘 됐다는 거지.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38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장소 : 명천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명천리 里長의 안내로 노인회관을 찾아가니 노인들 5,6명이 담소하고 있었다.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니, 바로 그 취지를 이해하고 협조하여 이야기판을 벌일 수 있었다. 구연자 이씨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구연력도 좋은 이야기꾼이었다. 동민 5명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20여 편의 민담을 채록하였다. 이 이야기는 민담 몇 편을 구연한 다음에 구연한 것이다.
청 중 : 동네 노인 5명, 동행한 김 창진 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본적지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27. 말채찍으로 판 샘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김 복선이란 하인이 상전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 상전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가자고 하였다. 잠시 후, 산모퉁이에 이르러 그가 말채찍으로 땅을 찌르자 물이 솟아올랐다.

그 샘이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에 지금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샘을 용못이라고 한다.

김 복선이 말을 끌구 워디를 가는디, 그 상관이 목마르다고 허니께,

"여기서 쪼금만 가면 물 잡수실 수 있읍니다."

그래, 쪼금 돌아가다 보면 산모퉁이에 샘바위 모텡이라구, 고대면 옥현리에 있어유.

"여기 내리십시요."

내리니까, 말채루 땅을 툭 찔른다 그거여. 그러니께, 물이 풍풍 솟거든.

"이 물 잡수시오."

먹어 보니까 참 맛있거든. 그래 물 잡숫고 갔다는기유.

〔조사자 : 샘 이름은 뭔가요?〕 용못이라구 해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5분경
구 연 자 : 최 학재(남, 67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당진군 고대면 옥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487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이 억룡씨가 구술한 민담 '해인사의 불을 끈 김북선'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자의 고향인 본적지의 용못전설을 구연한 것이다.

28. 토정(土亭)을 살린 산신령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토정선생은 수원 근방의 육지가 변하여 바다가 될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토정은 하는 수 없이 혼자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쉬었다. 그 때 소금짐을 진 노인이 따라오라고 하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노인은 산 중턱에 이르러 소금지게를 받쳐 놓으며 산이 바다가 되는 것을 구경하자고 하였다.

그 노인은 산신령이었고, 바다가 된 것은 지게 작대기를 꽂은 곳까지 였다고 한다.

토정선생님이 수원 한나루 터질 줄을 알았시유. 그래서, 그 한나루 터질 디가 다 육지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 여기 이사나 갑시다. 여기가 아무 때는 바다가 되요. 워니 땐가는 바다가 되니께 이사나 갑시다."

그러니께, 그 육지서 사는 분들이 하나두 곧이 안듣네유. 그래서, 허다 허다, 지금으루 말하면 저 국회의원들 입후보 했을 적에 다니면서 선전하는 것처럼. 암만 봐야 하나도 안 나간다구 그러드래유.

"이 육지가 왜 바다가 되느냐?"

암만 한탄하구 돌아대니야 한 분도 이사간다는 사람이 없네유. 그러니께, 허다 허다 인제 기진맥진했어. 아주 뭐, 더 선전할 수가 없서유.

그래서, 나오다 나오다 산곡이 참 좋아. 이렇게〔한 손을 죽 펴서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원을

그리며] 된 딘디, 여기 잔잔하니께, 금잔디가 파르륵 깔렸으니께, 게가 앉아서 이렇게[눈을 감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졸고 않았네유, 그 양반이.

그래 졸고 앉았느라니께, 워떤 노인 양반, 시염이 허연 노인 양반이 소금짐을 지고 오시는겨. 이전이 소금장사라고 있읍니다. 소금이라는 게, 가마니, 지금 마대도 아니고, 짚으로다 이렇게 오쟁이를 쳤는디, 이렇게[두 손으로 원을 그리며] 거기다가 이제 소금을 담습니다. 그걸 지고 오면서 이러드래유.

"넘의 목숨 도모말구서, 내 목숨을 도모해야지."

그러니께, 그 냥반두 인제 대인이니께, 졸다가두 깜짝 놀래서 들었네유. 그런께, 깨 가구서 벌떡 일어나서 인제 그 냥반 뒤를 쫓아가는 기여. 쫓아가는디, 그 냥반은 산신이니께, 축지법을 혀. 소리가 있읍니다. '축지법은 저 땅을 줄이구, 무연진화는 입어법이다.'

그 냥반을 쫓아가는디 눈만 요렇게 떨어지면 또, 뚝 떨어져. 그러니께 그 냥반이 짐 지구 가면서,

"나 하구 동행할라면 내 발작을 밟으야 할 껄."

인제 그 냥반 발작만 밟으면 안 떨어져. 뭐 벌스럽드래두. 이렇게 쫓아가는디, 여기서루 말하면 저기 저 고봉지대, 산으로 말하면 고봉이라면 높은 산 아닙니까? 거기를 올라가더니 축작대기를 이러드래요.[손가락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이거 우리 터지는 거 보구 갑시다."

인제 자기네끼리는 알았으니께.

축작대기루다 여기를 탁 찔러.

"아이고, 한 뼘만 올려다 받치지."

하고 그 위에다 받쳤네유. 문작 문작 문작 문작 먹어서 들어오는디, 바다가 되는 기여, 육지가. 그러더니, 처음에 찔렀던 디, 고기까정밖에는 더 올라오지 안네. 그러니께, 산신이니께 다 아니께,

"한 뼘만 올려다 받치지."

이러드래요. 그래서, 토정선생을 살리드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토정을 살린 산신령 이야기를 알면 해 달라는 채록자의 부탁을 받고 구연한 것임.

29. 전라도에서 세금을 받아가던 전라산

T 성연면 명천리 ②—A

산이 전라도에서 떠들어 왔다구 해서 전라산이유. 그래 가지구서, 왜정 말기까지 전라도에서 세금을 받아갔답니다. 그게, 그루실땅이유. 그런 전설이 있는디두 지금은 세금을 안 받아간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경
구 연 자 : 김 종철(남, 68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구 550번지
채록 장소 : 명천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이 억룡씨의 「土亭과 산신령」 이야기에 이어서 구술한 것임.

30. 개성에 간 김삿갓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김삿갓이 개성의 어느 집에 가서 하루밤 쉬어 가자고 했다. 주인이 거절하자 김삿갓은 **邑號開城何閉門 黃昏逐客非人事**(고을 이름이 개성인데 어찌 문을 닫는가? 황혼에 객을 쫓는 것은 인사가 아닌데.) 하고 글을 지었다.

한문이 아주 능통하신이요, 김삿갓이. 그런디, 그 양반이 워딜 가신고 하니 저, 개성엘 갔시요. 개성엘 갔는디, 참, 이 양반들처럼〔채록자 일행을 가리키며〕 날이 저물었어.

저물었는디, 어떤 집이, 사랑이나 쓰고 하는 집엘 떡— 들어가서,

"여보, 하루 저녁 유해 갑시다."

그러니께, 가라는 거여.

"우리 집은 손님을 못 대접한다."

그 분은 아주 보는대로 글을 지니께,

"글자로는 개성(開城)인데, 어째 문을 닫으면서 가라구 하느냐?"

문을 열어 놓아야 할 텐디, 열 개(開) 자니께.

"어째서 우리더러 가라구하느냐?"

이런 글을 지었드라고 잉. 그래서,

'황혼 축객은 비인사(黃昏逐客 非人事)라'

어둔디 가라구 허는 건, 그건 사람의 인사가 아니라는 겨.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7시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7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1. 황금산 앞바다의 조기떼를 몰고간 황룡

T 대산면 독곶리 ①—B면, ②—A면

*줄거리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해안에 있는 황금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가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그 근처에 사는 활 잘 쏘는 사람의 꿈에 청룡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이 앞바다의 조기떼를 보호하는 용이다. 그런데, 황해도의 황룡이 나타나 조기떼를 연평도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황룡과 싸우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와 주시오. 내가 황룡과 싸울 때, 활을 쏘되, 황룡을 보고 쏘지 말고, 내가 보일 때 화살을 쏘아 주시오."

그 사람은 약속된 장소로 나가, 두 용이 싸우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 사람은 청룡이 자기가 보일 때 활을 당기라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청룡이 맞을 것 같아 황룡을 보고 활을 당겼다. 그러나,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에 황룡이 몸을 돌렸으므로 화살은 청룡에 맞았다.

청룡이 죽자 황룡은 조기떼를 다 연평도 쪽으로 몰아갔다. 그 후로 이곳에서는 조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에 활 잘 쏘는 분이 살았대유. 황금산이란 산이 있는디, 이 산이 서해 안 지대에서는 아주 험악한 산이유. 그런디,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께,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살다시피 했어.

사람이 굶어 죽게 되면은, 바람이 지둥치듯 붇고 그러면, 황해도 쪽에서 조기가 파도에 밀려들어와 가지구 바닷가에 허옇게 있으면 그걸로 화를 면하고, 그걸 팔아도 먹고, 이렇게 해산물 가지고 살았대유.

그 조기가 우연히 읎어지더라는 거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지중에 읎어지더라는 거유. 그러자,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못 살고 넓은 데로 나간다 해서 민심이 동요했대유. 그런

디, 활 잘 쏘는, 궁정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팔도 유람객 한 사람이 살았었는디, 그 분이 저녁에 꿈을 꾸니께 말유, 청룡이, 그 청룡이 조기를 유인 했는디, 〔옆의 노인 : 청룡이 아니고 황룡이여.〕 황해도에서 황룡이 내려오너서 그 조기를 연평도로 몰아간다구 한다는 겨.

"그러니께, 조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거든" 〔테이프 교환으로 잠시 중단〕 황금산 앞에 들판이 있이유. 분뜰이라구.

"분뜰에서 청룡이 황룡과 싸움을 할텐디, 내 힘으로는 그 황룡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 활을 가지고, 청룡과 황룡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청룡 즉 나를 보구서 쏴다오." 그러드라는 거여.

그래서, 그 활량(한량)이 활을 메구서, 그 숨을 자리에 가서 과수를 보구 있느라니까, 그들에서 번쩍번쩍 싸움을 허드랴너먼유. 그 자기는 원체 활의 명수인디, 자기가 보구서 활을 잡아다리면 다 죽어. 그런디, 청룡이 자기를 보구서 쏘라구 그랬는디, 청룡을 보구서 잡아다리면 청룡이 꼭 죽어. 그러니, 청룡을 잡을 수 없으니께 황룡을 잡는다구 말여, 청룡을 겨누지 않구, 황룡을 겨눠서 화살을 잡아다렸다는기유. 그래서, 뭐가 죽었는지는 몰르구, 아침 먹구서 가 보니께는 청룡이 죽었더라는 게유.

그래서, 그 뒤에는 조기가 없어지구, 황룡이 황해도루, 연평도루 조기를 몰고 가서 여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었다 허는 얘기여.

그래서, 요 '수문재'를 동호(洞號)를 고쳐 가지구 '퇴병물' 이라고 해야것다구 해서, 그러니께, 나뭇군들이라 퇴병물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유. 퇴병물이면 물러갈 퇴(退) 자, 병정이라구 하는 병(兵)자, 그래서, 이거 퇴병물이라고 해야지 수문재라구 해두 소용없다구 해서, 수문재를 퇴병물로 갈아 짓고, 그 때부텀 여기에 조기가 없어졌다.

〔조사자 : 청룡이 죽은 뒤에 다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 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없나요?〕 그건 물르것시유.

〔조사자 : 그 뒷 이야기를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옆에 있던 노인이 이야기를 계속함.〕

그 뒷얘기는, 그 청룡이 다시 꿈에 나타나 황금산이 시 번 푸르러지걸랑 조기가 또 들어올 테니, 그런 줄 알아라 했다는 거여.

〔채록자 : 지금 몇 번 푸르러졌나요?〕 두 번 푸르러졌시유. 지금.

〔채록자 : 기대가 크겠네요.〕 예, 기대가 크지유. 지금 나무가 굉장히 우거졌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3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유환(남, 63 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구 35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독곶리 1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경로당으로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십여 명의 노인들이 모여 한 쪽에서는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한 쪽에서는 담소하고 있었다.
채록자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한 다음, 황금산의 전설을 아시는 분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이 구연자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라고 하여 시작되었다. 노인들은 조용히 들으며 잘못된 곳은 지적하고, 보충해 주기도 했다.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32. 황금산의 두 굴과 용못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황금산에 큰 굴, 작은 굴이 있는디, 그리고, 요기 용못이라구 있어유.

황금산 굴은, 큰 굴은 용못허구 합뚤렸다구 했이유. 그래서, 황금산 굴은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유. 지금 가 봐두. 그런디, 굴 바닥이 뚫린 데가 있이유. 그건 바다로 뚫렸지, 어디루 들어가지두 못허구.

이 건너 작은 굴, 그 굴 구녕은, 저기 황금산 내려가다 보면은 절터가 있어유. 그 절의 그 중 큰 굴 구녕은 바다 속이니께 못들어가구, 작은 굴 구녕이나 들어간다구 들어가는디, 촛불 켜 갖구 열 두 발인가 넘도록 들어갔대유. 들어가다 들어가다 달었디야. 하여간.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3시 35분경
구 연 자 : 김 유환(남, 63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구 350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3. 마고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1)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줄거리**

서산군 지곡면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근처는 매우 깊다고 한다.
그전에 서해의 온 바다를 다 돌아다녀도 옷을 적시지 않던 마고할미가 이 근처에 와서는 옷을 적셨다. 그래서, 이 바위에서 고쟁이를 벗어서 말렸다고 한다.

그전에, 옛날에, 마고할미라구 허면 사람은 사람인디,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여.

무슨 이름난 분이지.

말이 마고할미 고쟁이 말렸던 바위라고 그리유. 그게 깊으네 깊으네 해두, 월마나 깊으냐 허면, 행굴 굴구멍 있지 않으유. 그 굴구멍 뒤께루 '가는들'이란 섬이 있이유. 그 돌멩이 보구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두 작은 마누라 얻으면 글르다구 하지 않으유. 황금산이 작은 마누라 얻었다구 해서 돌아앉은 그 섬이래유, 그게.

〔채록자 : 누가 신랑이고, 누가 작은 마누라인가요?〕

〔옆의 노인 : 황금산이 남편이구, 그 섬이 두 개인디, 하나가 돌아앉았더야.〕

그런디, 이 황해안 바다를 전부 돌아댕였던 모양인디유, 그 굴께가(굴 근처가) 제일 깊었던 모양이랴. 그래서, 고쟁이를 적셨디야. 아무 디 가서두 안 적셨는디. 그래서, 고쟁이를 벗어 가지구 말린다는 게, 여기 그 바위, 여태두 있이유. 그게 마고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유.

〔조사자 : 그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높으유. 높은디, 몇 해 전부터 쓰러질 듯한디, 밑구녕만 쪼금 남았는디, 안 쓰러지유. 높이는 한 대여섯 길이 되구, 둘레는 한 열 발 될 겨여.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김 유환(남, 63 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구 350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4. 부석(浮石)과 부석사 샘물

T 부석면 창리면 ①—B면

***줄거리**

부석사 앞 바다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물이 많을 때에는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석(浮石)이라고 한다.

이 바위가 명당자리라 하여 어떤 사람이 거기에 흙을 붓고 묘를 썼다. 그랬더니 부석사의 샘물이 말라 버렸다. 그래서, 그 묘를 옮기니 샘물이 전과 같이 되었다.

이 부석 앞 바다에는 '검은 여'라구 하는 여가 있시유. 말하자면 돌. 보통 여라구 허지. 당신네들 말루 하면, 알아듣기 좋게 허자면 돌이지. 그 여 이름이 돌 석(石)자, 뜰 부(浮)자라구 그러던 절유. 그래서 부석이라구 허거든. 그게 절에서 대해서 헌 말이여.

그런디, 원체 그 돌이 생길 적에, 부석 절하고, 그 여하고 상당히 중하게 생각했던 모양이여. 왜냐 하면, 나는 가든 못했어두 말 들으니께, 그전에 지사(地師) 데려다가 보니께,

거기가 돌은 돌인디 크거든. 물두 안 쪄유. 그 들이 물이 얼마 만조(滿潮)가 들어오더라두 평상 그 조시(상태)거든. 그래서, 뜬 것처럼 보이거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지사 데려다가 모이(묘)를 썼대유. 모이를 썼는디, 거기가 무슨 흙이 있나? 벌 흙이 없거든. 그러니께, 흙을 두어 트럭을 실어다 붓고서 모이를 썼더라 그게여.

부석절의 물이 말르더랴. 물. 그 돌이라두 여북 영리하여. 거기다 모이를 쓰니께, 그 절 앞에. 그 절에 가 봤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앉은 그 밑으로 샘이 있더먼 그려. 그 샘이 말렀디야. 알구 보니까 거기에 모이를 썼다 그게여. 안 된다구 면에서구, 군에서구 말씀을 했던 모양이여. 그래서, 모이를 팠거든. 파니께 돌어섰다구. 그런 역사의 얘기가 있던 겔요.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15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창리 새마을지도자를 만나서 이 마을에서 나이 들고, 이야기를 잘하는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구연자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구연자의 집에 들어 가 보니, 같은 마을의 김 갑순(남, 72 세, 어업, 국문 해득)씨도 와 있었다.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니 두 사람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성의껏 해 주었다. 두 분이 교대로 몇 가지의 전설과 민담을 구연하였다.
청 중 : 같은 마을의 김 갑순씨와 함께 들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30 세쯤 되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3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 (2)

T 부석면 창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간월도에서 살던 한 여자가 임신을 한채 홀로 되었다. 생활이 어려운 그 여자는 서산장으로 굴을 팔러 다녔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인지에 이르렀을 때 산기가 있었다. 그래서, 풀밭으로 들어가 아들을 낳았다. 아기를 풀밭에 눕혀 놓고 서산장에 가서 굴을 팔고, 급히 와 보니 학이 날개로 어린아이를 덮어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무학'이라고 하였다.

무학은 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 중이 되었다.

그 전에 으른들 말씀 들으니께 인저, 첫번째, 무학대사 그 냥반 어머니가 이 간월도 섬

이서 아마 살었던 모냥이유. 살어서 그 으른이 살어서, 인제, 아마, 그 오머니가 무학대사를 낳구서, 무학대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는 얘기를 못듣구, 그 무학대사 어머니헌 역사가 있드만 그류.

뭐냐구 그러면, 그 으른이 이구 대니면서 도부를 해다 먹었대요. 장사를 해 먹었대요. 글장사. 거기는 굴이 흔하니께. 굴을 이구 다니면서 저 서산, 시방 차 있지만 그전에 무슨 차 있슈. 서산 이구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 대녔지. 팔아서 인제 먹구 지내는디, 인제 어린애가 뱄드라 그거여.

어린애가 배서, 그래두, 없으니께 어쩔 수 없어 어린애, 밴 어린애를, 달은 찼는디, 말하자면 곧 낳게 됐는디도 불구하구 없으니께 이 무얼 이구서 팔러 나가다가 급작스레 어린애를 낳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쑥대라구 있어요. 인지(仁旨), 바루 인지올시다. 그 쑥대는. 거기께 가니께 어린앨 낳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달새밭이 있드랴. 달새라는 것이 이 밭둑이 모두 와하게 많이 나잖유. 〔채록자 : 억새하고 같은 건가요?〕 응, 말하자면 왁새라구 해야지. 그 왁새밭에 인저, 그게 밭둑에 여간 끔직이 많이 나지 않다? 그루 헐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어린앨 낳았대유.

낳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무얼루 덮었던지, 덮었어. 폭씬 덮어 놓구서는, 인제 그걸 팔러 갔대유. 그 무학대사 낳아 놓구서 팔러 가서, 팔구 오니께, 오너 보니께, 학이라 덮어 눌르고 있어. 학이라 덮어 눌르구 있는디, 보니께, 어린애가 바르작 바르작 하거든. 그럴것 아니요? 따땃하니께 인제 살았시유. 그래 가꾸서, 그 어린애를 안구 오너서, 간월도에서 그냥 지내는디, 그 무학대사가 많이 잘 커 가꾸. 그러니께 이름을 학이라구 지었어. 학이라구. 왜냐하면 학이라 덮어 놔서, 학이라 덮어서 살았다는 그거일러란 거여. 그래, 무학대사라드만 그려. 이름이 학이여. 자라서는 중이니께 대사라구 하구. 학이는, 무학이니께, 말하자면 무학대사라는 건 중으로 따져서 대사구. 학은 그게 원 이름이 학일러먼 그려.

그 냥반이 인제, 그 사람들은 큰 사람들 될 사람이니께 잘 크지. 병 안들구 병 없이 잘 커서 그냥그냥 잘 지내는디, 자기 어머니허구, 자기허구 인저 모자분이 살지 않았겄시유. 아버지는 안 계시구 모자분이 사는디, 하루는, 효자니께 그런 분들은 하늘이 내신 분이니께, 자기 어머니가 방에 불두 따뜻하게 때서 인제 주무시게 하구, 자기는 자기대루 자구 이러는디,

"아이 추워 추워, 아이 추워."

밤중 쯤 되면, 한 새벽 서너시 쯤 되면 그래쌌트랴. '그런 게다. 그래두 우리 어머니가 혼자, 혼부루 계시니께.' 혼자 자면 춥긴 더 춥거든. 부부 간이서 같이 껴잡고 자는 것 보담. 그래서, 인저 '어머니 혼부로 계시니께 아마 추운 게다.' 불을 따뜻하게 때두 평상 춥더야. 새벽쯤 되면,

"에이 추워, 추워."

그래, 가만히 하루 저녁엔 엿을 보니께, 어머니가 그 건너, 저 건너 석수라구 있시유. 석

수라는 동네가 있시유. 그전 말루는 석순디, 시방은 '살마골'이라구 허드만. 그런디, 글루 마실을 댕이드래유. 마실을 댕이는데, 워디 대니냐면은, 혼자니께 영감이래두, 아마 영감 생각에서 대녔던 모양이라. 생각이 그게지 뭐.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구나.' 그냥 걷어 부치구서니 건너 가더라만 그려. 건너가서 인제, '아, 그렇구나' 말하자면 무학대사가 봤어. 보구서, 그 뒤로부터 방을 그냥 따뜻하게 그냥 해서 드리구 이래서 그냥저냥 잘 지내다가, 자기 자당님 돌아가신 뒤로 중이 되서 인제 이렇게 지내는디, 시방 지은 절 거기가 그전 있던, 여기서 바루 저기, 쪼금 몇 발짝 안 건너 가면 거기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20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6. 무학대사와 간월도 무당사

T 부석면 창리 ①—B면

***줄거리**

간월도의 무당사 뒤에는 큰 떡갈나무가 서 있다. 그전에 무학대사가 간월도를 떠날 때 이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이 나무가 살거든 내가 살아 있는 줄 아시오."

하고 말했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떠나고 난 후에 그가 거처하던 절은 무너져 없어졌고, 그 나무는 죽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학대사가 인도환생하여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을 다시 짓자고 하였다. 관청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절을 짓는데 앞장을 섰다. 이렇게 하여 지어진 절이 지금 있는 무당사다.

무당사는 전에 무학대사가 있던 절의 터에 지었는데, 그 터는 명당자리라고 전한다. 무당사를 짓기 전에, 그 터에는 당시 등양(騰揚) 했던 한양 조씨네가 묘를 썼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겨 묘를 옮기려고 파니, 거기에서 봉이 날아갔으며, 시체는 썩지 않은 채 화기가 있었다. 그 후에 안씨네가 그 자리에 다시 묘를 썼었는데, 그 자리에 절을 짓게 됨에 따라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전에 지내던 절은 없어졌고 얼마 전에 그 자리에 절을 다시 지었지요. 그게 무당사요. 인제 그 무당사, 그렇게 될 적에, 고 절, 시방 지은 터 뒤로 전부 대밭이었시요. 대밭인디, 뒤가 이만한〔두 팔로 안는 시늉을 하며〕 큰 떡가나무가 이렇게 있는디, 잘 살아요. 잘 크는디, 무학대사하구 같이 커.

그래 무학대사가 인제, 그걸,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떠나게 되는디, 얘길 뭐라고 하는고 하느냐면,

"내가 여기서 떠나는디 이 나무가 죽걸랑은, 잎새 안 피걸랑은 나 죽은 줄 알고 잎새가 피면은 나 살은 줄 알아라."

이랬드래유. 〔채록자 : 누구한테 그랬나요?〕 누구한테 했으니까 났지 그말이. 누구한테 했는지는 못들었시유. 〔같은 마을의 아주머니가 들어 와서 잠시 중단〕

그러구 떠났는디, 그 뒤로 죽었드래요. 나무가 보니께, 몇 년을 죽더니, 도루 인두해서 잎새를 피었디야. 그 나무가. 잎새 피구 난 뒤 이 서산 군내에서 누가 얘기를 했던지, 들었던지, 봤던지, 그 얘기를 듣구서는, 절은 인제 무여 버리구 말았거든. 그 절 아주 없지. 없는디, 부처님 하나 있는 그 섬만 그저 있어. 그런디, 도에서

"여기 이렇게 된 역사가 있으니께, 그 분이 죽었다구 하더니, 그 잎새가 피어서 도루 인도환생해서 핀 거 보니께 죽지 않고 산 게다."

이렇게 해 가꾸서는 그냥 무여할 수 없다. 그러니께, 절을 다시 중창하자. 해서 지었대유.

절을 이 섬에다 지을 적에 워떤 나무를 갖다 지었느냐 하면, 이 부석사 앞에 이만씩한 나무, 좋았읍니다. 그 나무, 참 좋았어. 바루 절 옆에서 비었시유 우덜이(우리들이). 그 나무를 쩍쩍 실어다 주었으니께. 그 절 지을 적에.

그 절을 군에서, 도에서 모두 얘기해 가꾸, 중창이지 말하자면, 다시 이 섬에다 지을 적에, 절이 여기는 없구 요기다 지었었는데, 이 섬이다가 무이(묘)를 썼슈, 무이. 워떤 분이 무이를, 이 절 진 그 터에다 말여. 워떤 분이 썼는고 하니 조씨라구 한양 조씨라구, 조 정구씨네 조씨들이 한참 등양했었읍니다.

그 분들이 형젠디 동생이 병들어서 죽게 됐시유. 그런디, 별 약을 다 쓰고 별 짓을 다 해두 낫질 않으유. 죽을 병 들었는지. 그 백약이 무효라고 안혜유? 그 제수되는 그 분이 문복장이 데려다 놓구 점을 허니께, 아무디 있는 그 산소를 파야 자기 남편이 산다 이래유. 이러구 나니께, 워치게 될꺼유. 그래서, 자기 시아주버니는 사랑 거처하구 있는디, 제수되는 분이 자기 시아주버니 앞에, 뜰인데 공석 갖다 피어 놓구 꿇어 엎드리는 거유.

"이거, 웬일이슈?"

허니께, 그 얘길 해유.

"즈이 냄편네가 이렇게 곧 죽게 됐는디, 아주버니도 알으시지 않습니까? 아무디 계신 산소를 파야, 즈이 냄편이 산다구 그러니 워치게 했으면 좋습니까?"

"아, 파서 낫는다면 파구 말구 말할 거 뭐 있느냐?"

구, 파서 낫는다구 하면 파야지 그거 될 일이냐구, 사람이 죽은 양반 뭣하며, 산 사람 있는디, 쓸 게냐구.

"고만 두슈. 파것쇼."

인제 이랬어.

그래서, 그 모이를 가서 파니께, 하여간에 얼마나 자리가 좋던지 참, 화기가 충천, 참 말하자면 봉이라구 하데. 화기가 이렇게 불꽃이 막, 신체가 그냥 꽃이 환하게 피었더랴. 기절할 것 아니유, 상제가. 그래 가지구, 모이를 팠어. 파기루 하구 판 거니께, 그냥 두나. 다른 데 갖다 모시었지.

그러구 난 뒤루 이 서부 안씨가 모이를 갖다 그 자리에다 썼슈. 그 자리다가 안씨가. 갖다 쓰구 나서두 괜찮었거든. 잘 지내여.

지내는디, 이 무학대사 역사를, 이 나무가 죽었다 살았다구 이러니께, 그 역사를 그냥 무여하구 말 수 없으니께, 살았으니께, 거기다 절을, 우리 도에서 중창하자, 이래서 절을 짓게 되는디, 그 모이를 파야 할 거 아니유. 그 안씨들 보구 모이 파라구 하니께 잘 파겠슈? 그러나, 워치게 도에서 얘기하구, 정부에서 얘기 하는디 안 팔 재주 있남. 할 수 없이 파게 되는디, 장비(葬費)를 그때 돈으로 600냥을 줬디야. 장례비를 말하자면. 그러구서, 그 땅을 찾아 가구서 인제 절을 짓는디, 부석사 옆의 나무를, 이만씩 〔두 팔을 둥글게 벌여 마주 대며〕 했슈. 그걸 갖다가 지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7. 토끼섬과 무학대사

T 부석면 창리 ①—B면

요 〔손으로 남쪽을 가리키며〕 밑에 요만한〔손을 한번 크게 휘저으며〕 토끼섬이 있시유. 거기에 절이 있었대유. 지금은 터만 있는디, 지와장(기와장)이 있어유. 지금도 기와장을 떠들면 빈대가 있댜. 빈대 때미 그 절을 폐지시켰다느먼.

그런디, 그 절의 중하구 무학대사하구 종이버선을 신구 서로 왔다갔다 했다더먼 그려.

〔채록자 : 두 섬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배로 얼마나 걸리나요?〕 한 20분쯤 걸리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40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8. 해인사의 불을 끈 무학대사

T 부석면 창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무학대사가 김종사의 마부 노릇을 하며 어디를 가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고삐를 나무에 묶어 놓고는 오줌을 누워서 공중에 뿌렸다. 김종사가 그게 무슨 짓이냐고 꾸짖자, 그는 해인사가 불타고 있어서 그 불을 끈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종사가 해인사에 확인을 해 보니, 바로 그 시각에 불이 났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꺼졌다고 했다. 김종사는 그를 숙량해 주면서 공부하여 큰 인물이 되라고 했다.

무학대사가 이, 저, 방아돌이 김종사네 있잖유. 사그매기 김종사네. 그 말 막으러 다닐 적에, 그 김종사 그 양반이 옛날에 이렇게 다니면서 동네 들어가는디, 무학대사가 말고삐를 소나무에다 딱 묶어 놓드래요. 그 묶어 놓는디, 솔을 패 꺾더니만 오줌을 누어서는 건공중에 뿌리거든요. 뿌리니께, 그 냥반이, 김종사 그 냥반이

"양반 문길 가면서 그게 무슨 고약한 짓이냐? 이놈."

그러니께는,

"예, 지금 합천 해인사가, 지금 불이 나서 불을 끄느라구 그럽니다."

그런디, 그 냥반이 그렇게 해 가지구서는, 그때는 시계가 있나? 꼭 해 가지구서 가늠을 하는디, 해 가지구서 가늠을 하는디, 집이를 갖다 오너서는,

"그대는 공부를 많이 하라구 말여. 가서."

그러더니, 가서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됐더래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께, 영락없이 고날 불이 났더래요. 느닷없이 오너서 막 소내기가 막 쏟아져 가지구 불을 껐대유. 그 오줌이 쏘내기가 됐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45분경
구 연 자 : 김 갑순(남, 72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김 창학씨의 '무학대사의 출생', '무학대사와 무당사' 등의 전설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39. 무학대사와 한양성 (1)

T 부석면 창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무학대사가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짓는데, 상량을 하기만 하면 쓰러졌다.

무학대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며 어디를 가고 있었다. 한 곳에 이르니, 어떤 노인이 아들과 함께 밭을 갈면서, 소를 모는 아들에게 '무학대사보다 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였다.

무학대사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아 학의 날개를 눌러야 되는데, 대궐 먼저 지으니까 학이 움직여 무너지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무학대사가 돌아와 성을 먼저 쌓고, 대궐을 지으니 쓰러지지 않았다.

그 전에 무학대사가 한양터를 잡는디, 잡어서 인제 놓구서 상량을 하는디, 상량해 놓으면 쓰러져, 자구나면. 그런디, 무학대사가 '당연히 이 땅은 좋은 자린디, 어째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시야, 생각을 못 혀. '그런디, 워째서 이게, 꼭, 이 터는 좋은 터인디, 어째서 이렇게 상량만 하면 쓰러지나?'

이럭허구선 마음이 상하니께 아마 워디 참 가는 모양이여. 워디 가느라니께, 워떤 분이, 참 부자 분이 밭을 가는디, 참 아들은 소를, 고삐를 붙잡고 소를 몰고, 아버지는 쟁기를 붙잡었는디,

"이려 쩠쩠쩠쩌 쩠쩠쩠쩌 쩠쩠쩠쩌."

무학대사가 이렇게 지나가는디,

"아 이눔아, 저런 무학대사보다 더 미련한 놈이지. 임마 소 이 짝에서 저루 몰라구 허는데, 그렇게 가느냐?"

구 이렇게 허드래유. 무학대사가 지나며 들으니께.

가만히, 무학대사가 가만히 들으며 생각하니께, 이상시럽거든. 도루 되돌아 서서, 쫓아가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하려거든, 무릎부터 꿇어야 하거든. 벌써 선생님인 줄 가히 알구. 무릎 꿇구,

"저, 아까 하신 말씀이, 워치게 대고 허신 말씀이올습니까?"

그러니께,

"응, 그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명인은 명인인디, 잘 몰랐다구. 생각을 한 가지 잘못했다구. 왜냐 그러면, 그 한양터 잡은 디는 학의 형국이다. 학의 형국인디, 성부터 쌓아서 날개를 눌러 놓구서 상량을 해야 안 쓰러지지, 날개 안 눌르니께, 물론 투드릴 것 아니냐? 그러니, 학이 투드리면 쓰러지지 그게 될거냐?"

그러니께,

"아유, 그렇습니까?"

그러구서, 돌아 가서 성부텀 쌓아 놓고, 상량하니께 워디 쓰러지유. 그렇게 하더랴. 그것두 산신령님이 그 사람 그 무학대사 올 줌 알구서 소 맨들어 가꾸서 쟁기질 한 모양이여.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48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무학대사와 한양성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40. 무학대사가 잡아 준 묘자리

T 부석면 창리 ②—A면

***줄거리**

전에 유씨가 무학대사가 지리에 밝다는 말을 듣고, 간월도로 찾아가 묘자리를 잡아 달라고 하였다. 무학대사는 모레 오면, 함께 가겠다고 했다.

유씨는 무학대사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므로 가지 않고, 그 다음날 찾아갔다. 약속한 날에 오지 않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무학대사는 반쯤 오더니,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키며 그곳에 묘를 쓰라고 했다. 그 자리에 묘를 쓴 유씨네는 그리 잘 되지 않았다.

그때 쓴 묘가 지금 부석면 창리에 있는데, 비석은 누가 가져갔고, 상석은 쓰러져 있다.

요 넘어가 모이가 몇 개 있었시유. 몇 개. 상석까지 세워 놨던 걸유. 상석까지 세워 논 원인이 뭔가 하면, 그 땐 아마 잘 살았던 모양이유, 유씨덜이. 유씨가 거기다 모이 터를 잡는디, 무학대사가 명인이란 소릴 듣구서, 지리를 잘 보구, 지리 박사란 소리를 듣구서, 간월도로 가서 그 분 보구서 얘기허니께, 모이 자리 좀 잡아 달라고 얘기허니께,

"응, 그려 가기는 가는디, 아무날 오너라."

말하자면, 시방으루 말하면 내일, 모레 쯤 오너라. 이랬던 모양이여.

내일, 모레 오라구런 날에 갈라고 했는디, 비가 수숫대같이 퍼 붓더래요. 억수로 퍼붓드래. 그래서 못 갔거든. 그 날 못 가구서, 그 뒷 날 가니께, 무학대사가 있거든.

"어저께 원녕(원체) 비가 많이 오너서 못 오구서 말았는데, 오늘랑 가시지요. 가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께,

"응, 가자구."

가다가, 요마지, 이만큼 나오다가, 이러구〔몸을 바르게 세우고, 가슴을 펴면서〕서서, 지팽이, 짚구 다니는 지팽이, 이렇게 짚으면서,

"저기 저 만큼, 나 일르는 대로 그 만큼 가서 모이 쓰라. 난 갈 것 없다."

구 이러드래요. 그런디, 그게 원인은 뭐냐 그러면, 억수 아니라 벼락 퍼 붓는다 하더라도 지가 성의만 있으면, 당연히 오야 옳은디, 성의 없는 놈을 모이 자리가 잡아질 께냐? 그러니께, 그렇게 생각하구 한 모양이여. 그래서, 인저 모이 쓰긴 썼슈. 썼는디, 잘 될께 뭐 있어. 그 상석을 세웠다 모두 유가들은 망하구 폐지되니께, 상석 모두 나자빠져서 못쓸러만 그려. 그 비석은 누구라 가져 갔데.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0시 50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1. 뱀신을 물리치고 망한 허씨

T 부석면 창리 ②—A면

*줄거리

양천 허씨가 제주목사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뱀신을 위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없앨 결심을 하였다. 목사는 머리카락으로 꼰 밧줄로 올무를 만들어 음식 앞에 놓았다가 음식을 먹으러 나온 큰 뱀을 잡아 죽였다.

그 뒤에 목사는 아들을 낳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의 동생이 와서 보니, 그 아기는 사람이 아니고 뱀이었다. 동생이 이것을 없애 버리자고 하니, 목사는 크게 화를 내었다.

목사의 동생은 형에게 관향을 양주 허씨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양주 허씨는 잘 되었으나 양천 허씨는 뱀신의 화신인 그 아이의 장난으로 손이 끊어지고 말았다.

양천 허씨가 제주도 목사를 갔시유. 제주 목사면 알지? 목사를 갔는디, 가보니께, 1년이나 거진 되어 가는디, 시방으루 말하자면, 우리루 말하자면, 그 지성 드리는 날이 아마 우리덜처럼 이렇게, 아마 날을 잡아서 치성을 드렸던 모양이유. '아무날이 지성일이다.' 이렇게 동네에서 해가꾸서는 술을 한다. 이렇게 모두 얘기를 허는디, 그 목사 보구서,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는디, 저 동네 큰 지성이 있는디, 소두 잡구 떡두 몇 섬 하구 술두 몇 섬 하구 이럭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제를 지냅니다."

이려.

"그러면, 그 떡두 하구 술도 하구 소도 잡는다니, 그걸 다 느이가 먹느냐? 그 먹구 가는 분이 있느냐?"

이러니께,

"예, 큰 짐승이 있는디, 무슨 짐승이냐면 뱀인디, 큰 뱀인디, 그 뱀이 나오너 먹습니다."

그려.

"그려? 분명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그려? 그렇겄다. 그럼들 해 봐라."

시방은 참 이런 로프줄같은 것두, 줄두 많이 있지만, 그때는 무슨 그런 줄이 있남. 그러니께, 인저 그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구해 갖구서는 그놈으로 스무 발을 꼬았더랴. 스무발

을 이렇게 줄을 꼬았더야. 줄을 꽈 가꾸서는, 이렇게〔올무 만드는 시늉을 하며〕 올무를 맨들어 가꾸서 그 먹는 짐승 있는디, 앞이다 놓을 판이거든. 올무를 맨들어서. 인제, 이 짐승이 이렇게, 음식이다 대구 먹는 시늉하게 되었드라구. 먹는디, 거기다가 인제 그 올무를 여기다〔손가락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놨어. 고놈을 잡을라구 말이지. 짐승을 잡을라구.

참 큰 짐승이 나오더니, 막 쭉쭉쭉쭉 먹더래요. 먹는디, 그 목사가 그 동네 분들 보구서,

"잡아 대려라."

그러니, 그 목사가 하라니께, 안 할 리가, 안 할 수가 있읍니까? 듣지 뭐. 냅다 마주 걸리게 만들어 놓구서 줄을 걸어 가꾸서 냅다 거기서 잡아 재치니께, 그 짐승이 죽었대요. 죽여 놓구서 인제 소화를 시켰거든.

소화를 시키고 난 뒤로 그 목사가 평생 한이, 나이 몇 살이나 먹었던가. 한 사십이나, 삼십 넘어 먹었던지, 먹었는데 자식이 없시유. 자식 없어서 원허는 판인디, 그 달부터 태기가 있드라 그거여. 태기가 있어서 낳구 보니까 아들이거든. 자기는 보니까 이놈이 아들이여. 아들인디 자 둥 너머, 이 여자라면 친정인지 글루 편지를 했시유.

"내가 여기서 득남을 했으니 그런 줄 알라."

구 그러니께, 허씨들이, 아 집안 식구들이 모두 반가와서, '우리 성님', '우리 아들' 모두 이래싸면서, '손자를 봤네.' '조카를 봤네.' 이런다구 하는디,

"하나 누구 가야 않겄냐?"

"아, 가구 말구, 간다."

구니께, 그 아우가 갔시오. 그 목사의 아우가.

가보니께, 자기 형님이 사랑에 이렇게 앉았는디, 가서 인사한 뒤로,

"아, 형님 반가운 말씀허시구, 기별하셔서 이렇게 왔읍니다."

"응, 잘 왔다. 가 보자."

안에 들어 가서, 요를 덮어 놨는디, 요를 걷어치니께, 사람이 아녀. 자기 동생이 보니께.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도루 덮어 놓구서 사랑에 나오너서, 자기 형님보구 그러여.

"형님, 어려운 말씀인디, 저것을 없앱시다."

동생이

"없앱시다."

자기는 시방 기막힌 득남을 해서 반갑구 기막히게 좋다구 생각을 하구 있는디 없애자니께 얼다나 정내미가 뚝 떨어져.

"너 이놈 그런 말 할려구 내 집에 왔니? 너 네 조카 하나 그거 본 거, 늬가 무슨 욕심날 게 뭐 있느냐? 그것 하나 난 것을 늬가 욕심내서 쥑이자는 의도가 뭐냐? 너 이놈 당장 가거라."

"예, 그럼 더 할 말씀이 없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를 갈립시다. 우리가 양천 허씨인디, 형님은 그냥 양천 허씨루 계시고, 나는 양주로 파를 갈르겠읍니다."

양주가 고 건너 멀지 않아유.

형제간이가 파를 갈렸드래요. 그러구 난 뒤로, 그 아이가 커서 가만 둘게요? 벌써 웬수를 갚을라고 그 일을 맨들었는디. 그 전멸을 시키더래요. 그 식구들을. 뱀으로 생겨나 가꾸서. 양천 허씨는 손이 끊어지구, 양주로 갈린 그 사람은 잘 되고 잘 살구.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2. 조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임장군

T 부석면 창리 ①—B면

* *줄거리

임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연평도에서 묵게 되었다. 부하들이 반찬이 없다고 걱정을 하니, 임장군은 부하들에게 바다에 살을 매어 놓으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임장군의 말대로 했더니, 많은 조기가 잡혔다.

지금도 서해안에서는 조기잡는 법을 가르쳐 준 임장군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서산군 부석면 창리의 당집에는 임장군의 동생인 임 경업 장군을 모셔 놓고,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

임장군이 워서 탄생했는지는 몰라두 연평도에 오너서, 그 때 그 분이 신하를 데리구서, 말하자면 군인이지, 군인들을 데리구 오너서, 연평 오너서 자구 갈라구 그랬던지, 워쨌던지 거기 오너서, 준비를 하고 있는디, 반찬이 없다 하드래요. 반찬이 없다구 하니께,

"야, 느이덜 그러지 말구, 이 까십에 다가,"

요만한 섬 있는디, 섬 사이로 좀 좁게 골이 나 있거든. 물이 들어 왔다가 써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런디,

"거기다가, 까시를 비어다가 모두 박아 놔라. 박어 노면은 반찬 상당히 잡을 거다."

아, 거기를, 그 가시를 갖다 전부 그눔으루 모두 막아 놓구 보니께, 조기가 그냥 하얗게 걸렸드래. 조기가. 그래 가지구서 그 때 임장군 역사루, 반찬을 맨들어 먹었다는 그 역사해 가꾸서는, 아마 거기다가 당을 모실 적에 그 냥반 역사를 맨들어 놨던 걸요.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다가 그렇게 모신게 고렇게 내려온 역사인지, 임장군 안 모신 자리가 없시유. 치성 드리는 당에서는 전부 임장군을 모셨시유.

채 록 자 : 여기도, 창리 당집에도 임장군을 모시나요?

김 창학씨 : 그 분이지유.

김 갑순씨 : 임경업씨유. 임장군 아우분이유. 임장군은 형이구, 임경업씨는 그 아우분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전 11시 10분경
구 연 자 : 김 창학(남, 79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구 현 자 : 김 갑순(남, 72 세,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3. 팔봉산의 명당자리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서산군 팔봉면에 위치한 팔봉산에 대절(竹寺)이 있다.

그전에 대절의 중이 뇌성벽력에 산을 내려오지 못하고 굶으면서, '흰죽 한 그릇 쒀다 주는 사람에게는 금붕어 꼬리치는 명당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도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아 그 중은 굶어 죽고 말았다.

지금도 팔봉산에는 명당자리가 있다 하여 투장(偸葬)하는 사람이 많다.

팔봉산이라는 디가 말여, 이전이 지영이라는 참 지관이 있었어. 있는디, 아이, 어디를 갈라면 뇌성벽력에 못가. 그러니께, 죽을 때 굶어 죽는디 말여,

"에에, 내 누구 흰죽 한 그릇만 쒀다 주면 팔봉산 낙맥(絡派)에 금붕어 꼬리 치는 데 한 가운데 잡아 준다."

구 그러구선 죽두 못 읃어 먹구 그냥 죽었어.

그런디, 게다 지금 투장(偸葬)을 굉장히 했대유. 그러구서라무니, 그냥 죽었다는 기여 그 소리 허구. 대절(竹寺)이라구 거기서. 쉰길 바위라구 있는디, 까맣게 올라가, 아래 내려다 보면 현기증 일어 못 내려다 보아. 그런디, 거기 절이 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2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 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야당리 2구 원당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경로당으로 찾아가니 동네 노인 15, 6명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화투판이 계속 되었다. 화투를 하지 않는 10여 명의 노인이 구연자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시작되었다.
청 중 : 화투판에 끼지 않은 노인 10여 명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하였음.

44. 팔봉산이 여덟봉이 된 까닭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팔봉산(八峰山)이 이전엔 구봉(九峰) 이었대야. 그런디, 지금은 팔봉이라구 헌다느먼 그려.

〔채록자 : 한 봉은 어디 갔나요?〕 한 봉은 떨어졌디야. 아마, 예전에 천지개벽할 때 떨어졌나 물르지. 하하하.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2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 (3)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간월도에 사는 한 여자가 서산장으로 굴을 팔러 가다가 인지면 애정리(艾井里)에 이르렀을 때, 산기가 있었다. 그 여자는 쑥 밭에 가서 아기를 낳아 놓고는, 서산장으로 가서 굴을 팔았다. 다시 이곳에 와 보니, 학이 날개로 갓난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무학(舞鶴)이라고 했다. 이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중이 되었다.

요기가, 요 웃부락이, 바로 요기 포장된 길 위가 애정리(艾井里) 쑥댕이라는 디유. 쑥애자, 우물 정자. 지금 신동명 이름으로는 애정리인데, 옛날에는 쑥댕이라고 했시유. 쑥댕이.

거 워치게 쑥댕이라는 전설이 내려 왔느냐 하면은, 그전에 저기 간월도에, 무학대사 어머니가 간월도라는 디서 굴을 쪼아서 서산으루 갖다 팔다가, 팔러 오는디, 산월달에 아마, 어렵게 사는 때니께, 굴을 팔구서 오다가, 아, 굴을 팔러 가다가 저 쑥댕이, 요 쑥댕이서, 거기서 임산을 했대유. 그런디, 쑥댕이서 임산을 했는데, 그러구서, 임산하구서 갖다 오니까, 그 쑥 있는 디서 임산하구서 오다 보니께, 학이 이렇게 품구 있드래요. 그런디 그 애

기가 무학대사래요. 이름이 무학이래요. 그러니께 학이 날개를 이렇게 품구있으니께. 춤출 무(舞)자, 학 학(鶴)자. 그래서 무학대사라구 했다. 그런 전설이 여기 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2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6. 무학대사와 한양성 (2)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무학대사가 간월도를 떠나면서 어머니께

"제가 십은 이 떡가나무 두 그루가 죽거든 제가 죽은 줄 아시고, 살거든 제가 살아 있는 줄 아시오."

하고 말했다. 그 떡가나무는 죽었다가 다시 움이 났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짓는데, 자꾸만 쓰러졌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길을 나서서 산골을 지나느라니까 노인 둘이 밭을 갈면서 소를 보고 '무학이 같이 미련한 소'라고 했다. 무학대사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고 대궐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그래서, 성부터 쌓고 대궐을 지으니 쓰러지지 않았다.

무학대사는 한양성 성문을 달 돌저귀를 만들 쇠를 얻기 위해 쇠를 먹는다는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불무에 놓고 불을 땠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도망가며 쇠똥을 쌌다. 그는 그것을 녹여 돌쩌귀를 만들어 성문을 달았다.

그런디 그 무학대사가, 열 살 먹어서, 열 살 먹어 나가는디, 떡가나무를 십구 가더래요. 두 포기를. 자기 어머니더라

"이 떡가 나무가 죽걸랑 나 죽은 줄 알구, 살걸랑 나 산 줄 알라."

구 이러구 나갔거든. 그런디, 그 떡가나무가 다 죽었다 움 났디야.

인저 그, 무학대사가 워디를 간고 하니, 참 서울 이씨 한양, 한양터를 잡으러 갔어. 가 잡아서 대궐을 지면 자빠지고, 자빠지고 하거든. 그런께, 까깝허니께(갑갑하니까), 허다허다 안되니께,

'에, 나가 바람이나 쐬구 온다.'

구 산골을 가니께, 하얀 할아베들이 밭을 갈어. 머리 센 양반하구, 머리 시커먼 양반하구 둘이 밭을 갈면서,

기가 무학대사래요. 이름이 무학이래요. 그러니께 학이 날개를 이렇게 품구있으니께. 춤출 무(舞)자, 학 학(鶴)자. 그래서 무학대사라구 했다. 그런 전설이 여기 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2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6. 무학대사와 한양성 (2)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무학대사가 간월도를 떠나면서 어머니께

"제가 십은 이 떡가나무 두 그루가 죽거든 제가 죽은 줄 아시고, 살거든 제가 살아 있는 줄 아시오."

하고 달했다. 그 떡가나무는 죽었다가 다시 움이 났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짓는데, 자꾸만 쓰러졌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길을 나서서 산골을 지나느라니까 노인 둘이 밭을 갈면서 소를 보고 '무학이 같이 미련한 소'라고 했다. 무학대사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고 대궐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그래서, 성부터 쌓고 대궐을 지으니 쓰러지지 않았다.

무학대사는 한양성 성문을 달 돌저귀를 만들 쇠를 얻기 위해 쇠를 먹는다는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불무에 놓고 불을 땠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도망가며 쇠똥을 쌌다. 그는 그것을 녹여 돌쩌귀를 만들어 성문을 달았다.

그런디 그 무학대사가, 열 살 먹어서, 열 살 먹어 나가는디, 떡가나무를 십구 가더래요. 두 포기를. 자기 어머니더라

"이 떡가 나무가 죽걸랑 나 죽은 줄 알구, 살걸랑 나 산 줄 알라."

구 이러구 나갔거든. 그런디, 그 떡가나무가 다 죽었다 움 났디야.

인저 그, 무학대사가 워디를 간고 하니, 참 서울 이씨 한양, 한양터를 잡으러 갔어. 가 잡아서 대궐을 지면 자빠지고, 자빠지고 하거든. 그런께, 까깝허니께(갑갑하니까), 허다허다 안되니께,

'에, 나가 바람이나 쐬구 온다.'

구 산골을 가니께, 하얀 할아베들이 밭을 갈어. 머리 센 양반하구, 머리 시커먼 양반하구 둘이 밭을 갈면서,

47. 빈대 때문에 망한 절

T 근흥면 정죽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가르미에 있는 지령산에 절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절에는 빈대가 많아 중들이 살지를 못하고 모두 떠났다고 한다. 그 후로 절은 없어졌고, 지금은 절터에 깨진 기와장만 있다.

그게, 지령산이라고 그러지요. 그 산 이름을, 근흥면 장죽리 가르미에 있어유.

그 산 위에가 절이 있었대유. 절이 있었는데, 절이 있어 가지구 중덜이 있다가, 절안에 빈대가 많았었대유. 옛날 그 무는 빈대, 사람 피 빨아 먹는 빈대, 그게 많아서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밑에 무슨 샘이 하나 있었대유. 그래 가지구서, 빈대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겄다구 그 절 중이, 그 밑에 샘에 오너서 물을 먹구서 뚜껑을 덮어놓고 가면서,

"또 다시 누가 들어오거든 이 뚜껑을 열구서 물을 먹게 하라."

구 이렇게 하구, 뭐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 있시유.

그런데, 그 뒤로야 누가, 빈대 때문에 망해 가지구서 절이 앉나요? 현재도 가면은 기와장 깨진 데, 이런 데, 돌을 떠들어 보면은 빈대 껍대가 뵌다구 허더만, 주이덜은 자세히 못 보고유. 기와장 깨진 것 같은 것은 있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전 11시 55분경
구 연 자 : 설 부영(남, 58 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3구 153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정죽리 3구 가르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인 설 의식(남, 29 세, 농업 고졸)의 안내로 구연자의 집에 가서 만났다. 집에는 구연자 혼자 있었다. 찾아온 취지를 이야기하자, 바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어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건설과 민담을 채록하였다.
청 중 : 구연자의 당질인 설 의식씨와 함께 들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48. 인분(人糞)으로 맥질한 절

T 근흥면 정죽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산모롱이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도 빈대가 많았다, 빈대 없애는 방

법을 물으니, 어떤 사람이 인분(人糞)으로 맥질을 하면 없어진다고 했다.

인분으로 맥질을 하고 보니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앨려고 날마다 흙으로 맥질을 했다. 그랬더니, 흙으로 구멍이 막혀 빈대가 다 죽어 없어졌다.

지금은 절은 없고 절터와 샘만 남아 있다.

옛날에 유성박기라구 절이 하나 또 있어요. 유성박기라구, 요 돌아 산 밑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이 있었는디, 그 절에도 참 전과 같이 빈대가 그냥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구서, 어느 분이,

"이 빈대를 없앨라면 어떻게 없애야 좋으냐?"

물으니께, 옛날에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분(人糞)이루다가 맥질을 하면은 빈대가 없어진다."

구 그럭했대유.

인분이루 맥질을 하면 빈대가 없어질라나 하구 인분이루 맥질을 했었거든요. 이 방안을. 그러니, 도세히(도저히)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 그 인분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흙물로 맥질을 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대 구멍이 전부 막힐 거 아니유. 그래서, 다 맥히니까 빈대가 없어지더래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빈대를 없앴다는 얘기유.

〔채록자 : 그 절은 지금도 있읍니까?〕 지금 그 터는 있지유. 샘두 있구.

〔채록자 : 그 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건 주이덜은 몰르유.

채록 일시 : 1986. 12. 28. 낮 12시경
구 연 자 : 설 부영(남, 58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3구 153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49. 용난 굴

T 근흥면 정죽리 ①—A면

***줄거리**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도로변에 큰 굴이 있는데, 그 전에 이 굴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용난 굴' 이라고 부른다.

저기에 용난 구멍이라구 있어유. 저는 들은 게유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간 구멍이라구 해서 용난 구녕이라구 헌다구 해유.

저— 바닷가 바위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유.

채록 일시 : 1986. 12. 28. 낮 12시경
구 연 자 : 설 의식(남, 29세, 농업,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3구 147—7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작은 할아버지 한테 들었음.

50. 효자 김 옥현(金玉鉉)

T 태안읍 동문리 ①—B면

***줄거리**

태안읍 동문리에 효자 김 옥현 기념비가 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를 구하려고 애쓰다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의 상여 뒤에 따라가며 그의 이름을 부르니 상여 안에서 대답했다고 한다.

태안읍 동문리에 비석이,

"효자동몽김옥현지여(孝子童蒙金玉鉉之閭)"

라 하는 비가 있어요. 그 비는 그 아버지가 감옥살이 하는디, 구출하기 위해서 몸을 애끼지 않구 애쓰다가 그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상여 뒤 따라가면서,

"아무개야."

하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상여 안에서 대답했다는 그런 전설은 있어요. 김해 김씨 족보에도 그런 뭇이가 실려 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박 판호(남, 71세, 염전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65—2
채록 장소 : 태안읍 동문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동문리 경로당을 찾아가니 노인 30여 명이 두 방에 모여 앉아 화투판, 마작판을 벌이고 있었다. 채록자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자, 5~6명의 노인이 채록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들려 앉았다. 그래서, 이 분들로부터 몇 가지 전설과 민담을 채록하였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 한테 들었음.

51. 쌀 위에 있는 부석(浮石)

T 태안읍 동면리 ①—B면

*줄거리

부석 앞바다에 검은 여(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사리때 물이 들어오면 물에 뜬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부석(浮石)이라고 한다. 부석(浮石)이란 지명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고, 부석사(浮石寺) 절 이름 역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다.

예로부터 그 부석 밑에는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사흘 동안 먹을 양식이 들어 있다.'고 전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부석 앞바다에 간척공사로 많은 농경지가 생기게 되자, 사람들은 이 전설이 맞았다고 이야기한다.

하나 전설은요, 여기 저 부석면, 하나가 생각나는데, 뜰 부(浮)자 돌 석(石)자 아녀요? 우리 고향 면에, 그런디, 거기 부석사가 있어요. 뜰 부자, 돌 석자 역시 부석사. 그런디, 그 앞바다에 '여'가있어요. 여. 큰 독(돌)이. 검은 여. 그런디, 그 여를 뜬 독이라구 이렇게 말해요. 그 독이 뜬다. 그래서, 부석이라구 그렇게 말을 한다구. 옛날 전설이 그렇습니다.

그런디, 왜 뜬다구 하느냐? 아무리 물이, 사리 때 많이 들어와두 고만큼 되요. 그 독이. 그래서, 그 뜬 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설이 있죠.

또, '그 뜬 독 밑에, 부석 석 밑에, 우리 나라가 사흘인가, 석달 먹을 양식이 거기 잠겨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런디, 지금 뭐라구 말들 하는고 하니, 그 앞에 저 부남 공사라구 해서 막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설에 우리 나라 전체에서 몇일 먹을 식량이 있다구 그렇게 말했구나.

그 검은 여 밑에 우리나라 사람이 사흘인가 석달 먹을 양식이 있다구 말을 했었는디, 옛날부터 거기, 앞을 막어서 그런 양식이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는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박 관호(남, 71 세, 염전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65~2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2.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 (4)

T 태안읍 동문리 ①—B면

*줄거리

간월도(看月島)에 살던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나라에 죄를 짓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군수가

그 아내를 불렀다.

그의 아내는 군수한테 가다가 길에서 어린애를 낳았다. 그 여자가 어린애를 길가에 두고 관가로 가니, 군수의 부인이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냐고 물었다.

군수의 부인이, 그 여자가 애기를 낳아서 두고 왔다는 곳으로 급히 가 보니, 학이 날개로 어린아이를 덮고 있다가 날아갔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무학(舞鶴)이라고 했다.

간월도 무학대사 얘기는 전설이 아니고, 실지 있는 얘기일 거예요.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무슨, 나라의 죄를 지어서 감옥을 사는데, 그 부인을 군수가 불려요. 불르는데, 그 부석면 간월도에 살다가 불려 가요.

군수한테 불려 가는데, 가다가 어린애를 낳았어요. 어린애를 낳았는데, 헐 수 없이 명령이 뭣해서 가는 참이니까, 군수 앞에 가기는 가야하구 그러니께, 어린애를 그냥 두고 갔어요. 가서 군수 앞에 나타났는데, 그 부인이 보니까 참말로 얼굴이 창백하구 하니까, 그 사연을 물었어요.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하구 그러냐?"

그러니께, 오다가 어린애 낳고 왔다는 거유.

"그 어린애를 어쨌느냐?"

아무데나 그냥 놓구 왔다는 거지. 길거리다 그냥 놓구 왔다니, 그래서, 그 군수 부인이 그냥 쫓아가서, 자기가 쫓아갔던지, 하여간 사람을 시켰든지 간에 그 장소를 가 보니께, 그, 학이 날개로 이렇게 어린애를 덮어놨다구 허는 얘기요.

그거는 전설이 아니고 실지일거요. 그래서, 살렸지요. 그래서, 그 무학, 학 학(鶴)자 무학대사요. 춤출 무(舞), 학 학자해서. 그래서, 무학대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태조, 서울, 한양 터도 잡구 하지 않았읍니까?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3시 48분경
구 연 자 : 박 관호(남, 71세, 염전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65—2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3.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 (1)

T 태안읍 동문리 ①—B면

*줄거리

안면도가 지금은 연육교로 이어진 섬이지만 본래는 섬이 아니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여송이 큰 안

물이 날 지형이라 하여 지맥을 끊기 위하여 판목을 잘랐으므로 안면도는 섬이 되었다. 판목을 자를 때에는 많은 피가 흘렀다고 한다.

안면도가 지금은 연육교로 연결되었지만, 그전엔 안면도가 섬이요. 그런디, 그게 섬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한일자를 그리며〕 이서졌는데, 이여송이

"여기를, 이거를 잘라 놓지 않으면은 여기서 큰 인재가 나서,"

이 여송이가 보니까,

"중국을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생각으루 거기를 잘랐다는 거여. 섬을 만들었어요. 그런 전설이 있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3시 55분경
구 연 자 : 박 관호(남, 71세, 염전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65—2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예전 저, 병자호란 적에 거기 와선 이 여송이가 잘르고, 그 먼저는 백화산에 와서 무슨 중국 명사가 와서 가만히 지리를 봤더니, 그래 보니께, 중국서부터 곤륜산 한 일지맥이 흘러 내려와서 차차 강원도 금강산, 백두산으루 와서 산동 육국의 강원도 금강산이 생겨 난 뒤로는, 북으로 일지맥이 삼각산 내룡낙맥이 되고, 거기서 인제부터서 유형, 무형하게 나와 가지고는 이 충남으로 와서 백화산이 생겼다고 그래. 거기 와서 올라 보니께, 이 면면으로 뻗친 낙맥이 안면도가 만승천자지, 역적나라지 이런 게 있다는 이 말을 듣구, 이거 안되겠다고 병자호란 적에 이여송·이여한이 형제가 중국의 아주 큰 장사인데, 이거 둬서 안되겠다고.

그래서, 그 산맥이, 우리 어릴 때도 나 열 한 살 먹어서 가보니께, 참 불과 목아지 양쪽에 나날이 허리만큼이여. 거길 쇠젓가락 가지구 막 파내니께 피가 났다는 이런 말도 있더만. 우리 한 열 댓살 안쪽엔 보니께 돌짝질하면 져 건너서 훌훌 저 쪽으루 가서 떨어지고. 그땐 또 물발이 굉장히 쎄구. 들물이나 썰물이나.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3시 56분경
구 연 자 : 김 수길(남, 9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경북 상주군 화동면 판곡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278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박 관호씨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던 구연자가 자청하여 구연한 것이다. 구연자는 본적지에서 11살 때 부터 증산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안면도로 이사하여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 이야기는 구연자가 15, 6세 경 안면도에서 살 때, 그곳 노인들한테 들은 것이라 한다.

54. 오현봉과 북정산

T 태안읍 등무리 ①—B면

＊줄거리

안면도 앞 원산도에는 오현금(五絃琴)에 비유해서 이름을 붙인 오현봉(五絃逢)이 있고, 안면도에는 북을 엎어 놓은 것과 같다 하여 이름을 붙인 북정산이 있다.

저 원산도가 있어. 안면도 앞에. 오봉산이란 산이 있는데, 오봉산이 봉오리 다섯이 두가지루 났더만 그려. 오현봉(五絃逢)이라고 했어. 거문고 형상으로. 천하대지가 되서 아마 훌륭한 양반이 나올 때, 그 산이 거문고, 오현금이라구 거문고를 비교해서 그 산이 생긴 게라구.

북정산이라구 있어. 안면도에. 북정산이라는 게 그게 광대 곁에 앉아서 북을 친다구, 그게 북 엎어 놓은 산이라구. 그래서, 우리 저 남면의 경치로는 그거 우리가 옛날부터 유심히 알아들은 일이 있어.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5분경
구 연 자 : 김 수길(남, 9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경북 상주군 화동면 판곡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278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5. 손님 싫어하다 망한 집

T 태안읍 등문리 ①—B면

＊줄거리

손님이 많아 손에 물 마를 사이가 없는 부잣집 안주인이 동냥 온 중에게 손에 물이 마르게 해 달라고 했다. 중은 집 모퉁이를 호미로 긁으라고 했다. 안주인이 그대로 하자, 거기에서 피가 흘렀다. 그 후로 그 집은 폭삭 망했다. 그 집이 부석면 월계리에 지금도 있다.

부석면 월계리 얘긴데, 우리 큰 집이 살구 있는 집이여유. 옛날에 아주 기와집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기와집이라는 게 한 동네에 하나, 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잣집으루 사는 집인데, 어느 날 중이 와서 동냥을 달라구 하니까, 그 부인이 한 소리가,

"아이구, 나 손에 물 말르게 해 달라."

구 그랬어요. 매일 손님이 오너, 술 걸르고 뭐 허느라구, 그냥 늘 일을 허니께. 그러니, 중이

"꼭 말르게 해 주랴? 손에 물 말르게 해 주랴?"

구.

"그렇게 해 달라."

구.

데리고 가더니 집 모퉁이 가서,

"여기를 긁으라."

구 했어요. 긁으니께 피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난 뒤로 그 집이 폭싹 망했어요.

지금 우리 큰 댁이 살구 있는 그 집이 폭싹 망했어요. 지금 우리 큰 댁이 살구 있는 집인데, 그런 전설이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10분경
구 연 자 : 박 관호(남, 71세, 염전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65—2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6. 백화산의 영사대(永思臺)

T 태안읍 동문리 ①—B면

***줄거리**

조선 세조 때 태안에 원님이 부임해서 보니,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살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안흥 관장목에서 흔히 파손되는 세곡선의 세곡을 이곳 주민들이 변상해 주기 때문이었다. 원님은

"雁飛蜀天影落吳江(촉나라 하늘을 나는 기러기의 그림자가 오나라 강위에 비친다.)"

이란 시를 지어 조정에 올렸다.

조정에서는 관찰사 신 숙주를 보내어 사실을 알아 보라 하였다. 신숙주는 백화산에 올라가 사방을 살핀 후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게 해 주었다. 그리고, 태안읍 인평리와 도내리의 육지를 파서 운하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끝을 맺지 못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의 은혜를 길이 잊을 수 없다 하여 바위에 '영사대(永思臺)'라고 새겼는데, 이것이 백화산에 지금도 남아 있다.

백화산에 영사대(永思臺)라구 있는데유. 그게 이조 세조 적에 여기 원님이 부임해서 오너 보니께, 이 앞뜰이 상당히 광활한디, 전부가 부황났어. 먹지 못하니께 부황 나 가지구 말여, 아주 핍박한 살림을 하구 있단 말여. 그래서, 보니 이상하구,

'이 주민들이 너무나 게을르구나.'

그래서, 인저 물었어요.

"어째서 너희들은 게을르게, 이런 좋은 뜰을 가지고, 들을 가지구선 이렇게 못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구, 실은 전라도, 경상도서 세납곡이 올라 가다가, 안흥 저 쪽 관장목을 지날라면 거기 파도가 거칠읍니다. 거기서 배가 파선합니다. 그런디, 꼭 파선이 풍랑으루 파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뱃사람들이, 흉년들으면은 오다가 벼를 다 돈 사먹고, 거기 오너서 물병 빼구선 가라앉힌단 말유. 그러면, 전라도서 백석이면 백석, 이백석이면 이백석 실구 올라 가던 벼를, 정부에서는 꼭 예산 세우구 그 세납곡을 사용을 해얄 텐데, 그놈이 파선됐으니께 없단 말유. 그렇게 되면 느이 지방에서 파산을 했으니께 느이가 물어라 해서 이 지방민들이 물었어요."

그러구 보니께, 이 원님이 보니께, 너무나 억울해요. 그래서,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허는디, 상소문에,

"안비촉천에 영락오강(雁飛蜀天影落吳江)이라."

기러기안, 날릴비, 촉나라촉, 하늘천, 그림자영, 떨어질락, 오나라오, 물강. 기러기가 촉나라 하늘에 떴는디, 오나라 강에 가서 그림자는 떨어져 있더라. 이렇게 상소를 하니께, 아 조정에서 그 소리를 듣구 나니께, 이게 참 안됐단 말여. 그래서, 관찰사를 여길 보냈어요.

그 때 관찰사들은 말 타구, 여러 날을 여길 오너 가지구서는 사실 피곤하니께, 그 현장까지 갑니까. 이 백화산에 가서 내려다 봤어요. 가서 보니 저만치, 거기 파도가 거칠게 생겼거든요. 이 목쟁이두 그렇구. 그래서, 거기서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 여기 좋은 방도가 없느냐?"

그래 인저 천수만으루 해서 구도로, 거기가 목쟁이가 약 3km쯤 되요. 거길 팠어유. 그런디, 그때 팔적에 누가 왔느냐 하면은 신숙주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숙주가 오너 가지구선 삼년간 파다가 조정에 바쁘고 뭣해서 중단하구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판 터가 지금두 남어 있어요. 인평 가며는.

그래서, 그 관찰사가 오너서 여기 뜻을 이뤄 줬다 해 가지구선, 그 은혜를 길이 잊을 수가 없다 해서 영사대(永思臺)라고, 백화산 큰 바위에다 새겨서 지금두 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10분경
구 연 자 : 신 현창(남, 67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삭선리 51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7. 문씨 효자(文氏孝子)

T 태안읍 등문리 ①—B면

*줄거리

부석에 사는 남평 문씨 한 분이 소원면 모항리에 사는 누님댁에 갔다. 그는 먹음직스런 생선을 보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생선뚝배기를 들고 집으로 왔다.

이웃사람들이 보니 겨울철에 40리 길을 걸어왔는데도 뚝배기에서 김이 무럭무럭 났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낸 효자라고 했다.

옛날 이조 때, 서산 부석면에 사는, 남평 문씨 한분이 있었는데, 그 매가택(妹家宅)이 저 소원면 모항리였었대유. 그 모항리 매가댁에 댕기러 갔었는디요, 겨울인디, 아마 요때쯤 됐던 모양이죠. 그런디, 자기네는 어려운 생활에 생선 같은 걸 별루 먹어도 못 보다가, 가서 보니께는, 좋은 생선을 먹음직하게 해서 주거든요. 그 매가댁이서. 그러니께,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구서는, 그 생선 투가리(뚝배기)를 들구서는, 한 사십여 리 되는 거리를 국을 끓여 들구 왔대요. 사십여 리를 와서 봐두, 그 지방 부락 사람들이 볼 적에 김이 뭇뭇 나오구, 고대로 식지 않았더래요. 그 국이.

그래서, 출천대효가 아니면은 그 국이 안 식을 리가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하늘이 낸 효자라구 출천대효라구.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홍렬(남, 65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송암리 1638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으며, 머러 이야기하였음.

58. 지씨 효자문(池氏孝子門)

T 태안읍 등문리 ①—B면

*줄거리

농부 지씨의 아내가 들에서 일하다가 점심밥을 지으려고 집에 가 보니 늙은 시부모가 낮거리를 하

고 있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씨암탉을 잡아서 고아 드리고 나서, 밥을 지어 가지고 들로 나갔다.
점심을 기다리다가 화가 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절을 하였다. 이를 본 안홍첨사가 그녀의 효성을 갸륵히 여겨 효자문을 지어 주었다. 그 효자문이 근흥면 두야리에 있다.

근흥면 두야리, 지씨 가정이 있는데, 늦모 때에 비가 덜꺽 멀어졌읍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나와서 모를 심는데, 점심 때가 되니께, 부인은 점심하러 간거 아니요.

했는디—, 남편이 모를 심다가 아, 해가 다 가두 안 온다 말여. 허기는 지구. 그래서, 소스랑 들쳐메구 쫓아 간 거여. 가다 보니께, 그제서 부인이 점심해서 가지구 오거든.

"왜 이렇게 늦었느냐?"

구 하니께,

"그런 게 아니라, 들어 가 보니께, 노부모가 낮에 낮거리를 하구 있더라.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좀 욕 보겠느냐. 씨암탉 하나 있는 걸 잡아서 고아서 드리구 오느라구 이렇게 늦었읍니다."

하니께, 남편이 부인을 보구,

"아, 잘 했다."

구 치사를 하면서 절을 혀.

그래 인저, 원님이 됐던, 안흥 첨사가 됐던, 행차를 차려 나가다가, 거 남자가 부인을 보구 절을 해싸니께,

"저, 무슨 곡절인가 알아 봐라. 행차 멈춰라."

가 불렀어. 그런께, 사실대루 얘기하거든.

"아, 그러냐."

구. 그래, 참 효자문을 지었다는 거야. 그 효자문이 지금도 있어.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갑우(남, 72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장산리 253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59. 한 봉이 우는 팔봉산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팔봉산은 봉우리가 아홉 개인데, 여덟 봉우라구 해서 한 봉이 운다는 전설이 있죠. 한 봉이 안 들어갔으니께. 구봉인디 팔봉이다 해서.

채록 일시 : 1986. 12. 29. 오전 10시 50분경
구 연 자 : 서 원모(남, 71 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45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이 지역 전설을 잘 알 것이라고 해서 구연자의 집으로 찾아가 만났다. 국민학교 1 학년에 다니는 구연자의 손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60. 팔봉산의 천제터와 굴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줄거리

팔봉산에는 기우제를 지내던 천제(天祭)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제물을 차려 놓고 제사지내기 좋게 바위들이 놓여 있다.

그 아래에는 운암사(雲岩寺)라는 절이 있었다는 절터가 있다.

그 아래에는 깊은 굴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맛이 좋은 샘이 있다. 그건에 그 굴에서 불을 때면, 대산면에 있는 황금산에서 연기가 났다고 한다.

팔봉산에는 유명한 천제터가, 가물면 기우제 지내는 터가 있어. 그 터가 아주 천작(天作)으로 되어 있어요.

상대봉이 젓가락봉이라고 해서 두 개 있고, 감투봉, 감투같이 생겼다 해서 감투봉이 있는데, 그— 밑에가 있어요. 남향해서. 상처럼 되어 있어요. 네모 반듯하게. 그 아래는 배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아주 낭떠러지이고.

기우제는 전국적으로, 서산군내 일절이 다 지내고, 거기서 봉화불을 켜면 다 켜는 데가 있어요.

기우제는 팔봉면 자체로 지낼 때도 있고, 군수가 원체 가물어서 흉년이 온다 할 때에는, 꼭 비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민원(民願)에 의해서 군수 영감이 지내라구 허면은, 그 봉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는 안 지냅니다.

대산은 명일산이라는 산이 있구, 태안은 태안읍내 뒤 백화산에서 지내유. 그러면 다 뵈유. 거기서. 워서 지낸다는 게 다. 그리고 봉화불을 켜면 워서 지냈다는 게 표시가 되유.

〔채록자 : 언제까지 지냈나요? 지내는 거 보셨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 지냈지요. 나는 한 네 번 제 지내러 올라가 봤어요.

팔봉산 천제터 밑에는 운암사(雲岩寺)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절터두 있구 개와(기와)두 있구. 조각해서 놓은 사슴두 하나가 남어 있어요. 지금. 그런디, 젊은 사람들이나 워떡허다

가 귀 메서 조금, 그 못쓸 장난을 했대유.

고 밑에 내려오면은 굴구녕이 있어요. 약 15m 들어가면은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상당히 좋답디다. 그래서, 요전에 워떤 친구 하나가 그 물을 떠다가 감정까지 헐라구 떠 갖구 갔는디, 그 뒤는 말 못들었어요.

6.25 때에는 그 골막을 메웠읍니다. 뻘갱이들이 거기를 들어가서 메워 놓고 생활을 했답니다. 수복하구 나서 다 붙잡아 내구서, 메운 거를 그냥 둬서 원상복구가 아니구, 지금은 메워져 있어유.

그 굴 구녕에서 불을 때면은, 저 황금산에두 굴이 있어유. 저기 가면. 건너다 보면. 여기서 적어두 100리 바깥이지. 대산면에 바다 끝에. 그 굴에서 불을 때면은 황금산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지.

채록 일시 : 1986. 12. 29. 오전 10시 52분경
구 연 자 : 서 원모(남, 70 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4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61. 팔봉산 계곡의 은어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줄거리

전에 팔봉산 계곡에는 은어가 많이 살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 은어는 동자삼(童子蔘) 썩은 물이 아니면 살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 냇갈(내)이 지금은 하천정리하고, 약(농약)들을 많이 쓰구, 피기(물고기)들을 많이 잡아가는 통에 종자가 많이 없어졌을 걸로 봐요. 은어라고 있읍니다. 은어의 진짜 명산지가 여기였답니다.

지가 여기루, 이 터루 온 지가 40 년 가차운데, 오너서 즉시 밤에 나가서 그 은어를 잡아봤어요. 지금은 종자가 귀해지고.

은어가 예전 전설로는 동자삼이 썩은 물이 아니면 안 산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 팔봉산에는 지금두 동자삼이 있다는 거죠. 있으니께, 은어가 종자가 안 마르고 산다 이거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9.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서 원모(남, 70 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4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62. 한 봉이 없어진 팔봉산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팔봉산은 원래 구봉(九峰)인디, 한 봉우리가 부러졌대유. 그래서 팔봉밖에 안 된대유. 한 봉우리가 비에 허물어져서 팔봉 밖에 안 되서 팔봉산이라구 헌다구 그런 소리를 들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9. 오전 11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명순(여, 63 세, 농업)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북면 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마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양길리 경노당을 찾아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경노당 아래에 있는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 안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연자에게 팔봉산은 왜 팔봉산이라고 하는가를 물어서 대답한 것이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지금으로 부터 20여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이곳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원래 구봉(九峰)이었답니다. 어느 해인가 봉이 하나 무너져 가꾸 저쪽 빈디리(비탈진 곳)가 봉이 하나 무너져 가지구 내려오는 바람에, 조—〔손으로 남쪽 산기슭을 가리키며〕 위 솔발 뒤에가 집 하나가 있었시유. 고 집 웟방 있는 데까지 와서 스톱하구(정지하고) 말았답니다. 더 내려가지 않구.
원래 구봉이었는디 봉 하나가 무너진 뒤부텀 팔봉이라구 했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9. 낮 12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문재(남, 35 세, 농업)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147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대문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 일행이 구연자 이씨 댁에서 이씨의 모친, 이모, 이모부 등과 만나 세시풍속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단원 중의 1명을 기다리느라고 이씨댁 대문 앞에서 있었다. 그 때, 마침 대문 밖으로 나온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63. 팔봉산의 젖가락봉우리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팔봉산이 여덟 봉이여. 팔봉산이 이짝에서 보면 잘 생겼는디, 저짝 어송리, 면사무소짝에서 보면 별것 아니거든.

거기 올라가면 젖가락봉이라구 요렇게〔두 손의 검지를 세워 보이며〕 생겼거든유. 그전에는 이짝 봉두리(봉우리)에서 저짝 봉두리루 뛰어 건너는 사람이 있었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9. 오전 11시 25분경
구 연 자 : 이 종철(남, 7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팔봉면 대황리 2구
채록 장소 : 팔봉면 양길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경로당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어서 그 문앞에 서 있는데, 구연자가 왔다. 함께 방안으로 들어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64. 제물을 훔친 사람을 벌한 산신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줄거리**

팔봉면 양길리에 사는 김씨네와 천씨네는 해마다 통소를 잡아 산제를 지냈다. 한번은 소를 잡는 사람이 소의 간을 몰래 숨겨 두었다가 산제 지낸 후에 먹었다.

그날 밤, 호랑이가 여러 사람이 함께 자는 곳에 와서 그 사람만을 데려갔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산제 지내는 일을 그만 두었다.

그 때 산제를 지내던 산제당이 팔봉산에 지금도 있다.

요기, 뒤로 올라가면은 산제당이라고 있어. 바위가 지금 가보면은 큰 맷돌처럼 동그란 바위가 두개가 있시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디, 그 새가 조금 비었어. 요만큼〔두 손을 마주 펴 보이며〕 있었을까?

우리 김서방네하구, 천서방네하구, 음력 동짓달에 산제를 지내는데, 거기 샘에 가서 남자가 목욕재계를 해두 춥지 않어요. 이렇게 동짓달인데 춥질 않어유. 아주 빨갱이 벗구서

목욕허구, 술술 해 놓구 일주일을 있어. 그 술 좋은디, 통소 잡아서, 산제를 지내거든요. 그러는디, 조기〔앞쪽을 가리키며〕 저 집, 그 너머가 큰 개울이 있어. 그런디 그 앞에서 통소를 잡는데, 그런께, 일군시켜서 잡는디, 소 잡는 사람이,

'설마 산제 지내구 오너서 먹으면 무슨 탈이 있으랴.'

하구서 소의 간을 한 덩어리 베서 바위 속에다 넣어 놨거든. 전판(전부) 개울이 바위니께.

그러구 났는디, 저기다 넣어 놓구선, 산제 지내구나서 왔는디, 요 건너집 사랑채가 간반 사랑이요. 술먹구 산제지내구, 소의 괴기국에다가 술 무진 먹구서래미, 다 심부름꾼덜이 있는데, 소의 간 베어 놓은 사람이 술을 먹었거나 워쨌거나 추워 죽는다고, 펄펄 끓는디, 다른 사람들은 핫바지 저고리 막 벗어 자치고 이구서 드러누워서 자는디, 춥다구 그러더랴. 그런디, 소의 간 훔쳐두는 거 본 사람이, 맨 끝으머리 웃목에 있는디, 잠이 안 오더랴. 다른 사람들은 잠 오는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께, 12 시경쯤 됐는디 마당에 오너서, 횃불 두개가 오더니, 뭐 잡아가는 법두 없구, 이 사람이 춥다구,

"어, 추워 추워 추워."

하구 나가는디, 사람이 아주 어금마실려(이쪽 저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디. 건 공중에 떠 나가는지 워쩐지 배깥에 나가니께, 앞세워 가꾸 갔거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산제 지내다는 아주 사람 큰일 나겠다구 그래가꾸 산제 안 지냈슈.

채록 일시 : 1986. 12. 29. 낮 12시 25분경
구 연 자 : 김 해동(남, 72 세, 농업, 소출)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8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같은 마을의 이 문재씨 댁 대문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 일행이 이 문재씨 댁 대문 앞에서 미처 조사를 끝내지 못한 조사단원 1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앞집에 사는 구연자가 이씨 댁으로 왔다. 채록자가 팔봉산의 전설을 물으니, 구연자는 팔봉산과 마을의 여기 저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 이야기를 하였다.
청 중 : 집 주인 이씨와 채록자 일행 4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65. 파도리(波濤里)의 유래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는 이곳의 지명을 바둑판처럼 생겼다 하여, 그리고 200집이 넘으면 준다고 하여 바둑이, 또는 바데기라고 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파도리(波濤里)로 고쳤다.

파도리라고 한 것이, 그 전에는 제정 적에 일본사람하구 합방하기 전에는요, 파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둑이' 또는 '바데기'라고 했어요. 왜, 바둑이라고 한고 하니, 여기가 바둑판 처럼 생겼다구요. 부락 전체가 생긴 것이 바둑판처럼 생겼다구.

그러구, 옛날에는 홋수가 이백호 넘으면은 홋수가 줄었다구 합디다. 노인들 말씀이 여러 세대가 살아나가면서, 가족이 인저 벌어 나가잖아요. 아들도 인제 3형제도 두고, 4형제도 두고, 이렇게, 여러 뭣 해 가지구서 가족이 늘어 나가면, 그 때는 외지로 나갈 줄 모르고, 제 고장, 태어난 고장에서 다 살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구 볼라치면, 홋수가 한 이백호가 넘지 않겠어요. 이백호가 넘으면 또, 준디야. 그래설라무니, 바둑이라고 했대요. 바둑판이 이백집이니까.

그래서, 바둑이라고 했는디, 그 뒤로 제정 적에 일본 사람이 그러기를 파도리라고 하자. 여기 그전에는 한문 가지고 뭣 허는 것 보면, 편지라도 외지에서, 먼 데서 오는디, 파도에 섬 도(島)자를 썼읍니다. 섬 도자를 써서 아주 절도(絕島) 섬인줄 알고 섬 도자를 써서 편지를 했거든요. 그랬는디, 연륙(連陸)이 되 가지고, 아주 섬은 아니요. 섬은 아니어서, 물결 파(波), 물결 도(濤) 이렇게 해서 파도리라고 씁니다.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파도리 2구 이장의 안내로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10여 편의 전설과 민담을 채록하였다.
청 중 : 구연자의 부인과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구연자의 손녀가 옆에 앉아 조개를 까면서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이야기 했음.

66. 용 난 굴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소원면 파도리에는 200~300 명이 들어설 정도의 깊은 바위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난 구멍'이라고 한다.

어른들 말씀이 용 나왔다는 디는, 거기가 이렇게 깊이 뭣해서 비스기(비스듬이) 뚫어진 게 아니라요, 바다 밑으로 이렇게[손을 아래로 펴면서] 뚫어졌시요. 바다 밑으루 뚫어져 가지구서, 지금은 파도가 쳐서 뭣하구, 자갈루다 이렇게 메워서 뭣하구 그랬는디, 지금두 가설랑 들여다 보면 물이 많이 밀면은 찌구(물속에 잠기고), 썰물나서 물이 많이 써면은 나설랑이(나타나서), 인제 사람들이 가 구경도 하구 뭐하는데, 사람이 한 이백 명, 빽빽하게 들어서면, 한 이백 명 들어서게 되었대요. 그럭헌 구녕이 있었는디, 이제 그게 다 메우구 이렇게 해서 뭣허는디, 게서 말은, 용이 나왔다구 그러는디, 나오너서는 서해 바다에서 하늘로 득천해서 올라 갔다구 그러는, 그렇게 전설이 있죠. 그래선, 용난 구녕이라고 하죠.

[채록자 :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소원면 파도리 꼬챙이라는 곳에 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3시 43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67. 공사여와 제비랭이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소원면 파도리의 끝에는 제비형국의 산인 '제비랭이'가 있고, 그 앞바다에는 뱀 모양의 '공사여'가 있다. 제비랭이에 묘를 쓰면, 공사여 때문에 자손이 귀하다고 한다.

요 안에 해태 매고 뭣하는 밑이루다가시리, 공사여라고 있읍니다. 여기서 어른들 하는 말씀이, 공사여라고 있구, 제비랭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다가시니 묘자리가, 제비가 알

을 낳아서 까 가꾸 뭣히는 제비형국이라고 있는디, 공사여 때문에 새끼를 못 친다구. 공사여라구 해서 뱀 사자를 쓴다구. 뱀 처럼 이렇게 쭉 뻗어졌어요. 그 묘자리다가 묘를 써 놓을 것 같으면, 자리는 좋은디 말여, 자손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이 자리를 쓰기는 썼어요. 써서래미 뭣했는디, 지금두 자손이 있기는 있읍니다. 그렇지만, 고독하게 내려 갔어. 3대나 4대나 독신으로다가. 제비는 새끼를 쳐두 넷, 다섯 낳는디, 그 뱀이 잡아 먹고, 하나 이렇게 남긴다는구만 그려. 그래설랑이, 손세(孫世)가 안 퍼진다구. 그래서, 공사여라고 이렇게 전설로 내려옵니다.

〔채록자 : 제비랭이는 섬인가요?〕

섬두 아니요. 육지로 연육된 산인디, 거기를 제비랭이라구 해유.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68. 아기장수와 용마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 어떤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혼자 다듬이돌을 들었다 놓았다.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큰 일이 날 것이라 하여 아이를 다듬이돌로 눌러서 죽였다. 아이가 죽자 바다에서 용마가 나와 뛰어다니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소원면 의항리에는 아기장수의 발자국이 있고, 파도리에는 그 용마의 발자국이 있다.

소원면 의항리에 가설랑으니, 장수가 뭐해 가꾸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읍니다. 가 보면은 장수가 디뎠다는 발자국이 있읍니다. 장수가 발루다가 돌을 디뎠는데, 돌이 쑥 들어 갔어요. 어린애 발작(발자국)처럼. 그 장수가 나오너서.

그 애가 어린 것이, 낳아 놓구서, 즈이 어머니가 포대기를 덮어 놓구 어디를 갔다 올라치면, 그거를 방에다가, 아무도 없고 고것만 재워 놓구 나왔는디, 치워 있는 것두 있구, 없든 것이 있는 것두 있구 이렇드래요. 그래서, 이거 워쩐 일이냐구 고걸 살펴보니껜두루, 그전에 빨래 다듬이 하는 다듬이 돌이 있잖유. 다듬이 돌을 어린애가 일어서서랑으니 다듬이 돌을 들고, 들어두 봤다 내부쳐두 봤다, 들어두 봤다 이러거든요.

'아, 이거 큰일 날 것이다.'

구 말여. 그래서, 다듬이 돌로 눌러서 죽였대요.

그애를 죽여 가주구 설라무니 뭣하니께, 말은 어디서 뭣한고 하니, 여기 학교 너머 입니다. 거기서, 용마가 나오너 가지구서, 바다에서 용마가 나오너 가지구설라니, 낭에서(낭떠러지에서) 뛴 용마 발자국이라고 있어요. 용마는 물로 뛰어 들어가서 없어졌다구 그럽디다.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3시 55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69. 무학대사와 한양성(3)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무학대사가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짓는데, 자꾸만 무너졌다. 무학대사가 왕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절로 도망을 하던 중 어느 산골에 이르니 한 노인이 밭을 갈면서, 소에게 '무학이보다 더 미련한 소'라고 했다.

무학대사가 그 노인에게 절하고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고, 문을 해 닫은 뒤에 대궐을 지어야 한다."

고 했다. 무학대사가 노인의 말대로 하니 대궐이 무너지지 않았다.

무학대사가 이씨 조선 한양 도읍터 잡을 적에, 한양가서 도읍터를 잡을 적에 집을 짓는디, 무학대사가 알기를,

"공주 계룡산은 삼백 년 도읍이구, 경기 한양은 오백 년 도읍이다."

란 걸 알구서, 무학대사가 알구서, 서울가서 도읍처를 잡구서 건축을 하는디, 아, 건축 다 해서 놓구 나면은 쓰러지고, 자고 새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허거든요. 허물어지니께루,

"이게 워쩐 일이다냐?"

구. 몇 달이라든지, 몇 해 만이라던지, 수수를 받아 가지구서, 대궐을 지니께, 그 안에 착공을 해야 한다 해 가지구서 집을 짓는디, 목수들도 딱하구 자리잡은 분도 딱하구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날짜는 못 피하고, 그래서, 이성계씨가 송도를 앗아 가지구서 송도에 머물러서, 서울 한양으로 오백 년 도읍을 하러 올라 올 텐디, 집을, 대궐을 건축을 못하니께, 날짜는 택일을 다 해 놨어두 건축이 서느냐 말이죠. 그러니께, 무학대사가 도망을 했대요.

도망을 해서라니 내려 오는디, 내려 오너라니께, 웬 노인이 소를 가지구설랑이 밭을 갈

거든요. 밭을 갈면서,

"이랴 이랴, 미련하기는 저 놈의 소 무학이만도 못한 놈의 소라구. 무학이보다 미련하다."

구 그러거든요. 무학대사가 도망을 해서 간월도로 내려 오다가, 절루 내려 오다가, 도망을 해서 오는 길인디, 목숨을 부지 못허게 생겨서 오는 길인디, 아, 그 소리를 들으니께서루, 자기가 무학인디, 무학이보다 더 미련하다구, 소보구서 미련하다고 그러니께,

'아, 이게 어쩐 일이냐?'

구. 가서 노인보구, 절을 하면설랑이,

"노인장, 제가 무학인디, 제가 어쩌냐 하면은, 서울, 한양 가서 이성계씨 도읍터를 잡구서 건축을 하다가 내려 오는데, 자구 새면 무너지구, 자구 새면 무너지구, 낮에는 일 허구, 밤에는 집이 허물어지니 어쩐 일입니까?"

"응, 자네가 무학이여? 자네 미련하지, 거 워째 미련치 않은가?"

"아, 워치게서 내가 이렇게 미련합니까?"

"아, 자네 무슨 형국을 잡구서, 거기다가 집을 건축을 하나?"

"형국은 학의 형국입니다."

"학의 형국에다 집을 짓는디, 건축부텀 혀? 그러니께, 미련하지."

"아, 그러면 워티게 합니까?"

"학의 형국에다가 집을 지을라면 뺑돌려 성부텀 쌓구서, 사대문을 딱 해 닫구설랑으니, 건축을 해야 건축이 제대루 서. 학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 날개를 이렇게 〔두 팔을 벌려 날개짓을 하며〕 푸득거리고 날아 갈려고 하면 집이 허물어지지 그게 남니? 안 남어. 거기다가시리 도읍터를 지을라면, 올라가서 성부텀 쌓구, 사대문을 내구, 사대문부텀 딱 해 닫구서 지어라."

그래서, 무학이가 올라가서 뺑 돌리 성부텀 쌓구서, 남대문이니 동대문이니, 서대문이니, 북문이니 이렇게 사대문을 떡 내구서, 문간부터 다 해 놓구서 건축을 하니께 그 때서, 건축이 제대루 섰다는구만.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0. 쌀나오는 구멍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무학대사가 중 하나를 데리고 간월도에 있을 적에 바위 구멍에서 쌀이 하루에 서홉씩 나와서 그것을 먹고 지냈다.

식량이 적어서 늘 배가 고팠던 중은 무학대사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 구멍을 크게 뚫었다. 그랬더니, 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전에 여기서 듣는 말로는 무학대사가 간월도에 가 있을 적에, 자기하구 제자 하나하구 둘이서 있는디, 바위구녕에설랑으니 꼭 쌀서 홉씩, 쌀이 나왔다거든요. 쌀, 양미가 나왔드래요. 무학대사가 먹구 살 양미가.

나오는데, 그 무학대사가 어디 가서, 절에 안 있구 그러니까, 서홉 가지구서, 둘이 하루에 서 홉 가지구서 먹으니께 식량이 적지 않아요? 거기 있는 대사가. 그러니께,

'아, 이거 스님 어디 간 김에 구녕 좀 켜(키워)보리라. 이걸 좀 켜면 쌀이 좀 더 나오너서, 식량이 적지 않아서 둘이 배불르게 먹을 테니께, 이걸 좀 켜 본다.'

구 징으로 좃아서(쪼아서) 구녕을 켰더라. 켜고 나니껜두루 양미가 안 나왔대야. 양미가 안 나오너 가지구서, 그 뒤루는 그 돌중이 대니면설랑으니 시주 받아다 먹구 살았다구 그래요.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5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71. 가의도(賈誼島)의 유래

T 소원면 파도리 ①—A면

＊줄거리

중국의 가의(賈誼)라는 충신이 '곧 난리가 날 것이니 미리 준비하자.'고 했다가 역적으로 몰려 무인도로 귀양을 갔다. 몇 년 후, 난리가 나서 그의 말이 들어맞게 되자, 그는 귀양이 풀려서 돌아갔다.

그가 귀양을 왔던 섬이 서산군 근흥면에 있는 섬인데, 이 일로 인하여 이섬을 '가의도(賈誼島)'라고 했다.

가의도라는 섬이 있읍니다. 옛날에는 무인도루다 사람은 안 살고 뭣했었었는데, 지금은 가의도두 한 70여 호 되유. 가의도라는 섬은 근흥면에 속했지요.

옛날에 중국서 난세가 뭣해 가지구서, 충신들이 뭣해서 난세가 나겠다니까,

"난리가 뭐냐, 난세가 뭐냐? 지금 평화시절에 난세가 뭣이냐?"

구 해 가지구서, 가의 선생이라는 분을, 그 때는 무인도로 있는 데니까, 중국서 가의 선생을 실어다 귀양 보냈던 디요. 귀양을 오너서, 거기 와서 귀양을 살던 데인데, 그래서, 가의도라고 했대요.

그 분이 귀양을 오너 사는 동안에 난세가 일어나서, 그 양반이 난세가 날 테니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구 허니껜드루 역적이라구 가의 선생을 귀양을 보냈었는데, 그 분 없는 동안에 난세가 생기니께, 말하자면 충신을 역적이라구 갖다 보낸 거 아니유? 해서 그 분을 도루 실어 갔다구 합디다. 중국서 오너서. 그래서, 가의도라고 했다고 허지요.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명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2. 왕등도의 전씨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줄거리**

고려 때 전(田)씨가 전라북도에 있는 왕등도로 귀양을 갔는데, 그는 들이부치면 물건이 딸려오고, 내부치면 나가는 부채를 하나 가지고 갔다.

그는 식량이 떨어지면 산 위에 올라가 그 부채로 지나는 세곡선을 불러들여 곡식을 얻곤 하였다 한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그 섬에 살고 있다.

저 아래 왕등이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두 귀양 살러 오너서,

〔Tape 교환〕

왕등이라는 데가 귀양 올 적에는 전(田)씨라는 분이 왔더래요. 지금도 전씨들이 많이 삽니다. 지금두 그전처럼 관 쓰고 댕기유.

그 전씨가 귀양을 살러, 왕건 태조 적이래요. 왕건 적에, 송도 적에, 왕건이 뭣할 적에· 그래 가지구 잘못해 가지구, 그 분이 그 전씨가 왕등이라는 섬에다 갖다가 귀양을 살렸는데, 귀양살이 하면은 먹을 것두 아무 것도 아무 없고, 죽으라고 갖다가 풀어 내버리는 것이지, 살라고, 먹고 살라고 뭣하는 것은 아니고. 살려면은 뭣을 따먹고 그저 칡 같은 것을 캐 먹고, 이런 거 먹고 목숨을 살았지 뭐 하나요?

그런디, 그 분은 어떡해서 먹구 살게 했느냐면은 귀양 살러 나올 적에 자기 선조들이 가지고 쓰던 부채 하나가 있는디, 그 부채로다가시리 이렇게 〔안쪽으로 부치는 시늉을 하며〕 들이 부치면, 바다에 가는 세곡선이 절로 따라들어 오고, 이렇게 내 부치면 나가고 이랬대요. 그런 재주를 가진 부채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께, 먹구 살라니께, 곡식을, 인저 세곡을 싣구서 서울로 올라 가는 배를 보면, 왕등이라는 데가 전라북도요. 그래 가지구서, 그 부채로다가, 세곡 싣구가는 배를, 산꼭대기서 보면 짐을 싣구 올라 가니께,

'저 배는 서울로다가 가는 세곡선이구나.'

하구, 그 부채로 들이 부치면 배가 절로 섬으로 따라 들어 오너서 닿았대요. 닿을라치면,

"나는 이러저러해서 귀양 온 사람이니께, 생으로 이렇게 목숨 끊어 죽을 수는 없구, 많이는 싫고 나 조금 먹구 임시라두 살게 달라."

구 이러면은 배에서 그 세곡을 섬으로 주면 섬수가 비고 그러니께, 선원들도 여러 섬에서 조금씩 꺼내서, 조금씩 추려가지구설랑으니, 곡식을 모아설랑이 몇 말이구, 얼마구 주었대요. 주어 가지구서 그 분이 먹구서 살아서, 여태 전씨들이 그 섬을 안 떠나고 여태 삽니다.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3.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줄거리**

안면도는 본래 섬이 아니고 남면과 붙어 있는 육지였다. 한일합방 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니, 안면도는 큰 인물이 날 지세(地勢)이므로 큰 인물이 나지 않도록 지맥(地脈)을 끊기 위해 판목을 잘랐다. 그러자, 자른 곳에서 피가 흘렀다.

이렇게 하여 안면도는 섬이 되었는데, 지금은 연육교를 놓아 다시 육지처럼 되었다.

안면도라는 디가, 이 판목이라는 디가 이렇게〔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한일자를 그으며〕 연륙되어설랑이 육지로 댕이던 데요. 안면도하고 남면하고 연락되어서 다니던 멘디, 일본 사람들이 나오너서 지리를 보구서, 안면도서 큰 사람이나 장수가 난다구 말여 산맥을 잘랐읍니다. 잘랐다고 그럽디다.

〔채록자 : 청나라 사람이 자른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일본 사람들이래요.

내가 경술생인디요, 경술년에 일본 사람하고 합방을 했거든요, 경술년에 합방을 했다고 그러는디, 그 경술년 뒤로다 잘랐어요. 그전에 그저 안면도요. 섬이 아니라 육지로 연륙했던 디인디, 그래도 안면도라고 내려 왔는디, 그걸 일본놈들이 짤랐어요. 요 판목이라고 짤른 메가 있읍니다. 판목이라는 메를 잘르구서, 지금은 다리 놓구 건너대니유. 잘랐던 자리를 다리 놓고 건너죠. 다리 놓은 지 20년 못됐지요. 그전에는 나룻배가 버스를 실어 낱랐지유.

짤르니께 피가, 산에서 피가 흘러설랑으니 물골에 물 내려가듯 했답니다. 노인들 말씀이 혈맥을 잘르니께 그렇게 피가 난 거지요.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4. 대문을 달지 않은 한동 이씨네 집(1)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가난한 이씨가 부자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 집에서 나와 굴장사를 시작했다.

어느 날, 이씨가 남면 몽산리 마침재를 넘어가노라니까, 나뭇군들이 굴을 먹은 중을 붙잡아 때려 주고 있었다. 이씨는 나뭇군들로부터 중을 구해 주었다. 중은 고맙다고 하며, 이씨에게 좋은 집터를 잡아 주겠다고 하였다. 중은 태안에서 남면으로 갈라지는 길 옆(지금의 한동)의 덤풀밭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다 움막이라도 짓고 살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된 후에도 기와집을 짓지 말고, 대문을 해 달지 말라. 그런데, 저 앞 한티고개에 사람이 끊어지면 재물이 나갈 것이다."

이씨는 그 곳에 움막을 짓고, 전에 머슴살이 하던 집에 가서 벼 한 섬을 얻어 왔다. 와서 보니, 그 볏섬 속에는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다. 이씨는 부자집의 업이 자기 집으로 왔으므로, 그 볏섬을 다시 지고 가서 다른 볏섬으로 바꿔 왔다.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 그 구렁이가 다시 와 있었다. 다시 볏섬을 지고 가니, 부자집 주인은 그대의 복이니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했다.

어느 이른 새벽, 이씨가 굴을 받으러 가느라고 남면 몽대(夢垈)에 이르니, 상여 하나가 올라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상여는 간 곳이 없고 낡은 배 한척이 있었다. 그 배 안에는 엽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는 질 수 있는 만큼 짊어지고, 나머지는 언덕 위의 콩밭에 묻어 두었다.

이튿날, 이씨가 묻어 둔 돈을 가질려 가 보니, 밭임자가 일꾼들과 함께 콩밭을 매고 있었다. 그들이 돈 묻은 곳에 이를 무렵이 되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중지하고 돌아갔다. 이씨는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한동 이씨인데, 그 집은 얼마 전까지 초가집이었고, 대문을 달지 않았었다. 한티고개는 그 아래로 신작로를 내게 됨에 따라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사만석 받던 부자가 있었대요, 태안에. 사만 석 받던 부자가 사형제 틈에 만 석 씩 사만

석을 받았읍니다. 지금 자손들은 지금두 그 분이 먹구 지내는 것은 괜찮게 지내요. 그렇지만서두, 사만석 받구 벼슬까지, 형은 고창, 전라도 고창 골살이 해서 고창 영감이라고 하고, 또, 해미서 살았다는 사람은 해미 고을 살아서래미 해미 영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관직이 의관 벼슬 해서 의관 영감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참의라고 참의 벅슬하고, 그럭해서 사형제 분이 다 관직 있시 살던 인데, 그 분의 어른이, 그전에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이 회열씨라고.

나왔는데, 그 분도 구차하게 살다가, 본디 도깨비 사는 집에서 살다가, 남의 집에서 고공(雇工)을 했거든요. 고공을 해서 사는데, 아 일년 살아도 그만. 이태 살아도 그만. 먼저 애들하구 갖다가시니 참, 그러니께, 그 분이 손이 사형제요. 사형제인디, 회열씨 그 어른 손이 사형제인디, 아들 사형제를 혼자 머슴 살아 가지구서 먹구 보구, 그전에야 거칠은 벼 두 섬 줬어. 일년 남의 고공하면 그걸 받아 갖구설래미, 자꾸 먹구, 미저지(남아서 밀리는 것이)가 없이 곤란하게 살았거든요, 그 집이서. 그 집에서 살다가, 아, 몇해를 살아도 그턱이고, 그턱이고 허니께,

"에이, 나 어디 가서랑으니 움이라도 묻구설라미 내 무슨 장사라도 해 봐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구."

"아, 수년간 나하구 같이 살아서 한집안 식구로 살았는데, 미저지가 없이 사니께 그러는디, 그래, 워칙한단 말이냐?"

"아, 그렇더라도 내 이렇게 혼자 고공 해 가지구 살아서는 새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께, 나 나가서 자의로다 장사라도 해 보면서 살겠노라."

구.

이래 가지고설랑이 참, 그 집에서 심씨들 부자집에서 나왔는데, 그 심씨들은 도깨비루다가 잘 되 가지구서 사는디, 나오너서라니, 쪽지게 장사, 굴장사를 했더래요. 굴장사를 허는디, 요 남면 마침재라는 재가 있어요. 그래설랑이, 식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남면으로 굴을 사러 내려 가느라고, 높은 지게에다 양철을 올려 놔서 짊어지구서 내려 가노라니께, 그 마침재라는 등성이에 가니께서루, 그, 나뭇군들이 한 대여섯이 이렇게 모여 앉아설랑이 뭣하는디, 가 보니께 웬 속가(俗家)에 내려 오너서 시주 걷으러 다니는 대사 하나를 갖다 놓구서는, 들구 뺨대기 때려싸고 때린단 말여. 때리니께드루, 그 대사가 그냥 맞고 앉았는데,

"아, 웬 속가에 시주 받으러 오는 대사를 그렇게 때리느냐구 말여. 나뭇군들이 모여서 나무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때리느냐?"

구 그러니께, 그 나뭇군들이 하는 말이,

"아, 감히 절간에서 불교를 믿구서, 불도를 위하고 있는 대사가, 중이 왜 비린 것을 먹느냐? 저 대사가 생굴을 사 먹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때리노라."

구.

"아, 그럴 것 없다구. 사람이 먹는 것이니께, 자기두 어쩔 수 없이, 불도를 믿고, 위

하고 있지만서두나, 비린 것을 배가 고프니께 먹었지. 어떡하냐?"

구.

그래 인저 싸움을 말려서라니, 나뭇군들을 해산 시키구서 나니께, 대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아, 그 놈의 거, 나 나뭇군들한테 이런 챙피를 받았으니께, 내 이 굴을 내놓겄노라."

구 목구녕으로 토하더래요. 꾜약 꾜약. 토하는데 뭐 하나 깨물어지지도 않고, 생굴루다가 먹은 거 고냥 다 내놓더랍니다. 내놔서라니, 그러면서,

"아,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 나뭇군들한테 큰 봉변을 당하구 살았는데, 내가 요기 태안에서 남면을 들어 오다 보니께, 집자리 하나가 쓸만한 데가 있어. 허니께, 내가 거기를 봐 줄 테니께, 가서라니 거기다 움이라도 묻구서 살면은 괜찮으리라."

구. 그래 가지구서는, 오너서 그리루 가자구 그러거든요. 가자구 해설라니 오니께, 태안 차부 건너요, 바로. 태안 차부에서 남면으로 들어가는 고기가, 그전에는 '한동 한동' 했죠. 거기 보구. 부자터 보구서.

그랬는데, 오니께 덤불밭인디,

"여기다가 덤풀을 쳐내구서 움이라도 묻구설랴미 살면은 장사도 잘 되고 괜찮을 테니께 살라."

구. 자리를 잡아 주면서,

"이 터는 대문도 해 닫지 말고 사립문으로 해 닫고, 기와집도 짓지 말구 초가집으로 짓구. 이럭해서 살라구. 그러면, 괜찮을 테니까 살라."

구. 그래 가지구서는, 거기다 자리를 잡아 주는데, 이 터가, 고 위, 고— 한티고개라고 있읍니다. 서산 나가는 길로 나갈라면 한티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서, 그 고개로 넘어 다녔어요. 지금 신작로로 안다니구. 지금 신작로는 새로 둘러내서 신작로지.

"한티고개 길 둘라내서 사람 끊기거든, 이 재산이 다 나갈 줄 알아라."

그럭하면서, 거기다가 움막을 짓구서 살라니, 돈이 없으니께, 자기 머슴 살던, 고공허던 집으로 갔거든요. 그 부잣집 심씨네. 심씨네를 가서,

"내가 이렇게 주인하구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갈려서 나가구 보니께, 내가 초막이라도 하나 짓구서 애들하구 뭣해야 할 텐디, 겨울을 나야 할 텐디, 나래 이엉 바람이라든지 주야, 내가 움이라도, 움집이라도 짓구서 살겄노라."

구. 그러니께,

"아, 우리 산판에 나무 잔뜩 있고 말요, 이엉도 자네 마음대로 뭣해서 가져가구, 그야 못하겄느냐구. 우리가 수 십년간 같이 동거했으니까, 한 집 안식구로 내려 왔는디, 이걸 못허겄느냐구. 마음대로 하라."

구. 심씨네설랑으니, 산판에 가설랑으니 석가래두 비구(베고), 짚두 인제 짚단두 구해다가 나래두 엮구해서 사는데, 인제 또 먹을 게 있느냐 말이유. 살라고 은거를 해 보니께.

그러니께, 그 집에 가설랑으니,

"아, 내가 장사가 잘 되서 뭣허면은 갚아 줄 테니까, 나 벼 한 섬만 주쇼. 시안(설 안) 먹구 살게. 먹구 살아야 할 테니께 벼 한 섬만 주쇼."

"아, 이 사람아, 내 못준다고 할 필요 없어. 허니께, 자네가 다 해설랑으니 곡간에 쟁여 놓구 나간 벼여. 허니께 자네 맘대로 가지구 가소."

그려면서, 곡간 열쇠를 가지구 가서 문을 열면서, 그 때는 섬벼거든요.

"한 섬 짊어지구 가라."

구. 지구 왔더래요.

지구 오너서, 벼를 갖다스리 움집에다 들여다 놓구서, 조상께 메라도 지어 놓구설랑으니 제사를 올린다구 벼섬을 찧을라구 헐어 보니께, 아, 거기가 진대(뱀) 업이 들었거든. 뱀이 들었단 말여. 아 그래서, 도루 막아 묶어설라니 가서 짊어지구 갔단 말여, 그 집이를 가니께드루.

"거, 왜 벼 도루 지구 왔나?"

"아 주인영감, 이 벼를 내가 못먹어. 못먹는 것이, 가서 헐구 보니께, 헐어서 먹을 라고 보니께, 댁의 업이 왔어. 업이 따라 왔으니께 바꿔 달라구."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마음씨가 착하단 말여. 그래서, 바꿔 줬더래요.

바꿔서 딴 놈 한 섬을 또 짊어지구 왔는디, 그 날 저녁에 바람도 안 불고, 아주 눈이 곱게 오더랍니다. 눈이 많이 와서, 자욱 눈이 와서, 발 디디면 발 빠질락 말락하게 눈이 왔는디, 식전에 자구 일어나설랑으니 나가니께, 이렇게 작대기 끝은 거마냥 왔거든요. 오너서라니 자기 집으로 들어 왔단 말여. 그래설랑으니, 가져온 볏섬을 가설랑으니 보니께드루, 볏섬 안에가 또 들었단 말여. 밥에 눈 위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 심씨네 갖다 준 디서, 그 집에서 도루 그 집 왔단 말여, 그 업이. 그래 가지구서, 뭣허니께, 도루 짊어지구 왔더래요.

"이리 저리해서 지금 또 왔어. 밥에 눈 온 데로 이렇게 와서, 다시 데리구서 이렇게 왔다."

구 그러니께,

"나는 이제 시운이 다 된 사람이여. 자기게루 인제 그 복이 가는 거니께, 자기 시운이 되서 가는 거니께, 도루 바꿔가서 뭣하겠느냐? 그대로 두라."

구.

그래 가지구설랑이, 부자가 되는디, 되 가지구서, 그 초막에서 뭣해 가지구 굴장사를 하며, 굴을 받으러 남면으로다가 양철을 짊어지구, 저녁에, 밤에, 새벽에 장을 보러 올라 올라구 가서 받아 가지고 올라고 내려가느라니께, 그 몽대 장도리라고 있읍니다. 막음포라고 막음포 장도리설랑으니 아, 상여가 올라 오는디, 불을 써 가지구서 상여를 메구서 사람이 수백명 소리를 허구서 올라 오더래요. 몽산포 장 보러 내려 가니껜드루, 그렇게 오너서 가까이 가서 보니께, 가까이 가니께 없어져 버리거든. 아, 칠월달일러래야. 칠월달인디, 가보니껜

드루, 배가 위탑은 부서지구, 밑구녕은 이렇게 남아 있는 데가, 그 때는 엽전이지유. 돈이 한배가 실려 가지구서 거기가 있거든. 아, 그러니께 재산을 무더기로 얻었단 말여.

'아, 이 놈의 거 얻은 재산이니께드루, 날 새면은 이것을 워트케 할 겨를이 없으니께, 글발에, 콩밭으로 다가 져 올려서, 콩 속에다 감추구서, 야중에라도 가져간다.'

그 놈을 자기가 가까운 밭으로다가 들구 져 올렸드랍니다. 져 올려 가지구서 감추구서, 다 배에서 풀어, 파서는 배 밑에다 풀어 올려서, 콩밭에다 감추구서 한짐 짊어지구서 집에 올라 왔어.

날 샜으니께 밭임자는, 날이 좋았드래요. 좋았는디, 밭을 맬라구 사람을 얻었거든. 사람을 얻어설랑으니 밭을 매는디, 하필이면은 고기쯤, 돈 갖다 묻은데, 감춘 데를 매 갈만하니께, 하늘에서 난데없는 비구름이 생기더니 소낙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소낙비가 쏟아져설랑으니 보니께, 밭 매던 밭군들이 비 안맞을라고 피해서, 다 가서 일을 미어(중지해) 버렸거든. 일을 미어 가지구서, 딴 분 데려다가시리 돈을 눈에 띄지 않구설랑으니 그 사람게루 뭐해 가꾸, 그 재산을 전부 집으루 가져왔더래유.

그래 가지구설랑으니 부자가 됐더랍니다. 요기다, 와서는, 산소도 예다(파도리에다) 썼읍니다. 모이 쓴 자리가 해외농주. 새우가 구슬을 물구 회롱하는 자리라고, 요기다 모이를 썼다가 간 해에 파갔읍니다.

〔채록자 : 지금부터 얼마 전의 일인가요?〕

백 오십 년쯤 전의 일이유.

〔채록자 : 그 집은 지금도 있읍니까?〕

대문 안 달은 그 집은 지금은 다 밀어 붙여서 다른 사람이 살아유.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 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젊었을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회열씨의 자제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구연 경력 : 별로 한 적이 없음.

75. 마고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2)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마고 할미가 바다에 난 개울을 건너는데, 깊어서 속옷이 젖었다. 그래서, 고쟁이를 벗어서 바위에 앉아 말렸는데, 그 때 바위에 발자국·무릎자국이 났다.

이 바위는 지금 고남리 앞 바다 모래벌에 있다.

옛날에 어른들 그러는디, 굴양식하는 저 쪽으로 돌아 가는디, 거기가 매출한 바위, 밑이가 매출하게, 짜코가(자국이) 매출하여. 그런디, 거기가 마귀할매가 전부 돌아댕여도, 이 두멍께 개울보다 더 깊은 개울은 없어서, 그 개울로 건너가다 여기가 젖었드래요, 다리가. 옛날에 속곳을 입었잖어. 속곳 가루쟁이가 젖어서, 거기서 앉아서 말린다고 이렇게 해서 그 짜코가 있다고 했어. 바위가 그게 마구할매 궁뎅이(궁둥이)짜코래야.

채록 일시 : 1987. 1. 6. 낮 12시 5분경
구 연 자 : 김 창분(여, 6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누동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채록 장소 : 같은 마을의 김 두영씨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고남면 부면장 김 휘씨의 안내로 김 두영씨댁을 찾아가니, 동네 아주머니 5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연자는 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채록자의 부탁을 받고 구연하였다.
청 중 : 마을 아주머니 5명, 김 휘 부면장, 김 태곤 교수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젊었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고, 그 바위에는 수차 가 보았다고 한다.

거기가 강이거든, 그 밑이가 갯물쓰면 개울만 남는. 인제 거기서 마구할미가 내려서 강을 건너는데 속곳이 젖었어. 옛날에 속곳이죠. 속곳이 젖었으니께, 그걸 말리러, 말리느라고 거기를 가서 옷을 말릴 데가 없어서 유심히 보니께, 그런 바위가 있어. 벌에가. 모래장벌에가. 그런 바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두손을 방바닥을 짚고 다리를 펴으면서〕 그 속곳 말리느라고 들어앉아서 이렇게 걷어 올리고 말렸어. 그래서 패었어.

그전에 우덜 보면, 발짜꾸(발자국)도 있구, 요렇게 말린 무릎자꾸도 있구, 궁둥이짜꾸도 있고, 아주 뭐 다 있고, 보지짜꾸할래(까지) 다 있어. 그렇게 짜꾸할래 다 있어.

채록 일시 : 1987. 1.6. 낮 12시 5분경
구 연 자 : 최 밤점이(여, 77 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앞 이야기와 같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 최씨는 이야기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동네 이주머니 한 분이 일부러 가서 구연자를 김 두영씨댁으로 모셔왔다. 김 창분씨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들어왔는데, 다시 이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구연한 것이다.

76. 말섬, 길마섬, 할미바위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줄거리**

고남면 앞에는 일하던 말이 길마를 벗어 놓고, 풀을 뜯으러 가는 형상의 섬이 있다. 하나는 길마섬이고, 하나는 말섬(또는 옷섬)이다. 거기에는 배고파하는 말에게 주려고 죽통을 이고 가는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이는 할미바위가 있다.

옷점 앞에 당산리서 뻗어나간 디가 있어요. 바로 옷점 부락에 해당하는 얘긴디요. 내가 그 동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섬 옷점이라고 지금 있거든요. 섬 옷점. 섬옷점이 있는디, 그게 형체가 뭐이냐면은 말의 형체요 말. 그 섬이 그런디, 그 말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속굴 풀초리로 풀을 뜯어 먹으러 가는 형체여. 가다가 요렇게 돌아졌어. 요렇게 해서 풀만, 풀바닥만 보구 간다구. 그러면, 풀은 뭐냐면 소굴 풀초리 김지리 있잖아요. 새파랗게 나는 그것을 풀로 보구서, 그것을 뜯어 먹으러 가는 형체다. 이렇게 얘길하데요. 어른들이.

그런디, 그 배고파서 가니까, 그 길마섬이라는 게 또 있거든. 그러면, 일하다가 길마, 이 위에다 지는 거 있잖유, 그게 길마유, 말 위에다가 길마해서 그놈으로 일하는 거 아닌 감.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서 그놈을 벗어 놓고. 그럼 그 바위가 영락없이 길마 형태로 되 있었다구. 지금은 간척사업하느라고 돌 일러서 형체만 남았어요. 그런께, 인저 배고파서 숲으루 풀을 뜯어 먹으러 가는 그것을 안타까와서 할머니가 죽통을 이고 가는 할미바위가 있거든. 멀리 죽통을 인 것이 아주, 지금두 있슈 그건.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그 동네 앞에 그거 있더만요.

채록 일시 : 1987. 1. 6. 오후 1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상춘(남, 56 세, 농업, 국졸·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4구 1784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고남리에 있는 음식점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고남리에 있는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이씨를 만났다. 고남면 김 휘 부면장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고, 식사하면서 전설 몇 가지를 채록하였다.

청 중 : 김부면장과 조사단 일행 7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77. 옷점(衣店)의 유래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줄거리**

고남리 4구에 옷점이라는 마을이 있다. 서해안에서 청어가 많이 잡히던 때에는 이곳에 저자가 섰었고, 돈이 많이 돌았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옷점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衣店'이라고 쓴다.

옷점은 한자로 쓰면 衣店이라구 써요. 의점이라는 자는 왜 나왔느냐? 그건 옷점에 옛날에 제자(저자)가 섰대요. 제자라는 게 말하자면 장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파는 데가 제자거리 아녀요. 그렇게, 제자거리라는 이름이 있다구. 또, 제자거리가 있는디, 그거에서 그 옷점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여.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옷점 앞의 바닷가시루다가, 청어살, 옛날 청어가 서해안에 만발했을 때, 그 주산지가 바로 옷점이요. 청어의 주산지가 그럴 때 돈이 많이 벌어 들이니께, 그 때 엽전 쓸 때 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께, 거기서 제자를 봤다는 겨.

그러면, 옛날에는 행정구역이 옷촌이예요. 여기가 보령군 옷촌, 행정구역을 따지면. 옛날에는 그럴 때니께, 그 엽전을 순전히 옷촌으로 실어 건너는 겨. 괴기 팔아서 여기서 엽전 들어 오면 그루 건너다 쓰구. 그런데, 그 때 어느 정도의 관문이여 거기가.

그렇게 되 가지구서 그 제자거리 장이 그렇게 돈이 흔했단 말이여. 청어살 배 가지구. 그러니까, 거기다 제자거리 섰다 허는 데에서 장사가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옷점이라는 글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채록 일시 : 1987. 1. 6. 오후 1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상춘(남, 56 세, 농업, 국졸 ·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4구 1784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8. 노 루 땅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지금은 그 땅이 고남리 1구, 감나무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디요, 그 노루땅이라고 생긴 원인은 뭐 때문에 노루땅이라고 거기를 했느냐, 이렇게 원인을 들어 보니까, 옛날에 그 나뭇군을 노루가 유인해 가지구 산소자리를 잡아 줬다는 기유. 그래서, 노루땅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데요. 그게 편씨(片氏)네 산소유.

채록 일시 : 1987. 1.6. 오후 1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상춘(남, 56세, 농업, 국졸·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4구 1784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79.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5)

T 안면읍 황도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아주머니가 길가 덤불 속에 아이를 낳아 놓았다. 그 아이를 학이 날개로 덮어 주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무학'이라 했다.

옛날에 말유 어떤 아주머니, 장에 토고장, 그전에 토고장. 근디 새댁감인지 뭔가 물러. 그 감으로 가 가지구서, 근디 아이를 배 가지구서, 그이는 신랑도 없구, 다니다가 뱄으니께, 워치게 아남.

배 아프니께는 워칙여. 덤불 속에 그냥 들어간 겨. 들어가서는 아이를 낳았거든.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께는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모르는 겨. 그랬더니, 학이 와서 날개를 덮구서 품구 앉았더란 얘기여.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지. 암것두 모르니, 학이 와서 안아줬으니께, 성도 모르지, 무학이라구 해서 무학대사라고 그랬더야

채록 일시 : 1987. 1. 6.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오 재욱(남, 40 세, 어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4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김 태곤 교수와 함께 찾아가서 만났다. 그 곳에는 어른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다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김교수를 보고 반가이 맞아 주었다. 무학대사의 전설을 묻자 오씨가 자청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망각이 심하여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못했다.

청 중 : 마을 사람 및 선원 8명, 어린이 3명, 김 태곤 교수

처음 들은 때 및 들은 곳 : 어렸을 때 정자나무 밑에서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80. 해적을 쫓은 양반

T 원북면 이곡리 ①—A면

*줄거리

조선시대에 원북면 황촌리, 방갈리로 귀양 온 양반이 있었다. 그 양반은 이곳 주민들한테 양반 노릇을 하면서, 곡식을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먹고 살았다.

그 무렵, 고창 성래패 해적이 가끔 이곳에 와서 노략질하곤 했다. 그 양반이 그 해적패를 불러 이곳엔 오지 말라고 하니 해적들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에 저, 이씨대왕 적에, 그 자손들 잘못 하면 이 궁촌으로다가서 귀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귀양 위치로 잡아서. 그러니께, 구석쟁이루다 오너서 황촌 방갈리, 말하자면 그런 깊숙헌 데로다 가서 살아라. 각자 살아라.

그 황촌 방갈리라는 데가 궁땅이 됐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궁땅이 되 가지구서, 세조를 받되, 서울서 오신 양반에게 다 받쳤시요. 그래 가지구서, 앉아서 그 양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양반이다. 허니께, 내게다 바치며 내 지시를 밟으야 한다."

그래 가지구서, 황촌 방갈리라는 데가 노게 궁땅이었었구, 궁땅의 양반이라는 행세에 대해서 지시를 받아 내려왔지유. 그래 가지구 벗섬이나 해 놓구 먹구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 식량 없으니께, 내게루 좀 가져오너라."

또, 돈 없으면,

"나 용돈 없으니께, 좀 쓰야 할 텐데 늬가 좀 얼마 좀 내놔다구."

그런 정도로다 와서 양반, 상놈이 있었다구 그러지요.

그러구서 인제, 해적이 또 있었시요, 거기에, 고창 성래패라구하는 해적이 뭐냐면, 배타고 다니면서 황촌 방갈리 다니면서 노략질이라구 할까요, 도둑질 하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 고창 성래패루다 와서, 해적 관계에 못 산 사람이 더러 있죠. 못 산 사람이 더러 있으되, 서울서 오신 양반이라는 양반이 불러다 놓구 그 고씨를 대어서,

"너 여기 들어 오지 말아라."

해 가꾸서 덜 들어오기 시작했다구 그러지요. 그래서 양반은 왈 양반이다. 이런 얘길 했

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10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 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 채록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원북면사무소에 들러 면장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하니, 면장은 직원 이 상일씨에게 이곡리로 안내하라고 하였다. 이씨의 안내로 구연자의 집에 찾아가 만났다.
청 중 : 구연자 지씨의 부친과 아들, 면직원 이씨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부친한테 들었다 함.

81. 황촌리 당재와 서낭당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원북면 황촌리에는 해마다 당제를 지내는 당재가 있다. 그런데, 이 당재 밑으로 상여가 지나가면 동네에 역상(逆喪)이 난다하여 상여는 그 밑으로 다니지 않고 돌아서 다녔다고 한다.

또, 이 마을에는 서낭당이 있어서 떡, 붉은 조각, 실 등을 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침을 뱉고 지나가기도 했다. 몇 년 전에 도로공사를 하여 서낭당은 없어졌는데, 그 때 큰 구렁이가 죽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한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당재라고 하는 디가 있는디, 요 넘어요. 황촌리 당재라는 디가 있는디, 동네 사람들이 해마다 당재에 가서 제를 지냈어요. 제를 지내다가서, 이 시국에 와서는 제를 안지내면 어떠냐구 고만 두었거든요. 그런디, 당재 밑으로다가, 동네 사람이 죽으면요, 상여를 못가게 해요. 그전에 갔었는디, 가면은 그 역상이 나요. 그 동네가. 역상이 나가지구 꼭 젊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바람에, 신체를 못가게 했는디, 이 근래 와서는 더러 댕이던데요. 그래서, 별 지장없을 게라고들 그래싸터만요. 그러나, 목말이라는데가 역상이 그래도 나요. 다른 데보다는 모든 걸 제를 안 지내서 그렇다구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전에는 당제를 지내야 할 적에 동네에 추렴해서 같이같이 협조해서 지냈고, 이제 또, 말하자면 고을 내에서도 먹을 만큼 사는 사람이면, 나를 좀 위하고, 이편을 위해서 단독적으로 지낸 적도 있고 그랬지요.

그러구, 서낭당이라는 데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두 개 세 개씩은 자갈 같은 것을 집어던졌시유. 그건 무슨 의미인진 몰랐지요. 그러구, 거기다가 정월 보름날이나 선달 그믐날이나 그런 때에 대해서는 떡도 해 갖고 가고, 붉은 조각도 갖구 가고, 실도 갖고 가고, 갖구 가서 걸어 놓고서, 제를 지내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가래침을 뱉기도 하구,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럭해서 내려오던 서낭이 있었는데. 인제 도로를 내느라고 도자를 대구서 미는데

큰 구렁이가 있었다구 그러지요. 그런디, 구렁이가 허리도막 잘라져서 나가는 바람에, 그도자, 그것이 야중에 해를 볼 것이다. 그렇게까정도 애길했어요. 그런디, 해 보구 안 본 건 몰라요. 그런 말만 들었지요. 그래서, 정리 끝나서는 서낭이 어디가 긴지 그걸 몰르게끔 됐시유.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20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82. 단지(斷脂) 한 효자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원북면 이곡리에 사는 지 득재(97세)씨는 홀로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단지하여 피를 어머니 입에 넣어 드렸다. 그러자,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소생하여 3일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몇 년 전에 태안 향교에서는 그의 효성을 기리는 뜻에서 지씨의 집 옆에 비(碑)를 세웠다.

대문 밖에 있는 비(碑)를 말씀 드리면유, 아버지께서지유, 조실 부모를 하셨시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홉살, 열살 적에 부모를 잃었시요. 잃구서 편친 슬하에 어머니만 따라 댕이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민어도까정 가서 살았었대요. 방갈리 민어도지요. 게가 사실 적에 모자간이지. 모자간에 고생하시는디, 이제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구 어머니 따라 댕이면서 이렇게 고생이라고 할까, 나를 구해 주시니께,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루다가서, 참 아주 모든 것이 모자간에 합의가 됐던 모양이유.

그래서 수년간 모시구 계시다가서 임종시에, 할머니지요. 할머니 임종 시에 단지(斷脂)를 허셨다구 그래요. 손가락을 마치(망치)로 깨쳐 가지구서, 입에다 넣어 드리니께, 피 세 방울 멀어졌는데, 삼일간, 도루 되살아나서, 삼일간 지체하시다가 작고하신 예가 있시요.
〔채록자 :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었나요?〕 할머니는 예순 다섯쯤 됐지요. 아버지는 한 50쯤 됐을거요.

그래서, 단지하시는 걸 이웃의 사람이 보구서 참 수년간 묻어 내려왔죠. 아무말두 없었는디 향교에서, 태안 향교요, 표창을 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애길 허는디,

"이웃의 단지 하신 양반을 그냥 말 수가 없어. 부모 작고하실 적에. 단지해서 삼일 가량 살으셨다 작고하셨는디, 그냥 말 수가 없다."

구 그래 가꾸, 동네에서 자자해가지구서, 향교에 대해서 7개면의 협조루다가 비를 세웠죠.

〔채록자 :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을 단지 하셨나요?〕 오른손 약손구락이지요.

〔채록자 : 효자비 세운 것은 언제인가요?〕 한 9년 쯤 됐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25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의 주인공 지 득재(97세)씨는 구연자 지 영종씨의 부친이다.

83. 자를 때 피가 난 산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원북면 양산리 앞의 도로를 낼 때, 마을 사람들은 산을 자르면 혈맥이 끊어지므로 좋지 않으니 자르지 말라고 했다. 반대를 무릅쓰고 도로공사를 강행했는데, 그 곳을 자를 때 피가 흘렀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요기 청산리라구 할까 대기리라구 해야 할까요. 〔이상일 : 원북면 양산리유〕 신내다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큰 도로를 내느라고 짤르게 됐는데, 그 지방 사람이 못 짜르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를 잘라서는 혈맥이 끊어진다. 끊어지는 형상이니께 짤르지 못한다."

제정 때의 법이 있는디, 잘르지 말라고 한다고 안 짜를 수 있나요? 그러니께, 강약이 부동(强弱不同)이라구 억지로 잘르게끔 됐지요. 그래서, 사람을 대구서 부역으루다 가서 짤르는데, 아닌게 아니라 피가 주르르 흘렀다는 게요.

거기서, 흘른 다음에 이게 워치게 되는 것이냐? 물론 부락사람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 동네사람이 잘르지 못하게두 했거니와, 잘르구 보니까 피가 났으니께, 부락사람이 좋지 못할 것이다. 그래 가지구, 동네가 좀 소란 좀 했었죠. 결국은 길을 내구요. 약간 좀 부락사람이 지장이 있다는, 피해가 있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30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자는 면직원 이 상일씨가 황촌리 1구 목말을 자르려고 했는데 피가 나와서 못 잘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였다.

84. 피가 흐르던 참개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전에 세곡선이 멀리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태안읍 인평리와 도내리의 땅을 파내어 운하를 만들려고 공사를 했다. 그런데, 한참 파 나가니 피가 흘러서 더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그 때 파던 곳을 따라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내를 참개 또는 인평천이라 한다.

옛날 물이 들어오니께 괜찮구, 요기가 갈지락이 시원치 않아서 이루 물 들어 오게 잘랐어. 목말 수루뚱.

〔채록자 : 잘르구 피났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어요?〕

참개 자를 때는 피났지. 참개 목을 자르니께 벌—건 피가 흘렀어. 옛날 세곡선이 남면에설으니 이 뒤까지 안 돌라구 거기를 잘르다가 뭇 잘렀지.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35분경
구 연 자 : 지 득재(남, 97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자는 귀가 좀 어둡고, 기억력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면직원 이 상일씨가 황촌리 1구 목말을 자를 때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를 할아버지께서는 아시는가 여쭤 보라고 하여 자제 지 영종씨가 큰 소리로 물으니까 대답한 것이다.

서산에서 오시다 보면 어송리 검문소가 있지요. 거기서 조금 더 오시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지요. 인평교라고요. 교기서 조금 더 오시다 보면 향나무 많은 데가 있지요. 교기 우측으로 못미쳐서 오면은 태안읍 인평리라고 있어요. 인평하고 남면, 그 천수만하고 태안 도내리라고, 원북에서도 보이는 곳이지요. 거기를 터널 형식으로 뚫어 가지구 배를 다니게 할려구 했다는 소리를 들었시유. 할아버지 말씀이 거기 이야기구만유. 거기를 짜를 때 피가 나온다는 얘기유. 짜르지는 못했지유. 그런디 그때, 파서 내껼(내)이 생겼다는 거지유. 그 내를 옛날 말로 뭐라고 했다구요?〔지 영종씨가 '참개'라고 대답함.〕 지금은 인평천이 지유.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 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0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를 안내하고 간 면직원 이씨가 앞에 이야기한 지 득재씨의 이야기를 보충하여 설명한 것이다.

85. 학이 날개로 보호한 어린아이(6)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남면에서 해물을 이고 다니며 팔아 근근이 사는 여자가 길에서 아이를 낳았다. 여자가 아이를 솥발 속에 덮어 두고 장에 갔다가 와 보니, 학이 와서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무학(舞鶴)이라 하였다.

남면서 웬 부인이 근근해서 갯것(해물)장사를 하는디, 갯것을 이구 가는디, 아 이런, 산기가 있단 말이여. 그러니, 워턱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솥 속에 들어가설랑으니, 해산을 했어. 허구서 뭘루 덮구서는 장에를 갔어.

장에 가서, 장 봐 가지구서,

'무엇이라 산 짐승이라 다치거나 않았나?'

와 보니께, 큰 날개돋친 짐승이 널라간단 말여. 그래 깜짝 놀라설랭이 바삐 가서 보니께, 아주 그냥 자. 그러니, 그 놈이 그 때문에 무학이여. 학이 와서 춤을 추었다. 이름이 그래서 무학이지.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40분경
구 연 자 : 지 득재(남, 97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86. 무학대사와 한양성(4)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무학대사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짓는데, 상량을 하면 쓰러지곤 했다.

무학대사가 태조에게 사흘의 말미를 얻어, 어느 산길을 가노라니까 두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옆 사람을 보고 '무학이보다도 더 미련하다'고 했다.

대사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고 대궐을 지어야 한

다.'고 했다. 대사는 돌아와 노인의 말대로 성을 먼저 쌓고, 그 후에 대궐을 지었다.

무학도사가 도사는 도사여. 무학도사가 한양 이씨 터를 잡았다지. 그 가시로 아주 서울이 당체 워떻게 갈랑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책두 있어. '무학의 지안(智眼)으로 정도자리재해'라구. 지안으로. 지세 보는 안목으루다가설래니 정도자리재해라구. 한양터를 잡아서 대궐을 짓는디 상량할려면 쓰러져 버려. 아, 글쎄 못짓게 됐거든.

아 그래서, 그때, 이 성계씨가 첫 대 왕이여. 벌을 줄라구 하니께,

"사흘만 용서해 달라."

구.

"그럭해라. 사흘이야 못 하겠니."

아 그래서, 산 옆을 들어서서랑으니, 보니께, 산골에서 논을 가는디, 머리 하얀 노인은 쟁기를 재구, 거무스름한 이가 소를 모는디,

"아, 너 눈 어따 팔구서 그렇게 쟁기를 빗 대느냐? 소 가는 걸 보아설라니 저리하구 이리하구 허라구 허지. 아 그저 그냥 있느냐?"

구. 지나다 보니께, 머리 좀 검으스름한 이가 하얀 늙은이게 막 해라를 하거든. 그 어떡허느냐니께 아들이래야. 아들이 더 늙었어. [기억이 안 나서 잠시 중단] 논을 가는디, 아, 논 갈다가,

"그녀리(그놈의) 소 미련하기가 무학이 갈애. 미련하기가 무학이 갈다."

구 그래서, 무학이가,

"지가 무학이 올습니다. 그 무학이가 그렇게 미련합니까?"

"아, 미련하구말구. 학 터에다설랭이 대궐을 지니, 아, 잔댕이다 대궐지어 놓으면 날개 툭툭치면 쓰러지고 쓰러지고 안혀? 성부텀 쌓아서 날개를 눌러 놓구서 대궐을 지어라."

그래서, 가서 대궐을 지었어.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11시 45분경
구 연 자 : 지 득재(남, 97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87. 대문을 달지 않은 한동 이씨네 집(2)

T 원북면 이곡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이씨가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 그가 품삯으로 받은 볏섬 속에 큰 구렁이가 들어 있었는데, 그 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이씨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갈개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다 부서진 배가 하나 있었다. 그 배에는 돈이 가득 실려 있었다. 이씨는 그 돈을 언덕 위의 콩밭에 묻어 두었다.

이튿날, 이씨가 그곳을 가 보니 밭 임자가 콩밭을 매고 있었다. 이씨가 '저 사람이 돈 묻어 둔 곳까지 가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할 때 비가 쏟아 졌다. 밭임자가 일을 못하고 집으로 가자 이씨는 그 돈을 집으로 날라 큰 부자가 되었다.

이씨가 살던 집이 태안에서 남면으로 가는 길 오른 쪽 한동에 있었다. 이씨는 부자가 된 후에도 집터를 잡아 준 중의 말대로 집을 크게 짓지 않았으며, 대문을 해달지 않았다고 한다.

한동 사는 이씨네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처음에 부자될 당시에 그집 옛날 선조가 남의 집 고용살이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유. 그런디, 그 집들은 본(本貫)도 여러번 바뀌지유. 먼저는 진주 이씨, 원제는 뭐. 그것은 역사적으로 환난기에 난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바뀌다고 그래요. 그런디, 그것은 현재 얘기고,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집에가 어디서 벼를 품삯인가 뭘루 받아올 때요, 그것을 옛날엔 섬이지요. 섬에다 지구 오는디 구렁이가 들어서 왔다구 그러지요. 집에 와서, 벼를 옛날에 찧는 것 아니겠슈. 그래서, 그거 도정할라구 내려 보니까, 열어 보니까 구렁이가 이렇게〔손으로 원을 몇 번 그리며〕 둘레둘레 있더래유. 그래서, 그것이 업이 들어와 가지구 그 집이가 부자됐다는 얘긴데, 그게 맞는 얘긴지 모르겠어유. 그러다가 나중에 그 뱀이 슬그머직 없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데유.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한동 이씨네 부자 된 내력 이야기를 아느냐고 물어서 시작된 것임.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중학교 1학년 때, 태안에서 어른들로부터 들었다 함.

한동 이씨라는 그 분이 고공살이 비슷하게 하다가 배를 타는디, 고청이라는 분이 배를 타는디, 아, 바람이 불어 가지구서 풍랑 만났지 그러니께. 만나서 갈개로 닥쳐오는디, 아 배, 달하자면 바닥이 돌아 다니더랴. 배 바닥이 돌아다니는디, 보니께 그 위가 실린 것이 엽전

이 실렸더라거든.

돈이 실려 있는디, 원, 몇 집 머리가 됐는지 그건 몰르지만은 돈이니까, 이때나 저때나 돈이면 그만이니께. 그러자, 가시(바닷가에) 다니께 이 밤중에 혼자는 워치게 처단을 못하게 됐거든. 워치게 전할 새두 없구, 집도 또 가차운 것이 아니구 외멀어져서 갈 여가가 없어서, 콩밭에 대서 고랑이다가서 갖다 부어 놓고, 부어 놓고 했대야, 엽전을.

그러구서, 집에 가서 잠을 자구서, 자다 보니께 아, 해가 올라왔거든, 이걸 져 올라구 사람을 얻을 수도 없는 일이구, 혼자 져 오얄 텐디 워턱헐라는지 몰라. 워치하면 좋은가 하는 길인디, 가서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거든. 가니까, 밭 임자가 아이들·어른·부인 뭣해서 밭을 죽 매 오는디, 가시서(가에서)부터. 그런디, 월마 있다가 닥쳐 오게 생겼어. 거기 돈 있는 데를. 그래서,

'아뿔사, 내가 간밤에 애쓴 것이 헛돈 져다 놨구나. 내 돈이 아니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구서, 저분이 매 오면은 벌써 돈이라는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이 나눠 갖고 말게 됐단 말여.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앉았지.

'저게 밭을 매지 말라고 헐 수두 없구, 무조건 져 올 수도 없구.'

난데없이 하늘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만, 그저 폭포수로 퍼대더래요. 그래서, 인저 밭매구, 밭이 질구 허니께, 그냥 갔더만요. 아, 가구 보니께, 그 날은 밭 못 매구, 저녁에 혼자 그 돈을 져 날랐다는 게죠. 그래서, 그 때부터 그 시초가 됐다는 거여. 그 돈 가지고 땅두 사고, 참 이것 저것 하고 싶은대루 해 가꾸서는 참 몇 만석을 했다구 그러죠.

〔채록자 : 그 집터를 누가 잡아 줬다는 이야기는 없읍니까?〕

어떤 사람이 집터를 잡는디,

"여기가 좋으니 환동이라는 디가 좋으니, 여기가 집만 지은대면 몇 천석을 헐 수가 있는 집자리인디, 부디 크게 짓지 말구, 조그마하게 짓는디, 대문해 달지 말구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 지관 말대로, 터 잡아 준 말대루 집을 짓되 대문을 안 달고 싸립문을 달았더만요. 옛날, 밀구 닫히구 하는 싸립문을 달았는디, 난데없이 부명이 됐시유.

이 중간에, 집에 대해서 단출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싸립문 달 수가 없구 우리가 먹을 만큼 살으니께 대문을 달자."

구 그래서, 대문을 달아 가지구서 그 때부텀은 좀 줄기 시작했다는 게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50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앞의 이 상일씨 이야기에 이어서 한 것임.

88. 외적을 물리친 칠뱅이와 가시내

T 원북면 이곡리 ②—A면

***줄거리**

그건에 외국에서 조선이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병선을 이끌고 왔다. 이들이 안흥 앞바다까지 와서 보니, 조선의 배들이 몇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을 본 이들은 스스로 겁을 먹고 물러갔다.

이들이 본 것이 실은 조선의 병선들이 아니고, 원북면 방갈리 앞에 있는 일곱 개의 작은 섬들이었다. 그후, 이 섬들의 이름을 오랑캐를 막았다 하여 '大防夷', '黑防夷'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어느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의 일이다. 조선의 병사(兵使)가 이 지역의 장정을 다 모았으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병사는 어린이와 부녀자를 모아 갓을 쓰고 모여 있게 하여 남자 장정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장정들을 이끌고 분점에 가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를 본 외적들은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갔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을 '갓 쓴 애'라고 불렀는데, 그 후 변하여 '가시내', '개시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원북면 방갈리에 있다.

서양서 명인 하나가 있어서 지도를 놓구 보니께, 이 동방에 참 아주 유명한 땅이 있어. 그래서, 군사를 총독해 갖구서 나오는디, 여기서 한 40 리도 지나 한 80 리나 지나면, 근흥이라는 디가 있어, 안흥. 거기를 썩 나오면,

"우리가 구구하게 그 땅에 가 살게 아니라 군사를 데리구 나가서 그 나라를 앗아 가꾸 우리가 지내자."

그래서, 저기 가서 거먹뱅이가 있어 흑뱅이. 흑뱅이가. 그 위로 숙뱅이가 있구. 돌막. 또 그 위로 새뱅이가 있구, 대뱅이가 있구. 막을 방(防)자 오랑캐 이(夷)자여, 그게 다. 허구서 질마뱅이가 있구, 여뱅이가 있구 그렇지. 칠뱅이가 있지. 칠뱅이가 오랑캐를 막았다는 거여.

오다가서, 안흥서 자구서 내다 보니께, 아, 병선 하나가 떴거든.

"자, 저게 병선이냐? 또 하나가 있다. 아, 그 위도 있다. 이 조선이 맨 명인만 산다. 우리 나올 줄 알구서 벌써 진을 쳐 있구나. 군사를 일으켜 가꾸."

아, 또 하나가,

"아 그 위도 또 있다. 거 봐라."

그래서, 그 사람네는 회정을 했다지.

허구 야중에 인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군사가 얼마 안 되거든. 거기서 모였는디. 요즘은 다른디, 군사 뽑은 일두 없구. 가시내서 말여, 다 한 장정으로 어른으로 뵈게 하느라구, 죄 갓 씌워서, 분점이라는 데 가서 똥아리 진을 치고 있으니께,

"안된다."

구. 그래서, 갔어.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55분경
구 연 자 : 지 득재(남, 97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면직원 이 상일씨가 '가시내'의 유래가 뭐냐고 물어서 시작된 것이다.

89. 중국에서 떠 들어 온 선접산

T 원북면 이곡리 ②—A면

***줄거리**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할 무렵에 중국에 있는 산 하나가 바다에 떠서 경기 앞바다까지 왔다. 그 산이 서울에 산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 누구인가가 삼각산이 이미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았다. 이 산이 경기도 앞에 있는 선접도의 선접산이다.

선접도에 있는 선접이라는 산이 어디서 왔느냐면, 본야에 그 중국산에서 떠들어 왔다구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삼각산, 이씨 대왕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삼각산이 될라고 중국에서 선접의 바다에 떠서 왔다구 그래요. 아, 거지반 오노서,

"서울에 지금 산이 워치게 됐느냐?"

그러니께,

"하아, 좀 늦었시다. 지금 벌써 삼각산이 들어 앉았읍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구 산신령이 누가 일러줬단 모냥이유.

"삼각산이 들어 앉았시다."

"아차, 이게 올라가야 헛 올라 가니께 소용없다."

그래 가꾸, 주저 앉은 것이 선접이 됐다는 거여. 선접이 보통 큰 산이 아니유. 섬인디.

채록 일시 : 1987. 1. 7. 낮 12시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0. 강태공 낚시질 하던 산부리

T 원북면 이곡리 ②—A면

***줄거리**

경기도에 있는 선접도의 선접산 부리가 낚시질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강태공이 낚시하던 곳이라고 한다.

섬이름이 선접인디, 강태공 낚시질 하던 데라고 그러지요. 낚시질을 허는디, 이깝(미끼)을 께 가지고 뻐드랑 낚시다 괴기 밥을 찼다는 얘기요. 밥을 주구. 평생 그저 우럭 같은 거라도 하나 물리게 되면, 그저 밥만 주구서 그저 말구. 잡는 게 아니라 고기 밥 주기 위해서 낚시를 이깝에 넣어서 찼다는 거여. 선접의 난 부리가 이렇게, 꼭 안개 낀 날에 가 볼라치면 낚시질하는 현상이여. 바위가 뵈길 그렇게 뵈여.

채록 일시 : 1987. 1. 7. 낮 12시 5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1. 대방이섬의 샘물

T 원북면 이곡리 ②—A면

***줄거리**

무인도인 대방이섬에 샘이 하나 있는데, 그 샘은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 먹을 만큼 물이 나오고, 열 사람이 가면 열 사람 먹을 만큼의 물이 나온다고 한다.

옛날에 노인 양반이 대뱅이섬에 혼자 가서 밥해 먹구 살았다구 그러지요. 그런디, 삽(샘) 하나가 있는디, 혼자 와서 밥 해먹게 되면 혼자 먹을 만한 물이 나오고, 또, 이런 데서 계를 간다구. 배루 사람을 싣구 가서 여남은이 가게 되면, 또 열이 먹을 물이 나온다구 그래요. 넉넉한 물은 안 나오고 그저 먹을 만한 물이 나온다고 그러죠. 노인은 평생 거기서 살림을 하구, 도만 힘쓰고, 가시내서 그럭허시다가, 돌아 가실 적에 뭐 앓두 않구서, 하룻밤 잠자듯 돌아 가신 예가 있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낮 12시 10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2. 저승에 갔다 온 노인

T 원북면 이곡리 ②—A면

*** 줄거리**

한 노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돈 300 냥을 잃어 버렸다.
그후 노인이 죽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이승에서의 공덕이 무어냐고 물었다. 아무 것도 없다고 하자, 염라대왕은 300 냥이 저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내 보내 주어서 돌아왔다
노인이 깨어 보니 자손들이 장례를 치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노인은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방갈리서 어떤 노인이 배를 타는디 풍랑을 만났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엉겁결에 이 옷이 그냥 벗겨졌지요. 벗을 새 없이, 바다로 둥둥 떠나 갔거든요. 떠나가는디, 그 옷에 가서 돈이 삼백 냥이 있었지요. 그런디, 삼백 냥 바라고 그 옷을 건질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났으니 몸을 구하기 어려운디, 옷 구할 새가 있나. 헐 수 없이 낚시질해서, 피기 잡아서 팔아서 받은 돈인디, 삼백냥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널러 가구 말았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시름시름 병이 들었던지 어쨌던지, 그 꿈결이지 워디를 가니까,

"너 올 줄 알았다."

그러는디, 염라대왕일러라구 그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라고 하는디, 판임관이 있다가 딱 와서,

"너 공덕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공덕이 무어 있겠읍니까? 그저 먹구 지낼 생활이 곤란해서 배를 타 먹구 지내는디, 참 뱃벌이 못하면 집안 식구가 굶을 지경이구, 뱃벌이를 좀 허면 집안 식구가 먹구 지내구 그런 유래올습니다. 공덕이란 없읍니다."

"허허, 네 공이 있구, 재산이 좀 있는디, 왜 없다구 허느냐?"

염라대왕께서.

"제가 뭐 동전 한 푼 수중에 들구 다니는 것 없읍니다."

"아니, 네가 삼백 냥이 지금 저축되어 있어. 있는디, 네가 없다고 해야 되느냐?"

"그 삼백냥이라는 게, 그런 예가 없읍니다. 삼백 냥을 누구 준 적도 없고, 떠어 본 적도 없구 그렇습니다."

"삼백냥이 저축되어 있으니께, 너를 내보낼 테니, 보내거들랑은 될 수 있으면 저축을 잘 해라."

그런 정도로 말씀 하시더래여.

그래서, 일어나 보니께, 집안 가족들이 머리맡에 있더랴.

"느이들이 왜 이렇게 바쁜 데도 불구하구 그냥 앉았느냐?"

니께,

"밤낮 이틀만에 깨어나셨다."

구 그러드랴. 그래서, 인저 깨어서 얘길 하는디,

"그 염라대왕에 갔다 왔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염라대왕 얘기를 다 허구 보니께, 공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잘 했다는 것 보담도 원심은 없었고, 그 양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원심을 두겄시유. 있는 사람이 대개 원심을 둔다는 긴디. 넘의 것 먹을라고 하고 한 일 없고, 자수성가를 할라고 하는 긴데.

"나 염라대왕에게 가니께 돈 삼백 냥, 옷에다 띄워 내버린 돈, 그것이 보관되어 있더라. 이 담에 가면 내가 그 돈을 찾아 쓸란다."

인제 그런 정도로 얘길 했다구 그래요. 그 사람은 묶었던 자국이 손목에 있었시유. 그 뒤로 멍석 장사를 하러 다니기도 했지유. 생활이 없으니까.

채록 일시 : 1987. 1. 7. 낮 12시 15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 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나, 전설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정리하였음.

93. 용 난 굴과 학바위(1)

T 원북면 이곡리 ①—A 면

*** 줄거리**

원북면 방갈리 2구에는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굴이 있다. 이 굴은 이원면 내리에 있는 만대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용 난 굴 위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모양이 학과 같다 하여 '학바위'라 한다. 그 앞 방갈리 2구에 있는 해수욕장은 이 바위의 이름을 따서 학암포해수욕장이라 하였다.

들은 말로는 용의 구녕이 그게, 학암포 용구녕이죠. 이북(梨北)으로 뚫렸다고 그러죠. 이북까정, 저 건너 이북이요. 그거는 제한이 없이 명주 꾸리로 본다면은 몇 십개미가 들어

가도 한이 없다는 거요 그게. 그런께, 이 위 만대(萬臺)까지 뚫렸다고 그래요 그게. 용이 나왔다는 게지요. 거기서 이북하고 연통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게지요. 거기서 용이 몇 번 올라갔다는 게지요.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 형체로 본다면, 뭐라구 할까요. 죽가래 비슷해 가지구, 구름에 싸여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구 있어요.

그런디, 유표한 것이, 바위가 있어요. 산 비탈에 가서 바위가 있는디, 밑에는 딱 멀어졌지유. 올려다 보면은 천정 같은디, 사람이 은거하기를 말허면 한 20명까장은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구, 돌짝을 쳐다 보면은 영락없이 학의 날개와 같아요. 날개와 같아서 장래의 해수욕장이 되면, 그때 해수욕장이 된다구 할 때인디유, 해수욕장이 되면 누구든지 구경할 만한 데다 그래 가지구서 우리 아버지가 글을 지어서 거기다가 한 30자 새겨 놨지유.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1시 5분경
구 연 자 : 지 영종(남, 65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원북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상일씨의 안내로 찾아가서 만났다. 면 직원 이씨가 이 지역 전설의 서두를 꺼내며 이야기해 보라고 하여 자연스럽게 몇 가지 전설을 구연하였다. 잘 모르는 것은 부친 지 득재(97세)씨에게 묻기도 하였다.
청 중 : 부친, 아들, 면직원 이씨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94. 용 난 굴과 학바위(2)

T 원북면 이곡리 ③—B 면

*** 줄거리**

원북면 방갈리 2구에는 학 모양의 바위가 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명칭도 학암포 해수욕장이라고 했다.

학바위 밑에는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 갔다는 용굴이 있는데, 그 속에는 용이 베고 잤다고 하는 돌인 용 베게가 있다. 그 굴은 대방이섬까지 뚫려 있다고 한다.

그 굴에서는 가끔씩 용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곤 했는데, 임 경업 장군이 학바위 근처에 진을 치고 용과 싸운 뒤로는 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

방갈리 2구에 학바위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장 학암포의 명칭도 학바위라는 곳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학바위 밑에 용이 나왔다는 그런 자연적인 용설화가 있어요. 용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즈이 어머니 외갓집이 방갈리인데요, 즈이 어머니가 그전에 조그맛을 때에 항시 어른들

이 하시는 말씀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그 용이 올라 갔다. 하늘로."

그러구, 그럭해서 어른들 말씀이 구전해서 내려 왔는디, 언젠가 임경업장군인가 누가 학바위를 지나서 진을 치고 들어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용하구싸웠다. 임장군님하구 싸웠다는 용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후로 용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졌나봐요.

그래서, 이북면에 봉(峰)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봉이라고 그러든가. 이북에 봉이 하나 있어요. 임장군님이 그 당시에 오실 때에 이북면 그 봉우리를 지나서 다시, 또 원북면 방갈 국민학교 뒤에 있는 국사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국사봉에서 쉬었다가, 또, 인제 학바위를 지났다는 거죠. 그 후로 용이 나타나질 않는다. 지금도 용굴 속에는 용이 베구 자던 베개 형식의 돌이 있다구 그래서, 용 베개라고 그러죠. 돌 형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용굴에서 대방이라는 섬까지 굴이 뚫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그 곳에 옛날에 무슨 꾸러미라고 그러죠. 아, 명주꾸러미라고 그러데요. 그것을 뭐 몇 개를 넣어도 영 끝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그 용굴 최고 끝지점은 대방이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0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 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 원북면 사무소에서 이곡리로 가는 승용차 안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 일행이 원북면 사무소에 가서 문 응직 부면장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자 구연자 이씨로 하여금 직접 안내하게 해 주었다. 구연자 이씨는 운전하는 채록자의 옆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였는데, 뒷좌석에 앉은 장 장식 선생이 녹음을 하였다.
청 중 : 김 명자 교수, 장 장식 선생.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다 함.

95. 각씨바위

T 원북면 이곡리 ③—B 면

* 줄거리

다른 지역에서 원북면 신두리로 시집온 각씨가 시집살이가 고되어 앞을 막은 바위를 치우고 바다를 건너 소원면 의항리 쪽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그 바위를 각씨바위라고 한다.

신두리 지역은, 바다로 접해 있는 곳은 모래사장이 아주 길지요. 육지, 황토로 되어 있는

육지 지점과 모래로 형성되는 중간지점에 바위가 있었다는 거요.

옛날에 이쪽 육지에서 어떤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요, 아마 시집살이가 고됐던 모양이예요. 그래서, 그 바위가, 설악산에 보시면 둥글(혼들)바위 형식으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각씨가, 그 건너가 소원면 의항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를 움직여서, 그 바위 때문에 도망을, 탈출을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바위, 위에 있는 바위를 치우구서 그 바다를 건너서 소원으로 건너 갔다. 그래서, 그 후로 어른들이 이 바위는 각씨바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0시 23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 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6. 피가 나서 못 자른 목말

T 원북면 이곡리 ③-B면

* 줄거리

조선 초기에 황촌리 1구의 목말을 잘라 운하를 만들려고 땅을 파니 피가 나왔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다고 한다.

황촌리 1구에 목말(목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목말, 목말이라는 곳은 옛날에 그곳이 양쪽이 바다예요. 양쪽이 바다인데, 고 지점이 육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에, 조선 초기에 "그 곳을 뚫어 가지고 배를 통행 시키자." 그런 연고로 인해서 거기를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디, 이상하게 땅을 파다 보니께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잘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하시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0시 25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 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7. 황촌리 서낭당

T 원북면 이곡리 ③—B면

*** 줄거리**

황촌리 서낭당은 도로확장 공사로 없어졌는데, 도로공사 때 큰 구렁이가 부르도자에 깔려서 죽었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이 죽고, 이농이 생기는 등의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성낭당 아래에 있는 저수지의 수심이 자꾸만 얕아지고 있다.

동네 어른들은 이런 일이 모두 다 서낭당을 없애고 구렁이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곳에서 다시 당제를 지내자고 의논하고 있다고 한다.

황촌리 2구 육골에 서낭당이 있었고,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60년대 말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 공사를 할 때, 큰 구렁이가 부르도자에 깔려서 죽었다고 하지요. 그후로 그 곳에서 자꾸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어른 분들께서는,

"큰 구렁이가 죽어서 재앙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요. 그런디, 젊은 층에서는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괜한 말씀들이다."

하고.

그런디, 인저, 그 뒤로두 거기서 사람이 자꾸 죽구, 이농이 생기구,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생겨나구 그래서, 당제를 다른 곳으로, 지낼 곳을 옮겨서 다시 당제를 지내자고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당제를 다시 지내자고 하는 곳은 신 광웅씨라구 그 분 집 뒤인데, 옛날에 거기서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그 곳에서 지내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요.

성황당 밑에는 저수지가 있읍니다. 그 저수지가 지금은 자꾸 모래가 밀려 들어서 수심이 낮아지지요. 그런디, 어른들은 이것을 구렁이가 죽어서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전 10시 27분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 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8. 구렁이가 많이 나온 집터

T 원북면 이곡리 ②-A 면

*** 줄거리**

원북면 신도리에 신참봉이 살았는데, 그 집은 굉장한 부자였다. 그런데, 식구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지붕과 집 주위에 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참봉은 처음에는 업으로 생각하고 구렁이를 따뜻한 곳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뱀의 수가 늘어가고, 뜰 안, 부엌에까지 들어오자 낫으로 구렁이를 죽였다. 그 후로 신참봉댁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신참봉은 그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사온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신참봉집은 터는 좋은데, 구렁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낫으로 구렁이를 해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했다.

원북면 신도리에 신참봉댁이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또, 사실 거류를 했었구요. 그런디, 그 신참봉댁 논이 얼마나 많았었냐 하면, 반계리, 원북 면소재지에서부터 그 신참봉네까지 갈려면, 그 집 땅을 밟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도 이상한 것은 전적으로 독신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그 독신자가 많이 있었다구 그래요. 그러다가, 그 신참봉 그때부터 형제, 삼형제, 이렇게 내려 왔다구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부자였었는데, 그 집에가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둬 들여 가지구 놓을 만한 창고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부자였대요.

이상하게 그 집에 자꾸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가족이 앓기 시작하고 그래서, 옛날 무당 데려다가 경도 읽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찰라에 자꾸만 이상하게 그 집 주위에 뱀이 난동을 허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디, 그 뱀이 제일 먼저 난동을 시작한 것은 옛날에는 초가지붕이었으니까,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추녀 망결이라고 그러죠. 망결이, 이엉과 새끼줄 묶는 그 부분, 고런 나무지요. 고기로 구렁이가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렁이가 한 마리, 두 마리 나올 때는 업으로 생각하고, 그 집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그래요. 신참봉께서 그 구렁이를 잘 안내해서, 어디로 좀, 따뜻한 돌틈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도 했고 그랬다구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뱀의 숫자가 적어 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뱀이 증식이 되 가지구 많이 나왔다구 그래요. 나중에는 신참봉인가, 아니면 그 집 누군가가 뱀이 하도 난동하고, 또 그 집 뱀이 뜰 안, 부엌 뭐 이런 데까지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보기 싫구 그러니까 나중에는 낫으로 구렁이를 많이 죽였다구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렇게 되면서 자꾸 더 가세가 기울고 가족들은 앓구, 그랬다고 전해지죠. 나중에는 심지어는 무슨 부뚜막에까지 뱀이 있었다구 그러는데, 약간 지나쳤겠죠. 솥 안에도

구렁이가 들어가서 서리고 앉았다고. 이렇게 〔손으로 원을 그리며〕 동그랗게.

그래서, 그 집이 망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그 집터가 있어요. 현재는 그 집의 형태가 많이 바뀌졌지요.

그런데, 그 집이 자꾸 가세가 기울고 하다가, 그 집을 팔았죠. 팔았는데 그 집에 다시 이사 온 사람은 뭐, 연년이 가세가 자꾸 는다는 거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어른들 말씀은,

"먼저 그 뱀이 많이 나왔다는 그 집터는, 원래가 터만큼은 굉장히 좋은 턴데, 그 구렁이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구 해서 그 구렁이를 낫으로 해코자 해서 그래서, 그 후로 인과관계로 그렇게 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들 이야기 하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1시경
구 연 자 : 이 상일(남, 34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원북면 황촌리 239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원북면 이곡리 마을회관 앞 승용차 안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원북면 이곡리 마을회관 앞에서 조사단 일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채록자가 지 영종씨 댁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미진한 것을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구연한 것이다.

99. 이원면(梨遠面)의 유래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이원면(梨遠面)은 원래 이원면(梨遠面)과 북일면(北一面)으로 태안군에 속했었는데, 일본사람이 온 후 이 둘을 합하여 이북면(梨北面)이라 하고, 서산군에 편입시켰었다.

그런데, '이북'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 하여 1987. 1. 1일에 이원면(梨遠面)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리 동네의 절반이 요 바닷가에서 조 너머 바닷가로 잘린 디가 성골망이라는 게 있읍니다. 그러면, 이조 말엽에 성골망 저 쪽 북향은 대산면이라고 그랬고, 이 쪽은 인제 승전이라고 그랬다가, 일본 사람이 오면서 이원면이라고 해서 이북·원북이 합했던 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북일면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현재 이원면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북일면에서 또, 이북면이라고, 이렇게 배 이(梨)자, 북녘 북(北)자 해서 이북면이라고 만들어졌었는데, 요즘에 와서 8·15해방 후에 이북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구 그래서, 지금 이원면이라고 그랬죠.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5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포지리 가게집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 일행이 이원면사무소에 들렀다가 내리로 향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로 길이 나빠 고개를 넘을 수가 없어 되돌아 올수밖에 없었다.
오는 길에 길 옆 가게집에 들르니 마을 노인들이 여러 분 모여 있었다. 다른 노인들은 다른 조사자와 면담하기로 하고, 채록자는 구연자 조씨만을 다른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연자는 이 이야기 외에도 몇 편의 건설을 구연하였다.

100. 포지리(蒲地里)의 유래

T 이원면 ①—B면

옛날에 여기가 아주, 우리 평양 조가가 들어 와서, 포동 조가라는 것이 아주 전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초두 밑에 마을 포한 포자를 따가지구서 포지리(蒲地里)라고 그런 모양 같아요.
우리 27대조 할아버지께서 이리 낙향을 하셔 가지고, 바로 요 건너 동네입니다. 그래서, 바깥포동, 안포동 그러지요. 그래서, 이 쪽에는 외포라고 그러지요. 요새 얘기허기를.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8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1. 만대와 수억말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이원면 내리에는 '만호가 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만대(萬臺)'와 '수억(數億)의 돈'이라는 뜻을 가진 '수억말'이란 마을이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이 지역의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그 부근에 조력발전소를 세운다는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은 이들 마을의 이름이 그 뜻과 같게 될 것이라 하여 기대가 크다.

이원면 만대라는 곳이, 이원이 이렇게[손을 펴 밀으며] 쭉— 내밀었는데, 제일 끝으머리가 만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만대지역에 투기가 일어나서, 지금 산 값도 제일

비쌉니다. 일만 만(萬)자, 집대(臺)자 입니다. 그러고 보면, '만호가 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기 가면 또, 수억말이라는 마을이 있읍니다. 그 수억말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수(數)자에다가, 억 억(億)자를 써서 수억마을이라구 해서, 거기는 돈이 수억 돌아갈 것이다 하구서, 지금 투기하는 업자들이 그렇게 선전을 합니다.

정부에서 매립계획을 실천하고, 조력 발전소를 세운다면 만대 쪽이 정부에서 식량자급을 위해서 매립공사를 한다든지, 전력공급을 위해서 조력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하면, 이원서 대산 사이는 불과 10 리도 안되는 거리가 되고, 만대가 외곽도시로 집이 만호가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걸 예견해서 미리 그런 이름을 지어 놨다는 거죠.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9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2. 사직(辭職) 고개

T 이원면 포지리 ①—B 면

*** 줄거리**

이원면에는 지금은 낮아졌지만 매우 험하고 높은 고개가 하나 있다.

8·15 광복 일본사람이 이원국민학교 교장 발령을 받고 부임차 먼 길을 걸어왔다. 지친 몸으로 큰 고개마루턱에 올라 보니 보이는 것은 바다뿐이었다. 그 교장은 더 못 갈 데라고 생각하여 사직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사직(辭職) 고개라고 한다.

사직고개라고 하는 것이, 이 고개가 굉장히, 지금은 파서 많이 얕아졌는데, 옛날에 일본 놈들이 여기 와서 국민학교 교장을 일본 놈을 부임을 시켰어요. 지서 주임, 주재소 주임하고.

국민학교 교장 부임을 해 가지고 오다가, 저 고개를 길게, 간신히 걸어서 올라 오고 보니까, 저 고개가 위에서는 밑에 인가가 보이지 않고 바다 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구, 더 못 갈 데다."

하구서, 사직했대서 사직고개라고 그런 얘기가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12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3. 관리(官里)의 유래

T 이원면 포지리 ①—B 면

관리(官里), 관동(官洞)하는 이름은 이조 때 경주 이씨들이 이 대산에 본거지를 둬 가지고, 이 대산면을 확장 할 적에 여기다 성골망을 지어 놓고 여기까정 대산면으로 잡아 갔어요. 그럴 적에 그 관청의 관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관동이라고 그려죠. 지금으로 말하면 면소재지같은 이런 역할을 거기서 했답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14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4. 면 소재지가 될 것을 예고한 지사(地師)

T 이원면 포지리 ①—B 면

* 줄거리

팔봉산 밑에 사는 지 지영이라는 유명한 지사(地師)가 포지리 1구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면서, "밤새도록 글 읽는 소리하고 돈 세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했다.
그 후로 거기에 소학교가 서고, 면사무소가 들어섰다.
사람들은 지씨의 예견이 들어 맞았다고 말한다.

팔봉면에 팔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읍니다. 그 산 밑에 지씨의 지사(地師)가, 유명한 지사가 있었답니다. 지 지영이라고 하는, 지 지영이라는 유명한 지사가 있었는데, 그 분이 굉장히 많이 알았던 분이예요. 많이 알았던 분인데, 그 분이 심술이 많아서,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누이도 그 사람한테, 누이도 속여 먹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누이도 자기 오라버니를 속였대요.

그럴 정도인디, 그 분이 와서 우리 면에 들러서, 소재지 분주리라는 데, 지금 포지리 1구예요. 소재지에서 하루 저녁을 자구서 오셨는데, 여기서 자구 갈 적에 아침에 한 소리가 뭐냐면,

"글 읽는 소리하고, 밤새도록 돈 세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잤다."
하고 나갔어요. 헛돈 세는 소리.

그러고 지나간 다음에, 국민학교; 옛날 소학교가 들어 왔고, 또 면사무소가 거기에 섰어요. 그 자리에가 섰는디, 면이서 세금만 받아 가고 나오는 게 없으니께, 지방적으로는 헛돈 세고 갔다구,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맞는답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15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 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5. 가랫장부가 군수 알아 보나?

T 이원면 포지리 ①—B 면

* 줄거리

포지리 앞의 둑을 막을 적에 당진 군수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 감독을 했다. 그런데, 군수가 가래질 하는 사람들 뒤에 서 있다가 다쳤다.

그래서 "가랫장부가 군수 알아 보나?" 하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공사 감독자는 결인을 잡아 둑을 쌓을 때에 제물로 파묻으려고 했으나, 그 부인이 놓아 주어 그대로 쌓았다.

그때 쌓은 둑은 지금도 있다.

8대조 할아버지가 이 앞의 원을 막았답니다. 그 당시는 중앙에서 굉장히 쎄셨던 모양이죠. 원(둑)을 막는디, 품값을 주구서 막는 게 아니라, 당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원을 막았답니다. 당진 군수가 원 막을 적에 여기 노무자를 인솔하고 나오너서 일을 하는데, 긴 가래질이라고 있어요. 긴 가래질을 하는디, 그 가래질 뒤에 있다가 그 군수님이 다쳤던 모양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가래 장치가 군수를 알아 볼 까닭이 없다."
는 게죠.

그 당시 할아버지가 결식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광에다 잡아 놓고, 그 마지막 대토막이하는 날 그 제물로 그 안에다 집어 넣을라구 그러는데, 내일이면 넣어야 할 텐데, 할머니께서 열어 가지구, 문 열어 주면서,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라."
해서 풀어 줬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른들한테 들었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19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6. 피가 흐른 굴향천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포지리 3구 굴향 부락에서 물을 빼려고 해풍에 쓸려와서 쌓여 있는 모래더미를 파내니, 거기에서 피가 나왔다.

그 후로 그 마을에서는 힘 좋은 장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포지리 3구에 가면 굴향 부락이 있는데, 굴향 부락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장군 마냥 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났었는데, 장 현택이네 집 앞에가 밑에는 해풍에 쓸려와서 모래가 몰려서 막혀 있고, 안에는 농사를 지어야 할 텐데, 물이 빠질 구녕이 없어서, 거길 째다 보니께 피가 나왔다구 그러는 얘기들은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힘 좋은 장사가 나질 않는답니다.

지금은 그 자른 곳에 냇물이 흐르고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22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아기장수와 용마전설이 없느냐고 물어서 시작된 것이다.

107. 고기를 훔쳐 가는 도깨비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죽도에서는 도깨비가 살에 걸린 고기를 건져다가 산에 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바다에 살을 매거나 배를 부릴 때에는 반드시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앞에 죽도(竹島)라는 섬이 있어요. 대섬. 섬이 있는데, 그 밑에 가면 요즘 날에는 그

물들을 치구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기다 살을 맸어요. 말뚝을 박고, 대나무, 싸리나무 베어다가 그걸 새끼로 다 엮어서 갖다 쳐놓구서 고기를 잡아서, 나 역시 그렇게 해서 많이 잡았어요. 그랬는더, 그게 할 적에 옛날에는 청어가 이 앞에서 잡혔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구경을 못하고, 우리가 조그마했을 적에는 조기를 배루다가 실어 낼 정도로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데, 숭어같은 것, 이런 것이 들으면 말이죠, 도깨비가 전부 숭어를 들어다, 들어다가 산에다가 옮겨 놓는대요. 옮겨 놓은 걸 그 당시는 모르는더, 나중에 그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숭어나 조기가 썩는 것을 그 동네사람이 본 적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살을 매든지 배를 부리든지 뭐시하면 고사 올린다는 것이 거기서 유래한 것이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23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여 구연한 것이다.

108. 마고할미 속곳 말린 바위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옛날에 마고할미가 젖은 속곳을 말렸다고 하는 바위가 서산군 대산면의 황금산에 있다.

옛날에 마구 할매가 강을 12개 건넜는데, 황금강에서는 그 할머니 속곳 밑이 젖었답니다. 젖었다구 그래서, 그 속곳 밑 젖어서 그 놈을 벗겨 말린 자리다 해 가지구서 있는더, 지금도 보면요 그 황금산에 그 높은 데 가서 이렇게〔두손을 펴면서〕, 여자 속곳이라는 게 이렇게 펴면 펴집니다. 이렇게 펴 말렸다고 해서 그 자리는 나무도 풀도 안납니다. 풀이 안 나고 하얀 바위가 그대로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26분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황금산 전설을 아느냐고 물어서 구연한 것이다.

109. 호랑이가 아껴 준 마을

T 이원면 포지리 ①—B 면

*** 줄거리**

이원면 당산리 4구 살고지 마을에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얼마 전까지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 새끼를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쓰다듬었는데, 그날밤에 어미 호랑이가 그 집에 와서 싸립문을 다 뜯어 놓았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다른 동네의 개는 잡아 먹었으나, 그동네 개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도 제 새끼 둔 고을을 아낀다'는 말이 맞는다고 했다.

원북면보다 이북면이 산이 높습니다. 원북면은 큰데, 이북면은 적어도 산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날에 와서는 한국산 호랑이가 멸종 됐다구 그러는데, 이북면(이원면) 당산 4구 살고지, 살고지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산이 높아요. 높은데, 8·15 해방 되고 나서까정 호랑이가 살았읍니다. 살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지금도 그 호랑이를 동네 사람이 보지는 못 해요. 호랑이 새끼는 봤답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를 길를라면 어떻게 하는고 하니, 그 산에 올라가면은 이 산풀 중에 유두포기라는 풀이, 유두포기는 풀이 굉장히 바드라와요. 그거를 낫으로 쓴 거 이상으로 간출하니 쓸어 가지고, 넓은 바위에다 펴 놓는 답니다. 펴 놓구서, 그 위에다 호랑이 새끼를 놓구서 길러. 호랑이 새끼가 눌구 기를 장소를 그렇게 에미가 만들어 줘. 그게 어떠한 재주냐 그러고, 그 호랑이 새끼를 그 마을 사람이 한 번 가서 봐서, 그 놈을 이렇게 만져했대요.

"참, 이쁘다."

하고.

만져 줬는데, 그 날 저녁에 그 호랑이가 오너서 그 사람네 집 사립문을 다 뜯어 버렸어요. 제 새끼를 해코자 안했으니께, 사람한테 해코자 하지 않고,

"너 다시 또 와서 그런 짓을 헐까보냐."

하고선 했다고 그렇게 얘길하죠.

그리고, 인제 그 근방에 가면 개 대가리 같은 게 더러 있는데, 그 동네 개는 하나도 다쳐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께, 호랑이가 제 새끼 둔 고을은 아낀다는 말이 맞는다 이거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48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0. 살고지의 유래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 줄거리**

아주 옛날에 중이 살고지에 와서 그 지형과 산세를 보고,

"여기는 참 사람이 살 만한 곳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살고지'라고 했다.

이 마을은 지금 원북면 당산리 4구에 있는데 산이 가파르고 논이 적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그런데, 대산하고 이원면 내리하고 막히면 그 앞에 좋은 농토가 많이 생겨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주 옛날에 중이 와서 그 지형 산세를 보고,

"여기 사람 살 곳이다. 참 살 만한 곳이다."

하는 곳을 얘기 했다고 해서 살고지라고 그랬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그 지역이 논도 없어요. 별로. 산이 가파라 가지구서 말이죠. 논도 없구 그런데, 그 앞이가 앞으로 막힌다는 것을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소린 것 같습니다.

대산하고 이원면 내리하고 막히면 그앞에 좋은 농토가 많이 나와서 사람 살 만한 고장이 될거라는 얘기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앞의 〈호랑이가 아껴 준 마을〉 이야기가 끝난 뒤에 살고지란 말의 유래가 무어냐고 물어서 구연한 것이다.

111. 운정리(雲井里)의 유래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삽교천 옆에 운정리라는 곳이 있어요. 운정리. 구름 운(雲)자, 우물 정(井)자 운정리인데, 우물 위에서 구름이 뜰 수 있는 조건이 언제 되느냐 했었는데, 지금 와서 삽교호가 생기고 나니까 그 구름이 뜬답니다. 그러면, 선대에서 벌써 선견지명(先見知明)이 그걸 봤다는 거지.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37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2. 세사람을 죽일 바위

T 이원면 포지리 ①—B면

포지리에 돌부리라는 데가 있읍니다. 돌부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돌이 이렇게 탁탁 붙었는데, 지금은 많이 벌어졌읍니다. 그런데, 그 돌이 크니까 어떻게 우리 주민이 옮겨 놓을 수도 없고 받쳐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돌이 둥그러서 성이 다른 세 사람이 그 돌에 치어 죽을 것이다."

하구 이런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성이 다른 세 명이 여기서 그 돌이 자빠지는 바람에 치어 죽을 것이다. 굉장히 크죠 아직은 그대로 있읍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오후 4시 39분경
구 연 자 : 조 인호(남, 63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5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3. 거아도(居兒島)와 망미(望美)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남면 앞에 있는 섬에는 귀양 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상투를 틀지 않고 길게 땋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배에서 볼 때에는 항상 아이들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섬 이름을 거아도(居兒島)라 하였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배에서 보면 섬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거울처럼 맑은 섬 즉, 경도(鏡島)라고도 하였다.

남면에서 연락선이 운항하는 몽산포구를 망미(望美)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거아도를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거아도 사람들은 섬의 크기에 비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섬이 걸인이 바랑을 지고

북쪽을 향하여 가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섬이 전해 오는 얘기로는 어부들이 그 섬을 지나다 보니까, 그 섬에는 항상 머리를 딴 사람이 그 섬에 살고 있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옛날에는 귀양간 사람, 유배되서 귀양살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머리를 깎질 않고 어린애처럼 머리를 땋고, 상투를 틀지 않기에 땋고 있으니까, 생전 머리를 땋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이 항상 볼 때에 애가 살고 있는 섬 그래서, 거기를 거아도(居兒島)라고 이름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 전라도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에서 많은 배들이 거기를 경유해서 인천을, 옛날에 많이 갔었죠. 연평도 조기잡이라던지, 이렇게 다닐 적에는 그 섬을 경유해서 갔는데, 그 섬사람들은 그 섬이름을 거아도라 하지 않고 거울이라고 그래요. 경도. 거울 경(鏡)자. 맑은 섬이라고 그럽니다. 맑고 아름답다고 해서 경도(鏡島)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면에서 연락선이 운행하고 있는 포구가 몽산포구인데, 배가 떠나는 자리를 망미라고 그래요. 바랄 망(望)자, 아름다울 미(美)자. 거아도를 보구 아름답게 봤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망미라고 그래요. 몽산포 마을을. 배떠나는 부두를.

그런데, 거아도는 오랫 동안에 섬사람들이 굉장히 빈한한 생활을 했어요. 서산군 내에서는 큰 섬들이 굉장히 많은 데요, 유독히 큰 섬치구는 이 섬이 빈한했어요. 풍수지리로 볼 적에 위에서 보면은요, 하늘에서 보면, 단면이 그 섬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그리고, 뒷 부분이 걸인이 바랑을 지고 북쪽을 향해서 가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곡창지대인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향했으면은 이 섬이 부자섬이었을텐데, 아무 것도 없는 북쪽으로 향해서 걸인이 행각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이 섬은 부자 될 수가 없다고 하는 풍수지리를 안고 있다고 그래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남면 신장리 김 주석씨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채록자의 동서인 김 주석씨(남, 43세, 사업, 대학원 졸)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 마침 구연자 최선생이 김씨와 함께 들어왔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몇 가지 전설을 채록하였다. 구연자 최선생은 이 지역의 전설, 지명(地名)의 유래 등에 대하여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기록하여 향토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최선생은 기억력도 좋고, 구연력도 뛰어났다.

구연자 최선생은 어렸을 때에도 거아도에 가 본적이 있으며,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부부가 남면국민학교 거아도 분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거아도에 대하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114. 거아도의 탑할머니

T 남면 달산리 ①—A면

*** 줄거리**

거아도의 큰 팽나무 밑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는 모습의 탑할머니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탑할아버지가 있다.

탑할머니는 오래 전에 파도에 떠 밀려온 것인데, 사람들이 영험한 바위라 하여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여기에 와서 정박했던 배들도 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탑할머니에게 제를 올리는데, 어떤 중선배 한 척이 제를 올리지 않고 출항했다가 파선한 일이 있다고 한다.

거아도에는 큰마을에 큰 팽나무가 있어요. 그 섬 큰마을의 앞에 팽나무가 한 7·8주가 오육백 년생이 쭉 한 줄로 서 있읍니다. 그 나무 중에 한 나무가, 가장 큰 나무 밑에는 오랫동안 '탑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할머니를 모시는 바위를 모셔 놓고 제를 지냈어요. 그 반대편에는 탑할아버지가 있는데 탑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가 없고, 그 탑할머니는 큰 나무 밑에 서낭터처럼 돌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요. 탑할머니가, 바위가 있는데, 꼭 할머니가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탑 할머니요. 그 바위의 목부분에는 항상 백지가 감겨져 있었어요.

그 섬의 산꼭대기에는 당산이 있고, 해마다 정월 보름에는 소를 잡고 당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당제는 그 탑할머니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당제를 지낼려면 위에서 지내고 내려와서 탑할머니한테 제사를 지내요.

이곳 노인들한테 이 탑할머니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 바위가 떠 밀려왔다. 파도에 떠 밀려서 떠 왔다. 그래서, 이거는 영험한 바위가 아니냐 싶어서 이 바위를 모시고 천재지변이 없고, 풍어가 되게 하고, 조난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탑할머리를 잘못 모셔서 재앙을 당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냐고 물었더니 이야기를 하더군요.

중선배라고 하면 풍선 중에서, 옛날 고기잡이 배 풍선 중에서 큰 배 중에 속해요. 그 배가 거기에 정박했다가 이 탑할머니한테 제를 모시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출항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탑할머니를 미신이고, 또 거기다가 제를 지낼, 신고할 뭐가 있겠느냐? 다 미신이니 난 그냥 가겠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서 바람을 만나 가꾸 돛대가 부러져서 배가 파선됐다는 그런 전설이 그 섬에 있어서, 옛날에는 꼭 그 탑할머니한테 신고를 하고 출항하는 것으로, 불문율처럼 절대신 모시듯 그렇게 섬사람들이 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13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5. 남면의 가(賈)씨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임진왜란 때 이 여송 장군을 수행했던 가유학 장군은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려고 산동반도에 가까운 남면까지 왔다가 여기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 후손들이 남면 양잠리에 거주하고 있는 가(賈)씨이다.

남면 양잠리에 가씨들이 많이 있어요. 가씨들이 있는데, 가씨들이 여기 온 것은 임진왜란 시에 이여송 장군을 수행했던, 가유학이라던가 하는 그 장군이 수행을 했었다구 그래요. 수행을 했는데, 경상도 지방에서 전투에 3대가 같이 종군을 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종군을 했는데, 아버지·할아버지는 전사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할아버지의 운구를, 시신이라도 자기 고국에 모실려구 노력하던 끝에, 여기 산동반도 하고 가까우니까, 중국하구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기까지, 가까운 데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해서 가씨들이 지금 많이 살구 있어요. 이들이 소주 가씨들이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20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6. 삼도의 묘

T 남면 달산리 ①—A면

거아도리는 거아도 본 섬 하나와, 그 뒤의 울미도, 삼도, 지치도, 토끼도, 마치도 등이 군도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삼도에 가 보니까, 묘가 많이 있었어요. 그 묘가 많은 이유를 한번 물었지요. 그랬더니, 조선 말기쯤에 장티브스, 염병이라는 열병이 혼했을 적에 격리시키느라고 환자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묘는 장티브스 경환자들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23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7. 삼도와 지치도 사이의 바닷길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남면에 있는 삼도와 지치도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끔씩 바닷길이 열린다고 한다. 그래서 이 때를 이용하여 물이 부족한 지치도 사람들은 삼도에 가서 물을 길어 오기도 한다고 한다.

거아도 앞의 세 섬 중 가운데에 있는 삼도와 지치섬 사이는 물이 많이 많이 쓸 적에는, 여름의 어사리 때나 겨울이 되면은, 일년에 몇 번씩 길이 터져유. 지금은 전라남도 어디도 있고, 군산 어디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디요, 사실은 삼도와 지치 사이에 과거에 몇 번씩 터졌었지요. 지금도 물론 몇 번씩 터져요.

거리가 한 2km 쯤 될까요. 그렇게 터져서 지치 사는 사람이 물이 귀엽기(귀하기) 때문에 그 물 쓰는 것을 이용해서 삼도에 가서 물을 길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약빨리 길어오면 한 번 길어 왔다고 그래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2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8. 부석(浮石)과 부석사(浮石寺)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신라시대에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배를 타고 부석으로 왔다. 의상대사가 도비산에 절을 지으려고 하니, 그 산에 본거지를 둔 해적들이 방해하여 절을 지을 수가 없었다. 이때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올 때 만났던 용녀가 도비산 꼭대기에 나타나 큰 바위를 들고, 해적들에게 이 산을 떠나라고 했다. 도둑들이 떠나자 용녀는 들고 있던 바위를 앞 바다에 던졌다.

그 바위는 간만의 차에 구애 없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뜬바위, 즉 부석(浮石)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산에 지은 절을 부석사(浮石寺)라 했으며, 그 산을 섬이 하나 날아간 산이라고 하여 도비산(島飛山)이라고 했다.

한번은 부석사의 샘물이 말랐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석 바위에 이상이 있을 것이니 살펴보라고 했다. 주지가 살펴보니, 부석 위가 명당자리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몰래 쓴묘가 있었다. 그 묘를 파내니 부석사의 샘에 다시 물이 솟아 올랐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요 부석이라는 건 뜨는 바위라는 뜻이지요. 뜨는 바위인데 여러 가지의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신라시대 30대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구서 절을 짓는 하명을 받구 왔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얘기가 많아요.

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나 좀 데리고 가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중국에서 건너 올 적에, 산동반도로 건너올 적에,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찰을 짓자면은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

고 해서 나타난 용녀가 있다고 하는 얘기두 있구.

그래서, 어쨌든 그 의상대사가 여기 부석으로 왔다고 그래요. 배를 타고. 이렇게〔방바닥에 펴 놓은 지도에 손으로 금을 그리며〕 돌아 왔겠죠. 돌아 와서, 이 쪽까지 와서 정박했는데, 오는 도중에 여러 번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그 용녀가 구해 줬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설은 와 보니께 그 여자가 육로로 통해서 벌써 와 있더라. 그런 전설도 있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절을 지을 산이 도비산(島飛山)이라는 산인데, 도비산도 인제 뒤에 나온 이름이겠죠. 서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예요. 도비라고 하는 거는 섬이 날아갔

다는 뜻에예요. 섬 도(島)자, 날 비(자)니께요. 그 섬 기슭에 도둑놈 소굴이 있었다. 해적들이 서해를 근거로 했었던 도둑들이 살구 있어서 의상대사가,

"절을 지을 테니 나가 달라."

고 종용을 했더니, 승복을 허지 않아서 절을 지을 기미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용녀가 나타나서, 도비산 머리 산꼭대기에 나타나 가지구 큰 바위를 들고,

"이러한 위력이 부처님한테 있으니 나가 다구. 만약에 느이 힘으로 도둑놈 몇 명이, 뭐 백여 명 살고 있었다는데, 안 나갈 때는 이 큰 힘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나갔다. 도둑들이 그래서, 그 용녀는 그 바위를 그 앞에 있는 천수만에 던졌더니 그 바위는 가라앉지 않고 떠있었다. 그래서, 간만의 차에 구애없이 그 바위는 항상 떠있더라. 이런 얘기유.

거기가면 몇 십 명이 놀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그 뒤로 그 바위 이름을 부석(浮石)이라 했고, 절도 새로 지어서 부석사(浮石寺)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문무왕 17년이래요. 그리고, 섬이 하나 날아 간 산이라고 해서 그 산을 도비산(島飛山)이라고 했다고 그러지요.

그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았는디, 한 백여명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런디, 그 대웅전 밑으로 이렇게 샘이 파졌어요. 그런데 얘기인즉슨 그 물줄기가 부석바위까지 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디, 그 물이, 많은 사람이 공부하는 물이 말랐다고 그래요. 말랐는데, 그 주지가 오랬동안 고심을 했대요. 그 물이 말라서 걱정되는디,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신령이었든지, 부처님이 나타났던지 나타나 가지고,

"그 부석 바위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석바위를, 여기 그, 떠 있는 바위죠. '검은 여'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부석바위에를 가 봤더니 거기 묘를 썼더라. 그런데, 그 얘기에 의하면 그 바위에다가, 그 바위가 명당자리여서, 거기다가 묘를 쓰면 부귀영화하고 뭐 한다는 설이 있어서, 누군가가 인제 그 부석사를 짓구 나서 그 묘를 썼는데, 그 묘를 다시 파내니까 다시 물이 나오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27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산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부석사 이야기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곳으로 소풍을 가서 주지스님 한테 들었다. 그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았다.

119. 안면도가 섬이 된 까닭(3)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안면도는 본래 섬이 아니고 남면과 맞붙어 있었다. 그런데, 인조 때 충청도관찰사 김 육이 세곡선이 멀리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판목을 끊어서 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은 이것을 명인이 날 지맥(地脈)을 끊기 위해 자른 것이라고 한다.

남면하고 안면도하구가 이게 본래는 막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조 때, 인조반정의 유공자였던 분이 있어요. 인조 당시에 영의정까지 지낸 김 유라는 분이 있어요. 그 김 유라는 분이 충청 관찰사를 했다고 그래요. 충청 관찰사 할 적에 여기를, 판목을 잘랐다고 그랬어요. 남면과 안면도를요. 잘라서 지금은 사실상 운하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다리가 놔 졌는데.

여기 잘를 때 피났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디, 여길 잘랐다는 얘기도, 남면과 안면도를 잘랐다는 얘기도 이 지역 사람들, 노인 양반들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조곡을 실구 가기 위해서 운하를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잘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풍수지리를 보니까, 이거를 잘르지 않으면은 이 맥이 영웅호걸이 날 그런 풍수지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영웅호걸의 맥을 잘르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이거를 잘랐다고 그렇게 여기서는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노인네들 구전으로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4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0. 운하 공사와 신털이봉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조선 세조 때 정 습명은 태안읍의 인평리와 팔봉면의 진장리를 파서 운하를 만들려고 공사를 했다. 태안읍 평천리와 가사리는 파서 물이 통하게 했으나, 진장리쪽은 암반이 두터워 뚫지 못하고 공사를 중지했다.

그 공사를 할 때 인부들이 신발에 묻은 흙을 털었다는 산봉우리를 신털이봉이라고 하는데, 신털이봉은 팔봉중학교 옆에도 있고, 진장리에도 있다.

본래는 여기를〔펴 놓은 지도의 관목 부분을 손으로 짚으며〕 잘를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남면과 안면도를 잘를라고 했던 게 아니고, 조선 세조 때부터, 고려말부터 시도를 했다가 세조 때에 이걸 파다 말았다고 그래요. 요쪽 보면 요기서〔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렇게 뚫린 길이 있어요. 또, 여기가, 인평서부터 이렇게 뚫을라고 했어요. 평천인디, 가사하고 평천 사이에서 여기까지는 뚫려졌어요. 저수지가 있지요. 큰 저수지가. 그래서, 요것만 뚫으면은 어성리 넘어 가는데, 진장리라고 있어요. 진장리 요기는 2km도 못 될거예요. 요것만 뚫으면은 이렇게〔지도를 짚으며〕 잘려져요. 그러면은, 물배가 한 물배 이상을 단축을 본다고 그래요.

원래 이걸 시도할 적에, 뚫을 적에는 호남지방이나 영남지방에서 오는 공물을, 조공을 신구 한강으로 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구 그러거든요. 밖으로 가면은 물배도 더 걸리고 해적도 만날 수 있고, 물살도 십한디, 이쪽으로 가면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도를 해서 세조 때 이걸 단행했다구 그래요.

여기〔지도를 손으로 짚으며〕 보면은, 진장리 팔봉 중학교 옆에 보면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름도 신털이봉이라구 해요. 신발을 털었다. 그거를 뚫기 위해서 발바닥에 묻힌 흙을 털었다구 그래서 신털이봉이라구. 또 있어요. 거기가 팔봉면 진장리예요. 그래서, 여기를〔지도를 다시 짚으며〕 뚫다가 보니께 암반이 심해 가지고, 도저히 못 뚫겠더라는 거여요. 그래서, 거기서 중지를 허구 말았어요. 그게 세조 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뚫기 위해서 노력했던 관리가 누구였냐면 정 습명이라고 해요. 조선 세조 때 사람인데, 정 습명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여길〔지도에서 서산 ABC지구 간척공사한 곳을 짚으며〕 다시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 주영씨니까 이상하게도 정씨가 잘르고 정씨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가 이상스럽지 않느냐. 정씨가 잘르고, 정씨가 잘를려고 노력하고, 다시 정씨가 이거를 막았다 이거요. 그래, 이상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두 하지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48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1. 학이 날개로 보호한 아이와 간월도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다음과 같다.

무학대사의 어머니가 간월도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다. 어느 날 서산장으로 굴을 팔러 가다가, 인지면 복당리에 이르렀을 때 애기를 낳았다. 아기를 해당화나무 밑에 놓아 두고 장에 갔다 와 보니, 학이 와서 날개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월도로 데리고 가서 잘 길렀다.

아기는 자란 후에 토굴에 거처하면서 도를 닦았는데, 달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하여 그 섬을 간월도(看月島)라 했다.

그 후에 들은 얘기는 다음과 같다.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돈을 축냈기 때문에 서산 감영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돈을 해 가지고 서산 감영으로 가다가, 인지면 복당리 근처에서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길 옆에 놓아 두고 가니, 군수가 왜 그렇게 창백하냐고 물었다. 아기를 낳고 온 이야기를 하니 군수가 관노를 보내어 확인해 보았다. 군수는 학이 날개로 보호하고 있었다 하여 아기의 이름을 무학(舞鶴)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

무학대사의 어머니가 간월도 쪽에 굴이 많이 나니까, 간월도는, 여기는 물이 써요. 항상 썰물에는 창리에서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굴이 많이 나지요. 굴을 찍어서 서산 시장에 팔려고 이구 가다가 인지면 복당리인가 그쪽까지 갔는데, 산기(産氣)가 있어서 애기를 낳았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자기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굴을 찍어 갖고 가다가 낳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굴은 팔고 오야 될 테니까 애는 해당화 나무 밑에다가 놓고, 가서 굴을 팔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애가 죽었으려니 하고 와 봤더니, 학이 보호하고 있더라. 여러 마리가 덮구 있구, 또 춤을 추고 있더라. 그래서, 그 어린이를 길러서, 자기가 낳았던 간월도까지 와서 길렀더니, 천재적인 자질이 있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 아저씨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뒤로 들은 얘기들은 조금씩 변형이 있었어요.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무학이가 출생을 어디서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적에 들었을 때는 간월도에서 출생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변형이 되서 나온 것은, 무학대사의 아버지가 그 관내에 있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동헌에, 서산 감영에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인이 변상해 주기 위해서, 돈을 없앴던가 봐요. 변상해 주기 위해서 오다가 그 인근 복당리인가 그쪽 거기서 애기를 낳고, 늦게 가서 시간도 늦고, 파리해 졌으니까, 얼굴이 창백해 졌으니까, 군수가 그 사유를 물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서 출산하고 왔읍니다."

"사실이냐? 사실 유무를 알아 봐야겠다."
고 해서, 관노를 시켜서 보니까, 애기 낳은 게 사실이었고, 학이 덮어 주고 있더라. 그래서, 하도 감격해서 그 남편을 방면해 주고 애기 이름을 군수가 춤출 무(舞)자, 학 학(鶴)자로 해서 이름을 지어 줬는데, 나중에 법명으로 없을 무(無)자, 배울 학(學)자로 고쳐졌다 하는 것은 중간에 들은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뒤로 간월도에 토굴을 파 놓고 거기서 불도를 닦아서, 득도를 했는데, 달을 보구, 그래서 그 섬을 간월도(看月島)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5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2. 간월도의 쌀 나오는 구멍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무학대사가 간월도에서 동자 하나를 데리고 수도할 때, 쌀 나오는 구멍에서 나오는 쌀을 받아서 먹으며 지냈다.

대사가 간월도를 떠난 후에 다른 중이 와서 보니, 나오는 쌀의 양이 너무 적었다. 중은 쌀이 적게 나오는 것은 구멍이 작은 때문이라 하여 그 구멍을 키웠다. 그러자, 쌀은 나오지 아니하고 물이 흘렀다.

대사가 떠날 때 생생한 나무 하나를 잘라 꽂으면서 동자에게

"이 나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나무가 죽거든 내가 죽은 줄 알라."

고 하고 떠났다. 그 나무는 얼마 후에 죽었는데, 조선 후기에 다시 잎이 난 적이 있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거기(간월도) 있으면서 동자를 하나 데리구 있었는데, 그 무학대사는 동냥을 허지 않았다고 그래요. 동냥을 허지 않고 조그만 쌀 나오는 샘이 있었는데, 그 우물 물에서, 샘에서 쌀이 '똑똑 똑똑 똑똑'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쌀 떨어진 것을 하루종일 모아 보면은 동자하고 대사하고 두 분이 죽을 쒀 가지고, 겨우 연명할 정도가 됐대요. 그럭해서 먹다가 무학대사가 간월도를 떠나게 됐대요.

떠날 적에 자기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꽂아 주면서, 절 앞에다, 암자 앞에다 꽂아 주면서, 동자 보구

"이 지팡이가, 지금 생생한 나무를 내 꽂았는데, 이 지팡이가 마르거든 내가 죽은 줄 알아라."

그러고 떠났다고 그래요.

그 뒤로 그 동자는 그 섬에 다시 왔던 어떤 화주승이 시주를 받으러 와 가지구,

"너는 어째서 동냥을 하지 않아두 먹구 사느냐?"

물었더니,

"나는 쌀 나오는 샘이 있읍니다. 하루 종일 나오면 나는 먹습니다."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 보자."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가 봤다는 거예요. 그 스님 하는 얘기가,

"야, 너 혼자 외롭고 고독하니 나 하구 같이 있자. 그런데, 둘이 있자면 쌀 나오는 양이 적으니, 쌀을 좀 더 나오게 해 보자. 이거는 필시 쌀 나오는 구멍이 작아서, 곡간이 많이 있을 텐데, 작아서 이렇게 안 나오니 저걸 다시 좀 뚫어 보자."

그래서, 그 온 스님이 지팡이로 뚫었는지, 뭘로 뚫었는지, 그걸 키웠다는 거예요. 구멍을. 키우자마자 가끔씩 떨어지던 쌀알은 없어지고 물만 졸졸 흘려 내렸다 그래요.

그런디, 그뒤로 수년이 흘른 뒤에 그 나무가 말랐다고 그래요. 지팡이가 말랐는데, 조선말기 때 와서 그걸 누가 버리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서두, 조선말기 때 와서 잠시 그 나무가 잠시 잎이 피었다가 또 지더라 허는 얘기를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9시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의 : 앞 이야기와 같음.

123. 몽산리 문씨

T 남면 산달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 이 쪽으로 낙향 해 오신 할머니가

'어디에 가면 물이 잘 솟는 샘이 있을 것이니, 거기에 정착하라. 그러면, 부(富)를 이룰 것이다.'

하고 지시하는 꿈을 꾸고 정착한 곳이 몽산리이다.

그의 후손들이 문씨인데, 지금 몽산리 1,2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문씨는 여기 할머니 한 분이 낙향하실 적에 오셨는데, 꿈에 어느 장소에, 옛날엔 그 물이 있어야 마을이 생겼던가 봐요. 샘이 있어야.

"어느 곳에 가면은 물이 잘 솟는 샘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 정착을 하면, 부

를 이루고 살것이 다."

이렇게 꿈에 현몽을 했다고 그래요. 나타나서.

사실 그 장소에 가서 봤더니 물이 잘 나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부터 문씨들이 대를 이루고 살아서, 지금 남면 문씨가 몽산 1,2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8시 3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4. 떡바위(1)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몽산포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에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나타나는 큰 바위가 있다.

그건에 몽산포 쪽 사람들이 그 바위 근처로 굴을 따러 갔는데, 그 앞을 건너다 보니 거아도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거아도로 가면서 부녀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거아도에 가서 떡을 얻어 가지고 올 테니, 여기서 굴을 따면서 기다리시오."

거아도로 간 남자들은 잔치에 휩싸여 아낙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잊었다. 아낙들은 밀물에 휩싸여 모두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 바위를 '떡바위'라고 한다.

몽산포에서 한 1km쯤 떨어진 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이 되면은 나고 그래요. 그런디, 그 바위를 지금 동네에서는 '떡바위'라고도 하고, '덕바위'라고도 그래요.

그런디, 두가지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그 섬에, 떡바위에 굴이 많아서, 굴이라든지 이런 걸 줏기 위해서 몽산포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가서 그걸 줏구, 패조류를 땄거든요. 따다 보니까, 그쪽 앞에 있는 거아도 섬이 모양을 변화하더란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섬 논다' 그래요. 사막의 신기루 같은 현상인디요. 이게 날 맑은 날 보면은 구름 같은 게 가려싸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섬이 여러가지 형태를 이뤄요. 그런데, 옛날 얘기로는 섬이 그렇게 여러 모양 바뀌는 걸 보구 '섬 논다' 그러구. 그럴 때 그 섬이 경사가 났다 그래요. 잔치가 있다. 그래서, 그 떡바위에 갔던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저 섬에 지금 경사가 나서 잔치를 하니, 우리가 저 섬에 가서 잔치떡을 얻어 가지고 오겠다. 얻어 올 테니까 그동안 굴을 줏고 있으시요."

그러구 갔어요.

그 손님들이 가서 보니까, 아주 섬에 대잔치가 벌어 졌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구 잔치에 휩쓸려 가지고 잊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굴 줏으러 갔던, 패조류를 줏으러 갔던 아낙들은 기다리는 배는 오지 않고 물은 들고, 결국에 물속에 묻혀 죽었어요. 떡을 구하러 갔다가 떡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떡바위라 이름을 지었다. 그런 얘길 들었는데.

중간에 또 들은 얘기로는, 이, 호남이나 경남지방 사람들이 연평조기잡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갈 적에는 이 떡바위 근처에 많이 배가 모였었다구 그래요. 정박해서. 그러니께,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이 손님들한테 떡을 팔기 위해서 그 바위에 가서, 배들이 올 때는 떡을 해서 가서 팔았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름을 떡바위라 지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호남지방에서 온다면은 몽산포루다 바짝 들오지 왜 위험한 바위 근처에 가 있어서 그루(거기로) 떡장사를 하러 갔것느냐 말이유. 향토 자료에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봤는데 없는 얘기, 정립되지 않은 이야기를 적어 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7. 밤 9시 10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5. 떡바위(2)

남면 달산리 ①—B면

옛날에 어렵게 살 적에요, 저기 저 거아도 섬에서 굿을 했대요. 굿. 무당 굿마냥. 풍어를 올린다는 굿을 했는디, 하도 배고프고, 그전 어민들이 거기가서 떡을 얻어다 먹는다고, 떡을 가서 먹구 온다고, 조그만 바위다가 자기 가족들 데려다 놓고 조개잡이 하구 굴 딴다구, 거기다 놓고, 아, 그만 섬에 갔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 파도가 심히 일어나니께, 풍랑이 워낙 많이 세니께, 그 풍선(風船) 가지고 그 노젓는 배가 거기 오것어요? 그러니께, 그대루 그 가족들이 그 바위에 묻혀서 그대로 죽어서, 이름을 떡바위라고 지었대요. 떡 먹으러 가서 죽었다구 해서 떡바위요.

채록 일시 : 1987. 1. 8. 낮 12시 50분경
구 연 자 : 조 광호(남, 50세, 상업 및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채록장소 : 구 연자의 집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구연자의 집에 이르니, 구연자는 집 옆에서 돼지 집을 짓느라고 다른 사람 1명과 함께 시멘트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126. 몽대(夢垈)

T 남면 달산리 ①—B면

여기 남평 문씨 노파, 할머니가요 옛날에 난리를 겪을 때, 피난으로 여기를 왔었대요. 아들을 하나 안구서. 여기서 거처없이 피난 왔으니까 고생스럽지 않겠어요? 저기 저〔약 200m 정도 떨어진 나무 밑에 있는 몽대 유적비를 가리키며〕 덩굴 있는 움막을 자기가 파서 의지하고. 그러니께, 거지 생활이죠.

그래서, 인제 꿈을 꾸니까,

"고 밑에 가면 샘물을 나구 그러니께, 요기다가 따뜻하구 그러니, 여기서 살면 자손이 창성할 게다."

꿈을 꿔서, 이름이 몽대라. 꿈을 꿔서 자기가 여기서 살게 됐다구 해서 몽대라고 했대요. 터 대(垈)자, 꿈 몽(夢)자. 여기 본 이름은 몽산리(夢山里)지요.

채록 일시 : 1987. 1. 8. 낮 1시경
구 연 자 : 조 광호(남, 50세, 상업 및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7. 몽대 유적비(夢垈遺蹟碑)

＊ 줄거리

남면 몽산리에 있는 몽대 유적비(夢垈遺蹟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그 요지만 추려 적는다.

문 시동씨가 1642년경 홍주에서도 당산하로 이주했다.

문씨가 어느 엄동풍설 중 빙사(氷死)에 이른 어느 노승을 구해서 보호 했는데, 한 달여가 지난 후 노승이 고별하며 동행을 청하기에 응했다.

노승은 한 곳을 가리키며 이 곳에 자리를 잡으면 부귀영화 할 것이라고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문씨가 이 곳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꿈에 나타난 신인의 지시로 우물을 팠다. 이를 감노천(甘露泉)이라 한다. 이후로 동네이름을 몽대(夢垈)라고 했다.

근문 세종 건먹 불초의 십대조 휘 시동께서 1642년경에 홍주에서 도당 산하로 이주하셔, 유 2 남하니 장왈 휘 계운, 차왈 휘 계남이시다. 동지공께서 어느 엄동풍설 중에 기한이 빙사에 지한 노승을 구출 보호 하였더니, 월여 후 노승이 고별하며 동행을 청하므로, 응락 수행 중 잠시 후 농민 중에 앉히며 복거 차지하면, 부귀 영화할 것이며, 국소는 몽자형이요 하고 홀불견소향이라. 건옥 주거 중 공이 이를 비몽사몽에 신인의 지시로 북서건방 삼십여 보 전 괴목 아래 괴간을 착정하니, 시위 감노천이며, 자차 이후로 동명은 몽대요, 소지명의 정곡은 장남 휘 순봉, 소처는 차남 휘 선유 분가지요, 대처는 삼남, 삼남 휘 선봉을 데리고 안거하신 곳이므로 약서 이기하여 영세가전 하노라.

128. 빈대 때문에 망한 죽절

T 남면 달산리 ①—B면

저기 가면〔남쪽을 가리키며〕 죽절이란 절이 있어요. 옛날 그 빈대가 아주 많아서, 중이 거기 유지 못했던 모양이요. 빈대가 많아서 절이 아주 뭣 됐죠. 다시 복구한다고 했지만 못했고, 부처만 그냥 남아 있고, 돌로 만든 부처만 그저. 노인네들 말씀은 거기가 참 옛날에 잘 됐다는데, 다 부시러지고 허망해져서 누가 오겠시요.

채록 일시 : 1987. 1. 8. 낮 12시 55분경
구 연 자 : 조 광호 (남, 50세, 상업 및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9. 장구벌의 망부석

T 남면 달산리 ①—B면

장구벌이라는건, 전쟁을 뭐 할 적에 서로 거기서 연습을 했대유. 솥 걸구.

저기 가면요, 망부석이라고 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디, 그 망부석이라고 저쪽에도, 지금은 논을 다 떠서, 논이 다 되었는데요, 거기서 활을 쏘구 이렇게 서로가 전쟁놀이를 해서 그게 있었다는 신표가 있어 가지구 망부석 두개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8. 낮 12시 57분경
구 연 자 : 조 광호(남, 50세, 상업 및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0. 마침재와 말미당굴

T 남면 달산리 ①—B면

합방 이후에 역마다 이어 주는 말이 여기서 잔 거죠. 일본 사람들 있을 때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馬寢)재라고 한대요.

말미당굴, 말무덤굴. 여기 있던 말을 죽으면 갖다 묻어서 말무덤굴을 말미당굴이라 했을지 모른대요.

채록 일시 : 1987. 1. 8. 낮 1시 10분경
구 연 자 : 문 병욱(남, 30세, 공무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몽산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몽산리 마침재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남면사무소 직원으로 조사단을 안내 해 주었다. 구연자와

마침재를 걸으며 김창진 선생과 함께 들었다.

131. 적돌의 돌무덤

T 남면 달산리 ②—A면

***줄거리**

남면 양잠리 1구의 적돌이라고 하는 마을에는 계단처럼 높게 쌓아 놓은 돌무덤이 있다. 이것은 고씨 한 분이 수십년 동안 매일 바닷가에서 돌을 하나씩 주워다가 쌓은 것이라 한다.

양잠리 1구를 적돌, 적석이라고 하거든요. 적석이라고, 적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쌓았다는 얘기 거든요. 돌을 쌓아 놨다. 그래서, 그 적석이라고 하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마을 고씨라고 하는 분이 매일 돌을 바닷가에 가서 하나씩 운반해서 거기다가 적석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윗쪽으로 크게 사각형을 그리며〕 쌓은 계단처럼 쌓아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양잠리 1구는 가(賈)씨가 많이 살고, 고씨가 일부 살고 있는데, 고씨 한 분이 거기다가 돌을 계속 쌓아 가지고, 몇 십년 동안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루처럼 해 놨어요. 높이가 3~4m 쯤 될까요. 맨 위는 3~4평 정도 되게 편편하게 해 놓고. 그 옆에는 비가 하나 있어요.

채록 일시 : 1987. 1. 8. 오전 9시 4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남면 사무소 앞 승용차 안에서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민속 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남면 사무소에 갔다가 거기서 최 재학씨를 다시 만나 전날 밤에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132. 양잠리의 제방

T 남면 달산리 ②—A면

***줄거리**

덕성이 깊고 효도가 지극하다고 소문난 양잠리 임씨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임씨가 살고 있는 마을과 건너 마을 사이의 바다에 굵은 줄을 매어 놓고 말했다.

"이 줄을 따라서 물이 더 육지 쪽으로만 들지 않게 해 놓으면, 너에게 큰 복을 줄 터이니 내일부터 그 일을 해 보아라."

임씨는 그 이튿날부터 꿈에 본 그대로 두 마을을 잇는 둑을 쌓았다.

그 둑이 완성되자, 많은 농경지가 생겨 두 마을은 부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원둑제를 지내는 한편, 임씨의 공을 기리는 비를 세웠다.

이 둑이 남면 양잠리 1구 적돌과 2구 잠굴을 잇는 둑이다.

남면 양잠리(兩潛里) 1구 적돌과 2구 잠굴 사이에 지금 원둑이 있어요. 제방(堤防)이. 그 곳 사람들이 지금도 원둑제를 크게 지내고 있어요. 제방 쌓은 연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전해오는 얘기로는,

임씨라구 허는 그런 성을 가진 분이 자기 부모한테도 많이 공경을 허구, 주민들로부터 덕성이 많다구 해 가지구, 깊다구 해서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 꿈에, 신선 한 분이 나타나 가지구 바다를 양쪽 끝을, 바다를 양쪽 끝을, 그 건너마을하고 이쪽 자기가 사는 마을 하구를 큰 굵은 동아줄로 매 놓더라고 그래요. 매 놓구서,

"이 양쪽 줄 따라서 물이 더 육지 쪽으로만 들지 않게 네가 해 놓면은 큰 복을 줄 테니 내일부터 그 일을 한번 해 봐라."

했다고 그래요.

그 임씨가 깨어나구서, 하두 꿈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했다구 합니다. 그 줄이 매 있었던 그런 걸 생각해서 그 자리에다가 제방을 쌓았는데, 제방 쌓고 보니까, 그안이 옥토가 된거죠. 논이 된거죠. 웬만한 바람이나 밀물에도 그 둑이 무너지질 않고 풍작을 해마다 이뤄서, 양잠리가 부촌으로 번성을 했고. 그래서, 덕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제를 해마다 지내고, 임씨 비를 세워 줬다고 그래요. 동네서.

채록 일시 : 1987. 1. 8. 오전 9시 40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3. 남면의 신털이봉

T 남면 달산리 ②—A면

***줄거리**

남면과 안면도 사이의 판목을 끊어 운하를 만드는 공사를 할 때, 공사의 감독관은 별도의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신발에 묻은 흙을 터는 시간만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인부들은 일부러 신발에 흙을 많이 묻혀 가지고 와서, 흙을 털면서 쉬기도 했다고 한다.

판목 운하의 남면 쪽에 인부들이 신발에 묻은 흙을 털은 신털이봉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연육교

를 놓을 때, 그 흙을 다시 그 곳으로 밀어 넣었다고 한다.

안면도 하고 남면 하고 끊은 부분을 여기선 이름하기를 판목 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부역한 사람들은 서산·홍성서까지 전부 왔다고 그러고, 예산서까지 와 가지고 공사 조력을 했는데, 그 감독관이 하도 감독이 심해서, 쉬는 시간을 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휴식 시간을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황토에서 일하면 신발에 흙이 묻으면 작업능률이 안 올른다고 그래서, 그걸 터는 시간만 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하다가 일부러, 좀 지치면은 신에다 흙을 많이 묻혀 가지고, 그 흙을 털기 위해서 일부러 휴식을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면도 쪽이 아니고 연육되어 있는 다리의 남면 쪽에, 오른쪽에 부대가 있는 데, 거기가 높은 봉우리였어요. 그게 신털이봉인데, 그 흙을 다리 놓을 때 다시 썼대요. 거기서 나온 흙을 다시 그곳으로 집어 넣었다고 하니, 어쨌든 인연이 맞는 얘기지요.

채록 일시 : 1987. 1. 8. 오전 9시 35분경
구 연 자 : 최 재학(남, 46세, 남면국민학교 교사, 대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113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4. 각시바위

T 남면 달산리 ②—A면

*줄거리

남면에서 안면도를 향해 연육교를 건너 가다가 보면 왼쪽에 바위 하나가 있다.

옛날에 오빠 부부와 누이동생이 조개를 캐러 갔는데, 일에 열심하면 세 사람이 물이 들어 온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빠가, 먼저 동생을 업고 헤엄을 쳐서 건너 주고 왔을 때는 이미 물이 차서 다시 갈 수가 없어서, 아내는 물에 휩쓸려 죽었다.

그 후로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 바위가 생겼는데, 그 바위를 '각시바위'라 한다.

안면도에서 차를 타고 오다 보면은요, 다리 밑 오른쪽 갯펄에 바위가 하나 서 있어요. 그 바위는 꼭 사람이 서있는 듯 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전설을 이야기하면은요, 옛날에, 어느 오빠 부부와 누이동생이 조개를 캐러 그곳으로 나왔대요. 그런데, 그곳은 지금도 가보면 둥근 언덕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주위가 얕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도 모르게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세 사람도 조개 캐는 데만 정신을 쏟다 보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대요.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오빠가 아내와 동생을 업고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했는데요, 한꺼번에 둘을 업을 수 없어서 먼저 동생부터 업고 건너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차서 오빠는 다시 건너갈 수가 없었대요. 결국 혼자 남은 아내는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대요.

그 후로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바위가 생겨났고, 각시가 죽어서 생긴 바위라 해서 '각시바위'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와 더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곁들이기도 하지요.

채록 일시 : 1987. 2. 15. 오후 2 : 10~13
구 연 자 : 이 희분(여, 25세, 회사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승언리 2구 1759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신온리 2구 776
채록 장소 : 채록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와 잘 아는 구연자가 채록자의 집에 왔을 때, 채록자가 구연자 이 양에게 고향인 안면도의 전설을 아느냐고 물어 구연한 것이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본적지에서 살며 안면국민학교 4학년에 다닐 때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동생들에게 해 준 적이 있음.

135. 할미바위와 할아비 바위

T 남면—달산리 ②—A면

***줄거리**

안면도 승언리 방포해수욕장에서 왼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있다.

옛날 그 곳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기잡이 나간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할머니는 걱정을 하며 바닷가에 서 있었다.

어느 비바람치는 날 밤에 할아버지가 바다 위를 걸어 오는 것이 보였다. 이를 본 할머니는 반가와서 바다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보였던 자리에는 둥글고 넓적한 바위가, 할머니가 서있던 자리에는 뾰족한 바위가 생겨 났다. 그래서, 그 두 바위를 각각 '할아비바위', '할미바위'라고 한다.

안면도 승언리에 있는 방포해수욕장에서 왼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전설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옛날에, 그 곳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 부부는 고기잡이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할아버지께서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비바람이 몹시 치던 그날도 할머니는 걱정을 하며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할아버지가 바닷물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대요. 환상이였겠지요. 할머니가 그걸 보고는 반가움에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 갔대요.

그 후로 할아버지가 보였던 자리에는 둥글고 넓적한 바위가 생겨났고요,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는 뾰족한 바위가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 두개의 바위더러 '할미바위, '할아비바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나 이애기가 가장 많이 들려지고 있지요.

채록 일시 : 1978. 2. 25. 오후 2 : 15~17
구 연 자 : 이 희분(여, 25세, 회사원, 고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승언리 2구 1759
주 소 : 충남 서산군 남면 신온리 2구 776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나. 民　譚

1. 사위들의 글짓기 자랑

T 서산읍 떡지천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위 넷을 두었는데, 첫째사위는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하다 하여 장인, 장모와 손아래 동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를 분하게 여긴 그의 아내는 남몰래 남편에게 글을 가르쳤다.

장모 생일에 네 동서가 처가에 모이자, 세 동서는 큰 동서를 골탕먹이려고 글짓기 내기를 하여 글을 못 짓는 사람은 퇴장하기로 하자고 하였다. 큰 동서가 좋다고 하자, 세 동서는 연고 고(故)자를 운자(韻字)로 하여 글을 지을 테니 큰동서는 대구(對句)를 지으라고 하였다.

둘째동서가 "산지고고 적석고(山之高高積石故)"라 하자 큰동서는 "천지고고(天之高高)도 적석고(積石故)인가?" 하고 응대를 하였다.

세째동서가 "학지장명 장경고(鶴之長鳴長頸故)"라 하니, 큰동서는 "와지장명(蛙之長鳴)도 장경고(長頸故)인가?"하고 대꾸하였다.

네째동서가 "노류부장 절인고(路柳不長折人故)"라 하니, 큰사위는 장모에게 면박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장모부장(丈母不長)도 절인고(折人故)냐?"하고 말했다.

동서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큰사위는 독상을 받았다.

옛날에 어떤 분이 4남매, 딸을 빗을 두었는디, 원체 옵시 살으니께 딸들을 잘 가르치질 못했어. 그래서, 인저 출가를 시켰는디, 그 동상덜은 학교공부두 시키구 그래서 전부 사위를 얻었는디, 훌륭한 사위를 다 얻었어. 그런디, 큰사위만 나뭇지게, 나뭇군이여. 그러니께. 그 안식구가 생각허니께, 가 보면은 둘려. 동서들은 다 똑똑허구, 자기남편만. 그래서, 식구몰래, 처가집 물르게, 이눔을 갖다 공부를 시켰다 그거여, 안식구라.

그래 가구, 참 인제, 처가집에, 인저, 좋은 행사가 있는디, 가서 보니께 볕스럽게 대하들 않거든. 그런디, 안식구는 생각허기에 '남편이 그만큼 배웠으니께 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레서 흥이 나는 거지. 그런데, 그 사위들이 헌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동서들이

"우리 빙모님 생신에 왔는디,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으니께,"

그러니께, 큰동서 쫓겨낼라구 그러는 겨. 그러니께, 우리가 큰 상을, 사위상을 차려 오라구말여. 상을 차려다 놨는디, 그래서, 큰동서 그거 같이 앉기가 뭣허니께 말여,

"우리 글짓기를 한 번 해보자. 만약, 큰 동서는 짝을 지으야 허여. 우리가 문제 내면 짝을 짓는디, 짝 못 지으면 퇴장하기로 헙시다."

이눔을 떡을 붙인다 그거여. 그러니께, 안식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께, 남편이 배울만큼 내

가 가르쳤으니께, '한 번 겨뤄 봐라. 느이덜 나중엔 똥 쌀기라.'

연고 고(故)자를 하나 놓고서래미, 연고 고자를 놓고서라미 문제를 떠억 하는디, 큰사우 보고 짝을 지라는 거여.

"천지고고는 적선고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아니,

"산지고고(山之高高)는 적석고(積石故)라. 산지고고는 적석고라."

했단 말여. 짝을 지으라니께, 이 사람이

"천지고고(天之高高)도 적석고(積石故)냐?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돌팍이 있는 연고냐? 산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돌팍이 있는 연고지만, 하늘도 돌팍이 있어서래미 안 무너지느냐?"

'산지고고는 적석고'라 하니께, '천지고고도 적석고냐?'라고 했어.

그러니께, 다음 놈이 인저, 붙는 기여. 다음 놈이 붙는지, 뭐라구 허느냐면,

"학지장명(鶴之長鳴)은 장경고(長頸故)라. 학은 모가지가 길기 때미 울음소리가 길게 나간다."

그거여. 그러니께,

"와지장명(蛙之長鳴)도 장경고(長頸故)냐? 개구리 울음 소리 길게 나는 것두 모가지가 긴 연고냐?"

이말이여. 것전 또 이겼거든.

그 또 한 놈이 떠억 붙는디, 뭐라구 그러느냐면, 가만히 생각허니께, 딸이 셋이었다구 그러데. 한 놈이 끄트머리에 하는디, 가만히 생각하니께, 장모가 자꾸 인저 들랑날랑하는디, 가만이 생각허니께, 장모가 자꾸 인저 들랑날랑하는디, 가만이 생각허니께, 장모 박살을 주어야 되게 생겼어.

"노류부장(路柳不長)은 절인고(折人故)라."

길가에 버드나무 심은 것은, '인다고(人多故)'라고두 허여. 인다고라. 사람이 꺾어서 키를 못 큰다 그거여. 그러니께, 이 사람도 짝을 짓는디,

"장모부장(丈母父長)도 절인고(折人故)냐? 인다고(人多故)냐? 장모가 키 못 큰 것도 인다고냐? 사람이 꺾어서 키를 못 컸느냐?"

이렇게 먹을 붙였단 말여.

그러니께, 가만히 보니케, 뭐 또 있나. 그러니께,

"퇴장허기루 했으니께, 느덜이 나가야지 워트게 내가 나가게 됐니?"

그래서, 큰 사위가 독상을 받아서 먹드라구. 그래, 사람을 너무 무시하구 볼 수가 없다는겨. 그래서, 큰 사위는 그렇게 안식구를 잘 만나서, 안식구라 처가집 물르게 공부를 시켜가꾸, 처가집에 가서, 행사집에 가설래미, 동서들, 양복장이, 다 쪘겨냈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1. 오후 3 : 00~07
구 연 자 : 최 홍기(남, 62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서산읍 덕지천리 서 정식씨댁 아랫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일은 합덕에서 봄에 이마을로 이사를 온 서 정식씨가 농사를 마치고 '가을베끼'겸 이사 온 인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날이었다. 채록자 일행도 이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았다. 김 정헌 노인댁에 가서 건설과 민요를 채록한 후에 채록자가 이 집으로 다시 가 보니, 웃방에는 마을 부인들이 모여 놀고 있었고, 아랫방에는 구연자와 마을 사람 한 분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채록자가 취지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뒤에 들으니, 구연자는 이야기를 잘 하는 분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다.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려준 사람 : 동네 어른들
구연 경력 : 가끔 이야기했다고 함.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 저승 가는 길에 연애한 총각과 처녀

T 서산읍 덕지천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한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오다가, 명이 짧은 부자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길에다 던져 둔 돈꾸러미를 주어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총각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저승에 가게 되었다.

저승에 가는 도중에 총각은 앞서 가던 처녀와 알게 되어 저승에 가서라도 함께 살자고 단단히 약속하였다.

저승에 당도하니, 수명부와 대조하여 본 최판관이 처녀는 명이 다하였으므로 저승에 들어갈 수 있지만, 총각은 남의 명에 왔으므로 이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총각은 그 처녀와 헤어질 수 없으니 함께 저승으로 가서 살게 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염라대왕은 그 총각이 효성이 지극했음을 생각하여 그 처녀와 함께 이승으로 가서 더 살다가 오라고 했다.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 총각은 염라대왕이 말해 준 '고분지통밥삼랑자'란 글귀를 풀어 3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그 처녀를 만나 결혼하고, 전에 주어다 두었던 돈으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옛날에 어떤 분이 오머니 한 분 모시고 있는디, 따악 독신을 됐어. 그런디, 원체 이 사람이 오머니에게 아주 잘 해. 나무 해다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인디. 어떤 그 동네 부자 사람이 워디 가서, 그 뭐를 보니께,

"너는 부잔디, 너는 곧 죽어. 그런디, 네 명을 이슬라면(이을려면) 엽전꾸러미를 갖다가 사거리에다 놓으면, 그 주서가는 사람이 네 명을 받아 간다."

이렇게 얘기 했는디, 가만히 생각허니께, 죽긴 싫으니께, 그늠을 갖다 집어 내뿌렸거든.

그러디, 그 부모에게 잘 하는 사람이 나무해 갖고 가다 보니께, 엽전 꾸러미가 있다 이거여. 그런데, 그늠을 주서 가꾸 가서, 집에다, 참 나뭇간에다 묻어 놨다 이거여. 묻어 놨는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허니께, 부자는 됐는디, 인저 어머니 호강시럽게 됐다 이거여. 그런디, 이늠이 죽었어. 꿈꾸다 죽었다 그거여. 밤에 자다가, 돈 꾸러미 갖다 놓고. 그러니께 부명에 가는 겨. 그 어떤 사람이 잘 봤지. 그러니께, '돈 꾸러미 가져가는 사람이 죽는다, 네 명을 가져간다.'

그래, 저승길을 가는디, 어떤 처녀가 가는디, 아무리 바삐 쫓아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을. 그래 인저, 바짝바짝 쫓아가서 그 여자, 처녀를 만났어.

"그래, 당신 어디 가시오?"

그러니께,

"나 저승에 간다."

고, 그 여자가. 그러면, 처녀냐니께 처녀라구 그래. 장가도 못들었지, 이사람은. 그래서, 거기 저승 길에, 같이 가는 길에 연애가 된 거여. 지금으루 말허면.

"나두 저승길에 가구, 당신두 가는디, 총각인디 저승길에 간다. 그러니께, 우리 저승에 가서나 살아 보자."

이런, 둘이 약속을 하구, 인저 저승길에 들어가는 거여. 이제 들어가는디, 최판관 앞에 떠억 들어가서 얘기허니께,

"너는 명이 됐어."

그 여자 보구,

"너는 들어가는디, 넌 안 된다. 부명에 왔다."

빠꾸시키는(되돌려 보내는) 거여.

그러니께, 이 사람이 애원을 한기여. 최판관 앞에 가서,

"실은 내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장가도 못 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는디, 참 이런 여자를 만나서 둘이가 약속을 허구, 저승에서 살자고 이렇게 약속을 허구 왔읍니다. 그러니, 저두 좀 같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부모님 생각허면 나가야 하는디, 어쩝니까?"

그러니께, 최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원체 이놈이 부모께 잘 한다는 걸 아마 저승에서도 알았던 모양이여. 그러니께, 이놈을 내다보내고 그 새악씨를 들여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께, 최판관이 생각허니께, 원체 성의가 고마와서, 부모게 잘 하고 해서 그 새악씨까지 내보내는 겨.

"같이 가라. 가서 느이네가 살다가, 곧 네 명이 될 때 오너라. 오는디, 이승에 가서 느이덜 만날 수가 없을 거이다. 그런디, 내가 '고분지통밤삼낭자' 했어."

'고분지통밤삼낭자' 하는 것은, 그 대추나무 뭐 될 겨, 글자로. 그런디, 그 문 앞에 대추

나무가 있었던 모양이여. 구부러진 대추나무가 있는디,

"이것을 외우고 나가야 야중에 그 사람을 찾을 것이다. 그 여자를 찾을 것이다."

그런디, 인저 따악 깨고 보니께, 묻지는 않았으니께 살았다 그거여. 깨어 보니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들 때문에 애걸하다가. 그러니께, 돈은 있으니께, 말허자면 장례를 잘 모시고. 이 여자를 찾아야 할 텐디, 찾을 장사가 있느냐 이거여. 그래, 밤나(밤낮으로) 그것만 외고 돌아다니는 거여. 아마 한 삼 년 찾았던 모양이여. 그 누구 보고 그러니께,

"그 문 앞에다 큰 대추나무 꾸부러진 놈이 있으면, 그 집에 가 한번 물어 봐라."

인저, 그 유식한 분 보구 물어보니께, 그러니께, 밤낮 다니며 문 앞에가 대추나무 있는 집만 찾아다니는 기여.

그런디, 어떤 집에 가 보니까, 큰 대추나무가 있는디, 부산하드라 이거여. 그러니께, 이 집은 양반집인디, 그 딸이 인저 혼인을 하는디, 이 딸이 앓는 기여. 그래, 저승에서 만났던 그 때 남편을 찾을라구 그러는기여. 그러니께, 앓지 않으면 시집을 보내게 생겼으니께, 계속 앓고 있는 기여. 〔테이프 교환으로 잠시 중단〕 아, 그런디, 장례도 다 모시고, 한 3년 찾으러 다니는디, 그 집에 가니까 부산하드라 이기여. 아, 뭐 때미 그러냐니께, 지금 이집 따님이 돌아가시게 돼설라미, 지금 하인들도 다 그러는 겨. 그런디, 아, 제가 좀 한 번 고칠 수 없느냐구 말여. 제가 좀 한 번 볼 수 있다구. 나두 의원이라구. 인제, 이름을 따악 붙였다 이거여. 사랑에는, 그러니까 인제, 거지지. 그렇게 한 삼 년 찾아 댕였으니께. 가영감 보구서라미 이런 사람이 있는디, 그런 얘길 하드라구.

"야, 혹은 알 수 없으니께 좀 모셔 봐라."

사랑에다 모셨다 그거여. 그래서, 그 사람도 원, 글자는 조금 알았던지,

"어— 그 방에 난 갈 거 없구, 내가 약 화제를 내줄 테니께, 찬물 한그릇 가져오라구."

그러니께, 찬물을 한 그릇 가져 왔거든. 그래, '고분지통밥삼낭자'라고 했는데, '고분지통밥삼탕'이라고 써. 그러니께, 그 여자는 학식이 똑똑하니께, 이 눔으 걸 백지에다 써서라미 물에다 덮어서라미,

"들여다 줘라. 이눔만 먹으면 낫는다."

그러니께, 이 여자가 이렇게 보니께, 저승에서 같이 들은 소리거든. 그런디, 물을 담았으니 '탕'이라고 한 게다. '밥삼랑탕'이라고 했단 말여. 그런께, 그 눔 한 그릇을 드르륵 먹고설라미,

"이이구, 이전 나섰다. 그 분 좀 오시라구 허라구."

들어오는데 보니께, 저승에서 만났던 남자여. 그래서, 자기 아버지 보고,

"실은 내가 아퍼서 드러누운 게 아니었읍니다. 한 3년간 그 냄편을 찾을라구, 우리가 약속을 했는디, 아버지, 내가 죽지 않았었시유? 옛날에 죽었는디, 내가 살아나지 않았었시유. 그런디, 이 냥반은 넘의 부명에 왔었고, 나는 내 명에 갔는디, 이 분이 하도 사

정해서 최판관이 '느이덜 가서 살아라. 늬가 부모게 잘허구, 지극해서 둘이 내보내니까, 이승에 가 살다 후에 명이 되면 오너라.' 해서 살아났읍니다."
해서라미, 부모에게 잘 하기 때미 장가 잘 들고, 돈 꾸러미 줏었는디, 부명에 갔어두 거기서 보내 주구, 그 여잘 얻어 가꾸서래미 참 잘 살다 죽었답디다.

채록 일시 : 1986. 12. 21. 오후 3 : 10~21
구 연 자 : 최 흥기(남, 62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충남 서산군 서산읍 먹지천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상황 : 위와 같음.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려준 사람 : 어른들
구연 경력 : 가끔 이야기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3. 장인을 속여 재산을 빼앗은 사위

T 서산읍 먹지천리 ②—A면

*줄거리

가난한 사위가 처가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였다.
어느날, 그는 아내에게 계란을 여러개 깨뜨려서 삶게 한 다음에, 장인을 모셔다가 그것을 썰어 술안주로 대접하였다. 장인이 이게 뭐냐고 하니까, 사위는 그게 계란 한 개를 삶은 것이라고 하였다. 장인은 놀랍기도 하고, 부러워서 그렇게 큰 알을 낳는 탉을 팔으라고 하면서, 논 닷 마지기를 떼어 주었다. 사위는 탉을 붙잡아 주면서,
"이 탉에게는 물을 먹이지 말아야지, 물을 먹이면 다른 탉과 마찬가지로 작은 알을 낳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그 탉은 가지고 가서 내려놓자마자 뛰쳐나가 물을 먹었다.
사위는 논 닷 마지기 농사를 지어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자기 아버지 제사날이 되거든 떡, 술, 고기 등등을 준비해서 제사 시간에 맞춰 갖다 달라고 하였다. 약속한 날에 사위는 장인을 모셔다놓고는, 자정이 지나자 방망이로 마루 바닥을 두드리며,
"떡 나오너라."
"밥 나오너라."
"고기 나오너라, 술 나오너라."
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한 것들을 한 가지씩 가져왔다. 사위는 그것을 상위에 올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 장인은 그것이 탐이 나서 논 한 섬지기를 주고 샀다. 장인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잘 모셔 두었다가 자기 아버지 제삿날 두드리며 여러 가지 것을 나오라고 하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전에 어떤 사람은 딸을 하나 낳았은디, 딸을 하나 낳아서 여의었는디, 딸은 못살고, 처가집은 부자집에서 장가를 들었거든요. 그런디, 딸하고 사위하고가 처가집 잘 사는 걸 어떻게 배가 아픈지, 그것을 좀 발라 먹어야 할 텐디, 발라 먹을 용기가 없단 말이유. 그

래서는 부인, 그 사위 짜리가

"야, 우리 탉 멕인 거 있으니, 그 계란을 한 줄을 깨뜨리든지, 두 줄을 깨뜨리든지 좀 깨뜨려서, 아무 낱엘랑 좀 삶소. 삶으면, 인저, 우리 장인을 데리고 오너서, 그 눔을 쓸어서 약주를 대접할 테니까, 이 눔을 삶소."

기랬거든요.

인제, 부인네는 인저 계란을 깨뜨려서, 그 눔을 푹씬, 인저 한 덩어리지게 그 눔을 쌂고, 사위짜리는 인저, 즈이 장인을 데릴러 간 게란 말이유. 그래, 가서 인저, 즈이 장인 보구서는,

"아이, 제 집에 약주가 한 잔 있으니, 제집에 가서 술 한잔 잡숫게 가시자구요."

예전부터 술 소리하면 남자는 좋으니께. 그럼 가자구.

그래, 인저 딸네를 와 보니께, 아 이 토막대기 같은 고기점을, 이렇게〔손짓을 하며〕 큰 놈을 칼판에 갖다 놓고서는 썩썩 쓸어 주는디, 뼉다구도 없이 고기가 맛 있고 좋단 말이유. 계란이 막 인저, 뭉쳐져서 그렇지유. 그레 인저, 장인이 한다 소리가,

"야 그러니, 세상에 우리는 손님네 하나만 오면은 제일루 술 안주 같은 걸 할래두, 참 몇 십리 장엘 가서 사다 대접을 했는디, 그, 느이는 워치케서 이런 고기가 이렇게 유축해 놨니?"

그러니께,

"예, 이게 다른 고기가 아니라 이게 계란이유."

"계란인디, 월마를 보태서 이렇게 크게 됐다니?"

그러니께,

"이게, 계란 한 개가 이래유. 한 개가 이래유."

그러니께,

"야, 그런 탉이 있으면은, 너 그것을 좀 내게로 팔아라."

"아녀유, 안 팔어유. 이렇게 큰 계란을 낳는디, 팔 수가 있간디유. 못 팔어유."

"아니여, 그런게 아니라, 논 한 닷 마지기 내가 주겠으니, 그 탉을 하나 팔아라."

결국 인저, 참 처가집에다 그 탉을 판 게란 말이유. 팔았는디, 탉을 주면서 헌다 소리가

"이 탉은 워쨌든지 물 먹으면은 여느 탉하고, 알을 쬐그맣게, 똑같이 나유. 그러니께, 첫째는 이 탉 물을 멕이지 마시유."

하고 당부를 해서 보냈거든요.

보냈는디, 인저, 옛날이는 이저 두루매기다 도포를 입구 다니는 세월인께, 도포자락에다가 인저, 품에다 넣어 가지구 가서, 인저, 자기네 집에 가서, 그눔을 방에다 내놓구서는, 인저, 두 늙은이, 두 내외가 얘기를 하는 거유. 인저, 그 딸네 가서 있었던, 자셨던 이야기를 허는 거유. 허다가는 인저, 그놈을 도포자락에서 내놓는디, 아 문이 어떻게 해서 벙그죽허게 열렸던지, 문으루다가 퍽 하더니만, 나가더니 수채구녕에 가더니 물을 먹었거든.

물을 먹었는디, 그 이튿날 인저 계란을 낳았는디, 아 여느 탉허구 같이 쪼그맣게 낳거든.

그러니께, 쪼그맣게 계란을 낳는디, 그 뒤로다가 인저 딸네를 갔어. 그러니, 그 사위가

"그 탉, 계란 어떻게 나유?"

그러니께,

"야, 계란이라구 죄그맣게 낳드라. 그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탉 물 멕였이유?"

"응, 지금 내 이야기한대루, 도포자락에서 내놓고서는 있는디, 문이 열렸는디, 문으로 나가더니 수채구녕에 가서 물을 먹더라."

"나이, 그러면 그렇지. 물 안 먹으면 그게 크게 낳을 텐디, 물 먹여서 그렇구만유."

인저, 그렇게 한 번 쑥았단 말이유. 여, 할 수 없이 논 닷 마지기 뺐겼지요, 탉 한 마리허구.

인저, 딸네가 인저, 논 닷 마지기 농사를 지어 가지구서, 그래도 처가집 재산을 먹어야 할 텐디, 그래두 뱃속이 들 찼단 말이유. 그래서, 인저 일년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는, 인저 그 일년 수확한 것을 전부 동네 사람에게 돌린 게란 말유. 아닐말루다가 쌀을 두말 줄 사람 두 말 주구, 서 말 줄 사람 서 말 주구. 그렇게 돌려 가지구서는,

"내가 어쨌든지, 아무 날은 우리 친기(親忌) 제사를 지내니께, 지낸다구 할 테니께, 자넬랑은 떡을 하소, 자네는 무엇을 차리소."

전부 인저, 모두 각자, 인저 차리라고 했단 말이유.

그러고서, 인저 처가집을 또 가서는 자기 장인 보고서는,

"아이, 오늘 저녁에가 저의 친기 제사인지, 가서 빙장님, 저희 집에 가서 술 한 잔 잡숫게 가시지유."

"그럼 가자."

"예."

그래, 인저 딸네를 오너 보니께, 제사 지낼 무렵에 떠억 시간이 되니께, 사위가 무엇을, 연자방아, 참 방망이를 갖다 놓고서는, 뭘 똑똑 두드리면서,

"떡 갖다 차려 놔라. 떡 나오너라."

하면, 떡 갖다가 큰 상에다 갖다 놓고서는, 떠억 차려 놓구,

"아무 거 나오너라."

하면 인저 불르는 대로 갖다 차려 놓는단 말여. 그러니, 차려 놓는 걸 보니께 하여간 참 수 백 가지 것을 차려 놓았거든요. 그래 사위 보구 그랬시유.

"그러니, 워트게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지사를 잘 차리니?"

그러니께,

"예, 저희는 달리 그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전 우리 몇대 할아버지 적부터 쓰는 연자 방맹이가 있읍니다. 이 연자 방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방맹이루다가 두드

리면서 무엇 갖다 차려 놔라 하면 이렇게 나오면서 차려 놉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께,

"야, 그러면은 그 방맹이를 내게다 팔아라."

"아녀요, 몇 대 내려 오는 방맹이인디, 팔 수 있간디요. 못 팔아요."

"아니여, 그럴 것 없이, 이번에는 논 한 섬지기를 줄 테니, 그 방맹이를 팔아라."
그 인저, 어떻게 해서, 참 팔기를 약속이 됐단 말이유. 논 한 섬 지기하구, 저, 참, 팔기루 약속이 되어 가지구서는, 인저 팔았단 말이유.

팔아서, 인저, 그 방망이를 아주 귀한거라구 도포 속에다 인저 꼭 넣어 가지구 가서 인저, 그 사람 인저, 장인 되는 사람 부모 지사가 돌아왔던지, 그늠을 떠억 끄내 가지구서는 아 똑똑 뚜드리면서,

"뭐 좀 나오너라."
하니, 세상에 무에 나오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집이가, 그 장인이라는 이네 집이가, 그 지사를 차리자면은, 어떻던지 그 동네 부인들이 모두 낮이꺼지부터(낮부터) 오너 가지구서 떡 방아를 찧고, 모두 철질을 하고, 두부를 하고, 생 야단은 하는 집인디, 아무도 오라 소리두 없구, 문만 꼭 걸어 잠궜단 말유. 그런디, 담 쪽으루다 동네 부인들이 이렇게〔고개를 쭈욱 뽑으면서〕 넘겨다 보니께, 지사 차리는 법두 없구, 뭘 갖다가서 내놓구서는 그냥 딱딱 뚜드리구 앉았거든요. 야중에는 인저, 암것두, 뚜드려두 암것두 안 나오니께는 성질이 나 가지구서는,

"나오너라, 나오너라."
그냥 막 뚜드리고만 있더랍니다.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렇게 밖에는 들은 게 없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1. 오후 3 : 40~53
구 연 자 : 김 용탁(남, 7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먹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제보자의 집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같은 마을의 김 정헌씨 댁에서 헤어진 후에 서산지역 민속조사단원인 김 창진 선생과 함께 제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만났다. 반가이 맞아주었고, 채록자의 권면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청 중 : 동행한 조사단원(김 창진 선생)과 김씨의 부인
처음 듣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하였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4. 제사 시간에 늦은 영혼의 전언(傳言)

T 서산읍 덕지천리 ②—A면

*줄거리

옛날에 한 소금장수가 길을 걷다가 묘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한밤중에 그 묘의 영혼이 자기의 제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나서는 것을 본 소금장수는 그 영혼을 뒤따라갔다.

얼마를 가느라니까 탐이 울었다. 그러자, 영혼은 "올해도 또 틀렸구나." 하고는 돌아섰다. 그리고는, 소금장수에게 자기 아들이 사는 동네를 가르쳐 주면서, 오늘의 일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날이 밝은 후에 소금장수는 그 집을 찾아가 그 영혼이 하던 말을 전했다.

옛날에 참, 어떤 사람이 소금장사를 하는디, 지금은 이렇게 차에다 싣고서 다니지만, 그 전에는 저 연발 같은 데서 구워 가지구서 몇 말씩 그저 지구서는, 여기루 말하자면, 저 개산(가야산)너머 같은 디, 그런 디루 아마, 팔러 다녔던 모양이유. 그런디, 인제 그눔을 지구서는 가다 가다, 인저 날이 저물었는디, 할 수 없이 산벌 속에서 잠을 자게 생겼는디, 그래두 그 모이 옆이가 아늑하니 좀 의지가 됐던 모양이유.

거기서 잠을 자느라니께, 한밤중쯤 되니께, '쿵' 하구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더니만은,

"어이구, 인제 좀 또 가 봐야겠군."

그런디, 그 귀신이, 참 이르자면 사람이 죽었으니께 귀신인데, 귀신이 가고난 뒤에는 인저 거기서 잘 맛대가리가 없거든요. 소금장사 맘이.

"어이구, 그럼 나도 인저 가야겠다."

그래, 인저 그 귀신하구 인저, 어디만큼, 따라가지 않을만큼, 뵈지 않을만큼, 그렇게 인저, 가는디, 가다가 가다가, 아 가다 가다가, 워치게 얼마를 갔던지, 가다가는 탐이 인저 '꼬끼요' 하구서 우니께, 그 귀신이 돌아서면서 한다 소리가,

"어이구, 올이두(올해도) 또 틀렸구나."

하구 돌아서는 거란 말요. 돌아서면서 소금장수 보구서 한다 소리가,

"아무 동네 아무디 가면은, 그 집이 지벌만두 한 집인디, 지사를 지내구서, 참 동네 손님들 데려다가 아마 술 대접두 할 거라구. 그 집이 가서 그 소식이나 좀 일러 달라구."

그런께, 그 소금장사가 거기를 참, 당도해 가지구서는, 가서는 보니께, 참 사람덜이 벅실벅실하구, 오늘 아마 저 윗집매루〔그날 제보자의 윗집에서 동네 사람에게 음식 대접이 있었음. 채록자도 그 집에 가서 음식 대접을 받았음〕, 그렇게 음식을 차리구서는 동네 분들을 모두 참 대접을 하거든요. 그래 인저, 그 전 보구서 그런거란 말요.

"내가 아무 디까지 오다가 저물어서 잠을 자다가는 그 모이 옆에서 자다가는, 그 혼신하고 같이 오다가 탐이 울으니께, 그 혼신 말하는 소리가 '나는 올이도 틀렸구나' 하더니

도루 돌아서면서 헌다 소리가 아무 디 가면은 지사를, 자기 부친 지사라고 다 잘 지내구서는 동네분들 술 한잔씩 대접할 게라구. 거기 가서 그렇다는 얘기나 좀 일러 주라."
구 허더라구.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식을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지사라는 것이 참, 혼신이 내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요.

채록 일시 : 1986. 12. 21. 오후 3 : 55~59
구 연 자 : 김 용탁(남, 70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하였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5. 소금장수와 불여우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소금장수가 재를 넘다가 쉬고 있는데, 어디서 '닥닥닥'하는 소리가 났다. 가까이 가서 숨어서 보니까, 불여우가 사람의 해골을 긁어 머리에 썼다. 그러자, 그 불여우는 노파로 변했다.

소금장수는 그 노파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잔치집에 들렀다. 그 집에서는 그 노파를 고모할머니라고 하며 반가이 맞아 들이고는 대접을 극진히 하였다.

소금장수는 꾀를 내어,

"내가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터이니 나와서 보십시오."

하고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자, 그는 노파를 맨 앞에 앉혔다. 몇 가지 재주를 보인 다음에, 촉작대기로 그 노파를 찔렀다. 그러자, 그 노파는 빨간 불여우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집에서는 큰 환을 당할 것을 그가 막아 주었다 하여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잘 살게 해 주었다.

옛날에 인저, 그 소금장사가요, 재너머를 넘어 가는디, 참 어려워서 쉬고 있는데, 워서 거 '닥닥닥' 긁는 소리가 나더래유. 그러니께, 그 여수 같은 것이 해골바가지를 긁어 가지구서 그눔을 쓰니까, 할메가 되더라는 얘기지유.

그래서, 인저, 어디 가냐구 해서, 나 아무디 간다구 하니까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해서 주욱 가는디, 참, 워떤 잔치집이 있더란 얘기지유. 거, 잔치집이 있어서, 자기두 인저, 목두 마르구, 소금장수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쉬어서, 그 집에 들어 가니께, 아 그집에 가니까, 막 아이구 우리 할머니 오신다구, 고모할머니 오신다구 안방으루 모시더라는 얘기유.

'이상허다, 지가 본 견지에서는 저것은 순전히 불여수인데.' 이상허게 그 집에 가니께 할머니루 변장해 가지구, 손님 대접으루 극진히 하니, 안됐어. 그래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가야할 텐디, 가지 않고, 참 머무르고 있다가,

'저게 무슨 변고가 생길 것이다.'

그래 가지구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이눔이 술 먹은 체하다가요,

"나는 좀 놀이를 한다. 내가 인저, 뭐 재주를 부릴 테니까 전부 나오쇼."

그래 가지구서, 참 인저, 그 경사집에서, 인저 놀이를 한다니까 전부 나와서 구경을 한다 이거요.

그런데, 옛날에, 그 작대기에다 촉을 박은 촉작대기가 있어요. 작대기 끝으머리다가 못을 박아 가지구서, 참 있는데, 그 할매가 마침, 할머니라구서 앞에다, 앞 좌석에다 따악 모셨다 이거요. 그러니께, 인저 그, 소금장수가 재주를 부린다구 막 이렇게 재주 넘구, 저리 넘다가, 그 여자 할매를 갖다가 팍 찔렀어. 찔르니께, 참 그 때서, 빨간 불여수가 됐드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 그 집안 어른들이

"하, 이런 꼴이 있느냐?"

구 해 가면서, 그 사람을 막 붙잡구 환영을 해주구,

"우리가 큰 변을 당할 건데 살았다."

이래 가지구 참 고마운 은혜를 해주구, 그 분은 소금장사를 그 자리서 면했다는 얘기를 옛날의 미담으루다 들어 본 적이 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5 : 20~23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사무소 앞, 조사자의 승용차 안.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오후 3시 30분 경에 면사무소에서 총무 계장의 소개로 만나, 명씨의 안내로 장요리에 가서 약 1시간 30분 가량 함께 다니면서 장요리 지방의 전설을 채록하였다. 그런데, 명씨는 조사자 일행을 안내하느라고 면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다시 가서 볼일을 보고, 함께 장요리로 가기로 하고, 조사자가 승용차로 면사무소까지 태우고 갔다.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온 담당 직원이 회의 중이어서 바로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조사자는 명씨를 차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명씨는 이 이야기와 다음의 이야기를 구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소금장수 이야기를 알면 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이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많이 했음. 아이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6. 연과 간부(姦夫)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형의 결혼을 앞둔 소년이 연을 날리다가 연줄이 끊어져서 그 연을 찾을려고 연을 따라 갔다. 연이 어떤 집 뒤에 가서 앉자, 한 처녀가 나와서 그 연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소년은 연을 찾아 가지고 오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집안의 동정을 살피느라고 숨어 있었다. 그 때, 한 총각이 담을 넘어 들어가 그 처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그 처녀의 간부로, 그 처녀가 결혼하는 날 밤, 신방의 병풍 뒤에 숨었다가 신랑을 처치하겠다고 하였다. 소년은 연을 찾을 생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형의 결혼식 날, 소년은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떼를 써서 함께 갔다. 그리고는 신방에도 함께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소년은 형과 신부에게 자기가 신방에까지 들어온 이유를 이야기 하고는, 준비해 가지고 간 칼로 병풍 뒤를 찔렀다. 그러자, 병풍 뒤에서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여 소년은 형의 목숨을 구했다.

그전에, 참 즈이 성(형)이 말이죠, 장가를 갈라구 약혼을 전부 해 놨는디, 결혼날은 자꾸 돌아오고 그런디, 그 동상(동생)을 연을 하나 만들어 줬시요. 연을 만들어 줬는디, 연이 참 잘 날아서, 연을 띠는디, 끊어졌다 이거요, 연줄이. 그래서, 저 성이라 만들어 준연이니까, 그 연을 쭈욱 따라가니까, 어떠한 집 뒤에가 앉드란 얘기죠.

그래서, 그 연을 찾아 가꾸 오얄 텐디, 그 즈이 성은 결혼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요. 그래서 인저, 그 뒤를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처녀가 그 연을 가지구 들어가드란 얘기요. 그 연을 갖구 오야 할 텐디, 어따 두나 그 방향을 알아야 할 텐디, 잘 안 되고. 그 담을 넘어가 보니께, 그 옛날 사당 있죠. 사당에 갖다 모시드란 얘기요, 그 연을.

인저, 참, 사당에 모셔 놨으니까, 그걸 가져올라구 담을 넘어가서 말레(마루)밑에가 이렇게〔엎드리는 시늉을 하며〕 있으니까, 어떤 참 총각이 써억 넘어오더니, 그 방을 들어가드란게유. 아, 알구 보니께, 즈이 아주머니(형수) 될 사람이여. 그 총각하고 각시하고 얘기하는디, 그 아무 날 혼인인데, 그 남자가 장가 오면은, 죽일 연구를 헌다는 얘기요.

"병풍 뒤에 숨어 있을 테니, 장가들어 올 때 내가 처치하겠다."

이래 가지구서, 한참 약속이 되는 것을 지가 봤어.

돌아와서, 인저 장가 가는 날, 즈이 성 장가 가는 날, 인저 간다고 하니께, 부모네들이 못가게 한다 이거여.

"절대로 못간다."

그러니께,

"나는 가겠시다. 죽어도."

그런 얘길 안 했지. 즈이 성 보구.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지. 막 간다고 하니께 데리구 간 거야. 장가를, 장가를 갔는데, 첫날 밤에도, 한 방을 안 주는데, 부득이 그 방에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여, 신방에가. 그러니께,

"곡절이 다르다. 이상하다."

해 가지구 신방에 같이 있어.

인저, 그 신방에서 쪽도리 벳기구 났는데, 그때서, 중간에 내가 빠쳤네.

이 사람이 가 가지구서, 동상짜리가 가서, 그 동네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마췄어, 칼을. 칼을 마춰 가지구서, 그 칼을 호주머니다 넣어 가지구 가서, 인저, 그 계획적으로 했지요.

그러니께 인저, 가서, 신방에 가서 같이 있는데, 주욱 얘기를 허여. 그 자리에서.

"내가 연을 ....."

그 미담을 지가 얘기 하는 겨. 연을 띄워서 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여자가 갖다 둬서 그 놈을 가지고 올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병풍 뒤를 칼로 팍 찔렀어. 찔르니께 그때서 "아이쿠" 소리가 나드란 얘기여.

"이것 보시오. 이것이 내가 왔던 현실이다."

하는 얘길 했어요. 그래가지구서 자기의 형을 구출해 냈다는 전설의 얘기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5 : 25~29
구 연 자 : 명 창동(남, 54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241
채록 장소 :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와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아이들에게 연을 만들어 주면서, "예전에 이런일도 있었단다. 이것이 다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였다 함.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7. 묵 빼앗아 먹고 할머니까지 잡아 먹은 호랑이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할머니가 산너머 딸네집에 가서 베를 매 주고는, 묵을 한 바탱이 해서 이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산 모퉁이에 이르자, 호랑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 이고 가는 게 뭐요?"

"딸네집에 가서 베 매주고, 묵 쒀 갖구 간다."

"그 묵 한 덩이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서, 할머니는 묵 한 덩이를 베어서 주었다. 잠시 후, 또 한 모퉁이를 돌아 가느라니까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묵을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묵을 다 빼앗아 먹은 호랑이는 같은 방법으로 할머니의 팔과 다리까지 메어 먹었다. 그리고는, 메굴메굴 굴러서 가는 할머니의 몸둥이까지 먹어 버렸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딸네집에 베를 매 주러가셔서, 인자 베를 매 주고는, 묵을 한 바탱이 해서 이고, 인자, 밤에 자기네 집에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 할머니, 너 이고 가는 게 뭐여?"

그래서,

"딸네집에 가서 베 매주고, 묵 쒀 갖구 간다."

"그 묵 한 덩이 안 메어 주면 너 잡아 먹을 테여."

그래서 묵을 한 덩이 메어 주고, 또 한 모랭이 돌아가니께,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할매, 너 이고 가는 게 뭐여?"

그래서, 또 묵 쒀 갖고 간다니께,

"그 묵 한멩이 안 메어 주면 너 잡아 먹을 테여."

그래서, 묵 한 멩이 떠어 주고, 또 한 모랭이 돌아가니께 또,

"할매, 너 이고 가는 게 뭐여?"

그래서,

"딸네 가서 베 매주고 묵 쒀 갖고 간다."

니께, 또 한 멩이 안 떠어 주면 죽인다고 해서 다 줘 버리고 인자 맨 팔로 가는데, 한 모랭이 지나가니께,

"할머니, 너 팔 한짝 안 떠어 주면 잡아 먹을 티여."

그래서 팔 한짝을 메어 주구, 또 한 모랭이는 돌아가니께,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서,

"할머니, 너 팔 한짝 마저 안 메어 주면 잡아 먹을 티여."

그래서, 그 또 팔 한짝을 마자 메어 주고 가는데, 또 한 모랭이를 돌아가니께,

"할머니, 네 다리 한짝 메어 줘. 그란으면 잡아 먹을 티여."

그래서, 또 다리 한짝을 떠여 주고 나니까, 또 한 모랭이 돌아가니까, 그 호랑이가 나타나서,

"할머니, 너 다리 한짝 마저 안 메어 주면 잡아 먹을티여."

그래서, 그 다리를 다 메어 주고는 메굴메굴 몸뗑이만 굴러가니께, 호랑이가 잡아서 달랑 줏어 먹었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8 : 24—28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상북도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같은 마을의 이 창순씨 댁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이씨는 '삼진산의 쌀바위' 이야기를 하고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채록자가 어디에 사는 누구인가를 물으니, 손전등을 들고 앞서서 안내하였다. 동행한 김 창진 선생과 함께 정씨의 안방으로 찾아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고는 호랑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청 중 : 안내해 준 이 창순씨, 동행한 김 창진 선생, 제보자의 어린 손자.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구연자는 경북 영천에서 살다가 만주로 가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30여년 전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다. 이 이야기는 고향인 영천에서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구연 경력 : 어렸을 때 가끔 하였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8. 사람에게 잡아먹힐 뻔한 여인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젊은 부인이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불빛을 보고 한 집을 찾아갔다. 그 집에서는 한 젊은이가 나와 그 여자를 반가이 맞이해서, 조그마한 방으로 안내하고, 거기서 자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잠이 잘 오지 않아 누워 있느라니까, 밖에서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밤중에 이 여자를 잡아서 삶아서 고기를 갖다가 팔자고 하는 말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하여 맨손으로 벽을 뚫어 구멍을 내고는, 도망을 하여 목숨을 건졌다.

옛날에 인자, 워떤 젊은 부인이 어디서 도망을 가는데, 인자 가다, 가다 질(길)이 저물어서, 인자, 산골로 산골로 들어가다가 어치게 보니까는 불이 환하게, 호롱불이 뵈어서는 인자, 그 집으로 사람 살려 달라고 찾아들어갔었대요.

들어가서 주인양반을 찾으니까는 젊은이가 나와서,

"아, 어서(어디서) 이런 이가 밤중에, 어서 이렇게 오냐?"

구 그래서,

"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잊어 버리고 못 찾아서, 하루 저녁만 좀 유해 가자."

고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아 그러시라구, 들어가시라구, 어이 잘 됐다구.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서 들어갔는데, 쪼그마한 오두막 방을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인자, 밤을 자라구 해서 자는데, 영 잠이 안 들어서 가만히 있는데, 칼을 '쓱쓱' 밤중에 칼을 갈으며, 두런두런해 가며, 잘 됐다구, 어쩌구 막 그래가며 그러더니, 아 인자 쪼금 있다가, 한 밤중이 지나면 저 여자를 잡는다구, 잡어 가지고 인자 말허자면 가마에다 넣어 가지고 괴기를 팔러 간다구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는 영 잠이 안 와서 세상천지를 다 들여다 봐야 뭐, 아무 연장도 없고, 뭐 아무 것도 없어서, 그냥 손톱

으로 그 수수땡이를 막 뜯었디야. 수수땡이, 저릅댕이 어이 엮은 것을 다 뜯어서 손으로 파고, 파고 해서 갱신히(간신히) 기어나왔대요.

기어나와서는, 그 담 밖에 와서 엎어져서, 날만 번하면 도망을 갈라고, 이렇게 엎어져서 가만히 숨어 있으니께는, 그이들이 인자 밤중 지나니께는,

"아이고 인자 잘 되었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찾더니,

"이거 큰 일 났다. 도망 가고 없다. 이놈의 여자가 도망을 가고 없으니, 어디루 갔냐?"

그러구서, 두런두런 찾아쌌더래요.

그 여자는 가만히 울타리 밑에가 엎어져서 숨었다가는 날이 조금 번할 때 도망해서, 기어나와서 살었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8 : 30~33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 소금 기둥이 된 며느리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중이 어떤 집에 가서 시주를 하라고 하니까 그집 주인 노인이 중에게 쇠똥을 한 삽 떠서 시주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것을 본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쌀을 떠 가지고 나와서 중에게 주면서 시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중은 고맙다고 하면서,

"내일 아침 해가 돋거들랑 이 집을 떠나라. 그런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이 집은 천벌로 망한다."

고 하였다.

그 다음날, 며느리는 남편과 시부모께 그 말을 하면서 함께 떠나자고 했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혼자 길을 떠난 며느리는 산고개를 넘기 직전에 남편과 시부모와 살림을 생각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때, 벼락이 떨어져 그 며느리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집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되었다.

옛날에, 저, 중이 어떤 집에 시주를 갔는데, 시주를 가서 인제, 대문간에 가서 시주를 달라고 하니께, 할아버지가 막 호통을 하고, 시주가 뭐냐고 그래가면서, 소똥을 한 삽가리 떠서 부셔 줬디야. 시주 그릇에다가.

"이거나 받아 가지고 가라. 이것도 우리 거름 해얄 텐디 아깝다."

고 그래가며, 소똥을 한 삽가리 떠서 줬디야. 그런께, 그 며느리가 속에서는 얼마나 애처

럽고, 안타깝드랴. 옛날에는 나서지도 못하지 않아.

그래서, 인자, 가만히 숨어서 보니께, 그이가 그놈을 받아 가지구 참, 기가막혀서 난처해 하구 돌아서드란 기여. 그 중이 돌아서구, 시아버지는 들어가구. 그 중이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살짝 나와섰디야. 나와서서 불러서는, 그놈을 다 털어서 쏟아서 씨쳐 버리구, 자기가 몰래, 시아버지 몰래 쌀을 떠다 시주를 했디야. 시주를 그렇게 하고는, 시주를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는,

"과연 너는 기특하다. 과연 너는 기특하니, 너만은 살려주마. 인제, 꼭 내 시키는 대로만 들으라. 내일 아침에 말허자면, 해돋거들랑 어떤 쪽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절대 뒤돌아 보지 말고, 살림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없이 가라. 이 집은 천벌로다가, 벼락으로 쌔린다."

그렇게 일러 줬는디, 참, 그 여자가 종일 고민을 하는 기라.

"그래야 하나? 내가 떠나야만 하나? 중의 말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는 참, 맘이 워치게 쏠려서는, 그래서, 밥을 해서 먹고, 치우고서는 인자, 손을 닦고는 대문간을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디야.

"떠나야 하나? 이 살림을, 어른을 두고 내가 떠나야 하나?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러다가, "에이" 그러고는 떠나서 가는 기라.

그이가 떠나서 갈 때, 그 뒤를 돌아보질 말아야 하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데리꾸 갈라니께, 가나? 안가잖아. 미친 년이라구 하지.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듣고, 자기 혼자만 얼마만큼 가다가 그냥, 맘이 애절해서, 그 부모를 두고 애절해. 그냥 가 버렸으면 그 여자가 살았을 텐디, 그냥 애절하고 애절해서, 가다가도 뒤돌아 봐 버린 거라. 뒤돌아 봐 버려서, 그냥 벼락으로 쌔려 버려서, 그냥 우뚝하니 소금기둥이 되어 버린 기라. 그 여자가 오도 가도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 전설이 되어 버린 기라.

〔조사자 : 그 집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집은 뭐 불바다가 되고 없지요. 벼락으로 때렸으니까 불바다가 되고 없지요. 이 여자도 뒤를 안 돌아다 보고 갔으면, 저는 살았을 텐디, 여자 마음이 그렇게 된대요. 남편을 두고, 살림살이며, 뭐, 부모를 두고 가는디. '이절도 못 믿고, 저 절도 못 믿는다.'는 말이 여기서 난 거라.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8시 45분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제보자가 이야기를 많이 알고는 있으나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조사자가 '시주 받으러 온 중을 박대하였다가 벌 받은 이야기'를 알면 해 달라고 하여 시작한 것임.

10.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효자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한 효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병이 나서 앓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죽순을 잡숫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효자는 한 겨울의 눈속에서 죽순을 구할 수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쉬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그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느냐?"

"예, 저는 병중의 어머니가 잡수시고 싶다고 하시는 죽순을 구하지 못해 걱정 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여라. 쌀을 씻은 뜨물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어머니 잡숫고 싶다고 하시는 죽순을 주시오.' 하면서 울타리 밑에 부어라. 그러면 죽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효자가 그대로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죽순이 솟아 올랐다. 효자는 어머니께 그 죽순을 드렸다. 죽순을 잡수신 어머니의 병은 씻은듯이 나았다.

옛날에 인저, 그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가 사는데, 그 엄마가 병이 나서, 참, 옛날에 약도 못 쓰고 돈도 없잖아. 그러니, 이애가 볕스럽게 해도 되질 않고 그런디, 한번은 엄마가요,

"아이고, 나는 요새 죽순을 먹었으면 제일 좋겠다. 내가 죽순을 먹었으면 살겠는데. 그걸 좀 먹었으면."

그런디, 눈은 하얗게 쌓이고, 동지 섣날에 어디 가서 그걸 구한디야. 어디가 그걸 구하여.

그래서는 애가 몇 날을 고민하더니, 그걸 구하고, 참 나무를 가두 그걸 구하구, 그런다구. 맨날 나무하러 다니며 울고, 까치들 보구도,

"우리 어마니 그 죽순을 잡숴야 되는디, 그걸 못 구해서 걱정이다."

막 이래싸코,

그러니께, 하루는 인저 나무를 간 거라. 그 총각이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조금 해 놓고서는, 바위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걸 시름하고 있는 거라. 시름하고 있으니께, 그 참,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났디야.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저 도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구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산 속에서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죽순을 잡숫고 싶다고 하는데, 못 구해서 그럽니다."

그런께,

"아, 그러면 나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가 그걸 구할 수 있

다."

"그럼, 워치게 하면 되나요?"

"쌀을 씻어서 쌀뜨물을 받아서, 이렇게〔두손을 방바닥 위로 움직이며〕 울타리 가시다가 (가에다가) 아래로 이렇게 실— 붓고, 위로 실— 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 잡숫고 싶다고 하는 죽순을 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을 하며, 뜨물을 받아서는 이렇게 이렇게〔손짓을 하며〕 찌끄리면 거기서 죽순이 솟아날 테니, 그 걸 느이 어머니 먹으면 그 병을 구한다."

고 하더랴. 그 할아버지가. 산신이 다 그렇게 했겠지.

그래 참,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나무를 해서 지구 가서, 쌀이 없어 싸래기 조금 있는 눔을 타서 뜨물을 받아 갖구, 그 울타리 밑에다 그렇게 했더야. 그렇게 하니까는 난데없이 죽순이 이렇게〔손짓을 하며〕 올가닥치더랴. 그래서, 그눔을 따서 그 어머니를 해드려서 그 어머니가 살아서 구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36. 12. 22. 밤 8시 50분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조사자가 '겨울에 잉어나 딸기를 구하여 부모님께 드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여 구연한 것임.

11. 정성껏 빌어 아버지 병을 고친 효녀

T 고북면 장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한 처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서 별 약을 다 썼으나 효과과 없었다. 그 처녀는 매일 산에 물을 떠나 놓고는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중이 와서 시주를 하라고 하였다. 처녀는 방아품을 팔아 얻은 싸래기를 시주하였다. 그 이튿날, 중은 다시 와서 처녀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거든 싸래기를 울타리 밑에 흩어 뿌리고, 그 위를 짚으로 덮어주어라. 그

리고는,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라. 그러면,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올 테니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달여 드려라."

처녀가 그대로 한 지 일주일 후에 거기에서 이상한 연꽃 모양의 꽃이 솟아 올랐다. 처녀가 그 꽃을 따다가 아버지께 달여 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완쾌 되었다.

옛날에 둘이가 살았는데, 인자, 그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별 약을 다 해 드려도 안 낫네. 전 약을 다 해 드려도 아버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인자, 이 처녀가 항상 산에 물을 져다 놓고, 맨날 지성을 드리는 거라. 단지 갖고 가서, 뒷산에다 물을 떠다 놓고는 맨날 지성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하루는 중이 왔어. 하루는 중이 와 가꾸는,

"이 집에 시주 좀 하라구."

그러니께, 이 처녀가 항상 방아품만 팔아 사는 거라. 그 처녀가 방아품만 팔아서 싸래기만 먹는 거라. 방아 찧어 주면 싸래기만 주는 거라. 그래서, 품삯 싸래기를 받아서 먹으니까는, 그 처녀가 인저, 약을 다리는 거라. 숯불에다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리고 있는데, 그 중이 와서 시주 좀 하라구 해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농사두 없구, 못살고, 아버지하고 둘이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별짓을 다해도 못 고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약을 다린다구. 그런디, 우리는 쌀을 드릴 게 없다."

구 그러니께, 아버지 아프다니께 시주를 얼마, 쌀을 얼마 바치라구 그랴. 가서 인저, 낫게 해 준다구. 그래서,

"쌀은 없구, 지가 방아품 팔아서 싸래기 받아 놓은 것 조금 있는데, 이것밖에 시주 바칠 게 없다."

고 그러니께는,

"과연 정성이 그러면은 싸래기를 바치라구. 싸래기라도 바치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을 드려 주마."

그래서, 그 처녀가 방아 찧은 싸래기를 바친 거라. 그 싸래기를, 시주를 바치고는, 그 절의 중이 인저, 갔어.

그 이튿날 또 왔어, 그 중이. 또 와서는,

"싸래기를 바쳐서 시주를 하였는데, 나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버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워치게 해서 우리 아버지를 구할 수가 있읍니까?"

"싸래기를 울타리 밑에 갖다가, 싸래기를 허치라고. 싸래기를 울타리 밑에다 허치고는 거기다 짚을 갖다가 싸악 덮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라."

지금 생각허면, 다마네기(양파) 모 붓듯이 하라는 게지. 옛날에는 그, 다 솔가지 울타리를 하고 살았으니께, 그렇게 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라는 거여.

"정성껏 거기다 주면, 거기서 이상한 것이 나타날 것인께, 그눔을 나타나거들랑, 그눔을 아버지께 대려 드리면 된다. 아버지를 그것 밖에는 구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는 구할 수가 없다. 그 약 아니면."

그래 참, 머리 감아 빗고는, 그 새악씨가 방아품 팔은 싸래기를 받아 갖고는, 울타리 밑에다 솔솔 흐쳐 놓고는, 짚을 싸악 깔아 놓고는, 맨날 산에다 물을 이어다 날라 갖고는, 거기다 물을 아침 저녁 주는 거라. 아침 저녁 주어서, 한 일주일 되니께는, 거기서 참 이상한 연꽃이 솟아나는 거라. 연꽃이 솟아나와서, 그 연꽃을 따다가 그것을 아버지께 해 드렸는데, 아버지가 허물을 홀랑 벗었어. 허물을 홀랑 벗고는 새사람이 되는 거라. 새빛이 나고, 새사람이 되어서, 그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 처녀는 데릴사위 해서, 신랑을 데릴사위 해서 아버지하고 잘 살았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8시 55분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앞의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효자'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12. 우렁이 색씨를 찾다가 죽은 총각

T 고북면 장요리 ①—B 면

***줄거리**

옛날에 한 총각이 우렁이 하나를 주어다가 두멍에 넣어 두고는 물을 갈아주면서 길렀다. 하루는 총각이 밖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부엌에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총각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밥을 먹었다. 그 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다.

총각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숨어서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두멍 속의 우렁이가 색씨로 변하여 나와서 밥상을 차려 놓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총각은 색씨의 손을 잡고 함께 살자고 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얼마 동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총각은 우렁이 색씨가 허물을 벗고 함께 살게 되기를 기다리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이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우렁이는 간 곳이 없었다. 총각은 우렁이를 찾아 다니다가 죽고 말았다.

총각이 옛날에 장가 못 가고, 혼자 살았는데, 우렁이를 하나 줏어다가 두멍에다가 키웠다구 그러데. 키웠는디, 그냥 물 속에다 키우고, 물 갈고, 물 속을 들여다 보고 그랬는디,

아 총각이 하루는 일 갔다 오니께는, 밥을 잘 차려서 상에다 차려서 보자기를 탁 덮어놨다고 그러지 않아.

"그 이상하다. 워치게 돼서 이러나?"

하고는, 그 밥을 먹었다고 그러데.

먹고 인저, 살았는데, 또 이튿날 가서 일하고 오면은 부엌에 고대루 해서, 상으로 받쳐서, 보자기로 탁 덮어 놓고, 사람은 없디야. 그래서, 먹구, 먹구, 며칠을 그래서는,

"내일은 내가 뒤를 밝혀 보아야겠다. 무엇이 이러는가 좀 봐야겄다."

그러구서는, 일을 간다고 하구서는, 가만히 엿봤다구 하잖아. 엿보니께는, 그 두멍에서 우렁이가 처녀가 돼서, 깨끗한 처녀가 돼서, 밥을 지어서, 얼른얼른 해서, 상에다 차려서 따악 덮어 놓고, 도루 두멍에 우렁이 되어서 들어가 버리더라구.

"아, 이눔의 우렁이 처녀가 되어서 그렇구나."

그러고는, 하루는,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래서는 인자, 또 그 이튿날 고 시간에 가만히 숨어서 보니께, 그 처녀가 우렁에서 나와 가지고는, 그 속에서 처녀가 되어 가지구, 막 밥을 부리나케 해서, 반찬을 해서 고대루 상에다 따악 차려 놓고, 나오는 그놈을 달싹 붙잡았디야. 그래서는, 붙잡아서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연이니께 나하고 살자."

고 그러니께는,

"나는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이 우렁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내가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구. 그러니께, 나를 맞이하자면 몇 해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줘야 내가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어서 산다."

고 그래서, 인저, 그 총각이 그 여자 인저, 허물 벗기를 그냥 기둘링께, 아, 하루는 일을 갔다 오니까, 그 우렁이 없어져 버린기라. 우렁이 없어져서 그 총각이 상심하고, 그 우렁을 찾으러 몇 날 몇 일을 댕이다, 댕이다 죽었다 그러데.

그 우렁이는 몇 해를 더 두어서 허물을 벗어야 사람이 된다는 거여. 미리 붙잡았기 때문에, 안 붙잡았으면 될 텐데, 미리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이 못 된거라. 시간이 못 되어서.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9시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우렁이 색씨 이야기'를 알면 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을 받고 구연한 것임.

13. 선녀와 나뭇꾼

T 고북면 장요리 ②—A 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나뭇군이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달려와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였다. 총각은 노루를 숨겨 주었는데, 포수가 와서 노루가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그는 저쪽으로 갔다고 하였다.

노루는 나뭇군에게 감사하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예쁜 색씨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노루는 그에게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곳을 일러 주면서, 선녀의 옷 한벌을 감추면 그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뭇군은 그 노루의 말대로 하여 선녀와 결혼을 하였다. 나뭇군과 함께 살며 아이를 셋이나 낳은 선녀는 나뭇군에게 이제는 선녀의 옷을 주어도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나뭇군은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지.' 하고는 옷을 주었다. 그러자, 선녀는 그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옛날에 저 참, 워떤 나뭇군이, 청년이 나무를 허러 가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막 '헐떡헐떡' 뛰어와서는, 나좀 살려 달라구, 숨겨달라구 그래서나,

"저 덤풀 밑에 가 숨어 있어라."

구, 그러구 있으니께는, 포수가요,

"이리 노루 한 마리 뛰어오는 거 못 봤냐?"

구 그래서,

"못 봤다."

구 그러니께,

"아 이리 방금 뛰어왔는디."

그러니께, 못 봤다구 했다던가, 저리 갔다구 했다던가. 어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 노루를 구해 주구, 인저 포수는 갔는디, 그 노루가요 총각 보고, 참 고맙다구. 살려줘서 고맙다구. 그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줄 텐게, 소원이 뭐냐구.

"나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그만두구, 이쁜 색씨한테 장가나 가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당신 소원이 그러면, 꼭 나 시키는대로만 허라구. 그러면, 당신 이쁜 새악시한테 장가 갈 텐께."

"아, 그러면 그레라."

"아무 날, 아무 시에 아무디를 오면은, 거기서 선녀들이 모욕을 하러 올 텐께, 선녀가 다 모욕을 하러 올 텐께, 거기서, 그 중에서 선녀 옷을 한 가지를 훔쳐서, 당신이 감추면 그 여자는 못 올라갈 테니께, 당신 아내가 될 테니께, 나 시키는 대로만 하라."

구 그래서, 참 어느 날 어느 시에, 고시에 인자 참, 와서는 나무를 하고 보니께는, 하 막 무지개가 좌악 벋치더니,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께, 일곱 선녀가 막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드란 거야.

내려와서 옷을 막 벗어서 바위에다 놓고, 인저 목욕을 하드란 거여. 살살 가서, 그 중에 옷을 하나 훔쳐서 감춰 갖고 있는데, 목욕을 다하고 나와서는 다 자기 옷을 찾아서 입는데, 아 아가씨 하나는 자기 옷을 못 찾아서, 못 입는거라. 그 옷을 못 입으면 못 올라 가니께. 하늘에. 그래서, 다 입구 시간이 딱 되니께, 다른 처녀들은 무지개가 좌악 내려오니께 그 무지개를 타고 싹 올라가 버리고, 그 처녀는 발가벗어서 못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인자, 이 나뭇군이 그 옷을 갖고 가서는,

"웬 처녀가 이렇게 산중에 있는가?"

그러니께,

"아, 나는 이러구 저러구 해서 하늘에 못 올라가서 그렇다."

구 그러니께,

"그러면 당신 옷을 내가 줄 테니께, 당신은 올라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서 백년해로 잘 지내고 살자."

"그럼, 내 옷을 다 주면 살겠다."

그래, 인저 그 새악시를 데리고 집을 왔네. 집에 와서 하냥(함께) 사는데, 살아도 이 여자는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믿지 못해서, 그 옷을 달라고 해도, 그 옷을 안 줬다는가 봐. 그 남편이 옷을 안 줬다는 것 같데. 그래서, 안 주고 그랬으니께. 그냥 지내면서 아이를 하날 낳고, 둘을 낳고 해서,

"이렇게 내가 애기를 둘 싯을 낳아도 날 못 믿는가요? 나는 맨날 당신하구 산다구요. 아주 믿으라구. 이제 옷을 달라구요."

남편은 애기를 하나 낳구, 둘 낳구, 싯을 낳았으니께는,

"아이구, 인제는 믿어도 되겠지. 애기를 싯이나 낳았으니께는 인제는 어디를 안 가겠지."

그러구 인저, 믿고는, 하도 졸라서 그 옷을 줬다데.

그 옷을 주었는디, 하루는 어디를 갖다 오니께는 없어졌다는가 워쩨서, 그 여자가 애기를 좌우간 싯을 낳고도 그 옷을 줘서 하늘도 올라가 버렸다는 가봐.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8시 30분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나뭇군과 선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사자가 부탁하여 구술한 것임.

14. 여우에게 홀려 죽을 뻔한 남자

T 고북면 장요리 ②—A 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남자가 밤에 고개를 넘느라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앞서 가고 있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뒤를 따라갔다. 그 여자의 걸음은 아주 빨라서 따라 잡기 힘들 정도였다.

그 남자는 여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물었다.

"이 밤중에 젊은 여자가 어디를 그렇게 혼자 가시오?"

"예, 저는 남편이 술을 받아오라고 해서 주막집에 갑니다."

하고는 또 앞서서 가는 것이었다. 뒤를 따라가던 남자는 여자가 주막도 없는 산길을, 주전자 하나 들지 않고 가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의심이 생겨 여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러자, 여자는 꼬리가 긴 백여우로 변신하였다. 여우는 그 남자를 넘어뜨리고, 가슴을 타고 앉았다.

그 남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불을 켰다. 그것을 여우의 몸쪽으로 던지니 여우는 놀라 도망을 하였다. 어둠 속에서 주막집처럼 보이던 것은 상여집이었는데, 여우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옛날에 어떤 남자가 걸어서, 밤길로 오르막 고개를 가는디, 어떤 여자가, 참 이쁜 여자가 보퉁이를 딱 차고, 참 새각씨같이 길 옆으로 싸악 지나가드랴. 그래서는 인저, 그이가 한참 가다가는, 남자가 욕심이 생겨서 되돌아선거라.

'저놈의 여자 아무래도 밤에, 저가 난질가는 여자지. 혼자, 저렇게 이쁜 여자가 밤길 안 걷겠다.'

이 맘이 들어서, 한참 가다가 뒤돌아서서, 자꾸 쫓아가는 거라. 자꾸 쫓아가면 이 여자는 자꾸자꾸 더 빨리 가네. 아무래도 남자가 더 뛸 거 아니여. 암만 뛰어도 달랑말랑, 달랑말랑해도 못 쫓아가는 거라. 그래서는 막 뛰어가서 앞을 가로막으면서,

"아, 이 밤중에 젊은 여자가 혼자 어디 가느냐?"

구 그러니께는,

"아, 나 저 고개넘어 시방 주막집에, 우리 남편이 술받아 오라고 해서 술받으러 간다."

구 말을 하더랴. 그래서는,

"아 술받으러 가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느냐?"

니께,

"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술받으러 가라구 해서 술받으러 간다."

구. 그럼 같이 나하구 동행하자구 하구서 가는데, 욕심이 생긴거라, 남자가.

욕심이 있어, 자꾸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께, 거기에는 주막이 없는데, 술받으러 간다구 하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아무래도 이 여자가 도망가는 여자인가 보다.' 하고 자꾸 쫓

아간 거라. 욕심으로 쫓아가서 붙잡을려고 하면, 싹 도망가구, 그래서는, '에이, 이놈의 여자 오늘 붙잡아야지. 아무래도 도망가는 여자다.' 하고 무진장 쫓아갔다는 거여. 쫓아가서, 그 여잘 붙들고,

"우리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남편이 기둘려서 혼납니다. 쫓겨나니께, 빨리 가야합니다. 당신도 어서 날 따라오시오."

그래서, 무진장 따라가다가, 가만히 남자가 생각하니께, '이게 사람이 아니지, 거기에는 주막도 없는데, 무슨 젊은 각씨가 술을 받으러 가나?' 이런 의심이 생겨서 '에이, 이놈의 여자 한번 붙잡아서 넘어뜨려 볼 것이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확 붙잡았다는 거여. 확 붙잡어서 넘어뜨리니께는 하얀 백여시가 되더라는 거여. 백여우가 되어서 꼬리가 하얀, 쭉뻗은 여우가 되더라는 거여. 여우가 되어서 남자를 갈루 넘어뜨리드란 거여. 그 남자가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가만 누워서 보니께는, 그 여우가 가슴에 올라타는 거라.

'아이구, 이제 내가 여자로 알았더니, 불여우구나. 내가 오늘 저녁에 죽겄다. 저 여자 죽인다고 하다가 내가 죽겄다.'

그래도 그이가 이견이 좋았던 모양이여. '내가 힘으로는 못 이기니께.' 하구, 호주머니에서 담배 필라고 넣어 가꾸 있던 성냥통을 꺼내서, 그놈을 워치게 확 그었다는 거여, 불을. 그, 털짐승은 불을 미서워하니까, 그, 불을 확 그어서 집어던지니까는 백여시가 도망을 가더라는 거여.

이 남자가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는 그 여우 가는 디가 주막이 아니라 상여집이더래야. 그 상여집으로 막 들어가더라구. 그러자, 그 고개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2. 밤 8시 33분경
구 연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만나게 된 경위, 채록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얘기는 여우 이야기를 해 달라는 채록자의 부탁을 받고 구술한 것임.

1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T 음암면 유계리 ③—B 면

* 줄거리

옛날에 산속 외딴 집에 어머니와 아들, 딸 남매가 살고 있었다. 살림이 간구하여 어머니는 날마다 아

랫마을로 품을 팔러 다녔다. 남매는 어머니의 말대로 문을 꼭 잠그고, 방안에서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곤 하였다.

그날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문 단속 잘하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고는 아랫마을로 갔다. 남매는 날이 어두워도 어머니가 오시지 아니하므로 무섭기도 하고, 배가 고파 울고 있었다. 그 때 마침 그집 앞을 지나가던 호랑이가 남매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아먹을 요량으로 문앞에 가서 엄마가 왔으니 문을 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엄마가 시킨대로 엄마인가문틈으로 손을 디밀어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엄마손이 아니라고 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호랑이는 여러 차례 문을 열라고 하여도 열지 않으므로,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잡아 먹기로 하고, 산으로 갔다. 남매는 그 순간을 이용하여 집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호랑이가 쫓아오자 다급해진 아이들은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삼태기가 달린 줄이 내려왔으므로, 남매는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간 남매는 하느님께 그 이야야기를 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느님은 썩은 동아줄과 삼태기를 내려보내어 호랑이가 떨어져 죽게 하였다. 그 호랑이의 피가 수수땡이에 묻어 수수땡이 속이 지금도 빨갛다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 남매 중 누이동생은 밤이 무섭다 하여 해가 되고, 오빠는 밤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므로 해가 되었다.

옛날에 외딴 산골 속에서, 참, 아들 딸 남매와 아버지는 없고, 그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에, 참 아주, 옛날말로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해 가지구 말여, 먹구 살 수 없으니께, 오머니가 품을 팔아다 아들 딸을 벡여 살리는 거여. 그 어린 것들을 떼어 놓고 다니는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떠했겠읍니까. 놔 두고 다니는데, 문을 잠그고 다니는 거여.

"별 사람이 다 찾어두 문두 열어 보지두 말고, 오줌 똥이 매려두 방에서 누지, 나가질랑 말아라. 나가면 호랭이가 물어간다. 그러니께, 암제구 엄마가 와서 밥해 줄 때까지 있거라."

그래 가꾸서, 문을 참 꼭꼭 걸어 잠그구 그러구서 갔는데, 아, 애들이 그날은 암만 기달려도 엄마가 안 와. 다른 때는 꼭 저녁 때면, 해 떨어지면 오너서 밥을 해 주고 그러는데, 오지를 않더라 이거여.

그래 인저, 배는 고파 죽겄는디, 밖에서 인 자취가 나고 그러드니,

"애들아, 엄마가 왔으니께 문을 열어도 괜찮다. 문 열어라."

그런디, 인저, 자기 오머니가 일르고 갈 적에, 별 사람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문을 열어 주지 말고, 완전히 엄마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손을 내민다면, 엄마는 베를 매어서 풀 묻은 손이라 손이 껄껄하니까 문을 열어 주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아니니께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말라고 부탁을 단단히 하고 갔다 이거여. 그래서, 인저, 해가 져서 두 놈들이 인저, 울고 있는데, 아 호랭이란 놈이 지나다 보니께 외딴 산간집에서 인기척이 나고 그러니께, 그 애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말여, 잡아 먹을라고 슬슬 갔다 이거여. 가서 보니께, 참, 문을 잠궜으니께, 호랑이란 놈이,

"야, 느이 엄마가 왔으니 문 열어라."

그랬어. 그런께, 애들이, 즈이 엄마가 단속한 얘기는 있구 그러니께, 덥썩 문을 연 게 아니

라,

"우리 엄마인가 보게 이 문틈으로 손을 디밀어 봐."

그랬어. 그러니께, 호랑이란 놈이 손을, 참 앞발을, 손을 이렇게 문틈으로 디밀었대. 그려니께, 그놈들이 손을 만져 보니께, 캄캄한데 뵈진 않구 말여, 손이 꺼껄하거든. 호랑이가 털이 있고 그런께 껄껄할 수 밖에. 그러니께, 즈이 어머니 손은 풀이 묻어서 껄껄하겠지만 보니께 털이 있는 것 같고, 매끈하다 이거여. 호랑이털이 좀 매끈합니까? 그러니께, 우리 엄마가 아니라구 문을 안 열어 줬어.

문을 안 열어 주니께, 호랑이가 참, 워치게 할 장사가 없단 말여. 이건 꼭 잡어를 먹어야 하겠는디. 잡아먹을 수는 없고 그러니께, 인저, 하다 하다가 꾀를 내어 가지구 설랑으니

"에, 엄마가 느이들 벌어 먹여 살리려구 웟집에 가서 종일 베를 이렇게 맸는데, 풀이 묻었다. 그래서, 껄껄한 손을 아주 비누로 잘 닦고 깨끗이 닦아 이렇게 매끈허니께, 느이들 밥해 주어야겠으니까 문 열어라."

자꾸 그런단 말여. 그래도 이놈들이 문을 영 안 열어 주고 하니께, 틀려 먹었단 말여. 문도 안 열어 주고, 워치게 할 재주가 없어.

그러니께, 호랑이가 인저 저루(저리로), 어디 좀 가서 다시 있다가 올려구 호랑이가 간 사이에, 얘들은 밖으로 나와 가지구서, 뒷동산으로 '오금아 날 살려라'하구, 즈이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께, 도망을 가 가지고 설라무니, 하느님께 기도를 한 겨.

"우리 남매를 구해주십사."

하고 막 빌었어. 빌으니께, 하늘에서 난데없는, 삼태기에다설라무니 줄을 매어 가지고 참 내려왔다 이거여. 조금 말이 잘못 됐네.

내려오기 전에, 얘들이 인저, 도망가 가지구서 산꼭대기에 가서 나무꼭대기를 올라갔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간 걸 호랑이가 알아 가지구서, 쫓아오면서 잡아 먹을라고 하니께, 그때 겁나 가지구 참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구 그러니께, 동아줄에다 해서 그걸 내려 보내서, 그놈을 참, 타구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여.

그 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한테 그런 소리를 허니께, 들었다는 거여, 하느님이. 그 호랑이란 놈이 괘씸하거든. 에 요놈 좀 혼내 볼 거라구. 그래, 호랑이란 놈이 걔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참, 하느님한테 기도를 허니께, 하느님이 썩은 동아줄하고, 썩은 삼태기를 내려 보냈어. 그런디, 그 호랑이가 빌던 옆댕이에는 우리가 여기, 수수땡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땡이 몇 개를 뽑아서 세워 놓은 게 있었더야. 요놈의 자식 벌 좀 받으라구 하느님이라 썩은 동아줄, 썩은 삼태기를 내려 보내서 중간쯤 올라가다가 이놈을 뚝 떨어뜨려 버렸어. 그런께, 호랑이가 뚝 떨어져 죽어서 피가 튀는 바람에 수수땡이에 묻어 가지고, 호랑이 피가 묻어서 오늘날까지 수수땡이가 빨갛답니다.

그래서 인저, 해와 달이 됐는데, 애들이 올라가 가지구서. 인제 물으니까

"나는 남자니께, 밤에두 무섭들 않으니께 상관없다."

고 해서 남자는 달이 되고, 여자는 미서우니께,

"나는 낮이 좋습니다."

"널랑 그러면 해가 되어라."

고 그래서, 해와 달이 그때부텀 생겨서 음양이 생겨 가지구, 해는 여자고, 달은 남자라고, 이런 소리를 저두 옛날 어른들께 들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2시 30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장소 및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 유계리 이장인 강씨를 찾아가 그의 집 사랑에서 조사반원 2명, 동행한 학생 2명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들었음. 이 이야기는 전설의 구연에 뒤이어 민담을 구연해 달라고 부탁하여 시작한 것임.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왜정시대에는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함.

구연 경력 : 전에는 가끔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함.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16. 어머니를 살린 효녀

T 음암면 유계리 ③—B 면

*** 줄거리**

옛날에 딸 하나를 둔 어머니가 병이 들어 다 죽게되었다. 딸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약이 깊은 산속, 바위 틈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약을 구하러 길을 떠났다.

가다 보니, 앞에 큰 내가 있어 건널 수가 없었다.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그 처녀를 등에 태워 건너주었다. 또 얼마를 가니, 가시덤불이 있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였다. 그러자, 한 선비가 나타나서 가시덩굴을 모두 없애 주었다.

처녀는 그 안에 있는 바위에 당도하여 그 틈에 있는 약초를 땄다. 오는 길에도 그 선비와 호랑이가 도와 주어 무사히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다. 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워떤 사람이 딸을 원 하나 뒀시유. 뒀는디, 어머이가 앓아서 죽는다고 하는디, 산에 가서, 어떤 노인이 그러드래요.

"동산에 올라가믄 바위가 주욱 있는디, 그 바위 새가(사이에) 약이 있는디,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 멕이면 아주 영락없이 산다."

구. 무신 약이라고까지 했는디, 다 잊어버렸시요.

그런디, 그 약을 하러 가니께, 영 내깥(川)도 건널 수 없고, 영천 죽겄드래요. 아 그래 앉았으니께, 호랑이가 하나 나오드래요. 나오더니, 이렇게〔엎드리는 시늉을 하며〕 엎드리더래요. 못건느니께, 못건느니께, 엎드려서 등에 타라고 해서,

"여기 타란 말이냐?"

니께, 타라구 해서 타니께, 그 내깥 건너주고 그 호랑이는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인저, 얼마만큼 가니께, 참 무슨 가시덩쿨이 있는데, 갱신히(간신히) 게를(거기를) 들어가서, 그 무슨 바위 싯(셋), 이름두 있었는디, 거기 가서 그걸 딸라구 그러는디, 게를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미서서(무서워서). 그래서,

"하느님, 여기 좀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살리게, 저 약좀 따가꼬 나오게 해 주시오."

하니께, 참, 얌전한 선비 하나가 나오더래요. 나오더니,

"날 따라오라."

그 사람이 이렇게〔손짓을 하며〕하면 가시가 어디로 가구 없구, 또 이럭하면 가시가 이짝으로 없어지고, 이짝으로 없어지고. 그래서, 그 바위에 당도했대요. 따서 갖고 나올라니께 그 사람이 없는디, 나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아유, 하느님 하느님, 여기 들어오게까정 인도했으니 그저, 나가게 좀 접지해 주시오."

하니께, 그 사람이 또 나오더래요. 그 선비가 나오더니, 양짝으로 인저, 데라고 메라고(뭐라고) 하니께, 암것두 없더래요. 훤하게.

그렇게 나와서는 인제, 그 내깥 건너오는데, 물을 건너오는데, 그 사람은 게서 없어지고, 오니께 호랑이가 또 나오더래요. 호랑이가 나오더니,

"여길 건널라고 그러냐?"

구. 껑충 뛰어 건너더니, 자, 또 이렇게 엎드려서 또 타니께, 건너 주구선, 또 호랑이는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인저, 그 놈을 가지구, 참 좋아서 오니께, 즈이 어머니가 기울 기울 하더랴. 그런디, 그걸 삶아서, 뎃 방울을 떨어뜨리라고 했더야. 칠 방울이라 그러데. 일곱 방울, 칠 방울을 떨어뜨리라구. 그걸 그렇게 다려서 떠 넣으니께,

"후, 에 잠도 곱게두 잤다."

구. 그래서, 효녀래요. 그런디, 좀 빠졌어.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3시 20분경
구 연 자 : 김 우순(여,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김상홍씨를 찾아갔으나 부재중이었다. 부인 김재숙씨에게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니, 김씨는 이야기 잘

하는 할머니가 옆에 사신다며 김 우순씨 댁으로 안내하였다. 안마당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던 구연자를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이야기를 들었다. 구연자 김씨는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를 잘 하였으나,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다고 한다.

안내한 김재숙씨와 채록자의 권유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몇 편의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청　　중 : 조사반원 1명, 같은 마을에 사는 김 재숙(여, 60세)씨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전에는 자주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7. 구렁덩덩신선비

T 옴암면 유계리 ③—B 면

*** 줄거리**

옛날에 어떤 집에 딸 삼형제가 살았다. 세 딸은 그 이웃집에서 어린애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각각 그 집으로 가서 아기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큰 딸이 아기를 보자고 하니, 산모는 "저 굴뚝 옆에 삿갓 덮어 놓았으니 가보라."고 했다. 큰 딸이아기를 보니, 그것은 구렁이였다. 둘째 딸이 가서 보니, 그것은 역시 구렁이였다. 세째 딸이 가서 보니, 그것은 구렁덩덩신선비였다.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구유에다 물을 데워 달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물을 데워 주니까 구렁이는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서, 무어라고 주문을 외웠다. 그러더니, 허물을 벗고 어엿한 선비가 되었다.

그 집에서는 딸들에게 구렁덩덩신선비한테 시집을 가겠느냐고 물었다. 큰 딸과 둘째 딸은 싫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째 딸은 좋다고 하였다.

구렁덩덩신선비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 집에 돌아온 신선비는 의관을 갖춰 입고, 조상에게 제사를 올렸다. 숨어서 이 모습을 엿본 두 언니는 동생을 부러워하며, 여러 가지로 동생을 해칠려고 하였다. 신선비는 이것을 미리 알고, 예방을 하면서 세째 딸과 함께 잘 살았다.

옛날에 워떤 사람은 딸만 삼형제 뒀더래유. 딸만 삼형제 뒀는디, 이웃집이가 어린 애를 낳았다구 허더래요. 어린애 낳았다구 그래서 가 보니께,

"할머니 할머니, 애기 낳았다구더니 워쨌시유?"

하니께,

"저 굴뚝 밑에 삿갓 덮어놨다. 가 봐라."

그 중 큰 딸이 왔는디, 장자집 큰 딸이 왔는디, 가 보더니,

"에이 투투투투, 구렝이 하나 낳았구먼. 이이구 드러워라."

인제, 둘째 딸이 오더니,

"애기 낳았다더니 워뒀시유? 애기 좀 봐요."

"저 굴뚝 밑에 삿갓 덮어 놨다. 가 봐라."

그러니께, 삿갓 덮어 놓고 그럭하는디, 막내 딸은 오더니, 〔점잖은 목소리로〕

"할머니 할머니, 애기 낳았다더니 워쨌시유?"

그러니께,

"저 굴뚝 밑에 삿갓 덧어 놨으니께 가 떠들어 봐라."

떠들어 보구,

"아이구 할머니, 구렁덩덩신선비 나셨네. 좋게도 나셨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참, 구렁이가 얼마 있으니까, 있다가,

"구수(구유)에다 물 좀 데부라(데우라)."

구 그러더래요. 그러니, 물을 데부니께, 한참 '텀벙텀벙' 하더니, 구렝이가 무슨, 외우더래요, 게서. 외우는디, 그 소리를 잊어 버려서 그려. 무슨 소리라고 했는디. 그러는디, 아 그렇게 하고 나니께, 어엿한 선비라 나오더래요, 구렁이에서.

아 나오는디, 그러구선, 그 아래집이서, 새악씨 어머니가

"너, 아무디 구렁덩덩신선비한테 시집가라."

"아, 어디로 시집 못 가서 구렝이한테 시집가? 아이 드러워라. 투투투."

큰 딸이 그래. 둘째 딸 보고 그러니께, 또 그러더랴. 막내 딸 보고 그러니께,

"너 이 위 아무디 구렁덩덩신선비한테 시집 갈래?"

"아, 어른들이 말씀하는대로 가지요."

그러더랴.

아 그런디, 인제, 그 구렝이 집이 참 어려워. 어려운데, 어머니 혼자 사는디, 이 큰, 애기 봐 놓고, 아버진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런디, 아, 그, 구렁덩덩신선비가 공부를 얼마나 잘 했던지, 과거를 했어유. 과거를 해 갖구서는, 저희들이, 참 안방에서 인저, 벼슬해 갖구 왔으니께, 워따 지사를 지내더래요. 저희 형들이 동상 사는데 가 보니께, 엿보니께, 신랑이 워치게 얌전한지, 그 때는 욕심이 나고, 제 동생 워치거고(어떻게 하고) 즈이가 가고 싶지. 그러더니, 그 지사를 다 지내구. 갔다 오더니,

"아따, 저 건너 오두막집엔 가보닌께, 구렁이네는 가보니께, 아주 어엿한 선비가 뭐, 이렇게 뿔 뻔친 거 쓰구, 지사 지내구 허더라."

구. 벼슬 해 갖구 왔으니께 관쓰고 모두 했지.

그래서, 그 관쓰고, 그렇게 한 걸 보구서는, 제 성들이 불거서(부러워서), 동상에게 심술필라다 필라다, 구렁이가 참, 아주 요술하다시피, 저 사람이 자기 아내게 심술피울라구 하는 거를 먼저 알았시유. 제 형들이 동생에게 시새나서(시새움이 나서) 심술 필라구하는디, 못 피우게 해 가꾸, 내외 잘 살았드래요. 아들 삼형제 낳고 잘 살았드래요.

채록 일시 : 1986. 12.23. 오후 3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우순(남,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구렁덩덩신선비 이야기'를 해 달라는 채록자의 부탁을 받고 구연한 것임.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18. 콩쥐팥쥐

T 음암면 유계리 ③—B 면

*** 줄거리**

옛날에 콩쥐가 어머니를 잃고 계모를 맞이하였다. 계모는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딸 팥쥐만 귀여워하고, 콩쥐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일만 시켰다.

콩쥐의 어머니는 죽어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계모는 외출을 하면서 콩쥐에게 하루에 삼 아홉 광주리를 삼으라고 하였다. 콩쥐가 울고 있을 때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 이것을 다 삼아 주었다.

계모가 밑빠진 동이에 물을 길어다 부으라고 하여 콩쥐가 울고 있을 때, 또 하늘에서 암소가 내려와 동이의 물이 새지 않게 해주었다.

하루는 계모가 팥쥐를 데리고 잔치집에 가면서, 콩쥐에게 벼 한섬을 방아찧어 놓고 오라고 하였다. 콩쥐가 울고 있을 때, 참새떼가 몰려와서, 벼를 모두 까 주었다. 방아는 다 찧었으나 옷이 없어 울고있을 때, 전에 왔던 꼬부랑 암소가 와서 비단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주었다. 콩쥐는 그 옷을 입고, 비단 당혜를 신고 잔치집에 가다가 신발 한 짝을 잃어 버렸다.

잔치집에 가 있는데, 한 선비가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와서 신발의 임자를 찾으면서, 그 신발 임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콩쥐가 그 신발을 신으니, 꼭 맞았다. 그리하여, 콩쥐는 그 선비와 결혼하였다.

팥쥐는 콩쥐를 시기하여 콩쥐를 유인하여 연못에 빠뜨려 죽였다. 그 후, 콩쥐는 인도환생하여 잘 살았다. 팥쥐 모녀는 벌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딸을 하나 낳아 놓구서 죽었시유, 오메가. 오메가 죽었는디, 마누라를 또 얻었지. 또 얻었는디, 팥쥐를 데리고 들어왔시유. 자기 본실 딸이 콩쥐인디. 저희 딸은 그저 공단 사 입히고, 콩쥐는 그저 옷도 안 해주고, 맨 일만 시키고 이럭하는디, 즈이 어머니가 죽어서 신선됐어. 하늘에 올라갔어.

하루는 계모가 팥쥐 데리고 어디 가면서,

"너는 삼 아홉 광주리 삼고……."

삼을 어떻게 아홉 광주리 삼아. 아홉 켜리도 어려운디. 그래서,

"엉엉……"

콩쥐가 울으유.

"삼을 아홉 광주리 삼으라 그러는디, 언제 아홉 광주리를 삼느냐?"

구 우니께, 하늘에서 꼬부랑 암소가 내려오더래유. 내려오더니,

"삼 꼬뱅이 물에다 담거서 이루 가져오너라."

"꺼이 꺼이, 아이구, 삼꼬뱅이 어쨌다고 나 맞아 죽으라구 그런다."

구 그러니께,

"걱정 말구 가만히 앉아 있으라."

구 그러더니,

"내 뒤에다 광주리를 대어라."

서렁서렁해서 아홉 광주리를 해 놔 주더래요. 그래서, 다 해놓았지. 아, 그럭하고, 어딜갔지.

또, 언제는 밑빠진 동이에다 물을 하나 여다 붇고, 뭣 하라구 허더랴. 이어다 부으면 쏟아지니께 울면서 물 이러 다녀. 그러니께, 참 또 꼬부랑 암소가 내려 오더니, 워치게 해서 물을 여다 부니께 하나도 안 새드래요. 하나도 안 새어.

방아를 찧고 오라구 그랬는디, 잊어 버렸어. 몇 말이라고 했는데. 아홉 말, 아니 한 섬을 찧으라고 했으니, 워치게 찧는대요. 또 인저, 엉엉 울지. 딸은 곱게 입혀 가꾸 가면서, 구경오라구 했는디. 앉아서 우니께, 그저 새메가 '우릉우릉' 하더니, 워서(어디서) 새메가 와서,

"여기다 멍석 갖다 펴라. 멍석 갖다 펴구, 버 쏟아 놓으라."

그래, 쏟아 놓으니까,

"지지군 지지군."

하니께, 말끔 까지니께, 사이가(새가) '후르릉' 날아가니께, 다 까불어지더래유.

그런께 인저, 가얄 텐디, 옷이 있어야지. '엉엉' 울자니께, 꼬부랑 암소가 올라갔다 또 내려오더니,

"너, 왜 그렇게 우니?"

"세상에 구경 오라구 했는디, 방아도 새가 다 찧어서 이렇게 까불러 놔 주고, 다 했는디 입을 게 없어서 못 간다."

구 하니께,

"걱정말아라. 내 뒤에다 손을 대어라."

하더니, 비단 옷만 싸악 한 벌 놔 주더래요. 꽃당혜 하나 하구. 옛날엔 꽃당혜 했지. 고무신도 구경 못했지. 꽃당혜라구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었지. 그거 한 켤레하구 주더래요. 버선한지(버선까지).

인저, 그거를 신구 갔는디, 아 가다가 고만 꽃당혜 하나를 잃어 버렸시유. 한짝을 빠쳤사유. 좋은 양반 만날라구 그렇게 됐지유. 찾다찾다 인제, 그냥 갔어. 혼인집엘, 그냥. 그팔쥐하고 오메하고 간 데를. 가니께,

"아이구, 저년 봐. 콩쥐 저년 비단으로 쏙 빼고 왔다."

팥쥐가 그러더랴. 즈이 오메 보구 그래쌌더랴. 아, 게 가서, 암말두 않구 있으니께, 참 아주 콩쥐 안 이쁘다구 하는 이가 없거든요. 팥쥐는 아주 벌스럽지 않구. 얼걱백이구.

그랬는데, 아, 꽃당혜 하나를 아주 훠언헌 선비라 줏어 갖구 왔시유. 물에서 주서 가지구 오면서,

"이 발이, 이 신발이 맞는 이는 내 아내 된다. 내 아내 될 사람이다."

그러니께, 팥쥐가

"그게 내 신이라구. 내 신이라구."

해쌌는디, 발이 걸리기나 하나. 들어두 안 가지. 콩쥐가 한참 있다가, 저는 한짝 간직하구

"워디, 내가 좀 신어 볼까!"

꼭 맞더래요. 그래, 연분 됐대요.

그래서, 가서 잘 사는데, 이 빌어 먹을 년이, 당체 시샘나서, 팥쥐가 죽겠어. 원젠가 가서 언니라구 앙살을 부리구, 뒤란(뒤곁) 연못에 구경가자구 가서 게다 떠다박질러서 콩쥐를 죽게 했어. 팥쥐라. 그런디〔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어렴풋이 생각나네. 〔옆에 있던 김 재숙씨 : 시작하면 나와유.〕 그러니껜 참 헐수없이, 거기 들어가서 죽었단 말여.

죽었는디, 아, 이 남편이 어디 갔다 오니께, 마누라가 그전엔 그렇게 얌전하던 게, 얼굴이라구 시퍼렇구, 얽구, 당체 참 딱하거든.

"아, 얼굴은 왜 이렇게 푸르냐?"

구 허니께,

"아이구, 뭣 했더니……."

〔옆의 김 재숙씨를 보며〕 뭣해서 물들었다구 했지? 그걸 잊어 버렸네. 인저, 얽은 거 이야길 허니께,

"아이구, 메밀 방석에 가 넘어졌더니 짜쿠져서(자국이 나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게라."

구. 인저, 그렇게 암만 봐도, 남편이 콩쥐같지 않구 서운해 죽겠어. 산다구 들어오긴 들어오나.

워치게 있으니께, 샘이, 연못을 워이 가서 들러 보니께, 꽃이, 한 가운데에가 꽃이, 큰 꽃이, 아주 봉오리가 져서 예쁘더래요, 세상에. 그런디, 그 신랑이 이짝(이쪽)으로 가면 그리 숙으리고, 저짝으로 가면 저루 숙으리고. 그저 인저 꽃을……. 〔김 재숙씨를 보며〕 워치겠지? 〔그 다음을 김 재숙씨가 이어서 구술하였다.〕

김 재숙 : 꺾어다가 방에다 꽂아 놨는데, 팥쥐가 밥을 해 왔는디, 젓가락을 한짝을 짝짝이루 놨더래요. 그랬는디, 인저,

"젓가락은 워째 짝짝이루 놓느냐?"

니께, 꽃 속에서,

"젓가락 짝짝이루 놓은 건 알아두 지집(계집) 바뀐 줄은 모르남?"

꽃에서 그러드래요.

김 우순 : 그봐. 반은 빠뜨렸지.

김 재숙 : 허시유, 인저.

김 우순 : 헤여, 인저.

김 재숙 : 그러니께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꽃을 이렇게〔들여다보는 시늉을 하며〕 여겨 보니까는, 유심히 봤지요. 그런께, 꽃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께, 그런디, 워치게 했다구 허던가? 그럭하구서 말았는디, 워디 갔다 오니께, 또 그렇게 했는디, 무어 잘못했다구 허니께, 또 꽃 속에서 그렇게 얘길 허더래유.

"워째 지집 바뀐 줄은 몰라두 그런 건 아느냐?"

구. 인제, 그렇게 말을 허니께, 이상하게 생각하구 그 꽃을, 참 팥쥐가 땠다구 허는 것 같어.

김 우순 : 맞어. 그 소리 냄편이 하구서, 유심히 보니까, 남편이 어디 간 새(사이에) 후둑후둑 꺾어다 땠디야. 땠는디, 이웃집 할메가 불 끄리러 왔는디, 불을 뒤적뒤적 하니께, 구슬 하나가, 불 끄려 가라구 해서 보니께, 구슬 하나가 있더래요. 이쁜 구슬 하나가 있더랴. 그래서, 그걸 갖다 놨는디……. 워치게 했지?

김 재숙 : 거기 또 잊어 버렸어.

김 우순 : 나도 거기서 잊어 버렸어.

채록자 : 그 구슬에서 콩쥐가 나온 거 아닌가요?

김 우순 : 워치게 했는디, 고걸 까먹어서 워치거지(어떻게 하지)? 고게 좋은 덴디.

김 재숙 : 이잉, 저두 잊어 버렸시유.

김우순 : 이웃집 할메가 불 끄리러 가니께 구슬이 이쁜 게 있어서 갖다 놨는디, 무슨 농 속에다 갖다 놨다구 허더라. 농속에다 갖다 놨는디, 그 신랑이 가면 농 속에서 이야기를 허더래유.

채록자 : 이웃집 할머니를 시켜서 잔치를 열게하고, 신랑을 초청하고, 그런 건 없나요?

김 우순 : 아니여. 워치게 해서 인도환생허구 했는디. 그건 또 까막 잊어 버렸어. 좋은 디를 다 빠쳤으니 무엇혀.

김 재숙 : 인도환생했디야.

채록자 : 인도환생해서 나타나서 자기 신랑한테, 자기 죽은 내력을 이야기 했다는 말은 없나요?

김 우순 : 있이유. 있는디, 지금 까먹었어. 워치게 했는디, 고걸 잊어 먹었어. 참 좋은 도막인디. 응, 그렇게 해서, 인도환생해서 잘 살았대유.

채록자 : 팥쥐는 어떻게 됐나요?

김 우순 : 팥쥐는 모녀가 다 직석으로 쫓겨났지.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김 우순(여,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구 연 자 : 김 재숙(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산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51번지
만나게 된 경위 : 앞 이야기와 같음.
채록상황 : 김 우순씨와 김 재숙씨는 친척 동서간으로 전에는 자주 만나 옛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 우순씨는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옆에 있는 김 재숙씨에게 묻곤 하였다. 그래서, 윗부분은 김 재숙씨가 이어서 하기도 했다. 그러나, 끝 부분은 두 사람 다 망각이 심하여 이야기를 끝맺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못된 계모 이야기'를 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으로 구연한 것이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두 사람 다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구연 경력 : 전에는 가끔 하였다고 한다. 김 우순씨는 이 이야기를 김 재숙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한적도 있다고 한다.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19. 은도끼와 금도끼

T 음암면 유계리 ③—B 면

* 줄거리

어떤 총각이 나무하러 가서 나뭇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한 노인이 연못 속에서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네 것이냐?" 하고 물었다. 총각은 모두 아니라고 하였다. 노인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 쇠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네 것이냐?" 하고 물었다. 총각은 그렇다고 하였다.

이렇게 정직한 총각은 후에 복을 받아 잘 살았다. 그러나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다.

어떤 총각이 나무하러 갔는디, 도끼를 잃어 버렸대요. 도끼를 잃어 버렸는데, 무슨 연못이라든가, 그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는데, 그 연못에서 어떤 노인이 도치를 건져 갖구 나오면서, 은도끼, 금도끼 뭐 다 가지구 나오너서, 내어 놓아도, 이는 곧짜배기(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라 자기 도치만 받지, 비싼 도치는 안 받았시유.

"이것두 내야(내것) 아니유."

"이것두 내야 아니유."

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게 기냐?"

그게 지야라구(제 것이라고) 했대유. 그래서, 그, 복을 잔뜩 줬는디, ……. 또 잊어 버렸으

니 뭐 허여.

그 사람이 도와 주어서 잘 살게 됐는디, 그 개갈난 도치 가진 이가 금도끼가 제야라구 가져간 놈들은 모두 벌 받구.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3시 55분경
구 연 자 : 김 우순(여,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20. 조 마 귀

T 음암면 유계리 ④—A 면

* 줄거리

옛날에 어떤 모자가 사는데, 아들이 나무장사를 해서 겨우 먹고 살았다. 어머니는 아랫 마을로 품팔이를 가면서, 아들이 돌아와 먹을 밥을 지어서 솥안에 넣어 두었다. 그런데, 그 밥이 며칠째 없어지곤 하였다.

아들은 나무하러 나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키를 쓰고 두멍 뒤에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얼마 후에 조그만 쥐같은 동물이 들어와 솥안으로 들어가서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오는 것이었다.

아들이 막대기로 그 짐승을 한번 때리니까 그것은 강아지만하게 커졌다. 다시 한 번 때리니, 송아지만하게 커졌다. 세번째 때리니, 그에게 달려들어니, 그를 잡아먹어 버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다가, 아들이 죽은 이유나 알아 보려고 아들처럼 키를 쓰고, 두멍 뒤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다. 역시, 쥐새끼 같은 것이 나와 솥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얼른 솥뚜껑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 놓고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웠다. 얼마동안 불을 때니 솥안에서 따뜻하다고 좋아하던 그 짐승은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마귀라고 한다.

옛날 워떤 사람이 원 모자가 사는디, 아들은 나무장사를 해서 먹구 살아요. 나무 한 짐 해다가 팔아서 어머니, 참, 저기, 밥거리 식량을 사다 주고, 사다 주고 그렇게 해서 하루 하루를 사는디, 밥을 해서 인저, 그 아들을 싸 보내구서, 어머니는 인제, 길쌈하느라구, 옛날 베 매구, 이런 걸 하느라구 베매는 품을 팔러 갔는디, 아, 오너(와) 보면, 아들두 안 왔는디, 밥 한그릇 해서, 저녁 해 놓은 게 없어지구,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 이상하다구 하구서, 며칠을 그러니께,

"네가 먹었니? 워째 너도 안 왔는데 네 밥이 없어졌네?"

그러면, 온 역사가 없으니께 오메(어머니) 온 뒤로 아들이 나뭇짐 지고 돌아오거든. 옛날에 저, 개산에, 어디 먼디 다니며 나무를 해다 때니께.

그래서, 웬일인가 허구, 하루는 아들이 두멍 뒤에 가서 치(키)를 쓰구 앉아서 엿을 봐.

'무엇이 드나들며 내 밥을 그렇게 먹나?'

보느라구. 그 늙은 어머니는 베를 매러 가고. 보니께, 쬐끄만 쥐새끼 같은 게 워디서 들어오더니, 솥을 열구서 솥 안에 쏙 들어가서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가 가거든요. 불막대기를 들구 한 번 때리니께 큰 강아지만큼 크더랴, 그게. 또 한 번 때리니께 어진간한 송아지만큼 크거든요. 아 그러더니, 시번 때리니께, 그놈이 대들어서 사람을 해코자 해서, 사람한지(사람까지) 잡아먹어 버렸시유.

그래서 인저, 그 어머니가 와서 보니께, 아들이 그렇게, 아주, 육지사지를 찢어 놨거든. 그러니께 이게 웬일이냐구 사뭇 애통을 허구, 이러다가, 저기해서, 또 이렇게 어머니가 치를 쓰고 앉아서 엿을 봤어.

'이게 우리 집이 무슨 변이 있으니께, 한 번 엿을 한번 볼 것이라구.'

두멍 뒤에가 앉아서, 또 그렇게 치를 쓰구 앉아서 보니께, 또 그렇게, 쬐끄만 게 부엌으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더니 솥 안으로 또 들어간단 말여. 그러니께, 이 노인네가 꾀를 내어 가지고, 그 소당(솥뚜껑)에다가 무거운 거, 못 나올, 무거운 쇠덩어리를 갖다 올려 놓구서는 디립다 불을 때네요. 장작을 디립다 때. 아들이라 해 놓은 나무를 때니께 처음에는,

"아이고 따땃해 좋다. 아이고 따땃해 좋다."

요짝 조짝 들어눕더랴. 솥 안에서.

그게 조마귀 얘기여. 조마귀라는 짐승이 그렇대유. 그러더니 헐 수 없이 못 나오니께, 솥 안에서 노렇게 타서 죽어 버렸더래유. 그래서, 웬수를 갚았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경
구 연 자 : 남 효순(여, 7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44번지
채록 장소 : 유계리 1구 김 우순씨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김 우순씨 댁에서 김 우순씨, 김 재숙씨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같은 마을에 사시는 남 정희(여, 58세)씨와 함께 찾아왔다. 그래서, 함께 김 우순(여, 82세)씨의 이야기를 들고나서, 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들은 것이다.
청 중 : 마을 아주머니 3명, 동행한 김 창진 선생.
처음 듣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9세 때 친정인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에서 증조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임.
구연 경력 :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21. 개구리가 가져다 준 복

T 음암면 유계리 ④—A 면

*** 줄거리**

예전에 한 남자가 아내의 권유로 베 몇 필을 가지고 서울로 길을 떠났다. 얼마를 가다가, 그 사람은 개구리를 가지고 가는 노인을 만났다. 그 사람은 노인이 하자는 대로 베를 노인이 가지고 있던 개구리와 바꿨다.

그 사람은 서울 가는 동안 개구리에게 무엇을 먹일가 걱정하다가, 노인의 말대로 개구리를 논에다 쏟아 놓았다. 개구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 사람은 개구리를 부르며 어서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노란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반짝이는 네모진 물건 하나를 물어다 주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서울로 가다가 어느 부잣집 앞 고목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다. 그 사람이 개구리가 준 것을 귀에다 대고 들으니, 그 때 짖는 까마귀 소리가

"오대 독신 외아들이 배나무 동티에 죽는구나!"

하는 말로 들렸다. 그 사람이 그 부잣집에 알아보니,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가 배나무 벤 자리에 가서 동티잡이를 하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다.

그 집에서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어 잘 살게 해 주었다.

예전에 어떤 남자가 여자의 속만 썩이고 못살었디야. 지지리 못생기구, 못 살었는디, 여자는 참 솜씨도 좋구, 아주 뭐 했는디, 사내는 그렇게 못 생겼어.

"아이구, 당신은 워째 방에가 노다지 그렇게 앉았느냐구?"

그러구 하니께,

"아이구, 워치게 하라구 그려?"

"아이구, 내라 길쌈 해 놓은 거 있으니, 그놈 가지구 서울 가서, 팔아서, 돈 좀 벌어 보라구요."

그러면서, 길쌈을 해서 농에다 하나 모아 놓았던 거를, 베필을 해서는 주니께, 그늠을 갖고 가다가 생각을 허니께, 그거 갖고 서울 가서는 안 되겠거든.

가다가 보니께, 논에는 개구리가 잔뜩 허더랴. 이 때, 워떤 할아버지가 지나가드랴.

"여보 여보."

지나가는 할아버지 말이,

"그게 당신 뭐요?"

물어보니께,

"마포요."

허니께,

"그것 뭣하는 거요?"

"서울 가서 팔아서 돈 할라구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지구 가더랴. 그 할아버지는 뭘 한 짐을 졌더랴.

"그게 뭐유?"

하니께,

"이건 개구리요."

그러더랴. 그래 개구리라 그러면서,

"그거를 마포하구 바꾸자."

하니께, 바꿨다는구먼.

"이걸 팔면은 돈을 굉장히 하는 거라구."

그래, 마포하구 바꿔서는, 그늠을 짊어지구 가다가 생각허니께, 서울까지 가면 개구리가 죽겠거든. 그러니께,

"여보, 여보."

불렀디야. 그러니께, 대답하니께는,

"아니, 이걸 갖구 서울까지 가면 죽을 텐디, 가다가 뭘 먹이느냐?"

구 하니께,

"그러면, 가다가 논에다 쏟아 놓으라구."

아, 쏟아 놓으니께, 이눔의 개구리가 이루 가구, 저루 가구, 다 가버리고 하나두 없더랴.

해가 다 갔는디, 서울을 가야 할 텐디, 이눔의 개구리가 하나나 나오야지. 안 나오니께는 논둑에 앉아서,

"개굴아 개굴아, 해 다 갔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그러니께는, 노란 개구리 하나가 바짝 논둑으로 뛰어 나오더랴. 뛰어 나오더니, 그눔이 뭘, 반뜩반뜩하니, 네모 반듯한 거 하나를 물고 나왔더랴. 물고 나와 갖고서는,

"이걸 뭐 하느냐? 이걸 갖고 서울 가란 얘기냐?"

그러니께, 개구리가 '텀벙' 들어가며, 고개를 '끄덕'하고 들어가드랴. 그래 끄떡하구 들어가서, 그눔을 갖고 아무리 생각해두, 개구리만 다 잃어버리구, 그거 갖고서 호겨가 (계산이) 안 닿거든.

그래, 인저 그걸 갖고서 해는 다 갔는디, 워치겨. 부잣집 고목나무 속에 가서 이렇게 있느라니께, 까마귀가 깍깍 짖는디, 그 소리가, 그걸 귀에다 대고 들으니께,

"아하! 오대 독신 외아들이 배나무 동티에 죽는구나. 오대독신 외아들이 배나무 통티에 죽는구나."

귀에가 그렇게 들리더랴.

그래서, 인저,

"주인장 주인장!"

찾았디야. 찾으니께, 인저 노인 할머니가 하나 나

"누구시요?"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고 나왔더랴. 그래서,

"아하, 이 집안 안됐소이다."

그러니께,

"왜 그러시유?"

그러더랴.

"당신네 오대독신 손자 하나가 오늘 저녁에 죽읍니다."

그러구 허니께,

"아이구, 아닌게 아니라 그렇다."

구 그러면서, 인제, 뭐, 영접을 해드리더래유.

영접을 해들여서는, 들어가서, 인저, 그 소리 하니께, 워치게 아느냐구 허니께,

"아, 뒤란의 배나무 벤 일 없느냐?"

구 그러니께,

"아, 있다."

구 허니께,

"그거 동티루 죽으니께, 거기다 동투집일 허라."

구 그러니께는, 헐 줄 아느냐구 그러드랴. 그러니께는 내가 그냥 헌다구. 그저 아무 소리나 했드라느먼. 허니께 그 사람이 번쩍 났더래유.

아, 낫으니께는, 가들 못하게 하구서는 칙사 대우를 하구서는, 오도가도 못허게 하더랴. 그러니께, 가야겄다구 허니께,

"가는 게 뭐냐? 못 간다."

붙잡구서는 늘어지더랴. 그래서, 집에서 궁금해 하고 할 텐께 워치겨. 가야지. 간다구 허니께, 옷을 잘 해 입히구, 돈 한 보따리 줘 가지구 오너서는, 집에서는 기다리느라구 야단났지.

집에 갖구 오니께, 그게 뭐냐구 해서 그 애길 했지. 그 애길 허구서는 그 돈으로 논 사고, 밭 사고, 부자가 되어 잘 살다가 죽었드래요.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 10분 경
구 연 자 : 남 정희(여, 농업, 58세,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44번지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새벽 때(20세경) 주소지 동네에 온 필목장수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2. 수수깡이 빨간 이유

T 음암면 유계리 ④—A 면

* 줄거리

옛날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산너머 동네에 가서 베를 매주고, 범벅 한 동고리를 얻어 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고개를 넘으려 하자, 호랑이가 나타나, 범벅 하나 주면 안 잡아 먹겠다고 하였다. 범벅 한 덩어리를 주고, 또 한 고개를 넘어가느라니까 호랑이가 또 다시 나타나 범벅을 달라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범벅을 다 빼앗긴 어머니는 빈 손으로 집에 왔다.

집에 와 보니, 아이들은 없고, 호랑이가 범벅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우물가의 미루나무 위로 올라갔다. 호랑이가 쫓아와서 어떻게 올라갔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다고 하였다. 그대로 했다가 실패한 호랑이가 다시 묻자,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왔다고 바른대로 가르쳐 주었다. 호랑이가 그대로 하였다.

위험을 느낀 어머니는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하늘에서 삼태가가 동아줄에 매달린 채 내려왔다. 어머니는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호랑이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삼태기가 내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되어 죽은 호랑이의 피가 수수깡에 묻어 그 속이 빨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이 돌려가며 이야기한 것이다.)

남 효순 : 옛날 워떤 가난한 주부, 엄마가, 게도 참, 자식을 한 몇 남매 두구서 혼자 과부가 되어서 사는디, 벌어먹는 게 옛날에는 여자덜이 길쌈하는 거밖에 없었어. 그저 옛날에는 솜씨 없으면 빗구 앉았구, 솜씨 있는 사람은 길쌈해 주고, 이렇게 밥이라두 얻어 먹는 사람이 많구.

고개너머로 베매 주러 다니면서, 품을 팔아서 자식들하고, 자식이 한 2~3남매 되었던 겨. 사는디, 그, 저, 저기, 그 베 매구서 저물게 밥을 얻어 갖고 오면은 호랭이가 산꼭대기에 앉아서 항상 위협을 주거든. 그러다가, 워니 날은 인제, 자식들이 마중을 나오면 같이 들어가서 멕이구, 멕이구 했는디.

워니 날은 베를 다 매주고 오니께, 그 집에서 범벅을 해서 한 동구리 주더래요. 가서 애들하고 먹으라구. 그래, 범벅을 뒤집어 이고 오니께, 호랭이가 몇 산 언덕이나 넘어가야 되는디, 한 고개 넘으면 그눔이 또 찾아나와 앉아서,

"범벅 한 멩이 주면 내가 너 안 잡아먹지."

또 한 멩이 던져 주면 먹고는, 또 조금 걸어오면 쫓아와서 그러구. 모랭이마다 앉아서 그렇게 범벅 한 덩이씩 던져 주니께, 뭐 이고 오던 게 다 없어졌지. 애덜 줄 게 어디 있어. 육신만 겨우 살아서 집에 왔지.

집에 오니까 애덜이 아우성을 하잖어. 먹을 거 안 갖구 왔으니께. 거기 밖에 모르겄네. 그훌랑(후일랑) 자네가 허게.

남정희 : "할멈 할멈."

"왜 그러니?"

"범벅 한 멩이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한 모랭이 돌아오니까,

"할멈 할멈."

"왜 그러니?"

"범벅 한 멩이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께 또 한 멩이 주고, 그러다가 참 다 없어졌더랴.

워치건대유? 다 잊어 버렸으니.

그래서, 집에 와서는 그랬다구 했지. 애들이 야단을 놔서, 야단을 놔서는, 인저 워치게 못하고서는, 인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더랴.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니께는, 아이 호랑이가 밑에서 그걸 잡아먹지를 못해서 지랄을 하더랴.

"너 워치게 올라갔니?"

그래서는,

"금도끼로 찍고 올라왔지."

그러니께, ……

김 재숙 : 아녀, 처음에는 기름 발랐다 했어.

남 정희 : 이, "참기름 발르고 왔지."

그러니께는 쪼끔 올라오다 쭐딱 미끄러지고, 또,

"너 어떻게 올라왔니?"

그러니께는,

"도끼로 찍고 올라왔지."

그래서는 반쯤은 올라왔더랴. 도끼로 찍고 올라오니께.

반쯤은 올라왔는디, 호랑이가 미서서는(무서워서는) 뚝 떨어졌거든.

남 효순 : 미서서 떨어졌간. 밑에서 애들이라 수수멩이로 호랭이 똥구녕을 쑤시니께 떨어졌지.

남 정희 : 그렇게 해서 뚝 떨어졌는디, 수수멩이가 그 호랭이 피가 묻어서 그게 빨갛게 수수멩이가 묻은 게 호랑이 피라더구먼 그류.

김 재숙 : 그런디, 애긴 덜 했어. 더 해야여. 인제, 이렇게 호랑이가 올라오니께, 그 낭구

(나무)에 올라 앉아서는,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릴 테면 새 동아줄, 새 삼태기를 내려 주시고, 나 죽일 테면 헌삼태기 헌 동아줄을 내리라."

구 그렇게 해 가지구서, 했는디, 새 동아줄 새 삼태기를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눔을 타구 올라가구. 인저 호랭이가 그 소릴 듣구서래미, 저두 허니께는 헌 삼태기, 헌 동아줄을 내려 줘 가꾸서는, 똥두넝을 쑤셔서 그런게 아니라, 줄이 나빠가지구 끊어져 가꾸서는, 수수땡이가 피가 묻었어. 얘길 똑똑히 해야지. 그거 잘못 됐어.

채록자 : 그럼, 그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 없나요?

남 정희 : 읍지유.

김 재숙 : 읍지유. 호랭이만 죽었지. 그 얘기는 새암에서부텀 해야지. 샘을 들여다 보니께는…….

채록자 : 이제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김 재숙 : 옛날에요 오마니가 인저, 그렇게 애들을 두구서, 베를 매러 다니는데, 범벅을 줘서, 그렇게 하구. 그렇게 한 모랭이 돌아서 범벅 한 멩이 달래서 주구, 주구 해서 다 뺏기구는 집에 오니께는, 뭐 방에서도 범벅을 달라구 손을 내미는데, 보니께 애덜 손이 아니구 호랭이 손일러래유. 그래서는,

"아니, 왜 손이 이러냐?"

구 하니께는, 뭐라구 했다더라. 그 소린 잊어 버렸네.

그래 가구서는, 인저, 워치게 할 수 없어서 미륜나무로 올라갔디야. 무서워서, 그 엄마가 올라가니께, 달빛이 있으니께는, 이렇게〔들여다 보는 시늉을 하며〕 들여다 보니께는, 그비처 가지구 샘에서 보이니께,

"너 워치게 여기 들어갔느냐?"

니께, 그 낭구서, 꼭대기서 웃으니께는, 그제서 쳐다 보니께 낭구가 있는 걸, 샘이 있는 걸 봤죠. 샘에 있는 걸루. 그래가꾸는,

"워치게 올라갔느냐?"

호랑이가 물으니께,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다."

허니께, 쬐끔 올라오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고 해서,

"거기 너 워치게 올라갔냐?"

니께,

"도끼로 찍고 올라왔다."

그러니께, 그놈이 찍고 올라오는데, 얼추(거의) 따라 올러오더래유. 그래 가꾸, 무서워서 하는 말이, 하느님께 그렇게 빌었대유.

"우리를 살릴려면 새 동아줄, 새 삼태기 내려 주시구, 죽일라면 헌 동아줄, 헌 줄을 내려 주시오."

그러니께, 새 삼태기, 새 동아줄을 내려 줘서 올라가구요.

또, 호랑이가 그 소릴 듣고, 그렇게 하니께는, 새 삼태기, 새 줄을 내려 달라고 허니께 헌 줄, 헌 삼태기 내려줘서 호랑이가 올라가다가 떨어져 가꾸, 수수빵이 빨건 게 그게 호랑이 피유.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경
구 연 자 : 남 효순(여, 7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44번지
구 연 자 : 남 정희(여, 5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44번지
구 연 자 : 김 재숙(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산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51번지
만나게 된 경위 : 앞 이야기와 같음.
채록 상황 : 그 자리에 함께 한 김 우순씨, 남 효순씨, 김 재숙씨, 남 정희씨 모두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다 잊어 버려 생각이 나질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조사자가 여러가지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하며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하였다. 조사자가 '호랑이가 베매고 오는 할머니의 범벅을 다 빼앗아 먹고 잡아먹을려고 하여서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고 하였다. 줄거리가 정리되지 않는다고 서로 양보하다가 남 효순씨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뒤를 남 정희씨가 이어서 하다가, 김 재숙씨가 끝을 맺었다.
처음 들려준 사람 및 들은 때 : 세 사람 모두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가끔 하였다 함.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3. 정성껏 하는 대접은 고맙게 받아라

T 해미면 등암리 ①—B면

＊ 줄거리

공자가 자로, 자공 두 제자를 데리고, 민심을 알아 보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다가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다.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집을 찾아가 하루밤 유하기를 청했다. 한 노인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옷은 남루하고, 눈꼽이 끼어 있고, 콧물이 흐르는 등 모든 것이 불결하기 짝이 없었다.

얼마 후, 주인은 죽 세 그릇을 내왔다. 공자는 죽 한 그릇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이튿날,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공자가 두 제자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제 밤에 왜 죽 그릇에 손도 대지 않았느냐?"

"예, 노인의 차림이 너무도 불결하여 비위가 상하여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자,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그 노인은 자기 형편대로, 있는대로 대접했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면 못쓴다."

공자님이 제자가 참, 뭐 수십명이 있었대요. 그런디, 제자 중에서도 인저, 자로하고, 자공하고 두 제자가 주로 공부도 착실히 하고 해서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 인저, 두 제자를 데리구서, 인저 하루는 말여,

"느이덜 나하구 같이……."

조선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남한, 민정수습,

"인심이 어떤가를 보자."

하구 다녀.

다니다가 하루는 날이 저물었어. 산골짜기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인저, 어— 큰 걱정이었는데, 어떤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말여, 등잔불이 반짝반짝하드랍니다.

"헐 수 없다. 저 집에 가서 우리 하루 저녁 유하구 가자구 청하자."

하구 제자 두 분하구, 인저 공자님하구 주인 양반 찾으니께, 호호백발 노인인데, 남자 노인, 당체 의자(의관)도 없고, 뭐 남루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녀. 얼핏 봐도 말여. 그런디, 아주 반가와하고 말여, 그러면서,

"아, 어서 들어가시오."

들어가니께, 방도 단간방이여. 부엌도 요만하고〔손짓을 하며〕, 저 한 간쯤 되고. 형편없는 집이지. 노인네 혼자 거처하는 집이니께 그렇잖겠어. 할멈두 없구.

그래, 앉아 있는데, 잠깐 새에 뭘 해서 들여오드래요, 저녁 식사를. 보니께, 멀건 죽이여. 멀건 죽을 시 그릇을 떠다 놓고,

"이거 변변찮은 거이지만 자시오."

하고 갖다 놔.

공자님이,

"잘 먹습니다."

하구 이내 가까이 앉아서 후룩후룩, 참 맛 없어도 맛있는 거처럼 먹었어. 주인이 보기에. 그래, 자로와 자공 둘은 그냥 우두커니 앉았다는 거여. 안 먹고 앉았어. 그래, 그날 저녁 영 안 먹고는 굶었단 말여. 공자님은 다 자셨는데 말여.

하루 저녁 자구서는, 인저 일어나서, 시 분이 같이 행차를 나섰는디, 공자님이

"야, 느이들 말여, 어제 저녁에 그 전 영감이 해 준 식사, 왜 입에 대지도 않야느냐?"

니께,

"아, 그눔의 집은 아주 눈꼽에, 의자(옷)에, 콧물, 눈물, 자꾸 죽죽 흘려서, 당체 추해서, 비위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읍디다. 그래서, 숫제 입에 대지두 않았읍니다."

그러니께,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그게 말여, 그 노인네두 자기 형편대루, 있는대루, 자기 명대루 대접한 것인디, 달게 먹어야지. 그러면 안된다. 적덕이 칠현금(積德七絃琴)이다."

이랬어. 그게 훈계야. 공자님이 두 제자를 훈계, 훈계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0 : 45—50
구 연 자 : 오 수본(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구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해미면 동암리 332—5 동암리 이장 윤 상석씨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전날 해미면사무소에서 이장에게 민속조사단 일행이 그 마을에 갈 것이라는 연락을 하였으므로 동민들이 조사단 일행이 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조사단 일행이 도착하자, 이장 부인의 연락으로 남녀 동민 몇 사람이 모였다. 구연자도 그 중의 한사람이다. 밖에서는 민구(民具)를 조사하며, 민요를 부르기도 하였다. 채록자는 동민 3명과 함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청 중 : 동네 아주머니 3명, 동행한 김 창진 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전에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4. 부모의 영혼이 가르쳐 준 약

T 해미면 동암리 ①—B 면

* 줄거리

옛날에 등짐장수가 등짐을 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잘 곳이 없어서 어느 묘 옆에서 자게 되었

다. 한밤중에 그 묘의 영혼 내외가 자기들 제사를 얻어먹으러 간다고 하였다.

그 영혼 내외가 아들네 집에 당도해 보니, 제사 음식이 너무도 적어 먹을 것이 없었다. 밥과 국에는 머리카락이 있었다. 영혼 내외는 그것을 건져낸 다음, 밥과 국을 조금씩 먹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집 어린 아들이 불에 데었다. 이것을 본 영혼은 아들의 꿈에 나타나 황토흙을 파다가 물에 담갔다가 그것을 덴 데 붙이라고 하였다. 그대로 하자 아기의 화상은 깨끗하게 나았다.

옛날에 등짐장수가 등짐을 지구 가다 날이 저물어서, 오고 갈 디가 없어서, 모이 옆에서 자노라니께, 그날 저녁에가 당신네들 지사라구, 지사 읃어 먹으러 가자구 내외분이 가자구 의논을 허더래유.

"가세. 가세."

하며, 친구더러도 가자구 그러더래요. 그러니께,

"친구는 어떻게 다 데리구 가느냐구. 차린게 부족한디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구?"

하니께,

"그래두 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같이 나눠 먹자."

고 친구를 데리구 왔대유.

오니께, 자손들이 너무 너무 가난해서, 지사를 지내는데, 당체, 참 너무 죄끔 죄끔 차렸더래유. 그런디, 웬 지랄루 어린 애가 나와서는 놀다가 아궁지에 빠져서 벴드래유.

"아이구 시상에, 딱해서 어쩌나!"

하구, 인저, 혼신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혼신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먹을 것두 별거 없지만서두 지성껏 좀 차리지."

머리카락이, 옛날에는 구렝이라구 그랬대유. 머리카락이 밥에가 들었구, 국에가 들었으니 워칙허느냐구, 그걸 건져서 뿌리구선, 조금씩 마시구서는 돌아서서 생각허니께, 멘 애기를 약을 일러 줄 수가 없드래유.

그래서라미, 인저, 꿈에 선몽(현몽)을 해 줬대유. 아버지, 엄마 꿈에.

"느이덜 다른 약은 없으니, 산에 가서 빨간 황토흙을 파다가 소락지(소래기), 노랑 소락지다가 물을 떠 놓구서래 미체를 이렇게 이렇게〔손으로 체를 치는 흉내를 내며〕 하면 뻘경물이 쏟아지고, 모래는 위에가 남으니께, 가라앉거들랑은 그 놈을, 지름한 놈 철썩 갖다 붙였다 뗐다 스물 한 번만 하면은 화덕이 빠져서 나슬테니 그렇게 해라."

그러구서는, 꿈에 선몽해 주구서는 혼신이 가셨대유.

그러니께,

"여보, 나는 밤이 꿈이 우리 시아버지가 허시는 말씀이 울애기 멘 디 황토흙을 파다가 물을 소락지다, 물 떠 놓고, 체로 찌쳐서(씻어서) 그럭하믄 낫는다니께, 그걸 좀 해 보자구요."

그러니께,

"그렇게 하자. 우리가 돈이 없으니, 병원두 없구 워치게 허느냐?"

흙을 한 바지게 가서 파갖고 왔드래유. 그래서, 그눔을 파다 소락지에다 찌쳐서래미 스물 한 번 하라 그랬는디, 열 한 번을 하니께, 애기가 벌써 다리를 뻗었다 오그렸다 하드래요. 멘 화덕이 빠져 가지구. 그래서 황토흙이 좋은거래유. 이렇게 허구, 조 허구 해서 애기를 고쳤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 : 00—05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8번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전에 가끔 하였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5. 아버지가 물려준 채권을 포기한 아들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 줄거리

어느 가난한 총각이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았다. 깊은 산속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 왔다가 아버지의 제삿날을 맞은 그는 자기의 전재산인 도끼를 아버지의 무덤에 놓고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무덤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너는 인도환생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어느 비오는 날, 그 총각은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다. 그 집 부부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좋으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아무개네 빚을 갚지 못해 좋은 줄도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 때, 그 사람의 채권자가 마침 그 집에 왔다가 이것을 보았다. 채권자는 그 사람을 만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채권을 포기하겠으니 마음 놓고 잘 살라고 하였다.

그 총각은 얼마 후에 죽어 그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잘 살았다.

옛날에 한 총각이 몹시 가난하여, 산중에 다니면서 나무 도벌을 해서 먹고 살았대유. 그날도 쪽지게를 지고서, 도치(도끼) 하나 지고서 산에를 갔는디, 그날이 즈이 아버지 지사더래유. 그 사람은 도치를 갈아서, 쪽지게 밑에다 놓구서,

"우리 아버지, 나는 이걸로 벌어먹고 사니께, 이 도치 응감이나 하시고 가시유."

하고서래미, 즈이 아버지 모이 옆에가 잤대유. 자니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러드래유.

"너는 인도환생해서 잘하고 살게 해 줄 테니 가거라."

그러드래유. 그래서, 인도환생을 어떻게 해주나 하구서 가라는 길로 가니게, 비가 주룩주

룩 오더래유. 그래서, 인저 꾸스렁(추녀) 밑에가 섰으니께, 그 집이서 내외분이 기시드래유. 그런디, 내외분이 허시는 말씀이, 아유, 이런 소리 뭣할 것 같애. 〔채록자 : 괜찮아요 친구분들과 하시던 그대로 해보세요.〕

"여보, 우리가 자손을 볼라면은, 우리가 인저, 몸을 접촉해야 자손이 퍼질 테니까, 이리 오소."

그러니께, 각씨가 갔대유. 하하하.

인저, 참 가서 있는디, 그 때 마침 그 집에 빚을 준 사람이 가서 그 집밖에 서 있었대유. 너무, 참, 드럽게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았대유. 이리 좀 오라구 해서, 두 양반이 몸을 접촉하는디,

"좋으냐?"

그러니께,

"아유, 좋기는 좋으나, 아무개네 돈 못갚아서 이런 것도 좋은지 글른지 물르것네."

그러니께, 바깥에 서서 계신 양반이,

'아니, 저게 우리 아버지 성함 소린디, 어쩌면 저렇게, 저런 좋은 순간에도 저런 말씀을 허시나?'

하구서래미,

'우리 아버지가 빚을 내게로 밀려서 나보고 받아먹으라 했으니 나는 저돈을 받지 말아야 하것다.'

구 생각을 갖구서래미 참 찾아들어갔대유.

들어가니께, 식사를 잘 해주더래유. 그 양반이 말씀허시기를,

"세상에, 부부지간에 살을 대구 자손을 마련할 적에두 우리 아버지 명함을 부르면서, 그 빚을 못 갚아서 좋은 것두 물른다구 허시는디, 지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 줘서 그 빚을 받아먹고 살라고 했는데, 저 그 빚을 안 받것습니다. 이제 걱정마시유."

그러구서는 도루 갔대유. 그래서, 달 한마디 잘 하면 천냥 빚 갚는다는 게 고기서 나온 말이래요.

〔조사자 : 그럼, 그 종각은 그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나요?〕 그렇지유. 태어나서 잘 살았대유. 그게 인도환생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5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8번지
만나게 된 경위, 채록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26. 방갓이 아니라 뗑갓이다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한 농부가 산골짜기에 있는 논에 가서 일을 하였다. 그는 쓰고 간 방갓을 논 다랑이 옆에 벗어 던져 놓았다. 그런데, 그 방갓은 마침 거기에 앉아 있던 소리개를 덮어 버렸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으므로 농부는 어떤 집 추녀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 때, 그 집주인 내외는 자손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이 절정에 이르자, 아내가 남편에게 좋으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하늘로 올라가게 좋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조금 전에 소리개가 자기의 방갓을 쓰고 하늘로 날아간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올라가거든 내 방갓 좀 찾아다 주시오."

하고 말했다. 밥에서 사람 소리가 나자, 집주인은

"방갓이 아니라 뗑갓이요."

하면서, 쑥 빼고 나왔다. 그러자, 농부는

"뗑갓이 아니라 방갓이요."

하고 다시 말했다.

대낮에 그런 일을 하다가 들킨 집주인은 그 농부를 잘 대접하였다.

옛날에 참, 아혼 아홉 다랑이처럼 자지잔, 산골에가 논이 있던 모양인겨. 그래서, 인저, 그 논임자가 삿갓을 쓰고서 논에를 갔는디, 인저 삿갓을 쓰고서 돌아다니며 논일을 볼라니께 잘 안 뵈니께, 벗어서 이렇게[손짓을 하며] 놨는디, 아아— 방갓이랴. 삿갓이 아니라. 옛날에는 방갓인데, 방갓을 벗어 놓느라니께, 호리개(소리개) 이렇게 앉은 디다 방갓을 풀 쑥 놨던 모냥이여. 그러니께 그걸 쓰고 앉았지.

아 그런디, 비가 주룩주룩 와서, 논을 다 둘러 보구서, 가서, 어떤 집 꿀창 밑에 섰느라니께, 그 호리개조차 들어섰었는지 물르겠어. 가서, 이렇게 섰느라니께, 안에서,

"좋지, 좋지?"

그러드랴. 좋다구 그러니께,

"아유, 산으로 가게 좋아."

각씨가 이러니께, 인제 또, 그 영감이,

"좋지?"

그러니께.

"아주, 하늘로 올라가게 좋아."

그러니께, 그 꿀창 밑에가 섰던이가, 그 방갓을 호리개라 채 갖고 훨훨 날러가 버렸디야. 그이라 쓰던 방갓을.

"아이구, 하늘로 올라 가거들랑 내 방갓 좀 찾아다 주유."

바깥에 선 이가.

내외분이 자손을 마련하는디,

"좋아?"

"하늘로 올라가게 좋애."

그러니께, 바깥이 선 남자가, 방갓 호리개라 채 간 남자가,

"아이구, 하늘로 올라가거들랑 내 방갓 좀 찾아다 주유."

그랬대유.

배깥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께,

"방갓이 아니라 뻥갓이다."

그러면서 쏙 빼구 나오니께, 바깥에 섰던이가,

"아니, 뻥갓이 아니라 방갓이유."

그랬대유.

나와서 보니께, 사람이 섰으니께, 너무 우수워서래미, 그들이 나와서 그 양반을 데리구 들어가서 노비를 잔뜩 주면서래미,

"아이구, 즈이덜이 대낮에 이렇게 해서 죄송헙니다."

그러니께,

"아이구, 천만의 말씀이유. 논에 왔다가 방갓을 벗어 놨더니 호리개라 채 갖구서 갔는디, 하늘로 올라간다구 그러길래, 하늘로 올라가걸랑 내 방갓 좀 찾아다 달라구 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니께는 참 죄송스럽다구 하면서 노비를 주더래유.

이렇게 고정하구 착한 사람은 고런 울타리 밑이가 섰어두 도와준 겔러믄 그류, 옛날에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10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27. 살인범은 유공엽(柳孔葉)이다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서당에서 합숙을 하며 공부하는 도령이 이참판의 딸로부터 '오늘 밤에 자기집 초당으로 놀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그 편지를 볼 틈을 얻지 못하여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꺼내어 읽

었다. 그 때, 서당 선생님이 그 대용을 훔쳐 보았다.

도령은 모두 잠들면 처녀의 집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서당 선생님이 먼저 그녀의 집으로 갔다. 초당에 당도한 선생님이 그 처녀와 정을 통하려 하였으나, 그 처녀가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처녀를 죽였다. 그리고는 서당으로 돌아와 자는 척하였다.

잠에서 깬 도령은 다른 사람이 모두 잠들은 것으로 알고, 처녀의 집으로 갔다. 가보니, 불도 켜지지 않은 방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였다. 크게 놀란 도령은 도망치듯 달려나왔다. 그러다가, 신발 한짝을 잃어 버렸다.

이튿날, 도령은 살인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신발 한 짝 때문에 살인혐의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

딸을 잃은 이참판의 부인이 대감의 세숫물을 떠다 놓자, 벌레먹은 버드나무 잎새 하나가 세숫대야에 떨어져 물위에 떴다. 이것을 본 대감의 부인은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을 버들 유(柳), 구멍 공(孔), 잎새 엽(葉), 유 공엽이니 유 공엽을 찾으시오."

하고 말했다. 유 공엽은 서당 선생의 이름이었다. 이렇게 하여, 그 도령은 살인 혐의를 벗게 되었다.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김 진사가 살고 있었는데, 김 진사의 아들 김 일순이라고 허는 애가, 도령이, 이웃 마을 서당에 다녔었대유. 그런디, 그 중간 지점에 이참판이라구 하는 그 분의 따님이 아주 얌전하고, 과년됐다는 겨. 그런데, 은연 중, 그 마당으로, 서당에 다닐 때마다 마당으로 왔다갔다 허구 다니니께, 그 총각애두 그 처녀 생각두 좀 있었든 모양인데, 또, 처녀 역시 그 총각이 미남자니께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야.

그래, 하루는 저녁을 먹고, 어둑컴컴한디, 그 집 마당을 가느라니까 무슨 종이 쪽지가 하나 마당에 흘렸더랍니다. 가는 길초에. 그래, 뭔가 하구 집어 가지구 게서는 어두워서 못 보구서, 인저, 호주머니 넣구 가서, 인저, 서당에 가서 그것두 선생이 볼까 무서우니께 인저, 호주머니 넣었다가, 같은 동접들끼리 글을 읽구나서, 선생님이 자라구 해서, 인저 드러누워 자는데, 불을 그 때, 안 껐던 모양이여. 선생이 아랫목에 드러누웠고, 걔는, 그 도령은 그 이상스런 쪽지를 뒤로 돌아서서 봤어. 선생이 있으니, 돌아서서 보니께, 그날 저녁에 오라구 헌다. 그 처녀가

"와서 담 넘어 들어와라. 저 거처하는 초당으로 오라."

는 내용이여.

선생님이 의심스러우니께, 가만히 와서는 엿봤거든. 아 보니께, 그 사연이여. 그 나쁜 놈이지. 선생이 말여.

'옳다, 잘 됐다. 저 놈의 자식 잠을 자는 순간에 내가 먼저 가겠다.'

그렇게 맘을 먹고 누웠는데, 가만히 보니께, 애가 씨근 잠을 들더랴. 선생님이 보니께 말여.

그러니께, '기회는 됐다.' 허구서 살그머니 나가서 보니께, 참 불을 반히 쓰구서, 그 초당에, 그 때도 잠을 안 자드랴, 그 처녀가.

담 넘어 들어가서, 인저 문을 바스리 열구서 들어가 보니께, 아니, 오라는 놈의 총각은 안 오고, 엉뚱한 놈이 오거든. 깜짝 놀랐지. 무조건 들어가서 강간하니 될 거냔 말여. 엉

뚱한 놈이 지랄을 하니께. 그래 죽여 버렸어. 칼로 찔러서 죽여 버리구 서당으로 왔지. 와서, 인저, 누웠으니 잠이 오겠어?

얼마 있다가, 인저 그 총각애가 또, 잠을 깨서 보니께, 선생님이 자는 것 같더랴. '이젠 됐다.' 허구선, 인제, 가니께, 불도 없구, 불도 다 꺼지고 캄캄한 밤에, 방에서, 담 넘어 들어가서 문을 바스리 여니께, 비린내가 팍 찔러. 피가 방바닥에 하나 차서 말여. 무서우니께, '이크'하고 나오다가 신발 한 짝을 거기다가, 방안에다 빠치고 나왔거든. 그래 가지구, 인저, 워치게 신발 한짝 거기다 벗어 내버린 채 그냥, 그것두 한짝 신발만 찍찍찍 끄시구선 서당으로 온 거야. 그런 무서운 꼴을 보구서, 그 애인들 잠이 오겠어? 선생인들 잠이 올 거여?

대가집에서 식전에 날이 부여하게 새면 그 뭔가, 초당에서 나와 기동하고 나오는디 말여, 해 오르더락 나오는 뭐가 없드랴, 그 처녀가. 그래, 하인들도 몇 두었던지, 하인 시켜서,

"하두 이상스러우니 문 좀 열어 봐라."

열어 보니께, 그 지경이더란 말여. 아, 그러니께, 하인 놈들이 아주, 막 벼락치는 소리하구 놀래면서 큰 일났다구 막 그러니까, 대감, 대감마님 뭐 할 것 없이 오너 보니께, 아닌 것두 아니라 칼루 목 찔러 가꾸, 그냥, 아주, 방바닥에 피가 흥크러져 가지구 죽었드랍니다.

그러니, 뭘로 조건을 잡느냐 하면, 저 신발 가지구 범인을 잡을 작정인데, 신발 한 짝을 가지구, 저, 근처에, 저, 어른 신발두 아니고 애들 신발이니께, 고기에 서당이 가까이 있는 줄 알고, 하니께,

"혹 서당 애들 신발이 아니냐?"

하구서, 그걸 가지구 가서 보니께, 아니나 달러. 그래서, 참 그 애라 살인한 걸루 걸렸지. 신발 때미.

그래, 대감이 당체, 그 귀여운 딸을 죽이고 나니께, 참 분해 죽겠어. 그 대감 마님이 아마 대감보다 더 유능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식전 아침에 대야에다 물을 떠 가지구 대감 세숫물을 떠다 주니께, 대감이 세수를 막 헐라고 하는데, 떨어졌어. 바드나무 잎사구가. 바드나무 이파리가 빙빙빙빙 돌아 떠서 세숫대 가운데에가 떡 가라앉드랍니다. 그래, 인저,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구서 세수도 않고, 그냥 그것만 들여다 보구 앉았는데, 그 대감마님이 나와 보니께, 인저 그런 정도여.

"걱정말고 세수하고 들어가시오. 지가 다 알아챘읍니다."

인저, 시수하구서 대감님이 들어오니께, 대감마님이 같이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버들 유(柳)자, 성이 유씨거든. 선생자식이 말여. 구멍 공(孔)자, 잎새 엽(葉)자, 유 공엽, 이 버드나무 잎새가 가운데 구녕 뚫어진 버드나무 잎새가 둥둥 떴으니께, 벌써 유공엽일 나타낸 겨. 그래서, 유 공엽이가 한 걸로 판정되어 가지구 말여, 그애는 내놓고, 유 공엽이는 붙잡어서 에번에(단번에) 사형시켰다구더먼 그려. 그놈 참 나쁜 놈 아니여?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10분경
구 연 자 : 오 수본(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장소,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서당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음. 서당 선생님은 "나두 선생님 하지만, 예전에 그런 나쁜 선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한다. 구연자는 이것이 '아주 이상한 일이라 안 잊어 버렸다.'고 한다.
구연 경력 : 별로 한 적이 없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28. 까마귀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각종 새짐승의 소리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날이 저물게 어디를 가느라니까, 숲 속에서 까마귀가 '임하육 임하육'하고 우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임하육(林下肉), 즉 숲 속에 고기가 있다.'는 말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까마귀가 울던 나무 아래를 가보니까, 어떤 처녀의 시체가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처녀의 시신이었다.
그 사람은 이 사실을 관가에 알려 그 시체의 연고자를 찾아 장사지내게 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각종 새짐승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한번은, 워디를 가느라구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둑스레한데, 가만 있자니께, 까그메(까마귀)가 우거진 수풀 위가 올라서서,

"임하육 임하육."

임하육이 뭐여. 수풀 임(林)자 하고, 아래 하(下)자 하고, 피기 육(肉)여. 수풀 아래 피기다. 그래, 인저, 새소리를 다 들을 중 아니께, 그 까그메 소릴 들었지.

가 보니께, 아니나 다를까. 저 과년한 처녀 하나가 수풀 속에서 죽었드랍니다. 그러니께, 호랑이가 말여, 물어다 게 놓고는, 먹지두 않구, 그 때까지 있었든 모양이죠. 범이라 말여. 그래, 그 사람 기겁해서는 가던 길 그냥 안 가구서, 도루 회정(回程)했어. 하두, 기막히게 놀랄 일 아녀.

그러니께, 집이루 도루 와서, 인저, 국가에 상소했다나.

"내가 어딜 가다 보니께, 이런 일이 있으니, 그걸 좀 어떻게 찾아 봐서, 어떤 집 처녀인가 시체나마 찾아 줬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니께, 이제, 아주 뭐, 하인들 모두 내세워서 그 근처 전부를 더듬고, 인저 그 사람을 데리구 가구. 현장에 데리구 가서 보니께, 아 참말로 과년다서 곧 시집갈 늠의 처녀 색씨가

수풀 속에가 죽어 나자빠졌더랍니다. 그래서, 찾아다가, 그건 뭐 호랭이 짓이니께, 뭐 사람이라 갖다 죽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새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었더야. 그런데, 이름은 모르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15분경
구 연 자 : 오 수본(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29. 피로 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친 아들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②—A면

***줄거리**

옛날에 한 부부가 일곱 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살았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밤마다 외출을 하므로, 아들이 뒤를 밟아 보니, 어머니는 이웃집 홀아비의 집으로 가곤 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밭으로 일하러 가려고 하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홀아비네 밭이 있는 동안쪽 밭으로 가자고 하였다. 아버지는 점심밥까지 싸 가지고 아들이 말하는 밭으로 가서 일을 하였다. 등너머에서는 그 홀아비가 자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뜻밖에도 아이의 어머니가 탐고기와 인절미를 해 가지고 왔다. 점심밥을 싸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고 묻자, 아이의 어머니는 어물어물 하였다.

아이는 등너머에서 일하고 있는 홀아비 아저씨에게 준다고 떡을 가지고 가다가, 떡은 산등성이에 놓고 가서,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아저씨를 때려 죽이러 온대요."

하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는 또 엉뚱한 말을 하였다.

"아버지, 아저씨가 등너머에 도끼자루 할 나무가 많다고 연장 가지고 와서 베시래요."

아이의 아버지는 도끼를 들고 등을 넘다가, 산등성이에 떨어져 있는 떡을 주웠다. 이것을 본 홀아비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일려고 도끼들고, 들을 주워 가지고 오는구나.'하고는 도망을 했다. 집까지 쫓겨간 홀아비는 영문도 모르고 뒤쫓아간 아이의 아버지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옛날에 어느 과댁이 하나가 살았어요. 아들 하나를 데리구. 그런디, 과댁이 아니네. 참, 잘못됐네, 영감하구, 아들하구 살았는데, 아, 뒷집에 홀아비가 하나 있었어.

그런디, 항상, 어머니가 자다 보면 아이를 다독거리구 나가구, 나가구 허거든. 그러니까, 그 애가 쪼금 있다가 보구 보구, 눈 뜨구 보구서는 가만 있었어. 하루는 가만히 엄마 뒤를 따라 나갔어요. 다독다독 덮어 놓고 나갔는데. 그래서, 나가 보니께, 뒷집 홀아비 할아버지네 사립문을 열고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차, 엄마가 이런 저거가 있었구나.'하고,

다시 와 가꾸, 그 뒷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오늘은 어디 밭으로 일하러 가셔유?"

그러니께,

"저 너머 워디루 간다."

"그러며는, 그 밭이 아니구, 저 둥너머, 고개너머, 그 뒷집 할아버지네 밭 가는데, 거기께루 가셔요."

"왜?"

"거기두 일 있잖아요, 아버지. 나두 따라갈께, 오늘은 그리 가요."

그러니께,

"그럼 그러자. 게두 할 거 있구, 게두 할 거 있으니께, 가자."

그러구 갔는데, 얼마 있으니께, 아들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든요. 등성이를.

"너 왜 그렇게 저기 하니?"

"엄마가 점심 가지구 올꺼예요."

"어, 점심 싸 가지구 왔잖어?"

그러니께,

"아니유, 좀 있어 봐유, 아버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얼마 안 있으니께, 어머니가 밥 광주리를 이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얼른 가서 저 밥 광주리 받어유."

그러니께, 쫓아내려가서,

"아니 왜, 밥은 가지구 왔는데 또 해 갖구 와?"

그러면서, 광주리를 인저, 내려 놓구 보니까요, 인절미두 했구, 닭두 잡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닭을 잡고, 인절미두 했어?"

그러니까,

"아, 이웃집 개라 닭을 이렇게 잡아 놔서, 썩기 전에, 영감 애써서 해 왔어유."

"그럼, 인절미는 왜 해나?"

"위 다락에 있는 쌀을 쥐가 다 먹고, 쪼금 남았길래 그냥 뭉쳤어요."

이제, 이럭허구서는 같이 먹는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저 넘어 할아버지, 뒷집 할아버지 떡 좀 몇 개 갖다 줄까요?"

그러니께,

"그래."

그래, 떡을 몇 개 갖다가 산등성이에 놓구서는 내려가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패 죽인대요."

그러구서는 얼른 올라왔어요. 와 가꾸서는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아버지 아버지, 저 넘어 도끼자루 할 나무들이 참 많다구, 아버지 연장 가지구 오시래요."

아, 그래서 아버지가 연장을 둘러메고, 넘어갔다 말여. 그 등성이 넘어가다 보니께, 인절미가 등성이에 가 있으니께, 아버지가 줏었단 말여요. 그러니께,

'업쌔, 정말 나를 패 죽일려고 저렇게 돌팍(돌)을 업드려서 줍는 게구나.'

하구, 막 집을 외돌아져서, 외돌아서, 자기네 집으로 막 달려가는 데,

"여보게 여보게, 왜 도망가나?"

그러면서, 악착같이 쫓아가니께, 하나는 쫓기구, 하나는 쫓아가는 심(셈)이 된 거유.

인제, 이렇게 되니까, 막 도망가더니, 자기네 집으루 도망가면서,

"나 좀 살려 달라."

구 하면서, 펄쩍 주저 앉드래유. 그러니까,

"아니 왜 도끼자루 있다구, 할 거 많다구 날 보구 연장 가지구 오라구 안했나?"

"아주, 인제는 다시 잘못 안 한다."

구 막, 싹싹 빌구서는 그날부터 버릇을 싹 고쳤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20분경
구 연 자 : 김 정애(여,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대전시 선화동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장소 : 해미면 동암리 332—5 윤 상석 이장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이장 댁 안방에서 이야기판을 벌이고, 같은 마을의 오 수본(남, 75세)씨, 오 영렬(여, 65세)씨 등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을 때, 구연자 김씨가 왔다. 이야기판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 채록자와 오영렬씨의 권면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김씨는 기억력도 좋고, 구연 능력도 좋았다. 이야기를 더 해 달라고 했으나, 바빠서 빨리 가야 한다고 돌아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두 편의 이야기를 더 구연하였다.
청 중 : 마을 아주머니 4명, 오수본씨, 동행한 김창진 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본적지(친정)에서 친정 어머니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손주들을 데리고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30. 지드란 개가 지드란깽깽했다

T 해미면 동암리 ②—A면

지다란 할머니가 지다란 지팽이를 짚고, 지다란 뒤깐으으로 지다란 똥을 누러 갔는디, 지다란 가이(개)가 지다란 똥을 먹을라고 하니께, 지다란 지팽이로 지다랗게 쎄리니께(때리니께), 지드란깽깽 지드란깽깽하구 도망갔다구 할머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더먼 그류.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25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31. 지렁이고기 먹고 눈 뜬 시어머니

T 해미면 동암리 ②—A면

*줄거리

옛날에 가난한 며느리가 눈먼 시어머니께 드릴 것이 없어서 생각다 못해 지렁이를 잡아 찌개를 해 드렸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면 보일려고 며느리 안 보게 찌개 건데기를 하나씩 자리 밑에 두었다.

아들이 돌아오자 어머니는 며느리가 맛있는 것을 주어서 이렇게 살이 쪘다고 하면서, 자리 밑에 두었던 것을 꺼내 보였다. 이것을 본 아들이 깜짝 놀라 지렁이라고 소리치자 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눈을 떴다.

옛날이 어떤 사람이 살았는디, 시어머니가 앞이 어두워. 앞 어둔 사람은 인저, 여러가지를 못했쌌는디, 아들이 어머니 잘 모시라구, 인저 마누라 보구서 어머니께 공경 잘 하라면서 워디를 갔나비여, 아마.

그랬는디, 며느리가 너무 가난하니께, 뭘로 대접할 게 옵써. 그래, 시궁을 파 가꾸, 인저,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눔을 찌개를 해서 드리니께, 며느리가 물 가질러 갈 적마다 하나씩 자리를 떠들고 넣었디야. 그거 지렁이를 건져서. 〔옆의 부인 : 하도 맛있으니 그랬지.〕 예.

인저 아들이 참, 돌아왔더래유.

"아이구, 난 이렇게 에미가, 이렇게 맛있는 걸 해 주어서, 이렇게 먹구 살이 쩠다. 이거 좀 봐라."

그래서, 보니께 지렁일러랴.

"아이구 어머니, 지렁일세!"

그러니께,

"에이?"

하고 눈을 떴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2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종례(여, 55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화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20—2
채록 장소 : 앞 이야기와 같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윤 상석 이장댁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조금 있으니까 구연자 김씨와 동암리 부녀회장 김 창화씨 등 마을의 부인 4명이 왔다. 그래서, 오전부터 함께 있던 오 영렬씨, 이장 부인 등과 함께 윤 상석 씨의 민요를 듣고, 수수께끼를 구연한 다음, 다시 이야기판을 벌였다.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유도하여 시작된 것임.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아이들에게 더러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32. 귀먹어 3년, 눈멀어 3년, 벙어리 3년

T 동암리 ②—A, B면

***줄거리**

옛날에 한 시골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어머니가
"시집살이는 귀먹어 3년, 눈멀어 3년, 벙어리 3년, 9년은 해야 한다."
고 했다.
그 처녀는 시집을 가서,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벙어리 며느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친정으로 쫓겨가던 며느리는 뒷산에서 노니는 꿩을 보고,
"꿩은 지금도 옛날같이 날고 있구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가마꾼들은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 알렸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후, 며느리는 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다.

옛날에요 어떤 산골 처녀가 인제, 시집을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엄마가
"시집가서 시집살이를 인저, 9년은 해야 다 한다. 벙어리되서 3년, 귀멀어서 3년, 눈멀어서 3년, 이렇게 9년을 살아야 시집살이 다 한다."
구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저 그 처녀가 시집을 가 가지구, 인저 벙어리되서 3년이라구니께,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라구 해두 대답두 않구 그냥 고개만 끄덕, 뭐 봐두 뭐 그런 반응도 없구, 그럭해서 참 4~5년을 살았드래요.

그래 가지구, 하루는 그렇게 벙어리됐다구, 그 시아버님이 행세께나 하는 분인데, 그런 양반댁에서 벙어리 며느리를 데꾸 산다는 게 수치 아니냐구. 그래서 하루는 종들을 시켜가지구 며느리를 인저 데려다가 자기 친정으로 인저 보낼라구, 가마 안에다 태워 가지구 갔었대유, 거기를. 가는디, 하두 그 며느리가, 본인이 타고 가며 보니께, 저기 뒷산에, 인저,

꿩이 '푸드득' 하고 날르니까,

"아이구, 옛날같이 지금두 꿩이 날르고 있구나."

그 소리를 속으루 헌 소리를, 그 인저, 가마를 태 가꾸 가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래서, 인저 가마를 멈추구, 그 인저, 그 시아버님이 인저 그 뒤에 사인교를 타고서 오는데, 멈추고 쉬니까, 왜 쉬냐구 그러니께, 그 한 누구야, 가마 메메고 가는 이가,

"안에서, 가마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구 그러니께,

"무슨 소릴 하더냐?

구 허니께, 〔Tape 교환으로 잠시 중단〕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두, 이렇게 가마 안에서, 옛날과 같이 뒷산에서 꿩이 날른다구 그러는 거 같다."

구 그러니께, 인저, 가마를 멈추구, 시아버니가

"며늘아가, 너 진짜 이 소리 했냐?"

구 그러니께, 네, 했다구, 옛날같이 그 뒷산에서 꿩이 그렇게 날른다구 그런께, 그 가마를

"야, 이거 진짜 잘못 했다."

구 거기서, 그 앞에서 참 시아버님이 사과하는 뜻으로 자기를 뉘우쳐 가꾸 다시 그 가마를 시댁으로 왔드래유.

그런디, 인저 그 여자가 그 꿩을 뜯어 가지구, 그 꿩을 포수머라 잡으라구 그러드래요,

시아버니가. 그래서, 세워 놓구서, 꿩을 잡아가지구, 그눔을 가지고 왔대요, 꿩한지(꿩까지). 잡아 가꾸 와서 며느리더러 그거를,

"맛있게 볶아 가지구 먹자."

구 그러니께, 그 며느리가 그 꿩을 물에다 투겨서 뜯으면서, 그 노래를 하더래유.

"투득투득 저 날개는 시아버님 잡수시구, 요눈조눈 눈깔이는 시어머님 잡수시구, 꼭꼭 쪼는 저 주둥이 시누님이 잡수시구, 다리다리 뻗던 다리 우리 서방님이 잡수시구, 가슴 가슴 썩던 가슴 요내 내가 잡수신다."

구 노래를 막 해가며 그걸 뜯더래유.

그랬다는 옛날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래 가지구, 그 며느리를 그 날부터 인저, 시아버님이 그렇게 잘 참 다스리구, 똑똑한 며느린데 워째서 그렇게 말을 안 했느냐구 그러니까 그때서 하드래유.

"우리 친정어머님이 시집을 보내면서, '귀멀어서 3년, 눈멀어 3년, 벙어리 되서 3년, 9년만 살면 시집살이 다 한다.'구 해서 그거를 순종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입을 안 열었다."

구 그래 가지구, 그 시아버님이 너무너무 똑똑하다구, 막, 그래, 잘하구 살았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경
구 연 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08—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8~9세 때 친정 어머니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마을의 친구, 친척들과 삼 삼으면서 더러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33. 가재에게 눈을 빼앗긴 지렁이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가재는 목에 금띠를 둘렀고, 지렁이는 눈이 있었다.

지렁이는 가재가 금띠 띤 것이 부러워 그것을 자기의 눈과 바꾸자고 하였다. 가재가 좋다고 하여, 서로 바꿨다.

눈도 없이 금띠를 두른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렁이는 가재에게 눈을 도로 달라고 했다. 눈을 주기 싫은 가재는 뒷걸음질하여 도망을 했다.

그 후, 지렁이는 그게 분하여 '또르르'하고 운다고 한다.

옛날에, 지금은 인저, 가재가 눈이 배기구, 인저 그랬구. 그전에, 지렁이는 눈이 옛날엔 배기구, 그 지렁이 보면 여기가 금이 있지. 하얀 거 이렇게. 그거를 가재가 가졌었대유.

그런디, 지렁이가 가재를 보니께, 금띠 띤게 그렇게 막 욕심이 나 가지구 하루는 가재한테,

"야, 나 너 눈 주께, 너 금띠 나 줄래?"

그러니께, 참 가만히 생각하니께, 가재가 눈 없이 까짓거, 금띠만 띠면 뭐하여, 그러니께 인저 가재가

"그러자."

구. 그래서, 인저, 금띠를 인저, 지렁이 벗어 주구, 지렁이 눈을 인저 가재를 줬대유. 그래 가지구, 며칠 바꾸다 보니께, 눈이 없으니께 뭐 허유. 그거 못살겠지.

그러니께 막 지렁이가 가재한테 가서 눈 달라구 그러니께, 막 뒤루 도망친다는 게 그럭하구. 밤에 '떠르르'하구 지렁이가 울잖어. 그게 그렇게 눈을 뺏기구 안달을 하구 운다구 그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경
구 연 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08—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친정어머니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34. 달라지 고개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남매가 고갯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 옷이 흠뻑 젖었다. 뒤따라 가던 남동생은 비에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은 누님의 풍만한 육체를 보고, 성욕이 일었다. 이를 참을 수 없었던 남동생은 길가에 있던 돌 위에 자기의 성기를 올려 놓고 돌로 찍어서 죽고 말았다. 이것을 본 누님은 "달라고 하지 왜 죽었나!"하고 통곡하였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달라지 고개'라 하였다.

옛날에 남매가 여행을 가는디, 아 누님이 참 삐비속같이,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구서 가는디, 난데없는 소나기가, 낮에 주룩주룩 오더래유. 동상은 뒤따라 가구, 누님은 앞엘 가는디, 고 비맞아서, 그 잠자리 날개 같은 놈이, 옷이가 착 감겼으니께 얼마나, 살이 다 다 붙어 가꾸 여기저기 다 골고루 다 뵈지 않겄슈. 그러니께, 아 누님은 기래두 그냥 참 워치게 잘 생기구 그랬으니께, 고게, 참, 염치없는 게 뭐라고 했던 모양인 겨.

그러니께, 뒤따라가다가래미, 달라지 고개서, 그놈을 돌목쟁이(돌멩이), 워디가 두 개가 있었던지 내놓고,

"이 염치없는 것아 누님인데 이런다."

구 허면서 직살내서 죽었대유.

아, 죽고 보니께, 제 몸이 이런 게 골골이 다 착착 붙어서 뵈니께,

"달라구지, 왜 죽었느냐? 죽지 말고 사는 게 좋은 걸. 한 번 달라구지. 그까지 꺼 선 입맛 가신듯이 입만 벙그리지 않으면 괜찮은 걸 달라구지 왜 죽었느냐?"

구 해서 달라지 고개랴.

〔조사자 : 달라지 고개가 이 근처에 있나요?〕 예, 해미면 오남리에 있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10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8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바다에 가면서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달한 것임

35. 중들의 의지력 시험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어느 절의 주지가 자기의 후계자를 뽑기 위해 열 명의 중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주지는 열 중의 사타구니에 작은 북을 매달게 하고는, 한 사람씩 차례로 얇은 옷을 입은 예쁜 여자의 뒤를 따라서 돌게 하였다. 모두 '둥둥둥' 북소리를 내는데, 한 사람만은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어찌나 힘이 좋았던지, 성기가 북을 찢어 버렸기 때문이다.

주지는 그 사람을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뽑았다.

옛날에, 어느 저기, 주주(주지)스님이, 자기는 다 나이가 먹어서 주주 생활을 떠나야 될 텐디, 상좌를 하나 구해야 되거든. 그런디, 어느 누가 의지력이 많은 줄을 물러 가지고, 그 참, 그거 보고 뭐라구 허나? 그냥 중보고? 상좌를 허야할 텐디, 상좌를, 인저, 그 은절을, 큰 절이니까, 맡길 사람이 인저 엎어 가지고, 몇 군데, 그 중들, 한 열 정도를 오라구 그랬대요.

오라구 그래서, 인저 그 자기, 뭐지? 자기 사는 그 방으로 오라 그래가꾸, 열명을 쭉 앉혀 놓구서, 예쁜 아가씨를 아주 얇은 옷을 입혀 가지구, 그 앞으로 살살 거닐게를 했더래유. 여자한테, 그래 가지구, 이제 열명을 쭉— 세워 놓구, 북 하나씩을 껴 놨다. 여기〔몸의 아래쪽을 가리키며〕 가루쟁이다가. 그래 가꾸서는, 그 여자가 얇은 옷을 입구 돌아다니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북을 안구 돌으라구 그랬대유. 여자를 따라서, 몇 바퀴를. 그래 여자가 3바퀴면 3바퀴를, 돌으라구 허니까, 북을 그냥 '둥둥둥둥' 치더래유. 그 여자를 보고, 고추가. 그래 가지구 '둥둥둥둥' 치는디, 아홉이가 다 그렇게 둥둥소리가 나더랴, 북소리가. 껴 가꾸 대니는데, 여자 따라서 허는디.

그런디, 하나는, 열 사람이 마지막인디, 영 소리가 안 나더랴. 그래서, 인자 그거를 참 보니께, 스님이 보니께, 주주가. 이— 그만 너무 쎄서 북을 찢구 들어갔드랴. 그래 가지구,

"아, 니가 의지가 큰 놈이구나."

말야. 그래서, 그이를 상좌를 모셨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13분경
구 연 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08—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젊었을 때 시주 받으러 다니는 중으로부터 들었음. (불교도인 그 집에서는 가끔 스님을 재워 주었다고 함.)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36. 갈매기가 된 여동생(1)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내, 여동생과 함께 바다에 나가 게를 잡고 있었다. 그들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게를 잡았다.

그는 먼저 자기의 아내를 업고 깊은 곳을 건너왔다. 그가 다시 동생을 업으러 갔으나, 여동생은 이미 바닷물에 휩쓸려 버렸다. 그 여동생의 넋은 죽어 갈매기가 되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는디, 그 바다를, 그런께 인저, 올케랑, 그런께 인저, 오빠랑 동생, 여동생이랑 이렇게 바다를 갔는디, 게 같은 걸 열심히 잡아 가지구, 나올 때가 되니께 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디, 인저, 그 물이 들어 오는디, 빨리 가야할 텐디, 골막(깊게 패여물이 흐르는 골) 이렇게 내, 갯가가 있어 가꾸 거길 건너는데, 인저, 오라버니가 동생 젖혀 놓구, 오라버니가 자기 부인만 그냥 덜렁 업구서, 그 고개를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인저 동생을 또 업어다 놓을라구니까, 물이, 그새 휩쓸려 가지구서, 동생은 떠내려가서 죽었지. 그러니께, 인저, 그 죽은 넋이가 갈매기가 되 가꾸서 물 들어올 때 되면은 그 갈매기가 '가욱가욱' 그래가면서 운다구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15분경
구 연 자 : 김 종례(여, 55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화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20—2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한 적이 없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37. 황새가 우렁이 잡은 이야기에 놀란 도둑

T 해미면 등암리 ②—B면

*줄거리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온 할아버지가 밤에 할머니에게 황새가 우렁이 잡아먹던 일을 이야기 했다.

"엉금엉금 긴다."

"둘레둘레 본다."

"딱지를 뗀다."

"저 놈의 눈깔."

그 때 마침, 그 집에 들어왔던 도둑이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자기의 행동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인 할아버지에게 잘못을 빌었다.

옛날에요, 노인 두 냥반이 살았는데, 인제, 들에 나가서 구경하신 것을 집에 와서 얘기를 허는 중인데,

"엉금엉금 긴다."

그러니까, 인제, 황새가 기는 것을 본 거지요. 그때 도둑놈이 마침 왔다가서 바깥에서 듣구요,

"아이구, 내가 들어오는 걸 봤는지 어째 이상하다."

하구 가만히 서서 있다가, 둘레둘레 보니까, 인제 할아버지가

"둘레둘레 본다."

허니께,

"이게 분명히 날 본 게라구. 에이구 밥이나 훔쳐 먹구 가겠다."

하구, 소당을 열었대요. 그러니께,

"딱지를 떤다."

그러니깐,

"아이구, 이게 분명히, 대관절 나를 보구 하는 건지 안 보구 하는 건지 모르겠다."

구 문구녕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께,

"저 놈의 눈깔."

해 가꾸, 펄떡 주저앉아서,

"아이구, 할아버지 잘못했다."

구 해서 붙들렸대요.

그게 인제 들에 나가면, 그걸 많이 보지요. 옛날엔, 참 황새도 많았구, 우렁도 많았구, 그러니께, 나가서, 인제 그걸 구경하구, 들에 갔다 오신 영감이 자기 할멈한테 얘기를 했

지요. 구수하게. 헌다는 것이 인제 도둑이 왔다가, 말과 자기 행동이 거의 맞아 가꾸 그렇게 된 거지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18분경
구 연 자 : 김 정애(여,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대전시 선화동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38. 배서방과 공서방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배씨 성을 가진 사람이 남의 집 일꾼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성을 물은 다음,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배를 그려 놓았다.

이튿날, 주인은 자기가 그려 놓은 동그라미를 보고 그 사람을 '공서방'이라고 불렀다.

일꾼이 '나는 공서방이 아니라 배서방'이라고 하니, 주인은 배에 꼭지를 그려놓지 않아서 잘못 불렀다고 했다.

옛날에 그, 저기, 상전 골리느라구요, 부잣집에서 사는, 그 참 상전이, 일꾼을 하나 쓰는디, 그 일꾼 성이 뭐냐구니까,

"내 성은 배가라."

구 그랬어유. 그런디, 인저, 배가라구 그랬어유.

그런디, 배가라구 그랬는디, 그 할아버지는 배가라는 것을 꼭지는 안 그리구서 그냥 똥그란 공만 그려 놔서, 그 이튿날 아침에

"배서방, 배서방."

해야 할 텐디,

"공서방, 공서방."

하니까, 그 일꾼이,

"누구를 찾었냐?"

그래.

"자네를 찾었네."

그러니께,

"나는 공가가 아니라 배가울시다."

그러니껜, 그 주인네가,

"아이구, 내가 꼭지를 안 그려서 공가라구 그랬다.

구 그런 얘길 들었어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20분경
구 연 자 : 김 종례(여, 55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화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20—2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39. 나비가 된 처녀와 총각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양산북이라는 여자가 남복을 하고서 수양대라는 남자와 한 서당에서 공부를 하며 서로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날 수양대가 몹쓸 병에 걸려 죽었다. 양산북의 부모는 딸에게 말했다.

"수양대는 오래 전에 너와 정혼했던 남자다. 복(服)이나 입어 주어라."

양산북은 소복을 하고, 수양대의 무덤에 가서,

"이승의 부부가 못되면 저승의 부부라도 되자."

고 하면서 통곡하였다. 그리고, 묘의 둥을 세번 두드리니 묘가 갈라졌다. 양산북은 그 속으로 들어갔다.

며칠 후에 두 사람은 노랑나비, 흰나비가 되어 날아 갔다.

옛날 어느 동네에, 양산북이라는 여자하구, 수양대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대유. 그런디, 인저, 한 서당에 글을 읽어두, 그전엔 남복하고 읽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못하구 읽었죠. 그런디, 인저, 엄마, 아버지는 옛날부터 이마사돈을 했었대요. 애기 낳기 전에.

"낳걸랑, 아들 딸을 낳걸랑은 그렇게 혼인을 하자."

구. 그래, 같이 인저, 한 서당에서 글을 읽어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르구, 자기들끼리 인저, 커가며 읽은 거죠.

그래 가지구,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 정도 시집갈 나이가 되고,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그 수양대란 남자가 괜히 몹쓸 병이 걸려 가지구 죽었어요. 수양대가 그래 가꾸 양산북이가 그 수양대라는 묘에 가서 막 울면서,

"대야 대야 수양대야, 북아 북아 양산북아 이승부부가 못되면은 저승부부나 되어다오."

하면서 묏등을 세 번을 발로 굴르구 참, 한동안 울었대요, 거기서. 한동안 울다 보니까, 묏등이 갈라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저기 그 양산북이라는 여자가, 저두 인제 그 모이 속으로 들어갔죠. 같이 인저 저승부부가 될라구. 들어갔는데, 그 후로 얼마 있다가 그 다시 변화해서 노랑나비하고 흰나비하고가 됐다구 그래요.

〔채록자 : 그럼 누가 노랑나빈가요?〕

여자가 노랑나비 아니, 남자가 노랑나비, 흰거는 복을 입었으니까, 인저, 여자구, 그런데, 인저, 그 양산북이가 그렇게 인저, 그 남편 무덤에 가서 우는 사연은, 집에서 죽으니까 그때 부모덜이,

"수양대란 남자가 너의 후일에 배필이 될 남자인데 죽었다. 복이나 입어 줘라."

구 그래서 복을 입었어요. 지가 말 거꾸로 했네. 복을 입구 가서 그 남자 무덤에 가서 울면서, 그렇게 그 아까 한대로

"이승부부가 못되면은 저승부부나 되어 달라."

구 막 발을 구르니까, 묏등이 갈라져 가지구 그 속으로 들어갔었대유. 그 양산북이가. 그래 가지구 그 후루 며칠 있다가 노랑나비하구 흰나비가 됐다구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25분경
구 연 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08—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아이들한테 한 번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40. 끝이 없는 이야기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부자가 자기에게 듣기 싫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

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광고를 하였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찾아와 이야기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산을 넘고, 또 넘어가니, 거기에 큰 소나무가 있읍니다. 그 소나무에서 솔방울 하나가 데굴데굴 굴러갑니다."
얼마 있다가 또 말했다.
"데굴데굴 굴러갑니다."
이 말만을 며칠 동안 계속하자 부자는 듣기 싫다고 하고는 그를 사위로 삼았다.

옛날에요, 얘기를 좋아하는 주인 영감이 있었대요.

주인 할아버지가, 그런데, 인제, 딸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광을 내기를, 아주 옛날 얘기를 너무 좋아해 가지구, 인제, 먹는 것두 참 제쳐 놓구, 옛날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노인네가 너무 즐겨 가지구, 인제 방을 붙였어요.

"옛날 얘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딸을 주겠다."

구 그래놓구 기다리니께, 수없이 이사람 저사람 와서 얘기를 허니, 끝이 있잖아요? 다 끄치고 가면은 그만이구, 그만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해 가꾸 와서,

"그 산넘고, 또 산 넘어가니, 큰 왕솔이 있더라구요. 왕솔에서 솔방울이 하나가 뚝 떨어졌다구요. 그래서, 그 산을 데굴데굴 굴러 가는디, 한없이 지금 굴러갑니다."

아, 그래, 인저, 얼마 있다 주인이,

"그래서?"

"지금 굴러가구 있어요."

또 얼마 있다,

"또, 굴러갑니다. 또,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또 굴러갑니다."

이것을 밤새 되풀이 하니께, 이 할아버지가 그러다 못해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러구나서, 인저 날이 새니까 영감님이

"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지금두 굴러가고 있읍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께,

"그려, 너는 얘기 끝이 없으니께, 우리 사위 되라구 말여."

그래서, 딸 얻구 부잣집 사위 됐대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28분경
구 연 자 : 김 정애(여,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대전시 선화동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었음. 자꾸 이야기해 달라고 졸라서 귀찮

아지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41. 방귀 잘 뀌는 여자

T 해미면 등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남편의 노름빚에 시달리던 여인이 빚장이가 찾아 오면 방귀로 응대를 하였다.

빚을 받으러 다니던 남자는 그 여자가 방귀를 잘 뀌는 것을 알고는, 방귀뀌기 내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 여자가 이기면 빚을 안 받고, 그 남자가 이기면 그 여자의 집을 내놓기로 하였다.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시합을 했는데, 그 남자는 스물 다섯번을 뀌었으나 그 여자는 훨씬 더 많이, 리듬에 맞춰 방귀를 뀌었다.

그 남자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노름빚을 탕감해 주었다.

옛날에 노름쟁이가, 그 전엔 투전쟁이라구 그랬죠.

그런데, 그 분이 노름빚을 아주 너무너무 져 가지구, 날마다 노름빚쟁이가 오는거야, 인저. 그러니께, 인저, 귀찮으니께, 드러누워서 앓는다구 그러구, 각시를 인저 내보냈거든유.

그런디, 하루는 꾀가 나더래, 그 각시가.

"요, 저 빌어먹을 거, 아주 오면은 대답을 방귀로 뀌어 본다."

"전장 집에 계세요?"

그러면

"뽕."

그러면, 인저, 부애나지 않어? 사람은 있는데, 인저 방구만 끼니께, 부애나니께, 점점 부애나 가지구, 또 인저, 또 하면,

"주인장 기세유?"

그러면,

"뽕."

하구 뀌거든.

들어가서,

"아니, 사람은 있는데, 방구로 그렇게 뀌느냐?"

구 그러니께,

"인저, 빚 많이 지고, 먹을 것두 없구 그래서, 앉았다 보니께, 방구만 십덴다."

구 말도 안 나오구, 인저 방구만 나온다는 겨. 그러니께, 그러면은 그이 말 한 마디 하는

대로

"뽕 뽕 뽕뽕뽕."

아주 요렇게, 막 리듬을 맞춰서 끼더래.

그러니께, 그니가 인저, 와 가지구,

"당신 얼마나 방귀를 잘 뀌나 그러면 아주 이 집을 다 부치구 해 보자."

구 그러니께, 그 남자 그러니께, 여자가 아주 뭐 말두 않구 "뽕 뽕 뽕" 뀌거든. 자신 있다구.

"그러면은, 내일 아주 대회를 허자."

그래서 인저, 동네, 그막, 참, 판사 같이 잘, 그 전에 회장이니 뭐니 있었잖아요? 그런디, 그 분들을 데려다 놓구서,

"아주 판사를 앉혀 놓구 허듯이 허자."

구 그러니께, 그러자구 소리를 인저 방구로 "뽕 뽕" 그러거든.

그러니께, 그 이튿날 아침에 동네분들 전부 모여 가지구, 방구를 뀌는데 집을 다, 자기네 있는 재산, 그 남자 빚진 것 자기가 뀌어서 지면은 빚을 안받기로 하고, 여자가 지면 그 집한치 다 그니가 차고 들어오는 거야, 인저. 그래 가지구 시작하는디, 아침 먹구, 그 남자더러 인자 뀌라구 그러래요, 여자가.

"당신 아주 실력발휘 해 보라구."

그이는 뀌다뀌다 스물 댓방 뀌더니, 못 뀐다구 허더래. 많이 뀌었지.

그런데 인저 그 여자는 인저, 참, 방구 한 대 뀌면 징을 한 번씩 이렇게 울리는데, 스물 다섯번을 뀌구서는, 그 뒤로부터는 '뽕 뽕 뽕' 이렇게 스물 다섯번을 뀌더니 그 뒤로는 '널리리 뚱기땅'해가며, 그 여자가 '널리리 뚱기땅 뽕 뽕 뽕' 그 막 박자를 맞춰가며 뀌떠래. 그냥 줄줄이 막 해가며, 그러니께, 막 뭐 '뽕 뽕 뽕' 스물 다섯방은 그냥 '뽕 뽕' 징치듯 하더니, 그 뒤로는 '널리리 뚱기땅'해가며 막 뀌는디, 그 남자가

"이젠 됐다구. 빚, 인저 아주 그거루 다 갚자."

구 그래서, 여자가 너무 방귀 잘 뀌어 가지구, 남자의 노름빚 다 갚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08—5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친정아버지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42. 아버지의 거짓 죽음과 딸의 울음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딸을 여읜 아버지가 오랫만에 딸네를 갔는데, 딸은 좀처럼 마르지 않는 달기씨개비를 베어다가 널면서, 그게 다 마르면 밥을 해 준다고 했다.

패씸하고 속이 상해서 그대로 돌아온 아버지는 식구들을 시켜 딸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기별하게 했다.

소식을 들은 딸은 달려와 울면서 말했다.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쌀밥하고, 닭 잡아드리니까 그렇게도 잘 잡수시고, 논밭을 베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유언이나 하고 돌아가셨나요!"

죽은 척하고 드러누워 있던 아버지는 딸의 말이 하도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딸은

"아버지 죽음이 진실이 아닌데, 내 울음이 진실이겠읍니까?"

하고 말했다.

옛날에 아버지가 따님네를 갔더래유. 따님네를 갔는디, 딸네는 부자면서도 달기씨개, 그 한 4~5년 되어도 안 말르는 달기씨개(달기씨개비)를 해다 널면서,

"아버지, 이눔 말려서 오려(일찍 거두는 벼) 밥좀 해 잡숫고 가슈."

그러드랴.

"그러라."

구 했는디, 그게 말르는 거유. 오려 밥 해 먹구 가라구 해서, 딸이. 그러니, 그건 생전 안 말르는 놈인디 그걸 언제 말려서 오려 밥을 해 먹구 가.

"에이, 간다."

왔지. 아무 밥두 못 얻어 먹구.

집에 와서 생각허니께, 정말 참 괘씸하거든. 아버지가. 자리치구서래미,

"나 죽었다구, 그 딸네를 알게 하라."

그년이라구 했디야,

"그년네 좀 알게 하라."

구니께, 그러라구. 알게 해서, 인저 오는디, 아버지는 죽었다구 칠성판이가 그냥 눈감고 워치게 드러누웠는데, 시절(생각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던지 워쨌던지 아버지 죽었다니께 오면서래미, 아 딸이 시절이었던 게여. 암만해두 오면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구, 아버지 엊그제 우리집이 오셨는디, 씨암탉 잡구 오려밥 해 주니께, 잘도 잡숫더니, 워째 돌아가셨느냐! 그 물논 서 마지기 하구, 개똥밭 하고 준다구 하더니, 그 유언이나 하구 돌아가셨느냐?"

구 하며 '아이고 지고'우니께,

"야 이년, 내가 원제 느이 집이서 오려밥 해먹구 왔니? 이년 순!"

그러니께,

"아이고, 아버지 죽음이 진실 죽음인게루? 내 울음이 진실 울음인게루?"

허구서는 들구 도망가 버리드랴. 그런 자손도 있다니 그게 쓸 자손이유.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43. 나뭇군과 동자삼

T 운산면 여미리 ①—B면

***줄거리**

가야산의 동자삼이 남자 아이로 변신하여 해미장에 와서 팥죽을 사먹고, 갈 때는 조밥을 사 가지고 가곤 하였다.

한 나뭇군이 이 아이의 뒤를 따라가 보니, 아이는 그 조밥을 돌틈에 조금씩 넣어 주는 것이었다. 나뭇군은 그곳에 표를 해 두었다.

그가 나무를 해 가지고 오다가 표시해 둔 곳을 파 보았더니, 속이빈 풀 뿌리 속에 조밥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캐 가지고 와서 어른들에게 물으니 오래 묵은 동자삼이라 하였다.

그는 그 나머지 것도 다 캐어 부자가 되었다.

가야산에 그 말이죠, 동삼이, 동삼이란 그 산삼이죠. 그전에 그 해미 읍성 옆에 시장이, 해미장이 크게 섰어요. 그랬는디, 해미 장날이 5일하고 10일하구 서거든요, 해미장이. 그런디, 그 동삼, 말하자면, 삼이 애가 되 가지고, 꼬마가 되 가지고 다녔답니다. 해미장에 팥죽을 사 먹으러. 단팥죽을 사 먹으러.

그랬는데, 인저 가면은 단팥죽을 자기가 사먹고, 스슥밥(조밥)을 꾹 사 갖고 올라갔답니다. 그 산으로.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나뭇군이, 그러니까, 떠꺼머리 총각이죠. 장가도 못 들고, 나무해서 팔아서 먹구 사는 나뭇군이, 하루는 나무를 갔는데, 꼬마가 그 스슥밥을 안구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산 속으로 스슥밥을 안구 가니까, 이상하다 해서 가서 쫓아가 본 결과, 가 보니까, 어느 돌을 떠들고 스슥밥을 조금 넣구, 조금 넣구, 전부 밥을 먹이드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뭇군이 하도 이상스러워서, 넣는 데마다 표를 해 놨대요.

표를 해 놨는데, 그, 나중에 나무를 다 하고 내려오다 스슥밥 놓인 디를 한번, 삼인 줄 모르고, 파 봤것죠. 어떤가 하고. 그러니까, 그 삼이 정 묵어 가지고, 속은 비고 겉이만 살아 가지구, 그 속이가 밥이 하나씩 들었드래요, 삼속에가.

그래서, 그거를 캐 가지고, 해미 읍성에 내려왔는데, 인제 자기 집에 갔것죠. 갔는데, 노인네들이, 동네 노인네들이,

"이런 속이가"

인저, 자기는 삼인 줄도 모르고,

"이제 그 밥이 들었다."

고 그러니까, 일루 보구, 저루 보더니,

"이거 워서 캤느냐?"

구 말여 그러니깐,

"또 잔뜩 있는 거 안다."

구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너 올라가 보자."

그러니께, 이 암것두 모르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산삼을 다 캐가지고, 장가도 잘 들고, 참, 부자로 살았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데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0시 10분경
구 연 자 : 한 정수(남, 40세, 농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여미리 마을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구연자는 여미리 새마을지도자로 조사단 일행이 간다는 연락을 받고 마을회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앉아 이 지방의 유래와 전설을 듣던 중 가야산 산신령 전설을 이야기 해달라고 하자 이 이야기를 구연했다.
청 중 : 마을 사람 5명, 동행한 김 태곤 교수, 김 창진 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전에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44. 벼룩 잡으려고 집에다 불을 놓은 사람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어떤 사람이 벼룩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방안에다 나무를 쟁이고 집에 불을 지르고는 벼룩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고소해 했다.

갱굴이라는 디를 가면, 연안 이씨, 입술이 이렇게 [두 손가락을 입가까이에 대며]두둥그러져서 입술부자라구 했슈. 별명이지유. 그 집이 빈대가 일어 가지구, 빈대가 아니라 벼룩이유.

육 칠월판에 벼룩때매 잠을 못자니께 칠월판에 푸장 나무를 해다 방에다 쟁이구서, 벼룩 죽인다구 불을 놨슈.

연기가 풍풍 나니께,

"아, 이생원네 집 저 웬 연기가 저렇게 납니까?"

그러니께,

"벼룩·빈대 잡느라구 방에다 나무 좀 해다가 불 좀 놨어. 놨더니, 그거 타느라구 그러는구먼."

"아이, 집 다 타는 걸유."

그러니께,

"집 다 타는 것보다 벼룩·빈대 잡으니께 재미있세."

했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구 195
채록 장소 : 명천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조사단 일행이 명천리 이장의 안내로 노인회관에 찾아가니, 5~6명의 노인들이 담소하고 있었다. 노인들은 채록자의 취지를 바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바로 이야기판을 벌일 수 있었다. 구연자 이씨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입담이 좋은, 보기 드문 이야기꾼이었다.

처음에는 구연자만 이이야기 했으나 혼자 하는 것은 싱겁다 하여 같은 마을의 최 학재씨와 김 종철씨가 거들었다. 그러나, 그게 잘 안되어 구연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채록자가 답례로 한 가지를 하기로 하고, 구연자와 채록자가 교대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구연자는 20여 가지의 민담을 구연하였다.

청 중 : 마을 노인 5명과 동행한 김 창진선생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45. 어리굴젓도 젓이다

T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어머니가 빨래를 가면서 큰 아이에게 아기가 깨어 울거든 알리라고 했다. 그런데, 한나절이 되어도

소식이 없으므로 가 보니, 아기는 입가에 고춧가루를 잔뜩 묻힌 채 죽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큰 아이는 "어리굴젓도 젖이기에 우는 아기에게 어리굴젓을 퍼다가 먹였더니 저렇게 되었다."고 했다.

부석면 간월도라는 디서 어린애기를 참 어머니가 탄생했는디, 아 빨래를 허러 가면서, 젖떨어진 애 보구서,

"야, 이 어린애 울걸랑은 날 보구 오너서 젖먹이라구 일러다고."

이랬는디, 아 이눔이 한나절이 되두 오면서 일러주질 않거든.

"아 이게 자니께 이러는가?"

하구서, 빨태를 다 해가구 오너 보니께, 어린애가 꼬추가루가 여기가 〔입 언저리를 가리키며〕 빨갛게 묻어 가지구 아주 새파랗게 죽었거든유.

"이게 워째 이렇게 어린애가 꼬추가루가 여기가 묻구 이랬느냐?"

그러니께,

"아 젖은 다 일반이지. 그래서 살강 밑에 가서 어리굴젓을 퍼다 먹였더니 그렇게 빨갛게 죽었읍니다."

이러드래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32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장소,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6. 광문 앞에 매달린 양 의달이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전라도에 사는 양 의달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재상집에 찾아가서 자기가 왔음을 재상께 고해 달라고 하인에게 부탁했다. 하인은 재상이 계신 방문 앞에 가서 말했다.

"전라도에서 양 의달이 올라왔읍니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양의 다리'가 올라왔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광문 앞에 매달으라고 했다. 하인은 명령대로 그를 광문 앞에 매달았다.

전라도에 사는 양 의달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대유. 서울 정재상집이라는, 벼슬 지키는 대감집이지유. 거기를 찾아 갔는데, 대감은 방에서 진지를 잡숫구요, 거기서 일보시는 분이 하나가 있는디,

"전라도서 양 의달이 올라왔다구 가서 좀 일러 주슈."

그러니께, 그 사람이 불쑥 안에 들어가서,

"전라도서 양 의달이 올라왔읍니다."

그러니께,

"그럼 갖다 달아 매라."

사람이 아니구 먹는 양의 다린 줄 알고서,

"광문 앞에 갖다 달아 매라."

이러구서 진지를 잡수시구서 나오시다 보니께, 웬 사람이 꺼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저기 웬 사람을 저렇게 저기다 매달았느냐?"

이러니께,

"아, 양 의달이 올라왔다구 허니께, 매달라구 안하셨읍니까? 그래서, 저는 매달은 것밖에 없읍니다."

이러니께,

"나는 먹는 양의 다린 줄 알았다."

이러시더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장소,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47. 두 남편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 한 여자가 본 남편과 헤어져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 본 남편은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살게 해 달라고 원님께 청원하였다.

원님은 그 여자를 불러 옥에 가둔 다음, 남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말했다.

"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도록 해 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만 옥 안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니 데려다가 장사나 지내 주어라."

지금 그 여자와 살고 있는 남자는 시체를 인수하여 장사지낼 것을 거절했으나, 전남편은 좋다고 하였다.

원님은 전남편으로 하여금 그 여자를 데리고 살도록 하였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여자를 하나 참 본실로다 데리구 살았는디요, 어떤 사람 하나가 홀애비였던지, 그 여자를 얻어다 사는 게요. 그런디, 참, 저 어른 말씀대로, 야중에, 인제, 그 본남자가 여자를 찾고 싶네요. 그래서, 원님한테루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판하러 간

게지유. 가서,

"암치게, 암치게 됐으니 이 일을 어떡해야 옳습니까?"

그러니께,

"음, 그 여자도 데리구 오고, 느이도 둘 들어오라."

구 이렇게 했어유.

이방보구서 갖다 가두라 그랬어요.

"가둬라 이제, 아무날루다 재판을 판결 할 테니까, 여잘랑 가둬 두고서, 남자 느이덜랑은 갔다 그날 오너라."

그렇게 알고서 나갔는디, 그 재판 한다는 날, 야중에 얻어간 사람이 일찍 왔더래유. 그러니께, 원님이 앉으셨다가,

"야, 너를 그 재판에서 이겨서, 너를 그 여자를 얻어 줄라구 했더니, 가뒀더니, 그 여자가 죽었다. 그 장사를 지내 주얄 텐디, 갖다 장사지내 주얄 거 아니냐?"

그러니께,

"본 남자더러 갖다 장사 지내라구 그러슈. 왜 저를 보고 장사지내라구 합니까?"

"그려?"

참 으른들처럼, 〔채록자 일행을 가리키며〕 다 적어 놨시유.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적어 놓구서

"널랑은 그럼 나가서 요기가 있거라."

"본남자를 들어오라구 해라."

본남자가 들어왔는디, 그대루 말을 했시유.

"재판을 해서 너를 이겨서 너를 찾아 줄라구 내 맘을 먹었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죽었다. 그러니께, 갖다 장사 지내야 할 거 아니냐?"

"예, 그 불쌍한 중생을시다. 제가 갖다 장사 지내겠읍니다."

원님이 그 두 사람의 속을 뽑아 보느라구 헌거지, 가둬 둔 여자가 왜 죽었겄읍니까?

아, 그래서, 인저, 그 나간 사람더러 들어오라구 하구, 다 적어 놓구서, 본남자두 오라구 하구, 야중 얻은 사람두 들어오라구 해 가꾸서,

"사람이란 건 경우와 이치를 갖구 사는디, 살았을 적엔 네가 데리구 살아야 옳구, 죽었을 적엔 본남자더러 갖다 장사 지내라구 혀. 에이, 천하에 고약한 사람아."

그래 가꾸서 그 본남자를 찾아 주더래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구연자에게 답례로 한 '첫날밤에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가 구출됨으로써 신랑이 둘이 된 신부가 제기한 소송을 명쾌하게 판결한 원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48. 중이 주고 간 선물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한 중이 가난한 과부집의 단칸방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중이 자는 척하면서 과부를 유혹하려 하자 과부는 중을 크게 꾸짖고, 회초리로 중의 종아리를 때렸다.

이튿날, 중은 과부에게 나무로 됫박하나를 만들어서 주고 갔다. 그 과부가 중의 말대로 그것을 쌀독에 넣어 두니, 끼니마다 그 됫박에 쌀이 가득차곤 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식량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안 이웃동네의 과부가 그 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 중이 와서 자게 되자, 과부는 그 중을 유혹하였다. 그러나, 중은 과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 과부는 중이 주고 간 됫박을 쌀독에 넣고, 쌀이 가득 차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됫박에는 쌀 대신 남자의 신(腎)이 가득 차곤 하였다.

충청도 사람 하나가 강원도를 들어갔는디유, 예전에요, 물레질을 하더래유, 질쌈하느라구요. 무명을, 실을 뽑느라구. 지금은 방직회사에서 실을 뽑지 않읍니까?

밤새 물레질을 하는디, 그 중이 인제 자는디, 방이 단칸방이유. 홑이불루다가 이렇게〔손짓을 하며〕 칸을 막았읍니다. 그러니까, 방이 두 칸이 됐죠. 한 칸이라두. 그 분은 아랫목에서 자고 그 부인은 웃목에서 자는디요, 그 인물을 보니께, 참 중이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드래요. 쫓아가서 다리를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 놓으니께,

"아하, 너머 질을 걸어서, 잠을 좀 험하게 자는고."

허구서 가만히 내려 놨네요, 다리를. 조금 있다가 또, 가서 올려 놓으니께,〔조금 언성을 높여서〕

"하아, 이거 너무 잠을 험하게 자는고."

그러구서 또 내려 놨어유. 쪼금 있다 세번째가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 놓으니께, 예전에는 그 석유가 없구서 돌기름을 짜서 종지에다가 심지를 해 놓고 불을 쓰네요, 그 불을 딱 써 놓더니,

"나가서 종아리채 해가꾸 오라구. 방은 비록 한 칸이지만은 홑이불루다가 막았으니께 두 칸인디, 워따가 오면서 발을 그렇게 아무디다가 들어 얹어 보느냐?"

구 그러니께, 그 의지가 무지하게 많은 여자지유. 그래서 혼나구서는,

"자라구 인제."

종아리를 얻어 맞구서는 잤시유. 자구 일어났는디, 가만히 생각허니께, 그 분이 참 마음도 다부지고, 옳이 사는디,

"에, 표주박이나 하나 파서 준다."

구 됫박을 하나 이렇게 자귀루다가 잘 파서 다듬어서 주면서,

"내가 가걸랑은 동자그릇에 갖다 이 됫박을 넣어 두시요."

동자그릇이란 쌀 넣구서 먹는 쌀통입니다. 아, 그분이 가서 인제 점심 때가 되서 가서 점심을 해 먹을라구 동자그릇에 가서 보니께, 쌀이 한 되 찼거든요. 그래 뭐 끼니마다 가보믄 쌀이 하나씩 차니께, 질삼에서 버는 거는 늘어나가구, 식량을 안 팔어 먹으니께.

그래서, 인제, 이웃에 부인 하나가 있는디, 그도 물어 봤시유. 다같이, 자기두 질쌈하는디, 그 집은 논사고, 소사고, 인저 땅사고 하는 거 보믄, 어디서 생기는 게 뭐이가 한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니께, 정 일러 달라구 허니께, 그런 얘기를 했이요. 그러니께,

"아, 그러냐구. 그 중이 오걸랑 우리두 좀 일러 달라."

인저 그 분이 또 거기를 갔시요. 그 동네를 들어갔는디, 그 집두 찾아 보구 하니께, 그 부인이

"우리집이서 저녁 자시구서, 요기 요 등너머 집이 가면은, 대우도 잘 받을 께고, 거기 가서 좀 주무시라구."

그러니께,

"그러냐구요."

거기를 넘어 갔네요. 넘어가서 자는디, 물레질 그저 한 두어번 하더니, 불을 탁 끄구선,

"에이 자야겠구만."

이러구, 중더러는 아랫목에 들어누우라 허구서는, 자기는 웃목이서 물레질하다 차차 내려오면서 여자가 자꾸 그 중에게다가 다리를 들어 얹어 보네유. 노독(路毒)나서 그런지 고단은 허구 그러니께 본체도 않구 잠을 자는 기여. 자꾸 들어, 뭣허더니 불 써 놓구서는,

"어떤 집이는 표주박 파 줬다더니, 왜 우리는 인사도 않고 표주박도 안 파준대야."

"예, 하나 파 드리지유. 왜 안 파 드리겠읍니까."

아, 표주박을 하나 파 줬는디, 그 참 그 중, 가기 전에 그 모텡이 돌아 가기 전에 동자그릇이다 넣어 뒀는디, 떠들어 봤시유. 떠들어 보니께, 쌀이 괜게 아니라, 그 부인은 남자의 신(腎), 신이 소복하게 한 됫박이 됐네유. 아 그러니께, 인전 갖다가 들어내 버리구 온겨. 멀찌감치, 처음엔 가서, 들어내 버렸는디, 그저 가서 보면 그게 하나씩 있구, 있구, 아주 산처럼 쌓였네유.

그래 가꾸서, 그저 말하자믄 도가품(복수)이지유. 중이 요구했던 것은 안됐고, 인제 요구치 않는데, 그 부인이 저 그거를 자꾸 요구했으니께, 그 원 풀어 주느라구, 그게, 그렇게 했다느만 그리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4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구연자의 앞 이야기에 대한 답례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 이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49. 해인사의 불을 끈 김 복선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김 복선이란 하인이 상전을 모시고 서울을 가고 있었다. 그는 가다가 목이 마르자 말채찍으로 땅을 찔러 물이 솟아오르게 하여 마셨다.

한참 가다가 그는 합천 해인사에 불이 나서 아까운 재물이 다 탄다고 하면서, 자기의 오줌을 말채찍에 묻혀 세 번을 뿌렸다. 서울에 도착한 그의 상전이 해인사로 사람을 보내어 알아 보니, 바로 그 시간에 불이 났었는데, 북쪽에서 몰려온 소나기 세 줄기가 그 불을 꺼 주었다고 했다.

그의 상전은 그가 이인(異人)임을 알고, 그를 속량(贖良)해 주었다.

옛날에 요 근처에 김복선이란 사람이 있었대유. 한번은 그 상전이요, 육 칠월, 아마 더욱 폭염이었던 모양이유. 서울을 가시는디 산곡을 넘게 됐는디유, 아 바쁘기는 한디 왕왕하거든요, 김 복선이가.

"아, 바쁘다. 어서 가자."

그러니께,

"아, 소인 물 좀 먹구 가야겠읍니다."

"이 건곡(乾谷)이서 내깥두 없구 헌 디서 무슨 물을 먹는다구 이러니?"

이러니께,

"소인이 목마르니께 샘을 파겠읍니다."

"바쁜데 어서 가얄 텐데, 무슨 샘을 파."

그러니께, 말 모는 말채, 말채루다가 이렇게[땅에 박는 시늉을 하며] 쑤욱 찔르니께 물고붓이 막 이렇게 올르거든요. 그 눔을 따라 먹구선, 흙으로 다둥다둥 해 놓고 간단 말여.

가더니, 쪼금 있다가 그 말 끌꾸가는 분이 소변이 마렵더래요. 왕왕 하니께,

"야 바쁘다. 어서 가자."

그러니께,

"저 합천 해인사 아까운 재물 다 탑니다. 그 재물 좀 건져 주고 가야겠네요."

그러니께,

"네가 여기서 워치게 그걸 아니?"

"제 눈에는 뵙니다."

그 말채라는게, 이전 저, 말꼬랑댕이 같이 이렇게 또 뭘 답니다. 거기다가. 그걸루다가 오

줌을 거기다 '지르름' 누더니 시 번을 눠서 뿌리거든요.

"인젠, 꺼졌을 테지."

이러구서, 서울을 갔네요.

그러니께, 하, 이상시런 일이니께, 그 사람 몰르게 그 상전이 사람을 하나 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배달부. 아주 급사. 전보 친 거지유. 합천 해인사를 보냈시유.

"어제, 어느 시에 불이 나 가꾸 워치게 되서 불이 꺼졌나 그 내막을 알구 오너라."

"아 불이 났는디, 서쪽에서 소나기 시(세)줄금이 들어와 가꾸서, 그 불이 꺼졌다."

구 이러더라느먼요. 그래서 와서 상전 보구서,

"아무 시인디, 불이 무지하게, 아주 화광이 충천하게 타는디, 소나기 석 줄금 들어와 가꾸서 꺼졌다."

구 이랬시유.

"아, 참 이인(異人)이구나. 이 사람을 내가 부릴 수가 없으니께……."

아주 문서를 다 도려 줬어. 예전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참 고공(雇工)을 하게 되면은 문서를 했읍니다. 그래가꾸서 뭣하는디, 그 문서를 다 들어내 주구선, 아주 하질 말라구 그랬시유. 자기 종노릇 허지 말라구. 이인인 줄 알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0. 상전의 말을 팔아 먹은 김 복선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하인 김복선이 서울에 가서 상전의 말을 팔아 먹고는 말고삐만 손에 감은 채 업드려 있었다. 상전이 돌아와 말을 어쨌느냐고 하니, 그는

"'서울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고 해서 코를 잡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누가 말고삐를 끊고 말을 훔쳐 갔읍니다.

하고 대답했다.

김 복선이 말을 끌구서 서울을 갔는디유, 상전이

"아, 서울이라는 디는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니 말 좀 잘 챙겨라."

하구, 어디로 볼일을 보러 갔네유. 가서 볼일을 보구 오니께, 말을 홀랑 팔어먹었시유, 그

새. 말고삐는 여기다가〔한 손으로 다른 한 손목에 동여 매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엎드리는 시늉을 하며〕 엎드렸거든요.

"야, 말 어쨌니?"

그러니께,

"아하, 참 서울은 눈 읎으면 코 베 먹는다구 허더니, 아이, 저, 코 다칠까 미서워서 지가 이렇게 엎드렸더니, 그새 말을 훔쳐 갔네요."

이러더라는군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앞 이야기에 이어서 자청하여 구연한 것임.

51. 살인을 막아준 점괘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 어떤 사람이 점을 치러 가니, 점장이는 그에게 참을 인(忍) 자를 대문 앞과 방문 앞에 써 붙이고, 이를 보면서 성을 내지 말고 참으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장사하러 나갔다가 집 가까이 이르러 보니, 아내가 어떤 중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두 사람 다 죽여 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헛간에 가서 작두날을 빼어 가지고 나왔다. 방으로 들어가려할 때, 자기가 써 붙인 참을 인(忍)자가 눈에 띄었다. 그는 작두날로 마루판을 찍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방문을 열면서 친정 동생이 왔는데 왜 그러느냐 했다.

그 사람은 그 점괘로 인하여 살인을 면했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참 점을 해 보니께유,

"당체 넘허구 다투지 말구서, 당신은 참을 인(忍)자 하나를 써다 대문 앞에다도 달구, 안방 문 앞에, 들어가믄서 쳐다보는 디다 달구 이러라."

구 점괘가 일러 주더래요, 점쟁이가. 그래, 왜 점쟁이가 그런고 하니, 그 사람의 상을 보니께 살인할 상이요.

그래서, 어디를 장사차로 나갔다가 들어오니께, 참 들어오니께, 자기 부인이 웬 중허구 얘기를 허거든. 이렇게 배깥에서 들어오너서, 가만히 이렇게 저, 뭣을 허니께. 느닷없이 생각해 보니께, 참 눈이서 불이 왔다 갔다 하구 못참겄시유. 소먹이는 여물간에 가서 작두를 쑥 뺐읍니다.

"이것들 둘 다 직여 버린다."

마루를 올라서다가 선생님, 그 참 점쟁이한티 들은 소리가 있으니께,

"아이구, 참으면 먹이 돌아온다고 했으니께 내가 참어야겠다."

마루다가 냅다 작두를 부아김에 내버리니께 '왈그랑' 하구 아주 부산허거든요.

그러니께, 이 여자가 벌써 알구서, 문을 열면서,

"여보시오, 친정 동생이 왔는디, 놀랠라구 왜 그렇게 소리를 요란하게 하십니까?"

이러니께,

"하하, 참 내가 분을 못 참구서 내가 일을 저질렀더라면 처남 쥑이고 여자 쥑이고 할 뻔 했구나."

아, 들어가 보니께, 참 처남이여.

그래서, 그 점쟁이가 상을 잘 봤지유. 그 사람이 살인할 수가 벌써 닿는 줄 알구서, 참을 인자를 써다가 담벼락이다가 붙이구 대문 앞이다 붙이구서 참으라구 해서 그 살인을 면하드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2. 굴에 코를 빠뜨린 김 복선

T 성연면 명천리 ①—A면

***줄거리**

하인 김 복선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굴을 사 오면서 자꾸만 손가락으로 저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코를 빠뜨려서 그것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너나 다 먹으라고 하자, 그는 그것을 맛있게 다 먹었다.

아, 김 복선씨가 또 서울을 갔는디요. 상전이 아마 시장하셨던 모양이유.

"야, 내가 생선을 잘 먹는디, 가서 굴을 좀 사 갖구 오너라."

그러니께, 가서 굴을 사 갖구 오는디, 상전이 다 자시다가 주는 건 나쁘거든요(부족하거든요). 사 갖구 오면서, 상전이 이렇게 쳐다보니께, 손꾸락으루다 휘휘 저스며 오네요.

"야, 임마 든적시럽게 왜 손꾸락으루 그 생선을 그렇게 저스며 오니?"

그러니께,

"코가 한뎅이 빠졌는데, 굴두 코같구 코두 굴같구 해서 그 코 찾느라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이 든적맞은 놈, 니나 처먹어라."
"제 코 지가 먹는 건 약 된대유."
그러구서, 지가 후룩후룩 다 처먹드라느먼그류.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3. 차복(車福)

T 성연면 명천리 ①—A, B면

***줄거리**

그전에 한 나뭇군이 나무를 두 짐씩 해다 놓는 날에는 나무 한 짐이 없어지곤 했다. 그는 그 나뭇짐이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나뭇짐 속에 들어가 있었다.

밤중쯤 되니, 하늘에서 삼태기 달린 줄이 내려와 나뭇짐을 하늘로 올려갔다. 하늘에 올라간 나뭇군은 옥황상제를 만나, 자기에게는 왜 하루에 나무 한 짐의 복밖에는 주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옥황상제는 그에게 10년 뒤에 줄 차복(車福)의 복을 꾸어 줄 테니(借福) 그리 알고 가라고 하였다. 그 후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등짐장수 부부가 그집 헛간에 있는 수레 밑에 와서 아기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차복(車福)이라 하였다. 그 사람은 옥황상제가 말한 차복이가 그 아이인 것을 깨닫고, 그 아이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 주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 다 잘 살았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워치게 간구한지 나무를 한 짐씩 해다 팔아서, 그걸루다가 쌀을 팔아다 먹는디, 날만 궂으면 굶어요. 그러니께,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아 내가 이게 노력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내가 오늘은 가서 나무를 두 지게를 해서 한 지겔랑은 내일 식전에 팔러 가고, 한 지겔랑 밀려 나가면은 날 궂는 날 굶지 않을 게다."
그러구서, 나무를 그날은 두 지게를 해왔네요. 마당에다 놓구서, 가서 팔구오니 보니께, 나무 한 지게가 없시유. 그것 참 괴상시런 일이요.

그 이튿날, 아주 이를 갈구 또, 두 지게를 했어요. 그래서, 한 지게 놓구서, 또 한 지게 팔아 가꾸 오니께, 없어졌어요. 또 해 온 게. 사흘째 해다 놓구서는 자기 부인보구 그랬시유.
"야, 이 나무가 어디로 가는가 자취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내 나무 지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테니, 위서 이렇게 날 꼭꼭 미수꾸리를(포장을) 해 놔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걸 알것다."

밤중쯤, 열두시쯤 되니께, 하늘이서 삼태미 단 줄이 하나 내려오거든유. 그러더니, 나무동을 번쩍 실어서 갖구선 올라가요. 그러니께, 사람할래 가지고 간 게죠, 그날은.

가서 참 옥황상제 앞에 가서 질문을 했시유.

"지가 없이 살기 때문에 나무장사를 해 먹는디요, 어째서 제 복은 이렇게 나무 한 지게, 하루 한 지게 밖에는 복을 안주셨읍니까?"

그러니께, 〔Tape 교환〕

"네 말을 들어보니께 그럴듯두 하다."

그 복, 배급하는, 그 참 회계랄까, 서기보구서 불렀시유.

"야 복 여분이 좀 남았느냐?"

그러니께,

"십년 뒤에 줄 차복(車福) 하나밖엔 없읍니다."

그러니께,

"아, 그 복을 이사람에게 좀 빌려 줘라."

아, 빌려 줬다구 문부에다 다 적거든요.

"너는 인제 이 삼태미하구 내려가서, 굶든 않을 게다. 오늘부터 가면은."

아 그 전에는 뭐, 쌀 한 되 안 꿔 주던 사람들이

"아 자네, 쌀 없걸랑 우리집이 와 쌀 좀 한 섬 갖다 먹구서, 농사두 짓구 나무두 하구 이럭 허게."

자꾸 빌려 준다구 하는 게유. 불 일어나듯 하더래유. 복을 탄 뒤로는. 그래서 인저, 땅두 사구, 소도 사구 해가구서라미 참 부자로 지내지 않겄시유.

소있으니께 구루마를 사서 인제 허창을 지어 놓구서는, 그 허창에다 비만 안맞게 하느라구 구루마를 들여 놨네유. 하루는 등짐장수라는 게 뭐냐하면, 옹기 장수요. 옹기 그릇을 짊어지구서 부인 하나 허구 둘이가 오더니,

"하루 저녁 유해 가야겠읍니다."

이러거든유,

"그럭허라구, 우리 사랑두 넓구 허니 사랑이 들어와서 유해 가라구."

그러니께,

"아니유, 저기 저 허창에서 자두……."

아마 일기가 온순했던 모양이유.

"괜찮습니다."

부득이 혀서(부득부득 고집을 써서) 구루마 밑이다가 자리를 잡구서 거기서 유한다는 기유.

그 주인이 이렇게 방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께, 자기는 방에서 자면서, 그 한 디서 자는 걸 보니께, 좀 불편스런 생각이 들어갔던 모양이유. 나가서 이렇게, 초를 갖구 다니던지 초를

써 놨더래유. 밤중인디.

"워째 이런가?"

허구 가서, 이렇게 보지 않게, 조금 샛들게 가서 들으니께, 임산을 했네유, 그 부인께서. 임산을 했는디, 아들을 낳았다구 그러드래유, 그 부인네가.

"애 이름은 뭐라고 지어야 옳다오?"

"뭐라고 지어. 차 밑에서 낳았으니 차복(車福)이라구 이름짓세."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그 사람의 복을 빌려 왔었는데, 인제 자기는 잘 되긴 틀렸어. 그 해가 아마 십년은 됐던 모양이지유. 그래서 인저 안방 치우구서는 다 모셨시유. 산모가 이렇게 배깥에서 뭣 헐수가 없다구 안방 치우구서는 모시구서, 미역국 끓이구 밥해다가 참 잘 대접했네유.

인제 한 일주일이 지나니께 장삿군은 사흘만 되두 업구나가서 장사를 해야 먹으니께, 간다느만요. 그런디, 일주일만 기달려 가꾸 가라고 했시유. 자꾸 간다는 거유. 일주일인디,

"여보, 그러지 말구서, 당신 등짐장사하는 거 보담은 내 낫게 챈편을 할 테니 내말을 좀 들으슈."

"무슨 말씀인가 허시라구."

"내가 여기 집이, 내집이 즐비하오. 그러니께, 농처도 줄 게구, 소도 줄 께구, 다 내 재산을 아주 반 뻐개서 주겠시다. 그러니께, 당신 장사하는 거보다 나슬테니, 그럭허는 게 어떻겄소?"

아, 왜 등짐 장수하는 디다 대유. 냅다 느닷없는 복이 닥치는데.

"아, 그럼 그럭허자."

구 그 사람 재산하구 자기 재산허구 쩍 뻐개줘 가꾸서, 그 복을 빌려다가, 그 사람 살리구서, 자기두 잘 살구. 이러드라느먼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2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4. 즉시 발복하는 묘자리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강원도 산골에서 숯장사를 하는 총각이 어머니가 죽자, 산 속의 한 곳을 파고 묻으려고 하

였다. 그 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올라와서, 그곳은 자기 조상의 묘이니 그곳에 묘를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가 울고 있으니, 한 노인이 나타나,

"그곳은 가묘(假墓)이니 염려말고 묘를 써라. 축시(丑時)에 하관하면 미시(未時)에 발복(發福)할 것이다."

하고 일러 주어 그대로 했다.

그가 어머니를 묻고 집에 돌아오자 비가 주룩주룩 왔다. 그 때, 길을 가던 한 처녀가 비를 피하기 위해 그 집 추녀 밑으로 들어섰다. 그 처녀는 서울 재상가의 딸인데, 딸의 운수를 겁친 부모가 멀리 산골에 가서 남편을 얻어야 잘 살 것이라 하여 내보냈으므로 떠돌아다니다가 그곳까지 온 것이었다.

총각은 그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숯구덩이에서 금괴를 발견하여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그전에 워떤 정의 재상 하나가 딸을 하나 잘 뒀시유. 서울서 사는디. 아, 관상을 보니께, 시집가면 상부(喪夫)할 팔자여. 돈을 지금 말루다가, 참, 몇 억대를 보따리에다 싸 주면서,

"너 시골루다 내려가서 네 마음대루 남자를 은어 살아야 괜찮다구 하더라. 어머니, 아버지라 너를 여읜다구 하면은 좋지 못한 경우가 나선다구 하더라."

그러니, 부모명령이니 안 할 수가 있읍니까. 보따리를 싸 가꾸서 오는 기여. 지향없이 나선 게지유. 방향없이

간다는 게 강원도 어디 저 산골 마을로 들어갔네유. 들어가서 보니께, 인적부도처(人跡不到處)여. 뭐, 사람 사는 집을 구경할래야 못허여. 비는 구즈즈하게 오는디, 이렇게 산골마을로 가다 보니께,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디, 유득새로다가 이렇게 지붕을 해 일었네유. 그래서,

"에이, 인가는 인제 만났으니께, 비를 저집에 들어가서 그해야겠다."

그 사는 주인은 누군고 하니 그 산골 마을에서 즈이 어머니허구 원 모자가 숯장살 해 먹구 사네유. 그런디, 어머니가 원체 극노인이셔서 돌아가셨시유. 인적부도처니까 이웃 사람하나나 오겠읍니까. 그냥 그저, 자기 혼자 입던 옷 입혀 가꾸서는, 상여를 할 수가 있읍니까 워칙합니까. 지게다 져다가 모이를 쓰러 갔어. 갔는디, 박 상의라는 지관이 있읍니다. 지관이 신위지지(神位之地)자리를 잡아 놨는디, 강원도 어디냐 하면, 장성이여. 장성이라는 디 가서 삽바위골이라고 있읍니다. 바위가 예도 하나 있고〔손짓을 하면서〕, 요기도 하나 있고, 요기도 하나 있는디, 요〔손짓을 하며〕사이가 천하 대지여.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쓰게 하느라고 돌짝에다가 흙을 모으구서는 메를 입혔네유. 모이 사이다는 못쓰니께, 예전에는. 지금 같으면 뭐 공동산같으면 사생을 걸구라도 쓰지만. 자기 혼자 인제 지게다 져다놓구서, 광정 안을 쥑이는거유. 귀축이니께. 귀축 사이가, 고기가 좋거든.

"야, 이 빌어먹을 거, 귀축 사이다가 우리 어머니 산소 쓴다."

구 파네유.

박 상의 그 분이 워디를 출타하다 보니께, 자기라 신위지지 자리 잡아 놓은 데를 어떤

사람이 파고 있거든요. 좇아 올라오면서, 말 타고 가다가 좇아 올라오면서,

"여보, 여기가 우리 몇 대조 그 산소인디, 내가 객지가 있다가 이, 참초도 못하고, 모아가 이렇게 묵었읍니다. 그러니께, 여기다 쓰면은, 쓰더라도 파낼테니 쓰지말고 다른 데 가서 쓰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 자기 어머니하고 모자 살다가 그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미 조석도 좀 굶지않았겠읍니까? 초상시에 누가, 참, 부모돌아갔는데, 자기가 끓여 먹을 수두 없구 꼼짝 못하지유. 기진맥진해서, 거기다 모이 쓰면 큰 일난다구 허구서 말타고 갔네요.

엉 엉 울고 앉아 있으니께, 어디서 그저, 느닷없이 노인 하나가, 아주 귀한 장자여. 수염도 잘 나고, 참 누가 보든지 선풍도골(仙風道骨)로 생겼다고, 이렇게 됐어. 그런디, 그 양반이 오시더니,

"허허, 울지 말게. 여기 조금만 더 파구서, 이렇게 다듬구서 하관하게."

"아이구, 예다 모이 쓰면, 야중에 파내고도 징역간다고 했슈."

"아, 내가 당할께 쓰게."

아, 그때 근력이 나는 게유. 아주 그 냥반이 그렇게 말씀한 뒤로.

다듬구서는 이렇게 하관하구서, 봉분 다 기성했는디,

"이 모이 벗겨서 메 입히게."

"아이구, 모이 쓰기도 여려운데, 남의 모이를 어떻게 메를 벗깁니까?"

그게 참 이치에는 있는 소리지유.

"아니여, 내 당할 테니 벗기게."

하나를 벗겨 보니께, 돌팍이 덜걱덜걱하구 나오니께, 그 사람두 근력이 나는 게유.

"이게 모이가 아니라 돌팍이구만요."

"시 개 다 벗기게."

벗겨서는 아주 메를 잘 입혔시유. 그 메 입히구, 치산을 해 논 걸 보니께, 자기 마음에도 아주 참 좋아요. 그 상주 마음에도.

"그래, 이렇게 산소를 다 썼는디, 즈이 집은 여 아랜데, 즈이 집이 좀 가서, 댕겨서 가시지유."

"응, 후일에 만날 날이 있네. 들어가게."

아이고, 눈 깜짝할 새에 없어졌시유.

"축시에 자네 하관했으니께, 미시에 자네 발부할 테니 그런 줄 알고 들어가게."

이러거든요.

아, 자기 어머니 장례 모시구서는 인제, 들어가서 앉아서, 그러니, 조석할 근력이 없사유. 그냥 이렇게 방 다 쓸어내구서는 앉았는디, 웬 말만한 처녀가 보따리를 옆에다 이렇게 〔왼로 보따리 낀 흉내를 내며〕 끼구서는, 비 안맞을려고 그 유득새 있는 툇마루로다 자꾸 이

렇게 들어서네요. 그러니께, 남자니께,

"여보시요, 인가 근처에 왔다가 비맞아서 쓰겄읍니까? 이루 들어오십시요. 이 토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러니께, 이 여자가 뭐 의불없이 들어와요. 그러니께,

"에, 쌀은 있는디, 누가 조석을 끓이야 먹지."

"아, 쌀 내놓으시우. 내 조석 해드리리다."

그 좋은 옷 다 훌훌 벗어 놓더니, 보통 옷만 입구서라미 조석을 하는데 보니까, 참 천하일색이여. 자기허구는 아주 대상부동이여. 봉허구 닭허구 논 것 같어. 그래서, 쌀을 넉넉히 줬어.

"댁두 밥을 퍼 가꾸 들어오슈. 남녀는 유별하지만, 인가 근처에 왔다가 워터게 비맞구 부엌이서 밥을 자시시오. 들어오시라구."

아, 이 부인네가 밥 차려 가꾸서 겸상해 가지구서 들어오네요. 부인네가 아니지, 새악시지. 딱 들어왔는디, 겸상해서 먹으면서, 서로 자초지종 얘기를 하는 겨.

"나는 이렇게 어머니하구 모자가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갖다 산소를 모시구서, 이렇게 내려왔는디, 처녀는 워째서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가 이런 심산궁곡(深山窮谷)을 왜 들어오셨읍니까?"

물어 봤어.

"예, 내 얘기 서슴지않구 허겠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관상을, 그 무녀 판수를 들여서 점을 해 보니까, 저는 시골 어디 가 남자를 얻어야 참 잘 살지, 서울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라 여의어 주면은 좋지 않은 그 수가 닿는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올시다."

돈은 한 보따리 갖구서 온 게여. 그러니께, 그래두 남자가 부랄값 허느라구.

"여보, 그러걸랑은 나하구 살면 어떻겄소? 내 댁에다 대면은 빙아리나 저 봉허구 대는 것 같은디, 워떻소?"

그러니께,

"좋시다. 내 당신하구 살 테니 그리 아시유."

됐어. 그 날부텀 아주, 지금으루 말하면 결혼해 논 기여. 그러니, 성례를 해야할 틴디,

"워칙 헌다우?"

그러니께,

"아, 찬물 떠 놓구 성례해두, 부자만 되면 고만이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 그 날부터 성례를 했네유. 찬물 떠 놓구.

솥은, 하나 있는디, 인제, 솥을 하나 더 걸어야겠어. 그 남자더러 가서 돌팍을 지구 오라고 했네유. 아, 돌팍을 지구 왔는데 보니께, 그 색시는 자기 집이서 부호루다 산 분이니께, 보니께 금독이여. 금독을 한 짐 지구 왔어.

"이 돌팍 워디서 지구 오셨소?"

그러니께,

"자 위, 저 숯 굽는, 숯구데기 옆에 이런 돌팍 한 누리가 있시다."

가보니께, 다 금일러래유.

"여보시오."

〔이우명씨 : 그것만 금이라구 해야지 그게 다라구 해? 거짓말 했어.〕

아니오, 예전에는 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글루 다 몰린대요. 하늘에서 시킨 건디. 노다지라구잖으유.

"아, 그 돌팍일랑 광에 갖다가 두구."

광도 없지. 허창이나 워따 갖다 두라구 했어. 그러구서는, 다른 돌팍 갖다가 솥을 걸었네유. 그러구서,

"이 돌팍일랑 내가 서울 가서 팔어 가꾸 오라구 할 때 가서 팔어 가꾸 오시오."

돌팍을 서울서 워떤 놈이 사, 요새, 그 흔한 놈의 전기 제품 잔뜩 있는디. 내 거짓말 하느라구 그랬지. 전기 제품은 없슈 그때는.

아 하루는 일이 좀 한가하면 겨. 그 부인이

"이거 지게다 싣지 말구서, 이 아래서 말을 빌려 준다구 했으니 말에다."

이전이 질마에다가 실려가꾸 대녔지. 무슨 오도바이가 있읍니까. 무슨 저 인력거가 있읍니까. 그때는 인력거도 흔치 않을 때일러래요. 그래서,

"에이, 그럼 내 지게질 잘 허니께, 지게에다 지구 갈텨."

아마 그, 저, 짐질은 잘 했던 모양이여. 지구 가서 종로 바닥에 가서 종일 놓구서, 이렇게 앉았는디, 암만 해도 어떤 사람, 하나 와서 물어 보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 배는 고프고 큰 일 났어.

"에이, 빌어 먹을 놈의 거 내버리구, 도루 집으루 간다."

구 내버릴라구 맘 먹었는디, 날림때가 미끈미끈하게 벗어진 분들이 두루매기 입구서, 딱 오더니,

"아하, 이거 참, 내가 오늘 종일 서울 바닥을 돌아 댕여 봐도 이렇게 좋은 물건 난 것 처음 봤소. 이거 임자가 누구시오?"

아, 물건 좋다구 허니께, 배짱이 냅다 느닷없이 그저, 태평양처럼 늘었어.

"예, 지가 임잡니다."

"그 얼마나 달라구 허쇼?"

지금 말루다 한 참 몇 억불 달라구 했던 모양이여.

"여보, 그 참, 물건두 좋긴 좋습니다만 너무 달라구 합니다."

"아, 사기 싫걸랑 그만 두쇼."

이제 배짱이 늘었으니께,

"그러니, 안 살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구만. 우리 인사나 합시다."

"난 강원도 아무디 이런저런 디서 사는 사람이오."

"그러면 이 대금을 우리가 다 표를 해 주구서."

지금 말루다가 아주 수표 해 주는 겨.

"내일 당신 집에 앉아서두 받게, 말루다가 다 부쳐서 드릴 테니께, 이렇게 이것만 받아 가꾸 가쇼."

그늠만 받아 갖구 갔네요. 무엔가 말두 못하구 받아 갖구 갔어. 갖구 가서 자기 부인보구서 이러니께,

"이게 환표요. 내일이면 들어 올 테니, 걱정 말구서 저녁이나 자시요."

저녁 먹구서 인제 앉아 있으니께, 그 이튿날 말이다가 죄 붙였드래요. 이전이야 워티게 뭐, 저, 돈을 저 지금처럼 뭘루다 할 수 없으니께.

그래 가꾸서, 냅다 부자가 됐는디, 몇 억대 되는 부자가 되드라느믄유. 그 처복이라는 게 그게 처복입니다. 장가 잘 들어 가꾸서.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채록자가 답례로 한 한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55.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1)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동방삭이 하도 도망을 잘하여 저승사자들이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승사자는 여자로 변신하여 냇물에서 숯을 씻고 있었다. 이를 본 동방삭이 왜 숯을 씻느냐고 묻자 그 여자는 그냥 씻는다고 했다. 동방삭이

"내 삼천 갑자를 살아도 숯을 씻는 사람은 처음 보오."

하고 말하자 저승사자는 그가 동방삭임을 알고 잡아갔다.

옛날에 동방삭이가 삼천갑자를 사는디, 어느 날, 인저 말을 타구서 시내를 건너가니까, 어느 한 부인이 그 숯을 닦는다 이거요. 내깔이서. 시냇물에서. 숯 닦구 앉았어.

"여보쇼, 숯을 왜 닦습니까?"

"그냥 이렇게 숯을 닦습니다."

계속 닦는다는 거여. 내깥이서.

그러니, 이 동박삭이가

"나 삼천갑자 먹더락 숯 닦는 분은 첨 본다 말여."

"오, 늬가 동방삭이냐?"

그러구서, 잡아갔다는 거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6.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2)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동방삭이 하도 도망을 잘하여 저승사자들이 잡을 수가 없었다. 저승사자 하나가 동방삭이 잡을 방법을 궁리하다가, 시냇가에 숯을 가져다 놓고 씻었다.

그 때 동방삭이 거기를 지나다가 왜 숯을 씻느냐고 물었다.

"예 희어지라구 씻습니다."

"난 삼천 갑자를 살아도 숯 희어지라구 씻는 분은 처음 봤읍니다."

동방삭이 이렇게 말하자 저승사자는 그가 동방삭임을 알고, 저승으로 잡아갔다.

동방삭이란 분이 참 워치게 나이가 많던지, 사자들, 염라대왕 사자들이라두 잡을 재주가 없어. 워떤 분이 동방삭인지를 물르유. 그러니께, 지금으루 말하면, 그 일 저지르고 돌아다니며 변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던 모양이유.

그래서, 암만 사자가 그 동방삭이를 잡아갈라구 연구를 해봐야 참 못잡아 가유. 워떤 사람이 동방삭이인지 알아야 잡아 가지. 그래서, 연구하다 하다 할 일이 없으니께, 시냇가에 가서 숯을 갖다 놓구서 숯을 썩썩 씻구 앉았시유. 그 사자가.

그 동방삭이란 분이, 불가대명은 독안에서두 못 피하드라구. 죽을 명이 닿았으니께, 그 지나갔으면은 동방삭인지 누군지 모를 텐디, 그 분이 아마 좀 무엔갈 좀 알아 볼라구 했던 모양이유.

"여보시오, 워째서 그 숯을 그렇게 씻읍니까?"

그러니께,

"희어지라고 씻지요."

뭐 힘안들이고, 이럭하구 나오네. 그러니께,

"난 삼천 갑자를 살았어두 숯 회어지라구 씻는 분은 처음 봤읍니다."

"아하, 그러시오? 댁이 동방삭입니까?"

그래서, 불가대명은 독 안에서두 못 피한다구 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약 40분 전에 구연했는데, 모르고 다시 구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구연할 때는 소주 몇 잔을 마신 뒤여서 약간 취기가 있었고, 이야기판도 무르익었다. 그래서 그런지 앞에서 한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내용이 더 풍부하고 재미 있다.

57. 손님 대접을 잘하여 부자된 사람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지만 길가는 손님을 모셔들여 극진히 대접하곤 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변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변소 앞에서 말했다.

"여보, 그 손님 가신다고 하거든 붙잡지 마시오. 동네에 쌀을 꾸지 않은 집이 없어, 이제는 쌀을 꿀 집이 없읍니다."

이 말을 들은 손님은 그 사람 내외가 쌀을 꾸어서까지 손님 대접을 한 것을 알고는 크게 감동하였다. 그 손님은 많은 재물을 보내어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주었다.

그전에 어떤 사람 하나가요, 암 것두 없이 사는디, 질바닥에 가서라무니 지켜 앉았거든요. 손님이, 워떤 손님이 지나가나 보느라구. 그러니, 그 그 부인이 생각해 보니께, 참 기막힌 노릇이유. 동네에서 쌀을, 죄 집집마다 꿔다 먹었는디, 그, 손님오면은 묵어가라구 허니, 그거 어떻게 당하겠읍니까? 없는 형편에.

이제, 그, 쌀을 꿔다가 이렇게 조석을 대접허구, 대접허구 허는디유, 자기 부인이 잘못 보셨지. 그 손님이 변소를 가셨는디, 자기 남자가 들어가신 줄 알구서 거기 오너서, 지켜서서 허는 소리가,

"여보시오, 그 손님 가신다구 하결랑은 못 가시게 말으시오. 내가 쌀 꿔올 집이 인제는 없읍니다. 그러니 손님을 무어 조석을 대접해야 할 텐디, 가시지 말라구만 하면 워치게 됩니까?"

그 손님이 변소를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참 기맥힌 노릇이오.

"야, 내가 벼, 그래두 몇 십접 한다구 하는 사람인디, 집에 가면은 쌀 한 바리하구, 돈 한 바리하구, 이 집을 부쳐 주야겠다. 이렇게 꾸어다까지 밥을 해서 대접하는 그런 집을 내가 조석을 얻어 먹구서 그냥 만다면 내 인생이 아니다."

아주 각오하고 갔네요.

아이 더 묵어 가라구, 인제 배깥 양반은 자꾸 묵어 가시라는 겨. 들은 소리가 있으니께, 그거 묵어 가갔시유. 못 묵어가지. 쌀 꿀 디가 없다는디서 묵것시유. 사람이란 게 양심 갖구 사니께. 간다는 겨.

"아유, 손님 그저 묵어 가셨으면 좋은디, 가신다는디야 어치게 묵어 가시랄 수가 없으니께, 이거 워칙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께,

"아이 그저 가겠읍니다."

그 손님이 그 집 주소를 다 적어 갖구 갔시유. 가서는 자기가 참 벼 지금 말루다 몇 천석 받구 돈이 아주 무지허게 많은디, 용전유수(用錢如水)라구 허지 않읍니까? 돈 쓰는 디, 그저 용전유수라는 게 물쓰듯 헌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가서 생각을 해 보니께, 자기 재산 됐다 그거 뭘 헙니까. 그렇게 뭐 하는 분을 안 살려주면 큰 일이여. 그래서,

"야 쌀 한 바리하구."

쌀 한 바리라는게 예전엔 가마가 아니라 먹쟁이입니다. 먹쟁이라는 건 짚으로다가 이렇게 멱꾸리처럼 맨들어서, 길게 해서, 거기다 쌀을 담습니다. 그럭해서, 두 가마니를 부치구. 돈 두 푸대를 부치구. 이럭해서 두 바리를 보냈시유.

당장 부자 됐지유. 그 참 쌀 꿔다 먹던 분이 돈 한 바리 들어왔지. 쌀 한 바리 들어왔으니. 그러니께, 그럭해 가꾸, 그 사람 참, 불 일어나듯 해 가꾸 부자가 되드라느먼요. 복이라는 건 넘의 것 빌려 가꾸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타고난 복도 있고, 이렇다는 게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8. 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가?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 줄거리

어떤 사람이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다 안다."고 으스댔다. 이를 본 입곱살짜리가 "눈썹이 몇 개

인지 아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작은 소리로 "그것은 모른다."고 했다.

공자님이요 참, 철양철하(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안다는 뜻인 듯함)하구, 내 눈앞에 뵈는 건 다 알것다 이랬시유. 그러니께, 그 일곱살 먹은 눔 하나가 서당엘 다니는데,

"선생님, 그렇게 잘 알으시면 눈 앞에 뵈는 것 다 안다구했으니, 이 눈썹이 몇 개나 되나 잠깐 일켜내시오(알아 맞추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니께,

"야, 그건 모르겄다."

이러드랴. 공자님이 철양철하하신 양반이여. 그런디, 자기가 눈 앞에 뵈는건 다 안다구 했는디, 눈썹 몇 개 되느냐구니께, 그건 몰른다구 그랬시유. 박사라구 다 아는 것두 아니구, 천재라구 다 아는 것도 아니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59.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라(1)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공자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길 가운데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공자님은 아무 말씀을 아니 하셨다. 한참 가느라니까.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공자님은 그 사람에게는 길가에서 그러면 못쓴다고 하셨다.

한 제자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먼저 만났던 사람은 앞뒤가 꼭 막힌 사람이어서 가르쳐도 소용이 없으므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의 사람은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가르친 것이다."

예전에 공자님이 학동들을 데리구서, 참 지금말루다 소풍입니다. 이렇게 워디를 원행하시는디, 아 한 사람이 질걸이(길) 가운데서 대변을 푸득푸득 보고 앉았시유. 그러니께, 아주 눈이루 본 체 않구서 그냥 갔시유. 조금, 지금 말루다, 몇 미터를 갔어. 갔는디 워떤 놈은 도로가 이렇게[손짓을 하며] 됐는디, 요 선로가시, 예가 앉아서 대변을 보거든요.

"아, 이사람아 저만치 들어가서 보야지, 사람댕이는 그 행로 가시서 하면, 그 냄새가 나고 못쓰는 질세."

이러니께, 제자들이 생각해 볼 적에 길거리 가운데다 눈 놈은 아무 말두 않구서, 도로변 가시다 누는 사람 보고 걱정을 하시거든유. 가다가 질문을 했시유. 한 학생이

"선생님, 지가 질문 한 마디 여쭐 말씀이 있읍니다."

"무슨 말인가 해라."

그러니께,

"지가 볼 적에 도로 가운데다 대변 보는 사람이 잘못했나요? 도로 이 저 가시다 대변 본 사람이 잘못했나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러니께,

"응, 늬가 그 질문 할 줄 알았다. 도로 가운데다 대변 보는 놈은 여기까지〔손을 옆으로 하여 머리를 가리키며〕 아주 돌대가리여. 석두다, 석두. 아주 바늘 찌를 틈도 없는, 소견이 없는 사람이여. 그래서, 말을 않고, 이 도로변이다 대변 보는 사람은 소견이 조금 뚫린 사람이여. 그 사람은 가르치면 이만치, 여기가 전여답 있으면 전여답에 가 대변을 볼 사람이다."

예전 성인덜두 사람 그 위치를 보구, 자격을 봐서 가르쳐서 될 사람은 가르치구, 안 될 사람은 안 가르쳤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5시 53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0.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라(2)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황 희라는 황정승이 이러드래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두고 죽고, 귀신은 경문이 맥히면 죽는다."

그게 옳은 말씀이요. 뜻이라는 게 똑 같읍니다. 황 희란 정승이 메(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그 자기가 그 역사 지나간 걸 적고 봤거든요. 그래서, 느이들이 그저 거리 나가서 손님을 대접할 적이, 사람은 얼굴이 좋다구해서 잘난 게 아니다. 소견이 착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황 희라는 정승이 이걸 겪어 봤어.

어티게 겪어 봤느냐 하면, 웨면 놈 하나가 도로 변이서, 이렇게 도로 한 가운데다 대변을 보네요. 그러니께, 그 양반은 암, 저대인이니께, 그걸 다 겪어 보지요. 암말두 않구 지나가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들이 원족가는 게지유. 선생 제자간에 워디를 원행하니께.

그런디, 쪼금, 지금 말루다 몇 평방 미터를 지나가다 보니께, 워떤 놈 하나가, 도로 요, 저 섬목가시, 요다가 대변을 보고 앉았네요. 그러니께,

"야, 이 사람아, 저기, 저 전답 근처에 멀찌감치 가서 대변을 보야지 행인들이 여기 왕래를 분주하게 하는디, 여기다 대변을 보면 쓰겄나?"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 사람은 가서, 저 이, 전답 근처에다 대변을 보네유.

황 희라는 정승하고 인제 그 지금으루 말하면 소풍가지 않습니까. 학생덜이 물었어.

"선생님, 왜 도로 가운데다 대변 보는 놈 보군 암말두 안 하시더니, 저 가시 가서 보는 사람보구 말씀합니까?"

이러니께,

"응, 느이들이 그 질문할 줄 알았다. 사람이라는 게 생겨나면은 소견이 착하구, 안 써러지가 넓으야 그게 사람이지. 인물은 반주그러하게 생겼지만, 소견두 없구 암 것두 없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럼 선생님 워치게 하명해 주시는 게요?"

"응, 늬가 그 소리 할 줄 알았어. 도로 가운데다 똥누는 사람은 아주 찰돌, 바늘 찔를 틈도 없는 늠이여, 그 놈은. '너, 왜 거기다 똥누냐?' 하면은, '여보, 내가 누거나 말거나, 댁들이 이루 비켜가면 됐지, 무어 그런 소릴 혀.' 이럴 놈이구, 고, 여, 도로 가시다 대변 보는 놈은 '아, 이 사람아 이만큼 가서 보라'구 하면, 그 사람은 대변 보다가도 물러갈 사람이여. 그러니께, 그 소견을 보는 겨."

성인은 능지성인이여.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7시 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구연자가 같은 날 오후 5시 53분경에 구연한 '그 사람에 맞게 가르쳐라' 민담과 같은 유형의 것이다. 약간 술에 취한 구연자가 오랜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 먼저 한 것을 잊고 다시 구연했다. 이 이야기는 앞 이야기와 내용은 같으나 주인공의 이름이 다르고, 부연 설명이 많다.

61. 겉멋만 아는 며느리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시집온 지 사흘만에 밖에 나가 청소를 하는 며느리를 보고, 시부모는 며느리 잘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다가, 신부가 괴춤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워 물고 비질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시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자 며느리는 '하이', '소오데스'하고 일본말로 대답했다. 그래서, 시부모는 그 며느리를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며느릴 하나 얻었는디유, 들어오더니, 아 그저, 삼일날 아침에, 엡다, 작업복을 입구 나가더니, 쓰서리(청소)를 싹싹, 지금으루 말하면 솔질하구 하잖읍니까. 잘한다 말여. 문틈으로다 이렇게[내다 보는 시늉을 하며]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보더니,

"햐, 며느리 잘 얻었다."

이러구선, 자기네끼리만 지금 추는 거여.

아, 쪼금 쓸어나가더니, 괴춤이서 왜정 때는 '비종'이라는 담배가 있었읍니다. '비종'. '비종'이라는 게 영어여. 내 영어는 물르는디, 그렇다고 하데요, 넘덜이. 그놈을 하나 떡 태워 물드니, 그놈을 태워 물구서 비자락질(비질)을 하는 걸 보니께, 완고한 샌님들이라,

"아하, 처음이는 눈에 들었더니, 며느리 잘못 얻었는디."

아, 인저 다 하구서 아침상을 차려다 줘서 먹지 않겄읍니까. 시아버지가 인저 얼추(거의다)잡숫구서.

"야, 부엌이 애야."

그 며느리 부르는 소리지유.

"숭늉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께, 일본 시대인 모양이여.

"하이."

이러거든

"아하, 너는 학교에 다닌 게구나."

"소 데스요."

이런단 말요.

"너 하구는 통 상종 못하니께 뭇살겄다."

이러드래요.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2. 촐싹대는 며느리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느 집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촐싹거렸다. 시어머니가 빗대어 꾸짖는 말을 하니, 며느리는 그 뜻도 모르는듯 대꾸하였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디요, 아주 두 말 자루에다 서 말 넣구 칫석거리듯 해여.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칫석거리는 겨.

그 시어머니가 워떡하다 입다툼이 났네.

"야, 참 느이 집에서 잘 뱄다(배웠다)."

"잘 배구 말구요. 내 뭐 천안 훈장 누구보담 훨씬 낫습니다."

이러거든.

"아하, 그려."

어머니가,

"한 마디나 질라."

그러니까.

"한 말 지길랑서리(지기는 커녕) 두 말 이어두 본 걸요."

그게 우스운 소리 아니겄읍니까.

아, 그러니께 그러드랴. 그 시어머니가 있다가,

"참 느이 집이 가르쳐준 그 가훈을 보니께, 무지한 양반이다."

그러니께,

"아, 우리 세계에서 양반이유."

이러드래유. 그러니께, 사람이란 글만 배운다고 뭣하는 것두 아니구, 가정교육이 있읍니다. 가정교육을 배워야 혀.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3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것은 앞 이야기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63. 훼절한 과부를 벌한 박 문수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암행어사 박 문수가 어느 집에 가서 자게 되었다. 주인은 그에게 자기집 후원을 구경시키면서 "이 칼 좋지요?", "이 돌부처 좋지요?"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한 초당 앞에 이르러 그곳은 과부가 된 누이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했다.

주인의 말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그가 밤에 몰래 그 초당에 가 보니, 그 누이가 어떤 남자와 즐기고 있었다. 그는 칼로 두 사람을 죽이고 돌부처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주인은 홀로된 누이가 자결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유, 이렇게 살림을 하고 있는디, 자기 남메가 있시유. 그런디, 자기 누이가 과댁이여. 그 동생이 볼 적에 참 미안허지요. 자기 매부라도 있시면 미안할 게 없지만 그 혼자 참 혼자 생활을 하는 걸 보니께 참 미안하단 말이여.

그래, 이렇게, 그때 어느 분이 거기를 출석한고 하니 박 문수, 박어사가 출석했시오. 헌디, 그 자기 누이 자는 방을 가서 일러 주면서,

"우리 누이는 이렇게 혼거해서 사시는 양반이유. 그러니께 손님도 그러신 줄 알라."

구 그러유.

인저 그 연못이 있는데, 배를 타야 그 자기 누이 있는 초당을 건너가. 이제 그 분은 그러구서 들어가서 자는 기여. 자기 누이가 혼거했다 하구서. 일러 주구서. 이러구서, 방에 드러누어서 자는디, 박 문수가 암만해도 그 뜻을 몰르겄어.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이 독(돌)부처 좋지유? 이 칼 좋습니까?"

그러니께, 좋다구 대답했어. 대답하구서 드러눠서, 인저 사랑방에서 가만 있자니, 어사라면 지금 형사와 같지 않것시유. 연구를 해 봤어.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할 테니께, 그 주인은 들어가서 자는디, 배를 잡아 댕겨서 연못을 건너가야 하니께. 가 보니께, 중하구 자기 누이하구 아주 참, 지금 말루다 '띵따 띵따' 하구 놀거든. 그 주인이 한 소리가,

"칼 좋지유? 독부처 좋습니까."

하구 질문한 소리를 풀어 보니께, 칼루다가 그거 두개를 없애구서, 독부처가 무슨 말을 합니까. 독부처처럼 말을 말라는 이소리여. 그래서, 박 문수가 다 옆에 버렸어.

인제 사랑에 누워서 자는 기유. 자는디, 그 주인이 나오더니

"하하, 그 손님이 이렇게 계신디, 지가 비참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 손님이 좋아 안 하실 텐디, 우리 누님이, 저 혼거해서 살으시다가 간밤에 자결했읍니다."

거 얼마나 잘 된 소리여. 그가 다 죽였지만. 칼루 다 죽이구서 독부처처럼 말 말라는 소리여. 그래 가꾸서, 그 웬수를 갚더래유. 그런께, 사람이라는 건 념의 뜻을 알아야지, 뜻 물르면 소용 없어.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4. 바위를 찌르는 사람과 산적

T 성연면 명천리 ①—B면, ②—A면

*줄거리

옛날에 어려서부터 손가락으로 찌르는 것을 연습하고 자란 사람이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게 되었다. 산고개에 이르자, 사람들은 장정 80명이 모여 함께 가지 않으면 변을 당하는 무서운 고개이니 기다렸다가 함께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내와 둘이서 고개를 넘기로 하였다.

고개마루턱에 이르자 체격이 크고 험상궂은 사람이 나타나 내기 윷을 놀자고 하면서, 자기가 이기면 여자를 차지하고, 지면 3,000냥을 내어놓겠다고 하였다. 이 사람이 좋다고 하자 그 사나이는 손톱으로 나무를 잘라 쪼개어 윷을 만들었다.

이 사람도 이에 지지 않고,

"야, 윷을 놀려면 말판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고 하면서, 바위를 손가락으로 찔러 말판을 만들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겁을 먹고 달아났다. 그래서, 부부는 무사히 그 고개를 넘었다.

그전에 어떤 사람 하나가요, 장가를 들어서 사는디, 처가집일 가야 할 텐디유, 팔십 명이 모이야 넘어가는 고개여, 도덕놈 때미.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보니께, 그 여자가 얌전했드래유. 그래서, 웬 중 하나가 몸집이 이것만한 사람이 오더니,

"너 임마, 워디 가느냐?"

이러거든요. 그 사람보구. 내외 가는디.

"아, 나는 사정이 약하해서 처가집에 갑니다."

이러니께,

"너 나하구 윷을 놀 텐디, 윷 놀아서 늬가 지면은 저 여자를 나를 주고, 내가 지면 돈으루다 몇 천냥을 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라구."

신랑짜리가 어려서, 조실부모(早失父母)해 가꾸서 안부모만 모시구서 큰 사람이여. 안부모 한티. 그런디, 그전엔 그 노동력이 부족허구 허니께, 일 댕이느라구, 문 쇠루다가 저 자물통을 잠구고서는, 이렇게 아들을 가둬놨네유.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치장 생활을 하는 게지유. 그런디, 이놈이 무얼 배운고 하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찌르는 걸 배웠시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저 뭐여 가르다(가라데). 이렇게 저 태권도 그게지유. 근디 워치게 어려서부텀 뱄던지, 메주를 쒀다가 이렇게 방에다 놨는디, 처음에 물렁물렁할 적엔 들어가지만, 딱딱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아, 이놈이 그저 처먹구시 그것만 배워서 뭐 돌팍이라도 찔르면 들어가구, 쇠라도 찔르면 들어가네유.

그런디, 장가를 들어가가꾸서, 인제 그 처가집엘 가는디, 팔십명이 모이야 넘어 가는 고갠디, 저 혼자 간다는 겨. 즈이 여자 데리구서. 그러니께 거기 있는 분들이,

"하하, 저 분 오산허느믄. 여기는 팔십명이 모디야 넘어가는 고개요."

"내 넘어 가겠시다. 당신들 암 말두 마시요."

아, 쪼금 몇 발짝 올라가다 보니께, 워떤 중하나가 내려오는디 험상궂어. 구렛나루가 이만큼 나가꾸선, 몸집이 이것만한 사람이 오더니,

"야, 임마 워디 가니?"

"나 처가집에 갑니다. 이 너머 산 넘어가야 처가집인데 거기 갑니다."

그러니께,

"너, 나하구 윷을 놀아 봐서, 내가 이기면은 네 마누라를 주구, 늬가 이기걸랑 내 돈을 3,000냥을 주겠다. 그러구, 느이 마누라 하구 같이 친정엘 가거라."

"그러라구."

아, 손톱으루다가 가서 나무를, 윷 맨들 나무를 비더니 손톱으루다 잘라 놓는디, 뭐 도치로 뻐개논 거보다 낫더래유. 그런디, 그러니 그 손톱으루다 이렇게 찔르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께, 내가 그 찔러 본 역사가 있는디, 저놈을 꺽어 놓아야 할 텐디, 꺽어 놀 기회가 없시유.

"야, 너 근력세다구 해서, 그, 저, 윷만 만들면 되니? 말판을 만들어야 되는 게다."

그저 손가락으루다 돌팍이다가 푹푹푹 찔러서, 말판이라는 게 항위진법이라는 거요. 28패. 그 말판이라는 게, 이렇게, 저, 써 보면유 사모 20개 하고, 인제 저 안이 들어가서, 2개씩 4개하면 8개 하고 29수요.

"말판을 써야 나하고 윷을 놀지. 너 어칙허것느냐?"

그러니께, 그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손톱으루다가 윷을 만들었지만 자기는 찔러 보니까 하나 자국이 없드래유.

'아이고 이 사람하고 윷 놀다간 내가 죽을 데니, 나두 근력쟁이나 쓴다고 했더니 어림두 없것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고개를 무사히 넘어가서 저, 처가집일 댕겨오더라느만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5. 죽을 수는 독 안에서도 못 피한다(1)

T 성연면 명천리 ②—A

*줄거리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승사자가 곧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라는 것과 그 시간만 피하면 장생불사(長生不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독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뚜껑을 덮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저승사자는 그를 찾지 못하자, 그의 아내 앞에 예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가 어디에 갔느냐고 물었다. 그의 아내는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애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독 안에 있다고 일러 주었다. 그 여인이 구렁이로 변하여 그 독을 감자, 그 사람은 죽어 물이 되었다.

이전에 어떤 분 하나가 상을 보니까, 고 시간만 피하면은 참 장생불사할 수가 있시유. 그런디, 그 독안에다 묻어 달라구 했네유.

"독에다 넣구서 딱개(뚜껑)를 덮어라."

자기 부인 보구서, 아주 일르구 들어 갔시유.

그런디, 그 사자가 잡으러 오면서, 가만히 그 사람을 잡아 갈라구 보니께 틀렸어, 싹수가. 그런께 훌륭한 미인으루다 변형을 했네유. 말하자면 초패왕의 우미인이나 당명황의 양귀비루다 변했던 모양이야. 참 이 세상에선 볼 수 없는 미인으로 변형을 했네유. 그리구서, 그 딱개 덮으라구 했으니께, 그 속으로 들어 갔시유.

그 사자가,

"그 냥반 어디 가셨느냐?"

구 본부인 보구 물으니께, 부인들이란 시새하는 그 마음이 있읍니다. 훌륭한 여자가, 자기보담 훌륭한 여자가 오너 찾으니께,

'아하, 우리 남자가 바람피구, 저 구름타고 다니면서 저 여자를 사귀었구나.'

그 오감(꽁하고 맺힌 감정)을 샀시유. 그래서, 하두 부아가 나니께,

"저기 저 독 속에 들었지, 워디 가요, 가기는."

그래서, 구렁이가 돼 가꾸서 독을 이렇게〔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감았는데, 물이 됐드래요. 그래서 불가대명은 독안에서도 못 피한다. 이런 말씀이 있시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30분 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 이야기에 이어서 그 이야기에 나온 '불가대명은 독 안에서도 못 피한다'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구연한 것임.

66.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 황팔도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예전에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개의 간 천 개를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황 팔도가 밤마다 호랑이로 변하여 개를 잡아 간을 꺼내다가 어머니께 드렸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밤마다 호랑이로 변신하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몰래 그 주술책을 불살라 버렸다. 그 남편은 주술책이 없어 다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호랑이로 살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포수를 모아 그 호랑이를 잡게 했다. 그 사람은 집집마다 '출천지효자(出天之孝子) 황팔도'라고 써 붙이면 스스로 죽겠다고 하였다. 집집마다 그렇게 하자 그는 총에 맞아 죽었다.

예전에, 이저, 덕산 개꿀이유. 덕산이라는 디는 어디 땅이냐 하면 예산땅이유. 덕산 개꿀에 황 팔도란 분이 있시유. 성은 황씨구 이름이 팔도요.

자기 어머니가 무슨 병을 앓으시는지 물러. 그래 점쟁이나 치구 하는 분에게 가서 물어 봤시유. 그러니께,

"당신 자당님은 무슨 약을 드려야 하는고 하니, 개"

우리 집에서 먹이는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간을 천 보를 먹여야 한다고 그러드래유.

"천 보를 먹이면은 낫습니다."

이러거든유.

그러니, 인력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유. 재산이나 잔뜩 있으면, 개를, 팔도 개를, 그때는 팔도니께유, 사들여 가꾸서 잡아서 그저, 개 간 천 보를 능히 대접하지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대접합니까. 그런디, 그분이, 책이 하나 요만한 책이 있는디, 변형하는 책이유. 인간이 변형하는 책. 뭬라구 뭬라구 하면 호랑이가 되네유. 그래 가꾸서 팔도에 댕이면서 개를 잡아 날르다가, 하루에, 개 간이라는 게 한 보밖에 더 있읍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 내려오는디, 차차 그 병환이 좀 차도가 있으시유.

그런디, 자기 부인이 재미가 없던 모양이유. 또, 개사냥을 나갔시유. 그 부모 대접 할라구. 해서 나갔는디, 자기, 그, 남자가 오노서 뭬라구 뭬라구 해 가꾸서, 호랑이가 아니구 사람이 됐을 적에 갖다 그 책을 소화했으면 괜찮은디, 개 잡으러 나간 뒤 느닷없이 그 책

을 갖다가, 그 책만 들여다 보면 변형되니께 미섭지(무섭지). 갖다 구락쟁이다(아궁이에다) 처넣서 소화했네요. 아, 개를 잡아 가꾸 오너서 그 책을 들여다 보구서 메라구 해야 그 사람이 되는디, 호랑이가 됐네유. 아 이러니께 예전에는 강계 포수라구 있읍니다. 저 함경도 강계유. 그 포수들이 인제,

"그, 그집에는 호랑이가 있어 가꾸서, 아주 전국의 개를 말린다."

이 소문이 났네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께,

"내가 부모에 효를 하느라 이럭 했는디, 저 사람들한테 총 맞아 죽으면 효두 소용 없구 이름두 없어."

그러니께, 돌아댕이며 뭐라고 헌고 하니,

"내가 호랑이 변형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나를 잡을 테걸랑은 팔도 분들이 문앞에다가 '출천지 효자는 황 팔도'라고 써 붙였어라."

지금으루 말하면 문패 붙인 거지유. 그러라구. 그러면, 잡힌다구 했으니께, 인저 나라에서 두 명령 내리지 않았겄시유. 그저 시속이 불란하니께.

"야, 그러면 집집마다 아주,"

대통령, 지금 특명야, 말하자면 공문 내린 게.

"느이덜 집집마다 그 황 팔도가, 출천지 효자는 황 팔도라구 안 써 붙인 집은,"

지금으루 말하면,

"몇 억대루 벌금 물린다."

니께, 안 써 붙일 사람이 어딨시유? 즈이 아버지 지사는 못 지내더라두 써 붙이야 벌금을 안 무니께, 다 써 붙인 뒤서 저 개산에서, 저기 저 부석면(浮石面) 도비산이라구 있시유. 도비산으루 갔다 개산으루 갔다 이렇게 피허네유. 그러다가,

"야, 이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 죄 출천지 효자는 황 팔도라고 써 붙였으니께, 나는 인제 총 맞아 죽으야 한다."

그러구 총 맞아 죽었다는 겨.

여자구 남자구 지혜는 있시야 혀. 그저, 자기 남자가 그 가이(개) 잡아 가꾸 들어오면서, 인형으로 변했을 적에 그걸 불 놨으면, 사람이니께 괜찮은디, 호랑이일 때 불 놨네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7. 합천 해인사를 털은 홍길동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예전에, 홍길동이 도둑떼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 그들은 합천 해인사 재물을 터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홍길동은 그들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해인사 재물을 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해인사에 미리 연락하여 음식을 차리게 하고는, 음식을 먹다가 준비해 간 돌을 섞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트집으로 중들을 모두 결박하여 가둬 놓고는 재물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중의 옷으로 갈아 입고 가면서, 포졸들에게는 도둑들이 반대방향으로 갔다고 하여 그들을 따돌렸다.

예전이 서울서 홍판서라는 양반이 있슈. 홍판서의 자제가 누군고 허니 홍길동이유. 그 얘기 한마디 허께요. 어른들이 알구 못하구, 저 배운대루만 허니께.

그 홍판서의 자제 홍길동이가 지금으루 말하면, 저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하고 저, 얘기를 해 봤네유. 그 도둑질 잘 하는 사람들이 메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소원이 합천 해인사를 못 떨어먹어서 원입니다."

그런단 말여.

"아, 그까짓 걸 못 떨어 먹어? 내가 저, 두목헐 테니, 느이덜 내 뒤만 따라라."

이랬거든요. 홍 길동씨 그 분이 온다구 하니께 절에서 음식을 무지무지하게, 아주 정갈하게두 허구, 잘 차렸네유. 그 분은 벌써 머리, 두뇌가 달브니께. 모새를(모래를) 이것만한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 끝에 대어 보이면서〕 놈 하나 호랑(호주머니)에다 넣구 갔어.

가서 음식을 차려다가, 지금 말루다 진수성찬을 차려다, 큰 상을 차려 올린 겨. 가만히 실컷 자시구서 있다가 떡을 하나 입에다 넣구서 그 모새, 이것만한 놈을 하나 넣었네유. 냅다, 안 보게 그거를 확 께물었어. 그런께, 독팍 깨무는 소리니께, 소리가 요란하지 않겄읍니까?

"야, 이리 오너라. 음식을 잘 만든다구 허더니 돌팍을 이렇게 넣구 만든 놈들이 무슨 음식을 잘 맨들었느냐?"

이러네유. 그게 건가조건이여. 그런께, 아주 그 중들이 오너서,

"그저 즈이들이 죽을 때가 되어서 이렇게 됐읍니다."

"음, 그러냐? 이 놈들 잡아다가 다 저, 하옥해라."

하옥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 그 옥에다 가두라는 소리여. 말짱 잡아다 가뒀어. 꽉꽉 묵어서. 그리구, 합천 해인사에 있는 재물을 홀랑 다 털었네유.

털어 가꾸서 가니께, 인제, 절 것을 그렇게 털었으니께, 절이서두 인제, 그 정보원이 있지 않겄읍니까. 아, 인제 지금으루 말하면 경찰서에다 대구서,

"이게 어떤, 서울서 온 분들인디, 음식 차리라구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 줬더니 먹구서

이렇게 재물을 죄 털어갔읍니다."

그런께, 지금으루 말하면 순경들이 아주 막 축— 모여 가구서, 차 타구서, 아주, 막, 그루 집중했네유. 홍 길동이는 자기 입었던 옷 다 집어 내버리구서, 충들 입던 가사라구 하는 건 두루매기입니다. 가사 장삼이여. 송낙 막, 쓰구서, 자루(저쪽으로) 내빼면서,

"도적놈들 저 북쪽으로 죄 갑니다."

자기는 남쪽으루 가면서. 그런께 반대 방향으로 일러 준 기여. 자기가 안 잽힐라구. 그러니, 뭐 밤새 쫓아댕이야 한 놈이야 잡을 수 있나 못 잡았지. 그래서 그 홍 길동이가 합천 해인사를 그렇게 멸어 먹었다고 이럽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8. 먼 산불에 김을 굽는 며느리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시아버지 제사에 쓸 김을 굽다가 새카맣게 태운 새며느리가 '김은 먼 불에 구워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새겨 두었다.

다음 해 시아버지 제삿날이 되었다. 김을 구우라고 하니, 며느리는 사립문 밖으로 나가 김을 들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왜 거기에 그러고 서 있느냐고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김은 먼 불에 구워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 앞 가야산에 산불이 나서 타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불에 김을 말리는 중입니다."

이 서산군에유, 고북면이라는 면이 있읍니다. 거기가 돌캐라는 디가 있시유. 돌캐라는 디가. 서산군이 뭣 때매 두 가지가 되냐 하면은, 살조개하구 저, 부석, 간월도에서 나오는 어리젓이 있읍니다. 그래서, 서산군은 두가지가 더 난다는 그 얘깁니다. 어물루다가.

아, 그 며느리를 얻어 왔는디, 시집 오너서 며칠 안 있다가, 아, 시아버지 제사가 돌아온다구 허더래유. 그래서, 지사를 지낼라구 인제 다 장홍정을 해 왔지유. 그런디, 모처럼 시집 온 분이니께, 뭘 압니까. 그저 쌈(김쌈)을 구라구 했시유. 며느리보구. 쌈이라는 것 먼 불을 쬐야지, 가차이 등걸불이나 뜨거운 불이다 하면은 이게 탑니다. 얇기 때미. 그래서, 아주 새카맣게 태워났네유. 그러니, 읃어온 며느리, 자부보구서 시어머니가 메라구 할 수가 없시유.

"야"

타이르는 소리죠.

"이, 저—, 해의 쌈(김)이라는 건 먼 불을 쬐야지. 이렇게 불이 가차우면 타서 재가 되는 게다."

이러니께, 아주 그 며느리가 창심해서 알아 들었시유. 시어머니가 혼내두 않구 그렇게 타일르니께.

그러구서, 인제, 일년을 지내구서 그 이듬해 지사가 돌아왔네유. 그 며느리가 아주 그 머리 속에다 암기해 뒀으니께.

'내 명년이 우리 시아버님 지사 돌아오면은 해의는 먼 불이다 굽겠다.'

이걸 암기해 뒀네유. 저 돌캐서 개산이라 하면은, 한 오·룩십리 됩니다. 그런디, 그 날이 시아버님 지사여. 그런께, 아주 창심해서 머리다 암기했으니께. 다른 일은 백사일을 전폐하구 쌈을 갖구 가서, 기름 발라 갖구 가서, 싸립문 앞이 가서, 개산에 불이 났는디, 오·룩십리 바깥에서 불이 났어. 이렇게 해의 첩을 들구 섰거든요, 밤새. 그러니, 시어머니가

"야, 오늘이 느이 시아버님 지사 날인디, 너 들어와서 부엌이서 할 일이 많은디, 왜 그렇게 싸립문 앞이가 섰느냐?"

그러니께,

"아이구, 작년이 시어머님 말씀이 해의는 먼 불이다 구워야 한다구 해서……."

개산에, 오·룩십리 배깥에 불 났는디, 해의 첩을 이렇게 들구서서 먼 불 쬐드래유. 그런께, 그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겠읍니까?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69. 정성스런 제사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줄거리

어느 충청도 양반이 강원도의 어느 집에서 묵게 되었다. 그 집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는데, 메를 지어 올리고는 모두가 밖으로 나갔다. 한참 후에,

"아버님, 여기는 도랑입니다."

"할아버님, 여기는 문간입니다."

하고 들어와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다 지낸 후에도 또 그러면서 나갔다.

그 양반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까닭을 물으니, 주인은

"생전에 우리 아버지는 안맹하셨읍니다. 그래서, 산소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가면서 생전에 하던 대로 한 것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충청도이서 저 강원도루다 어떤 양반이 유람차로 한번 가셨시유. 가셔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두 아니구, 이제 집이 어지간히 크더래유. 예전인 초가집을 지니께, 용구새라구 있읍니다. 용구새라는 것은 지금 기와집에 이렇게〔오른손을 옆으로 움직이며〕 덮는 것 보구서 용구새라구 합니다.

그런디, 그 집을 찾아 들어갔는디, 그 손님이 들어오시라구 하더니, 사랑에다 이렇게 모셨시유. 모셨는디, 안이서 불 써 놓구, 참, 조금 좀 분주한 거 같으요. 그 손님이 볼 적에. 그런디, 이러드래유.

"손님일랑 이렇게 혼자 좀 앉아서 계시요. 오늘 저녁이가 즈이 아버지 친기(親忌)입니다. 그래서, 메 한 술 떠 놓을라구 합니다."

그러니께,

"아, 그러십니까?"

그러구선, 인제 앉아서, 이렇게〔벽에 등을 기대 보이면서〕 앉아서,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구 앉았시유, 그 손님이.

인제, 메를 지어서 갖다 올리구서 그 자손들이 말짱 대문 바깥으루 나가면서 이러거든요.

"아버님, 여기는 문간입니다."

"할아버님, 여기는 똘강(도랑)입니다."

이런단 말이유. 그 가만히 들어보니께, 유수곡절한 일이요. 지사 지내면 지냈지, 왜 그 쓸데 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유.

그런디, 제를 모시구서, 인제, 제 지낸 음식을 내오지 않았것시유. 인제 잡숫구서 그 손하구 이렇게 먹구 앉아서 얘기를 해 보니께, 그 주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그전에 안맹허셨읍니다."

눈이 어두셨지. 안맹했으니께.

"그래서, 즈이들이 살아 생전시에 허던 말씀을 허느라구 그게 헌 소린디, 손님은 이상스럽게 생각했을 겝니다."

"아하, 저런 분이 있나!"

지사 다 지내구두,

"여긴 대문간이유, 여긴 배깥마당이유, 여긴 또랑이니께 살펴서 건너십시요."

그게 효자요. 생존시에 하던 그 뜻을 안 앗어버리는 게 효자지. 그저 밥 한 술 떠 놀라믄 뭐 쌀 있으면 워떤 놈은 밥 한술 못 떠놓겠읍니까. 그래서, 그랜 얘기가 있다구 그럽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6시 5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0. 맹정승을 몰라 본 군수의 아들

T 성연면 명천리 ②—A면, B면

***줄거리**

정승을 지낸 맹고불이 아산의 어느 냇가에서 허름한 차림으로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 때, 그 옆을 지나던 군수의 아들들이 그를 불러 냇물을 업어 건네라고 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업어 건넨 맹정승은 젊은이들에게 글을 한 수씩 짓자고 하고, 먼저 이렇게 지었다.

'出門看시옷 不然則 점ㄷ(문을 나서면 사람(ㅅ)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망(亡)하느니라)'

아들들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란 군수는 아들들을 데리고 맹정승을 찾아가 꿇어 엎드려 잘못을 빌었다.

지금으루 말하면, 여기가 서산지대입니다. 서산지대인디, 이 서산 군수의 아들들이 어디를 원행을 했시요. 가다가 보니께, 저 아산군이라는 군이 있읍니다. 그 군에 가다 보니께, 내깔 옆이서 어떤 양반이, 노인 양반이, 비삿갓이라는 게, 이, 저, 비오면은 비 못맞게 하느라고 삿갓을 쓰는 게유. 비올 적에. 장마 적에. 그래서, 삿갓을 쓰고 앉아서 이렇게 낚시질을 하다 보니께, 웬 젊은 청년 몇 분이 오더니,

"여보게, 영감"

이러거든유. 그건 그때 양반 시대니껜 그 한 소리여. 즈이만 양반인 줄 알고. 그 양반은 더 양반인디. 오더니, 뭐라고 한고 하니,

"예,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께, 그 양반이야 영의정이니께, 그 저, 지금으루 말하면 국무총리요.

"예, 왜 그러십니까?"

하구서, 인제 낚시질 하다 말구 왔어. 그러니께,

"여기 월천(越川) 좀 시키게."

월천이라는 건 내깔을 건너 놔 달라는 거유. 그거 보구 월천이라구 합니다.

그러니께, 그 양반이 걷어 부치고 건너더니, 삿갓을 썼으니께 모르지만, 여기가 〔오른 손을 귀 위에 다 대며〕 옥관자가 붙으면, 옥관자가 붙으면 그건 벼슬하는 양반이여. 그런디, 다 업어 건너 놓구서, 그 양반이 이러셨어. 하도 뭣 허니께.

"여보 젊은이들, 선비들인디, 나하구 글 한수씩 짓고 갑시다."

이랬어. 황 희라는 정승이. 아니 맹정승이. 그러니께, 즈이가 무슨 한자(漢子)루야 무지하게 배웠나. 몰르지유.

"아, 노인 양반이 먼저 한 수 지으시요."

그런께, 인제 영의정인지도 몰루구서, 노인 양반이라구 그랬지.

그런께,

"출문간 시옷허구(出門看人)"

첫구에 출이란건 날 출(出)자 아니것슈. 문 문(門)자. 사람 인(人)자를 썼어. 사람을 알아 보야 한다. 간(看) '시옷' 이라구 하면 이게 국문으루는 참, '人' 인디 한문으로 따지면 사람 인자 지유. 사람을 알아 보아야 한다. 문 배깥에 나스면. 아, 이러더니 뭐라구 허는고 하니, 그 저 영의정 양반 말씀이, 사람은 문 바깥에 나가면 사람을 알아 보아야 한다.

"불연즉 하면 졈 디귿하리(不然則亡)."

아닐 불자여, 한문으루 따지면. 아니면은 망한다는 소리여. 졈 주구서 국문으루다 이렇게〔손가락으로 ㄷ자를 쓰면서〕 디귿허면, 이게 망할 망(亡)잡니다, 한문으루. 사람을 못 알아보면 망한다는 소리여.

그 저 원의 아들덜 아니겄슈? 그 소풍간 분들이. 인제, 저녁 때는 즈이 집으루 왔네유. 우리 여기 좌석과 같던 모양이유. 즈덜은 저〔웃방을 가리키며〕 웃방에서 놀고, 그 냥반은 여기서〔앉아 있는 방을 가리키며〕아랫목이서 앉았는 겨. 즈덜끼리 허는 소리가,

"아산 세일, 그 내깥을 건너다 보니께, 어떤 노인네가 삿갓을 쓰구서 앉아서 낚시질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보 영감 월천 좀 시키게'……."

그런께, 하인으루 알았지. 삿갓 쓰구 앉아서 낚시질하니께. 영의정인줄 알면 허겄읍니까? 못하지. 지금으루 말하면 국무총리인디, 거기다가 대구서 '여게 월천 시키라'구 허것읍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관직지내는 분이니께,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께, 아산 세일은 맹고불, 맹정승밖엔 없는 디여. 가만히 생각하더니,

"야, 이거 큰 일났다. 느이덜 나서라."

가서 인저 아산 그 세일을 찾아갔네유. 찾아가서 맹정승네 집은 이 집이여. 저기 저. 게가 뜰 앞에 가서, 모두 정승 그 아들, 죄 꿇어 엎드렸네유. 잘못했으니께. 죽을 죄를 졌으니께. 그런께, 그 맹정승이 주무시구서, 들창문을 이렇게 열어 보니께, 웬 분들이 공석 깔구서 아주 즐비하게 누웠거든.

"야, 여보 이 분들 당신덜이 어떤 양반들인데. 이리 들어오슈."

대인은 소인에게 대해서는 하시를 않는 기여.

"이루 들어오라."

구. 들어가 가꾸서 물어 보니께 참 그렇게 됐거든유. 그런께,

"그저,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디……."

"폐일언(蔽一言) 막론하구서 백들더러 잘못했다구 안 할 테니께 가십시요."

조석 대접 잘 해서 이렇게 보내드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7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억룡(남, 71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성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95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1. 중을 구해 주고 얻은 묘자리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줄거리

전에 논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던 농부의 아내가 다 죽게 된 중을 자기의 젖을 먹여 살렸다. 그리고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간호해 주었다.

원기를 회복한 중은 농부에게 삼정승 육판서가 날 묘자리를 잡아 주었다. 농부는 초빈(草殯)해 두었던 아버지를 그곳에 모셨다. 그 후로 농부의 자손들은 흥륭하게 되어 삼정승 육판서가 나왔다.

전에 어떤 농민이 내외 사는디, 그때는 내외가 농사 짓고, 모 심고, 거시기 하는디, 모 심으러 갔다가 참, 저문 후에 저녁을 허러 오는디, 웬, 참, 중 하나가 거리서 퍼졌드래요. 퍼졌는디,

"대사는 어찌해서, 이냥 거시기 했느냐?"

구니께, 죽을 지경이 됐으니께, 이렇게〔손을 움직이며〕 손만 내둘르더래요. 그 먹을 것 없느냐구 소리일러래요. 그래서, 인제,

"우리 아기 멕이다 남은 젖이 있으니, 젖 한 통을 먹어 볼라느냐?"

구 그래서, 젖을 멕여 가꾸, 그 중을 데리꾸 오너서, 단칸방인디, 방이다가 갰더래유.

그 중을 거시기 했는디, 인제 냄편이 해 다 가니께 돌아갔드래유. 해 다 가니께 돌아왔는디, 뭐냐면은,

"저건 어떤 손님이냐?"

구.

"아니, 이러한, 아무디 이러한디 오느라느께, 저 대사가 퍼졌는디, 우리 애기 멕일 젖을 한 통 멕여 가꾸서 정신을 겨우 차릴 만해서 우리 집이 갖다가 모셨느라."

구 그러니께,

"아이, 잘 했다. 고맙다."

구 참, 그렇게 거시기 허더래유.

인제, 그때나 이때나 인제 뭐 쌀이라구는 구경 못하구, 인제 보리 삶아서, 보리쌀 거시기 해서, 저녁 대접을 잘 하구, 또, 인제, 아침 대접까정 잘 했는디, 그 중이 가들 않구서,

"댁을 보니 상제같다구. 상제같으니, 부모 염토나 했느냐?"

염토가 뭐냐므는 시방말로 장사지냈느냐구 소리거든. 그때는 초분(草殯)해 가꾸 거시기

했는디. 못했노라구. 내가, 죽을 사람을 택이서 이렇게 나를 고쳐 줘서 감사한디, 내 그냥 가서야 되겠느냐구. 그래서 인제, 나를 따라 가자구.

어디를 갔느냐면은 황해도 연안 백천을 갔더래유. 연안 백천을 갔는디, 참 자리가 좋은 자리를 잡아서, 여기 와서 예다가 쓰라구. 예다 쓰면은 아무날 아무시 택일해 가꾸서 여기다 장사를 지내면서 삼정승 육판서가 나리라구.

아, 그래 가꾸서 잡아를 줘서, 인제 하관 해 가꾸서 장사를 지냈는디, 그 뒤로부텀은 차차차차 나서져 가꾸, 인제, 아들을 나면은, 참 다 공부두 잘 하구, 그냥, 미끈해 가꾸서 삼정승 육판서가 났더래유. 그 자리서. 하하하하. 그래서, 연안 이씨 도조상이래유, 그 이가.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0시 5분경
구 연 자 : 성 동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중왕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중왕리 노인회관으로 찾아가니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노인이 두 분밖에 안 계셨다. 좀 기다리고 있느라니까 구연자 성씨와 다른 분들도 오셨다. 취지를 설명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청 중 : 동네 노인 3분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72. 호랑이가 된 황팔도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줄거리

그전에 황 팔도가 밤이 되면 호랑이가 되어 팔도를 돌아다녔다. 이것을 싫어하는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밤에 변신할 때 쓰는 주술책을 불태워 버렸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는 처자를 다 물어 죽이고 산으로 들어가 살았다. 그는 사람들이 '황팔도 불쌍하다'고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전에 황 팔도가 호랑이가 됐는디, 하루 저녁에 팔도를 댕였대요, 그냥. 팔도를 댕였는데, 마누라가 그걸 보니께, 워디 저녁이면은 그 허물있다느믄 그류. 그 허물을 쓰구서 팔도를 댕이는데, 뵈기 싫어서,

"에이, 그 빌어 먹을 거 뵈기 싫어서."

하루는 그걸 갖다가 소화를 시켰더래요. 그 오너서 그 책을 보구서 읽구 하면은, 그 책

을 읽구서, 읽구하면 변신해서 호랑이가 돼서 나가는디, 호랑이가 됐는디 그 책이 없으니께, 그걸 못허구 인제 호랑이가 영영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자녀손이라든지 그것을 다 죽여 버리구서, 그 뒤는 그냥 산에서 산으로 오더니, 참, 호랑이가 되 가꾸 돌아대녔대요. 그러더니, 인제 돌아댕이는디,

"에, 황 팔도 불쌍하다."

하면은 눈물을 줄줄 흘리구, 그러한 예두 있대요.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0시 10분경
구 연 자 : 성 동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3. 한 겨울에 죽순을 얻은 효자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줄거리**

앓고 있던 맹동의 어머니가, 겨울철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했다. 맹동이 대밭에 가서 빌고 나서 보니, 죽순이 솟아 올랐다. 맹동의 어머니는 그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

예전날이 맹동이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동지섣달에 어디가 물어본께, 죽순을 먹어야 산다고 하드래유. 그래, 인저 그 맹동이란 사람이 대소밭에 가서 참 산제를 극진히 했더래유. 극진히 해서 동지 섣달에, 하루는 가 본께 죽순이 한 여나믄 발 나왔는디, 그 눔을 잘라다가 대려서 어머니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나섰다는 그러한 효자도 있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0시 15분경
구 연 자 : 성 동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4. 삼정승이 나는 묘자리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줄거리**

어떤 사람이 지관에게 묘자리를 잡아 달라고 했다. 지관은 한 자리를 잡아 주면서 말했다.

"이 자리는 사자생손(死子生孫) 하여 삼정승이 날 자리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묘를 썼다. 묘를 쓴 후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결혼하는 날 밤에 죽었다. 세째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먼 곳에 가 있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첫날밤에 죽었다.

세 며느리는 다 과부가 되었으나, 모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다. 세 아이는 자라서 모두 정승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모두 판서가 되었다.

어떤 사람이 지관을 들여서 모이 자리를 잡는디,

"이 자리다가 모이를 쓰면은, 사자생손(死子生孫) 자리다. 이건 사자생손 자린디, 죽은 아들이 손자를 낳는 그런 사자생손 자린디, 여기다 쓰면은 삼정승이 나리라."

그래, 인저 집에 오너서도 얘기를 한께, 그 가정이서, 아들은 3형제 뒀는디, 어떤 아들은 안 된다커니,

"그깟것 죽구서 삼정승이 워서 난단 말이냐? 그런 자리 안 쓴다."

고 그랬는데, 큰 아들이 그랬더니,

"아이구, 그러면은 써야 한다."

고 그 자리다 썼는디, 워티게 됐냐하면, 갖다 장사 지내구서 왔는디, 아 그 큰 며느리를 얻었는디, 큰 며느리 얻는 날 저녁이면은, 그 아들이 죽어. 그 아들이 죽는디 또, 예 갖다가 장사지내구. 인저, 가운디 아들이 또, 인제, 며느리를 얻었는디, 또 죽더래유. 아, 인제 야중에 본께 다 태기는 있더랴. 그 큰 며느리두 있구. 그 가운데 며느리두.

또, 인제 막내 며느리를 얻으얄 텐디,

"야, 인제, 우리는 이렇게 됐거니와, 전부 과부만 있으니께 워칙하느냐? 그런께, 되련님일랑 장가를 들지 말구 워디루 멀찌감치 가라."

구. 멀찌감치 가라구 거시기 했는디, 참 멀찌감치 출타해 가꾸 갔는디, 어떡해서 가다 보니께 굉이에(옹이에) 마디 격으루 또 인연이 만났던지, 또, 장개를 들게 됐디야. 그런께, 그날 또 그 사람이 죽더래유. 인저 죽었는디, 그것 참 안됐거든.

전부 다, 셋 다, 삼 과부가 났어. 삼과부가 났는디, 다 인제 큰 아들 며느리두 태기 있구. 그래서, 다 낳아 본께 아들일러래유.

아들인디, 인저 그 아들을 시방 말로 교육을 시키니께, 다 출출명명이여. 다 잘났거든. 그럭해 가꾸서 그 아들네가 과거를 본께 참, 삼정승이 되더래여. 삼정승이 되 가꾸 그 밑이 아들네는 또, 아들 6형제 손이 둘씩 났으니께 6형제 아니여. 그런디, 6형제 손이 또 다 판서가 되더랴. 그래 가꾸서, 그 집 가문은 천추만세 내려 오면서, 잘 사는 가문이 됐더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0시 30분경
구 연 자 : 성 동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5. 대명(代命)에 죽은 점장이 곽박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줄거리

예전에 곽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점은 잘 쳤으나 마음씨가 고약했다. 그의 며느리 역시 점을 잘 쳤는데, 마음씨 고약한 시아버지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며느리는 저승서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각에 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위에 종이를 덮고, 바가지에 밥을 담아 놓았다. 몹시 시장했던 저승사자들은 그 밥을 먹다가 잡아갈 사람의 이름을 잊고 말았다. 그들은 널 위에 바가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는 널 곽(槨)자 곽과 바가지의 박, 곽박을 잡아갔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 대신 죽었다.

예전날에 관로 곽박이가 있는디, 곽박이두 점 잘 치구, 그 며누리두 잘 치구 허는디 말여, 곽박이라구 허는 사람이 점 잘 치나, 양심이 틀렸더랴. 그냥, 뭐 점쳐 가꾸 뺏어 먹구 그러헌 양심이 있는디, 며누리가 그것을 발라야(잘 잘못을 밝혀야) 할 텐디 안 되더랴. 주이 시아베를 죽일려고 몇 번을 거식했는디.

어느 해에는 며누리가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 테니께, 널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종이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 박아지를 갖다 놓구, 그렇게 하더랴.

사자가 잡으러 왔는디, 오다가, 그 며누리를 잡으러 오던 차에, 오너 보니께, 널 위에, 시장한 차에 널 위에 밥이 있고, 신발이 있고 해서, 그눔을 신고, 밥 먹구, 그러구서 생각해 보니께, 잊어 버렸더랴. 그 잡으러 오는 사람을. 며누리 그 거시기를 잊어 버렸는디, 아이게 당체 뭔가. 며누리라 그것을 냈거든. 아무 날 아무 시에는 자기 잡으러 올 줄을 알구서 그랬는디, 그걸 다 먹구 보니께 잊어 버렸거든.

"야 이거, 널 위에다 밥을 놨으니께 널 곽자, 박아지 놨으니께 박이구나. 아, 곽 박이 잡으러 가자."

허구서는 곽 박일 잡아갔더랴. 그래, 며누리 때미 시아버지가 죽었더랴. 서로 거식기 하다가. 그러헌 전설도 있더야.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0시 35분경
구 연 자 : 성 동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6. 불소(不笑) 정승

T 지곡면 중앙리 ①—A면, B면

*줄거리

옛날에 절대로 웃지 않는 불소(不笑) 정승 둘이 있었다. 그들이 웃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불소정승 한 사람이 젊어서 장가를 갔다. 그가 신방에서 자고,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날 때 일어나 별채에서 주무시는 아버지께 아침 문안을 드리러 가려고 했다. 이 때, 신부는 신랑이 이른 새벽에 나갔다가 호환(虎患)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나가지 말라고 했다. 신랑이 이를 뿌리치고 나가서 아침 인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 자기의 예복 뒷자락 한 조각 찢어져 없었다. 신랑은 그게 신부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길로 집으로 와 버렸다.

첫날밤에 소박을 맞은 신부는 자살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시체가 움직이지 않아 장사도 지내지 못했다.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방에 다시 가서 보니, 자기의 예복 찢어진 조각이 문고리의 걸려 있었다. 신랑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시체 앞에 엎드려 사죄했다.

그 후, 그 신랑은 평생을 혼자 살았으며, 정승이 된 후에도 웃지 않았다.

또 한 정승은 젊었을 때 섬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부임하게 되었다. 부인과 함께 임지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그 때, 한 사람이 말했다.

"이 배 안에 오늘로 명(命)이 다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변고가 생기는 모양이니, 웃웃 하나씩을 벗어 물에 던져서 그 사람을 알아 보자."

그래서, 모두 웃을 하나씩 벗어 던지니, 그 사람 부인의 웃이 가라앉았다. 그 부인이 스스로 물에 뛰어들고 나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잃은 그 사람 역시 어떠한 일에도 웃지 않았다.

옛날 옛날의 얘기였던가 봐요. 불소(不笑) 정승이 있었다는데, 그 웃지 못하는 정승이지유. 정승 쳐놓구 웃지 못하는 정승이 있더랍니다. 워째서, 그 정승 두 분이 웃지를 못하는 정승이 되었던 것이냐?

한 정승은, 에, 결혼을 해 가지구서 예를 갖춰야 할 텐데, 예를 갖춘 다음에 첫날 저녁에 인제 신방을 차렸더랍니다. 그런데, 그 정승, 그 냥반이 가도관계가 참 엄친시하에 그 부모를 모시는데, 참 그 양반집이였던거니까, 참 예를 차려가면서 지났드래요.

"계추명이어든 항관서허구 적부모지서라구."

닭소리가 나서 날이 새면은 세수를 하고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구서, 그 날의 일과를 살피구, 이렇게 내려오는 그 냥반이 성혼을 하게 돼서 첫날 저녁의 예를 갖추구서 신방을 차렸드래요.

그럴 적에 아버님께서 후원으루 가셔서 별실에 녹이시구, 그 신부 신랑은 신방 속에 들어

가서, 인제, 잠을 같이 자구서 나니까, 탐소리가 나드래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참, 일어나드니만서두 아버님께 인사를 올려야 된다고, 그러구서 인제 예복을 차려 입구 나갈라구 그러니까, 신부, 그러니께 부인이지. 부인이 만류하는 거야.

"안됩니다."

서로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는 얘기여.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여기는 산협이라 탐소리가 나면은, 호랭이가 근처에 댕이다가 사람에게 해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위험한 지대니까, 지금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럴 수 없다."

허구서는, 참 어기구서, 예복을 갖추구서 나가는 거여. 인저 나가는디, 할 수 없이 문을 열구 나가는데, 참 어기지 못하구서는 그냥 내보냈다는 얘기지유. 내보내서 나가서 아버님께다 인제,

"안녕히 주무셨읍니까?"

하구서 인사를 드리구서 보니까, 그 예복이 여기가 찢어졌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자기는 그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 인사를 드릴려구 하는 건데, 첫날 저녁에 대뜸 자기의 그 주장과 법도를 어기는 이런 여자하구는 내가 장래의 배필을 삼을 수가 없다. 그러구서는, 아버님보구서,

"가십시다."

그러구서는, 뭐 그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아버님하구 그냥 간 거여. 가구서, 인제 그런께, 그날 저녁에 이혼을 당하구. 이혼을 한거지, 뭐. 그 건 법상으로서야 원제 뭐 혼인신고 허구 않은 건 모르지만서두. 워쨌든 당장에, 첫날 저녁에 소박을 맞고, 첫날 저녁 이혼을 당하고, 이혼을 한 거여.

그러구났는데, 참 월마가 됐던지 간에, 참 그러구서는 그냥 인제 처가집이, 인저 멀었던지간에 서로 왕래를 않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가 각각이었든지, 군이 각 군이었든지 간에 그 서로 내용관계를 모르시하구 몰랐던 것이더란 얘기여. 그러구서는 그냥 이제 퇴혼을 하구서는 참 공부를 하러 댕겼던지, 볼일을 보러 댕였든지 간에, 그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 지나다 그 근처에서 쉬어서 어디를 가게 되는데, 자기네끼리 몇 사람이 앉아서 허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저 건너 아무개 딸 아무 신부는 첫날 저녁에 소박을 맞았다구 해 가지구서, 거기

서 자살을 했어. 했는데 여태까정 장사를 지낼라구, 신체를 멜라구 해두 신체가 멸어지질 않구 해서 장사를 못지내구서, 그냥 지금 먼저 신방차렸던 그 방에서 그냥 송장이 붙어 있단대. 그래서, 장사를 못 지내구 있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여.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서니, 이제 뭐 장가갔다 할지래두 별루, 가서 가마에서 내렸구 그러니까, 집이라든가 어디 방향두 잘 몰랐구, 집도 어떤 게 집이었던지 몰랐을 게라 이런 얘기유. 제대루 몰랐던 거이지. 그런디,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과연 자기가 그 날 퇴혼했던, 자기 부인이다 하는 얘기가 났더란 얘기유. 그러면은 퇴혼을 하구서는 워디로 재가를 했으려니 생각했을 수도 있구, 아니면은 그냥 혼자 살림을 하구, 부모를 모시고 하고 있으련만 생각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여. 아, 그러니께서니, 자기가 퇴혼을 했으므로 하여금 내가 살아서 뭐이냐 하구서 죽었다는 디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께,

"사실이 그렇습니까? 어느 때, 워치게 되고, 어느 때 워치게 됐읍니까?"

그러니까서니, 날짜와 사실, 자기가 헌 것 고대로 얘길 해 주거든. 그러니껜,

'그려, 과연 그러면,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군.'

가서 인제, 문 앞에 가서, 자기에게 사과드리는 것같이 얘기를 허구서 그러니까, 문이 열리드라 이런 얘기여. 열리는데 참 지금은 그런 문이 없지만 옛날엔 여기다[문의 안쪽을 가리키며] 문고리하고 여기다 문고리, 잠그는 그게 있어. 그 고리가. 그 고리에가 자기 예갖추러 가는 예복, 이게 걸려 가지구서 짤려서 한 폭이 짤려져서 걸려 있더란 말여. 그때까정. 그러니, 그걸 보니까 '신부가 그 법도를 어기구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불찰로 하여금 거기 걸린 것을 자기 신부가 자기 지조를 막고, 법도를 무시하는 디에 곡해를 해가지구서 그렇게 된것이다.' 하는 것이 자기가 회개를 했어유. 그래서, 가서 신체의 앞에 가서는 재배를

〔Tape 교환으로 잠시 중단〕

하고 우는 거지.

그래서 인저, 식구들이 가서 운구를 할라구니께 멸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잘 지내 주구, 자기는 그 후로서 인제 새로 장가를 들고자 했으나, 그렇게 억울허게 뭘 헌 이상 장가를 못 들었대유. 그래서 총각으루 그냥 지내다가 정승이 됐어요. 그래서, 정승이 되 가지구서는, 총각 정승이 됐던지 간에 일생을 두구서 어느 무슨 일이라두, 우순 일이 좀 많건 내비유. 골낼 일도 있구, 웃을 일두 있구 하나, 절대 웃지를 못하구서 살다가 죽었대유.

하나는 그렇고, 또 한 사람은 과거를 잘 해 가지구서, 지금으루 말하면 저 제주도 같은 디도, 정승이라고 볼 거 같으면은 지금 말하면 도지사라구 할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저 제주도, 옛날엔 섬도자(島)도지만서도 그게 아니고, 지금은 길도(道)자 도니까, 도지사루 인제 가게 됐어유. 그러니까, 배를 타구서 가야 될 거 아

닌가비유? 지금은 비행기 타구 갈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노질해서, 이렇게 해서 배를 타구 가게 되는데, 하인 전부 거느리고, 가솔들 동반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갈 적에, 아무 날 택해서 아무날 인제 그 아무 도에 이렇게 부임하게 이렇게 되서 가는데, 날이 참 좋게, 아주 맑으니 바람 한 점 없이 이렇게 청명했던 날이란 얘기죠. 중간쯤 가느라니께, 냅다, 폭풍우 냅다 일면서 막 파도가 일어 가지구서는 흔들려서 배질을 못할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유. 그러니까, 인제 참 마른 하늘의 벼락이라구, 청천벽력이지. 아, 그러니까서니, 거기 있는 그 선원들이 전부 큰 걱정을 한 기여.

"이거 까딱하면은 전부 다 몰살하게 됐다."

이런 얘기유. 막 별안간에 폭풍이 일어 가지구서 물너울이 이니까 죽게 됐어유.

그러니께, 거기서 뭐한 분이 자, 이게 이런 좋은 경사이며 좋은 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만은 아무래두 배 탄 우리 승원들 내에 명이 오늘 밖에 없는, 이런 분 하나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겠지.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배 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전부 명이 요거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니까서니, 여기서 우리 시험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제 지금 대통령두 워디 꼭 가실라면은 그 부인, 부인을 모시구 가구, 또 따라다니구 이럭하드만 그리유. 부부동반해서. 그러니까 인제 도임을 하러 가는디 대해서 자기 부인두 타구, 거기 식구들이 누구누구 얼마가 있던지 간에, 또 이웃 분들이라든가, 또는 거기, 뒤 살펴 줄 수 있는, 호위 할 수 있는 이런 거두 가고 좀 했을 테지. 그러니께, 어떤 분이 그 얘기 허니께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들 전부 위 적삼 하나씩 벗어서 물에다 던져 보자. 그러면은 가라앉는 분은 배에서 오늘 명이, 그분은 오늘 명이 끊여. 그리고 그러챦은 분들에 대해서는 떠나갈 꺼다. 그러니께 우리 이걸로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 그러자."

고 그러고, 각자 차곡차곡 여기 앉은 분, 말하자면 순서 별로 적삼을 벗어서 물에 던져 보는 거야. 던져 보니까 전부 떠. 물에 떠서 그냥 이루 가고 저루 가고, 물결로 좇아서 가는 거야. 그러다, 자기 부인이 차례가 왔어. 자기 부인이 적삼을 벗어서 던지니까시니 들어가. 자꾸 강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누가 그렇다 할찌라도 그걸 갖다 누가 미신이라 생각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구서 거기서 주시를 하겠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벌써, 인제, 그렇게 됐다는 건데, 딴 사람은 물결에 뜨고 그런데, 적삼이 가라앉는다는 거는 독(돌)을 넣구 던졌겠어 뭘 했겠어. 적삼이 인제 떨어지니께 '펑더덩'하고 뛰어들어갔어, 부인이. 그래 죽었지. 그러구 나니께시니 잔잔하니 파도가 끊어지면서 날이 좋다는 얘기야.

자 그러나, 참, 나라의 명을 받구서 거기 부임하는데 안 갈 수 있겠읍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부인을 물 속에다 집어 쳐 넣구, 가서 그 도에 부임을 해 갖구서, 참 정승노릇을 하는데, 이런 좋은 길을 부부동반을 해서 가다가 이런 자기 부인을 물 속에 집어 쳐 넣구서 내가 정승노릇을 한대서 무엇이 웃을 것이 있는가? 이보담 더 억울할 점이 없어. 그러니

까, 일생을 두고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웃지 못하고서 살다가 죽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채록 일시 : 1985. 12. 26. 오전 11시 45분경
구 연 자 : 유 병춘(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4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서당 선생님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교통사고로 부인을 잃은 집에 가서 '이러한 억울한 죽음도 있었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위로한 적이 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77. 아내의 정절 시험

T 지곡면 중왕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장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소복한 여인이 새로 쓴 무덤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하도 이상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그 부인은

"제 남편이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 무덤에 풀이 마르거든 개가하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빨리 마르라고 부채질을 합니다."

고 대답했다.

이 일을 불쾌하게 생각한 장자는 집에 가서 자기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아내 역시 패섬한 여자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자기의 아내는 어떠할까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는 하인과 짜고서 어디를 간다고 나선 다음, 갑자기 죽은 것으로 하여 집으로 연락하게 했다. 그의 몸은 관 속에 넣어졌고, 초빈(草殯)하도록 했다.

장자의 아내가 소복을 입고 지내는데, 하인을 거느린 선비 한 사람이 와서 하룻밤을 재워 달라고 했다. 밤중에 그 선비가 갑자기 병이 났는데, 죽은 사람의 살을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그 선비에게 마음이 끌린 장자의 아내는 그 선비를 살리려고 마음 먹고는 칼을 가지고 가서 남편의 살을 도려내려고 했다. 그러자, 죽은 척하고 있던 장자가 소리치며 일어났다.

옛날에 장자라는 분이 한 분 있었더래요. 있는데, 그 장자가 어디를 지나는 데, 무덤 위에서 소복한 부인이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 부인 보고서

"무덤 위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편의 무덤인데, 남편이 죽을 적에 나 보고서 유언의 말을 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묻어서, 무덤 위에 풀이 마르거들랑 시집을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

래서, 내가 상부(喪夫)를 하구서, 참, 있어 볼라니, 젊은 여자가 그냥 살 수가 없어서, 빨리 무덤의 풀이 말라야, 내가 시집을 갈 텐데 마르질 않습니다 그랴. 그래서, 부채질을 하면 풀이 말를 걸루 알고서 지금 풀을 좀 말리기 위해서 부채질을 하구 있읍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장자가 생각할 적에 사람 참 괘씸하거든. 그럴 수가 있는가? 자연히 마르거든 시집가라구 했는데, 강제로, 그럼, 불을 놔서 말리구 갈 수 있는 건데. 인제 메를 입혀 갖구 풀이 살게 될 그런 얼마를 못 참구서, 벌써 시집가구 싶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건가? 그런 걸 생각할 적에 괘씸하다 이런 얘기야. 그럴 수가 없는 일이지.

그 부인이 했다는 그 소리가 좀 괘씸해서, 인제, 자기 부인 있는 자리에서 그 얘길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무어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미친, 나쁜 여자가 워딨어. 어, 그, 마르걸랑 시집을 가던지, 3년 상이나 좀 지난 뒤 가던지 할 일이지, 고샐(그 사이를) 못 참구서 그랬어!"

그렇게 얘길 하거든.

"그려, 글쎄 그래서 하는 소리여. 참 나쁘다."

구 이렇게 얘길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 부인 정도는, 우리 안식구 정도는 워특할까(어떻게 할까)? 그 보담 나슬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좀 그 부인에게 성의와 지키는 바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알았다구 그리고서, 그 장자라는 분이 참 어디를 지나게 되는데, 지나다가, 자기가 죽은 걸루 가장을 해 가지구서, 송장을 자기네 집으루 인제, 운구허게끔, 운구해서 자기네 방에다가 들여 놓게끔 이렇게 맨들었어요. 하인들을 시켰던지, 누굴 시켰던지간에. 아 죽었다구 그러니, 거기서 감포를 했던지, 널을 짰던지 해서 집어 쳐넣구서는, 자기네 안방에 갖다가 인제, 참, 틀을 갖춰서 해 놨어.

놨는데, 옛날에는 죽으면, 뭐 지금은 3일장이니 7일장이니 했지만서두 초분(草墳)해 갖구서 3년 후에 장사를 지내고, 땅에다 묻게끔 했었던 점두 있었대요. 그러니, 그렇게 허는 걸루 하구 있는데. 그러구서, 인제, 짰지요. 짜구서, 그 며칠 동안 모르게끔 식사 같은 것두 어떻게 제대루 시켰을 테구.

그러구서 있는데, 어느 그 여행자가, 여행 행장이 그 가마였던지, 이런 사령이 이렇게 타구서, 옛날에는 하인 거느리구서 이렇게 메구 다니잖았었나벼. 이렇게 쓱하니 지나다가 인제 일몰을 했었던지 간에, 그 부인은 그 상부하구 있었으니께 소복을 했지요. 그 주인을 찾는 거여. 주인장 되느냐구. 그렇다구.

"내가 지금 어디를 가다가 참 일몰해서 여기 좀 쉬어 갈까 하는데, 조금 좀 쉬도록끔 해 줄 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시니, 참 반가와서 친히 안내를 해 가지구서, 인제 참, 편안한 자리루서 인제 모셨던가 봐요. 그러자, 별안간에 그 사람이 죽는다구 그러드란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인제, 수행원이었던지 참 그, 하인이 깜짝 놀라며, 큰 일났다구 말여. 거길 가자니 거리두

멀구, 이 냥반이 종종 이런 증세가 생기는 건데 큰 일났다구. 이러면서 그냥 막 걱정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여. 그러면서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거여. 그래서 인제,

"뭣땜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시니,

"이 냥반이 종종 이런 증세가 생기는데, 별안간에 이럴 적에는 주로 귀한 약을 먹고서 살아난 적이 있었읍니다."

"무슨 약입니까?"

그러니까,

"송장의 살을 벡이야만 살아 나고,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 송장의 살이 어디 있겠읍니까? 있다 할지라두 어서 구해다가 드리겠읍니까? 그래서 인제, 이 냥반은 죽게 됐읍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 소릴 가만히, 그 과부인 주인이 듣고 보니까, 자기 영감 생각이나. 그런가 하면, 손님이라 하는, 그 죽어 나자빠진 손님을 보니까, 하인을 거느렸지, 참 훌륭하고 부러운 분이란 얘기여. 그러니까, 거기서 호기심이 벌써 생겨 가지구서, 그 소릴 한참 듣더니만,

"그렇습니까? 그럼 좋은 수가 있으니께, 내가 약을 구해 드리겠읍니다."

그런 거야.

"구해 줄 수 있는 길만 있거들랑은 그렇게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랬어.

그래 가지구서는, 자기 영감 죽은 거기야 누가 왕래도 못할 것이구, 들어 갔어. 들어가 가지구서는, 큰 칼을 가지구 가서는, 자기 영감 감포 헌데를 확 갈르구서는, 칼로 허벅지를 삘랴구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제 눈을 딱 떠.

"이잉?"

하며 눈을 딱 떴거든. 그러니께, 깜짝 놀라서 자빠질 일이지. 그러니까,

"아유 영감님의 죽음이 진실입니까? 내가 한 일도 지금 진실로 한 거겠읍니까? 이해하시유."

그러더래. 그래서,

"허허, 그렇지."

그러구서는 모이에서 부채질한 얘기를 그때 했겠지요.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 55분경
구 연 자 : 유 병춘(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40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78. 문자 쓰다가 장인 죽게한 사위

T 지곡면 중왕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문자 잘 쓰는 사람이 호랑이가 와서 장인 물어가는 것을 보고서, 한문 문자로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몰라 아무도 쫓아나가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장인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 관가에 고발을 했다. 옥에 갇힌 그 사람은 옥에 가서도 한문 문자만 써서 사람들의 빈축을 샀다.

옛날 옛날에 문자 잘 쓰는 사람이 있더래요. 문자 잘 쓰는 사람이 있는디, 워서 사느냐면은 말여, 처가살이 가서 쟁인하구 같이 사는디, 쟁인하고 같이 사는디, 하루는 호랑이가 내려오너서 쟁인을 물어 가는디, 문자를 어떻게 쓰느냐면,

"원산(遠山) 호랑이가 근산(近山)에 오너서 만개했다가 오소쟁인(吾小丈人) 척거(斥去) 하니, 내 쟁인 잡어가니, 장금재도 래(來)하고 유금자도 래(來)하라."

고 소리를 백백 질르니께 말여, 그런께 몽댕이 있는 사람두 오고, 칼있는 사람두 나오라구 하니, 동민이 말여 그 얘기를 알아 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쟁인을 물어 갔드랴. 그 호랭이라.

물어 갔는디, 워티게 됐느냐면은, 인저 그 연유로 동네서 인저 아무개는 원, 즈이 쟁인 잡아가두 그냥 뒀다구. 고얀 놈이라구 시방말루 경찰서에 갖다가 고발을 했더랴. 고발을 했는디, 인제 잡아다가 인제 유치장에 갖다가 가뒀는디, 유치장에 갖다가 가뒀는디, 인제 옛적 법은 워칙허느냐면은 냄편이 가면 안이서 밥을 해 날러 주구, 또, 안이서 가면 냄편이 밥을 해서 갖다가 주는디, 아, 밥을 갖다가 드리니께, 워츠게 또, 문자를 쓰느냐면,

"오수단(吾手短) 이어든 여수장(汝手長) 하고, 여수단이어든 오수장하라."

네 팔이 짧거나 내 팔이 길거나 거시기 하라구. 인제, 그 문자를 쓰는디, 그러다가 옥중에 갇히고도 그래두, 문자를 쓴다 그러드랴. 그러니께,

"수왈(誰曰) 수왈?"

해 가꾸서, 잔소리한다구 그럭해 가꾸서 그 사람은 그 옥중에 갇혔다가 야중에 풀려나왔는디, 그러헌 전설이 있드랴.

채록 일시 : 1986. 12. 26. 낮 12시 5분경
구 연 자 : 성 등식(남, 76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162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79. 떡보와 중국 사신

T 지곡면 중왕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중국 사신이 조선 사람의 글재주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오고 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배를 보내어 사신을 맞이하게 했다.

조선에서 간 뱃사공 한 사람이 애꾸 눈이었다. 이를 본 사신이

"鳥啄丁丈目(새가 사공의 눈 하나를 찍었구나)."

하고 놀렸다. 이 말을 들은 사공은 중국 사신의 코가 좀 삐뚤어진 것을 보고서,

"風吹上使鼻(바람이 상사의 코를 살짝 비켜 놓았군)."

하고 응대했다.

중국 사신은 사공이 글을 잘 하는 것을 보고, 글을 한 수씩 짓자고 했다. 사신이 출렁거리는 배를 소재로 하여,

潛浮沈潛浮沈潛潛浮浮沈 窺魚之鳩(잠겼다 떠올랐다 하는 것은 물고기를 엿보는 갈매기 같구나)."

하니, 사공은

"飛上下飛上下飛飛上上 花中之蝶(날아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은 꽃을 찾는 나비 같구나)."

하고 대구(對句)를 지었다.

사공의 글재주에 놀란 중국 사신은 조선 사람과 글솜씨를 겨뤄서는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손짓으로 그 뜻을 겨루자고 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널리 광고하여 중국 사신을 상대할 사람을 찾았는데, 시골 머슴 하나가 자원했다.

중국 사신은 삼강(三綱)을 아느냐는 뜻으로 손가락 셋을 펴 보였다. 머슴은 자기가 올 때 떡을 몇 개 먹었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고 다섯개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다섯개를 펴 보였다. 사신은 삼강은 물론 오륜(五倫)도 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사신은 하늘이 둥근 것을 아느냐는 뜻으로 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였다. 머슴은 올 때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뜻으로 손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였다. 사신은 하늘이 둥근 것은 물론 땅이 모난 이치(天圓也 地方也)도 안다는 뜻으르 알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옛날에 중국하구 서루 대화를 하구, 서루 참 친서를 맺구서 지날 적에, 인제 중국서 우리 조선으로 인제, 그 중국 그 동사를, 글 잘 하는 분을 아마, 골라서 데려왔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글 잘 하는 분을 보내야 할 텐데, 그 잘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인제 뽑아 왔겠지유. 그래서, 여기서 인제, 골르고, 골라서는 아무디 선두로 나와서 인제, 서루 맞이하기루 해서, 인제 거기를 향해서 인제 갔는데, 중국서 그 나룻배 사공을 보냈는디, 거기서는 더 글 잘 하는 분을 보냈드라 이런 얘기죠. 그런께 인제, 서루 그냥 배 타구서 오구 가는 거 뿐이지, 실지 가서 중국서는 조선 와서 글 잘 하는 분들끼리 인저, 글 시합을 해 볼 끼고, 또, 조선서는 중국가서 글 시합을 해 볼 거이라 이런 얘기죠. 그런디, 동사

들끼리만 그냥 모시러 가지.

그 뱃사공이, 이쪽서 가는 사람이 눈 하나가 멀은 사람이었드라 이런 얘기여. 눈 하나가 멀은 사람을 보냈어. 그런디, 그 중국 사신이 쳐다보니께,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저 사람이 눈 한짝 멀은, 눈 하나 없는 소경을 보냈더란 얘기여. 그러니까시니 뱃사공이

"조탁정장목(鳥啄丁丈目)이오."

그랬거든. 정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 맞이하러 나간 사람보구 정장이라구 했어유. 조탁(鳥啄), 새라 찍을 탁자. 조탁.

"새라 정장의 눈을 찍었구나."

이럭하거든. 여기서 간 사람을 보구 얘기 한 겨. 아, 그런디, 대뜸 초면인사는 불구하구서 망신을 준다 이런 얘기여. 내가 눈 하나 없을지언정 말여. 새가 눈을 찍었다구 냅다 욕을 붙였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께, 소경, 눈 하나 멀은, 여기서 가는 분이 쳐다 보니께 그 뱃사공이 코 하나가 삐뚤어졌거든.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쪼금 샐깃하게.

"풍치상사비(風馳上使鼻)로군."

그랬거든. 바람이 상사의 코를 비켰군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햐, 그 눈하나 멀은 어줍잖은 게 말여, 그거 그렇게 대항하니께 엔간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께,

"야, 요놈두 글할 줄 알았는 것 같다. 그러믄 내가 글이나 한 수 내가 지어보겠다."

그러구서, .

"그럼 우리 글이나 한 수 짓자."

보니까, 인제 배가 출렁출렁허구서 파도에 이렇게〔출렁거리는 시늉을 하며〕이러거든. 유동하는 겨.

"잠부침잠부침잠잠부부침(潛浮沈潛浮沈潛潛浮浮沈)허니, 잼겼다 떴다 잼겼다 떴다, 또 잼겼다 또 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규어지구(窺魚之鳩)로구나. 괴기를 엿보는 갈매기구나."

그러니께시니, 여기서 또 인제, 조탁정장목이지, 그러니께, 정장이 또 대를 한 거여.

"비상하비상하비비상상(飛上下飛上下飛飛上上) 하니 올랐다 내려갔다 하니 화중지접(花中之蝶)이로다 날렸다 내려왔다, 날렸다 내려왔다 하는 것 보니께시니, 꽃을 엿보는 나비로구나."

그랬어. 이렇게 대를 딱 붙이거든. 참 그러니, 글 잘 한다 이런 얘기여. 요렇게 대를 붙여 나가니 대가 맞아. 요럭허면은 글귀가. 그래서,

"야, 조선의 정장이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잘 할 진댄 말여. 거기 가면은 글 잘 한다는 선비가 있다구 할 거 같으면은 우리 나라가 지게 됐다."

이런 얘기여.

그런께, 거기서부터 약코(기)가 팍 죽었어.

그래두, 인저, 조선에 왔어. 와서, 인제, 그 상사하구 글 시합이 되게 됐어. 그러니께, 나라에서

"저 놈이 저렇게 잘 할진대는, 우리 조선의 글이 얼마나 잘 하나 글을 지금 꼬나 볼라고 할 텐데."

글 잘 하는 사람을 인제, 방을 붙였던지, 지시를 내려 가지구서 골라 보는 거여. 골라 보니께 갈 사람이 없어요. 워떤 머슴살이 하는 무식한 사람 하나가

"지가 가겠읍니다."

하는 얘기여.

그런디, 거기서는 글 가지구서 그랬는데, 조선에 가서는 글 갖구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은어로써, 모형으로 인제, 시합을 해 볼라고 그러는 기여. 그러니까, 가는디 이 사람이 가다가 인절미 5개를 먹구 갔어요. 그러구, 인제, 갔는디, 서로 앉아서는 인제 이렇게 문자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은어로 얘기하는 거여. 말을 숨겨 갖구서. 그럭니까, 인제, 손가락을 쓱 뻗치더래. 손가락을 3개를 쓱 뻗쳐. 그러니께, 이놈이

'자, 손가락을 뻗치는데, 내가 올 때 인절미 5개를 먹구 왔는디, 몇 개를 먹었느냐구 지금 묻는 것 같다.'

5개 딱 뻗쳤어. 그러니까, 그러냐구. 그러더니만서두, 이렇게〔두 손의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보이며〕 하거든. 이렇게 둥글게.

'내가 인절미 5개를 먹을 적에는 모졌어, 인절미가 반듯하거든. 그 모양새를 묻는 게다.'

그러니께, 모를 지게, 이렇게〔두 손의 엄지와 검지로 네모를 만들어 보이며〕 네모를 지게 했어. 그런께,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생각할 적에 뭐냐 하면은

"느이 나라에 3강(三綱)을 알 수 있느냐, 3강."

이런거였다는 거여. 그런디,

"3강은 그만 두고 5륜(五倫)까정 안다."

자, 그러니 5륜 알 적에야 3강 모를 수야 있나 말이지. 그런께 5륜까정 안다 이랬드래요.

그래서 인저, 동그래미, 천은 원야(天圓地)요, 지는 방야(地方也)거든. 천은 원이여.

"하늘이 둥그런 이치를 아느냐?"

그러니께,

"하늘 둥그런 이치보다는 땅 모진 것까정도 알 수 있다."

지는 방야다 모진 것도 안다. 그러드라 얘기여.

"아이구."

그러구서는, 가 버렸디야.

그러구서, 그냥 갔는디, 그러니께 승부 관계를 거기서 묻는 거여. 저 조선 우리 임금님

이 물었을 테지, 물론.

"그런디, 이번에 그 은어 관계에 대해서 그냥 아무 답두 없이 그냥 간 게 무어냐?"

"인절미 몇 개 먹구 왔느냐구 그래서는 5개만 먹구 와서 5개 먹었다구 그랬슈."

"또, 그러면 이렇게〔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하는디 이럭하는〔손가락으로 네모를 그리며〕게 무어냐?"

"아, 떡이 워치게 생겼느냐구 해서, 모졌길래 모진 눔 먹었다구, 그랬죠."

"옳았다."

그럼 물었어. 저 중국 사신 왔던 사람 보구,

"워치게 된 거냐?"

니께,

"아이고, 조선 가야 뭐 은어니, 글 시합이니, 도저히 헐 힘이 없읍니다. 삼강을 아냐니께 오륜 안다구까지 하고, 천은 원야요 하는디, 둥그런 이치를 아느냐니께시니, 지는 방야요, 땅 모진 것 까정 안다구 그러는데, 뭘 합니까?"

"맞았다. 그러니께, 니가 오히려 유식한 놈보다 무식한 네 놈이 더 낫다. 이게 다, 우리 조선의 운이다."

그렇게 얘길 허더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6. 낮 12시 10분경
구 연 자 : 유 병춘(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49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80. 갈매기가 된 여동생(2)

T 지곡면 중왕리 ③—A면

***줄거리**

그전에 아내와 여동생을 데리고 바다에 갔던 남자가 물이 차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자기 아내를 먼저 업고 나왔다.

물에 휩쓸려 죽은 여동생은 갈매기가 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면 '가오 가오' 하고 울어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옴을 알려 주고 있다.

이 갈매기 전설이, 남편허고, 부인허고, 여동생하고 바다에 갔다가 물이 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인제, 남편이 사람은 살려야 할 텐데 자기 부인만 살리고 여동생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동생이 죽어 가지고 넋이 갈매기가 되 가지고 들물만 나며는, 물이 찰

정도가 되면

"가오! 가오!"

하고 운다는 전설이 있어요. 〔채록자 : 누구에게 가오 가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바다에 나와 있는 사람, 자기처럼 죽지 말고 가서 나가라고

"가오! 가오!"

한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윤 양모(남, 4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9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중왕리 노인회관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을 회관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편에서는 윷을 놀고, 한편에서는 담소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조사단원의 한 사람인 김 창진선생이 방언조사를 했는데, 조사 도중 새의 이름들이 나오니까 자진해서 그것이 유래된 이야기를 해 주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마을 할아버지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81. 꿩의 울음소리

T 지곡면 중왕리 ③—A면

＊줄거리

옛날에 옥황상제가 꿩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마를 캐 가지고 오라고 했다. 꿩이 지상으로 와서 마를 캐어 먹어 보니 매우 맛이 있었다. 꿩은 마를 캐서 모두 자기가 먹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천둥, 번개는 옥황상제가 꿩을 부르는 소리인데, 꿩은 캐거든 올라간다는 뜻으로 '캐그덩 캐그덩' 하고 운다.

꿩이라는 놈이 옛날에 옥황상제님께서 병이 나 가지고,

"지상에 내려가서 마를, 마 뿌리를 캐 와라."

그래 가지고 꿩이 내려왔는데, 마뿌리를 캐 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가 다 먹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천둥 번개가 치며는 옥황상제님께서 꿩을 얼른 불러들이는 그 소리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캔 건 지가 다 먹고 마가 없어 가지고, 번개치고 천둥소리가 치며는 꿩이

"캐그덩, 캐그덩"

하고 운답니다. 〔채록자 : 마를 캐거든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예.

"마를 캐그덩 마를 캐그덩"

〔모두 웃음〕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1시 5분경
구 연 자 : 윤 양모(남, 40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9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82. 뻐국새의 울음소리

T 지곡면 중왕리 ③—A면

*줄거리

옛날에 단간방에서 시부모와 함께 살던 신부가 시부모 때문에 옷을 벗어 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녀의 넋이 뻐국새가 되어 '벗구 벗구' 하고 운다.

옛날이 신혼 적이 처녀가 시집가는데, 시부모도 있고 아마도 단칸방에서 살았던 모양이지. 부모들도 있구. 그래니께 벗구 못 자구서 그럭저럭하고 살다가 서로 헤어져서 인제 뭐허게 됐던 모양이여. 그래서, 죽었거든. 그래니께, 부모들 앞에서 벗구두 못 자지. 그냥 원(怨) 되구 뭣하구 하니까 노래가 되 가지구서 넋이루 되서 처녀 넋이가 되서 '벗구 벗구' 하고 운대유.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전 11시 8분경
구 연 자 : 윤 희(남, 5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83. 불알 보고 홍시라고 한다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총각이 장가간 첫날밤에 낮에 먹던 나막김치 생각이 나서 벌거벗은 채 부엌으로 갔다. 신랑은 나막김치 항아리를 찾아 김치를 꺼내다가 잘못하여 김치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러자, 방안에 있던 처가의 식구들이 쫓아 나왔다. 신랑은 급한 김에 뒤곁의 감나무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그 때, 그 집의 두 며느리가 물렁감을 먹고 싶다고 하며, 길 참대를 가지고 왔다. 한 여자가 척 늘어진 신랑의 붙알을 물렁감으로 알고 참대 끝의 갈고쟁이로 비틀었다. 신랑이 아픔을 참지 못해 똥을

싸니, 두 여자는 감이 골아서 터진 것이라 했다.

불알 보고 홍시라고 참대미 갖고 덤빈다는 얘기 알어유? 〔채록자 : 모르는데요. 좀 해주시지요.〕 여기 방 안에 있는 양반들두 모르지유?

헌디, 옛날에 참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갔는디, 첫날 저녁에 신방을 차려 줬어. 신방을 차려 줘서는 신부허구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는 신부보며 묻기를,

"야, 오늘 저녁에 그, 밥상을 차려 왔는디, 야 세상에 그 좋은 눔의 그, 찬이 있는데, 반찬이 있는디, 그게 무슨 반찬이지? 세상에 그것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께, 그 신랑이 하는 얘기였겄다. 그러니까는, 그 규수 얘기가,

"우리 집에는 그 나막김치라구 하는 게 있시다."

그러니께,

"그 나막김치라는 게 워티게 담느냐?"

구 하니께,

"재료는 뭐 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것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럼 그게 워디가 있느냐? 그것 좀 먹었으면 좋겠는디, 당신 좀 갖구 오슈."

"내가 지금 신방 차리구 하는디, 어디 가 갖구 옵니까? 그 나막김치라는 게 살강 밑에, 요 이만저만한 데가 있으니께, 고 깨 덮어 놨으니, 게가 있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여. 그러냐구.

아, 자다 말구서라무니 옛날 빤스도 없던지, 원 사리마다두 없던지 빨개벗구서라무니, 화닥닥, 얼마나 먹구 싶은지, 달은 우수달밤이여. 달은 훤하게 우수달밤인디 나갔어. 나가서라무니 부엌문을 가만히 열구서 들어가 보니께는, 단지를 더듬더듬허구 이렇게 보니께, 단지가 하나 있거든. 깨를 열어 보니께는 그 나막 김치라는 게 들어 있어. 그러니까는 그 단지를 냅다 손을 푹 넣구서 한 점을 걷어 집었어. 욕심채기루 목구집구서 빨라구 보니께, 한 주먹 집었으니께, 단지가 좁으니께 기어 나오나 주먹이. 안 나오지. 안 나오니께는, 급하니께, 얼른 먹을 욕심으로 냅다 메쌔려서 단지가 들리니께, 확 메때렸다 이거여. 그러니께, 단지가 '쾅강' 깨지네. 왈그랑하지. 그러니께는 안방에서는, 혼인집이니께 한 방에 자는데, 야단 났어. 팽이 들어 왔다구. 그러니께는 막 쿠당탕거리고 물 열구 나오니께, 워티겨. 접이 나니께 워티겨. 나막김치니 뭐니 정신없이 뒷문 차고 나가 보니께는, 달은 휘영청 밝은 우수달밤인데 워티겨. 그러니께는, 뒤 이렇게 보니께는, 감나무가 있어. 그래 8월달이 됐던지 감나무를 막 붙잡고 곧장 올라 간 겨.

올라가서라무니 감나무 상 꼭대기 올라가서라무니, 가만히 꼭 붙어서라무니 있어. 있는데, 아 방이서 나오며 동서, 형님 찾아싸며 나오더니, 부엌에 보니께, 아닌게 아니라 그 나막 김치 동이가 깨지고 막 이랬는데 자기네 동서끼리,

"야 동세, 우리 감 말랭이(물렁감) 하나 따 먹고 들어 가세."

이런 얘길 해여. 즈이들끼리. 가만히 나무에서 들으니께. 그러니께는,

"그리여, 형님 그럭혀."

허구서니, 나오더니 참대미(참대로 된 긴 막대) 뒤에다 세워 놓은 놈 하나 번쩍 그 갈고리 친 놈을 이렇게 들더니, 아 이렇게〔두 손으로 잡고 위로 벋어 올리는 시늉을 하며〕 감나무로 올라 오는 기라. 그 참대미가.

올라오더니, 우수달밤이니께, 불알이 워티게, 젊은 놈이니께 야롱야롱 했던지 말여. 이렇게 늘어져 있는디,

"저 놈이 그 중 잘 익은 것 같어. 저 놈 따세, 저 놈 따세."

요지랄 했싸커든.

"에이, 저건 골은 것 같은디."

"아녀 상관없어. 그 놈이 제일 좋아."

아, 갈고쟁이를 갖다가 불알 밑구녕에 꽉 대구서 비트네. 그래서, 똥발이 터졌어. 똥을 부득 쌌거든.

"으이그, 골았다니께, 그 눔 밑이서 그 눔 땄다."

그래서, 옛날 전설에 불알 보구 홍시라는 게 전설이 그렇게 내려왔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정 종관(남, 59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736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채록 장소 : 대산면 독곶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경로당을 찾아 갔을 때, 그 곳에는 노인 10여 명이 모여 한쪽에서는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담소하고 있었다.

채록자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여 김 유환씨로부터 '황금산 전설', '마고 할미 고쟁이 말린 바위' 전설 등을 채록한 뒤에 채록자 옆에 앉아 있던 정씨에게 부탁하여 구연한 것이다. 구연자 정씨는 지곡면 대요리에서 오래 살다가 요즈음에 임시로 독곶리 경로당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연하는 동안 10여 명의 노인들이 경청하면서 함께 웃고, 맞장구치기도 했다.

청 중 : 경로당에 모여 있던 노인 12 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84. 죽을 수는 독 안에서도 못 피한다(2)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줄거리

옛날에, 강 감찬은 번개의 갈비를 부러뜨릴 정도로 동작이 빨랐다.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잡아갈 수가 없었다. 저승사자들은 강 감찬을 잡으려고 한 꾀를 내었다.

저승사자는 예쁜 여자로 변신하여 강 감찬을 유혹하려 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그의 부인에게 알렸다. 그것을 사실로 안 부인은 몹씨 분개했다. 강 감찬은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 시간에 독 안으로 들어가 숨으면서, 자기 있는 곳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분한 마음에 숨은 곳을 알려 주자, 저승사자는 그를 잡아갔다.

옛날에 그 강 감찬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는데, 그 분이 그 번개의 갈비를 분질렀다는 겨. 번개를, 번쩍하는데 그, 분질렀다니까 얼마나 동작이 빠르냐 이거여. '번개 갈비를 분질렀다.'는 이런 분이 있었는디, 에— 그 분이 인저 살았는디, 그 분을 사제(저승사자)들이, 강 감찬이를 그렇게 그 눔이 동작이 빨르고 비상하고 하니께, 그 강 감찬이를 잡아 갈려고 하는 겨. 그런디, 강 감찬이를 뭐, 잡아 갈 재주가 없단 말여. 그러니까는, 참 사제들이 참, 강 감찬이 있는 데 가서 살계를 부린 게라. 살계를 부려서 인제 강 감찬을 어떻게 요리해 가지구서, 강 감찬이를 워티게 쓰러뜨릴려구 하는디, 강 감찬이가 넘어 가지를 안허여. 그러니까는, 강 감찬이가 인저 하루는 이쁜 기생이 와서, 이렇게 해서, 너 하고 이렇게 좀 지내면은 당신하고 이렇게 지내서 뭐 한다구. 응,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제들이 하니까는, 강 감찬이가 그런 뭘 했어. 그런디, 그 얘기를 워티게 허느냐믄 자기 본 마누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께는, 본 마누라가 막 치어 가지구서, 강 감찬이는 인저 참 그것이 실망이라. 그런 일두 없는디 꾸몄으니께.

아, 하루는 사제들이 와서 그 야단을 부셔 대는데, 워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께는,

"나는 이어중 죽게 됐다. 나는 죽게 됐으니께……."

강감찬이 알어 그거를. 아니까는, 뒤란의 장독대에다가 독을 하나 갖다 놔라. 죽게 됐으니께, 독 안에 가서 독을 쓰구서 피할라구 하는디, 허는디 그 마누라가 강 감찬일 찾아 오니께, 사제가 찾아 오너서 강 감찬 어딨냐구 찾아 오니께는, 그 마누라가 한다 소리가, 뵈기 싫어서, 그 마누라가 그 넘의 여자한테 대니구, 그 뵈기 싫으니께는,

"저 장독 밑에 저기, 강 감찬이 저기 들었다."

구, 큰 마누라가 이랬네. 그러니께는 강 감찬이가 쑥 나오면서,

"불가대명은 독 안에서는 못 피한다더니, 그 말이 꼭 맞는다."

면서 그 사제한테 싹 죽어 갔다는 겨. 강 감찬이란 사람이, 옛날에.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정 종관(남, 59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736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85. 숯을 씻어 잡은 동방삭(3)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줄거리**

동방삭이 수명부에 적힌 자기의 수명 '三十年'의 十자 위에 점을 하나 그어 '三千年'으로 고쳐 놓고는 저승사자들을 피해 다니며 오래오래 살고 있었다.

저승사자들은 동방삭을 잡기 위해 한 꾀를 내어 냇물에 가서 숯을 씻고 있었다. 지나다가 이를 본 동방삭이 왜 숯을 씻느냐고 물었다. 사자가 희어지라고 씻는다고 하자, 동방삭은

"내가 삼천 갑자를 살았어도 희어지라고 숯 씻는 놈은 처음 본다."

고 했다. 저승사자는 그가 동박삭임을 알고 잡아갔다.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갑자을축을 3천번 하니까 3천년을 산다 소리죠. 따지고 보자면. 그런디, 3천갑자 동방삭이가 이 놈이 머리가 얼마나 좋구 비상허구 한지, 삼천갑자 동방삭이를 잡으얄 텐디, 잡을 장사가 없어. 그런디, 삼천갑자 동방삭이가, 30년이여, 30년, 수명이. 그런디, 그 3천갑자 동방삭이가 그 워디 저승엘 가보니께 '三十年' 인디, 삼(十을 잘못 말한 것임)자 위다 하나 딱 삐쳤어, 지라 가서. 보니께, '三千年'이여. 이럭해서 3천년을 살게 됐는디, 야, 이걸 잡으얄 텐디, 잡을 장사가 없어.

그런께, 사제(저승사자)들이 내꼬랑에(내의) 물이 콸콸 내려 가는 다리 밑에서라므니, 숯을 워티게 막 몇 십 가마를 갖다 놓구서, '썩썩' 그냥 그 다리 밑이서 닦구 있어. 물에다가. 그런께, 검은 물밖에 더 내려 가나 베. 3천갑자 동방삭이가 그 때 마침 지나갔던지 다리 위를 지나다 보니깨, 웬 놈멀이 숯을, 검은 물을 내려 가면서 숯을 닦고 있네. 몇 십 푸대 놓구서. 그러니께는, 동방삭이가 물그레미 내려다 보면서 헌다 소리가,

"야, 나이 3천년 살아도, 네기랄꺼……."

이, 그 놈들한테 물었어.

"느이들 왜 숯을 닦느냐?"

"하얘지라고 닦는다."

그러니께는,

"나이 삼천 년 살드락까정 나 원 숯 닦어서 하얘진다는 놈, 느이 놈들밖에 못 봤다."

구 이러니께는, 사제는

"오냐, 네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냐?"
구서는 화닥닥 잡아 갔다는 겨.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정 종관(남, 59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736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86. 짚신을 오래 신는 비결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짚신 한 켤레를 가지고 얼마나 신느냐고 물었다. 보름밖에 못 신는다고 하자 어떻게 신기에 보름밖에 못 신느냐고 다시 물었다.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는 신고 가다가 그 사람이 지나고 나면 벗는다."

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보름밖에 못 신지. 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신고 서 있어. 그 뒤에는 다시 벗고 가지."

지가 그랬어요, 지가. 딴 사람 한 것도 아니유. 짚세기를 삼아 신구서 가다가, 옛날엔 그 짚세기가 참, 가다 보면은 이내, 많이 멸어지구 그랬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보고, 내 이런 말을 했지유.

"자네는 짚세기를 삼아 신구서 얼마나 가나?"

그러니께, 그 사람 말이,

"난, 보름밖에 못 가."

이러드라구. 그래서,

"그 워티게서 보름밖에 못가나?"

그러니께

"가다가 손님 만나면은 고기서는 신구서 가다가 벗지."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는,

"그러니께 보름밖에 못가지."

"그럼, 자네는 워치게 돼서 그렇게 몇 달씩 가나?"

그러길래,

"나는, 그 사람 오면은 지니가더락까지 그냥 신구 섰어. 그러구서, 그 뒤로부텀 발 벗구

가니께, 아무런 관계 없어 가꾸 석 달 이상, 일 년두 신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경
구 연 자 : 이 종삼(남,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300
채록 장소 : 독곶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독곶리 경로당에서 10여 명의 노인들과 이야기판을 벌이고 김 유환씨의 전설, 정 종관씨의 민담을 듣고 있을 때 구연자 이씨가 들어왔다. 이씨는 약간 술에 취해 있었다. 큰 목소리로, 대화를 구분하면서 구연했다.
청 중 : 경로당에 모여 있던 노인 10여 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가끔 이야기하였다 함.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87. 과부 후려 장가들기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홀아비의 친구들은 밤에 과부집으로 몰려가 갈퀴로 과부의 낭자를 잡아당겨 섬에 넣어 메고 와서 홀아비에게 주어 서로 짝을 짓게 해 주었다.

옛날 말이죠, 홀애비가 되면은 장가를 들으얄틴디, 지금 같지 않고, 지금은 막 연애하고, 어떻게 누가 중매를 다 한다 하지만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되질 않여. 홀애비가 되면. 그래서, 홀애빌 짝을 채 주자면은 후렸답니다. 후리러 가는디, 뭘 갖구 가느냐면은 섬이라고 있슈. 저 짚으로 쳐 만든 섬 큼직한 놈 하나 허구, 갈퀴, 갈퀴를 지드랗게 자루를 질게 매 가꾸서, 몇 사람이, 한 댓 놈이 막 간다굽디다. 과부집이를. 가서무라니, 문을 볼 것 없이 차고 들어가서무라니, 그 후리러 갔으니께는, 여자로서는 그 과부로서는 옛날에는 그 방이다가 소시랑도 놓구 자구, 낫두 놓구 자구, 범접하면 찔를라구 말여. 그러니께, 워치게 붙잡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께는, 옛날 전부 낭자를 했으니께, 가서 그 갈퀴자루로 그 낭자를 '콱'하니 가 찍는 겨. 끄는 겨. 머리끄댕이를. 지가 잡아 댕기니 월마나 아퍼. 줄줄줄 끌려 오지. 도리없어. 그럭해 가꾸서 섬에다 우그려 넣구서라무니, 그저 나 보라구서 막 채 가꾸 가는 겨. 그래서 홀애비 갖다 앉혀 주면은 그냥 그 때 그렇게 장가 들었답니다. 옛날이는.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5분경
구 연 자 : 정 종관(남, 59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대요리 736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88. 아버지를 장가들인 꼬마 아들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한 꼬마가 이웃집 과부를 자기의 새엄마로 모시기 위해 한 꾀를 내었다. 꼬마는 아버지 보고 새벽마다 과부집 문앞에 가 있으라고 하고는, 아침마다 그 집 문앞에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과부는 왜 여기 와서 너의 아버지를 찾느냐고 꾸중을 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꼬마는 다시 그 집으로 가서 과부에게

"날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주무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아버지가 여기에 안 계신다고 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과부가 화가 나서, 문 밖으로 달아나는 꼬마를 뒤쫓으며 때릴려고 하였다.

대문 뒤에 숨어 있던 아버지는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달아나던 꼬마가 돌아서며 자기 아버지가 정말 방안에 없는가 가서 보자고 했다. 함께 방에 들어가 보니 꼬마의 아버지는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다. 일이 이쯤 되자 과부는 꼬마의 아버지와 재혼하였다.

옛날에 아버지는 홀로 살고, 이웃에 과부가 살구 계신데, 어린, 이 소견있는 놈이 꼭 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티게 하야만이 우리 어머니로 모실 수 있는가를 연구한 끝에 부자가 상의를 했는데,

"아버지, 저 하라는 대루만 하세유."

이렇게 얘기를 허니께,

"야, 이 녀석아, 너 하라는대로 워치게 허냐?"

그러니께,

"걱정두 말구요 오늘 새벽이 저기 가서만 기슈."

이러라는 얘기를 해요. 그 누구네 집이냐면 그 혼자 사는 그 아주머니네 집에, 과부네 집에 가서 계시라는 얘기를 했더래요.

그런디, 이눔이 워치게 머리를 썼느냐면은, 거기 가서,

"아버지 아버지!"

식전 참이면 가서 불르거든유. 그러니까, 이 과부의 말이 말이지,

"아 이눔아, 느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디, 노상 오너서 아버지, 아버지 찾느냐?"

구 이런 말 했답니다. 그 수작을 꾸민 얘기죠. 그런디, 인제 사흘째 되던 날은,

"아버질랑은 대문 밖에 가 계시다가, 방에 가서만, 꼼짝 말구 이불 속에 가만 계시요."
이렇게 애기를 허구서는 아들이 그 이튿날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 우리 아버지 분명히 여기서 주무시는데, 워치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구 허느냐구 말여. 난 어제 저녁에 나 혼자 자느라구 죽을 뻔 했는디, 아이구, 미섭기두 허구 하는디 워째 아버지는 여기만 댕이며 주무시느냐?"
구 그러니께, 그 과부께서 생각할 적에 말이죠,
"야 이놈이 큰 일날 놈이구나. 야 요놈, 느이 아버지가 워디 있어서 그려? 워디 있어서 그려?"
해 가면서 이렇게 막 쫓아 나오니께, 피해 가는 체 했는디, 즈이 아버지하구 약속이 됐으니께, 즈이 아베는 고 새 중간에 대문 가시서 숨었다가, 슬쩍 안방에 가서 드러 누웠거든요. 그런 사이에
"정말 그리유? 정말 그리유?"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해 가면서,
"이눔아, 그럼 가 보자."
"가 봅시다. 가 봐요."
가서 떡하니 이불 떠들어 보니까, 즈이 아버지가 과연 그 방에가 들어 앉았거든요
"이래두, 아버지가 여기 안 주무셨다고 하느냐구요?"
말이지. 그 아드님이, 즈이 아버지의 그 결혼식을 거행해 줬다는 애깁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종삼(남,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300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89. 과부를 시집 보낸 거짓말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그전에 동네 일을 보는 사람이, 홀아비가 된 훈장과 이웃집 과부를 결합시키기 위해 과부한테 가서, 관청에서 이상한 공문이 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홀아비가 장가를 들지 않으면 3년 징역에 벌금 50만원, 과부가 시집가지 않으면 3년 징역에 벌금 30만원을 물린답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크게 걱정을 하자 그 사람은 그 과부를 훈장과 결혼하도록 주선을 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나자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그 공문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그 전에 그 호학(好學)하던 양반이 혼자 됐어. 홀아비 됐어. 근디 그 옆에 과부가 하나 있거든. 암만 그루 중신을 해야 당체 과부가 들으야지. 듣질 않어. 날마다 안 간다는 겨.

그래서, 하루는, 저, 그 사람이 반장 봤어.

"아이, 벌놈의 공문도 다 있네."

과부가 듣지.

"무슨 공문이간요?"

"허이, 호래비가 장가 안들면 3년간 징역, 50만원 벌금 문대야. 과부두 시집 안 가면 그렇게 30만원 벌금 물구 3년 징역이래야."

그래, 과부가 생각허니께 큰 일 났거든. 그럴 것 아니 것슈?

"아줌마, 이 공문이 이렇게 나왔으니 말여, 헐 수 없이 그 선상게로 가면 어떠냐구?"

자기두 마음은 있어. 선상이 마음에 있는디, 그, 애덜두 있던지 아마 갈 마음은 있어두 갈 수가 없지.

그런데, 헐 수 없이 가야할 수밖에 더 있남. 벌금 물구 뭐 한다니께 말여. 반장이 그렇게 해서, 인저 갔어. 그런께, 잘 살지. 인제, 자구, 뭣두 했는지 그건 몰러.

또, 한 번 갔어.

"아이, 이 눔의 공문두, 또, 해제되었다느먼유."

해제됐다구. 해제되면 뭐 할 겨. 인제, 아무래두 가서 잔 걸. 그래서, 장가들었디야. 하하하.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15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0. 사나운 여자 길들이기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옛날에 한 처녀가 사납다고 소문이 나서 나이가 차도록 시집을 가지 못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총각이 그 처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첫날밤에 똥을 누워 신부의 속옷 속에 넣어 놓았다. 신부가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자, 신랑은 아무렇지 않은듯 위로했다. 그 후로 신부는 그 사납던 성질을 부리지 않고 살았다.

그는 환갑날에 아내에게 첫날밤의 일을 털어 놓았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수염을 다 뽑아 놓았다.

옛날에 말입니다. 그저 정신상으로 아주 굉장히 그 나쁜 그런 성질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과년이 닳도록 시집을 못갔답니다. 그랬는디, 워떤 총각이

"그 여자는 워째 시집을 못가느냐?"

하구 이렇게 물어 보니께,

"아주 성질두 괴팍하구, 아주 사납기두 허구, 그래서 아주 못 간다."

구 이렇게 얘기하니께, 그 총각 말이,

"걱정도 마쇼. 내게다가 좀 중신 좀 해 주쇼."

허는 얘길 해 가지구서, 그 총각이 결혼을 허게끔 됐대요.

그래가지구서, 첫날 저녁이라구, 이렇게 따져야쥬. 그런데, 이 사람이 피가 좀 많았던지 어쨌던지, 그 날 저녁에, 물론 신부측에서는 하루종일 좀 고달픈 친정 하에서, 그냥 초저녁이 일찍부터 자는디, 이 사람이 피가 많아 가지구서, 그날 먹은 것두 많구 이러니께는, 여자, 옛날에는 그 단속곳이라구도 하고 속곳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다 대구서 똥을 '북—' 싸 놨대유. 싸 놓구서는 그냥 저는 물르는 체 하구서는 그냥 자노라니께, 여자가 어느 때나 됐는지, 잠을 깨 보니께, 친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구 보니께, 똥을 부지게 쌌더래요. 그래서는, 자기가 싼 똥인줄 알구, 신랑보구

"여보 여보, 난 오늘 과식을 했는지 이렇게 용변을 많이 봤는디, 이 노릇을 워떡하느냐?"

구 이럭하니께,

"아, 그거 무슨 상관있어. 이거 속곳이다 묻혀내 가지구서는 치면 되지. 그러구, 자기나 알구, 나만 알면 되지. 뭘, 그러느냐?"

구 이렇게 얘기한 뒤로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그 여자가 사납다는 그 성질을 절대 부리지 못허구, 과거 죄졌기 때문에, 그 넘부끄러운 얘기를 폭로헐까 싶어서.

그래가꾸서, 평생을 살다가, 아들 딸 많이 낳구 살다가, 참 예순 한 살 환갑날에 있어서 자질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난 옛날 얘기 좀 한 마디 해야겠네."

해 가면서 그 아버지께서 그런 말을 했대유.

"사실은 당신이 사나워서 시집을 못간다구 할 적에 내가 당신을 얻었소. 그랬는디, 그날 저녁에 사실은 당신이 싼 똥이 아니구 내가 싼 똥일세."

이렇게 얘기하니께,

"그러면 그렇지."

허구서, 냅다 그 수염을 말여 쏙 뽑아 놓더라는 얘기여. 그 여자의 고집은 고렇게 그 끝까지 강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종삼(남,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300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1. 여자의 속옷 벗기기

T 대산면 독곶리②—B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함께 명산 구경은 사람들에게 아무 탈 없이 명산구경을 잘하자면 돌부처에게 과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을 숨어서 들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들을 찾아가 그 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쌀을 빼앗았다.

그 사람은 과거보러 가는 친구 일곱 명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관집 주인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 여자를 끌어안아 보고는 친구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가 달아났다. 그리고는, 그 친구들이 여관집 주인으로부터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서, 주인이 듣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낼려면 우리 여덟 명이 차례로 주인의 딸을 껴안아 보면, 그 처녀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이야."

이 말을 들은 여관집 주인은 술값, 밥값도 그만 두고 어서 떠나 달라고 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던 그는 빨래하는 여자의 속옷을 벗기겠다고 하고는, 그 여자한테 가서 말했다.

"당신은 오줌누는 게 두 개라고 해서 잡으러 왔다."

여자는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속옷을 벗었다.

그전에 어떤 사람이 참 지날만도 했었는디, 난봉질 했어. 난봉질 했는디, 명산구경을 가

자구 했어. 그 여자하구 남자하구. 명산구경, 아마 육칠월이나 됐던지, 독사가 있든지, 구렁이가 있든지,

"명산 구경을 잘하자면 말여, 독부처에다 과거 잘못한 얘기를 해야 잘 댕겨 온다. 그런디, 독부처가 귀먹었어. 그런께 크게 해라."

저기 가 앉았지. 한 여자가 떡 무릎 꿇더니,

"저는 아무 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아무디, 한 번 어떤 사람하고 친한 거밖에 잘못한 거 없시다."

한 남자는 인저, 또 무릎 꿇더니

"암것두 잘못한 거 없는디 아무에 연분에 소, 아직까지 소 하나 훔쳐 팔아 먹은 거 밖에 잘못한 거 없다."

구 하거든. 그래, 명산 구경을 잘 하구 왔어.

잡놈이니께 허는 소리지. 그 여자를 봤어.

"아주머니, 나 쌀 좀 몇 말 좀 노나 먹읍시다."

그런께, 여자가

"요새 무슨 쌀이 있느냐?"

구 말여 야단났지.

"아이, 아주머니 쌀 댓말 좀 줘두 괜찮어. 아주머니 지낼만 하니께."

못한다는 겨.

"그럼, 그만 둬. 아무 날 연분이 아무하구 친한 것, 내 자기 영감한테 이를 터."

감쪽같이 넘어갔는데 말여. 그 큰일났지. 쌀 주는 게 낫지. 그거 되었남. 그러니깐, 쌀 닷 말을 줘서 갖다 먹었어.

그래 인저, 소 훔쳐 먹은 집에 갔지.

"쌀 좀 몇 말 덜어 먹자."

아, 야단났네.

"너, 이눔의 거 아무개한테 소 훔쳐 먹은 거 내 일르겠다."

허니께, 닷 말은 그만두구, 열 말을 주겠대야. 열 말.

"일꾼 보내라, 한 가마 주께."

갖다 먹었어.

그런디, 그래서, 전부 과거보러 간다고 하네, 전부. 그런디 자긴 돈이 있으야지. 나 술 즐기는 사람이유. 나처럼 술 마시구, 친구 데리구 갈라면 술 사주야지, 노자 해주야지. 해서 간댔어. 먼저 갔어. 즈이덜까지. 가다 여관에 가 정하구선, 술 잔뜩 처먹구 들어누었는디, 그 놈은 야중에 갔지. 전부 술에 곯아 떨어졌대야. 그 밑에 집에 들어갔어. 어떤 노인 있는데 가서는,

"암디 사는디, 과거보러 가는디, 해가 일몰해서 이렇게 들어 왔읍니다."

아, 보니께 사람이 깨끗하고, 또 과거보러 간다는 사람이니께 인저,

"하루 저녁 자구 가라."

구. 자다가 올라 갔어. 올라가니께 그눔들 전부 술 처먹구 자. 그거 과거 볼 눔들이.

가만히 안방을 넘겨다 보니께 안방, 웃방은 불 다 끄구선, 대청 건너방엔 큰 새악시가 아주 공부하구 앉아 있어. 그 방문 열구, 그래, 그 방서 헌 걸루 알구. 열면서 냅다 그냥 색시 걷어 안으니께 새악시가 꼬약거리지 않겄남. 또, 그방으로 들어 갔다가 내뺀졌지. 아 친정 오메, 친정 아베 야단났네. 이눔들 과거보러 간다더니 말여 이랬다구. 그러니, 큰 일 났어. 그 눔이 그때 들어 왔어.

"야, 느이들 과거보러 같이 가자더니, 워째 느이덜만 왔니?"

"그 글쎄, 그건 잘못이다. 잘못인디, 아, 이 방에서 나와서 새악시를 걷어 안고 이방으로 들어 왔다니 말여. 우리 다 술 취해서 잤는디, 언제 그런 정신이 없는디 말여."

"그 좋은 수가 있구나. 그러면, 새악시가 어떠한 몸이, 어떤 몸으루 자기 안은 걸 알거여, 그런께……,"

친정 오메, 친정 아베 다 듣지.

"일곱 사람 다 안아 보래라. 그러면, 인저 확실할 거 아니냐?"

친정 오머니, 친정 아버지 들으니께 그거 큰 곤란이거든. 그런 봉변에두 자기 딸이 다치지 않았으니께. 그래 인저, 워티겨. 일곱 사람 다 안아 볼 수 있나?

"아주, 과거 보는데 밥값하고 술 값두 그만두고 가라, 가."

감쪽같지 뭐. 그눔이

"야, 너 다리 밑에서 빨래하는 여자 벗길 재주 있니?"

하며 그러거든. 그러니, 일곱이 허구, 여덟이 가지.

"야, 그걸 못 벗길 테면 뭣하러 과거보러 간다니?"

거, 일곱 사람 거기가 섰지. 딱 내려 섰어.

"당신 냄편 이름이 누구요?"

물었지.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라.

"아무라구."

그래.

"아, 당신 오줌 누는 게 두개여. 그래서, 나라에서 잡으러 왔다."

구. 아, 보니께 저기가 잔뜩 섰네. 거 안 잡혀 갈라구면 어떡한다나. 이렇게〔한쪽 다리의 옷을 주욱 걷어 올리는 시늉을 하며〕 속곳을 올려 보였지. 안 보인다는 겨. 또 이렇게〔다른 한 쪽의 옷을 걷어 올리며〕 속곳을 올려 보였지. 이쪽으로 보구, 저쪽으로 보니께 둘루 보이거든.

"아, 이거 잡아 가야 한다."

둘이니께. 그러니, 헐 수 없이, 벗어 보일 수밖에 더 있나. 그러니께, 하나 밖에 더 있남.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25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상황,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2. 양가집 처녀의 결혼한 머슴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줄거리**

시골에서 머슴살이하던 무식한 총각이 사경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서울로 가서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총각의 외모에 반한 한 여대생이 그에게 마음을 두었다.

돈이 떨어진 그가 다시 시골로 돌아오자 그 여자가 편지를 했다. 그는 남을 시켜 회답을 써서 보냈다. 서신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을 하였다. 남자의 정체를 안 여자는 밤마다 남자에게 공부를 시키며 잘 살았다.

시골에서 살던 무식한 사람이 있지요. 남의 고용살이를 하던 사람이 머리는 좋았는지 장가는 들으얄 텐디, 나이는 먹어가고, 살자는 여자는 없구, 그러니께 요놈이 꾀를 내 가지구서, 워치게 했느냐면은 새경을 받아 가지구서 말입니다. 지금 얼른 얘기하자면, 알아 듣기 좋게, 인천에다 하숙허구, 서울로 댕기는디, 워치게 댕기느냐 하면은, 기차간에서 영어책을 하나 뜩— 갖다 놓구서는 상하를 물르기 때문에, 어떤 아는 분한테

"워디가 위구, 워디가 아래여?"

이렇게 물어 보니께,

"여기는 위구, 여기는 아래여."

이러니께, 그걸 봐 가지구 뜩— 하니 척척 넘깁니다.

그런디, 새경받은 것이 인저 얼추얼추 닳아 가는디, 그 옆에서 보먼 그저 대학교 댕기는 여학생이었던 모냥이지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말이지 참 훌륭한 남자'라는 것을 생각하구선 말이지, 그 사람한티 마음이 꼬여 가지구서 말입니다.

'야, 저 사람한테 한 번 내가 말이지, 내 그 속시원한 얘기좀 해줬으면 좋겠는디'

하는 마음은 가지구 있었지만서두, 그 여자의 입장에서 얼른 화다닥 얘기 못허구, 어느 날 별르다 별르다가,

"여보세요, 당신은 워느 학교 댕이십니까?"

"물어 볼 꺼 뭐 있소?"

하주. 이 남자 대답이. 거, 왜 물어 볼 꺼 없느냐면, 그 학적이 없으니께, 어느 학교라고 얘기를 뭇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거 뭐, 보면 알지 뭘 그래."

하주. 이렇게 남자답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께, 그 여자가 옆에 달게 달려들면서 말이지,

"여보, 당신과 나는 평생을 같이 했으면 워떡겠소?"

"아, 그것도 좋지만서두, 안돼."

하주. 아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께, 그 여자는 혹간 그럴 수가 있을 일이죠. 전부, 그, 막, 그냥, 영어책만 말이지, 전부 보구 말여. 이래가면서 뭐하니까 말이지,

'허이구, 외국 유학이라두 갈라는가, 아니면 고유한 학과를 경영하는 그런 분이라.'

구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는,

'하, 저 남자하구 결혼하면 내 일평생은 참 좋겠는데.'

하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그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랬는디, 이 남자는 결론적으로 볼 적에, 그 새경받은 거 다 떨어지게 됐으니께, 고향으루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디, 그 주소를 좀 알려 달라구 그러니께,

"아무디, 아무디요."

해 가꾸, 일러를 줬답니다. 그런디, 그 여자두 대학교 댕기는 여자니께는, 영어로 직직해서 그려 가지구선 말이지, 주소를 딱 해서 보내는디, 영언지 뭔지 아나? 이 눔이 머슴살던 놈이니께 말여. 그래 가꾸서는, 그 이웃이 대학교 댕기는 사람한테 말이죠, 이걸 물어 봤대유.

"야, 이게 워치게 된 주소인가 좀 써 주게."

그러니께,

"아무디 아무디서 어떤 여대학생한테서 편지 왔구만."

"응, 그려? 그러믄, 야 자네가 좀 써 주게. 편지 좀 써 줘. 나는 말이지 당신을 사랑해도 이렇게 만나기가 드물게 됐어."

이래가면서 좀 써 달라고 말이지. 이래 가지구선, 영어로 좀 써 달라고 말여. 그래 가지구선 영어로 주소 쓱— 해서 보냈답니다. 보내 가꾸 보니까 이 여자가, 게서,

"아, 이젠 나의 아주 평생을 같이 할, 그 나의 그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그 남자를 구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하하, 인젠 내 팔자는 취해졌구나."

해가면서, 팔자를 냅다 구자로 돌려가면서, 그 양반 있는 디로 편지를 했어요. 편지를 해서 보니께는, 대체나 뭐 영어로다 찍찍 끄셨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꾸서 이 사람은 계속 대학교 댕긴 대학교 졸업생한티 계속 답장을 보내줬다는 거여요.

그래, 나중엔 인저 만났어.

"결론은 당신하구 나하구는 헤어질 수가 없으니께 만나서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 여자가 찾아와 가지구서는,

"결혼을 같이 하자."

구 그러니께,

"허어, 난 당신에게 자격이 없는디."

"아녀, 난 자격 없어두 좋아요."

아주 그 여자 마음으로서는, 그 대학교 말여, 충분히 졸업한 줄로 알구 말입니다. 외국 유학까지두 갔다온 줄 알지. 넘의 머슴 사는 놈인 줄은 몰르구. 그랬는디, 그걸 보고 팔자소관이라구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알구 보니께, 남의 집 머슴 사는 사람이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천상 당신과 나하구 이렇게 만난 것두 인연이다 말여. 그러니께, 당신허구 살되, 당신 좀 공부 좀 허슈."

이래가면서, 그 여자가 말이죠, 남자에게 저녁마다 말이지, 글을 가르쳐 주구. 이래 가지구서 한평생 즐겁게 잘 살구, 아들 딸 낳구 잘 살다가 그 사람 죽은 지가 몇일 안됐어유. 그래가구 내가 장삿날까지 갔다 왔읍니다. 하하하.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종삼(남,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300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3. 신부의 신랑 고르기

T 대산면 독곶리②—B면

***줄거리**

옛날에 술을 좋아하는 시골양반이 딸의 혼인날을 같은 날로 세 군데나 약속을 했다. 혼인날이 임박하자 아버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딸은 오히려 태연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위로했다.

혼인날이 되자 세 신랑이 들이닥쳤다. 신부는 세 신랑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여 사정이야기를 하고는 신랑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물었다. 두 신랑은 각각 자기를 내세워 말했으나, 한 신랑은 피춤을 훌떡 내리고 "나는 이것밖에 없읍니다." 하고 말했다. 신부는 그 신랑과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옛날에, 그, 참, 양반 행세를 했던지, 그, 따님, 하나가 있는디, 이 아버지가 아주 술을 어떻게 좋아 하시는지 물러. 아는 분이 많으니께,

"야, 친구, 그 여식이 있다는디, 그 혼인을 결정했느냐?"

구 술 먹으며 그러니께, 인저, 그런 자세한 얘기를 허니께, 인제, 허락을 했단 말여.

"좋다."

구. 그런디, 거기만 허구 말아야는디, 아이 이걸 세 가운데를 해 놨어. 술짐이(술김에). 술 취해 가꾸서 대답을 세 가운데를 해 놨단 말여.

그런디 인제, 결국은 예식을 지내얄텐디, 식을 해야할 거 아닌감. 그런디, 이게 또, 한 날이 되놨어. 아, 그러니께, 생각해 보니께, 이 아버지가 큰 일 났거든. 그러니께 워치게 할 길이 없어서 속상해서 인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구 말여, 인제, 아주 심정이 불안해서 드러누웠는디, 그래 인저 그런 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나, 그 딸이 아버지 보구서,

"아버지, 워디 괴로우시간 이렇게 식사두 안 잡수시고 이렇게 누우셨슈?"

그러니께,

"야, 나는 너에게 참, 면목이 없는, 내 술 취해 가꾸서 이렇게 잘못됐으니, 뭐라고 말이 안 나온다."

"아이, 무슨 말씀이간 말씀하시유."

그러니께, 허시라구. 아버지 말씀 하시라구.

그 얘길 했거든.

"야, 나는 술짐에 그 친구덜이 그렇게 허는디, 한 가운데를 해 놓고 승낙을 했어야 하는디, 이거 정신두 없이 그렇게 헌 생각두 몰르구서 대답해 놓구서 시 가운데를 해 놓은 결과, 이 일을 워칙해야 옳으냐?"

그러니께, 따님이 허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실 만큼 됐지만, 하나 걱정허시지 말유. 그런께, 일어나서 진지 잡숫구 약주두 잡수라구. 아주 걱정하시지 말유."

그래, 인저 아버지라 생각허니께 참 이상하거든. 아주 뭐 기분 좋게 얘기한단 말여. 딸이 걱정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의도가 있나 자기두 인제 생각을 못하는 겨.

그래, 인제, 여기 뻐그릴 수두 없구, 저길 뻐그릴 수두 없구, 인제 그냥 두라는 겨. 따님 말이,

"그 날 다 오게 그냥 두유."

"야, 그러면 이거 워칙한다니? 이거 부끄럽구 큰 일 났구나!"

"아이, 걱정하시지 말유. 가만 두유."

다, 닥쳤어. 그날 새악시는 하난디 신랑이 셋이 왔단 말여. 그런디 이게 여럿이 앉아서 우스개 소리로나 할까 그렇다구 보지는 못할 얘기구 너무나 허수허더먼. 어떤 놈이 그냥 갈라구 하나. 대들어서, 하여간 있다구서 그냥 내뺄라구 하나. 다 멤벼서…….

인제, 그 새악시가 하는 말이,

"물론 아버지가 그 약주를 많이 잡숫구서 정신없이 그렇게 승낙을 하셔서, 오늘 날이 되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지만."

그런께, 인저 지가 그 새악시가 아주 결정헐라고 하는 거여. 셋이 되거나 넷이 되거나, 당

자가 아주 딱 하나 이렇게 차지할라고 하는 이거여.

"당신은 생활유지가 뭐며, 무슨 뭐를 했느냐?"

니께,

"나는 무슨 뭐, 공무원을 허구, 뭐 대학두 나오구 이랬다."

는 사람두 있구, 한 사람은

"나는 장사를 한다."

구 이런 사람구 있구. 그런디, 한 사람은

"나는 암것두 없다."

구, 그러구선, 그 많은 중에 괴(괴춤)를 훌떡 벗더니,

"나는 이거 하나 밖에 없다구 말여."

그런께, 몸 하나 있다구 해두 되는디. 그러니께, 그게 참, 보통 사람이 허는 일이 아니라구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니께 그 새악시가 허는 말이,

"역두, 역대하니, 아 심장이라구, 당신네 다 가슈. 난 저분하구 살겠소."

그래서 삐뚤어졌디야. 그래서, 그분하구 가서 잘 살었디야. 그랬어두, 그 사람이, 그 새악시가

〔Tape 교환〕

이 몸둥이만 있는 사람허구 잘 살었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35분경
구 연 자 : 김 옥봉(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구 205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94. 진실한 친구

T 대산면 독곶리 ③—A면

***줄거리**

그전에 한 사람이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여 늘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방 한 구석에 이불을 덮어 놓고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내가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으니, 네 친구들을 불러 몰래 파묻어 주어야겠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하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모두 거절하였다. 이를 본 아버지가 한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니 그 친구는 도와 주겠다고 하며 바로 따라 나섰다. 함께 집으로 온 아버지는 돼지고기를 안주로 하여 술을 마시며 아들을 불러 '진실한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친구라고 허면은 술 먹는 것두 친구고, 같이 노는 것두 친구고, 이렇지만서두, 그 친구의 뜻을 알아보기 위한 표현을 말씀드리구 싶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아들이 돈만 쓰고 돌아 댕이면서 놀러 댕기니까,

"너, 이 녀석아 뭐 될라고 노상 돌아 댕기느냐?"

구 아버지께서 여쭤 보니께,

"난, 친구 사귀느라구 그래요. 아버지 걱정허실 것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허더랍니다. 그래서,

"그려, 너 참된 친구두 사귀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허니께,

"그렇죠, 걱정두 마시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대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좋다. 네가 친구를 그렇게 잘 사귀었다니께, 네 친구가 진실한 친군가를 알아 보자."

이런 마음 가짐에서 돼지를, 커다란 놈 한 마리 잡아 놓구서는 이불을 푹 덮어 놨어요. 아름목에다 덮어 놓구서는,

"야, 아무개야."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입니다.

"야, 나 오늘 워디 가서 잘못되 가지구서 말이다. 야, 어떤 사람 하나를 살인했는디, 이거 말썽없이 워따 갖다 감쪽같이 좀 갖다가 파묻어 주라. 느이 친구 잔뜩 있다니께 말여. 느이 친구 잔뜩 있으면 근력 센 놈끼리 갖다 파묻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허니께,

"걱정말유."

허구 가더랍니다.

그래 가지구, 그 아들이 가 가지구서는 제일 친구부텀 찾아가 봤겠지유? 가서는 얘기를 허니께,

"야, 그런 일은 난 못혀."

"그려!"

그리구, 두째번 친구 또 사귀었다구 해 가지구서 그 사람 있는데 가 가지구서, 그런 얘길 허니께,

"야, 그런 일 했다간 큰 일 나. 법정에 걸리구, 큰 일 나. 그만 두어. 아이, 야, 그만 두세."

이런 식으루 얘기가 나왔대유. 그래가꾸 도루 돌아 오너서

"아버지, 그 묻어줄 내 친구들은 하나두 없더구만요."

이렇게 얘기를 허니께,

"그럴 테지, 그럴 것이다."

해가면서,

"그럼, 내 친구 있는 디 좀 너 좀 가 보자."

해 가지구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좀 이리 따라와 봐."

해가면서, 자기 아버지 친구 있는데 가서,

"여보게, 아무개 아무개 자나?"

그러니께,

"누구여?"

"날쎄, 야, 오늘 술 먹구서 워치게 잘못 되 가꾸서 어치게 그 저 잘못된 일이 있어."

"뭐가 잘못 됐나?"

"야, 오늘 워칙하다 사람 하나 살인을 했네. 그래서, 우리 안방에다 놨는디, 야, 친구와 나만 둘이 알구서 몰래 갖다 좀 묻어 주세."

그러니께,

"야, 그런 일도 있었나? 그려, 그려. 야, 누구 듣지 좀 말게, 이렇게 좀 아무 소리들 말어. 얼른 가세."

해 가면서, 빨개벗었던 그 빤쓰 다 줏어 입구, 이래가면서 나오더랍니다. 나와서,

"우리 집으루 가."

해 가면서, 그 아들은 뒤쫓아 댕겨 보니,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들에겐 몰르게 돼지를 한 마리 잡아 놨는데, 썩 벗겨 놓구서는,

"이게 돼지여. 돼지니께, 실컷 먹자. 너 이녀석, 이리좀 와 봐. 너 친구 사귀었다더니, 그게 친구냐? 올바른 친구라면 내가 갈 길을 네가 가야 되고, 네가 갈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게 친구지, 술 사준다구 친구구, 담배 사준다구 친구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구 싶습니다. 올바른 친구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5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종삼(남, 56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300
채록 장소, 기타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한 이씨가 연설조의 큰소리로 구연한 것임

95. 지술(地術)로 얻은 평양감사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지술(地術)을 잘하는 사람이 산 속 오두막집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그 집에 세 손님이 비를 피하여 찾아와서 자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있는 쌀을 다 털어 죽을 쑤워 손님을 대접했다. 아내가 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우리 집은 왜 부자될 터를 잡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집은 금방석에 임금님이 앉을 터라고 했다. 그 손님들은 임금님과 신하였는데, 주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튿날, 임금님은 그 집 주인에게 산을 보러 가자고 했다. 그 사람은 한 곳을 지나다가 참으로 좋은 묘지라고 감탄을 했다. 임금님이 보아도 역시 좋은 자리였다.

임금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가 임금임을 말하며 지술에 능한 것을 칭찬하였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 사람이 평양감사가 소원이라고 하자, 임금님은 소원대로 그를 평양감사에 임명했다.

워떤 사람이 지술(地術)을 허는디, 아, 날마다 술만 희양치게 먹구선……. 그 사람은 살기를 어디서 사냐 하면 산골에가 한 삽간 집을 짓구 살어.

하루는 워딜 내려가는디, 소나기가 들구 오너서, 비가 오너서, 아 워떤 손님 싯이, 거길 찾아 들어 오너서래미 들어 섰거든. 들어 섰는디, 어두워서 인저 뭇가게 되구 허니께 그안이서 저녁을 대접해야 할텐디 저녁 거리가 있시야지. '독독' 독을 긁으니께, 쌀 한 반 되는 되는디 흰 죽을 쒀서 시 그릇을 들여 보냈어. 건넌 방에다 구리짚의 방석 그눔을 깔구. 그래서, 건넌방에서 유하고 있는디, 그래서, 헐 수 없이 자게 됐어.

자게 됐는디, 인저 비가 그친 뒤, 달은 휘엉청하게 뜨구, 한 밤중 됐는디, 이 사람이 게걸게걸, 술 먹구 오며 게걸거려. 그래, 자기 안이서가 쫓아 나가면서,

"아이구, 조용히 좀 들어 가슈. 우리 집이 손님 오셨슈."

"우리 집이 손님이, 워서 손님이 오너?"

"물르겄슈. 비 쬐겨서 이렇게 시 분이 들어 오셨는디, 가실 수 없어서라무니 건넌방 참 구리방석 깔은 데서 게서 주무시오."

그러거든. 그러냐구.

"그래, 저녁은 워치게 했어?"

"저녁거리가 있나유. 쌀 반 되 되는 거 흰죽 쒀서 시 그릇 들여 보냈슈."

그러니께, 이 사람이

"저런 빌어먹을 년 보라구. 암디 부잣집이 가서 쌀 좀 달라구 해서 저녁 진지를 좀 잘대접해야지, 흰죽 쒀서 손님 대접해여? 이년아."

이러구, 술김에 그런단 말여. 그러니께 안이서 대꾸가, 하는 말이,

"워디, 부자집이가 쌀 달라구 할 수가 있나유? 접때두 한 말 외상 갖다 먹구, 발써두 닷 되 꿔다 먹구, 자꾸 달라구 할 염치가 없읍니다."

그러니께,

"그러면, 워째……"

그 지관이 허는 말이,

"그 부잣집은 내라 집 터 잘 잡아 줘서 부자 됐지. 워째 부자된 줄 아나?"

이런단 말여. 그러니께,

"아, 여보쇼."

안이서 하는 대꾸가,

"워째 그런 집은 부자될 터를 잡구 우린 이런 디다 집을 의지하구 삽니까?"

"어, 건방진 여편네. 이 집이 금방석에 임금 들어 앉을 터여."

이러거든. 그러니께 그러냐구.

이렇게 해서 건넌방에서 듣지. 그 손님들은. 들어가 자구, 새벽참에 일찍 나설라무니 이 사람이 참 쌀두 팔구 피기두 사구 반찬두 사구, 술두 사구 해서 갖다, 그 손님들, 잘 차려서 갖구 들어 갔어.

"손님들이 어제 오셨다는디 이렇게 그저, 저녁두 굶으시구 이렇게, 식사두 굶으시구서라미 이렇게 누추한 방에서 주무시는디, 아주 미안하다."

구 아침 대접을 잘했어.

먹구 인제, 그날은 비 안 오구 그러니께, 따땃하거든. 그런께, 인저 아침 먹구 난 뒤 임금이 신하를 데리구 이렇게 나왔어, 그때. 게서 잔 모양이여.

"손님 어디 말 들으니께 지술을 허신다는디, 우리 어디 산 좀 둘러 보러 갑시다."

이럭한단 말여. 그러니께, 주인더러. 그러니께, 가시자구.

"가시자구."

아, 어디만큼 가더니만 참 고란같은 디, 좋은 디가 청룡백호가 삥 둘러싼 디가 있단 말여. 파싹 주저앉으며,

"에, 좋다. 대대 정승 나겠구나."

그러며, 떡 앉거든. 그런께, 임금두 둘러 보니께 참 좋단 말여. 그러니께, 말허기를

"자네 말대로 됐어. 네 집이 금방석에 임금 들어앉을 터라는디, 내가 임금이다. 내가 산을 둘러보러 왔어. 너 소원이 뭔가 소원대로 얘기해 봐라."

그러니께,

"평양감사나 좀 시켜 주시오."

그래서, 평양감사 나갔답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야당리 원당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경로당으로 찾아가니, 동네 노인 15, 6명이 모여 있었다. 한쪽에서는 화투판을 벌이고, 10여 명은 둘러앉아 이야기판을 벌였다. 구연자는 이 마을에서 이야기 잘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씨는 앞에서 건설 4편을 구연하고, 이어서 민담 10편을 구연하였다. 그리고, 민요도 불렀다. 이씨는 기억력도 좋고, 구연력도 뛰어났다.
청 중 : 동네 노인 10여 명
처음 듣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96. 핥았다는 증거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어떤 시골 양반이 자기집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쫓으러 갔다. 가 보니, 나뭇군은 없고 예쁜 여자가 혼자서 나물을 뜯고 있었다.

욕심이 생긴 그는 여자에게 한 번 하자고 했다. 여자는 그 곳을 핥고나서 하라고 했다. 그가 핥고나서 하려고 하니 여자는 핥지 않았다고 하면서 못하게 했다. 다시 핥고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람은 답답하여 "이런 때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이 때 나뭇군 하나가 툭 튀어 나와 여자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서 "핥았는데 왜 안 핥았다고 해?"하고 달아났다.

그 후로 그 양반이 자기네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을 보고,

"거기서 나무하는 게 누구냐?"

하고 소리치면, 그 나무군은

"증거요, 증거!"

하면서 그 산의 나무를 다 해 갔다.

이전이 어떤 학자가 있는디, 사랑문을 이렇게 열어 놓고 앉았어. 봄 되면 사랑 문을 열어 놓구 앉았는디, 내다보면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네 산에서 나무를 해여.

"게 누가 나무하느냐, 하느냐?"

해도 자꾸 안 나가구 허거든.

'하루는 에이 좀 가 볼게다.'

구 가니께 나무하는 건 없구설라무니, 아, 얌전한 여자가 너물을 뜯으로 댕여. 그런디, 그 학자가 참, 무엇하구 무엇한다더니, 그 여잘 보니께 그냥 올 수가 없어. 간청을 했어. 그

러니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핥구 해야지 그냥은 못헌다."

구 그런께,

"핥구 허마구."

인저 드러누니께 게를 썩 핥았단 말여. 어 할라구 허니께, 안 핥았다구 못하게 하거든.

"아이, 핥았는데 왜 안 핥았다구 허느냐?"

"에, 이럴 때 증거 좀 있으면 좋겠다."

구. 그러구 또 헐라니께 못하게 헌다 말여. 핥구 허라구. 핥구서 또, 할라구 하니께, 또 못하게 허여. 안 핥았다구. 그런께,

"이런 때는 증거나 좀 있으면 좋겠다."

구니께, 나무하던 놈이 워서 툭 튀어 나오더니만, 궁둥박지를 떨꺽 때리면서,

"왜 핥았는데 안 핥았다구 허느냐?"

구 이러거든. 그러구서 워디루다 도망가 버렸단 말여.

인저 그 뒤는 나무 하는디,

"누가 나무하느냐?"

허면,

"증거요, 증거요!"

이래서, 그 산 나무 다 해 가드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7. 부모님의 재혼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하여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불렀다. 원님은 그에게 양친이 다 계시냐고 물었다. 아버지만 모시고 있다고 하니, 원님은

"아버지를 홀로 계시게 하는 놈이 무슨 효자냐?"

하고 매를 때렸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야 원 같은 원이 부임했다."고 좋아했다.

장날이 되자, 효자는 먹이던 소 두 마리를 끌고 장으로 갔다. 소 팔아 어머니를 사려고 한다는 효자의 말을 들은 그의 친구가 말했다.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를 자네네 집으로 모시고 갈 테니, 그 소는 나에게 주게."

이렇게 해서 두 분은 재혼을 하여 잘 살았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구는 소를 끌고 와서 말했다.

"이것은 전에 자네가 나에게 준 소일세. 한 마리는 지금, 또 한 마리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비용으로 쓰도록 하세."

워떤 사람은 참 즈이 아버지 홀로 있는디, 불을 뜨겁게 때 드리거든. 소자(孝子)라구. 아, 참 소자라구 했어.

소자라구 하는디, 그 동네로 원이 오면 평생 상을 줘. 상을 주는디, 인제 원이 갈렸단 말여. 원이 갈리면서 새 원이 들어 왔는디, 아전들더러 그랬지.

"이 동네 워디 잘 하구, 못 하는 사람 있느냐?"

하니께,

"아무디 아무개가 부모게 잘 한다구. 소자라구 합니다."

"그려, 그 사람 좀 오라구 해라."

원이 불른다구 해서 갔지. 즈이 아베가

'또 상 좀 타 갖구 올라는 게다.'

하구 있는데, 가서 인저,

"아이, 원님 이렇게 새루 오셔서 감사하다."

구 참, 절을 허구 이력허구선 있는디,

"너, 양친부모 다 살았니?"

"아뇨, 아버지 혼거로 계시요."

"응, 너 이놈 갖다 저 마지대다 달아 매구서 막 패라. 느이 아버지 이놈 민안도 못 시켜 드리는 놈이 이놈 늬가 소자라구 혀?"

이러거든. 그 아전들이 모두 마지대다 달아 매구선 징일 패여.

실컷 읃어 맞구는 저녁 때 저쭉저쭉 오거든. 즈이 아버지가,

'그전 같으면 올 텐데 왜 안오나?'

하구 내다 보니께 저쭉거리구 온단 말여.

"너 왜 저쭉거리니?"

"아이구, 아버지 저는 오늘 아주 된 매를 맞았시유."

"왜 그렇게 맞았니?"

"느이 아버지 양친부모 살았냐구 해서 아버지 혼거로 계시다구 허니께, 너 이놈 그런 놈이, 느이 아버지 민안도 못시킨 놈이 소자라구 허느냐구, 막 달아 매구, 마지대다 달아 매구 패는디 징일 무수하 매를 맞았시유."

그러드랴. 즈이 아버지가,

"에 인제 원 같은 거 하나 들어 왔구나."

그러거든.

그 이튿날은 소나 한 두어 마리 멕이었던지, 소 두 마리를 끌구, 이 녀석이 나가. 인제 월만큼 가니께, 어떤 친구를 만났어.

"자네, 소 장사 하나? 웬 소를 두 마리씩 끌구 나왔나?"

"아녀, 나 우리 오머니 죽 하나 사러 나왔어."

"진실인가?"

"진실이여."

"야, 그럼 소 나 주게 야. 우리 어머니 자네 어머니로 보낼께."

"그렇게 해라."

그 사람두 오머니가 혼자 있거든. 그래서 인저,

"아무날 그럼 갈 텐데, 기다리구 집에 있게."

그러거든,

그래라."

온다는 날, 참 보름날이 됐던지, 열흘날이 됐던지, 온다는 날 지둘리고 있으니께 사인교 한 틀이 들어온단 말여. 그런데 보니께, 그 사람이 뒤따라 오거든.

"아이구, 워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속히 구했냐?"

그러니께,

"우리 어머니 모시구 왔어. 우리 어머니두 혼거루 계시구, 자네 아버지두 혼거루 계시구 허니께, 서루가 고생스러워서 우리 어머니 모시구 왔다."

"그러냐? 참 좋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잘 잤는디, 그 이튿날 식전에 인저 불두 월마 안 뗐는데, 즈이 아버지더러,

"아버지 간밤두 추웠슈?"

"야, 처음 잘 잤다."

이러거든.

그럭허구 난 뒤 인저 같이 잘 살어. 사는디, 그 참 즈이 아버지가 죽었어. 그 소자란 사람 아버지가 죽었는디, 그 사람게도 기별을 허니께, 소 한 마리를 갖구 왔거든. 서로 인제 동복동성 성, 아우 하거든.

"성님, 어디서 이렇게, 웬 소를 한 마리 갖구 왔느냐?"

구 허니께,

"이게 아무 때 자네가 준 소여. 한 마리는 지금 쓰구, 한 마리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쓸라겨."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8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8. 팔문장(八文章)을 누른 무식장이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글을 좀 하는 사람이 팔문장(八文章) 집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후행을 가면 글을 지으라고 할 것이 큰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식하기는 하나 아주 풍채가 좋은 형을 후행으로 가게 했다. 그 사람은 후행을 가서 사돈집 아이들이 입은 없고 수염만 있다고 수근대자 손으로 수염을 갈라 붙이며,

"이건 입이 아니고 너의 어미 셉이냐?"

하고 말했다.

또, 사돈집 어른들이 글을 짓자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운(韻)자를 부르라고 하니, '돔벙 루', '수문 룩' 하고 불렀다. 그것은 그 사람이 꾸며댄 글자임을 모르는 사돈집에서는 그 글자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 사람은 글을 지어 신랑편에 보내라고 하고는 돌아왔다.

이전에 어떤 사람은 팔문장집하구 외문장집하구 혼인을 혀. 외문장집은 아들이 있구, 팔문장집은 딸이 있어. 그런디, 혼인을 하구설라무니 가는데 외문장집이서 아들 데리구 후행을 가얄 텐디, 가면 팔문장들한테 글 지으라구 하면 쩨게 생겼거든.

술만 잘 먹구 수염 푸대한 즈이 성이 있어, 아주 무식한.

"성님, 좀 얘 데리구 갔다 오슈."

그러니께,

"아니다, 늬가 가거라."

"아뉴, 전 바쁜 일 있어서 못 가겄슈."

"그러냐. 그러면 가마."

그리구선 갔단 말여.

가니께, 사랑에 썩 들어 앉히는디, 아 문 열어 노니께 아이들이 오너서 잔뜩 줌방에 걸터 엎디리구서는 쳐다 봐싸트니만,

"야, 그이 입은 없구 시염 뿐이다. 잉"

배행 간 분 보구 그러거든. 시염을 짝 갈라 붙이며,

"이건 입 아니구 늬에미 셉이냐?"

이랬단 말여. 아, 그런 무안이 워딨어.

점심 먹구 나니께, 팔문장들이 죽 버루돌 갖다 놓구 먹 갈구, 붓대 갖다 먹 찍어서 끄덕거리면서,

"새 사돈은 문자 좀 쓰슈. 글짓게."

"쓰지, 둠벙 투."

이랬단 말여. '둠벙 투'자가 쓸 수가 있시야지. 있시야 쓰지. 옥편 갖구 떠들어 봐도 없구 별 디를 떠들어 봐도 없어.

"아, 못 짓느냐구? 한 자 더 쓰지. 수문 툭."

했단 말여. 그런디, 못 지어.

"이제 내 간다."

구 하면서, 인저

"내일 이 신랑에게다 글을 지어서 보내야 서루가 왕래하구 말하지, 사돈간이라두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두 않겠다."

구 이러며, 왔단 말여.

왔는디, 인저, 즈이 동생이

"성님, 잘 댕겨 오셨슈?"

"잘 댕겨 왔다."

"너 팔문장집하구 혼인 했니?"

"왜유?"

"글짓게 문자 쓰래서, 문자 썼기에 어디 글 짓데?"

그런단 말여.

"워치게 썼간유?"

"처음에는 '둠벙 투' 했다."

즈이 동생두 가만히 보니께 둠벙 투 자란 건 있들 안혀. 그래서, 또,

"그 다음엔 워치게 썼슈? 워치게 지으셨슈?"

"'수문 툭' 했다."

그래 어물어물 하거든.

"너두 모르니 이눔아, 으이그, 둠벙에다 흙덩이 집어 던져 봐라. 텀버덩 하지 않나? 그래 독석 변에다 물수(氵)했다. 돌팍으루 수문 열구 물을 따노면 졸졸졸졸 내려가지 않더냐. 그래서 흙토 변에 물 수(氵)했다."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99. 잘못 붙인 중의 입술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가을에 어느 농부의 아내가 들로 점심밥을 이고 가다가 밥광주리를 인 채 소변을 보았다. 그때, 큰 민물게 한 마리가 나와 여자의 음순(陰脣)을 물었다. 여자는 손을 쓸 수가 없으므로, 지나가는 대사에게 게를 떼 달라고 했다. 중이 '어디를 물렸는가?' 하고 들여다 볼 때 그 게는 다른 한쪽 다리로 중의 입술을 물었다.

점심밥을 기다리던 농부가 와서 이것을 보고, 게를 잡아 떼었다. 그바람에 게가 물었던 두 곳의 살점이 떨어졌다. 그들은 재빨리 떨어진 살점을 제자리에 붙이긴 하였으나, 그만 둘을 바꿔 붙이고 말았다. 그래서, 중이 염불을 할 때와 여자가 걸음을 걸을 때에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가을에 벼를 비는디, 즈이 마누라더라 밥을 해 갖구 오라구 했어. 일군 몇 읃어 가꾸 벼를 비는디. 밥을 해 가꾸 이구 가는디, 소피가 마렵거든. 가을에 벼 빌 때니께. 그래서, 갈대밭 옆에서 어디서, 이구서 무거워서 내려는 못 놓구, 이렇게 〔두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이구서 소피를 보는디, 아 큰 놈의 묵그이(민물게)란 놈이 나오너서, 그 벼슬 사태를 물구 있어. 그런디, 아 인제 뗄래야 뗄 수두 없구, 이거 당체 큰 일 났어.

그런디, 중이 온단 말여.

"아이구, 대사님 대사님."

"왜 그러느냐?"

구.

"난 소피하다 호문을 묵그이라 물었는디, 이것 좀 떼 달라."

구 그러니께,

"워디, 워디?"

하며 이렇게 〔고개를 숙여 위쪽을 쳐다보는 시늉을 하며〕 들여다 보니께, 묵그이란 놈이 이짝 발루다가 입술을……. 또, 중의 입술을 물었거든. 물었는디, 아 중의 입술 놓도 않구, 그 여자 호문도 안 놓구, 둘이가 이렇게 들여다 보구 있구. 그냥 엉거주춤 앉았어. 그 인저, 베 비다 '어째 밥 안 해 갖구 오나?' 하구 오며 보니까, 중하구 즈이 마누라는 뭐 이구서 그러구서 앉았거든.

"아, 왜 그러냐?"

니께,

"아, 당체 소피 마려서 소피하다가, 이저 묵그이란 놈이라 호문을 물었어. 그래서, 일어를 못나고 있는디, 이 대사가 지나 가는디, 이것 좀 떼달라니게, 들여다보다 이 대사 입

술을 한짝 발로 물어설라무니 이렇게 둘이가 있노라."
구 그러니께, 냅다 밥광주리 내려놓구, 냅다 후닥닥해서 메 버렸다 말여. 그런디 인저 중의 입술이가 여자 호문이가 이렇게 한 점 있구, 또 여자 그 호문이가는 중의 입술이 한 점 있구. 잘못 붙였어. 멘 게. 그래서, 중이 나무아미타불 할라구 하면,
"씹뻐꿍 씹뻐꿍 씹뻐꿍."
그러거든. 인저 그 여자는 걸음 걷는대루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러드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20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0. 단간방에 사는 부부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단간방 하나에서 아이들 셋과 함께 사는 부부가 아이들 때문에 마음 놓고 부부관계를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은 때에 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놀렸다.

단간방이서 사는디, 아이들이 여럿이여. 여럿인디, 송아지를 멕였던지, 멕이구 이럭허는디, 아, 마누라하구 호되게 장난 좀 헐라면 못해여. 아이들 때문에 걸려. 그런디, 인저 저녁에 잘라면 아이들이 자나 안 자나 봐서 자는 것 같으면 마누라 있는 근처엘 기어 가거든. 기어 가면, 요놈 새끼덜이 안 자구선,
"왜, 아버지 잠 안자구 기어 대니유?"
"에이, 이놈 새끼들, 잘라구 헌다."
또 한 놈의 새끼가
"아버지라 좃으로 내 눈구녕 뻴 뻔 했단다. 야."
그러니께, 인저 한 놈의 새끼가 있다가,
"아무래두 그놈의 조지라 내 눈구녕 하나 그여 빼구 말 게다."
그런단 말여.
그러구선 있는디, 그 이튿날은 아이들더러,

"낼랑 저 소 끌구 아무디 가서 소 풀 좀 뜯겨 갖구 오너라."

"그럭해요."

또, 즉은(작은) 애더러는 마실(마을)가서 놀라구니께, 마실 보내구. 쬐그만 거 하나 있거든. 아직은 철 모르는 애 놔두고, 그 장난을 해여. 하는디, 막 허구 나니께 어린애가 소 끌구 들어 오거든.

"너, 소 풀 다 뜯겼니?"

즈이 오메하구 즈이 아베하구 장난하면서 하기를, 좋으니께,

"이건 워디여?"

"천안 앞뜰"

"이건 워디다나?"

"천안 뒤뜰."

이래 싸커든. 그러구선, 이놈 새끼가 소 끌구 들어 오더니,

"너 소 풀 다 뜯겼니?"

"천안 앞뜰 천안 뒤뜰 다 뜯기구 오봉샘에서 물까지 벡여 가꾸 왔슈."

인저 마실 갔다 온 놈 새끼가, 물어 보니께,

"너 그집들은 뭣 하디?"

"그 씹허데."

그런께, 쬐그만 게 앉았다가,

"우리두 씹 했시야."

그런 놈의 새끼들도 있더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24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1. '웅' 하려다 망한 대감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예전에 어느 대감이 길을 가다가 숫말이 큰 생식기를 끄덕끄덕하고, '웅—' 소리를 내면서, 피하는 암말의 주위를 도는 것을 보았다.

집에 온 대감은 사랑방으로 부인을 불러들여 내가 '웅—' 할 테니 돌아 가라고 했으나 부인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때 몰래 들어와 다락에 숨어 있던 도둑이 뛰어나와 부인의 엉덩이를 '철썩' 때리며 "대감이 '웅—'하게 돌아가라는 데 왜 돌아가지 않아요?"

했다.

대감은 그 도둑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돈을 주어 보낸 다음, 버슬을 주었다. 그 사람은 버슬한 뒤에도 이틀 미끼로 대감의 재물을 수없이 뺏어 갔다.

이전 대감이 워딜 갔다 오는디, 오너 보니께 말이 보지 보느라구 냅다 그 참, 암말게루 숫말이 이런 놈을 〔팔뚝을 흔들어 보이며〕 자지를 끄덕끄덕 해가며, '응' 해가며 궁둥이다 맞대구서라미 '응'하며 돌아가 쌌커든. 그런 걸 보니께 대감이, 훌륭허단 말여.

오너서, 자기 마누라더러 들어 오라구 했어, 사랑으루. 들어 가니께, 아 장난은 않구,

"이렇게 돌아 가라구. 뺑뺑 돌아 가라구."

그런디, 대감의 안경 훔치러 온 어떤 놈이, 오너서 다락에 가 들어 앉았거든. 사랑 다락에. 그런디, 참,

"응— 허게 좀 돌아 가라."

구 허니께,

"아이, 왜 이러시냐니께."

"응 허게 좀 돌아 가라."

구 자꾸 이래쌌커든. 그런께, 냅다 그 다락에 앉은 도둑놈이 오너서라미,

"대감이 응 허게 돌아 가라던 돌아 갔지. 왜 안 돌아 가느냐?"

구 궁둥이를 쩔꺽 후려 쌔린단 말여. 그 마누라 궁둥이를

아, 그걸 보니께 대감이 큰 일 났어.

"야 야 야, 암말두 말구 가라, 가라."

돈 몇 백냥 쥐서 보냈어. 그러구서니, 인저,

"너 평양감사 시켜주께 가거라. 가."

평양감사 시켜줬단 말여. 시켜줬는디, 이 눔이 돈 아쉬우면,

"아무디 대감님, 응 허던 분이 어떻게 됐슈?"

그러면, 또 돈 몇 백냥 주면 쓰구서, 이 놈이 돈만 아쉬우면

"대감님, 그 응 하던 게 어떻게 됐느냐?"

구 이러거든.

그래 그 눔이라 그 대감 재산 다 말리더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27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2. 학질 잘 떼는 총각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그전에 노대감 한 분이 등너머 사는 총각이 학질 잘 뗀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에게 붙은 학질을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총각은 말목 네 개와 새끼 서너 발 가지고 식전에 뒷동산으로 오라고 했다.

대감이 이튿날 식전에 오라는 곳으로 가니, 총각은 말목 네 개를 박고 대감을 엎드리라고 하더니, 손과 발을 그 말목에 묶었다. 그리고는 떡을 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대감의 부인이 학질에 걸려 그 총각한테 학질을 떼 달라고 했다. 총각은 같은 방법으로 학질을 떼 주었다. 그 부인 역시 아무 말도 못했다.

또 한 사람은, 30대 된 총각이 있어. 장가 못 간. 그 워디 노 대감이 하루걸이를 앓아서 라무니, 별짓을 해두 안 떨어져. 그래 인저 물어 보니께,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

"저 등너머 사는 아무, 그 30대 된 총각, 그 눔이 잘 멘대유."

그러거든. 그런께는,

"그 사람 좀 오라구 해라."

오라구 그래서 갔어. 가니께,

"야, 늬가 하루걸이를 잘 멘다니 나 하루걸이를 앓아서 죽겠다. 그것 좀 떼 다구."

"예, 내일 식전에 저 아무디 뒷동산으로 산내끼 서너 발 하고, 방천(말뚝) 네 개 하고 갖구 오슈."

그러거든.

"그러라구."

방천 네개 하구, 산내끼 서너 발 하구 끌구는 올라갔어. 올라 가니께, 이 눔이 네 구퉁이에다가 말뚝을 콱콱 박더니만,

"예 엎드리시기요."

대감더러 엎드리랴. 엎드리니께, 발루, 손 다 꼭꼭 얽어 매여. 방천이다, 옭어 매구서라미 두 핏말을 떼더니만, 이 눔이, 똥구멍에다 대구 그 지랄을 혀.

"아, 이런 놈 좀 보라구."

"아, 이럭허면 떨어집니다."

포개 놓구는,

"이제 떨어졌읍니다. 가시기요."

그놈 어떻게 식전 참에 떡했거든. 그러구 갔는디, 거 참 워치게 말을 소문두 뭐 낼 수 없구 워치게 헐 수가 없어.

근디, 어떤 또, 노대감의 안이서가 하루걸이 앓아서, 또, 영 안 떨어지는디,

"에, 저 너머 노대감 워치게 하루걸이 뗐나 좀 가 문의해 볼 게라."

구 문의허니께, 문의헌 게 아니라, 그 총각더라 가서 좀, 또 좀 메 달라구 그랬지. 그런께

"그럭허시기유. 아무날 식전이 방천 네 개 하구 산내끼 서너 발 갖구 그루 올라 오시기요."

올라갔먼 말여. 올라 가니께, 방천을 쿡쿡 네 가운데 또, 박머니만,

"에, 반듯이 드러 누우라."

구. 들어 누우니께, 손 발을 또, 다 산내끼루 얽어 매여. 옭아 매구서는, 그냥 아, 빨개벗겨 놓구는 식전 참이 대감 마누라를 그걸 했단 말여.

아, 워치게 소문두 못 내구 큰 일 났거든. 그런께, 생각 허다허다,

"에, 내 저너머 노대감님은 워치게 뗐나 가 물어 볼 게라."

구 가서,

"대감님, 접때 그 아무디 총각이라 하루걸이 워치게 뗍디까?"

그러니께,

"아이구, 그놈 말두 말라구. 고약한 놈 말두 말라."

구 이러드랴. 그래서 그놈은 대감 떡두 하구 대감 마누라 섭두 했디야.

제목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제목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3. 누룽지 잘 긁어주는 엄마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아궁이 앞에 앉아 밥을 푸는 엄마의 그곳을 본 아이가 아는 척했다가 매를 맞았다. 아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엄마가 누룽지를 긁어 주었다.

즈이 어머니 밥 허는디 밥 해서 밥푸느라구 부뚜막이다 이렇게 〔한쪽 다리를 벌리면서〕 다리를 한 짝 올려 놓구 펐는디, 이눔 새끼가 구락쟁이(아궁이) 앞에 앉아,

"오머니, 나 누룽캐 긁어 줘, 이잉."

"그래라."

이렇게, 이전엔 가로 속곳 입었으니께, 들여다 보더니만,

"어머니 보지서 코 흘르네."

"야, 이눔 새끼 무슨 소리냐?"

구 후려 때렸거든. 울며 나갔어. 쬐그만 게.

"난, 엄마 보지서 코 흘른다구 안 할 게 누룽캐 긁어 줘."

그러니께,

"응."

그러며, 긁어 줬다구.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33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4. 불알 발린 호랑이

T 인지면 야당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떤 사람이 원하던대로 성질 급한 사위를 얻었다. 장인은 그 사위에게 산골짜기에 있는 논을 갈고 오라고 했다.

사위는 그 논을 갈면서 소리쳤다.

"이려 이놈의 소, 이렇게 느려서 언제 논서 마지기 아흔 아홉 다랑이를 갈고, 삼천 리 밖에 있는 장에 갔다 오려느냐?"

이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자기가 그 소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 사람은 호랑이에게 불알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호랑이는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에 불알을 발라 달라고 했다.

그 사람은 아내가 점심밥을 가지고 오자, 밥도 먹기 전에 눕혀 놓고 올라 탔다. 이것을 본 호랑이가

'나도 불알을 발려서 아파 죽겠는데, 저놈도 불알 발리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전이 워떤 사람이 과년 닿은 딸이 있어. 있는디,

"에이, 성질 급한 놈 좀 내가 인저, 사위 좀 읃으야 한다."

구 그러니께, 워떤 삼십 도령이 장가 좀 갈라구, 게 가서 그 사람 보는디, 내궁지(내)를 신두 안 벗구 막 터덕터덕 건너 가거든.

"야 야 야, 나 좀 봐. 나 좀 봐."

"왜 그리유? 바쁜디."

"아너, 바빠도 좀 일루 오라구. 내가 너처럼 성질 급한 사위 좀 얻어얄 텐디, 너 우리집이, 내 사위 좀 되라."

구 그러거든. 그러니께,

"그럭허라."

구. 그래서, 인저 처가살이 들어가서 잘 살어.

사는디, 소는 좋은 놈 먹이더랴.

"자— 건너가 산 밑이가, 논 서마지가 있는디, 이—, 그게 아흔 아홉 다랑이다. 그것 좀 가 갈구 오너라."

그러거든,

"그럭허라."

구. 아, 참 소 끌구 쟁기 지구 가서 갈어. 가는디, 갈며 보니께, 호랭이란 놈이,

〔Tape 교환으로 잠시 중단〕

논을 가느라니께, 호랭이가 와서 쳐다보구 있거든. 그런께, 소꾀뱅이를 냅다 코에 엮으면서

"이려, 이놈으 소야, 원제 논 서마지기 아흔 아홉 다랭이 갈구서라무니, 삼천리 강토 장에 갔다 올려느냐?"

구 막 휘몬단 말여. 그러니께 물고붓이 뿌옇게 뜨면서, 소가 담박질 하지. 그 호랭이가.

"나는 징일 가두 삼천리 강산을 못 가는디, 저 소는 어째 논 서 마지기 아흔 아홉 다랭이를 갈고 삼천리 강산 장엘 갔다 오나?"

생각하구 있다가

"아저씨, 아저씨."

묻거든. 호랭이가,

"나는 징일 가두 삼천리 강토를 못가는디, 워째 그렇게 논 갈구두 삼천리 강토를 갔다 오느냐?"

구 그러니께,

"이 소가 불알 있나 보라구. 불알 없어서 그렇게 걸음이 재다."

구 보니께, 참 암소니께 불알이 없거든.

"나는 불알 있어서 못 댕이는 게냐?"

"불알 있어, 그 발르면 그렇게 잘 간다."

구. 그러니께,

"내 불알 좀 발라 달라."

는겨, 호랭이가.

"그러라구."

쟁기 꽂아 놓군 가서 불알을, 이렇게, 드러누운 놈 가서 살살 만지니께, 아, 이놈이 눈을 감실— 감구 있거든. 족족 훑어 가꾸서는 무슨 노깡이라(노끈이) 있던지, 그놈으로 꼭 동이구서라무니 칼루 싹 베어 버렸단 말여.

"인젠 불알 발랐다."

구 그런께, 배창세(배창자) 켕기구 당체 못해여. 견딜 수가 없어.

그런디, 저 새악시가 여태 안 가니께, 가지 않으니께 밥을 해서 이구 왔거든. 보니께 호랭이가 산에가 드러 누웠는디, 워째 이렇게 괜찮게 논을 가나 하구선 밥 갖다 놓구 먹으라니께, 밥 먹으러 나오더니만, 이눔이 밥은 안 먹구서라미 그 한참눔이니께 견디겠남. 새악시 게다 뉘어 놓고 냅다 그걸 잡어 헌단 말여. 그런께, 호랭이란 놈이 허기를,

"나두 불알 발라서 죽겠는디, 저놈도 불알 발리는구나."

하하하.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5. 곱장사인데 왜 안 넣어?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줄거리**

장인이 사위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하니, 사위는 돈 100냥만 달라고 했다.

그는 길에서 만난 예쁜 여자에게 돈 100냥을 줄 테니 입을 한 번만 맞추자고 했다. 그 여자는 좋다고 했다.

다시 장인에게서 100냥을 얻은 그 사람은 다시 그 여자에게 와서 100냥을 줄 테니 거기에 한번만 대보자고 했다. 대보기만 하는 그에게 여자는 아주 넣으라고 했으나 그는 싫다고 했다.

또다시 장인에게서 100냥을 얻은 그는 다시 그 여자에게 가서 100냥을 줄테니 한 번만 하자고 했다. 하자고 하고서도 살살 대보기만 하자 그 여자는 600냥을 줄 테니 제발 넣으라고 했다. 그래도 그가 넣지 않으니까, 몰래 뒤따라 와서 엿보던 장인이 소리쳤다.

"야 이놈아, 600냥이면 곱장사인데 왜 안 넣어?"

사위를 얻었는디, 장사 좀 허라구 하거든, 쟁인이. 그럭허라구 돈 좀 100냥만 달라구. 100냥을 줬어. 그 눔을 짊어지고 어디만큼 가니께, 얌전한 각시가 정자 나무 밑에 앉아 바느질을 헤여. 그런디,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그러느냐?"

"예가 어디대유?"

"아무디 이러저러한 데라구."

"응, 그러냐구. 아주머니, 나 돈 100냥 드리께, 아주머니하구 나하구 입 좀 맞춰유."

그러거든.

"그러라."

구. 그 못헐 거 없거든.

돈 100냥 주구 입 맞추구 오너서,

"돈 100냥만 또 달라."

구 하거던. 즈이 처가집에 오너. 또 100냥 줬지.

"아주머니, 아주머니."

또, 게 가서

"왜 그러냐구?"

"나 돈 100냥 주께, 아주머니 나 게, 대나 좀 봐요."

대 본다구.

"그러라."

구. 대 보라구 허니게, 이놈이 게가 살짝살짝 하구서는 말어.

"아이구, 허라구."

사뭇 여자는 그래쌌치.

"에이, 싫다구."

또 100냥만 가 달라구. 또, 100냥 주니께 가지고 와서,

"아주머니, 돈 100냥 주께 오늘랑 잡시다."

"그러라."

구 살짝살짝 허니께, 이놈이 넣진 않구서, 그러니게,

"아이구, 넣으라."

구 사뭇 허니께,

"에이, 아니라구."

즈이 장인이 오너 엿을 듣더랴.

"야, 이놈아 600냥두 많은디, 곱 남았는디 왜 지랄하구 안 넣느냐?"

구. 그 지랄한 놈도 있드랴.

600냥 줄 테니 허라구 했거든, 그 여자가.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6. 장님과 벙어리의 대화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줄거리

'불이야!' 소리를 들은 장님 남편이 벙어리 아내에게 어디에 불이 났느냐고 물었다. 아내가 남편의 살에 손을 대자, 남편은 '진골' 하였다.

누구네냐고 물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만지니 남편은 '손서방네군.' 하였다.

얼마나 탔느냐고 하니 아내는 남편의 성기를 만졌다. 그러자, 남편은 '다 타고 기둥만 남았군.' 했다.

남자는 소경이고 여자는 벙어리여. 그런디, 을어 먹으려 다녀. 을어 먹으러 다니는 디, 어디만큼 가니께, 불났다구,

"불이야, 불이야."

하거든. 소경이 보지는 못하구서라무니, 벙어리더러, 말은 알아 들었던지,

"워디가 불났디야? 워디가 불났어?"

그러니, 이렇게 손을 붙잡거든.

"워디가 불났디야?"

그러니께, 사타구니에다 손가락을 갖다 찔러 넣는다 말여.

"진골, 진골?"

그러거든.

"진골 누구네가 불났나?"

손을 만치니께,

"진골 손서방네. 하, 밥 잘 주는 집이?"

그러거든.

"월마나 타구 월마나 남었나?"

그러니께, 자지를 만지니께,

"다 타구 꼬쟁이만 남었네 그려."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43분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7. 적덕한 사람이 받는 보응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줄거리

어떤 가난한 시골 선비가 서울에 가서 돈 1,000냥을 얻어 가지고 오다가 물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가 싸우는 이유를 물으니, 남자가 대답하였다.

"서울 아무 대감에게서 꾸어 쓴 돈 1000냥을 오늘 갚기로 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 어머니와 제 내자가 만류하여 싸움이 되었읍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가지고 있던 돈 1000냥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빈 손으로 돌아왔다.

몇년 후, 그 선비는 부친상을 당했는데, 돈이 없어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 어떤 상제가 와서 좋은 묘자리를 잡아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였다. 한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큰 기와집이 있었다. 상제는 그 집을 가리키며 그 집 뒤곁이 명당자리라고 하고는 훌쩍 가 버렸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선비는 그 집에 가서 하루밤을 지내게 해 달라고 했다. 그집 주인은 반가이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선비가 몇 년 전에 돈 천냥을 주어 자기를 구해준 사람임을 알았다.

그 집 주인은 오랫동안 은인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 집과 많은 재산을 선비에게 넘겨 주고 떠났다. 선비는 그 집 뒤곁에 아버지 묘를 쓰고, 이사하여 잘 살았다.

옛날에 워니 대감이 살구 있는디, 참 어렵게 살더랴. 어렵게 사는디, 이 섣달 그믐날은 자꾸 돌아오고, 이 설 쇨 가망이 없거든. 그런디, 즈이 아들더러

"너, 서울, 이 편지 갖고, 서울 노대감께 갔다 오너라. 가서 인사 공손히 하구,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해 드리더라구 갖다 드리구 오너라."

"그러라."

구 가서 노대감집을 찾아 갔어. 서울을 찾아 갔는디, 아, 참 가서 절을 공손히 하구 이렇게 허니께,

"응, 자네 올 줄 알았네. 자네가 아무개 아들이구만."

그러거든.

"그 대감님의 자제구만."

그러시다구, 그렇다구.

"그렇지, 어려워."

편지를 보더니,

"아, 설 쇨라면 어렵겠구만."

돈을 천냥을 줘. 돈을 천냥 주며,

"갖고 가 설 쇠라."

그 놈을 짊어 지구 오는 게란 말여. 오는디, 섣달 그믐날인디, 내일이면 설 아니유? 헌디 물가에서 남자 하나 허구 여자 둘 하구 싸워싸. 그냥 올라다가, '에이, 가 물어 볼게라구. 무엇 때미 싸우나.' 가서라무니,

"아, 워째 이렇게 좋은 명일 돌아 오는데 들 싸우시느냐?"

구 그러니께, 그 남자가 말여,

"어떤 서울 노대감께서 돈 천냥을 갖다 썼는디, 오늘 섣달 그믐날루 갖다가 갚기루 약속을 했어. 돈은 없구, 이래두 죽구 저래두 죽으니께,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구 허면, 우리 내자 허구 우리 오머니 하구 나를 건지구, 우리 오머니가 이꼴 뵈기 싫다구 죽는다구 하면 우리 내자 하구 나 하구 우리 오머니를 건지구 이렇게 싸운다구, 셋두레(셋이) 싸운다."

구 그러니께,

"그러냐구, 그러면 사람이 살구 봐야지 죽구 보느냐?"

구 돈 천냥을 그 사람을 줬어.

주구서라미, 왔는디, 즈이 아버지게 오너,

"댕겨 왔읍니다."

하구 절을 하며 인사를 했어. 인사한께,

"댕겨 왔니? 뭬라구 하더냐?"

그러니께, 칼을 번쩍 들거든, 즈이 아버지가. 칼을 들면서,

"뭬라구더냐?"

그러니께,

"돈 천냥 주던 걸요."

바른대루 했지.

"돈 천냥 주시면서 갖다 설 쇠라구 허는디, 오는디, 물가에서 여자 둘 허구 남자 하나허구 싸워싸유. 뭣 때미 싸우냐구니께, 서울의 어디 노대감집이서라미 돈 천냥을 오늘 그믐날 갖다 주기루 하구서라무니, 바치기루 하구선 썼는디, 돈은 못장만하구 해서라무니, 그 남자가 빠져 죽는다구 빠지면 그 내자하구 자기 어머니허구 건지구, 또 이꼴두 안 본다구 자기 어머니가 빠지면 자기 내자허구 자기허구, 아들 며느리가 건지더라구. 그래서 싸운다구 그러더라구. 그래서, 사람이 살구 봐야지 죽구 보느냐구, 그래서 사람들이 돈 갖다 갚으라구 천냥 주구 왔슈."

칼을 들었다가 놓으면서

"늬가 내 자식이다."

그런단 말여.

그래서, 설을 워치게 쇘거나 말았거나 사는디, 그 대감이 작고했어. 작고했는디, 삼년상 돌아가더락 장사를 못 지냈어. 장사를 못 지냈는디, 하루는 집에 있느라니께, 어떤 상제가

오너서라미 말여,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찾거든. 찾는디,

"워서 이렇게 오셨느냐?"

니께,

"지나가다 들어 왔다구. 당신 아버지 장사 지냈느냐?"

"여태 묘지 구하질 못해서 지내지 못했노라."

구 그러거든. 그러니께,

"그러냐구, 나하구 산 좀 보러 가자."

구. 그러구서 이 사람을 데꾸 가. 이 사람이 참, 상제가 둘이 가지. 이 사람은 장사 안 지냈으니께.

가더니, 어디만큼 가더니만, 고란같은 디 떡허니 내려다 보니께, 아래가 웅그렁 멩그렁한 기와집이 있어. 그런디, 이렇게 앉아 보더니,

"느이 아버지 자리는 이 집 뒤란 각이여. 그런께, 너 지낼 테면 지내구, 맘대루 쓸 테면 쓰구, 맘대루 해라."

내 빼 버려.

이 사람은 인저, 워디 갈 디가 있어야지. 해는 다 저물고.

"에, 게가 잠이나 좀 자구 가겠다구 해야겠다."

구 들어가서라무니,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찾으니께,

"누구쇼?"

"예, 지나가다 일력은 저물구, 한 때 유해 가자구 들어 왔읍니다."

"들어 오시오."

"그러라."

구 들어 갔는디, 저녁을 잘 대접해여. 먹구선 웟 사랑에서 이렇게 자구, 손님은, 주인은 아랫 사랑에서 자. 자는디,

"아, 손님 자지만 말구, 애기 좀 허구 놀다 주무쇼."

그러거든.

"헐 애기가 있나유?"

"아, 헐 애기가 왜 없슈? 넘에게 잘못한 애기두 있구, 넘에게 적덕한 애기두 있구, 옛 애기두 있구, 셌지 않습니까?"

그러거든.

"그렇지유. 허나 헐 애기가 있나요? 적덕이라구 한 건 없는디, 내가 한 마디 애기 허지

유. 하루는 섣달 그믐날 서울 갔다 오는 디요, 노대감 집에 가서, 나두 어렵게 사는디, 돈을 천냥 줘서 갖구 옵니다. 오는디, 아 물가에서 여자 둘 허구 남자 하나 허구 싸워싸요. 워째 싸우느냐니께, 그분이, 남자가 허는 말이 서울 노대감 집이서 돈 천냥을 갖다 쓰구, 오늘 갖다 갚기루 했는디, 돈은 못 장만하구, 내 빠져 죽는다구 물가에 빠지면 내자 하구 어머니 하구 건지구, 이런 꼴 안 본다구 어머니가 빠지면 나하구 우리 내자하구 건지구, 이렇게 싸우는디 워먼 분이 오더니 왜 싸우냐구 해서 그 얘길 허니께 사람이 죽구 보느냐구, 살구 봐야 한다구, 돈 천냥을 줍디다. 그려 그래서 갖다 갚구선 이렇게선 인제 지금은 부자됐읍니다."

〔말의 내용이 약간 뒤바뀌었음.〕

그런께,

"당신이 기요, 그랴?"

꼭 붙잡거든. 꼭 붙잡아.

"그러믄, 당신 잘 만났소. 나두 당신 만나길 우정해서라무니 여기다 이렇게 지금 집을 짓구 삽니다. 헌디, 이 집 딸린 게 농막에 몇 백석 거리 됩니다. 그런께, 이건 당신 다 차지여. 살림 하나 난 안 갖구 나가. 당신 다, 이부자리두 안 갖구 나가. 나두 아무디가 몇 백석지기 농막 있구, 아무디 가두 마름 있구 다 있어. 당신 만나면 줄라구, 난 이거 허구서 지둘리는 기여. 당신이 오너 살라구."

그 이튿날 이사 가 버려, 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너서라미 참 그 집 뒤란 헐구서는 즈이 아버지 모이 쓰고, 이럭허군 집은 다 옮겨서 짓구 부자되게 살드래유.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8. 도깨비가 준 복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 줄거리

예전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대상이 되도록 아버지의 시신을 초빈(草殯)해 두고 장례를 치루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따라 큰 멍가나무 밑에 가서,

"물아래 김참봉 기시우?"

하고 찾았다. 그러자, 도깨비가 나타나 왜 왔느냐고 물었다. 그가 도깨비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지 못해서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하니, 도깨비는 범벅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해다 주는 범벅을 두 차례 얻어 먹은 도깨비들은

"내일 당신 아버지 장사를 지내게 될 테니, 울 안에서 곡이나 하시오."

하고 말했다.

이튿날, 그가 울안에서 곡을 하고 있노라니까 문 밖으로 상여, 가마, 말이 수없이 지나갔다. 얼마후에 보니까, 아버지의 시신도 없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도깨비한테 가서 아버지를 어디에 모셨느냐고 물었다. 도깨비가 일러 주는 곳에 가서 보니, 기와집이 300여 채나 되는 큰 동네 옆에 새로 잘 쓴 묘 하나가 있었다. 그 동네에서는 그 묘 때문에 폐동(廢洞)이 되겠다고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도깨비가 가져다 준 돈으로 그 동네의 집 한 채를 사서 이사를 갔다. 그 후 그 사람은 그 동네의 집과 농토를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잘 살았다.

이전에 어떤 분이 있는디, 내외가 살어. 내외가 사는디 자기 아버지는 죽었어. 죽었는디, 참 마당에다 어따 초빈(草殯)을 허구서 사는디, 장사를 못 지냈어. 대상이 돌아오도락.

그런디, 하루는 저녁 먹구 드러 누웠는디 자기 마누라가 그러거든.

"아, 여보쇼. 당신도 딱합니다."

"왜?"

"아, 아버지 대상 다 돌아오다시피 하는디, 워째 장사도 못 지낸 분이 그렇게 잠만 잔다 말이요."

"그럼, 워치혀?"

"아, 넘들은 도깨비도 훌려서 잘 산답디다. 그려."

"도깨비가 워디가 있간?"

"아 누구 말대루 갯바닥에도 있구 덤풀에두 있다더라."

구 그러니께, 이 녀석이 갔어.

큰 멍가나무가 큰 놈 있던지, 게 가서라무니 기침허면서,

"워치게 찾는디야?"

"아, 워치게 찾어, 물아래 김참봉, 김참봉 찾는다더라."

구 그러니께, 가서라무니,

"물아래 김참봉 기쇼, 기쇼?"

그러니께, 두런두런 하더니, 불을 확딱 켜고 나오거든. 그런디,

"아이, 워먼 일이냐?"

구.

"나, 그런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대상 돌아오더락 장사를 못 지냈어.

그런디, 이런디 오너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아버지 장사나 좀 지내 줄까 하고 내 왔노라"

구 그러니께, 도깨비 하는 말이

"범벅을 해 오라."

구.

집에 오너서 범벅을 해 오라구 헌다구 하니께, 바느질 삯 팔구, 뭣 해서라무니 메밀대, 호박통, 그저 은어다 놓은 것 있구 한 놈 해서, 팥 고구 해서 범벅을 한 자두리를 해다 줬어. 짊어지구 갔단 말여. 가서 나눠 먹는데 보니께, 한 덤풀인디 한 덩이 차례 가는놈, 반 덩이 차례 가는 놈, 못 차례 가는 놈이 많거든.

한 동구리 더 해오라더라구. 또, 한 동구리 더 해오란다구 하니께, 또, 뺑 둘러서 나눠 먹는데 또 그려. 그러면서, 동구리 내주면서.

"내일 당신 아버지 장사는 지내게 됐으니께, 울 안에서라무니 곡이나 하라."

"그러라."

구.

아, 인제, 아침 먹구선 뜰 안에서 곡을 허니께, 아 문앞에 상여 하나가 지나 가더니만 정일 상여가 가. 또 가마 한 필이 지나 가더니만 정일 가마가 간단 말여. 말 한 필이 지나 가기 시작하더니만 정일 말이 가. 끊어진 뒤 나가 보니께 자기 아버지 신체는 읎어졌어. 그려냐구, 인제, 그래선, 저녁에 가서, 또 가서,

"김참봉 기슈, 기슈?"

허니께,

"왜 왔느냐?"

구.

"아, 우리 아버지 장살 지낸다더니, 워치게 지냈느냐?"

구 허니께,

"지냈어두 암 말두 말라."

구.

"왜 그러냐구? 나는 아들이 되 놓구는 우리 아버지 산소 좀 가 볼 것 아니냐?"

구 그러니께,

"너, 느이 아버지 모이 가 보면 판다구 덤벼. 그런께, 가지 말라."

"아니라구, 나 상관치두 않구, 그냥 슬쩍 가서 둘러 보고 오겠노라."

구 이러니께, 도깨비가 하는 말이,

"아무디 이러 저러한 고을 가면 말여, 그 고을이 산골인디, 기와집만 삼백여 채 짓구 사는 동네다. 그런디, 그 한 가운데인디 가 볼 테면 가 봐라."

이러거든.

찾어 찾어 갔단 말여. 가니께, 아, 한가운디다 썼는디, 금으루 두루 백질했어. 아주 망두석 해 세우고, 상석 해 세우고, 해 놓구, 아주 두루 백질했는데, 슬슬 다니며 구경허니께, 웬 놈이 몽둥이 들고 툭 나서면서,

"야 이눔아, 늬가 모이 임자냐?"

"아니라구, 나는 모이 임자는 아니구, 누구가 모이를 이렇게 잘 썼나 하구 내 구경 좀 하는 게라."

구.

"그러냐."

구.

인제, 날이 저물어서 그 동네 웬 집에 들어 가서,

"일력은 저물구, 한 때 유해 가자구 들어 왔다."

구 그러니께,

"들어 오라."

구. 자는디 주인이 아랫 사랑에서 끙끙 앓어. 앓는디,

"주인 양반 워디 편찮아서 이렇게 앓으시오?"

"편찮은 거 보다두 워느날, 아침 먹구 나니께, 이 동네로 상여 한 틀이 들어옵디다. 아, 징일 상여가 들어와요. 그런디, 또 가마 한 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징일 가마가 들어옵디다. 말 한 필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징일 말이 들어오유. 이 동네 삼백여 호 기와집이 삼백여 호인디, 이 동네 박짝박짝 폐밀구 돌아다니면서 부산부리더니만, 동네 한 가운데 산 모롱이에다 떡 저렇게 모이를 써 놓읍디다. 그런디, 뭐 모이 임자는 금으루 멕기를 하구 굉장히 쓴 부자요. 그래서, 넘의 모이를 파자니 법에 걸리구. 이 동네 산모롱이에다 썼는디, 이 동네가 다 폐동될 거 아니유? 그래서, 내 속이 아파서 앓습니다."

"그러시냐."

구. 그리구 인저, 자구 그 이튿날 왔지.

오너 또 도깨비한테 가서,

"김참봉 기시오, 기시오?"

허니께, 툭 나오더니만,

"느이 아버지 모이 가봤니?"

"가봤다구."

"좋디?"

"좋드라구."

"좋구 말구. 뭐, 그거 집 삼백여 호가 다 느이 집 될 기다."

이러거든.

"그러냐?"

그러구선, 가서라무니, 슬슬 가서라무니, 집 한 채를 샀단 말여. 도깨비덜이 자꾸 돈 갖다 줘쌌구 그런께 인저, 집을 사서 사는디, 이 동네꾼이 기와집 짓구 살았지, 모두 비척거려. 돈 갖다 쓰구서라미 못갚으면 집으루 메말기구 메맬기구 해서 삼백여 호 다 차지했단 말여.

그때서는 잔치해 가면서,

"이게 내가 아무때 도깨비 청구해서 쓴 모이다."

허구선 그때서 광포하더랴. 그래서, 그 사람 부자되게 잘 살더랴. 아들 딸 낳구.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09. 도깨비가 준 명당자리

T 인지면 야당리 ②—A 면

* 줄거리

그전에 삼형제가 아버지 묘자리 잡을 일을 의논하고 있었다. 둘째는 자기가 묘자리를 잡겠다고 하였다.

둘째의 말대로 삼형제는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산으로 가서 한 곳을 파기 시작했다. 그 때, 아랫쪽에서 도깨비들이 '누가 거기를 파느냐!'고 소리지르며,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다. 도깨비들은 올라와 보고서, 아무개 짓이니 그대로 가자고 하면서 돌아갔다.

그 자리에 묘를 쓴 삼형제는 그 후에 잘 살았다. 둘째는 도깨비에게 홀려서 그런 좋은 자리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전에 어떤 사람은 아들이 삼형제인디, 즈이 아버지가 죽었어. 죽었는디 모이자리를 하나 구해야 장사를 지낼 텐디, 작은 아들보구서,

"너 아무디 가서 지관 좀 읃으라."

구 른 성이 그러거든. 삼형제 중에. 그러니께, 둘째 너석이 그러거든.

"아 지관 부를 것 없다구. 내가 우리 아버지 모이, 산 잡는다."

구 그러니께,

"그럼, 동생이 좀 잡아 봐."

"내가 잡는디, 형님 폐백 삼백 냥은 주야유."

"아, 주지."

그러구 있는디 인저, 이 사람이 가서, 인제 하기를,

"아버지 염해 가꾸서 우리 삼형제 아무도 모르게 갑시다."

염해서 인저, 둘이 떠메고, 한 놈은 삽 갖고, 연장 갖고 가고 셋이가 가. 가서 어디를 간고 하니, 이런 데로 말하면 선곡 서원같은 뒤, 어디 좋은 디가 있드랴. 거기 가서 투장(偷葬)을 할려구 막 파는 겨. 파는 디, 저 아래서 도깨비란 놈들이 몽댕이 들고,

"워떤 놈의 자식이 게 판단 말이냐?"

구 막 끓어 올라 오거든. 오다가 한 놈이 오너 보고서라미,

"저 아무개 짓 아닌가. 에이, 가세."

하며 도루 돌아서 가.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라 게다 쓰구서라미 그 사람 참 장차 부자되구. 자손 퍼지구 잘 살드랴. 그런 놈두 있더랴.

〔채록자 : 그 사람은, 둘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묘자리를 알아 봤지요?〕

도깨비 훌려서, 도깨비하구 친했지. 동생이,

"형님 나 폐백 삼백냥 준다구 안했슈?"

"준다구 했지."

다 팔아야 삼백냥거리 밖에 안 되여. 그런디 준다구 했지.

"성님이 안 줘두 준다구 했으니께, 난 받은 셈이유. 첨에 못 준다구 했으면 아버지 그런 자리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럭해서 삼형제 잘 살더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3시 4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0. 용의 보은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 줄거리

그건에 어떤 원이 늘 '한 자리 좋긴 좋다만……'하고 말하는 것을 아전이 들었다.

아전은 자기 아버지가 죽자 서울로 전임되어 간 원을 찾아가서 전에 좋다고 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다. 원님은 그 자리를 일러 주면서, 그 자리는 앞의 섬을 다 없애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아전은 돌아오는 길에 용님 소리를 세 번 들어야 용이 되는 이무기의 허리를 넘으면서,

"용님 용님 용님, 내가 바빠서 이렇게 허리를 넘으니 용서하시오."

하였다.

그날 밤, 아전의 꿈에 용이 초립동으로 변신하여 나타나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면서 소원을 물었다. 아전은 앞의 섬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앞의 섬들이 모두 없어졌다. 그래서, 아전은 원님이 말한 자리에 산소를 썼다. 그 후, 아전의 후손 중에서 삼정승이 나왔다.

그전에, 이—, 촌에서, 시골서 원이 살았어. 원이 살았는디, 그 원이 부리는 아전이 있거든. 아전이 있는디, 그 아전 듣는데 밤낮 원이,

"에이, 그 한 자리 좋긴 좋다만, 좋다만……."

이래싸. 그러구선 있는디, 아 이 원이 서울루 이사를 갔어. 관사는 비구.

이사를 갔는디, 그 아전의 아버지가 죽었어. 죽었는디, 자리를 하나 구해야 할 텐디,

"에이, 나, 그, 저, 원한테 가서 물어볼 게라."

구 서울 찾아서, 굴전제복하고 올라가서라무니, 원게다 절을 너푼 허니께,

"느이 애비 죽었구나."

"예, 아버지 돌아 가셨슈. 그런디, 원님더러 물어 볼 일이 있어서 왔슈."

"무슨 말이냐?"

"원님 밤낮 한 자리 좋다만, 좋다만 하면 데가 워디요?"

"응, 게, 너 쓰두 못한다."

"왜요? 좀 한 자리, 좀 일러 주쇼."

"그 관사 뒤 그저, 고추밭 했던 고위 똘강(도랑)이, 게가 한 자리 좋은 디여. 그런디 쓸 수가 있간. 게 쓰자면, 그 앞의 바다 가운데의 섬을 다 없애야 쓰는 게다."

그러거든. 그러냐구.

에이, 간다구.

"원님 내려 가겄시유."

"응, 내려 가거라."

오는디, 네 길목에가 사람이 백설치듯 했어.

"웬일이냐?"

니께,

"여보쇼, 그 바다에서라무니 큰 이무기가 하나 육지루 나뒹굴어서 드러누웠는디, 사람 다 큰 일 나니께, 가지 마쇼."

"예, 난 급하니께 가야겠슈."

그 붙잡는 사람도 있고.

"가만 둬, 가게."

이러는 사람도 있구, 이렇단 말여.

아, 왔지. 오너서, 이무기 허리를 넘으면서,

"용님 용님, 나는 바쁜 일이 있어서래미, 이렇게 용님 허리를 넘으니, 너무나 섭섭히 생각하시지 말구, 감사하게 받으시라."

구 허면서 허리를 넘어 왔어.

넘어 오너서 저녁에 꿈을 꾸니께, 초립동이가 떡 들어오더니만,

"선생님 저는 은혜를 다 못허겠읍니다."

그러거든.

"무슨 말이냐?"

구 그러니께,

"저는 용왕에서 말요, 너 육지 나가서라무니 삼일만에 용님소리 세 번을 들어야, 오면은 너 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허사라구. 그래서, 여태 삼일 다 가도록 그 소리를 못들었는디, 선생님이 제 허리를 넘으면서 용님소리 세 번 해서 저는 잘 됐시유. 그런께 선생님 소원이 뭐입니까?"

묻거든.

"내 소원은 저 바다 가운데 섬이나 다 없앴으면, 그게 소원이다."

그러니께,

"그건 어려운디요."

허구서 나가. 나가더니만, 또, 잠깨서라무니 일어나 보니께 꿈이거든.

"그것 참 유수곡절허다."

구 그러구, 또 잠드니께, 또 들어왔어. 오너서,

"선생님 소원이 뭐인가 말씀하슈."

"난 더 소원 없어. 거기 섬이나 없앴시면 난 그게 제일 소원이. '

"그럼, 그럭허겄시요. 선생님 안녕히 기시요."

하며 나가거든.

그 이튿날 자구 일어나 보니께, 바닷물이 시퍼런디 섬이 하나두 없이 상큼하게 없앴거든. 그놈이라 꼬리루 냅다 휘젓어서. 그래서, 게다 즈이 아버지 모이 쓰구서라무니, 참 삼정승 나더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58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1. 집안 우애는 안에서 잘해야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 줄거리**

예전에 우애 있게 사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자들이 우애를 잘 하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이 아니라고 했다.

여자들이 서로 짜고서 음식을 나눠 먹지도 않고 서름서름하게 대하자, 남자들도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들은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는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남자들도 집안끼리의 화목은 안에서 잘해야 한다고 했다.

이전에 어떤 집안들이 우애를 하 잘한다구 그런께, 안이서들까지

"배깥에서 때미 우애 잘 하간? 안이서 때미 우애 잘 하지."

이러거든. 그런께,

"그럭허나 되나 보자구."

이러니 안이서들이끼리 짰어.

"인제 워떤 아주버니 오너두 뭘 먹다 감추구 드리지 말구, 또 워떤 아주버니 오너두 뭘 먹다 감추구서 드리지 말구 이렇게 하기루 허자."

구. 그런께, 먹을 해 먹는다지, 무얼 귀한 음식을 해 먹는다지 해 먹구설라미, 제금 난 시동생덜이나 누가 오거든 감춰 버리구 씻은듯 가신듯 혀. 그러구서는, 안이서 보구선 그런 얘길 했지. 그런께, 일러주지 말라구.

안이서들 그런단 말여.

"아무디 가니께, 큰 집에 가니께 무엇들 해먹구선 감추고 씻은듯 가신듯 하데."

그러니께, 남자가

"그래서야 쓰나."

그러니께, 서로가 지그럭지그럭 헌단 말여. 지그럭지그럭 허니께, 안이서 때매 우애 잘 한더니, 왜 배깥 애덜은 못하느냐구. 배깥애들까지 찌그럭거리니께, 그런단말여.

그러니께,

"그럭허지 말구, 우리 돼야지 하나 잡아 놓구서라무니, 몽땅 집안 오라구 해서 먹어 가며, 우애를 누가 잘 하나 보자구. 안에서 때미 잘하나 배깥 때미 잘 하나 알아 보자구."

그래서, 그 얘길 해 가면서 잘 나눠 먹구 말았다구 그 얘기 하더랴.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5시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2. 신통한 꼬챙이

T 근흥면 정죽리 ①—A면, B면

＊ 줄거리

옛날 어느 산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가는 사람은 모두 죽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루 밤을 지내고 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여도 가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담력 센 사람 하나가 그 집을 찾아갔다.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으니까 어떤 놈이 와서 '꼬챙아' 하고 부르더니,

"그 사람 잘 모셔라. 내가 저녁에 와서 데려 가겠다."

고 하고는 다시 갔다.

그 사람이 다시 '꼬챙아' 하고 부르니 대답하였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자기는 전에 이 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주워 온 인골(人骨)로 만든 신골 꼬챙이인데, 사(邪)가 되어서 말을 한다고 했다.

그 사람이 꼬챙이에게 아까 왔던 게 누구냐고 물으니, 그것은 요 위 연못에 사는 구렁이라고 했다. 그 구렁이가 이 집에 오는 사람을 잡아 먹었고, 오늘 밤에는 그 사람도 잡아 먹을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꼬챙이가 일러 주는 대로 하여 그 구렁이를 죽이고, 꼬챙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 때, 나라에서는 공주의 병을 고칠 용한 의원을 널리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천거했다. 그 사람이 대궐에 가 앉았는데, 쥐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는 꼬챙이가 시키는대로 그 쥐를 때려 죽였다. 그러자, 한 마리의 쥐가 바늘을 가지고 나와 죽은 쥐를 콕콕 찌르니 살아났다. 그 사람은 꼬챙이가 시키는대로 그 쥐를 죽이고 바늘을 빼앗아 그 바늘로 공주를 낫게 하였다. 왕은 공주를 그와 결혼시켰다.

얼마 후, 그 사람은 중국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그는 꼬챙이의 도움으로 첫째 공주를 잡아먹고는 그 공주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천자를 해치려던 불여우를 물리쳤다. 중국 천자는 둘째 공주를 그 사람과 결혼시켰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 오는 길에 공동묘지에 이르자 꼬챙이는 그 사람의 눈을 찔러 눈이 멀은 것처럼 보이게 해 주면서, 영력(靈力)을 잃어서 이제는 남의 병을 고쳐 줄 수 없다고 하라고 했다. 그사람은 꼬챙이를 공동묘지에 매장해 주고 돌아와 두 아내와 함께 잘 살았다.

옛날에 산골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를 가면은, 항상 사람이 죽어나온단 말이유. 죽어 버리유. 그러면, 중간에, 그 산에 들어갈라면 중간에 널 짜는 사람이 있어 가지구 그 시체를 또, 가서 치는 사람들이 있시유. 그래서, 항상 그 집에 가기만 하면 죽어나오고 죽어나오고 허니까, 이, 한사람이 있다가,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은 큰 재산을 준다구 해서, 그러니께, 갔다가는 못오니께유, 죽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에이 빌어먹을 거, 내가 좀 가보겠다."

구, 재산이 탐 나서유. 그래서, 그 집을 갔단 말이유.

그래 가보니께, 전부 몬탱이만(먼지만) 방안에 콱콱 차구,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

기서, 방안에서, 가만히 앉았노라니께,

"옥시나 뚱뚱 옥시나 뚱뚱."

해 가면서, 어느 사람들이 몇이 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았노라니께, 문을 '턱' 열더니,

"어허, 안 죽었구먼."

그러구 나간단 말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중간에 낼 짜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방안에 들어앉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요놈들, 워디라구, 여기 감히 누가 죽는다구 여기루 왔느냐?"

구 혼내서, 호령을 일러서 내보냈시유.

내보내구 또, 가만히 앉았노라니께, 어떤 놈이 참, 대문을 썩 열더니만,

"꾜쟁아."

불른단 말여.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

하고 대답을 해유. 그래서, 가만히 듣구만 있지유, 그 사람은. 그런께,

"너 여기 온 사람이 없니?"

"있시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잘 모셔라. 내가 저녁에 오너서 데려가겠다."

그런단 말여. 이상한 일이란 말여. 그 사람이 듣고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구서, 그 사람들 간 뒤에 자기두 한번 해봤단 말이여.

"꾜쟁아."

하구 불러봤거든. 그러니께, 역시

"네."

한다 말여. 그래서,

"네 이놈, 이루 오너라."

하니까, '통통통' 오는 소리만 나요. 그러더니, 문을 썩 열더니, 문을 탁 치면서 아무소리도 없단 말여.

"네 이놈, 온다구 하더니 어디가 있니?"

하니께,

"여기 있시유."

그런단 말요. 아무것두 없는디.

"무엇이, 늬가 대답을 했니?"

허니께,

"고 앞의 쬐그만 신골꼬챙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단 말여.

"응, 늬가 기구나."

"예."

"그러면은, 늬가 어떻게 되서 꼬챙이가 됐니?"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 적에 공동묘지 가서 인백다귀를 줏어다가 꼬챙이를 만들어서 신골꼬챙이로 해서 그 놈을 사용하다가, 대청 밑에 빠져 가지구, 그게 사(邪)가 돼 가지구서 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허거든.

"응, 그려. 그러면은 아까 왔던 놈들은 뭣이냐?"

그러니께,

"그것은 이 위에 연못이 있는디, 연못 안에가 큰 구렁이가 있다구. 그래서, 그 구렁이가 어르신네를 저녁이면 데려 갈려구,"

그러니께, 잡아 간다 소리지유.

"데려갈려구, 지금 오너서 저녁에 데려간다구 허지 않느냐?"

구.

"그려냐. 그러면, 저 놈을 워떡해야만 내가 살 수 있겄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나가실라면은 당장 이 자리에 나가서, 사람을 여럿을 데려다가, 칼두 갖구 그저, 연장을 많이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문앞에 대기하구 있다가, 그눔이 들어오는대로, 꼬추가루도 좀 갖구 오고 해서 이럭해 가꾸, 짜르면서 고추가루 삐구(뿌리고), 짜르면서 고추가루 삐구 해야지, 그냥 짤르면 맞붙으니까 안된다구. 그럭해서, 잡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니?"

"예, 그럭하면 살 수 있시유."

그래서, 참 즉시 나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마련을 해 놨거든요. 전부 그래 가지구서, 저녁을 대기하구 있으니까, 역시 어떤 놈이 오더니만은,

"꼬챙아."

불른단 말여. 그러니께,

"네."

하구 나가서,

"대문 열어라."

그러니께, 대문을 삐주구니 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참, 자기두 준비를 허구 있지유.

그러니까, 참 커다란, 무지무지한 대망(大蟒)이가 슬슬 기어 들어온다 말유. 그 눔을 엿이서 냅다 칼루 짤르구 고추가루 뻣구, 칼루 짤르구 고추가루 뻣구 허니께는,

"내가 이럴 줄을 몰랐더니, 꼬챙이 저 눔 새끼 때문에 내가 죽는다."

구 소리 질러가며 이 눔이 죽어 번진다 말여.

그럭해 가꾸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살아나갔시유. 살아서 나갈 적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 때미 살았으니께,"

그 꼬챙이 보구 허는 말이유.

"너 때미 살았으니께, 나는 늬가 인연이여. 그러니까, 너 나하구 한치(함께) 댕이야겠다."

그래 가꾸, 호주머니다 꼬챙이를 넣구 갔대유.

그래 가지구서, 갖구 가서 집에가 딱— 있노라니까, 이 용한 사람, 이 용한 의원이 누구냐구 나라에서 찾구 뭣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 다 죽는 디 가서 살아나왔으니께, 더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나라에 보내야겠다구. 이렇게 보내니까, 역시 나라, 천자의 딸이 병이 들어 가꾸 죽게 됐는디, 그 딸을 고쳐야만 될 텐디, 용한 의원이 없어서 못 고치구 있는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라구 했거든요. 그이가 제일 났다니께 고쳐라. 그래 가지구 고치는데 도저히, 바늘두 안 만져 본 놈이 침이, 옛날에는 침으로 많이 고쳤으니까요. 침이 워치게 됐는지 뭐 알아야지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적에,

"야, 꼬챙아 내가 인제는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늬가 좀 살려주야지 어떡한다냐?"

그러니까,

"걱정말라구. 내가 살려주마."

구.

그래서, 참, 거기 앉았으니까, 아 쥐란 놈이 한마리 '또르르'하고 나온단 말여. 호주머니 안에서 그 꼬챙이가 하는 말이,

"저 쥐를 토막으로 쌔려(때려) 잡으라."

구 그러거든. 쌔려 잡으니까 죽었단 말여. 조금 있으니까 한마리가 또, 바늘을 물구 나와서 고 쥐를 콕콕 찔르더니, 고 놈이 발발 멸더니, 나갈라구 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늘 문 쥐를 또, 토막으로 후려 쌔렸단 말이유. 쌔려 가지구서 잡았시유. 잡아 가지구서 그 바늘을 가지구서, 그 여자를 침을 주니까, 하, 금방 죽게 생겼던 여자가,

"아이고, 잠 한번 되게 잤다."

구 그래가면서 일어나요.

그래가꾸, 그 여자를 고쳐 가지구서, 고쳐 놓구서 나갈라구 하니까, 그 천자의 말씀이,

"나는 네가 아니면은 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는디, 네가 고쳤으니까, 너 처를 삼아라."

이렇게 해 가꾸 그 여자를 그 사람을 줬단 말이유.

그래서, 데리구 오너서 사는 중인데, 중국의 왕의 딸이 또, 죽게 생겼다구, 한국의 용한 의원이 있으면 하나 보내 달라구 이렇게 얘기를 허거든. 그럭허라구 그래 가꾸 한국 나라의

임금이 그 사람밖에, 즈이 사위밖에 보낼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보냈단 말여. 보내서, 거기 가서 병을 보게 됐는디, 그 때에 또, 그 얘기를 했시유.

"야 꾜쟁아."

"예."

"너 워티게, 내가 인제 여기 오너서 이 병을 못고치면 나는 죽어나가. 너하구 나하구 한 티 나가느냐, 너만 나가느냐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걱정 마슈. 하여간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

구.

"그렇게 해라."

그러구서, 가만히 앉았으니까, 대국 천자가 하는 말이,

"우리 딸 맥 좀 봐 달라."

구 그런단 말여.

"내가 그 방에 들어갈 수는 없구, 그러니까, 그 홀목(손목)에 실을 묶어서, 나 있는 방으루, 문구녕으로 해서 이렇게 통해서, 나 있는 방으로 보내 달라."

구 그러니까,

"그럭하라. 그러면 더욱 좋다."

구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디, 그 실을 딱 불잡고 앉았으니까, 꾜쟁이가 하는 말이

"철맥 철맥 철맥."

헌단 말여. 그래서, 오결래,

"철맥이라."

구 그러니께,

"아니, 철맥이 뭐냐. 사람의 손에다, 홀목에다 묶어 놓고 왔는데, 철맥이 무슨, 철맥이라면은 쇠에다 묶어 놓은 것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구.

"아이, 가 보시라."

구. 오너 보니까, 문고리에다 묶어 매놨단 말이유.

"아, 이건 왜 여기다 묶어 매 놨느냐?"

"답답해서 거기다 묶어 매 놨다."

구.

"그러냐구, 그러면 이번에 맥을 볼라구 그러니께, 홀목에 꼭 묶어 매 놓고 있으라."

구 그러구서, 손목에다 묶어 놓고 또, 가서 맥을 보라구 하니께,

"목맥 목백 목맥."

한단 말유. 꾜쟁이가. 그래서, 목맥이라구 하니까,

"아니 목맥이라니 사람의 홀목에다 묶어 매 놨는데 목맥이 무슨 목맥이냐?"

"가 보시라."

구. 그래서, 또 가 보니께 토막에다 묶어 매 놨시유.

"아 이럭하면 안된다구. 여기다 꼭 묶어 놓구, 홀목에다 묶어 매 놔라."

그래 가지구, 홀목에다 묶어 매 놓구 기달리구 앉았었시유. 그러니께,

"수맥 수맥 수맥."

허거든요. 그 땐 인제 기달렸다가 또, 가서 물어보니께, 수맥(獸脈)이라 이거요.

"아니, 수맥이라니, 내가 사람 홀목에다 묶어 매 놓구 기다리구 있었는데, 수맥이라니 수맥이라면 짐승 수(獸)자, 짐승이란 말 아니냐?"

아, 짐승이라구. 무조건 그 사람을 때려 잡으라구.

그 사람이 용하니께, 그 의원 하는대루 무조건 즈이 딸이나마나 후려 쌔렸단 말이유. 아 쌔리니까 역시 빨간 불여수가

"내가 느이 딸 잡아 먹구 너까지 잡아먹을라구 했더니, 너는 놓친다."

그래가면서 죽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 시체를 찾으야 할 텐데 어떡해야 찾느냐?"

고 묻더래요. 꼬챙이가 하는 말이,

"시체는 이 위의 산에 소나무 꼬챙이 위에다 꿰달아 맸으니 가보시라."

구. 그래서, 참 가보니까 역시 그렇게 해 놔서 장사를 잘 지내고, 작은 딸을,

"나는 네 은혜를 갚을 수 없으니까 작은 딸을 너를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구서, 거기서 새악시를 하나 또 얻었지유.

얻어서 참, 고향 땅에 나오는디, 어떤 공동묘지에 오니까, 꼬챙이가 하는 말이,

"고향은, 내 고향은, 이게 내 고향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 묻어 주고 가쇼."

그러드래요. 그래서,

"야, 너를 묻어 주면 난 영원히 죽는 사람이여. 어디서 병 봐 달라구 하면 누구 보구 문의를 하니?"

그래가면서 탄복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죽지 않게 헐 수가 있으니까 묻어주고 가쇼."

"그러면 죽지 않게 해 다구."

그 놈이 촐싹 나오더니 눈을 콕콕 찔르더래유. 자기 눈 찔렀어두 자기가 보기는 잘 뵈거든요. 넘이 보기는 눈이 멀어 뵌단 말유.

〔Tape 교환으로 잠시 중단〕

그래서,

"그러면, 너를 여기다 묻구 가겠다."

구. 잘 묻어서 장사를 지내주구 집으루 왔시유.

오너서 잠을 자노라니까, 즈이 새악시들이 둘이니까요, 여름에 날이 뜨습다구 수건에 물 묻혀 가지구 팔, 다리를 이렇게 슬슬 문질러 주거든요. 깜짝 놀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 전번에 즈이 집이서 꿈 꿀 적에, 어느 새악시가 둘이가 오너서 수건에 물 묻혀 가지구 팔,다리를 문질러 줬었단 말이유. 그래서, 그 꿈이 그 때서 풀어났지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얘기유.

채록 일시 : 1986. 12. 28. 낮 12시 10분경
구 연 자 : 설 부영(남, 58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3구 153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정죽리 3구 가르미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인 설 의식(남, 29세, 농업, 고존)씨의 안내로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설 1편과 이 이야기를 들었다.
청 중 : 같은 마을에 사는 구연자의 친지 1명과 함께 들었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스님으로 계시던 숙부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13. 장사와 늑대

T 근흥면 정죽리 ①—B면

*** 줄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막신을 신고, 송아지를 물고 간 늑대를 쫓아갔다. 그는 송아지를 빼앗아서 옆에 끼고, 다시 그 늑대를 뒤쫓았다. 얼마를 쫓아다니다가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송아지는 죽어 있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즈이가 소를 먹였었는디, 늑대가 소를 물구 가더래유. 옛날에는 그 목신 신구 다니지 않았시유. 그 목신을 신구서 소를 뺏을라구 늑대를 쫓아갔다느만요. 조그만 소, 쇠아치(송아지)를.

쫓아가서 이리저리 헤매구 쫓아대니다 보니까, 그 눔이 붙잽혀 가지구 그 쇠아치를 뺏었거든요. 뺏어 가지구 그냥 오시는 게 아니구 그 쇠아치를 옆에다 끼구서 늑대를 잡겠다구 또, 쫓아다녔대유. 그래 가지구서, 한참 쫓아다니다가 못잡아서 그냥 집으로 왔죠. 오너서, 이 쇠아치를, 어떻게 됐나하고 와 보니까, 겨드랑이에다 끼구서 한참 대녔으니까, 제대루 살지 못했죠. 그래서, 쇠아치가 죽었드래요. 그래서, 헐 수 없다 하구서는 그냥 그 쇠아치를 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힘이 그렇게 좋았다는 말씀을 어른들이 허

시더만요.

채록 일시 : 1986. 12. 28. 낮 12시 30분경
구 연 자 : 설 부영(남, 58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3구 153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실제 겪은 일이라고 하시며 들려 주었다고 하는데, 민담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정리하였음.

114. 죽은 아들에게서 손자 보는 묘자리

T 태안읍 동문리 ①—B면, ②—A면

* 줄거리

옛날에 곽정승이 늦게서야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이 장가도 들기 전에 죽었다. 곽정승은 아들을 어느 중이 '死子生孫之地'라고 하며 잡아 주는 자리에 묻었다.

얼마 후, 그 고을 원의 딸이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오다가 그 묘 근처에서 쉬었다. 그때, 한 총각이 그 처녀의 가마 안으로 들어와 육체관계를 하고는 문서 한 보따리를 던져 주고 갔다. 그 후, 처녀는 임신이 되어 배가 불러왔다. 딸의 말을 들은 원님은 곽정승을 찾아가 딸이 준 문서를 보였다. 문서를 본 곽정승은 그것이 아들의 관 속에 넣어 준 토지문서라 하였다. 일의 전말을 안 원님은 딸을 곽정승의 며느리로 보냈다.

그 후, 곽정승의 며느리는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그림자가 없었다.

옛날에 현풍 곽씨, 곽정승이 있었읍니다. 그 곽정승이, 연말두 오고 뭘 하니께, 그 정승을 퇴직하구서 촌락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시유. 농사를 짓는디, 아 이, 늦도록 혈육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인두 낙담을 할께구, 자기두 걱정이 되구 해서, 그 명산대천 불공을 한다. 또는, 집이서두 칠석 날 모아 놓구 지성을 드린다. 어쨌거나 부인이 태기가 있어. 아주 낳았어. 십삭만에 나니까, 아들을 낳았어. 좀 좋다구 할 껴?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기르는데, 열 서너 살 되서, 야 인제 됐다. 옛날에 열 네살, 열세 살 장가 갔거든. 그래서, 며느리감을 하나 구하는디, 애가 병이 들었시유. 아, 좋다는 약 다 쓰야 영 나서야지. 어지 허다가 죽었네.

"인제는 우리 곽씨 문전 문 닫어 뱄다. 무남독자 이거 죽었으니 도리없다."

그런데, 염습을 하되 얼굴은 못 싸매게 하구,

"이 토지문서 있는 거, 내가 뒀다 누구 줄 것이냐? 너 갖구 가서 지하에 가서 쓰든지 마음대루 해라."

그냥 넣어 줬어. 염습을 허구선, 널두 미닫이루 이렇게 허구선, 얼굴도 못 싸매게 하구 그저 하루에 시번이구 네번이구,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미닫이 널을 열구 들여다보구, 울구

울구 허는디, 며칠이 지났는지 중 하나가 와서 동냥 달라고 꽹맥이(꽹가리) 뚜드리거든유.

〔Tape 교환〕

곽 정승이 사랑에 앉았다가 대사를 불렀시유.

"이루 들어 오라."

구. 그 시대는 중을 하시 했던 모양이여. 방에 못 들어 오구서, 마루에 가 엎드렸거든.

"아, 이리 들어오라."

구.

"어딜 황송하게 들어 갑니까."

"아, 걱정말라. 내가 들어 오라구 하니 들어 오라."

구. 들어가서 엎드렸으니께,

"편히 앉으라."

구. 앉았시유. 앉아서 얘기하구 앉았는디,

"대사, 어느 절에 있소?"

"아무 절에 있다."

구.

"그러면, 하루에 댕이며 동냥을 하면 얼마나 버느냐?"

"예, 그저 부촌이나 만나면 두 되도 벌구, 서 되도 법니다."

"그러면, 그 쌀을 어떡허느냐?"

"절루다 보냅니다."

"그러면, 대사 내 말 좀 들을까?"

"무슨 말씀이오니까?"

"내 사랑에서 나하구 말벗이나 해 주면은 한달 계를 하든, 일년 계를 하든, 그 쌀을 내가 절루 부쳐 줄 테니께, 나하구 말벗이나 좀 하자."

가만히 중이 생각허니께, 그럴 듯 하거든. 진발루 문전 다니며 염불하는 것보다 나서. 일신이 편쿠. 그러니까,

"대감님께서 소원이 그러시다니께, 소원을 풀어 드리겠읍니다."

승낙하구 그 날부텀 있었시유.

있는디, 한 3, 4일 지나구 보니께, 안방에 들어가서 곡상소리를 하구 나오거든. 하루 이삼차, 삼사차. 한번 물었어.

"대감님."

"왜?"

"날마다, 하루에 시시때때루 들어가서 안방에 가서 곡상소리를 하니, 무슨 곡절입니까?"

"그런게 아니라, 늦게 하나, 혈육 하나 멸어졌다가, 며칠 전에 죽었어. 그래서, 갖다 묻지두 않구, 보구 싶으면 가서 떠들어 보구 울구, 울구 헌다."

아 그 중두 낙담 할 꺼 아녀? 그럴 수가 있느냐구. 곰곰히 생각하다가, 중이 허는 말이,

"대감님, 제 말씀 좀 들을라구요?"

"그 무슨 말인고?"

"그러시지 말구, 그 시체를 갖다가 염장을 합시다. 염장을 하면 혹 후사가 있을라는지 몰라."

그거 방에서 냄새가 진동하구, 진물이 흘러서 발이 버덕 버덕 빠지는 거 아녀.

"거 워치게 해 봐야겠네."

"그럼, 절 따라 가십시다."

고산준령에 턱— 올라가서, 밟으며 밟으며 내려오다가, 어느 산 말랭이(산마루)에다가 쇠를 띠어 놓고 봐. 중이. 허더니만, 방금까지 다 보고, 시말까지 다 끗아 놔 줘.

"내일 오시에 하관 하쇼."

그러구, 중이 없어 졌어.

"아, 대사 어디 갔어?"

묵묵부답이여. 암만 불러야 없어.

"허어, 이상하군."

방금 다 해 줘, 시말 끗아 놔 줘, 내일 오시에 하관 해라, 여기 쓰면 후사가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도리없이 들어가서, 그 장사지낼 준비를 해 가지구 가서, 묘를 썼슈. 가서.

했는데, 그 해 마침, 그 고을의 원님이 갈려 가구서, 다시 도임을 내려와요. 원님이 과년 닿은 딸 하나가 있으니께, 식구가 다 오니까, 쉬었는데, 가마 안에 그 딸이 가만히 앉아 있노라니께, 웬 청년 총각, 머리 딴 총각이 훌쩍 들어온단 말여. 가마 안으로.

"아니, 이게 웬일인가? 내 가마 위에 새 하나만 앉아도 수 십명 일행이 '훠이' 하구 쫓을 텐데, 항차 사람이 들어 올 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 가지구서는, 묵묵부답하구, 가마 안에서 막 육체관계를 멈비는 거여. 그러니, 하두 이상해서 그냥 새악시가, 그냥 견뎠시요. 나가면서 옆에 꼈던 책보따리를 쑤욱 빼 주구 가. 말 한마디 할 것두 없이.

"이게 웬일인가?"

하구서는, 갖다 꼭 보관하고 있지. 새악시는.

6~7개월을 그 원님이 지나는디, 백성들이 말 잘 들어 얼마나 좋을 껴. 그런디, 한 가지 큰 일났어. 이 딸의 복부가 불러나니, 일반 백성두 아니고, 관을 지키고 있는 원님으로서, 딸이 저 모양이 됐으니 큰일 났어. 그래서, 하루는 식도를, 큰 식도를 썩썩 아주 시퍼렇게 갈아 갖구서는 웅접실루 끌어들였어. 딸을.

"너 바른대루 혀. 만약에 너 잘못하고 뭣하면, 이 칼에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예, 바른대루 일러 드리죠."

제 방에 가더니, 그 오던 행차에서, 그 남자하고 접촉한 그 책 보따리를 쑥 내줬거든. 원

님이 그저 눈은 밝고, 뒤적 뒤적 뒤적하니, 그건 곽정승의 망문서여. 전부. 그래, 관속을 불러 가지구서,

"야, 이 고을에 곽정승이란 양반이 계시냐?"

"예, 과연 계십니다."

"당장 교자(轎子) 대라."

일반 백성 같으면 그 놈 잡아오라고 그럴 텐디, 정승 앞에 원님이야, 고양이 앞에 쥐지. 갔어. 가서 그 문서를 내 놨어.

"이게 워티게 된 사실입니까?"

곽정승이 뒤적 뒤적 해 보니, 아 이런 과거의 무남독자 외아들 줘서 염습 할 적에 넣어 준 것이, 이게 워서 튀어 나왔으니 기막히거든. 눈물만 줄줄 흘리구 앉았다가, 그 사실 얘기를. 원님이 먼저 얘기 했지.

"워치게 된 사실인가 일러 주쇼.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 했어.

"내 늦게야 혈육 하나가 떨어져서, 아무 살에 죽어서, 너 갖구가 쓰든지 말든지 혀. 나 전할 디 없어. 허니까, 너 갖구 가라구. 품 안에 준 것인디, 이게 워서 튀어 나왔느냐?"

원님이 가만히 생각 허니께, 참 기기묘묘한 일이여. 그러냐구.

"대감님 헐 수 없읍니다. 아들 없는 며느리를 얻었어. 그러니께, 좋은 날로 보내 줄 테니, 그런 줄 아쇼."

떠나서 왔어.

와서 좋은 날로 택일해서 보내 줬는데, 헐 수 있나. 곽정승이 인제 아들 없는 며느리를 얻었겠다. 십삭이 됐던지, 탄생하구 보니께, 아들 쌍태. 형제를 낳았어. 아, 그러니, 앉아서 떡 받기지. 말두 아녀. 그래서, 요것들이 크는디 병두 없이 잘 커. 그런데, 요것들이 걸어다니면, 달빛이나 햇빛에 보면, 사람들은 그림자가 있지 아녀요? 그림자가 없어. 이건 귀신새끼라. 그 모이자리가 사자생손지지(死子生孫之地)랍니다. 죽은 아들게서 손을 보는 자리여.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이 갑우(남, 72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장산리 253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장소 : 태안읍 동문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동문리 경로당을 찾아가니 노인 30여 명이 두 방에 모여 앉아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다. 채록자가 찾아온 취지를 설명하자, 5~6명의 노인이 채록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둘러앉았다. 이 분들로부터 전설과 민담 몇 가지를 채록하였다.
청 중 : 마을 노인 6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이야기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115. 암행어사의 아우

T 태안읍 동문리 ②—A면

＊ 줄거리

옛날 전라도 산골에서 외롭게 사는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집안에 친척이 하나도 없느냐는 아내의 말에 형 '조 만식'씨가 서울에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마지두에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아내는 매일 목욕재계한 후 정화수를 떠다 놓고, 시숙 조 만식씨의 성공을 빌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조 만식씨가 암행어사가 되어 여러 지방을 순행하던 중 소나기를 만나 그 집 추녀 밑에서 비를 그하게 되었다. 암행어사는 그 집 안주인이 조 만식씨의 성공을 비는 것을 보고, 그집 주인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전후 사정을 안 암행어사는 자기가 그의 형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 주고, 재물도 얻게 해 주었다.

옛날에 전라남도 지리산 기슭인데요, 유천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서 조실부모하고 여기저기 다니면면서 깔탐살이, 넘의 집에가 일해 주고 자라지 않겠시요? 그럭저럭 어떻게 장성해서 결혼하게 됐읍니다. 그래설라무니, 어디 좋은 자리 장가 가겠어요. 서로 서로 순리순리 잘 아는 처녀게로 장가를 가고 시집이라고 와서 사는 것이 그저 심심산골에 뗏막치구서, 의지거지하구서 어떻게 근근이 매품 재산해서 나무짐을 해서 팔아서 먹구, 일두 해서 근근이 사는데, 그 처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워낙에 없이 살구 조실부모하고 그러니까, 일가도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고요. 그럭저럭 떠돌아다니다 사는 터니께, 하루는 그 부인이 하는 말이요,

"우리는 세상에 일가친척 하나두 말이여 찾아 오는 사람이 없냐?"

구 이러니까, 그 남자가 미안해서 허는 소리겄다.

"우린들 일가가 없겄냐구? 형제가 없겄냐?"

구 어마지두에(무섭고 놀라와서 정신이 얼떨한 판에) 한 소리여. 실제로 없는데.

"그럼, 어디가 있냐구 말여?"

그러니까,

"아 우리 형님이 지금 서울 가 계신다."

구. 그냥 나온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름은 뭐며, 무슨 생활을 하냐구 말여?"

그러니까, 성이 조씨던가,

"우리 형님이 조 만식씨여."

이랬단 말여.

"아, 그러면 뭣 하시냐?"

구 그러니께,

"지금 공부를 허구 계시다."

구 이랬단 말씀이여.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께 반갑단 말여.

그 부인이, 그 뒤에는 바로 그 집앞에가 옹달샘이 조그만한게, 천연수로 말간한(맑은) 물이 나오는 게 있어서 식수를 한단 말여. 고걸 떠다가 그 후부터는 정갈하게 목욕을 허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목욕을 정갈하게 허구 짚을 열 십자로 마당 가운데다 이렇게〔손을 열십자를 그리며〕 놓구서는, 물동이를 이구가서, 물 한동이를 떠다 놓구,

"우리 시숙어른 조 만식씨 그저 어서 성공해서, 형제간에 상봉해 주기를 하느님께 빕니다."

하구 말여. 그렇게 공을 들였단 말씀입니다.

아, 그런디 무려 10년 간이여 그때가. 10년째 공을 들이는데, 진짜 조 만식씨가 암행어사를 해서 말여 방방곡곡을, 불의 불충하는 놈, 잘못된 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려서, 돌아댕기면서 방방곡곡을 출도를 붙여 가지구, 시찰하러 다니는 암행어사 조 만식씨가 계시던가 봐요. 진짜 조 만식씨가 말여. 아 그런디, 거기를 이렇게 내려 오는데, 바로 그 집에, 멧막 집에를 막 오자, 여름에 소낙비가 뿌리더랍니다. 느닷없이 조그만 구름이 생기더니말여 소낙비가 느닷없이 오거든. 그런디, 갈 데가 없어. 외딴 집이니까. 처마 밑에다 의지하구 있단 말여. 비를 개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 그런데 뭐 비가 개지를 않여. 아, 그러자 일몰이 되어 저물었단 말여.

비가 아주 소나기가 개서 어느 정도 이슬비가 오니까, 어떤 젊은 부인이 썩 나서더니 참 그 앞에 가서 인제, 비가 오니께 발가벗구는 못 해두, 웃통 벗구 쑥쑥 씻구, 얼굴도 씻구, 손도 씻구, 발두 씻구 허구서 물 한동이를 떠다가 짚을 놓구는, 물 한동이를 갖다 놓고 절을 이렇게 하면서,

"조 만식씨, 우리 시숙 어른. 어서 성공해서 그저 형제간에 상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이런단 말여. 그러니,

"야, 이거 내가 조만식언디 저게 무슨 공을 들이는가?"

허구 말이지, 비가 개더락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비가 인제 그쳤어. 일몰이 되서 어둡게 됐단 말여. 다른 데 가도 못하게 됐단 말여.

그 집 주인장을 찾아서,

"주인장 주인장."

찾으니까, 남자가 나온단 말여.

"원 세상에 몇 해 지내도록까정 어느 누가 찾아 오는 사람이 없더니, 어떤 분이 주인을

찾어?"

반가이 나갔단 말여. 나가서,

"아이구, 누구십니까?"

"예, 나는 지나는 과객인데 하루 저녁 폐를, 신세를 지고 갈까 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께,

"아이구, 어서 들어 옵쇼 말여."

젊은 남자가 어서 들어 오시라며 모신단 말여. 단간방이지. 뭐. 아, 그런 다음에 저녁상을 차리는데, 뭐 정성스럽게 채려간다 해도, 그저 우습게 차려 놓은 거지. 그래두, 인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시장한 판에 달게 감식을 해서 먹었단 만여. 그 사람 식사를 마친 뒤여.

"주인장께 초면인데 내 물어 볼 말씀이 있읍니다."

"무슨 말씀이오?"

"이 부인, 아주머니께서 무슨 공을 드리시는 모양인데, 무슨 공을 드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얘기를 다 했거든. 조실부모 했다는 것과, 어떡해서 이 나이 먹더랑까정, 과거 역사 얘기를 해 줬단 말여.

"하두 부인 보기 미안해서, 부인이 우리는 일가친척 하나두 없구, 형제간두 하나두 없냐구 그러기에, 어마지두에 나온 말이, 조 만식씨 우리 형님이 서울서 과거를 볼려고 큰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이러니께, 그 날 부터 공을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십년입니다 말여. 십 년간 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허어, 내가 선영의 덕으로, 내가 암행어사를 한 줄 알았더니, 이 부인 덕이 반절은 포함되는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구는 마패를 썩 뵈면서,

"참 그대는 나 시키는대로 하라구 말여. 내가 조 만식인디."

같은 조씨니께 좌우간 먼 족간이라도 되겠지 말여. 조씨라구 해서 다 일가는 아니지만, 그래두, 조씨니께.

"나 시키는대로만 허라구. 그러면, 동생도 양반되고 돈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께 시키는대루 하라."

구.

"아, 그러겠읍니다."

"이 근방에서 누가 잘 하고, 누가 잘못 한 것을 내게다 전부 일러 줘."

그러니까, 그 근방에는 다 안단 말여. 딱 적어 놓구는, 암행출도를 딱 불르니께, 여기 저기 나졸들이 막 나오더니, 전부 장부를 보구는,

"누구는 잡아들이고, 누구를 잡아들이라."

고. 딱 가둬 났단 말여. 수십 명을 막 잡아들여 놨네.

그러니, 우리 형님이라구 말여. 그러니까, 거기서 식사도 허구 댕기구, 누구냐니께,

"아, 우리 형님이라고."

그래 놓으니, 그전에는 벼슬 못하구 돈 없으면 쌍놈 아닙니까? 아, 그러더니 양반치구는 1등 양반이 됐단 말이여. 그제는, 그러니께, 죄있는 사람을 딱 유치해 놨으니께,

"그러면, 저 조 아무개한테 말 좀 해서 빼내야겠구나."

가서 쏙싹 쏙싹하구 빼 놔. 이 사람도 쏙싹 쏙싹하면 와서 빼 놔 줘. 아, 수십 명을 다 빼 놨다 이 말이여.

그러니, 그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 사람들 그냥 말겠읍니까? 이 놈이 돈보따리, 쌀짐이 되어 들어오기 시작하는디, 한정없다 이거여. 그제는 그 들판 거의 다 사다시피 했어. 집도 기와집으로 잘 짓고, 논도 수십 마지기를 한다. 이래서, 부자가 됐단 말여. 그리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구, 그 형도 오기도 하고 갔다 왔다 하구 하니께, 그이상 양반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심은 나무 꺾어지랴. 옛말이 있잖유. 그러더니, 틀림없이 공을 들이면 되는가 봅니다.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4시 53분경
구 연 자 : 이 충원(남, 6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 57
주 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시목리 6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16. 죽은 남편의 현몽

태안읍 동문리 ②—A면

*** 줄거리**

어느 과부가 죽은지 1년이 넘도록 꿈에도 한번 나타나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과부의 꿈에 죽은 남편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 집 안에 큰 재난이 닥쳐오는데 잠만 자느냐고 했다.

과부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야경원과 함께 집안을 살펴보니, 탈을 쓴 도둑이 궤연(几筵)안에 숨어 있었다. 그 도둑은 그 집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온 이웃집 여인이었다.

과부는 잡혀간 이웃집 여인이 벌을 받지 않도록 청원하여 석방시켰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요작조작 왜정적 일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근처에서 한 여자가 아들·딸 남매를 낳구서 남편이 죽었시요. 상을 놓구서 아들·딸 남매를 키워가며 사는데, 근 1년간이 되도 남편이 꿈에 한 번 안 뵈여.

"죽으면 고만인 게다."

허구서 지나는데, 하루 저녁은 남편이 나타나더니 부인 멱살을 잡구 칼을 겨누거든.

"집안에 큰 우환이 돌아오는데 잠만 자느냐?"

구. 깜짝 놀라 깼시요. 깨 보니까 꿈인디, '이거 이상스런 일이다.' 나가서 동네를 둘러봤시요. 동네도 무사하구 괜찮어. 들어와서 잘라구, 불을 켜 놓고 앉았다. 잠이 넝큼 오겠시요? 전질르구 전질르구[이리 뒤척 저리 뒤척]허다가 고 아들·딸 남매를 뉘인 자리 가서 또, 잠을 이뤄. 잠이 들락말락한데 남편이 또 나타나 칼을 겨누면서,

"집 안에 큰 우환이 들어 오는데 잠만 잘려구 그러느냐?"

구. 또 깜짝 놀라 깼단 말여.

"이거 웬일인가?"

허구서는 또 나갔어.

또 나가니께 골목에 웬 사람이 둘이 돌고 있어.

"거 웬 사람이요?"

"예, 우린 야경 도는 사람이니께 놀라지 마쇼."

그 부인 보고 그 분들이,

"당신은 워째 밤중에 나와서 돌아 다니쇼?"

"예, 그런게 아니라, 사실이 약하 이래서 남편이 두 번이나 멱살을 잡구 칼을 겨누면서 큰 우환이 있는데 잠만 잘라구 그러느냐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왔다구. 두번째로."

"그러면 하두 꿈이 이상스러우니, 가택수색 좀 하자."

"해 보라구."

광에 들어 가서 곡식 그릇을 보니께, 지날만도 하던지, 곡식 그릇을 전부 파헤쳐 놨어. 또 웃방을 들어가 보니께, 궤문을 열구서 전부 옷가지란 옷가지는 다 헤트려 놓구."

"이 집이 물론 도둑이 들었다."

유다락이니 워디 다 뒤져 봐야 없어 사람은.

헌데, 상을 놨으니 주렴을 느리지 않어유. 주렴을 이렇게 떠들어 보니께, 웬 귀신인지 뭔지 모를 탈을 쓰구서 칼을 갖구 앉았단 말여. 형사가 권총을 찼던지 쑥 빼서,

"이걸 갈길 테니께, 사람이걸랑 탈을 벗구, 귀신이걸랑 당장 물러가."

그러니께, 그냥 그냥 나가더니, 자박자박 걸어가거든. 총으루 '빵'하고 냅다 내질렀어. 공포를 땡기니까, 파싹 주저 앉거든. 과부하구 셋이가 쫓아 가서 그 탈을 벗기구 보니께, 바로 그 이웃에 사는 여자거든. 이 여자가 워째서 그러냐 하면은, 고 전날 저녁에 그때 돈으로 100만원 짜리 계를 들었어. 돈을 다 수금해서 갖다 주면서,

"이, 돈이란 요물입니다. 잘 챙기쇼."

이러구 갔거든. 가서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저녁에 이 돈을 갖다 워따 예금도 안할 껴. 누구에게 맡기지두 않을 꺼 그러니 집

에 있다. 요것 좀 옮어 먹을 게다.'

그래서, 탈을 쓰구서 칼 가지구 들어온 거여. 이 여자는 그 돈을 워따 뒀느냐면 곡식 그릇에도 안 놓구 궤 속에도 안 놓구, 고 남매 자구, 자기 자는 요밑에다 헤쳐 놓고 깔구 잤슈. 그러기 때문에 돈도 안 뺏기구 무사히 통과는 됐는디, 그 여자를 형사가 됐던지 수사가 됐던지 잡아 갔지.

가만히 과부가 생각하니께, 이웃이 아니라 원수를 샀어.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날마다 경찰서장한테 비는 거여.

"이 사람 내 뇌 주쇼. 나 종전같이 그 사람하구 지내구, 허물 안 두구서 지낼 테니께 내뇌 주쇼."

경찰서장이 있다가,

"여보쇼, 이런 일 있으면 나 혼자 취급을 하는 줄 아쇼. 다 경우가 있소. 재판소 판사가 있소. 검사가 있소. 다 아는 걸 나 혼자 어떻게 빼노라구 그러느냐?"

그래두, 쫓아 다니면서 그냥 비는 거여.

그 덕을 입었던지 무사히 그 여자가 나왔시요. 나왔는데, 이 혼자 사는 과부가 그걸 풀려고, 좋은 음식두 맨들어 놓구 오라구 해서 먹이고, 웃음 웃고, 정붙일라구 다시.

"그거 참 개두 안 먹는 거 돈 때문에 우리가 우정 낱 거 없다. 허니께, 종전같이 지내자."

구 오히려 과부가 빌었어.

그런 동시에 그 도적질하러 들어 갔던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야 이 너울을 벗을 수가 없어. 동네 분들 보구.

"여보쇼, 우리 가대 팔아 주쇼."

"왜 팔라구 하느냐?"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께, 내 여기서 못살구 나갈 티유. 그러니, 팔아 주쇼. 고헐간 팔아 주쇼."

그 과부보구 사라구 했쇼.

"사라, 돈 있겠다. 사라."

구. 그 과부가 샀슈. 아닌게 아니라 사구서 그 여자는 행방불명으로 어디쯤 갔는지 모르지. 엊그제 내게루 편지 왔어요. 한 번 놀러 오라구.

채록 일시 : 1986. 12. 28. 오후 5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갑우(남, 72세, 농업, 한문 수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장산리 253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구연자는 이 이야기를 약 10년 전에 친구한테 들었다고 한다.

117. 호랑이를 죽여 원수 갚은 아들

T 팔봉면 양길리 ①—B면

* 줄거리

그전에 어떤 포수가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 그의 아들이 돌을 쌓아 자기 몸을 숨기고, 그 안에서 총을 쏘아 호랑이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저기 저 큰 꼭대기가 범의 놀이터인데, 여기서 옛날에 화약 십지 걸어서 범잡을 적인디, 함덫을 저기다 놔서. 저 아래가 돌아대녀싸서 함덫 놓구. 그래서, 함덫재이고. 여기에 범이 있는데, 어떤 포수가 오너서래미라, 여기 범 잡는다구 저기 가서 범의 놀이터, 저기 느티나무가 있는디, 거기서 아주 범이 놀아서, 그래서, 범의 놀이성인디, 그 포수가 죽었거든. 범한테 죽었어.

죽었는디 아들이 커 갓구서 즈이 아버지 원수 갚는다구 왔어. 오너서 자기〔건너 편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저 집이서 주인허구, 요건너 가서, 낮에는 가서 독으로(돌로) 석축을 해 놓구서, 자기 몸뚱이 어떻게 숨을 디 허구선, 내리 총 놓을 디, 고 구녕만 내 놓고, 허구서는 다 쌓아 놓구서, 들어가서 은신 할 바위로 가려 놓구서, 올라가면서 뭐라구 하는고 하니,

"내가 가서 총소리 두 방 나면 산 줄 알구, 한 방만 나걸랑은 죽은 줄 알라."

구 그랬는디, 그가 올라갔으니께, 밤에 들을 것 아녀.

그런디, 범이 두마리 오는디, 밑이서 올라오는디, 한마리는 숫놈이 먼저 앞에 오는디 대가리 번쩍 쳐들고 오는디, 암놈은 땅을 이렇게 뒤지고 오더랴. 그러니께, 워떤 놈을 잡던지 잡으얄 것 아녀. 그러니께, 앞에 오는 놈에다 대구선 걷어 당겼단 말여. 그러니께, 그 놈이 정통 맞기는 맞았는디, 용을 쓰느라구 막 버드나무, 느릅나무 가쟁이가 이렇게 큰 나무인디, 끝으머리 물구서 막 늘어져서 그 가쟁이가 쭉 찢어지거든. 사람 봤으면 죽지. 그런데, 그럭허구서 그 자리서 쪼그리고, 사람이 안 뵈니께. 앉아죽더랴. 맞았던 자리서. 용쓰다가. 쪼그리앉아 죽으니께, 재방 냅다 거머 댕겼더만 그려. 맞은 놈을. 그러니께, 맞구서 그냥 있거든. 그러니께, 죽었지. 그랬어두 밤에는 못 내려왔지. 새벽에 어깨에다 얼매구 왔는디, 어떻게 큰지 이렇게〔마루에 놓는 시늉을 하며〕 마루 있는디 걸쳐노니께 꼬리가 땅에 닿더랴. 옛날에 그랬디야.

채록 일시 : 1986. 12. 29. 낮 12시 20분경
구 연 자 : 김 해동(남, 72세, 농업, 소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881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같은 마을의 이 문재씨 댁 대문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 일행이 이 문재씨 댁 대문앞에서 세시풍속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단원 1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앞집에 사는 구연자가 이씨 댁으로 왔다. 채록자가 팔봉산의 전설을 물으니 구연자는 대문 앞에 서서 팔봉산의 여기 저기를 손으로 가리키며 눈으로 본듯이 이야기를 하였다.
청 중 : 집 주인 이씨와 채록자 일행 4명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더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18. 유골을 묻어 준 어부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 줄거리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 꽃게를 잡다가 그물에 걸린 사람의 뼈를 가지고 와서 잘 묻어 주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청년이 나타나 자기의 뼈를 땅에 묻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은혜를 갚겠다고 하였다.

그 후로 그 어부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꽃게를 잡았다.

엊그제요, 텔레비에서 방송이 나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안흥에 말이요, 안흥이 항입니다. 안흥 항. 안흥 항이라고 나오는디, 그 선주 이름을 내가 잘 못 들었어. 작년 그러께 말여, 작년 그러께 그이(게) 잡이를 나가 가지구, 그물을 놨다가서리 걷으니께드루, 유골이 걸려 올라 왔드래요. 사람 유골이. 유골이 걸려 올라 왔는디, 선주가, 그 선원들은 그 뭐 그물에 걸렸으니께, 이렇게 뭣허면, 자칫하면 멸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께드루, 선주가 보구서,

"아, 그게 사람 유골 같어. 허니께, 잘 좀 챙겨서 실으라구."

그래서, 신구 보니께, 사람 유골일러래요. 유골이 올라 왔는데, 신구 들어 오너서, 태안 시장에 가설으니 마포 바꾸고 잘 해다가 산에다 묻었다는구먼요. 묻어줬는디, 그런디, 남잔지 여잔지를 몰라서 남녀 구별을 못해 가지구서 구별을 못했다구 합디다. 그래 가지구서 묻었는디, 그 뒤로다가시리 선주가 꿈을 꾸니께,

"난 반드시 남자라구 말여. 남잔디 30대 청년이라구 말여. 30대 청년인디 장가두 안들고 이렇게 배루다가 선척을 타다가시리 물에서 죽었노라고 말여. 바다에 멸어져서 죽었는디, 그럭해서 과기 밥이 되 가지구서 이렇게 죽어서 뭣했더니, 아주 참 어질고 착한 분을 만나서, 내 육지, 땅에 오너서 묻혔어. 그러니께, 내 그 은공을 할 테니 그리 알라."

구 그렇게 꿈에 선몽(현몽)을 하더라는구만 그래요.

깨보니까 꿈인디, 그 뒤로부텀은, 작년에도 안흥항에 일등하고, 올해도 안흥항에 일등했대요. 그이(게)잡이에서. 그 사람이. 그저 넘과 같이 가서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이가 안 걸려도 그 사람은 그이가 잘 걸렸다고 그럽디다. 꽃그이(꽃게)잡이 하는 데인디.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23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주 소 : 위와 같은.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파도리 2구 이장의 안내로 구연자의 집을 찾아가서 만났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전설 몇 편을 구연한 다음 민담도 구연했다.
청 중 : 구연자의 부인과 중학교 2학년인 구연자의 손녀가 옆에 앉아 조개를 까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구연자는 이 이야기를 엊그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들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에 들은 민담을 보다 재미 있게 하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구연 경력 : 구연한 적이 없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19. 도깨비 덕으로 부자된 심씨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 줄거리**

그전에 심씨 성을 가진 사람이 태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도깨비들이 찾아와 먹을 것을 해 달라고 했다. 심씨는 도깨비가 준 돈으로 개를 사서 잡고, 범벅 스물 한 덩어리를 만들어 주었다.

도깨비들은 자기들이 계를 한다고 하면서 심씨 보고 계돈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날마다 돈을 가져다 주었다. 심씨는 그 돈으로 땅을 샀다.

얼마 후, 도깨비들은 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모두 땅을 사서 없다고 하자, 땅을 떠 가겠다고 야단 법석을 떨더니 그대로 가버렸다. 그 후, 심씨는 부자로 잘 살았다.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도깨비가 장난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는디, 지금도 도깨비가 있어요. 있기는. 없는게 아니요. 있는데, 천도깨비라구 천상에서 뭣한 도깨비라구 합디다. 그런 도깨비가 있는데, 여기서도 도깨비, 우리가 구경은 못 했지만 어른들 말씀 듣기를 여기 태안에서 사는 심씨가 하나 있는데,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됐대요.

도깨비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어떻게 된고 하니, 도깨비가 밤에 와서 불러내는데, 셋이가, 나가 보니껜드루, 도깨비인지 사람인지 아나요. 불러내니까 나갔지. 나가서래미 보니

까, 이렇게 뿔난 것을 쓰구 사람 형체는 아니구, 이렇게 생겼는디,

"느이들이 무엇이건대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께,

"우리는 천상 도깨비다. 그런데, 우리가 조화가 아주 무궁무진 해여. 조화가 무궁무진한 것이, 큰 그릇을 갖다가 작은 그릇에다 오그려 넣는 수도 있고, 참 재주가 무궁하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 온 것은 시장해서 찾아 왔어. 시장해서 찾아 왔으니껜드루 우리 요기를 좀 시켜다구."

"그러면, 네 먹는 것은 뭐이 건데, 요기를 시켜달라구 하느냐?"

"느이 살림이 구차하여. 살림이 구차하니께, 우리가 먹는 것을 장만 해 달라고 줄 테니께 드루 해 줄 테냐?"

"아, 돈 주면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안 해주겠느냐?"

그러니께, 참 돈을 많이 주면설으니 말여,

"야, 개 한마리만 잡구."

도깨비는 다른 것은 싫구 범벅을 해 달라구 헌다구 합디다. 범벅을 해 달라구.

"범벅 스물 한덩이만 해 다구. 3×7은 21. 스물 한덩이만 해 다구."

돈을 주니께드루,

"개 한마리 사고, 내일 저녁 올 테니께 해 놔라."

돈을 주고 가더랍니다.

주고 가니께드루, 개 한마리 그 이튿날 날 샌뒤 사고, 범벅거리를 장만해서, 범벅해설랑으니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담구, 이렇게 해서. 오기를 기달리니 왔더래요. 오너서라니 찾으니께, 나가니께,

"아, 우리 먹을 걸 좀 해 놨느냐?"

구.

"해 놨다."

구. 주니께 참 잘 먹구설랑으니,

"잘 먹었다. 감사하다."

구 그러거든요.

그 도깨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계를 한다. 계를 하는디, 곗돈이 많어. 곗돈이 많은디, 그 돈을 다 어떻게 취급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께, 네가 좀 가지구서 취급 좀 해 다구."

"그러면, 맡겨라."

아, 구차하게 살던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 가지구, 그러니께,

"돈을 가져 오너라."

하니께루, 아, 저녁마다 돈을 가져 온다 말여. 월마씩 인저, 몇 백 냥, 몇 천 냥씩 가져온다

말여. 가져오면 그 분은 그놈으로 어떻게 한고하니, 땅을 샀다고 합디다. 땅을 사는데, 갖다 주는대로 땅을 샀대요.

땅을 사 놓구서 인제 부자가 됐는데, 부자가 되니께,

'아이, 저 놈들이 야중엔 암만해도 해칠 건데, 해코자 할 때에는, 전설을 듣는다 허더라두 도깨비는 야중에 망할 적에 저 놈들이라 망한다구 하더라. 도깨비 살림살이라구, 저 놈들이 망한다구 하더라. 저 놈들이 해칠 것 같으니께, 나는 땅밖엔 살 것 없다. 다른 물건은 소용 없다.'

해가지구, 논, 밭 땅만 샀더래요.

그래가지구서, 야중에 메갈라구, 팔세를 하니께드루,

"너, 내 돈 갖다가 뭣 했니? 그 돈을 다 뭣했니? 너 보구 정리하고, 네가 맡았다 달라구 했는디, 돈을 뭣 했니?"

"내가 뭐 했니? 맨 주먹이다. 내가 네 돈 갖다 한 것이 뭐 있니? 느이라 도루 다 가져갔지 뭐 했니?"

그러니, 땅을 사 놨으니께, 정— 뭐허니껜 드루,

"내가 산 것이란 땅밖에 없다. 땅밖에 산 것이 없는디, 저 땅덩어리 가져 갈라면 가져가거라."

그러니께, 아 이놈들이 댕이며 심술을 놓더랍니다. 땅에다 곡식 갈면(심으면), 그거 다 뽑아 놓고, 투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 몇 해를 해두 땅은 땅대루 있지 뭣혀.

"아, 이렇게 해선 소용 없다구 말여. 그 놈의 땅에다가 말뚝을 박구 설래미 땅을 떠 가자. 우리가 다."

아, 이래 가지구서 땅에다 말뚝 박구설래미 땅 떠 간다구 들구 대니면서 말뚝 치구 야단해서 땅을, 도깨비가 재주 좋다구 해도 땅을 워디로 움직여서 가지구 가겠읍니까? 그래 가지구서, 그 분이 야중에, 그래 가지구선,

"아, 이거 한국에 와서는 전리를 못해여. 그러니께, 우리 중국으로 갈 테니까 그리 알라."

구 중국으로 건너 달렸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 되어 잘 살고.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야기는 채록자가 도깨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여 구연한 것임.
처음 듣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구연 경력 : 한 적 없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20. 저승에 갔다 온 사람

T 소원면 파도리 ①—B면

*** 줄거리**

전에 한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최판관이 수명부(壽命簿)와 대조해 보더니,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니 다시 나가라고 했다. 다시 이승으로 돌아 올 때, 저튭댕이로 된 다리를 건너다가 강물로 풍덩 빠지면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그 사람이 깨어 보니 장사지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몇 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

저승에 갔다 온 양반이 여기두 있었시유. 한 양반이 여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죽었다고 다 감포해서 장례 모실라고 해 놨는디, 저승에를 가보니께드루, 저승에 가는데 아주 험한 길로 가더래요. 십이대왕이라고 하거든요. 열 두대왕이라고. 저승에를 갈라면 열 두가운데서 문초를 받는다고.

"인간이 태어나가서 인간의 사회에서 살면서, 이승에서 살면서 네 적덕한 것을 말해라. 공이 많어, 공로가 많은 것 같으면은, 뭣허니께, 공로를 얘기해라. 좋은 데루 뭐 해설라므니, 죽은 고혼이라두 혼신이 편안한 데 가 있게 해 줄 테니 네 소원대로 말해라."

십이대왕을 들어 가면서 문초를 한대요. 문초를 할 적에,

"깊은 물에다 다리 놓구서 월천공덕을 했느냐? 배고픈 사람 밥을 주어서 시장공덕을 했느냐? 목마른 사람 물을 한 그릇 떠 줘서 급수공덕을 했느냐?"

이런 공덕을 다 묻더래요.

공덕을 다 물으면설랑이 들어가니께드루, 죄인들, 최판관이라는, 그 문서 잡구 있는 양반이 문서를 떠들어 보더니,

"이 사람은 안 올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 이승에서 연태(지금까지) 살 사람을 왜 저승으루 데려 왔느냐? 이 사람은 도루 회복해서 내보내야 한다. 나가서 더 살다가 부르거들랑 오너라. 염라대왕께서 부르걸랑 오너라."

이래설랑이 나오는디, 아주 갈 적에는 그런 다리를 안 건너 갔는디, 그 넓은 강에다시리 삼베 낳는 저튭댕이, 저튭댕이를 갖다가 하나씩 이어서 다리를 놔주면서 건너라구 허더랍니다.

"이 다리를 타구설랑으니 건너가야 한다."

밟으면, 풍덩 빠지면 죽을 텐디, 그걸 놓구서 건너 가라구 그러드래요.

그래서, 데리구 갔던 사자들이, 사자가 데리구 나오너서 이 다리를 건너 가라는디, 그 다리를 안 부러지게 건널라고,

'워칙하면 이걸 건너갈까?'

어쩌고 하다 한가운데쯤 오다가 다리가 뚝 부러져서 풍덩 빠졌거든. 풍덩 빠질 적에 깜짝 놀라서 깼다 이말이여.

깰 적에 여기서 구경한 분들이 우덜로서는 할아버지 연세되는 분인디, 그 분이 그렇게 저승엘 갔다 왔다고 그러는디, 풍덩 빠지면서 깜짝 놀랄 적에 깨났다구 그러거든.

깨나니께, 여기서는 묶어서, 감포해 가지구서 관에다가 넣어서 장례 모실라고 뭣허는디, 널이 뽀개지면서 매갱이(여러 매로 묶은 것이) 막 터져서 살아났대요. 살아나서, 살다가 돌아가신 양반이 있어요.

채록자 : 그 분 연세는 어떻게 되셨었나요?

구연자 : 에— 내게 할아버지 정도 됐지유.

채록자 : 그 분을 보셨어요?

구연자 : 그 분을 봤지유. 손에 자욱이 있었어요.

채록자 : 그 후로 얼마나 더 살았나요?

구연자 : 그 후로 아마 한 20년 더 살았지요.

채록자 : 그 분 성씨는 무엇이었나요? 그 분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구연자 : 성씨는 정(鄭)씨요. 그 얘기는 그 어른이 생존해 계실 때, 그 양반이 목수일을 했었지요. 우리가 쪼끄말 때 집짓는 데 구경을 가면 대패질 허구, 끌꾸멍을 파구 하면서 "나는 이놈들아, 저승에까지 갔다가 나오너서 몇 해를 더 살았다." 허구 했지요. 그 분의 손자가 이 동네에 사는데, 지금 67,8세쯤 되었을 겁니다.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5시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이 이야기는 저승에 갔다 온 정씨의 체험담을 정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나 민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민담으로 정리한 것이다.

121.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 줄거리**

예전에 한 총각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산 밑에 가 보니, 새끼 두마리를 데리고 있는 쪽제비와 구렁이가 싸우고 있었다. 한참 싸우더니 구렁이는 쪽제비 새끼를 물어 죽이고는 어디로 가 버렸다. 쪽제비는 조그만 자(尺)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죽은 새끼를 재고, 또 재니까 살아났다. 총각이 소리를 지르니, 쪽제비는 자를 놔 둔 채 도망갔다.

총각이 그 자를 주머니에 넣고 어디를 가다 보니까, 공주가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이를 고쳐 주는 사람은 사위를 삼겠다는 방이 붙어 있었다. 총각은 그 자로 공주의 병을 고쳐 주고 공주와 결혼하

였다.

얼마 후, 이웃나라의 공주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 왕은 사위에게 가서 고쳐 주라고 했다. 그 사람은 다시 이웃나라 공주의 병을 고친 다음, 그 공주와도 결혼하였다.

그 사람은 두 공주와 함께 잘 살았다.

이전에 조실부모하구 암것도 없이 쬐그만 것이, 아마 거처없이 나갔던게벼. 나가서 머슴을 살았던 겨. 쪼그만 게. 심부름 해 주고 밥이라두 얻어 먹었지.

아, 그러는데 하루는, 근 20살이나 먹었던가, 꿈을 꾸니께, 한짝 다리는 서울 압록강에다 넣구 혼들구, 한짝 다리는 미국강에다 넣고 혼들더래요. 다리를 찢쳐(씻어) 뵈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께, 이상스럽드래요. 꿈이 참 이상스럽드래요. 왜 찢치면 한 강에다 넣고 두다리를 씻지, 양쪽에다 찢칠 필요가 없드래요.

'에이, 나가서 팔도강산을 좀 돌아다녀 볼 거라."

구 나갔대요. 거처없이.

나가니께, 어디만치 가니께, 산밑에 따땃한 데 가니께, 쪽제비란 놈이 새끼를 낳고, 큰 구렁이하구 싸움이 났더래요. 싸움을 막 하더니 그 새끼를 두 개를 다 죽이드래요. 구렝이가 물어서. 죽이구서, 구렝이는 실실 내빼구. 쪽제비는 워디로 가 버리드래요. 새끼 죽은 거 놓고 가더니, 워디 가 요만한[엄지와 검지를 펴보이며] 자막대기 하나 갖고 오더니, 물구 오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니께, 아래로 재고 위로 재고, 거 새끼 죽은 거에다 대고 자꾸 재더래요. 자꾸 재니께 툭툭 털고 일어나드래요. 두 개가. 이제 그 사람이 '왁'하니께 쪽제비란 놈 서이가 내빼드래요. 그 자때기, 자는 거기다 놓고. 그래서, 자는 줏어서 넣었지. 호랑(호주머니)에다.

줏어서 넣고 어디만치 가니께,

"아이구, 나랏님 딸이, 어린애가 시방 구렁이가 물어서 죽게 생겼다."

구, 독쟁이(항아리)만치 부어 가지고 금방 죽는다고 난리가 났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안에 가 보니께,

"죽었다고, 우리 딸 살려내는 사람은 아주 비렁거지라도 사위를 삼겠다."

고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드래요.

그래서, 가서, 그 때는 사람이 여간해서 여자하구 남자하구 보기는 했어요? 이전에는 그러니께, 참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사람하고만 들어가서 보니께, 독쟁이(항아리)만치 부어 가지고 죽었거든. 나랏님 딸이니께 인물병풍 둘러치구, 사람하나도 피지 않게 이렇게 해 놨는디, 들어가서는 그 놈으로 아래로 재고 위로 재니께, 쪽제비 하던대로 하느라고. 그러니께, 숨을 내쉬며 '휴우' 쉬더니 살아나더래요. 살아나 가꾸, 거시기가 홀짝 빠지면서 살아나서 살았시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시유. 나랏님이 막 사위를 삼았어요.

사위를 삼아가꾸 얼마 사는디, 아 또 미국 천자 딸이 죽는다구 야단났더래요. 그러니께, 그와 같이 그렇다구, 그러니께, 그 소리 들어갔던가, 또 실으러 왔더래유. 그래 갔는디, 가보니께 죽었어. 그럭해서 그 사람마냥 또, 가서 이렇게 아래로 재고 위로 재고 하니께, 또 살아났잖여. 그러니께, 미국 나랏님이 사위로 삼겠다 하니께,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또 여자가 있으니께, 나는 못하겠다."

구 이렇게 말허니께,

"조금치두 뒤가 없을 테니께, 걱정 말라구. 나를,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줬으니께 어떡하겄느냐?"

구 사정을 하거든. 그래서, 도루 데리구 왔어. 생전 변치 않구, 하나는, 미국서 난 마누라는 요쪽 다리 씻구, 조선서 얻은 마누라는 다른 쪽을 씻구 항상 이렇게 해서 생전 호강을 허구 잘 살다 죽었드래요. 하하하. 그랬다구 싸유. 다 그짓말이지 뭐.

채록 일시 : 1987. 1. 6. 낮 12시 15분경
구 연 자 : 박 봉신(여, 6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신야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채록 장소 : 같은 마을 김 두영씨 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고남면 부면장 김 휘씨의 안내로 김 두영씨 댁을 찾아가니, 동네 아주머니 5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건설 두 편과 민담 3편을 채록했다.
청 중 : 마을 아주머니 5명, 김 휘 부면장, 김태곤 교수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머러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22. 떡보 사신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 줄거리**

이웃나라의 왕이 와서 손짓으로 대화를 하자고 했다. 왕이 이를 맞이할 사신을 널리 구하자, 무식한 떡보가 나섰다.

강 건너에 선 이웃나라의 왕이 삼강(三綱)을 아느냐는 뜻으로 손가락 셋을 펴 보이자, 떡보는 먹 먹는 손을 번쩍 들어 펴 보였다. 이웃나라의 왕은 삼강은 물론 오륜(五倫)까지 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감탄하며 돌아갔다.

조선 천자가 하두 딱해서, 어떻게 내기 다 할 길이 없어서,

"그걸 내기 다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께, 암 것두 모르고 떡만 한자리 앉아서, 오로지 서 말 먹는 놈, 그놈을 데려갔어. 지가 한다구 해서 데려 가니께, 이놈이 며칠 말미를 줘 가꾸, 천자는 저쪽 대동강이라나 압록강이라나 건너서, 서로가 맞 건너서, 미국 천자가 손을 들으면서, 셋을 들으면서,

"삼강을 아느냐?"

조선사람 보고 그러니께, 그놈이 뭘 알아야지. 다섯 손가락 떡먹는 손 번쩍들었어. 아, 그러니께 삼강을랑사리(삼강은커녕) 오강을 알거든. 그러니께, 미국 천자가 놀라서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조선이 이겨 가꾸 평생에 잘 지냈드래유.

채록 일시 : 1987. 1. 6. 낮 12시 20분경
구 연 자 : 박 봉신(여, 6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신야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3. 강도를 감동시켜 부자 된 사람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 줄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아버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니, 먹이던 소를 끌러 주었다.

그가 소를 팔아 가지고 오는데, 강도가 나타나 소 판 돈을 내어 놓으라고 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반만 가져 가라고 하고, 강도는 모두 다 내어 놓으라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때, 경찰관이 나타나 무슨 일이냐고 했다. 그 사람은 강도를 가리키며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람에게서 돈을 꾸어 쓴 일이 있는데, 오늘 반만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 제사 지낸 뒤에 갚겠다고 하니, 지금 다 달라고 하여 실랑이가 벌어졌읍니다."

하고 대답했다. 경찰관은 둘이 잘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고는 가 버렸다.

경찰관이 가자, 강도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잘못을 사과하고는 그 사람 보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전후 이야기를 다 들은 강도의 할아버지는 삼대 독신인 손자를 구해 주어 고맙다고 치하한 다음, 그가 제사를 잘 지내도록 주선해 주었다.

노인은 그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었다. 그 사람은 그 재산의 반을 소를 준 아버지 친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옛날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디유, 얼마나 가난하던가, 똥구멍 찢어지더락, 심줄이 결려서 못 찢어졌어요. 그렇게 살았는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친구를 다정하게 지냈던가, 주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시요. 돌아가셨는데, 옛날에야 3년 제사 지냈지 않았시유. 시방이니께, 우리 금방 탈상내가구 그랬지. 아, 3년 제사 지내는디, 친구가 오시면 술 한잔 대접할 게 있어야지요. 두 내외가 큰 걱정이요.

"워칙하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오시면 무얼로 대접을 해서 보내느냐?"

그게 아주 큰 걱정이여. 아버지 제사도 그렇구. 그러니께, 자기 마누라가 하는 말이,

"그럴 게 아니라, 친구도 다 친구가 아니라, 더 다정한 친구가 있으니께, 가서 거기 가 사정얘기를 하면, 혹시나 우리 아버지 제사지내라고 봐 줄 수가 있다."

구.

가만히 생각하니께, 그 중 가난한 어른이 더 다정한 친구더래요. 그래서, 그리루 갔어.

"아, 자네가 워치게 이렇게 왔나?"

"예, 내가 이만 저만해서, 우리 아버지 기일이 며칟날 아니겠시요. 그런디 뭘로 제사 지낼 게 없어서, 이렇게 왔다."

구 그러니께, 그 할아버지가 눈을 꿈벅 꿈벅하더니, 남의 도지소(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기르는 남의 소) 한 마리 먹이는 걸 끌러 주더래요. 끌러 잡아주면서,

"이 놈 갖다 팔아서 제사 지내구 와서 갚으소."

"안 된다구. 남의 도지소 멕이는 걸 갖다가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면 쓰겠느냐."

구 아주 사양을 하여. 싫다구. 아, 그러니께, 부득 부득 잡아주면서,

"갖구 가서 제사 지내라."

구더랴.

그래서, 장에 이렇게 갖다 올라면, 이렇게 산모퉁이 도는디, 그걸 팔아 갖고 오는데 저물더래요. 으실 으실 밤인디, 오는데 어떤 놈이 산에서 버석 버석 내려오더니, 육혈포를 하나 딱 대더랴. 가슴에다 대더니,

"돈을 달라."

구. 이전에는 백냥을 받았대야. 소 한 마리를. 그래 가꾸서 오는디, 돈을 내라구더래요.

"돈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께,

"금방 소 팔아서, 내가 넣는 걸 봤는데 왜 돈이 없느냐?"

구 그러니께,

"그런게 아니라, 나 사실 이만 저만 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 친구게다 그 소리를 하니께,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구 갚으라구 남의 도지소를 주더라. 쉰 냥은 내가 갖구, 쉰 냥은 당신 주께 갖으라."

구 그러니께, 이놈이 부진 부진 다 달라고 그러드래요.

"안된다. 그건 안된다."

고 그러니께, 서로가 옥신 각신 싸움하는 겨.

그러자마자 형사가 툭 튀어나오더니,

"왜들 이려?"

그러니께, 돈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백냥을 이 사람에게 빚을 지고 돌아가셨는디, 이 돈을 시방 념의 도지소…… 제사 지낼라고 한다."

고 그러군 다 얘기 하면서,

"도지소 한 마리를, 념의 도지소를 먹이는 거 갖다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라고 줘서, 시방 팔아가구 오는디, 그 돈을 달라구 해서 이런다. 그래서, 쉰 냥일랑 제사지내구 받구, 쉰 냥일랑 뒀다 받으라니께 다 달라구 한다."

구 그렇게 얘기 했거든. 그러구선, 그런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뭘 쉰 냥을 받구서 쉰 냥은 지내구 받지 뭘 그러냐? 좋도록 하고 오라."

고 후딱 가더래요.

형사가 가니께, 그 사람이 손목을 탁 잡으면서,

"당신이 말 한마디 잘못 했으면 난 죽었어. 당신이 말 한마디 잘 했기 때문에 난 살았으니께, 이거 한쪽으로 치워 놓고 우리집으로 가자."

구. 가자구 하는데도 멀더름 허더래요. 도둑놈이, 육혈포 갖고 대들던 놈이 가자구하니께. 그래서, 따라갔더래요. 가서 보니께, 달은 우수달밤이구, 아마 한 보름께가 넘었기 때문에 오래도록 멨지. 허옇게 멨는디,

"저게 우리집이라."

구 그러드래요. 논틀에 큰 기와집인디.

갔더니, 즈이 할아버지 보고 가서 했던가, 하얀 할아버지까정 나오더니, 절을 참 기가 막히게 하면서,

"당신이 말을 잘못 했으면 우리 손주는 죽었어. 그런디, 당신이 말 한 마디 잘 했기 때문에 손주가 살았으니께,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느냐구 말여."

그 하얀 노인네도 나와서 절을 하구 기막히게 하거든. 그런디, 제사가 며칠 남았는디, 제사 지내러 가야는데, 영 못가게 하더라.

"하냥(함께) 가라. 우리 손주하고 하냥 가라."

구.

내일 같으면 제사 지내게 생겼는데, 아침 일찌감치 해 주면서,

"먹구 가라."

구 그러드래요.

"우리 손주하고 가서 제사 지내구 돌아 오라."

구. 아, 가보니께, 오두막집 가는 재빼기(고개) 넘어 가니께, 막 떠 쫓는 놈, 막사람이 벅실 벅실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천석군이 마냥 차렸더래요. 그 노인이 먼저 보내서. 하인들 시켜서. 그럭해서는 참 잘 제사를 지내구나서 아버지 친구네들, 오신 손님들 대접 잘 허구서 제사를 지내구서 갔어. 손주를 따라서 갔지.

가니께, 논문서를 탁 놓더니,

"이게 몇대 손주인디 외독신이다. 당신이 말을 잘못 했으면 죽었을 텐디, 당신이 말 한 마디에 우리 손주가 살았어. 돈이 억만금 있으면, 우리 손주가 죽었으면 무엇을 허느냐? 그러니께, 우리 논문서를 반을 딱 떼어 줄 테니 갖다 너 지어 먹어라."

그래서, 논문서를 갖구 왔네. 와서는 인제 그 갖구 가서 소 준 집으로 갔어. 가서,

"이게 내 복이 아녀. 이게 우리 아버지 친구 어른이 줘서, 우리 아버지 제사도 기막히게 잘 지내고, 이만한 논문서도 차지했으니께 지어 잡수시오."

주었겨든.

"그게 아니다."

서로가 싸움 났어. 옥신 각신 서로 안 갖는다구. 네가 가져라, 네가 가져라 내가 가져라 하다가, 그냥 서로 반을 갈라 갖고 잘 살다가 엊그제 돌아 가셨슈.

채록 일시 : 1987. 1. 6. 낮 12시 25분경
구 연 자 : 박 봉신(여, 6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신야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4. 돌로 만든 말과 모래줄

T 고남면 고남리 ①—B면

*** 줄거리**

예전에, 이웃나라로부터 돌로 50자 되는 말을 만들어서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임금이 근심에 싸여,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임금이 한 곳에 이르니, 한 노인이 소를 몰면서, 소에게 '나랏님보다도 더 미련한 소'라고 하였다.

임금은 그 사람을 따라가 하룻밤 지워 줄 것을 청했다. 이야기 중에 그 사람은 이웃집 터는 자기가 잡아 준 집터인데, 조 천석을 할 자리이고, 자기 집은 임금님이 오실 터라고 했다.

임금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나라의 근심을 털어 놓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이웃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돌로 말은 만들어 놓았으니 모래줄 쉰 자를 꼬아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끈으로 말고삐를 하여 보내드리겠읍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그 사람의 말대로 하니, 이웃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전에 나라가 걱정이 당았더래요. 무슨 걱정인고 하면 쉬흔 자 되는 돌에다가 말을 쉬흔 자로 만들어서 대국 천자 사신을 들여 보내라 했어요. 그러니, 워터케 할 수가 있어야지 그걸. 무슨 장사로. 그래서, 걱정이 되서 나라가, 이장 저장 그걸 고민하며 돌아다니는겨, 나랏님이.

돌아다니니께, 어느 장에 가니께, 해가 다 가는디, 나무토막을 하나 소에게다 실려 가꾸 끌구 가면서, 채찍을 냅다 하면서,

"이놈의 소, 미련하기는 우리 나랏님보다 더 미련해. 이놈의 소가 진작에 갔으면, 빨리 빨리 갔으면, 팔지. 그걸 못 팔고 온다."

구 그러구, 채찍질을 하구 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놓칠라구 막 허둥지둥 따라가는 거여. 가서 쬐그만 어떤 산줄기로 가더니 오두막집에다 갖다 소를 매어 놓더래요. 외양간에다. 따라 들어갔어요.

"주인 양반."

하니께,

"누구시냐고, 들어오시라구."

"아 지나가다가 날씨가 저물어서 하루저녁 유해가자고 들어왔다구."

"그러시냐구, 들어오시라구."

방이라고 쬐그만 오두막집이니께 요렇게 앉아서, 야중에 쪼그만 애를 부르더니,

"얘, 이 아래 아무개네 가서 손님 오셨다고 좁쌀 한 되만 꿔 달라구 해라."

그러니께, 갔다오더니 개가 하는 소리가,

"안 꿔 주던 걸유."

그러니께,

"에이, 천하에 고얀 놈. 내가 집 터 닦을 때 좁쌀 백 섬을 종자를 들일 데를 내가 터를 잡아 줬는데, 그게 뭐 좁쌀 한 되가 뭐라고 그걸 안 꿔 주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러거든. 나랏님 앉아 듣으니께. 그래서, 한참을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워째 이렇게 남의 터는 좁쌀을 백 섬을 들일 데를 잡아줬는디, 워째 당신은 간구하게 이렇게 살게 했느냐?"

구 그러니께, 하는 말이 뭐라고 허는고 허니,

"좁쌀만 그거 백 석뿐이지. 우리집 터만 못하다."

"워째 그러냐?"

"좁쌀만 백석뿐이지 저는 이렇게 간구하고 개갈 안나는 집이라도 나랏님이 거동할 자리다."

그러더래요. 아, 영락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께, 나랏님이 거동할 자리라는데 자기가 벌써 앉았지 않유. 참 기막히게 명인이여. 그래서, 인저, 그러냐구 슬쩍 자구는 일찌감치 갔어요.

집에다 아무소리두 않고. 참, 간 게 아니라 그런 소릴 하니께,

"나라가 큰 걱정이다."

"무슨 걱정이요?"

그 사실 얘기를 허니께,

"그럭허지 말구 어떤 사람보구 심부름을 하나 보내라구. 천자게로. 대국 천자께로."

"무슨 심부름이나?"

그러니께,

"가서, 미국 천자보구 하는 말이 모래줄 쉰 자를 꽈서 조선 천자에게루 바치면, 그 말은 해 놨으니께 보낼 것이다. 그러면 될 거라."

구 그러더랴.

그러니까, 모래줄 쉰 자를 이떻게 꼬냐 말요. 그래서, 겼대유. 그러구 말았대요. 다 거짓말이유.

채록 일시 : 1987. 1. 6. 낮 12시 40분경
구 연 자 : 박 봉신(여, 6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신야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5. 은가위

T 서산읍 잠흥리 ①—A면

*** 줄거리**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아들 둘을 장가도 못 들이고 죽었다. 작은 아들이 어머니를 좋은 곳에 묻는다고 지게에다 지고 어느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색시 혼자 사는 오두막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

다음 날, 그 여자에게 사정 얘기를 하니, 그 여자는 좋은 묘자리라고 하면서, 어떤 연못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집어 넣으라고 하였다. 그는 그대로 하고 그 여자가 주는 은가위와 편지를 가지고 어떤 집을 찾아갔다. 그것은 그 집 딸의 무덤에 묻은 것이었다. 그 처녀는 몇 년 전에 죽어 무덤에 묻힌 여자였다. 그 후 그 처녀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와 결혼을 했다.

어머니를 묻고 싶어 하던 그는 부인이 일러 준 대로 하여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묻고, 돌아 와서 형님을 만나 잘 살았다.

예전에 워떤 할머니가 아들 둘을 과년이 닳도록 장가를 못 들었대유. 그런디 참, 그 오머니가 아들덜 성제(형제) 장가를 못 들이구 죽었더래유. 죽으니께 인저 작은 아들은 들구 울어쌌는디, 큰 아들이 인저 모이(묘)자리 좀 아주 좋은디다 써 보자구 상의하니께, 작은 아들은 덮어 놓고 짊어지더래유 지게에다. 짊어지면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주 좋은 데다 묻구 올께 성(형)일랑 걱정허지 말어."

그러면서 그늠을 짊어지구서 워디 만큼 가다가 어느 산길을 가다가 날은 인저 저물구 처막

한 데가 닿았는디, 올 데 갈 데는 없구 참, 정신이 막막허더라느먼 그류.

그래 받쳐 놓구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께, 참 고요한, 참, 새 우는 소리만 들려오는디, 고 아래 어디서 불이 반짝반짝 허더라드먼 그류. 그래 엄마를 짊어지구서 인저 네려가 보니, 쪼그마한 오두막집인디, 바깥에다 받쳐 놓구서,

"전 양반 전 양반!"

하구 찾으니께, 안에서 웬 새악씨 하나가 문을 열면서,

"여기는 봄에, 이 삼월에 꽃이 피어두 제비, 나비두 뭇 오는 그러헌 멘디 웬 사람이 와서 찾느냐? 사람이걸랑 들어오고 짐승이거든 썩 물러나라."

한 발자국을 디디밀면서,

"나 사람이라구."

"그러면 들어오시유."

그래 참 들어가서 보니께, 참 정묘한 방에서 책상을 하나 놓구서 책을 훌훌 넘기구 앉았더래유. 그 새악씨가 책장을 넘기다가 한번 흘낏 돌려다보며,

"바깥에 받쳐 놓은 건 뭐요?"

그거 보지두 안했는디,

"그게 아니구, 우리 오머니가 돌아가셨는디 모이 자리나 좋은 데다 써 보겠느니라구 이렇게 짊어지구 나왔읍니다."

"그러면 저녁은 자셨소?"

"안 먹었읍니다."

대추 시(세) 개, 밤 시 개를 주며 그걸 저녁이라구 먹으라구 허더래유. 그늠을 인저 먹구서 멍하니 인저 앉었으니께,

"내 말 당신 들을라오?"

"듣겄소."

"내 말만 들으면 당신 오머니 좋은 디다 갖다가 모이 쓸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구."

"그래 워트거란 말이유?"

"그러면은 늬열(내일) 식전일랑 번허걸랑, 번허게 동 트걸랑 오머니를 짊어지구서 이 아래루 내려가면, 펀한 신작로루 줄곧 가면은 큰 둠벙(연못)이, 시퍼런 둠벙이 있을 테니 오메를 갖다가 거기다가 텀벙 놓구서, 뒤에서 떠꺼머리 총각이 냅다 부를 테니까 뒤를 돌려다두 보지 말구 오라구요. 만약 돌려다 보면은 당신이 죽어."

아 참, 날이 번한디 어머니를 짊어지구서 그렇게 갔더래유. 가서 받쳐 놓구 거기 가 생각을 해 봐두 죽은 오메를 참, 둠벙에 넣을 생각을 허니께, 참 기막히더라느먼 그류. 그러나 허라구 했으니께, 허라는 대루 해 본다구 냅다 요메를 게다 넣으니께, 소리가 요란하면서 떠꺼머리 총각이 냅다 나타나면서, 이게 웬 사람이냐구 소리를 벽력같이 질르더래유. 돌려다두 안 보구서 그 집을 또 동달어서 왔넌디, 새악씨네 집에를 오니께 그게 아침이라구

또 밤 시 개, 대추 시 개를 주더라느먼 그류.

"이걸 먹구서 당신 나 허라는 대루 또 헤야 되여."

편지를 하나 써서 호랑(호주머니)에다 넣어 주고 은가쇠(은가위)를 종이루 싸구 또 싸서 짊어져 주구서, 은가쇠를 그렇게 싸서 짊어져 주더래유.

"아, 그늠을 짊어지구서 이 아래 큰 동네 내려가면은 응, 김 박사네가 있을 테니 김박사네만 찾아가거라. 김 박사네만 찾아가서 은가쇠 사라구 하면은 은가쇠를 보면은 그 집에서 당신을 죽일라구 헐 꺼여. 죽일라구 헐 적에는 이 편지를 내 뵈시오."

하더래유. 그래 내려가서 김 박사네를 찾으니께, 웬 총각 하나가 썩 나서더니 웬 은가쇠 장사가 이렇게 왔느냐구 그러니께, 은가쇠 좀 사시라구.

"그러면, 그 말레(마루) 좀 앉으라구. 앉어서 그 물건 좀 보자구."

그래 인저 뵈니께, 그 총각이 참 보니께, 자기 누나 가쇠거든. 죽은 누나의 모이 갖다 묻은 것을 그 사람이 파 가꾸 다니는 것으루 생각을 허구서 그늠을 갖고 들어가서,

"오머니 오머니, 이게 우리 누나 가쇨세."

"워떤 놈이 느이 누나 가쇠를, 묻는 것도 뭇 본 놈의 가쇠를 갖고 나왔건늬? 그런 소리 마라. 인제 마음 가라 앉을 만하니께 너 왜 그런 소릴 허니?"

"아이 글쎄 가쇠 좀 보슈."

아, 가쇠를 보니께 참 딸의 가쇠여. 아번니(아버지)가 마실(마을) 갔다 들어오넌디,

"아버지 아버지, 이게 우리 누나의 가쇠유."

"예이 이눔 자식아, 그런 소리 허지 말어라. 인제 마음 가라앉을라구 허넌디 속이 아프다."

"아이, 글쎄 보시유."

보니께 딸의 가쇠여.

"아하 이눔을 죽여야지 가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눔이 모이 파 가지구 다니며 팔아먹는 놈이라구. 야, 이거 잘 차려라. 한 상 먹이구 죽여야겠다."

아, 그래설랑 잘 차리구, 바깥에서 은가쇠 장사는,

"아, 이거 살 테면 값을 주든지 은가쇠를 주던지 해야지. 워치거는 게 이래유."

그러니께,

"아이, 좀 들어앉으라구, 사랑으로."

그래 들어앉았더래야. 들앉으니께 참 한 상을 잘 차려서 주더라더먼 그류. 그래 먹구 앉았다가 나가니께, 참 자기 죽일 차비를 다 차려 놓았더라느먼 그류. 그래 그 편지를 내 뵈었다느먼 그류. 보니께, 자기 동상이 그 편지를 받아서 보니께,

'이 사람은 천생에 자기 은인이니께, 나는 살아 나가서 이 사람하구 한 번 살아 볼 테니까 내 제삿날 이 사람을 도포를 해 지어 입히구 오너서 축을 읽히라."

구 했더라너먼 그류.

아이, 그럭저럭 잘 대접허구 지삿날이 돌아왔넌디, 인제 지삿날 축을 잘 지어서, 묘에가서 잘 차려놓구 지사를 지내는디 축을 읽게 시켰드래유. 그러니께 하늘에서 구름이 폭 와서, 묘에 와서 씨더니 모이가 쳑 갈라지더니 자구 일어난 것마냥 일어나서 그 남자 홀목(손목)을 쥐면서,

"이 사람허구 나하고는 천생 연분이니께,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구. 이 사람이 나 죽은 저승 집을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허구 살아보구 죽을려구 이렇게 살아나왔다."

고 그러더라느먼 그류. 그러니께 그 집에 들어갔던 게 저승이었더먼 그려. 그러니께, 오래게서 묵지두 뭇허구 보냈지.

아, 그 남자하구 잘 살구 친정에서 잘 살게 해줘서 잘 사는디, 이 남자가 평상 콧노래를 불르유.

"그러니 당신은 당신 오머니 산소 잘 써. 나하구 이렇게 잘하구 살어. 뭐이 원이어서 그렇게 맨날 콧노래를 부르느냐구?"

그러니께,

"그게 아니구 우리 어머니 갖다가 토강(연못)에 넣은 게 그게 원이라구."

"그러면 당신 오메 한번 만나 볼 테냐구 말여."

"아이구 만나 보면 좋것다."

"그러면 당신이 적덕을 많이 해야 된다구."

"그러면 워치게 적덕을 해야느냐구?"

그러니께,

"버걱버걱 버그내장 오줌 찔끔 지르내장 하하하하. 거기 가서 아주 밝은 것두 뜨고(사고), 거먹(검은) 것두 뜨구, 새파란 것두 뜨구, 아주 비단을 고루고루 떠서 한 짐을 지구 오시오."

그래서 고루고루 떠서 한 짐을 짊어지구 오니께 바지두 짓구, 치마두 짓구, 저고리두 짓구, 쩨껴(조끼)두 짓구, 등거리두 짓구, 그걸 다 지어서 그 남자게다 한 짐을 지어 주면서 이늠을 지구서 아무 장에 아무디 가면은, 그 소리 또 헤야할 텐디 우서서(우스워서) 그만 헤야겠네. 하하하. 오줌 찔끔 지르내장 골무(골목) 사티 가면은 그 읃어먹는 사람들이 사무(사뭇) 너 밥 많이 먹었늬 헌다구. 게 가서 그 거지들을 옷을 다 갈아 입히구서 그 벗은 오티(옷)를 한 짐을 지구 오라구 허더래유. 오메를 만나 볼려면 적덕을 헤야할 테니께. 그래서 그늠을 짊어지구 그 교랑을 들어가니께, 아주 아저씨라구 허는 사람 여기 저기서 와 가지구는 절을 수없이 허면서 고맙다구 헤싸터래유. 그 옷을 다 입히니께.

그 옷을 다 입히구서 그 숭악한(흉악한) 놈의 그지(거지) 옷을 다 싸가지구, 그늠을 지구서 또 왔더래유. 오니께 마누라가 또 허는 소리가 이늠을 짊어지구서 편지 슥(석)장을 써서 호주머니 느 주구서 저승질을 인저 가라구 허더래유.

"저승질을 워치게 가는고 허니 암만, 이러저러헌 큰 산골을 가면은 당신 눈으루 신작로가 뵐 겨. 그 신작로 뵈는 대루 가되 입 한 번 벙그리지(벌리지) 말구, 기침 한 번 크게 허지 말구, 숨 한 번 크게 쉬지 말구 이렇거구 가서 만나보구 오시오."

그러더래유.

그래 그늠을 짊어지구 가라는 대루 가니께, 신작로가 뵈더라느먼 그류. 신작로루 이렇게 들어가느라니께 아 헐레벌떡헌 사람이 세 사람이 지팽이를 집구서 오면서,

"아 이게 웬 사람이냐?"

구 허넌디 암맛두(아무 말도) 않구서 편지를 썩허니 꺼내서 뵈니까 보더니,

"무슨 적덕을 했느냐?"

짊어진 걸 내려놓고 뵈니께, 갖고 들어가라고 허더라느먼 그류. 들어가다가 또 인저 만났더랴. 또 인저 만났는데,

"웬 사람이냐? 왜 왔느냐? 여기가 어디라구 들어왔느냐?"

고 허더라느먼 그려. 그레 인저 편지를 내 뵈니께,

"무슨 적덕을 했느냐?"

그레 인저 그걸 내 뵈니께 보더니 죄(모두) 불을 놓더래유. 옷티를 다 불을 놓구서래미 편지 한 장을 주면서,

"이 편지를 갖고 당신이 열 두 대문을 지나가면은 큰 벌판 같은 마당에서 떡꺼머리 총각이 수건을 찔끈 뎅이구 마당을 쓸 테니 그 사람을 이 편지를 보여라."

그러더래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니께, 그 총각이 깜짝 놀라며 이게 웬 편지냐구. 그 인저 편지를 뵈니께, 아 그러느냐구 나 오라는 데루 오라구. 그래서 갔더니, 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께 자기 오머니가 꽃 속에 들어앉아서, 걸상에가 앉았더니, 가서 쪼금 앉았으니께 자기 오머니가 자기를 한번 써억 쳐다보더니 뭐라구 헐 것두 옵구 그저 그렇더라느먼 그류. 멍하니 앉았으니께 하이, 웬 새댁이 잔득 차려 갖구서 나오고, 웬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즈이 오머니 앞에다 주욱 차려놓구서 절을 꾸벅꾸벅 헤싸터라느먼 그류. 그렇게 절을 헤싸터니 오메가 그걸 아들 왔다구 주지 않구서 다 나눠 먹구 나가더라느먼 그류. 그러더니 그 오메가 떡거머리 총각, 마당 쓸던 총각을 오라구 하더니 자기 아들 좀 내보내 달라구. 그래 인저 나왔더래유. 내보내 줘서 집엘 왔더랴.

"어머니 만나 봤소?"

"봤소."

"잘허구 있지 않던가요?"

"잘허구 있읍디다."

그래두 또 콧노래를 불러.

"그 웨 그렇게 콧노래를 그래두 불러유."

"고향에 가면은 형이 하나 있는디 형이 장가두 못 들었을 건디 장가나 들어서 잘 사나가

보구 싶어서 그런다."

"그걸랑 당신 마음대로 허여. 가라구."

그래 인저 가라구 노수를 해 줘서 고향엘 갔는디, 가서 물어 보니께 아 그날이 오메 지사유. 성수(형수)가 그날 지사를 지냈더래유. 성수가 자기 오머니 지사를 지냈댜. 지사 지낸 거를 자기가 마침 저승에 가니까 그렇게 보여 준 거지. 그러니께 자기 안이서 전부 그렇게 맥면(어떤 일이 그렇게 되도록 앞뒤로 짜 놓았다는 뜻인 듯함)을 혜 놨더먼. 그렇게선 자기형 보니께 자기 형두 장가 잘 들어서 살구 자기도 와서 잘 살구, 그렇게 살다 죽더래유.

채록 일시 : 1974. 1. 12. 밤 9 : 20~40.
구 연 자 : 이 화동(여, 41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역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홍리
채록 장소 : 잠홍리 정 중헌씨(채록자의 고모부)댁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가 고모댁을 방문, 고모께 부탁을 하여 이 화동, 김 영완, 문 계완, 이 홍근, 조 재일, 최 병동씨 등 8명을 모셔와 만났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13편의 이야기를 채록하였다.
청 중 : 부락민 9명(여자 7명, 남자 2명)
청중 반응 : 이이야기의 내용에 감탄하며 수긍하는 것 같았다.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곳 : 본적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기억 없음.
구연 경력 : 여러 차례
제 목 : 구연자는 '은가새'라고 말했는데 표준어로 고쳤음.

126.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아라

T 서산읍 잠흥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한 신부가 첫날밤에 남편에게 횡액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동네 머슴과 신방을 차렸다.
그날 밤에 신방에 있던 머슴이 대신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끌려 갔으므로 신랑은 그 신부와 함께 잘 살았다.

옛날에 이러한 여자가 있더래요. 시집을, 출가했는디, 출가한 첫날밤에 신방을 차릴라구 허니께 신부가 신랑을 보니께 관상을 보니께, (이거 웃음나와 뭇하것구먼) 관상을 보니께 말여, 오늘 저녁에 죽게 될 사주래요. 그래서 신랑보고 허는 말이 "여보! 당신." 왜 그러느냐구. (웃음 나와 뭇허것 구먼) 왜 그러느냐구 허니께,

"당신 오늘 저녁에 내 말 들어야지 내 말 안들으면 당신 영영 수명이 다 하구 말게요. 그러니 내말 들으라구. 유수곡절해서 그러니 들으라."

구.

"아. 그러라."

구.

"이 동리에 남의 고용하러(머슴살러) 다니는 사람 없느냐?"

구.

"아 있다."

구.

삼십 된, 황씨라구 노총각이 있다. 그런 말여.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 오라구. 데려다 주니께, 신부가 깨까시(깨끗이) 씻기구 신랑 옷을 입혔다 이거여. 저녁두 한 상 잘 차려다 주고서, 자기 신랑 보고,

"당신 오늘 저녁에 나하구 신방을 차리구 하루 저녁 자다가는 생명 가. 그러니께 꼭 내 말을 들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구 이런다 이거여.

그래서 목간을 시키구 옷을 벗기면서 허는 말이 머슴 살러 다니던 황씨 보고,

"여보, 나 오늘 시집 와서 보니까, 저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꿈에 선몽(현몽)까지 했었어. 당신 아무 데서 고용하는디, 당신 허구 백년 해로를 짓게 됐어. 그러니께 헐 수 없이 나하구 백년 해로를 지야지 난 저 분하고는 도저히 관상을 보니께는 뭇 살겠어. 그러니 뭐 상관 있소. 아직 신방두 안 차렸는디."

그래서 잤더라 이거여.

그래 하루 저녁 자두 만리성을 쌓으랬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됐읍니다. 그래 아닌게 아니라 밤 중 즘되니까 소리가 나더니 만리성 쌓는 데를 끌어 갔다 이게여.

이렇게 갔는디, 이제 신랑을 불러 들여,

"이거 보시오. 당신이 나허구 신방을 차려 잤으면 대국 만리성 쌓는 데를 끌려 갔다 이게요."

만리성 쌓는 데를 가면, 제 생전, 쌓는디 가면 죽읍니다. 집이 오지두 뭇허구.

그래 사느라니께 신부가 만리성 쌓는 데를 가구 싶더라 이게요. 그래 신랑 보구 얘기 허니께, 가라구 허더래요. 그래 만리성 쌓는데를 갔더라 이게요. 아마 신부가 이인(異人)이었던 모양요. 가니께 만리성을 다 쌓고 물고맥이를 들어 가더라 이게요. 물고맥이를 들어 가년디, 이 사람이 죽게 됐더래요. 황씨가. 그래서, 하루 저녁을 자두 만리성을 쌓으랬대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8 : 05~8 : 10
구 연 자 : 이 홍근(남, 5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운성리 2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 준 사람 : 어렸을 때 동네 노인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술자리에서 여러 차례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27. 조 한 이삭

T 서산읍 잠흥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이 큰 구덩이 하나를 파고 거기에 좁쌀 한 말을 심었다. 싹이 다 자라자 다 뽑아내고 한 개만 남겨 좁쌀을 거둬 들였다.

그는 그 좁쌀을 가지고 나가 그것을 쥐→고양이→말→색씨의 순으로 바꿨다. 그는 색씨를 상자에 넣어 지고 오다가 잃어 버리고 비지만 한 상자 지고 왔다.

옛날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더래유. 모재(母子) 사는디, 먹구 자구, 먹구 자구 그저, 소대성 마냥 자더래유. 그런데 오메가 허는 말이,

"아 이웃집 김도령은 산전도 파고 그러는디, 그저 먹구 자구, 먹구 자구만 허니? 그 사람은 산전 파서, 이팥 갈아서 져 들이구, 져 들이구 허넌디 먹구 자구, 먹구 자구 허느냐구?"

"아, 스슥(조) 씨가 있어야 스슥을 갈지."
허더래유. 그래 그 오메짜리가 스슥씨를 기별해다(구해다) 주더래유. 기별해 주니께,
"아 쾡이(괭이)가 있어야 산전 파지 않느냐?"
구. 그래서, 쾡이를 얻어다 주더래유. 그런디 또 자더래유.
"아 이웃집 아무개는 스슥두 갈구 스슥밭도 매구 허넌디 너는 스슥 갈 꿈두 안 꾸니?"
아 오메가 이렜대유. 그러니께 다 짊어지구 가서 커다랗게 구데기(구덩이)를 하나 파더래유. 구데기를 하나 커다랗게 파구서 , 거기다가 스슥 씨 한 두 서너 되 되는 걸 거기다가 처넣드래유. 글어 묻구서 또 무진 자는 거유.
"아 이 위 아무개는 두 벌 스슥밭을 매는디, 너는 아무 것두 안 허느냐?"
그래유. 그러니까 가서는 다 솎아내고 하나만 남겼더래유. 하나만 냄겼는디, 또 오너서는 무지근 자더래유.
"아, 이 위 아무개는 스슥 비어(베어) 오는디, 너는 왜 잠만 자느냐?"
그래 도치(도끼)를 얻어다 달라구 허더래유. 도치를 얻어다 주니께, 이늠 하나를 비어 가지고 월마나 컸던지 한 지게 빠듯하게 지고 들어오더래유.
그래 갖다 놓고는, 또 무지근 자더래유. 아 정 야단을 치니까,
"아 이늠 가지면 우리 식구 즉내(겨울동안) 먹구 살 텐데, 왜 그러느냐구. 에이 속 상해서 나가야겄다."
하구서 이늠을 짊어지구 나갔더래유. 스슥 한 이삭을 짊어지구, 거치(거처) 없이 나가는 거지.
가만히 나가느라니까, 워트케 할 재간이 안 나서더래유. 길은 저물구 꾀가 나더래요. 어느 집에 가서,
"이거 나라 상사에 올라가는 스슥 이삭인디, 쥐구녕 앞에다가 놓았다가 달라구요."
그래서, 그 전이라 말여 쥐구녕 앞에다 갖다 놨더래유. 아, 상사에 올라가는 스슥이라구 했는디, 아, 쥐라 다 먹구 뭐가 남었느냐구 그러니께 그러믄 쥐라두 잡아 달라구. 헐수 웁시 쥐를 잡아 줬더래유.
그래 이 놈을 짊어지고 어디만큼 가니까 일력은 저물고 또 하루 저녁 유하게 됐더래유. 그래,
"전(주인), 전!"
찾아가지구 하루 저녁 유하게 됐는디, 이 쥐를 꼭 쾡이(고양이) 앞에 놨다 달라구 허더래유. 그래서는 전게 줬는디, 쾡이 앞에다 갖다 놨는디, 아 쾡이 쥐 먹듯 허지. 쾡이가 좀 잘 먹것슈. 아 식전에 쥐를 달라니 쾡이가 먹었다구 쥐를 줘유? 쾡이라두 잡아 달라구. 그래 나라에 상사 올라가는 쾡이니께 헐 수 웁시 쾡이를 줬드라 이게요.
받아서 이 놈을 짊어지고 워디 만큼 갔던지, 또 하루 저녁을 유하게 됐드래요. 또 전 찾아가지고 이 진상 올라가는 쾡이니께 말 옆댕이다 놔 달라구. 그래서 말 옆댕이다 놨넌디,

그 기튿날 달라니께 말이라 거쩐 밟아 죽였거든요. 그러니 말을 헐 수 없이 잡아 타구서 얼마 만큼 가니께 저물더래유. 말을 오양(외양간)에 매었다 달라구 해서 오양이다 뱄는디, 과년단 새악씨라 말여물 해 준다구다 귓구녕에다 물 퍼부어서 거쩐 죽었드래유.

"아 나라에 상사 가는 말인디 말을 죽였으니께 새악씨라두 달라."

구 그래 할 수 없이 새악씨 뺏긴 게유.

그래 이늠을 궤짝에다 느서(넣어서) 짊어지고

"오줌은, 참 똥은 싸두 오줌은 싸지 마라."

해가면서 짊어지구 오는 기유. 주이 집으루. 인제 장가 들었으니께 결혼할라구.

그래 얼마 오니께, 배가 고프더라는 기유. 오다 보니께 동네 잔치를 허넌디, 배가 고파 죽것더래유. 그래 신작로 옆에다 궤짝을 네려 놓구,

"널랑은 가만히 이껴(있어). 날랑은 저기 가서 젖은 걸랑 먹구 말른 걸랑 받아다 주께잉."

그러구서 거기 가니께, 참 만반 진수 차려 주더래유. 불쌍허다구. 배가 고프니께 혼자 다 먹었더래유. 다 먹구는

"야, 아무 것두 움데야. 진 것두 마른 것두 움데야."

그러구서 짊어 지구 온게여.

와서 즈이 오메(어머니) 앞에다 쾅 네려 놓으면서

"아 오머니 평풍(병풍)허구 채알(차일) 좀 은어 와요."

그래 평풍허구 채알허구 은어 오니께, 초례 지낼려구 보니께, 비지만 자뜩 들었더래유. 새악씨는 워떤 놈이라 끄내 가구.

그래서, 옛날에 아마 그짓말에 속한 모양유. 그러구 그 사람이 엊그제 죽었시유 홀애비루 살다가. 그런디 오라구 해서 갔읍니다. 갔는디, 얼멩이다 술 받구 병이다 떡 받아서 줘서 실컷 잘 먹구 왔시유. 〔마을 사람 : 저두 먹었는디유〕〔채록자 : 가지고 오지는 않았나요?〕 가지고 오는디, 아 이 놈의 망개비가 하두 많으니께 양쪽에서 펄쩍 펄쩍 뛰다가 깨쳐 파산했시유. 질빵 빠지는 애기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8 : 25~8 : 30
구 연 자 : 이 홍근(남, 5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온성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28. 고양이가 된 등짐장수

T 서산읍 잠흥리 ①—A면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소 판 돈을 가지고 가다가 대변을 보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건대를 물고 도망가더니, 묘 구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사람은 밤이 되자 할 수 없이 어느 집에서 유하게 되었는데, 밥을 먹을 때 그 고양이가 또 나타나길래 목침을 집어 던졌는데, 그 집 주인 영감이 맞아서 죽었다.

그래서, 이 일을 관가에서 처리 했는데, 결국은 돈 많은 등짐장수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은 그 집 내외에게 등짐장수의 혼이 고양이가 되어 앙갚음 한 것이 밝혀졌다.

옛날이 이러헌 사람이 있더래유. 뭐 허넌 사람이냐 허면 저— 들녁에서 사는 분이, 말허자면 운산 장으루 소를 팔러 왔더래유. 왔는더, 소를 팔아가지구서 옛날이 주먼지(주머니)라구 있지 않읍니까. 주먼지다 느쿠서 댕였지. 돈이라는 걸.

주먼지다 느쿠서 소를 농회소(농우)를 팔어가지구 가는 질(길)인디 똥이 매렵더래유. 똥이 매려서 허리띠를 끌러서 앞이다 놓구서 똥을 누넌디, 난데없이 괭이(고양이) 하나가 달려들더래유. 괭이가 달려들어 돈 들은 허리띠를 물구 달아나더래유. 농회소 한 바리를 팔었는더, 그 돈을 괭이한테 뺏겼으니 큰일 아니유. 쫓아갔더래유, 똥두 다 미처 뭇 누구 밀두 뭇 씻구. 그래 쫓아가니께 달랑말랑 달랑말랑 이렇게 내빼더라 이게유.

내빼는디 인저 밤은 야심허구 달은 허영청 밝은디 어디 무이(묘) 쓴 구녕으루 쑥 들어가 버리더래유. 구녕하나 뚫어졌는디. 아 이거 큰일 났넌디. 아마 동지 슨달(선달)이나 됐던기유. 그래 손을 찔러보니께 닿들 안해유. 돈을 끄낼라구 보니께, 그러니 그거 난처하더래유. 막대기를 꺾어 가지구 파 보니께 얼어가지구 파지지를 않더래유. 그런디, 밤은 야심하구 이거 큰일 났더래유.

저 아래를 네려다 보니께 불이 빤짝빤짝 하더래유. 에이 이느므거 저기 가서 자구서 내일 허리띠를 끄내서 돈 좀 찾아 가지구 갈 게라구. 그래서 밤은 야심허구 전을 찾으니께, 하얀 노파 할메가 하나 나오더래유. 그래 밤은 야심하구 하루 저녁 유해 가자니께,

"나 혼자 사는디 집두 누추하구 잘 데가 마땅치 않다구."

"아, 괜찮다구. 그런디 나 시장한디 밥 좀 해줄 수 없느냐구."

그러니께, 밥은 해주마구. 밥을 할메가 해다 주는디 먹구 앉았는디, 아 요놈의 괭이가 상밑에 따라 들어오더니 얼찐거리거든. 그래 이렇게 보니께 돈 물어간 느므 괭이유. 아 이느므 괭이, 둘레둘레 둘러보니께 목침이 하나 있더래유. 아, 요고 쪼금 틀렸네. 목침이 하나 있넌디, 〔채록자 : 틀렸으면 틀린 데부터 다시 하세요〕 틀려서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그런디 전은, 전이 웃목에서 쿨쿨 자유. 할메가 밥을 해다 주넌디, 밥을 먹넌디, 쿨쿨 자넌디 꽹이가 얼전거리니께 목침으로 홱 팼지유. 그 돈 물어간 꽹이에다가. 그러니께 꽹이는 살짝 피허구 웃목에서 자던 노인네 해골이 깨졌시유. 거쩐 죽었거던. 큰일 났거던. 그런디 이느므 할메가 밥헤다 주니께 거쩐 전 영감 죽였다구 막 야단을 치구 도무지 야단이구 동네 사람 풀어 헤대는기유. 아 큰일 났지. 영 죽게 됐더래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이 약차 이만저만하고 이러이러해서 그 꽹이가 상밑으로 갔는디 둘러보니께 마침 목침이 있어서 던진다는 게, 이 전 영감 대갈이 터져 죽었오."

아, 그러니께 유수곡절하게 알아 들어 동네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 모이 좀 가서 파 보자구. 그래서 새는 날에 가서 파 보니께, 아닌게 아니라 그 속이가 돈 주머니가 들었더래유.

돈 주먼지가 들었넌디 송장은 메우적으루다가 둘둘 말었더래유. 그래 보니께, 늙은이인디 이걸 워츠게 할 도리가 웁더래유. 그런데 이걸 가만히, 결국은 관가에서 알게 됐더래유 그래서 이걸 가만히 조사해 보니께, 이걸 조사하는 도리가 웁더래유. 웁서서 인제 이걸 조사해 보니께 그 안 늙은이를 갖다가 문초를 했더라는규. 전 늙은이를. 하두 유수곡절하니께 매질허구 문초했던 모양이유. 정 패니께 매에 뭇이겨서,

"그런게 아니라 내 집에 등짐 장사가 수년 전부터 내 집에 전 삼구 다니는디……"

혼자 사는 등짐 장산디 이 등짐 장사가 돈을 많이 뵀더래유. 뵀넌디, 이 등짐 장사 하나 죽이면 그 많은 돈을 우리 두 늙은이 갖게 돼서 죽였다구 허더래유.

그런디, 그 등짐장사 혼이 꽹이가 되어 가지구 도가품(앙갚음)해 달라구 그랬더래유. 우스운 얘기유.

혼이 꽹이가 되 가지구 도가품해 달라구 그랬단 얘기를 들었시유. 노인네한티. 그런디 내가 워치게 해서 다 잊어 버리구 순서가 바꿔졌읍니다. 이게 질빵 빠진 얘기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8 : 35~42
구 연 자 : 이 홍근(남, 5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운성리 2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채록 방법,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청중반응 :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음.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곳 : 주소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동네 노인
구연경력 : 여러 차례
제 목 : 채록자가 붙인 것임.

129. 쫓겨난 딸

T 서산읍 잠흥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내복으로 먹고 산다고 대답한 막내 딸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 여자는 산길을 가다가 숯구이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하고, 숯구덩이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이전이 워떤 사람이 딸 삼형제를 두었는디 하루는 딸들을 불러 앉혀 놓구,

"너희들은 뉘 덕으루 먹고 사니?"

그러니께 큰 딸은 아버지 복으루 먹구산다구 그러구, 둘째 딸은 아버지 복, 어머니 복, 하느님 복으루 먹고 산다구 그러구, 세째 딸은 내 복으루 먹구 산다구 허니께,

"이년 고약한 년 내 복으루 먹구 산다구 했다."

구 나가라구 해서 쫓겨를 나서 워디만큼 가니께, 참 더꺼머리 총각이 순전히 숯만 구워 먹구 산속에서 살더래유.

그랬는디, 아주 시커멓게 사람 같지두 않게 숯을 구워 먹구 사는디, 새악씨가 가서

"그 워치게서 여기서 이렇게 사느냐?"

허니께

"아버지두 죽구 어머니두 없구 고아가 돼서 이렇게 숯만 구워 먹구 산다."

구.

"아이구, 인저 숯은 그만 굽구 돌팍이나 가서 팔어 오라구. 사는 사람이 없어두, 해는 으실으실 넘어가구 허면 사는 사람이 있을거라구."

그 새악씨가 허라는 대루 허구서 참 짊어지구 갔더래유. 가니께 워떤 사람은

"이 놈은 산에서 숯 구워 먹던 돌팍을 다 지구 왔네."

하면서 발길루 툭 차구, 툭 차구, 그레서 해 다 갔는디, 워서 잘 차려 입구 깨깟한 노인이 와서,

"어허, 이런 좋은 금덩이가 워디서 생겼나!"

그러더니 이루 오라구 허더니, 돈을 많이 주구 그 돌팍을 사더래유.

그래서 인저 그 돈을 갖구 가서 이러저러해서 돌팍을 돈을 주구 사더라구. 그거 보라구 허면서, 그 숯 구덩이 가셍이(가장자리)돌팍들이 다 금멩이여서 그 새악씨가 하라는 대루 하루 장에 하나씩 져다가 팔았다너먼 그류.

그늠을 팔어다가 땅두 사구, 집두 사구, 아들 딸 낳구 잘 살다가 죽더래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9 : 50~54
구 연 자 : 김 영완(여, 42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가사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흥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0. 아버지의 원수

T 서산읍 잠흥리 ①—B면

*줄거리

옛날에 아홉 살 먹은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아버지의 도끼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소년은 오랫동안 범인을 찾아 헤맨 끝에 진범을 찾아 내어 아버지의 살인 혐의를 벗긴다.

진범을 찾아냄으로써 원수를 갚게 된,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딸을 이 사람과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 처녀를 짝사랑하던 총각이 결혼 전날 이 사람에게 독주를 먹이고는 이튿날 자기가 대신 장가를 갔다. 그런데, 신랑이 바뀐 것을 안 신부가 피병을 하여 식을 올리지 못했다.

신부는 그날 밤에 남장(男裝)을 하고 그 주막집으로 가서 진짜 신랑을 살려 내어 결혼을 하고 잘 살았다.

옛날이 부재(父子)가 나무를 갔는디, 큰 산이루 나무를 갔는디, 참 나무를 허넌디, 시커먼 늠이 헐레벌덕허구 오더니, 즈이 아버지 도치를 뺏어 들더니, 웬 사람 하나를 그 도치를 찍어 죽이구서 도치를 주이 아버지 지게에다 집어내떤지구서 내빼더랴.

그러니께, 주이 아버지 따라갔던 그 아들이 아홉 살 먹었넌디, 참 그 걸 보구서래미 도루 집에 왔넌디, 나무해 가지구서 왔넌디, 요거를 밟어 가지구, 그러니께 죽인, 아니여. 죽은 집이서 인저, 그 집 부재가 나무 간 거 밖에 읍구, 도치를 조사해 보니께, 아이 분명히 직였거든. 도치두 보니께. 그러니께 주이 아버지가 말두 뭇 허구, 엄연히 죽여 보지두 뭇 허구, 인저 그늠을 붙들라니 붙들 수두 읍구, 아니라니 아니라구 헐 수도 읍구, 헐 수 읍시 인저 징역을 갔슈 아베가. 갔는디, 얘가 집에서 주이 오머니하구 살면서 인저,

"오머니 오머니 우리 아버지 웬수 내가 갚을 텨."

인저 그럭저럭 해서 그게 열 두 살이 됐더래유. 그런디 도영이여. 그 어린내 이름이. 김도영이여, 김가구 도영이구.

개가 인저 나나리(괴나리) 봇짐을 싸 가지구 짊어지구, 막대기 하나, 호차리(회초리) 하

나 질질 끌구 인저 장을 찾어 다니는 거여. 워니(어느) 장이구 지가 인저 그 사람 얼굴을 알거든. 고 아홉 살 먹어서 봤어두 시염(수염)은 두두룩하게 나구, 나다리는 길죽허니, 키는 우썩 크구. 인저 요거를 안다 이거여 김 도영이가 이잉. 고거를 알어 가지구서는 장마다 쪼처 다니는 게여.

워니 장이를 가니께, 형사 하나가 너는 워디, 이잉, 이런 애가 워디가 머슴이라두 살지 그지(거지) 노릇을 한다구 그래서,

"형사님, 제 말 좀 들어 보라."

구.

"늬가 무슨 말이냐?"

인저 고 얘기를 주욱 했더래유. 응.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웬수를 갚자구 나온 사람이라구. 아 그거 참, 형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특허구, 그런 애가 워디 있는가 싶구 참 귀여워서 돈을 많이 줬더래유.

"너 이늠 가지구 다니며 배거프거든 밥두 먹구, 워떤 집이 가서 잠자구 방세 달라구 허거든 방세두 주구 그러라."

구.

인저 돈을 받어 가지구서 참 또 몇 장 돌어를 다니는디, 워니 장에 가서는 참 잠잘 데가 읍서서 장바닥에다가 가마니때기를 페구서래미, 그 날이 장이 었었는디, 장꾼이 다 파하구서 고단허니께 그늠을 페구서 잤더래유. 그 아이가.

자는디, 웬 술먹은 사람이 지나다가 한 허리를 툭 차구 넘어 가더래유. 그레 인저, 지가 뻘떡 일어나며,

"시상에 이른 일두 있느냐구. 사람 인간이 자는디 사람 인간을 차느냐?"

구 그러니께,

"아니 늬가 누구냐? 그지냐?"

"나는 그지 올시다."

"그러면 우리 집은 손님두 많고 큰 술집여."

예전이는 주막이서 밀주두 헤서 팔었다구 허더면유.

"그러니, 우리 집으루 가자. 우리 집은 방두 많구 손님두 많구 그렇다."

고 허더래유. 아이그 그래서 따러를 가는디, 아이 자꾸 따러 가는 뒤가 무섭더라느먼 그려 무서워서 자꾸 뒤 돌려다 보구 돌려다 보구 허면서두 참 그 남자를 쫓어 가넌디, 가 보니께 방에 한 방 앉어서 노름을 허넌디,

"그 뒤가 쪼금 앉어서 자라. 불쌍한 아이 하나 데리구 왔으니께 뒤 좀 조금 비껴 주라구. 어서 들어가 자라. 여기가 우리 집이다."

거기를 드러 누어서 가만히 자는 체하구 누워서 둘러 보니께, 아이구 그 사람이, 기억이 완전히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느먼 그류. 그레 인저 가만히 보니께, 그 때는 시염

을 구렛나루까지 났던 것을 깎었는디, 그 놈을 질렀더라느면 그류.

'아하, 저 사람이 그 사람인디 그 걸 내가 몰랐구나.'

허구서 밖으루 나가니께, 참 순사가 바깥이 있더라느먼 그류.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랴.

"나는 이러구 저러한 사람인디 그러한 사람이 저기 있으니 증말인가 아닌가 난 알들 못하는디, 이걸 잡아 보랴 말랴?"

이걸 말했드랴.

"그러면 늬가 그 사람을 말을 시켜 봐가꾸 만일 긴 것 같으면 소리 한번 질러라. 아니며는 늬가 실수 허는 거다."

서루 약속을 이렇게 허구 들어갔더랴. 들어가서 무한 그 사람만 쳐다 보니께 그 사람이 앉어서 화토를 치다가,

"예이 이 놈의 새끼 왜 그렇게 쳐다 보니?"

"나는 아저씨 본 것 같어서 쳐다보유."

"네가 나를 워서 봤더냐?"

막 달려들어 시염을 잡어 트드며

"아무날 아무 산이 도치 때앗은 사람 아니냐?"

허구 소리를 치니께 '와' 덤벼서 그 사람을 묶었더랴. 묶어 놓구,

"사실이 이 사람이 워치게 된 사람이냐?"

그 아이가 거기서 사실을 다 판가름을 했더라느면 그류.

그렇게 헤 가꾸 그 사람은 형사라 묶어 가지구 가구 집을 찾어와야 할 텐디 참 워디만큼을 가서 게가 워떤 곳인지를 알기를 허나 어린 것이 참 차점차점 집이를 왔더래유.

오니께, 즈이 아버지가 참 집이를 왔넌디, 왔넌디, 즈이 아버지는 아들이 찾어서 느끼(넣었기) 때문에 나왔는디, 무슨 영문인지를 물르지. 워디 갔느냐구 허니께 즈이 오메말이

"당신 웬수 갚는다구 나갔다."

구.

"아이구 어린 것이 이게 죽었지 삼 사년이나 안 들어올 적에는. 지가 워디가 죽은 게라"

구. 아 그러자 아들이 들어갔거든. 들어갔넌디, 아들이 들어가며, 즈이 아베를 붙들구 울며 그 얘기를 다 했넝겨 허니께, 그제서야 아들이, 그 아들이 그 웬수를 갚어 주었다 말여 갚어 주었으니께 자기가 살어 나왔지. 죽을 겐디.

그런디 이—, 산에 가서 도치 맞어 죽은 부인이 차츰차츰 인저 그 얘기를 듣구서, 인저 고맙다구 그 집을 찾어왔어. 와서 오메랑 아베랑 붙들구 우는 새에 바깥에서 찾어서 나가니께, 웬 부인이 하나 와서 찾거든. 그래서 웬 사람이냐구 그러니께

"이 사람이 김 도영이냐?"

구.

"그렇다."

구. 그냥 그 여자가 그 사람을 붙들구 무한 울어자쳐. 웬일이냐구 그러니께,

"니가 우리 남편네 원수를 갚었다니 이 은혜를 워떡허면 좋으냐?"

서루가 자별허게 지나게 되자 인저, 그 집으루 여자가 딸을 사위 삼기루 됐시유. 그 남자허구.

사위를 삼구 사는디, 도영이두 똑똑허구 잘두 낳았구, 그 딸두 잘 났더래유. 그레 인저 혼인을 걸어 가꾸 암만 날이 혼인날이라구 장가 올 줄루 허구 이렇게 허구 있넌디, 그 친구, 그 남자친구들이 니열이(내일이) 장가갈 날인디, 오늘 술먹으러 가자구, 주막으루 술먹으러 가자구 그래서 인저, 같이 갔더래유. 갔는디, 자꾸 술을 먹으라구 허넌디, 제 갈량이(짐작이) 그게 보통 술이 아닌거 같어서 자꾸 먹으라구 허며는 그냥, 이전이는 솜 바지 저고리를 입었더래유. 앞지락이다 젬말(허리춤)을 열구서 먹는체 허구 붓구, 앞지락을 열구 붓구 그러니께,

"웨 안 먹느냐? 그런 법이 워디 있느냐? 앞지락이 홍컨이 젖게 안 먹는 법이 어디 있느냐?"

구 억지루 먹이다시피 헤서 억지루 한 잔을 먹구서 보니께, 참 그게 약물을 탄 술이어서 참 그 사람이 죽었더래유. 죽으니께 인저 끌어다가 술집 나뭇간이다 그 사람을 묻었는디, 묻구서나 참 도영이하구 비슷한 남자 하나가 있었는디, 그 애가 그 집으루 장가를 갈라구 애초이부터 했던 남잘러라는 겨.

그레 인저, 그 남자가 그 집으루 장가를 갔넌디, 이전이는 서루 맞 얼굴두 안 쳐다보구 장가가구 시집가구 했다구 허덩걸유. 응 그랬는디, 그렇게 해서 인저 갔넌디, 이 여자가 초례청에 나갈려구 배깥이를 워트커다 힐끔 쳐다보니께, 아이 그 남자가 아니거든.

아니니께 그만,

"난 배 아퍼서 초례 뭇 지낸다."

구 막 때굴때굴 둥그는 거여. 나는 배 아파 죽는다구. 그러니께 남자는 도루, 새 신랑은 집으루 보내구 인저, 그 여자 말이,

"나 혼자 방에 놔 두구 이 문을 철갑허라구. 철갑해야 나는 배아픈 게 낫는다."

구 그러니께 이게 웬 일이다냐구 사뭇 난리들을 피구 했넌디, 그 여자가 가만히 들어누워 생각허니께 참 이상허거든. 이상혜서

'에이, 내가 남복을 허구서 아무두 물르게 가 보야 허겄다.'

구서, 인저 저녁이 돌아갔넌디, 자기 신랑 줄려고 해 놓았던 바지 저구리를 입고 그 늠을 입구 칼을 하나 호주머니다 넣구서 인저 그렇거구서 밤길을 혼자 걸었더라는규. 밤길을 얼추 동달어서 가다가 인저, 주막집이를 고기께를 갔넌디, 목이 마르더래유, 그 여자가. 그래서,

"주인 양반 쥔 양반, 지나가넌 사람이 목이 말러서 들어왔으니 물 좀 주시오."

그리구 몇 마디 불러두 대답이 읍더라느면유. 그레 안 뜰안이 써억 들어서며 술집이 오너

술을 달라구 않구 물을 달라구 허니께 아마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나 좀 술 좀 뜨뜻이 한잔 데서(데워서) 달라."

구 그러니께 이 여자가 목안의 소리루 대답을 허면서,

"그러면 방으루 들어오라."

구. 그래 인저, 방이가 들어앉으면서,

"술 좀 뜨뜻이 데서 나 좀 달라."

구. 그레 문을 열구서 불 써(켜) 가지구 문을 열구 나가면서 가만히 눈치를 보니께, 노다지 나뭇간 쳐다보느라구 술을 못 데우더래유. 나뭇간을 쳐다보느라구. 그리구 애덜두 쪼글치구 앉어서 기를 못 펴더라느먼 그류.

여자가 인저 술을 데 가지구 들어오넌디, 술을 이렇게 놓구서 칼을 내놓으면서,

"당신 오늘 저녁에 바른대루 말 않으면 이 칼루 당신 죽일 터. 바른대루 말하라."

구 그랬댜. 그러니께 그 여자 말이,

"그게 아니구서 김 도영이라는 사람이 오늘 장가가는 날인디, 어제 저녁이 친구 아무개라서 죽여 나뭇간에다 묻어 놓구서 그 사람이 대신 장가갔다 말여. 갔넌디 나는 무서워서 바깥이 뭇 나간다."

구 그러더래유.

"그레서 무서워 대답을 뭇 했다."

구 그러더래유. 아 이 사람이 뛸쩍 뛰어서 나뭇간으루 들어가서 막 끌어내면서 들구 물을 끓이라구. 물 좀 뜨뜻이 끓이라구 그러구서, 이 남자한티 들구 얼굴 비비구 사무 웬 수족을 다 주물르구서, 자기가 참 꽃송이를 쥐구 다녔던지 그 꽃을 갖다가서 방에 메며 다 놓구 꽃으루다 가슴 문대구, 물을 끓여서 그 참, 입에다 좀 떠 넣구 이러니께, '화—' 허구 솜(숨)을 쉬더니 살더랴. 이, 이거는 책에두 나와서 박수두 쳐. 이렇게 헐 적에는. 〔일동 웃음〕

그렇거구서는 살었는디 허기를,

"니열 날에 장가를 오라구. 나는 간다."

구. 간다구. 이렇게 남자를 살려서 인저, 자기는 그 밤이 인저 새는 날 왔넌디, 아 새닥 움서겼다구 그런 난리가 움더라네, 집이 들어가니께,

"나는 오늘은 초례를 지내야겄다."

구 초례청에 나갈려구 차비를 차리넌디, 그게 신랑인 줄 알았더니 터억허니 신랑이 또 들어오지 장가를. 인제 증말 새신랑이란 말여. 도영이라는 사람이여.

인저 그러는 거 보구서 먼저 장가 온 사람은 잡어가구, 그 사람허구 잘 허구 살다가 죽었더래유. 허허허허.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10 : 00~10 : 20

구 연 자 : 이 화동(여, 41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역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홍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1. 우물 속의 송아지

T 서산읍 잠홍리 ①—B면

*줄거리
옛날 지관이 죽을 때가 되어 자기 묘자리를 얘기 하는데, 부인을 외인이라고 하고 아들에게만 대동샘에 넣으라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를 엿들은 부인이 아들과 싸울 때 이를 발설하여, 마을 사람들이 샘물을 퍼냈다. 그러자 샘에서 큰 암소가 나왔는데 일어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집이 망했다.

이전에 어머니하구 아버지하구 아들 삼형제하구 사는디 그 아버지가 집안에서 상당히 용하게 자랐대유, 그런디 남의 모이 자리를 잡아 주는 지관이면서 자기 모이 자리는 안 잡아 놓더래유.

"아버니, 모이 자리 좀 잡아 놨슈?"

하구 물으면,

"죽을 때 알려 주마."

그러구 말을 안 허더래유. 아버지가 운명하실 대가 됐는디 큰 아들이 슬그머니 가서 그 얘기를 허니께 눈을 딱 감구 있다가 휘이 둘러보시더니,

"외인이 있다."

그러는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들었더래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허거든. 자기 보고 외인이라구 한 생각을 허니께. 부부간에 외인이라구 허니 월마나 괘씸허것슈 늙어가며.

'에이 요놈의 늙은이 나 때문에 그런다'

구 한 데 가서 엿을 들었다. 엿을 안 들었으면 그 집의 문운이 열리는 건디. 엿을 듣는디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서 그 얘길 했더래유.

"나 죽거든 대동샘에다 몰래 밤에 갖다가 넣구서, 감쪽같이 널에다 헛상여 해서 장사를 지내라."

허구. 그러라구 허구서 참 자기 아버니가 허란대루 했어. 참 자기 아버니 신체(시체)를 갖다 넣었더니 샘물이 확 뒤집혀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 샘물을. 그러니께 생 난리가 났시유 동네서. 웬일이냐구 난리가 났넌디, 그냥 무사히 넘어갔으면 괜찮을 건디 인저 모재(모자가) 싸웠슈.

"저놈의 새끼, 주이 아베 죽어서 대동샘에다 쳐넣고 헛상여 해서 대동 샘물두 뭇먹게 허는 고약한 놈."

이라구 싸웠시유. 그러는 소리를 대동 사람들이 안 들었겄시유. 들으니께 샘물을 몇이 달려들어서 펐대야. 그때야 발동기가 있남. 몇이 달려들어서 푸니께 말르더래야. 말르니께 소가 이렇게 큰 암소가 됐더랴. 암소가 되어 가지구서 뒷발은 다 일어서구 앞발은 두 무릎을 콱 꿇고서 일어서들 못했더래유. 그렇게 해가지구 그 집이 쫄닥 망했다구 허더먼유. 이게 뭐냐허면 옛날 노인들이 약하게 허지 말어라 우덜게다 하신 말씀여.

채록 일시 : 1974. 1. 12. 밤 10 : 21~25
구 연 자 : 최 병동(여, 47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흥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채록 방법,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청중 반응 : 어머니를 외인이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나 아들하고 싸웠다고 해서 가정의 비밀을 발설한 어머니도 문제라고 함.
처음 들은 때 : 13~4세 때
처음 들은 곳 : 주소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동네 할머니
구연 경력 : 삼 삼으러 다니면서 수차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32. 서모와 퉁소

T 서산읍 잠흥리 ①—B면

*줄거리

딸 삼형제 사는 집에 서모가 들어 와서, 아버지가 출장간 사이에, 부정(不貞)하다는 누명을 씌워 큰 딸을 자살하게 했다.

그런데, 이웃 총각이 그 처녀를 묻은 대발의 대로 만든 퉁소에서 나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돌아와 서모를 잡아 죽쳤다. 그러자, 퉁소에서 죽었던 큰 딸이 나와서 잘 살았다.

얘기는 헐 줄모르는디, 구수하게들 좀 들으슈. 에험, 옛날에 말유 참 어떻게 부자로 살었는디, 제일 부자로 사는 집에서 어떻게 해서 딸만 삼형제를 두었더래유. 삼형제를 낳았넌디, 참, 삼형제가 모럼모럼(무럭무럭) 자라는디, 참 과년이 다 되가지구 하나도 여의지 못허구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떴더래유.

떴는디, 아버지가 큰 회사에를 댕이는디(다니는데), 회사를 댕이다가 중등멜(중간에 그만둘) 수도 웁구 워티게 워티게 댕이느라니까 친구라가 말을 해서 참 여자를 하나 맞아들

여서 참 살림을 했더래유. 말허자면 그게 스모(서모)지유, 스모인디, 첫번에는 무조건 굉장히 잘 허더래유.

그래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근 일 년이 다 갔더래유. 그랬는디 이늠의 스모가 워찌나 심했던지, 참 즈이 아버지가 원제던지 출장을 나가며는 저녁에나 들어온대야. 저녁이래야 들어오는디 아, 어느 날은 출장을 갔다오니께, 집 안이 참 딸 삼형제가 이 구텡이서 훌쩍, 저 구텡이서 훌쩍 그러는디 자기 아버니가 들어오너서,

"느이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워째서 말 한마디 않고 이 구텡이 저 구텡이 하나 섰느냐?"

그러니께, 큰 딸이 쎄억 나서며,

"예 아버지 주이는 이렇게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서 참, 아버지나 즈이들이나 사주팔자가 이래서 스모 밑에서 시는디, 이러한 누명을 쓰고 있으니께 워트케 허면 이 누명을 벗겠읍니까?"

허니께, 그 아버지가 허는 소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고 그러니께,

"이거는 아버지 보고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

그러니께

"너 그렇다구 숨기지 말구 다 말해 봐라."

그러니께, 말을 안 허더래유.

그런디 아버지가 서울을 가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던 날, 어머니라가 큰 쥐를 하나 잡아다가 참, 그 큰 딸 자는 방에다가 쓰윽 갖다 넣어 놨더래유. 빨갛게 쥐 껍데기를 벗겨서 그렇게 해놓구서 식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년 일어나서 밥허라니께 왜 안 일어나느냐?"

구 해서 일어나 보니께, 컴컴한 방에 날은 활딱 새지두 안했는디, 일어나라구 해서 일어나니께 참 이상허게 침침해 가지구. 뭐가 들었더래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구 치우느라니께 그때 마침 스모년이 들어오더니,

"너, 이년 워서 이렇게 서방질해서 아이를 낳았느냐?"

구 막 누명을 씌우더래유. 그래서 인저 하두 뭐해서 그 여자가 인저 자살을 헤서 죽었더래유 그 딸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디 그 동네가 말하자면 커다란 대밭이 있더래유. 대밭이 있는디 대밭에다가 그 새악씨를 묻었대유. 갖다가 묻었년디, 대충대충 해야여. 대밭에다 묻었년디 아이눔의 대가 하루가 열흘같이 크더래유. 이웃의 총각이 그 집 주인보고 하는 말이,

"아주머니 아주머니"

"왜 그러느냐?"

"저 대는 워쩌면 저렇게 하루가 열흘같이 모럭모럭 자라는가요? 저 대를 하나만 벨 수 웁나요?"

"아, 벨 수 있지. 베라구. 뭐 할라구 그러는가?"

"나는 퉁소가 하두 좋아서 퉁소를 하나 만들라구 벨라구 그래요."

그러니께, 하이 그러면 그러라구.

그렇게 해서 이웃의 도령이 대를 하나 베어서 퉁소를 만들어 가지구, 그 처녀 아버지 물두 건너구 산을 넘어 타향땅에 갔넌디, 바다 앞 큰 뚝셍이(둑)에 앉아서 퉁수를 참 유창하게 부는거라. 부는디 퉁수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허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그만두고 내 소원이나 풀어 달라구요."

퉁소를 부넌디 그런 말소리가 나와 퉁수 속에서.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서 자기 아버지짜리가 참 서울서 와 가지고 스모를 잡았대유. 잡아가지구서,

"워치게 사실이 이렇게 됐길래 이 퉁수 속에서."

그러니께 아버니는 쥐 잡아서 이렇게 된 줄은 모르지유.

"워치게 사실이 이렇게 됐길래 퉁수 소리가 참 이상허구두 이상허게 내 귀에 들려서 이렇게 왔으니 퉁수는 누가 불며, 이 대는 워서(어디서)베었으며 그저 다 수속을 밟어라."

그래서 인저 다 수속을 밟어가지구 허니께 참 자기 딸이 참 퉁수 속에서 완연하게 나왔거든. 퉁수 속에서 나와서, 그 스모를 갖다가 영창인가 웠다가 집어 처넣구서 그 딸 셋을랑 데리구서 하나는 데릴사위 허구, 둘은 시집 보내구 그렇게 혜서 그냥 저냥 잘 살았다는 얘기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10 : 27~35
구 연 자 : 조 제일(여, 38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홍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채록 방법,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청중반응 : 계모의 포악성을 질책함.
처음 들은 때 : 11~12세 때
처음 듣은 곳 : 주소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기억 없음.
구연 경력 : 아이들에게 수차 했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33. 구렁덩덩 신선비

T 서산읍 잠흥리 ②—A면

***줄거리**

할머니가 고추 밭에서 알을 줏어 먹고 낳은 구렁이와 이웃집의 막내 딸이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자 구렁이가 허물을 벗고 사람으로 변했다. 신랑은 아내에게 자기 허물을 잘 보관하라고 하고는 과거를 보러 갔는데, 동생을 시기하는 언니들이 이 허물을 불태웠으므로 신랑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을 찾아 나선 신부는 고생끝에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거기서 얻은 부인과 얼음관 위를 목신신고 물동이이기, 참새 앉은 나뭇가지 꺾어오기, 호랑이 눈썹 구하기 등의 내기를 시켰다. 신부는 이 내기에 이겨서 남편을 찾아 잘 살았다.

아랫집에는 딸 삼형제를 낳구 참, 윗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는디 참, 아이를 못 낳지. 그런디, 참 고추밭을 매다가 무슨 알을 주워서 쪄 먹구 참 애기가 있어서 낳았다구유. 우덜은(우리들은) 전에 그렇게 들었어.

꼬추밭을 매는디, 알이 하나 있어서 갖다 쪄 먹구서 참 그달부터 애가 있어서 애를 낳았넌디, 참 구렝이를 낳았더랴. 그래서, 그놈을 갖다가 미서우니께(무서우니께) 굴뚝 모캥이다 갖다가 놓구서 삿갓을 씌워 놓았넌디, 그 아랫집 큰딸이 오더니,

"할머니 할머니, 애기 낳았다더니 뭐 났시유?"

그러니께,

"굴뚝 모캥이 가 봐라."

"아이, 구렝이 낳았네, 뭬뭬뭬, 구렝이 낳았네."

그러면서 내려가더래야.

인저 둘째 딸이 왔넌디,

"할머니 할머니, 애기 낳았다더니 뭐 났시유?"

그러니께,

"굴뚝 모캥이 가 봐라. 삿갓 씌워 놨으니께."

가 보니께 구렝이거든,

"아이, 드러(더러워). 할머니 뭘 못 낳아서 구렝일 낳았어. 아이 드러 뭬뭬뭬."

그러구는 그냥 내려가,

막내딸이 오더니,

"할머니 할머니, 애기 낳았다더니 뭐 났어유?"

"굴뚝 모캥이 삿갓 씌워 놓았으니 가 봐라."

"아이, 할머니, 구렁덩덩신선비 낳았네. 할머니, 구렁덩덩신선비 나셨구만유."
그러면서 내려가더래유 그 새악씨가.

그러구 새악씨가 내려가니께 구렝이가 '쉬익' 하구서 할머니한테 오더니,

"오머니."

"왜 그러니?"

"오머니, 저 막내딸 안 얻어 주면은 오머니 저 나오던 구멍으로 한 손에 칼 들구, 한 손에 불 들구 도루 들어가겄시유."

아이 참, 그 소리를 들으니께 후끄름허거든(무섭거든). 그래 이웃집 딸을 불렀어. 차례차례 불러가지구서 큰 딸보구 구렝이허구 살려느냐니께,

"아이, 뭐허구 뭇 살어서 구렝이허구 살어."
그러구서 그냥 내려가거든,

인제 둘째 딸을 불러가지구서 구렝이하구 살라니께,

"아이 드러워. 뭣허구 뭇 살어서 구렝이허구 살어."
그러구서 내려가.

그래 인저, 막내딸을 불러가꾸서 말허니께,

"어른들이 알지 지가 알어유?"
허구서 내려가.

인저 어른덜하구 상의 허니께, 정 그렇다면 살어야지 어떻게 허겄느냐구. 인저 나오던 구멍으루 도루 들어간다니께 후끄름두 허지 않겠시유.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할 줄루 허구서 사년디, 참 택일을 놔 가지구서 대사를 지내야 할 텐디, 늬열(내일)이 대사라면 오늘까지 현재루 구렝이였는디, 건날 저녁에 즈이 오머니더러,

"오머니 오머니, 물 좀 한 솥 끓여 줘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끓여 주니께 그놈으로다가 밤에 목욕을 했는디 참 그런 신선비가 읍시유 그냥. 허물을 벗구.

그래 장가를 갔년디, 참 그런 신사가 읍거든유. 그런디, 성(형)년들은 그 큰 성이랑 둘째 딸년은 아주 샘이 나서 지랄을 해유 그냥. 그레 인저 선비가 되니까 서로가,

"내가 갈 껄."

"내가 갈 껄."
그러구 욕심을 내고 하지만 지가 안 산다구 했으니까, 참, 동생의 남편이니까 할 수 없지.

첫날밤을 지내는데, 허물을 새댁의 속옷의 끈에다가, 옛날엔 속옷도 끈을 매서 입지 않았남. 그러니께 새댁의 속옷 끈에다가 채워 주더래유.

"이걸랑은 절대로 뭣하지 말고 차고 다니라구."
그런디, 성년들이 엿볼 적에 봤던 모양여.

그렇게 해서 다 채워 주고 살다가 그 사람은 과거를 보러 갔넌디, 그 성년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그거를 메다가 없앨려고 와서는 지랄을 해싸커든요. 그, 심술을 피울려구. 그래서 그거를 죽어두 뵈 주질 않구 감추는디, 하루는 이 잡아 주마구 들구 두 년이 와서 이를 잡다가 그거를 메다가 구락젱이다(아궁이에다) 넣었시유. 그러니께, 그 탄 내가 서울 과거 보는 데까지 갔시유. 그 구렁이 껍질 탄 냄새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내려오고 말었시유. 말어가지구 거기서 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도리가 있남유. 혼자 살 일이지. 울 날짜가 되어도 신랑이 안 오니께. 구렁이 껍질을 안 태웠으면 이 사람이 장원급제해 가지고 내려왔을 텐데, 태운 냄새가 가니까 한 여자를 얻어가지고 서당을 앉혀서 가르쳐가며 살더래유.

그러니께 기둘리다(기다리다) 기둘리다 어느 날은 괴나리봇짐을 싸가지고는 참 신랑을 찾아 나선거유 여자가. 여자가 인저 신랑을 찾아 워디 만큼 가니께, 아이구 다 잊어 버렸어. 〔잠시 생각하다가〕 한 곳을 가니께 한 사람이 산전(山田)을 일르고(일구고)있는디,

"아저씨 아저씨, 이리로 구렁덩덩신선비 가는 거 봤어유?"

그러니께,

"이 산전을 다 일러(일구어)주면 일러 주겠다."

그래 그것을 다 일러 주고 일러달라고 하니께,

"요 넘어로 갔다."

고 하더래야.

또 워디 만큼 가니께, 까치들이 집을 짓느라구 막 삭정이를 따구 야단을 허구 그러넌디,

"까치야 까치야 구렁덩덩신선비 가는 거 봤니?"

하니께

"삭정이 한 건[1]만 따 주면 일러준다."

하더랴. 따 주니께,

"저 너머 깍정깍정."

그러더래야. 〔채록자 : 뭐라구요?〕 "저 너머 깍정깍정" 그러니께 저 넘어루 갔단 말이지.

또 거기를 월만큼 가니께, 워떤 할머니가 빨래를 한 소락지[2] 검은 빨래 흰 빨래를 놓구서 빨래를 허더래유.

"할머니 할머니, 여기 구렁덩덩신선비 가는 거 봤시유?"

허니께 검은 빨래 희게 해 주고, 흰 빨래 검게 해 주면 일러준다고 허더래유. 그런께 얼마나 어려울 텨. 그러니께 그거를 다 해줬대유. 검은 빨래 희게 해주구 흰 빨래는 검게 해주구. 그래서 다 해주니까 할머니 말이, 복주깨(주발 뚜껑)하나 하고 젓가락 하나를 주면서,

1) 나무할 때 솔가리나 또는 풀을 갈퀴와 손으로 한 번에 껴안을 정도의 양.
2) 모양이 굽 없는 접시처럼 된 넓은 질그릇. 독의 뚜껑으로도 쓰고 그릇으로도 쓰임.

"이놈을 타고 저 샘으로 노를 젓고 들어가면은 여염집에 풍경을 단 큰 부잣집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서 글방을 열고 글을 가르치고 있을 테니까, 가서 동냥을 좀 달라고 하면은 동냥을 줄게여. 동냥을 주거들랑 그것을 받지 말고 채틀어서 홀려서 그놈을 줍다가 그 집에서 묵으면은 신랑을, 구렁덩덩선비를 만날 수 있을 게다."

그래서 그 빨래를 다 해주니까 은복주깨하고 은젓가락하고 주더래유.

그늠을 타구서 들어가니께 참 집이 있더래유. 그래서 동냥 좀 달라구 허니께 쌀을 한 복주깨 주더래유. 그늠을 받는 척하다가 쏟아 놓구서 그늠을 앉아 주섰대유. 주스니께 그때나 이때나 식모가 있던지 처녀가 나오더니,

"저 아주머니 동냥 주니까 엎어놓구 그것만 줍구 앉아 있어. 그걸 언제 줍구 가지?"

그러구 들어가더래유.

그렇게 해서 게서 줍다가 어두웠는데,

"어둡기는 하고 하루저녁 유해 갈까요?"

하니께,

"아이, 잘 데 없다구."

"아무 데도 좋아유. 그저 헛간도 좋고 마루도 좋고 아무데도 좋아요."

그러니께, 아이구 거기서 잊어 버렸네〔옆에 앉아 있는 이 화동씨를 가리키며〕. 자네 하게.

〔채록자 : 거기서 하룻밤 재워주는 거 아니어요?〕 그렇지, 잤는데 저녁에 워치게 해서 만났다고 해지?〔잠시 생각〕

〔채록자 : 그날 저녁이 구렁덩덩신선비 장가 가는 날 아니었나요?〕

〔이 화동씨 : 아녀, 장가갈 리가 있나? 그냥 만났을 테지.〕

〔잠시 생각하다가 이야기를 계속한다.〕

저녁에 게서 자는데, 구렁덩덩신선비가 달은 밝구 허니께 나와서,

"저 달은 고향의 내 마누라두 보것구만 나는 못 보것다."

하니께 그 마누라가,

"에, 저 달은 구렁덩덩신선비두 보것구만 나는 못 보것다."

〔옆의 이 화동씨 : 응, 맞았어. 그랬어.〕

서로가 그러느라니께, 신랑이 이상해서 그 소리를 계속하니께, 마누라도 그 소리를 계속해서 서로가 만나가지고서 인저 그 얘기를 했다느먼 그려.

서로 이야기를 하고서 남자가 게서 얻은 마누라하고 둘을 앉혀놓구서 그랬다데.

"산 호랑이 털을 석 주먹을 뽑아오면 누구든지 데리고 산다."

그러고,

"산 참새떼가 올라앉은 나뭇가지를 꺾어오면은 데리고 산다."

고 허구, 인제 또 뭐어, 〔잠시 생각〕

〔채록자 : 물동이를 이고 얼음판 위로 걸어 오라는 것은 없어요?〕 응, 동이 밑 빠진 데다가, 그

런밴(더구나) 겨울인디,

"얼음판 위를 목신 신고 물 한 방울 안 흘리구 물을 이어 오면 데리구 산다."

고 하는디, 게 가서 얻은 마누라는 찔딱찔딱 물을 흘리구 오는디, 이 이는 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게 사뿐, 얼음판에도 그렇게 해다 놓고, 인저 참새떼 앉은 나뭇가지를 꺾어 오라니께, 그이는 들구 돌아다니며 죄 날려보내도 이 이는 조잘조잘 붙은 놈 꺾어다 놓구 허라는대루 다 해다 놨는디, 산 호랑이 털 그게 문제거든. 〔채록자 : 호랑이 털이예요, 눈썹이예요?〕 응 눈썹이라데.

그래 워디 만큼을 가느라니께, 워떤 산 속에서 참, 할머니가 베를 들구 짜싸터라느먼 그류. 사실 얘기를 다 하니께,

"그럼 내 치마 밑에가 숨어 있으라구. 베짜는 치마 밑에 숨어 있으면 아들들이 와서 '오머니게서 인내 나네, 인내나네' 할 게여. 그래도 아무 소리도 말구 있으라구."

그래서 감춰 있으니께 워디서 큰아들이 오느라구 '후탕탕' 하더니 들어와서,

"오머니게서 인내 나네."

"응, 저놈의 새끼 별소릴 다 허네. 네 눈썹에 진디 붙었다."

허구 한 주먹인가 하나를 뺐대유. 또 하나가 오너서는 또,

"아이구, 오머니게서 인내 나네, 인내 나네."

허니께,

"이눔 새끼 별소릴 다 하네."

허면서 또 눈썹 하날 빼구, 인저 셋째가 와서 또 그러니께, 또 하나를 빼구 그래서 시 갠가 석 주먹인가를 뺐대유. 그렇거구서 또 나갔슈 사냥질을 허러. 갔는디 그늠을 주면서,

"큰 등성이를 넘으면 큰 아들이 '여보! 여보!' 부르면은 뒤도 돌아다보지 말구 가구, 두째 등성이 넘어갈 적에 또 부르면 '여보, 여보' 하거든 돌려다두 보지 말구, 또 그러거든 돌려다두 보지 말구 가라."

구 그러더래유 노인네가. 〔채록자 : 뭐 주는 것은 없었어요? 병 같은 것을 주면서 좇아올 때 던지구하라구〕 그거는 여수(여우) 할메 얘기할 때는 들었어두 뭇 들었어유 그 얘기는, 〔채록자 : 그대로 계속 하세요〕

그래서 가지구 가니께 기이는 워서 퇴끼털, 돼지털을 뽑아다 놓구, 그이는 호랭이털을 뽑아다 놓으니께,

"이게 내 마누라다."

그러구서 데리구 살더래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10 : 35~52
구 연 자 : 문 계완(여, 46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단곡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온성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채록 방법,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곳 : 본적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기억 못함.
구연 경력 : 처녀 때 삼 삼으면서 수차 했고, 결혼한 후에도 몇 차례 했음.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134. 정신을 차려야 산다

T 서산읍 잠흥리 ②—A면

***줄거리**

옛날에 세 여자가 목화 도부 장사를 하러 다니다가 날이 저물어 산 속 외딴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 집은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으로 이 여자들을 잡아 먹으려 하였다. 세 여자 중 두 여자는 이를 눈치채고 도망하여 살았으나 한 여자는 잠이 깊이 들어 도망을 하지 못해 죽고 말았다.

옛날에 워떤 아주머니 세 분이 참, 목화 도부를 갔었대유. 목화 도부를 갔는디, 워디만큼 가서는 목화를 도부해 가지구는 인저 세 분이 오넌디, 해는 저물어서 어둡기는 헌디, 당체 올 수가 없어서는 오는디, 산골에 불이 반짝반짝 허더래유. 그래서, 어둡기는 허구 저기 가서 하루 저녁 자구 가자구, 가서, 인제 그 집에 가서,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찾으니께 아주 록샥꾸 되는(뚱뚱한) 남자 하나가 나오더래유. 가슴은 썸뜩(선뜻)한디 찾었으니께 안 들어갈 수는 없구. 들어오시라구 반갑게 환영하는디 들어가서 인제,

"목화 도부 갔다가 해는 저물구 하루 저녁 자구 가자구 왔읍니다."

그러니께, 들어오라구.

들여다 놓구 밥을 헤다 주넌디 아주 뭇 먹을러래유 그냥. 밥이라는 거는 매지미(통버)섞어 반이구, 국이라는 거는 사람 잡은 선지국이구, 비린내나구 당체 뭇 먹을러래유. 그걸 보니께 죽은 목숨이어서 그냥. 그런디 하나는 어린애를 배어서 만삭되어 가꾸, 귀한지(귀까지) 먹어 가꾸서는 참 볼 수 웁넌디, 그렇게 해서 먹는 체하구 자리 밑에다 말짱 쏟아넣구서 상을 내보내구서 있넌디, 밖에서 두런두런해싸며, 순전히 그게 도깨비 집인지 용천백이(문둥이) 집였던지 그냥 죽은 목숨일러래유.

그래서 인저 자라구 해서 자는 척하구 드러누워 있으니께는, 귀먹구 어린애 밴 이는 세상 물르니께 그냥 드러누워 잠들어 자구, 그이들 들은 아주 고민을 허구 무서워서 잠두 안 오구 눈이 되란되란(또렷하게) 있넌디, 참 두런거리구 허더니, 칼가는 소리두 허구 아주

그 야단을 허는디, 영 무섭기는 허구 죽은 목숨여서 가만히 있는지 영 둘러봐두 문으로는 못나가겠구, 나갈 궁리를 허넌디 큰일 났더라느먼 그류.

그래서 이렇게 둘러 보니께 창 구녕이 하나 있넌디, 거기루 나가야 할 텐디, 영 하나를 꼬집어 뜯어두 안 일어나구, 그냥 꼬집어 일세두 안 일어나구 큰일 났더라느먼 그류. 그늠 깨우다가는 자기네들두 생명이 위태로운디, 둘이는 워트게 창문을 쥐어뜯구서는 간신히 빠져나가서는, 산골이가서는, 산골의 무슨 큰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는 감춰 있느라니께, 쪼금 있으니께, 가만히 게서 듣느라니께, 아이쿠 이년들 다 나가구 하나 남았다구. 불을 켜구서, 내려다 보니께는 찾느라구 훼면(사면)을 둘러다보면서 찾는 소리 허구 그 야단을 허더니, 한년 남은 거, 저년마져 도망갈깝 무서워 저년 먼저 처단허구서 찾아나가야 헌다구 들구 두런거리구 허넌디, 참 이 여자들은 더 도망갈 수두 옵구, 나무 꼭대기가 올라 앉아 있넌디 영 큰 일 났더라느먼 그류.

그래서는 인저 그 여자는 잡는지 워쩌는지 죽는 소릴 허구 야단을 허구 허넌디, 그이들은 거기가 그렇게 하구 있다가니 그 여자 잡는 새에 도망가느라니께, 밤중이 지났는지 닭 우는 소리 허구, 나뭇군이 지나가구, 사람 살리라구 막 도망을 허니께는 쫓아오다가 그냥 도망을 가구, 그이덜은 나무장사덜 때문이 살아나서 잘 살았대유.

채록 일시 : 1974. 1. 12. 오후 10 : 52~10 : 55
구 연 자 : 이 화등(여, 41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역대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홍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5. 소가 된 욕심장이

T 서산읍 잠홍리 ②—A면

*줄거리

옛날 부지런하고 착한 총각이 나무하다가 산 속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소가 되었는데, 무우를 먹고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가 그 산 속에 가보니 돈이 쌓여 있어서 그걸 파다가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웃의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사람처럼 했다가 아주 소가 되어 일만 하다가 죽었다.

옛날에 워떤 총각이 가난한 집에서 사넌디 아주 가난해서 30먹도록 나무장사만 허구 살었대유. 그 총각이 그날두 참 나무를 하러 갔는데 갈퀴를 하나씩 긁으면서 솔걸(솔잎)을 긁으니께 개암이 하나 뚝 떨어지더래유. 그래서,

"아이쿠, 이놈 우리 아버지 갖다드려야겠구먼."

그러구서 호주머니다 넣었대유. 그러구서 또 긁었더래유. 그런데 또 하나이 떨어져유.

"이늠일랑 우리 오머니 갖다드려야것구먼."

그러구서 호주머니에 넣었다느먼. 또 긁으니께 또 하나가 나와서,

"이놈은 내가 먹어야것구먼."

그렇게 하구서 나무를 한 지게 해 놓구서 인저 집에 갔대유.

이튿날 산속으로 인저 또 갔대유. 나무를 허러. 갔는디 워떤 할메인지 뭔지 하얀 할메가 오더니 바가지작을 딱딱 뚜드리면서 저기 하늘 좀 보라구 하더래유 총각 보구서.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니께 그 사이에 등허리를 탁치면서,

"이러이소."

그러더래유. 그러니께 아 삼십 먹은 총각이 홀딱 소로 변했대유.

그래서 그 소를 팔러 가더래유. 속은 사람인디 거죽은 소가 되가꾸. 소 팔러 가는데 동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엉엉'하구 동네 사람을 부르면,

"에 그 소 좋다."

그러더래유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니 큰일 났더래유. 할 수 없이 그 할메한테 끌려서 장에를 갔는데 워떤 사람이 소를 사더래유 자기를. 세상에 동네 사람보고 말을 하니 알 바 없이,

"에 이늠의 소 좋다."

이 소리만 하더래유. 그런디 그 할메가 팔 때 메라구(뭐라구) 허느냐 허면 이 소일랑 무를 먹이지 말라구 그러더래유.

갖다 외양에다 맸는디 식구들이 소 구경을 나오면서,

"에 소 좋은 놈 샀다."

고 그러는디, 소 사온 주인이 그러더래유.

"이 소 무를 먹이지 말라구 했으니께 무일랑 먹이지 마라."

그런데 쬐그만 애가 가을이나 됐던지 무우를 먹다가, 이렇게 쑥 뽑아서 무우하구 잎사귀를 거꾸루 들구 먹다가 소가 그걸 먹을라구 헤저으니까,

"엄마, 이놈의 소 좀 보게. 이 무우 먹구 싶어서 그러느먼."

하더니 먹던 무우를 홱 집어던져서 주더래유.

아이구, 그늠 갱신이(간신히) 안 닿는 거를 먹구나니께 참도루 자기가 그 허물을 벗구서 참 사람이 되더래유. 그래서 집에를 갔다느먼 그류. 고삐 뭐를 다 벗어 버리구. 가니께,

"아이구 나무 갔다가 워치게 인제서 오느냐?"

고 그 부모덜이 아주 삼십 되더락 장가 뭇 들인 게 원인디 워디루 가서 안 와서 큰 걱정을 하다가 오니께 참 좋아하면서,

"세상에 이게 웬 일이냐?"

고 해서 그 사실 얘기를 했다느먼 그류.

그러니께, 그 산에 좀 가 보자구. 산에 가 보니께 세상에 원 돈을 참 무데기 무데기 쌓아 놨더래유. 우뚝우뚝 틔어났넌디, 그늠을 파가꾸 가서, 잔뜩 가꾸 가서 장가두 들구 땅두 사고 잘 하구 사넌디, 이웃집 워떤 남자가,

"자네는 가난해서 항상 나무장사만 해 먹구 살더니 워치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그래서 인저 사실 얘기를 했대유. 그러니께,

"나두 나무나 하러 가야겄다. 그 산으루."

나무를 참 그 산으루 하러 갔대유.

그러니께 아니나가나 개암이 하나 툭 튀어 나오더래유.

"어이쿠, 이놈은 우리 마누라 갖다 주어야겠구먼."

호랑(주머니)에다 넣구, 또 굵으니께 또 하나가 툭 튀어나오니께,

"어이쿠 이놈은 우리 아들 갖다 주어야겠구먼."

또 굵으니께 하나가 또 나오더래야.

"에이꾸, 이늠은 내가 먹어야겠구먼."

또 양중에(나중에) 튀어 나오니께,

"아이꾸, 이늠은 우리 아버지 갖다 주어야겠구먼."

그렇게 했대유. 그렇게 하니까 아니나가나 참 워떤 하얀 할메가 오더니 참 저기 좀 쳐다보라구 하더래유 하늘을. 쳐다봤다느먼그류. 그러니께 "이터이소" 하더래유. 홀딱 자기두 참 소루 번했거든.

아이구 큰일 났어 그래두 자기는 들은 소리가 있으니께 자기두 그렇게 해가지구 그 사람처럼 부자 좀 돼 볼가 허구. 소를 인저 팔러 가더래유 장으루. 그래서 인저 장으루 끌려서 갔는디 워떤 사람이 참 사더래유. 사넌디 그 할메 말이 그때 그 사람처럼 무 먹이지 말라 소리두 않구 아무 소리두 않더래유.

그래서 인저 팔러 갔는디 소루 생전을 변색해서 그 사람은 일만 허구 그저 그랬다너먼그류. 그렇게 해서 소가 되여 일만 하다 죽구 그 사람은 부자 되어서 잘 살았드래유.

채록 일시 : 1974. 1. 12. 밤 10 : 55~11 : 03
구 연 자 : 김 영완(여, 42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가사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서산읍 잠홍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채록 방법,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청중 반응 : 마음을 곱게 먹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곳 : 본적지
처음 들려준 사람 : 친정어머니

구연 경력 : 한 두 차례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36. 바보 신랑

T 태안읍 남문리 ①—A면

*줄거리

옛날 어떤 바보가 장가를 들었는데, 하루는 처남이 온다고 하자, 그 아내가 남편의 불알에 끈을 매고 한 번 흔들면,

"부모님들은 안녕하시고?"

두 번 흔들면,

"모든 집안 식구들은 잘 있고?"

세 번 흔들면,

"주택은 깨끗하고?"

하고 말하라고 일러 두었다.

처남이 와서 시키는대로 잘 했는데, 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아지가 그 줄을 흔들자 남편은 자꾸 그 얘기만 반복했다.

처남은 매부가 실성했다고 놀래서 도망갔다.

옛날에 어떤 바보가 똑똑한 신부에게 장가를 들었읍니다. 신부는 매우 똑똑한데 신랑이 똑똑치 못해서 항상 바보 노릇만 하구 다녔어요.

하루는 처남이 온다구 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생각하니 큰일 났어. 자기 남편은 보나마나 망신만 당할 것 같구. 대책을 세워야 되겠단 말여. 그래서 한 꾀를 냈어.

아내가 가만히 생각한 후 남편을 아랫목에 앉혀 놓구 끈을 옷 속의 불알에다 매어놓구 부엌쪽 벽을 뚫고 부엌으로 통하게 해 놨어요. 그러구서 이렇게 시켰어요.

한 번 흔들면,

"부모님들은 안녕하시고?"

두 번 흔들면,

"모든 집안 식구들은 잘 있고?"

세 번 흔들면,

"주택은 깨끗하고?"

하구 말하라고 시켜 뒀읍니다.

그런데 드디어 처남이 왔읍니다. 처남이 오면서 생각하기를,

'매부가 매우 미련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서 반은 궁금하고 반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찾아왔읍니다. 찾아와서 딱 들어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니까 부엌에 있던 아내가 흔든단 말여. 흔들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안녕하시고?"

"예."

하고 대답하구서 가만히 생각하니 인사를 그럴듯하게 잘 헌 단 말여.

'야 소문과는 다르구나.'

가만히 있는데 또 혼들려.

"집안 식구들은 잘 있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하니까 또 혼들려.

"주택은 다 깨끗하고?"

"예."

하고 대답하고 처남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아주 그럴듯 하단 말여. 그러니께 부인이 혼들건 다 혼들었어 그래서 헐말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여.

아내가 장독으로 꼬치장(고추장)을 푸러 잠깐 간 새에 강아지가, 그 집은 부뚜막에서 조그만 강아지를 기르는데, 밥 짓는 부인이, 아까 보니까 그 줄을 혼드는 걸 봤거든. 그래서 그 끈을 입으로 물구 가만히 혼들었어. 신랑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또 소식이 온단 말여.

"부모님들은 안녕하시고?"

처남이 들으니께 또 헌단 말여. 그렇지만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구 "예"하고 대답했거든. 그런디 자꾸 혼들려. 그러니,

"집안 식구들은 다 잘 있구? 주택은 깨끗하구? 부모님들은 안녕하시구?"

"집안 식구들은 다 잘 있구? 주택은 깨끗하구?"

연상 그것만 말헌단 말여. 처남이 들으니께 끝을 안 내여. 처남이 실성했다구 놀라서 신발 두 안 신구 도망가더라는 얘기유.

채록 일시 : 1971. 8. 21. 오후
구 연 자 : 최 재영(남, 18세, 태안고등학교 2년 재학, 채록자의 당질)
본 적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상황 : 채록자가 종형을 만나러 가서 당질인 구연자를 만나서 들은 것임.
청 중 : 채록자의 모친과 동생, 구연자의 모친과 동생
청중 반응 : 함께 웃으며 재미있어 함.
처음 들은 때 : 어렸을 때
처음 들은 곳 : 본적지
처음 들려 준 사람 : 조부 최 병준씨
구연 경력 : 한 두 차례
제 목 : 구연자가 말한 것임.

137. 단 방귀 장수

T 태안읍 남문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착하고 부지런한 나뭇군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홍시를 주워 먹었다. 그가 홍시를 먹고 나자 단방귀가 나왔다.

그는 그 방귀를 팔아 돈을 받았다. 원님이 이를 알고 그를 불러 방귀 냄새를 맡아 보니 참으로 좋았다. 그는 원님한테 큰 상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이를 안 욕심장이는 콩을 볶아 먹고, 찬물을 먹은 다음에, 방귀를 팔러 나갔다가 망신만 당했다.

옛날에 어느 산골에 나뭇군이 살고 있었읍니다. 그 나뭇군은 착실하고 일은 매우 잘하나 집이 가난해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그것으루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었읍니다.

하루는 감자 몇 알을 싸가지고 깊은 산 속으루 나무를 하러 갔읍니다. 깊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갔는데, 나무를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곳에 와 있읍니다. 그런데 배도 고프고 해서 두리번거리며 둘레를 살피니, 저쪽 조금 떨어진 곳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때는 감이 다 떨어지구 홍시 하나만 달랑달랑 매어달려 있단 말이요. 그래 그 감나무 밑에 가 이걸 쳐다보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구 들어 누었어.

그래서 한참 있노라니까,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기 시작하니 감이 흔들흔들 하다가 뚝 떨어지는데, 입 언저리에가 떨어지거든. 그 감이 얼굴에 떨어져서 으깨진 것을 배 고프던 참에 핥아 먹어 보니까, 참 달거든요. 그걸 다 핥아 먹고 그 감나무를 또 쳐다보니, 감은 하나두 없구 한참 있으니까, 배가 이상하더니 방구가 나거든요. 그런디 그 방구 냄새가 참 좋아. 한참 있으니까, 배 속이 이상하더니 방구가 또 나와. 또 그런 냄새가 나는디, 기가 막히게 좋은 냄새여.

"암만 해두 이상하다."

하구서 배를 만지면 만지는 대로 방구가 자꾸 나와. 그래서 나무하던 걸 집어 치우구서 사람덜 모인디루 가서,

"방구 사시오."

하구 소리를 질르거든. 그러니까,

"미친 놈 다 봤네. 방구 팔러 다니는 놈이 다 있어."

하면서 쳐다두 안 보거든.

"한 번씩 맡어 보구 사시오."

그러니께, 사람들이

"이상허다."

하구 모여 서니까, 배를 슬쩍 누르니 방구가 나오는데 냄새가 그윽하게 풍기는데, 참 좋거든. 사람들이 이상하다구 돈은 주면서 또 해 보라구 하면서 한 번 더 끼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돈을 받으면서 방구를 파는디, 그 소식이 그 고을 사또에게까지 들어 갔어. 그 사또는 향기로운 것을 좋아해서 방에다가 향기롭다는 것은 다 진열해 놓구 사는 사람인디, 그 소식을 듣구는 불러 오라구 한단 말여. 그런디 그 문직이도 참 좋아해. 그래서 들어 갈려고 하는디,

"잠깐 나 좀 봅시다. 나한테도 한방 주구 가라."

구 그러거든. 그래서 코를 이리 대라구 하구서 살그머니 냄새를 쫙 풍기니까 정신이 없어서 멍허니 서 있을 때 그때 쑥 들어갔어.

사또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구서 얼른 끼라구 했어. 배를 눌르는대로 방구가 나오거든. 그 방안이 향기로 가득 찼어. 그러니께 사또가 좋아서 많은 돈과 땅 같은 걸 주었어. 그걸 가지구 집에 와서 나무두 않구 먹구 노는 거여.

마침 그 이웃에 같은 나뭇군이 살았는데, 성질이 아주 고약하구 좋지를 않해. 일두 잘 않구, 남의 꺼나 등쳐 먹구.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고 묻거든. 가만히 있다가 장난하고 싶은 생각이 나. 그래서,

"콩 한 되를 살짝 볶아서 찬물하고 섞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은 냄새가 난다."

고 일러 주니께, 좋다구 집에 와서 콩을 한 되 볶아 놓구 찬물허구 섞어 먹었어. 그러니 오죽할 꺼여. 그게 뱃속이 꾸룩꾸룩 이상하거든. 소식이 있단 말여.

"야, 이거 나도 돈 벌었다."

하고 나올려구 하는 것을 꾹 참고 밖으로 나와서 사또 있는 관청 앞에 가 소리를 질렀어.

"방구 가져왔다."

하구. 사또하구 수문장 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전에 방구가 아주 향기롭고 좋았던 생각이 난단 말여.

"얼른 불러 들여라."

했거든. 그러니까 수문장이 이 사람 보구,

"그때두 어떤 사람이 방구 팔러 와서 나한티 주구 갔다. 그러니 나한티 먼저 슬쩍 주구 가라."

구 그러니께,

"안된다."

구 허면서 들어갈려구 하는 걸 들어가니께, 사또두 토방까지 나와서 기다리구 섰거든. 그래 이 사람이 수문장 보구 코를 바짝 대라구 하구서 급하던 참에 있는 힘을 다해서 '꽁' 했거든. 그러니까 소방소 호수처럼 쫙 나가더니 그 수문장 얼굴에다가 뒤집어 씌웠어.

채록 일시 : 1971. 8. 21. 오후
구 연 자 : 최 재영(남, 18세, 태안고등학교 2학년 재학, 채록자의 당질)
본 적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남문리 2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38. 연과 간부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옛날 어떤 꼬마가 연을 날리는데, 연줄이 끊어져서 어떤 집 지붕 위에 떨어졌다. 그런데, 연을 내리다가 들으니, 곧 시집간다는 그 집 색시와 웬 총각이 얘기하기를 첫날 밤 신랑을 죽인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꼬마는 그 처녀가 혹시 자기 형수가 될 여자가 아닌가 하여 형이 장가가는 날 따라갔다. 그는 신방 앞에 숨어 있다가 소리를 질러 형을 구했다.

옛날에 한 촌에서 삼형제 사는 집인데 꼬마 동생, 어린 동생들이 연을 띄웠다 그거여. 그런데 그 큰형이 약혼을 해놨어요. 옛날엔 그 부모네가 맺어주었지 연애나 이게 없었겨든. 〔채록자 : 그렇죠〕 맺어줬는데, 그렇게 약혼을 해놨는데, 그 꼬마 동생들이 연을 띄우는데 끊어졌어요, 연이. 끊어져서 어딘가 날라갔는데, 그러니께 꼬마들은 알지도 못허지. 그런저런 사실을 몰르지. 떨어졌는데 어떤 지붕(지붕) 위에 가서 떨어졌어. 그래서 막 좇아가서 그걸 인자 내릴라고 가만히 이렇게 막 울타리 있는 데 갔는데, 그러니까 옛날은 촌에 가면 이런〔밖의 블록 담을 가리키며〕 담을 쌓지 않고, 싸리로 이런 울타리를 했어, 나무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께 어떤 참 떠꺼머리 총각허고 어떤 처녀허고 둘이서 소근댄단말여. 해는 어슬어슬 져가는데. 그래서 이 꼬마가 연대로 연을 내리려 가다가 멈춰서 가만허 그것을 엿을 들었단 말여. 엿들으니께 아 시집갈 색신데, 좋아하는 그 총각허고 약속을 허는 거여, 엉?

"낼모레 시집은 가야 되는데 너와 나 사이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이걸 갖다 둘이서 주고 받고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날 밤에 당신이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그 남자를 해치는 수밖엔 현명한 방법이 없다."

응, 그 처녀가 하는 얘기가 딱 그렇게 나오더라 그거여.

"그런 줄 알고 난 간다."

그러구서, 헤어진 거 보구서, 처녀도 인자(이제) 집으로 쓱 들어가고 그러니께, 어떻게 해서 그 연줄을 맹겨서 내려가지고 집으루 왔어. 와서 또 연을 띄는데 역시 떨어지면 꼭

그 집에를 가서 멀어진다 그거야. 그러니껜 이 어린 놈도 생각이,

"이게 연이 왜 하필 이집 지붕 위에만 떨어지느냐?"

집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안했어요. 총각 처녀 얘기 들은 얘기를 일절 안했어. 그러구서 뜨 역시 그 연을 메다가 또 그 연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형이 장가갈 날에 닥쳤어.

그러니께 동생이 먹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졸르기를,

"아버지, 후행은 제가 가겠읍니다."

이런단 말여. 그러니께 사둔될 집은, 형수될 집은 어느 집인지 알지도 못허고 인자 무조건 그 집에, 형 장가가는데 후행은 자기가 가겠다 그거여. 잉. 꼬마 얘기가 그렇단 말여. 깜찍스런 얘기거든 이건. 응, 아주 천진난만한 놈이 후행간다니, 형 뒤를 쫓는다니 말야. 이건 당체 말도 안되거든. 그러니께 가만히 생각허니껜 그 분도 참 배웠던지 어쨌던지 하도 그 말뜻이 깊어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다. 어떠튼 후행은 딴 사람이 가되 명칭은 애를 후행으로 해서 보내라."

그래서 떠억 보냈는데, 참 첫날밤에, 옛날은 첫날밤이라면 일부러 이 문구녕을 뚫고봐야 응, 그것도 한 예방이라 해가지고 그걸 일부러들 그렇게 했댔어. 우리 장가들 때만 해도 그랬댔어요. 아, 다, 인자 이참, 신부측, 신랑측, 그 동네사람들이 일부러들 엿들 보고 이러다 밤이 이슥허니께 그대로들 가정(家庭)으로 다 갔단 말여.

헌데 이 꼬마가 보니껜 자기 연 떨어졌던 집이다 그거여. 잉. 이 꼬마가 들은 소리는 있고 그러니께 거기서 바짝 관심을 두고서 다 가기만 바라고, 자기가 엿을 보는 거여, 잉.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을 타서 엿을 보니껜, 과연 자기 형은 자는 기색이 완전히 자기 눈에 띄었다 그거야. 그런데 처녀가 썩 일어나더니 뭐라고 하니까, 병풍 뒤에서 그 총각놈이 팔뚝을 걷어붙이고 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그런데 문을 후당탕 열면서,

"형 일어나라."

고 꼬마가, 동생이 그러니께 형이 일어났거든. 아, 그놈은 벌써 자기가 탄로났으니께 자기 칼로 자기가 찔러서 죽었단 말여.

그래서 옛날부터, 그 때부터 연이 지붕 위에 떨어지면 그 집안이 좋지 않다는 거여, 그렇게 해서.

'연이 지붕 위에 떨어지면 그 집안이 좋지 않고, 또 그 연이라는 게 잘 올르고 이렇게 하면 그 연 올리는 사람 신수가 대길하고 건강이 좋다.'

하는 미신에 관한 얘기지. 그렇게, 전설이 그렇게 내려왔대요.

채록 일시 : 1979. 12. 27. 오후 5시
구 연 자 : 고 좌생(남, 49세, 상업, 중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삭선리

채록 장소 :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 김 용섭씨 댁(구연자의 처가)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채록자는 경희대학교 김 태곤 교수로부터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에 사시는 김 용섭씨(남, 72세, 김교수의 당숙)와 김 노인의 부인 정씨 및 같은 마을에 사시는 김노인의 큰 따님 등이 이야기 잘하시니 찾아가 보라는 권유를 받고 경희대 대학원 학생 이 복규, 국제대 국문과 학생 김 기창, 이 재걸, 장 장식과 함께 찾아 갔으나 김노인의 부인 및 따님은 타지역에 출타하셔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노인과 마침 이곳을 방문했던 김노인의 작은 사위 고 좌생씨와 이야기판을 벌여 6편을 채록하였다.
청 중 : 김 기창, 이 복규, 이 재걸, 장 장식, 김 용섭씨
처음 들은 때 : 20년 전
처음 들은 곳 : 본적지
처음 들려준 사람 : 김 용섭(장인)
구연 경력 : 없음.
제 목 : 채록자가 붙였음.

139.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장가 간 첫날 밤에 변소에 갔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갔다. 그 때 부엉이가 와서 호랑이 새끼를 잡아 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어미 호랑이는 부엉이를 쫓으려고 저쪽으로 갔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은 호랑이 새끼를 죽이고 도망을 했다. 다시 뒤쫓아오는 호랑이를 피해 어느 처녀가 공부하고 있는 초당으로 들어 갔다. 거기서 두 사람은 혼인을 했다.

얼마 후, 그 사람이 장가갔던 집을 찾아가서 그간의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은 아내가 둘이 되었으므로 누가 정실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때 그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 판결하기를,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因緣)은 천연(天緣)이고, 사람이 맺어준 인연(因緣)은 인연(人緣)이니 그리 알라.'

고 했다.

거짓말이나 하나 허야겠네. 이전이 어떤 분이 아들 혼사가 있어. 그래 인자 정혼을 허는디, 거 중매자가 있고, 중매자가 와서 일일이 조사를 혜서 얘기를 혜주니께,

"그려냐. 그러면, 거기서 합당허니 나 그로 자식을 정혼허겠다."

그려서 정혼혔어. 뭐 어렵잖게. 딱 정혼을 혔는디, 이제 대사 지낼 날이 닥쳤거든. 장개(장가) 보냈지 뭐, 어떻게 혀. 별 수 있나?

"가서 머시, 네 마음대로, 예의라는 것은 네 맘대로 잘 거행하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다 말여. 가서, 장가가서, 아, 훌륭한 집여. 가 보니께. 그 집이서 잘 참 혼사를 아주 지켜서 잘 혀 주거든. 그래 갖고서, 해가 다가고 일모(日暮)허니께, 저녁에 이제 그 동네 사람이라든지 원, 오너서 놀다가 다 떠났다 말여. 떠나고서는 들어가서, 신부의 방에 들어가서 앉었으니께, 느닷없이 웬 뒤가 마려 똑 죽겠어.

"여보, 나 지금 뒤를 보야지, 안 보며는 큰 실례를 허게 생겼소."
그러니께 등 하나를 써 주거든. 이렇게 〔등불 드는 시늉을 함〕
"등불을 들고 요기 나가면 어린 아이가 있을테니 걔를 앞세우고서 나가 보쇼."
변소 일러주는 거여, 그게. 아이를 인제 따러서, 본인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변소 문 앞이 가서 떡 놓고서,
"여기서 대변허라."
그러구서 덜렁덜렁 들어가 뻐리네. 아 그러니 머 무슨 상관이 있나 머. 남자가 넘의 변소에 들어가기 좀 실례지만 대략 일러줬으니께.
거길 들어가서 뒤를 보느라니께 인제 배깥이서 무슨 재치(자취)가 있어.
'아 이게 무슨 재친가?'
하고서는 얼른 추석추석 귓말을 걸어치고서는 나갔지. 나가니께 그저 느닷없이 '휙'하더니마는 채갖고 가넌디 어디로 가넌지를 몰르겄어. 이겨 그러니 머, 그렁께 웅쳐 붙들기는 그 짐승의 갈기를 훙쳐 붙들었단 말여. 붙들고서는 그놈이 가는대로 헐 수 없이 갔지. 한없이 가. 그 높은 산으로 겨 올라가선, 산 위에 올라가서, 아 이놈이 큰 이저 뭐시 있는디, 굴구녁이 있는디, 고 앞이 갖다가 턱 내려 놓거든. 그러니 밤에 캄캄한 밤에 내려놓으니 머 동서분별 못허고, 요 어떻게 참 능소능대(能所能大)를 못허겄단 말여. 그래도 이왕이 저놈한티 죽기는 죽었어 허넌 것이. 잡어먹덜 않고 갖다가 굴 앞이다 갖다 놀 적이는 암만혀도 이상헌 일이니 내가 좀 딜여다(들여다) 본다고. 가만가만 그놈 기여 들어가는대로 들어가 보니께 그저 좁아 빠진 놈의 구녕인디, 들어 간단 말여. 들어가더니마는, 게 가서 인제 아, 그 새끼들이 잔뜩 있어. (새끼를) 으르렁거리니께 새끼가 모두 기어나오거든. 그러니 그겨 안됐어. 워치게 헐 수가 없넌디, 나오고서는 어떻게 허는고 허니, 그 이 저고리를 걷어치더니마는 발톱으로 한 번 긁는단 말여. 피가 비치거든. 하! 이놈의 새끼들이 호랭이 새끼가, 그 괭이(고양이) 새끼 같은 게 피를 핥어 먹는단 말여. 이젠 죽었지 머. 꼼짝 못허고. 어떻게 헐 재간이 있나?
고 건너 마주짝 산이서 부헝이(부엉이)란 놈 하나가 오면서
"부헝!"
하 이, 큰 놈으 범이 와 가지고 펄펄 뛴단 말여. 그 범이 막 뛴단 말여. 부헝이가 그 호랭이 새끼를 막 잡어 먹거든. 펄펄 뛰고서는 또 '부헝'허먼 펄펄 뛰어갖고는 몇 발 가고 가고. 아 이놈이 줄곧 거기서 '부헝!' 허고 얼추 그 호랭이가 그 놈을, 그 놈 있는 디를 가게 됐단 말여. 가게 됐는디, 가만히 들어보니께 부헝이는 저 건너편으로 자꾸 돌아 가면서 울거든. 그러니께 이놈이 거기를 가는 모양여(모양이야).
"야, 이건 나 죽으나 너의 새끼 죽이나 일반이라."
고 네비(제길헐) 그 괭이 새끼같은 걸 그저, 그까짓 것 쬐그만 것 그것 뭐 피헐 줄을 알어? 막 패 죽였단 말여, 및(몇)대를. 원 및 마리가 됐던지. 패 죽이고서는 가만히 생각혀

보니께, 저놈이 부헝이허고 싸움허는 모양인디, 여기 있다가는 곧 저놈한티 인제 죽게 생겼거든.

'에이 그놈의 것, 가다가 죽으면 말지.'

허고는, 그 아래 하천으로 내려가넌 내가 있던디, 냇가시(냇가에) 질(길)은 났단 말여. 그루(거기로) 들고 자꾸 뛰었지. 한없이. 들고 뛰면서 들으니께, 저 짝(쪽) 모퉁이서

"부헝"

허고.

'옳다. 아직 저놈이 끌고 가넌구나. 어서 가자.'

싸게(급히) 인자 흠썬 얼마를 몇, 원, 몇, 몇 십리를 걸었던지, 죽어라고 걸었지 머. 걸어 뛰어 내려가다가 보니께, 저 건너 어떤 집이서 글소리가 나.

'오, 저게 저게 사람의 집이로구나! 내 저놈의 집이를 가야 살지, 게 못가머는 죽을 티니께, 어서 가야겄다.'

고 그냥은 두 손을 틀어쥐고서는 드립다가 (냅다) 건너가지. 건너 가너라니까, 아 이놈의 호랭이가 도로 회정(回程)혀서 그 새끼있는 디로 왔단 말여. 아 오더니 고함을 질르고, 다 뭐겼으니께 머, 그리고 그 사람은 없고 허니께. 고함을 "쾅" 질르고선, 어느 엉섭인지 그 냄새 말고 사람 가는 질 냄새 말고서는 뛰어오는 모양인디, 미구(未久)이 닥치게 생겼어. 그놈만 닥치면 죽었지 머, 별 수 있나? 그러니께,

'야, 이거 나도 좀 뛰어 볼 게라. 뛰다 죽더란대도 좀 뛰어볼 게라.'

고. 들고 뛰어서는, 그 글소리 나는 그 초당일 갔단 말여. 가면서 보니께 그 놈은 곧 거기 오고. 고함 질르고 오니께 알지, 그저 오먼은 알간디? 고함을 질르고 디리 오는디, 막 가니께는 그 초당이서 이렇게 〔손짓을 하며〕미달이를 참 닫고서는 앉었는디, 남잔지 여잔지도 몰르고 머 기억도 못허고서는, 그냥 문을 잡아닥뜨렸네. 〔언성 높여서〕 잡아닥뜨리고서는 냅다 들어, 몸뚱이를 드리밀면서 벌렁 자빠지고,

"사람 살리라."

고. 하 그러니,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헝게(생각하니까), 그 생전이 남자라는 것은 접촉을 안해 봤넌디, 이게 난데없이, 이게 밤중이 이게 남자가 이렇게 들었는디 보니께, 그저 보통 남자도 아니요, 이 저……, 머시 그 신랑이니께 달께(다르게) 어떻게 혔던 겨(했던 거야). 무언 사람이 오너서 '학' 허고 드러눠. 다 죽었어. 그런디 그 범은 거기서, 앞이서 으르렁거리고 좇아오는 기색을 보고서는, 문을 착 닫었지. 닫고서, 원 뭬라고 정소(呪言)를 혔던지,

"여기 범허지 말라. 감히 임자있는 사람을 네가 네 멋대로 할테냐?"

이 놈이 고함을 질르고, 지랄을 허고 헐 수 없이 가지 워치겨. 또 그 죽은 새끼나마나 그것 다 잊어 삐리먼 워치겨. 인제 고함을 질르고 도망을 헌다 말여. 한참 들으니께 저어기 가는 모양여. 남잔 죽었어 아주. 하여간 어떻게 허나, 사람을 살려야 헐테니께 살려 놓고

본다고. 거 부르 주물러서 깼단 말여. 깨서 이제 살렸거든. 살려 놓고,

"여보, 이게 어딘 줄 알고 들왔느냐?"

고.

"어디고 머이고 사람 살려주쇼. 나는 죽을 지경이어서. 예를 들어왔어."

그러면 그 얘기 좀 해보라고. 그렇께 그 얘기를 주욱, 그 장개 가던 얘기와 범한테 업혀가던 얘기와, 일이 틀림께 부헝이가 인도해 간, 가니껜 그 새끼 죽인 얘기를 다 주욱 헷단 말여.

"하, 그러냐고. 나는 남자라는 것은 통 상대를 안해본 사람여. 허지만 댁이 이렇게 남의 초당일 들어왔응께. 이거 헐 수 없는 경운디 헐 수 없다. 뭐 부모의 승낙 들을 것도 없고, 내가 잘못혀서 이런 것도 아니고, 허니께는 우리 약혼헐 수밖이 없다."

아, 그레서는 게서 인제 약혼을 참, 했단 말여. 아 그려 갖곤 그 이튿날부터 살어. 게서 하하하하…….

워니 날은

"내가 하여간 우리 집이를 좀 가봐야겄다."

"가보쇼. 가넌디(가는데). 그 처음 만난 부인, 그 부인을 한번 좀 봐야 헐 거 아니요?"

가만히 생각혀 봉께, 경위(경우)가 옳은 소리거든. 그리로 갔어. 그 집으로 가서 들어가니께, 하이고, 이 참 머 그 장모 누구가 나서며 우리 사위 왔다고 야단을 내고, 아주 참 반색을 헌단 말여. 그러니께, 인제 거기서 인제 에—, 그 신부지. 신부가 허기를,

"하여간 저분이 지금 양처(兩妻)가 있어. 양처가 있넌디, 나는 초처(初妻)고 그 지금 얻은 이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께, 했으니께.

"지금 얻은 이는 재취(再娶)로 이렇게 됐으니, 그것은 가려줘야겄다."

"하, 거, 부모가 있고 헌 사람이 그것 가려주기 뭐 어려우냐?"

"가만 있으라."

고.

"여기 거 그런 것 잘 알고, 아주 썩 그런 사주(四柱) 잘 내는 선생님이 있으니, 오라고 허라."

아, 어떤 놈이 얼마 있으니께 썰썰 겨 들어와. 들오더니마는 그 얘기를 주욱 허니께 들었단 말여. 듣고서는,

"호헤헤 흥. 여기 지금 처음이 장가온 이 새댁은, 새댁여 그게."

새댁은 헐 수 없이 적은(작은) 마누라가 됐다. 그러고 저기 가서 장가든 이는 큰 마누라가 됐응께 그렇게 결정혀서 허라."

고.

"그 어째 그러냐?"

고 허니께,

"저그 머시, 초당이 가서 만난 그 부인은, 그게 천정연분(天定緣分)여. 범이 아주 중매 허 줬어. 하하하……. 천정연분이고, 이 지금 댁내에 있는 이 신부는 인간이 서로 협조 허서, 정헌 부인이니께, 천정연분을 어찌 어길 수가 있느냐구. 그러니께는 암말도 말고 그렇게 에, 양처(兩妻)로다가 세상을 지내가라."

그래 그랬단 말여.

그러니께는 헐 수 없이 부모도 그대로 헷지, 뭐. 어쩡게 혀. 그래 혀 갖구서 살다가 죽어 뻐렸지. 하하하하.

채록 일시 : 1979. 12. 27. 오후 5시 15분경
구 연 자 : 김 용섭(남, 72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사랑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청중 : 앞 이야기와 같음.
처음 들은 때 및 들려준 사람 : 어렸을 때 어들른한테 들었음.
구연 경력 : 가끔 했음.
제목 : 채록자가 붙였음.

140. 대호의 병을 고친 포수

T 남면 달산리 ①—A면

*줄거리

예전에 어떤 사람이 포수 노릇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고 길을 떠났다. 한 고개에 이르니, 중이 나타나 그 사람에게 불을 좀 달라고 했다. 그가 성냥불을 주니 버리고, 버리고 하였다. 성냥불이 없다고 하자 그 중은 호랑이로 변하여 그에게 덤벼 들었다. 불이 없는 그는 총도 쏘지 못하고 호랑이에게 잡혔다.

그가 호랑이에게 업혀 호랑이굴에 이르니 백호(白虎)가 앓고 있었다. 그가 호랑이의 목에 걸린 비녀를 빼주니, 호랑이는 좋아하면서 그 사람을 먼저그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가 다시 집으로 오니 어머니는 그가 떠날 때 잿간에 꽂아놓은 칼의 빛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아 어떤 사람은 아주 투수(포수)질을 잘혔어. 투수질 헤 갖구는 잘 내외가 먹고 사는디, 아 아들도 있고.

아, 한 번은 먼 디로 포수질을 갔단 말여, 사냥을.

"갔다가 며칠 되어서 안 돌아오걸랑 죽은 줄 알라."

구. 그 부인보고서 그러구서는 갔넌디, 참 가서 그이가 죽었어. 어디서 죽었는지 죽어뻐렸

어. 안 돌아와. 며칠을 지났넌디. 그 아들인 아이가

"아 어머니, 우리 아버진 어디 가셔서 안 오시나요?"

"포수질 갔다가 호환(虎患)당한 게다. 그랬으니께 안 들어오지 호환 안 당했으며는 안돌아올 필요가 있느냐. 가면서 오래 안 돌아오면 호환당헌 줄 알라고 그렸다."

아, 인제 아이가,

"애이, 나도 총 메야겄어. 총을 메야 되니께 총 좀 준비해 줘요."

총을 참 어떻게 사서 줬든지 어쨌던지 혔던 모냥여.

이놈을 가지고서는 밤낮 아주 댕기머 사냥을 혀. 여호(여우)도 잡고, 너구리도 잡고, 그저 닿는대로 그냥 막 아주 연습을 허넌디. 자기 자당이 예전이 동이로 물을 여다 먹었지.

"느이(너의) 부친께서는 내가 물을 이고오면 물동이다 총을 놓는다. 총을 놓으면 그 꼭 어떻게 놓는지 꼭 물동이가 구녕 하나가 똑 뚫어지게 놔. 그렇게 해야 그게 잘 허는거여 그런디 그 구녕으로 물이 쭉 뻗치먼 남자 오줌누는 것허고 같어. 그렇게 허고도 포수질 허다 죽었으니 너 그까짓 것 그 총 갖고서 뭐 할거냐?"

"허 걱정 마쇼. 그러면 저도 인제 아버지 원수 갚으러 나가야겄읍니다."

가지 말라고 허니께, 칼을 쓱쓱 칼갈어. 칼을 갈더니만 잿무덤이다가 콱 꽂어. 꽂으먼서,

"어머니, 지가 안오걸랑은 이걸 한 번 빼보쇼. 이 칼을. 그렇지 않으먼 일찍 돌아오고."

"그 왜 빼보라느냐?"

"지가 죽고 안 돌아오머는 이 칼이 전부 녹이 벌겋게 납니다. 그러니께 그런 줄 알고 그걸 믿고 기쇼(계셔요)."

아, 그러니 그놈을 워트게 혀. 그렇게 못허게 허나 어떻게 허나.

그러고 나갔어. 한없이 나갔지. 가다가다 어디 가다가, 모캥이(모퉁이) 돌아 가느라니께 웬 사람이 웬 주점서,

"너 총 놓을 줄 아느냐?"

"예, 총 놓을 줄 압니다."

"너 거기 가지마. 가면 죽는다. 게 가는 포수치고 오는디 못 봤다. 게 가지 마라."

아 그 소리럴 듣고서는 즈 아버지도 거기 가서 죽은 줄로 인정이 간단 말여.

"뭐 염려허실 것 없읍니다. 나는 가 봐야겄읍니다."

"허허, 너 총만 믿곤 네 못 간다."

헐 수 없이 가만 뒀지. 갔어. 얼마 가노라니께 산모랭이로 돌아가넌디, 지질덜렐헌 잔디밭으로 돌아가넌디, 이렇게 돌아가넌디, 가니께, 가노라니께, 웬 중놈이 골갓을 쓰고서는 장삼을 입고 골갓 쓰고 척 온단 말여.

'저게 어떻게 된 놈이 이 무인적(無人寂)헌디 저 놈이 있나? 틀리먼 총으로 후딜티려 갈기리라.'

이러고서는 그렇게 맘 먹고 섰네. 섰으니께 와서는 무얼 청허는고 허니 성냥을 좀 달라

고 헌단 말여, 성냥을. 그때는 화약이 아니고 성냥으로 총을 놔요. 화심이 지화심 끝으머리에다 성냥을 빼서 줘. 건 무슨 성냥이었던지, 원 달립 성냥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워트게 워트게 했는지 성냥 하나를 줬어. 그렇게 금시 다 쓰고 어떻게 허다가 없애고서는 또 달랴. 또 줬지. 거기 잔뜩 있으니께. 아 계속혀 줄곧 달라는디 워낙 저 사람도 저 중놈도 그것을 사용 못허고서 베리기만 헌단 말여. 베리는 디 보고서 안 줄 수는 없고. 그럭저럭 다 줬어. 하이 참, 탈 났거든. 어떻게 허나. 또 달라고니께,

"없다."

아 그랬더니, 그때는 대호(大虎)가 됴. 중놈이 아녀. 골갓도 없어지고 장삼도 없고 대호가 돼갖고는 막 뎀빈단 말여. 그러니 불이 있어야 총이나 놓지. 총을 못 놓고 어둥절어둥 절허넌디, 후닥닥 오더니 어깨다가 집어 없고서는 가.

'이놈이 이게 나를 먹을 티면 게서 먹든지 허지, 암만해도 굴 구녕으로 들어가는 건 아닐까?'

그냥 정신 차려 갖고서, 그놈의 갈기를 짚고서는 얼마를 가는디, 큰 산을 올라가더니 굴 구녕으로 들어가 내려놔. 내려놓고서, 그놈이 인제 할 수 없어. 절에 간 색시여. 그놈이 그저 시기는 대로 헐 수 밖이. 디리 몬단 말여. 아 그 구녕으로 들어갔지. 그냥 굴구녕으로 들어가노라니께 지가 앞이 기여 들어가. 들어가서 불러. 원 머라고 불렀던지 알아 들을 만큼 헸지.

'그러고 저러고 죽게 됐으니께 이왕이 죽기는 일반여. 그러니께 들어가 본다.'

고. 거기를 쓱 들어가 봤지.

아 그 안이가 큰 대호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드러누웠어. 그르럭 그르럭 허먼서.

'하 그러먼 저놈이, 저놈의 에미나 애비가 되거나 그렇잖으면 그놈의 짝이거나 되겄구나'

허구서는, 이왕이 죽었으니께. 죽어, 죽기로 알고 제쳐 놔으니께. 아 오더니, 그 사람을 구석으로 막 몬단 말여. 들어가서는 백호 앞이 갖다 놔. 그거 뭐 죽은 목숨이지. 게서 요동해야 안돼. 백호 앞이 갖다 놓으니껜, 그 사람의 손을 끌어다가 대호의 이〔손짓을 하며〕 멱아지(모가지) 께다가 대거던. 보라는 심여(셈이여). 그거 기가 맥히지. 아 그러더니마는 대호가 입을 딱 부려(벌려). 이 늙은 놈의 대호가. 딱 벌이넌디 거기 목구녕을 디려다보니께, 비녀 하나가, 비녀, 이 비녀, 여자머리 비녀 하나가 저 뭐시 머리카락으로다가 휘휘 감어서 목구녕이가 걸렸단 말여. 그러니 죽게 생겼단 말여. 그러니께 잡어 먹을라고 그 번개를 부린 게 아니라 그 병을 고칠라고 잡어간 모양여. 그러니께는 잡어간 놈이라 그 대호가 입을 딱 벌이니께는 게다가 발목께를 쑥 쳐 느(넣어). 아구리다, 아구리다. 쑥 쳐 느니께는 그리들 못허지. 거기가 인제 구렁이 훤허지. 하, 이놈의 것 소매를 걷어치고 손을 콱 넣어서는 그 비녀하고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다냈지. 아 나왔는디 보니께 그냥 그저 대가리 채, 사람 대가리 채, 그저 머 비녀 채, 아랫도린 다 먹어서 녹고. 이래 갖고서는 꺼내서 놨단 말여. 놓고서는, 인저 말을 알아 듣거나 말었거나,

"나는 네 에미냐 원 애비냐 병을 고쳤으니께 나는 가야겄다."
허니께로 고개를 그덩그덩헌단 말여. 하 그러더니 냅다가 고개에 태우더니 그거 머 들고 막 그 집, 그거 가다가 만난 집께까지 데려다 놔 줘. 그 사람들이, 인제, 놔주곤 내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헤 보니께,

"접때 가먼 놈이 이제 온다. 죽진 않았구나, 죽었다고 혔더니. 원 여기로 포수가 그렇게 지나가고 그레도 살아오는 디 못 봤더니만 그놈 중이 살어 오는구나."

"거 워턱헤서 살어 오느냐?"
구 허니께 그 얘기를 다 허닝께,

"하이고 저런, 그놈이 간 사람은 다 잡아 먹었다."
고. 그러니 그걸 누가 알어. 그거 그 짐승도 지게(제게) 잘 허머는 저렇게 허는 거라고. 그 병 고친 얘길 허니께,

"그너 그 아무 여편네."
라고. 허허허……. 아무개 여편네가 죽었다고. 그러고서는 집으로 왔지. 뭐 미끈허게 왔지 머. 와 보너 보니께, 자기 자당이 아 놀래먼서, 그 칼을 빼본다고 빼봤단 말여. 칼을 빼 가지고, 빼니께 새파라니 녹 하나 안 났거든. 그려서 그걸 보고 아들이 살아 돌아 오려니 생각은 허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놈은 그렇게 혀서 풀려났지, 호랑이한테서.

채록 일시 : 1979. 12. 27 오후 5시 30분경
구 연 자 : 김 용섭(남, 72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41.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은 할아버지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손자를 데리고 바람을 쐬러 산에 올라 갔다가, 대변을 보는 사이에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갔다.

이 사람이 호랑이를 뒤쫓아 가보니, 호랑이가 아이를 굴 앞에 놔 두고, 굴 안으로 제 새끼를 데릴러 들어 갔다. 이 사람은 굴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그 새끼들까지 다 죽인 후에 손자를 데리고 왔다.

한 사람은, 아 손자를 하나 봤넌디, 여간 귀엽지 안혀(않아). 몇대 독신일렁겨 아마. 이 짤바(짧아)빠진 놈으로 허야겄네. 하하하……. 아, 하루는 일기가 좋고 화창헤서 고걸 업구서, 쪼그만 것을 업구서는 그 뒷동산이 올라갔어. 산이 높어. 올라가서는 이 산질(산길)

에다가 세(세워)놓고,

"아, 여기 섰거라."

그러니께, 원 '왜?'허고 대답했던지, '응' 했던지 '예' 했던지 했던 모양여, 쬐그망 게. 섰거라 허고서는 뒤가 급작시리 매려서, 뒤를 보얄 테니께, 그로 쪼끔 올라가서 인자 솔틈에가 앉어서 뒤럴 본단 말여.

아 '크르릉' 소리가 나넌디 보니께, 그 뒷동산이다가 호랭이가 새끼를 쳤넌디, 이놈이 거기를 내려온단 말여.

"하 저거 큰일 났구나!"

그런디 이놈의 뒤는 똑 끝 안나네, 빌어먹을. 우선 당장. 아 욕을 보고 애를 쓰다가 고만 그놈을 오너서는 후딱허더니 고개루 끼었구 내뺀단 말여. 어른(어린)애를. 채갖고 간단 말여 호랭이가. 그러니 갈 디(데)라능게 그놈의 굴구녕 가지 뭐, 다른 디 갈 거 없지. 그거 죽어라허고 애를 쓰고 허덕거리고 올라갔지. 올라가 보니께 가먼서 이렇게 올려다 보니께, 거 쬐그맨 어린 것이, 무엔지 모르니께 접벅접벅 걸어댕기면서 그 석벽을 이렇게 만지머 들락날락헌단 말여. 그 굴구녁이서.

'옳다. 내 손자 저깄다. 네가 볕거란 대두 나는 내 손자 찾을 게라.'

고 게로 뛰어 올라갔어. 올라가서는 그냥 와작그르르 허머는 저놈이 워쩍헐라는지 모르겄어. 보니께 이놈이 그로 들어갔어. 굴구녁으로 이전이넌(예전에는) 굴구녕도 수색혀 보는기여.

'야, 이놈 굴구녕, 너 새끼 쳤으니께 굴구녕이 들어갔어. 이놈. 미구(未久)이 나오머는 내 손자도 죽고 나도 죽고 헐티니께, 에이 내가 먼저 죽는다.'

고. 그러니께 즈이 할애빈지 먼지 그저 접벅접벅 좋다고 흙벽만 만치고 그 뚜디리고 돌아댕겨. 그냥 그 구녕이럴 기여 들어갔단 말여 막. 기여들어가니께 바듯(바듯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뒤쓸(몸을 움직일) 만큼 된놈의 구녕인디, 아 이놈이 가서 바짝 그 새끼덜 있는 그 보금자리 있넌 디는 대가리를 넣구서 꼬리를 홰홰 치먼서 머라고 으스렁거렸단 말여. 그게 그것 부르는 기여. 새깽이를 믹일려고 애 믹일려고. 홰홰 치거던.

"이놈 너 죽으나 나 죽으나 죽기는 일반여. 그러닝게 너도 좀 죽어봐라."

이놈이 돌아는 못서게 됐어 구녁이 빠듯혀서. 뒷다리 허고 꼬리 허고 바짝 새겨 쥐고서는 디밀었지. 그냥. 이는 것보담도 그놈이 자꾸 들어갈라고거든. 또. 들어갈래야 더 들어갈 재주있나 제까짓게 찌여서(끼어서).

아 얼마를 지랄을 허넌디, 뒤틀뒤틀 이놈이 가이 둥글듯 헌단 말여. 그저 그놈 둥그는대로 그놈 쥐고서는, 그저 이루 둥글먼 이렇게 쓰러지고 그저 그놈 가먼서 둥글고, 저리 둥글먼 그놈 가면서, 나오지만 못허게 그저 디밀언단 말여.

얼마를 허느라니께, 이놈이 근력이 진허니께 허르르허넌디, 뭐 필연허고 너는 허르르 허지만, 나는 허르르 안넌다. 하하하하…… 그러구서는 그놈을 쥐고 한참 요동을 허다가 보니께, 아주 늘어졌단 말여. 죽었거든.

'아 이놈이 주리덜건디(주리를 틀 것인데) 내 인저 죽일 수 백이 없다.'
고. 인저 그놈을 잡어댕겨 보니께 아 죽었어. 호되게 쥐고서, 그 머, 손자 생각허고. 그 견딜 거여? 그러구서는 죽었으니께 끌고 나왔지. 끌고 나오면서 그놈을 네기 그 바위여다가 막 메 패고, 그려도 손자는 그저 경중 접벅거리고 돌아댕겨.

'예기 이놈의 것 내 이것도 모자라니, 여기 새끼가 있을께네 새끼를 죽일란다.'
새끼를, 들어가서 그 죄 다 뚜디려 패 죽였단 말여. 죽이고서는 나오너 본께 그려도 손자는 접벅접벅 걸어댕기며 좋아헌단 말여. 아 그놈을 죽이고 집으 오너서 그거 저 아들 머느리보고 그 얘기럴 했지.

"아 저놈의 새끼땜이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다."
고 야단을 헤야.

"개땜이 내가 살었어."
하하하…….

"그랬으니께, 개가 즈이 할아버지 살렸으니 그러지 말라."
고. 그 사람은 그렇게 헤서 피했어.

채록 일시 : 1979. 12. 27. 오후 5 : 40~45
구 연 자 : 김 용섭(남, 72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주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42. 개와 고양이와 연적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하다가 잡은 물고기 뱃속에서 연적 하나를 얻었다. 그 연적은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나오게 해주는 보물이었다.

얼마 후, 그 사람은 그 연적을 잃어버렸다. 먹을 것조차 떨어진 그 집에서는 먹이던 개와 고양이에게도 집을 나가라고 했다. 개와 고양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 연적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고양이는 쥐를 시켜 그 연적을 가져오게 했다.

개는 고양이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다가 입에 물고 있던 연적을 떨어뜨렸다. 그들이 낙심하여 강둑에 앉아 있을 때, 낚시꾼이 고기 한 마리를 낚았다. 고양이가 그 물고기를 물고 달아났다. 그 물고기 뱃속에는 그 연적이 들어 있었다.

그 연적을 다시 찾은 그 집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아주 귀여워했다.

이전이 워떤 사람이 낚시질을 갔어. 낚시질을 갔다가 괴기를 하나 잡았단 말여. 괴기를 잡어다 보니께, 게가 무슨 방물이 들었어. 그런디 가만히 보니께, 그저 잡물이 아니거든.

'아, 이게 빈부(貧富)를 결정하는 방물이다.'

가지고 와서, 그 놈을 내놓고서 보니, 구녕이 있어. 그게 몇 개가 되여. 구녕 꾹 눌르면은 그렁께 그런 소리도 않고 눌렀던 게지, 눌르면 쌀이 주르르 나오는디, 또 어디를 꾹 눌르면 물도 나오고, 아 어떤 놈은 눌릉께, 에 그 옷감도 나오고. 아 이 짓이란 말여. 그놈을 다 여섯을, 여섯인가 원 몇이여. 해 보니께는 아쉴 게 없어. 세상의. 원 세상의 아쉴게 없단 말여. 그놈을 갖구서리 좋아라고 잘 살았어. 아주 그냥.

그런디 고이(고양이) 가이도 잘 믹였을 거여. 고이허고 가이허고가 잘 먹던 놈이 인제 그것이 인제.

아, 〔이야기 순서를 바로 잡아서〕 그렇게 혀 갖고서 인제 고이 가이 멕이던디, 아 이 워니 날은 그것을 잊어 버렸단 말여. 그러니 고이도 굶고 가이도 굶고 죽을 지경여. 그렇게 농사지어서나 먹는 게 아니라, 그것만 믿고 살다가. 아 고이허고 가이허고 보고서 한심허게 허기럴, 그 주부덜이,

"너이덜 나가서 빌어 먹어라. 이젠 헐 수 없다. 느이 먹일 근력이 없다."

그놈의 고이 가이도 가만히 보니께, 그 고이 가이도 말을 안혀도 워낙 그렇거든.

"야, 우리 나가자."

고이허고 가이허고가 나갔네. 인제 그 집은 아주 탈탈 아주 빈, 아주 저 가난에 빠지지 나가서 어디를, 어디만큼을 가다가 보니께, 가만히, 그 고이라는 게 묘헌 거여, 그게. 가만히 보니께, 가이는 평생 구이 따러 댕기고. 들어 보니께 방이서 허기를,

"돈 나오너라."

허면, '똑똑'허고 돈이, 돈이 나온단 말여. 그러면 돈을 쓰고. 그 며칠을 게서, 며칠을 게서, 며칠을 그걸 아주 기다렸지.

"옥 나오너라."

허면 옥도 나오고, 그건 뭐뭐

"밥 나오너라."

하면 밥두 나오고. 아 그 짓이란 말여. 고이가,

"저게 우리 집이 있던 것이다."

헤, 요놈의 것. 저게 연적여 그런밴. 빌어먹을 거. 다른 게 아니라.

'저놈의 것을 어떻게 허면 찾아갈까?'

저놈의 할미 할애비가 꼭 쓰구서는 저 궤속이다, 머리 맡의 궤속이다 넣는디 저걸 꺼내올 재주가 없네.

"에이, 이놈의 것 가만히 있으라."

고. 가이보고,

"널랑 꼼짝 말고, 배 고파도 있어."

그러구서는 아 인제 저녁이는 고이가 가만이 가서 엿을 보고 있단 말여. 그러니께, 고 고

고, 그저 머시, 부부찌리 그 그렇게 메라고 헤쌌터니 아주 편안히, 머머 의식이 부족허여? 편안히 드러눕거든. 그러고는 그 궤에다 넣는단 말여 고걸.

아 이놈의 쥐덜이 그 집이가, 막 지랄을 하던디, 아 막 산떠미처럼 지랄해. 냅다 구이가 호령을 했단 말여. 호령허니께 이놈의 쥐들이 고만 아주 사설을 못허고 그거 머 꼭꼭있단 말여.

"너희덜 우리가, 내가 안 잡어먹을 테니께, 안 잡어먹을 방침이, 저기 저 궤속이 에— 연적이 들었어. 허니께 그 궤를 좃구서(쏠고서) 그 연적을 끄내다 날 달라. 그러면 너희 하나 안 잡어 먹겠다."

그러거든. 아, 그럭커라고.

그래 가서 대뜸 이놈들이 막 조서 둥글이고, 쥐 좃는 소리 들리지도 안허고. 조서 둥글이고서는, 폭신 그 주인은 잠들은 뒤 조서 둥글이고, 그놈을 끄내왔단 말여. 아주 고이가 잡아먹는 놈의게 호랭이처럼 된디 그걸랑 고사하고 아주 고이가 참 얌전하게 봤단 말여. 이놈을 갖고 가이보고,

"야, 인제 가자. 집이럴 가자. 우리 집이 가자."

두 놈이 그걸 물고 오다가 보니께, 저어게 강이 있넌디, 그 강이서 낚시질을 혀.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허넌디고 위로다가 전년단 말여 강을. 고이가, 고이가 머라고 허는고니.

"내가 물고 갈께, 응."

가이보고,

"널랑 그냥 가."

"에이 안돼. 내가 물고 가단 놓쳐. 빠쳐. 내가 물고 간다."

고. 그러구 고이보고 업히라고 그러거든. 고이를 업고 가네, 하하하. 이런 한참 가다가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디, 인제 가이는 헤엄을 잘 허닝게는 이렇게 가다가, '퐁' 한단 말여. 고이가 내려다 보니까 연적을 빠쳤어. 이놈의 가이가. 그건 빠치는 통걸이(통에) '퐁' 행거든. 그러니 그거 죽일래야 죽이도 못허고. 저 메고 가는 놈을 보고서. 그거 참 기가 맥히지. 인제는 물속이다 빠쳤으니 쥐 보고 잡어 오도 못헐 테고. 그래 갖구서는 저 건너 가시가 닿았어. 강 가시가. 나섰으니께, 거기 앉아 낚시질허는 사람은 줄곧 혀. 아 큰 피기 하나를 휙하고 뿌리니께는 이놈이 저기가 쑥 빠지거든. 낚시를 빠지고서는 뚝 떨어지지. 거기가 피기가 떨어지니께 그걸랑 그놈을 가서 먼저 나아가 걷어 놓구서 혔으면 좋겠는디 그놈 나오는 재미에 또 넣었네 낚시대를. 또 느쿠서 또 잡을라고. 그놈은 뭐 마른 디가 떨어졌응게 꼼짝 못허여.

아 고이 가이가 좇아가서 냅다가 강둑에 물고 들구 극쳐(힘껏 달아나) 버리네. 고이도 좇아가고 가이도 좇아가고 두 놈이 막 펄쩍펄쩍 뛰. 아 이 사람이 그걸 잡으려고, 그것을 뺏을라고 좇아가니, 느으면(넣었던) 낚싯대이서 또 물릴 걸 그까짓 놈의 거.

"에끼 이놈의 거 느이 먹어라."

하하하. 그러구서는 그놈을 가만 뒀으니께, 인제 이놈들은 끌고 나와서는 워낙 배고프니

께 괴기를 먹는겨. 먹는디 게가 연적이 들었어.

"야, 이것 봐라. 연적을 가지고 가자."

그때는 싸움여.

"네가 물먼 멀어쳐."

"내가 허야 혀."

그러면서 그 집이 들왔단 말여. 그전이 살던 집이. 그걸 갖다 주니께 아 그 부부가 그 고이 가이를 어떻게 잘 허고 자식이 어디 갔다 오는 것보담 더. 그려서 도로 복고해서 살았지.

〔질문 : 그런데 왜 고양이는 방에서 자고 개는 밖에서 자는가 그런 얘기는 없나요?〕

가이는 워낙 천허니께 그렇지.

채록 일시 : 1979. 12. 27. 오후 5 : 46~52
구 연 자 : 김 용섭(남, 72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남면 달산리 3구
채록 장소 외 : 앞 이야기와 같음.

143. 다시 살아난 신랑

T 남면 달산리 ①—B면

***줄거리**

그전에 어느 양반이 부자인 상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몰래 소를 끌어 갔으니 소값을 물어내라고 했다. 도둑의 누명을 쓴 부자는 이웃 마을의 글 잘하는 처녀를 찾아가 원님에게 받칠 소지(所志)를 써 달라고 했다.

그 처녀가 지어준 소지를 본 원님은 일을 바르게 처리한 후,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기로 했다.

원님의 아들은 장가간 첫날 밤에 신부에게 글을 지으라고 했다. 그는 신부가 지은 글을 보고 놀라 기절하여 죽었다.

신부는 그날 밤으로 죽은 신랑과 함께 신행(新行)길에 올랐다. 신부가 나룻배를 타고 오다가 글 한 수를 지어 강물에 던지니, 죽었던 신랑이 다시 살아났다.

예전에 워떤 사람이 아래 웃집이서 사는디, 웃집은 부잣집이고 아랫집은 가난한 집여. 그런디, 부잣 사람이 쌍놈여. 가난한 놈이 양반이고.

쌍놈의 재산이라는 건 그저, 맘대로 주무를 때여, 그저.

"에이 내 저 쌍놈의 재산좀 뺏을 거라구."

소를 끄어(끌어) 갔거든? 쌍놈의 소를, 멕이는 소를 끄어갔단 말여. 아, 끄다가 원 워치게 했던지, 자기 집이다가 뒀던지 워트 혔던지, 그 쌍놈이 어떻게 헐 겨.

아!〔앞서 한 말을 취소하면서〕 이렇게 꺼꿀로 된 거여. 부잣집이서 소럴 잊어비리고 쌍놈이 가져 갔다고 야단을 친단 말여. 그러니께 쌍놈이 거 억울허거든. 그거 소, 이 값(소

값) 물어줄 생각허니께. 억울허니께,

'네기, 소지(所志)나 한 장 올린다.'

고. 예전 소지 올렸잖여?

그 동네, 그 아랫 동네에 어떤 여자 하나가, 여자 하나가 아, 글을 잘 읽어. 잘 읽는디, 갔지. 쌍놈이. 가서는 막 섬을 갖다가 그 문 앞이다 깔고,

"소지 한 장 지어 주쇼."

"왜 그러느냐?"

고. 쌍놈이니께 그저 그냥 보통 대답혀 줬지. 그 얘기를 죽 했단 말여.

"부잣집이서 나보고 소 끄어 갔다구 허니 이거 억울치 않읍니까?"

"그래? 내기 헤 주지."

거 뭐이라고 헌고니,

"첩비즉녀(妾非織女)이어든. 첩이 즉녀가 아니어든."

하늘이 있는 소리 아녀? 즉녀, 하늘 즉녀. 〔채록자 : 직녀요?〕 어, 직녀.

"첩비즉녀여든 첩이 즉녀가 아닌데, 견우(牽牛)가 하사(何事)오?"

견우가 무슨 일이 있느냐 그거여. 견우는 '끌 견' 자(字), '우(牛)'자 아녀? 견우가 무슨 일이 있어서 견우를 혔겄느냐. 첩이 즉녀가, 쌍놈이 즉녀가 아닌디 왜 왜 견우럴 혔겄느냐 이려.

아, 그 인제 그 원의게 갖다가 떡 디렸단 말여. 원이 보니께 잘 혔거든.

"첩비즉녀여든 견우가 하사오."

그렜단 말여. 그래 참 잘했어. 네비(제길헐) 상놈이 참, 부잣놈이 졌어. 어 참, 양반놈이 져뻐렸단 말여.

그러구서는 가만히 생각헝께 유(이)원이, 이거, 그 상놈보고 묻는 소리여.

"너 이 소지 어디서 났느냐?"

안 대답혀 줄 수 있나? 쌍놈이 참.

"예. 아무디 이러저러한 사당이서 글 읽는 그〔잠시 머뭇거린다〕 아씨께 받었읍니다."

"오냐, 그러냐?"

아 그렁께 그 사람은 아무개 딸인지 알지. 그러냐고. 그 보냈지. 그러구서는, 그 뒤에 인제 그로 청혼을 혔어. 아들이 있는디. 어, 그 집으로. 청혼을 혀서는 혼인을 정혔단 말여. 정혀 놓고 대삿날이 당했어.

아 그런디 신랑이 들으니께 아주 그 규수 된 이가, 되는 이가 글이 용타 소리를 들었거든

'응 이번이 내 장개 가먼 좀 알아 볼게다.'

그러구서는 인제 갔어. 장개럴 갔년디, 첫날 저녁이지. 뭐 그거 얘기헐 거 있나? 첫날 저녁인디 썩 들어갔어. 이 〔머뭇거리다가〕 방이서 인제 앉어서 몽땅 걷어쳐 놓고서 앉어서

"부인이"

신부보고 허는 소리여.

"부인이 그 글이 좋다니, 글 좀 한 수 혀 보쇼."

"내가 무슨 글이 있단 말요? 나 글 몰릅니다."

"허허, 그 여필종부라더니마는, 허허 여필종불랑 그만두고 암것도 아니라고. 에이 간다."
고 옷 입고 나선단 말여. 그러니 안 헐 재주 있나? 이런 제기, 꼼짝 못허고서는 당허거든

"들어 오쇼. 내 한 수 허리다. 그 영월로 허겠읍니다."
영월 불렀지.

"저기다 매달은 병으로 대고서 좀 해보라."
그러니께 이 신부가 허기럴, 하하. 그것 참.

"그렇죠. 허것읍니다."
그 병이 끈으로 목 달어 매고 주욱 있능겨.

"하년(何年)이 문제붕(聞帝崩)허고."
오 그렇지. '하년이 문제붕'허고, 언제 임금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벽상(壁上)의 결항사(結項死)냐?"
벽우에 목을 매고 죽었느냐?〔채록자 : 벽상에?〕 벽상, 이〔벽을 가리키며〕 벽. 벽. 벽상. 〔채록자 : 첫구가 뭐죠? 하년에 문제붕?〕 응 문제붕허고, 벽상의 결항사냐 그렸단 말여. 벽상. 〔채록자? 벽상에?〕 응 결항. '맺을 결'자 '목 항'자. 목을 매고 죽었단 말여. 병(甁)여, 병. 응.

그렇께 또,

"문백구(問白鳩) 문백구허니"

아녀. 〔앞의 말을 취소하며〕그거 아녀. 저 머시 결항사라는 게 〔무언가 말하려 하다가〕 응 그렜어. '벽상의 결항사냐' 그렜어. 그렇께 그거 머 참 한 수여.

아 고만 이놈의 신랑이 죽어 뻐렸네. 그 소릴 듣고 깜짝 놀래서 죽었단 말여. 세상이 그렇게 뜻깊이 나오는 글은 못봤거든. 허허허…… 죽었어. 그것 참. 그러니 그 것 큰일 났지

그 이튿날. 헐 수 있나? '어서 재촉혜서 우뢰를 예의를 갖춰서 우뢰하게 해 달라고. 과택이지. 냄편 죽었응게 과택 아녀? 허허허.

이제 가네. 아 그것 참. 삽시간이 〔소리 높여서〕밤이(밤에) 출발하라는겨, 밤이.

"어서어서 싸게싸게 우뢰허게 해 달라."
구. 그 부모도 참 기가 막혀서 그저 얼른 후닥후닥 그저 말끔 혀. 싸내 짊어져 보냈지. 그리 가다가, 암마 여기 저, 안민도이서 여기 육지 나오는 것만큼 됐던 그런 강이 있던 모양여. 나루질허는. 가만히, 인제 거기 나루질을 허넌디, 배에가 한데 올라 앉었지. 게 오너서 이 여자가, 여자가 무슨 글을 짓는고 허니 하나 지었어. 저 짓기를 어쩡게 허는고니 그렇게 다 잊어뻐려서 원 덜덜덜덜혜지네. 아 〔잠시 생각하다가〕

"단정전소교후(丹旌前素轎後)"

신부보고 허는 소리여.

"부인이 그 글이 좋다니, 글 좀 한 수 혀 보쇼."

"내가 무슨 글이 있단 말요? 나 글 몰릅니다."

"허허, 그 여필종부라더니마는, 허허 여필종불랑 그만두고 암것도 아니라고. 에이 간다."
고 옷 입고 나선단 말여. 그러니 안 헐 재주 있나? 이런 제기, 꼼짝 못허고서는 당허거든

"들어 오쇼. 내 한 수 허리다. 그 영월로 허겠읍니다."
영월 불렀지.

"저기다 매달은 병으로 대고서 좀 해보라."
그러니께 이 신부가 허기럴, 하하. 그것 참.

"그렇죠. 허것읍니다."
그 병이 끈으로 목 달어 매고 주욱 있능겨.

"하년(何年)이 문제붕(聞帝崩)허고."
오 그렇지. '하년이 문제붕'허고, 언제 임금 죽었다는 말을 듣고,

"벽상(壁上)의 결항사(結項死)냐?"
벽우에 목을 매고 죽었느냐?〔채록자 : 벽상에?〕 벽상, 이〔벽을 가리키며〕 벽. 벽. 벽상. 〔채록자 : 첫구가 뭐죠? 하년에 문제붕?〕 응 문제붕허고, 벽상의 결항사냐 그렸단 말여. 벽상. 〔채록자? 벽상에?〕 응 결항. '맺을 결'자 '목 항'자. 목을 매고 죽었단 말여. 병(甁)여, 병. 응.

그렇께 또,

"문백구(問白鳩) 문백구허니"

아녀. 〔앞의 말을 취소하며〕그거 아녀. 저 머시 결항사라는 게 〔무언가 말하려 하다가〕 응 그렸어. '벽상의 결항사냐' 그렸어. 그렇께 그거 머 참 한 수여.

아 고만 이놈의 신랑이 죽어 뻐렸네. 그 소릴 듣고 깜짝 놀래서 죽었단 말여. 세상이 그렇게 뜻깊이 나오는 글은 못봤거든. 허허허…… 죽었어. 그것 참. 그러니 그 것 큰일 났지

그 이튿날. 헐 수 있나? '어서 재촉혜서 우뢰를 예의를 갖춰서 우뢰하게 해 달라고. 과택이지. 냄편 죽었응게 과택 아녀? 허허허.

이제 가네. 아 그것 참. 삽시간이 〔소리 높여서〕밤이(밤에) 출발하라는겨, 밤이.

"어서어서 싸게싸게 우뢰허게 해 달라."
구. 그 부모도 참 기가 막혀서 그저 얼른 후닥후닥 그저 말끔 혀. 싸내 짊어져 보냈지. 그리 가다가, 암마 여기 저, 안민도이서 여기 육지 나오는 것만큼 됐던 그런 강이 있던 모양여. 나루질허는. 가만히, 인제 거기 나루질을 허넌디, 배에가 한데 올라 앉었지. 게 오너서 이 여자가, 여자가 무슨 글을 짓는고 허니 하나 지었어. 저 짓기를 어쩡게 허는고니 그렇게 다 잊어뻐려서 원 덜덜덜덜헤지네. 아 〔잠시 생각하다가〕

"단정전소교후(丹旌前素轎後)"

五. 民　　謠

崔　雲　植

1. 상여 노래

T 서산읍 덕지천리 ①—A면

아히아하…… 어이하리 너화
인제가면 언제오나 명년 춘삼월에 다시 오지
아하어하어하 어이하리 어화
○○○씨 불쌍허구 가련하다
어하어하어하 어이하리 어화
언제다시 보려는가
어하어하어하 어이하리 어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인제 가면 언제오나
어하어하하…… 어이하리 어화

채록 일시 : 1986. 12. 21. 낮 1 : 20
구 연 자 : 김 황윤(남, 68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천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상황 : 덕지천리 김 정헌씨(남, 80세, 농업, 한문 수학)의 집 안방에서 동네 노인 3명, 조사반원 2명, 동행 학생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자의 부탁으로 걸립시의 고사풀이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2. 논매기 노래(얼카멩이)

T 서산읍 덕지천리 ①—A면

어허어하 어이어하 어허으하
얼카멩이 얼카멩이 어하어하 얼카멩이
멩이여 받아라 얼카멩이 얼카멩이 얼카멩이 얼카멩이
솟아멩이이다 얼카멩이 얼카멩이

솟아뎅이다 얼카뎅이 얼카뎅이
꽉지뎅이다 얼카뎅이 얼카뎅이

조사일자 : 1986. 12. 21. 낮 1 : 25~28
구 연 자 : 김 황윤(남, 68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일시 : 덕지천리 김 정헌(남, 80세, 농업, 한문 수학)씨 집 안방에서 동네 노인 3명, 조사반원 2명 동행학생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사자의 부탁으로 고사풀이, 상두소리에 이어서 구연한 것임.

3. 숫자풀이 노래

T 고북면 장요리 ②—B면

일 일로(日露) 전쟁 때
이 이승만이가
삼 삼각산에 올라가
사 사방을 보니
오 오랑캐가
육 육혈포를 들고
칠 치다 덤비니
팔 팔다리가 부러져서
구 구둣발질로 채 가지고
십 십리 밖에가 떨어졌다.

채록 일시 : 1986. 12. 22. 오후 3시 10분경
구 연 자 : 이 춘섭(남, 63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채록 장소 : 장요리 마을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을회관에 찾아가니 노인 4~5명이 담소하고 있었다. 농악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이씨가 자진하여 구연하였다. 구연자는 건강이 좋고, 목소리도 좋았다. 이 노래는 지금부터 53~54년 전, 구연자가 소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부르던 노래라고 한다.

4. 아 리 랑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사 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열달 배실어 날 낳아 가지구;
누구를 못 주어서 이런 사람 주어 가지구,
내가 이렇게 되어 죽겄는디, 뭐이 미더워서 이렇게 되었나;
내 신세가 이것밖에는 안 되니까 내 아리랑이나 한번 해 보겠네.

(노 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겨 주소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남의 딸 데려다 왜이리 고생시키나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10시경
구 연 자 : 김 연분(여, 73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반양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리 유계리 1구
채록 상황 : 할머니들 세 분이 모인 자리에서 옛날에 불렀던 것을 그대로 해 보라고 부탁하여 구연한 것임.

5. 노랫가락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박달나무 방맹이는 팔자가 좋아서
큰 애기 작은 애기 손끝에 노누나
어기여차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10시경
구 연 자 : 김 연분(여, 73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반양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리 유계리 1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6. 시집살이 노래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 어떠시다
아이구 말두 마라 열 두 폭 치마 눈물 바람에
다 썩어 내 버렸다.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전 10시경
구 연 자 : 안 춘선(여, 7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태안읍 중산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7. 노랫가락

T 음암면 유계리 ②—A면

이몸이 학이 되어 나래 위에다 임을 싣고
천만리 날아를 가서 이별 없는 곳에 내려 놓고
그곳도 이별곳이면 또 천만리

대천바다 한 가운데에 뿌리없는 이 남구(나무) 솟아
가지는 열 두 가지고 잎은 피어서 삼백 예순
아마도 그 남기 이름은 날일자 달월자 일월인가

백두산석은 마두진이요 두만강수는 음마무라
남아이십미평국이면 후세수칭대장부랴
아마도 이 글 지은 양반 남이장군이라

천리마 말 놓고 잔소리 마라 나는 운절의 패를 논다
비수는 어디다 두고 흐르는이라 참공불이라
아들을 품 안에 품고 돌아드는 이 장판교라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강씨댁 사랑방에서 조사반원 1명, 동행 학생 2명과 함께 채록한 것임. 강씨는 민요와 시조창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산지역 동호인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있다 함.

8. 청 춘 가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는 에헤 수심도 많고나

언제 언제나 단둘이 만나서
이별 없이나 에헤 잘 살아 볼거나

네가 날만큼 사랑을 한다면
갈강물 천리라도 에헤 맨발로 따르리

널로다 연하여 병들은 이내 몸은
내명에 죽어가도 에헤 네 원망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 5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구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9. 창부타령

T 음암면 유계리 ③—A면

얼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인천항구 배떠난 자리는 파도와 물결만 남아 있고
기차가 떠난 서울역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 있고
임이 떠나간 이 가슴에는 한숨과 두숨만 남아 있고

얼씨구 절씨구 기화자 좋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얼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간다더니 왜 또 왔나 울고 갈 길을 왜 들어와요
내가 가면 아주를 가나 아주 간들 잊을소냐
몸은 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얼씨구 좋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 10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앞의 노래와 같음.

10. 아 리 랑

T 음암면 유계리 ③—B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갈 제는 남의 성쪽에 정들여 놓고
요내 가슴 속 타는 줄 왜 몰라 주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나 고갠데
임을 만날 고개는 한 고갤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딸 낳아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남의 딸만 데려다 왜 이고생 시키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채록 일시 : 1986. 12. 23. 오후 4시 15분경
구 연 자 : 강 영모(남, 53세, 농업, 중졸, 유계리 2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11. 그네 노래

T 음암면 유계리 ③—B면

세천당 세모진 가지에 높다랗게 그네를 매고
임이 떠면 내가 밀고 내가 떠면 임이 밀고
임아 임아 슬슬 밀어라 줄 끊어지면 정 멀어진다.

채록 일자 : 1986. 12. 23. 오후 5시경
구 연 자 : 김 우순(여, 82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차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1구 7번지

12. 아 리 랑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삼 삼아 모여서 우리 아이들 옷 해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무슨 고개 올라갔다 내려왔다 임의 고개

아서라 말아라 부디 마라 사람의 팔시를 부디 마라

우리가 살며는 한 오백년 사나 붓끝의 점만두 못한 세상

조사 일시 : 1986. 12. 24. 오전 10시 15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13. 꼬대 각씨

T 해미면 동암리 ②—A면

꼬대각씨 불쌍허다
한 살 먹어 엄마 죽어
시 살 먹어 아빠 죽어
꼭대각씨 불쌍허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10시 18분경
구 연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14. 창부 타령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얼씨구나 절씨구나 저얼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꿈아 무정한 꿈아 날과 무슨 원수길래 오는 님을 보냈느냐
가는 임을 붙들어 놓고 잠든 나 좀 깨워 주지
지금쯤은 잠을 자느냐 앉았느냐 누웠느냐
부르다 못해 지쳤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정말로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30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장)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32—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상황 : 구연자 윤씨는 동암리 이장으로, 오늘 조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하였다. 민간신앙반, 세시풍속 및 관혼상제, 사회전승 조사, 민구 조사단원을 마을 각처로 안내해 주고 좀 늦게 집으로 돌아온 윤씨에게 민요를 부탁하여 윤씨의 부인과 마을 아주머니 5분이 모인 자리에서 몇 곡을 불렀다. 윤씨는 민요에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진 사람인데,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관계로 몇 곡만 부르고 말았다.

15. 노랫 가락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광차고 긷찬 밭에 면화 따는 저 처녀야
면화는 내 다 따주께 이내 품 안에 안겨 다오
면화 따기는 어렵지 않으나
임의 품 안에 들기는 어려우리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35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32—5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16. 상여 노래

T 해민면 동암리 ①—B면

청춘 과부 거동 봐라
어허이 어허
낭군 죽어 삼일만에
어허이 어허
삼우 보러 나간다고
어허이 어허
한 손에는 술병 들고
어허이 어허
낭군 무덤에를 찾아가니
어허이 어허
왔느냔 말도 하나 없네

어허이 어허
아이고 지고 설운지고
어허이 어허
북망산천 멀다더니
어허이 어허
대문 밖이가 북망일세
어허이 어허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허이 어허
너를 두고 나는 가네
어허이 어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 어허
명년 이 때나 올려나
어허이 어허
꽃이 피면 오실나요
어허이 어허
꽃이 지면 오실나요
어허이 어허
빈손 들고 태어 났다
어허이 어허
빈손으로 나는 가네
어허이 어허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3시 40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17. 사 랑 가

T 해미면 동암리 ①—B면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 드는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오복조복 알뜰한 사랑
얼크렁 덜크렁 쌓은 사랑
구월삼경 깊은 사랑에
공산야월 달 밝은 밤에
이별한 님 그린 사랑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45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18. 창부 타령

T 해미면 동암리 ②—B해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시들시들한 봄배추는 찬 이슬 오기만 기다리고
옥에 갇힌 춘향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곳 가이 없어
모든 시름을 다 떨치고 산간 벽촌을 찾아오니
청풍 바람은 소슬한데 두견조차 슬피 울고
귀촉도 후련이야 너도 울고 나도 우니
십화삼경 깊은 밤을 같이 새워볼까
얼씨구나 절씨구나 정말로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 50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장)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32—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해미면 동암리 구연자의 집 안방
채록 상황 : 민요를 잘 부르는 구연자와 같은 마을의 오 병환(남, 57세)씨가 한 곡씩 돌려가며 부른 것임. 이 자리에는 같은 마을의 윤병석(57세, 반양국민학교 교사)씨, 마을의 아주머니들도 같이 있었다. 술도 한잔씩 했으므로 건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채록하였음.

19. 청 춘 가

T 면미면 동암리 ②—B면

청천 하늘에 별도 많은데
요내 가슴엔 수심도 많구나
띘다…… 무엇이 띘느냐
우편소 마당에 어하 임 편지 띘구나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 53분경
구 연 자 : 오 병환(남, 57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40—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20. 노랫 가락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널로 인하여 이몸이 병들은 것
내 명에 죽어도 좋다 네 원망 하리라

오백 자 삼백 자 금석의 줄 내리고
기생집으로 좋다 술 놀이나 갑시다

네가 날만큼 사랑을 한다면
가시덤풀 천리라도 좋다 날 따라 오련마는

임 덤덤다파리 얼마나 좋길래
꽃 같은 날 두고 얼씨구나 연락선 타느냐

천 길 만 길 뚝 떨어져 살아도
장모 딸 떨어지구서는 얼씨구나 하루도 못 살겠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 55분경
구 연 자 : 오 병환(남, 57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40—5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21. 노랫 가락

T 해미면 동암리 ②—B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느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저 달도 지면 기우느니
인생일장춘몽이로되 아니 놀지는 못하리로다

가려면 가사이다 북두칠성이 앵돌았구나
가실 손님은 가시구요 주무실 손님은 주무시고
여보시오 어느 때 봤다고 내 속 달라나

장미가 꼽다기에 따러를 가니 가시로다
사랑이 좋다길래 따라를 가니 눈물이요
아마도 장미와 사랑은 가시와 눈물

대천바다 한 가운데에 뿌리없는 나무가 나서
가지는 열 두 가지요 잎은 피어서 삼백 예순
그 남기 열매가 열어서 일월이냐

길만이 볼 적에는 할말 못 할말 많더니는
임을 대하구 보니 어안이 벙벙 심중만 답답
언제나 도련님 만나서 답답한 소회를 풀어 보나

불현이 농부라 하되 농부가 기생집에 무엇하러 왔나
기왕지사 왔거들랑 하룻밤이나 유해 가지
이 다음에 오신다 하여도 나를 찾아 주십소서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 58분경
구 연 자 : 오 병환(남, 57세, 농업, 국졸)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40—5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22. 노랫 가락

T 해미면 동암리 ③—A면

덤벙덤벙 세 모래 강변에 마전하는 저 큰 아기
누구의 간장을 녹일려고 저다지 곱게두 태어났나
반달 같은 고운 얼굴 구름 같은 검은 머리
동백 기름 슬쩍 발러 황초 댕기
사방 둘려 끝만 올려 슬쩍 매고
젖 옷고름 적어 달라 겨드랑 밑에 슬쩍 매고
한 손에는 방망이 들고 또 한 손에는 마전 들고
또드락 똑딱 방맹이 소리 보는 이의 간장을 다 녹인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저얼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후 5시 5분경
구 연 자 : 윤 상석(남, 50세, 농업, 국졸, 동암리 이장)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32—5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23. 물레 노래

물레야 배뱅뱅 돌아라
싸게싸게 돌려라
일감이 많이 간다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0시 20분경
구 연 자 : 한 봉단(여, 71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정자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상황 : 동암리 윤 상석 이장 댁에서 민구를 조사할 때 그 집에 있는 물레를 내어 놓고, 물레질 할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권유를 받고 부른 것임.

24. 방아 노래

쿵두나 쿵 쿵두나 쿵 찧는 이 방아
원제나 다 찧구 밥 마실가나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0시 25분경
구 연 자 : 한 봉단(여, 71세, 농업, 국문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정자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상황 : 동암리 윤상석 이장 댁에서 그 집에 있는 민구를 조사할 때, 그 집에 있는 절구통과 절구공이를 내어 놓고, 방아 찧을 때 부르던 노래를 불러보라는 권유를 받고 한 것임.

25. 왕굴자리 노래

시아버지 죽으니께 아랫목 차지했더니
왕골자리 다 떨어지니께 또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으니께 좋다구 했더니
베를 삼으니께 또 생각나요

채록 일시 : 1986. 12. 24. 오전 10시 30분경
구 연 자 : 한 봉단(여, 71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정자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7
채록 상황 : 동암리 윤 상석 이장댁에서 민구를 조사할 때, 자리틀을 내어 놓고 예전에 하던 노래가 생각나면 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부른 것임.

26. 모심기 노래

T 성연면 명천리 ②—B면

어럴럴럴 상사디요 어허이 어이허라 상사로다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작년 심었던 고자리만
꼭꼭 심어지는구나

어럴럴럴 상사디요 어허이 어이허라 상사로다
아이구 잘한다
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났았구나

어럴럴럴 상사디요 어허이 어이허라 상사로다
여봐라 농부야 말 들어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또 넘어가세

어럴럴럴 상사디요 어허이 어이허라 상사로다
여봐라 농부야 말 들어
내말 듣고 노래 좀 해가며
상사타령이나 해 보자

채록 일시 : 1986. 12. 25. 밤 7시경
구 연 자 : 이 우명(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명천노인회 회장)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강당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75
채록 장소 : 명천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오후 4시 경에 채록자가 노인회관으로 찾아가니 노인들이 몇 분 계셨다. 이 억룡씨의 민담 20여 편을 채록하면서 약간의 술을 대접하여 좀 취한 상태였다. 노인들의 대접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민요를 부탁하였다. 구연자는 시조 창에 이어서 모심기 노래와 헤지나칭칭을 불렀다. 노래를 함께 불러 주는 사람이 없어서 더 부르지 못했다.

27. 쾌지나칭칭나네

T 성연면 명천리 ②—B면

쾌지나칭칭나네
대밭에는 마디도 많건마는
훌륭하게도 잘 컸네

쾌지나칭칭나네
사람 마디는 마디두 없이도
쭉쭉 뻗어서 길기도 하구나

쾌지나칭칭나네
오늘 저녁에는 손님도 많고
얘기도 많구나
쾌지나칭칭나네

채록 일시 : 1986. 12. 25. 오후 7시 15분경
구 연 자 : 이 우명(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명천노인회 회장)
본 적 : 충남 서산군 부석면 강당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175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28. 뱃 노 래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한강수라…… 깊고 얕은 물에
소상양을 타고서
어루활 뱃놀이 가잔다
아……하 에……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 25분경

구 연 자 : 윤 명순(남, 68세, 농업 · 어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90
채록 장소 : 중왕리 노인회관
채록 상황 : 민담 채록 후에 민요를 부탁하자 한 노인이 장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29. 창부 타령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아하…… 어화둥둥 내 사랑아
황해도 구월산 밑에 지지배만 데꾸 나가
노을……〔청취 불능〕……
우리집을 아시려거든 삼신산 방가봉 밑의 초가삼간이 내 집이니
마음이 있으면 날 따라 오고 생각만 있다면 쫓아오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겠네

해 다 가고 저문 날에 옷가심하고서 어디 가니
첩의 집에 가시려거든 나 죽는 꼴이나 보고 가요
첩의 집에 왔다기에 나 이리는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인데 임 못 대하기는 사시장천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문 선황(남, 74세, 농업 · 어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72
채록 장소,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30. 청 춘 가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느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
인생일장춘몽이어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세천당 세모진 가지에 높다라니 그네를 매고
임이 떠면 내가 밀고 내가 떠면 임이나 밀고
아이야 줄 살살 밀어라 줄 끊어지면 정떨어진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 25분경
구 연 자 : 윤 명순(남, 6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9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31. 노랫 가락

T 지곡면 중왕리 ①—A면

가고 못 오실 임이면 정이나 마저 데려가지
몸은 가고 정만 남으니 밤은 첩첩야삼경인데
사람의 힘이라서야 평안을 얻을까 말 물어 보자

나 정만 주지 말고 남의 정을 당하지 말라
이제도 남은 정 가지고 백년을 긴 탈 없이 잘 살아 보세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경
구 연 자 : 문 선환(남, 74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구 272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중왕리 노인회관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중왕리 노인회관에 찾아가서 만났다. 성 동식씨의 민담 구연에 이어서 민요를 부탁하여 구연한 것이다. 노래를 할 때에는 옆에서 장구로 반주를 해주었다.

32. 딱따구리 타령

T 지곡면 중왕리 ②—A면

저 산에 딱따구리는
두러챈 나무 구멍도 뚫는데,

우리 집 저 못난이는
뚫어진 구녕도 못 뚫는다.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란다 디어라
요것도 내 사랑이로다.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전 11시 10분경
구 연 자 : 윤 희(남, 50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중왕리 노인회관 앞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여러 사람이 모여 한편에서는 윷을 놀고, 한편에서는 담소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조사반원의 한 사람인 김창진 선생이 방언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새의 이름들이 나오니까, 자진하여 새의 유래담과 이 노래를 구연하였다.

33. 모찌는 노래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출렁 출렁 모 한 때 쪘네
그 말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짐 쪘네

(말) 자, 일꾼들, 내 말 듣게.
우리설랑은 잠깐 담배 한 대 먹구 또 하세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대산면 독곶리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대산면 독곶리 2구 경로당에 찾아가니 노인 10여 명이 모여 한쪽에서는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고, 한 쪽에서는 담소하고 있었다. 채록자 일행이 당도하자 화투놀이를 중지하고 모두 둘러 앉아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김 유환씨, 이 태동씨, 정 종관씨의 건설과 민담을 들은 다음에 옆 사람의 권유로 구연자 차씨가 노래를 했다. 차씨는 이웃마을에 사는데, 심심하여 가끔 이곳으로 놀러온다고 한다. 차씨는 노동요를 해 보라는 채록자의 권유를 받아들여 법씨를 뿌려 모를 찌고, 모를 심고, 논매기를 하고, 타작을하여 곡식을 말로 되어 섬에 담을 때까지의 농사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 때마다 부르는 노래

를 하였다. 그러나, 받아 주는 사람이 없고, 힘이 든다하여 간단간단하게 불렀다. 노동요가 끝난 뒤에는 노랫가락도 불렀다.

34. 도사리 노래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에…… 헤…… 에헤이로야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구
월출동녁에 달이 솟아온다
에…… 헤……야 에헤이로야

(도사리 : 못자리에 난 어린 잡풀)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40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35. 모심기 노래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여기두 다섯이면 열이 열 다섯이요 스물이라
스물 다섯은 서른 서른 다섯 마흔
마흔 다섯 쉬흔 쉬흔 다섯 예순이라
예순 다섯 일흔 일흔 다섯 여든이라
여든 다섯 아흔 아흔 다섯은 백대를 심었구나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장소, 만나게 된 경위,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36. 논매기 노래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1)

얼카멩이냐 잘 넘어간다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녁에 달이 솟네
얼카멩이 잘도 넘어간다

이논배미를 잠깐 매구서
장구배미로 내려가세

(말) 자 일꾼들, 일만 하는가? 술 한 잔 먹구서
담배 한 대 잠깐 빨구서 하세

(2)

오늘도…… 에…… 헤……
하 심심하니…… 노래 한 장 하여 보세
에…… 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에…… 헤……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와라
어…… 허…… 어…… 허……
아…… 헤…… 헤……
아…… 헤…… 헤……
명산대천에 빌지를 말고
나 댕기는(나다니는) 행인을 팔세를 말어라
에…… 헤…… 헤이

(3)

열려라 훌티려라 열려라 훌티려라
양팔을 둘러가며 장해만들 영해만들

열려라 훌티려라
그럭 저럭 잘도한다 열려라 훌티려라
열려라 훌티려라 열려라 훌티려라
훌티려라 훌티려라 훌티려라 훌티려라
장해만들 영해만들 훌티려라 훌티려라

(말) 여, 자네 말여, 품값 받아서
내일 버그내 장에 가서 술 한 잔 먹세.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45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37. 만되기 노래

T 대산면 독곶리 ②—A면, B면

하나면…… 두 말, 둘이면…… 서말,
셋, ……이면 너 말, 네엣이면 다섯,
다섯……다섯이면 여섯, 여섯 여섯이 일곱,
일곱…… 일곱은 여들, 여들…… 여들이 아홉,
아홉…… 아홉이 열 말, 열…… 열이면 열 한 말,
열 하나면. 열 두 말, 열 두말이면 열 서말,
열 셋…이면 열 너 말, 열…너…말이면 열 다섯 말,
열…다…섯이면 열 엿 말, 열 여섯말이면 열 일곱 말,
열 일곱 말이면 열 여덜 말, 열 여덜 말이면 열 아홉 말
열 아홉 말이면 스무 말.
(*하나를 세는 동안에 한 말을 된다고 함.)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4시 45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38. 노랫 가락

T 대산면 독곶리 ②—B면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이어든 아니 노지는 못하겄네

나무도 고목이 되면 오던 새도 아니나 오고
꽃이라도 꺾어지면 오던 나비도 아니나 오고
잎이라도 건주가 되면 오던 개미도 아니 오고
사람도 늙어지니께 임도 아니나 오네

채록 일시 : 1986. 12. 오후 4시 48분경
구 연 자 : 차 선길(남, 79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지곡면 환성리 2구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39. 노랫 가락

T 대산면 독곶리 ③—A면

놉시다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
인생일장춘몽이어든 아니 노지는 못하리요

친구간이언마는 어이 그리두 유정한지
보며는 반가웁고 못 보며는 그리워라
언제나 유정한 임 만나 이별 없이두 살어볼까

삼각산 낮은 줄기 비봉 바닥에 절을 짓고
노니리라 노니리라 삼각칠성을 노니리라
상좌야 글 냉이 올려라 염불 공부나 하여 보세

채록 일시 : 1986. 12. 26. 오후
구 연 자 : 김 옥봉(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구 205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상황, 기타 : 앞 노래와 같음.

40. 노랫 가락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정든 임을 만나 부질없이 정들여 놓고
한시를 못본다면 그리워서 못살것네
그대 만날 생각 없는디 나만 홀로서 짝사랑인가

사랑은 내 사랑이지 박사님 오셔서 더 사랑허여
사랑이 불같으면 태우는 것은 가슴이라
가슴만 탈 뿐 아니라 있는 정신이 다 타누나

이몸도 나비나 되어 삼월동풍에 훨훨 날아
이 꽃 저 꽃 가지를 마라 네 맘대로 많은 꽃 위로
영아야 네 빛이 곱다고 오는 나비를 팔세 말게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야당리 원당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만났다. 한쪽에서는 화투놀이를 하는데, 그 옆에서 이야기판을 벌여 구연자 이씨로부터 20여 가지의 전설과 민담을 채록하였다. 이야기판이 시들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노래를 부탁하였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화투하던 분들이 화투놀이를 중지하고 구연자의 옆에 앉아 구연자를 부추기며 잘 하라고 하였다. 구연자 이씨는 이야기도 잘 하였고, 노래도 잘 하였다.

41. 논매기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A면, B면

(1) 호미뎅이

얼카뎅이 얼카뎅이

세구 감세 얼카멩이
얼카덩어리 얼카멩이
여기두 찍구 얼카멩이
저기두 찍구 얼카멩이
잘도 매네 얼카멩이
일축절축이 얼카멩이
요각멩이로 얼카멩이
일축절축이 얼카멩이
얼카멩이로 얼카멩이
장구배미로 얼카멩이
넘어서세 얼카멩이
얼카덩어리 얼카멩이
얼카덩어리 얼카멩이
얼씨구나 에헤야

(2) 문셍이노래

오늘도 에…… 하 심심하니 노래나 한 장 불러 보세
오…… 이… 어… 호 ……
아……
오……
아……
노래는 잘 불렀지만 춤이나 너실너실하게 한번 춰 보세
에……
얼씨구나 어 ……
에헤…… 에헤에에야 ……
어리목을 오호나…… 차…… 꼬 ……
에이여라 차 ……
여기를 매고 이 쪽 저 쪽을 둘러 봐 가면서
아이 어어 어……

(3) 얼가챠 멀가챠

얼가차 멀가차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소리가 나거들랑
얼가차 덜가차
한 마딜랑은 높여를 받고
얼가차 덜가차
한 마딜랑을 낮춰를 받아요
얼가차 덜가차
저기 가는 저 할머니
얼가차 덜가차
딸이나 있거들랑 날 사위 삼아요
얼가차 덜가차
딸은 있기는 있지만
얼가차 덜가차
나이가 어려서 못 삼것네
얼가차 덜가차
아따 할머니 별 말씀 다 해요
얼가차 덜가차
참새는 작아도 알을 낳고
얼가차 덜가차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가요
얼가차 덜가차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소리가 잘도 허면
얼가차 덜가차
먼 디 사람은 듣기도 좋고
얼가차 덜가차
가깐디 사람은 보기도 좋아
얼가차 덜가차
얼가차 소리가 일만 된다
얼가차 덜가차

올타 그렇지 잘들도 맨다
얼가차 덜가차
세월아 당체 가지를 마라
얼가차 덜가차

(4)

이노행 오호이 오호이…… 이노행 오호이 오호이……
이이호 이이호 에헤야
에헤에 에헤이… 에헤야
이노하…… 이노행이 오호오호
오호이 에헤이야 이노행……
에헤이야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야 에헤이야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구 연 자 : 유 부동(남, 61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구 연 자 : 이 종수(남, 65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채록 장소 : 야당리 원당 경로당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이 노래는 이 봉율씨가 장구를 치며 선창을 하고, 옆에서 유 부동씨와 이 종수씨가 후렴부분을 후창한 것임.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경로당에모여 있던 노인 14,5명과 밖에 있던 마을 사람 4,5명까지 들어와 함께 거들었고, 조사단원 7명이 녹음을 하였다. 그래서, 아주 흥겨운 분위기였다. 이 노래 뒤에 계속해서 벼 베는 노래, 자리개질 노래, 말 되는 노래, 상여노래 등을 불렀다.

42. 모 찌는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B면

출러덩 출러덩 하시더니 모 한 찜 쪘네
출러덩 출러덩 하시더니 또 한 찜 쪘네
출러덩 출러덩 찌더니 또 한 찜 쪘네

출러덩 출러덩 찌더니 또 한 짐 쩠네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43. 모심기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B면

에헤 에헤디여라 상사디여
에헤 에헤 디여라 상사디여
여기두 심고 저기두 심고 딱 고르게만 심어 주게
에헤 에헤 디여라 상사디여
이 논배미 모를 다 심구서 장구배미루 넘어서세
에헤 에헤 디여라 상사디여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35분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구 연 자 : 유 부동(남, 61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구 연 자 : 이 종수(남, 65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44. 벼 베는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B면

에헤…… 하 에헤이 오호……
에헤이 이이야 호아
달은 뜨고 해 넘어 가는데 임자 생각이 저절로 난다
오호…… 오호 아…… 아…… 오호
에헤이 이이야 호아

임을 못 볼 적인 할말 못할말 다 했더니
임을 대하니 어안이 벙벙하더라
오호…… 오호…… 아…… 하…… 오호 에헤이 이이야 호아……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리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리로다

(* 세워 놓은 빗가리를 옮겨 세우며 부르는 노래임)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30분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구 연 자 : 유 부동(남, 61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구 연 자 : 이 종수(남, 65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45. 자리개질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B면

또 들어간다 에 헤……헷
어기어차 에 헤……헷

채록 일시 : 1986. 12. 27.
구 연 자 : 유 부동(남, 61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46. 말되기 노래

T 인지면 야당리 ②—B면

한 말……
둘…… 둘이라 서너 말
세…… 셋이라 너덧말이요

넷…… 넷이라 다섯말
다섯 다섯이 여섯말이요
여섯 여섯이 일곱 말
일곱 일곱은 여들 말이요
여들 여들은 아홉 말이요
아홉은…… 열 말이요
(열 말을 다 되고 나면 말 밑을 탁 친다)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 55분경
구 연 자 : 이 봉을(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번지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47. 상여 노래

T 인지면 야면리 ②—B면

아하…… 어리가리 너화
어허 오허 어리가리 너화
불쌍허다 불쌍허다 어린 상제가 불쌍허다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황천길이 멀다더니 대문 턱이가 황천일세
어허오허 어이가리 너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올 날이나 일러 주게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명년 춘삼월이도 좋고 이따 한 번 옵세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아하 아하 어리가리 너화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젊은 때 못 놀고 나는 간다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아하 아하 어리가리 너화
우리 엄마 나 어렸을 때 젖을 먹여 키웠건만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막내아들 잊지 말고 젖 잘줘 키우기를 바라고 가네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아하 아하 어리가리 너화

젊은 상제 깔을 먹여 이 고깔을 언제 넘기나

어허오허 어리가리 너화

채록 일시 : 1986. 12. 27. 오후 5시경

구 연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구 연 자 : 유 부동(남, 61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구 연 자 : 이 종수(남, 65세, 농업)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채록 상황 : 앞 노래와 같음. 선창 부분은 이 봉율씨가 부르고, 후렴 부분은 유 부동씨와 이 종수씨가 부른 것임.

48. 논매기 노래

T 소원면 파도리 ②—A면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허 허이어라 어럴럴럴 상사디여

어하 어이 얼싸 에루화 매화로다

어허 허이어라 어럴럴럴 상사디여

에야디야 에야 어기어차 에루화 매화로다

어허 허이어라 어럴럴럴 상사디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떠덜렁거리구서 얼싸 나는 가리

어허 허이어라 어럴럴럴 상사디여

어이허라 어이허라 얼씨구 좋다 나는 간다

채록 일시 : 1987. 1. 5. 오후 5시 18분경

구 연 자 : 이 평순(남, 78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2구 440

주 소 : 위와 같음.

채록 장소 : 구연자의 집 안방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파도리 2구 이장의 안내로 구연자 이씨의 집을 찾아가 10여 편의 건설과 민담을 채록한 다음에 민요를 부탁하여 구연한 것이다.

청 중 : 구연자의 부인과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구연자의 손녀가 옆에 앉아 조개를 까며 들었다.

六. 俗　談

崔　雲　植

속 담 (1)

○ 물레 고장은 게머리서 난다.
○ 병풍에 모가 둥글 듯한다.
○ 고르다가 석새 베 골랐네.
　(잘못 골랐음을 이르는 말)
○ 안 양반 인심이 후덕해야 바깥 양반 출입이 넓다.
　(저외 집에 오는 사람의 대접을 잘 해야 다른 데 가서도 대접을 잘 받는다는 뜻)
○ 성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안 줘서 못 먹겠네.
　(형수 되는 이가 흔히 시동생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말)
○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시네.
○ 떡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입맛 다시네.
　(미리부터 기대한다는 뜻)
○ 사또 덕분에 나발 분다.
　(남의 힘을 빌어서 자기 일을 할 때 쓰는 말)
○ 소탈 놈은 뒷전에 있다.
○ 메꾸리 쪼그러지면 세 동네 사람이 일세워도 못 일세운다.
○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철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것을 이르는 말)

조사 일시 : 1986. 12. 24. 오전 11시 40분경
제 보 자 : 오 수본(남, 75세, 농업, 한문 수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주　소 : 위와 같음.
　제보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제보자 : 한 봉단(여, 71세, 농업, 무학)
본 적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정자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속 담 (2)

○ 구메기 미서워서 된장 못 담느냐?
(다소 꺼리는 일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뜻)
○ 개천에서 용 났네, 저 집이.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뜻)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허네.
(출세한 뒤에 그 전 시절을 잊고 건방지게 군다는 뜻)
○ 쇠뿔도 단김에 빼라.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빨리 끝맺음 하라는 뜻)
○ 보질꾼은 멍에 맬 때 보아야 헌다.
(중요한 것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다.)
○ 농우(農牛) 소는 굽이 좋아야 한다.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
○ 옷바시(땅벌)가 대감을 아나?
(무식한 존재는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른다는 뜻)
○ 소 잃고 오양간 고치여 뭣히여?
(쓸데 없는 일이라는 뜻)
○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여자가 너무 나서면 일이 안 된다는 뜻)
○ 예미장터 과하듯 하네.
(한꺼번에 많은 것이 사라진다는 뜻)
○ 하루 걸이도 오래되면 장질부사가 된다.
(작은 일도 오래되면 큰 일이 된다.)
○ 사위 자랑은 장모가 한다.
○ 꿩 구워 먹던 자리다.
○ 꿩 대신 닭이다.
(바라던 것을 못 얻으면 그만 못한 것으로 대신한다.)

조사일시 : 1986. 12. 25. 오전 10시 30분경
제 보 자 : 유 각무(남, 68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주 소 : 위와 같음.

속 담 (3)

○ 잠깐 놀래기는 율무기가 낫다.
○ 말이 비단이다.
○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조사 일시 : 1986. 12. 27. 오후 4시경
제 보 자 : 이 봉율(남, 75세, 농업, 국문 해득)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2구 250

七. 수수께끼

崔　雲　植

수수께끼 (1)

○ 손주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도 할아버지는 손주 방에 못 들어가는 게 뭐냐?
(사발하고 종재기)

○ 장도 장도 못 먹는 장이 뭐냐?
(송장)

○ 아침에는 열냥, 저녁에는 닷냥이 뭐냐?
(사립문, 대문)

○ 늙어가며 살 찌는 게 뭐냐?
(담벼락)

○ 밥도 밥도 못 먹는 밥이 뭐냐?
(톱밥)

○ 조금 나왔어도 쑥 나왔다고 하는 게 뭐냐?
(쑥)

○ 먼 산 보고 절하는 게 뭐냐?
(방아공이, 절구대)

조사 일시 : 1986. 12. 22. 밤 8시 40분경
제 보 자 : 정 덕순(여, 60세, 농업, 국문 해득)
　본　적 : 경북 영천
　주　소 : 충남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제 보 자 : 이 창순(여, 60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외나리
　주　소 : 충남 서천군 고북면 장요리
채록 상황 : 위 두 사람이 설화를 구연한 뒤에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주고 받은 것임.

수수께끼 (2)

T 해미면 동암리 ②—A면

○ 지안의 지가 뭐냐?
(바지 안의 자지)

○ 깐의 짝이 뭐냐?
(뒷간의 볼기짝)

○ 둑의 치가 뭐냐?
(논둑의 까치)

○ 꽂의 깽이가 뭐냐?
(못꽂이의 노깽이(노끈))

○ 응달샘에 차돌짝 들어앉은 게 뭐냐?
(두멍 안의 두부모)

○ 거먹 소가 여물 잘 먹는 게 뭐냐?
(아궁이)

○ 쑥 나온 게 뭐냐?
(쑥)

○ 응달샘에 실배암 들어 앉은 게 뭐냐?
(등잔불)

○ 죽은 나무에 꽃피는 게 뭐냐?
(등잔불)

○ 왕솔밭 밑에 장솔밭, 잔솔밭 밑에 깜재기, 깜재기 밑에 훑찌래기, 훑찌래기 밑에 날래미, 목포에서 배를 타고 신의주로 가는 게 뭐냐?
(사람의 얼굴과 몸. 목—목포에서, 배—배를 타고, 신을 신으니까 신의주로 간다고 함.)

○ 쇠다리 건너 대다리, 대다리 건너 쇠다리, 쇠움팡집(오두막집)이 뭐냐?
(담뱃대)

조사 일시 : 1986. 12. 24. 오후 4시경
제 보 자 : 오 영렬(여, 65세, 농업, 무학)
본적 및 주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제보자 : 김 창화(여, 47세, 농업, 국졸, 동암리 부녀회장)
본 적 : 충남 서천군 부석면 월계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제보자 : 김종례(여, 55세, 농업, 국졸)

본 적 : 충남 서천군 인지면 화수리

주 소 : 충남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채록 장소 및 채록 상황 : 동암리 윤 상석 이장댁 안방에서 동민 6명이 둘러앉아 수수께끼를 아는 대로 말해 달라는 조사자의 부탁을 받고, 돌려가며 한 것이다.

Ⅶ. 藝能과 競技傳承

張　長　植

一. 概　觀

민속놀이는 크게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뉘어진다.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를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놀이의 성격상 분류될 수 있다. 곧, 여러 사람의 집단적 힘이나 화합이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집단놀이로 취급할 수 있으며, 개인놀이는 집단적인 힘이 없이도 한두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개별적 차원의 놀이를 뜻한다.

개인놀이는 놀이 주체자들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놀이양상이 다른데, 소년 소녀의 놀이, 남자 어른들의 놀이 및 부녀자들의 놀이로 대별되며, 집단놀이는 대체로 한 마을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 놀이로서, 지역적 특성——향토성이 강조되는 향토 축제의 성격을 띤다.

조사 대상지역인 서산군은 섬과 바다에 연접해 있는 해안지방과 내륙과 연접해 있는 내륙지방이 고루 분포해 있는 지역으로서, 어촌과 농촌 및 산촌의 촌락적 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전승되어 오는 민속놀이도 촌락적 특성을 갖고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지역의 민속놀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촌과 농촌 및 산촌에서 조사된 민속놀이가 비슷하며, 교통의 발달과 산업화에 따라 놀이의 개별성을 일탈하여 보편성을 띠는 놀이들이 주로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단놀이인 줄다리기나 농악 등도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들로서 그나마 자발적인 전승력을 상실한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개인놀이도 놀이 주체자에 따라 전승양상이 다른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조사된 민속놀이들은 놀이 주체자들의 뚜렷한 구별이 안될 뿐더러 놀이가 벌어지는 계절이나 절기의 구분까지도 모호한 점이 특색이다. 바꿔 말하면, 남자놀이를 여자도 하고, 여자놀이를 남자들이 하는 등 놀이 주체자의 교체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똑같은 한 놀이가 어느 마을에서는 겨울에만 하는데 반해 어느 마을에서는 계절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전승시기까지도 혼재하고 있다.

서산군에서 조사된 민속놀이는 모두 70여 가지로, 어른 놀이보다는 아동놀이가 주종을

이룬다. 이것은 아동놀이는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으나, 어른 놀이는 전승력을 상실한 채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보자를 어른으로 택해서 조사할때 놀이종류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놀이 방법의 착각과 망각 현상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까닭에 놀이의 전체적 모습을 알 길이 없다.

아동놀이의 경우, 현재 전승되고 있는 현장까지도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놀이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조사할 수 있었으며 놀이방법 또한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놀이는 놀이 주체자인 아동들의 창조력에 의해 비슷한 유형의 놀이로 분화 발전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하는 놀이 중 그 명칭이 국적 불명인 것이 더러 있다는 점을 또한 특색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징어놀이를 오징어 가샹·오징어 가이생·오징어 낌 등으로 지칭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가샹이나 가이생은 일어 '開戰'의 와음으로 볼 수 있고, 낌은 영어 'Game'의 와전으로 볼 수 있으나,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런 양상으로 고착되어 전승되고 있는가는 더 구명해야 할 과제라 생각된다.

조사된 놀이의 윤곽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명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누·구슬치기·가마타기·공기놀이·갈퀴치기·그네타기·네거리놀이·나이먹기·낫치기·널뛰기·농악·대한말·돌차기·달팽이놀이·두꺼비집 짓기·댕공치기·방패놀이·발밟기·비행기 놀이·발걸음 메기·병신놀이·부채놀이·보싸움·비석치기·별놀이·보물뺏기·십자가놀이·시계놀이·색깔찾기·씨름·세발뛰기·술레잡기·시계추 놀이·신발 던지기·요술공주 놀이·오징어놀이·얼음불·육해공군·여의봉 놀이·이름대기·안경놀이·열발놀이·얼굴지우기·진뺏기·집뺏기·자치기·자동차놀이·제기차기·종경도놀이·천당뺏기·숫자놀이·팽이치기·깡통차기·꽃단지·땅재먹기·찌름찍기·해바라기 놀이·연 날리기·윷놀이·쥐불놀이·고무줄 넘기.

二. 각 마을의 民俗놀이

1. 瑞山邑 德之川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고 누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홍 계표(56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마을에서 '고니'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대청 마루

(3) 놀이자 : 남자 2명

(4) 놀이 용구 : 사발고니 ; 말 3개씩
곤질고니 : 말 12개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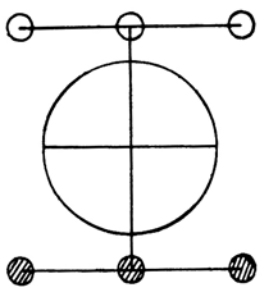
(5) 놀이 방법

가. 사발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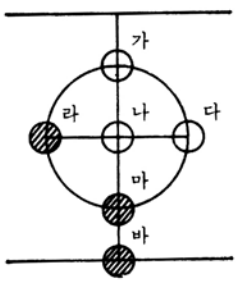
말판의 횡선에 각각 세 개씩 말을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이동한다.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진로를 차단시키면 이긴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이 가·나·다에 있고 ●이 라·마·바에 놓이게 될 경우, ○이 이동할 차례이면 진로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이기는 것이 된다. 자기 집으로 후퇴할 수 없고 자기 집에서 왔다갔다 할 수도 없다.

◇ 사발고니의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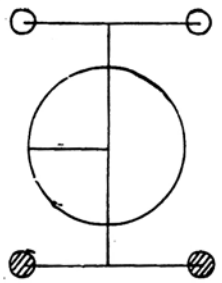
이 놀이도 조사마을에서 '사발고니'로 불리는데, 원래의 사발고니를 두는 방법과 같다. 다른 점은 말을 두 개씩 사용하고 원[사발]의 횡선이 반만 그어져 있는 것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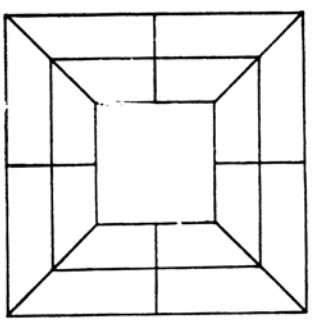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나. 곤질고니

곤질고니는 각각 12개의 말을 사용해서 노는 놀이인데 놀이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말을 교대로 하나씩 놓아 나가는 '말 놓기'와 놓은 말을 교대로 한 칸씩 이동하는 '움직이기'가 그것이다.



〈그림 4〉 곤질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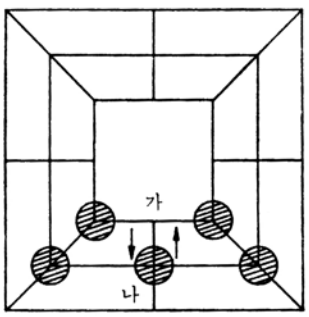
◇ 말 놓기

양편 모두 12개의 말을 갖고 시작한다. 번갈아서 말 하나씩을 말판 위에 놓는데,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되면 상대편 말 중에서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편에게는 불

리하도록 하나를 골라 집어낸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세 개가 일렬로 되면 우선 그 줄에 자기 말을 놓아서 막아야 한다. 말을 떼어낸 곳에는 말을 다시 놓을 수가 없으며, 떼어낸 곳에는 표시를 해둔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 편 모두 12개의 말을 놓는다.

◇ 말 움직이기

12개의 말을 각각 다 놓으면, 교대로 한 칸씩 이동한다. 말을 이동시킬 때,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도록 하거나, 상대편 말 세개가 일렬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면 상대편의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낸다. 이때,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편에게는 불리하도록 말을 골라서 따낸다.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놓일 때, 이를 '고니'라 한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이 고니가 안되도록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방해해야 한다. 또, 자기 말을 이동할 때에는 고니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야 한다.



〈그림 5〉

말이 〈그림 5〉와 같이 놓일 때, 이를 '들랑고니'라 한다. 가에 있던 말이 나로 이동하면서 고니를 만들고 다시 가로 이동하면서 고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들랑고니가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을 이동하면서 놀이를 계속하다가 어느 한쪽에 말이 두 개만 남으면 판이 끝난다. 말 두 개로는 고니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만 남은 사람이 결국 지는 것이 된다.

2) 윷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중칠(54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1) 노는 시기 : 음력 정월 한 달 동안
(2) 노는 장소 : 양지바른 마당. 안방
(3) 놀이자 : 장윷—남자
쪽윷·콩윷—여자, 노인
(4) 놀의 용구 : 윷판·윷·말 네개씩

가. 윷판

윷판은 29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멍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조사 마을에서 조사된 구멍의 이름은 '도〔또는 돼야지〕·개·걸·사짜〔또는 사룩발·윷〕·모·방·방한뿔 방두뿔·뒷구녕·낼밭' 뿐이고 나머지는 미상(未詳)이나, 윷놀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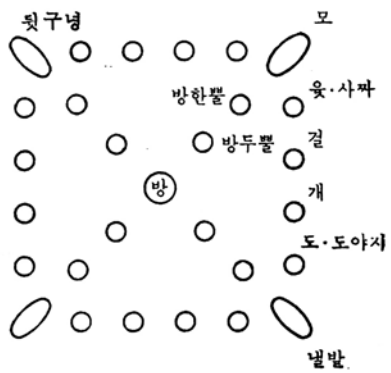
민속놀이인 까탉에 다른 지방의 이름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 윷가락

◦장윷 : 길이 15~20cm, 직경 3~5cm 정도의 밤나무나 참나무 줄기를 두 쪽으로 나누어서 만든다.

◦쪽윷 : 밤나무나 참나무를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로 쪼개어 만든다.

◦콩윷 : 콩이나 팥 알갱이를 반으로 쪼개어 만든다.



〈그림 6〉

(5) 놀이방법

1m 밖에 서서 멍석 위에 윷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끝 수대로 말을 이동해서 네 개의 말을 모두 하게 되면 이긴다. 윷가락 한 개가 젖혀지면 '돼야지', 두 개가 젖혀지면 '개', 세 개가 젖혀지면 '걸', 네 개가 젖혀지면 '사짜' 또는 '사륙밭', 네개가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한다. 돼야지는 한 칸을, 개는 두 칸을, 걸은 세 칸을, 사짜는 네 칸을, 모는 다섯 칸을 각각 간다. 그리고, 사짜와 모의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말이 한 개씩 가지 않고 두 개씩 함께 가는 것을 '볶는다'고 하며, '두동' 또는 '두동사니'〔두동무니〕라고도 한다. 세 개씩 함께 가는 것을 '세동', 또는 '섯동사니' '전서거리'라고 한다. 네 개가 함께 가는 것을 '네동' 또는 '막동사니' '전마거리' '막동치기'라고 한다.

말이 하나 났을 때 '홑났다'고 하며, 두 개가 났을 때는 '둥났다'고 한다. 세 개가 났을 때는 '섯났다'고 하며, 마지막 한 개의 말이 이동할 때 '막간다'고 한다.

말이 볶아서 다니다가 상대편 말에게 잡히면 모두 실격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볶아서 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달려 있다. 상대편 말을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 말 이동에 쓰이는 용어

◦회구진다 : 걸이나 윷에 있던 말이 모로 들지 못하고 뒷도 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말한다.

◦방운다 : 방한뿔이나 방두뿔에 있던 말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방얹다'라고도 한다.

◦방넘어갔다 : 방한뿔이나 방두뿔에 있던 말이 방에 들지 못하고 속윷이나 속모로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찌모로 올라가는 것은 '내찌었다'라고 한다.

◦뒤꼰는다 : 뒷도·뒷개·뒷걸·뒷윷에 있던 말이 뒷구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스무구녕 판다 : 뒷도 · 뒷개 · 뒷걸 · 뒷윷에 있던 말이 뒷구녕에 들지 못하고 찌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 멕였다 : 안찌나 날윷에 있던 말이 도가 나와서 나지 못하고 낼밭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 쪽윷 노는 방법

쪽윷이나 콩윷은 여자들이 방에서 노는 윷놀이로서, 종지 안에 윷을 넣고 손바닥으로 덮어 흔든 다음 땅바닥에 윷가락만 던져서 나오는 끝 수대로 말을 이동한다. 나머지는 장윷과 같다.

3) 자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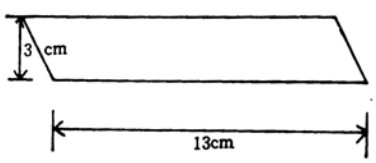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중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겨울, 초봄

(2) 노는 장소 : 마당이나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메뚜기〉

〈그림 7〉 메뚜기

① 메뚜기 : 13cm 정도의 참나무 토막

② 메뚜기채 : 45cm 정도의 참나무 막대. 이것을 보통 '채'라고 하며, 거리를 잴때 채의 거리를 한 자'로 계산한다.

(5) 놀이 방법

이 놀이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이 한 번이라도 실격을 하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시작하기 전에 '몇 자 내기'를 정하는데, 보통 '천 자 내기' 또는 '오천 자 내기'를 한다.

놀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야 한다.

◇ 놀이 1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길쭉하게 판 다음 그 위에 메뚜기를 가로로 놓는다. 그리고는 채로 떠서 날릴다. 이때, 수비편이 메뚜기를 받으면 실격이 되나 받지 못하면 구멍을 향해 메뚜기를 던진다. 공격자는 수비편이 던진 메뚜기를 되받아 쳐서 날리는데 맞히지 못하고 헛손질을 해도 무방하다.

던진 메뚜기가 구멍에 닿거나 들어가면 실격이 되고, 구멍에 닿지 않으면 세 번을 칠 수

있다. 또, 수비자가 던진 메뚜기를 되받아쳤을 때에도 세 번을 칠 수 있다.

메뚜기의 끝을 채로 쳐서 일단 공중에 띄운 다음 다시 쳐서 날린다. 이때, 망을 치거나 띄운 메뚜기를 치지 못하면 세 번의 공격권 중 한 번이 삭제된다. 이런 방법으로 메뚜기를 쳐서 멀리 날린 다음, 구멍과 메뚜기와의 거리를 채로 잰다.

거리를 잴 때 채로 일일이 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공격자가 눈짐작으로 재서 잣수를 부르면, 수비편이 "재봐"라든가 "먹어" 하고 말한다. 즉, 수비편이 잣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재봐"하고 말한다. 만약, 채로 거리를 재서 잣수가 부족하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재서 잣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공격자의 점수에 가산된다. 또, 수비편이 잣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먹어" 하고 말한다. 그러면, 공격자는 자기가 부른 잣수를 점수에 가산한다.

거리계산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 방법 2

한 발로 땅에 그려진 원을 밟고 서서 왼손에 메뚜기를, 오른손에 채를 각각 든 다음, 메뚜기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채로 쳐서 날린다. 날린 메뚜기가 10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날아오는 메뚜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면 떨어진 메뚜기를 주워서 원쪽으로 던진다. 이때, 메뚜기가 구멍 속에 들어가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던진 메뚜기를 공격자가 되받아칠 수도 있다.

땅에 떨어진 메뚜기 끝을 채로 쳐서 공중에 띄운 다음 다시 메뚜기채로 쳐서 날린다. 그리고, 메뚜기와 원 과의 거리를 채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거리를 잴 때에는 〈방법 1〉과 같이 한다.

4) 낫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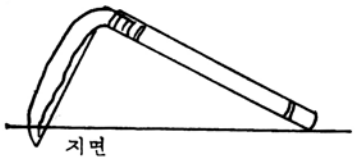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욱춘(64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논두렁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낫
(5) 놀이 방법

꼴을 베러 들에 나가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이다. 놀이자 전원은 꼴을 '한 전'씩 붙여놓고 내기를 한다. 이때, '한 전'은 한 아름을 뜻하는 말로, 각자 꼴

한 아름씩 걸고 시작한다.

일정한 거리에 선을 그려놓고 출발선에서 낫을 집어 던진다. 던진 낫이 땅에 꽂히면서 바르게 서는 사람이 이긴다. 〔그림 참조〕한 번 던져서 모두 실격이 되거나 똑바로 꽂힌 사람이 여럿일 때 2차, 3차 다시 던져서 승부를 낸다. 이런 방법으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데 최종 승자는 모아 놓은 꼴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그림 8〉

낫을 던질 때는 자루의 끝이나 낫날의 끝을 엄지와 인지로 붙잡고 던져야 한다. 그리고, 던진 낫이 공중에서 몇번 회전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땅에 꽂힐 확률이 높다.

◇ 갈퀴치기

낫 대신 갈퀴를 가지고 놀 때 이를 '갈퀴치기'라고 한다. 가을이나 초겨울에 산에 낙엽을 긁으러 갔다가 하는 놀이이다. 낙엽을 한 전씩 걸고 한다. 갈퀴 자루의 중간을 잡고 집어던져서 갈퀴밑이 땅바닥 쪽을 향해 놓이면 이긴다.

5) 보싸움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옥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개울이나 도랑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방법

여름에 고기를 잡으러 개울이나 도랑에 나갔다가 편을 갈라서 노는 놀이이다. 개울의 위아래에 각각 물을 막아 보를 쌓는데, 위에 있는 보를 '웟보'라고 하고 아랫쪽에 있는 보를 '아랫보'라고 한다.

일정한 시간 동안 각각 물을 막으면서 돌과 흙 등을 이용해 보를 쌓은 다음 웟보를 터뜨려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게 한다. 이때, 물에 의해 아랫보가 터지면 웟보 편이 이기는 것이 되고, 터지지 않고 넘쳐 흐르면 아랫보 편이 이기는 것이 된다.

6) 제기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옥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 겨울

(2) 노는 장소 : 마당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제기. 엽전을 헝겊이나 종이로 싸서 끝을 말아 엽전 구멍에 꿰어 내거나 목을 실로 매고 끝을 여러 가닥으로 쪼개어 만든다.

(5) 놀이 방법

제기차기에는 '동네 제기'와 '세 발 걸이'의 두 종류가 있다.

동네 제기는 놀이가 빙 둘러 서서 제기를 차서 상대방에게 넘기면 제기를 받은 사람이 다시 차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놀이이다. 못차거나 제기가 몸에 닿았을 때 실격이 된다. 실격된 사람은 놀이자 전원에게 제기를 한 번씩 던져주어야 한다.

세 발 거리는 외 발 차기와 양 발 차기 및 옆차기의 세 가지를 한 다음 제기를 찬 수를 합하여 승부를 가름하는 놀이이다.

외 발 차기는 제기를 한 발로 찬 다음 땅을 짚고 다시 차는 것을 말한다. 외 발 차기 중 땅을 짚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헐렁이'라고 하는데, 옆차기 대신 세 발 거리에 넣을 수도 있다.

양 발 차기는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차는 것을 말하고, 옆차기는 오른발 등의 오른 쪽으로만 차는 것을 말한다. 이 옆차기를 '뒷발 차기'라고도 한다.

7) 팽이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최 옥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평평한 땅이나 빙판 위

(3) 놀이자 :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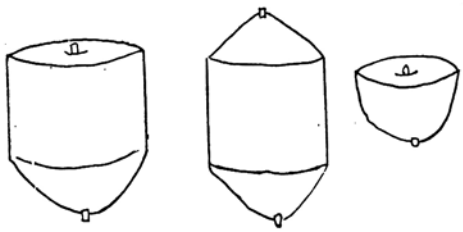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퍼이 · 퍼이채

가. 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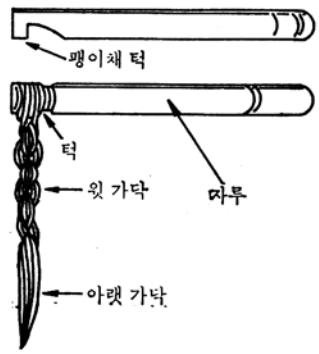
소나무의 광솔 부분을 깎아서 만드는데, 퍼이의 위와 아래 부분에 못이나 쇠구슬을 박아 잘 돌도록 한다.

나. 퍼이채

잡나무 가지를 잘라서 퍼이채를 만드는데, 퍼이채 턱은 홈을 파서 줄을 걸기 쉽게 한다. 채의 줄은 삼이나 닥나무 껍질을 주로 쓴다. 윗 가닥은 꼬고 아랫가닥은 꼬지 않은 상태로 나풀거리게 한다.



〈그림 9〉 팽이의 종류 : 이름은 未詳임



〈그림 10〉

(5) 놀이 방법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팽이의 옆을 쳐서 돌게 하는데, 싸우기와 오래 돌리기의 놀이 종류가 있다.

◇ 싸우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팽이를 돌리다가 상대편 팽이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지게 하는 놀이이다.

◇ 오래 돌리기

신호에 의해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작정한 수만큼 때린 후 누구의 것이 오래 도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다.

8) 그네타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1일
제 보 자 : 지 종렬(63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서산읍 덕지천리

(1) 노는 시기 : 오월 단오

(2) 노는 장소 : 큰 나무가 있는 곳

(3) 놀이자 : 여자

(4) 놀이 방법

큰 나무 가지에 6~7m 정도의 동아줄을 매달고 두 줄 끝을 발판에 붙들어 맨다. 이 기구를 그네라고 하는데, 이 그네 위에 사람이 올라가 발판에 발을 올려놓고 양 손에 동아줄을 한 줄씩 잡고 뛴다. 주로 팔 힘과 발 구르는 기술을 이용해서 허공으로 차고 나갔다가 되돌아 온다. 이런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 그네타기에는 한 사람이 노는 '외그네'와 두 사람이 노는 '배그네'가 있다. 배그네는 발판에 마주보고 올라서서 뛰기 때문에 배를 마주 대야 한다. 따라서, '배그네'로 불린다. 발은 서로 사이 사이에 놓는다.

2. 高北面 長要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농 악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상진(70세, 남, 한자 수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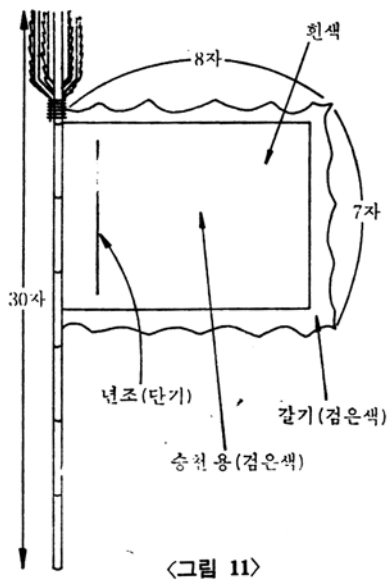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정월 보름·추석·모심기와 논매기할 때

(2) 농악대의 편성

용대기메〔용대기〕를 든 기수가 앞장을 서고 농악대의 지휘자인 상쇠가 뒤따르는데, 상쇠는 악대의 변화 및 악곡을 지휘한다. 상쇠 뒤에 뒷쇠〔부쇠〕가 따르고 징수(1명), 북잽이(1명), 장구잽이(1명), 벅구잽이(4명)와 돌무잽이(4명)가 뒤따른다.

악기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꽹과리 : 상쇠—신 기상(67세), 뒷쇠—이 춘섭(65세)
- 징 : 징 수—김 계환(67세)
- 북 : 북 잽 이—김 상진(70세)
- 장구 : 장구잽이—김 계원(74세)
- 벅구 : 벅구잽이—4명
- 돌무 : 돌무잽이—4명



〈그림 11〉

용대기메는 30자 정도의 대나무에 가로 8자 세로 7자 정도의 깃발을 단다. 용대기메 꼭대기에 꿩털을 매다는데 이는 '꿩장목'이라 부른다. 용대기메 깃발에는 승천하는 용 한 마리를 흰색 천 위에 검은 색으로 그렸고, 종서로 기를 만든 年條를 좌측에 쓴다.

용대기메는 장자집〔부잣집〕 사랑에 보관하다가 농악놀이가 있을 때에 들고 나온다. 용대기메를 보관하는 집에 부정이 끼면 다른 집으로 옮긴다.

농악에 쓰이는 장단은 두레 때 나가는 장단으로 치는 '굽장단'을 비롯하여 '광구장단', '자진가락장단', '굿거리 장단' 및 '진장단' 등이 있다.

농악 진법으로는 뒷풀물이를 비롯하여, 돌림벅

구 진법, 팔자 진법, 오방감기 진법, 오방풀기 진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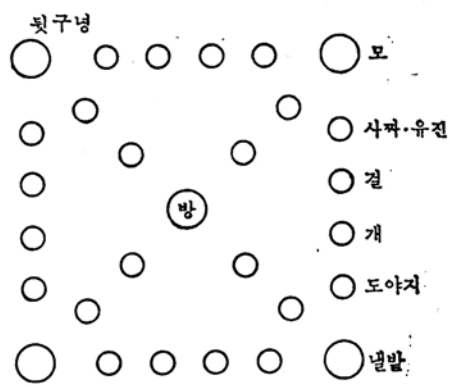
2) 윷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상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겨울철 농한기. 설날을 전후하여 대보름까지 주로 한다.
(2) 놀이자 : 남자
(3) 노는 장소 : 양지바른 마당
(4) 놀이 용구 : 윷판과 윷, 말 네개씩

가. 윷 판

윷판은 29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멍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조사 마을에서 조사된 구멍의 이름은 '도야지·개·걸·사짜〔또는 유진〕·모·방·뒷구녕·낼밭'뿐이고 나머지는 미상(未詳)이나, 윷놀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민속놀이인 까닭에 다른 지방의 이름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12〉

나. 윷가락

길이 15~20cm, 직경 3~5cm 정도의 밤나무 줄기를 두 쪽으로 나누어 만든다. 이것을 '쟁윷'이라 부른다.

(5) 놀이방법

윷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끝수대로 말을 이동해서 네 개의 말을 모두 나게 하면 이긴다. 윷가락 한 개가 젖혀지면 '도야지', 두 개가 젖혀지면 '개', 세 개가 젖혀지면 '걸', 네개가 모두 젖혀지면 '사짜', 또는 '유진', 네 개가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한다. 도야지는 한 칸을, 개는 두 칸을, 걸은 세 칸을, 사짜는 네 칸을, 모는 다섯 칸을 각각 가되 사짜와 모의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윷가락이 서로 겹치면 '업는다'고 해서 무효로 친다.

말이 하나씩 가는 것을 '현지산'이라고 하며, 두 개씩 가는 것을 '붐았다'고 한다. 세 개씩 가는 것은 '석종 붐았다'고 하며, 네 개가 모두 함께 가는 것을 '막간다'고 한다.

말이 붐아서 다니다가 상대편 말에게 잡히면 모두 실격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붐아서 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며 말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상대편 말을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 말 이동에 쓰이는 용어

◦ 얹다 : 말이 모에 올라갔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개에 있는 말이 걸이 나오면 세 칸을 이동해서 모에 갈 수 있어서, 이 때를 '얹다'라고 말한다.

◦ 방얹다 : 말이 중앙의 '방'에 올라갔을 때를 말한다. 모에 있는 말이 걸이 나와서 방얹을 때는 '걸방얹다'라고 하며, 모도에 있던 말이 개로 올라가거나, 모개에 있던 말이 도로 올라감 때에도 '방얹는다'고 한다.

◦ 내뛰었다 : 모·모도·모개에 있던 말이 방얹지 못하고 속윷이나 속모로 건너가는 것을 말한다.

◦ 뒤구졌다 : 뒷도·뒷개·뒷걸·뒷윷에 있던 말이 뒷구녕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이 때는 찔도 쪽으로 가지 않고 방쪽으로 내려간다.

◦ 스무구녕 판다 : 뒷도·뒷개·뒷걸·뒷윷에 있던 말이 뒷구녕에 들지 못하고 찔도 쪽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말판의 스무 구멍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도는 것이 된다.

◦ 멕였다 : 말이 나지 못하고 낼밭에 올라서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속윷이나 찔삼에 있던 말이 개가 나와서 나지 못하고 낼밭에 걸릴 때를 말한다.

3) 고 누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상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2) 여름 노는 장소 : 시원한 그늘이나 대청마루

(3) 놀이자 : 남자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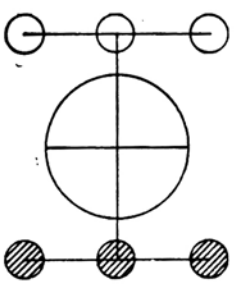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곤질고니—말 3개씩
사발고니—말 12개씩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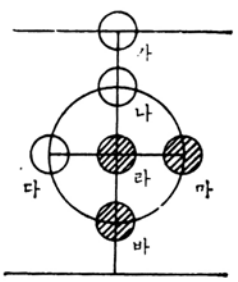
가. 곤질고니

◦ 말판의 횡선에 각각 세 개씩 말을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이동한다.

◦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터 말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진로를 차단시키면 이긴다. 예를 들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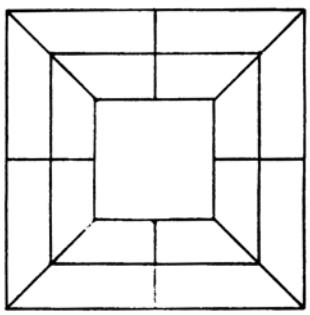
〈그림 14〉

어, 그림 14와 같이 ○이 가·나·다에 있고, ●이 라·마·바에 놓이게 될 경우, ○이 이동할 차례이면 진로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이기는 것이 된다.

◦자기 집으로 후퇴할 수 없고,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다.

나. 사발고니

이 놀이는 '참고누' 또는 '곤질고누'로 불리어지는 놀이인데, 조사 마을에서는 '사발고니'라고 부른다. 놀이 방법은 두 단계가 있는데, 말을 교대로 하나씩 놓는 '말 놓기'와 말을 교대로 한 칸씩 이동하는 '움직이기'가 그것이다.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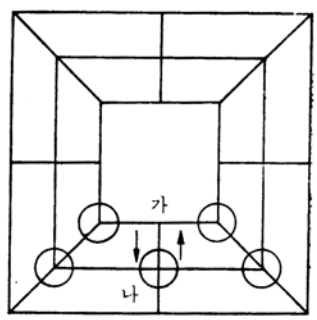
◇ 말 놓기

양 편 모두 12개의 말을 갖고 시작한다. 번갈아서 말 하나씩을 말판 위에 놓는데,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되면 상대편 말 중에서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편에게는 불리하도록 하나를 골라 집어낸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두 개가 일렬로 되면 우선 그 자리에 자기 말을 놓아서 막아야 한다. 말을 떼어낸 곳에는 말을 놓을 수가 없으며, 떼어낸 곳에는 표시를 해둔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편 모두 12개의 말을 놓는다.

◇ 움직이기

12개의 말을 각각 다 놓으면, 교대로 한 칸씩 이동한다. 말을 이동시킬 때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도록 하거나, 상대편 말 세 개가 일렬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면 상대편의 말 중에서 하나를 골라 집어낸다. 이때,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편에게는 불리하도록 말을 골라서 따낸다.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놓일 때, 이를 '고니'라 한다. 그러므로, 상대의 말이 고니가 안되도록 사이 사이에 끼워 넣어 방해해야 한다.

말이 〈그림〉과 같이 놓일 때, 이를 '들랑고니'라 한다. 가에 있던 말이 나로 이동하면서 고니를 만들고 다시 가로 이동하면서 고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들랑고니가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된다.



〈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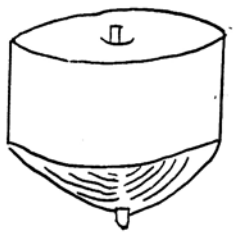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을 움직이면서 계속 하다가 어느 한 쪽에 말이 두 개만 남으면 판이 끝난다. 말 두 개로는 고니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만 남은 사람이 결국 지는 것이 된다.

4) 팽이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최 용순(74세, 남, 한자 수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빙판이나 평평하고 땅이 굳은 곳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팽이 · 팽이채
가. 팽 이

조사 마을에서는 '뺑이'라고 부르며, 참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팽이의 위와 밑에 못을 박아 잘 돌도록 한다.



〈그림 17〉

나. 팽이채

조사 마을에서는 '뺑이채'라고 부르며, 참나무 가지로 채 자루를 만든다. 채의 줄은 삼이나 모시를 쓰는데, 윗 가닥은 꼬고 아랫가닥은 꼬지 않은 상태로 나풀거리게 한다.

(5) 놀이 방법

팽이를 손으로 돌린 다음 팽이채로 팽이의 옆을 쳐서 돌게 하는데 싸우기와 오래 돌리기 및 갔다 오기가 있다.

◇ 싸우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팽이를 돌리다가 상대편 팽이와 서로 부딪쳐서 넘어지게 하는 놀이이다.

◇ 오래 돌리기

신호에 의해 자기의 팽이를 팽이채로 힘껏 때린 후 누구의 것이 오래 도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다.

◇ 갔다 오기

출발선에서 팽이를 돌리다가 신호에 따라 동시에 팽이를 치면서 정해놓은 목표물까지 누가 먼저 돌아오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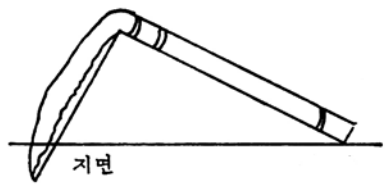
5) 낫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최 용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풀밭이나 논두렁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낫
(5) 놀이 방법

출발선과 4m 이상 떨어진 곳에 직경 1m 정도의 원을 그린다. 놀이자 전원이 쇠꼴 '한 전'씩을 걸고 내기를 하는데, '한 전'이란 한 아름을 말한다.



〈그림 18〉

낫의 손잡이나 낫 날끝을 붙잡고 출발선에 서서 원 안으로 집어 던져서 승부를 가름한다. 날끝이 땅에 박히면서 바로 서는 사람이 이긴다. [그림 참조] 원 밖으로 나가거나 낫이 서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모두 실격이 되면 다시 던져 승부를 낸다. 또, 바로 선 사람이 여럿일 경우 다시 던져서 최종 승자를 뽑는다. 그리고는 최종승자가 걸어놓은 쇠꼴을 모두 차지한다.

6) 갈퀴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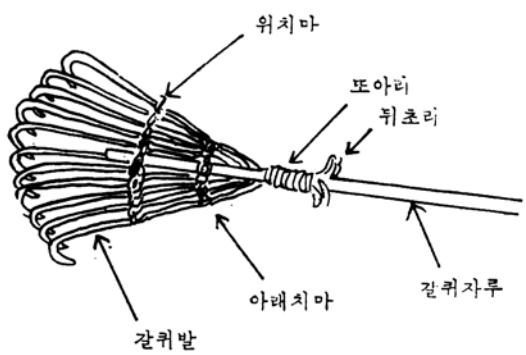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최 용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산비탈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갈퀴

갈퀴는 마른 풀이나 나뭇잎·검불 또는 곡식 등을 긁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를 말한다.

(5) 놀이 방법

놀이자 전원이 나무 '한 전'씩 걸고 내기를 한다. 한 전은 한 다발이



〈그림 19〉

나 한 아름을 말한다. 갈퀴 자루를 잡고 일정선 밖으로 집어 던져서 승부를 가름한다. 갈퀴 밑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바르게 서는 사람이 이긴다. (그림 참조) 갈퀴밑이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실격이 된다. 모두 실격이 되면 다시 던져서 승부를 낸다. 또, 1차 던지기에서 바르게 선 사람이 여럿일 경우 2차, 3차 던져서 최종 승자를 뽑는다. 그리고는, 최종 승자가 걸어 놓은 나무나 낙엽을 모두 차지한다.



〈그림 20〉 갈퀴가 바르게 선 모양

7) 널뛰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경욱(67세, 남, 한자수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1) 노는 시기 : 정초~대보름
(2) 노는 장소 : 마당
(3) 놀이자 : 여자〔소녀 · 부녀자〕
(4) 놀이 용구 : 널

◇ 널

너비 한 치 오 푼, 길이 여덟 자 정도의 긴 판목으로 널을 삼고, 그 가운데에 '짚토매' 여섯 토매를 괸다.

(5) 놀이 방법

널 양쪽 가에 한 사람씩 올라 서로 서로 고대로 발에 힘주어 뛰면 몸이 공중에 뜨게 된다. 뛰었다가 모둠발로 내려 디디는 반동으로 상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시 공중에 뜨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 뛰어 올랐다가 내려 오면서 상대를 올리는 놀이이다.

8) 그네타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경욱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오월 단오
(2) 노는 장소 : 동네 어귀에 있는 큰 나무

(3) 놀이자 : 여자

(4) 놀이 방법

큰 나무 가지에 열두 자 정도의 동아줄 두 줄을 매달고 두 줄 끝을 발판에 붙들어 맨다. 이것을 그네라고 하는데, 이 그네 위에 사람이 올라가 발판에 발을 밟고 양 손에 동아줄을 한 줄씩 잡고 뛴다. 주로 팔 힘과 발 구르는 기술을 이용해서 허공으로 차고 나갔다가 되돌아온다. 이런 방법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논다. 그네타기에는 한 사람이 하는 '외그네'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배뛰기'가 있다. 배뛰기는 발판에 마주 보고 올라서서 뛰는 놀이인 까닭에 배를 마주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뛰기'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9)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순향(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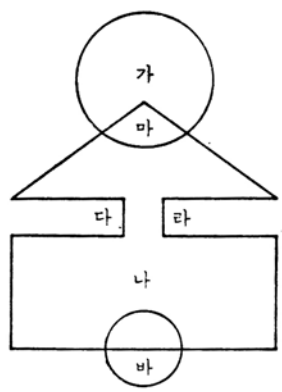
◦공격편은 원 '가'에 수비편은 '나'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다니다가 다에서 라로, 또는 라에서 다로 뛰어넘은 후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바를 밟고 수비진영인 '나'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마'를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은 '나' 안에서 공격자를 막거나,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바'를 밟고 나와야 하며, 반드시 앙감질을 해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나가 '바'를 밟으면서 두 발로 쉴 수도 있다.



〈그림 21〉

◦다·라를 넘고 있는 공격편을 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공격편은 실격이 된다.

◦밖에서 양 편이 만나 서로 싸울 수 있는데,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앙감질일 때 두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 '가' 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가거나 수비편이 끌려 들어오면 실격이 된다.

◦ '나' 안에 있는 수비편이 공격편에 의해 끌려 나가거나 밖에 있는 공격편이 끌려 들어오면 실격이 된다.

◦ '마' 부분은 공격편이나 수비편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따라서, 가에서 마로 들어간 공격편과 나에서 마로 들어간 수비편은 서로 만나 밀고 당기며 싸움을 하게 된다.

◦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수비자 진영으로 쳐들어가 '마'를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 마따리

놀이자가 홀수일 때 편을 짜면 한 사람이 남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사람을 '마따리'라고 해서, 이긴 편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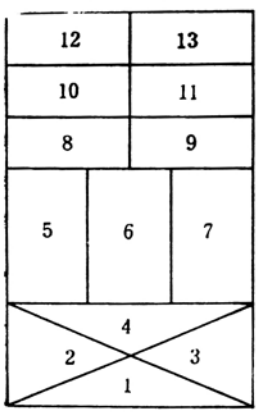
10) 새 발 뛰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순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세 발 뛰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한 편에 놀이자가 2~3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넓적한 돌 1개씩. 이를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목자를 해당칸에 던져놓고 앙감질로 왔다갔다 하는 놀이로서, 1단부터 7단까지 반복해서 논다.

◇ 1단

한 편의 세 사람이 순서를 정한 다음 1번〔그림의 경우, 한 편에 세 사람씩 한다. 8~9, 10~11, 12~13칸은 놀이자의 수에 따라 가감된다. 즉 두 사람이 할 경우 12~13이 생략되고, 네 사람이

할 경우 14~15가 첨가되어야 한다.]부터 1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2칸부터 7칸까지 앙감질로 간다. 그리고는 8·9칸으로 발 갈라서 들어간 다음 〔8칸에는 왼 발, 9칸에는 오른 발을 각각 놓는다.〕 10·11칸을 거쳐 12·13칸에 들어가 서 있는다. 1번이 가서 서 있으면, 2번이 목자를 1칸에 던져 놓고 2칸부터 앙감질로 가는데, 1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10·11칸에 가서 서면 3번이 목자를 1칸에 던져놓고, 1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8·9칸까지 가서 선다.

3번까지 도착하면, 3번부터 제자리에서 뒤돌아선 다음 역순으로 2칸까지 앙감질로 3번이 나온다. 2칸에서 와서 1칸의 자기 목자를 집고 밖으로 나온다. 2번 1번도 3번처럼 목자를 집고 나온다.

〈실격이 되는 경우〉

- 목자를 해당칸에 던질 때 칸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을 때
- 목자를 던지다가 자기편 목자를 맞힐 때
- 칸을 밟고 가다가 선을 밟을 때
- 발 동작이 틀렸을 때
- 앙감질 하다가 양 발이 땅에 닿을 때
- 목자를 집다가 다른 목자를 건드릴 때
- 목자를 떨어뜨릴 때

◇ 2단

목자를 칸에 던져 놓고 하며 1칸에서 3칸을 거쳐 간다. 목자가 있는 칸에 들어가지 않는다. 돌아올 때는 3칸에서 목자를 집고 1칸을 거쳐 밖으로 나온다.

◇ 3~7단

해당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한다.

11) 달팽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순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한 편에 6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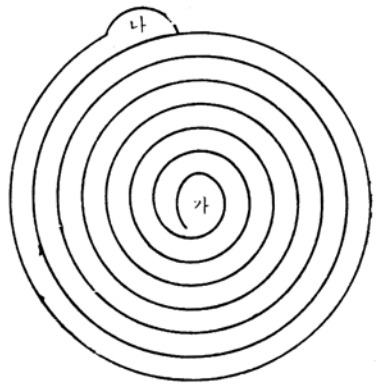
- 편을 갈라, 양 편이 가나 나의 진영에 각각 들어간다. 진영을 정할 때 이긴 편이 선택

권을 갖는다.

◦ 놀이가 시작되면 양 편에서 각각 한 사람씩 나와서 상대 진영을 향해 뛰어 간다. 상대 진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서로 만날 때까지 빨리 뛰어간다.

◦ 양 편의 주자(走者)가 서로 만나면 제자리에 서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상대 진영을 향해 계속 뛰어가고, 진 사람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다. 이때, 진 편에서 주자 한 사람이 뛰어 나온다. 상대 주자가 자기 진영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서 맞아야 한다.

◦ 다시 양 편의 주자가 만나면 제자리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한 다음 위와 같이 한다.



〈그림 23〉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해서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놀이자는 길을 따라서 가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네 거리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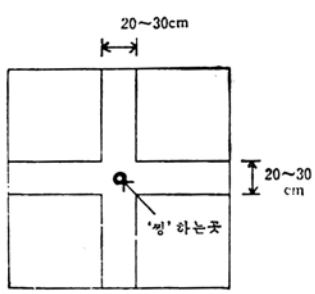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강 숙(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1) 노는 시기 : 가을

(2) 놀이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24〉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네 개의 사각형 중에 한 곳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수비편은 십자 통로에 들어간다.

◦ 공격편은 사각형과 사각형을 건너뛰는 데, 좌우 상하로 가면 1번으로 치고 대각선으로 가면 2번으로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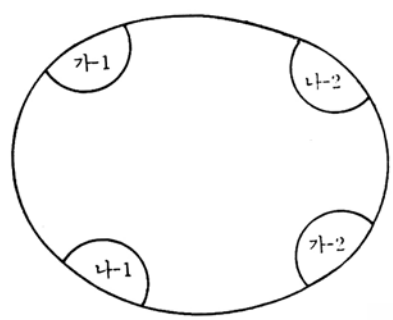
◦ 수비편은 공격자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십자 통로로 돌아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나 수비자가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땅에 손을 대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작정한 수만큼〔보통 10번으로 한다.〕 건너뛴 다음 십자 통로에 있는 '찡'하는 곳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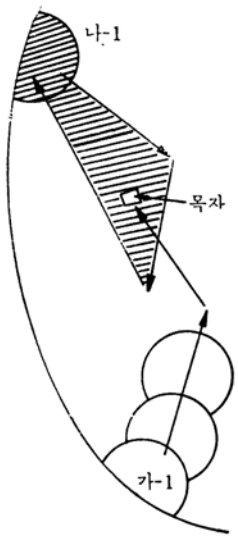
13) 땅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설화(14세, 여, 중학교 1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북면 장요리 1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나무 그늘진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한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2~3명이 무방하다.
(4) 놀이 용구 : 사금파리 · 유리조각 · 병 마개나 조개껍질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큰 원을 그려 놓고 같은 편끼리 마주 보고 앉은 다음 한 뼘 정도의 원을 그려 각자 자기 집으로 삼는다.
◦'가위 바위 보'로 해서 이긴 편이 우선 공격권을 갖는다. 공격할 때에는 자기편끼리 동시에 각자 한다. 가편의 1은 나편의 1을 향해, 가편의 2는 나편의 2를 향해 공격한다.
◦목자를 자기 집에서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땅에서 다시 한 번 친 다음 세 번째에 자기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세 번 만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또는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둘 다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자기편 중 한 사람만 성공하면 공격권이 넘어가지 않되, 실격된 사람은 공격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즉, 나의 1을 공격하다가 실격되면 나의 2를 공격해야 된다. 만약, 나의 2를 공격하다 실패하면 공격권이 넘어간다.



〈그림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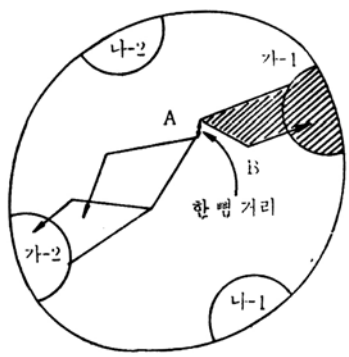


〈그림 26〉 가-1이 목자를 쳐서 두번만에 나-1의 집에 들어갔을 경우

◦세 번 쳐서 목자가 지나온 선을 그어 그 안을 자기 땅으로 삼고 다시 한다.

◦자기가 치고 나간 목자를 자기 집으로 몰고 가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대편 집이나 자기 편의 다른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세 번 만에 상대집으로 목자를 넣었을 때 자기집 끝에서 한 뼘의 원을 그려 자기 땅으로 삼고, 두 번만에 넣었을 때는 한 뼘의 원을 두 번 그린다. 또, 한 번 만에 상대 집으로 목자를 넣었을 때 이를 '액깔'이라고 해서 한 뼘의 원을 세 번 그려 자기땅으로 한다.〔그림 26 참조〕 그리고 자기편끼리의 확장한 땅이 한 뼘 거리가 될 때, 이를 '맞창낸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상대편은 실격이 되고, 그 땅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그림 27 참조〕 따라서, 같은 편끼리 맞창을 내는 것이 싸움에 매우 유리하다. 그림 2의 경우처럼 가의 1파 가의 2가 서로 맞창을 냈을 때, 전체 땅이 A와 B로 크게 나누어졌다. 이 때에는 면적이 좁은 쪽의 땅를 차지하게 되고, 나의 2는 실격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되, 상대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땅을 전부 차지하는 편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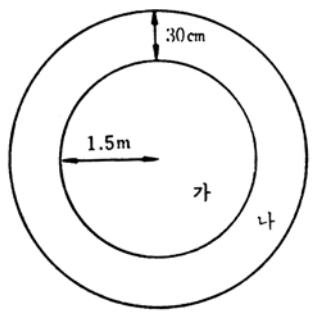
〈그림 27〉

14) 꽃간지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2일
제 보 자 : 김 설화
인저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이 마을에서 '오강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28〉

◦공격편은 안의 원 '가'에, 수비편은 바깥 원 '나'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원 '가' 안에 있다가 바깥 원을 건너뛰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공격편이 원 '나'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쳐야 한다. 수비편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두 발로 다니다가 수비 몰래 원 '나'를 한 발로 찍는다. 그리고 찍으면서 '발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 진영의 둘레를 돌아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또는, 공격편을 쫓아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안의 원이나 밖으로 도망가서 있다가 수비자 몰래 또 찍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자기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서 "찡"하고 외치면 이긴다.

◦공격편은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을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서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앙감질로 다니던 수비자가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찡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견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音岩面 遊溪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시계추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오 욱환(10세, 남, 국민학교 3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마을에서 '시계불알 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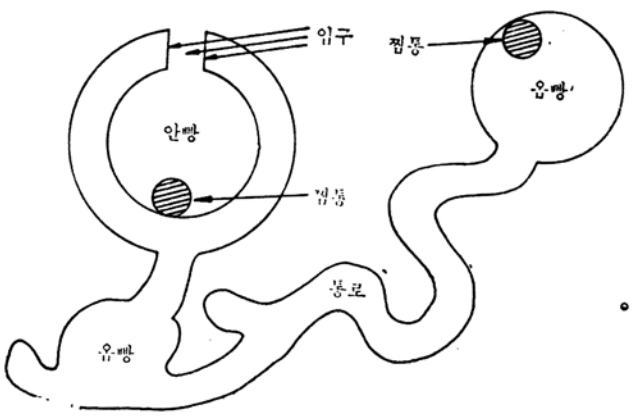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안빵〔안방〕'에, 진 편은 '옴빵〔옴방〕'에 각각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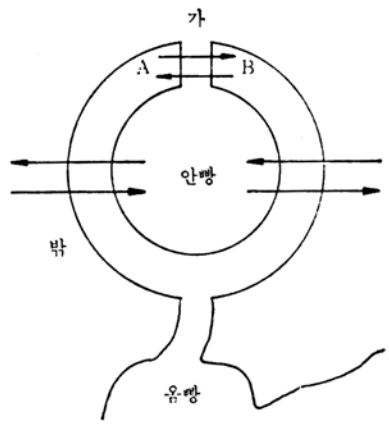
◦양 편 모두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데, 이긴 편은 옴빵의 찜통을, 진 편은 안빵의 찜통을 밟으면 이긴다.

◦안빵편은 입구를 통해 옴빵으로 들어가 수비하는 옴빵편을 젖히고 옴빵의 '찜통'을 밟으면 이긴다. 옴빵편은 안빵 주위의 원 둘레를 따라 열 바퀴 돈 다음 입구로 안빵에 들어가 안빵의 '찜통'을 밟으면 이긴다. 안빵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앙감질을 해야 한다. 이때, 앙감질 하다가 넘어지거나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편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공격을 하고 또 한 패는 수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9〉

◦안빵편은 옴빵편이 돌지 못하도록 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또, 입구로 나가지 않고 밖으로 직접 뛰어나갈 수도 있다. 옴빵편은 안빵 주위를 돕 때에 A와 B를 뛰어 넘어야 한다. 도는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으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그림 30 참조〕



〈그림 30〉

◦옴빵편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반드시 입구의 '가'로 나가야 한다.

◦옴빵 통로에서 서로 만나 밀거나 잡아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밖으로 나간 안빵편은 옴빵이나 통로에 있는 옴빵편을 잡아당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또 옴빵편도 안빵편을 잡아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옴빵편도 밖으로 나가서 옴빵으로 쳐들어가는 안빵편을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옴빵편과 안빵편이 밖에서 만났을 때 서로 밀고 당겨서 넘어지게 하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해서 상대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상대편 짐통을 밟으면 이기게 된다.

◦안빵편이 이겼을 경우, 방을 바꾸지 않고 계속한다. 옴빵편이 이겼을 경우, 방을 바꾸어 계속한다.

2)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오 육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마을에서 '오징어 짐'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안방에, 수비편은 옴방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다니다가 심통[심통]가에서 나로, 또는 나에서 가로 건너뛰면 양발로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심통을 밟고 쉴 수도 있다.

◦가·나를 건넌 공격자는 입구로 수비진영에 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짐통'을 밟으면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수비편은 옴방 안에서 방어하거나 방 밖으로 나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에는 입구로 나와서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하다가 심통에서 쉴 수 있으며, 심통 가와 나를 뛰어 넘으면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심통 가·나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놀이 도중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

1. 선을 밟았을 때, 단 심통의 바깥선은 밟아도 무방하다.
2. 넘어졌을 때
3. 앙감질일 경우 양 발이 땅에 닿았을 때
4.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밖에서 양 편이 만나 서로 싸울 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방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실격이 된다.

◦ 안방 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오거나, 밖에 있는 수비편이 끌려 들어 가면 실격이 된다.

◦ 심통에서도 싸울 수 있다.

◦ 옴방 안에서 안방편이 넘어지면 실격이 되나, 수비편이 넘어지면 상관이 없다. 단, 선을 밟지 말아야 한다.

◦ 안방 안에 있는 공격편이 찜통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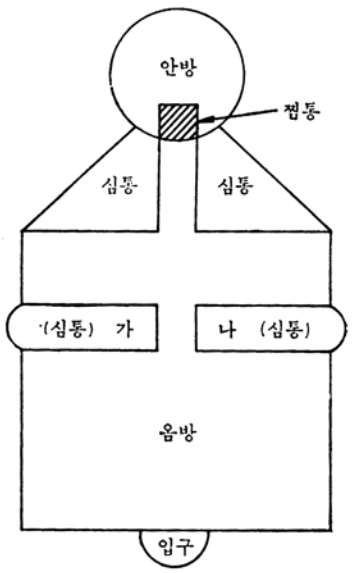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해서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찜통을 밟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 놀이자가 홀수일 때

놀이자가 홀수일 때 편을 짜면 한 사람이 남게 된다. 이때 남은 사람을 '마따리'라고 하는데, 주로 어린 사람이나 약한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이긴 편에게 마따리를 준다.



〈그림 31〉

3) 신발 던지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오 육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봄·여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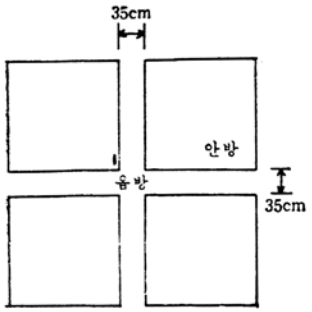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편이 되고 진 편은 술레편이 된다.

◦ 공격편은 네 곳의 안방 중에서 한 곳만 비워두고 나머지에 마음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 공격편이 들어간 안방에 골고루 놓는다. 술레편은 옴방에 들어간다.

◦ 시작과 함께, 공격편은 안방과 안방을 건너 다니면서 안방에 놓여 있는 신발을 비어 놓았던 안방에 옮겨 놓는다. 신발을 갖고 직접 가거나 자기편에게 던져서 운반할 수 있다.

◦ 술레편은 공격자가 건너가지 못하도록 옴방의 십자 통로로 다니면서 손으로 치거나 공격



〈그림 32〉

자가 던지는 신발을 잡아야 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이나 신발을 빼앗긴 사람은 실격이 되고, 실격된 사람은 술레편에 들어가서 같이 수비를 해야 한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해서 공격편이 신발을 비어 있던 안방으로 모두 옮기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술레]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수비편 중에서 실격된 공격편 수만큼 '가위 바위 보'로 뽑아서 보충한 다음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실격된 공격편 수만큼 뽑아서 공격편에 보충한 다음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4) 부채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윤 영식(10세, 남, 국민학교 3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부채놀이'로 불리나, '네거리 놀이'와 비슷한 면을 많이 지닌 놀이이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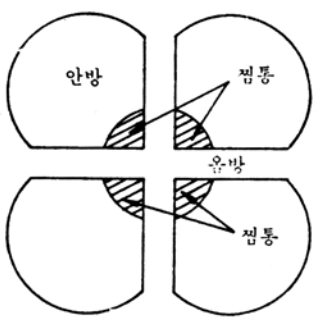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네 개의 안방 중에 한 곳을 마음대로 골라 들어가고, 수비편은 십자 통로인 옴빵에 들어간다.

◦공격편은 안방과 안방을 상하 좌우 및 대각선으로 건너갈 수 있다. 이때, 대각선이든 상하 좌우로 뛰는지 무조건 한 번 뛴 것으로 간주한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뛰어넘지 못하도록 옴방의 십자통로로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편은 안방과 안방을 모두 열 번을 넘어야 하는데, 선



〈그림 33〉

을 밟거나 안방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또, 손을 땅에 짚거나 넘어져도 실격이 된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뛰어넘고 안방 구석에 있는 찜통을 밟는 것을 '찜한다'고 하는데, 수비편은 공격편이 찜하지 못하도록 한 다리로 찜통을 밟고 있는 것의 수비하기에 쉽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경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5) 밀어내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윤 영식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마당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두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다.
(4) 놀이 방법

직경 1m 정도의 원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서로 상대를 밀어내는 놀이이다. 원 안에서 넘어서거나 선을 밟은 사람이 실격이 돼서 지게 된다.

6) 발밟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윤 영식
인적 사항 앞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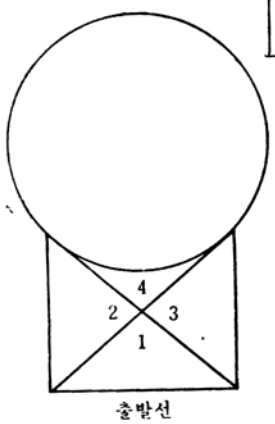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놀이자 전원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 출발선 앞에 순서대로 일렬로 선다.

◦먼저, 1번이 1칸과 2·3칸, 그리고 4칸을 밟고 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때의 발 동작은

보기와 같다.

〈보기〉 1칸 : 앙감질, 2·3칸 : 양 발을 한칸마다 동시에 놓는다.
〔2칸 : 왼발, 3칸 : 오른발〕 4칸 : 앙감질



〈그림 34〉

◦2번은 1번이 밟았던 순서대로 밟고 원 안으로 들어간다. 들어가면서 1번의 발을 밟을 수 있다. 따라서, 1번은 2번이 들어올 때 재빨리 뛰어서 피해야 한다.

◦3번, 4번도 똑같은 순서로 원 안에 들어온다.

◦놀이자가 모두 원 안으로 들어오면 1번이 먼저 한 발만 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뛰어야 한다.〔뛰지 않아도 되나 뛰지 않으면 상대의 발을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뛰었다가 내려올 때 남의 발등을 밟으면, 밟힌 사람은 실격이 된다. 그러므로, 1번이 밟을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재빨리 피해야 한다. 1번이 된 후 2번이 똑같은 방법으로 뛰면서 상대의 발등을 밟을 수 있다.

◦2번이 끝나면 3번, 4번……의 순서로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을 계속 실격시키면서 하다가 한 사람만 남으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1번이 되고, 다른 사람은 실격이 늦게 된 순서로 2·3·4…의 차례를 정한 다음 다시 시작한다.

7) 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최 창수(64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서 마을에서 '벳때기 치기', 또는 '메때기 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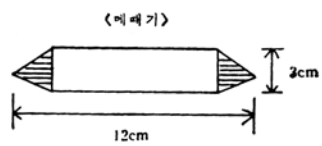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가. 메때기 : 12cm 정도의 나무 토막으로 '땡공'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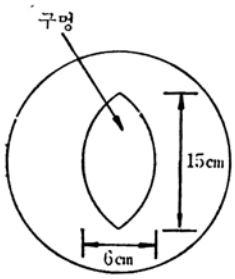
나. 메때기채 : 60cm 정도의 막대. 이 메때기채의 길이를 '한 자'로 친다.



〈그림 35〉 메때기

(5) 놀이 방법

메때기를 구멍에 가로로 걸친 다음 메때기채로 걸어서 날린다. 수비편은 날아오는 메때



〈그림 36〉

기를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때, 수비편이 메떼기를 잡으면 공격자는 실격이 되고, 공격권이 바뀌게 된다. 〔실격이 되면 무조건 공격권이 넘어간다.〕

수비편이 메떼기를 잡지 못하면 메떼기를 주워서 구멍 쪽으로 던진다. 던진 메떼기가 구멍에 반 이상 들어가면 실격이 되고, 닿으면 공격자가 한 번 칠 수 있다. 그리고, 닿지 않으면 세 번 칠 수 있다.

구멍에 닿았을 때, 공격자는 메떼기 끝을 쳐서 메떼기를 띄운 다음 다시 쳐서 날린다. 이때에도 수비편이 잡을 수 있다. 구멍과 날아간 메떼기가 멀어진 곳까지의 거리를 메떼기채로 잰 다음 공격편의 점수로 가산한다.

구멍에 닿지 않았을 때에는 위와 같은 메떼기 치기를 계속 세 번 할 수 있다. 즉, 한 번 쳐서 날아간 곳까지 가서 또 치고 날린 다음 다시 한 번 더 쳐서 거리를 재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작정한 점수〔보통 오백 자 내지 천 자 내기를 한다.〕를 다 따면 판이 끝나게 된다. 작정한 점수를 먼저 딴 사람이 이기게 된다.

8) 윷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3일
제 보 자 : 김 태원(33세, 남, 중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 유계리 2구

(1) 노는 시간 : 설날~보름날, 이월 초하루

(2) 노는 장소 : 양지 바른 마당이나 안방

(3) 놀이자 : 장윷—남자
살조개윷—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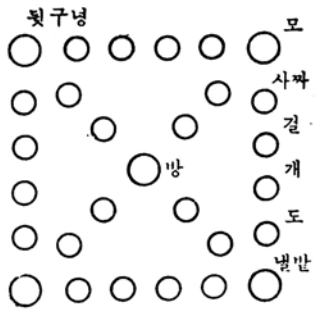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윷, 윷판, 말 4개씩

가. 윷

◦장윷 : 길이 20cm, 직경 3~5cm 정도의 밤나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만든다.

◦살조개윷 : 조개 껍질 4개

나. 윷판



〈그림 37〉

윷판은 29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멍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조사 마을에서 조사된 구멍의 이름은 '도·개·걸·사짜·모·뒷구녕·방·낼밭' 뿐이고 나머지는 미상(未詳)이나, 윷놀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민속놀이인 까닭에 다른

지방의 이름과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5) 놀이 방법

윷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끝 수대로 말을 이동해서 네 개의 말을 모두 나게 하면 이긴다.

윷가락 한 개가 젖혀지면 '도', 두 개가 젖혀지면 '개', 세 개가 젖혀지면 '걸', 네 개가 모두 젖혀지면 '사짜', 네 개가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한다. 도는 한 칸, 개는 두 칸 걸은 세 칸, 사짜는 네 칸, 모는 다섯 칸을 각각 간다. 사짜나 모의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말이 두 개씩 가는 것을 '볶아서 간다'고 하며, 세 개가 한꺼번에 가는 것을 '세독간다'고 한다. 그리고, 네 개가 같이 가는 것을 '막간다'고 한다.

말이 볶아서 가다가 상대편 말에게 잡히면 모두 실격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볶아서 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며 말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상대편 말을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 말 이동에 쓰이는 용어

- 방얹다 : 말이 중앙의 '방'에 올라갔을 때를 말한다. 모도에 있는 말이 개로 올라가거나 모개에 있는 말이 도로 올라갈 때를 말하며, 특히 모에 있던 말이 걸로 올라가면 '걸방얹다'라고 한다. 윷놀이의 말 이동 중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 넘어간다 : 도·개·걸·윷에 있던 말이 모에 들지 못하고 뒷도 쪽으로 빠질 때를 말하며 '돌아간다'라고도 한다.
- 시구는다 : 뒷도·뒷개·뒷걸·뒷윷에 있던 말이 뒷구녕에 올라갈 때를 말하며, '시구진다'라고도 한다.
- 스무구녕 판다 : 뒷도 쪽에 있던 말이 뒷구녕에 들지 못하고 찔도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말판의 스무 구멍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멀리 도는 것이 된다.
- 멕였다 : 말이 나지 못하고 낼밭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속윷이나 찔삼에 있던 말이 개가 나와서 나지 못하고 낼밭에 걸릴 때를 말한다.

4. 海美面 名岩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돌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세호(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40—5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불알뜨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한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2~3명이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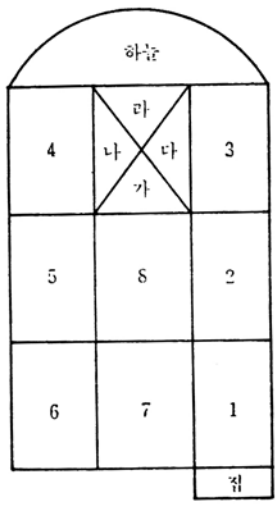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기와를 동그랗게 깎아서 만든 목자〔직경 8cm 정도〕 1개씩

(5) 놀이 방법

1단부터 하늘까지 하면 1점을 얻는데, 시작하기 전에 몇 점 내기를 할 것인가 미리 정한다. 보통 5점 내기를 많이 한다.

◇ 1단

집에 서서 목자를 1단에 던지고 모둠발로 들어간 다음,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2단을 거쳐 3단으로 보낸다. 3단에 모둠발로 들어가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4단으로 보낸 다음, ×표 칸을 〈보기 1〉과 같은 발 동작으로 밟고 4단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다시 앙감질의 목자를 차면서 5단을 거쳐 6단으로 보낸다. 6단에 모둠발로 들어가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7단을 거쳐 8단으로 보낸 다음 7단에 앙감질로, 8단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8단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하늘'로 보낸 다음 〈보기 2〉와 같은 발 동작으로 하늘까지 간다. 하늘에서 목자를 집어 발등 위에 올려 놓고 차서 한 손으로 받는다.



〈그림 38〉

〈보기 1〉 다칸 : 앙감질
가·라칸 : 왼 발과 오른 발을 한칸씩 동시에 놓는다.
나칸 : 앙감질

돌아올 때는 목자를 들고 ×표를 〈보기 3〉처럼 지나 8단에 모둠발로 들어간 다음 1단에 왼발, 7단에 오른 발을 동시에 놓는다. 그리고는, 1단에 모둠발로 들어갔다가 집으로 나온다.

〈보기 2〉 가칸 : 앙감질
나·다칸 : 왼 발과 오른 발을 한칸씩 동시에
라칸 : 앙감질

〈보기 3〉 라칸 : 앙감질
다·나칸 : 왼 발과 오른 발을 한칸씩 동시에
가칸 : 앙감질

◇ 2단

2단에 목자를 던져 놓고 모둠발로 1단을 지나 앙감질로 2단에 간 다음 목자를 차서 3단

으로 보낸다. 나머지는 〈1단〉과 같다.

◇3단~8단

해당되는 단에 목자를 던져 놓고 하는데, 1·3·4·6·8단에는 항상 모둠발로 들어간다. 나머지 방법은 〈1단〉과 같다.

◇ 하늘

집에서 눈을 감고 목자를 하늘에 던진 다음 1단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는데, 모둠발로 들어가는 칸에서는 눈을 뜨고, 앙감질하는 칸과 ×표 칸에서 눈을 감고 간다. 하늘에서 눈을 감고 목자를 찾은 다음 눈을 뜨고 발등 위에 목자를 올려 놓는다. 다시 눈을 감은 채로 발 등의 목자를 차서 받는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표 칸을 지나 8단〔눈뜸〕을 거쳐 1·7단〔눈감고 왼발과 오른발을 한 칸씩 동시에 놓는다.〕으로 간 다음 1단〔눈뜸〕을 모둠발로 밟고 집으로 돌아온다.

〈실격이 되는 경우〉

- 찬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았을 때
- 놀이자가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 놀이자의 발 동작이 틀렸을 때
- 발 등 위에 목자를 올려 놓고 차서 받지 못할 때
- 목자를 들고 돌아오다가 떨어뜨렸을 때
- 순서를 임의대로 바꾸었을 때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주기〉

자기편 갑이 하늘에서 목자를 받다가 실격이 되면 을이 몫을 해줄 수 있다. 집에서 해당 단에 목자를 던져 놓고 전 구간을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또, 갑이 하늘이 아닌 곳에서 틀렸을 경우 을이 하늘에서 자기 목자를 받을 때, 실격된 사람의 목자까지 같이 얹어 놓고 받는다. 을이 갑의 몫을 해주면 갑도 다시 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된다. 그러나, 을마저 틀렸을 경우 〔한 편에 둘일 때〕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2) 진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세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전뚤이'로 불리는데, 이는 '陣取'의 日音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편을 갈라 양편이 각각 자기 진영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진영으로는 보통 나무나 기둥을 이용한다.

◦시작과 함께 "찐" 하면서 자기 진영을 떠나 상대편 진영에 손을 대면서 만세를 부르면 이긴다.

◦방어할 때, 늦게 나온 사람이 일찍 나온 사람을 치면, 채인 사람은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된 사람은 상대편 진영 옆에 그려 놓은 원 안에 가서 서 있는다. 실격된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손과 손을 잡고 길게 늘어서서 자기편이 치는 데에 유리하도록 한다. 이때, 자기편이 한 사람만 쳐주면 실격된 사람은 모두 살게 된다. 실격된 사람이 살아서 자기 진영으로 도망갈 때 쫓아가서 손으로 칠 수 있고, 또 채인 사람은 실격이 된다.

◦자기편이 늦게 나온 상대편에게 채일려고 할 때 자기편 중 한두 사람이 빨리 나가서 상대방을 쳐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자기편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되기 때문에 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채이면 실격이 되므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편 진영을 뺏을 때까지 계속한다.

3) 꽃단지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안 병덕(12세, 남,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117번지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쩡고 나가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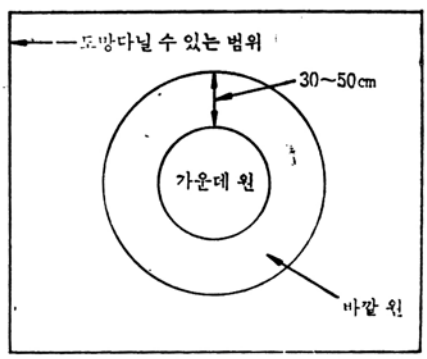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운데 원에, 수비편은 바깥 원에 각각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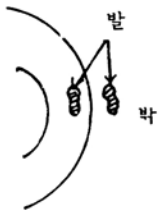
◦공격편이 도망다닐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먼저 정한다.



〈그림 39〉

◦ 공격편은 수비편 진영을 뛰어 넘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수비편은 공격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둘레를 돌면서 손으로 친다. 수비자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양 발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큰 원과 바깥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 〔그림 참조〕 원 안에 있는 다리로 땅을 찍는다. 이때에는 발로 찍으면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그림 40〉

◦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밖으로 도망갈 수 있다. 이때, 수비자도 앙감질로 쫓아나가서 공격자를 칠 수 있다.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격자는 피해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던 수비자가 두 발을 땅에 놓으면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자기 진영인 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찐"하고 외치면 이긴다.

◦ 공격자는 한 차례에 열 번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서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찍다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찐"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계속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4)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안 병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못다리'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 가을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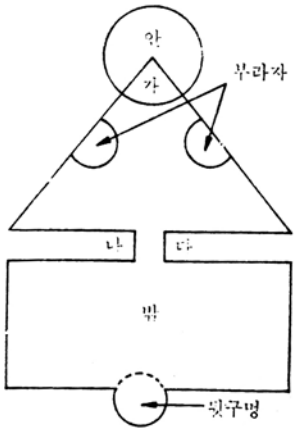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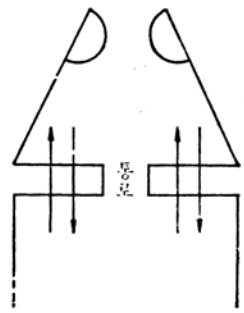
◦ 공격편은 '안'에, 수비편은 '밖'에 각각 들어간다.

◦ '안'에 있던 공격자는 앙감질로 '나'와 '다'를 뛰어 넘은 후에 양 발로 '뒷구멍'으로 간다.



〈그림〉 41

◦ 뒷구멍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밖'으로 들어가 수비자를 젖히고 '가'를 밟으면 〔이것을 "찐한다"고 한다.〕 이긴다.
◦ 수비편은 '밖'의 안에서 방어하거나, 바깥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바깥으로 나올 때에는 뒷구멍으로 나와야 하며, 반드시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일 때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그러나, 앙감질로 다니다가 '부라자'를 뛰어 넘으면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다.
◦ '나와 다'를 넘고 있는 공격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공격자도 수비자를 밀거나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부라자'를 넘고 있는 수비자를 공격자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 '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게 끌려서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갔을 때도 실격이 된다.
◦ '안'에 있는 공격자가 '가'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 뒷구멍에서 양편 모두 넘어져도 상관이 없다.
◦ 공격자가 수비 진영의 중앙을 통과할 때에는 ↑↓표 방향으로 뛰어넘을 수 없고 반드시 통로로만 다녀야 한다.〔그림 42 참조〕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하다가,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가'를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그림〉 42

5) 줄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박 성미(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꼬마야 꼬마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다.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편을 갈라서 하는데 한 편에 3~4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새끼줄 5m 정도

(5) 놀이 방법

한 편은 새끼줄을 양 쪽에서 잡고 적당한 속도로 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또 한 편은 줄 사이에 뛰어 들어가서 노래에 맞추어 일정한 동작을 하다가 밖으로 나온다. 노래에 따라서 줄을 돌리는 방법과 뛰는 동작이 달라지는데, 놀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동작 1) (〃) (〃)(동작 1)



〈그림〉 43
(한 바퀴 돌리는 동안 한 번 뛴다. (동작1))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동작 1) (〃) (〃) (동작 2)



〈그림〉 44
(한바퀴 돌리는 동안 땅을 한 번 짚는다. (동작 2))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동작 1) (〃) (〃) (동작 3)



〈그림 45〉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뒤로 돈다. (동작 3))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동작 1) (〃) (〃) (동작 4)



〈그림〉 46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두 손을 들어 만세 부른다. (동작 4))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동작 1) (〃) (〃) (동작 5)



〈그림〉 47
(한 바퀴 돌리는 동안 뒤로 돈다. (동작 5))

꼬마야 꼬마야 나와라 (동작 1) (〃) (줄을 피해 밖으로 나온다)

2.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노래를 부르면서 팔을 밑으로 내리고 새끼줄을 좌우로 천천히 네 번 왕복해서 흔든 다음 '꼬마야 꼬마야'를 할 때 돌리는 방향으로 네 바퀴를 돌린다. 노래에 맞추어 동작을 하는 사람은 줄을 밟지 않고 뛰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뛰고 새끼줄을 돌릴 때에는 빨리 뛰다가 마지막에 줄을 다리 사이에 건다

노래와 동작과 새끼줄 돌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노 래	새끼줄 돌리는 방법	동 작
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팔을 밑으로 내려서 좌우로 천천이 네 번을 흔든다.	줄을 피하면서 여덟 번 뛴다.
② 빙빙 돌려 발 한	'꼬마야 꼬마야'할 때 돌리는 방향으로 네 번 돌리는데 빠르기는 '1. 꼬마야 꼬마야'의 2배로 한다	줄을 피하면서 빨리 세 번 뛴다.
③ 짝		네번째에 새끼줄을 다리 사이에 건다.

3. 유비강산

새끼줄을 '1. 꼬마야 꼬마야' 할 때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에 맞추어 동작을 하는 사람은 새끼줄이 몸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한 바퀴에 한 번씩 뛴다.

◇ 유비강산

유비강산 말깡대

먼머 주서먹고 체했나보다

4. 진서방

새끼줄을 '1. 꼬마야 꼬마야'할 때와 같은 방향으로 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때, 노래에 맞추어 두 사람이 동작을 하는데, ① 뛰어 들어오기 ② 마주 보고 인사하기 ③ '가위 바위 보'하기 ④ 나가기 등의 순서로 한다.

◇ 진서방

진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하세요

장가비샤스

진 사람은 속히 속히

나와 주세요

✱ 놀이 도중 자기편 중 갑이 실격이 되면 을이 대신해 줄 수있다. 을이 성공하면 갑도 다시 할 수 있으나, 을마저 실패하면 〔한 편에 두 사람일 경우〕 상대편과 교대한다.

6) 고무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박 성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골목길이나 마당

(3) 놀이자 : 여자. 개인전일 때는 최소한 세 명이 하나, 두 명이 해야 할 경우 고무줄의 한 쪽을 나무나 벽에 붙들어 매고 한다. 편을 짜서 할 경우, 한 편에 둘 이상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고무줄, 길이는 놀이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3m 이상이라야 한다.

(5) 놀이 방법

고무줄을 한 가닥으로 해서 양쪽 끝을 붙잡고 한다. 이때,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종류

에 따라 발 동작이 달라진다. 부르는 노래는 '어머님 은혜 · 다람쥐 · 개나리 · 진달래 · 우리 반 · 쉬고 쉬고 · 삼천' 등이다.

노래에 맞추어 하는 발 동작으로는 ① 다리에 감기 ② 줄 밟기 ③ 뛰어 넘기 ④ 발 엇갈려 밟기 ⑤ 발 엇갈려 뛰기 등이 있다. 또, 줄의 높이도 점점 달라지는데, ① 발목 ② 장딴지 ③ 무릎 ④ 엉덩이 ⑤ 허리 ⑥ 가슴 ⑦ 입 ⑧ 이마 ⑨ 머리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고무줄 놀이에 불려지는 노래 중 구전(口傳)되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진달래

진달래 피였구나
봄맞이 가네
분홍꽃 여기저기
봄맞이 가네
겨울엔 눈송이 송이
내리는 곳
가자 가자 진달래
봄맞이 가네

◇ 우리 반

우리 반에 학생은
삼십 명이래
그 중에서 내 친구
끼여 있어요
유유 깍쟁이 꼬마 선생님
어쩌다가 내 친구를
퇴학시켰나

◇ 삼천

삼천 개구리 처녀
임금님의 생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음악대회를 열언다
토끼 할머니 토끼 사세요
여우 할머니 여우 사세요
찐빵 찐빵 지고지고 삼팔선

◇ 쉬고 쉬고

쉬고 쉬고 각개로 쉬고

쉬고 쉬고 각개로 쉬고

일점 밟고 이점 밟고

삼점 사점 오점이요.

7) 깡통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박 현호(10세, 남, 국민학교 3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316번지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콩 장난'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사시사철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장소가 있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8~10명 정도의 인원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깡통이나 공 1개

(5) 놀이 방법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되도록이면 멀리 차서 보낸다.
- 술레가 깡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두들 도망가서 숨는다.
-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만약, 숨은 사람 중 갑을 찾으면 "갑 땅콩" 하고 외친다. 이때, 갑은 실격이 된다.
- 술레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숨었던 사람이 몰래 나타나서 깡통을 차주면 실격되었던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
-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실격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찾아 실격시키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제일 처음 실격된 사람이 술레가 되어 다시 시작한다.

8)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박 현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얼음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일정한 범위를 정한다.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러 다니고,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술레가 손으로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챌 수 없다. 그러나, '얼음'된 사람은 정지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면,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다른 사람이 술레를 피해서 '얼음'된 사람을 "녹아"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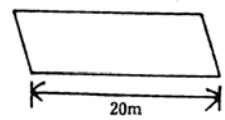
9) 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병환(57세, 남, 국졸)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메때기 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마당이나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소나무를 깎아서 만든다.
〈그림 48〉 메때기

(4) 놀이 용구

① 메때기 : 20cm 정도의 소나무 토막

② 메때기채 : 60cm 정도의 소나무 막대. 이것을 보통 '자'라고 부른다.

(5) 놀이 방법

가. 소경 메때기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길쭉하게 판 다음 그 위에 메때기를 가로로 놓는다. 그리고는 메때기채로 떠서 날린다. 이때, 수비편이 메때기를 받으면 실격이 되나 받지 못하면 구멍을 향해 메때기를 던진다. 공격자는 수비편이 던진 메때기를 쳐서 날리는데, 맞히지 못하고 헛손질을 해도 무방하나, 던진 메때기가 구멍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무조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구멍에 닿지 않거나 되받아 쳤을 경우, 메때기가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를 잰다.

거리를 잴 때에는 메때기채로 거리를 따지는데, 한 자, 두 자 등의 '자'로 계산한다. 거리 계산이 끝나면 떨어져 있는 메때기의 끝을 메때기채로 쳐서 띄운 다음 메때기채로 다시 쳐서 멀리 날린다. 이때, 날아가는 메때기를 수비편이 잡으면 실격이 된다. 또, 공격자가

메때기를 메때기채로 칠 때 땅을 치거나 헛손질을 해도 실격이 된다. 구멍과 메때기까지의 거리를 메때기채로 잰 다음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 놀이를 시작할 때 '오백 자 내기'니 '천 자 내기' 등을 미리 정한다. 작정한 잣수를 먼저 따내는 편이 이긴다.

나. 메때기 치기

이 놀이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이 한 번이라도 실격을 하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시작하기 전에 '몇 자 내기'를 정하는데, 보통 '천 자 내기'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놀이 순서로 계속 반복된다.

1. 토깽이

구멍 안에 메때기를 비스듬히 세운 다음 메때기채로 메때기 끝을 쳐서 띄운다. 그리고, 공중에서 다시 쳐서 날린다. 이때, 수비편은 날아가는 메때기를 잡을 수 있다. 수비편이 메때기를 잡으면 실격이 된다. 만약, 공격자가 메때기를 치지 못해도 실격이 된다.

구멍과 메때기까지의 거리를 메때기채로 재서 점수로 계산한다.

2. 두 손 치기

한 발로 구멍을 밟고 서서 왼 손에 메때기를, 오른 손에 메때기채를 각각 든 다음, 메때기를 던져 메때기채로 쳐서 날린다. 수비편은 날아오는 메때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하면 떨어진 메때기를 주워서 구멍 쪽으로 던진다. 이때, 메때기가 구멍 속에 들어가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던진 메때기를 공격자가 되받아 칠 수도 있다.

땅에 떨어진 메때기의 끝을 메때기채로 쳐서 공중에 띄운 다음 다시 메때기채로 쳐서 날린다. 그리고, 구멍과 메때기까지의 거리를 메때기채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3. 한 손 치기

구멍을 밟고 서서 한 손에 메때기와 메때기채를 동시에 든 다음 메때기를 던져 메때기채로 쳐 날린다. 수비편이 받거나, 메때기를 치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메때기와 구멍과의 거리를 메때기채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4. 돌려치기

메때기채 끝에 메때기를 올려 놓고 공중에서 한두 바퀴 돌린 다음 메때기채로 쳐서 날린다. 수비편이 잡거나, 메때기를 치지 못하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구멍과 메때기까지의 거리를 메때기채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 거리 잴 때

거리를 잴 때 일일이 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공격자가 눈어림으로 재서 잣수를 부를 수 있다. 이때, 수비편이 잣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재봐" 하고 말한다. 만약, 재서 잣수가 부족하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재서 잣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공격자의 점수에 가산된다. 수비편이 잣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먹어" 하고 말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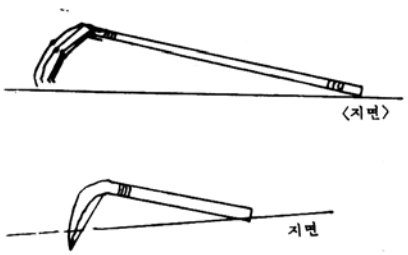
러면 공격자는 자기가 부른 잣수를 점수에 가산한다.

10) 낫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병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낫딴'으로 불린다. 그리고, 낫 대신 갈퀴로 할 때에는 '갈키딴'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논두렁이나 산비탈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낫 또는 갈퀴
(5) 놀이 방법

꼴을 베러 들에 나가거나 낙엽을 긁으러 산에 갔을 때에 일을 하다가 쉬면서 하는 놀이이다. 각자 꼴이나 낙엽을 한'잔'씩 붙여놓고 내기를 한다. 이때, '잔'은 아름을 뜻하는 말로 각자 한 아름씩 걸고 시작한다. 일정한 거리에 선을 그려놓고 출발선에서 낫이나 갈퀴를 집어 던진다. 던진 낫이 땅에 꽂히거나 던진 갈퀴가 똑바로 서면 이긴다. 〔그림 참조〕 한 번 던져서 모두 실격이 되거나 똑바로 꽂힌 사람이 여럿일 때 다시 던져서 승부를 낸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최종 승자를 뽑는다. 최종 승자는 모아놓은 꼴이나 낙엽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그림〉 49

낫을 던질 때는 자루의 끝을 잡고 던지거나 낫 날의 끝을 잡고 던져야 된다. 그리고, 던진 낫이 공중에서 몇번 회전하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땅에 꽂힐 확률이 높다.

갈퀴를 던질 때는 자루의 중간을 잡고 던진다.

11) 윷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병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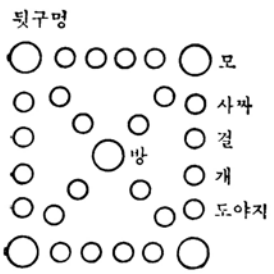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철

(2) 노는 장소 : 양지바른 마당이나 방 안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용구 : 윷판 · 윷가락 · 말 네 개씩

가. 윷판



〈그림 50〉

윷판은 29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멍마다 이름이 따로 있다. 조사 마을에서 조사된 구멍의 이름은 '도야지 · 개 · 걸 · 사짜 · 모 · 방' 뿐이고 나머지는 미상(未詳)이나, 윷놀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광포(廣布)의 민속놀이인 까닭에 다른 지방의 이름과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나. 윷가락

밤나무 줄기를 약 15cm~20cm 정도로 잘라서 세로로 이등분한다. 윷가락 네 개를 사용한다. 이것을 '장윷'이라 부른다.

(5) 놀이방법

윷가락을 던져서 나오는 끝 수대로 말을 이동한다. 한 개가 젖혀지면 '도야지', 두 개가 젖혀지면 '개', 세 개가 젖혀지면 '걸', 네 개가 젖혀지면 '사짜', 네 개가 모두 엎어지면 '모'라고 한다. 도야지는 한 칸을, 개는 두 칸을, 걸은 세 칸을, 사짜는 네 칸을, 모는 다섯 칸을 각각 갈 수 있고, 사짜와 모의 경우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말이 하나씩 가는 것을 '일동' 또는 '현지산'이라고 하며, 두 개씩 함께 가는 것을 '두 동' 또는 '두 거리'라고 하고 이를 '붐아서 간다'고 한다. 말 세 개가 함께 가는 것을 '세 동' 또는 '서 거리'라고 하며, 이를 '세 개 붐아서 간다'고 한다. 또, 말 네 개가 함께 가는 것을 '네 동' 또는 '전마거리'라고 하며, 이를 '네 개 붐아서 간다'고 한다.

말이 붐아서 다니다가 상대편 말에게 잡히면 모두 실격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붐아서 가는 것만이 유리한 것이 아니며 말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네 개의 말이 먼저 나는 편이 이긴다.

◇ 윷놀이에 쓰이는 용어

- 업는다 : 말이 모에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걸에 있던 말이 개가 나오면 모에 갈 수 있어서, 이때를 '업는다'고 말한다.
- 방업다 · 방웃다 : 모에 업은 말이 걸에 나와서 방에 놓일 때를 말한다.
- 방어서 낸다 : '방업은' 말이 윷이나 모가 나와서 완전히 나는 것을 말한다.
- 멕였다 : 날걸이나 '방수기'에 있던 말이 개가 나와서 나지 못하고 '출구'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 내찍는다 : '모도'나 '모개'에 있던 말이 방에 가지 못하고 지나쳐서 '속윷'이나 '속모'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어간다'고 하기도 한다.
- 시구진다 : '뒷개'에 있던 말이 걸이 나와서 '뒷모'에 가는 것을 말한다.

◦ 스무구녕 판다 : '뒷도', '뒷개', '뒷걸', '뒷윷'에 있는 말이 '시구'지지 못하고 '찌도'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 잽혔다 : 자기 말이 상대말에게 잡혔을 때를 말한다.

◇ 척사대회

매년 대보름이나 이월 초하룻날[음력]에 4H회원들의 주관하에 윷놀이가 벌어진다. 참가표를 한 장에 400원씩 받고 팔아서 소요 경비를 추렴한다.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구입해도 무방하며, 참가표 장수만큼 놀이를 할 수 있다. 추렴한 돈의 일부는 상품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마을을 대소사 경비로 쓴다.

남자 개인전과 부녀회 단체전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남자 개인전의 경우, '리그전' 형식으로 노는데, 한 사람이 7~8명 정도를 이기면 대개 우승이 확정된다.

상품으로는 등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대개 농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쓴다.

12) 연날리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오 민석(15세, 남, 중학교 2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1) 노는 시기 : 초겨울부터 정월 보름까지

(2) 노는 장소 :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이나 논두렁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연 · 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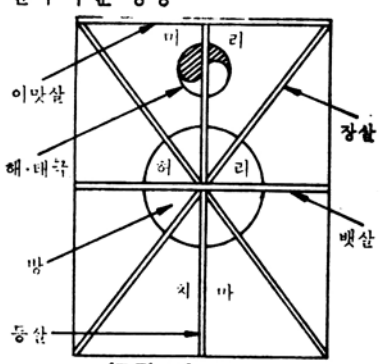
가. 연의 종류

◇ 방패연 ◇ 가오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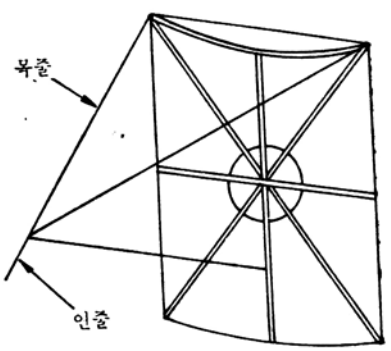
나. 얼레의 종류

◇ 이모 얼레 ◇ 사모 얼레

(5) 연의 부분 명칭



〈그림 51〉



〈그림 52〉

(6) 놀이 방법

연을 날려 겨루는 방법에는 '높이 날리기'와 '줄 끊어먹기'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높이 날리기는 어느 연이 더 높이 올라가는가를 겨루는 놀이이며, 줄 끊어 먹기는 자기 연줄과 상대 연줄을 서로 비벼서 끊는 놀이이다. 이때, 연줄을 튼튼하게 하려고 '벌똥'을 〔석청〕을 연줄에 문지른다.

(7) 연 날려 보내기

음력 15일에 연실을 끊어 연을 날려 보내는데, 이것을 '시집보내기'라고 한다. 문풍지에 불을 붙여 실을 따라 올라가게 한 다음 목줄을 태워서 날려 보내거나, 연실을 직접 끊어서 날린다.

연에 자기 이름과 '送厄迎福'이라는 자구(字句)를 적어 보내는데, 이는 액을 막고 복을 부르려는 뜻을 갖고 있다. 정월 보름이 지나면 연은 날리지 않는다.

13) 농 악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4일
제 보 자 : 윤 상석(60세, 남, 한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동암리

(1) 노는 시기 : 정월 보름·2월 초하루·단오·칠월칠석·추석·모심기와 논매기할 때

(2) 농악대의 편성

영기와 용매기가 앞장을 서고 가락을 맡은 새납 1명과 농악대의 지휘자인 상쇠가 뒤따르는데, 상쇠는 악대의 변화 및 악곡을 지휘한다. 상쇠 뒤에 부쇠가 따르고 징수(1명)·북수(2명)·장고잽이(2명)·상벅구(1명)와 벅구잽이(6명)가 뒤따른다.

농악놀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악기와 함께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길진애비〔기수〕: 윤 병식(73세), 조성구(36세)
- 새납 : 최정웅(48세)
- 꽹과리 : 상쇠—오 경화(57세)
  부쇠—오 병필(63세)
- 장고 : 장고잽이—윤 삼석(60세)
  오 주영(61세)
- 북 : 북수—오 창석(71세)
  오 성복(71세)
- 벅구 : 상벅구—엄 상근(62세)
  벅구잽이—오 호근(50세)
  오 봉환(48세)

안 창근(58세)

오 세운(35세)

방 용산(62세)

정월 보름에는 농악대가 집집마다 돌면서 안택을 빌어준다. 이때, 그 집에서는 돈이나 쌀을 놓은 상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꽃반'이라고 한다. 꽃반을 받은 농악대는 마당에 도열해서 악기를 친다. 그리고는 꽹과리를 울리면서 '고사풀이'를 한다. 고사풀이가 끝나면 한 바탕 놀고 다른 집으로 건너간다.

농악에 사용되는 진법으로는 인사굿을 비롯하여, 돌림벅구 진법 · 당산벌림 진법 · 오방 감기 진법 · 오방 풀기 진법 등이 있다.

5. 雲山面 餘美里의 民俗藝能과 競技傳承

1) 보물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보물 다까리'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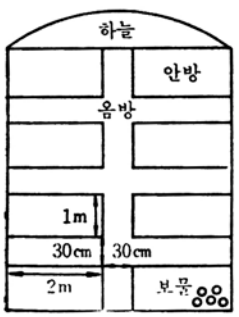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한 편에 두 명 이상이면 가능하고 인원수 제한은 없다.

(4) 놀이 용구 : 조그만 돌멩이 5개. 이를 '보물'이라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53〉

◦공격편은 하늘에, 수비편은 옴방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하늘에서 나와 안방을 건너 뛰어 하단 우측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보물 다섯 개를 하늘로 운반하면 이긴다.

◦수비편은 옴방으로 다니면서 공격자가 건너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친다. 이때, 수비자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는 안방과 안방으로만 건너가야 된다. 선을 밟거나 옴방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자도 선을 밟거나 안방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공격자는 보물을 던져서 운반할 수 있으나 못 받아서 옴방이나 선 위에 떨어지거나 수비자가 받으면 전원이 실격되어 공격편이 지게 된다. 그러나, 던진 보물이 안방에 떨어지면 무방하다.
∘보물을 갖고 있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수비자에게 채이면 공격편이 지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이 보물을 모두 운반하면 이긴다. 반대로,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이 보물을 운반하다가 채이거나 보물이 옴방에 들어가거나, 또는 공격편이 던진 보물을 수비편이 붙잡으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2) 공기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공기집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대청 마루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4) 놀이 용구 : 돌멩이 다섯 개. 이를 '공기'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하는 순서를 정하고, '몇 년 내기'를 한다. 보통 '백 년' 내기를 한다.
∘놀이 순서는 ① 한 알 집기, ② 두 알 집기, ③ 세 알 집기, ④ 네 알 집기, ⑤ 꺾기인데, 꺾기에서 잡은 공기알의 수로 년수를 계산한다. 꺾기를 성공하면 다시 한 알 집기부터 한다.

◇ 혼

이는 한 알 집기를 일컫는 것으로, 공기를 땅에 뿌린 다음 한 알을 집어 공중에 던지면서 땅에 있는 한 알을 집는 동시에 떨어지는 공기알을 받는다. 또 두번째 알을 집을 때에는 먼저 집은 알은 손 안에 넣은 채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네 번의 동작으로 네 개의 알을 모두 집으면 두 알 집기로 넘어간다. 알을 집을 때 다른 알을 건드리거나 던진 알을 받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 둑

이는 두 알 집기를 일컫는 것으로, 공기를 땅에 뿌리고 한 알을 집어 공중에 던지면서,

땅에 있는 공기 중 두 알을 한꺼번에 집은 다음 떨어지는 공기알을 받는다. 두 번의 동작으로 네 개의 알을 모두 집으면 세 알 집기로 넘어간다. 두 알을 한꺼번에 집어야 하기 때문에, 공기알을 던질 때에 집기가 쉽도록 두 알씩 모이게 갈라서 던져야 한다.

◇ 석

이는 세 알 집기를 일컫는 것으로, 공기를 땅에 뿌리고 한 알을 집어 공중에 던지면서 땅에 있는 공기 중 세 알을 한꺼번에 집은 다음 떨어지는 공기알을 받는다. 집은 공기를 손 안에 넣은 채, 공기알 한 개를 공중에 던진 다음 땅에 있는 공기알 한 개를 집고 떨어지는 공기를 받는다. 이때, 손에 쥔 공기알을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 막

이는 네 알 집기를 일컫는 것으로, 공기를 땅에 뿌린 다음 한 알을 집어 공중에 던지면서 땅에 있는 공기알 네 개를 한꺼번에 집고 떨어지는 공기를 받는다. 네 알이 퍼져 있으면 집기가 어려우므로 뿌릴 때에 네 개가 모이도록 잘 뿌린다. 던진 알을 받다가 잡지 못하고 떨어질 때, 땅에 닿기 전에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공기알을 잡은 후에 손등으로 땅을 치면서 '꽁' 하고 외쳐야 된다.

◇ 꺾기

손바닥 안에 공기알을 놓은 다음 던져서 손등으로 받는다. 손등에 있는 공기알을 다시 던지면서 손으로 받는다. 이때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2개 이상 꺾어야 하며, 손등 위로 받은 알을 꺾을 때에 한 알이라도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두 개를 꺾어 받으면 2년, 세 개를 꺾어 받으면 3년, 네 개를 꺾어 받으면 4년, 다섯 개를 꺾어 받으면 5년이 된다.

3) 돌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목자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할 때에는 한 편에 2~3명이 적당하다. 놀이자가 홀수일 때 남은 한 사람은 '마따리'라고 해서 양 편이 교대로 할 때마다 한 번씩 한다.

(4) 놀이 용구 : 네모지거나 동그랗고 넓적한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가. 1단

하늘에서 목자를 1단에 던져 놓고 모둠발로 1단에 들어간다. 그리고, 1단부터 6단까지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간다. 6단에서 7단으로 목자를 차보낸 다음 몸은 '가나'칸으로 가는데, 가에 오른발을, 나에 왼발을 동시에 놓는다. 제자리에서 방향은 바꾸지 않고 다리만 서로 바꾸는데, 가에 왼발을 나에 오른발을 놓은 다음 7단으로 모둠발로 들어간다. 그리고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눈에서 임금까지 들어가게 한다. 목자를 차고 가다가 선을 밟거나, 찬 목자가 선 위에 떨어지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또, 던진 목자가 선 위에 떨어지거나 밖으로 나가도 실격이 된다.

◇ 찬 목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

7단에서 앙감질로 눈에 들어가 목자를 집은 다음 직접 6단으로 걸어간다. 6단부터 하늘까지 눈을 감고 걸어서 돌아온다. 이때, 목자를 집다가 떨어뜨리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눈을 감고 오다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찬 목자가 다리에 들어갔을 때

7단에서 앙감질로 눈을 거쳐 다리까지 가서 목자를 집은 다음 '오금'〔무릎 뒤쪽〕 사이에 목자를 끼고 앙감질하면서 눈을 거쳐 6단으로 갔다가 하늘까지 돌아온다. 이때, 목자를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 찬 목자가 토끼에 들어갔을 때

7단에서 앙감질로 눈·다리를 거쳐 토끼까지 간 다음 목자를 집어 양 발 사이에 끼운다. 뒷짐을 지고 입을 다문 상태로 모둠발을 하면서 다리·눈을 거쳐 6단으로 갔다가 하늘로 돌아온다. 이때, 목자를 빠뜨리거나 이를 보이면 실격이 된다.

◇ 찬 목자가 임금에 들어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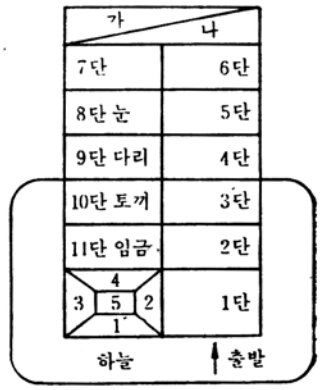
7단에서 앙감질로 눈·다리·토끼를 거쳐 임금까지 간 다음 목자를 집는다. 집은 목자를 머리 위에 얹고 뒷짐을 진 상태로 토끼·다리·눈을 거쳐 6단까지 걸어갔다가 하늘로 돌아온다. 돌아올 때 상대방은 말이나 흉내로 놀이자를 웃길 수 있다. 이때, 놀이자가 이를 보이면 실격이 된다.

◇ 찬 목자가 숫자칸에 들어갔을 때

찬 목자가 숫자칸에 들어가면, 목자가 들어간 칸의 숫자에 해당하는 단에서 다시 시작한다. 예를 들어, 5가 적힌 칸에 목자가 들어가면 5단에 목자를 던져 놓고 하늘에서 5단까지 앙감질로 가서 목자를 6단으로 차야 한다. 그 다음은 앞의 방법과 같다.

나. 2단~7단

해당단에 목자를 던져 놓고 앙감질로 그 칸까지 간 다음 목자를 차면서 7단까지 간다. 가나칸을 앞과 똑같은 방법으로 거치고 7칸에서 목자를 차서 눈부터 임금까지 들어가게 한다. 나머지는 〈1단〉과 같다. 7단일 때는 목자를 7단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간 다음 똑같이 하면 된다. 이때, 1단만은 모둠발로 들어간다.



〈그림 54〉

다. 눈~임금

해당되는 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그 칸까지 몸만 간다. 이때, 가는 순서와 방법은 〈1단〉과 같다. 목자를 집고 하늘로 된 돌아 올 때에는 '◇ 찬 목자가 ○○에 들어갔을 때'에 설명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

◇ 자기편 중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주기

자기편 중 갑이 틀려 실격이 되었을 때 을이 자기 몫을 할 때 실격된 사람의 목자를 같이 갖고 돌아온다. 예를 들어, 갑이 '다리'에서 틀리면 하늘에서 한 쪽 다리를 들고 을이 올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을이 자기 몫을 할 때, 찬 목자가 다리에 들어가면 갑의 목자를 함께 가져 오면 된다. 그러나, '다리'가 아닌 다른 칸에 들어가면 일단 을의 몫을 〈1단〉에서처럼 한 다음 갑의 몫을 해야 한다. 을은 갑의 목자를 받아서 1단부터 7단까지 앙감질로 차고 가는데 가나칸에서는 네 번 발을 바꾼다〔자기 몫을 할 때의 두 배로〕 7단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찬 다음 〈1단〉과 같은 방법으로 하늘로 돌아온다. 을이 갑의 몫을 한 후에 한 쪽 발을 들고 서 있는 갑을 쳐주면 갑은 실격을 모면하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을도 실패를 하면 상대방에게 공격권이 넘어간다. 〔한 편에 둘일 경우〕 만약, 한 편에 셋일 경우 병이 갑을의 몫을 해주는데, 갑과 을의 몫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 따라서, 병은 자기 몫과 갑을의 몫을 합쳐서 세 번까지 왕복해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단부터 임금까지 먼저 하는 편이 이기게 된다.

4) 줄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다.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편을 갈라서 하는데 한 편에 3~4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새끼줄 5m 정도

(5) 놀이 방법

한 편은 새끼줄을 양 쪽에서 잡고 적당한 속도로 빙빙 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또 한 편은 줄 사이에 뛰어 들어가서 노래에 맞추어 동작을 하다가 나온다.

동작의 순서는 ① 줄을 피해 뛰기, ② 손으로 땅을 짚기, ③ 뒤로 돌기, ④ 양 손들어 만세부르기, ⑤ 뒤로 돌기, ⑥ 밖으로 나오기이다. 이때, 동작이 틀리거나 줄을 넘지 못하고 줄이 몸에 걸리면 실격이 된다.

줄넘기 할 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꼬마야 줄을 넘어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나와라.

5) 고무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골목길이나 마당

(3) 놀이자 : 여자. 개인전일 때는 최소한 세 명이 하나, 두 명이 할 경우 고무줄의 한쪽을 나무나 벽에 붙들어 매야 한다. 편을 짜서 할 경우, 한 편에 둘 이상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고무줄. 길이는 놀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3m 이상이라야 한다.

(5) 놀이 방법

한 줄로 하는 놀이인 '한 겹'은 고무줄을 한 가닥으로 해서 양 쪽을 잡고 한다. 두 줄로 하는 놀이인 '두 겹'은 고무줄의 끝을 묶어 원으로 만든 다음 줄 사이에 다리를 넣고 양 쪽에서 잡아당겨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한다.

고무줄 놀이는 부르는 노래에 따라 발 동작이 달라진다. '한 겹'에는 '기러기 · 어머님 은혜 · 다람쥐 · 개나리 · 자동차 바퀴 · 장난감 기차 · 임금님 생신' 등의 노래가 불려지고,

'두 겹'에는 '개구리·고기잡이' 등의 노래가 불려진다.

노래에 맞추어 하는 발 동작으로는 ① 다리에 감기 ② 줄 밟기 ③ 뛰어 넘기 ④ 발 엇갈려 뛰기 ⑤ 발 엇갈려 밟기 ⑥ 두 발로 줄 밟기 등이 있다. 또 줄의 높이도 달라지는데, ① 발목 ② 장딴지 ③ 무릎 ④ 엉덩이 ⑤ 허리 ⑥ 가슴 ⑦ 입 ⑧ 머리 ⑨ 만세〔두 손을 높이 쳐들고 고무줄을 잡는 것을 말함〕 등의 순서로 한다.

'한 겹' 놀이에 불려지는 노래 중 구전되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장난감 기차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아가한테
갔다 주러 갑니다.

◇ 자동차 바퀴
앞바퀴 뒤바퀴
자동차 바퀴
앞에는 운전수
뒤에는 조수
달려라 달려라
서울역*까지
달려라 달려라
인천역*까지
운전수 아저씨
고맙습니다. (*역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

◇ 임금님 생신
삼천 개구리라 하여
임금님의 생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악 꼬꼬대가 열렸네.
대머리 까진 영감님
제비 다리에 걸쳐 앉아서
얌냠 맛있게도 얌냠.

6) 가마타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일정하지 않음
(3) 놀이자 : 여자 세 명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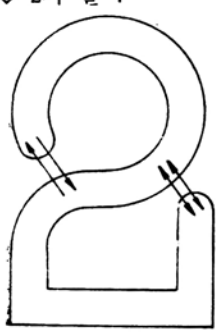
두 사람이 마주 서서 각각 자기 손으로 왼손의 팔목을 잡은 다음 왼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굽어 있는 오른손의 팔목을 잡아 '가마'를 만든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그 위에 말을 타듯 올라 타고 돌아다니면서 논다.

7) 숫자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은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숫자 다까리'로 불려지는데, '2자놀이 · 3자놀이 · 5자놀이 · 6자놀이 · 8자놀이 · 9자놀이'의 총칭이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6~8명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 2자 놀이



〈그림 55〉 2자놀이

◦ 술레〔이를 '오니'라 한다〕 한 사람을 정한다.
◦ 놀이자 모두 2자 안의 통로에 들어간다.
◦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통로와 통로 사이를 건너뛰어 도망다닐 수 있다〔그림의 ↕표 방향〕
◦ 술레는 통로로만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는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통로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되어 술레가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 3자놀이

3자놀이는 '3字' 모양의 놀이판을 그려 놓고 하는 놀이로서, '2字 놀이'와 똑같이 논다.

◇ 5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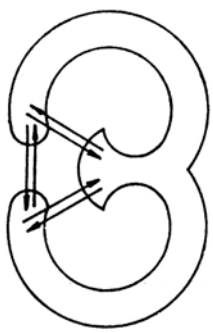
5자놀이는 '5자' 모양의 놀이판을 그려 놓고 하는 놀이로서, 놀이 방법은 '2자놀이'와 같다. 또한, '2자놀이'처럼 ↑↓표 방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

◇ 6자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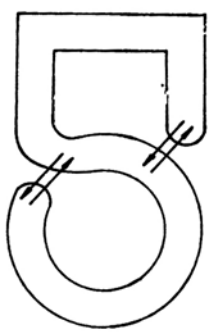
'6자놀이'는 '6자' 모양의 놀이판을 그려 놓고 하는 놀이로서, 놀이 방법은 '2자놀이'와 같다. ↑표 방향으로 넘어다닐 수 있다.

◇ 8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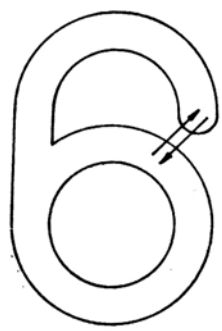
'8자놀이'는 '8자' 모양의 놀이판을 그려 놓고 하는 놀이로서, 놀이 방법은 '2자놀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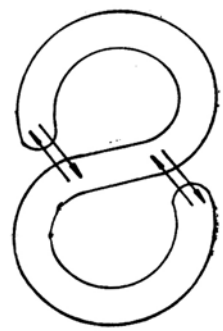
〈그림 56〉 3자놀이



〈그림 57〉 5자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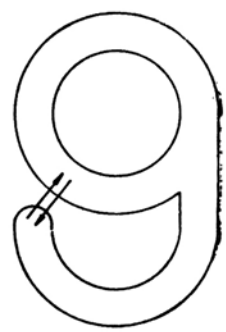
〈그림 58〉 6자놀이



〈그림 59〉 8자놀이

◇ 9자놀이

'9자놀이'는 '9자' 모양의 도형을 그려놓고 하는 놀이로서 놀이 방법은 '2자놀이'와 같다.



〈그림 60〉 9자놀이

8) 두꺼비집 짓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모래가 있는 강가, 시냇가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모래 속에 왼손을 넣고 오른손으로 모래를 덮으면서 다독거려 집을 만든다. 다독거리면서 '두꺼비집' 노래를 부른다. 집이 다 되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집 입구는 잘 다독거려 집을 완성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 두꺼비집 짓기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주께
새 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주께
새 집 다오. (이하 계속 반복한다)

9) 글자 파서 알아 맞추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글씨 쓰기'로도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밑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놀이자 모두가 상대 몰래 돌아 앉아 자기가 생각한 글자나 숫자를 땅에 음각으로 새긴다. 모두 새긴 후 흙으로 덮는데, 상대가 잘 찾을 수 없도록 글자를 파지 않은 곳까지 골고루 덮는다. 이때, 파는 글자의 수를 미리 정한다.

판 글자를 덮은 후 동시에 상대방이 있었던 장소로 가서 글자를 찾는다. 먼저 찾은 사람이 글자를 바르게 읽으면 이긴다. 이 놀이는 승부보다 재미로 하는 놀이이다.

10) 이름대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아이 엠 그라운드'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방 안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4) 놀이 방법

◦ 각자 두 자로 된 과일 이름〔또는 동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정한다. 앵두·사과·포도·수박 등의 이름을 정할 때 잘 암기해 두어야 한다.

◦ 동그랗게 모여 앉아 다같이 '아이 엠 그라운드'라고 네 박자로 말한 다음 차례차례 자기

〈보기〉

1호간 : 허벅지를 양 손으로 친다.

2호간 : 손뼉을 친다.

3호간 : 주먹쥔 오른손을 내민다. 〔이때, 엄지만 편다〕

4호간 : 주먹쥔 왼손을 내민다. 〔이때, 엄지만 편다〕

소개를 한다. "아이 엠 그라운드"를 할 때는 〈보기〉와 같은 동작을 하면서 '1호간—아이, 2호간—엠, 3호간—그라운, 4호간—드'의 박자로 소리낸다. 자기 소개를 할 때에는 1·2호간은 동작만 하고 3·4호간에 자기 이름을 두 번 부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소개가 모두 끝나면 놀이에 들어간다.

◦ 시작하면 호명자(呼名者)가 1·2호간은 동작만 하고 3호간에 상대 이름을 부른 다음 4호간에 숫자를 부른다〔예 : 앵두 넷〕. 이때, 다른 사람들은 호명자의 박자에 맞추어 동작을 한다.

◦ 호명을 당한 사람은 1호간부터 4호간까지 자기 이름〔앵두〕을 네 번 대답한 후에, 다음 차례의 3호간에 상대를 호명하고 4호간에 숫자를 부른다. 이때, 숫자는 넷을 넘을 수 없다. 숫자에 따른 대답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일 때 : 1·2·3호간은 동작만 하고 4호간에 자기 이름을 한 번만 대답한다.
2. 둘일 때 : 1·2호간은 동작만 하고 3호간과 4호간에 각각 자기 이름을 한 번씩 대답한다.
3. 셋일 때 : 1호간에 동작만 하고 2·3·4호간에 각각 자기 이름을 한 번씩 대답한다.
4. 넷일 때 : 1호간부터 4호간까지 각각 자기 이름을 한 번씩 대답한다.

◦ 자기 이름을 대답한 다음, 다음 동작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3호간에 상대 호명, 4호간에 숫자를 부른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박자를 틀리거나 대답과 호명을 잘못하면 일정한 벌칙이 주어진다. 놀이자가 틀리지 않을 때는 박자를 빨리 치기도 한다.

11) 땅 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밑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편은 가르지 않고 개인전으로 하는데, 2~3명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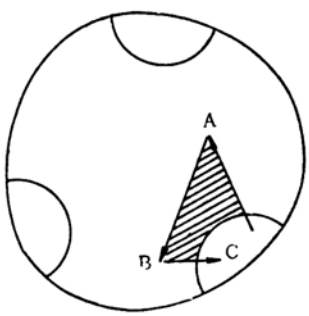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넓적한 돌멩이 하나씩(크기는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크게 한다.) 이를 '목자'라 한다.

(5) 놀이 방법

◦원주 한 곳을 원심으로 해서 두 뼘 길이의 원을 그려 자기집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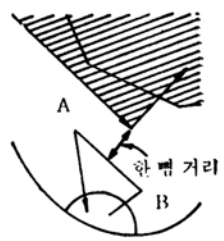
◦자기집에 목자를 한 번 쳐서 내보낸 다음 또 한 번 치고 세번째에 자기집으로 몰고 들어간다. 이때, 세 번만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목자를 치고 나갔다가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한다. (그림의 빗금친 곳)



〈그림 61〉

◦자기가 넓힌 땅의 모서리와 상대편 땅과의 거리가 한 뼘이 되면(그림 62 참조) 땅이 A, B로 분할되는데, 양쪽 땅 중 하나를 갖을 수 있다. "이 땅 줄래, 저 땅 줄래" 하고 물으면, 상대방이 좁다고 생각하는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 가져라" 한다. 상대방이 지적한 땅을 자기 땅으로 삼는다.



〈그림 62〉

◦자기 목자가 상대편 땅에 들어갔을 경우 실격으로 치는 경우와 유효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작정을 한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의 땅을 빼앗을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로 승부를 가름한다. 후자의 경우, 상대방 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땅을 모두 뺏으면 이기게 된다

12) 제기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마당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제기 한 개. 엽전을 헝겊이나 종이로 싸서 끝을 말아서 엽전 구멍에 꿰어내거나 목을 실로 매고 끝을 여러 가닥으로 쪼개어 만든다.

(5) 놀이 방법

제기차기에는 '동네 제기'와 '세 발 걸이'의 두 종류가 있다. '동네 제기'는 빙 둘러 서서 제기를 차서 상대방에게 넘기고 제기를 받은 사람은 잡지 않고 되받아 차서 상대방에게 보내면서 노는 놀이이다. '세 발 거리'는 '외다리 차기', '양 다리 차기', '헐랭이'의 세 가지를 모두 한 다음 제기를 찬 수를 합하여 승부를 가름하는 놀이이다.

◇ 동네 제기

동네 제기는 세 사람 이상 찰 때 한다. 빙 둘러 서서 갑이 을에게 차넘기면서 "동네" 하면 을이 되받아 차서 넘길 때 "제기"한다. 다시, 병이 받아 차면서 "차자" 한다. 다른 사람이 또 받아 차면서 "말자"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을 때는 "그러자" 한다.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순서없이 차는데, "동네—제기—차자—말자—그러자"를 노래부르면서 반복한다. 이때, 아무도 못 찾을 때는 멀어진 제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실격이 되며, 박자를 맞추지 못했거나 헛발질을 하거나, 또는 제기가 몸에 닿으면 실격이 되어 '종을 드리게' 된다.

실격된 사람이 상대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던지면 받는 사람이 이것을 멀리 차서 보내거나 자기가 잡아 다시 찰 수 있다. 그런데, 찬 사람과 찬 제기가 멀어진 곳까지의 거리가 다섯 발 이내이면 찬 사람은 실격이 된다. 또, 받는 사람이 종드린 제기를 차지 않으면 다시 종을 드려야 한다. 종을 받는 사람이 제기를 차 받으면 앙감질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던져 주거나 자기가 몇 번이고 찬다. 제기를 잡고 있을 때 앙감질을 하지 않으면 드리는 사람이 칠 수 있다. 채인 사람에게는 종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때, 종 드리는 사람이 차는 제기를 잡으면 그때까지 종을 받는 사람이 찬 수만큼 다시 종을 드린다. 또, 차는 제기를 자기가 잡아 몇 번이고 차면 종을 받는 사람이 찬 수에서 드리는 사람이 찬수를 뺀다. 그리고 나머지 수만 종을 드린다. 그런데, 종을 드리는 사람이 찬 수가 더 많으면 그 반대로 종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

종을 드리는 사람은 상대가 헛발질을 하도록 제기를 던지는 헛시늉을 내거나 일부러 다른 곳으로 던져 유도한다. 이런 방법으로 놀이자 전원에게 모두 종을 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

◇ 세 발 걸이

한 번 차고 땅을 짚고 다시 차는 것을 '외다리 차기'라 하고, 두 발을 번갈아 가며 차는 것을 '양다리 차기'로 한다. 또,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계속 차는 것을 '헐랭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차서 찬 수의 합계를 내어 승부를 가름한다.

13) 비석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한 사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3~5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세울 수 있는 돌(가로 6cm, 세로 8cm)
이것을 '비석'이라 한다.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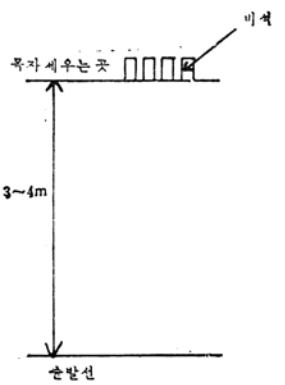
◦던지는 곳에 서서 '비석을 세우는 곳'에 각자의 비석을 던져 놀이 순서를 정한다. 던진 비석이 안 쪽에 떨어졌을 때 선에 가까운 순서로 순위를 매기며, 밖에 떨어졌을 때 선에서 먼 곳에 있는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 던진 비석이 〈그림 63〉처럼 떨어졌을 때, 안 쪽의 비석부터 순위를 정한 다음 바깥 쪽에 있는 비석의 순위를 정한다. 따라서, 비석의 놀이 순서는 '다—라—가—나—마'가 되며, 다의 놀이자가 시작할 때 가·나·라·마의 놀이자는 비석을 세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놀이를 진행한다.



〈그림 63〉

◇ 던지기

출발선에서 자기 비석을 던져 상대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이때, 세 번의 기회가 부여되는데, 비석 한 개를 쓰러뜨리면 또 세 번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에 상대 비석을 모두 쓰러뜨리지 못하면 실격이 되고, 공격권이 다음 순위자로 넘어간다.



〈그림 64〉

◇ 한 발 거리

출발선에서 한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이때, 비석을 밟지 못하면 실격

이 된다. 그리고, 비석을 집어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상대방 비석을 쓰려뜨릴 때 〈던지기〉처럼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은 다음 순서들에도 계속 적용된다.

◇ 두 발 거리

출발선에서 두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두 걸음 뛰어가서 비석을 밟는다. 그 자리에서 비석을 집은 다음 던져서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자기 비석과 상대방 비석이 겹치거나, 상대방 비석이 맞고 쓰러지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 비석을 옆으로 세워 놓고 출발선에서 다시 던져 쓰려뜨려야 한다. 만약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 세 발 거리

출발선에서 세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세 걸음 뛰어가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발 등

오른 발 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편 비석이 서 있는 곳까지 간 다음 발 등의 비석으로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왼 발 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방 비석이 있는 곳까지 간 다음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무릎

양 무릎 사이에 비석을 끼우고 걸어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허벅지

양 허벅지 사이에 비석을 끼우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 위에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쓰러뜨린다.

◇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에 비석을 끼우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왼쪽 겨드랑이에 비석을 끼우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어깨

오른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놓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왼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가슴

가슴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걸어가서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머리

머리 위에 비석을 이고 걸어간 다음 자기 비석을 멀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눈감생이

출발선에서 상대방 비석 가까이에 자기 비석을 던져 놓고 눈을 감고 가서 더듬어 찾는다. 자기 비석을 찾은 다음 비석을 던져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선을 넘어가거나 상대방 비석을 쳐서 쓰러뜨리면 실격이 된다. 그리고, 자기 비석을 밟아도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과 순서에 의해 〈던지기〉에서 〈눈감생이〉까지 모두 하는 사람이 이긴다.

14) 종경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이 인중(69세, 남, 한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여미리

(1) 노는 시기 : 명절 때

(2) 노는 장소 : 방 안

(3) 놀이자 : 사대부 가정의 부녀자나 소년들

(4) 놀이 용구 : 종경도 · 통윷 · 말

가. 종경도(從卿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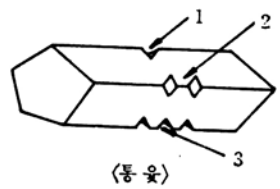
사방 일미(一米)가 넘는 넓은 종이에 관직명을 도시(圖示)하는데, 초사(初仕)에서부터 영의정 봉조하(領議政 奉朝賀)에 이르는 경관직(京官職)을 중앙에 쓰고 변두리에는 지방의 외직(外職)과 처벌받아 유배되는 곳을 표시해 놓았다.

나. 통윷

다섯 모가 난 밤나무 윷가락의 모서리에 숫자대로 선을 '의인다.'[새겨 놓는다]

(5) 놀이방법

통윷을 굴려서 나타난 숫자에 따라 도시(圖示)된 수의 관직명을 승진하게 된다. 통윷의 수가 높을수록 승진이 빠르며 일찍 봉조하(奉朝賀)에 도달한 사람이 이기게 된다. 그러나, 도중에 파직을 당하거나 외직(外職)으로만 돌게 되면 좀처럼 승진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한다.



〈통 윷〉

〈그림 65〉

6. 聖淵面 鳴川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뒷목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11세, 여, 국민학교 4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명천리 3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목자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편을 가르지 않고 주로 개인전을 한다. 2~4명이 하는 것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넓적한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놀이자끼리 하는 순서를 정한 다음 1번부터 한다.

◦'가나'칸에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놓고 뒤로 돌아선 다음 목자를 머리 위로 해서 숫자가 적혀져 있는 칸에 던진다. 던진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되며, 공격권이 다음 차례의 놀이자에게 넘어간다.

◦던진 목자가 바르게 떨어졌으면 떨어진 칸에 자기 표시를 한 다음 1칸부터 12칸까지 앙감질로 간다. 이때, 자기 표시가 있는 칸에서는 두 발로 쉴 수 있다. 1칸부터 12칸까지 갈 때에는 번호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밟고 지나가면 된다.

◦1칸부터 12칸까지 선을 밟지 않고 모두 밟고 지나가면 '가나'칸에서 다시 '던지기'를 한 다음 표시를 하고 1칸부터 12칸까지 밟고 간다. 던진 목자가 자기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그 표시는 지우고 놀이자는 실격이 된다. 또 남의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상대방 표시를 지우고 그 놀이자는 실격이 된다.

	가	나	
1	2	3	4
8	7	6	5
9	10	11	12

◦1칸부터 12칸까지 앙감질로 갈 때에 자기 표시가 있는 칸은 두 발로 쉴 수 있으나, 상대표시가 있는 칸은 앙감질로 건너 뛰어야 한다. 이때, 선을 밟거나 상대 표시가 있는 칸에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목자를 먼저 놓고 표시를 한 다음 1칸부터 12칸까지 가다가 실격을 하면,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칸 모두 표시가 되면 표시의 많고 적음을 가려 승부를 결정한다.

2)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껌'으로 불리는데, '껌'이라는 용어는 'Game'의 와전으로 보인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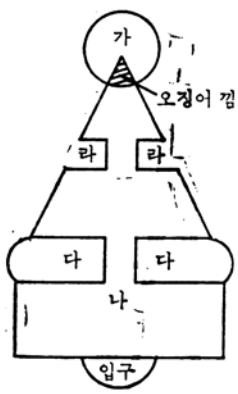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가'에, 수비편은 '나' 안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66〉

◦공격편은 자기 진영에서 앙감질로 나와 '다'를 뛰어넘은 후에 입구까지 간다. 이때, '다'에서 양 발로 다닐 수도 있고 쉴 수 있다. '다'를 넘지 않은 공격자는 입구를 밟을 수 없다.

◦입구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나'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쫓히고 '오징어 껌'을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은 자기 진영에서 들어온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자기 진영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입구로 다녀야 하며, 밖에서는 앙감질을 해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라'를 뛰어 넘으면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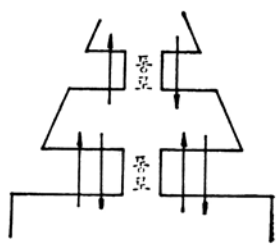
◦'다'나 '나'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수비 진영에서 수비자가 넘어지면 무방하나 공격자가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서로 밀고 당겨서 선을 밟게 하거나 선 밖으로 밀어내서 실격시켜야 한다.

◦공격자 진영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오면 실격이 된다. 또, 수비편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밖에 있는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앙감질일 때 양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 진영 안에서 수비자는 ↑↓표 방향으로 뛰어넘을 수 있으


〈그림 67〉

나, 공격자는 통로로만 다녀야 한다. (그림 참조)

◦공격편 진영 안에서 있던 공격자가 '오징어 낌'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오징어 낌'을 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반대로,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고무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한 겹으로 할 때와 두 겹으로 할 때가 있다. 두 겹 놀이는 비교적 복잡한 발동작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골목길이나 마당

(3) 놀이자 : 여자. 개인전일 때는 최소한 3명이 하나, 2명이 해야 하는 경우 고무줄을 나무나 벽에 붙들어 매고 할 수 있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둘 이상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고무줄. 길이는 놀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3m 이상이라야 한다.

(5) 놀이 방법

한 겹으로 하는 놀이는 고무줄을 한 가닥으로 해서 양 쪽으로 잡고 하는 놀이이다. 두 겹으로 하는 놀이는 고무줄 끝을 묶어 원으로 만든 다음 줄 사이에 다리를 넣고 양쪽으로 잡아당겨 두 가닥으로 마들어서 하는 놀이이다.

고무줄 놀이는 노래에 따라 발 동작이 달라진다. 한 겹 놀이에는 '장난감 기차', '고향의 봄', '삼천' 등의 노래가 불려지고, 두 겹 놀이에는 '월화수목'의 노래가 불려진다.

노래에 맞추어 하는 발 동작으로는 ① 다리에 감기 ② 줄 밟기 ③ 뛰어넘기 ④ 발 엇갈려 뛰기 ⑤ 발 엇갈려 밟기 ⑥ 두 발로 줄밟기 등이 있다. 또, 줄의 높이도 달라지는데 ① 발목 ② 장딴지 ③ 무릎 ④ 엉덩이 ⑤ 허리 ⑥ 가슴 ⑦ 입 ⑧ 머리 ⑨ 만세[두 손을 높이 쳐들고 고무줄을 잡는 것] 등의 순서로 한다.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장난감 기차

장난감 기차 기차타고 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갔다주러 간다네

◇ 월화수목
월화수목금토일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단 일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초단 일

4)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얼음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7~8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이를 '오니'라 함〕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술레가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니고, 술레는 쫓아 다니면서 손으로 친다.
◦술레가 칠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 하고 외치면, 술레가 챌 수 없다. 채도 상관이 없으나, "얼음" 한 사람은 정지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된 사람을 "불" 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이 없이 모두 '얼음'이 되면, '얼음'된 사람끼리 술레 한 사람을 정해서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5) 두꺼비집 짓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강가, 모래가 있는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4) 놀이방법

◇ 집 짓기

모래 속에 왼손을 넣고 모래를 손등 위에 덮어 다독거리면서 '두꺼비집' 노래를 부른다. 놀이자 전원의 집이 모두 완성되면(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 만든다.) 각자 자기 표시를 여러개 중 한 개의 집 속에 해놓고 물러선다.

◇ 집 찾기

집을 만든 사람이 일정한 거리 밖으로 물러설 때 놀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놀이자의 발자국을 지운다. 발자국을 다 지운 다음 동시에 출발해서 자기 표시가 있는 집을 찾는다. 이때, 집을 허물지 않고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긴다.

두꺼비집을 지을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른다.

◇ 두꺼비집 노래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께
새 집 다오. (이하 계속 반복한다)

6) 글자 파서 알아 맞추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5일
제 보 자 : 김 미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글씨쓰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그늘진 시원한 곳

(3) 놀이자 : 여자

(4) 놀이 방법

놀이자 모두가 상대 몰래 돌아 앉아 자기가 생각한 글자나 숫자를 땅에 판다. 다 파면 흙으로 덮는데, 상대가 잘 찾을 수 없도록 글자를 파지 않은 곳까지 덮는다. 이때, 파는 글자의 수는 미리 작정한다.

판 글자를 덮은 후 동시에 상대방이 있었던 장소로 가서 글자를 찾는다. 이때, 먼저 찾은 사람이 글자를 읽으면 이긴다.

7. 地谷面 中旺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고 누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14세, 남, 중학교 1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 노는 시기 :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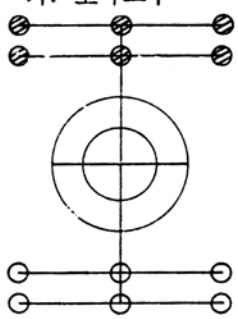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시원한 그늘이나 대청 마루

(3) 놀이자 : 남자 2명.

(4) 놀이 용구 : 호박고누—말 6개씩
우물고누—말 2개씩

(5) 놀이 방법

가. 호박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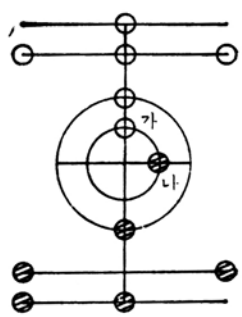


〈그림 68〉

◦말 판의 횡선 두 줄에 여섯 개씩 말을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이동한다.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을 잡아 낸다.
예를 들면, 그림 69와 같이 대치하고 있을 때, 백말이 둘 차례이면 백 '가'가 혹 '나'를 잡을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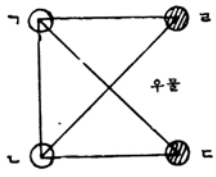
◦자기 집 안에서 후퇴할 수 없다.



〈그림 69〉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대편 말을 모두 잡으면 이긴다.

우물고누



〈그림 70〉

◦말을 한 칸씩 교대로 이동한다.

◦양 편의 말은 ㄷ과 ㄹ 사이[이를 '우물'이라고 한다.]를 건너지 못한다.

◦말을 번갈아 이동하다가 어느 편이든지 먼저 말길을 막아 상대편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 이긴다.

2)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이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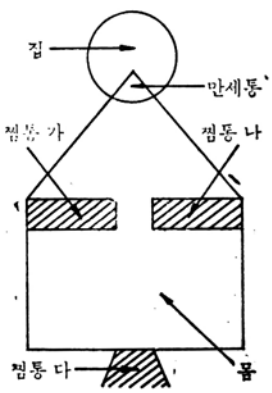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여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집'에, 수비편은 '몸'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집을 나와서 직접 찜통 '다'로 가거나, 앙감질로 찜통 '가'와 '나'를 뛰어 넘은 후 양발로 걸어서 찜통 '다'에 간다.



〈그림 71〉

◦찜통 '다'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이 '몸'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잦히고 만세통을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은 '몸' 안에서 방어하거나, '몸'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찜통 다를 지나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찜통 가와 나를 뛰어 넘으면 두 발로 다닐 수 있다.

◦찜통을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 갈 때에는 반드시 찜통 다를 지나가야 한다.

◦'몸'안에 있는 수비자가 공격자에 의해 끌려나오면 실격이 된다. 또는 공격자가 수비자에 의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집'안에 있는 공격자가 수비자에 의해 끌려 나오면 실격이 된다. 또는 수비자가 공격자

에 의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 '집' 안에 있는 공격자가 마세통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앙감질일 때 양발이 땅에 닿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만세통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이때,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 수비편이 공격편 모두를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인적사항 :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 가이샹'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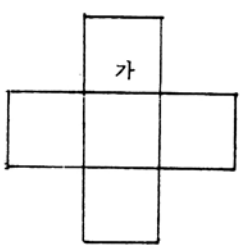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외곽 사각형인 '가'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 도는 방향(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과 도는 횟수(보통 다섯 바퀴)를 미리 정한다.



〈그림 72〉

◦ 공격편은 외곽의 사각형을 차례차례로 밟고 지나가면서 정한 바퀴 수만큼 돌면 이긴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돌지 못하도록 가운데 사각형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한다.

◦ 공격자가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수비자는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수비자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왔다 갔다 할 때 공격자는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온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자기편 진영에서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돌거나 지나친 칸으로 후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정한 바퀴 수만큼 돌거나 수비편을 도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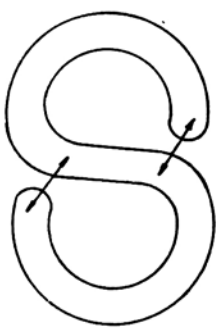
4) 팔자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팔자 가이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략 6명 이상이면 적당하다.



〈그림 73〉

(4) 놀이 방법

◦술레〔이를 '오니'라고 한다.〕 한 사람을 정한다.

◦놀이자 모두 8자 안의 통로에 들어간다.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통로와 통로 사이를 건너 뛰어 도망다닐 수 있다〔그림의 ↕표 방향〕.

◦술레는 통로로만 쫓아다니면서 도망치는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통로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되어 술레가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5) 시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시계 가이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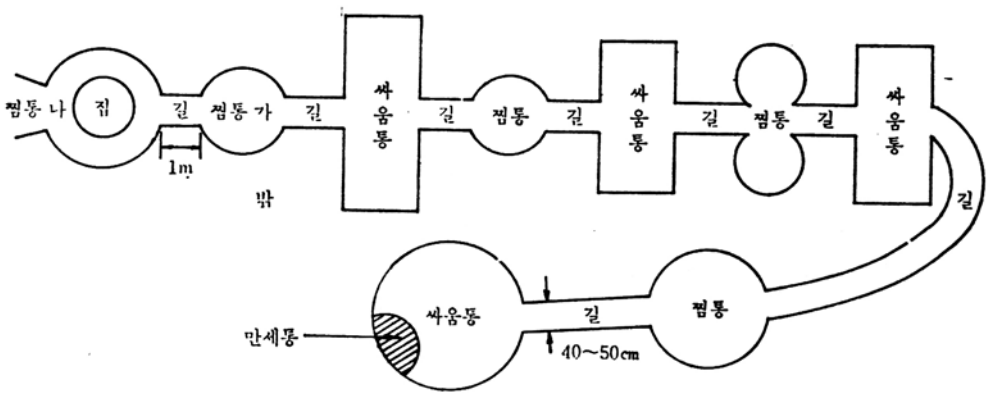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여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집'에, 수비편은 찜통 가나 밖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집에서 나와 찜통과 싸움통을 거쳐 만세통을 밟으면서 "만세" 하면 이긴다.



〈그림 74〉 찜통과 싸움통의 수는 제한이 없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밖에서 끌어 내거나 싸움통에서 밀어내어 실격시킨다. 통에서 밀어내어 실격시킬 수 있다.

◦ 공격자도 수비자를 밀고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밀려나간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찜통에서는 싸울 수 없고, 길이나 싸움통에서 서로 싸울 수 있다. 그러나, 찜통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끼리는 잡아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 공격자도 찜통 나를 통해 밖으로 나가서 수비자를 실격시킬 수 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만세통을 밟거나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6) 방패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인적사항 :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방패 가이샹'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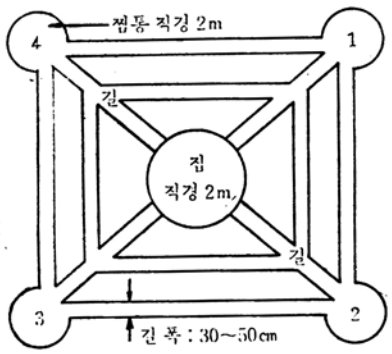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75〉

◦공격편은 '집' 안에, 수비편은 '길' 안에 각각 들어간다.

◦점퉁 네 개에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돈다. (집→1→2→3→4→집)

◦수비자는 공격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로 다니면서 막는다. 서로 밀고 당겨서 상대편을 실격시킬 수 있다. 선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길 밖으로 나간 사람은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곳을 돌아 자기집으로 오거나,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7) 비석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송 기철(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1 : 1로 할 수 있고, 편 갈라 할 수도 있다. 편을 짤 때는 한 편에 2~4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세울 수 있는 돌(가로 7cm, 세로 9cm). 이것을 '비석'이라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공격 순서를 정한다.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비석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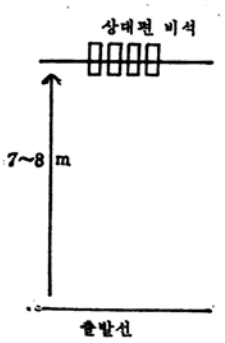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놀이를 진행한다.

1. 한 발 거리

출발선에서 한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먼저 놓고 앙감질로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어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비석을 밟지 못하거나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자기편 중 실격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몫을 대신해 줄 때 다시 살 수 있다.

2. 두 발 거리

출발선에서 두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먼저 놓고 앙감질로 두 걸음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자기 비석과 상대편 비석이 겹치거나 붙으면 이를 '비석'이라 해서 손으로 떼거나 발로 차서 뗄 수 있다. 그러나, 상대편 비석이 맞고 쓰러지지 않았을 때는 실격이 된다.



〈그림 76〉

3. 세 발 거리

출발선에서 세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먼저 놓고 앙감질로 세 걸음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4. 착학

출발선에서 네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먼저 놓고 앙감질로 네 걸음 뛰어서 비석 가까이에 간다. 그리고, 비석을 발로 차서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비석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5. 눈감생이

출발선에서 상대편 비석 가까이에 자기 비석을 먼저 놓고 눈을 감고 가서 더듬어 찾는다. 자기 비석을 찾은 다음 비석을 던져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7. 토끼뜀

비석을 양 발 복숭아뼈 안 쪽에 끼고 모둠발로 뛰어서 상대편 비석이 있는 곳까지 간 다음 자기 비석으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8. 발등 : 좌 · 우

왼발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편 비석이 서 있는 곳까지 간 다음 맞추어 쓰러뜨린다.

오른발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편 비석이 있는 곳까지 간 다음 맞추어 쓰러뜨린다

9. 무릎

양 무릎 사이에 비석을 끼고 걸어가서 상대편 목자를 맞추어 쓰러뜨린다.

10. 무릎 뒤 : 좌 · 우

왼발 무릎 뒤에 비석을 끼고 앙감질로 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오른발 무릎 뒤에 비석을 끼고 앙감질로 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11. 배

허리를 앞으로 숙인 다음 배에 비석을 끼고 걸어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12. 등

자기 비석을 등에 지고 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13. 팔 : 좌 · 우

왼팔을 굽혀 그 안 쪽에 비석을 끼고 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오른팔을 굽혀 그 안 쪽에 비석을 끼고 가서 상대편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14. 어깨 : 좌 · 우

왼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편 비석이 있는 곳까지 걸어간 다음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오른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상대편 비석이 있는 곳까지 걸어간 다음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15. 목

턱 밑에 비석을 끼고 걸어간 다음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16. 머리

머리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걸어간 다음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편 비석을 쓰러뜨린다.

위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머리'까지 다 하면 '한 판'을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판이 끝난다. 다시 시작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

8) 집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송 기철
인적사항 :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붙알 가이샹'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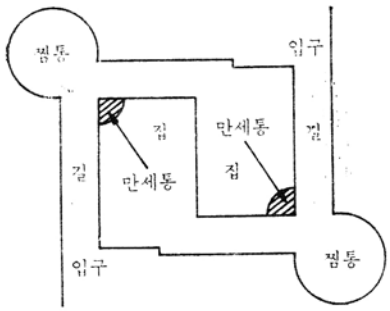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각각 '집'에 들어간다.

◦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상대편 집으로 쳐들어가 상대편을 잦히고 '만세통'을 밟으면 이긴다. 따라서, 자기표을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상대편 집으로 쳐들어가고,



〈그림 77〉

또 한 패는 쳐들어오는 상대편을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찜통 안에서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찜통 안에 있는 사람을 밖에서 잡아당겨 실격시키거나, 찜통 밖에 있는 사람을 찜통 안에서 잡아당겨 실격시킬 수 있다.

◦상대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있는 사람은 입구 쪽에 붙어서 다리를 걸거나 잡아당겨 실격시킬 수 있다.

◦밖이나 길에서 서로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편 집에 있는 만세통을 먼저 밟거나 상대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이긴다.

9) 꽃단지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보자 : 송 기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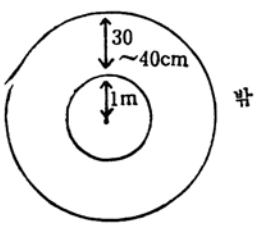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운데 원에, 수비편은 바깥 원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수비편 진영을 뛰어 넘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수비편은 공격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둘레를 돌면서 손으로 친다. 수비자에게 체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78〉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양 발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큰 원과 밖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 〔그림 참조〕원 안에 있는 다리로 땅을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그림 79〉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다시 밖으로 도망갔다가 또 수비자 몰래 찍는다. 이때, 수비자도 앙감질로 밖으로 쫓아나가 공격자를 칠 수 있다. 그러나,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자기 진영인 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꽃단지"하고 외치면 이긴다.

◦공격자는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찍다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꽃단지"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10) 찌름 찍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송 기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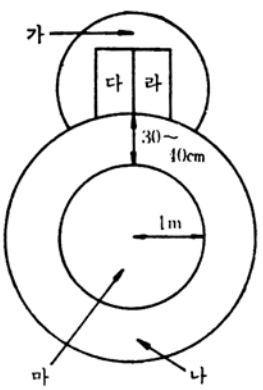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가' 안에, 수비편은 원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다·라' 칸에 "찌름"하면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온다. 이때, 수비편은 치지 않는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수비자 몰래 손이나 발로 원 '나'의 선을 찍으면서 찍은 수를 센다. 〔이것을 '찌름한다'고 한다.〕 이때, 수비편은 찌름하는 공격자를 손으로 쳐서 실격시킬 수 있다.

◦수비자를 피해서 찌름한 수 만큼 앙감질로 원 '가'의 주위를 돌아간다.



〈그림 80〉

◦수비자는 밖으로 나올 수 없으며,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공격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찌름을 해서 그 수 만큼 돌다가, 한 바퀴 돈 다음 "다라"칸에 들어가면 〔이를 "찌름"이라고 한다.〕 이긴다. 따라서, 찌름을 많이 하면 그만큼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빨리 찍으면서 수를 세야 한다.

◦원 '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수비자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찌름하거나 수비편이 모두 실격되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11) 땅 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윤 용범(12세, 남,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 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한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2~3명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병 두껑이나 넓적하고 조그만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그림 81〉

(5) 놀이 방법
◦경계선을 긋지 않고 제각기 직경 30cm 정도의 원을 그려 자기집으로 한다.
◦공격 순서를 정한 다음 시작한다.
◦목자를 자기집에서 한 번 쳐서 밖으로 내보낸 다음 또 한 번 치고 세 번째에 자기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때, 들어오지 못하거나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되서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목자를 치고 나갔다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하고 다시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기땅이 상대편 땅을 감싸면 판이 끝나게 된다. 상대편 땅을 감싼 사람이 이긴다.
◦자기 목자가 상대방 땅에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12) 돌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윤 용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목자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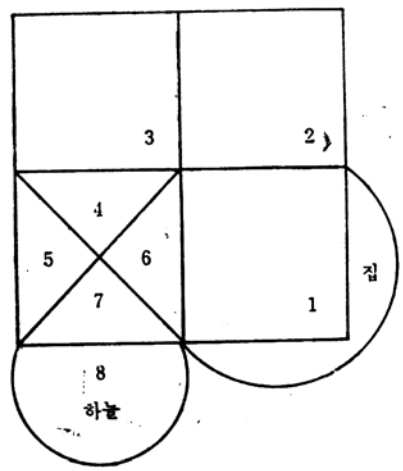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한다. 편을 짤 때는 한 편에 2~3명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가로 9cm, 세로 7cm 정도의 넓적한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 1단

∘ 집에 서서 목자를 1칸에 던지고 모둠발로 들어간 다음,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2칸을 거쳐 3칸으로 보낸다. 3칸에 모둠발로 들어간 다음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하늘'로 보낸다. 그리고, 〈보기〉와 같은 발동작으로 하늘까지 간 다음, 목자를 집어 발 등에 올려 놓고 차서 손으로 잡는다.



〈그림 82〉

보기〉 4칸 ⟶ 5·6칸 ⟶ 7칸
(앙감질) (5칸 : 오른발 / 6칸 : 왼 발) 동시에 (앙감질)

∘ 목자를 손에 들고 역순으로 집까지 되돌아 온다.

〈실격되는 경우〉

∘ 찬 목자가 선에 닿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 놀이자가 선을 밟거나 발 동작이 틀렸을 때

∘ 발 등에 올려 놓고 차서 받을 경우 받지 못할 때

∘ 목자를 쥐고 돌아오다가 떨어뜨렸을 때

◇ 2단

∘ 목자를 2칸에 던져 놓고, 1칸에 모둠발로 간 다음, 2칸으로 앙감질로 가서 〈1단〉처럼 계속한다.

◇ 3단

목자를 3칸에 던져 놓고 〈1단〉처럼 한다.

◇ 4단

목자를 4칸에 던져 놓고 1칸에는 모둠발로, 2·3칸은 앙감질로 거쳐서 4칸까지 간 다음

목자를 차서 하늘로 보낸다. 나머지는 〈1단〉과 같다.

◇ 5단

목자를 5칸에 먼져 놓고 1칸에는 모둠발로, 2·3·4칸을 앙감질로 거쳐 5칸까지 간 다음, 목자를 차서 하늘로 보낸다. 나머지는 〈6단〉과 같다.

◇ 6단

목자를 6칸에 먼져 놓고 1칸에는 모둠발로, 2·3·4·5칸을 앙감질로 거쳐 6칸까지 간 다음 목자를 차서 하늘로 보내고 앙감질로 7칸을 거쳐 하늘로 간다. 나머지는 〈1단〉과 같다.

◇ 7단

목자를 7칸에 먼져 놓고 1칸에는 모둠발로, 2·3·4칸은 앙감질로, 5·6칸은 양 발을 동시에 〔5칸은 오른발, 6칸은 왼발〕, 7칸은 앙감질로 들어가서 목자를 하늘로 보낸다. 나머지는 〈1단〉과 같다.

◇ 하늘단

목자를 하늘칸에 먼져 놓고 1칸은 모둠발, 2·3·4칸은 앙감질로, 5·6칸은 한 발씩 동시에, 7칸은 앙감질로 거쳐 하늘까지 간다. 나머지는〈1단〉과 같다.

위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1단〉부터 〈하늘단〉까지 다 하면 "1년"이 된다. 처음 시작할 때에 "10년 내기"나 "15년 내기"를 하는데, 먼저 하는 편이 이긴다.

13) 깡통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윤 용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초겨울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장소가 있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깡통 1개
(5)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직경 1m정도의 원 안에 깡통을 세워 놓는다.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세 번 멀리 차서 보낸다.
◦술레가 깡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두들 도망가서 숨는다.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만약, 숨은 사람 중 A를 찾으면, 원으로 재빨리 돌아와서 깡통을 밟으면 A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A가 술레보다 먼저 와서 깡통을 차면 실격이 안된다. 이때,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놓고 다시 찾아야 한다.

◦술레가 찾으러 다닌 동안에 숨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깡통을 세 번 차면 실격되었던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실격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찾아 실격시키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실격된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 후에 다시 시작한다.

14) 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윤 용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돼끼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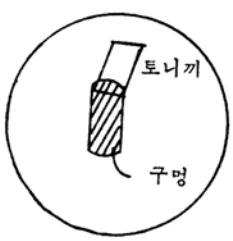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돼끼—10 m정도의 나무토막
돼끼채—40cm정도의 막대



〈그림 83〉 돼끼의 모양

(5) 놀이 방법

◦구멍에 돼끼를 비스듬히 세운 다음 돼끼채로 상단 부분을 쳐서 돼끼가 떠오르게 한다.



〈그림 84〉

◦떠오른 돼끼를 돼끼채로 쳐서 멀리 나가게 한다. 이때 수비자들이 받으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날아가 멀어진 곳으로 가서 돼끼 좌우측을 쳐서 떠오르게 한 다음 돼끼채로 다시 친다. 위와 같이 모두 세 번을 쳐서 구멍과 돼끼와의 거리를 돼끼채로 잰 다음 그 잣수로 점수에 가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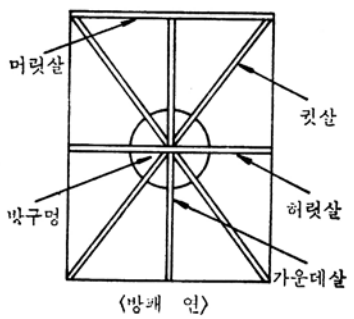
◦3번 쳐서 나간 거리가 10자 이내거나, 구멍과 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세 번 쳐서 거리를 잰 다음 다시 구멍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정한 점수〔보통, 오백 자, 또는 천 자 내기를 한다.〕를 다 따면 이긴다.

15) 연날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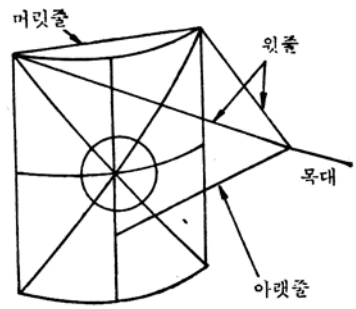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윤 용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겨울, 음력 정월 보름
(2) 노는 장소 :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이나 논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용구 : 연, 얼레
(5) 연의 각 부분 명칭과 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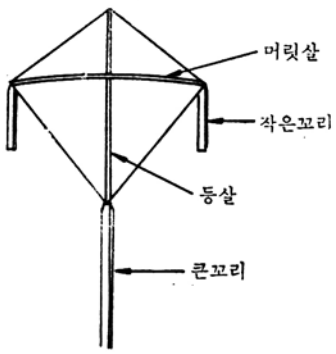


〈방패 연〉

〈그림 85〉 방 패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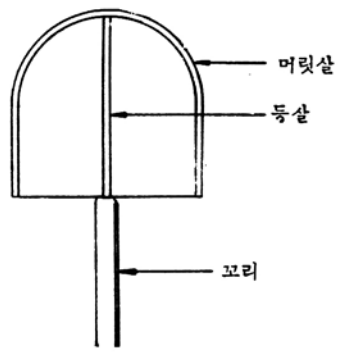


〈그림 86〉



〈가오리 연〉

〈그림 87〉 가오리연



〈꼬리 연〉

〈그림 88〉 꼬리연

(6) 연 날리기

연을 날릴 때의 기본적인 상식을 다음과 같다.

∘ 연은 바람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 바람의 흐름과 풍압에 맞춰 연실을 풀거나 감아야 한다.

◦ 얼레를 튀겨주어야 한다.

◦ 왼쪽, 오른쪽 보내기—연이 곧바로 섰을 때, 통줄을 주면 연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기울여 진다.

◦ 상하로 보내기—통줄을 주어 연이 비스듬하게 될 때, 튀기기를 하면 연은 거꾸로 방향을 바꾼다. 이때, 얼레를 감으면 연은 수직으로 곤두박질한다.

(7) 연 놀이의 종류

가. 높이 띄우기

나. 끊어먹기

연줄을 서로 교차하여 서로 비벼서 끊어먹기를 한다. 이때, 줄에 "사를 멕인다."

다. 날려보내기

대보름날, 연의 몸이나 꼬리에 "送厄迎福" 등의 액막이 글씨를 써서 날려 보낸다. 연줄 중간에 또 한 가닥의 짧은 실을 연결해서 실끝을 배배 틀어 솜뭉치처럼 만든 뒤 거기에 불을 붙여 올리면서 점점 타올라가 연줄이 끊어지면서 연이 날아간다. 또는, 줄을 손으로 끊어서 날려보내기도 한다.

16) 진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 · 송 기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김또리'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양 쪽 진영(보통 기둥이나 나무를 이용한다.)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 자기 진영을 떠나서 상대편 진영을 손으로 치면 이긴다.

◦ 방어할 때, 먼저 나간 사람이 나중 나온 사람에게 채이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된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다. 따라서, 자기편이 늦게 나온 상대편에게 채일려고 할 때, 빨리 나가서 상대방을 쳐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먼저 나온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편 진영을 뺏을 때까지 계속한다.

17) 나이 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송 기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양 편의 놀이자끼리 짝을 지어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여섯 살, 진 사람은 세 살이 된다.

◦양 편은 각각 자기 진영〔보통 기둥이나 나무를 이용한다.〕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자기 진영을 떠나서 상대편 진영을 손으로 치면 자기편 모두가 다섯 살씩 올라간다.

◦여섯 살이 세 살을 칠 수 있으나 세 살이 여섯 살을 칠 수는 없다. 따라서, 세 살이 여섯 살을 치려면 자기편 여섯 살과 손을 잡고〔아홉 살로 간주한다.〕상대편의 여섯 살을 칠 수 있다. 상대를 손으로 치면 채인 사람의 나이만큼 자기 나이가 올라간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18)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문 완국·송 기철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얼음땡'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러 다니고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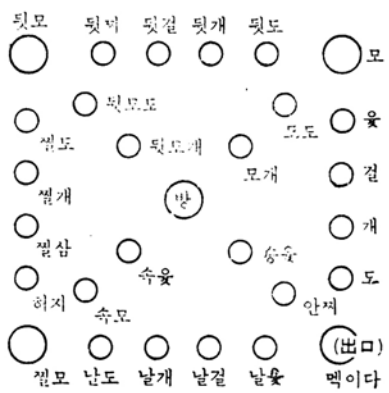
◦술레가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칠 수 없다. 쳐도 상관없으나, "얼음"한 사람은 정지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

◦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면,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된 사람을 "수증기" 하면서 쳐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19) 윷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유 병춘(65세, 남, 국졸)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지곡면 중왕리

(1) 노는 시기 : 설날~대보름
(2) 노는 장소 : 양지바른 마당이나 안방
(3) 놀이자 : 장윷—남자
쪽윷—여자
(4) 놀이 용구 : 윷과 윷판
장윷—길이 15~20cm, 직경 3~5cm 정도의 밤나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만든다.
쪽윷—길이 2cm, 직경 2cm 정도의 밤나무를 두 쪽으로 나누어 만든다. 또는, 콩을 두 쪽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도 한다.
(5) 놀이 방법
◦ 윷을 던져 나온 결과대로 말을 이동한다. 말을 각각 네 개를 사용한다.
1. 한 개가 잦혀질 때 : 도→한 칸
2. 두 개가 잦혀질 때 : 개→두 칸
3. 세 개가 잦혀질 때 : 걸→세 칸
4. 네 개가 잦혀질 때 : 윷→네 칸
5. 네 개가 엎어질 때 : 모→다섯 칸



〈그림 89〉 말판의 명칭

◦ 도일 때 한 발, 개일 때 두 발, 걸일 때 세 발, 윷일 때 네 발, 모일 때 다섯 발을 간다. 윷이나 모가 나오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 윷말 한 마리를 '한동', 두 마리를 '두동', 세 마리를 '석동', 네 마리를 '넉동'이라 부른다. 놀이자의 의도에 따라서 한동으로 가거나 두동·석동·넉동 등으로 갈 수 있다.
◦ 어느 한 편에서 먼저 말 네 개가 말판을 돌아 시발점이자 최종점인 '멕이다'를 빠져 나오면 이긴다.
◦ 앞서 가는 상대 말을 잡을 수 있다. 상대 말을 잡으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다.

20) 농 악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유 병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정월 보름·추석·모심기와 김매기 할 때

(2) 노는 장소 : 마을 빈 터와 가가호호, 논두렁.

(3) 농악대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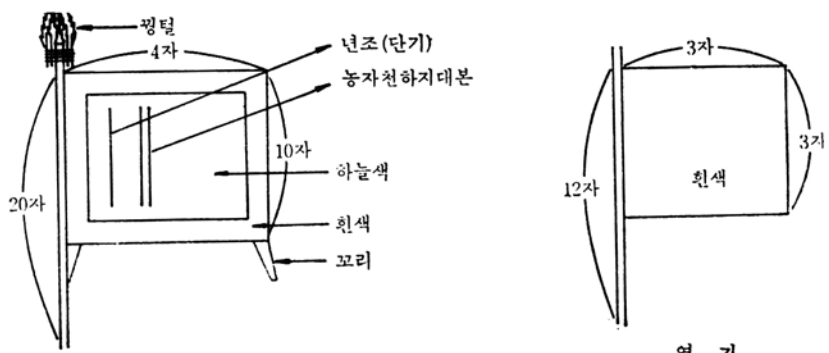
영기가 앞장을 서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인 용대기가 뒤따른다. 이어서 가락을 맡은 새납 1명과 농악대의 지휘자인 상쇠가 따르는데, 상쇠는 악대의 변화 및 악곡을 지휘한다. 상쇠 뒤에 부쇠가 따르고, 징수(1명)·북수(1명)·장구잽이(2~3명)·벅구잽이(5명)·돌무잽이(2명)·꽃무동(2명)이 뒤따른다.

농악대에 사용되는 악기는 새납·장구·징·북·꽹과리·벅구(소고) 등이다. 벅구에는 자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돌무잽이는 자루없는 벅구를 들고, 벅구잽이는 자루있는 벅구를 든다.

용대기는 20자 정도의 대나무에 가로 4자 세로 10자 정도의 흰 색 깃발을 단다. 용대기 꼭대기에는 꿩털을 매달고, 깃발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을 종서로 쓰고 기를 만든 年條를 좌측에 종서로 쓴다. 하단 양 쪽에는 삼각형 꼬리를 매단다.

영기는 12자 정도의 대나무에 가로 세로 3자의 흰 색 깃발을 매단다.

농악에 쓰이는 장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굿거리 장단과 자진 가락 장단이 가장 많이 쓰이며, 진장단·꺾어돌리는 장단·나가는 장단·들어오는 장단 등이 사용된다.



〈그림 90〉

농악 진법으로는 인사굿 진법을 비롯하여, 돌림벅구 진법·겹돌림벅구 진법·당산벌림

진법·벅구놀림 진법·오방감기 진법·오방풀기 진법·무동놀림 진법·사통백이 진법 등이 있다.

21) 쥐불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유 병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정월 열나흘날 저녁
(2) 노는 장소 : 논두렁
(3) 놀이자 : 남자(15세 안팎)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한 편은 불을 붙여나가고, 다른 한 편은 꺼 나가는 놀이이다. 대빗자루나 싸리빗자루에 붙여 가지고 다니면서 논두렁의 마른 풀잎에 불을 대면 끄는 편은 빗자루나 솔가지로 쳐서 꺼야 된다. 이때, 불 붙이는 편이 새 불을 대기도 전에 끄는 편이 먼저 꺼버리면, 끄는 편이 이긴다. 그러나, 붙이는 편이 더 빨리 불을 붙이면 잘 끌 수 없기 때문에 붙이는 편이 이긴다.

8. 大山面 獨串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농 악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강 봉환(72세, 남, 한학)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 노는 시기 : 정월 보름·이월 초하루·칠월 칠석·추석
(2) 농악대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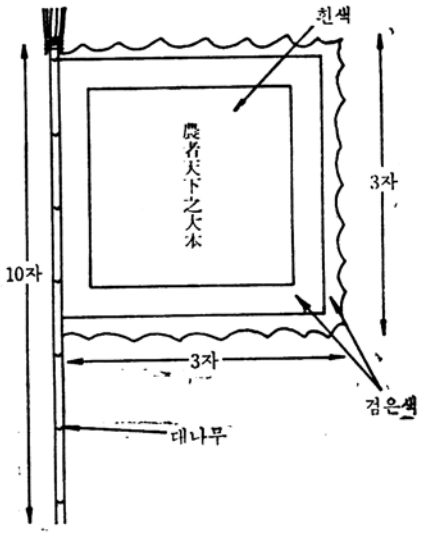
영기가 앞장을 서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인 용대기가 뒤따른다. 이어서 새납쟁이(1명)와 농악대의 지휘자인 상쇠가 따르는데, 상쇠는 꽹과리로 악대의 변화 및 악곡을 지휘한다. 상쇠 뒤에 부쇠가 따르고, 장고잽이(1명)·북수(1명)·징수(1명)·버꾸잽이(8명)가 뒤따른다.

농악대에 사용되는 악기는 새납 1·꽹과리 2·북 1·장고 1·징 1·새납 1·버꾸 8 등이다.

용대기는 10자 정도의 대나무에 가로 세로 3자의 검은 색 깃발을 단다. 깃발 가장자리에 검은 색 천을 갈기로 달며, 용대기 꼭대기에는 꿩털을 한 움큼 매단다. 깃발 가운데는 흰색 천으로 대고 그 위에 "農者天下之大本"의 글자를 종서로 쓴다.

농악에 쓰이는 장단으로는 질쳅이 장단·외상모 장단·굿거리 장단·세마치 장단 및 돌무칠 때 쓰이는 양산모 장단 등이 있다.

농악 진법으로는 돌림버꾸 진법을 비롯하여 오방감기 진법·오방풀기 진법·사통백이 진법·버꾸놀림 진법 등이 쓰인다.



〈그림 91〉 용대기

2) 씨 름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강 봉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오월 단오·팔월 추석날

(2) 노는 장소 : 모래땅, 주로 모래가 많았던 '뒷장발'〔地名〕에서 많이 했다.

(3) 놀이자 : 남자 학동과 초동 대표 다섯 명씩

(4) 놀이 방법

◦양 편 5명씩 순서를 정한 다음 한 명씩 차례로 한다.

◦웃옷을 벗고 개알〔혁대〕을 잡은 다음 다리를 걸거나 밀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이긴다. 삼판이승으로 한다.

◦진 사람은 물러가고 대신 자기편 중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긴 사람과 겨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상대편을 다 물리치면 이긴다.

◦씨름의 기술은 공격 기술인 '메치기'와 방어 기술인 '되치기'로 크게 나눌 수 있다.

3) 깡통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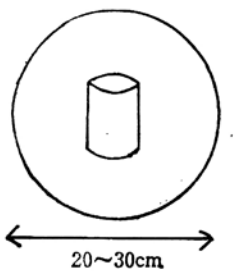
제 보 자 : 김 만호(14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장소가 있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그림 92〉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세 번 멀리 차서 보낸다.
◦술레가 깡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두들 도망가서 숨는다.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만약, 숨은 사람 중 A를 찾으면 찾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나와"하고 외치면, A는 실격이 된다.
◦술레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깡통을 차주면 실격되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된다.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다시 찾으로 다닌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찾으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실격된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 후 다시 시작한다.

4) 요술 공주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만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부라가십'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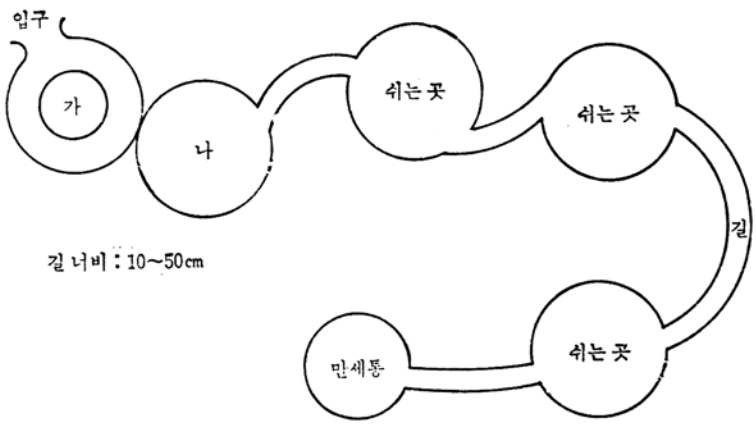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가'에, 수비편을 원 '나'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수비편을 젖히고 수비 진영을 지나 길을 따라서 만세통에 가서 만세통을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밀거나 당겨서 실격시킨다. 수비편에 의해 밖으로



〈그림 93〉

나가거나 넘어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원 '나'에 있는 수비편은 공격자를 쫓아가면서 막을 수 있고, 원 '가'를 지나 입구로 나가서 밖에서 방어할 수 있다. 밖에서는 길을 건너 뛰면서 공격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공격자는 수비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수비자는 공격자를 젖히고 나가야 한다.
- 쉬는 곳에서도 서로 밀거나 잡아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 공격자도 밖으로 나가서 수비자와 싸울 수 있다.
- '나'에 들어간 공격자는 후퇴할 수 없으나, 다른 곳에서는 무방하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자가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만세통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5) 네거리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만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네거리'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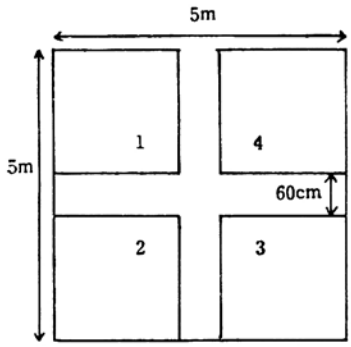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목자 1개(적당한 크기의 돌)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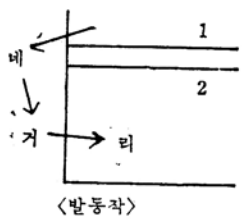
〈그림 94〉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네 개의 사각형 중의 한 곳에, 수비편은 '네 거리' 안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들어간 사각형부터 시계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1~4의 순서를 몰래 정한다. 그러나, 한 번 정한 순서는 바꿀 수 없다.

◦공격자는 목자를 2에 던져 놓고 직접 2로 건너가거나,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2로 간다. 이때, 공격자는"네—거—리"하면서 간다. "네"에 왼발, "거"에 오른발, "리"에 왼발로 2에 들어가야 한다. 또는, "네"에 오른발, "거"에 왼발, "리"에 오른발로 해도 된다. (그림 95참조)



〈발동작〉

〈그림 95〉 발동작

◦수비편은 공격편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격편을 손으로 친다.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손에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다음 칸으로 던진 목자를 받으면 던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2에서 3으로 갈 때는 목자가 나중에 가도 된다. 따라서, 사람이 먼저 가서 던진 목자를 받아 다음 칸으로 빨리 보낼 수 있다.

◦던진 목자가 선 위에 떨어지거나 밖으로 나가면 던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이때, 다른 공격자를 목자를 받아 실격된 칸부터 다시 한다.

◦공격편과 수비편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자를 가지고 한 바퀴 돌면 이긴다. 반대로,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6) 진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만호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점또리'로 불리며, 겨울철에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각자

진영으로 원을 그려놓고 하기도 한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양 편이 각각 자기 진영에 손을 대고 서 있는다. 진영으로는 보통 나무나 기둥을 이용한다.

◦시작과 함께 "찜"하면서 자기 진영을 떠나 상대편 진영에 손을 대면서 만세를 부르면 이긴다.

◦방어할 때, 늦게 나온 사람이 일찍 나온 사람을 치면, 채인 사람은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된 사람은 상대편 진영 옆에 그려 놓은 원 안에 가서 서 있는다. 따라서, 자기편이 늦게 나온 상대편에게 채일려고 할 때 빨리 나가서 상대방을 쳐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자기편보다 먼저 나온 사람이 되기 때문에 칠 권리가 없다.

◦실격이 되서 상대편 진영의 원에 있는 사람을 자기편이 쳐주면 다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편 진영을 뺏을 때까지 계속한다.

7)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14세, 남, 국민학교 6학년)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가십'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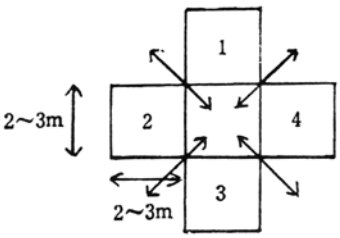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사각형 1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외곽 사각형을 지나면서 세 바퀴 돌면 이긴다.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그림의 화살표 방향〕공격자가 돌지 못하도록 수비를 한다.



〈그림 96〉

◦공격자가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수비자는 끌어내거나 당겨서 선을 밟게 하거나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은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자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왔다 갔다 할 때 공격자는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은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는 도는 방향을 바꾸거나 지나친 칸으로 후퇴할 수 없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한 바퀴를 돌지 못하면 지게 된다. 그러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세 바퀴를 돌면 이기게 된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8) 비석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비석치기'로도 불리고, '목자치기'로도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1 : 1로 하기도 하고, 편을 갈라 하기도 한다. 편을 짤 때는 한 편에 2~4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세울 수 있는 돌(가로 7cm, 세로 9cm), 이것을 '비석'이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순서를 정한다.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비석을 일정한 선 위에 세운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놀이를 진행한다.

◇ 던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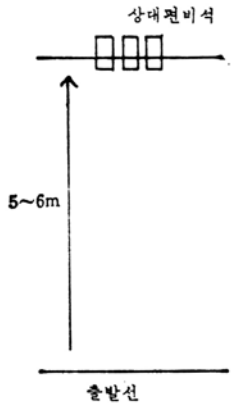
출발선에서 자기 비석을 던져 상대 비석을 맞춰 쓰러뜨린다.

◇ 한 발짝

출발선에서 한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어 그 자리에 서서 던져 상대방 비석을 맞춰 쓰러뜨린다.

◇ 두 발짝

출발선에서 두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뛰어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어 그 자리에 서서 상대방 비석을 맞춰 쓰러뜨린다. 이때, 비석을 밟지 못하거나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그림 97〉

◇ 세 발짝

출발선에서 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세 걸음 뛰어가서 비석을 밟는다. 비석을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방 목자를 쓰러뜨린다. 이때, 자기 비석과 상대방 비석이 겹치거나 맞고 쓰러지지 않으면 이를 "전기"라 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 네 발짝

출발선에서 네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비석을 던져 놓고 앙감질로 네 걸음으로 뛰어서 비석 가까이에 간다. 그리고, 비석을 발로 차서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이때, 비석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오른발 등

오른발 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걸어가서 자기 비석을 던져 상대방 비석을 맞추어 쓰러뜨린다.

◇ 왼발 등

왼발 등 위에 비석을 올려 놓고 걸어가서 자기 비석을 던져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걸어가다 비석을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 배

허리를 뒤로 젖히고 배 위에 비석을 올려놓은 다음 걸어가서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가슴

가슴 위에 비석을 올려놓은 다음 걸어가서 자기 비석을 떨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놓고 간 다음 자기 비석을 멀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왼쪽 어깨

왼쪽 어깨 위에 비석을 올려놓고 간 다음 자기 비석을 멀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 머리

머리 위에 비석을 올려놓고 간 다음 자기 비석을 멀어뜨려 상대방 비석을 쓰러뜨린다.

상대편 비석이 여러 개일지라도 그 중 한 개만 쓰러뜨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따라서, 앞 사람이 실격되더라도 뒷 사람이 성공하면 실격된 사람도 다음 차례에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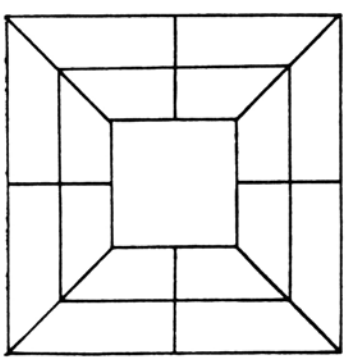
위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머리'까지 하면 이긴다.

9) 고 누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대청 마루
(3) 놀이자 : 남자 2명
(4) 놀이 용구 : 말판과 말
(5) 놀이 방법

가. 고니



〈그림 98〉 고니

이 놀이는 〈곤질고누·참고누〉로 불리는 것으로서, 조사 마을에서는 그냥 '고니'로 불린다.

◇ 말 놓기

◦ 양 편 모두 12개의 말을 갖고 시작한다.

◦ 번갈아서 말 하나씩을 말 판 위에 놓는다.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되면 상대편 말 중에서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집어낸다. 따라서, 상대의 말이 두 개가 되면 우선 그 자리에 자기 말을 놓아서 막아야 한다.

◦ 말을 떼어낸 곳에는 말을 놓을 수 없다. 말을 따낸 곳에 표시를 해둔다.

◦이런 방법으로 12개의 말을 모두 놓으면 움직이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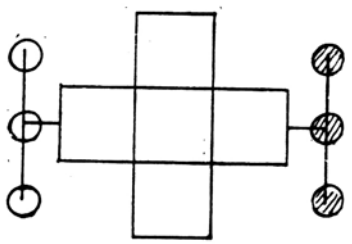
◇ 움직이기

◦교대로 말을 한 칸씩 움직여서 세 개의 말을 일렬로 만든다.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면 상대편의 말 중 하나를 골라 집어 낸다. 이때,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하도록 말을 골라서 따낸다.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놓일 때, 이를 '고니'라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이 고니가 안되도록 끼워 넣어 방해한다.

◦교대로 말을 움직이면서 계속하다가 어느 한 쪽에 말이 두 개만 남으면 판이 끝난다. 두 개만 남은 사람이 지게 된다.

나. 동서남북 고니

◦말판의 횡선에 말을 세 개씩 각각 놓는다. 또는, 한 곳에 세 개를 함께 놓을 수도 있다. 이때, 세 개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한 개씩 움직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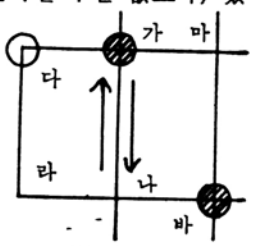


〈그림 99〉

◦교대로 말을 세 칸씩 움직이는데, 자기 자리부터 "동서남북"을 세면서 간다. 그리고, '북'에 해당하는 교차점에 자기 말을 놓는다. 이때, '북'에 해당하는 교차점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잡아낸다.

◦계속 세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을 모두 잡으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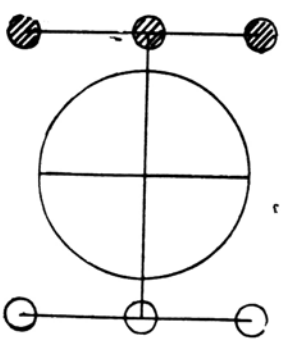
◦자기 진영이나 상대방 진영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남북"할 수 있다. (그림 참조)



〈그림 100〉

◦혹 '가'가 교차점 '나'로 가고자 할 때 상대방 말이나 자기 말을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가다라나'의 길이나 '가마바나'의 길로도 갈 수 없다. 그러나, 이때에는 '가나가나'의 길〔가:동, 나;서, 가:남, 나:북〕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한다.

다. 접시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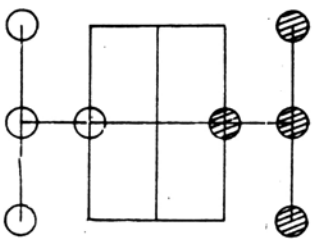
〈그림 101〉 접시고니

◦말판의 횡선에 세 개씩 말을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이동한다.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진로를 차단시키면 이긴다.

◦자기집으로 후퇴할 수 없다.

라. 사발고니



〈그림 102〉 사발고니

◦말을 4개씩 놓고 하되, 하는 방법은 '접시고니'와 같다.

10) 대한말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가 아닌 사람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뛰어넘는 순서를 정한다.

◦술레는 원〔직경 40cm정도〕 속에 들어가서 발목을 잡고 엎드리면, 1번부터 "대한말"하면서 술레의 등을 짚고 넘는다. 이때, 넘지 못한 사람은 술레가 되고 술레가 넘어지면 다시 한다.

◦1번이 술레를 뛰어 넘으면서 〈보기〉 중 하나를 외치면, 나머지 사람도 그대로 행동을 따라서 한다. 이때, 1번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지 못하면 술레가 된다.

〈보기〉	· 떼리고 넘기	· 주먹쥐고 넘기	· 독수리 발톱
	· 꼬집고 넘기	· 아리랑 고개	· 동서남북
	· 축구 야구 배구	· 풀 뜯기	

◇ 떼리고 넘기

1번이 넘으면서 술레의 몸을 때린다. 이때, 1번은 "떼리고 넘기"라고 크게 외친다. 나머지 사람도 따라 한다.

◇ 주먹쥐고 넘기

주먹을 쥔 다음 술레의 등을 짚고 넘는다.

◇ 독수리 발톱

손가락을 세워 술레의 등을 짚고 넘는다.

◇ 꼬집고 넘기

술레의 몸을 꼬집고 넘는다.

◇ 아리랑 고개

1번이 술레의 등을 넘은 후 술레처럼 등을 구부리고 선다. 2번은 술레와 1번 등을 넘은 후 발목을 잡고 구부린 다음 선다. 나머지 사람도 1·2번과 같이 한다. 맨마지막 사람이 술레의 등을 넘은 다음 1번·2번·3번…… 순서로 등을 짚고 간다. 이때, 맨마지막 사람이 술레의 등을 짚고 가자마자 술레도 1번·2번…… 순서로 등을 짚고 넘어서 마지막 사람을 쫓아가서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치이면 마지막 사람이 술레가 된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모두 넘으면 칠 수 없고 술레가 계속 술레 역할을 해야 한다.

◇ 동서남북

술레를 넘은 다음 모둠발로 착지하면서 "동"하고 "서"하면서 또 한번 뛴다. 그리고 "남"하면서 모둠발로 뛴 다음, "북"하면서 자기 엉덩이로 술레의 엉덩이를 쳐서 움직이게 한다. 이때, 술레를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술레가 된다. 따라서, "동서남북"하면서 움직일 때 술레의 엉덩이를 잘 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 축구 야구 배구

술레를 넘은 다음 손을 리시브하는 모양으로 잡고 술레를 친 다음〔배구〕 두 손을 깍지끼고 술레의 엉덩이를 쳐서 움직이게 한다. 〔야구〕 그리고, 발로 술레의 몸을 차서 움직이게 한다. 〔축구〕 이를 순서대로 하는데, 술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술레가 된다. 특히, '축구'일 때 술레를 원 밖으로 나가도록 못하면 그 사람이 술레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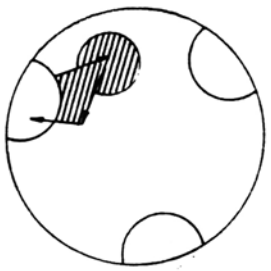
◇ 풀 뜯기

1번이 술레의 등을 "풀뜯기"하면서, 넘은 후 풀 있는 곳으로 달려가면, 다른 사람은 넘지 않고 1번처럼 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풀을 뜯는다. 풀을 뜯은 다음 모여서 1번 것과 비교한다. 풀 종류나 수가 1번과 다른 사람은 술레가 된다. 틀린 사람이 많을 경우, "가위바위 보"를 해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11) 땅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그늘진 시원한 곳
(3) 놀이자 : 남자 2~3명
(4) 놀이 용구 : 목자 1개씩(넓적하고 작은 돌이나 병 마개)



〈그림 103〉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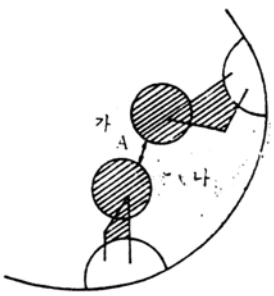
◦원주 한 곳을 원심으로 삼아 한 뼘 정도의 원을 그려 자기 진영으로 삼는다.

◦자기 진영에서 목자를 치고 나갔다가 또 한 번 친 다음 세 번째에 자기 진영으로 들어온다.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넘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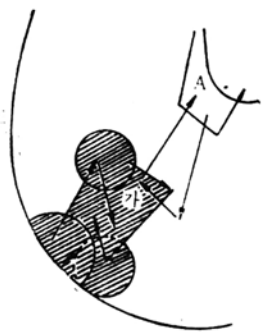
◦목자를 치고 나갔다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한 다음, 자기 땅 모서리를 원심으로 해서 한 뼘 길이의 원을 그려 자기 땅으로 한다.

◦계속해서 땅을 늘여나가다가 자기 진영과 상대방 진영 사이의 거리가 한 뼘이 되면(그림 1의 A부분) '가·나' 부분 중 '가'부분을 차지한다.

◦자기 목자가 상대방 진영까지 갔다가 돌아오면(그림 2의 목자 A참조)모서리 '가'에서 한 뼘 길이로 원을 그려 상대방 진영의 땅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대방 진영을 다 뺏을 수 있으며, 땅을 모두 빼앗긴 사람은 실격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끼리 계속한다.



〈그림 104〉



〈그림 10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12)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6일
제 보 자 : 김 성수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장애물이 없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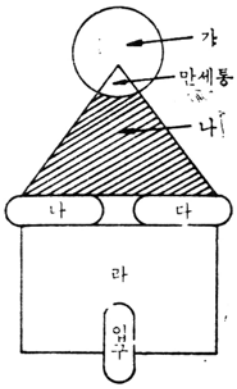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안에, 수비편은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가'에서 앙감질로 나온 공격자는 '다'를 뛰어 넘은 후 양 발로 입구로 간다.



〈그림 105〉

◦입구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 '나'로 들어가 수비자를 젖히고 만세통을 밟으면서 "만세"하면 이긴다.

◦수비편은 '나·라'안에서 방어하거나,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입구로 나오거나 '다'로 나와야 하며, 앙감질해야 한다.

◦'다'부분을 넘고 있는 공격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도 수비자를 밀거나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편 중 '다'를 넘지 못한 공격자는 입구까지만 들어갈 수 있으나 '라'부분은 들어갈 수 없다.

◦앙감질일 때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가'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게 끌려 밖으로 나오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갔을 때도 실격이 된다.

◦'가'안에 있는 공격자가 만세통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만세통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9. 浮石面 倉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13세, 남, 국민학교 6학년)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창리 293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경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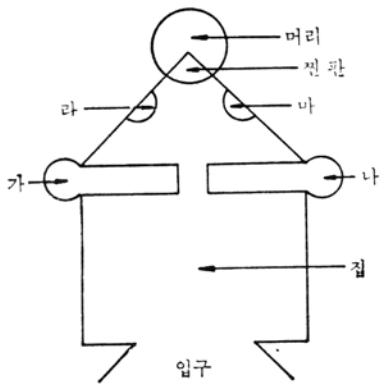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머리'에, 수비편은 '집'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07〉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다니다가 가에서 나로, 또는 나에서 다로 건너뛰면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라와 마를 밟고 쉴 수 있다.

◦가·나를 건넌 공격자는 입구로 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전판을 밟으면서 "땅"이라고 외치면 이긴다.

◦수비편은 '집'안에서 방어하거나, '집'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입구'로 나와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그러나, 라와 마를 건너 뛰면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라와 다, 가와나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이 된다.

1. 선을 밟았을 때, 단 가와 나의 선을 밟아도 무방하다.
2. 넘어졌을 때
3. 앙감질일 경우 양 발이 땅에 닿았을 때
4.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밖에서 양 편이 서로 만나 싸울 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집'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실격이 된다.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게 끌려 나오면 실격이 된다. 반대로 수비편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전판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집'안에서 양편이 싸우다가 수비편이 넘어져도 무방하나, 공격편이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또, 선을 밟거나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은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전판을 밟고 '땅'을 외치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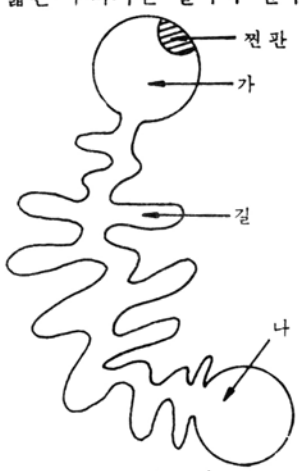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2) 요술 공주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줄기 귀신'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가' 안에 들어가고, 수비편은 밖에 선다.
∘공격편은 원 '가'에서 길을 따라 원 '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찐판"을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수비를 한다. 공격자를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선을 밟게 하면〔이때, 선을 밟은 발이 반 이상 넘어야 한다.〕 실격이 된다.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어들여 실격시킬 수 있다. 공격자에 의해 넘어지거나 선을 반 이상 밟은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108〉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원 '나'까지 갔다가 와서 찐판을 밟으면 이긴다. 이때, 출발하지 않은 공격편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찐판을 밟을 수 없다. 만약, 찐판을 밟게되면 무조건 지게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찐판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팔자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팥자 경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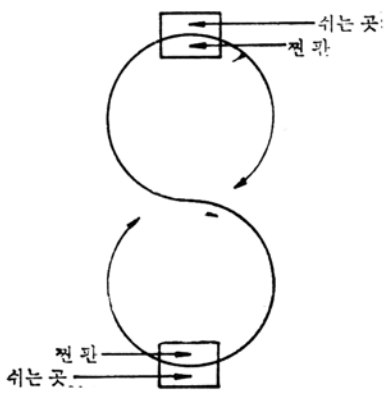
◦편을 갈라, 양 편 집에 각각 들어간다.

◦양 편 모두 상대편 집으로 쳐들어가서 찐판을 밟으면 이긴다.

◦집을 나서면 앙감질로 가야 한다. 쉬는 곳에 다리 한 쪽을 놓고 쉴 수 있다. 선을 밟아도 무방하다.

◦앙감질로 다니거나 쉬고 있을 때 잡아당겨서 넘어뜨리거나 선을 밟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집안에 있는 양 편이 서로 잡아당겨 상대방을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상대방 집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선은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그림 109〉

◦자기 집 안에 있는 찐판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자기 집에서 넘어져도 무방하나, 남의 집에서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상대편 집에서는 두 발로 다닐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상대편 집의 찐판을 밟으면 이긴다.

4) 십자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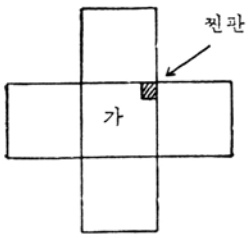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 경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10〉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운데 사각형 '가'에 들어가고 수비편은 밖에 선다.
◦공격편은 공격하기 전에 도는 방향을 정한다.
◦공격편은 사각형 '가'에서 외곽 사각형 중 한 곳에 나온 후 정해진 방향으로 외곽 사각형을 밟고 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바퀴를 돈 다음 사각형 '가'에 들어가 찐판을 밟으면서 "땅"하면 이긴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돌지 못하도록 끌어당겨 넘어뜨리거나, 밖으로 두 발로 나오거나, '가'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실격시킨다. 이때, 밖으로 끌려 나온 공격자가 앙감질을 하면 실격이 안된다. 따라서, 수비자는 계속해서 앙감질한 공격자를 넘어뜨리거나 두 발을 땅에 닿도록 해서 실격시킨다.
◦공격편도 수비편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거나 사각형 안으로 끌어 들여 실격시킬 수 있다.
◦수비자는 사각형 '가'에 들어갈 수 없으나, '가' 안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서 공격자를 공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격편은 수비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것이 좋다. 그런데, 다섯 바퀴를 돈 공격자가 찐판을 밟을 때, '가' 안에 공격편이 있으면 무조건 지게 된다.
◦공격자는 지나친 칸을 되돌아갈 수도 없으며, 방향을 바꿀 수도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다섯 바퀴 돈 후 찐판을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5) 꽃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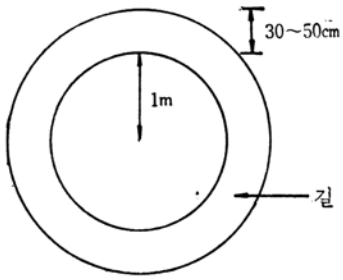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열 점 찍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작은 원 안에, 수비편은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의 '길'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11〉

◦공격편은 '길'을 뛰어 넘어 밖으로 나왔다가 두 발로 다니면서 수비자 몰래 큰 원을 다리 사이에 넣고〔그림 참조〕 두 발을 동시에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길을 따라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또는, 한 발을 길에 놓고 다른 발은 밖으로 내놓고 공격자를 막을 수 있다. 공격자를 쫓아 밖으로 나갈 때는 앙감질로 나가야 한다. 이때,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그림 112〉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밖으로 도망가서 다니다가, 다시 수비편 몰래 찍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자기 진영인 작은 원에 들어가면 이긴다.

◦공격자는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는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찍다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자나 공격자가 선을 밟거나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이 열 번을 찍고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6)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얼음땡 불땡'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사시사철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 술레〔이를 '오니'라 한다.〕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는 술레 아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챈다. 채인 사람은 곧 술레가 된다.
◦ 술레가 채려고 할 때, "얼음땡" 하고 외치면 채도 상관없으나 "얼음땡" 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정지된 동작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이 술레를 피해서 "얼음땡" 한 사람을 쳐주면서 "불땡"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되, 술레 이외의 다른 사람 모두가 "얼음땡"이 되면, 그 사람 중에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 다음 다시 시작한다.

7) 병신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4) 놀이 방법
◦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는 술레 아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챈다. 술레가 아닌 사람이 술레의 몸〔눈과 무릎 아래는 제외〕을 치면 술레는 채인 곳을 손으로 잡고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손으로 챈다.
◦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 술레가 되는데, 술레에게 채인 곳을 손으로 잡고 다녀야 한다

8) 술레잡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삽폔 찾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밤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진 편은 술레가 되고, 이긴 편은 숨는 범위를 되도록이면 넓게 정한다.

◦술레는 이긴 편이 숨을 동안 눈을 감고 서 있다가 이긴 편의 주장이 다 숨고 난 후 "시작"하고 소리치면 찾으러 다닌다.

◦술레편이 이긴 편 중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찾았다" 하고 소리친다. 그리고, 다 찾을 필요없이 다시 시작한다.

9) 돌차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희(15세, 여자, 중학교 2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부석면 창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목자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할 때에는 한 편에 2~3명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네모지거나 동그랗고 넓적한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가. 1단

• '집'에서 목자를 '1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차서 '2칸'으로 보낸다. 앙감질로 '2칸'에 가서 목자를 '3칸'으로 차 보낸다. 이런 식으로 '7칸'까지 가서 모둠발로 쉰 다음, 다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눈~임금칸"에 넣는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목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

7칸에서 목자를 집어들고 눈을 감은 상태로 앙감질로 집까지 돌아온다.

◇ 목자가 토끼에 들어갔을 때

'눈'칸으로 모둠발로 들어가서 목자를 집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고 한 칸씩 뛰어서 집까지 돌아온다. 이때, 목자를 떨어뜨리거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목자가 거북이에 들어갔을 때

'토끼'칸으로 모둠발로 들어가서 목자를 집어 무릎 뒤 쪽에 끼고 앙감질로 한 칸씩 뛰어서 집까지 돌아온다.

◇ 목자가 원숭이에 들어갔을 때

'거북이칸'까지 모둠발로 들어가서 목자를 집고 두 발 사이에 끼운 다음 모둠발로 한 칸씩 뛰어 집까지 돌아온다.

◇ 목자가 임금에 들어갔을 때

'원숭이칸'까지 모둠발로 들어가서 목자를 집은 다음 입을 다물고 걸어서 집까지 돌아온다. 이때, 상대편은 말이나 동작으로 웃겨서 이빨을 보이게 해야 한다. 이빨을 보이면 실격이 된다.

나. 2단

목자를 '2칸'에 던져 놓고 〈1단〉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다. 3단~7단

해당 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1단〉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라. '눈'단

눈에 목자를 던져 놓고 7칸까지 간 다음 〈1단〉과 같은 방법으로 하되, "목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처럼 똑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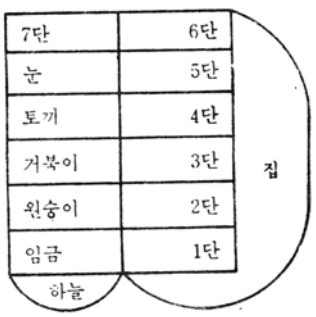
마. '토끼' 단~'임금'단

해당 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해당 칸의 전 칸까지 간 다음 〈1단〉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바. '하늘'단

'하늘'칸에 목자를 던져 놓고 앙감질로 '하늘'칸까지 간다음 목자를 집어 발 등에 얹어 놓는다. 발로 목자를 띄워서 손으로 잡은 다음 앙감질로 집까지 돌아온다.

'하늘'단까지 먼저 하는 편이 이긴다. 자기편 중 한 사람이 틀렸을 경우 남은 자기편이 대신 몫을 해주면 실격이 되지 않으나, 몫을 하다가 실격이 되면 상대편에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림 113〉

2칸에서 3칸으로 목자를 차 보낼 때, 3칸으로 가지 않고 4칸으로 가도 무방하나 3칸을 뛰어 넘어 직접 4칸으로 가야 한다.

10) 대한말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5~6명 정도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 아닌 사람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

◦술레는 원 속에 들어가서 발목을 잡고 엎드린다.

◦1번이 술레를 뛰어 넘으면서 〈보기〉 중 하나를 외치면서 행동을 하면 나머지 사람도 그대로 행동을 따라 한다. 이때, 술레가 넘어지면 다시 한다.

〈보기〉

◦꼬집고 넘기	◦까시 넘기
◦한 대 때리고 넘기	◦배구, 야구, 축구
◦망원경 보기	◦임금님 깜밥 튀기기
◦소풍가기	◦만지고 오기
◦갔다 오기	◦만지기
◦만지고 넘기	◦동서남북

◇ 꼬집고 넘기

1번이 넘으면서 술레의 몸을 꼬집는다. 나머지 사람도 따라 한다.

◇ 까시 넘기

손가락을 세워 술레의 등을 짚고 넘는다.

◇ 배구, 야구, 축구

술레를 넘은 다음 손을 리시브하는 모양으로 잡고 술레를 친 다음〔배구〕 두 손을 깍지 끼고 술레의 엉덩이를 쳐서 움직이게 한다. 〔야구〕 그리고, 발로 술레의 몸을 차서 움직이게 한다. 〔축구〕 이를 순서대로 하는데 술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술레가 된다.

◇ 임금님 깜밥 튀기기

술레를 넘은 뒤에 주먹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와룽와룽" 외치다가 술레의 엉덩이를 치면서 "뽕"한다. 이때, 술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친 사람이 술레가 된다.

◇ 소풍가기

술레를 넘은 1번이 사방 어느 곳이든지 뛰어가서 풀이나 나뭇잎을 뜯으면 나머지 사람은 술레를 넘지 않고 풀이나 나뭇잎 있는 곳으로 뛰어 가서 풀을 뜯는다. 풀을 뜯은 다음 모여서 1번 것과 비교해서 풀 종류나 수가 다른 사람은 술레가 된다. 틀린 사람이 많을 경우 '가위 바위 보'로 술레 한 명을 정한다.

◇ 만지고 오기

1번이 술레를 넘으면서 "○○만지고 오기" 하면 다른 사람은 넘지 않고 곧바로 지명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갔다가 만진 후 술레가 있는 원 안에 들어온다. 이때, 술레는 1번이 넘으면 일어나서 원 밖으로 나가거나 원 안에서 원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쓰러뜨린다. 쓰러진 사람은 술레가 된다.

◇ 갔다 오기

'만지고 오기'처럼 하되, 뛰어 갔다 돌아온다.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술레가 된다.

◇ 만지기

1번이 술레를 넘으면서 "○○만지기" 하고 외치면, 다른 사람은 넘지 않고 지명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뛰어 가서 만져야 된다. 술레는 1번이 넘으면 곧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지명한 물건을 만지기 전에 손으로 챈다. 이때, 채인 사람은 술레가 된다.

◇ 만지고 넘기

1번이 넘으면서 "○○ 만지고 넘기" 하면 다른 사람도 1번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이때, 틀린 사람은 술레가 된다.

◇ 동서남북

술레를 넘은 다음 "동"하면서 모둠발로 뛰고, "서"하면서 또 한 번 뛴다. 그리고, "남" 하면서 모둠발로 뛴 다음 "북"하면서 자기 엉덩이로 술레 엉덩이를 쳐서 움직이게 한다. 이때 술레를 움직이지 못한 사람은 술레가 된다. 따라서, "동서남북" 하면서 움직일 때 술레의 엉덩이를 잘 칠 수 있는 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11) 뒷목자 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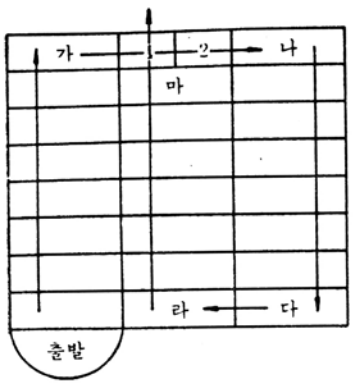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2명씩 편을 짜서 한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작은 돌 1개. 이를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 목자를 들고 앙감질로 ↑표의 '가'칸까지 간다.
- '가'에서 '1·2칸'을 뛰어 넘은 후 '나'에서 ↓표의 '다'칸까지 간다.
- '다'에서 앙감질로 '라'를 거쳐 '마'칸까지 간 다음 '1·2칸'에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1에 왼발, 2에 오른발]
- '1·2칸'에서 밖으로 나간 후 목자를 머리 위로 해서 뒤로 던진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목자가 바르게 떨어지면 뒤로 돌아 목자가 떨어진 칸의 앞 칸까지 앙감질로 와서 한 손을 땅에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목자를 집은 다음 그 칸에 자기편 표시를 한다. 이때, 목자를 떨어뜨리거나 잡을 때 움직이면 실격이 된다.



〈그림 114〉

◦목자를 들고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을 두 발로 들어갔다가 앙감질로 하면서 역순으로 되돌아 '출발'까지 온다.

◦다시 할 때에는 앞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자기편 표시가 있는 곳은 모둠발로 들어가고,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은 뛰어 넘으며, 나머지 칸은 앙감질로 간다.

◦목자를 던질 때,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에 목자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실격이 되고, 자기편 표시는 지운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 목자가 떨어지면 그 표시를 지우고 자기편 표시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칸을 모두 채우면, 칸을 세어서 많은 편이 이긴다.

12) 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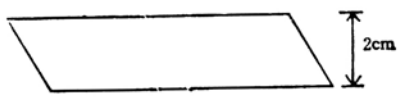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자—20cm 정도
채—1m 40cm 정도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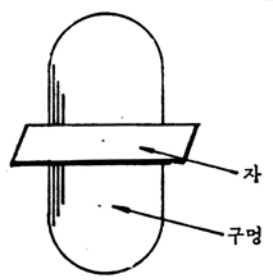
〈그림 115〉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자를 구멍 위에 가로로 올려 놓고 채로 걷어서 멀리 날린다. 이때, 수비가 받으면 '10점'을 수비편에게 준다. 던진 사람은 실격이 된다.

◦떨어진 자를 수비자가 주워서 구멍 가까이에 던진다. 이때, 공격자는 채를 구멍에 대 놓는다. 수비자가 던진 자가 채를 맞히거나 구멍 안에 들어가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채를 못 맞히거나 구멍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격자는 떨어진 자를 주운 다음 그 자리에 서서 한 손에 채를 또 한 손에 자를 든다. 자를 채로 쳐서 되도록이면 멀리 날린다. 이



〈그림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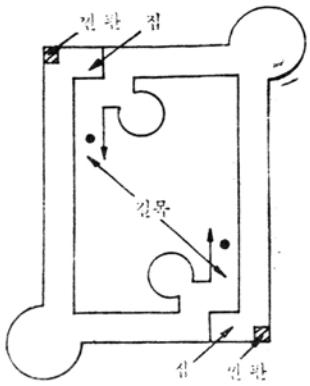
때, 수비자가 받으면 "20점"을 수비편에게 준다. 그리고,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못잡고 자가 땅에 떨어질 때, 수비자가 자를 발로 차서 구멍 쪽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정지하면 찰 수 없다.

- 떨어진 자를 주워 구멍 쪽으로 던지면, 공격자는 수비자가 던진 자를 채로 친다. 이때, 수비자가 잡으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가 자를 치지 못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자와 구멍과의 거리가 한 자 미만이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자가 떨어진 곳과 구멍과의 거리를 짐작해서 대면, 수비자가 그 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좋다"고 한다. 그러면, 공격자가 부른 수가 공격자의 점수에 가산된다. 그러나, 수비자가 그 거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재봐" 한 다음 채로 거리를 잰다. 잰 결과, 공격자가 부른 잣수만큼 되면 그 잣수를 점수로 가산하고, 미달되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그 자리에서 채 끝에 자를 올려 놓고 공중에서 한 두 바퀴 돌린 다음 자를 쳐서 날린다. 〔이를 '돌려치기'라고 한다.〕 날아간 자를 수비편이 잡으면 '30점'이 수비편에게 주어지고, 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자를 받지 못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잰다.
- 구멍을 밟고 서서 한 손에 자와 채를 동시에 든 다음 자를 던져 채로 친다. 〔이를 '한손치기'라고 한다.〕 이때, 날아간 차를 수비자가 잡으면 수비편에게 "20점"이 가산되고 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구멍 안에 자를 비스듬히 세운 다음 채로 자끝을 쳐서 띄운다. 그리고, 다시 공중에서 쳐서 날린다. 〔이를 '토깽이'라고 한다.〕 이때, 수비자가 날아간 자를 잡으면 수비편에게 "50점"이 주어지고, 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자를 받지 못하면, 구멍과 떨어진 자까지의 거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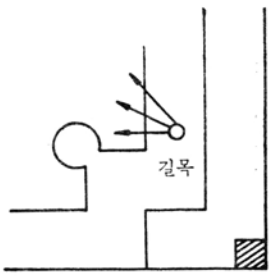
"토깽이"까지 성공하면, 실격된 사람도 다시 할 수 있고, 본인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자기편이 모두 틀리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또, 자기편이 중간 과정에서 틀려도 다음 사람은 반드시 처음부터 한다. 위와 같은 방법과 순서로 작정한 잣수까지 먼저 따는 편이 이긴다. 보통 '삼천 자' 내지 '만 자' 내기를 한다.

13) 집 뺏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배 진복
인적 사항 앞과 같음



〈그림 117〉



〈그림 118〉
길목의 점을 밟고←표 방향으로 뛰어 넘을 수 있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10명 이상이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각각 자기집에 들어간다.

◦두세 명은 집을 지키고 나머지는 길을 따라 상대방 집으로 쳐들어가서 진판을 밟으면 이긴다.

◦길목에서 상대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있는 사람이손으로 다리를 낚아 채거나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거나 선을 밟게 하거나, 또는 집 안으로 끌여 들인다. 이때, 상대방에 의해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집 안이나 밖으로 들어가거나 나간 사람은 실격이 된다.

◦길목을 지나갈 때 반드시 점 찍은 곳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 또, 점 찍은 곳을 밟고 선을 뛰어 넘을 수도 있다.〔그림 118 참조〕

◦통로에서 서로 만났을 때 밀고 당겨서 상대방을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10. 仁旨面 野堂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유 용곤(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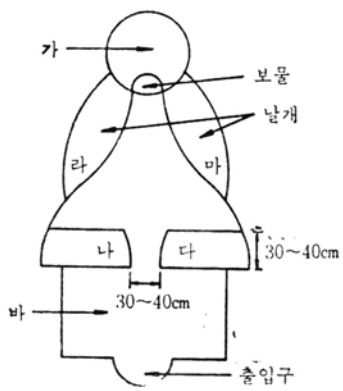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한데, 최소한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119〉

◦공격편은 원 '가'에, 수비편은 '바'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자기 진영에서 앙감질로 나와 '나'에서 '다'로, 또는 '다'에서 '나'로 뛰어 넘은 후 두 발로 걸어서 출입구까지 간다. '날개'나 '나·다'에서는 두 발로 다닐 수 있고, 쉴 수도 있다. '나'에서 '다'로, '다'에서 '나'로 건너 뛰지 않은 공격자는 출입구를 밟고 수비 진영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보물'을 밟을 수 없다.

◦출입구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바'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보물'을 밟은 다음 "보물"하고 외치면서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수비편은 자기 진영 안에서 방어하거나, 자기 진영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출입구로 다녀야 하며, 밖에서는 앙감질을 해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라'에서 '마'로, '마'에서 '라'로 뛰어 넘으면 두 발로 다닐 수 있다. 날개와 '나·다'에서 쉴 수도 있다.

◦'나⇄다'나, '라⇄마'로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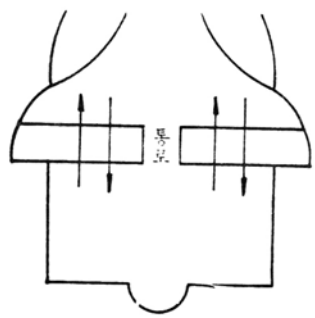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수비 진영에서 수비자가 넘어지면 무방하나 공격자가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서로 밀고 당겨서 선을 밟게 하거나 선 밖으로 밀어내서 실격시켜야 한다.

◦공격자 진영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오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밖에 있던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자는 ↑↓표 방향으로 뛰어 넘을 수 있으나 공격자는 통로로만 다녀야 한다. 〔그림 120 참조〕



〈그림 120〉

◦앙감질로 다닐 때 두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보물'을 밟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2) 해바라기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이 은희(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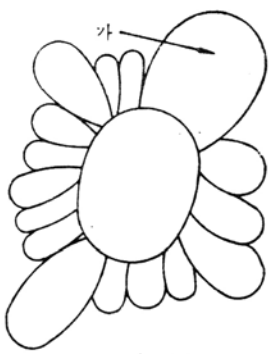
(3) 놀이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꽃잎 '가'에, 수비편은 '가운데 원'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과 수비편은 공격편이 돌아야 하는 바퀴 수를 작정한다. 보통 3~5바퀴로 한다.



〈그림 121〉

◦공격편은 도는 방향을 정하고 외곽에 있는 꽃잎을 차례차례로 지나가야 한다. 이때,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진영 안에서만 수비를 한다.

◦공격자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당겨서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밖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쓰러뜨린다. 이때, 끌려 들어오거나 밖으로 밀려 나거나 넘어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도 돌면서 수비자를 밀거나 당겨서 선을 밟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있다. 이때, 선을 밟거나 넘어진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가 돌 때, 한 칸씩 건너가야 하며 후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작정한 바퀴수를 다 돌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3) 뒷목자치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27일
제 보 자 : 이 연화(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포도 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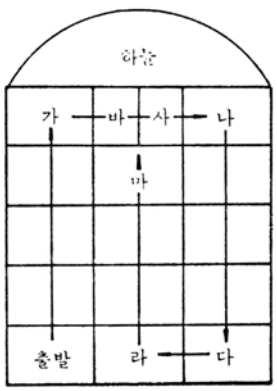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2~3명씩 편을 짜서 하기도 한다.

(4) 놀이 용구 : 넓적한 작은 돌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1 : 1의 개인전일 때 이긴 사람이 먼저 한다. 편을 갈랐을 때 이긴 편이 먼저 한다.



〈그림 122〉 가로칸은 반드시 세 칸으로 하나, 세로칸은 놀이자들이 작정한 대로 놀이거나 줄일 수 있다.

◦출발칸에서 목자를 들고 두 발로 서 있다가, 앙감질로 한 칸씩 밟으며 ↑표 방향의 가칸까지 간다.

◦바·사칸은 뛰어 넘어 나칸까지 간 다음 ↓표 방향의 다칸까지 앙감질로 간다.

◦라칸을 거쳐 ↑표 방향의 마칸까지 간 다음 바·사칸에 한 발씩 동시에 놓고〔바칸에 왼 발, 사칸에 오른 발〕 하늘로 나간다.

◦하늘에 들어간 상태로 서서 목자를 머리 위로 해서 뒤로 던진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 위에 떨어지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개인전일 때,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나, 편을 짜서 할 때에는 남은 자기편이 먼저 자기 몫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후에 실격이 된 사람의 몫을 해 준다. 그러나, 전 구간을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바·사칸의 경우 바칸→사칸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 몫을 해 주면 실격이 된 사람은 살게 된다.

◦목자 던지기를 성공하면 하늘에서 뒤로 돌아 역순으로 목자가 떨어진 칸의 앞 칸까지 가서 목자를 집고 그 칸에 자기편 표시를 한다.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은 모둠발로 들어갔다가 역순으로 출발칸까지 온다. 이때에도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여기까지 실격되지 않고 다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 출발칸에서 하늘까지 갈 때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은 모둠발로 들어가나,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은 뛰어 넘어야 한다.

◦목자를 던질 때, 던진 목자가 자기편 표시가 있는 가에 떨어지면 자기편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상대편 표시를 지우고 자기편 표시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이 많아서 뛰어 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뛰어 넘지 못한 편이 지게 되고 판이 끝나게 된다.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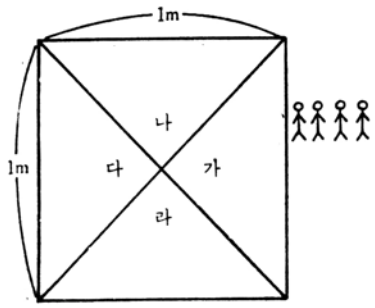
자기편 중 앞에 하던 사람이 실격이 되면 뒷 사람이 일단 자기 몫을 한 다음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줄 수 있다. 몫을 할 때, 전 구간을 앙감질로 가야 하며,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은 뛰어 넘고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은 앙감질로 밟고 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실격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한 번 해야 하는데, 자기편 칸이라도 앙감질로 다니고 상대편 칸은 뛰어 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성공해야 원래의 상태로 놀이할 수 있다.

4) 발밟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이 은희 · 이 연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발작띠기'로 불리는데, 놀이판의 도형이 다른 곳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인원수는 4~6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놀이자 전원이 '가위 바위 보'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 사각형 밖에 일렬로 선다.



〈그림 123〉

◦ 먼저 1번이 삼각형 가를 한 발로 밟고 남은 세 개의 삼각형을 자기 마음대로 밟은 다음 밖으로 나간다. 〔발동작은 한 칸마다 교대로 바꿔서 한다. 예를 들어, 가·나·라를 거쳐 밖으로 나갈 때는 왼발(가)—오른발(나)—왼발(라)—밖(발 모은다.)의 순서로 한다.〕 이때, 가칸만 밟고 나가도 되고 두 칸 · 세 칸 · 네 칸 등을 밟고 나가도 된다.

◦ 2번은 1번이 밟고 지나갔던 삼각형을 밟았던 순서대로 밟고 밖으로 나간다. 이때, 1번은 2번이 밖으로 나올 때 무조건 뛴다. 그리고 서로 땅에 닿으면서 상대의 발 등을 밟는다. 발 등을 밟힌 사람은 실격이 된다.

◦ 3번, 4번도 똑같은 순서로 밖으로 나온다.

◦ 놀이자가 모두 밖으로 나오면, 1번이 먼저 한 발만 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실격이 된다.〕 뛰다가 땅에 닿을 때 남의 발 등을 밟거나 발 등을 차면 밟히거나 채인 사람은 실격이 된다. 1번이 뛴 후 2번 · 3번 · 4번도 순서대로 뛰면서 상

대방을 실격시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을 실격시키면서 계속하다가 한 사람만 남으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끝까지 남은 사람이 1번이 되고, 다른 사람은 늦게 실격이 된 순서로 2·3·4의 차례를 정한 다음 다시 시작한다.

5) 세 발 거리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이 은희 · 이 연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일반적인 '돌차기'의 도형을 변형시켜, 목자를 사용하지 않고 발로만 하는 놀이이다.

(1) 노는 시기 : 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단 둘이 1 : 1로 하거나 편을 갈라 하기도 한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보통 2~3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놀이 순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1단부터 10단까지이며, 2단계는 '눈감생이'부터 '모둠발'까지이다. 2단계의 '모둠발'까지 먼저 끝내는 편이 이긴다.

◇ 1단계

◦1단

자기편 1번이 먼저 한다. 1칸은 밟지 않고 2·3칸으로 건너 뛴 다음 순서대로 8·9칸까지 간다. 8·9칸에 서서 자기편 2번이 오기를 기다린다. 발동작은 보기처럼 해야 한다. 자기편

〈보기〉 2·3칸 —→ 4칸 → 5칸 → 6칸 → 7칸 —→ 8·9칸
(한 발씩 동시에)(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한 발씩 동시에)
이때, 4칸을 '왼발'로 밟았으면 5칸은 오른발이 되며, 6칸과 7칸은 각각 왼발 · 오른발이 된다.

이 8·9칸에 들어오면 뒤로 돌아 2번부터 나간 다음 1번이 나간다. 나갈 때는 왔던 순서의 역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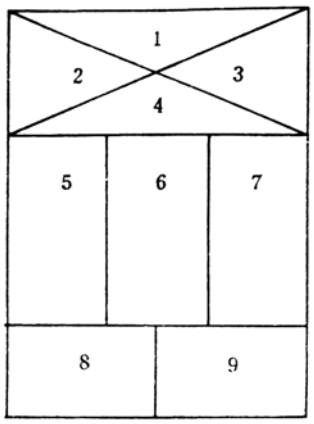
◦2단

1·3칸을 한 발씩 동시에 밟고 4칸을 거쳐 8·9칸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다. 발동작은 〈1단과 같다.

◦3단

1·2칸을 한 발씩 동시에 밟고 4칸을 거쳐 8·9칸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다. 발동작은 〈1단

과 같다.



〈그림 124〉

◦4단

1칸을 왼발로, 2·3칸을 한 발씩 동시에 밟고 4칸을 건너뛴 다음 〈1단〉처럼 한다.

◦5~7단

5단일 때 5칸을, 6단일 때 6칸을 7단일 때 7칸을 각각 건너 뛴 다음 〈1단〉처럼 한다.

◦8~9단

8단일 때 8칸을, 9단일 때 9칸을 빼고 모든 칸을 〈1단〉처럼 한다. 8단의 경우, 7칸에서 9칸으로 가고, 9단일 경우, 7칸에서 8칸으로 간다.

◦10단

1칸부터 8·9칸까지 모두 밟으면서 〈1단〉처럼 한다.

◇ 2단계

◦눈감생이

1칸부터 8·9칸까지 〈10단〉처럼 왕복하되, 5~7칸에서는 눈을 감아야 한다.

◦모둠발

1칸부터 9칸까지 모둠발로 칸마다 모두 뛰어 왕복한다.

◦깽깨미

앙감질로 1칸부터 9칸까지 갔다가 되돌아 온다. '모둠발'이나 '깽깨미'의 경우, 2·3칸과 8·9칸은 각각 2칸에서 3칸으로, 8칸에서 9칸으로 밟고 지나가야 한다.

〈실격이 되는 경우〉

◦선을 밟았을 때

◦발동작이 틀렸을 때

◦앙감질일 때 두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실격된 사람의 '몫'하기〉

자기편의 한 사람이 실격된 경우, 산 사람이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줄 수 있다. 이때, 우선 자기 몫을 한 다음 실격자의 몫을 한다. 그러나, 모든 칸을 앙감질로 해야 한다. 몫을 해주면 실격된 사람은 살아서 놀이를 계속할 수 있다.

6) 고 누

A. 사발거리
B. 사발고니
C. 곤질고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유 노곤(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특기사항 : 'A. 사발거리'는 '호박고누'의 변형으로 6개의 말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나무 그늘이나 대청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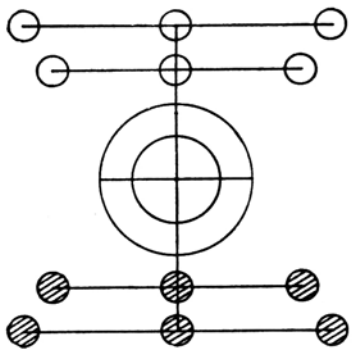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2명.

(4) 놀이 용구 : 각자 말 6개(사발거리), 말 3개(사발고니), 말 12개(곤질고니)씩.

(5) 놀이 방법

A. 사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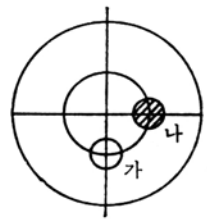
◦말 판의 두 횡선에 말을 6개씩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움직인다.



〈그림 125〉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방 말을 잡아 먹는다. 그림 126의 경우처럼, ○이 둘 차례일 때 ○가가 ◉나를 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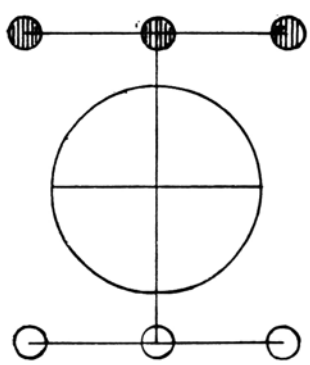
◦양 편 모두 불리하면 자기집으로 후퇴할 수 있다.



〈그림 126〉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말을 다 잡으면 이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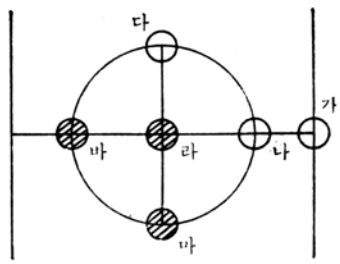
B. 사발고니



〈그림 127〉

◦말 판의 횡선에 말을 세 개씩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움직인다.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진로를 차단시키면 이긴다. 예를 들면, 그림 128과 같이 ○이 가·나·다에 있고 ◉이 라·마·바에 놓이게 될 때, ○은 진로가 막히게 되어 더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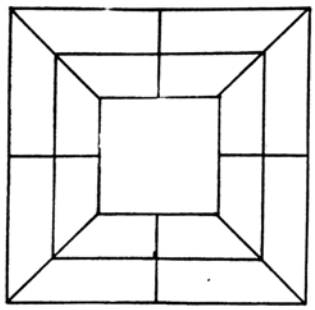
〈그림 128〉

◦양 편 모두 자기집으로 후퇴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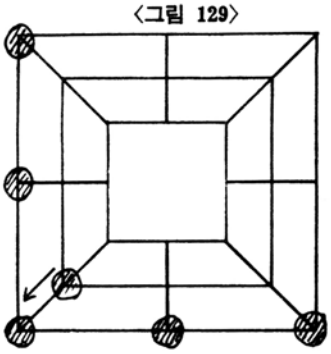
C. 곤질고니

◇ 말 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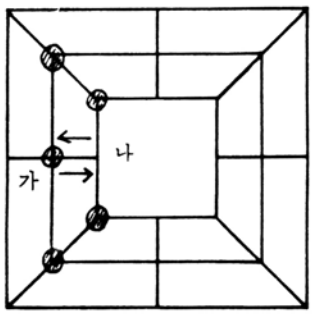
◦양 편 모두 12개의 말을 갖고 시작한다.



〈그림 129〉



〈그림 130〉 쌍고니



〈그림 131〉 들랑고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이 은희 · 이 연화
인적 사항 앞과 같음

◦번갈아서 말 하나를 말 판 위에 놓는다. 세 개가 일렬로 되면 상대편 말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 집어낸다. 따라서, 상대의 말이 두 개가 되면 우선 그 자리에 자기 말을 놓아서 막아야 한다.

◦말을 떼어낸 곳에는 말을 놓을 수 없다. 따 낸 곳에 표시를 해 둔다.

◦이런 방법으로 12개의 말을 모두 놓으면 움직이기를 한다.

◇ 움직이기

◦교대로 말을 한 칸씩 움직여서 세 개의 말을 일렬로 만든다. 세 개의 말이 일렬이 되면 상대편의 말 중 하나를 골라 집어 낸다. 이때,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말을 골라 따낸다. 세 개의 말이 일렬로 놓일 때, 이를 '고니'라 한다. 그러므로, 상대편 말이 고니가 안 되도록 끼워 넣어 방해한다.

◦교대로 말을 움직이면서 하다가 어느 한 쪽에 말이 두 개 남으면 판이 끝나게 된다. 두 개만 남은 사람이 지게 된다.

◦그림과 같이 양쪽으로 고니가 되면 이를 '쌍고니'라 하고, 상대편 말 두 개를 골라 따 낸다.

◦그림과 같이 말 판이 형성되었을 때, 둘 때마다 곤이 된다. 이를 '들랑고니'라 부른다. 이 들랑고니가 되면 이기게 된다. '가'로 고니를 만든 후 다음 차례에 '나'로 이동하면서 고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니가 되는 것이다.

7) 안경 놀이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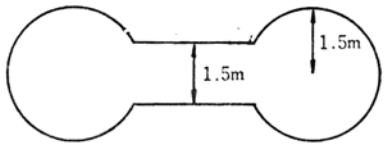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6~7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 아닌 사람은 양 쪽 원 안에 들어가고, 술레는 밖에 서 있는다.
◦ 시작과 함께 밖에 있는 술레는 '안경'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안에 있는 사람을 친다.
◦ 안에 있는 사람은 술레를 피해서 왔다 갔다 한다.
◦ 술레에게 채이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술레는 '안경' 안으로 들어가거나 선을 밟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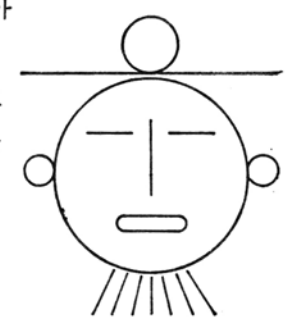
〈그림 132〉

8) 할아버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유 노곤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보통 집을 그려 놓고 하는 〈집 짓기〉나 〈집 지우기〉와 같다. 여기에서는 집 대신에 사람 얼굴〔곧, 할아버지〕을 그려 놓고 하는 까닭에, '할아버지 놀이'라고 부른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나무 그늘진 시원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2~4명 정도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땅 바닥에 각자 그림 113과 같이 얼굴을 그려 놓고 마주 앉아 '가위 바위 보'를 한다.
◦ 이긴 사람이 하나씩 지워 나간다. 지우는 순서는 '수염→코→눈→입→귀→모자'로 한다. 진 사람은 자기 그림에 수염을 하나씩 그린다.
◦ 수염과 코를 지운 사람이 다음 차례에 지게 되면 코를 그려 넣는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얼굴을 다 지우면 판이 끝난다. 이 때, 다 지운 사람이 이긴다.


〈그림 133〉 수염 수는 작정한 대로 그린다.

9) 농 악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유 병수(78세, 남, 국졸, 농업)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인지면 야당리

(1) 노는 시기 : 정월 보름·이월 초하루·단오·추석·모심기와 논매기할 때

(2) 농악대의 편성

기수가 앞장을 서고 가락을 맡은 새납 1명〔둘이 할 경우도 있음〕과 농악대의 지휘자격인 상쇠가 뒤따르는데, 상쇠는 악대의 변화 및 악곡을 지휘한다. 상쇠 뒤에 부쇠가 따르고 징수(2명), 북잽이(3명), 장구잽이(3명), 벅구잽이(6명)와 소구잽이(2명)가 뒤따른다. 그리고, 무등패가 뒤따르는데, 승복을 입은 중(1명)과 여장을 한 색시(4명)와 밀등(1명) 및 나비 놀리는 사람이 포함된다.

무등놀이는 농악대가 둘레에 서서 농악을 울리면 그 안에서 어깨 위에 사람을 올리고 노는 놀이이다. 이때, 무등탄 사람을 '나비'라고 하며, 무등을 탈 때, 나비 놀리는 사람의재담에 따라 3등무, 4등무, 5등무, 6등무로 바꿔진다. 밑등은 주로 등치가 크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이 맡으며, 중은 주로 어린이들이 한다. 중은 무등의 맨 꼭대기에 올라간다.

농악대에 쓰이는 악기는 새납·꽹과리·징·북·장구·벅구 등인데, 벅구잽이가 쓰는 벅구는 자루가 없으나 소구잽이가 쓰는 벅구는 자루가 달려 있다.

농악놀이를 할 때 상쇠의 지시에 따라 장단이 바뀌게 되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쓰는 '가는 장단'을 비롯하여 돌무놀이 장단·마당놀이 장단·질군애비 장단 및 끝내기 장단 등이 있다. 돌무놀이 장단은 돌무놀이를 할 때 쓰이며, 마당놀이 장단은 마당놀이를 하면서 흥겹게 놀 때 쓰인다. 그리고, 질군애비 장단은 무등놀이를 하기 전에 무등패를 가운데에 세워 놓고 둘레를 돌면서 치는 장단이다. 끝내기 장단은 놀이를 끝마칠 때 치는 장단이다.

농악대와 무등패가 집집마다 돌면서 안택을 빌어줄 때, 그 집에서는 돈이나 쌀을 놓고 촛불을 켠 상을 준비한다. 이것을 '꽃반'이라고 한다. 꽃반을 받은 농악대 중 부쇠가 꽃반을 향해 절을 한다. 이때, 농악대는 꽃반 양 쪽에 도열해서 농악을 울리며 춤춘다. 부쇠는 꽃반 앞에서 꽹과리를 울리면서 '고사풀이'를 한다.

무등놀이는 일정한 순서에 의해 행해지는데, ① 색시 후리러 가기 ② 다시 후리기 ③ 사화풀이 ④ 젖 먹이기 ⑤ 업어 기르기 ⑥ 엎어 꾸미기 ⑦ 잦혀 꾸미기 ⑧ 대공 올리기 ⑨ 나비 잠자러 가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무등패의 복장은 한복 바지 저고리와 치마를 입는데, 색시는 치마의 색깔을 제각기 달리한다. 주로, 남색, 빨강색, 노랑색, 검정색을 많이 쓴다. 중은 승복을 하고 밑등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다.

농악대는 농악복을 입는다.

농악놀이는 개인놀이와 전체놀이로 짜여져 있는데, 개인놀이는 상쇠가 노는 상쇠놀음과 장구잽이가 노는 장구놀음이 있다. 장구놀음은 세 사람이 하는데, 수장고는 따로 없다. 그리고, 전체놀이는 마당놀이를 비롯해서 멍석놀이·오방감기와 오방풀기 등이 있다.

11. 近興面 程竹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설 미정(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근흥면 정죽리 153의 1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샹'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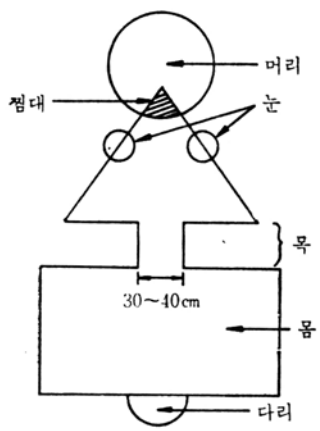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머리'에, 수비편은 '몸'에 각자 들어간다.



〈그림 134〉

◦공격편은 자기 진영인 '머리'에서 앙감질로 나와 '목'을지난 후 양 발로 걸어서 '다리'까지 간다.

◦'다리'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찜대'를 밟으면 이긴다. 이때, "찜"하고 소리친다.

◦수비편은 자기 진영인 '몸'에서 들어오는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밖으로 나와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에는 '다리'로 다녀야 하며, 밖에서는 앙감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을 뛰어 넘으면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밖으로 나온 수비자가 '몸'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눈'을 밟아야 한다.

◦공격자나 수비자는 '눈'을 밟고 쉴 수 있다. 공격자가 '눈'을 밟고 있을 때 수비자가 그 '눈'을 밟으면 수비자가 실격이 된다. 그러므로, 상대편이 밟고 있는 '눈'은 밟을 수 없다.

◦'목'을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도록 한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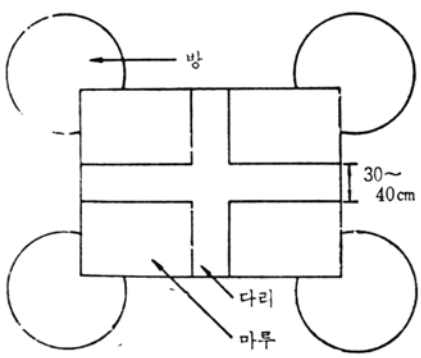
◦ '몸' 밖에 있는 공격자와 '몸' 안에 있는 수비자가 서로 밀고 당길 때, 수비자가 밖으로 나오거나, 공격자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밖에 있던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앙감질할 때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 '몸' 안에서 수비자와 공격자가 싸우다가 수비자가 넘어지면 무방하나 공격자가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 '머리' 안에 있던 공격자가 '찜대'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찜대"를 밟으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2) 비행기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선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비행기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나무 그늘진 시원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한 편에 5명씩)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135〉

◦ 공격편은 네 개의 방 중 한 방에, 수비편은 '다리'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반시계 방향으로 4개의 방을 밟으면서 세 바퀴 돌면 이긴다.
◦ 방에서 다음 방으로 건너갈 때, 밖으로 나갔다가 가는 경우와 마루를 밟고 건너가는 경우가있다. 마루로 지날 때는 앙감질로 가되 '다리'를 건너 뛰어야 한다. 밖으로 나갈 때는 세 걸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놀이자가 많을 경우 놀이판을 크게 그려야 하므로, 자연히 방과 방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따라서, 밖으로 나갔을 때의 발 걸음 수를 늘인다. 보통 6걸음으로 한다.〕 이때, 선을 밟거나 걸음 수를 채우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은 십자의 '다리'로 다니면서 뛰어 넘는 공격자를 친다. 또는, '다리' 안에 한 발을 대고 다른 한 다리는 밖으로 나가 공격자를 칠 수 있다. 이때, 수비자가 선을 밟아도 무방하다.

◦ 수비자는 마루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후퇴할 수 없으며, 넘어지거나 손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앙감질할 때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세 바퀴를 돌거나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뒷목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설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아기 사방', 또는 '아기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두 사람이 1 : 1로 한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작은 돌 1개씩〔이를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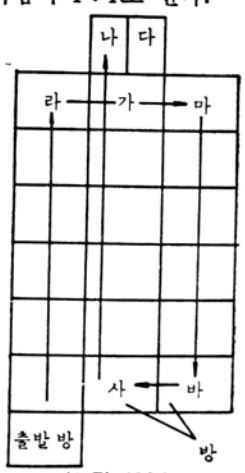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한다.

◦ 출발방에서 목자를 들고 두 발로 서 있다가, 앙감질로 한 칸씩 밟으며 ↑표 방향의 '라'방까지 간다.

◦ '가'방을 건너 뛰어 '마'방으로 간 다음 ↓표 방향의 '바'방까지 앙감질로 간다.

◦ '사'방을 거쳐 ↑표 방향의 '가'방까지 앙감질로 간 다음 '나·다'방에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나'방에 왼발, '다'방에 오른발〕

◦ 서 있는 상태로 목자를 머리 위로 해서 뒤로 던진다. 이때, 목자



〈그림 135〉

가 방 안에 떨어져야 한다. 밖으로 나가거나 선 위에 떨어지면 실격이 되고,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 목자가 떨어진 방의 앞 방까지 앙감질로 가서 목자를 집고 그 칸에 자기 표시를 한다.〔목자를 집을 때 목자를 흔들리게 하거나 떨어뜨리거나 또는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표시를 한 다음 표시한 방은 건너 뛰어서 앙감질로 출발방에 돌아온다.〔돌아올 때는 갔던 길의 역순으로 밟으면서 온다.〕

◦ 출발방에서 다시 목자를 들고 위의 방법과 순서로 가는데, 자기 표시가 있는 곳에는 모둠발로 들어간다. 나머지 방은 앙감질로 간다. 상대방 표시가 있는 방은 건너 뛴다.

◦ 던진 목자가 자기 표시가 있는 방에 떨어지면 자기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방에 목자가 떨어지면 상대편 표시를 지우고 자기는 실격이 된다.

◦ 하는 사람이 오고갈 때 선을 밟거나 발동작이 틀리거나, 들고 있는 목자를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무조건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 모든 방에 자기 표시가 다 차거나 자기 표시가 된 방이 연접해 있어서 상대방이 뛰어 넘지 못할 경우,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뛰어 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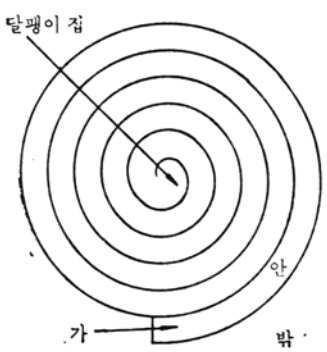
4) 달팽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설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달팽이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되나 7~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그림 137〉

(4) 놀이 용구 : 조그만 돌멩이 1개, 이것을 '과자'라고 부른다.

(5)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달팽이집 안의 '가'에, 수비편은 밖에 각각 들어간다. 이때, 공격편은 '가'에 일렬로 선다.

◦ 수비편이 공격편에게 과자를 주면서 "먹어라" 하면, 공격편 중 한 사람이 받아서 먹는 척 한 다음 과자를 밖으로 멀리 던진다.

◦ 던져진 돌〔과자〕을 수비편 한두 사람이 찾으러 가는 동안 공격편은 달팽이의 길을 따라 안으로 뛰어 간다. 공격편이 달팽이 집으로 모두 들어가면 선을 그어 막는다. 이것을 '문 닫는다.'고 한다.

◦ 수비편은 던져진 돌을 찾고서 재빨리 공격편의 뒤를 쫓는다. 이때, 길을 따라 가야 하며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뒤를 쫓아 가면서 공격편을 치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칠 수 없다. 문이 닫혀 있지 않으면 달팽이 집에 들어가서 칠 수 있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문이 닫혀서 공격자를 다 채지 못할 경우, 문 밖에서 과자를 공격편의 한 사람에게 주면서 "먹어라" 한다. 과자를 받은 공격자는 과자를 먹는 척 하다가 밖으로 멀리 던진다.

◦ 수비편은 던져진 돌을 찾으러 간 동안〔이때, 길을 따라 가지 않고 던져진 돌과의 직선 거리로 간다.〕 공격편은 길을 따라 '가'까지 뛰어 나와 입구에 선을 긋는다.

◦ 던져진 돌을 찾은 수비편은 입구로 들어가서 공격편을 친다. 이때, 공격편이 먼저 나와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문을 닫지 못하면 공격편이 다 채여서 실격이되기 때문에 수비편이 이기게 된다. 문이 닫혀 있을 경우 들어가 칠 수 없으므로 공격편이 이기게 된다.

◦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실격이 된 사람도 들어와서 다시 한다.

5) 팔자(八字)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선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팔자(八字)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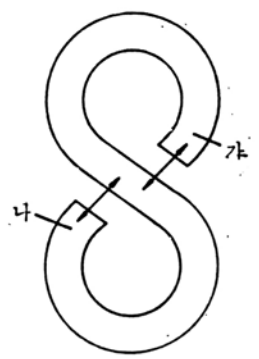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한다. 대진할 수 인원이면 가능하다, 한 편에 4~5명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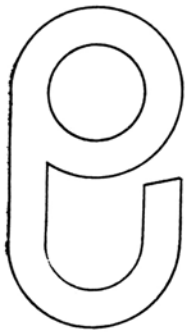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도망다니고 진 편은 술레가 되어 치러 다닌다.

◦ 이긴 편은 '가'에 진 편(술레편)은 '나'에 각각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 이긴 편은 통로로 다니거나↔표 방향으로 건너 뛰어 도망다닐 수



〈그림 138〉



〈그림 139〉 9자놀이

있다.

◦술레편은 통로만으로 다니면서 이긴 편을 손으로 친다.

◦술레편에게 채인 사람은 실격이 된다.

◦통로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이긴 편을 다 채면 판이 끝난다. 바꾸어서 다시 한다.

◇ 9字 가상 ; 9자놀이

그림 139처럼 9자를 그려 놓고 〈팔자 놀이〉의 방법과 똑같이 하는 놀이이다.

6)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설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얼음땡'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7~8명 이상이라야 재미 있음

(4) 놀이 방법

◦술레 한 사람〔이를 '오니'라 함〕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술레가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니고, 술레는 쫓아 다니면서 손으로 친다.

◦술레가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칠 수 없다. 〔쳐도 상관없다.〕 '얼음' 한 사람은 정지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서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된 사람을 "불"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이 없이 모두 '얼음'이 되면, '얼음'된 사람끼리 술레 한 사람을 정해서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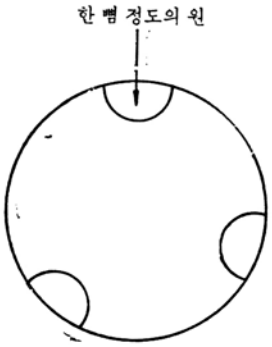
7) 땅 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설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 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3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목자 1개씩(넓적하고 조그만 돌이나 병 마개)
(5) 놀이 방법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하는 순서를 정한다. 큰 원을 그려 놓고 서로 마주 앉아 각자 자기 집을 그린다. 집 크기는 한 뼘 정도의 원을 그린다.



〈그림 140〉

◦ 목자를 자기 집에서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땅에서 다시 한 번 친 다음 세 번째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때, 세 번만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

◦ 세 번 쳐서 지나온 선을 그어 그 안을 자기 땅으로 하고 다시 한다.

◦ 세 번 치고 자기집으로 돌아올 때 원 둘레의 선(원주)에 닿으면 그 안을 자기 땅으로 한다. 〔그림 141 참조〕 이때, 자기 집의 원주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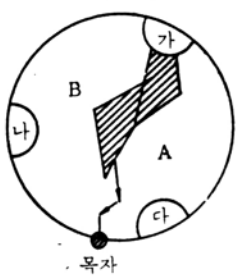
〈그림 141〉

◦ 남에게 자기집이 갇혔을 때, 갇힌 사람은 실격이 된다. 〔그림 142 참조〕 그림의 경우처럼 '가'의 땅이 나와 다의 사이에 있는 원주에 닿을 때, 전체 땅이 A와 B로 나누어졌다. 이때에는 면적이 좁은 쪽의 땅 A를 갖게 되고, '다'는 실격이 되는 것이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되, 상대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나머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이긴다.

8) 고무줄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7일
제 보 자 : 설 미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한 겹으로 할 때와 두 겹으로 할 때가 있다. 한 겹으로 하는 것을 '고무줄'이라 하고, 두 겹으로 하는 것을 '월화수목'이라고 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와 동작이 달라진다.



〈그림 142〉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골목길이나 마당

(3) 놀이자 : 여자. 개인전일 때는 최소한 3명이 하나 2명이 해야 하는 경우 고무줄을 나무나 벽에 붙들어 매고 할 수 있다. 편을 짤 경우 한 편에 둘 이상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고무줄. 길이는 놀이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3m 이상이라야 한다.

(5) 놀이 방법

한 겹으로 하는 '고무줄'은 고무줄을 한 가닥으로 해서 양 쪽으로 잡고 하는 놀이이다. 두 겹으로 하는 '월화수목'은 고무줄 끝을 묶어 원으로 만든 다음 줄 사이에 다리를 넣고 양 쪽에서 잡아당겨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하는 놀이이다. 주로 한 겹 놀이를 많이 한다.

고무줄 놀이는 부르는 노래에 따라 발 동작이 달라지며, '고무줄'에는 '장난감 기차', '고향의 봄', '삼천' 등의 노래가 불려지고, '월화수목'에는 '월화수목'의 노래가 불려진다. 노래에 맞추어 하는 발 동작으로는 ① 다리에 감기 ② 줄 밟기 ③ 뛰어 넘기 ④ 발 엇갈려 뛰기 ⑤ 발 엇갈려 밟기 ⑥ 두 발로 줄 밟기 등이 있다. 또, 줄의 높이도 달라지는데 ① 발목 ② 장딴지 ③ 무릎 ④ 엉덩이 ⑤ 허리 ⑥ 가슴 ⑦ 입 ⑧ 머리 ⑨ 만세 등의 순서로 한다.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장난감 기차〉

장난감 기차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월화수목〉

월화수목금토일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다네.
월계 화계 수수 목단 금단
초다네.

12. 泰安邑 平川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달팽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읍 평천리 3구 190번지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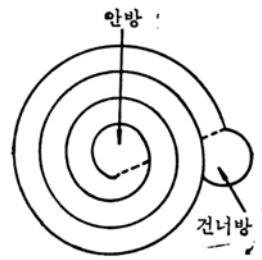
◦편을 갈라 이긴 편은 '안방'에, 진 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놀이가 시작되면 양 편에서 각각 한 사람씩 상대 진영을 향해 뛰어 간다. 이긴 편은 '건너방'으로, 진 편은 '안방'으로 길을 따라 서로 만날 때까지 뛰어간다.

◦양 편이 서로 만나면 서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계속 상대 진영을 향해 뛰어가고, 진 사람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간다. 이때, 진 편에서 한 사람이 뛰어 나온다.

◦다시 양 편이 만나면, '가위 바위 보'를 한 다음 위와 같이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상대방의 진영에 들어가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놀이자는 길을 따라서 가되, 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 143〉 원의 수는 마음대로 그린다.

◇ 두 사람이 할 경우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안방'에, 진 사람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놀이가 시작되면 각자 상대방 진영을 향해 뛰어 나간다. 서로 만나면 서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때, 이긴 사람은 계속 상대 진영쪽으로 뛰어가고, 진 사람은 되도록이면 빨리 자기 진영으로 간다. 〔길을 따라서 갈 필요가 없다.〕 자기 진영에 간 다음, 다시 뛰어나와 상대방을 맞이한다. 그리고, 또 '가위 바위 보'한다. 이런 방법으로 상대 진영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판이 끝나면 이긴 사람이 '안방'에, 진 사람이 '건너방'에 들어간 후, 다시 시작한다.

2)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각형' 또는 '십자각형 놀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초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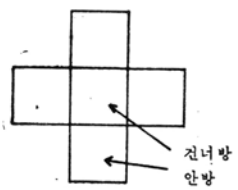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차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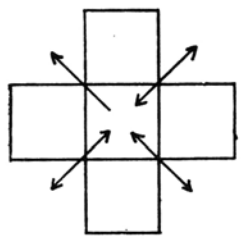
◦공격편은 '안방' 한 곳에, 수비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44〉

◦공격편은 시계 방향으로 네 개의 사각형(안방)을 밟고 돈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작정한 바퀴 수〔보통 다섯 바퀴로 한다.〕를 다 돌면 이긴다. 이때, 방향을 바꾸어 돌거나 지나친 칸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건너방)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림 145 참조〕 밖으로 나오거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뛰어넘는 공격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145〉

◦수비자가 건너방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건너방으로 뛰어넘을 때, 공격자는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때,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안방으로 들어오면 실격이 된다.

◦놀이자들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바퀴 수를 돌면 공격편이 이긴다. 또는,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3) 네거리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점수 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놀이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함.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네 개의 '안방'에 마음대로 들어가고, 수비편은 '건너방'에 들어간다.

◦공격편은 안방과 안방을 건너 뛰는데, 좌우·상하로 가면 1점을 얻고 대각선으로 가면 5점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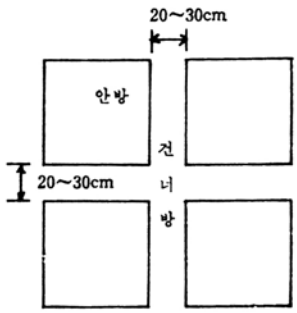
◦수비편은 공격자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건너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채야 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나 수비자가 선을 밟거나, 땅에 손을 대면 실격이된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15점이 되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한다. 수비편의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한다.



〈그림 146〉

4)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규(11세, 남, 국민학교 4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읍 평천리 3구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초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여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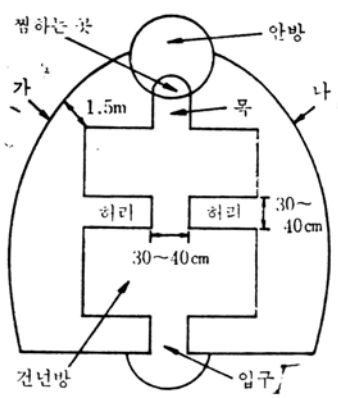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안방'에, 수비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자는 안방에서 나와 '가·나'선 안으로 양 발로 다니다가 '허리'를 지난 후 입구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공격자 모두가 허리를 넘으면 바깥선 '가·나'중 한 선이 없어진다. 그리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다.

◦'입구'로 들어간 공격자는 '건너방'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찜하는 곳'을 밟으면 이긴다. 이때, '허리'를 넘지 않은 공격자는 건너방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찜을 찍



〈그림 147〉

지 못한다.

◦수비편은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와 '목'을 건넌 후 공격자와 싸울 수 있다. 목을 넘지 못한 수비자는 '가·나'선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상대를 만났을 때 싸울 수도 없다. 오히려, 공격자에게 채이면 실격이 된다. 따라서, 공격자를 만났을 때 '건너방'으로 재빨리 도망을 가야 한다.

◦'허리'나 '목'을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킬수 있다.

◦'건너방'이나 밖에서 서로 싸워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밀어내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킬 수 있다.

◦'안방' 안에 있는 공격편이 '찜하는 곳'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건너방' 안에 있는 수비자와 밖에 있는 공격자가 서로 잡아당겨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찜하는 곳'을 밟으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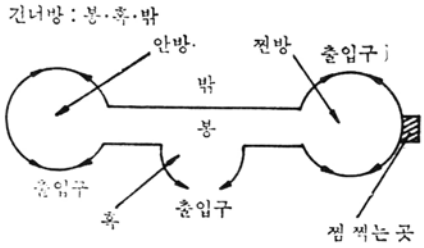
5) 여의봉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여이봉'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그림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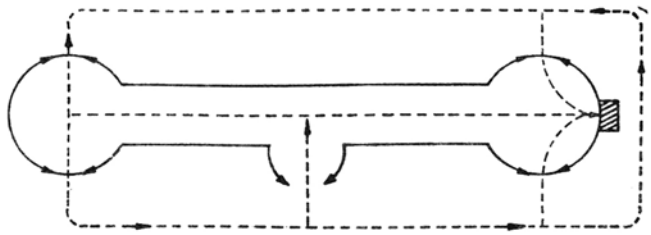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안방'에, 수비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건너방은 혹·봉·밖을 말한다.〕

◦공격편은 '봉'을 따라서 가거나, →←표의 출입

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찐방'으로 가서 '찜찍는 곳'을 밟는다. 〔그림 149 참조〕 밖에서는 앙감질을 해야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에서서 찐방으로 갔다가 다시 찐방 방에 안방으로 3번 왕복하면 이긴다.



점선은 공격자가 갈 수 있는 길을 표시한 것임

〈그림 149〉

◦ 수비편은 공격편이 찜을 못하도록 방어를 한다. 밖에서는 앙감질로, '혹'이나 '봉'에서는 양 발로 방어를 한다. 그러나, '찐방'에 들어갈 때는 앙감질을 해야 한다.

◦ 수비편과 공격편은 서로 넘어뜨리거나 밖으로 밀어내어 실격시킬 수 있다. 이때 선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앙감질일 때 양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은 '봉'에서 **후퇴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3번 왕복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수비와 공격을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6) 십자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만난각형'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초가을부터 겨울까지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두렁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여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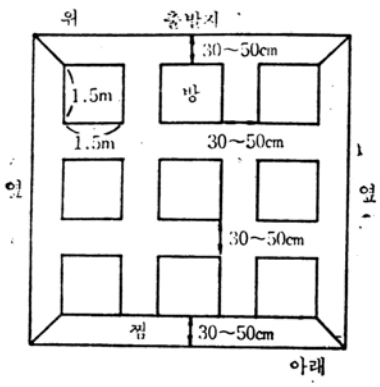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출발지에, 수비편은 '통로'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출발지에서 첫째 줄에 있는 '방'으로 건너 뛴 다음 세째 줄의 방까지 간다. 세째 줄의 방에서 '찜'을 손이나 발로 찍고 출발지로 되돌아 오면 이긴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넘어다니지 못하도록 통로로 다니면서 채야 한다. 이때, 채인 공격자

는 실격이 된다. 놀이판의 네 모퉁이에 ／표 한 곳은 넘을 수 없다. 또한, 위·옆·아래로도 나갈수 없다.



〈그림 150〉

◦공격자가 방을 넘어 오고 갈 때, 선을 밟아서는 안되며, 앞으로 옆으로 방을 지나갈 수 있다.

◦공격자가 찜을 찍고 되돌아 올 때, 출발지에 자기 편 중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출발지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그 편은 무조건 지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모두 실격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수비편에게 채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찜을 찍고 돌아오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7) 오재미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초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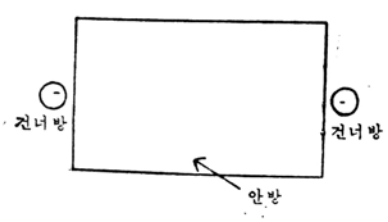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한 편에 7~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모래 주머니나 콩 주머니 1개〔이것을 '오재미'라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안방'에, 진 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51〉

◦건너방에 있는 편은 안방에 있는 편을 콩 주머니나 모래 주머니를 던져 맞힌다.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되어 밖으로 나간다.

◦건너방 편이 던진 모래 주머니를 안방 편이 받으면 '일전'으로 친다. 이때, 죽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실격된 사람이 없으면 점수로 계산할 수 있다.

◦ 안방 편이 모은 점수가 '오전'이 되었을 때〔곧, 다섯 번 받았을 때〕, 안방 편은 두 손을 잡고 늘어 서거나, 앞뒤쪽으로 손을 잡고 앙감질로 서서 모래 주머니를 피한다.

◦ 건너방 편은 모래 주머니를 던져 맞히는데, 맞은 사람이 있을 경우 '4전'이 되므로〔'일전'이 깎이므로〕 손을 풀고 각자 피한다. 이때, 또 맞으면 '삼전'으로 깎이고, 받으면 '오전'이 되서 앞과 같이 한다.

◦ '오전'일 때 던진 모래 주머니를 다시 받으면 각자 눈을 감고 피한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맞으면 '일전'이 깎여서 '오전'이 된다. 따라서, 다시 손을 잡고 피해야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안방'편이 갖고 있는 '전'을 깎은 다음 모두 실격시키면 판이 끝난다. 판이 끝나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 건너방 편이나 안방 편은 선을 밟을 수 없다.

8) 발자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 · 김 선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자치기'와 비슷한 놀이로서, 발로 '자'를 차는 점이 특이하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요사이는 여자들도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막대 1(길이는 7cm 정도, 두께는 4cm 정도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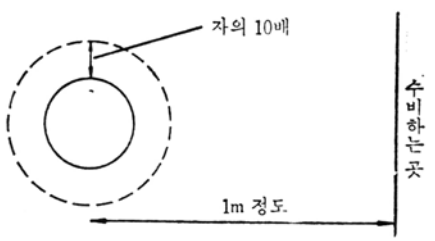
(5) 놀이 방법

◦ 발뒤꿈치를 축으로 하고 발 끝에 손을 댄 다음 원을 그린다.

◦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 공격편 중 한 사람이 막대를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로 찬다.

◦ 수비는 1m 이상의 밖에서 있다가 날아오는 막대를 잡는다. 이때, 두 손으로 받으면 100점을, 오른손으로 받으면 500점을, 왼손으로 받으면 1000점을 수비편에게 준다. 그리고,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152〉

◦ 수비편이 받지 못하면, 땅에 떨어진 자를 주워 원 안에 되도록이면 가까이 던진다. 던진

자가 원 안에 들어가면 공격편의 모든 점수를 잃게 되고 그 공격자는 실격이 되서 다음 공격자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그러나, 점수가 없을 때는 공격자만 실격이 된다. 또, '자의 10배' 안의 원〔점선〕에 떨어지면 점수를 잃지 않고 그냥 실격만 된다.

◦ 수비편이 던진 자를 공격자도 발로 받아 찰 수 있다. 이때, 차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 수비편이 던진 자가 떨어진 곳이나 공격자가 되받아 차서 자가 떨어진 곳으로부터 원까지의 거리를 잰다. 공격자가 거리를 머리로 대략 계산해서 10단위(10, 20, 30……)로 부른다. 이때, 수비편은 공격자가 부른 수만큼 거리가 된다고 생각되면 "먹어라"한다. 그러면, 공격편이 부른 잣수가 점수에 가산된다. 그러나, 수비편이 공격자가 부른 수보다 거리가 짧다고 생각되면 "재"한다. 그리고, 거리를 자로 잰 다음 미달되면 실격이 되고 초과하면 그대로 공격자의 점수에 가산이 된다.

◦ 공격자 전원이 한 번씩 실격이 될 때까지 하되, 전원이 모두 실격이 되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계속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정한 점수만큼〔보통 5,000자, 10,000자 내기를 한다.〕 먼저 하는 편이 이긴다.

9) 해바라기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8일
제 보 자 : 김 선주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해바라기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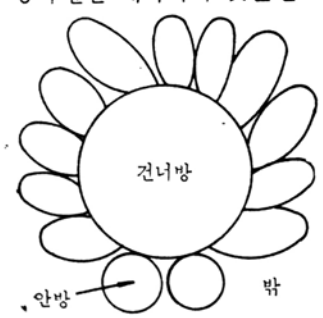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해바라기 꽃잎인 '안방'에, 수비편은 '건너방'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53〉

◦ 공격편은 반시계 방향으로 외곽에 있는 꽃잎을 밟고 차례 차례 지나가야 한다. 이때,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은 건너방에서 밖으로 오고 가며서 공격자를 잡아 당기거나 밀어서 실격시킨다. 이때, 선을 밟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안방 밖으로 나가는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안방을 넘으면서 수비자를 밀거나 당겨서 실격시킬 수 있다.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안방으로 들어오면 그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공격자는 돌 때, 한 칸씩 건너가야 하며 뛰어 넘거나 후퇴할 수 없다.

◦ 공격자 중 한 사람이라도 한 바퀴를 돌거나,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13. 八峰面 陽吉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성태(15세, 남, 중학교 2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상', 또는 '오징어 땃다리'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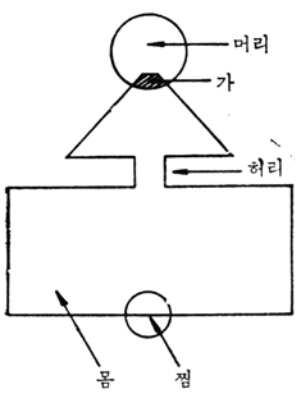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머리'안에, 수비편은 '몸'안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54〉

◦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직접 '침'을 찍거나, 앙감질로 나와서 '허리'를 뛰어 넘은 후에 양 발로 걸어서 '찜'을 찍을 수 있다.

◦ '찜'을 찍은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안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가'를 밟으면서 '만세'를 부른 다음 자기 진영인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 수비편은 '몸'안에서 쳐들어온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찜'을 밟고 나와 앙감질로 다니면서 공격을 막는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허리'를 뛰어 넘으면 양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 '허리'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이때, 선을

밟거나 쓰러진 사람은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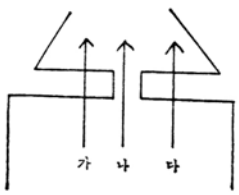
◦ 밖으로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찜'을 밟고 들어가야 한다.

◦ '찜'을 밟고 있는 공격자를 수비자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가'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 '머리·몸'밖에 있는 공격자나 수비자가 서로 싸우다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앙감질일 때 양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그림 155〉

◦ 공격편이 수비 진영을 공격할 때, '가·다' 방향으로 건너뛸 수가 없고 '나' 방향으로 지나야만 한다.

◦ '몸' 안에서 양 편 모두 쓰러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가'를 밟고 '머리'안에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2)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성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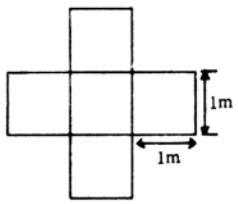
◦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외곽 사각형 중 하나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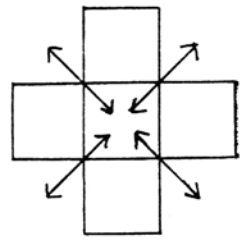
◦ 공격편은 반시계 방향으로 네 개의 사각형을 밟고 돈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작정한 바퀴 수〔보통 5바퀴 돈다.〕를 다 돌면 이긴다. 이때, 방향을 바꾸어 돌거나 지나친 칸으

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림 참조〕 밖으로 나오거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자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156〉


〈그림 157〉

◦수비자가 가운데 사각형과 밖을 오갈 때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때, 넘어지거나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온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놀이자들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비자를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정해진 바퀴를 다 돌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3) 팔자(八字)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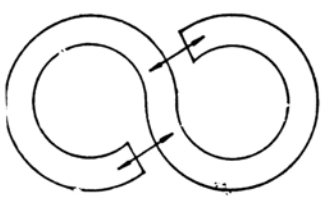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성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팔자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5~6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58〉

◦술레〔이를 '오니'라고 부른다.〕 1명을 정한 다음 각자 편한대로 8자의 통로에 선다.

◦시작과 함께 술레는 다른 사람을 치러 따라 다닌다.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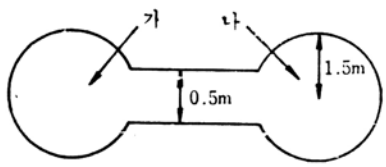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표 방향으로 건너 뛰어 도망다닐 수 있다.

• 술레는 통로만으로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간 사람은 술레가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4) 안경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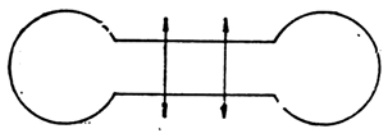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석태(10세, 남, 국민학교 3학년)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안경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6~7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59〉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원 '가·나'중 한 원에, 수비편은 밖에 각각 선다.
◦ 시작과 함께 공격편은 원 '가'에서 원 '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작정한 수대로〔보통 왕복 다섯 번 한다.〕하면 이긴다.
◦ 수비편은 '안경'안에 들어갈 수 없고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그림 160과 같이 뛰어 넘으면서 공격편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이때, 수비자가 선을 밟아서는 안된다. 수비자에 의해 밖으로 나가거나 넘어진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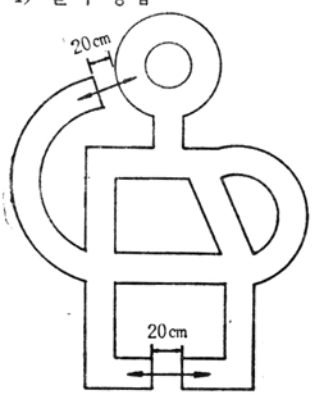

〈그림 160〉

◦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어당겨 넘어뜨리거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공격자에 의해 안으로 들어오거나 넘어진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공격자가 수비자를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자 중 한 사람이라도 다섯 번 왕복을 하면 공격편이 이기게 된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5) 사람 놀이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석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사람 가상'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4) 놀이 방법



〈그림 161〉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표 방향으로 건너 뛰어 도망다닌다.
◦술레는 통로로만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6) 얼음 불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최 기승(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6~8명 정도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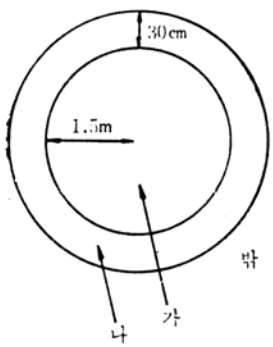
◦술레 한 사람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술레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손으로 치고,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술레가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칠 수 없다. 그러나, "얼음" 한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이 된 사람을 "불"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되, 술레외의 놀이가 전원이 '얼음'이 되었을 경우, 그 중에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 후 다시 시작한다.

7) 꽃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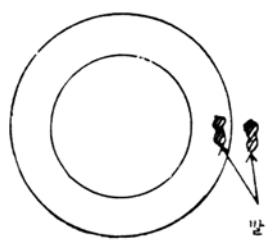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최 기승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돌림바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그림 162〉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안의 원 '가'안에, 수비편은 바깥 원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원 '가' 안에 있다가 바깥원을 건너 뛰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공격편이 원 '나'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친다. 수비편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수비편 몰래 원 '나'의 안에 한 다리를 넣고 찍는다. 〔그림 163 참조〕이때, 발로 찍으면서 '발로 찍은 '수'를 크게 센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 진영의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또는 공격편을 쫓아서 밖으로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안의 원이나 밖으로 도망가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또 찍는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공격편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서 "만세"를 부르면 이긴다.



〈그림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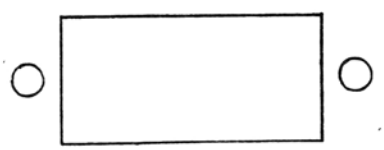
◦공격편은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을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앙감질로 쫓아 다닌 사람이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8) 오재미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최 기승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재미 치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모래 주머니나 콩주머니 1개〔이것을 '오재미'라 한다.〕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진 편은 사각형의 좌우측 측면에 선다.
◦진 편은 모래 주머니를 먼저 상대편을 공격하고, 이긴 편은 사각형 안에서 모래 주머니를 받거나 피하는 수비를 한다.



〈그림 164〉

◦모래 주머니에 맞은 사람은 실격이 돼서 밖으로 나간다. 모래 주머니를 받으면 '한 푼'으로 친다. 이때, 실격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을 살려 불러들일 수 있고, 실격된 사람이 없으면 점수로 계산해서 저축한다.
◦진 편이 던진 모래 주머니에 동시에 둘 이상이 맞았을 때 '푼'이 없으면 다 실격되나, '푼'이 있으면 맞은 수 만큼 '푼'을 제한다. 예를 들면, '두 푼'이 있는데, 세 사람이 맞았을 경우 두 사람은 살고 마지막 한 사람만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실격될 때까지 하는데, 한 사람이 남았을 경우 10번 던져서 맞히지 못하면 죽었던 자기편이 모두 들어온다. 이때, 모래 주머니를 받으면 가장 먼저 실격된 사람만 들어온다.

◦사각형 안에 있는 사람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진 편이 사각형 안의 사람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9) 댕공치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정태(12세, 남, 국민학교 5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 2구

1) 노는 시기 : 봄·여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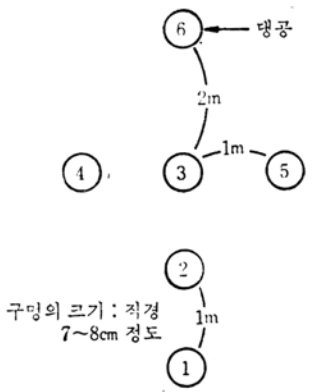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1 : 1로 하거나 편을 나누어서 한다. 편을 나눌 때 한 편에 2~3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구슬 1개씩

5)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먼저 하고 진 편은 그냥 지켜 본다.

◦1번 구멍에 왼손의 엄지를 대고 손가락 끝에 오른 손목을 대고, 구슬을 엄지와 중지로 튕겨서 2번 구멍에 넣는다. 이때 자기편 중 한 사람만 넣으면 되나, 한 사람도 넣지 못했을 경우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상대편이 할 때에는 자기편 구슬을 그냥 땅에 놓는다.



〈그림 165〉

◦2번 구멍에서 3번 구멍으로 던진다. 이때, 상대편의 구슬이 땅에 놓여 있을 경우, 상대편 구슬을 한 번만 '까면' 다음 구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대편 구슬을 못맞추거나 구멍에 넣지 못하면 자기 구슬은 제자리에 놓고, 자기편 다음 순서가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①번 구멍에서 ⑥번 구멍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멍 이동 순서〉

1→2→3→4→3→5→3→6→3→5→3→4→3→2→1→2→3→6→3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마지막 ③번까지 오면 '범'이 된다. 이때는, 상대편의 구슬을 직접 맞히거나 순서에 관계없이 구멍으로 이동하면서 상대편 구슬을 맞힌다. '범'에게 맞은 구슬은 실격이 되어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구멍을 이동할 때 상대편 구슬과 자기편 구슬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든짱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구멍이 아닌 다른 구멍에 구슬이 들어갔을 때를 '든 짱알'이라고 한다. 이때는 실격이 되어 못하는데, 자기 구슬은 손에 든다. 다시 할 경우 1번에서 6번으로 올라갈 때 '든 짱알'이 되면 1번부터 하고, 6번에서 1번으로 내려올 때에 '든 짱알'이 되면 6번부터 시작한다.

◇ 손댄 짱알

자기가 해야 될 구멍이외의 구멍에 손을 댔을 때 '손댄 짱알'이라고 한다. 이때도 실격이 되고 구슬은 손에 든다. 자기 차례가 되어 다시 시작할 때는 '든 짱알'과 같다.

◇ 깐 짱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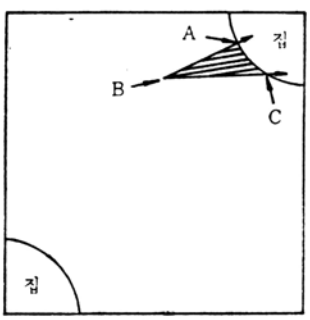
남의 구슬을 맞히고 자기 구슬이나 맞은 구슬이 구멍에 들어갔을 때 '깐 짱알'이라고 부른다. 이때, 구슬이 구멍에 들어갈려고 하면 손으로 막을 수 있다. '깐 짱알'이 되면 실격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올라갈 때는 1번부터 하고, 내려올 때는 6번부터 한다.

◇ 범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마지막 3번 구멍까지 왔을 때, '범'이 된다. 자기편 중 한 사람이라도 '범'이 되면, 각자 한 번씩 마음대로 다니면서 상대편 구슬을 맞추어 실격시킨다. 이때, 자기편 구슬을 맞히면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또, 상대편도 각각 한 번씩 움직이면서 피하거나, 구멍 이동 순서에 따라 이동해서 범이 될 수 있다. 범이 돼서 상대편 구슬을 모두 실격시킬 때까지 계속한다. 어느 한 편이 모두 실격되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10) 땅 재먹기

조사일자 : 1986년 12월 29일
제보자 : 김 정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유리 튕기기'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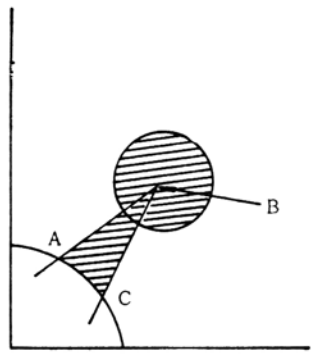
〈그림 166〉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편가르지 않고 각자 하는데 2~3명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유리 조각 사금파리 1개씩〔크기는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크게 한다.〕
5) 놀이 방법

◦ 모서리를 원심으로 삼아 두 뼘 정도의 $\frac{1}{4}$원을 그린 후 자기 집으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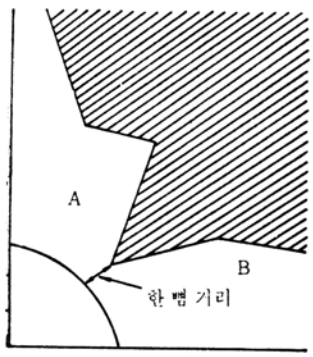
◦자기 집에서 유리를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두 번째에 자기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거나, 또는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유리를 치고 나갔다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한 다음〔그림의 빗금 친 곳〕 꺾어진 모서리의 A·B·C 중한 곳에서 한 뼘으로 원을 그려 자기 땅으로 한다. 엄지를모서리 B에 대고 원을 그린다. 〔그림 167 참조〕 만약, 한 뼘을 재지 않고 그냥 하면 실격이 된다.



〈그림 167〉

◦자기가 넓힌 땅의 모서리와 상대편 땅과의 거리가 한 뼘이 되면〔그림 168 참조〕 양 쪽 땅 중 한 곳을 상대가 선택해 주면, 그 선택된 땅을 자기 땅으로 한다. 바꿔 말하면 한 뼘 거리 되는 부분에 선을 그어 나누어진 A·B 중에서 한 곳을 차지하게 된다.



〈그림 168〉

◦자기 유리가 상대편 땅에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따라서, 상대편 땅은 뺏지 못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남은 땅이 한 뼘으로 훑어서 모두 닿으면 자기 땅으로 하고 판이 끝난다. 이때,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이긴다.

14. 古南面 古南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이 황식(13세, 남, 국민학교 6년생).
박 봉규(11세, 남, 국민학교 4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생'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할 수 있으나, 주로 남자들이 한다. 한 편에 5~6명씩 하는 것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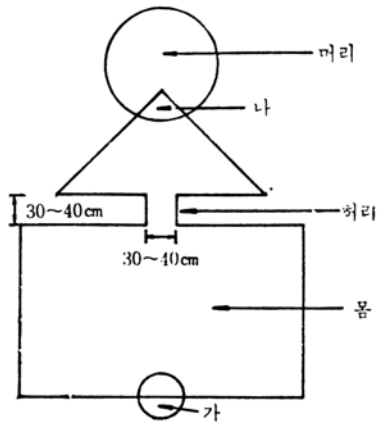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오징어 머리〔원 안〕에, 수비편은 오징어 몸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직접 '가'를 밟거나, 앙감질로 나와 허리를 뛰어 넘은 후 양 발로 가서 '가'를 밟는다.

◦'가'를 밟은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나'부분을 밟고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수비자는 '가'를 밟고 나와 앙감질로 다니면서 공격자를 막거나, 허리를 넘은 후 양 발로 다니면서 공격자를 막는다.



〈그림 169〉

◦허리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킬 수 있다.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 갈 때에는 반드시 '가'를 밟아야 한다.

◦몸 안에서 양 편 모두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거나 선 밖으로 나가면 실격된다.

◦머리나 몸 밖에 있던 수비자 또는 공격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된다

◦공격자가 '가'를 밟고 있을 때에는 수비자가 공격할 수 없다.

◦머리 안에 있는 공격자가 '나'를 밟으면 실격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다 실격시키거나, '가'를 밟고 '나'를 지나 자기 진영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다 실격시키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가 바뀌지 않고 다시 시작하나,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2) 십자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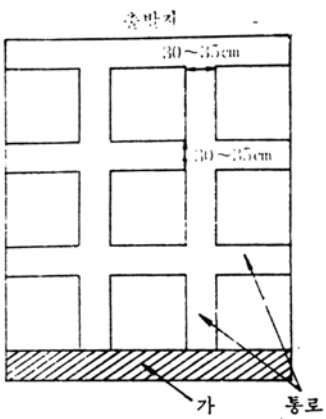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이 황식 · 박 봉규
　인적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 가생'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70〉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출발지에, 수비편은 '통로'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첫째 칸에서 세째 칸까지 갔다가 빗금 친 '가'를 손이나 발로 찍고 출발지로 되돌아 오면 이긴다.
◦ 첫째 칸에서 세째 칸으로 갈 때에는 선을 밟지 않고, 앞으로 옆으로 뛰어 넘어 갈 수 있다.
◦ 수비편은 통로를 따라 다니면서 공격자가 뛰어 넘지 못하도록 공격자의 몸을 쳐야 한다. 이때, 채인 공격자는 실격된다.
◦ 공격자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나, 발이나 손으로 옆 선을 닿아야 한다.
◦ 공격자는 왔던 칸을 되돌아 갈 수 없다. 되돌아 가면 실격이 된다.
◦ 공격자가 되돌아 올 때, 출발지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으면 출발지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 그 편은 지게 된다.
◦ 수비자나 공격자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단, 공격자의 경우 작은 사각형의 바깥 선은 밟아도 무방하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다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가'까지 갔다가 출발지로 되돌아 오거나, 수비편이 선을 밟아 모두 실격되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가 바뀌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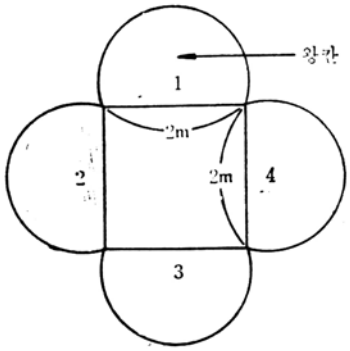
3) 별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이 황식 · 박 봉규
인적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별가생'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왕칸'에 수비편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간다.
◦공격편은 도는 방향을 정해 놓고, 1번 왕칸에서 2번으로, 2번 왕칸에서 3번으로, 3번 왕칸에서 4번 왕칸으로 돈다. 이렇게 3바퀴 돌면 이기게 된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돌지 못하도록 사각형 안이나 밖에서, 또는 양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 채거나 밀어 낸다. 수비자에게 밀리거나 끌려서 넘어져 선을 밟은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자도 수비자를 끌거나 밀 수 있으며, 수비자를 왕칸으로 끌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그림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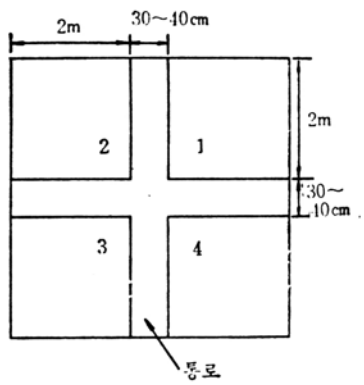
◦공격자가 정한 방향은 바꿀 수 없으며, 후퇴할 수 없다.
◦공격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세 바퀴를 돌면 이긴다.
◦공격자나 수비자는 자기 진영에서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닿지 않아야 한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세 바퀴 돌거나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4) 세 발 떼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이 황식 · 박 봉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별 놀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노는 놀이로서, 조사 마을에서는 '세 발 띠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한다. 한 편이 4~5명씩 되도록 편을 짠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정사각형 1에, 수비편은 통로에 각각 들어간다.



〈그림 172〉

◦공격편은 1번 사각형에서 2번으로, 2번 사각형에서 3번으로, 3번 사각형에서 4번 사각형으로 돈다. 이렇게 세 바퀴 돌면 이긴다.

◦공격편은 1번 사각형에서 2번으로 갈 때, 직접 건너 뛰거나 1번 사각형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세 발만에 2번 사각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모둠발은 한 발로 세며, 세 발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면 실격된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넘지 못하도록 통로를 따라 마음대로 다니면서 공격자를 쳐서 실격시켜야 한다.

◦수비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공격자는 선을 밟거나 수비자에게 채이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세 바퀴를 돌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5) 꽃단지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이 황식 · 박 봉규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열 발 찍기〉라고도 하는데, 조사 마을에서는 '하나 둘 셋'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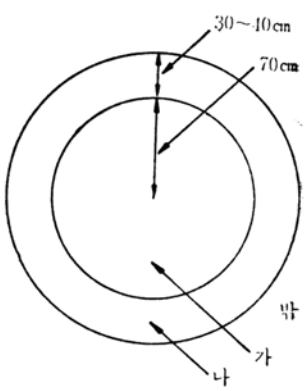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원 '가'안에, 수비편은 원 '나'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원 '가' 안에 있거나, 원 '가'와 밖에 양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수비망을 한 번 이상 찍고 나온다.

◦밖에서는 앙감질로 다니다가 수비 몰래 큰 원 안과 밖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 원 안에 있는 다리로 땅을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수를 크게 센다.



〈그림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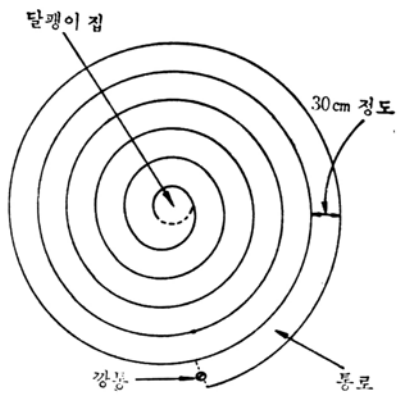
◦ 수비편은 공격편이 찍지 못하도록 자기 땅을 돌아 다니면서 공격편을 채야 한다.
◦ 공격편은 찍다가 수비편이 채려고 하면 다시 밖으로 도망가서 두 발로 다니다가 또 수비 몰래 찍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열 번을 찍고 공격편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 이긴다.
◦ 공격편은 한 번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치기 위해 원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이때, 땅에 두 발이 닿거나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이 열 번 찍고 원 '가'로 들어갈 때, 원 안에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공격편이 무조건 지게 된다.
◦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었거나, 공격편이 열 번 찍고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6) 달팽이 놀이

조사 일자 : 1987 1월 6일
제 보 자 : 박 민규(9세, 남, 국민학교 2년생).
최 규정(10세, 남, 국민학교 3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지역에서 '달팽이 가생'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땅
3) 놀이자 : 남자. 열 명 이상이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술레 한 사람을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 술레는 달팽이 밖에, 술레 아닌 사람은 달팽이 통로에 줄을 서서 있는다.
◦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차서 멀리 보낸 후, 모두 달팽이 집으로 뛰어 간다.
◦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가 제자리에 놓고 통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치러 간다.



〈그림 174〉 원의 수는 되도록 많이 한다.

◦ 술레는 달팽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칠 수 없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술레가 된다. 채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술레가 다시 정해지거나, 술레가 한 사람도 치지 못할 때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7) 깡통 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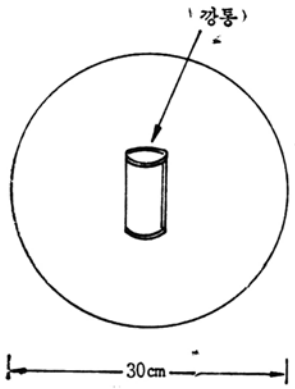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박 민규 · 최 규정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만한 큰 나무들이 있는 빈 터

3) 놀이자 : 남자 10명 이상이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75〉

◦가위 바위 보로 술레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가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멀리 차보내면, 모두 도망간다.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다른 사람을 채러 다닌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실격이 된다.

◦도망다니던 사람이 술레 몰래 원으로 와서 원을 밟으면 술레가 챌 수 없다. 원을 찍은 사람은 그 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모두 원을 밟으면 술레가 다시 술레된다.

◦원을 밟은 사람 이외에 나머지 사람이 술레에게 모두 채였을 경우, '가위 바위 보'로 술레한 사람을 정한 후 다시 시작한다.

8) 색깔 찾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김 영규(12세, 남, 국민학교 5학년)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고남면 고남리 1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색깔 놀이', 또는 '색깔 찍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 여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한다. 6~7명이면 놀이가 가능하다.

4) 놀이 방법

◦가위 바위 보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는 원 안에서 등을 구부리고 발목을 손으로 잡고 서 있는다.

◦술레가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술레의 등을 짚고 뛰어넘으면서 마음대로 색깔 이름 외친다.

◦등을 넘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지명한 색깔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 색깔을 찾아 짚고 있는다.

◦술레는 다른 사람이 색깔을 찾기 전에 쫓아가 채야 한다. 색깔을 찾기 전에 채인 사람은 술레가 된다. 채인 사람이 많을 경우, '가위 바위 보'로 술레 한 사람을 정하고 다시 시작한다.

◦다른 사람이 술레 등을 짚고 넘을 때 못 넘으면, 넘지 못한 사람이 곧바로 술레가 된다. 술레가 쓰러졌을 때는 다시 넘게 한다.

15. 安眠邑 黃島里의 藝能과 藝能傳承

1) 새 발 뛰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박 완용(14세, 남, 중학교 1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40번지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사방놀이'의 일종으로, 조사 지역에서는 '오리까'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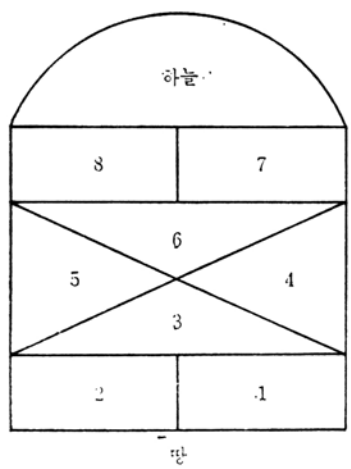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한다. 단 둘이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일 때는 편을 나누어서 하나 4~6명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한 발로 찰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돌 한 개, 이를 '목자'라 한다.

5) 놀이 방법

가. 1단

◦목자를 1칸에 던져 놓고 2칸부터 8칸까지 몸만 간다. 이때, 2·3칸은 앙감질로, 4·5칸은 한 발씩 동시에 놓고, 6칸은 앙감질로 7·8칸은 한 발씩 동시에 놓는



〈그림 176〉

다.

◦ 7·8칸에서 몸을 돌려 역순으로 2칸까지 와서 1칸에 놓인 목자를 집어 들고 '땅'으로 나온다. 발 동작은 위와 같다.

나. 2단

◦ 목자를 2칸에 던져 놓고 1칸부터 8칸까지 몸만 간다. 다음 동작과 요령은 1단과 같다. 이때, 오고 갈 때 목자가 놓인 칸은 건너 뛴다.

다. 3단

◦ 목자를 3칸에 던져 놓고 1·2칸부터 7·8칸까지 몸만 간다. 이때, 1·2 칸과 4·5칸은 한 발씩 동시에, 6칸은 앙감질로, 7·8칸은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되돌아 올 때에는 위 방법의 역순으로 4·5칸에 와서 목자를 집고, 1·2 칸을 거친 다음 '땅'으로 나온다.

라. 4단

◦ 목자를 4칸에 던진 다음 1·2칸부터 7·8칸까지 몸만 간다. 이때, 1·2칸은 한 발씩 동시에, 3칸, 5칸, 6칸은 앙감질로, 7·8칸은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 되돌아 올 때의 요령과 발 동작은 앞과 같다.

마. 5단

◦ 목자를 5칸에 던져 놓고 4단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바. 6단

◦ 목자를 6칸에 던져 놓고 1·2칸부터 7·8칸까지 몸만 간다. 이때, 1·2 칸은 한 발씩 동시에, 3칸은 앙감질로, 4·5칸은 한 발씩 동시에, 9칸은 건너 뛰고, 7·8칸은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 7·8칸에 뒤돌아 목자를 집고 역순의 요령으로 되돌아 온다.

사. 7단

◦ 목자를 7칸에 던져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때, 6칸에서 8칸으로 앙감질로 갔다가 8칸의 목자를 든다.

아. 8단

◦ 목자를 8칸에 던져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때, 6칸에서 7칸으로 앙감질로 갔다가 8칸의 목자를 든다.

자. 하늘

◦ 목자를 하늘에 던지고, 1·2칸에서 7·8칸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 다음 목자를 집는다.

◦ 한 쪽 다리를 구부려 무릎 뒤 쪽에 목자를 넣고 앙감질로 되돌아 온다. 이때 7칸부터 1칸까지 모두 밟아야 한다.

차. 던지기

◦ '땅'에서 뒤로 돌아 목자를 머리 위로 던진 다음 1·2칸부터 7·8칸까지 간다. 이때, 목자가 떨어진 칸은 건너 뛴다. 가는 요령은 1~8단까지의 발 동작과 같다.

◦ 되돌아 올 때에는 목자가 떨어진 칸의 앞 칸에서 목자를 집고 그 칸에 표시를 한 다음 '땅'으로 나온다.
◦ 다시 던진 다음 위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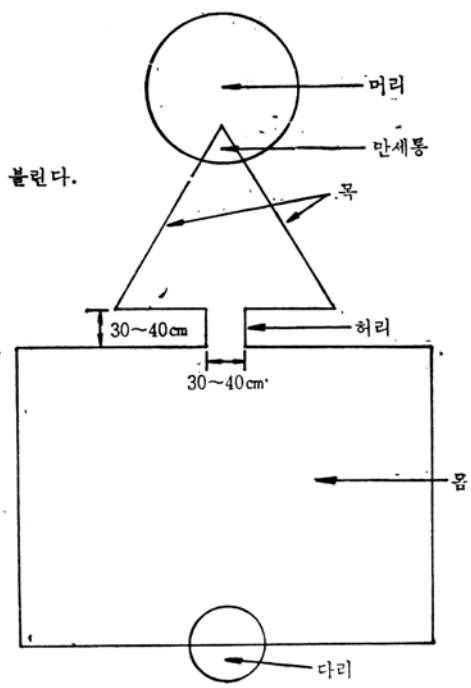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순서로 하면서 칸에 표시가 다 되었을 때 많이 표시하는 편이 이긴다. 또는 상대편의 표시가 많아서 건너가지 못할 경우에도 한 판이 끝난다. 편을 짜서 할 경우, 자기편 한 사람이 죽으면 상대편에게 곧바로 순서가 넘어간다.

실격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하는 사람이 선을 밟았을 때.
◦ 목자를 땅에 떨어뜨렸을 때.
◦ 앙감질하다가 두 발을 땅에 닿았을 때.
◦ 던진 목자가 선에 닿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
◦ 던진 목자가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에 들어갔을 때, 이때, 자기편 표시를 지운다.
◦ 던진 목자가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 들어갔을 때, 이때, 상대편 표시를 지운다.
◦ 던진 목자가 '하늘'에 떨어졌을 때.

2)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박 완용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가상'으로 불린다.



〈그림 177〉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머리'에 수비편은 '몸'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직접 '다리'에 가거나, 앙감질로 나와 '허리'를 뛰어 넘은 후 양 발로 걸

어서 '다리'에 간다.

◦ '다리'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잦히고 만세통을 밟은 다음 자기 진영인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 수비편은 '몸'안에서 방어하거나, '몸'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다리'부분을 지나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목'을 뛰어 넘으면 양 발로 다니면서 공격자를 막을 수 있다.

◦ '허리'를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 밖에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다리'를 밟고 지나가야한다.

◦ '몸'안에서 양 편 모두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거나 선 밖으로 밀려나가면 실격이 된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게 끌려 나오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갔을 때는 무방하지만, 원〔머리〕 안에서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끌려 들어간 수비편도 상대편을 밀어내어서 실격시킬 수 있다.

◦ '머리·몸'밖에 있던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만세통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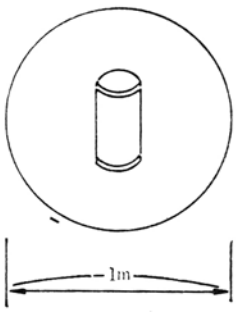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만세통을 밟고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이때,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이때,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3) 깡통차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박 완용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숨바꼭질〉의 변형된 놀이이다.

1) 노는 시기 : 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장소가 있는 공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8~10명 정도의 인원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깡통 1개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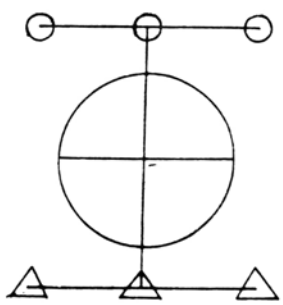
〈그림 178〉

◦가위 바위 보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세 번 멀리 차서 보낸다
◦술레가 깡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두들 도망가서 숨는다.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만약, 숨은 사람 중 A를 찾았을 때, 원으로 재빨리 돌아와서 깡통을 밟으면서 '깡'이라고 외치면, A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A가 술레보다 먼저 와서 깡통을 차면 실격이 안된다. 이때,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놓고 다시 찾아야 한다.
◦술레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숨었던 사람이 나타나서 깡통을 세 번 차면 실격되었던 사람은 다시 살게 된다.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실격시킬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한다. 술레가 숨은 사람을 모두 찾아 실격시키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실격된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레 1명을 정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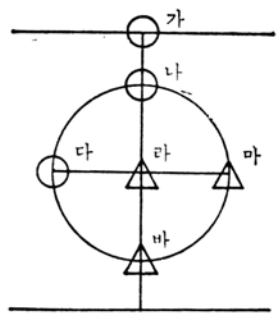
4) 고누 : 호박고누 · 줄고누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박 완용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호박고누를 조사 마을에서 '호박장기'로 부르며, 줄고누를 '장기판'으로 대체해서 두고 '장기고니'라 부른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그늘이나 대청마루
3) 놀이자 : 남자 2명
4) 놀이 용구 : 말 3개씩(호박고누), 장기알(줄고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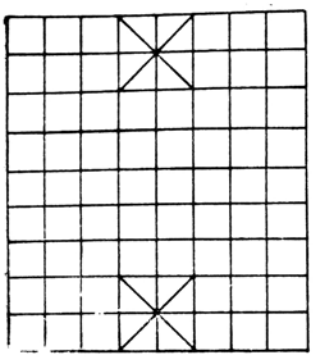
〈그림 179〉



〈그림 180〉

5) 놀이 방법

가. 호박고누



〈그림 181〉

◦말판의 횡선에 세 개씩 말을 놓고 한 칸씩 교대로 움직인다.

◦계속 한 칸씩 이동하면서 상대편 말이 움직일 수 없도록 진로를 차단시키면 이긴다.

◦자기집으로 후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림 180〉과 같이 ○가 가·나·다에 있고, 가가라·마·바에 놓이게 될 때, ○는 진로가 막히게 되어 더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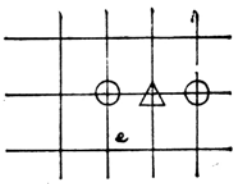
나. 줄고누

◦장기판 끝줄에 장기알을 일렬로 각각 놓는다. 이때, 포와 졸은 사용하지 않는다.

◦장기알을 '차'처럼 교대로 움직인다.

◦장기판의 줄을 따라서 좌우로 한 번씩 움직여서, 〈그림 182〉과 같은 꼴이 되면 ▲를 잡아 먹는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상대편 말을 잡아 하나만 남게 하면 이긴다.

◦장기판의 '궁' 안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동한다.



〈그림 182〉

5) 돌차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박 완용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목자차기'라고도 하며, '수우미양가'로도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한 편에 2~3명 정도라야 적당하다. 또는, 2명이 해도 무방하다.

4) 놀이 용구 : 목자(넓적하고 둥근 돌) 1개씩

5) 놀이 방법

가. 1단

◦1칸에 목자를 던지고 앙감질로 2칸으로 차서 보낸 다음 2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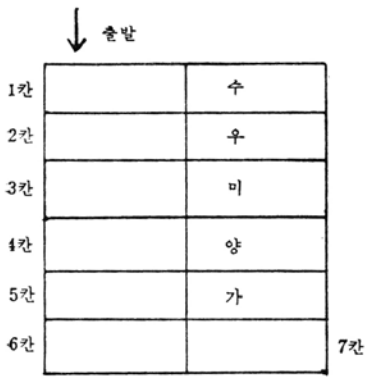
◦2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3칸으로 보낸 다음 3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3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4칸으로 보낸 다음 4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 4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5칸으로 보낸 다음 5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 5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6칸으로 보낸 다음 6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 6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7칸으로 보낸 다음 7칸에 모둠발로 들어간다.
◦ 7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수·우·미·양·가'칸에 보낸 다음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계속한다.

1. 목자가 '수'칸에 들어갔을 때 : 모둠발로 가칸부터 수칸까지 간 다음,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1칸으로 간다. 그리고, 1칸에서 앙감질로 목자를 출발지로 차 보낸 다음 나온다.

2. 목자가 '우'칸에 들어갔을 때 : 앙감질—모둠발—앙감질—모둠발의 순서로 우칸까지 가서 목자를 집고 뒤돌아 1칸까지 온 다음 밖으로 나온다. 이때, 발동작은 '모둠발(우칸)—앙감질(미칸)—모둠발(양칸)—앙감질(가칸)— 모둠발(7칸)—모둠발(6칸)— 앙감질(5칸)—모둠발(4칸)—앙감질(3칸)—모둠발(2칸)—앙감질(1칸)'로 해야 한다.



〈그림 183〉

3. 목자가 '미'칸에 들어갔을 때 : 앙감질로 미칸까지 간 다음, 목자를 앙감질로 차 보내면서 1칸까지 온다. 그리고 밖으로 목자를 차 내고 나온다.

4. 목자가 '양, 가'칸에 들어갔을 때 : 실격이 된다.

나. 2단

◦ 목자를 2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1칸)—모둠발(2칸)로 2칸까지 간 다음,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3칸으로 보낸다. 그리고, 모둠발로 3칸에 들어간다.
◦ 3칸부터 하는 요령은 1단과 같다.

다. 3단

◦ 목자를 3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1칸)—모둠발(2칸)—앙감질(3칸)로 3칸까지 간다.
◦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4칸으로 보낸 다음 모둠발로 4칸에 들어간다.
◦ 4칸부터 하는 요령은 1단과 같다.

라. 4단

◦ 목자를 4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1칸)—모둠발(2칸)—앙감질(3칸)—모둠발(4칸)로 4칸까지 간다.
◦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5칸으로 보낸 다음, 모둠발로 5칸에 들어간다.
◦ 5칸부터 하는 요령은 1단과 같다.

마. 5단

◦ 목자를 5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모둠발—앙감질—모둠발—앙감질로 5칸까지 간다.
◦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6칸으로 보낸 다음, 모둠발로 6칸에 들어간다.

바. 6단

◦ 목자를 6칸에 던져 놓고, 앙감질—모둠발—앙감질—모둠발—앙감질—모둠발로 6칸까지

간다.

◦앙감질로 목자를 차서 7칸으로 보낸 다음, 모둠발로 7칸에 들어간다.

◦7칸부터 하는 요령은 1단과 같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단부터 6단까지 먼저 하는 편이나 사람이 이긴다.

실격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는 사람이 선을 밟았을 때

◦하는 사람의 발동작이 틀렸을 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았을 때

◦찬 목자가 '양·가'칸에 들어갔을 때

* 자기편 중 한 사람이라도 실격이 되면 곧바로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6) 구슬치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강 종오(13세, 남, 중학교 1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안면읍 황도리 1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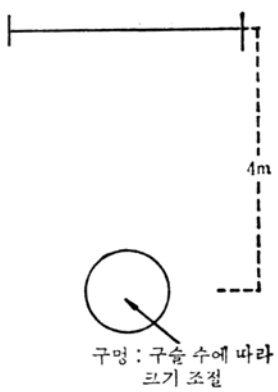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철

2) 노는 장소 : 마당이나 골목길

3) 놀이자 : 남자. 2명 이상이면 가능하나, 5~6명 정도가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구슬 여러 개

5) 놀이 방법



〈그림 184〉

◦구슬을 처음에 작정한 수대로 각자 구멍에 모아 넣는다.

◦엄지구슬〔이를 '탱피'라고 한다〕을 원에서 선 가까이로 각자 던진다.

◦옆 선 밖으로 나가면 '낙'이 되어 끝찌가 되고, 선 가까이 간 순서로 차례를 정한다.

◦차례대로 선에서 구멍 안에 든 구슬을 엄지구슬로 던져 파낸다. 이때, 엄지구슬이 구멍 안에 들어가면 실격이 되고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구멍 안의 구슬을 파내면 구슬이 정지한 곳에서 또 할 수 있다. 구슬을 파내지 못했을 때에는 그 구슬을 그 정지한 곳에 두고, 다음 순서가 또 던진다.

◦구슬을 파내거나 상대편 구슬을 맞히면 계속할 수 있다. 파낸 구슬은 자기가 갖고, 상대

편의 엄지구슬에 맞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구멍 안의 구슬을 다 파내거나 상대의 엄지구슬을 모두 실격시키면 그 판은 끝난다.

◦ 판이 끝나면 다시 작정한 수의 구슬을 구멍에 넣고 시작한다.

7) 집 지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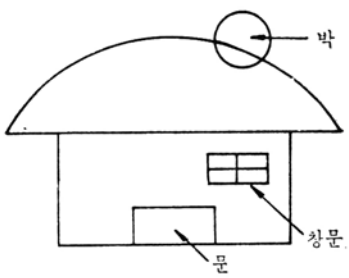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강 종오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아카시아 잎 메기'와 비슷한 놀이로서, '집지우기'와 반대인 '집 짓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그늘진 나무 밑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가 많이 한다. 2~3명 정도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85〉

◦ 땅 바닥에 각자 그림과 같이 집을 그려놓고 마주 앉아 '가위 바위 보' 한다.

◦ 이긴 사람이 하나씩 지워 나간다. 박은 1번에, 창문은 6번에, 문은 3번에 지운다. 그러므로, 집을 다 지우려면 15번을 이겨야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을 다 지운 사람이 이긴다.
※ 이와 반대로 '집 짓기'를 한다.

◦ 마주 앉아 '가위 바위 보'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그려 나간다.

◦ 제일 먼저 집을 완성한 사람이 이긴다.

8) 자동차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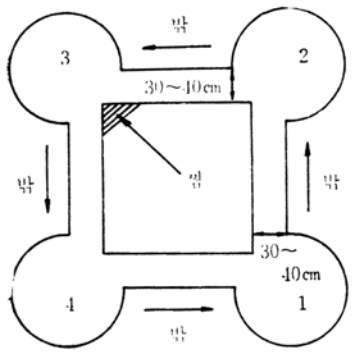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강 종오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사항 : 이 놀이는 '자동차 놀이'의 변형으로, 조사 마을에서는 '구르모 가상'이라 부른다.

1) 노는 시기 : 가을·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86〉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외곽원 1에 들어가고, 수비편은 사각형 안이나 밖에서 있는다.

◦ 공격편은 반시계 방향으로(1→2→3→4→1) 길을 따라서 한 바퀴 돈 다음 사각형 안의 '찜'을 밟으면 이긴다. 또는, 한 바퀴 돌지 않고 1번 원에서 직접 사각형 안으로 앙감질로 들어가 '찜'을 찍어도 된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이동을 못 하도록 사각형 안과 '밖'을 오가면서 막아야 한다.

◦ 수비편은 공격자를 끌어내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선 밖으로 나가게 해서 실격시킨다.

◦ 공격편도 수비자를 끌어내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킨다.

◦ 원과 원 사이의 통로에서는 공격편이 불리하기 때문에 재빨리 통과해야 한다.

◦ 공격편이 수비편 모두를 실격시키거나, '찜'을 찍으면 이긴다. 이때,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 수비편이 공격편 모두를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이때, 수비와 공격을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9) 달팽이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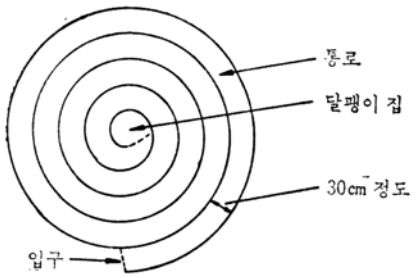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보자 : 강 종오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달팽이 사려 갑시다'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가 많이 한다. 7~8명 정도의 인원이면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돌맹이 1개(이를 '달팽이'라 부른다.)



〈그림 187〉

5) 놀이 방법

◦가위 바위 보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술레는 원 입구에, 술레 아닌 사람은 '달팽이 집' 안에 들어간다.

◦술레는 제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간격을 적당히 떼어 일렬로 선 다음, "달팽이 사러 갑시다."하고 계속 외치면서 통로를 따라 입구까지 뛰어나온다.

◦입구에 도달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사는 사람〔맨처음 사람〕: 달팽이 주세요.
술레 : 여기 있어요. (달팽이를 건네준다.)
사는 사람 : 얼마요?
술레 : ××원
사는 사람 : 산에 불이 났네!
술레 : (산을 쳐다본다)

달팽이를 사는 사람이 "버스가 온다.", "비행기 간다.", "산에 불이 났다."등의 말을 하면서 달팽이 집을 향해 뛰어간다.

◦술레는 '버스 오는 길'이나 '하늘'이나 '산'을 바라본 다음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간다.

◦술레는 도망가는 사람이 달팽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쳐야 한다. 이때, 채인 사람은 술레가 된다.

◦술레가 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모두 달팽이 집에 들어가면 다시 시작한다.

◦달팽이를 사려고 대화를 나누기 전에 술레와 달팽이 사는 사람의 거리가 좁을 때는 "뒤로 뒤로 갑시다."하고 외쳐 뒤로 물러선 다음 달팽이를 산다. 간격이 너무 좁으면 도망갈 때 채이기 쉽다.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10) 얼음 불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강 종오
인적 사항 :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으나 가을철에 많이 함.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한다.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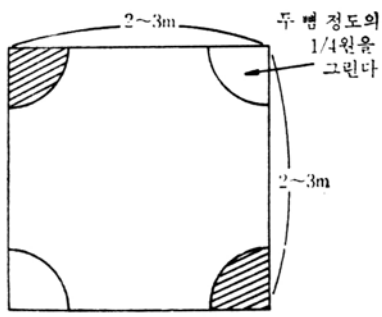
4) 놀이 방법

◦ 술레 한 사람을 뽑고, 도망다닐 수 있는 범위를 적당히 정한다.
◦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러 다니고, 술레 아닌 사람은 술레를 피해 도망다닌다.
◦ 술레가 치려고 할 때, 도망다니던 사람이 "얼음"하고 외치면 술레가 챌 수 없다. 처도 상관없으나, '얼음'한 사람은 정지한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
◦ 술레가 다른 사람을 치면,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다른 사람이 술레 몰래 '얼음'된 사람을 "불"하면서 쳐 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11) 땅 재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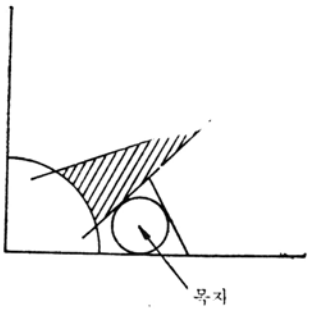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6일
제 보 자 : 강 종오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땅 따먹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한 편에 두 명씩
4) 놀이 용구 : 목자 1개씩(넓적하고 조그만한 돌이나 병 마개)
5)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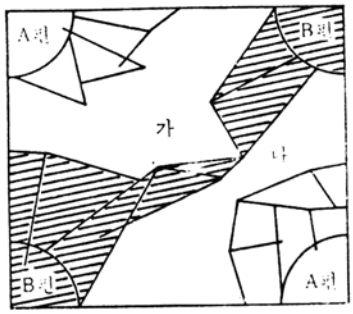


〈그림 188〉

◦ 자기편끼리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앉는다.
◦ 모서리를 원심으로 삼아 두 뼘 정도의 1/4원을 각자 그린다.
◦ 상단의 두 사람씩, 하단의 두 사람씩 서로 상대해서 따로 시작한다.
◦ 자기집에서 목자를 한 번 치고 나갔다가 두 번째에 자기집으로 들어와야 한다. 들어오지 못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된다. 선에 닿아도 실격이 된다.
◦ 목자를 치고 나갔다 들어온 경로에 선을 그어 자기 땅으로 하고 다시 시작한다.
◦ 그림 189와 같이 목자의 길이와 틈이 같을 때 목자에 접선을 그어 자기땅으로 한다.
◦ 대각선으로 마주한 자기편의 늘린 땅이 서로 맞닿으면 양 쪽 중에 하나를 갖는다. 〔그림 190 참조〕 "어느 것 줄래?"하고 물으면, '가' '나' 중 좁다고 생각되는 땅을 가리키면



〈그림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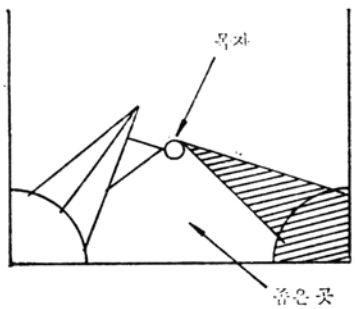
〈그림 190〉

서 "이 땅 가져" 한다. '가'를 주었을 경우, '가'안에 자리잡은 A편은 땅을 모두 넘겨주고 맞은 편에 있는 자기편으로 자리를 옮겨서 해야 한다.

◦ 자기 목자가 상대편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늘린 자기땅을 모두 지워야 한다. 따라서, 상대편 땅은 목자로 가서 뺏을 수 없다.

◦ 자기땅과 상대편 땅 사이가 목자 길이만큼 되면〔그림 191 참조〕 좁은 쪽을 자기땅으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다 차지하는 편이 이긴다.



〔그림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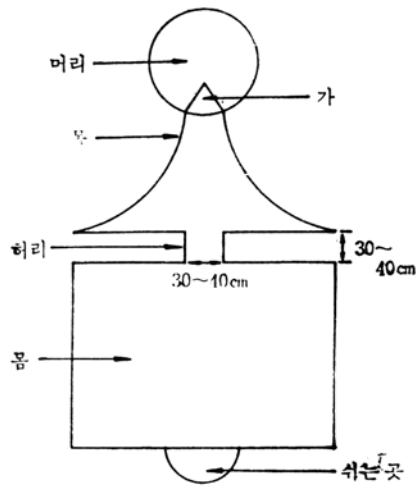
16. 遠北面 梨谷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김 종심(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오징어 땅콩'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그림 192〉

◦공격편은 '머리'에, 수비편은 '몸'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직접 '쉬는 곳'으로 가거나, 앙감질로 나와 '허리'를 뛰어 넘은 후 양 발로 걸어서 '쉬는 곳'으로 간다.

◦'쉬는 곳'으로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인 '몸'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젖히고 '가'를 밟으면서〔이를 '찜'한다고 함〕 공격편 진영인 '머리'로 들어가면 이긴다. 이때, '허리'를 넘지 않은 공격자는 '앙감질'로만 들어가야 한다.

◦수비편은 '몸'안에서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몸'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쉬는 곳'을 밟고 나와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목'을 뛰어 넘으면 양 발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격자를 막을 수 있다.

◦'허리'나 '목'을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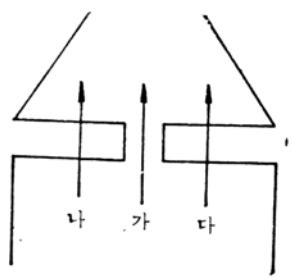
◦밖으로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쉬는 곳'을 밟고 들어가야 한다.

◦'몸'안에서 양 편 모두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거나 선 밖으로 밀려나가면 실격이 된다.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편에 의해 끌려 나가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끌려 들어가도 실격이 된다.

◦'머리·몸' 밖에 있는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머리'안에 있는 공격편이 '가'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그림 193〉

◦공격자가 '가'를 밟고 '머리'에 들어갈 때,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머리'안에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앗싸'이라고 해서 그 판을 지게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 진영을 공격할 때 '가'방향으로 연결 통로를 지나야 한다. 단, '나·다' 방향으로 건너 뛸 수는 있으나 '찜'을 할 수 없다. 이때, '찜'하면 '앗싸'이 되어 공격편이 지게 된다.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

라도 '가'를 밟고 '머리'에 들어가면 이긴다.

◦ 공격편이 '앗싹'되거나,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하나,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2) 육해공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김 종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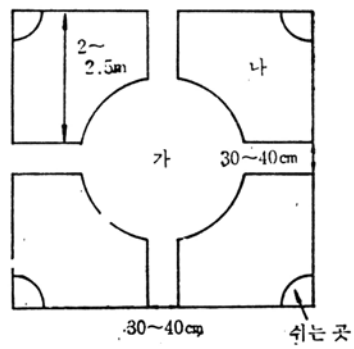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세 편으로 나눌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최소 12명 이상이라야 한다. (한 편에 4명씩)

4) 놀이 방법

◦ 세 편으로 가른다. 세 편의 대표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첫째로 이긴 편이 '공군'이 되고, 둘째로 이긴 편이 '육군'이 되며, 마지막 진 편이 '해군'이 된다.



〈그림 194〉

◦ 해군은 '가'에, 육군은 '나'에, 공군은 '밖'에 각각 들어간다.

◦ 해군은 '가'안에서는 양 발로, 밖에서는 앙감질로 다닌다.

◦ 육군은 '나'안에서는 양 발로 네 곳을 넘어 다니고, 밖에서 앙감질로 다닌다.

◦ 공군은 양 발로 '가·나'와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 '쉬는 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다.

◦ '나'에서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나'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쉬는 곳'을 밟아야 한다.

◦ 세 편이 각자 동시에 싸울 수도 있고, 어느 두 편이 연합을 해서 다른 한 편을 공격할 수 있다. 또, 한 편은 가만이 있고 두 편만 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남은 두 편끼리 최종 결전을 해서 승부를 가름한다.

◦ 서로 밀고 당겨서 상대편을 밖으로 끌어내거나 안으로 밀어넣거나, 선을 밟게 해서 실격시킨다. 또는, 앙감질할 때 양 발을 땅에 닿게 해서 실격시킨다.

◦ 공군은 아무 곳에서나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해군과 육군은 자기 진영 이외에서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상대편을 모두 실격시키고 남은 한 편이 이긴다.

◦새로 시작할 때에는 제일 먼저 실격된 편이 해군이 되고, 이긴 편이 공군이 되며 나머지 편이 육군이 된다.

3) 천딩뺏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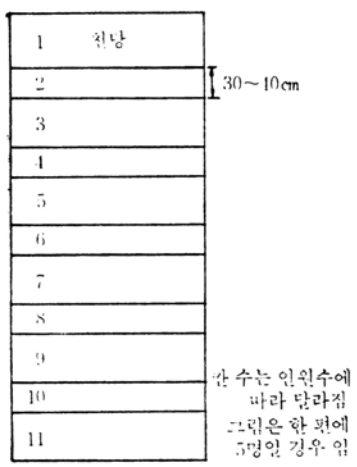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김 종심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천당갖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구별없이 다 한다.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95〉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천당'에, 수비편은 '2·4·6·8·10'칸에 각각 들어간다. 〔한 칸에 한 명씩 들어간다. 따라서, 인원수가 많아지면 칸수도 자연 늘어나게 된다. 옆 그림의 경우, 한 편에 5명씩 할 수 있다.〕

◦공격편은 '천당'에서 '3·5·7·9'칸을 지나 11칸까지 왔다가 다시 '천당'까지 되돌아 가면 이긴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자를 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자나 공격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다만, 공격자가 다음 칸으로 뛰어 넘기 위해 자기가 있는 칸의 측면 선을 한 발로 밟고 몸을 밖으로 빼도 무방하다.

◦공격자가 11칸까지 갔다가 3칸에 되돌아 와 '천당'으로 들어갈려고 할 때 '천당'에 자기 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앗싸'이 되어 그 판을 지게 된다.

◦수비자는 공격자에 의해 실격당할 수 없고,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갔을 때만 실격이 된다.

◦수비편이 공격편 모두를 실격시키거나 공격편이 '앗싸'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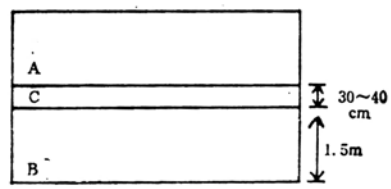
◦공격편이 11칸까지 갔다가 천당으로 돌아오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4) 일곱 발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김 수임(11세, 여, 국민학교 3학년)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일곱 발짝'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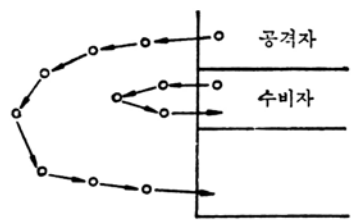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그늘진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최소한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A칸에, 수비편은 B칸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A칸에서 B칸으로 직접 뛰어 넘는다. 또는, A칸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B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일곱 발'만에 들어가야 한다. '일곱 발'을 못 채우거나 넘으면 실격이 된다.



〈그림 196〉

◦공격편은 C칸에 있는 수비편을 피해서, A칸에서 B칸으로, B칸에서 A칸으로의 왕복을 5번 하면 이긴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직접 넘지 못하도록 치거나, 공격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따라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수비편은 '두 발'만에 나가서 '두 발'만에 C칸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이때, '세 발'까지 나갔을 때에는 '한 발' 만에 되돌아 와야 한다. 〔그림 197 참조〕 정해진 '발'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넘으면 실격이 된다. 선을 밟아도 실격이 된다.



〈그림 197〉

◦수비자에게 채이거나 선을 밟은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5번 왕복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 모두를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5) 십자가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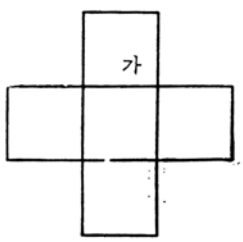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김 수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가'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초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대부분 남자들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198〉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 사각형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도는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대로 바깥의 사각형을 한 바퀴 돌면 '한 통'이 된다. 모두 5통이 되면 이긴다. 이때, 작정한 방향은 바꿀 수가 없다. 공격편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밖으로 나간 수비자는 반드시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공격자가 다른 칸으로 뛰어 넘을 때 수비자는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자는 가운데 사각형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가운데 사각형으로 뛰어넘을 때, 공격자는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온 수비자는 실격이 된다.

◦자기편 진영에서 넘어져도 무방하다. 선을 밟은 수비자나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5통이 되면 공격편이 이긴다. 또,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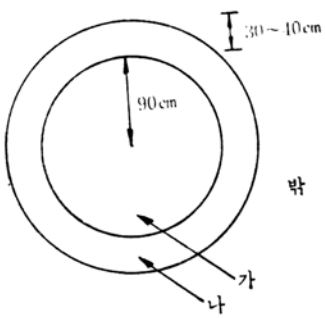
6) 꽃단지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김 수임
인적 사항 :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열 점 찍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그림 199〉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안 원 '가'안에, 수비편은 바깥 원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원 '가'안에 있다가 수비망을 한 번 이상 밟고 밖으로 나온다. 이때, 수비편은 공격편이 못 나가도록 손으로 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앙감질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큰 원과 밖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그림 200 참조〕 원 안에 있는 다리로 땅을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수를 크게 센다.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 땅을 돌아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다시 밖으로 도망가서 앙감질로 다니다가 또 수비자 몰래 찍는다. 이때, 수비자도 앙감질로 밖으로 나가 공격자를 칠 수 있다.


〈그림 20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공격편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 이긴다. 들어갈 때 "찜"하고 소리친다.

◦공격편은 한 번에 계속해서 열 점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 점'이 되면 된다.

◦공격편이 열 번 찍고 원 '가'로 들어갈 때, 원 안에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들

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앗싹'으로 간주되어 공격편이 무조건 지게 된다.

- 수비편은 원 '가'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되나, 공격편은 어떤 선이라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자나 공격자가 밖으로 나와서 넘어지거나, 양 발이 땅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이 '열 점'을 하고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앗싹'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7) 돌차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김 종심 · 김 수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비석차기〉 〈사방놀이〉등으로 불리는데, 조사 마을에서는 '한도시거리'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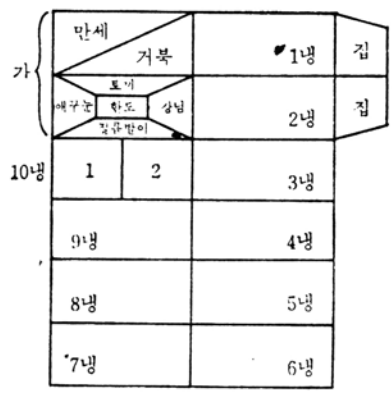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할 때에는 3명 이내여야 한다. 한 편에 2명씩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네모지거나 동그랗고 넓적한 돌 1개씩. 크기는 가로 10 cm, 세로 7 cm 정도.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하는 차례를 정한 다음, 놀이 순서에 준해서 한다. 〔그림 201의 경우, 한 편에 2명씩 한다. 1 : 1로 할 때에는 '집'을 하나만 그린다.〕

가. 1냉



〈그림 201〉

- 집에서 목자를 '1냉'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차서 '2냉'으로 보낸다. 앙감질로 2냉에 들어가서 3냉으로 차서 보낸다. 이런 방법으로 6냉까지 간 다음 방향을 바꾸어 7냉으로 보낸다. 발로 선을 밟거나 목자가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 7냉에 모둠발로 들어가 목자를 집어 '가' 부분으로 던진다. 이때, 던진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에 닿으면 실격이 된다. 글자가 적힌 칸에 바르게 들어가면 8 · 9냉은 앙감질로 가서 10냉의 1에는 왼발, 2에는 오른발을 동시에 놓는다. 다음 순서는 목자가 멀어진

칸의 글자에 따라 달리 한다.

1. 목자가 '절름발이'에 떨어졌을 때

10냉에서 목자는 그냥 두고 뒤로 돌아서 9냉부터 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나온다. 다시 1냉부터 6냉까지는 앙감질로, 7냉은 모둠발로, 8·9냉은 앙감질로 가서 10냉의 1에는 왼발, 2에는 오른발을 동시에 놓는다. 그 자리에서 몸을 숙여 목자를 집고 2냉 1냉을 앙감질로 거쳐 집으로 들어간다. 목자를 집을 때 움직이거나, 목자를 들고 나가다가 떨어뜨리면 실격이 된다.

2. 목자가 '장님'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지 않고 뒤로 돌아 9냉부터 1냉을 거쳐 앙감질로 집까지 나온다. 다시 1냉부터 7냉까지 눈을 감고 모둠발로 가서, 눈을 뜨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눈을 감고 8·9냉을 거쳐 10냉까지 간다. 이때, 10냉의 1·2칸에 한 발씩 놓는다. 10냉에서 눈을 뜨고 목자를 집은 다음 2냉 1냉을 앙감질로 거쳐 집으로 들어간다. 편을 갈라 두 명씩 할 경우 자기편이 틀리면 다른 사람이 자기 몫을 일단 하고 틀린 사람의 몫을 해 줄 수 있으나, 전 구간을 앙감질로 해야 한다.

3. 목자가 '토끼'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지 않고 뒤로 돌아 9냉부터 1냉을 거쳐 앙감질로 집까지 온다. 1냉부터 10냉까지 토끼 흉내를 내면서 모둠발로 깡총깡총 뛰어간다. 이때, "토끼 토끼"하고 외치면서 간다. 10냉에서 몸을 숙여 목자를 집고 2냉 1냉을 거쳐 앙감질로 집으로 온다.

4. 목자가 '한도'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어 들고 2냉 1냉을 거쳐 앙감질로 집까지 온다.

5. 목자가 '거북'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지 않고 뒤로 돌아서 9냉부터 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온다. 거북이 흉내〔양 손의 인지·중지로 땅을 짚는다.〕로 10냉까지 간 다음, 몸을 숙여 목자를 집고 2냉 1냉을 거쳐 앙감질로 집까지 온다.

6. 목자가 '만세'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지 않고 뒤로 돌아서 9냉부터 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온다. 다시 1냉부터 10냉까지 모둠발로 가는데, 양 손을 높이 쳐들고 "만세 만세" 외치면서 간다. 10냉에서 몸을 숙여 목자를 집어 든 다음 2냉 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온다.

6. 목자가 '애꾸눈'에 들어갔을 때

10냉에서 목자를 집지 않고 뒤로 돌아서 9냉부터 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나온다. 다시 1냉부터 10냉까지 한 쪽 눈을 감고 모둠발로 뛰어서 간 다음 목자를 집는다. 목자를 집고 감았던 눈을 뜬 다음 2냉·1냉을 거쳐 집까지 앙감질로 돌아온다.

나. 2냉

◦집에서 목자를 '2냉'에 던쳐 놓고 1냉을 거쳐 2냉까지 앙감질로 간다.

◦2냉부터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가는데, 그 방법과 순서는 〈1냉〉과 동일하다.

다. 3냉

◦집에서 목자를 '3냉'에 던져 놓고 1냉·2냉을 거쳐 3냉까지 앙감질로 간다.

·3냉부터 앙감질로 목자를 차면서 가는데 그 방법과 순서는 〈1냉〉과 동일하다.

라. 4냉~7냉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마. 8냉

◦집에서 목자를 8냉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8냉까지 갔다가 목자를 집어 들고 7냉으로 나온다.

◦7냉에 서서 목자를 던지는데 〈1냉〉의 방법과 순서에 따른다.

바. 9냉

◦집에서 목자를 9냉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9냉까지 갔다가 목자를 집어 들고 7냉까지 나온다.

◦다음 순서와 방법은 〈8냉〉과 같다.

사. 10냉

◦10냉의 1에 목자를 던져 놓고 10냉의 2까지 앙감질로 간 다음 목자를 집는다. 7냉으로 되돌아 온다.

◦다음 순서와 방법은 앞과 같다.

◦10냉의 2에 목자를 던져 놓고 10냉의 1까지 앙감질로 간 다음 목자를 집는다. 목자를 가지고 7냉으로 되돌아 온다.

아. 절름발이~만세냉

◦목자를 '가' 부분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던져 놓고 10냉까지 앙감질로 갔다가 목자를 집은 다음 7냉으로 돌아온다.

◦다음 순서와 방법은 앞과 동일하다.

* '가' 부분에 목자를 던지는 순서

절름발이→장님→애꾸눈→토끼→한도→거북→만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세냉'까지 먼저 하는 편이나 사람이 이긴다. 편 짜서 할 경우 자기편이 틀리면 남은 사람이 해준다. 이때에도 틀리면 상대편으로 순서가 넘어간다.

8) 뒷목자치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김 종심·김 수임

인적 사항 앞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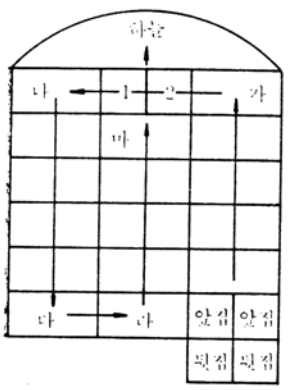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목자치기〉의 변형으로, 조사 마을에서 '애기 발자국'으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여자. 1 : 1로 하거나, 편을 짜서 할 때에는 3명 이내여야 좋다. 한 편에 2명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네모지거나 동그랗고 넓적한 돌 1개씩,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7cm 정도.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그림 202〉 2명씩 할 경우

5) 놀이 방법

◦먼저 하는 편 두 사람이 앞집·뒷집에 각각 선다.

◦앞집에서 있는 사람이 목자를 들고 앙감질로 ↑표의 '가' 까지 간다. 〔뒷집은 서서 기다린다.〕

·'가'에서 1·2칸을 앙감질로 뛰어 넘은 후 ↓표의 '다'까지 간다.

◦'다'에서 앙감질로 '라'를 거쳐 ↑표의 '마'까지 간 다음 1·2칸에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1에 왼발, 2에 오른발〕

◦1·2칸에서 '하늘'로 들어간 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목자를 머리 위로 던진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 위에 떨어지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되면 자기편의 한 사람이 계속하는데, 먼저 자기 몫을 하고 난 다음 실격된 사람의 몫을 해준다. 몫을 해주면 실격된 사람은 다시 산다.

◦하늘에서 뒤로 돌아 역순으로 나오는데, 1·2칸은 한 발씩 동시에 나머지 칸은 앙감질한다. 자기 목자가 떨어진 칸의 앞 칸까지 와서 목자를 집고 그 간에 자기편 표시를 한다.

◦자기편 표시가 된 칸을 뛰어 넘어 앙감질로 집까지 돌아온다.

◦다시 할 때는 앞과 같이 하는데, 자기편 표시가 있는 곳은 양 발로 들어가고 다른 칸은 앙감질로 하늘까지 간다.

◦하늘에서 목자를 던질 때,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자기편 표시로 바꿔서 자기편 것으로 만든다.

◦출발할 때 상대편 표시가 있는 곳은 앙감질로 건너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되, 상대편이 표시한 칸이 여러 개 연접해 있어 뛰어 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옮겨 주기'를 한다. 불리한 편이 원하는 대로 그 칸을 옮겨 표시해 준다. 또는, 칸을 서로 바꿀 수도 있다. 옮겨줄 곳이 없으면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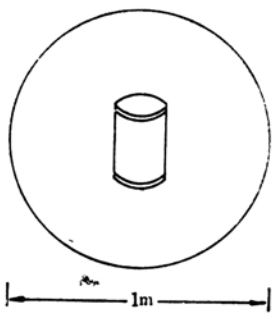
◦앙감질로 가다가 양 발이 땅에 닿거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던진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 위에 놓이면 실격이 된다.

9) 깡통차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김 종섭(15세, 남, 중학교 2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원북면 이곡리 2구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둘레에 숨을 장소가 있는 넓은 공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용구 : 깡통 1개
5) 놀이 방법



〈그림 203〉

◦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술레 한 사람을 정한다.
◦ 술레 아닌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통을 한 번 멀리 차서 보낸다.
◦ 술레가 깡통을 주우러 간 사이에 모두들 도망가서 숨는다.
◦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1에서 20까지 센 다음 숨은 사람을 찾으러 다닌다. 만약, 숨어 있는 사람 중 A를 찾으면, 원으로 재빨리 돌아와서 깡통을 밟으면서 '깡'이라고 외친다. 이때, A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A가 술레보다 먼저 와서 깡통을 차면 실격이 안된다. A가 깡통을 찼을 때 술레는 깡통을 주워다 제자리에 놓고 1에서 20까지 다시 센 후에 찾아야 한다.
◦ 술레가 찾으러 다니는 동안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서 깡통을 다시 차면 실격되었던 사람은 살게 된다.
◦ 술레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숨은 사람을 모두 찾아 실격시키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실격된 사람끼리 '가위 바위 보'해서 술레 1명을 정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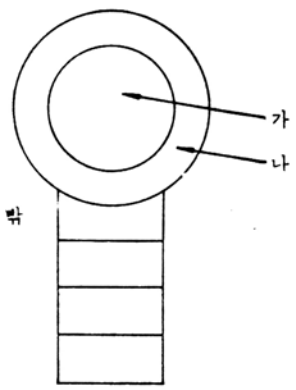
10) 발밟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김 종섭
인적 사항 앞과 같음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두렁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인원수는 4~5명이라야 적

당하다. 인원수에 따라 밑칸의 수가 늘어난다. 〔그림 204의 경우 4명이 할 수 있다.〕

4) 놀이 방법



〈그림 204〉

◦ 놀이자 전원이 '가위 바위 보'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 1번이 첫째 칸에. 2번이 둘째 칸에, 3번이 세째 칸에, 4번이 네째 칸에 각각 들어간다.

◦ 먼저 1번이 '나'를 뛰어넘어 원 '가'의 안을 밟고, '나'를 밟은 다음 밖으로 나간다. 이때, 2·3·4번은 제자리에 서 있는다.

◦ 2번이 1번 칸으로 걸어 나온 다음 1번과 똑같은 요령으로 밖으로 나온다. 이때, 밖에 서 있던 1번도 2번 동작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다. 2번이 나오면서 1번 발등을 밟을 수도 있고, 1번이 움직이다가 2번 발등을 밟을 수 있다. 밟힌 사람은 실격이 된다.

• 3번이 1번 칸까지 걸어나와 1번과 같은 요령으로 나오면서 1·2번 발등을 밟을 수 있다. 밖에 서 있던 1·2번도 3번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다가 상대방의 발등을 밟거나 피한다.

◦ 4번까지 다 나오면, 밖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차례 차례로 한 발씩 뛰면서 서로의 발등을 밟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밟히지 않도록 재빨리 피해야 하며 눈치껏 상대방의 발등을 밟아야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는데, 발등을 밟힌 사람은 실격이 되고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한다.

◦ 한 사람만 남으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이때, 제일 먼저 실격된 사람이 4번이 되고 두번째로 실격된 사람이 3번이 되며, 마지막으로 실격된 사람이 2번, 살아남은 사람이 1번이 되어 다시 시작한다.

◦ 밖으로 나갈 때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17. 梨園面 蒲地里의 藝能과 技競傳承

1) 십자가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조 순옥(13세, 여, 국민학교 6년생)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이원면 포지리 2구 543번지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십자가'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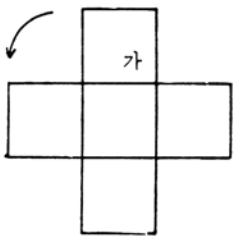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 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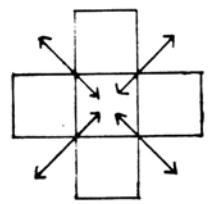


〈그림 205〉

◦공격편은 외곽 사각형인 '가'에,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이 반시계 방향으로 바깥의 사각형을 한 바퀴 돌면 '한 통'이 된다.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5통'이 되면 이긴다. 이때, 방향을 바꾸어 돌거나 지나친 칸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가운데 사각형과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다. 〔그림 206 참조〕 밖으로 나온 수비자는 앙감질하지 않고 양 발로 다닐 수 있다.



〈그림 206〉

◦공격자가 다른 칸으로 뛰어 넘을 때 수비자는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이때,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수비자가 가운데 사각형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가운데 사각형으로 뛰어 넘을 때, 공격자는 수비자를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때,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공격자 진영으로 들어오면 실격이 된다.

◦자기편 진영에서 넘어져도 무방하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5통이 되면 공격편이 이긴다. 또,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공격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2) 발걸음 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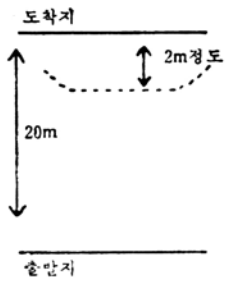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조 순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발작떠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주로 가을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의 빈 터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한 편에 2~3명씩 짜는 것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그림 207〉

◦편을 갈라 출발지에 나란히 선다. 이때, 같은 편끼리는 '한 몸'으로 움직인다.

◦'가위 바위 보'해서 이긴 편이 작정한 발걸음 수대로 도착지를 향해 간다. 가위로 이겼을 경우 5걸음, 바위로 이겼을 경우 20걸음, 보로 이겼을 경우 10걸음씩 간다. 이때, '가위 바위 보'는 그 편의 대표끼리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갔다가 출발지로 돌아온다. 먼저 출발지로 온 편이 목적지를 향해 뛰면, 아직 오지 못한 편(술레편)은 출발지로 뛰어와서 1부터 10까지 빨리 센 다음 도망가는 사람을 챈다. 이때, 술레편이 도망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채면 그 판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

◦도착지로 도망간 사람들은 그 선에 일렬로 손을 벌리고 서서 술레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때, 술레편이 와서 챌 수 없다.

◦술레편은 손 벌리고 서 있는 도착지의 앞 점선 부분까지 접근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다.

◦술레 아닌 편 사람이 "저기 버스 온다." 또는 "비행기가 날아 간다."등의 말을 하면, 술레편은 비행기가 날아 가는 하늘이나 버스가 오는 길을 쳐다본다. 이때, 술레 아닌 편은 출발지로 뛰어 간다. 술레는 재빨리 쫓아가서 채야 한다.

◦술레 아닌 편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출발지로 돌아오면 이긴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시작한다.

3) 꽃 단지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보자 : 조 순욱
인적 사항 :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점찍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봄·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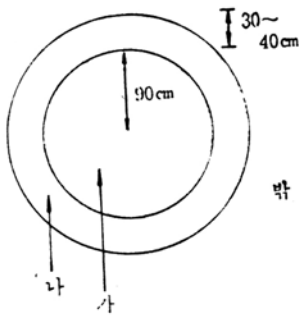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8명 이상이면 된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를 '이겼다 편'이라 함〕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이를 '졌다 편'이라 함〕은 수비를 한다.



〈그림 208〉

◦공격편은 안의 원 '가'안에, 수비편은 바깥 원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원 '가'안에 있다가 수비땅을 한 번 밟고 밖으로 나온다. 이때, 수비편은 공격편이 못 나가도록 손으로 친다.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만약, 수비자의 수비때문에 공격편이 나가지 못해 놀이가 잘 안될 때에는, 수비편이 "그냥 찍고 나가"하고 말하면, 공격편이 그냥 나올 수 있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양 발로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큰 원과 밖에 양 다리를 걸치면서〔그림 209 참조〕원 안에 있는 다리로 땅을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수를 크게 센다.



〈그림 209〉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땅 둘레를 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다시 밖으로 도망가서 다니다가 또 수비편 몰래 찍는다. 이때, 수비자도 앙감질로 밖으로 쫓아나가 공격자를 칠 수 있다. 그러나,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이를 '열점'이라 한다.〕 밖으로 일단 나갔다가 원 '나'를 건너 뛰어 자기진영인 원 '가'안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들어갈 때, "이겼다."하고 소리친다.

◦공격자는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점을 찍어도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 점'이 되면 된다. 찍다가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공격자가 열 점을 찍고 원 '가'로 들어갈 때, 원 안에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옴싸'로 간주되어 공격편이 모조건 지게 된다.

◦수비편이나 공격편이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실격이 된 공격자가 장난으로 찍으면 수비편이 "옴싸"하고 말하면 공격편은 무조건 지게 된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이 '열 점'을 찍고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옴싸'가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4) 오징어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조순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지역에서 '오증하씨'로 불리는데, '오증'은 '오징어'의 와음이며 '하씨'는 '開戰'의 일본어 음에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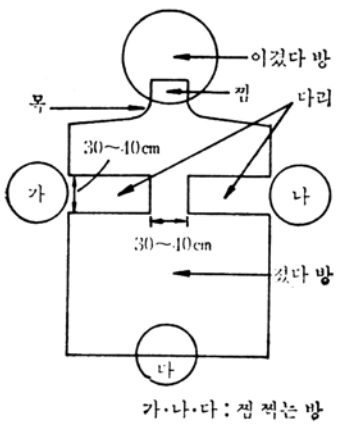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를 '이겼다 편'이라 한다.〕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이를 '졌다 편'이라 한다.〕은 수비를 한다.



〈그림 210〉

◦공격편은 '이겼다 방'에, 수비편은 '졌다 방'에 각각 들어간다.

◦공격편은 앙감질로 나와서 '찜찍는 방 다'로 들어가거나, 앙감질로 나와서 '다리'를 건넌 후 양 발로 걸어서 '찜찍는 방 다'로 간다. 이때, '찜찍는 방 가·나'에서 쉴 수 있다.

◦'찜찍는 방 다'에 간 공격자는 수비 진영의 '졌다 방'에 쳐들어가서 수비자를 잣히고 '찜'을 찍은 후 "이겼다"하면서 '이겼다 방'으로 들어가면 이긴다.

◦수비편은 '졌다 방'안에서 공격자를 방어하거나, '방' 밖으로 나와서 방어할 수 있다.

◦수비자가 밖으로 나올 때는 '찜찍는 방 다'를 밟고 나와 앙감질로 다녀야 한다. 앙감질로 다니다가 '목'을 뛰어 넘으면 양 발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공격자를 막을 수 있다.

◦'다리'나 '목'을 넘고 있는 상대편을 공격해서 쓰러뜨리거나 선을 밟게 할 수 있다. 이때, 쓰러지거나 선을 밟은 사람은 실격이 된다.

◦밖으로 나온 수비자가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찜찍는 방 다'를 밟고 가야 한다.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자기 진영인 '이겼다 방'에 들어갈 수 있으나, 수비자는 들어갈 수 없다.

◦'졌다 방'안에서 양편이 공격과 수비를 하다가 수비자가 넘어지면 무방하나, 공격자가

넘어지면 실격이 된다. 이때, 수비자나 공격자가 선을 밟거나 선 밖으로 밀려 나가면 실격이 된다.

◦ '이겼다 방'안에 있는 공격편이 수비자에 의해 끌려 나가거나, 수비자가 끌려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 '쩜찍는 방'에서는 서로 싸울 수 없다.

◦ '방'밖에 있는 공격자나 수비자가 넘어지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선 안으로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이겼다 방'안에 있는 공격편이 '찜'을 밟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자가 '찜'을 밟고 '이겼다 방'에 들어갈 때, 공격편 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이겼다 방'에 있으면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면 '옴싸'가 되어 그 판을 지게 된다.

◦ 공격편이 수비편을 모두 실격시키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찜을 밟고 '이겼다 방'으로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옴싸'되거나, 수비편이 공격편을 모두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5) 비석치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조순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돌차기〉와 비슷한 놀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놀이로서 조사 마을에서 '목자까기'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남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인원이면 가능하나, 인원이 너무 많으면 곤란하다. 약 4~6명이면 적당하며, 1 : 1로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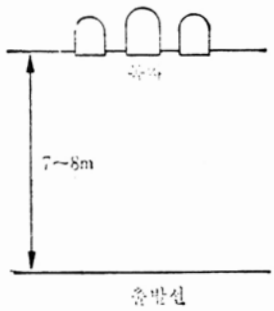
4) 놀이 용구 : 목자 1개씩—넓적하고 세울 수 있는 돌, 가로 10cm 세로 7cm 정도의 크기.

5)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공격 순서를 정한다.

◦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목자를 세운다.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그림 211〉

1. 던지기

출발선에서 목자를 던져 세워져 있는 상대편 목자를 쓰러뜨린다. 이때,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몫을 대신해 준다. 몫을 해주는 사람에 다 쓰러뜨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나, 몫을 못해주면 실격이 되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2. 한 번 띠기

출발선에서 목자를 한 발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한 걸음으로 뛰어서 밟는다. 이때, 밟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목자를 집어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편 목자를 쓰러뜨린다.

3. 두 번 띠기

출발선에서 목자를 두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두 걸음으로 뛰어서 밟는다. 목자를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편 목자를 쓰러뜨린다. 이때, 자기 목자와 상대편 목자가 겹치거나 붙거나, 또는 맞고 쓰러지지 않을 때 '비석'이라 하여 상대 목자를 비스듬히 놓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다.

4. 세 번 띠기

출발선에서 목자를 세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세 걸음으로 뛰어서 밟는다. 목자를 집은 다음, 그 자리에서 던져 상대 목자를 쓰러뜨린다.

5. 네 번 띠기

출발선에서 목자를 네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던져 놓고 앙감질로 네 걸음으로 목자 가까이 간다. 〔이때, 목자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그리고, 자기 목자를 발로 차서 상대 목자를 쓰러뜨린다.

6. 장님

출발선에서 목자를 상대 목자 가까이에 던져 놓고 눈을 감고 간 다음 더듬어 찾는다. 자기 목자를 찾은 다음 밀어서 상대 목자를 쓰러뜨린다.

위와 같은 방법과 순서로 '장님'까지 다하면 '한 판'을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판이 끝난다.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한다.

6) 팔자(八字)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조순옥
인적 사항 :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팔자 놀이〉의 변형〔원래 〈팔자 놀이〉는 S로 된 도형을 사용한다.〕으로, 조사 마을에서는 '팔자 오시아'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가을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략 6명 이상이면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술레 한 사람을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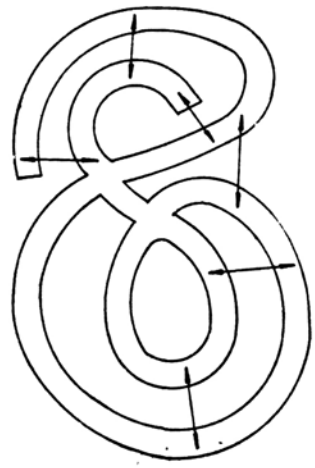
◦ 술레가 아닌 사람은 통로로 다니거나 통로와 통로를 건너 뛰어 도망다닐 수 있다.

◦ 술레는 통로만을 따라 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을 손으로 친다. 술레에게 채인 사람은 곧바로 술레가 된다

◦ 통로의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실격이 되어 술레가 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놀이를 계속한다.

* 그림의 화살표는 술레 아닌 사람이 뛰어 넘을 수 있는 곳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212〉

7) 새 발 뛰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7일

제 보 자 : 조순옥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물차기〉, 또는 〈사방놀이〉의 변형으로, 조사 마을에서는 '1도 2도'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여름

2) 노는 장소 : 시원한 넓은 곳

3) 놀이자 : 여자. 단 둘이서도 할 수 있고, 편을 나눌 때는 주로 2명씩 한다.

4) 놀이 용구 : 평평하고 넓적한 돌 1개. 이를 '목자'라 한다.

5) 놀이 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한다.

1. 1도

목자를 1도에 던진 다음 2도에서 7·8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보기 1과 같다.

보기 1 : 2도 ——→ 3도 ——→ 4·5도 ——→ 6도 ——→ 7·8도
(앙감질)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7·8도에서 뒤로 돌아 역순으로 2도까지 와서 목자를 집고 밖으로 나온다. 이때, 목자를

떨어뜨리거나, 던진 목자가 선에 닿거나, 또는 하는 사람이 선을 밟거나, 발동작이 틀리면 실격이 된다. 편을 짜서 할 경우 앞 사람이 실격되지 않고 성공하면 뒤 사람은 할 필요없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그러나, 앞 사람이 실격이 되면 뒤 사람이 해야 한다. 뒤 사람도 실패하면 상대편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나, 뒤 사람이 성공하면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2. 2도

목자를 2도에 던져 놓고 1도에서 7·8도까지 몸만 간다. 하는 순서와 발동작의 방법은 〈1도〉와 같다.

3. 3도

목자를 3도에 던진 다음 1·2도에서 7·8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보기 2와 같다.

보기 2 : 1·2도 ——→ 3도 ——→ 4·5도 ——→ 6도 ——→ 7·8도
(한 발씩 동시에) (건너 뜀)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7·8도에서 뒤로 돌아 역순으로 4·5도까지 와서 목자를 집은 다음 1·2도를 거쳐 밖으로 나온다.

4. 4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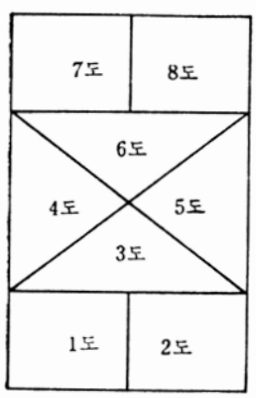
목자를 4도에 던진 다음 1·2도부터 7·8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보기 3과 같다.

보기 3 : 1·2도 ——→ 3도 ——→ (4도) ——→ 5도 ——→ 6도 ——→ 7·8도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가지 않음) (앙감질)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8·8도에서 뒤로 돌아 역순으로 5도까지 와서 목자를 집은 다음 3도와 1·2도를 거쳐 밖으로 나온다.

5. 5도

목자를 5도에 던져 놓고 1·2도에서 7·8도까지 몸만 간다. 그 다음의 하는 순서와 발동작은 〈4도〉와 같으나, 4도 (앙감질)에서 6도로 가는 것만 다르다.



〈그림 213〉

6. 6도

목자를 6도에 던져 놓고 1·2도에서 7·8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보기 4와 같다. 7·8도에서 뒤를 돌아 목자를 집고 역순으로 나온다.

7. 7도

목자를 7도에 던져 놓고 1·2도에서 8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보기 5와 같다. 8도에서 목자를 집고 역순으로 해서 밖으로 나온다.

보기 4 : 1·2도 ——→ 3도 ——→ 4·5도 ——→ 6도 ——→ 7·8도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건너뜀) (한 발씩 동시에)

보기 5 : 1·2도 ——→ 3도 ——→ 4·5도 ——→ 6도 ——→ (7도) ——→ 8도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한 발씩 동시에) (앙감질) (가지 않음) (앙감질)

8. 8도

목자를 8도에 던진 다음 1·2도에서 7도까지 몸만 간다. 이때의 발동작은 〈7도〉와 같다. 7도에서 목자를 집고 역순으로 해서 밖으로 나온다.

9. 애기 낳기

출발지에서 뒤로 돌아 머리 위로 목자를 던진다. 떨어진 곳에 자기편 표시를 하고 〈1도〉부터 다시 한다. 이때, 목자는 자기편 모두가 던진다. 던진 목자가 자기편이 표시한 칸에 떨어지면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선 위에 떨어지면 실격이 된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상대편 표시만 지우고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도〉부터 〈8도〉까지 다시 하는데,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에서는 목자를 던지지 않고 〔5도에 표시가 있을 경우에 〈5도〉는 생략한다.〕 그 칸은 양 발로 들어간다.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에서는 목자를 던지지도 않고 건너 뛴다.

모든 칸에 자기편이나 상대편 표시가 다 찼을 때는 던지기만 한다. 던진 목자가 상대편 땅에 떨어지면 그 표시를 지우고 계속하나, 자기편 땅에 떨어지면 자기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느 한 편의 표시가 다 찼을 때 판이 끝나게 된다.

18. 南面 夢山里의 藝能과 競技傳承

1) 뒷목자치기

조사일자 : 1987년 1월 8일
제 보 자 : 문 진숙(12세, 여, 국민학교 5년생)
주 소 :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 몽산리 2구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목자치기〉의 변형으로, 조사 마을에서 '깽깽이'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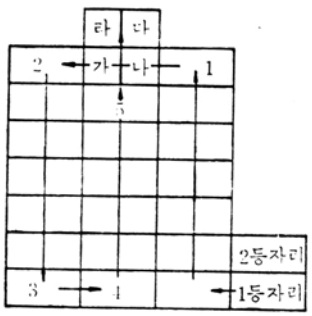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1 : 1로 둘이서 하거나, 2명씩 편을 짜서 하기도 한다.

4) 놀이 용구 : 넓적하고 작은 돌이나 사금파리 1개씩. 이것을 '목자'라고 한다.

5) 놀이 방법

◦ 먼저 하는 편 두 사람이 1등 자리·2등 자리에 들어간 다음 1등부터 시작한다. 2등은 제 자리에 서 있는다. 1 : 1로 둘이서 할 때에는 2등 자리가 필요없다. 한 편에 3명씩 할 경우에는 3등 자리를 하나 더 그린다.



(2명씩 할 경우)

〈그림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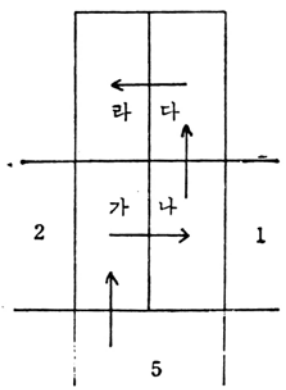
◦ 목자를 들고 앙감질로 ↑표의 '1'까지 간다.

◦ '1'에서 '가·나'칸을 앙감질로 뛰어 넘은 후 '2'에서 ↓표의 '3'까지 간다.

◦ '3'에서 앙감질로 '4'를 거쳐 ↑표 방향의 '5'까지 간 다음 '가·나'칸에 한 발씩 동시에 놓는다. (가에 왼발, 나에 오른발) 1 : 1로 할 경우, '가·나'칸에서 목자를 던진다. 그러므로, '다·라'칸이 필요없다.

◦ '가·나'칸에서 '라·다'칸으로 들어간 후 그 상태로 서있는다. 그러면, 2등 자리에 서 있던 자기편이 똑같은 방법으로 '가·나'칸까지 간다.

◦ '가·나'칸에 있는 사람은 앉고, '라·다'칸에 있는 사람이 목자를 머리 위로 해서 뒤로 던진다. 이때,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선 위에 떨어지면 실격이 된다. 앞에 던진 사람이 실격이 되면 뒷사람이 던지는데, 실격이 되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성공하면 처음 출발했던 자기 자리가 돌아온 후, 실격이 된 사람의 몫을 해 준다. '라·다'칸까지 가는 방법은 앞과 같으나 '가·나'칸과 '라·다'칸을 그림 215처럼 한 칸씩 앙감질로 가야 한다. '가'칸→'나'칸→'다'칸→'라'칸으로 가서 '라'칸에서 목자를 던진다. 목자가 자기편 표시가 있는 곳에 떨어지면 그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이때,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 간다.〕 목자가 바르게 떨어지면 역순으로 출발했던 자기 자리까지 앙감질로 돌아오면, 실격이 된 사람도 살게 된다. 〔돌아오는 방법은 뒤와 같다.〕



〈그림 215〉

◦ '가·나'칸에 있던 사람은 뒤로 돌아 역순으로 나오는데 자기 목자가 떨어진 칸의 앞 칸까지 앙감질로 와서 한 손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목자를 집고 그 칸에 자기편 표시를 한다. 이때, 목자를 떨어뜨리거나 잡을 때 움직이면 실격이 된다.

◦ 목자를 들고 자기편 표시가 된 칸은 뛰어 넘어 앙감질로 처음 출발했던 자기 자리까지 되돌아 온다.

◦ 다시 할 때는 앞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하는데, 자기편 표시가 있는 곳은 양 발로 들어가고, 상대편 표시가 있는 칸은 뛰어 넘으며 나머지 칸은 모두 앙감질로 간다.

◦ 목자를 던질 때, 자기편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빵했다."고 해서 자기 표시를 지우고 실격이 된다. 남의 표시가 있는 칸에 떨어지면, "빵시켰다."고 해서 그 표시를 지우고 자기는 실격이 된다.

◦ 상대편이 표시한 칸이 여러 개〔세 칸이상〕 연접해 있어 뛰어 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옮겨 달라."고 요구한다. 옮길 때는 연접해 있는 칸 중 가운데 그 하나를 옮겨 달라는 편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 준다. 그러나, 옮겨 줄 곳이 없으면 그 판이 끝나게 된다.

◦ 앙감질로 가다가 양 발이 땅에 닿거나 선을 밟거나 또는 발동작이 틀릴 경우 실격이 된다.

2) 꽃단지

조사일자 : 1987년 1월 8일
제 보 자 : 문 진숙
인적 사항 :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빵 두 개'로 불린다.

1) 노는 시기 : 겨울

2) 노는 장소 : 넓고 평평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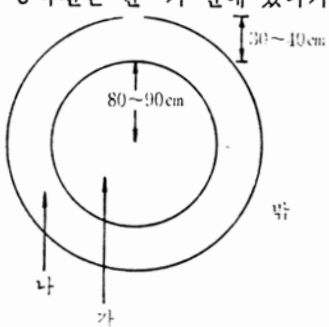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나,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나, 10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 편을 갈라,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 공격편은 안의 원 '가'안에, 수비편은 바깥 원 '나'안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원 '가'안에 있다가 바깥 원의 선을밟고 나가거나 건너 뛰어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공격편이 원 '나'를 밟으면 실격이 된다. 수비편은 공격편이 못 나가도록 손으로 친다. 수비편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림 216〉

◦ 밖으로 나온 공격자는 앙감질로 자유롭게 다니다가 수비자 몰래 원 '나'의 선을 한 다리로 찍는다. 이때 발로 찍으면서 수를 크게 센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찍지 못하도록 자기 진영의 둘레를 돌아 다니면서 손으로 쳐야 한다.

◦공격자는 찍다가 수비자가 치려고 하면 안의 원으로 도망가거나 밖으로 도망가서 앙감질로 다니다가 다시가서 수비자 몰래 찍는다. 이때, 수비자도 앙감질로 밖으로 나가 공격자를 쫓아다니면서 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열 번을 찍고 공격편 진영인 원 '가'로 들어가면 이긴다. 들어갈 때 "찐"하고 소리친다.

◦공격편은 한 차례에 계속해서 열 번을 찍을 수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러 차례 찍어 찍은 수의 합이 '열 번'이 되면 된다.

◦앙감질로 다니던 사람이 양 발을 땅에 대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과 수비편이 원의 선을 밟으면 실격이 되나, 공격편의 경우 바깥 원 '나'의 선을 밟을 수 있다.

◦수비편 모두가 실격이 되거나,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열 번'을 찍고 들어가면 공격편이 이긴다.

◦공격편 모두가 실격이 되면 수비편이 이긴다.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시작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다.

3) 열 발 놀이

조사일자 : 1987년 1월 8일
제 보 자 : 문 진숙
인적 사항 앞과 같음
특기 사항 :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열 발 가상'으로 불린다. 놀이 방법은 '일곱 발 놀이'와 비슷하다.

1) 노는 시기 : 일정하지 않음

2) 노는 장소 : 넓은 곳이나 논밭 빈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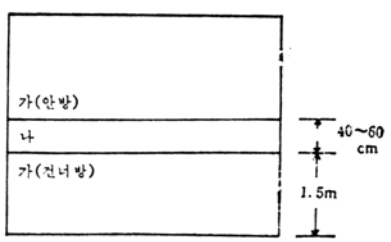
3) 놀이자 : 남자 여자 모두 하며,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한 8명 이상이라야 적당하다.

4) 놀이 방법

◦편을 갈라 이긴 편이 공격을 하고 진 편이 수비를 한다.

◦공격편은 '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안방'으로 삼는다. 따라서, 다른 칸은 '건너방'이 된다.

◦공격편은 '안방'에, 수비편은 '안방'과 '건너방'



〈그림 217〉

사이에 각각 들어간다.

- 공격편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직접 뛰어 넘는다. 또는 안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건너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열 발'만에 들어가야 한다. '열 발'을 못 채우거나 넘으면 실격이 된다.
- 공격편은 나칸에 있는 수비편을 피해서,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안방으로의 왕복을 5번 하면 이긴다.
- 수비편은 공격자가 직접 넘지 못하도록 치거나, 공격자가 밖으로 나갔을 때 공격자를 치러 따라 나갈 수 있다. 수비자에게 채인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수비편은 '네 발'만에 나가서 '네 발' 또는 '세 발'만에 나칸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이때 정해진 '발' 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넘으면 실격이 된다. 선을 밟아도 실격이 된다.
- 공격편 중 한 사람이라도 5번 왕복하면 공격편이 이긴다.
- 수비편이 공격편 모두를 실격시키면 수비편이 이긴다.
- 공격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지 않고 다시 한다. 수비편이 이겼을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 다시 한다.

*** 일곱 발 놀이**

이 놀이는 조사 마을에서 '일곱 발 놀이'로 불린다. 하는 방법은 '열 발 놀이'와 같으나 밖으로 나갔다 들어갈 때의 '발'수가 다르다. 즉, 공격자는 '일곱 발'로 나갔다가 '일곱 발'만에 들어가야 하며, 수비자는 '네 발'로 나갔다가 '네 발'만에 들어가야 한다.

4) 자치기

조사일자 : 1976년 1월 8일
제보자 : 문 제철(67세, 남, 국졸, 농업)
주소 : 충청남도 서산군 남면 몽산리 2구

1) 노는 시기 : 가을·겨울
2) 노는 장소 :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
3) 놀이자 : 남자 대진할 수 있는 인원이면 가능하다.
4) 놀이 용구 : 꼬들때기때, 자치때
가. 꼬들때기때 : 15cm 정도의 나무 토막
나. 자치때 : 50cm 정도의 막대. 이 자치때의 길이를 '한 자'로 친다.
5) 놀이 방법

자치기에는 '자치기'와 '왜자치기'의 두 종류가 있다.

가. 자치기

이 놀이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긴 편은 공격을 하고 진 편은 수비를 한다. 공격편이 한 번이라도 실격을 하면 공격권이 상대편에게 넘어간다. 시작하기 전에 '몇 자 내기'를 정하는데, 보통 '천 자 내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 놀이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 걷어 내기와 땡공치기 및 토깽이 순서로 한다.

◇ 걷어 내기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길쭉하게 판 다음 그 위에 꼬들때기때를 가로로 놓는다. 그리고는 자치때로 걷어 올려서 날린다. 이때, 수비편이 꼬들때기때를 받으면 공격자는 실격이 되나, 받지 못하면 구멍을 향해 꼬들때기때를 던진다. 공격자는 수비편이 던진 꼬들때기때를 되받아 치는데 〔야구처럼〕, 맞히지 못하고 헛손질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던진 꼬들때기때가 구멍에 들어가거나 구멍과의 거리가 1자 이내면 실격이 된다. 구멍과 꼬들때기때의 거리가 1자 이상이거나 되받아 쳤을 경우, 꼬들때기때가 떨어진 곳과 구멍과의 거리를 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거리를 잴 때에는 자치때로 재는데, 한 자, 두 자 등의 '자'로 계산한다. 그러나, 자치때로 거리를 일일이 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 따라서, 공격자가 눈짐작으로 잣수를 부를 수 있다. 이때, 수비편이 잣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재봐"하고 말한다. 만약, 재서 잣수가 부족하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그러나, 재서 잣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공격자의 점수에 가산된다. 수비편이 잣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먹어"하고 말한다. 그러면, 공격자는 자기가 부른 잣수를 점수에 가산한다.

◇ 땡공치기

구멍을 밟고 서서 한 손에 꼬들때기때와 자치때를 동시에 든 다음 꼬들때기때를 던진 다음 자치때로 쳐 날린다. 수비편이 받거나 꼬들때기때를 치지 못하면 실격이 된다. 공격편이 쳐 날린 꼬들때기때를 받을 수도 있다. 받지 못하면, 구멍과 꼬들때기때가 떨어진 곳과의 거리를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 토깽이

구멍 안에 꼬들때기채를 비스듬히 세운 다음 자치때로 꼬들때기채의 끝을 쳐서 띄운다. 그리고, 공중에서 다시 쳐서 날린다. 이때, 수비편은 날아가는 꼬들때기때를 잡을 수 있다. 수비편이 꼬들때기때를 잡으면 공격자는 실격이 된다. 만약, 공격자가 꼬들때기때를 치지 못해도 실격이 된다.

구멍과 꼬들때기때가 떨어진 곳과의 거리를 자치때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나. 왜자치기

땅에 그려 놓은 원 안에 서서 한손에 꼬들때기때를, 또 한 손에 자치때를 든 다음, 자치때로 꼬들때기때를 쳐서 날린다. 수비편은 날아오는 꼬들때기때를 잡아야 하는데, 잡지 못

하면 멀어진 꼬들때기때를 주워서 구멍 쪽으로 던진다. 이때, 꼬들때기때가 구멍 안에 들어가면 실격이 된다.

땅에 떨어진 꼬들때기때의 끝을 자치대로 쳐서 공중에 띄운 다음 다시 자치대로 쳐 날린다. 이런 동작을 세 번 한다. 이때, 땅을 치거나 헛치면 무효가 되며 세 번 모두 무효가 되면 실격이 된다. 그리고, 구멍과 꼬들때기때가 떨어진 곳까지의 거리를 자치때로 재서 점수에 가산한다.

瑞山民俗月曆

1月 1일(설날) : 차례(茶禮), 세배, 성묘
정　　초 : 복조리, 덕담, 당제, 안택고사, 홍수매기,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종경도놀이
입　　춘 : 입춘첩
15일(대보름·상원) :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용알뜨기, 더위팔기, 모깃불, 두더쥐방아, 달불이(月滋), 볏가리 세우기, 농악, 달맞이, 달점(月占), 불놀이
16일(귀신날) : 야광귀

2月 1일(일꾼의 날) : 볏가리 털기, 콩볶기,
6일　　: 좀생이보기
월내(月內) : 장 담그기

3月 3일(삼짇날) : 불공
한　　식 : 성묘

4月 8일(불탄일) : 불공

5月 5일(단오) : 이슬받기, 그네뛰기, 씨름

6月15일(유두) : 유두천신, 유두제(流頭祭)

7月 7일(칠석) : 칠성제
15일(백중) : 일꾼의 날

8月15일(추석) : 차례, 성묘

9月 9일(중구) : 중구차례(重九茶禮)

10月 월내(月內) : 시향(시제), 성주고사, 천신제, 김장

11月 동　　지 : 동지팥죽, 메주쑤기

12月 그　　믐 : 묵은세배(舊歲拜), 수세(守歲)

瑞山民俗關係文獻目錄

韓汝賢, 湖山錄, 1619

瑞山邑誌, 1872

泰安邑誌, 1872

海美邑誌, 1872

瑞山邑誌, 1899

泰安邑誌, 1899

海美邑誌, 1899

李敏寧, 瑞山郡誌, 瑞山郡, 瑞山, 1926

한명수, 瑞山大觀, 瑞山鄕土硏究所, 瑞山, 1970

瑞山郡誌, 忠南鄕土硏究所, 1975

憬夷誌, 1975

金泰坤, 瑞山地域巫經(韓國巫歌集 Ⅱ, 集文堂), 서울, 1976

金顯龜, 스산의 숨결 1~, 瑞山文化院, 瑞山, 1984~

최주연. 효자와 목마 1, 서산문화원, 서산, 1985

_____, 효자와 목마 2, 〃 〃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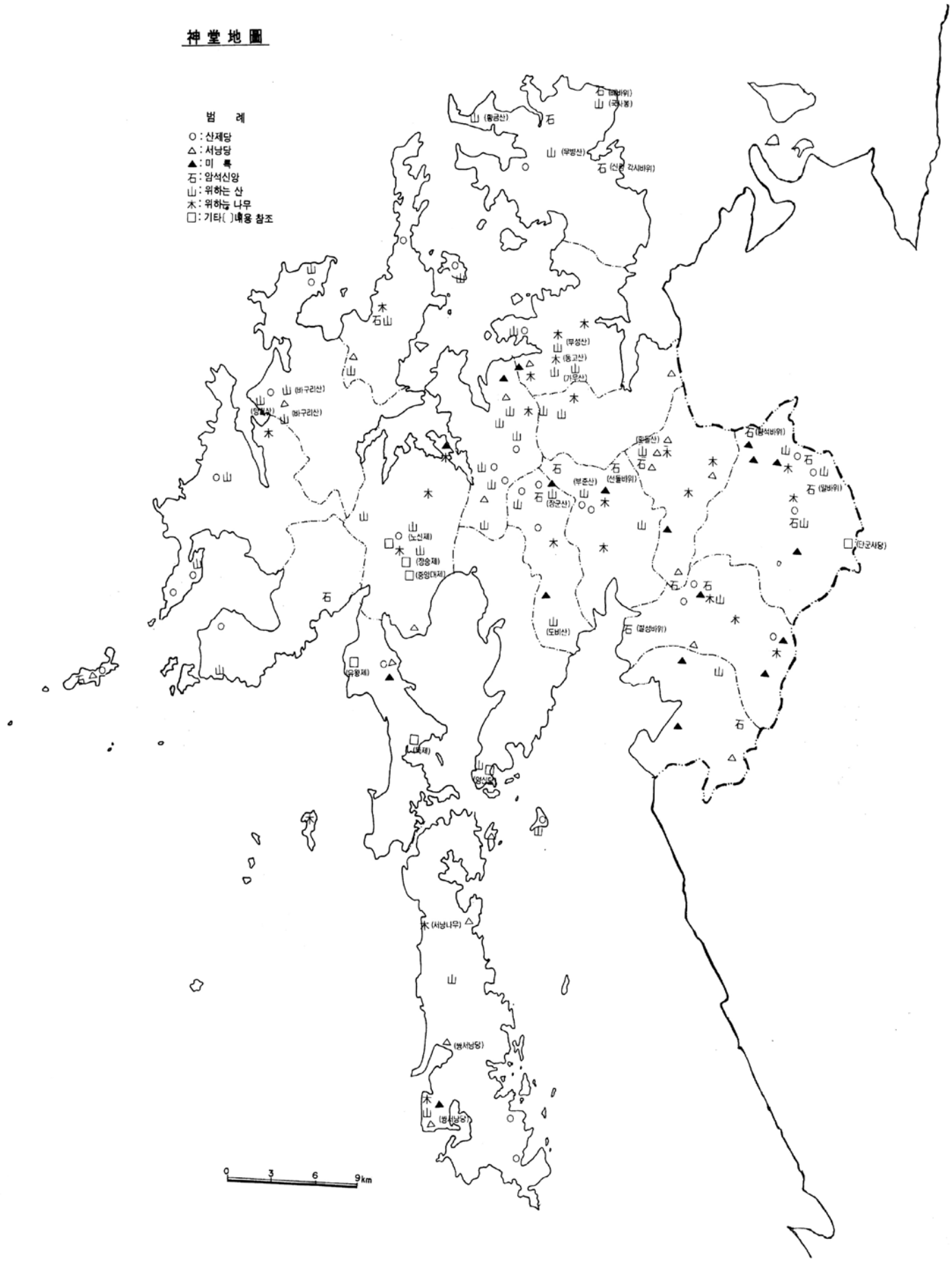
_____, 효자와 목마 3, 〃 〃 1987

朴春錫, 瑞山의 歷史, 泰安女商鄕土硏究所, 泰安, 1986

_____, 瑞山의 民俗, 〃 〃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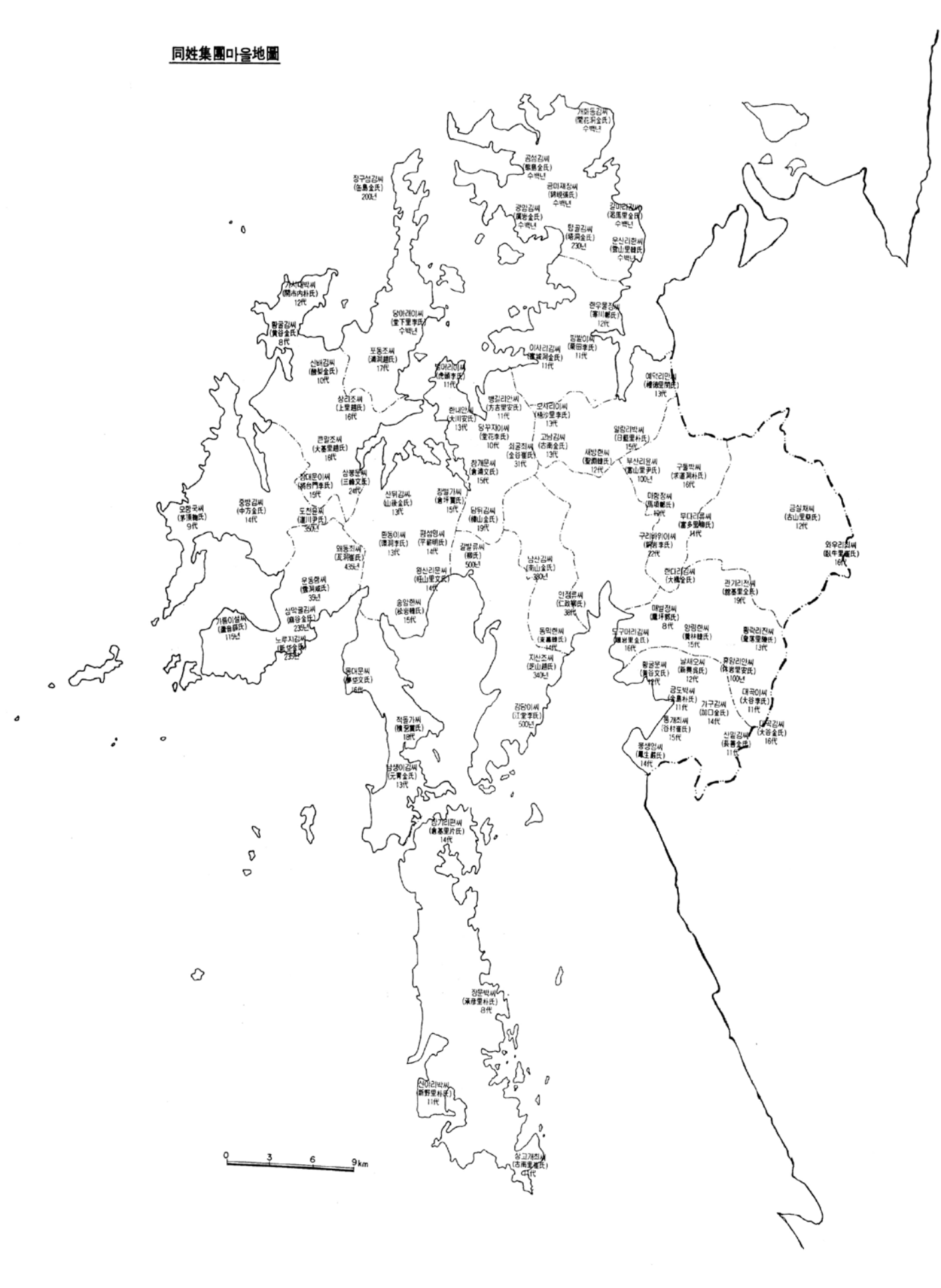
_____, 瑞山의 傳說, 〃 〃 1987

神堂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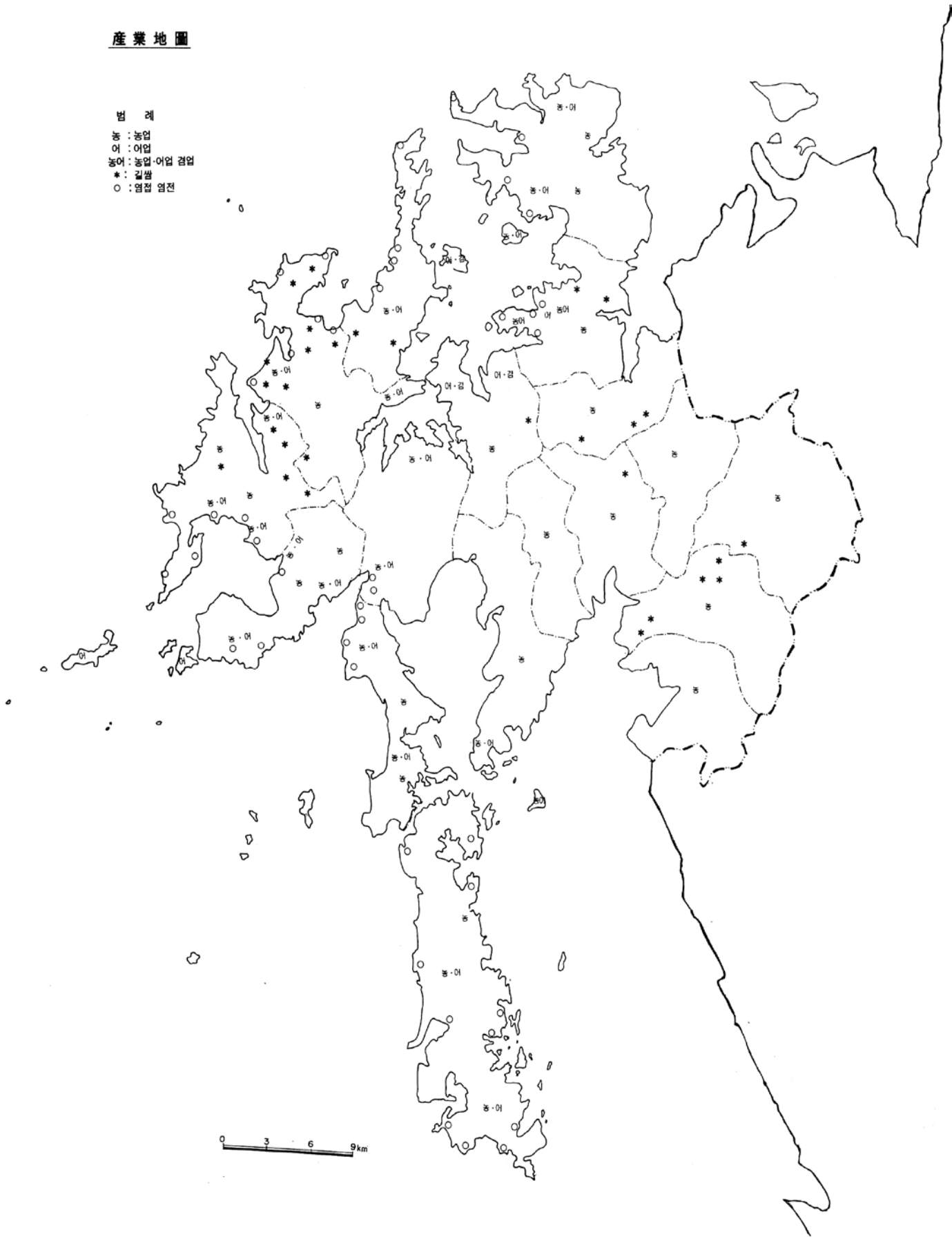
범 례
○ : 산제당
△ : 서낭당
▲ : 미 륵
石 : 암석신앙
山 : 위하는 산
木 : 위하는 나무
□ : 기타[ ]내용 참조
(황금산)
(무방산)
(신령 각시바위)
(무성산)
(동고산)
(가무산)
(바구리산)
(바구리산)
(동동산)
(부준산)
(선돌바위)
(장군산)
(노신제)
(장승제)
(중앙대제)
(도비산)
(절성바위)
(단군사당)
(유왕제)
(서낭나무)
(병서낭당)
(병서낭당)
0 3 6 9km

同姓集團마을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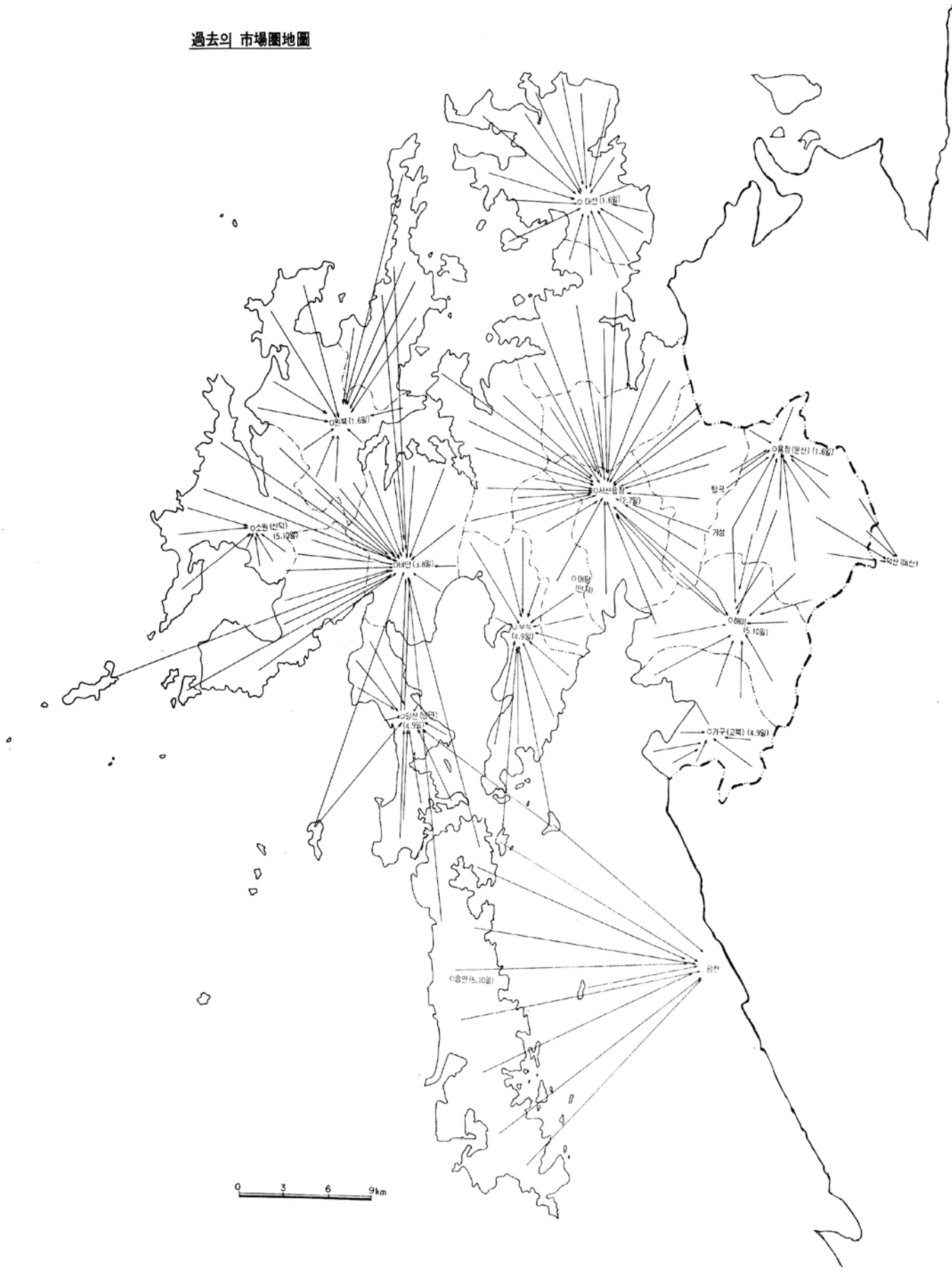


개화동김씨 (開花洞金氏) 수백년
공성김씨 (鰲島金氏) 수백년
공미재장씨 (錦峴張氏) 수백년
장구성김씨 (缶島金氏) 200년
광암김씨 (廣岩金氏) 수백년
갈마리김씨 (渴馬里金氏) 수백년
탑골김씨 (塔洞金氏) 230년
운산리한씨 (雲山里韓氏) 수백년
가서대박씨 (開市內朴氏) 12代
황골김씨 (黃谷金氏) 8代
당아래이씨 (堂下里李氏) 수백년
한우물정씨 (寒川鄭氏) 12代
포동조씨 (浦洞趙氏) 17代
이사리김씨 (鷹城洞金氏) 11代
팀밭이씨 (栗田李氏) 11代
신배김씨 (醴梨金氏) 10代
범마리이씨 (虎頭李氏) 11代
예덕리만씨 (禮德里閔氏) 13代
상리조씨 (上里趙氏) 16代
한내안씨 (大川安氏) 13代
병길리안씨 (方吉里安氏) 11代
오사리이씨 (梧沙里李氏) 13代
당꾸지이씨 (堂花李氏) 10代
고남김씨 (古南金氏) 13代
일림리박씨 (日藍里朴氏) 15代
큰말조씨 (大基里趙氏) 16代
쇠골정씨 (金谷崔氏) 31代
새방한씨 (聖廟韓氏) 12代
부산리윤씨 (富山里尹氏) 100년
구물박씨 (求道洞朴氏) 16代
창개문씨 (倉浦文氏) 15代
장대문이씨 (將台門李氏) 15代
삼봉문씨 (三峰文氏) 24代
산뒤김씨 (山後金氏) 13代
장벌가씨 (倉坪賈氏) 15代
마함정씨 (馬頃鄭氏) 19代
모항국씨 (茅頂鞠氏) 9代
중방김씨 (中方金氏) 14代
도천윤씨 (道川尹氏) 350년
담뒤김씨 (樟山金氏) 19代
부다리류씨 (富多里柳氏) 14代
금실채씨 (古山里蔡氏) 12代
환동이씨 (環洞李氏) 13代
평성영씨 (平蔡明氏) 14代
구리바위이씨 (銅岩李氏) 22代
왜동죄씨 (瓦洞崔氏) 435년
갈발류씨 (柳氏) 500년
남산김씨 (南山金氏) 380년
와우리죄씨 (臥牛里崔氏) 16代
운동현씨 (雲洞城氏) 39년
왕산리문씨 (旺山里文氏) 14代
한다리김씨 (大橋金氏)
관기리전씨 (館基里全氏) 19代
송암한씨 (松岩韓氏) 15代
인정류씨 (仁政柳氏) 38代
매발정씨 (鷹坪鄭氏) 8代
삼막골김씨 (麻谷金氏) 235년
기름이설씨 (蘆音薛氏) 115년
노루지김씨 (瓶坐金氏) 235년
동막한씨 (東幕韓氏) 14代
도구머리김씨 (鐵岩里金氏) 16代
양림한씨 (黃林韓氏) 15代
황락리진씨 (皇落里陳氏) 13代
지산조씨 (芝山趙氏) 340년
황골문씨 (黃谷文氏) 12代
날새오씨 (新興吳氏) 12代
유암리안씨 (休岩里安氏) 100년
용대문씨 (夢坐文氏) 16代
금도박씨 (金島朴氏) 11代
대곡이씨 (大谷李氏) 11代
김담이씨 (江堂李氏) 500년
가구김씨 (加口金氏) 14代
적돌가씨 (積亞賈氏) 18代
동개죄씨 (谷村崔氏) 15代
대곡김씨 (大谷金氏) 16代
신밭김씨 (長善金氏) 11代
봉생임씨 (鳳生嚴氏) 14代
남생이김씨 (元青金氏) 13代
장기리편씨 (倉基里片氏) 14代
장문박씨 (涿彦里朴氏) 8代
신아리박씨 (新野里朴氏) 11代
상고개죄씨 (古南里崔氏) 11代
0 3 6 9km

産業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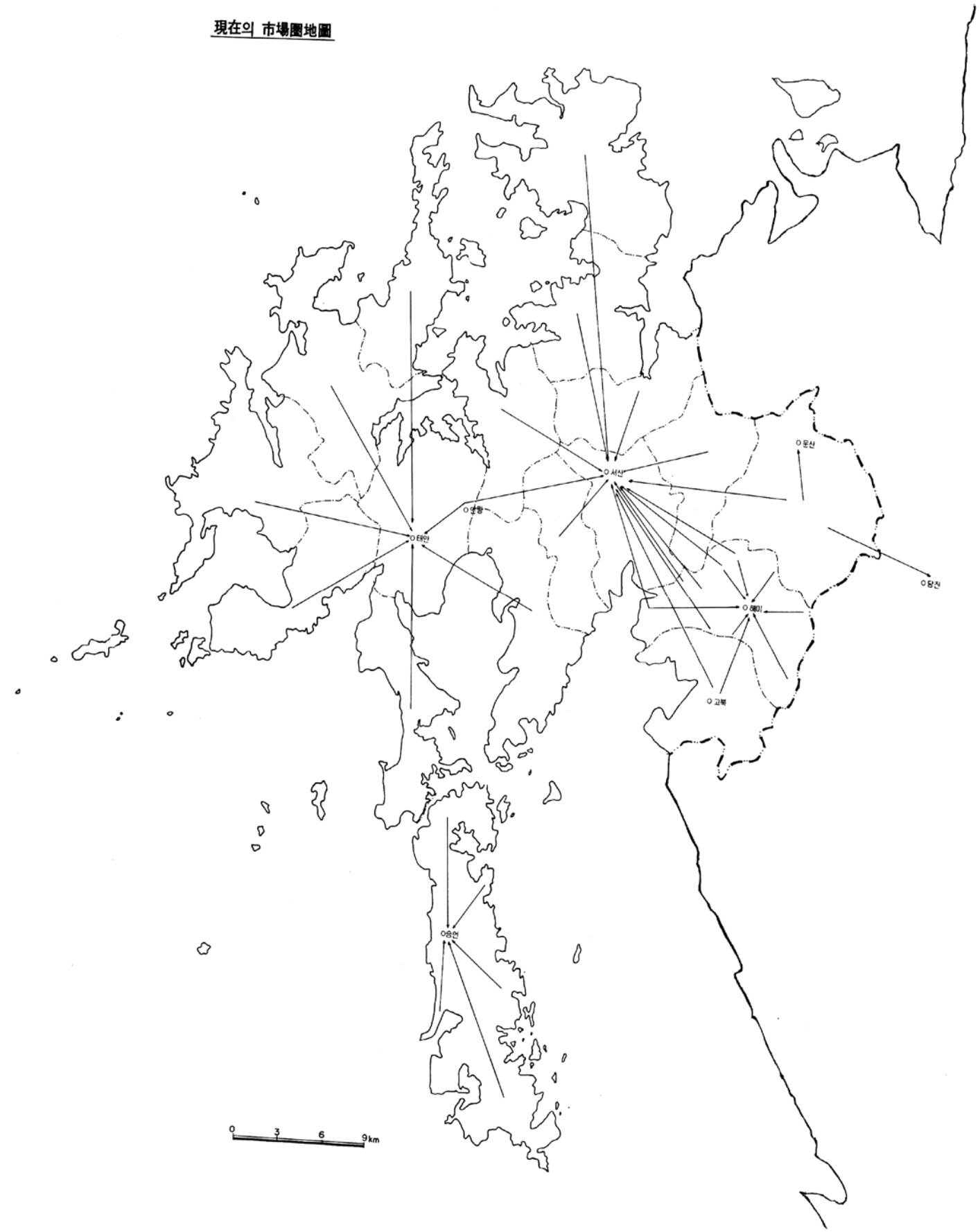


過去의 市場圈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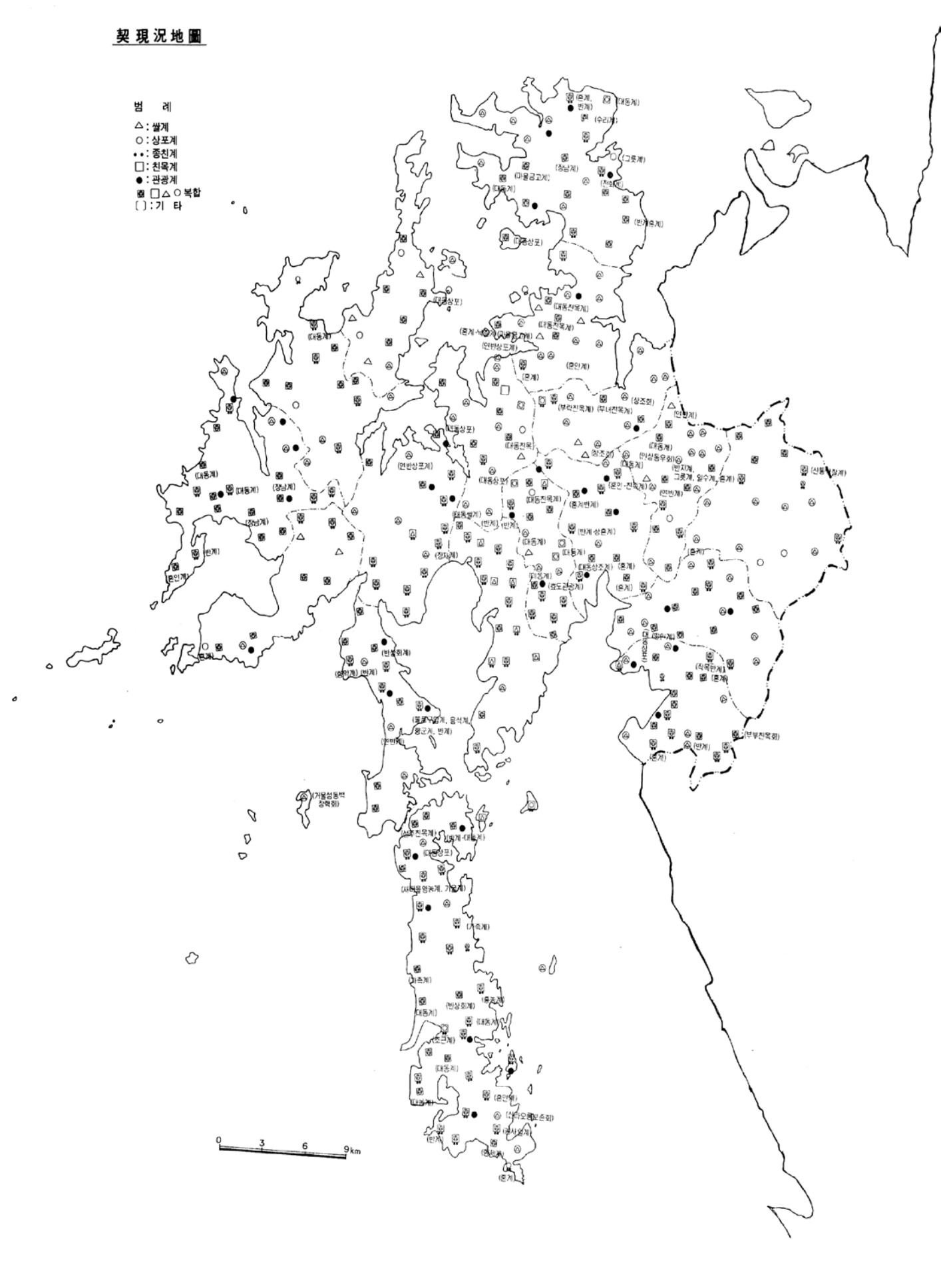


대산 (1.6일)
원북 (1.6일)
서산읍장 (2.7일)
용장(운산) (1.6일)
탑곡
거성
소원 (신덕) (5.10일)
태안 (3.8일)
덕산 (대산)
아당 (인지)
부석 (4.9일)
해미 (5.10일)
당선 (남면) (4.9일)
가구(고북) (4.9일)
공전
승언 (5.10일)
0 3 6 9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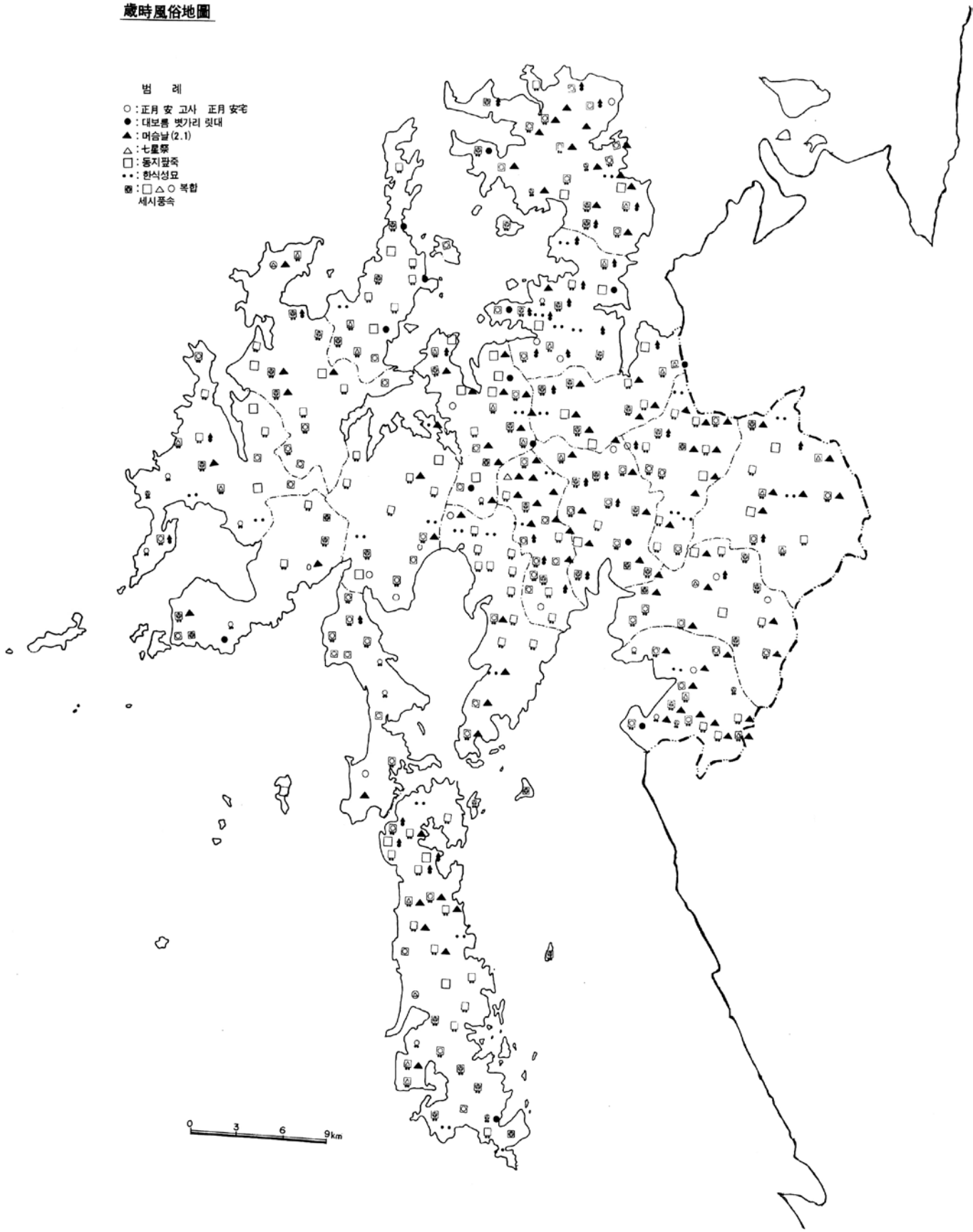
現在의 市場圈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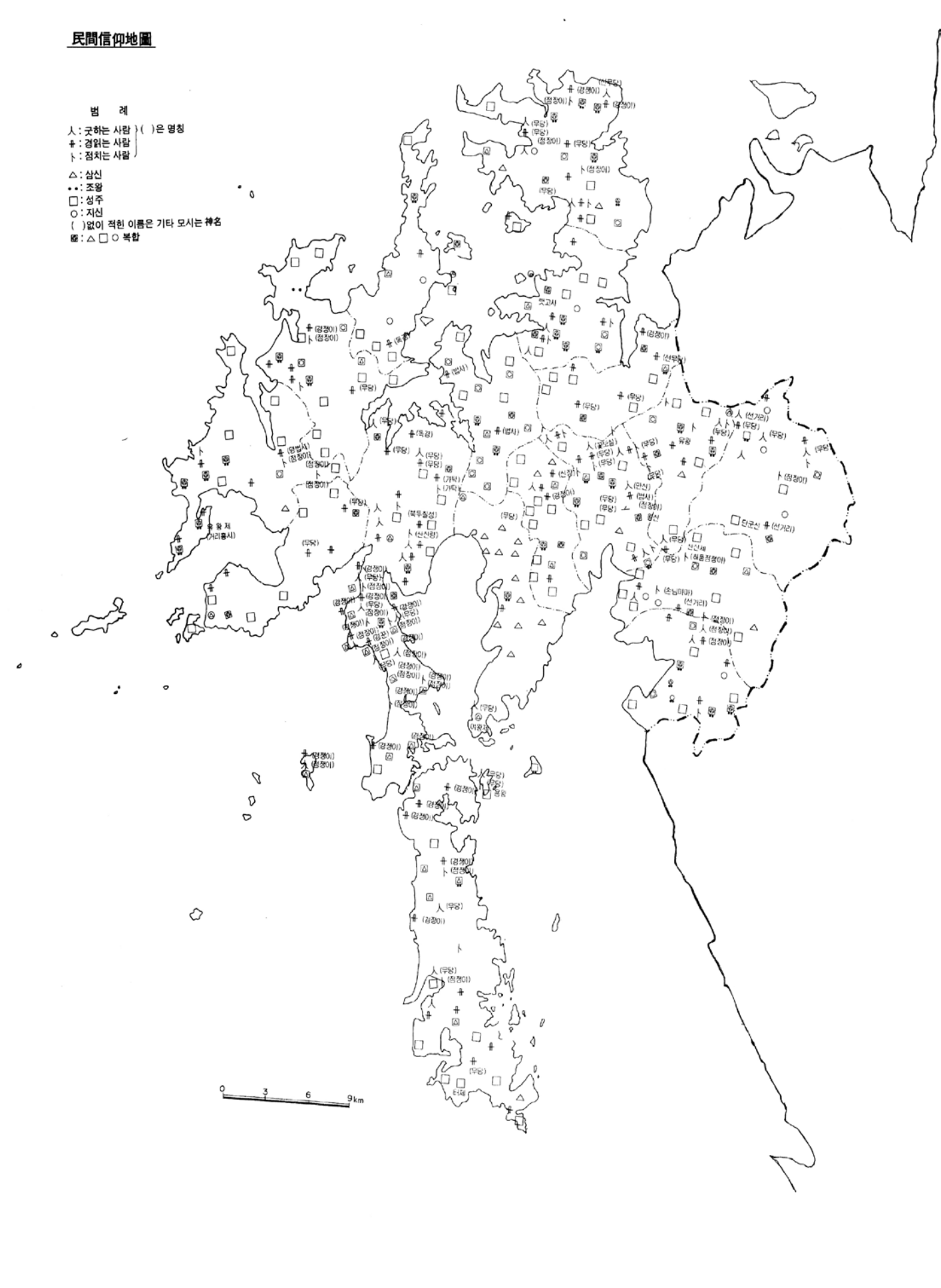
契現況地圖



歲時風俗地圖



民間信仰地圖


범 례
人 : 굿하는 사람 } ( ) 은 명칭
卄 : 경읽는 사람
卜 : 점치는 사람
△ : 삼신
•• : 조왕
□ : 성주
○ : 지신
( )없이 적힌 이름은 기타 모시는 神名
▨ : △ □ ○ 복합
0 3 6 9km

傳說地圖



이 책의 소유권은 서산문화원에게만 있습니다.

瑞山民俗誌(下)

초판1쇄 인쇄　1991년 11월　1일
초판1쇄 발행　1991년 11월 10일
초판2쇄 인쇄　2005년　4월　1일
초판2쇄 발행　2005년　4월 20일
발행인 : 원장 신상찬

발행처 : 瑞山文化院
편집인 : 慶熙大學校 民俗學硏究所
인　쇄 : 컬처플러스(02-2264-9028)

(上·下 1帙 定價　60,000원)

